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0.txt

제목: 50대 대장암 주의! 정기적 대장내시경 검사 받아야…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610016495851  
본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5.53%로 나타났다. 대한암협회도 최근 한국인의 대표사망원인인 암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2014년의 3대 이슈 암 종으로 위암과 폐암 그리고 대장암을 선정했다.<br/><br/>특히 대장암의 경우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음주, 가족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한국인들에게 더욱 취약하다.&nbsp;50대 이후 발병률 역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암건진 프로그램은 50대부터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한국대장항문학회에서는 50세 이상부터 5년에 1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br/><br/>대장암은 이른바 ‘소리없는 암’ 중 하나로,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nbsp; 대장암의 증상인 혈변이나 복통이 발생했다면 이미 암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50대의 경우 스트레스와 비만, 주 3회 이상의 잦은 음주, 흡연 등 대장암 발병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요인이 대장 용종인데, 대장 용종은 내시경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br/><br/>은평연세병원 오소향 원장은 6일 “50대부터 대장암 내시경이 필수인 이유는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기간이 5년 안팎이기 때문"이라며&nbsp;"따라서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고 대장암의 주요 원인인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br/><br/>오 원장은 이어&nbsp;“<span class='quot1'>50대 이상은 용종제거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주나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은 반드시 개선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올바른 배변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용종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장내시경 검사로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span>”고 덧붙였다.<br/><br/>은평연세병원에 따르면 대장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대장 용종은 대장 내시경으로 발견함과 동시에 용종을 떼어내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효과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술이므로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기적 검진을 받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br/><br/>은평연세병원은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검진부터 치료 및 수술까지 가능한 원 스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센터와 종합건강검진센터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역거점 병원으로 발돋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1.txt

제목: [‘건강도약 2015’ 인터뷰](8)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6100000049  
본문: 국내 암 발생률 7위(남자 5위)인 전립선(샘)암은 일찍 발견하면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순한 암’이다. 하지만 다른 부위로 전이될 경우 5년 생존율이 30%대로 뚝 떨어진다. 전이율은 10명 중 1명꼴이다. 전립선암은 남성에게만 발생하지만 미국에서 전체 1위(2위 유방암), 영국에서 전체 2위(1위 유방암) 등 구미 지역에서 발생률이 특히 높다.<br/><br/>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비뇨기과 교수(53)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전립선암은 10대 암 중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은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초기여도 빨리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 데다 늦게 발견하면 전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향후 10년 이내에 한국도 전립선암이 남자에서 1~2위 암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span>”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br/><br/><br/>▲ 완치율 95%에 경각심 떨어져… 육류보다 채소류 섭취 늘려야<br/><br/>- 전립선암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br/><br/>“현재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육류나 지방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게 될 경우(서구식 식사) 그 위험성이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유전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계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1명 있으면 2.5배, 2명인 경우 5배, 3명이면 11배로 발병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성도 높아지죠. 흡연이나 알카라인 건전지·카드뮴 노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br/><br/>- 전립선암의 완치율이 높아 그런지 경각심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br/><br/>“2012년 국가 암등록통계를 보면 5년 생존율이 92.3%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70%를 넘지 못했어요. 1990년대 중반에는 50%대였고요. 치료 성적이 급격히 높아진 데는 조기검진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전립선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로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일반뇨 검사, 요배양 검사, 직장수지 검사 및 경직장 초음파 검사, 요류속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용이한 진단법들입니다. 이 검사들을 바탕으로 감별이 필요한 경우 전립선 생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초기 전립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러한 진단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br/><br/>- 전립선암은 늦게 발견하면 사망률도 높아지지만 환자들의 장기 생존에 따른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br/><br/>“암이 진행됨에 따라 요도의 압박이나 요로폐색이 발생하고 척추나 골반 뼈로 전이될 경우 통증이나 마비와 같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 검사 및 뼈스캔 검사를 통해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 여러 치료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등을 5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검진에 필수항목으로 포함시킨다면 암 조기발견과 함께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br/><br/>- 조기 진단 및 예방법을 알려주시죠.<br/><br/>“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매년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및 직장수지 검사를 통해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어 암 위험성이 높으면 40대부터 꾸준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려면 과일·채소류를 많이 먹고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관리와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br/><br/>- 최신 수술 및 치료법의 장단점을 평가한다면.<br/><br/>“전립선암 수술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복강경 수술로 나뉩니다. 최근 도입된 로봇 수술은 골반 깊숙이 위치한 전립선을 수술하는 데 유용합니다. 개복 수술과 비교하면 통증과 출혈량이 적고 수술 후 요실금과 발기부전 빈도를 낮추고 회복속도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이나 생존율의 이득은 개복 수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단점은 연구결과에 따라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br/><br/>- 일부에서 전립선암의 조기검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br/><br/>“비단 전립선암뿐 아니라 다른 암도 조기검진의 무용론이 종종 나옵니다. 2011년 미국예방의학태스크포스에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을 낮추지 않을뿐더러 검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PSA 수치는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급성 요폐, 전립선 허혈 등에 의해서도 상승합니다. PSA 수치가 올라갈 경우 전립선 생검까지 하는 데 따른 감염 위험성이나 비용 부담 역시 생각해야 하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PSA 선별검사가 보편화된 이후 전립선암의 치료성적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조기진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이 실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br/><br/>-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투병 중인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br/><br/>“암 진단을 받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질병의 경과 및 결말을 미리 예측하는 것)가 좋은 편입니다. 또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수술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서도 큰 불편함 없이 전립선암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치료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필요합니다.”<br/><br/>▲ 주요 약력: 경희대 의대 졸업, 미국 미시간대 암센터 교환교수(전립선암), 강동경희대병원 교류협력본부장·국제교류실장·경희국제진료소장·비뇨기과장(현)·경영관리실장(현), 대한비뇨기과학회 미래전략사업단장(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2.txt

제목: 숫자로 보는 스타, 국민배우 안성기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6100000013  
본문: 63, 58, 5, 70, 128. ‘국민 배우’ 안성기(63)를 말해주는 숫자들이다. <br/><br/>연기 경력 58년 차인 안성기는 만 5세에 연기를 시작해 아역으로만 70편을 찍고, 영화 <화장>(감독 임권택)으로 128번째 작품에 출연했다.<br/><br/>‘캐릭터 만물상’이라고 불리는 안성기는 1957년 김기영 감독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 후 1980년대 성인 연기자로 거듭나며 ‘국민 배우’ 반열에 올랐다.<br/><br/>임권택 감독은 안성기에 대해 “<span class='quot0'>삶이 연기에 고스란히 투영되는 배우</span>”라고 평했다. “<span class='quot1'>색깔을 입히기가 참 좋은 무채색의 배우</span>”(배창호 감독), “<span class='quot1'>카메라를 잡으면 그 자체로 그림이 된다</span>”(이명세 감독), “<span class='quot1'>그의 연기는 삶이 우러나고 표정으로 세월이 표현된다</span>”(이준익 감독)는 평처럼 안성기는 “<span class='quot1'>이 시대 우리에게 최고의 스타이며 최고의 연기자</span>”(정지영 감독)다.<br/><br/>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에서 안성기는 세속과 일상에 지친 오 상무 역을 맡았다. 오 상무는 재발한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와 매혹적인 젊은 여인 사이에서 고뇌하는 중년 남성이다. <br/><br/>임권택 감독은 “<span class='quot0'>그 나이가 갖는 욕망 등을 드러내는 데 탁월한 힘을 가진 배우</span>”라며 “<span class='quot0'><화장>은 안성기가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해낸 작품</span>”이라고 전했다.<br/><br/>안성기는 “<화장>은 사건보다는 캐릭터의 심리와 영상들을 중점으로 다루기에 다소 정적이고 섬세한 감정이 많은 영화로 볼 수 있다. 오 상무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고뇌하는 인물이라 특히 감정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다”라며 쉽지 않은 연기 도전임을 밝혔다. <br/><br/><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로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이 출연했다. 세월만큼 더 깊어진 임권택 감독의 시선으로 삶과 죽음, 사랑과 번민이라는 보편적인 감정과 공감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br/><br/><화장>은 제7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제3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제33회 밴쿠버 국제영화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제3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제25회 스톡홀름 국제영화제, 제9회 런던한국영화제, 제25회 싱가포르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브리즈번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뉴라틴아메리카 영화제, 인도 케랄라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되어 상영을 마쳤고 이번 달에는 제39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4월 개봉 예정.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3.txt

제목: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원···자살 6조5000억원으로 뒤따라  
날짜: 2015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510016480706  
본문: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이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 순위 4위인 자살은 사회경제적 비용순위에서는 암에 이어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br/><br/>이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5대 사망원인인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살·당뇨병 등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다. <br/><br/>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순위는 암이 146.5명으로 1위이고, 이어 심장질환(52.5명), 뇌혈관질환(51.1명), 자살(28.1명), 당뇨병(23명) 등이다.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5일 발표한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중 암이 14조86억원(43.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이 6조4769억원(20.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뇌혈관질환 5조1297억원(15.8%), 심장질환 4조186억원(12.4%), 당뇨병 2조7748억원(8.6%) 등의 순이었다.<br/><br/>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5대 사망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27조3635억원, 2009년 28조1845억원, 2010년 28조8860억원, 2011년 31조4990억원, 2012년 32조4086억원 등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였다.<br/><br/>직접비는 질병을 고치고자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입원, 외래치료 등 직접 의료비와 교통비, 간병비 등을 합친 비용이다. 간접비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할 때 발생하는 미래소득 손실액과 직장결근으로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을 더한 비용이다.<br/><br/>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3조668억원(71.2%), 여자가 9조3418억원(28.8%)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5배 많았다. <br/><br/>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조8596억원(27.3%)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은 50대 8조6033억원(26.5%), 40대 7조3791억원(22.8%), 30대 4조3289억원(13.4%), 20대 2조1573억원(6.7%), 10대 이하 1조803억원(3.3%)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의 76.7%가 4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br/><br/>각 연령대 안에서의 사망원인별 비용 순위를 살펴보면, 특히 20~30대에서는 자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산성이 높은 20~30대에서 자살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br/><br/>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비용순위는 사망률 순위와는 달리 암에 이어 자살로 말미암은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병에 우선순위를 둔 현행 보건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4.txt

제목: WHO “당분 섭취 10% 미만으로 줄이세요”  
날짜: 2015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510016491067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어른이든 어린이든 당분섭취를 하루 에너지 섭취량 중 10% 미만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br/><br/>WHO는 4일 당분섭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br/><br/>WHO는 “<span class='quot0'>어른과 어린이 모두 설탕섭취량을 줄여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총 에너지 섭취량 중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좋고, 할 수 있다면 5% 미만까지 줄이는 것이 좋다</span>”고 밝혔다. 티스푼 기준으로 하루 6스푼, 25g을 넘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br/><br/>WHO는 시럽이나 쿠키, 과일주스 등에 있는 설탕을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과일이나 우유 등 천연식품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당분의 섭취는 제한하지 않았다. <br/><br/>WHO는 “<span class='quot0'>케익은 사랑스럽지만 그만큼 위험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당분을 과다섭취하면 심장질환과 당뇨병,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span>”고 밝혔다. <br/><br/>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은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 중 약 13%를 당분에서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티스푼으로 따지면 약 18스푼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다. <br/><br/>유럽의 경우 헝가리와 노르웨이에서는 7%으로 미국보다 낮았고, 영국은 17%, 포르투갈은 25%로 당분섭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5.txt

제목: 탈장 수술 권위자 이성렬 원장, ‘무인공막 복강경탈장수술’로 세계 인정 받아  
날짜: 2015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510016488837  
본문: 탈장수술은 외과에서 맹장(충수염)만큼 발생빈도가 높은 생활형 질환이다. 하지만 기존의 탈장수술은 재발과 인공막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최근 US FDA에서 탈장수술 시 쓰이는 인공막에 대한 위험 수위를 높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인공막이 필수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다.<br/><br/>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재발률을 낮추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많은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 국내 의료진이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재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세계 의학계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br/><br/><strong>‘무인공막 복강경 2중 봉합법’, 재발률 ‘제로’</strong><br/>탈장수술은 1958년 Francis Usher에 의해 인공막이 개발되기 전까지 모두 무인공막 수술이었다. 하지만 수술 후 높은 재발률 해결을 위해 인공막의 사용이 불가피했고, 인공막의 장기간 유착으로 인한 염증, 통증에 대한 부작용 논란도 계속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nbsp;2012년 국내의료진이 최초로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탈장수술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재발률 제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br/><br/>소아탈장, 서혜부 탈장 등 탈장수술의 ‘권위자’로 불리는 담소유외과 이성렬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담소유외과 측은 인공막 복강경 탈장수술 재발률이 1% 이하로 보고되지만 이성렬 원장의 2중봉합 복강경 탈장수술은 수술 후 재발이 3년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br/><br/>이성렬 원장은 5일 “소아탈장의 경우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해왔다. 그러나 성인은 탈장구멍이 크고 봉합 기술이 어려워 대부분 인공막을 사용하는 TEP나 TAPP 수술을 한다”며 “기존의 탈장수술 방식과 달리 복강경 수술을 통해 탈장 주머니 입구에서 고위결찰을 한 후, 2중으로 묶어 주고 압력을 받는 부분을 교정하면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장력수술이 가능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br/><br/>이성렬 원장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오는 4월 국내최초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1st World Conference on Abdominal Wall Hernia Surgery’에 무인공막 성인복강경탈장수술과 소아복강경탈장수술 2개 부분에 주제발표자로 초청되기도 했다. 이성렬 원장은 KRI에서 인증한 소아탈장복강경 수술 최다집도의이기도 하다.<br/><br/><strong>복강경수술, 재수술 위험 없는 안전함과 빠른 회복의 장점</strong><br/>탈장의 경우 수술한 부위에 재발보다, 반대쪽 탈장구멍에 탈장이 다시 발생하는 ‘이시성대측탈장(MCIH)’의 문제로 다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인 탈장환자의 2% 정도만 양쪽에 증상이 있지만 수술 시 반대쪽에도 탈장구멍이 발견되는 경우는 30%로, 반대쪽에서도 탈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br/><br/>담소유외과의 국내 최대 규모의 탈장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30개월 동안 탈장수술을 시행한 2728명의 환자 중 개복 수술 후 재발한 환자가 22명, 반대쪽에 다시 탈장이 생긴 환자가 69명이었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의 경우 수술용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복강 내 구조를 살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중 반대쪽의 탈장구멍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이시성 대측탈장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을 위험이 없다.<br/><br/>또한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탈장환자 국가통계의 평균입원기간이 3.5일인데 반해 담소유외과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탈장수술 환자 2738명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96%에 해당하는 약 2632명이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해 입원 기간이 0일이었다.<br/><br/>담소유외과 이성렬 원장은 “<span class='quot0'>복강경수술은 고난이도의 수술로 수술자 입장에서는 힘든 수술이지만, 수술시간이 15분 내외로 짧고, 육안이 아닌 수술용 카메라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하게 복강 내 구조를 보며 수술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하며 회복이 빠르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실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탈장이나 충수염, 담석증 같은 생활형 질환이지만, 수술 등 치료에 대한 관심은 생활형 질환보다 주요 5대암 질환에 국한돼 있다”며 “생활형 질환에 대한 관심은 중증 질환 예방의 초석이 될 것이며,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질환의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외과의사가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6.txt

제목: 아토피·치매·암… 다양한 ‘유산균’ 제품 나온다  
날짜: 2015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4100000078  
본문: ‘프로바이오틱스’ 열풍이 고기능성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산균의 일종으로 ‘몸에 유익한 균’을 총칭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인식돼왔다. 하지만 최근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피부 미용은 물론 아토피와 치매·비만·암을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다. 대기업들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br/><br/>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캡슐이나 분말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2011년 400억원대에서 지난해 1000억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망도 밝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그랜드뷰리서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연평균 7.6%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br/><br/>업체들 발걸음도 재다. 이날 한국야쿠르트는 “<span class='quot0'>4월 중순 서양인보다 장 길이가 1m 긴 한국인 체질에 맞는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고, 6월에는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피부미용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보일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또 장 건강과 피부미용 외에도 간 건강, 헬리코박터 감염 억제, 체지방 분해, 콜레스테롤 저하 등 고기능성 제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 제품에는 엄마 모유에서 분리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Y7714’가 들어 있다. 5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원료로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br/><br/><br/><br/>유산균 정장제인 ‘비오비타’로 잘 알려진 일동제약은 아토피와 천식, 치매 예방이 가능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일동제약은 국내 제약업체로는 유일하게 30여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유산균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장 점막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조절하면 면역질환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장과 뇌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치매예방 물질을 생성하는 유산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br/><br/>CJ제일제당도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유산균 전문 브랜드 ‘ByO 유산균’을 출시하며 신규 기능성이 기대되는 100여개의 후보 유산균이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산균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완공되는 CJ온니원 R&D센터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13년 출시한 ‘바이오 피부유산균 CJLP133’은 누적매출이 200억원을 넘어섰다.<br/><br/>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도 지난달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진출했다. 이 회사의 뷰티푸드 브랜드 VB는 체내 위산 등에 취약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 도달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4중 코팅 기술을 도입한 ‘프로바이오’를 내놨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7.txt

제목: 희귀암 앓는 서준이네 가족의 소박한 바람-SBS ‘세상에서 가장…’  
날짜: 2015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3100000049  
본문: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3일 희귀난치성 암인 ‘T-세포 림프모구성 림프종’을 앓고 있는 12개월 된 서준이의 이야기를 방송한다. 부모는 둘째 서준이가 생후 7개월 때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서준이가 이미 가슴을 다 뒤덮을 정도의 종양을 갖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서준이가 너무 어려 수술은 불가능하다. 서준이는 6개월째 약물 항암 치료를 견디고 있다.<br/><br/>서준이에게 한 달 수백만원의 병원비가 들지만, 서준이네 생활은 그리 넉넉지 않다. 빚보증을 잘못 서 파산에 이른 아버지에겐 최근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까지 겹쳤다. 이제 겨우 4살 난 서준이의 누나 수민이도 아직은 한창 어머니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서준이 뒷바라지만으로도 벅찬 어머니에겐 여력이 없다. 여전히 서준이의 종양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혹여 서준이가 볼까봐 보이지 않는 데서만 눈물짓는 가족들네 식구가 손잡고 집 근처 공원에라도 산책하러 나가는 게 소원이라는 이 가족의 소박한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방송은 오후 5시3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8.txt

제목: 아토피·치매·암… 다양한 ‘유산균’ 제품 나온다  
날짜: 2015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31001646383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면역력 강화 등 효능 알려지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급성장</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대기업 ‘멀티 제품’ 속속 선봬</strong><!-- SUB\_TITLE\_END--><br/><br/>‘프로바이오틱스’ 열풍이 고기능성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산균의 일종으로 ‘몸에 유익한 균’을 총칭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인식돼왔다. 하지만 최근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피부 미용은 물론 아토피와 치매·비만·암을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다. 대기업들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br/><br/>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캡슐이나 분말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2011년 400억원대에서 지난해 1000억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망도 밝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그랜드뷰리서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연평균 7.6%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br/><br/>업체들 발걸음도 재다. 이날 한국야쿠르트는 “<span class='quot0'>4월 중순 서양인보다 장 길이가 1m 긴 한국인 체질에 맞는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고, 6월에는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피부미용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보일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또 장 건강과 피부미용 외에도 간 건강, 헬리코박터 감염 억제, 체지방 분해, 콜레스테롤 저하 등 고기능성 제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 제품에는 엄마 모유에서 분리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Y7714’가 들어 있다. 5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원료로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br/><br/><br/><br/>유산균 정장제인 ‘비오비타’로 잘 알려진 일동제약은 아토피와 천식, 치매 예방이 가능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일동제약은 국내 제약업체로는 유일하게 30여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유산균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장 점막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조절하면 면역질환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장과 뇌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치매예방 물질을 생성하는 유산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br/><br/>CJ제일제당도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유산균 전문 브랜드 ‘ByO 유산균’을 출시하며 신규 기능성이 기대되는 100여개의 후보 유산균이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산균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완공되는 CJ온니원 R&amp;D센터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13년 출시한 ‘바이오 피부유산균 CJLP133’은 누적매출이 200억원을 넘어섰다.<br/><br/>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도 지난달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진출했다. 이 회사의 뷰티푸드 브랜드 VB는 체내 위산 등에 취약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 도달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4중 코팅 기술을 도입한 ‘프로바이오’를 내놨다.<br/><br/><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09.txt

제목: 희귀암 앓는 서준이네 가족의 소박한 바람-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짜: 2015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210016442753  
본문: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3일 희귀난치성 암인 ‘T-세포 림프모구성 림프종’을 앓고 있는 12개월 된 서준이의 이야기를 방송한다. 부모는 둘째 서준이가 생후 7개월 때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서준이가 이미 가슴을 다 뒤덮을 정도의 종양을 갖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서준이가 너무 어려 수술은 불가능하다. 서준이는 6개월째 약물 항암 치료를 견디고 있다.<br/><br/>서준이에게 한 달 수백만원의 병원비가 들지만, 서준이네 생활은 그리 넉넉지 않다. 빚보증을 잘못 서 파산에 이른 아버지에겐 최근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까지 겹쳤다. 이제 겨우 4살 난 서준이의 누나 수민이도 아직은 한창 어머니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서준이 뒷바라지만으로도 벅찬 어머니에겐 여력이 없다. 여전히 서준이의 종양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혹여 서준이가 볼까봐 보이지 않는 데서만 눈물짓는 가족들네 식구가 손잡고 집 근처 공원에라도 산책하러 나가는 게 소원이라는 이 가족의 소박한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방송은 오후 5시30분<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0.txt

제목: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배우 안재현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1100000080  
본문: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의 무뚝뚝한 고등학생 동생 역할로 드라마에 데뷔한 안재현.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쏟아진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1년 뒤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거치고 마침내 미니시리즈의 주인공 자리를 꿰찬 그는 지금 LTE-A급 속도로 날아오르는 중이다.<br/><br/>안재현(28)은 데뷔 후 5년간 모델이라는 직업에 충실했다. 그러는 동안 절친한 사이인 김우빈, 이종석은 모델 출신 배우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그를 향한 방송 출연 제의도 쏟아졌다. 그래도 한눈팔지 않고 묵묵히 런웨이에 서며 자신을 갈고닦았다. 장태유 감독의 권유로 우연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합류하고 영화 ‘패션왕’,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까지 내리 세 작품에 출연하고 나니 자신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모델에서 배우로 바뀌어 있었다.<br/><br/>그의 차기작 KBS-2TV 월화드라마 ‘블러드’는 ‘굿 닥터’를 연출한 기민수 PD와 박재범 작가 콤비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작품. 국내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을 중심으로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뱀파이어 외과의사의 성장을 그린다. 극 중 안재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뱀파이어로 태어난 천재 의사 박지상을 연기한다.<br/>“보통의 뱀파이어는 잔혹하고 무섭지만 지상은 그렇지 않아요. 괴기한 분장도 하지 않고요. 붉은빛의 컬러 렌즈를 끼고 날카로운 손톱을 붙이는 정도예요. 겉으로는 냉철하고 연민도, 슬픔도 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상처가 많고 여린 인물이에요.”<br/><br/>‘따뜻한 말 한마디’ 이후 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지진희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병원장 이재욱 역을 맡았고, 구혜선이 뱀파이어를 사랑하게 되는 외과 교수 유리타로 분해 안재현과 호흡을 맞춘다. 평균 시청률 20%를 웃도는 인기 드라마를 만들었던 제작진과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극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1년 차 배우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br/><br/>“몸무게가 빠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목둘레를 재봤는데 6cm가 줄었더라고요. 첫 주연이라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돼요. 장르도 단순한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 액션, 멜로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표현해야 할 게 곱절이에요. 준비하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br/><br/>기 PD는 그를 처음 만난 날 캐스팅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해사한 소년의 얼굴 사이로 언뜻 보이는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마음을 굳혔다. 연기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의 현재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기로 했다.<br/><br/>“대본에 그려진 지상의 캐릭터와 이미지상 가장 흡사한 배우예요. 배우로서 자세도 훌륭하구요. 앞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부담감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br/><br/>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기에 그는 더 열심히 작품에 집중했다. 의학 서적을 탐독하고 서울 성모병원의 협조를 얻어 수술 장면을 참관한 것은 물론, 실제 외과 의사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궁금한 것을 물어봤다고.<br/><br/>“아무래도 천재 의사니까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수술 장면이 많이 나와 실 꿰는 걸 엄청나게 연습했어요(웃음).”<br/>드라마를 마칠 때쯤이면 그의 이름 석 자가 대중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돼 있지 않을까. 요즘 가장 떠오르는 배우 안재현으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1.txt

제목: 세 가지 삶을 사는 그녀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1100000030  
본문: Lady 36.5 2<br/>30대 중반에 한국인 최초로 주한피지관광청 지사장 자리에 오른 박지영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지역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 회사, 가정, 학교에서 각기 다른 세 가지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다.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꽉 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녀의 삶을 들여다봤다.<br/><br/>여행으로 행복을 전하는 사람<br/>남태평양의 333개 푸른 보석의 섬들로 이뤄진 나라 피지. 태초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매년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특히 정재계 인사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박지영(36) 주한피지관광청 지사장은 13년째 국내에 피지라는 국가를 알리고 여행을 통한 양국 문화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02년 피지명예총영사관에 공채로 입사한 이후 피지관광청 대표를 거쳐 3년 전 지사장으로 임명된 그녀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다.<br/>“제 직함을 듣고 피지에서 오래 살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 시절 1년 반 정도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전부인 한국 토박이예요(웃음). 영사관에 입사하면서 피지라는 나라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우연인 동시에 행운이었어요. 당시 대한항공에서 인천-피지 직항 운항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피지가 여행지로 주목받게 됐거든요.”<br/>남태평양의 낯선 나라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박 지사장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영수증 처리, 공문 결재 같은 행정 업무부터 각종 이벤트, 홍보 행사 등 피지 관광과 관련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녀다.<br/>“관광업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1년에 3회 정도 현지 출장을 가는데, 휴양지에서도 밤낮으로 회의하기 바쁘죠. 그래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밝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흉볼 게 별로 없잖아요(웃음), 좋은 것만 듣고 보여주다 보니 생각이나 가치관도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누굴 만나도 공평하게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죠.”<br/>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박 지사장은 결혼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지역학 공부를 시작했다. 피지·남태평양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위해서였다. 지역학 박사 학위를 딴 뒤 저개발 국가들을 돕는 게 그녀의 목표다.<br/>“보통 직장인들은 퇴근 뒤에 수업을 듣는데,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야간 수업은 못 들어요. 일반 학생들과 함께 주간 수업을 듣고 과제도 철저히 해가죠. 서울대학교는 직장인이라고 봐주질 않거든요(웃음). 다행히 관광청은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편이라 일을 빨리 끝내고 학교로 달려가요. 요즘은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어려운 과제를 받고 헤쳐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br/>완벽주의 성격 탓에 대충 하는 걸 못 본다는 그녀는 이수 학점을 꽉 채워 들으면서도 평점 평균 B? 이상의 훌륭한 성적을 유지했다. 욕심이 많아 일과 육아, 학업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기만 했다. 석사과정을 마치기까지 2년 동안 4시간씩 자며 독하게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이토록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뭘까.<br/>“저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웃음).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공부하면서도 매일 피트니스센터를 가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하루하루를 100m 달리기하듯 살고 있네요. 그럼에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듣고 성장하는 일이 뿌듯해요.”<br/><br/>유난히 지독한 감기 같았던, 지난날<br/>억대 연봉을 받는 워킹 맘이자 좋은 학벌, 아름다운 외모, 법조인 남편까지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그녀지만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건 아니다.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월급은 네 가족 생활비로 빠듯했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에는 부모님의 이혼 소송을 지켜봐야 했다. 유년 시절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다.<br/>“중학교 때만 해도 공부를 못했어요. 소위 ‘날라리’ 같은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 바빴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정동길을 걷다가 지금의 모교인 이회여자외국어고등학교를 봤어요. 그 동네가 워낙 예쁘잖아요. 구로동 변두리가 제 세계의 전부였는데, 정말 예쁜 세상을 발견한 거죠. 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3개월간 독서실 바닥에서 자면서 공부했어요. 참고서가 해질 때까지 보고 또 봤더니 시험에 덜컥 합격했지 뭐예요(웃음).”<br/>그때부터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대학 재학 시절 편도 항공권과 100달러만 들고 미국 유학을 떠난 것도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br/>“당시 학교 식당의 밥 한 끼가 2달러였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밥을 못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볶음밥을 만들고, 그걸 얼려놓았다가 데워 먹으며 살았어요. 유학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디 가서 뭘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웃음).”<br/>그녀의 사회적 출발선은 결코 남들보다 앞서 있지 않았다. 스스로가 욕심내 일구고 쟁취하며 만들어온 삶. 대학 졸업 뒤 뉴저지 상무성의 공무원을 거쳐 피지명예총영사관에 입사할 때만 해도 이만하면 잘해온 거라고, 힘든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산다는 건 늘 뒤통수를 맞는 일이라더니. 스물셋에 희귀 암 선고를 받았다. ‘인생이란 정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절대로 우리가 알게 앞통수를 치는 법이 없다’라던 어느 극본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br/>“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무통 주사를 10대씩 맞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제거했고, 지금껏 큰 문제없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주어진 일과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힘든 상황이 닥쳐도 불평하기보다는 이번엔 어떤 교훈을 얻을까 기대하는 든든한 배짱도 생겼고요.”<br/>고치지 못하는 병이 아니라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몸 한 부분이 불편해진 것도 아니라서, 무엇보다 살아 있어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니 타고난 성격이 무던하고 낙천적이다. 잘되고 못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그녀의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br/>“저는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으로 행동해요. 물론 당황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그건 잠시 뿐이고 냉정하게 해결 방법을 고민하죠. 아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우리 애가 독감에 걸리느냐’, ‘속상해 죽겠다’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치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정리해요. 워킹 맘들은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우환이 있으면 자신을 자책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의외로 단순하게 접근할수록 해결 방법도 심플해지곤 해요.”<br/>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과 네 살배기 아들을 키우면서도 최연소 피지관광청 지사장으로 승진한 그녀이기에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조언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br/><br/>새벽 2시, 워킹 맘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br/>한국보다 4시간 빠른 피지의 시계에 맞춰 하루를 보내는 그녀. 벌써 10년째 동도 트기 전인 새벽 4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가뜩이나 이른 기상 시간을 2시간 앞당겼다. 아이들이 깨기 전 일어나 수업 과제를 하고 책을 읽기 위해서다.<br/>“새벽 시간은 회사, 남편, 아이들로부터 해방돼서 오롯이 저 혼자만을 위한 ‘선물’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에 묶여 있다 보면 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순간이 별로 없잖아요.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들을 떠올리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가 좀 돼요. 매일 새롭게 스스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만큼 괴롭거나 힘들지 않답니다(웃음). 30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도전해보세요.”<br/>그녀는 매 순간을 충실히 살고 있다. 새벽엔 자신에게, 퇴근 뒤 저녁엔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척척 해내는 원더우먼 같은 박 지사장이 밝힌 의외의 원칙.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br/>“퇴근 뒤 2시간 동안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대화하는 데만 모든 신경을 쏟아요. 아이들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2시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요. 아이들도 그걸 아니까 그 이후에는 엄마가 바쁘다고 해도 이해해줘요. 서로가 약속을 지키면 아이들도 저도 짜증내고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집중하면 돼요. 회사에서 집 걱정하고, 반대로 퇴근 뒤에도 회사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br/>첫아이를 키우면서 박 지사장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살기 시작했다. 10분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에게 시간이란 본인이 가진 가장 값비싼 명품이다.<br/>“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나면 10분씩 자투리 시간이 남아요. 멍하니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때 책을 읽거나 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요. 피지 현지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해야 할 일을 앞두고 마음은 분주한데 정작 결과물이 시원치 않다면 시간 관리를 잘했나 돌아볼 때예요. 빈 자투리 시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br/>집요할 만큼 자신을 관리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며 살고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가족이다. 성공과 가족의 행복이 양립할 수 없다면 그녀는 후자를 택할 거라고 했다.<br/>“아직은 큰 어려움 없이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해왔지만, 앞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죠. 만약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아이들이나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제 겉모습이 워커홀릭처럼 보여도 실제 집에서는 매일 아침 아이들 밥 먹여 보내느라 전쟁 치르는 열혈 엄마일 뿐이에요(웃음).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요.”<br/>아이들에게 “엄마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게 꿈이라는 박 지사장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다.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여유 있는 미소를 보면 누구라도 그 말이 진실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br/>“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는, 그런 의미의 투자 말고 지식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기운도 얻죠. 여행을 통해서 세상도 넓게 보려 하고요. 만나는 이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는 닮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멋진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분초를 아끼며 열심히 사는 이유예요.”<br/>박지영 지사장은 선명한 사람이다. 목소리도, 말투도, 생각과 의사 표현도 거침없이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몇 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상대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놓는다. 열렬히 뜨거운 마음과 집요하리만큼 파고드는 집중력으로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의 현재가 눈부시게 아름답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2.txt

제목: 아내 문영화와 아들 김정서가 준비한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1100000092  
본문: People<br/>아이와 같은 천진함으로 캔버스를 채웠던 서양화가 고 김부연. 대학 졸업 후 프랑스로 건너가 박사 학위까지 받으며 누구보다 장래가 촉망되던 작가였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에게 많이 허락되지 않았다. 귀국 후 돌연 혈액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br/><br/>늦 은 오후의 갤러리는 한산했다. 간간이 관람객들이 오갔지만 조용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일까. 갤러리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밝고 경쾌하며 장난기마저 발동한 것 같은 작가의 그림은 신나게 재잘거리는 듯했다. 보고 있자면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그림을 보다가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올 참이면 아차, 이곳은 작가의 첫 번째 유작전 전시장이지, 라는 자각이 일며 다시금 표정을 가다듬어야 했다. 그 묘한 정적을 깨준 것은 고 김부연 작가의 외아들 정서군(19)이었다.<br/>자신이 혹 약속 시간에 늦은 거냐며 시간부터 확인했다. 어머니가 곧 도착하실 거라며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다웠다. 무표정에 가까울 정도로 담담한 모습이었지만 몸에 밴 매너랄까, 배려는 숨겨지지 않았다. 정서군을 보고 있자니 ‘김부연 작가의 모습이 저랬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곧 김 작가의 아내 문영화씨(47)가 도착했다. 블랙 코트에 짙은 회색 머플러를 두른 모습이 꽤 세련된 인상이다. 싱그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맑은 피부색은 무척이나 밝은 인상으로 다가왔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첫 번째 유작전이어서 내심 긴장됐던 터였다. 그러나 아내 문영화씨도, 아들 정서군도 편안한 모습이었다.<br/>“지나간 시간은 다 미화된다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 우린 참 행복했고 재미있었어요. 힘든 일, 아픈 일,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 어땠냐고 묻는다면 좋았던 기억만 생각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 돈이 없어 빈방 하나를 여름 한철 민박 쳤던 거며, 수제비 끓여놓고 그림 그리던 애 아빠 부르던 것까지 그저 행복했구나 싶어요.”<br/>두 모자의 시선이 그림을 향한다. 그림 속에는 가족이 활짝 웃고 있다. 저 그림에는 문영화씨가, 정서군이 있다. 사람이 없는 그림에는 집이 있다. 그 집 안에는 수제비를 끓이던 아내가, 프랑스어 숙제를 하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모두 잠깐 작가를 추억한다.<br/><br/>남들이 말하는 행복만이 남았을 바로 그때<br/>서양화가 김부연의 그림은 흡사 아이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밝고 경쾌한 원색에서 작가의 순수함이 엿보인다. 동심의 세계를 추구했다고 평가받는 김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가족이었다. 제2의 이중섭이란 수식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공부하는 가난한 화가의 옆을 마다하지 않은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은 아마도 작가에겐 마지막 순간까지 고맙고 소중한 존재였으리라. 왜 가족을 그렸을까, 하는 질문은 우문 중 우문이 될 것이다.<br/>김 작가는 화가로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였다. 우리나라 최고 미술대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병행하며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귀국 후 대학 강단에 서며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했다. 작가님, 교수님 소리 들으며 그야말로 남들이 말하는 고생 끝 행복 시작만이 남았다고 여길 무렵이었다. 돌연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br/>“치과에 어금니를 빼러 갔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보라더군요. 그래서 알게 됐죠. 프랑스에서 11년간 고생하며 학위도 따고 귀국해서 겨우 2년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치료하면 낫겠지, 하는 생각만 했어요.”<br/>초기에 발견하기 힘든 혈액암 특성상 병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었다. 하지만 문영화씨는 한순간도 잘못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 못했다고 했다. “<span class='quot0'>병을 알았으니 이제 치료하면 되지!</span>” 하며 씩씩하게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고.<br/>“1년 정도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완치된 것이 아니어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간 수치가 급격히 내려가서 치료를 할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게 2013년 9월 무렵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쩌면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족 여행이라 여기고 강원도에 갔어요.”<br/>당시 그녀는 서울 한남동에서 프랑스 가정식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꼬꼬뜨를 운영하고 있었다. 인근의 대사관 직원이나 주한 외국인들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가게 일과 남편의 병간호를 병행하던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치료 불가 상황을 맞자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남편의 곁을 지켰다. 마지막 여행으로 떠났던 홍천에서 얼마간 요양을 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작가는 병원 생활에 지쳐 휴식이 필요했고, 가족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br/><br/>홍천 요양, 다시 희망을 줍던 시간<br/>문영화씨는 남편 곁을 지키며 지천에 널린 냉이, 씀바귀, 쑥 등을 뜯어 음식을 만들었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정서군은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바로 홍천으로 와 주말 내내 아빠가 먹을 다슬기를 잡았다. 간에 좋다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 정서가 정말 다슬기 많이 잡았어요”라고 말하며 아들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정서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서였을까. 마지막이 될 것이라 여겼던 홍천의 생활은 치료 재개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br/>“간 수치가 너무 낮아 치료 못 한다더니, 5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간 수치가 좋아졌다고 다시 치료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은 기쁘기보다 의사가 무슨 기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로봇이 입력된 말을 하는 것 같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정서가 홍천 강가에서 다슬기 많이 주웠다고 했죠? 그건 정말 하나하나가 희망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희망을 주웠던 거예요.”<br/>김 작가는 아무리 아파도 그림을 그렸다. 전시관 한편에는 강가에서 다슬기를 줍던 아들의 모습과 들에서 나물을 캐던 아내의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들이 있었다. “<span class='quot0'>우리 정서 주황색 장화 보세요!</span>” 하며 그녀가 웃는다. 그림에는 자신을 위해 다슬기를 줍던 아들에 대한 아빠의 고마움이 물씬 묻어났다. 그나저나 정서군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라는 수험생임에도 아빠의 곁을 지켰으니 말이다.<br/>“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영영 아빠를 볼 수 없잖아요. 성적이 떨어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24시간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이 게임 하고, TV 보는 휴식 시간에 나는 아빠랑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엔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 했죠.”<br/>병원에 있을 때부터 김 작가는 아들이 올 때마다 “공부해야 하지 않느냐”, “<span class='quot1'>시간 많이 뺏기는 것 아니냐</span>” 하며 걱정했다고. 하지만 오지 말라는 말과는 달리 무척 좋아하는 표정이 역력했기에 정서군은 내내 병원을 찾았다. “<span class='quot0'>아빠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순수한 사람</span>”이라고 했다. 아내의 헌신과 아들의 간절함에도 운명의 여신은 김 작가의 편이 아니었다. 입원과 퇴원, 요양을 반복하던 중 다시 상태가 나빠져 응급실로 실려가 재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김 작가는 병실이 아닌 집을 택했다.<br/>“병원에서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정서한테 말했더니 ‘아빠랑 야외로 놀러가자’ 하더군요. 그게 목요일이었나? 학교 하루 빠지고 가족이 경기도 어디쯤으로 드라이브 갔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는 마당에 불 피우고 마시멜로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했고요. 생활 리듬이 달라서 투병 생활을 하고부터는 남편 혼자 잤는데… 같이 자자더군요. 혼자 자기 무섭대요. 그때 직감했죠. 그이가 떠나려는구나, 하고요(눈물).”<br/><br/>그리지 못한다면 만지고라도 싶어<br/>정서군은 생각보다 너무 빨랐다고 했다. 처음엔 치료받으면 된다고 여겼고, 투병 생활 동안 병세가 좋아져 희망도 가졌다. 마지막이 올 거란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다고.<br/>“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일주일 남았다는 말을 엄마한테 듣긴 했지만요. 가족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긴 말을 던지고 그랬지만… 눈은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돌아가시던 날 아침, 제게 몸을 일으켜달라 하셨어요. ‘아빠 좀 올려줘’가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어요.”<br/>아들의 이야기를 듣던 문영화씨는 “<span class='quot2'>올려달란 그 말이 하늘로 올려달란 말이었던 것 같다</span>”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내와 아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김 작가는 눈을 감았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아픈 순간에도, 요양차 홍천에 내려가 있을 때도 그림을 그렸던 남편이었다. 힘이 없으면 작은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를 했다. 강가 나뭇가지를 주워와 깎기도 했다.<br/>“마지막에는 암이 눈으로 전이돼 신경을 눌러 초점이 맞질 않았어요. 그림도 못 그리고 운전도 못 했죠. 서울대병원 암 병동에 가면 미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돼 있어요. 그림 보면 남편이 힘들어할까 봐 전 그쪽을 일부러 피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친구들이 병문안 오거나 하면 그쪽으로 가달라고 해 그림도 감상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더라고요.”<br/>그녀는 남편의 유학 생활 동안 자신의 공부도 포기한 채 생계를 책임지며 뒷바라지했다. 그것도 자그마치 11년을 말이다. 낯선 외국 땅에서 식당 설거지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집 운영, 번역, 한인학교 교사, 관광 가이드까지 가리지 않았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관광객을 기다리며 밤새 공항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있던 기억은 여전히 한쪽 가슴을 아리게 만든다. 그래도 괜찮았다. 늘 남편과 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며 “우리 논문 언제 끝나?”, “우리 전시 언제 해?”라고 정답게 물었던 그녀였다. 세 식구는 ‘우리’로 묶이는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지금 그녀는 후회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더 뒷바라지 잘해줄걸, 더 그림 그리게 해줄걸, 하고 말이다.<br/>“저도 사람이잖아요. 귀국하고 남편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것 보면서 욕심을 가졌죠. 주변에서 이제 교수 사모님 되는 거냐고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을 내심 기대하면서…. 남편 떠나보내고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면서 세상 원망도 했죠. 하지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남편만큼 힘든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전 그저 김부연 작가의 아내로 남은 몫을 해나갈 거예요.”<br/><br/>진짜 화가 김부연의 가족인 게 자랑스러워<br/>가족을 남겨둔 미안함에 김 작가가 하늘에서 선물이라도 보내준 것일까. 남겨진 가족에게 좋은 일이 가득했다. 유명 컬렉터들이 대거 몰렸을 정도로 유작전은 성공적이었고, 수험생이었음에도 아빠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도왔던 정서군은 올해 장학생으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부에 합격했다. 프랑스에서 가정 요리를 공부한 문영화씨는 남편 병간호로 그만두었던 레스토랑을 다시 열 계획을 갖고 있다. 가족이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특히 정서군의 합격 소식이 반갑다. 프랑스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정서군은 프랑스어와 영어에 능통하다. 특별반에 뽑혀 수업을 받았을 정도로 공부 잘하는 한국 학생으로도 소문이 자자했다.<br/>“아빠를 닮아 천성이 순한 녀석이에요. 마지막에 화장하고 상조회사 분이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했을 때 ‘엄마는 내가 잘 보살필 테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말하더군요. 항상 든든한 아들이었지만, 또 든든해야만 하는 아들의 역할에 엄마로서 미안해요.”<br/>유작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어떤 작가였는지. 특히 정서군의 생각이 궁금했다. “<span class='quot0'>아빠의 그림 그리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아빠의 그림은 잘 몰랐다</span>”라고 답했다. 그냥 아빠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뿐, 아빠 그림이 아름답다거나 잘 그린다거나 하는 평가의 시각은 갖지 못했다면서 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은 그림을 그리는 아빠만을 봤다.<br/>“유작전을 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빠 그림이 많이 팔리거나 유명해진 게 아니라, 가족과 아빠 주변 분들이 다시 한번 아빠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빠를 기억하는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낯선 관람객들이 오셔서 아빠 그림 보고 좋다고 하고, 1만원이 넘는 도록을 구입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무척 신기했어요.”<br/>자신이 아빠의 그림에 너무 무심했나 싶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빠가 한없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고. 문영화씨 또한 남편은 더없이 훌륭한 작가였다고 자부했다. 돈, 명예, 권력 등을 욕심내기보다는 ‘진짜 화가’로서의 자세를 올곧이 지켜냈다면서 말이다. 평생을 옆에서 지켜본 가족의 증언이라고 했다.<br/>“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이요. 자신의 그림을 꼭 닮은 사람, 힘들어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실 떠나고 없는 남편이 그리고 남편의 작품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좋은 화가였으니까, 그걸 좀 알렸으면 하는 욕심은 부려봐요. 화가 김부연은 가족으로서 자랑스러운 존재거든요.”<br/>훈훈하게 이어져가는 인터뷰 막바지에 문득 김 작가와 문영화씨는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졌다. 어떤 면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부부가 됐을까.<br/>“우리 둘 다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복학 앞두던 때 만났어요. 첫 느낌이 무척 맑더라고요. 연애 초반에 경주 스케치 간다기에 따라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무슨 유적지 인근이었는데 척하니 텐트를 꺼내 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거기다 그림까지 그렸으니 게임 끝이죠(웃음).”<br/>처음 갤러리에서 문영화씨와 정서군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밝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가는 지금, 김 작가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그녀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서군을 보니 아까와 같은 밝은 모습이다. 아! 그림 속에서 보던 그 모습이다.<br/><br/>집과 닭 91×117cm, Oil on Canvas, 2008<br/>소녀 130×162cm, Oil on Canvas, 2010<br/>망태할배 129×129cm, Oil on Canvas, 1998<br/>센 강변 117×91cm, Oil on Canvas, 2009<br/>사자 117×91cm, Oil on Canvas, 2009<br/><br/>Profile<br/>서양화가 김부연(1969~2013)은…<br/>경남 진주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2010년에는 ‘한국 현대작가 33인전’에 초대받기도 했다. 밝고 경쾌하며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화풍으로 가족, 아이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3.txt

제목: .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1100000063  
본문: Star<br/>눈에 띄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끌리는 매력이 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다부진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더욱 진하게 기억되는 배우 오나라.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으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뮤지컬 무대에서 안방극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그녀의 이야기를 전한다.<br/><br/>두 얼굴의 그녀<br/>방금 전까지 마치 신인 걸 그룹의 멤버처럼 마주하는 사람들마다 일일이 ‘90도 인사’를 하던 그녀가 의상을 갈아입고 나와서는 이렇게 외친다.<br/>“<span class='quot0'>나, 이제 화보 찍는 여자야!</span>”<br/>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그녀의 엉뚱함에 스태프와 매니저들의 웃음이 터졌다. 가냘픈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씩씩하면서도 유쾌한 자신감이 밉지가 않다. SBS-TV ‘하이드 지킬, 나’에서 한지민의 친한 언니이자 서커스 단원으로 출연 중인 배우 오나라(38). 톡톡 튀는 극 중 캐릭터만큼이나 독특한 아우라가 그녀를 빛나게 한다.<br/>“이제야 절 좀 알아봐주시는 것 같아요(웃음). 얼마 전 한 쇼핑몰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고등학생 무리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촬영한 현빈씨랑 한지민씨 팬들이겠거니 하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나!’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동안 다른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았을 때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등짝을 맞은 적은 있지만 그토록 뜨거운 젊은 층의 반응은 처음이었어요.”<br/>개인적으로는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 더 어려운 역할이라는 생각을 한다. 확실한 자신만의 색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어느 캐릭터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움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완벽한 그리고 준비된 조연이다.<br/>“제가 맡은 차진주라는 역할은 연애 한 번 해보지 않았으면서 연애의 고수처럼 행동하는, 푼수 같은 존재예요. 그런 캐릭터들은 절대로 예쁜 척하면 안 돼요. 그게 또 제 전공이고요(웃음). 최대한 절 포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편이에요.”<br/>기대했던 시청률에는 못 미치는 성적이지만 아쉬운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동료들이 있어 촬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즐겁다. 게다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난 현빈은 그녀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스타’다.<br/>“주인공이 아니라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청률에 연연해본 적이 없어요. 매 신을 즐기고,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요. 그리고 현빈씨는, 잘생겼다 못생겼다조차 논할 수 없는, 우주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요. 정말 연예인 중 연예인이에요. 신을 함께 촬영할 때, 5초 이상 절 바라본 적이 있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간식으로 먹으라고 준 과자도 한동안 먹지 못하고 보관했는걸요(웃음).”<br/><br/>10년째 신인<br/>브라운관 속에서는 다소 낯선 얼굴이지만 사실 그녀는 뮤지컬계에서는 제법 유명한 베테랑 배우다. 1996년 서울예술단 활동을 시작으로 연기에 발을 들인 그녀는 ‘사랑은 비를 타고’, ‘브로드웨이 42번가’, ‘명성황후’ 등에 출연했고, ‘아이 러브 유’, ‘김종욱 찾기’의 주연으로 무대에 오르며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불렸다.<br/>“원래는 발레를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뮤지컬 ‘쉘부르의 우산’을 보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세상에 이렇게 멋진 직업이 있다니’ 하면서 그다음날 바로 남경주 선배님의 형인 남경읍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한 번 하겠다’ 하면 좀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요(웃음). 앞뒤 재지 않고 당돌하게 뮤지컬을 시켜달라고 하는 모습이 맹랑하고 귀여웠는지 선뜻 받아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잔심부름부터 시작해 뮤지컬 배우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로부터 꼭 5년 뒤에는 무대에도 올랐고요.”<br/>치열하게 살았던 하루하루. 정점에서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지난 2008년, 그녀는 자신의 무대를 브라운관과 스크린으로 넓혔다. 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배우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br/>“한창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던 터였어요. 사실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자연스럽게 드라마와 영화 쪽에서 섭외 요청을 받았죠. 두 영역을 모두 오가며 활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무대는, 제게 고향 같은 곳이에요.”<br/>차곡차곡 쌓아올린 노력의 시간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영화 ‘댄싱퀸’에서 엄정화가 속한 그룹 댄싱퀸즈의 메인 보컬 라리 역을 맡으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드라마 ‘유나의 거리’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이름을 알렸다.<br/>“드라마는 대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다 보니 감정을 연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한 신 한 신 끝내고 나면 성취감은 더 크지만요(웃음). 사실 무대에서 넘어와 성공한 남자 배우들은 많은데, 여배우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요. 저를 보면서 ‘언니만큼만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책임감이 더해지죠. 길을 잘 터주려면 지금보다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어깨가 무거워요.”<br/>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보는 이들에게 허리가 꺾이도록 인사를 하는 그녀에게 소속사 식구들은 ‘10년째 신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라는 조언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별명이 무척 마음에 든다.<br/>“제 매력이요? 많은 분들이 제게 톡톡 튀는 발랄함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탄산수처럼요(웃음). 하지만 저는 정작 연기에 목이 말라 있어요. 비슷비슷한 캐릭터만 도맡아 하다 보니 연기 변신을 못한 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그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겠지요?”<br/>하고 싶은 역할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은 진한 멜로드라마의 주인공.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기 때문이란다.<br/>“진심 반 농담 반으로 종종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30, 40대가 공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역할이요. 상대 배우는, 유연석씨? 안 되면 이모 역이라도?(웃음)”<br/><br/>힘들수록 강하게 피어나는 꽃<br/>사진 촬영을 하면서도, 인터뷰를 하면서도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를 보면서 천성이 참 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남모를 아픔이 숨어 있었다. 굴곡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정신 장애로 두 살 정도의 지능을 지닌 남동생은 그녀가 더욱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br/>“아버지는 제게 크나큰 존재예요. 돌이켜보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는데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사업 실패 이후 암 투병까지 하셨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흘러간 시간이니 이렇게 훌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었어요.”<br/>희망을 잃지 않은 덕분일까. 가장 힘들었던 그때, 선물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일본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극단 ‘사계’의 단원으로 발탁된 것이다.<br/>“우리나라 뮤지컬 배우 1호로 스카우트됐어요. ‘무작정 부딪치면 뭐라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 떠났죠. 문제는 언어였어요. 무대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저를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다면 서울대도 들어갔을 거예요(웃음). 3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웠고 소중한 경험이 됐죠.”<br/>한국으로 돌아온 2004년, 한없이 가라앉던 인생의 그래프도 그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내적인 변화는 마치 나비효과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큰 결과로 이어졌다.<br/>“그 뒤로 했던 작품들이 소위 ‘대박’을 치면서 신인상도 수상하고 인기상, 여우주연상도 휩쓸게 됐어요. 제가 약간 운명론자인데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웃음). 물론 단 한 번도, 한순간에 이뤄진 게 없었어요. 차근차근 밟으며 제 것으로 만들었죠. 즐기면서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br/>스트레스조차 일로 푼다는 그녀. 데뷔 후 쉬지 않고 일한 그녀의 경력이 증명하듯 연기는 삶의 전부이자 원동력이다.<br/>“오히려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해요. 스케줄이 없으면 소속사 대표님을 닦달하고 그래요(웃음). 연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진실성이에요. 저는 연기를 하며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다짐하곤 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연기는 거짓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대중도 요즘엔 바로 알고요.”<br/>백석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만나는 후배들은 그녀의 연기 교과서다.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단점이나 핸디캡도 그들을 통해 깨우치고 극복하게 된다.<br/>“학기 초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교수라는 직함보다는 함께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예요. 배우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의 연기를 보면서 나는 틀에 박힌 연기를 하고 있진 않았나, 반성하기도 하죠.”<br/>그녀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또 다른 힘. 15년째 그녀의 곁을 지키는 인연, 남자친구 김도훈씨다. 여유 없이 살아온 자신 탓에 결혼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 늘 미안하지만 정작 그는 “그게 뭐 그리 대수냐”라며 그녀를 위로하는 진정한 외조의 왕이라고.<br/>“제가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진득한 구석이 좀 있나 봐요. 힘든 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뮤지컬을 하면서 만났고, 저를 위해 과감히 배우의 길도 포기했어요. 현재는 연기를 가르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늘 미안하고 고마워요.”<br/>그녀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지 않는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믿기에 그날그날 ‘미션 클리어’ 하는 기분으로 삶을 채워왔다.<br/>“아버지께서 늦은 나이에 힘겹게 저를 얻으셨는데, 그 기쁨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름이 나라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오나라’를 검색하면 ‘삼국지’나 ‘대장금’이 먼저 나오지만 언젠가 그 두 단어보다 앞설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웃음).”<br/>이르면 늦은 봄, 새 영화 촬영에 들어간다. 지금껏 그래왔듯 그녀는 조용히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오를 오나라, 힘차게 날아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4.txt

제목: .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1100000017  
본문: Stage<br/>슬픈 인연<br/>‘날 보러 와요’, ‘홍동지는 살아 있다’를 연출한 김광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10년 만에 내놓는 신작. 1950년대에 태어난 남자 주인공 백윤석이 꿈을 접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온 일생을 건조하면서도 담담한 분위기로 풀어내 공연을 보러 온 중년 관객들의 마음속 온도를 높인다.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인 중견 배우 강신일과 남기애가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br/>일정 3월 20일~4월 5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문의 1644-2003<br/><br/>내 아내의 모든 것<br/>예쁘고 사랑스럽고 섹시하기까지 한 완벽한 아내 정인은 입만 열면 속사포로 불평과 독설을 쏟아낸다. 하루하루 지쳐가던 남편 두현이 전설의 카사노바 성기에게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부탁하며 출발하는 이야기. 지난 2012년 개봉 당시 460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끈 이선균·임수정·류승룡 주연의 동명 영화로 더욱 친숙한 작품이다. ‘한여름 밤의 꿈’, ‘십이야’, ‘해롤드&모드’를 만든 양정웅이 연출을 맡았다.<br/>일정 5월 1일까지 장소 대학로 공간아울<br/>문의 070-7807-0213<br/><br/>경숙이, 경숙이 아버지<br/>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족을 버리고 혼자 피난길에 나선 아버지, 무책임한 남편이지만 그에게 사랑받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어머니,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딸 경숙. 일그러진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비극의 현대사를 그려내지만, 극의 분위기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유쾌하다. 2006년 초연 이후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br/>일정 3월 6일~4월 26일 장소 수현재씨어터 문의 02-766-6506<br/><br/>내 이름은 강<br/>한 소년이 이름도 없고 부모도 모르는 소녀를 만난 날. 오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강물을 들여다보면 부모를 찾을 수 있다는 원천강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녀는 그의 말을 듣고 강을 찾아 길을 떠나 길 위에서 성장한다. 사회적 문제를 심도 있게 극화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고연옥 작가와 김광보 연출 콤비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br/>일정 2월 26일~3월 8일 장소 대학로 선돌극장 문의 02-889-3561<br/><br/>동작 그만<br/>KBS-2TV ‘유머일번지’의 인기 코너였던 ‘동작 그만’이 25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다. 세월이 흘러 한자리에 모이게 된 ‘메기’ 병장 이상운, ‘곰팽이’ 일병 이봉원이 펼치는 유쾌하고 통쾌한 해프닝을 콩트, 슬랩스틱, 드라마, 토크쇼 등으로 다채롭게 연출해 관객들에게 웃음 폭탄을 날릴 예정. 대중문화 전반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 속 들려온 7080 코미디 연극 소식에 중년 관객들의 관심이 뜨겁다.<br/>일정 2월 27일~4월 26일 장소 소월아트홀 문의 02-2204-6405<br/><br/>국립발레단 지젤<br/>클래식 발레 애호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공연이다. 국립발레단의 지젤은 파리국립오페라 발레단 버전으로 정통과 전통을 모두 갖춘 작품. 순박한 시골 처녀 지젤이 귀족 청년 알브레히트와 사랑에 빠졌다가 배신당한 뒤 유령이 돼 나타난다. 그동안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변주돼왔지만, 국립발레단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섬세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낼 예정이다.<br/>일정 3월 26~29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580-1300<br/><br/>아가사<br/>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가 열하루 동안 실종됐다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 당대의 떠오르는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한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돌연 사라진 아가사와 그녀를 돕는 남자 레이몬드를 주축으로 실존 인물들과 가상의 사건을 조밀하게 연결한 이야기 구성이 돋보인다. 이름만으로 두터운 신뢰감을 주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이혜정, 강필석, 김재범, 박한근, 려욱(슈퍼주니어)이 수수께끼 같은 작품 속 퍼즐을 맞춰나간다.<br/>일정 5월 10일까지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02-548-0597<br/><br/>마마 돈 크라이<br/>사랑이 두려운 천재 물리학자 프로페서 V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뱀파이어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음산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음악과 관객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촘촘한 내용 전개, 배우들의 호연으로 2010년 초연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올 상반기 가장 기대되는 창작 뮤지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이번 작품에는 송용진, 김호영, 서경수, 고영빈 등이 출연한다.<br/>일정 3월 10일~5월 31일 장소 쁘띠첼 씨어터 문의 1577-3363<br/><br/>드림걸즈<br/>국내에서 한미 합작 공연을 선보였던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뮤지컬 관객들을 만나는 드림걸즈. ‘지킬 앤 하이드’를 만든 데이비드 스완이 연출을 맡아 한국적 정서에 맞게 작품을 보강할 예정이다. 1981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이번 작품은 냉혹한 쇼 비즈니스의 명과 암, 가수라는 꿈을 좇아가는 앳된 세 소녀의 성장기를 그린 내용. 2007년 비욘세 주연의 동명 영화로 제작돼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것은 물론 ‘Listen’, ‘One Night Only’ 같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다.<br/>일정 2월 26일~5월 25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1588-5212<br/><br/>윤홍천 피아노 리사이틀<br/>지휘의 거장 로린 마젤에게 발탁돼 지난해 12월 독일 뮌헨필하모닉과 협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가 고국에서 첫 피아노 리사이틀을 갖는다. 방랑이라는 주제에 맞춰 떠남과 작별을 연주할 예정. 바흐의 ‘사랑하는 형과의 작별에 부치는 카프리치오 BWV 992’,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슈베르트-리스트의 ‘송어’, 슈만-리스트의 ‘봄밤’을 들으며 다가오는 봄, 낭만 가득한 밤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br/>일정 3월 28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문의 02-2658-3546<br/><br/>곤, 더 버스커<br/>자신이 만든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하며 살고 싶어 하는 길 위의 예술가 ‘버스커’ 최곤. 거리 공연에서 만난 청각장애 댄서 니나, 드러머 원석과 함께 팀을 만들어 전국 버스킹 투어를 하던 중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 제의를 받는다. 순수하게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과 달리 시청률을 올리기에 급급한 제작진은 니나가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다는 사연을 조작하며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데…. 밴드 몽니의 보컬로 활동 중인 배우 김신일이 주인공 최곤 역을 맡았다.<br/>일정 3월 22일까지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02-708-5001<br/><br/>송영훈&제이슨 뷔유 듀오<br/>2007년 첼로와 기타의 예상치 못한 앙상블로 클래식 음악계에 반향을 일으킨 첼리스트 송영훈과 기타리스트 제이슨 뷔유 듀오가 8년 만에 재회한다. 브라질 민속 음악 특유의 관능적인 분위기를 담은 ‘기타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를 비롯해 포르투갈 전통 음악인 파두를 떠오르게 하는 슬프고도 감미로운 ‘리플렉소스 6번’, 국내 초연인 벨라폰트의 ‘조곡 1번’ 등은 청중들이 남미 대륙 한복판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br/>일정 3월 29일 오후 2시<br/>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br/>문의 02-580-1300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5.txt

제목: .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1100000016  
본문: Book<br/>박완서 산문집<br/>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문득문득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문단의 큰언니, 박완서 작가. 작가의 4주기에 맞춰 그의 초기 산문집 7권이 초판 당시 원본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글만 추리고 재편집해 출간됐다. 1977년 평민사에서 출간한 첫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쑥스러운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1권을 차지했다. 당시 작가가 젊은이들에게 건넸던 응원의 힘은 지금도 여전하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세월의 거리를 느낄 수 없는 단정한 문장도 역시 박완서라는 탄성을 절로 나오게 한다. 7권 각각의 표지에는 작가의 유품을 시인 이병률과 손녀 김지상씨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가 삽입됐다. 냉정한 시선부터 따뜻한 조언까지, 박완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산문집이다.<br/>박완서 저 / 문학동네<br/><br/>뜻밖의 한국사<br/>암기가 필요 없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국사 책을 목표로 만들었다. 여느 역사책에서 꾸준히 다뤄온 연도별 사건이나 인물의 나열이 아닌 풍습, 삶, 음식, 지혜, 정치, 경제 6개 키워드를 통해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듯 기술했다. 내시의 어머니는 세 명이다?, 상투 튼 머릿속 열을 식혀라, 신씨 집안이 장을 담그지 못하는 까닭 등 각각의 제목들부터 흥미를 돋운다.<br/>김경훈 저 / 페이퍼로드<br/><br/>내 집, 내 취향대로<br/>똑같은 구조의 ‘작은’ 아파트가 흔하다는 공통점 덕분에 일본의 인테리어 팁을 눈여겨보게 된다. 리노베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설계 사무소 블루 스튜디오가 자신들이 진행한 프로젝트 중 서른세 집의 인테리어 노하우를 공개했다. 작지만 각각의 사용자 특유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공 전후 도면까지 담아 집 고치기를 마음먹은 이들에게 제법 유용할 듯하다.<br/>블루 스튜디오 저 / 디자인하우스<br/><br/>앞으로의 라이프스타일<br/>마치 미래학자가 쓴 학술서 같지만 ‘여자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조언이라고 보면 좋을 책이다. 독일식 라이프스타일 전문가의 노하우, 누구나 꿈꾸는 가드닝의 힌트, 중년 멋 내기의 즐거움, 유기농 화장품의 매력, 가정식의 소중함에 대한 5인의 트렌드세터의 생생한 지상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육아와 살림에 치였던 주부 1기를 마무리하면서, 2기를 보다 뜻 깊게 맞이하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br/>가도쿠라 타니아 외 저 / 한스미디어<br/><br/>집밥 인 뉴욕<br/>브런치와 미슐랭스타 레스토랑으로 대표되는 뉴요커들의 실용주의 식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정성’이라는 부담감이 다소 얹어진 것이 우리의 ‘집밥’이라면, 뉴욕의 집밥은 ‘진짜 음식’을 지향한다. 각종 합성첨가물이나 유전자 조작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이 뉴욕판 집밥의 핵심.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인 뉴요커의 집밥 노하우, 바로 지금 응용 가능하다.<br/>천현주 저 / 소소북스<br/><br/>남의 집 찬장 구경<br/>찬장이라는 단어도 오랜만이지만, 안주인의 살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재미가 느껴지는 제목이 흥미롭다. ‘남의 집’에 관심이 많은 잡지 에디터와 도예가가 속속들이 누린 찬장 구경기 속에는 요리사, 사업가, 영화 미술감독, 공간 데커레이터, 도예가, 카페 주인 등 각양각색 찬장 주인들의 개성 만점 그릇 컬렉션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철학 그리고 넉넉한 지혜까지도 자연스럽게 묻어난다.<br/>장민·주윤경 저 / 앨리스<br/><br/>교육&육아<br/><br/>펭귄 랄랄라<br/>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동물이 있다. 남극의 신사에서 각종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친숙해진 펭귄. 펭귄 다섯 마리가 줄지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함을 자아내는 표지를 열면 물개, 바다사자 등 펭귄 친구들이 등장해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를 펼쳐놓는다. 날지 못하는 펭귄은 우리의 현실을 닮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웃음이 가시지 않는 훈훈한 감동을 준다.<br/>구신애 글·그림 / 반달<br/><br/>0-7세, 감정 육아의 재발견<br/>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엄마와 아이의 어긋난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양육은 감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감정 육아의 핵심이다. 7세까지 아이가 경험한 감정이 두뇌를 좌우하고 이에 따라 아이의 자의식, 사회성, 지능까지 결정된다고 말하는 각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엄마의 감정을 먼저 돌보라는 조언도 함께한다.<br/>로빈 그릴 저 / 글담출판<br/><br/>엄마의 손뽀뽀<br/>예전보다는 훨씬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를 떼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늘 아프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줄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격려가 아닐까. 학교 가기 싫어서 우는 아기 너구리 체스터에게 엄마는 외할머니의 ‘비밀’ 처방을 일러준다. 그 특효약은 체스터에게 큰 용기가 돼주었을까.<br/>오드리 펜 글, 루스 하퍼 그림 / 스푼북<br/><br/>세계의 아이 방 인테리어<br/>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의 방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그 답을 갖고 있는 이 책을 보는 재미가 제법 있다. 어른 못지않은 향수 사랑을 반영한 프랑스 아이의 방, 스포츠를 좋아하는 성향을 백분 살린 캐나다 아이의 방 등 각국의 문화와 생활까지 엿볼 수 있는 생생한 화보가 그득하다. 가구 및 패브릭, 소품 등 창의적이고 신선한 방 꾸밈 아이디어를 얻기에도 제격이다.<br/>X-knowledge 편집부 저 / 김영사<br/><br/>꼬마 셰프의 요리쿡 조리쿡<br/>방송가에서 맹활약 중인 스타 셰프들 덕분일까. 요즘 요리사는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도 제법 인기다. 아이와 요리를 만들어본다는 이상적인 계획과 달리 막상 무엇을 만들면 좋을지 막막한 엄마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공부를 위한 요리책이 아니라 진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레시피에 충실한 요리책이기 때문이다. 오믈렛, 스파게티, 피자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음식부터 초콜릿 케이크 같은 근사한 디저트까지 45가지 레시피가 상세한 과정 그림과 함께 소개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낯선 요리 용어와 도구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더욱 믿음직하다.<br/>안젤라 월크스 글, 스테판 카트라이트 그림 / 청어람아이<br/><br/>잡스러운 수학 엿보기<br/>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주인공으로 한 많은 책들 가운데, ‘수(학)포(기)’ 위기에 놓인 아이를 둔 엄마의 눈을 번쩍 뜨게 할 책. ‘잡스를 키운 것은 수학이다’라는 부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수학은 정말 놀라운 도구라는 이 책의 주제를 담고 있다. 논리수학 지능이 높았던 잡스가 뛰어난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애플의 성공 기반을 다진 일화를 바탕으로 무뎌진 수학 본능을 익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선다.<br/>홀거 담베크 저 / 국일미디어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6.txt

제목: [유경희의 아트살롱]메멘토모리와 카르페디엠  
날짜: 2015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8100000009  
본문: “<span class='quot0'>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 전도서 1장 1절).</span>” 라틴어 ‘바니타스(vanitas·영어로는 vanity)’는 허무, 무상, 허영을 뜻한다. 바니타스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거의 모든 정물화의 기본 주제다. 그중에서도 해골이 등장하는 정물화를 특별히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부른다. 인생이 허무한 건 인간이 죽음 앞에 무력하기 때문이고, 해골만큼 죽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티프는 없기 때문이다. <br/><br/>초기 바니타스 정물의 대표작인 바르텔 브륀 1세가 그린 ‘제인-로이즈 티시에르의 초상화 뒤편에 그려진 바니타스 정물’에는 두개골이 벽감(니치)에 놓여있다. 두개골은 이미 턱뼈가 빠져 있는데, 인체가 점차 해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의 표현이다. 두개골 위로 파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이는 부패와 욕망 그리고 유혹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 죄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골의 주인공 역시 그런 고뇌와 번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왼쪽 앞에는 촛대에 반쯤 타다만 양초가 있다. 아마 예기치 못하게 빨리 찾아온 죽음에 대한 비유일 것이다. 압정으로 고정된 메모에는 고대 로마의 에피쿠로스학파 루크레티우스의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 썩어지고, 죽음은 사물의 마지막 경계선이다”라는 말이 적혀있다. <br/><br/>바니타스 정물화의 핵심 모토는 ‘메멘토모리(memento mori)’다. 화가들은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종용했을까? 사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구 뒤에는 ‘신이 주신 삶의 순간, 지금 현재를 맘껏 살고 즐기라’는 심오한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즉 카르페디엠(carpe diem)하라는 것! 내 솔메이트의 남편이었던, 남들의 몸은 보살폈으나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던 아직은 너무 젊은 의사가 며칠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3년 반 동안의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천직이라 여기던 자신의 일을 저버린 적이 없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현존하는 삶이 더 중요했던 아름다운 이들을 애도하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7.txt

제목: [책과 삶]2005년 이후의 사법부 판결, 그 공평성을 따지다  
날짜: 2015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8100000019  
본문: ▲ 공평한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북콤마 | 652쪽 | 2만2000원<br/><br/>드라마 <미생>에는 동네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다. 오상식 차장을 찾아온 옛 회사 동료는 퇴직금으로 피자집을 차렸다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가 전쟁터 같지. 그래도 잘리기 전엔 절대 제 발로 나오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동네 자영업자의 현실을 ‘지옥’이라고 규정한 이 대사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실제 홈플러스 청주점 일대의 경우 3년 동안 반경 5㎞ 안에 있는 슈퍼마켓 337곳 중 21%가 폐업했다.<br/><br/>2014년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동대문구청장·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들에 내린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br/><br/>2012년 국회가 8년 동안 논의한 끝에 마련한 “<span class='quot0'>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span>”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 조항을 뒤집은 것이다.<br/><br/>이 판결의 해석 논리는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서 대형마트란 ‘점원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매장 한쪽에 점원이 도움을 주는 정육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 대부분의 매장은 안경점이나 화장품점 같은 임대업체가 있고 그곳에서도 점원이 늘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span class='quot1'>이마트와 홈플러스가 대형마트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되지 않는가</span>”라며 “<span class='quot1'>대상 판결의 해석은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문리 해석 범위를 벗어났으며 국민의 법 감정상 도저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span>”이라고 말한다.<br/><br/>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법부 판결이 “공평한가?”라고 묻고 있다. <br/><br/>20여년간 사법 영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의 주요 사법판결에 대해 비평한 결과물을 내놨다. 판결비평 프로젝트 ‘광장에 나온 판결’의 결과물 중 주요 내용 66개를 추린 것이다. <br/><br/>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 직속상관에게 여러 차례 성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에서 피고에게 군형법상 직권남용과 가혹행위죄를 적용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등을 다뤘다.<br/><br/>책은 판결 당시 사회적 성격과 파장, 핵심을 풀이한 ‘판결 인트로’, 재판 과정과 문제가 된 법리, 판결의 문제점을 다룬 ‘판결비평’, 재판부와 재판명,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판결 설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의 기록물로도 의미가 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span class='quot2'>판결은 시민들의 생각과 주장이 모이고 다시 퍼져나가는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span>”고 밝혔다.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주권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권도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시민을 대신해 판결을 할 책임을 부여받을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8.txt

제목: [‘건강도약 2015’ 인터뷰](7) 이진수 국립암센터 전 원장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7100000053  
본문: “폐암에 걸리고 나서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방의 전제조건은 흡연이나 라돈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위험인자를 피하는 것이 첫째입니다.”<br/><br/>이진수 국립암센터 전 원장(65·폐암센터 책임연구원·혈액종양내과)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암 정복을 위한 요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폐암과 식도암 항암치료와 새로운 치료법 연구의 권위자인 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냈다.<br/><br/>2014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폐암은 2만2118건으로 전체 암의 9.9%(4위)를 차지했다. 남녀 성비는 2.3 대 1로 남자가 더 많이 걸렸다. 65세 이상 남자에서는 폐암 발생률이 암 중에서 가장 높다.<br/><br/>폐암의 가장 큰 문제는 5년 생존율이 20.9%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상당수가 진행암이거나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일찍 발견된 조기암의 경우도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암 사망자 순위 1위를 기록하며 ‘공포의 암’으로 떠올랐다. 다음은 일문일답.<br/><br/><br/>▲ 조기 발견 생존율 50% 불과<br/>40세 이상 흡연자 ‘고위험군’<br/>1년에 한 번은 정밀검사해야<br/><br/>- 폐암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br/><br/>“폐암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도 감기와 비슷한 기침, 객담 등의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 섞인 가래 혹은 객혈, 호흡곤란, 흉부의 통증, 쉰 목소리, 뼈의 통증과 골절, 두통, 오심이나 구토 등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진행되거나 전이가 발생한 후여서 치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폐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흉부 X-선 촬영, 흉부 CT, 객담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경피적 세침 생검술 등을 통해 폐암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합니다. 폐결핵과 같은 질환이 흉부 X-선 검사 소견에서 폐암과 유사하므로 폐암의 조직이나 세포를 얻어서 하는 조직검사를 통해 감별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진단 자체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폐암은 늦게 발견되는 것 못지않게 재발로 인해 완치율이 낮아 다른 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습니다.”<br/><br/>- 폐암의 원인과 예방 수칙은 뭔가요.<br/><br/>“간접흡연을 포함한 모든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폐암은 흡연을 비롯한 생활요인과 석면·비소·크롬 등에 노출된 직업적 요인, 공기 중 발암물질인 벤즈피린과 방사성물질 등의 환경적 요인(우라늄·라돈 등), 가족력이 있는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폐암 예방법으로는 금연보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br/>- 폐암을 일찍 발견하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br/><br/>“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완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폐암의 조기 검진 방법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나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고위험 대상자들은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으면 즉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40세 이상 흡연자라면 매년 1회 정도 저선량 CT 검사, 객담 암 세포진 검사, 흉부 X-선 촬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입니다. 폐암에 걸려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건강을 다루는 상업적인 방송의 선정적인 내용도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한 돈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한 국가 검진사업을 해야 합니다.”<br/><br/>- 폐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나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br/><br/>“폐암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환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또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어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주변의 말에 빠지지 말고 중요한 내용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으면서 의료진을 만날 때 항상 질문할 목록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폐암 경험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을 필요는 있습니다. 폐암에 좋다는, 검증 안된 것들을 함부로 먹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 요구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가족 중에 ‘선장’을 뽑아 함께 이야기하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어주면서 친구처럼 대하면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또 가족에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암 환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소중한 것들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무 말 없이 함께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br/><br/>- 최근의 새로운 치료 방향은 어떻습니까.<br/><br/>“표적항암제를 비롯한 최신 항암제 발전으로 이제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 폐암에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원격 전이가 없는 폐암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동시에 할 경우 치료 성적이 좋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전이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방사선량이나 치료 횟수, 기간이 정해집니다.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통증, 출혈, 마비 증상 등을 예방하면서 암을 치료하는데 방사선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2~3주의 치료만으로 해당 부위의 증상을 환자 생존기간에 영구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br/><br/>▲ 주요 약력 : 서울대 의대 졸업, MD앤더슨병원 흉부종양내과 분과장, MD앤더슨병원 흉부 및 두경부종양내과 교수(현 외래교수),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장·부속병원장·연구소장, 제12차 세계폐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대한암학회 회장, 국립암센터 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19.txt

제목: [새 책]어린아이 한국인 外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710016416511  
본문: <b>▲ 어린아이 한국인-글씨에서 찾은 한국인의 DNA…구본진 | 김영사</b><br/><br/>옛 글씨를 분석해 한국 민족의 시작, 실체, 의식, 문화 원형의 규명을 시도한다. ‘신들린 무당의 춤’이란 표현이 적절할 만큼 자유분방한 글씨체를 통해 유추된 고대 한민족의 DNA는 ‘네오타니’.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다. 저자는 이 천진난만함이 유교의 영향으로 경직화됐다고 본다. 1만8000원<br/><br/><br/><b>▲ 하버드 중국사 송-유교 원칙의 시대…디터 쿤 | 너머북스</b><br/><br/>중국 변혁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유교라는 시각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문명이었던 송 왕조를 분석했다. 송의 황제와 사대부, 지식인부터 수레꾼 등 서민들 이야기까지 문학, 시, 그림 등 다양한 사료를 통해 송대의 삶을 재현해냈다. 유교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한 족쇄였다는 근대의 일부 견해에 반대한다. 육정임 옮김. 3만원 <br/><br/><br/><b>▲ 소셜미디어 시대의 출판 마케팅…김류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b><br/><br/>책 안 읽는 독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출판계의 고민에서 기획된 책이다. 출판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요즈음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 출판계의 현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출판계의 트렌드를 집약하고, 개별 출판사들의 생생한 실제 사례들도 다양하게 실었다. 1만3500원<br/><br/><br/><b>▲ 젠더 무법자…케이트 본스타인 | 바다출판사</b><br/><br/>트랜스젠더인 저자가 자신이 실생활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론과 결합해 전달한다. 결론은 명쾌하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달라는 주장은 남성 우위의 젠더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뿐이므로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축된 이분법을 해체하는 투쟁만이 진정 완전한 평등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조은혜 옮김. 1만5800원<br/><br/><br/><b>▲ 식민사학과 한국 근대사…하지연 | 지식산업사</b><br/><br/>식민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4명의 일본 지식인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의 생생한 사실이 펼쳐진다. 한국과 일본의 바람직한 관계를 방해하는 일본 우파들의 역사 인식을 파헤쳐 근현대사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지적한다. 현직 역사 교사인 저자는 “<span class='quot0'>우리 자신, 일본인들에게 남아 있는 잘못된 역사 인식의 뿌리를 찾아내고 싶었다</span>”고 말한다. 1만8000원<br/><br/><br/><b>▲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수제인 소머스 | 북스타</b><br/><br/>암 치료의 이면을 알려주고 예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다. 저자는 우리 주변에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주요 치료법인 화학적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외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체요법을 택하거나 통합 의학을 추구하는 의사들의 사례가 소개된다. 조한경 옮김. 1만9000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0.txt

제목: [시대의 창]‘IS 정당’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7100000083  
본문: 글쎄, 중동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할까? 어느 ‘고딩’의 일탈 사건을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닌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당신이 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몇 %인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징후는 3단계를 거친다. 힐링 신드롬, 홈쇼핑, UFC.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심하게 중독된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 다음 단계로 IS 정당원 모집 사이트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br/><br/>국가정보원이 IS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1999년 출시된 영화 <파이트 클럽>을 ‘강추’한다. 나는 오늘날 시대의 정신을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이 걸작을 꼽고 싶다. 영화는 IS 가입 전 1단계 징후로 힐링 열풍에서 시작한다. 주인공은 사무실의 1회용 테이크 아웃 커피 컵과 복사기에 불과한 자기 존재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미생에 불과한 나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충만감은 어디서 가능한 걸까? 결국 주인공은 전립선암에 걸린 적도 없으면서 암 환자들의 위로 클럽 쇼핑에 위장 출입한다. 한국에도 한때 유행했던 그 힐링 열풍 말이다. ‘나는 위로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br/><br/>힐링 시도에 이은 영화에서의 2단계 징후는 이케아 쇼핑이다. 얼마 전 한국에 매장이 설치된 후 주변 도로를 마비시키는 그 경이로운 가구 브랜드 말이다. 주인공은 수많은 가구 카탈로그의 리스트를 뒤적거리며 신상 주문에 열을 올린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br/><br/>하지만 쇼핑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징후는 UFC와 같은 파이트 클럽을 동네에 조직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에는 과거 학교 ‘짱’들이 다시 나와 승부를 겨루는 희한한 복고 게임도 등장한 바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놀랍게도 얻어맞아 피를 흘리면서 비로소 힐링이나 홈쇼핑에서도 채워지지 못한 존재의 짜릿함을 맛본다. 사실 자해를 하기 위해 손목을 긋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면서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낀다고들 한다. 그건 아무리 인공적인 디지털이 발전해도 복제하기 어려운 느낌이다. 누구도 캐리비안 베이 인공 파도 풀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적음을 잘 안다. 안전과 짜릿함은 반비례한다. 이 파이트 클럽은 IS가 얼마 전 쇼핑몰 폭파를 선언했듯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신용카드 회사에 테러를 감행한다. ‘나는 투쟁한다, 고로 존재한다.’<br/><br/>이 영화의 뛰어난 통찰은 과거 건달 패싸움을 연상시키는 이 소동이 결코 시대착오적 복고가 아니라 현대성에 대한 가장 포스트 모던한 반응이라는 점에 있다.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점차 공허해지는 미생의 시대에 대한 탈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IS 그룹을 그저 전근대적 이슬람 근본주의 종교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이들은 앞으로도 그들의 행보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br/><br/>흔히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 IS현상을 그저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의 영향력이 한국에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곤 한다. 정부는 처벌의 법리적 근거 마련과 테러 방지 법안 정비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물론 필요한 고민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IS현상은 현재 지구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공허함과 희망의 결핍을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미로 같은 글로벌 저성장 시대와 기존 문명 패러다임의 대붕괴 앞에서 극단적 정치세력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이미 미국의 티 파티 운동과 한국의 일베 현상은 그 전조를 보여준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허경영신드롬은 희극으로 끝났지만 이후 언젠가 대선에서 변종 IS 대선 후보의 등장 가능성은 희망이 없는 우리 시대의 비극적 증언이 될 것이다. <br/><br/>작년에 박노해 문명 사진전의 열풍, 세월호 비극과 교황 방문 사건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를 시민 공동체는 간절하게 물은 바 있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인터스텔라> 영화 현상도 본질적으로 같은 시대적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 물음에 대해 제도권·정치권은 부실한 답안을 제출했다. 혹은 대안적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은 1970년대 흑백 텔레비전을 다시 보는 느낌이다. 10년째 한국의 정치세력들에 진정한 도전자 브랜드가 될 것을 주문해온 나는 그들 대신에 IS가 쿨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현상이 경악스럽기만 하다. 우리 삶의 의미라는 존재의 간절한 물음에 대해 최소한 그들은 혐오스럽고 병리적 형태로라도 치열하고 매혹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br/><br/>모든 정치세력은 답해야 한다. 과연 자신들은 삶의 진정한 충만함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주는 출구가 될 수 있는가? IS 정당이 조금씩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1.txt

제목: [유경희의 아트살롱]메멘토모리와 카르페디엠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710016413290  
본문: “<span class='quot0'>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 전도서 1장 1절).</span>” 라틴어 ‘바니타스(vanitas·영어로는 vanity)’는 허무, 무상, 허영을 뜻한다. 바니타스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거의 모든 정물화의 기본 주제다. 그중에서도 해골이 등장하는 정물화를 특별히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부른다. 인생이 허무한 건 인간이 죽음 앞에 무력하기 때문이고, 해골만큼 죽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티프는 없기 때문이다.<br/><br/>초기 바니타스 정물의 대표작인 바르텔 브륀 1세가 그린 ‘제인-로이즈 티시에르의 초상화 뒤편에 그려진 바니타스 정물’에는 두개골이 벽감(니치)에 놓여있다. 두개골은 이미 턱뼈가 빠져 있는데, 인체가 점차 해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의 표현이다. 두개골 위로 파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이는 부패와 욕망 그리고 유혹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 죄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골의 주인공 역시 그런 고뇌와 번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왼쪽 앞에는 촛대에 반쯤 타다만 양초가 있다. 아마 예기치 못하게 빨리 찾아온 죽음에 대한 비유일 것이다. 압정으로 고정된 메모에는 고대 로마의 에피쿠로스학파 루크레티우스의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 썩어지고, 죽음은 사물의 마지막 경계선이다”라는 말이 적혀있다. <br/><br/>바니타스 정물화의 핵심 모토는 ‘메멘토모리(memento mori)’다. 화가들은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종용했을까? 사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구 뒤에는 ‘신이 주신 삶의 순간, 지금 현재를 맘껏 살고 즐기라’는 심오한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즉 카르페디엠(carpe diem)하라는 것! 내 솔메이트의 남편이었던, 남들의 몸은 보살폈으나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던 아직은 너무 젊은 의사가 며칠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3년 반 동안의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천직이라 여기던 자신의 일을 저버린 적이 없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현존하는 삶이 더 중요했던 아름다운 이들을 애도하며….<br/><br/><유경희 | 미술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2.txt

제목: [건강]가짜 비아그라 ‘위험한 탐욕’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7100000054  
본문: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불법 의약품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해 온 혐의로 정모씨(45)를 구속했다. 유통 금액이 무려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압수된 가짜 비아그라에는 실데나필 성분이 정품보다 3~12배 더 들어 있었다. 뇌졸중, 심장마비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치사량이다.<br/><br/>이 같은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유통은 비아그라 발매 이후부터 15년 넘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한남성과학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발기부전 치료약 밀반입국이다. 밀수 발기알약 중 60~70%는 가짜로 추정될 정도다. 남성과학회가 국내 만 30세 이상 성인 남성 4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31%), 2명은 ‘호기심 때문에’(23%) 음성적인 거래로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br/>암거래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중 가장 많은 것이 비아그라다. 제조사인 화이자제약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107개국에서 위조 의약품이 발견됐으며, 그 중에서 85%가량이 가짜 비아그라였다.<br/><br/>정품 비아그라는 육각형의 파란색 알약으로 일명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불린다.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된 후 출시된 국내 제약사의 상당수 복제약은 파란색의 육각형이다. 가짜 비아그라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모양, 색상으로 제조된다. 일본에서는 육각형으로 모양은 같지만 색상을 금색으로 바꾼 ‘골드 비아그라’가 나오는 등 다양한 위조약이 등장했다.<br/><br/>불법으로 제조된 위조 비아그라의 주된 유통망은 온라인과 성인용품점이다. 화이자제약에서 위조의약품 적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시큐리티팀의 이케다 데쓰야 디렉터는 “<span class='quot0'>정식 경로를 거치지 않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거의 대부분 가짜</span>”라며 “<span class='quot0'>가짜를 피하는 법은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하지 않고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는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br/><br/>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유효 성분 함량 및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전문의들은 실데나필 성분을 과다 복용할 경우 급격한 심혈관계 부작용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br/><br/>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비뇨기과 양대열 교수는 “<span class='quot1'>실제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4명 중 3명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1'>반신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됐다</span>”고 밝혔다. 양 교수는 “<span class='quot1'>발기부전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인 만큼, 비뇨기과에서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아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발기부전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비아그라는 ‘블루 다이아몬드 웹사이트’에서 비아그라 제품 패키지에 인쇄된 시리얼 넘버(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정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3.txt

제목: [책과 삶]2005년 이후의 사법부 판결, 그 공평성을 따지다  
날짜: 2015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710016416518  
본문: <b>▲ 공평한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북콤마 | 652쪽 | 2만2000원</b><br/><br/>드라마 <미생>에는 동네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다. 오상식 차장을 찾아온 옛 회사 동료는 퇴직금으로 피자집을 차렸다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가 전쟁터 같지. 그래도 잘리기 전엔 절대 제 발로 나오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동네 자영업자의 현실을 ‘지옥’이라고 규정한 이 대사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실제 홈플러스 청주점 일대의 경우 3년 동안 반경 5㎞ 안에 있는 슈퍼마켓 337곳 중 21%가 폐업했다.<br/><br/>2014년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동대문구청장·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들에 내린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br/><br/>2012년 국회가 8년 동안 논의한 끝에 마련한 “<span class='quot0'>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span>”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 조항을 뒤집은 것이다.<br/><br/>이 판결의 해석 논리는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서 대형마트란 ‘점원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매장 한쪽에 점원이 도움을 주는 정육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 대부분의 매장은 안경점이나 화장품점 같은 임대업체가 있고 그곳에서도 점원이 늘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span class='quot1'>이마트와 홈플러스가 대형마트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되지 않는가</span>”라며 “<span class='quot1'>대상 판결의 해석은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문리 해석 범위를 벗어났으며 국민의 법 감정상 도저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span>”이라고 말한다.<br/><br/>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법부 판결이 “공평한가?”라고 묻고 있다. <br/><br/>20여년간 사법 영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의 주요 사법판결에 대해 비평한 결과물을 내놨다. 판결비평 프로젝트 ‘광장에 나온 판결’의 결과물 중 주요 내용 66개를 추린 것이다. <br/><br/>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 직속상관에게 여러 차례 성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에서 피고에게 군형법상 직권남용과 가혹행위죄를 적용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등을 다뤘다.<br/><br/>책은 판결 당시 사회적 성격과 파장, 핵심을 풀이한 ‘판결 인트로’, 재판 과정과 문제가 된 법리, 판결의 문제점을 다룬 ‘판결비평’, 재판부와 재판명,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판결 설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의 기록물로도 의미가 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span class='quot2'>판결은 시민들의 생각과 주장이 모이고 다시 퍼져나가는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span>”고 밝혔다.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주권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권도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시민을 대신해 판결을 할 책임을 부여받을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br/><br/><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4.txt

제목: 호스피스 진료비, 간병인 써도 하루 2만원 안되게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6100000109  
본문: 올해 7월부터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인을 써도 진료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br/><br/>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 수가안을 공개했다.<br/><br/>수가 모형은 치료 행위마다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가 아니라 하루 진료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당정액제가 도입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는 호스피스 의료의 특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고가의 통증 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방침이다.<br/><br/>병실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든 병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2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선택진료비도 보험이 적용되고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는 셈이다.<br/><br/>제도가 시행되면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1만5000원(총 진료비 22만1000원), 간병 서비스까지 이용하면 1만9000원(총 진료비 30만1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환자 부담금이 6인실 기준 하루 평균 2만100원이며 사적 간병비 7만~8만원은 간병인에게 따로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5.txt

제목: [녹색세상]‘공멸의 기차’ 멈추는 조건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6100000020  
본문: 한 손에는 카메라를, 한 손에는 아이 손을 잡고 돼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관한 다큐멘터리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을 위해 제65회 베를린영화제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br/><br/>평소 돈가스를 즐겨 먹었지만 막상 돼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던 필자는, 2011년 구제역 살처분 대란을 보며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고 처음으로 돼지의 삶에 관심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간 것이다. <br/><br/>베를린 관객들의 반응이 무척 궁금했다. ‘어쩌면 내 영화가 보여주는 것들이 이들에겐 철 지난 과거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상영을 하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독일인들에게도 공장식 축산과 육식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임을 알 수 있었다. <br/><br/>그런데 베를린영화제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먼 나라 돼지에 관한 다큐멘터리영화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휴일 밤 자정 넘도록 객석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화제 개막식 후 열린 리셉션 파티가 인상적이었다. 수천명 게스트를 위해 몇 가지 음식이 제공됐는데 모두 채식 메뉴였다. 소시지, 햄이 그토록 흔한 나라에서 말이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비용 절감을 위해? 설마. <br/><br/>이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이다. 기름기 없는 그릇과 설거지의 간편함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나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영화제 스태프 한 사람이 답한다. 베지테리언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고. 어쨌거나 버섯과 감자, 파슬리로 맛을 낸, 소박하지만 향 깊은 최고의 일품요리를 먹으며 그동안 한국에서 감내해야 했던 소수자의 불편함과 차별이 오버랩됐다.<br/><br/>‘비(非)육식인’이 된 지 4년. 회식은 곧 고기를 의미하는 한국에서, 비육식인은 공깃밥에 김치만 먹어야 할 뿐 아니라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는 타박에 시달려야 한다. 1차는 삼겹살에 소주, 2차는 치킨에 맥주, 3차는 소시지에 폭탄주, 해장은 선짓국. 아침에는 햄 샌드위치, 점심에는 돈가스, 저녁에는 설렁탕. 평일에도 고기, 회식이라서 고기, 명절이라고 또 고기. 주요리도 고기, 국과 나물 반찬에도 고기 분말 조미료. 현재 전 세계에서 육식을 피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는 햄버거의 나라 미국도 아닌, 소시지의 나라 독일도 아닌, 한국일 것이다. 진보적인 성향의 모임에서도 육식에 대한 자제는 드물다. 주변에 당뇨병, 고혈압, 뇌질환, 심근경색 약 먹지 않는 사람 드물고, 이른 나이에 각종 암으로 죽어가는 지인들과 그 가족들이 무섭게 많아졌다. 소아 비만도 급증했다. <br/><br/>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라는 안내와 함께 객실에 스프레이 방역제를 뿌린다. 인천공항에는, 구제역과 AI가 심각하니 검역에 협조해 달라는 방송이 울려퍼진다. 설에 아이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 걸렸다. 혹시나 조류독감의 변이는 아닌지 마음을 졸인다. TV에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확산’ ‘방역 안간힘’ ‘고향 방문 자제’ ‘끓여 먹으면 문제없으니 안심하고 고기 소비하라’ ‘조류독감으로 죽은 홍콩 사람들’ 뉴스가 흐르고 소, 돼지, 닭, 오리 살처분은 이제 설 즈음 연례행사가 되었다. <br/><br/>어떤 약제로도 예방 불가능한 인수공통 전염병을 수많은 학자들이 경고한다. 인류 멸망과 생태계 파멸의 징후가 농후한 세기말적 상황 속에 우리는 아랑곳없이 치킨을 주문하고, 오늘도 공장에선 생명들이 고통스럽게 사육, 도살된다. 공허한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죽이고 죽는 공멸의 기차를 멈추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한 길 아닐까? <br/><br/>기차를 멈출 브레이크는 두 가지.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고 고기 소비를 크게 줄이는 것, 그리고 동물의 피와 눈물 대신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밥상을 차리는 일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6.txt

제목: 출산 후 배꼽탈장과 복직근이개의 구별 및 치료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610016397866  
본문: 산후 여성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여성 탈모나, 임신 중 멜라닌 색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기미나 주근깨,&nbsp;온몸이 뻐근한 산후풍(産後風)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발생 빈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배꼽탈장과 이와 많이 혼동되는 복직근이개, 과연 어떻게 구분하고, 치료해야 할까?<br/><br/><strong>출산 후 배꼽탈장, 왜 발생하나?</strong><br/><br/>배꼽탈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임신과 출산이며, 환자군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nbsp;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배꼽탈장으로 내원한 환자 중 30~39세의 여성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출산 후 배꼽탈장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br/><br/>담소유외과(대표원장 이성렬) 탈장클리닉 측은 26일&nbsp;"배꼽탈장은 우리 몸의 복부는 양쪽에 복직근이 수직으로 내려오며, 그사이 좁은 공간을 근막이 유지해 주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배꼽 주변의 근막이 약해지면 이 사이가 벌어져 배꼽탈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nbsp;"출산 후 배꼽탈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신하게 되면 배꼽 주변의 근막이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되고, 복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br/><br/><strong>복직근이개와 배꼽탈장의 구별</strong><br/><br/>출산 후 많은 산모가 복직근이개로 병원을 갔더니 배꼽탈장이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 대한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배꼽탈장과 복직근이개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일까?<br/><br/>우선 복직근이개 역시 배꼽탈장과 마찬가지로 산모나 초고도 비만 환자에게서 나타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치료법이다. 배꼽탈장은 발생 시 수술로서 치료해야 하지만, 복직근이개는 2cm 이상 갈라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회복 된다. 2cm 이상일 경우에는 이 틈을 통해 탈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br/><br/><strong>배꼽탈장의 치료, 입원 기간 및 흉터 없이 가능</strong><br/><br/>그렇다면 배꼽탈장의 치료는 어떻게 이뤄질까? 담소유외과 탈장클리닉 측은 "성인 배꼽탈장의 치료는 수술이 유일하"고 밝혔다. 성인의 배꼽탈장은 신생아 배꼽탈장과 달리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며 방치하게 되면 더 심해지고 교액성 탈장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r/><br/>수술 방법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결손된 근막의 직경이 2cm 이하일 경우 벌어진 근막을 당겨 겹쳐 봉합해주는 것으로 간단히 끝난다. 다만 2cm 이상일 경우는 인공막을 데어야 하는데 배꼽 쪽으로 인공막을 넣거나 복강경으로 붙여주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br/><br/>병원 측은 이어 일반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면, 흉터가 크게 남고, 입원 기간이 길고, 매우 아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nbsp;암 수술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으나, 배꼽탈장 수술의 경우 당일 진료/수술/퇴원이 가능하며, 수술시간도 15분 내외로 짧아 환자의 부담이 덜하며, 배꼽 안쪽에 작은 절개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7.txt

제목: [시대의 창]‘IS 정당’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610016400164  
본문: 글쎄, 중동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할까? 어느 ‘고딩’의 일탈 사건을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닌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당신이 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몇 %인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징후는 3단계를 거친다. 힐링 신드롬, 홈쇼핑, UFC.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심하게 중독된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 다음 단계로 IS 정당원 모집 사이트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br/><br/>국가정보원이 IS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1999년 출시된 영화 <파이트 클럽>을 ‘강추’한다. 나는 오늘날 시대의 정신을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이 걸작을 꼽고 싶다. 영화는 IS 가입 전 1단계 징후로 힐링 열풍에서 시작한다. 주인공은 사무실의 1회용 테이크 아웃 커피 컵과 복사기에 불과한 자기 존재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미생에 불과한 나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충만감은 어디서 가능한 걸까? 결국 주인공은 전립선암에 걸린 적도 없으면서 암 환자들의 위로 클럽 쇼핑에 위장 출입한다. 한국에도 한때 유행했던 그 힐링 열풍 말이다. ‘나는 위로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br/><br/>힐링 시도에 이은 영화에서의 2단계 징후는 이케아 쇼핑이다. 얼마 전 한국에 매장이 설치된 후 주변 도로를 마비시키는 그 경이로운 가구 브랜드 말이다. 주인공은 수많은 가구 카탈로그의 리스트를 뒤적거리며 신상 주문에 열을 올린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br/><br/>하지만 쇼핑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징후는 UFC와 같은 파이트 클럽을 동네에 조직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에는 과거 학교 ‘짱’들이 다시 나와 승부를 겨루는 희한한 복고 게임도 등장한 바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놀랍게도 얻어맞아 피를 흘리면서 비로소 힐링이나 홈쇼핑에서도 채워지지 못한 존재의 짜릿함을 맛본다. 사실 자해를 하기 위해 손목을 긋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면서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낀다고들 한다. 그건 아무리 인공적인 디지털이 발전해도 복제하기 어려운 느낌이다. 누구도 캐리비안 베이 인공 파도 풀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적음을 잘 안다. 안전과 짜릿함은 반비례한다. 이 파이트 클럽은 IS가 얼마 전 쇼핑몰 폭파를 선언했듯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신용카드 회사에 테러를 감행한다. ‘나는 투쟁한다, 고로 존재한다.’<br/><br/>이 영화의 뛰어난 통찰은 과거 건달 패싸움을 연상시키는 이 소동이 결코 시대착오적 복고가 아니라 현대성에 대한 가장 포스트 모던한 반응이라는 점에 있다.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점차 공허해지는 미생의 시대에 대한 탈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IS 그룹을 그저 전근대적 이슬람 근본주의 종교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이들은 앞으로도 그들의 행보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br/><br/>흔히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 IS현상을 그저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의 영향력이 한국에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곤 한다. 정부는 처벌의 법리적 근거 마련과 테러 방지 법안 정비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물론 필요한 고민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IS현상은 현재 지구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공허함과 희망의 결핍을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미로 같은 글로벌 저성장 시대와 기존 문명 패러다임의 대붕괴 앞에서 극단적 정치세력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이미 미국의 티 파티 운동과 한국의 일베 현상은 그 전조를 보여준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허경영신드롬은 희극으로 끝났지만 이후 언젠가 대선에서 변종 IS 대선 후보의 등장 가능성은 희망이 없는 우리 시대의 비극적 증언이 될 것이다. <br/><br/>작년에 박노해 문명 사진전의 열풍, 세월호 비극과 교황 방문 사건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를 시민 공동체는 간절하게 물은 바 있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인터스텔라> 영화 현상도 본질적으로 같은 시대적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 물음에 대해 제도권·정치권은 부실한 답안을 제출했다. 혹은 대안적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은 1970년대 흑백 텔레비전을 다시 보는 느낌이다. 10년째 한국의 정치세력들에 진정한 도전자 브랜드가 될 것을 주문해온 나는 그들 대신에 IS가 쿨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현상이 경악스럽기만 하다. 우리 삶의 의미라는 존재의 간절한 물음에 대해 최소한 그들은 혐오스럽고 병리적 형태로라도 치열하고 매혹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br/><br/>모든 정치세력은 답해야 한다. 과연 자신들은 삶의 진정한 충만함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주는 출구가 될 수 있는가? IS 정당이 조금씩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br/><br/><안병진 |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8.txt

제목: 호스피스 진료비, 간병인 써도 하루 2만원 안되게  
날짜: 2015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51001638867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7월부터 전문기관 건보 적용</strong><!-- SUB\_TITLE\_END--><br/><br/>올해 7월부터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인을 써도 진료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br/><br/>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 수가안을 공개했다.<br/><br/>수가 모형은 치료 행위마다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가 아니라 하루 진료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당정액제가 도입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는 호스피스 의료의 특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고가의 통증 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방침이다.<br/><br/>병실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든 병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2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선택진료비도 보험이 적용되고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는 셈이다.<br/><br/>제도가 시행되면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1만5000원(총 진료비 22만1000원), 간병 서비스까지 이용하면 1만9000원(총 진료비 30만1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환자 부담금이 6인실 기준 하루 평균 2만100원이며 사적 간병비 7만~8만원은 간병인에게 따로 지급해야 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29.txt

제목: [녹색세상]‘공멸의 기차’ 멈추는 조건  
날짜: 2015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510016388559  
본문: 한 손에는 카메라를, 한 손에는 아이 손을 잡고 돼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관한 다큐멘터리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을 위해 제65회 베를린영화제에 참가하고 돌아왔다.<br/><br/>평소 돈가스를 즐겨 먹었지만 막상 돼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던 필자는, 2011년 구제역 살처분 대란을 보며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고 처음으로 돼지의 삶에 관심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간 것이다. <br/><br/>베를린 관객들의 반응이 무척 궁금했다. ‘어쩌면 내 영화가 보여주는 것들이 이들에겐 철 지난 과거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상영을 하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독일인들에게도 공장식 축산과 육식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임을 알 수 있었다. <br/><br/>그런데 베를린영화제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먼 나라 돼지에 관한 다큐멘터리영화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휴일 밤 자정 넘도록 객석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화제 개막식 후 열린 리셉션 파티가 인상적이었다. 수천명 게스트를 위해 몇 가지 음식이 제공됐는데 모두 채식 메뉴였다. 소시지, 햄이 그토록 흔한 나라에서 말이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비용 절감을 위해? 설마. <br/><br/>이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이다. 기름기 없는 그릇과 설거지의 간편함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나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영화제 스태프 한 사람이 답한다. 베지테리언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고. 어쨌거나 버섯과 감자, 파슬리로 맛을 낸, 소박하지만 향 깊은 최고의 일품요리를 먹으며 그동안 한국에서 감내해야 했던 소수자의 불편함과 차별이 오버랩됐다.<br/><br/>‘비(非)육식인’이 된 지 4년. 회식은 곧 고기를 의미하는 한국에서, 비육식인은 공깃밥에 김치만 먹어야 할 뿐 아니라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는 타박에 시달려야 한다. 1차는 삼겹살에 소주, 2차는 치킨에 맥주, 3차는 소시지에 폭탄주, 해장은 선짓국. 아침에는 햄 샌드위치, 점심에는 돈가스, 저녁에는 설렁탕. 평일에도 고기, 회식이라서 고기, 명절이라고 또 고기. 주요리도 고기, 국과 나물 반찬에도 고기 분말 조미료. 현재 전 세계에서 육식을 피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는 햄버거의 나라 미국도 아닌, 소시지의 나라 독일도 아닌, 한국일 것이다. 진보적인 성향의 모임에서도 육식에 대한 자제는 드물다. 주변에 당뇨병, 고혈압, 뇌질환, 심근경색 약 먹지 않는 사람 드물고, 이른 나이에 각종 암으로 죽어가는 지인들과 그 가족들이 무섭게 많아졌다. 소아 비만도 급증했다. <br/><br/>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라는 안내와 함께 객실에 스프레이 방역제를 뿌린다. 인천공항에는, 구제역과 AI가 심각하니 검역에 협조해 달라는 방송이 울려퍼진다. 설에 아이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 걸렸다. 혹시나 조류독감의 변이는 아닌지 마음을 졸인다. TV에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확산’ ‘방역 안간힘’ ‘고향 방문 자제’ ‘끓여 먹으면 문제없으니 안심하고 고기 소비하라’ ‘조류독감으로 죽은 홍콩 사람들’ 뉴스가 흐르고 소, 돼지, 닭, 오리 살처분은 이제 설 즈음 연례행사가 되었다. <br/><br/>어떤 약제로도 예방 불가능한 인수공통 전염병을 수많은 학자들이 경고한다. 인류 멸망과 생태계 파멸의 징후가 농후한 세기말적 상황 속에 우리는 아랑곳없이 치킨을 주문하고, 오늘도 공장에선 생명들이 고통스럽게 사육, 도살된다. 공허한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죽이고 죽는 공멸의 기차를 멈추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한 길 아닐까? <br/><br/>기차를 멈출 브레이크는 두 가지.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고 고기 소비를 크게 줄이는 것, 그리고 동물의 피와 눈물 대신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밥상을 차리는 일이다.<br/><br/><황윤 | 다큐멘터리영화 감독>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0.txt

제목: 보람상조, 고령화 사회에 맞춘 서비스 제공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410016375709  
본문: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36세 윤모씨는 올해 4월에 암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윤씨의 아버지는 평소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건강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올해 초 부모님을 생각해 건강검진을 해드렸다가 폐암에 대해 알게 됐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br/>&nbsp;<br/>상을 치르고 난 후 윤씨는 더 이상 장례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절실히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살아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상조가입을 하고 건강과 장례에 대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 장례를 치를 때 비용도 컸던 데다 돌아가신 분들의 가시는 길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기 위해 상조가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br/>&nbsp;<br/>이처럼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장례 및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3명에 한 명꼴로 암이 발병하기도 하니,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br/>&nbsp;<br/>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례 서비스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상조서비스에서 모두 같은 방식의 장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품격이 다른 서비스를 저마다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br/>&nbsp;<br/>사람들은 흔히 상조서비스라고 하면 장의상품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사후 관리만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보람상조(회장 최철홍)의 경우 요즘은 매년 가족들의 건강 검진 및 병원 예약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br/>&nbsp;<br/>또 상조 가입을 위한 비용적인 문제도 자유상담제 등을 통해 월 납입금을 1만 원대부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비싼 상조 가입만 고려하기보다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는 상조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1.txt

제목: “암 낫게 해줄게”…불법 침술로 유방암 환자 숨져  
날짜: 2015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410016370844  
본문: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자격없이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치료사 김모씨(50)를 구속했다.<br/><br/>김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 환자 ㄱ씨(56·여)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만에 숨졌다.<br/><br/>김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침을 놓는 원격 기치료방을 운영해오다가 ㄱ씨에게 침을 놔주기 위해 대구로 출장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span class='quot0'>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지 않았는데 ㄱ씨가 치료를 받길 원해서 해줬다</span>”고 진술했다.<br/><br/>ㄱ씨와 함께 침을 맞은 또다른 유방암 환자는 몸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을 찾아 염증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br/><br/>김씨는 일명 ‘아바타 테라피’라는 자신의 치료 요법과 관련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15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전국 순회 강연이나 회원끼리 정기모임을 열기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대의학으로 믿기 어려운 시술을 받는 피해자들이 간혹 있고 무자격 침술사가 이를 악용한 사례</span>”라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2.txt

제목: 고령층 생명·장기손해보험 가입률 33% 불과  
날짜: 2015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2010016350156  
본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암이나 중대 질환을 앓을 확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령층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보험료가 싼 보험상품이 적극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20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 등의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연령대에서 81.6%로 나타났다.<br/><br/>이 가운데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지만 60대에서 73.2%로 낮아졌으며 70세 이상은 32.5%로 급감하는 모습이다.<br/><br/>특히 질병·암보험 등 노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험상품의 경우 40∼50대는 20∼30% 정도의 가입률이 유지됐지만 70대 이상에서는 2.6%에 불과했다.<br/><br/>강 위원은 “<span class='quot0'>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과 소득에 대한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고령층 보험가입률은 아직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span>”이라고 말했다.<br/><br/>70세 이상의 보험가입률이 낮은 데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r/><br/>국내 보험시장에서는 고령자 전용 상품인 이른바 ‘실버보험’이 암보험을 중심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돌봄서비스나 차량지원 등을 포함하는 현물서비스의 경우 상조·간병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제한돼 있어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br/><br/>또 고령층은 소득이 적고 불안정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br/><br/>강 위원은 “<span class='quot0'>사회안전망은 공적 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령친화형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3.txt

제목: 미스코리아 과학자 금나나 “학계에 남고싶어요”  
날짜: 2015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910016346930  
본문: “연구는 하면 할 수록 모르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br/><br/>2002년 미스코리아 진이자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금나나씨(32)가 생명과학자들의 커뮤니티 브릭이 선정한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한빛사는 과학계에서 굵직한 연구성과를 낸 한국인 과학자를 소개하는 코너로 과학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br/><br/>금씨는 ‘국립암연구소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성인의 체중증가와 암 연관성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한다. 기존 체질량지수(BMI)를 바탕으로 암 발생률 증가를 산정하는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18세 이후의 체중 증가정도에 따른 암 발생 정도를 분석했다. 금나나씨는 연구를 주도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br/><br/>금씨는 “BMI 의 경우 별도의 계산의 과정을 거쳐하 하지만 18세 이후 체중 증가는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을 이해하기 쉽다는 보건학적인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br/><br/><br/><br/><br/><br/>미국 국립암연구소저널은 지난해 인용도(Impact Factor)가 15로, 세계 암 분야 저널 가운데 8번째로 인용도가 높다. 학술지 영향력을 의미하는 인용도는 세계유명저널인 네이처(Nature)가 42, 셀(Cell)은 33, 사이언스(Science)는 31이다. 한빛사는 생명과학분야 학술지 가운데 인용도 10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한국인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다.<br/><br/><br/><br/><br/><br/>금씨에게 13년전 출전한 미스코리아는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는 “가끔식 문뜩 생각나는 정도”라며 “공부하듯 미스코리아를 준비했던 제 어린 자아가 생각나 웃음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로 (연구성과가) 기사화되고 당연히 해야할 것을 하는데도 과대 칭찬되는 것 같아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자신을 더 혹독하게 몰아치는 것 같다”고도 했다. <br/><br/>금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스코리아 진’으로 기억하는 것에 “<span class='quot0'>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다르다</span>”며 “<span class='quot0'>미국에 건너와 공부하면서 ‘미스코리아 금나나’가 아닌 ‘금나나’로 살아온지 오래됐다</span>”고 말했다. 또 “제가 제 자신을 정의할 때 미스코리아가 차지하는 부분은 작다”면서도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닐 것을 알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금나나씨는 경북과학고를 졸업한 뒤 경북대 의대에 재학중이던 2002년 미스코리아에 출전해 진에 뽑혔다. 당시 미스코리아 대회 사상 최초의 ‘과학고 출신 의대생’으로 주목받았다.<br/><br/>미스코리아 진이 된 뒤에도 그의 행보는 연일 화제가 됐다. 과학자로서의 길을 택한 그는 2004년 미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에 동시에 합격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중 하버드대 생물학과로 진학했다. 하버드대 학부 재학 시절 1학년 첫학기에 모든 과목에서 에이(A)학점을 받았다. 이후 미국 콜롬비아대에 진학해 2010년 영양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br/><br/>금씨는 2010년 5년간 전액 장학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2013년 5월에는 우수 조교상을 수상했다. 그의 이력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금씨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총 10편에 달한다. 금나나씨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br/><br/>금나나씨는 식생활·비만·운동이 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진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금나나씨는 “<span class='quot1'>학교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span>”며 “<span class='quot1'>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이 좋다</span>”고 말했다. 교수 등을 염두에 두고 학계에 남을 계획이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4.txt

제목: 설 연휴 서울 도심서 전통놀이·문화행사 어디서 열리나  
날짜: 2015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610016326190  
본문: ‘설 연휴 서울 도심에서 전통놀이도 하고, 문화공연도 즐기고.’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서울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16일 소개했다.<br/><br/>연휴 기간 운현궁, 남산골 한옥마을, 낙산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내 11개 공원과 11개 한강공원에서 윷놀이·널뛰기·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br/><br/>흥선대원군의 사가이자 고종의 잠저인 운현궁에선 18~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양각색의 설날 문화행사가 열린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차례상 차리기 해설도 들을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19~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떡국 나누기, 차례상 해설, 공연 등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일부 유료)다.<br/><br/><br/><br/>한성백제박물관에선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설날 박물관 큰잔치’가 19~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광장 및 로비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놀이마당·체험마당·겨루기마당·공연마당 총 4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박물관에서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러시아 연해주 문물전 <프리모리예>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br/><br/>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한마당’을 연다. 박물관 광장에서는 인절미 떡메치기, 뻥튀기, 가래떡 구워먹기, 추억의 솜사탕 등 ‘추억의 음식’ 만들기에도 참여하고 시식할 수 있다.<br/><br/><br/><br/>암사동유적지에서는 전통놀이 체험뿐만 아니라 선사체험도 할 수 있다. 선사체험은 5000~6000원의 참가비로 유적지 내 체험교실에서 토기 만들기, 움집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br/><br/>서울시청 건물에 있는 시민청에서는 ‘장롱 속 한복 리폼하기’와 스페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헤수스 수스 작가 초대전 등이 마련됐다. 18~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됐고, 시민청 지하1층에서는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활력콘서트가 열린다.<br/><br/><br/><br/>세종문화회관은 17~22일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전통복합문화공간 삼청각에서는 설맞이 공연으로 판소리 춘향가를 경기민요와 재담, 판소리로 재구성한 <진찬춘향(春香)>을 19~20일 오후 12시에 선보인다. 공연과 점심식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석 7만원이다. <br/><br/><br/><br/><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5.txt

제목: 미스코리아 금나나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날짜: 2015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31001632321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생명과학 커뮤니티 ‘브릭’ 선정</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체중 증가와 암 연관성 연구 성과</strong><!-- SUB\_TITLE\_END--><br/><br/>2002년 미스코리아 진 금나나씨(32·사진)가 국내 생명과학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브릭에 의해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됐다. 한빛사는 과학계에서 굵직한 연구성과를 낸 한국인 과학자를 소개하는 코너이기도 하다. 국내 학자들이 금씨의 연구성과를 인정한 것이다.<br/><br/><br/>브릭은 13일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금씨가 한빛사에 선정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br/><br/>금씨는 3월 ‘국립암연구소저널’에 ‘성인의 체중 증가와 암 연관성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한다. 금씨는 논문에서 체중 증가와 암 연관성에 대한 기존 논문 50편을 재분석했다. 금씨는 연구를 주도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br/><br/>미국 국립암연구소저널은 지난해 인용도(Impact Factor)가 15로, 세계 암 분야 저널 가운데 8번째로 인용도가 높다. 학술지 영향력을 의미하는 인용도는 세계 유명 저널인 네이처(Nature)가 42, 셀(Cell) 33, 사이언스(Science)가 31이다. 한빛사는 생명과학분야의 학술지 가운데 인용도 10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한국인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다.<br/><br/>금씨는 경북과학고를 졸업한 뒤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2002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혔다. 2004년 미국 하버드대 생물학과에 진학하며 과학자 길을 택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에 진학, 2010년 영양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br/><br/>금씨는 2010년 5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2012년부터 금씨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총 10편에 달한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6.txt

제목: [단독]‘미스코리아 하버드생’ 금나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뽑혔다  
날짜: 2015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310016314995  
본문: 2002년 미스코리아 진 금나나씨(32)가 생명과학자들의 커뮤니티 브릭이 선정한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됐다. 한빛사는 과학계에서 굵직한 연구성과를 낸 한국인 과학자를 소개하는 코너로 과학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br/><br/>브릭은 13일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금나나씨가 한빛사에 선정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금나나씨는 오는 3월 ‘국립암연구소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성인의 체중증가와 암 연관성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한다. 금나나씨는 논문에서 체중증가와 암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 논문 50개를 재분석했다. 금나나씨는 연구를 주도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br/><br/>미국 국립암연구소저널은 지난해 인용도가 15로 높은 편이다. 전세계 암 분야 저널 가운데 8번째로 인용도가 높다. <br/><br/>한빛사는 생명과학분야의 세계적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 가운데 인용도(Impact Factor)가 10 이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한국인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다. <br/><br/>금나나씨는 경북과학고를 졸업한 뒤 경북대 의대에 재학중이던 2002년 미스코리아에 출전해 진에 뽑혔다. 출전당시 금나나씨는 미스코리아 대회 사상 최초의 ‘과학고 출신 의대생’으로 주목받았다.<br/><br/>미스코리아 진 선정 이후에도 금나나씨의 행보는 연일 화제가 됐다. 미스코리아 진으로 유명세를 치렀지만 금나나씨는 2004년 미국 하버드대 생물학과로 진학하며 과학자로서의 길을 택했다. 당시 금나나씨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에 동시에 합격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버드대 학부 재학 시절, 1학년 첫학기에 모든 과목에서 에이(A)학점을 받았다. 이후 미국 콜롬비아대에 진학해 2010년 영양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br/><br/>금나나씨는 2010년 5년간 전액 장학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2013년 5월에는 우수 조교상을 수상했다. 금나나씨의 이력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금씨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총 10편에 달한다. 금나나씨는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7.txt

제목: [‘건강도약 2015’ 인터뷰](6) 전호경 강북삼성병원 외과 교수  
날짜: 2015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3100000008  
본문: “대장암은 90%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암의 씨앗인 용종이나 선종을 일찍 발견해 제거하면 되니까요. 1기 이하 조기암 완치율은 90%가 넘고 조기암은 내시경 절제도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이야말로 대장암의 안전벨트인 셈입니다.”<br/><br/>대장암 치료의 권위자인 전호경 강북삼성병원 외과 교수(60·진료부원장)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대목이다.<br/><br/>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대장암은 암 발생률 3위를 차지한다.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위암보다 대장암이 더 많다. 65세 이상 여성은 대장암이 암 중 1위다. 2008~2012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74.8%로 전체 암 평균(68.1%)보다 높은 편이다. 1기의 경우 약 95%에 이르고, 2기는 80%다.<br/><br/><br/><br/>▲암 발생률 3위…여성에 더 많아<br/>대장내시경 검진은 꼭 받아야<br/>생활·식이습관 관리로 예방을<br/><br/>전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에는 대장암이라고 하면 털썩 주저앉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진행암이라도 수술을 잘하면 4명 중 3명이 완치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힘들더라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대장내시경을 통해 암의 씨앗을 제거하라</span>”고 거듭 주문했다.<br/><br/>-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무엇입니까.<br/><br/>“대장암은 유전과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명확히 진단된 가족성 대장암의 가계, 가족 중 대장암·난소암·유방암 등 관련 암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본인이 대장암이나 난소암·유방암을 앓았던 경우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남들에 비해 더욱 철저하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지방과 붉은색 육류, 굽거나 튀긴 육류의 섭취가 많은 경우, 동물성 지방 외에도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섭취할 경우 대장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 역시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운동 부족도 대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비만은 특히 남성과 폐경 전 여성에서 대장암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br/><br/>-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수칙을 말씀해 주십시오.<br/><br/>“우선 앞에 나열한 교정 가능한 생활습관과 식이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고,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총 섭취 칼로리를 낮추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입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합니다.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 청소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초음파나 CT 등 영상 검사로 대장에 대한 검사를 대신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 검사로 발견 가능한 대장암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병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크기가 크지 않은 조기 병변, 그리고 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용종은 대장내시경으로만 진단 및 제거가 가능하므로, 불편하더라도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대장암을 앓고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은 대장암을 비롯해 다른 암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0세가 넘으면 증상이 없어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3~5년마다 추적검사를 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은 2~3년에 한 번, 대형 용종이나 조기암이 발견됐던 사람은 6개월~1년 사이에 재검사가 꼭 필요합니다.”<br/><br/>- 대장암은 수술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br/><br/>“현재까지 대장암의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에서 병소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우선적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4기 대장암 환자라도 수술을 잘하면 40%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가 되었더라도 전이 부위의 암을 완전히 떼어낼 수 있는 상태라면 대장암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 외에 보조요법으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1기 대장암에서는 보조항암요법이 필요없으며, 2기 대장암에서는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항암요법을 시행합니다. 3기나 4기에 해당한다면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항암요법이 필수적입니다. 대장의 다른 부위보다 수술이 어렵고 국소재발률이 높은 직장암의 경우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며, 이 경우 대부분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진행합니다. 수술 후 병기에 따라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영상 검사에서 어느 정도 깊이가 깊고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이라고 판단되면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수술을 진행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이즈(크기)를 줄여 국소재발의 확률을 낮추고 항문 보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br/><br/>- 대장암도 복강경 수술이 요즘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br/>“수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은 개복수술이지만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 표준적인 수술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항문 영역에서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과 치료 성적이 거의 비슷하며 통증이 덜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 손을 복강 내에 넣어 시행하는 수부보조복강경 수술, 배꼽 부근에 구멍을 하나만 뚫고 시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 로봇팔을 이용해 시행하는 로봇 복강경 수술 등 방법이 다양합니다.”<br/><br/>- 대장암 치료율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br/><br/>“대장암 치료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시 환자의 병기입니다. 암이 커지고 깊어지기 전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암이 되기 전의 용종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회 권고안에 따라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br/><br/>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을 비우는 약을 먹기 싫어 대장내시경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대형사고’가 많이 벌어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므로 4기라도 절대 희망을 버리면 안된다</span>”고 당부했다.<br/><br/>주요 약력 : 서울대 의대 졸업, 삼성서울병원 외과과장·건강의학센터장, 성균관대 외과학 주임교수,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회장, 세계대장항문학회 사무총장, 유라시안대장항문학회 부회장(현),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현), 아·태 대장항문학회 집행위원(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8.txt

제목: 명의예감(17)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날짜: 2015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210016303788  
본문: ■대장암과 염증성 장질환 분야의 ‘차세대 주자’<br/><br/>“진행성 암 환자들을 진료할 때마다 안타까왔던 것은, 그 분들이 성실하게 일만 하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몸이 보내는 조기 신호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또 정기적인 진료나 검진을 소홀히 하여 이미 치료의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일년에 단 하루라도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만드세요.”<br/><br/>대장암 조기 선별 검사와 염증성 장질환 분야의 차세대 주자인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44·소화기내과 과장)가 첫 마디로 강조한 대목이다.<br/><br/>차 교수는 대장암의 전단계인 진행성 대장 종양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도에 기반한 선별 검사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했다. 나이, 성별, 비만(체질량지수, BMI), 흡연 여부, 대장암의 가족력 유무 등 5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예측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을 갖고 50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실시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대체보완요법 사용실태’와 ‘내시경 의사의 피로도를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모델’에 관한 다기관 공동 연구도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했다. 이상의 결과들은 모두 유수 국제학술지에 실려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br/><br/>■한국인 특성에 맞는 선별검사법 등 개발 ‘주목’<br/><br/>차 교수가 특히 주력하는 임상 및 연구 분야는 대장암과 난치성 대장질환이다. 조기대장암 클리닉과 염증성장질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화기질환 분야의 100여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게재했다.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내시경아틀라스>, <공기를 넣지 않는 무통대장내시경 삽입법> 등 10여편의 저서도 냈다. 유럽소화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등에서 학술상·포스터상을 여러차례 받았다.<br/><br/>차 교수에 따르면 최근 위암 발병률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서 꾸준히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고기보다는 채식이 많은 국내 환자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암이었지만 이제 국내 대장암 발생률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 환자들과 비슷하거나 훨씬 능가한다.<br/><br/><br/><br/><br/><br/>“대장내시경을 통해 암의 전 단계인 용종(폴립)을 찾아내고 제거해 암으로의 진행을 애초에 차단해야 합니다. 암의 ‘씨앗’을 자르는 것이죠.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용종·선종 단계를 거치는데, 90~95%는 암으로 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br/><br/>■‘쪽집게처럼’ 잡아내는 내시경 시술의 ‘베테랑’<br/><br/>차 교수는 꼼꼼함과 세심한 내시경 시술로 정평이 나 있다. 대장의 점막 주름이나 맹장 안쪽 등 일명 ‘사각지대’에 놓인 용종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한다. 투명 캡을 내시경에 장착해 캡으로 점막 주름을 눌러가면서 검사하거나, 내시경을 반전시켜 뒤에서 앞을 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용종이 납작해 올가미에 잡히지 않는 경우에도 생리식염수를 주입해 병변을 띄운 채 엮어서 잘라낸다.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암 조기병변은 ‘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을 사용해 마치 뗏장이나 포를 뜨듯 싹 도려내는 등 소화기 내시경의 베테랑으로 꼽힌다.<br/><br/><br/><br/><br/><br/>‘환자와 같이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를 의사로서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차 교수는 1996년 경희대 의대를 졸업,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 전임의 과정을 거쳤다.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윤리 및 내시경질관리 위원, 대한장연구학회 편집위원 및 학술위원, 대한장연구학회종양연구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39.txt

제목: “왜 사느냐 아닌 어떻게 사느냐 초점”  
날짜: 2015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2100000010  
본문: 소아외과 병동을 배경으로 진정한 휴머니즘을 그린 <굿 닥터>의 기민수 PD와 박재범 작가가 국내 최초 판타지 의학 드라마 <블러드>로 다시 뭉쳤다.<br/><br/><블러드>는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의 존귀함과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뱀파이어 외과의사 박지상(안재현)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다. <굿 닥터>에서 서번트 증후군을 겪는 의사의 성장 과정을 그렸던 이들의 ‘휴머니즘’에 대한 의도는 이번 작품과도 일맥상통한 듯하다. <br/><br/>하지만 <블러드>는 ‘뱀파이어’라는 소재를 내세웠다. 사회를 약자의 고혈을 빠는 ‘거대 흡혈귀’로 비유한 기 PD는 거대 흡혈 사회에 대항하는 진짜 뱀파이어를 통해 강자의 논리를 비판하고 의료 현실과 인간 생명의 가치를 논하고자 했다.<br/><br/>11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열린 <블러드> 제작발표회에서 기 PD는 “<span class='quot0'>바이러스에 감염된, 뱀파이어 습성을 가진 의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피’에 대한 동경을 가진 인물이 의료 공간에 투입됐을 때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재밌을 것 같고 작가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br/>그는 이어 “뱀파이어 자체가 영생의 존재다. 영생의 존재가 말기 암 환자들을 다루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단상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의 공간과 인물들을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r/><br/>기 PD는 이어 “이 드라마의 메시지는 ‘왜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맞춰져 있다”며 “누구나 오래 살길 원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느냐. 이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한 백신이나 약품을 개발하려는 것이 그렇게 절대 악처럼 묘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실제로 드라마는 스스로 감염 바이러스를 몸에 투입한 이재욱(지진희)과 점점 인간의 따뜻함을 닮고 싶어 하는 박지상(안재현)의 대립을 다룬다. 하지만 절대적인 선과 악이 아닌, 인간을 치유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br/><br/>극중 태민 암병원의 병원장 이재욱을 연기하는 지진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꼭 악역이라고만 할 수 없다. 복합적이다”라며 “인간이 200살까지 살기 위해 필요한 약을 찾기 위한 과정이 있었고, 그 답이 ‘뱀파이어’ 바이러스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재욱은 결국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대의명분하에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꾸미는 인물</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드라마를 이끄는 두 인물에 대해 기 PD는 “지상이나 재욱이 둘 다 매력적인 인물이다”라며 “하지만 두 인물이 서로 강렬한 대비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브로맨스’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br/><br/> 그는 이어 “두 인물은 같은 감염자로서 느끼는 묘한 동질감이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대비될 인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br/><br/>한편 <블러드>는 뱀파이어 의사의 활약상과 멜로를 담은 판타지 의학 드라마로 오는 16일 첫 방송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0.txt

제목: 제방훈 국회 비서관, 헌혈유공장 금장 수상  
날짜: 2015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210016305470  
본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제방훈 비서관(34)이 지난 8일 50번째 헌혈을 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상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br/><br/>제 비서관은 군복무 시절부터 ‘헌혈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헌혈을 시작했다. 그 결과&nbsp;2009년 헌혈유공자 은장을 받았고 이후 6년 만인 이번에 금장까지 받게 됐다.&nbsp;<br/><br/>제 비서관은 지난 11년간 전혈 15회, 혈장 26회, 혈소판 7회 등 총 50회의 헌혈을 했다. 헌혈량이 1회 400cc임을 감안하면 제 비서관이 현재까지 한 헌혈량은 2만cc나 된다. 평소 헌혈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온 제 비서관은 근무가 없는 주말을 이용하거나 기회가 닿을 때마다 헌혈에 참여해왔고 헌혈증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도 해왔다.&nbsp;<br/><br/>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암·백혈병 환자 등 중증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혈액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헌혈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제 비서관의 수상은 주위사람들에게 헌혈을 통한 나눔의 실천자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는 탄자니아 아동과 1:1 해외아동결연후원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bsp;<br/><br/>제 비서관은 “<span class='quot0'>헌혈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기회가 된다면 50번의 헌혈이 500번이 될 때까지 헌혈에 참여해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1.txt

제목: 암 위험성 줄인 여성 폐경 증상 치료제 ‘듀아비브’ 출시  
날짜: 2015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110016293959  
본문: ■자궁내막 증식·유방 자극 등 줄여<br/><br/>한국화이자제약은 여성 폐경 증상 치료제인 ‘듀아비브’를 출시했다. 하루 1알 경구 투여하면 자궁을 적출하지 않은 여성에서 폐경과 연관된 혈관운동 증상을 개선하고 폐경 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br/><br/><br/><br/>기존 에스트로겐 요법(호르몬대체요법)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자궁내막 증식과 유방 자극 등의 위험을 줄여 기존 약물보다 안전성이 높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화이자측은 설명했다.<br/><br/><br/><br/>■임신 태교 출산 지침서 ‘해피 버스 플랜’<br/><br/>박문일 대한태교연구회 회장(동탄제일병원 원장)이 임신 태교 출산의 지침서인 <해피 버스 플랜>을 출간했다. 태아는 잘 자라고 있는지, 임신부 몸의 변화는 정상인지, 병원에 가면 어떤 진료와 검사를 받는지 등 예비 엄마 아빠가 꼭 알아두어야 내용들을 망라했다.<br/><br/><br/><br/><br/><br/>임신과 출산에 관한 재미있는 해외 토픽과 뉴스, 최신 연구 자료, 환자들과의 진솔한 일문일답도 수록했다. 저자는 유산·조산, 자궁경부무력증, 자연주의 출산 분야의 권위자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2.txt

제목: [김석종의 만인보]나전칠기를 첨단화하는 작가 김영준  
날짜: 2015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110016297827  
본문: <b>▲ 나전칠기를 첨단 디자인에 접목하는 전통공예 미술가 김영준<br/>빌게이츠 게임 박스, 프란치스코 교황 의자 자개옻칠로 만들어 <br/>냉장고, 휴대전화, 호화 유람선·요트, 항공기, BMW 자동차에도 접목</b><br/><br/>‘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은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주창한 탁월한 문장론이다. 연암은 “<span class='quot0'>법고에 집착하면 때묻을 염려가 있고, 창신에만 경도되면 근거가 없어져서 위험하다</span>”고도 했다. 어디 문장뿐일까. 모든 세상살이에 두루 들어맞는 이치일 터다. 요 근래 전통공예의 법고창신에 꽤 근접한 듯한 나전칠기(자개옻칠) 작가 김영준(56)을 자주 만난다. 거푸 만나면서 기존 장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내와 의기투합하게 된 거였다.<br/><br/>나전칠기는 전복 등 조개의 속껍질(자개)로 문양을 만들고 그 위에 옻칠을 하는 것이지만, 김영준의 작업은 좀 더 새롭고 특별하다. 천년 동안 비전(秘傳)된 전통 자개공예로 현대미술, 그것도 추상회화까지 나아간다. 나전칠기를 첨단 과학기술 상품과 명품 인테리어에 접목하는 것도 남다른 주특기다. <br/><br/>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디오 게임기 엑스박스(X-box) 케이스에 매화·나비 문양의 자개옻칠을 한 게 바로 김영준이다. 빌 게이츠가 먼저 한국 나전칠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동양과 서양, 전통문화와 첨단 IT산업의 융합과 콜라보레이션(협업)을 제안했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2008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엑스박스를 선물했다. 김영준은 이 작업으로 미술계에서 확 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나중에 선물용으로 100개를 더 주문했다. 이 작업은 아마도 동양 전통예술인 자개가 세계 초일류 IT상품 디자인에 동원된 첫 쾌거였다고 해도 될 거다.<br/><br/>김영준이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다. 작년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해 명동성당 미사를 집전할 때 앉았던 ‘역사적인’ 의자를 그가 만들었다. 교황 의자는 전체적으로 까만 옻칠을 하고 높다란 등받이 뒷면에 교황 문양을 자개로 박아넣었다. 그 문양이 작고 담박해서 검소한 교황의 품성과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다. <br/><br/>알고 보니 그는 장인에게서 혹독하게 배운 공예인과는 거리가 멀다. 거의 독학하다시피 자개와 옻칠을 공부했다. 전승을 중시하는 인간문화재 입장에서는 근본 없는 돌연변이랄까(하긴, 생물학에서도 돌연변이를 진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살아온 내력 역시 파란만장하다. 강원대 공대를 나온 ROTC 장교 출신. 젊어서는 큰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였다고 한다. 매주 방송에 출연해 투자 분석을 할 정도로 잘나가는 증권 전문가였다니 그것도 예상 밖이다.<br/><br/><br/>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말이 좋아 ‘자본주의의 꽃’이지 실제로는 날마다 희비가 요동치는 ‘자본주의 정글’이라고 했다. 대박과 쪽박 사이에서 처절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친한 동료가 암에 걸려 사망하면서 회의가 밀려왔다. 증권사 경력 딱 10년을 채운 1994년 촌각을 다투는 소모품 생활과 영영 굿바이했다. “미쳤다”고 원망하는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을 보면서 와락 겁이 나기도 했다. 가구회사 대표인 친구를 찾아갔다가 나전칠기 공예가를 만난 건 운명이었단다. 첫눈에 자개와 옻칠의 오묘한 색감에 반했다.<br/><br/>한때 자개장롱·보석함 등으로 각광받았던 나전칠기가 이미 사양길인 줄 알았단다. 하지만 증권맨의 감은 남달랐다. “남이 가는 반대 방향에 ‘꽃길’이 있다는 주식 격언이 있다. 시세가 바닥일 때 투자해야 이문이 큰 법이다.”<br/><br/>새 인생의 출발 또한 엉뚱했다. 전통공예를 하기로 결심했으면서 미국행을 택했으니. 이런 게 김영준식 역발상이다. 혼자 ‘노가다’로 학비를 벌면서 LA 아트&디자인아카데미스쿨에 다녔다. 고생고생 끝에 공부를 끝내고 2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엔 IMF 사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구 회사 친구는 부도 상태였다. 그 친구와 무허가 건물을 빌려 수공예 가구를 만들었다. 일이 없을 때는 택시운전까지 했다고 한다. <br/><br/>전통 장인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그다지 배울 게 없었다. 심지어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옻칠 대신 합성도료인 ‘카슈’ 칠을 해서 후다닥 물건을 뽑아내는 이들도 많았다(우리나라 나전 공예의 현실이 그러하다). 어렵사리 돈을 모아 옻칠로 유명한 일본 가나자와에 가서 칠기 기법을 배워왔다. 그 후에도 이탈리아 도무스 아카데미에서 디자인 특별과정, 서울산업대 IT 디자인대학원 등에서 공부하면서 나전을 현대에 맞게 진화시키겠다는 처음의 결심을 밀어붙였다. 작업 공정도 현대화했다. 자개의 입체감을 내는 기법, 옻 원액 정제 기술, ‘컬러 옻칠’ 기술 등으로 특허를 냈다.<br/><br/>‘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지 꼬박 10년이 지나서야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왔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한국공예대전, 문화관광상품대전에 잇따라 입상했다. 나전과 칠기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따랐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개인전 20여회, 단체전 500여회를 했다. 특히 해외 전시에서 호평을 받은 게 빌 게이츠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됐다. 게임박스 작업 이후 국내외 기업들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꽤 재미를 봤다. 김치냉장고, 휴대전화, 최고급 한방화장품 케이스, 호텔 욕실, 호화 유람선과 요트, 비행기 일등석, BMW 자동차 등에도 자개를 박고 옻칠을 했을 정도다. <br/><br/>김영준이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센터에서 오는 25일부터 3월28일까지 개인전 ‘나전칠기, 그림이 되다’를 연다. 전시 준비 작업 중인 그를 따라가서 작품을 미리 감상했다. 제일 눈길을 끄는 건 원형의 나전 회화인데, 마치 영롱한 진줏빛 오로라와 무지개를 보는 듯 눈부셨다. 나사에서 찍은 우주 사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채화모란나전장, 화초장에 담아낸 민화 속 모란꽃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탁자, 콘솔, 의자, 소반, 항아리, 찻잔 같은 생활 가구나 공예 소품은 단순하면서 우아하고 모던하다. “<span class='quot1'>한국 전통미를 보여주되 새롭고 현대적인 색감과 디자인으로 천년의 빛을 되살려내고자 했다.</span>” 이번 전시가 끝나면 K아트센터와 손잡고 말레이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등의 해외전시를 계획하고 있다.<br/><br/>자개옻칠 작품은 재료가 비싸고, 손이 많이 가고, 제작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탓에 값이 비싸다. 그럼에도 마니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미래는 밝다. 만날 때마다 김영준이 털어놓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플라스틱, 도자기, 가죽에도 자개옻칠을 실험했다는 그는 앞으로 LED나 광섬유 빛을 자개와 융합시키겠다고 했다. 나전과 현대 예술·디자인의 접목을 통한 ‘전통의 재구성’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 명품을 탄생시키겠다는 게, 전략적으로도 훌륭해 보인다. 이게 제대로 된 법고창신 아닌가. 김영준이 그걸 해냈다.<br/><br/><김석종 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3.txt

제목: 70세 이후 남성은 폐암, 여성은 대장암 주의하세요  
날짜: 2015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1010016276595  
본문: 70세 이후에서 남성은 폐암, 여성은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10일 국립암센터의 ‘2012년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 보고서를 보면, 남성은 44세까지 갑상선암, 50~69세에는 위암,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은 69세까지 갑상선암, 70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았다.주요 암 중 갑상선암(22.6%), 전립선암(12.7%), 유방암(5.8%), 대장암(5.6%)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간암(-1.9%)은 1999년 이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매년 갑상선암(24.3%), 전립선암(11.4%), 대장암(5.6%)이 증가했고 간암(-2.2%)과 폐암(-0.9%)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여성은 갑상선암(22.4%), 유방암(5.9%), 대장암(4.3%) 등이 증가했고 자궁경부암(-3.9%)과 간암(-1.6%)은 계속 떨어졌다.<br/><br/>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7.3%로 나타났다. 남성(평균수명 77세)은 5명 중 2명(37.5%)에서, 여성(평균수명 84세)은 3명 중 1명(34.9%)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4.txt

제목: ‘압구정 백야’ 또 데스노트…임성한의 황당죽음 베스트는?  
날짜: 2015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9100000015  
본문: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막장 드라마계의 대모 임성한 작가가 본격적으로 데스노트를 꺼내들었다. 지난 3일 <압구정 백야>에서는 조나단(김민수)이 백야(박하나)와 결혼식을 올린 후 맹장수술을 한 계모 서은하(이보희)의 병문안을 갔다가 허망하게 죽는 장면이 방송됐다. 조나단은 뜬금없이 병원 로비에서 조폭과 시비가 붙었고, 조폭의 주먹 한 방에 머리가 벽과 바닥에 부딪히며 죽음을 맞았다. 이전에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던 조폭은 말 그대로 조나단을 죽이기 위해서만 등장한 것처럼 보였다. 의붓아들이 황망히 죽은 가운데 맹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계모는 방귀를 뀐다. <br/><br/>임성한 작가의 드라마 속 죽음은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개연성과 현실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임성한 작가의 등장 인물 죽이기는 그래서 괴이한 습성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배우를 하차시키는 것으로 보여져 임성한 작가의 살생부는 데스노트라 불리기도 한다. 이 죽음들 중에서도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였던 황당한 죽음을 추려봤다. <br/><br/>임성한 작가의 드라마에서는 사람이 웃다가 죽기도 한다. 2005년 방송된 SBS <하늘이시여>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다가 웃다 죽는 인물이 등장했다. 소피아(이숙)는 당시 SBS에서 방송되던 코미디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보며 깔깔대고 웃다가 갑자기 숨이 넘어가 죽음을 맞이한다. 시청자들은 소피아가 죽는 과정도 황당하지만, 여 주인공이 시어머니의 친딸이라는 비밀을 아는 인물이라 극 전개상 빨리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br/><br/>임성한 작가는 등장 인물들의 대량 학살로도 유명하다. 2011년 SBS <신기생뎐>에서 뜬금없는 죽음보다 영혼 빙의로 방향을 트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 2013년 방송된 MBC <오로라 공주>에서는 무려 11명의 등장 인물이 죽었다. 남자 주인공 황마마(오창석)도 모자라 오로라의 애견 떡대까지 죽음을 맞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극중 사망한 인물이 아닌 것은?”과 같은 퀴즈를 내고 맞추는 등 임 작가의 등장 인물 죽이기를 조롱했다. <br/><br/><오로라 공주>에서 가장 황당한 죽음은 유체 이탈을 끌어들인 것이었다. 왕여옥(임예진)은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만, 거울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것에 놀란다. 혼령은 끝내 자기 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왕여옥은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2010년 MBC <보석비빔밥> 때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진 죽음이었다. <보석비빔밥>에서는 이태리(홍유진)가 딸 끝순(최아진)과 호박(이일문)의 결혼식 날 아침 식장에 가다가 차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유체 이탈하는 장면이 나왔다. 순서를 달리해 <오로라 공주>에서는 유체 이탈이 죽음의 원인이 된 셈이다. <br/><br/>작가의 인생관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는 극중 등장 인물의 독특한 생사관도 시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로라 공주>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설설희(서하준)는 갑자기 암에 걸린 것도 모자라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뜨악한 말을 한다. 설설희는 “암세포도 생명이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도 느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잘못 생활해 생긴 암세포인데 나 살자고 내 잘못으로 생긴 암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할래요”라고 덧붙였다. <br/><br/>임성한 작가의 등장 인물 죽이기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인지 작가의 괴이한 취향인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의 개연성 없는 이야기 전개, 자극적인 설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문제 의식을 무디게 만드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5.txt

제목: 자살로 인한 사회비용 6조원 이상  
날짜: 2015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910016268853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9일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서 “<span class='quot0'>자살로 인한 직간접 사회적 손실 비용을 산출한 결과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6조4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밝혔다.<br/><br/>연구원은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등 간접 비용을 합해 사회적 손실 비용을 산출했다. <br/><br/>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120조653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의 8.8%에 해당한다.<br/><br/>연구원은 전체 질병을 20가지 큰 항목으로 나눠 분류했는데,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손상 및 중독’으로 16.2%였다. 이 항목에는 자살을 비롯해 외상 사고, 약물 중독 등이 포함된다. 자살은 ‘손상 및 중독’ 중 가장 많은 33.2%의 비중을 차지했다.<br/><br/>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한국인 사망률 1위로 거론되는 암(신생물)으로 인한 비용인 15조3382억원의 42.3% 수준에 달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6.txt

제목: 노벨의학상 헌트, 서울대 특강 “책에 나온 지식만 보지 말고 세상을 보라”  
날짜: 2015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6100000112  
본문: “<span class='quot0'>우수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span>”<br/><br/>200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 팀 헌트 경(72·사진)은 5일 서울대 공개강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트 경은 “교장과 과학교사가 좋으면 좋은 창의성이 나온다”며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br/><br/><br/>헌트 경은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벨상은 완전히 원천적인 연구에 주어진다. 대부분은 그 질문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에 주어진다”며 “어떤 질문을 정립해놓고 좇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즐기면서 가야 한다. 질문을 계속 좇아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헌트 경은 “훌륭하고 창의적인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연을 바라보는 데 있어 겸손하고 계속 좇아가려 했던 것”이라며 “그들의 업적도 질문이 이끄는 대로 가서 얻은 결과”라고 덧붙였다.<br/><br/>헌트 경은 창의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 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br/><br/>그는 “정부 펀드는 논문을 제출하는 등 책임이 뒤따른다”며 “그런데 논문을 제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연구과제에서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민간 펀드가 필요하다. 결과가 성공적일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만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br/><br/>헌트 경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관한 ‘세포주기’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세포주기라는 개념을 세우고 단백질 조절인자인 사이클린을 최초로 발견했다. 또 세포분열 과정의 핵심 조절인자를 발견해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7.txt

제목: 건강한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일본에서  
날짜: 2015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610016243411  
본문: “<span class='quot0'>건강할 때 난자를 동결 보관해 놓으세요.</span>”<br/><br/>일본의 지자체가 여성의 난자를 동결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br/><br/>일본 지바(千葉)현 우라야스(浦安)시가 나이가 든 뒤의 불임을 피하기 위해 건강한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동결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린세스 뱅크’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br/><br/>우라야스시는 난자를 동결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br/><br/>우라야스시는 관내에 있는 준텐도(順天堂)대 우라야스병원과 연계해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대학병원과 연대해 난자 동결 보관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br/><br/>우라야스시는 지금 당장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지만, 장래에 출산을 하고자 하는 20~35세 여성의 난자를 동결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암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게 된 여성이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불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동결 보존도 염두에 두고 있다.<br/><br/>우라야스시의 이런 정책은 만혼과 만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자의 노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출산을 뒤로 미루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br/><br/>한편 일본생식의학회는 2013년 난자의 동결보존을 용인했다. 이 학회는 암 등의 의학적 이유로 난자와 난소를 동결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이가 드는 것을 이유로 한 난자·난소 동결 보존도 허용했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8.txt

제목: [‘건강도약 2015’ 인터뷰](5) 유영경 서울성모병원 간담췌암센터 교수  
날짜: 2015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6100000075  
본문: 국가암등록 통계를 보면 간암은 남녀 통틀어 발병률이 여섯 번째(남 4위, 여 6위)이다. 연간 1만6000여명이 간암에 걸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3배나 많다. 35~64세 남자에서는 발병률이 세 번째나 된다. 간암 생존율은 1990년대 초반 10% 정도에서 최근 30%를 넘어섰지만 전체 평균(68%)에 크게 못 미치며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암 사망자 순위에서는 전체 2위이며, 40·50대의 경우 폐암을 제치고 1위다.<br/><br/>유영경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간담췌암센터 교수(51·간담췌외과)는 “<span class='quot0'>간암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간경화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염 예방접종과 정기 간검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span>”고 말했다. 유 교수는 간암 완치율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뇌사자 간이식의 활성화’를 꼽았다. 간암 및 간이식 수술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복부에 한 개의 구멍만을 뚫어 수술하는 단일통로(싱글포트) 복강경 시술의 베테랑이며, 간경화·간암·간이식과 담도암·췌장암 등 간담췌질환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br/><br/><br/>▲ 간경화 있으면 항암치료 어려워<br/>가족력·나쁜 생활습관 있을 땐<br/>1년에 한 번 이상 진료 받아야<br/><br/>- 간암 생존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br/><br/>“간암 환자의 80~90%가 간경화에 의해 암이 생긴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간암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고, 나머지 절반은 암 치료를 받더라도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이 원인이 돼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간경화가 있으면 항암치료도 쉽지 않고 항암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없다면 적극적인 절제수술을 비롯해 항암치료, 국소치료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평소 간경화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경화가 없고 암세포가 간에만 국한된 경우라면 적극적인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br/><br/>- 간경화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br/><br/>“간경화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막아야죠. 간염의 예방접종 및 치료와 더불어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B형간염의 경우 젊은 사람들은 국가 예방접종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40대 중반 이후는 유병률이 상당합니다. 한국인 간염의 80%가 B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형간염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염은 간경화의 가장 큰 원인인데, 간염으로 인해 간경화가 된 사람의 3분의 1은 간암에 걸립니다. 간염뿐 아니라 술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지방간 등), 복부비만이나 당뇨 등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간경화 및 간암 발생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br/><br/>- 간경화 및 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십시오.<br/><br/>“간경화의 씨앗인 간염, 간암의 전단계인 간경화, 비정상적인 성생활, 과음과 흡연, 약물복용·과로 등 간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고위험군의 경우 3개월마다 간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화기내과의 간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매년 실시하는 국가검진만 성실히 해도 큰 도움이 되지요. 가족력이나 간에 나쁜 생활습관을 가진 분들은 6개월에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전문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br/><br/>- 간암 치료 전망은 어떻습니까.<br/><br/>“제가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인 1990년대 초만 해도 간암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수술을 해야 하는 데다 출혈도 많고,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 및 마취기법 등의 발전으로 수술치료 성과가 획기적으로 좋아졌지요. 개복을 안 하는 복강경이나 출혈을 줄이는 초음파 절삭기 같은 것이 쓰이고, 특히 간이식 기법이 크게 발전했어요. 수술 전 간부전에 빠지지 않은 간암 환자들은 조건만 좋으면 간이식을 했을 때 수술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이 거의 제로(0)입니다. 회복이 빠른 환자들은 오전에 이식을 받고 저녁에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간 수술 후 급성기에는 수술을 담당한 외과의사와 간 담도계 전문 종양내과 의사, 간(간담췌) 전담 소화기내과 의사 등 3개 진료분야 의사들이 협진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합니다.”<br/><br/>- 간암 극복의 요체는 무엇입니까.<br/><br/>“현재 병원에 오는 간암 환자 중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절제술, 고주파, 색전술, 항암치료 등)는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0%는 손을 못 댈 정도입니다. 정기검진 소홀로 늦게 발견된 경우나 조금 일찍 발견돼도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간암은 절제수술 또는 고주파를 하거나 5년 후 80% 정도에서 재발을 합니다. 이는 수술 등 치료 후 남아 있는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경화가 있는 간암 환자 측면에서 보면 간이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학적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사자 장기 기증이 획기적으로 늘어 공여 간이 충분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이 된다면 상당수 간암 환자에게 간이식이 1차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br/><br/>- 간암 유병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조언하신다면.<br/><br/>“임상적 경험으로 볼 때 환자들의 태도나 의지가 병의 경과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환자일수록 수술 후 합병증이 적고, 치료율은 높아집니다.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병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 그것을 기반으로 의사와 잘 소통해야 합니다. 치료 중에 음주나 흡연을 하거나, 자식의 간을 이식받고 나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술과 담배, 건전하지 못한 생활에 다시 빠져들어서는 안됩니다. 간에 좋다는 엑기스류 같은 것도 멀리해야 합니다.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br/><br/>▲ 주요 약력 : 가톨릭대 의대 졸업, 간담췌외과분과장(현), 가톨릭대 단일통로 복강경수술연구회 회장(현), 대한내시경복강경학회 이사(현), 대한간이식연구회 총무(현), 대한이식학회 이사(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49.txt

제목: [의술 인술]금연 성공, 의료 전문가 도움 받아야  
날짜: 2015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6100000073  
본문: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담뱃값이 두 배 가까이 올라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가격이 4500원이나 된다. 소규모 식당이나 커피숍, 당구장 등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돼 담배 피우기도 어려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금연을 결심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다. 막상 담배를 끊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br/><br/>금연이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생겼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약속했던 정부의 금연지원 정책이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연을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건소로 국한됐던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에 대한 지원이 병·의원까지 확대돼 흡연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에게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연 치료 효과가 입증된 전문 의약품도 12주 금연 상담과 함께 비용이 50% 이상 지원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금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br/><br/>금연에 성공하려면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제 지원이 중요하다. 대체로 흡연자들은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흡연은 니코틴 중독으로, 개인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br/><br/>통계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73%는 금연 의지를 갖고 있고, 55%는 금연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은 3~5%에 불과하다. 반면 병원에서 전문적인 금연 상담과 교육, 약물치료를 하면 흡연자들의 30% 정도가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병·의원 치료 지원은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br/><br/>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국내 암 발생과 사망 원인 중 두 번째 요인이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발생과 사망 위험도 높인다. 흡연으로 인한 질환들의 의료비 손실액은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흡연자의 금연 성공은 개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br/><br/>정부가 금연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누구든지 금연 교육과 상담,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점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br/><br/>이번 금연 치료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이고, 본격적인 급여화는 올해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첫발을 디딘 금연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금연 진료와 약물처방 경험이 많지 않았던 병·의원을 위해 ‘금연 진료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에 시행되는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금연 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br/><br/>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학계, 협회 등에서도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이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0.txt

제목: 미국 등 선진국 여성 암 사망, 유방암보다 폐암이 많아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510016219303  
본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여성 암 환자 가운데 유방암보다 폐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린지 토레 미국 암학회(ACS) 선임연구원이 최근 ‘임상의학의를 위한 암저널’(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에 게재한 ‘선진국 여성 암 환자 사망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br/><br/>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선진국에서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성 수는 19만7000명인 반면, 폐암으로 사망한 여성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만9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br/><br/>이는 선진국에서 여성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은 유방암이 주도하고 있다는 통념을 깨뜨린 것이다. <br/><br/>토레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0'>선진국 여성 암 환자 사망자 수 가운데 유방암보다 폐암이 더 많은 것은 초기 유방암 발견이 늘어나고 흡연의 폐해가 상당 기간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0'>선진국 여성들 사이에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주지의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최근 여성 폐암환자 수 증가는 이들이 과거 수십년 전 흡연 습관에서 비롯된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폐암 환자 사망률이 정점을 찍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보고서는 또 개발도상국에서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에서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흡연율 증가와 과체중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br/><br/>2012년 전 세계적에서 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820만명으로, 이 가운데 19.5%인 160만명이 미국인이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1.txt

제목: 노벨의학상 헌트, 서울대 특강 “책에 나온 지식만 보지 말고 세상을 보라”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510016229041  
본문: “<span class='quot0'>우수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span>”<br/><br/>200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 팀 헌트 경(72·사진)은 5일 서울대 공개강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트 경은 “교장과 과학교사가 좋으면 좋은 창의성이 나온다”며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br/><br/><br/>헌트 경은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벨상은 완전히 원천적인 연구에 주어진다. 대부분은 그 질문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에 주어진다”며 “어떤 질문을 정립해놓고 좇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즐기면서 가야 한다. 질문을 계속 좇아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헌트 경은 “훌륭하고 창의적인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연을 바라보는 데 있어 겸손하고 계속 좇아가려 했던 것”이라며 “그들의 업적도 질문이 이끄는 대로 가서 얻은 결과”라고 덧붙였다.<br/><br/>헌트 경은 창의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 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br/><br/>그는 “정부 펀드는 논문을 제출하는 등 책임이 뒤따른다”며 “그런데 논문을 제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연구과제에서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민간 펀드가 필요하다. 결과가 성공적일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만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br/><br/>헌트 경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관한 ‘세포주기’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세포주기라는 개념을 세우고 단백질 조절인자인 사이클린을 최초로 발견했다. 또 세포분열 과정의 핵심 조절인자를 발견해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br/><br/><김경학·김선영 기자 gomgo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2.txt

제목: [기고]뉴욕 눈 폭풍 대응이 남긴 교훈  
날짜: 2015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5100000055  
본문: 지난 1월27일 미국 북동부 지방에 최대 90㎝의 적설량을 동반한 사상 최악의 눈 폭풍이 예보됐다. 1월26일 밤, 뉴욕 지하철 11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하철을 중단시키고 항공편을 대거 취소했다. 예보에 근거하여 내린 조치로, 전례가 없는 과감한 결정이었다. <br/><br/>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 기록한 적설량은 20㎝에 그쳤다. 예상 값의 30%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했다. <br/><br/>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미국 언론은 일제히 과잉 대응을 한 기상청과 시 방재 당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렇다면 왜 예보는 빗나간 것일까?<br/><br/>첫째, 예보 실패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저기압이 50㎞만 동쪽으로 비켜가도 뉴욕에 내릴 폭설이 롱아일랜드로 옮겨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단정적인 예보 표현을 선호한다. 언론에서는 눈이 얼마나 쌓일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 주문받는다. 방재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보는 미래에 관한 것이고, 미래는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다. 심리적인 확신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br/><br/>둘째, 선정적인 예보 용어의 사용이다. 흔히 발표한 예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번 뉴욕 사태도 “기록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대설예보에 따라다니면서 더욱 파문이 커진 탓이다.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 경쟁을 벌이는 동안 표현은 점점 부풀려져, 일부 매체에서는 뉴욕시장의 대설 대비 당부를 마치 세기말 예언자의 경고처럼 패러디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기상상황이 변하여 예보를 정정하려 해도, 선정적인 문구로 인식된 대중의 기억을 바꿔놓기는 어렵다. 기상 당국과 언론도 함께 선정적인 예보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br/><br/>셋째, 자동화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기상학자 스넬만(Leonard W. Snellman)은 컴퓨터가 계산한 예측 결과에 익숙해진 나머지 창의적 사고와 신지식 계발에 둔감해진 잘못된 경향을 빗대어 “기상학적 암”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일년 전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의 경로를 잘 모의한 모델이, 이번 눈 폭풍의 범위와 강도는 잘못 계산한 것이다.<br/><br/>이번 뉴욕 눈 폭풍 대응의 교훈은 예보의 변화에 대한 열린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미 기상당국도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예보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언론을 통해 전달하고, 방재 기관의 의사결정에 고려하도록 유도하느냐가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3.txt

제목: 보험금 지급, 갑상샘암 > 유방암 > 위암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4100000112  
본문: 지난 10년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순이었다. 특히 갑상샘암과 췌장암은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검진기술 발달로 조기 발견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r/><br/>삼성생명이 ‘세계 암의 날’(2월4일)을 맞아 2005~2014년 암이 발생해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27만298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br/><br/>가장 많은 진단보험금을 지급한 암은 갑상샘암으로 30.4%였고, 유방암(13.4%), 위암(12.3%) 순이었다. 남성은 위암(21.2%)과 대장암(14.2%), 갑상샘암(13.1%) 순이었다. 여성은 갑상샘암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유방암(20.7%)과 위암(7.4%) 순이었다.<br/><br/>10년 전에 비해 암진단 건수는 1.7배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갑상샘암과 췌장암이 각각 143.6%, 133.8%로 급증했고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도 50% 이상 증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갑상샘암이 급증한 것은 암검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기진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검진기술이 발달한 데다 국가 암검진 사업 과정에서 병원들이 갑상샘암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면서 증가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삼성생명은 10년간 보험금으로 총 5조367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암진단 지급금은 건당 2000만원 수준으로, 암 수술이나 입원비 등 추가 지급액을 더하면 건당 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4.txt

제목: [정동칼럼]신뢰의 힘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4100000053  
본문: 지난해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접한 가장 충격적인 현지 소식은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는 한 내과 의사의 가짜 암 환자 치료 사건이었다. 이 의사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심지어는 임종 직전의 환자들에게까지 필요 없는 항암치료를 해 우리 돈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의사에게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상당수가 암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암이 있다고 속여 항암치료를 했고, 그중 일부는 치료 때문에 사망했다.<br/><br/>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미국 현지의 반응이 의외였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 의사를 ‘죽음의 의사’로 지칭하며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 사건을 해당 의사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담담한 반응이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료계에 대한 공분으로 한동안 벌집 쑤셔놓은 듯했을 것이다.<br/><br/>어떻게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을 접하고도 냉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국민이 의료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국민의 건강보장에 실패한 나라다. 그럼에도 의사와 환자 간의 두터운 신뢰 관계만큼은 부러울 정도다. 이런 신뢰 형성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의사와 환자를 맺어주는 제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br/><br/>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 진찰에 대해 주는 진료비와 그 외 검사, 투약, 병원시설·인력 이용에 대해 주는 진료비가 구분되어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금전적 거래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내는 얼마간의 본인부담금으로 끝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온갖 곳에서 고액의 청구서들이 날아온다. 이때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편지를 써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 미국에서 만난 한 한국인 의사는 “<span class='quot0'>이곳 환자들은 의사를 자신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믿고 따른다</span>”고 전한다. <br/><br/>미국에서는 환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의사의 금전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진료비가 하나로 뭉쳐 있는 데다, 의사 진찰로 얻는 이득은 적고, 그 외 온갖 검사·처치 등에서 얻는 이득은 많다. 환자의 이익을 옹호하다가는 당장에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신뢰 유발형 제도가 아닌, 신뢰 훼손형 제도인 셈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힘든 중요한 이유이다. <br/><br/>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부재로 인한 폐해는 크다. 양측이 피차 피곤하고 불편하다. 특정 개인의 일탈도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기 일쑤다. 환자는 의사를 믿지 못해 여러 병원을 떠돌다, 돈도 버리고 몸도 상하곤 한다. 의사는 환자를 믿지 못해 방어 진료를 하느라, 필요 없는 검사를 하고, 꼭 필요한 처치도 기피하곤 한다. 양자가 모두 피해자이지만, 그 피해의 대부분은 상대적 약자인 환자 몫이 되기 십상이다.<br/><br/>신뢰 부재의 폐해는 비단 의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라는 진단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과 질서에 소홀한 국민성 혹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는 곤란하다. 개별 자연인 간의 신뢰는 인간 됨됨이와 태도에서 비롯되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나는 개인과 집단 간의 신뢰는 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직면한 신뢰의 위기는 후자이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 나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하고, 반칙과 탈법이 번번이 승리하도록 방치한다면, 국민은 억척스럽게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신뢰가 끼어들 틈이 없다. <br/><br/>우리 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나 출범부터 지금껏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깨는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신뢰의 힘은 강하다. 그런 만큼 신뢰 붕괴의 폐해도 크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신뢰 붕괴의 주역이 아니라, 신뢰 형성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5.txt

제목: ‘몰락한 사이클 영웅’ 암스트롱, 음주 뺑소니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410016201189  
본문: 약물복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몰락한 미국의 ‘사이클 영웅’ 랜스 암스트롱(44)이 이번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됐다. 암스트롱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를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저지른 것처럼 위증교사까지 했다.<br/><br/>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해 12월28일 저녁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음주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애나 한센을 태우고 집으로 가다가 주차돼있던 자동차 2대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다.<br/><br/>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암스트롱 소유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가 사고 당시 앞범퍼가 깨진 것을 알아냈고, 이에 암스트롱의 여자친구 한센은 “내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br/><br/><br/><br/>경찰은 파티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암스트롱이 운전을 했고, 한센은 조수석에 앉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 끝에 한센으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br/><br/>한센은 “암스트롱이 사고를 낸 것이 밝혀지면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에 대한 첫 심리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다.<br/><br/>암스트롱은 고환암을 극복하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회 연속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을 차지하면서 명성을 얻었지만, 약물복용 사실이 드러나 모든 수상을 박탈당하고 영구 제명 처분을 받는 등 추락했다.<br/><br/>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약물을 복용했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6.txt

제목: [기고]뉴욕 눈 폭풍 대응이 남긴 교훈  
날짜: 2015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410016209893  
본문: 지난 1월27일 미국 북동부 지방에 최대 90㎝의 적설량을 동반한 사상 최악의 눈 폭풍이 예보됐다. 1월26일 밤, 뉴욕 지하철 11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하철을 중단시키고 항공편을 대거 취소했다. 예보에 근거하여 내린 조치로, 전례가 없는 과감한 결정이었다.<br/><br/>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 기록한 적설량은 20㎝에 그쳤다. 예상 값의 30%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했다. <br/><br/>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미국 언론은 일제히 과잉 대응을 한 기상청과 시 방재 당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렇다면 왜 예보는 빗나간 것일까?<br/><br/>첫째, 예보 실패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저기압이 50㎞만 동쪽으로 비켜가도 뉴욕에 내릴 폭설이 롱아일랜드로 옮겨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단정적인 예보 표현을 선호한다. 언론에서는 눈이 얼마나 쌓일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 주문받는다. 방재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보는 미래에 관한 것이고, 미래는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다. 심리적인 확신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br/><br/>둘째, 선정적인 예보 용어의 사용이다. 흔히 발표한 예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번 뉴욕 사태도 “기록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대설예보에 따라다니면서 더욱 파문이 커진 탓이다.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 경쟁을 벌이는 동안 표현은 점점 부풀려져, 일부 매체에서는 뉴욕시장의 대설 대비 당부를 마치 세기말 예언자의 경고처럼 패러디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기상상황이 변하여 예보를 정정하려 해도, 선정적인 문구로 인식된 대중의 기억을 바꿔놓기는 어렵다. 기상 당국과 언론도 함께 선정적인 예보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br/><br/>셋째, 자동화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기상학자 스넬만(Leonard W. Snellman)은 컴퓨터가 계산한 예측 결과에 익숙해진 나머지 창의적 사고와 신지식 계발에 둔감해진 잘못된 경향을 빗대어 “기상학적 암”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일년 전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의 경로를 잘 모의한 모델이, 이번 눈 폭풍의 범위와 강도는 잘못 계산한 것이다.<br/><br/>이번 뉴욕 눈 폭풍 대응의 교훈은 예보의 변화에 대한 열린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미 기상당국도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예보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언론을 통해 전달하고, 방재 기관의 의사결정에 고려하도록 유도하느냐가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br/><br/><고윤화 | 기상청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7.txt

제목: 보험금 지급, 갑상샘암 > 유방암 > 위암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31001619212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진단 건수 10년 전의 1.7배</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검진기술 발달로 조기발견</strong><!-- SUB\_TITLE\_END--><br/><br/>지난 10년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순이었다. 특히 갑상샘암과 췌장암은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검진기술 발달로 조기 발견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r/><br/>삼성생명이 ‘세계 암의 날’(2월4일)을 맞아 2005~2014년 암이 발생해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27만298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br/><br/>가장 많은 진단보험금을 지급한 암은 갑상샘암으로 30.4%였고, 유방암(13.4%), 위암(12.3%) 순이었다. 남성은 위암(21.2%)과 대장암(14.2%), 갑상샘암(13.1%) 순이었다. 여성은 갑상샘암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유방암(20.7%)과 위암(7.4%) 순이었다.<br/><br/>10년 전에 비해 암진단 건수는 1.7배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갑상샘암과 췌장암이 각각 143.6%, 133.8%로 급증했고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도 50% 이상 증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갑상샘암이 급증한 것은 암검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기진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검진기술이 발달한 데다 국가 암검진 사업 과정에서 병원들이 갑상샘암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면서 증가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삼성생명은 10년간 보험금으로 총 5조367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암진단 지급금은 건당 2000만원 수준으로, 암 수술이나 입원비 등 추가 지급액을 더하면 건당 3000만원으로 파악됐다.<br/><br/><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8.txt

제목: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존버’ 이외수의 창조적 항암투쟁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3100000016  
본문: “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자문했어요. 작가로 산 40년, 열심히 살았고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사랑 많이 받은 작가가 있겠는가 생각하니 마음이 충만했어요. 삶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므로 두렵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br/><br/>선생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 책장에 꽂혀 있는 작가 이외수의 책들을 바라본다. 책 제목들이 줄을 지어서 길을 따라나선다. 나 같은 <장외인간>들이 혹독한 세상의 <겨울나기>를 하며 <흐린 세상 건너기>를 하는 동안 선생의 문장들은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고,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에 풍덩 빠지라고 말해 주지 않았던가. 시련과 방황 속에서 <들개>처럼 살아낸 후 얻은 당신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 ‘존버’ 정신으로도 버티기 힘든 요즘, 이외수라는 <감성사전>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걱정 <뚝,> 하라는 명쾌한 답을 듣고 싶어서, 3차 항암치료를 마친 선생을 만나러 춘천으로 향했다.<br/><br/>이외수 선생의 현답을 이끌어내는 대담집 <마음에서 마음으로>와 이외수의 존버 실천법 <뚝,>을 공동 저술한 하창수 작가와 함께 들어서자 선생은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투병 이전에 내가 본 이외수 선생이 아니었다. 하이얀 스웨터 속에 든 가냘픈 소년이 나에게 손을 뻗었다. 간호하는 문하생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킨 선생은 웃고 있는데도 두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br/><br/>“<span class='quot0'>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환자</span>”<br/>선생님, 왜 우세요.<br/>“항암치료를 시작한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요. 슬픈 일도 없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br/><br/>평소에도 많이 우셨죠. 살면서 가장 많이 운 적은 언제였나요.<br/>“나는 잘 참는 사람이지만, 한 번 터지면 통곡을 해요. 하창수 작가가 남자는 살면서 세 번 울어야 하는데, 네 번째는 언제 울어야 하냐고 물었죠. 남자는 세 번 울어야 한다는 말을 지어낸 장군들이 나빠. 그건 멋이 아니라 허세야. 난 세월호 참사 때 평생 울어야 할 걸 다 울었어요. 하루도 술을 안 마신 날이 없었어요. 속이 타서 대변이 새카만 줄 알았어요. 그러다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수술이 시급한 위암이라는 걸 알았죠.”<br/><br/>어느 의사가 말하길, 암 치료법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게 ‘울음치료’래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가슴속 울음이 깊이 고여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인 거 같아요. 피부도 어린아이처럼 맑아지셨어요.<br/>“그래요? 나 치유 받는 느낌이에요.(웃음) <span class='quot0'>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환자</span>예요. 사실 못 견디게 힘들 때가 많아요. 점점 신체적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문하생들이 나를 아기처럼 보살펴줘요. 난 아기가 되었어. 먹는 것도 이유식처럼 먹으니까. 메추리알 두 개 분량을 하루 여덟 번 먹어요. 조금 더 먹으면 메스꺼워서 구토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 나는 당연히 일어설 사람이라고 믿더라고.(웃음) 맞기 싫은 매는 맞아도 먹기 싫은 음식은 못 먹는다는 말이 있지요. 항암치료 중에는 먹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영약은 존버밖에 없어요.”<br/><br/>‘존버’ 실천법을 계속 계발하셔야겠어요.<br/>“‘창조적 항암투쟁’을 하는 중이에요. 사흘 내내 눈물 줄줄 흘리며, 코는 휴지로 막고 그림을 그렸어요. 화천에 있는 강아지도 그리고, 멸치도 그리고, 콩나물도 양귀비꽃도 그리고요. 항암치료 8차 중에 이제 3차가 끝났어요. 갈 길이 멀어요. 나는 창조적 항암투쟁법을 계속 연구할 거예요. 지금은 모든 음식과 사물에서 항암치료제 젤루다의 냄새가 나서 속이 메스꺼워요. 좋은 향으로 이겨보려고요. 파트리크 쥐스킨트처럼 ‘향’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웃음)”<br/><br/>며칠 전 암병동에 지인 병문안을 갔더니, 요즘 전국 암환자들에게 이외수가 희망이래요. 이외수가 어떻게 암을 견뎌내는지 보려고 페이스북을 시작한 환자들이 많대요.<br/>“그래요? 더 힘내야겠네! 가끔은 고통스런 내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려요. 암환자들은 ‘이외수도 나하고 똑같이 고통도 겪고 엄살도 떠는구나’ 하겠죠. 나도 고통스럽지만 이런 방식으로 견딘다는 걸 보여주고 같이 견디자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암은 극복할 수 있는 병이거든. 암에 걸리면 1000명의 의사와 1만명의 약사를 만난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치료법을 제시해요. 당장 병원을 뛰쳐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마구 떠들어요. 환자와 가족은 혼란스럽죠. 의학은 연구를 거듭해서 마침내 암 극복단계까지 왔어요. 그건 거룩한 것이고 신뢰해야 돼요.”<br/><br/>투병 중에도 <뚝,>을 출간하셨어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중 누가 더 무서운 존재인가, 삶에 고통이 필요한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공정한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등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져요. 동서양의 고전부터 철학까지 두루 섭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쉽게’ 건네고, 지혜와 감동이 담긴 답을 ‘명쾌’하게 전해주어서, 바칼로레아 교재보다 유익했어요. ‘현명한 대화법’을 한 수 배웠습니다. 입시·입사 면접 질문자와 응시자들도 이런 대화법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하창수 작가님, 현답을 해줄 사람으로 이외수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br/>“한 작가의 모든 작품을 읽은 경우는 이외수 선생님이 유일해요. 한 작가를 작품과 인간으로 모두 만나는 일은 드물 수밖에 없는데, 24년 동안 나눈 인간적 교감은 한 ‘세계’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죠.”<br/><br/>투병 중 책 출간, 현명한 대화법 보여줘<br/>현답은 현문이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답을 찾고 싶을 때 꺼내 보는 1000개의 지혜>라는 노벨 수상자들의 명언을 번역한 직후에 이 책이 나왔어요. 하 선생님은 노벨상 수상자들에게서도 얻지 못한 지혜를 이외수 선생님께 얻었나요.<br/>“이외수 선생님 표현대로 ‘지혜는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발효된 것’이죠. 지혜의 보고인 책들을 뒤져도 끝내 찾아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묻고 싶었어요. 무르익은 ‘인간’과의 대화가 문학의 또 다른 진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소설 역시 궁극적으로는 작가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일인데요, 만약 스스로 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찾아가 물어야죠. 결례다 싶을 만큼의 독한 질문들도 적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있을까, 싶은 질문들을 던질 땐 묘한 쾌감도 있었고요.(웃음) 망설임 없이 답하셔서 많이 놀랐어요. 잘 발효된 지혜의 말들이 내 마음에 녹아들었고, 답답함이 사라졌어요.”<br/><br/>저도 오늘 작가 이외수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물으려고 맘먹고 왔습니다. 암 선고받은 날 30분 만에 암환자들이 겪는 다섯 가지 단계인 ‘의심,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을 다 거치고 수술을 결정하셨다고요. 가장 절망적인 결과는 ‘죽음’인데, 정말 두렵지 않았습니까.<br/>“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자문했어요. 작가로 산 40년, 열심히 살았고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사랑 많이 받은 작가가 있겠는가 생각하니 마음이 충만했어요. 삶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므로 두렵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br/><br/>주치의가 유명인 ‘이외수’에게 특별한 대우, 특별한 믿음을 줬기 때문이 아닐까요.<br/>“내 주치의가 ‘고장난 거 고쳐 쓴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 선수끼리 알아봤어요. 내 아들은 걱정이 되니까 주치의를 따라가서 위암 수술 성공률을 물었대요. ‘내가 하면 100프로지’라고 했대. 그런 자신감은 환자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모든 환자에게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리라고 믿을 수 있어요. 정치인도 마찬가집니다.”<br/><br/>선거철에 정치인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감성마을에 줄지어 찾아와서 악수하고 가셨던 정치인들, 요즘도 줄지어서 항암투쟁 응원하러 오시지요.<br/>“정치인 비서실에서 화분을 많이 보내옵니다. 약속한 듯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죠. 리본 한 줄엔 직급, 한 줄엔 ‘쾌유를 빕니다’.”<br/><br/>영혼이 느껴지는 응원을 해온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나요.<br/>“문재인 의원이 전화로 간곡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왔어요. SNS에서 용기 내라고 일반인 친구들이 달아주는 댓글에서 저는 뜨거운 영혼을 느껴요. 제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br/><br/>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국민들은 ‘금방 잊고 또 뽑아주는 사랑’을 베푸는데, 그들은 권력을 가지면 왜 ‘사랑’을 잊을까요.<br/>“그분들은 권력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재미에 깊이 빠져 있어요.”<br/><br/>살면서 지옥을 많이 겪었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지옥은 언제였나요.<br/>“굶주림이 가장 무서운 지옥이었어요. 날 낳아준 어머니는 두 살 때 돌아가셔서 젖동냥으로 컸어요. 못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심각한 열등감으로 이어졌죠. 눈을 뜨면 늘 아무도 없었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엄청난 공포가 두 번째 지옥이었죠.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는데 늘 동냥 나가고 안 계셨어요. 고요한 적막 속에 눈을 뜬 다섯 살 아이의 공포…. 나는 클 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새어머니와 살고 있는 아버지를 처음 찾아간 게 10살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저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아버지가 전근을 자주 다니셔서 여섯 번 전학을 했어요. 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난 늘 혼자였어요.”<br/><br/>사랑의 평준화를 실천한 교육자 아버지<br/>칭찬과 정, 모든 것에 굶주린 소년 이외수는 참 외로웠겠습니다.<br/>“새어머니는 당신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모두 영민했어요. 막내는 서울대에서도 수재였지요. 동생들이 태어나기 전엔 어머니가 나를 많이 미워했지만, 동생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나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어요.”<br/><br/>돌아가신 아버님과 하루를 보내신다면 감성마을을 구경시켜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지는 왜 칭찬에 인색하셨을까요.<br/>“이 시대는 교육자는 많아도 참교육자는 드물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교육자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6학년 때 제 담임이었어요. 학생들을 진짜 사랑했어요. 나만 빼고.(웃음) 사랑의 평준화를 실천하느라고…. 아들은 집에서 사랑해 줄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동생들을 의식해서 나에게 애정 표현을 못하신 거 같아요. 나는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사관학교에서 늘 1등만 한 수재였는데, 총각이라고 속이고 새장가를 갔대요. 제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머니는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셈이 된 거죠. 전 어떤 차별도 다 감수했어요.”<br/><br/>소년 이외수는 너무 빨리 어른이 돼버렸네요.<br/>“그렇죠…. 고맙게도 동생들이 나를 이해해 줬어요. 지금도 명절에는 우리 집에 다 모입니다.”<br/><br/>청소년기에도 이외수의 예술적 천재성은 드러났을 텐데요. 알아봐준 선생님은 없었나요.<br/>“피카소의 담임이 피카소를 알아보았을까요? 예술적 창의성은 알아보기 힘들어요. 미술을 좋아했지만 미술성적이 가장 낮았죠. 선생은 학생의 육체적 발달상태, 정신의 발달상태, 영혼의 발달상태를 알아봐야 하는데, 대부분 정신의 발달상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없는 천재들이 사장돼요. 난 성적만 좋을 뿐, 나 자신이 지리멸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림 잘 그리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내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때부터 실기대회 나가서 항상 2등을 했어요.”<br/><br/>소심한 아이 이외수가 웅변대회 상을 휩쓸게 된 계기는요.<br/>“내가 박정희 정권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계몽, 반공’ 웅변대회를 많이 연 것. 내가 너무 소심한 인간이어서 극복하려고 웅변을 택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고 뭔가 해보자. 강원도 험준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쓴 원고를 소리쳐 읽었어요. 교실을 도배할 정도로 상장을 받았죠.”<br/><br/>웅변 원고를 쓰면서 글 솜씨가 늘었겠군요.<br/>“아니오. 나는 짝사랑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어요. 무수히 썼으나 한 통도 보내지 못하고 아침에 아궁이로 보낸 그 편지들이 글쓰기의 시초였어요.”<br/><br/>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이지만, 그걸 채우려는 자기애 또한 강한 분이십니다. 단편소설 <박제>에서 주인공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는 ‘자기애’의 표현이었을 텐데요.<br/>하창수 “평론가 김윤식 선생이 <박제>를 읽고 ‘만들어진 작가가 아니라 태어난 작가’라고 평가했죠. 보내지 못할 연애편지를 계속 쓰는 행위는 어쩌면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가 아니었을까요?”<br/><br/>이외수 “나는 결핍이 심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장 결핍이지….”<br/><br/>굶주리던 이외수가 이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하필 위를 잃었으니 상실감이 더 크겠습니다. 내장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br/>“내가 신인문학상 받을 때 당선소감에 ‘창자에게 미안하다. 너무 많이 굶겨서’라고 썼었는데(웃음)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수술 후 어느 날 갑자기 작은 개를 키우고 싶었어요. 사라진 내 위만한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병적인 증세로 나타났죠. 동물병원 원장에게 부탁했다가 항암치료에 집중하라고 욕만 먹었어, 위 하나 없어져도 그 결핍을 채우기 힘든데, 세월호 참사 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결핍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br/><br/>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br/>“정치인들이 완전히 개벽하기 전에는 안 돼요. 어떤 보상으로도 안 됩니다.”<br/><br/>결핍이 심한 사람, 이외수<br/>나이 40이 넘으면 사람 안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br/>“바뀝니다. 나를 미워하던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바뀌셨어요. 어느 병원 개원 30주년 축하 메시지를 내가 촬영했는데요, 그걸 병원에서 매일 대형 스크린에 튼대요, 어머니는 영상 속의 나를 보려고 매일 병원에 가서 그 앞에서 우신대요. 사랑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지 말고, 사랑을 하는 대통령이 되시라고. 그분의 아버지가 집권하던 시절에는 없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라도 주워서 필 수 있게 거리에 재떨이도 만들고 뚜껑도 덮어 줬어요. 그것도 서민에 대한 사랑이죠. 그 따님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리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일진들은 2000원을 더 삥 뜯어야 하고, 빵셔틀들은 2000원을 더 뜯겨야 한다는 건 모르십니다.”<br/><br/>내 인생은 평생 ‘삼재’(三災)라는 표현을 하셨어요.<br/>“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강제로 보내서 춘천교대에 갔지만 7년이나 다니고도 졸업을 못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손가락질당하고, 다 실패하고… 아, 나는 평생 삼재다! 딱 포기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한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 다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br/><br/>평생이 ‘지옥’이 아니라 ‘삼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삼재는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지 않습니까.<br/>“맞아. 또 와라! 견뎌줄게! 지금 아픈 것도 삼재가 잠시 찾아온 것일 뿐.”<br/><br/>제가 교도소에 강의를 갔다가 이외수 작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대신 물어보고 오겠다고 했더니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살 자격이 있나요.’<br/>“‘앙굴리 말라’라는 사람은 999명을 살해했어요. 그가 부처를 만났어. ‘나 같은 놈도 살아갈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죠. 부처가 대답하길 ‘나를 만나기 전까지 너는 전생이었다.’ 깨닫기 이전의 삶은 다 전생입니다. 반성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멸치 그림을 내가 왜 그린 줄 알아요? 멸치는 작아도 바다에 살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죠.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다야. 아무리 작은 미물들도 바다로 흘러가면 살 수 있어. 다 포용하고 길러주니까요. 우리는 바닷속에 사는 멸치와 같아요.”<br/><br/>바다의 포용력이 작은 우리들을 다 안아주므로, 누구나 이 지구에 살 자격이 있군요. 아직 남은 질문이 많아요. 결혼은 꼭 해야 할까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이 끝나면 정말 새 사랑이 찾아오나요. ‘갑’질에 대응하는 ‘을’들이 알아야 할 존버 실천법은 무엇인가요. 취직이 안 돼서 괴로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결함을 창조적 에너지로 쓸 수는 없을까요. 걱정 뚝!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답을 주세요. 다음주에 또 올게요.<br/><br/><박상미 문화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59.txt

제목: [정동칼럼]신뢰의 힘  
날짜: 2015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310016191222  
본문: 지난해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접한 가장 충격적인 현지 소식은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는 한 내과 의사의 가짜 암 환자 치료 사건이었다. 이 의사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심지어는 임종 직전의 환자들에게까지 필요 없는 항암치료를 해 우리 돈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의사에게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상당수가 암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암이 있다고 속여 항암치료를 했고, 그중 일부는 치료 때문에 사망했다.<br/><br/>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미국 현지의 반응이 의외였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 의사를 ‘죽음의 의사’로 지칭하며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 사건을 해당 의사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담담한 반응이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료계에 대한 공분으로 한동안 벌집 쑤셔놓은 듯했을 것이다.<br/><br/>어떻게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을 접하고도 냉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국민이 의료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국민의 건강보장에 실패한 나라다. 그럼에도 의사와 환자 간의 두터운 신뢰 관계만큼은 부러울 정도다. 이런 신뢰 형성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의사와 환자를 맺어주는 제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br/><br/>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 진찰에 대해 주는 진료비와 그 외 검사, 투약, 병원시설·인력 이용에 대해 주는 진료비가 구분되어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금전적 거래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내는 얼마간의 본인부담금으로 끝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온갖 곳에서 고액의 청구서들이 날아온다. 이때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편지를 써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 미국에서 만난 한 한국인 의사는 “<span class='quot0'>이곳 환자들은 의사를 자신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믿고 따른다</span>”고 전한다. <br/><br/>미국에서는 환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의사의 금전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진료비가 하나로 뭉쳐 있는 데다, 의사 진찰로 얻는 이득은 적고, 그 외 온갖 검사·처치 등에서 얻는 이득은 많다. 환자의 이익을 옹호하다가는 당장에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신뢰 유발형 제도가 아닌, 신뢰 훼손형 제도인 셈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힘든 중요한 이유이다. <br/><br/>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부재로 인한 폐해는 크다. 양측이 피차 피곤하고 불편하다. 특정 개인의 일탈도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기 일쑤다. 환자는 의사를 믿지 못해 여러 병원을 떠돌다, 돈도 버리고 몸도 상하곤 한다. 의사는 환자를 믿지 못해 방어 진료를 하느라, 필요 없는 검사를 하고, 꼭 필요한 처치도 기피하곤 한다. 양자가 모두 피해자이지만, 그 피해의 대부분은 상대적 약자인 환자 몫이 되기 십상이다.<br/><br/>신뢰 부재의 폐해는 비단 의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라는 진단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과 질서에 소홀한 국민성 혹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는 곤란하다. 개별 자연인 간의 신뢰는 인간 됨됨이와 태도에서 비롯되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나는 개인과 집단 간의 신뢰는 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직면한 신뢰의 위기는 후자이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 나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하고, 반칙과 탈법이 번번이 승리하도록 방치한다면, 국민은 억척스럽게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신뢰가 끼어들 틈이 없다. <br/><br/>우리 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나 출범부터 지금껏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깨는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신뢰의 힘은 강하다. 그런 만큼 신뢰 붕괴의 폐해도 크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신뢰 붕괴의 주역이 아니라, 신뢰 형성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br/><br/><이진석 | 서울대 의대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0.txt

제목: ‘유방암 유발 유전자’ 특허 미 기업 결국 ‘무효’ 판정… 유방암 검사 비용 낮아지고 연구 활기 띨 듯  
날짜: 2015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2100000059  
본문: 유방암 유발 유전자(BRCA1, BRCA2)에 대한 특허 독점을 주장하던 미국 유전자 분석 및 진단 업체 ‘미리어드 지네틱스(Myriad Genetics)’가 경쟁사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유방암 유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낮아지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지난해 유방암 위험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br/><br/>미리어드 지네틱스는 1994년과 1995년 세계 최초로 유방암 유발 유전자 BRCA1과 BRCA2를 각각 발견한 뒤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세계 유방암 위험 진단검사를 독점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 비용이 4000달러(400만원)에 달했다. 게놈(인간 유전자 전체) 검사 비용이 1000달러(1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싼 것이다.<br/><br/>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는 미리어드 지네틱스의 유전자 특허권을 취소해달라고 특허권 취소소송을 냈다. <br/><br/>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span class='quot0'>자연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에는 특허를 걸 수 없다</span>”고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가진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했다.<br/><br/>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리어드 지네틱스는 BRCA1·BRCA2 유전자 검사를 시작한 경쟁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엠브리 지네틱스, 랩코퍼레이션,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 등이 피소됐다.<br/><br/>지난해 3월 미국 유타주 연방법원은 엠브리 지네틱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도 미리어드 지네틱스는 패소했다. 미국 대법원이 BRCA1과 BRCA2에 대한 특허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이 이유였다.<br/><br/>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결국 미리어드 지네틱스 측은 유방암 진단에 뛰어든 경쟁업체와 합의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 산드라 박 변호사는 “<span class='quot1'>미리어드의 특허 침해 소송 취하 결정으로 향후 세계 환자들이 회사 이득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유방암 진단 검사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놈 분석 비용이 1000달러로 낮아진 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유방암 유발 유전자에 대한 진단 검사 비용은 수백달러(수십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br/><br/>또한 BRCA1과 BRCA2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 역시 활발해지게 됐다.<br/><br/>미리어드 지네틱스는 BRCA1·BRCA2 유전자 검사 독점사업이 난항을 겪자 사업 방향 전환을 고려 중이다. 최근에는 암 유발과 관련된 25개 유전자를 검사하는 진단법을 개발·시험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1.txt

제목: ‘태아보험’ 손보 먼저, 여유있다면 생보까지  
날짜: 2015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2100000072  
본문: 아이를 임신하고 난 뒤에 보험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에는 태아 때부터 보험을 들어 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특약 형태인 태아보험은 가입 시 어린이보험 내용까지 한꺼번에 계약하게 되어 있다. 어린이보험은 보장 내용이 세분돼 있고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br/><br/>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추가로 여력이 된다면 생명보험까지 가입하면 된다. 손보 상품으로는 현대해상, LIG, 메리츠, 삼성화재 등이, 생보 상품으로는 신한, 동양 등이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고 있다.<br/><br/><br/>- 태아보험은 가입시기가 언제인가.<br/><br/>“정확히 말하자면 태아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은 없다. 소위 말하는 태아보험이란 어린이보험의 보장에 선천적 이상(기형아), 인큐베이터 사용 등의 태아 보장을 담은 특약을 말한다. 가입도 보통 태아가 20~2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사망, 후유장해 등 임산부 관련 보장과 유산위로금 등의 보장도 포함돼 있다. 출산 후에는 ‘태아 등재’라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산 후에는 어린이보험으로 자동전환되고 보험료는 1만원가량 낮아진다.”<br/><br/>- 어린이보험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나. <br/><br/>“보험사 상품마다 또 자신이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어린이보험은 다양한 상해나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 전용으로 만 15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다. 태아보험에 들지 않고 태어나서 어린이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다. 암, 골절, 화상, 실손의료비 등의 건강 보장부터 시력교정, 치과치료, 학교·학원 내 사고, 유괴·납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내용을 보상한다. 환급 여부에 따라서는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형의 경우 환급금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br/><br/>-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상품 중 어떤 것이 좋을까.<br/><br/>“정답은 없다. 과거에는 보장기간이 주로 20~30세였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100세 만기 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다. 100세 어린이보험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안전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손의료비 보장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는 게 좋은 반면, 미래에 어떤 신종 질병이 나타날지 알 수 없어 현재 가입한 보험이 나중에도 유용할지 미지수라는 단점이 있다. 개인의 부담 여력을 살피고 성인이 돼서 보험과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br/><br/>-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가.<br/><br/>“<span class='quot0'>태아의 경우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남녀보험료 중 비싼 보험료로 납입한 뒤 출생으로 성별이 확정되면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span>”<br/><br/>-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차이는.<br/><br/>“큰 차이는 없지만 성격이 약간 다르다. 두 상품 모두 임신을 알았을 때부터 가입할 수 있고, 실손 보장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은 보장하는 상해 또는 질병과 관련한 담보가 많아 실비보장과 함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자녀의 일상생활과 배상책임도 손해보험에선 받을 수 있다. 다만 손보는 하루 입원비가 적은 편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소아암·백혈병처럼 주로 중대한 수술비 보장이 잘 된다. 통원비나 암 진단비 보장이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추가 여력이 되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br/><br/>- 보험료를 설정할 때 기준은.<br/><br/>“견적을 내기 전에 먼저 보험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2만~10만원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 가구당 보험료(연·적금 제외)가 한달 수입의 2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자녀가 자립하는 나이와 가계 수입이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납부·보장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br/><br/>- 세세한 질병까지 다 따져서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나. <br/><br/>“처음 계약을 설정할 때 조금 복잡하더라도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게 좋다. 태아보험 가입 시 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암이나 성인 질병이다. 이 질병에 대해 보장을 길게 설정한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만기 설정을 길게, 반대로 유아 시절에만 한정해서 설정해도 되는 항목도 있다. 회사별로 제안서를 받아보고 결정할 것을 권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2.txt

제목: .  
날짜: 2015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1100000049  
본문: Select Health Info<br/>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증상들이 암을 알리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최근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반 이상이 암을 경고하는 신체의 신호를 받지만 그중 병원을 찾는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여성 건강 잡지「위민스 헬스(Women’s Health)」가 발표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암 위험 신호 8가지를 소개한다.<br/><br/><br/>1 계속되는 기침 혹은 쉰 목소리 추운 겨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기침 소리가 일상인 계절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혹은 감기의 후유증 정도로 생각해 방치했다가는 병을 키우기 쉽다. 특히 출혈이 동반되는 기침이 계속되거나 쉰 소리가 난다면 즉시 호흡기내과 진료와 흉부 X-ray 촬영 등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폐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br/><br/>2 갑작스러운 출혈 출혈은 몸의 이상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호다. 월경 때가 아닌데도 질에서 출혈이 있으면 자궁경부암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및 항문을 통해 피가 섞여 나온다면 대장암 증상일 수 있다. 즉시 병원에 가보자.<br/><br/>3 이유 없이 계속되는 ‘만성’ 통증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통증이든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된다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두통이 있다고 해서 뇌종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이상 증세다. 습관적으로 두통약을 먹는 것보다 병원을 찾아보자. 가슴 통증은 폐암, 복부 통증은 난소암의 신호일 수도 있다.<br/><br/>4 갑자기 생기거나 커진 점 점은 태어나면서부터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 몸에 생기는 점은 일일이 셀 수도 없거니와 별다른 통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러한 점의 변화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생종의 신호일 수 있다. 검은 점이 새로 생기거나 점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점 주위의 피부가 가렵다거나 출혈이 생기는 것 역시 흑색종의 증상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자.<br/><br/>5 체중 감소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 특별한 노력 없이 체중이 줄었다면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암이나 종양이 있을 때 갑자기 몸무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에 일정 수준의 몸무게를 유지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었다면 하루빨리 진단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이러한 이상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몸무게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br/><br/>6 이유 없이 생긴 혹 몸의 생기는 혹은 건강에 그다지 해가 없는 양성 낭종, 즉 물혹일 가능성도 크지만 피부 조직 아래 생긴 악성종양일 수도 있다. 그중 유방에서 감지되는 혹은 유방암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몸에 혹이 생겼다면 일단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자.<br/><br/>7 음식을 삼키기 힘들 때 음식을 삼킬 때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 목과 식도에 암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다.<br/><br/>8 대변의 변화와 혈뇨 배변 활동은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다. 변의 굵기가 평소보다 크거나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대장의 배변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또한 이상 증상이다. 만성 변비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경우 이와 같은 신호를 지나치기 쉬운데 이상 변화가 감지된다면 진단을 받아보자.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은 방광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3.txt

제목: ‘유방암 유발 유전자’ 특허 미 기업 결국 ‘무효’ 판정… 유방암 검사 비용 낮아지고 연구 활기 띨 듯  
날짜: 2015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110016149870  
본문: 유방암 유발 유전자(BRCA1, BRCA2)에 대한 특허 독점을 주장하던 미국 유전자 분석 및 진단 업체 ‘미리어드 지네틱스(Myriad Genetics)’가 경쟁사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유방암 유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낮아지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지난해 유방암 위험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br/><br/>미리어드 지네틱스는 1994년과 1995년 세계 최초로 유방암 유발 유전자 BRCA1과 BRCA2를 각각 발견한 뒤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세계 유방암 위험 진단검사를 독점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 비용이 4000달러(400만원)에 달했다. 게놈(인간 유전자 전체) 검사 비용이 1000달러(1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싼 것이다.<br/><br/>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는 미리어드 지네틱스의 유전자 특허권을 취소해달라고 특허권 취소소송을 냈다. <br/><br/>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span class='quot0'>자연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에는 특허를 걸 수 없다</span>”고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가진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했다.<br/><br/>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리어드 지네틱스는 BRCA1·BRCA2 유전자 검사를 시작한 경쟁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엠브리 지네틱스, 랩코퍼레이션,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 등이 피소됐다.<br/><br/>지난해 3월 미국 유타주 연방법원은 엠브리 지네틱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도 미리어드 지네틱스는 패소했다. 미국 대법원이 BRCA1과 BRCA2에 대한 특허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이 이유였다.<br/><br/>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결국 미리어드 지네틱스 측은 유방암 진단에 뛰어든 경쟁업체와 합의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 산드라 박 변호사는 “<span class='quot1'>미리어드의 특허 침해 소송 취하 결정으로 향후 세계 환자들이 회사 이득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유방암 진단 검사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놈 분석 비용이 1000달러로 낮아진 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유방암 유발 유전자에 대한 진단 검사 비용은 수백달러(수십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br/><br/>또한 BRCA1과 BRCA2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 역시 활발해지게 됐다.<br/><br/>미리어드 지네틱스는 BRCA1·BRCA2 유전자 검사 독점사업이 난항을 겪자 사업 방향 전환을 고려 중이다. 최근에는 암 유발과 관련된 25개 유전자를 검사하는 진단법을 개발·시험하고 있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4.txt

제목: ‘태아보험’ 손보 먼저, 여유있다면 생보까지  
날짜: 2015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110016149882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어린이 보험의 특약 형태로 다양한 보장… 임신 20~22주 때 가입</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보험료는 2만~10만원 정도, 가입전 보험료 기간 등 결정해 두길</strong><!-- SUB\_TITLE\_END--><br/><br/>아이를 임신하고 난 뒤에 보험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에는 태아 때부터 보험을 들어 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특약 형태인 태아보험은 가입 시 어린이보험 내용까지 한꺼번에 계약하게 되어 있다. 어린이보험은 보장 내용이 세분돼 있고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br/><br/>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추가로 여력이 된다면 생명보험까지 가입하면 된다. 손보 상품으로는 현대해상, LIG, 메리츠, 삼성화재 등이, 생보 상품으로는 신한, 동양 등이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고 있다.<br/><br/><br/>- 태아보험은 가입시기가 언제인가.<br/><br/>“정확히 말하자면 태아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은 없다. 소위 말하는 태아보험이란 어린이보험의 보장에 선천적 이상(기형아), 인큐베이터 사용 등의 태아 보장을 담은 특약을 말한다. 가입도 보통 태아가 20~22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사망, 후유장해 등 임산부 관련 보장과 유산위로금 등의 보장도 포함돼 있다. 출산 후에는 ‘태아 등재’라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산 후에는 어린이보험으로 자동전환되고 보험료는 1만원가량 낮아진다.”<br/><br/>- 어린이보험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나. <br/><br/>“보험사 상품마다 또 자신이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어린이보험은 다양한 상해나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 전용으로 만 15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다. 태아보험에 들지 않고 태어나서 어린이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다. 암, 골절, 화상, 실손의료비 등의 건강 보장부터 시력교정, 치과치료, 학교·학원 내 사고, 유괴·납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내용을 보상한다. 환급 여부에 따라서는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형의 경우 환급금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br/><br/>-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상품 중 어떤 것이 좋을까.<br/><br/>“정답은 없다. 과거에는 보장기간이 주로 20~30세였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100세 만기 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다. 100세 어린이보험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안전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손의료비 보장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는 게 좋은 반면, 미래에 어떤 신종 질병이 나타날지 알 수 없어 현재 가입한 보험이 나중에도 유용할지 미지수라는 단점이 있다. 개인의 부담 여력을 살피고 성인이 돼서 보험과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br/><br/>-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가.<br/><br/>“<span class='quot0'>태아의 경우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남녀보험료 중 비싼 보험료로 납입한 뒤 출생으로 성별이 확정되면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span>”<br/><br/>-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차이는.<br/><br/>“큰 차이는 없지만 성격이 약간 다르다. 두 상품 모두 임신을 알았을 때부터 가입할 수 있고, 실손 보장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은 보장하는 상해 또는 질병과 관련한 담보가 많아 실비보장과 함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자녀의 일상생활과 배상책임도 손해보험에선 받을 수 있다. 다만 손보는 하루 입원비가 적은 편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소아암·백혈병처럼 주로 중대한 수술비 보장이 잘 된다. 통원비나 암 진단비 보장이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추가 여력이 되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br/><br/>- 보험료를 설정할 때 기준은.<br/><br/>“견적을 내기 전에 먼저 보험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2만~10만원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 가구당 보험료(연·적금 제외)가 한달 수입의 2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자녀가 자립하는 나이와 가계 수입이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납부·보장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br/><br/>- 세세한 질병까지 다 따져서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나. <br/><br/>“처음 계약을 설정할 때 조금 복잡하더라도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게 좋다. 태아보험 가입 시 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암이나 성인 질병이다. 이 질병에 대해 보장을 길게 설정한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만기 설정을 길게, 반대로 유아 시절에만 한정해서 설정해도 되는 항목도 있다. 회사별로 제안서를 받아보고 결정할 것을 권한다.”<br/><br/><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5.txt

제목: 저널리스트 이학준이 말하는 ‘대한민국 걸 그룹’  
날짜: 2015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1100000080  
본문: 대한민국에서 ‘걸 그룹’이란 어떤 존재일까? 슬픔 따윈 모른다는 듯 환희를 노래하는 무대 위의 그녀들. 그 화려한 판타지 이면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나인뮤지스: 그녀들의 서바이벌’로 세계적 시선을 모았던 저널리스트 이학준이 「대한민국에서 걸 그룹으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책을 통해 영화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펼쳐냈다. 스타가 되기 위한 그녀들의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냉혹한 현실에 대해.<br/><br/>신문기자와 다큐멘터리 감독, 온라인 뉴스 기획자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조선일보 이학준(46) 기자는 2001년 종군기자로 아프가니스탄을 누비고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국내 최초 미국 에미상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다. 그런 그가 걸 그룹의 매니저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부러움 그 자체였다. ‘사지(死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취재 활동을 펼쳐온 그에게 ‘걸 그룹’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그녀들은 ‘여신’이 아닌 인간이었으니, 이른 새벽부터 노래하고 춤추다 연습실 구석에서 눈물을 닦는 소녀들과 보낸 1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 됐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책을 통해 현 K-pop 산업의 명과 암, 스타를 꿈꾸는 소녀들의 일상을 밀착 취재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대형 연예기획사 ‘스타제국’의 걸 그룹 ‘나인뮤지스’의 매니저로 산 1년, 그가 본 걸 그룹의 맨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0대 희망직업 1위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돌의 세계에 대해, 책이 출간되자마자 영국으로 연수를 떠난 그와 이메일 인터뷰를 나눴다.<br/><br/>탐사 전문 기자, 아이돌 세계에 뛰어들다<br/>종군기자로 전쟁터를 누비고 오랜 기간 탈북자 취재를 해왔어요. 그간의 취재와 ‘걸 그룹의 매니저’ 사이에는 간극이 커 보이는데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험한 취재를 시작한 계기는 9·11 사태였어요. 종군기자로 선발돼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재를 하면서 외신을 능가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2007년부터 탈북자 취재를 하면서는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밀입국을 자주 했고 밀항선도 탔죠.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현장에도 있었고요. 덕분에 오랜 희망이었던 좋은 콘텐츠를 내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목숨 거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K-pop의 위세가 치솟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걸 그룹을 한 번 취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할리우드의 ‘드림걸스’ 같은 예쁜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으로 시작하게 됐지요.<br/><br/>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K-pop 시장에는 다양한 종사자가 존재합니다. 왜 걸 그룹 매니저였나요? 그리고 수많은 걸 그룹 중 나인뮤지스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매니저라는 직업을 취재할 생각이었어요. 금세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 지망생을 취재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보이 그룹과 걸 그룹 중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걸 그룹을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다큐멘터리로 해외시장에 내놓을 경우, 아시아 남자 주인공보다는 여자 주인공이 관심을 모으기에 좋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나인뮤지스는 데뷔 전부터 일부 연예 기자들 사이에서 대형 스타의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던 팀이에요. 저는 아주 가까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했는데, 그 같은 의도에 대해 허락을 한 곳은 스타제국밖에 없었습니다. SM, YG 등도 접촉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어요.<br/><br/>기획사와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속살을 드러내야 하는 작업인데 설득하기 쉽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고 믿어요. 사실 스타 지망생부터 스타가 되는 전 과정을 밀착해서 기록하겠다고 나섰을 때 주위에서 모두 반대했어요. 그 어떤 메이저급 기획사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탈북자를 취재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했죠. 그럴수록 더욱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됐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기획사를 설득했죠. 스타제국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신주학 사장님이 큰 결심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br/><br/>주인공이 된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취재해온 경험이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어색함을 푸는 일에 능숙하지 못해요. 힘들어서 몸이 뒤틀릴 만큼요. 사회 초년병 시절엔 그게 무척이나 콤플렉스였는데, 나이를 먹어가니 그 부분마저도 너그러워지더군요. 이제는 많이 어색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스타제국의 여러 연습생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특히나 카메라를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그 현장에서 저도 외로웠고, 스태프도 외로웠고, 동시에 그들도 외로웠습니다. 결국엔 시간이 우리를 묶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냥 버텼어요.<br/><br/>매니저가 돼 연습생들과 24시간을 함께 생활한다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작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때 멤버들을 태워서 운전을 하고 홍보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입소문을 낼 만한 디지털 홍보 등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데뷔 이후에는 멤버들의 지방 공연을 따라다니면서 옷을 챙겨주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하는 기초적인 일들을 수행했고요. 힘들었던 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야 하는데, 스타(지망생)들은 카메라 앞에서 이미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힘들었습니다.<br/><br/>책 속에는 연습생들의 혹독한 다이어트와 팀 내 분열 등 아이돌 그룹의 이면이 여과 없이 등장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연습생들의 현실은 어땠나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부분이나 놀란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은 없었습니다. 멤버들은 치열하게 감량을 했고 식사를 거르면서 연습했어요. 먹지 않고 연습하다 보니 부상도 잦았고요. 멤버도 종종 교체됐는데 그 때문에 새로운 후보생이 등장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연습이 힘들어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잦았고 노출 컨셉트에 소심하게 반항하는 경우도 있었죠. 처음엔 이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의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더군요. 우린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포장된 모습만을 봐왔으니까요.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더군요.<br/><br/>책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걸 그룹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누구보다 반짝이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들인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런 것이 삶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빛나고 많이 가지려면 그만큼 아플 수밖에 없는 것 말입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그 같은 노력과 성취를 인생 전반을 통해 일궈가지만 연예인들은 젊은 시절에 압축해서 그 모든 경험을 해요. 그것이 이유라고 봅니다.<br/><br/>걸 그룹, 대중의 선망과 욕망의 집결체<br/>매니저로 지낸 1년 중 가장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멤버들과 헤어지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작업을 마치던 마지막 날 멤버들에게 밑바닥이 푹신한 운동화를 선물했어요. 항상 하이힐을 신느라 힘들어 하는 멤버들이 잠시라도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 쉬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멤버들은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멤버들이 많이 울어서 저도 울었습니다.<br/><br/>멤버들을 대하는 태도로 스타제국 신 사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가까이서 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 흑과 백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에 동의하지 않아요. 가까이서 본 신 사장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주어진 환경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매니저였습니다. 사실 공장처럼 스타를 제조하는 게 K-pop의 생리인데,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급 프로듀서들은 신 사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 오롯이 욕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br/><br/>대중이 가지고 있는 매니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매니저는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매니저가 제게 말하더군요. 열과 성을 다해 스타로 만들어놓으면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정을 주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들 역시 냉정한 연예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스타 지망생 역시 대중의 별이 되겠다는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 매니저는 가해자, 스타 지망생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은 제게 존재하지 않습니다.<br/><br/>작년 가을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인뮤지스: 그녀들의 서바이벌’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각종 국제영화제에 진출하고 영국 BBC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국내보다 해외에서 반향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K-pop 자체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전쟁 이후 피폐했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쿨(Cool)’하게 바꿔놓았으니까요. 영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K-pop의 인기 덕이 컸어요. 그리고 K-pop의 놀라운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 성장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약적인 성장, 그 이면의 눈물, 이런 점이 이목을 집중시킨 키워드인 것 같아요.<br/><br/>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나인뮤지스의 주요 멤버였던 세라는 영화 개봉 전 팀을 탈퇴하기도 했는데. 개봉 직전에 세라와 함께 영화를 봤는데 많이 울더군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창 활동하던 시기라면 무척 화를 냈을 거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프기도 했지만 열정적이었던 시절을 기록해줘서 고맙다, 라고요.<br/><br/>다큐멘터리 이후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쓰기와 다큐멘터리 작업은 항상 병행돼야 한다고 봐요. 현대사의 일부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활자 언어와 영상 언어는 상호 보완재라고 믿거든요. 글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작업이 역사를 기록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br/><br/>TV에서 ‘나인뮤지스’를 보면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한 심정이에요. 멋지게 무대를 마치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br/><br/>세라 탈퇴 후 원년 멤버 중 이제 3명의 멤버가 남았습니다. 컴백을 앞둔 나인뮤지스 멤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글쎄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언제나 응원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요. 이번 컴백 곡으로 반드시 최고의 스타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br/><br/>냉정한 세계를 견딜 각오가 됐다면 꿈꾸고 도전하라<br/>사실 걸 그룹의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섹시’와 ‘노출’이 대한민국 걸 그룹의 이음동의어가 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딸을 가진 아빠로서 당연히 반길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대중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면 저 역시 답할 것이 없기에 참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 매니저나 스타들보다 더욱 천박한 건 대중의 취향이니까요.<br/><br/>결국 대중이 원인이라는 뜻인가요? K-pop이 세상을 주무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독특한 개성에 기대는 바가 컸어요. ‘듣는 음악’이 아닌 ‘보는 음악’이라는 점, 중독성 있는 음악을 내세운 점, 대중이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화된 멤버를 갖추고 시장에 나온다는 점 등이죠. 때문에 별이 되기를 희망하는 여자아이들은 끊임없이 춤 연습을 해야 하고, 일부 천재 작곡가가 만들어낸 후크송에 의존해야 했으며, 대중의 기호에 맞춰 살을 빼고 노출을 감행해야 했어요. 결국 어린 여자들을 상품으로 내몬 것은 대중의 욕망이었던 셈이죠. 화려하게 빛나는 여성의 젊음을 소비하고픈 우리의 욕망이 그녀들을 벗기고 학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돌을 던져야 할 대상을 찾고 싶었던 저 역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이들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br/><br/>이학준이 본 ‘대한민국 걸 그룹’은 어떤 존재인가요? 정의를 내려본다면?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쿨하게 인식시켜준 존재. 동시에 우리 대중문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br/><br/>최근 아이돌 그룹의 멤버 교체와 탈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나인뮤지스의 잦은 멤버 교체에 대해서 ‘퍼즐 끼워 맞추기’라고 지적했는데 아이돌 시스템이 가진 명과 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현 아이돌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은 대중의 기호에 완벽하게 맞춰진 가공 상품을 내놓는 데 있습니다. 매니저(프로듀서 포함)의 노하우와 몇 년간의 스파르타 훈련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시스템은 단박에 아시아 시장을 호령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벌어져요. 개인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더그라운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해결책이라 길게 말하긴 어렵네요.<br/><br/>저널리스트로서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이학준은 어떤 사람인가요? 매사에 익숙해지지 않는 미숙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은 많고, 부족한 부분은 넘치는 사람이죠.<br/><br/>영국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 도전하고픈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젊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덕분에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특별히 난민학(Refugee Study)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취재를 하면서 난민학이나 윤리학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었거든요. 아직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br/><br/>끝으로 스타의 꿈을 좇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녀들과 자녀를 스타로 키워내려는 부모들에게 해주고픈 말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언론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은사님께서 당신의 친구 가운데 언론인을 소개해주셨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상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어떤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도전하라’고요. 이 책이 스타를 지망하는 수많은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에게 연예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 체험할 수 있는 텍스트였으면 합니다. 그 냉정함을 견딜 각오가 됐다면 꿈을 꾸고 도전하라고 말이지요.<br/><br/>올해로 데뷔 5년 차를 맞은 걸 그룹 ‘나인뮤지스’는 새 앨범 「드라마」의 컴백을 앞두고 있다. 8명의 멤버 중 데뷔 원년 멤버는 3명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6.txt

제목: 그날 이후 240일,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  
날짜: 2015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201100000083  
본문: 2014년 4월 18일 금요일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유가족들은 오늘도 사고가 난 그날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말한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진짜 오기를 함께 기다려달라고.<br/><br/>안 산 단원고 2학년 6반 신호성군의 엄마 정부자씨는 아들의 시가 지면에 실리길 원했다. 장래희망이 국어 선생님이었던 호성군은 책을 좋아했다. 엄마는 아들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아들의 시를 읽었다. 그리고 아들의 시를 어느 책에라도 싣고 싶었다. 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br/><br/>“책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호성이 어머님이 연락하셨더라고요. 호성이가 쓴 시가 있는데 책에 실어줄 수 있냐고요. 어머님께 시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밑동만 남은 나무는 어머님 같고, 베어진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건 호성이 같아서요.”<br/><br/>호성군의 시를 소개하는 김순천 작가의 옆에서 정부자씨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시는 놀랍도록 세월호 참사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던 것처럼. 잘 자라던 나무를 베어 넘기려는 자는 누구일까. 그것을 말리지 않는 우리는 무엇일까.<br/><br/>공식 인터뷰집, 진상 규명 위한 중요한 자료<br/>지난 1월 13일에 출간된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저, 창비)은 유가족들의 증언과 고백을 모아낸 가족대책위 차원의 공식 인터뷰집이다.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대표 김순천)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단원고 희생 학생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중 부모 13명을 인터뷰해 책을 펴냈다.<br/><br/>“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작가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영상팀과 사진팀, 구술과 기록 관리를 위한 학자팀이 모여서 함께 시민기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작가기록단을 꾸렸고요. 이 책은 작가기록단이 마무리한 첫 번째 작업물입니다.”<br/><br/>작가기록단은 인터뷰를 하고 글을 정리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윤태호, 유승하, 최호철, 손문상, 조남준, 홍승우, 마영신, 김보통 8명의 만화가가 총 13편의 삽화와 표지화를 그렸다. 특히 드라마 ‘미생’의 원작자로 잘 알려진 윤태호 작가는 살인적인 스케줄 가운데서도 책의 삽화를 요청받자 “<span class='quot0'>이런 일에 나를 잊지 않고 동참시켜줘 정말 고맙다</span>”라며 흔쾌히 작업을 해줬다고 한다.<br/><br/>세상에서 제일 슬픈 책은 무엇일까. 책을 펴자마자 눈물짓게 되는 책? 다 읽고 나서는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책? 만약 그렇다면 유가족들의 생생한 증언과 고백, 4월 16일에 멈춰버린 시간의 기억을 담은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책이다. 첫 줄을 읽기가 무섭게 눈시울이 젖어든다. 어떤 부분에선 한 줄 한 줄 읽어가기 어려울 만큼 목이 멘다. 큰 슬픔과 마주하기 두려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기록집을 낸 것일까.<br/><br/>“이 책은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지 못한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힘없는 개인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사건 이후 대다수 가족이 시달리고 있는 트라우마 등이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기록이에요.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건 당일의 일분일초를 또렷하게 기억해내는 부모들의 기억이 재구성됐다는 점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증언록이 될 거예요.”<br/><br/>첫 번째 공식 인터뷰집이란 의미를 가지는 이 책은 진상을 규명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김 작가는 말했다. 눈물바람으로 눈의 부기가 가라앉을 새가 없었던 정부자씨는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제목을 정한 사람이 미웠다”라고 했다. 제목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괜히 미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금요일은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 무척이나 잔인한, 그러나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에게 금요일은 여전히 놓을 수 없는 현재진행형의 특별한 어느 날이다.<br/><br/>다시 한번 금요일이 왔으면…<br/>“알아요.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금요일은 영영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도요. 그래도 꼭 한 번 다시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금요일이라도 말이에요. 그냥, 지금은 그래요. 진상 규명이라도 제대로 되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부모들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금요일이지 않을까 해요.”<br/><br/>정부자씨는 자신은 그저 내 아이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싶은 엄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처한 상황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무척 낯설다고 했다. 기자간담회 중 마이크가 전해졌을 때도 “헐벗은 느낌이다”라고 했다. 많이 배운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닌 자신이 왜 생판 모르는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해야만 하는지 좀처럼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간담회 시작 전부터 단상 앞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던 정씨는 간담회 내내 그리고 끝나고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이 낯선 곳에서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br/><br/>“제가 우리 빌라 반장이라 집집마다 관리비를 걷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때마다 호성이가 뒤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며 같이 다녀줬어요. ‘엄마, 엄마. 조심, 조심’ 이러면서요. 사고 난 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뒤에서 불 비춰주던 걔야?’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어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관리비도 못 걷어요.”<br/><br/>호성이는 엄마를 무척이나 아끼는 살가운 아들이었다. 그래서 정부자씨는 더욱 아들의 빈자리가 힘들다. 누군가는 이런 그녀를 보고 “호성이 엄마는 호성이 가고 나서 만능이 됐다”라고 했단다.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멍하니 있으면 “엄마, 뭐 해?”라고 말하는 호성이 목소리가 들린단다. 그러면 분향소든 어디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돌아다닌다. 책에 대한 소감도 결국은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간곡한 청을 한 번 더 하는 의미다. 사정하고, 울고, 떼쓰면 진실을 밝혀줄 줄 알았단다. 또 당연히 밝혀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왜 이런 거냐고 정부자씨는 반문한다. 이게 사는 거냐고 한탄한다. 이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고 발을 동동 구른다.<br/><br/>“안산의 곳곳, 분향소,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운동에서 유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했어요. 304명이면 304개의 고통이 존재했죠. 우리 사회가 이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무엇을 빼앗아갔는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책 작업을 한 작가로 느낀 것은… 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누구나 유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 책은 유가족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br/><br/>김 작가는 평범한 유가족들이 얼마나 잘 견디며 싸워왔는지에 대한 삶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인터뷰라고 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유가족들을 이 책을 통해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유가족의 아픔이야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그들과 밀착해 지내면서 그들의 말을 생생히 듣고 기록한 작가들의 아픔도 만만찮았을 것 같았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선뜻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일이었으리라. 안산에 살고 있던 김 작가가 이 기록 작업을 하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 같은 것이었다.<br/><br/>“주요 희생 지역이 안산시 선부동, 와동, 고잔동이에요. 선부동에서 70명, 와동에서 69명, 고잔동에서 83명이 희생됐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선부동의 아파트에서만 15명의 아이가 희생됐어요.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죠. 거리를 무시하지 못하겠더군요. 유가족과 인터뷰를 하고 오면 짧게는 하루 반나절, 길게는 며칠씩 앓아누웠어요. 다른 작가들도요.”<br/><br/>일상으로 돌아가는 사치를 꿈꾸다<br/>공황장애로 집 안에서만 생활해온 김건우군의 엄마는 이제 광화문 천막을 지키며 아들을 위해 싸운다. 신승희양의 언니는 매일 밤 거인이 돼 배를 건져내는 꿈을 꾼다. 그러면서 차도에 뛰어들면,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면 금방 죽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보 같다고 탓한다. 수학여행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굳이 떠밀어 보내곤 떨쳐내지 못하는 죄스러움에 몸부림치는 엄마도 유가족 부모들과 모임을 만들어 삶을 추스르려 한다. 암 말기에 접어들어 어떤 활동에도 나서지 못하는 한 어머니가 다른 유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이야기도 담겼다. 304명이면 304개의 고통이 존재한다고 했던가. 304개의 고통을 전부 알진 못하더라도 책에 담긴 13명의 고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br/><br/>“책에 소개된 열세 분의 이야기는 우연과 우연이 쌓인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지면의 제약으로, 어떤 분은 자식 얘길 하는 게 사무치도록 아파 차마 인터뷰를 할 수 없어서, 한창 거리로 나갈 때는 시간이 없어서, 반대로 열심히 활동을 못하시는 분은 자격이 없다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얼굴이 너무 알려졌다며 거절하셨어요. 매번 상황이 급변했죠.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유가족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생생히 봤습니다.”<br/><br/>인터뷰의 끝은 결국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울음 섞인 간절한 청이었다. 분향소로, 팽목항으로, 광화문으로, 국회로, 청운동으로 바쁘게 다니는 것도 진실 때문이다. 그렇게 길을 누빈 것처럼, 그렇게 책을 만든 것도 진실 때문이다.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들은 가방에 약 한 보따리씩 싸서 갖고 다닌 지 오래다. 심리치료는 언감생심이고, 병원에도 가지 않는다. 입원하라는 말을 들을까 봐서다. 지금은 병원에 누워 있을 때가 아니다. 최근 생존 여학생 1명이 자살을 시도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생존 학생들 중 의사들이 장담할 정도로 경과가 좋은 학생이었다. 그런 아이가 죽고자 마음을 먹었다. 병원에서 눈은 떴지만 입은 닫았던 아이가 며칠 만에 말을 건넨 이는 죽은 단짝의 오빠였다.<br/><br/>“그 아이는 ‘내가 죽으면 다시 어른들이 반성하고 진상을 규명해줄 것 같아’ 죽으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하고 일상으로 가장 돌아가고 싶은 건 우리예요. 하지만 보세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살아 있는 아이조차 일상으로 돌아가 잘 살지 못해요. 죽은 아이, 산 아이 모두를 위해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br/><br/>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일 만큼 아픈 말들과 서러운 오해들이 세상을 메우고 있다. 그런데 직접 만난 유가족들은 오로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만을 바랐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은 다시 누릴 수 없는 사치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그래도 꿈꾼다. 오늘 울고, 내일 다시 일어서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그 사치를 한 번쯤은, 하루쯤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말이다. 그래서 오늘도 낯선 장소에 부은 눈을 감추지 못하고 간다. 가서 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고.<br/><br/>Mini Interview<br/>“유가족 기록, 고통의 언어이지만…<br/>진짜 사랑의 언어이기도 해요”<br/>김순천(작가·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대표)<br/><br/>언론을 통해 유가족을 보는 국민과는 달리 유가족과 밀착돼 지냈다. 기록단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가족의 모습은 어떠했나? 교황이 방문하기 전날이었다. 광화문에서 같이 밤을 새우는데… 예슬이 엄마가 ‘거위의 꿈’을 틀어놓았다. 노래가 흐르는데 갑자기 예슬 엄마가 “예슬아, 보고 싶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 차마 책에 다 담지 못한, 세상에 알리지 못한 이런 유가족의 모습들이 무척 많다. 뉴스나 신문에 유가족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어떨 땐 싸움도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들이 별난 사람들인 줄 안다. 하지만 옆에서 본 유가족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어떤 모습이었냐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말이다.<br/><br/>유가족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세상의 오해가 안타까울 것 같다. 많다. 정말 무척이나 많다. 그중 가장 세상이 미울 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게 보상금과 관련된 얘기다. 보상금을 받았다, 몇 억을 받았다 등등 온갖 억측이 많다. 하지만 지금 유가족이 받은 돈은 누구나 여행 갈 때 의무적으로 드는 여행자보험 보상금 그거 하나다. 그나마도 타가지 않은 분이 더 많다.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안 한 거다. 아니 못하고 있는 거다. 하고 싶지 않으신 거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말이다. 정말 이분들은 돈 생각 안 한다. 생각해봐라. 세상천지에 자식 목숨하고 돈하고 바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자꾸 돈과 결부시키는 세상의 시선이 참 잔인하다.<br/><br/>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앞서 말한 여행자보험, 일반인까지 다 가입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부모님들이 받은 보상금은 없다. 그리고 그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라신다. 오해를 받으니까. 우리 사회는 현재 진실 규명을 해달라는 유가족의 청을 보상 문제로 바라본다.<br/><br/>책에 싣지 못했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직도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한 허다윤양의 이야기다.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양요섭을 좋아해서 부족한 용돈을 쪼개고 모아 잡지에 실린 그 가수의 브로마이드를 다 모아놨더라. 그 아이가 아직 못 나오고 있다. 지금 진도에 가면 바지선까지 다 철수했고 작은 부표 하나만 떠 있다. 다윤이 엄마는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자기 딸이 있다는 걸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신다. 많이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계신다. 어떤 때는 당신도 모르게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그런다.<br/><br/>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로는 무엇이 있을까? 마음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못하는 분들도 많다. 10반 주희양 어머님을 인터뷰할 때였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게 힘들지 않으시냐 물었더니, 언젠가 여수 간담회 자리에 갔을 적 이야기를 하시더라.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밭에서 딴 옥수수를 한 바구니 삶아 와서는 안겨주시는데, 바로 삶아서 가져오셨는지 옥수수가 뜨끈뜨끈하더란다. 이후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상하게 할머니의 옥수수가 생각나신다고 했다. 뜨끈뜨끈하던 그 옥수수가, 그 온기가. 주희양 어머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다. 유가족을 살린 것도, 내동댕이친 것도 국민이다. 할머니와 같은 심정, 함께 있어주려는 것, 분향소라도 한 번 찾아주는 것과 같은, 정말 잊지 않아주려는 마음이 유가족에겐 큰 힘이 된다.<br/><br/>책이 드디어 발간됐다. 작가로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위험 사회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유가족이 될 수 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가족뿐 아니라 희생된 학생들, 일반인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함께 멈춰서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 책은 고통의 언어로 쓰인 동시에 진짜 사랑의 언어이기도 하다.<br/><br/>나무 신호성<br/><br/>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br/>식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br/>이 작은 나무에서 누군가는 울고 웃었을 나무<br/>이 나무를 베어 넘기려는 나무꾼은 누구인가<br/>그것을 말리지 않는 우리는 무엇인가<br/>밑동만 남은 나무는<br/>물을 주어도 햇빛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br/>추억을 지키고 싶다면<br/>나무를 끌어안고 봐보아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7.txt

제목: [볼만한 주말영화]2015년 1월 31일·2월 1일  
날짜: 2015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31100000001  
본문: ■ 죽여야 할 마법사와 사랑에 빠지는 전사<br/><br/>시네마<스콜피온 킹>(OBS 토 오후 10시10분) = 5000년 전, 악한 통치자 멤논은 소수 민족을 말살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 한다. 굴복하는 종족은 노예가 되고, 반항하는 종족은 무참히 몰살당한다. 각 유목민 부족들은 하나로 뭉쳐 대항하려 한다. 부족 대표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멤논의 마법사 때문에 멤논이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사 마테유스에게 마법사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마테유스는 마법사가 아름다운 여성 카산드라임을 알게 된다. 카산드라에게 반한 마테유스는 그녀를 죽이는 대신 납치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데려간다. 이에 분노한 멤논은 토벌군을 보내고, 죽음의 계곡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시작한다.<br/><br/>■ 부모 없이 남겨진 삼형제, 이별할 위기 처해<br/><br/>한국영화특선<엄마 없는 하늘 아래>(EBS 일 오후 11시) = 13세 소년 김영출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동생 영문이와 철호와 함께 단란한 가정 속에서 자란다. 하지만 염전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막내 동생 철호를 낳자마자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아버지는 정신착란증이 재발돼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영출은 막내 철호를 업은 채 생계를 이어간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출이네 형제를 도와주지만 이내 곧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한다. 세 형제가 뿔뿔이 흩어질 찰나, 영출은 고아원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 도망치고, 영문 역시 그런 형을 보고 버스에서 내려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8.txt

제목: [볼만한 주말영화]2015년 1월 31일·2월 1일  
날짜: 2015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3010016126832  
본문: <b>■ 죽여야 할 마법사와 사랑에 빠지는 전사</b><br/><br/>시네마<스콜피온 킹>(OBS 토 오후 10시10분) = 5000년 전, 악한 통치자 멤논은 소수 민족을 말살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 한다. 굴복하는 종족은 노예가 되고, 반항하는 종족은 무참히 몰살당한다. 각 유목민 부족들은 하나로 뭉쳐 대항하려 한다. 부족 대표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멤논의 마법사 때문에 멤논이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사 마테유스에게 마법사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마테유스는 마법사가 아름다운 여성 카산드라임을 알게 된다. 카산드라에게 반한 마테유스는 그녀를 죽이는 대신 납치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데려간다. 이에 분노한 멤논은 토벌군을 보내고, 죽음의 계곡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시작한다.<br/><br/><b>■ 부모 없이 남겨진 삼형제, 이별할 위기 처해</b><br/><br/>한국영화특선<엄마 없는 하늘 아래>(EBS 일 오후 11시) = 13세 소년 김영출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동생 영문이와 철호와 함께 단란한 가정 속에서 자란다. 하지만 염전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막내 동생 철호를 낳자마자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아버지는 정신착란증이 재발돼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영출은 막내 철호를 업은 채 생계를 이어간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출이네 형제를 도와주지만 이내 곧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한다. 세 형제가 뿔뿔이 흩어질 찰나, 영출은 고아원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 도망치고, 영문 역시 그런 형을 보고 버스에서 내려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69.txt

제목: [출장발명가 노승권의 알면 힘이 되는 생물학]‘암은 불운 때문에 걸린다’ 국내 언론 잇단 오보  
날짜: 2015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8100000014  
본문: 새해 벽두에 ‘암에 걸리는 것은 불운 때문이다’라는 뉴스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한 논문을 소개한 기사였는데 ‘불운’이란 표현이 직관적인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br/><br/>‘불운’은 ‘암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암 발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이 무작위 돌연변이’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유전 요인과 환경은 암 발생의 큰 변수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경, 건강 관리, 그리고 암 관련 유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암 발병이 우연에 따른다니, 선뜻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 제목이 ‘불운(bad luck), 즉 무작위 돌연변이가 암 발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 대부분이 이 기사를 제목대로 보도했고, 한국 언론도 ‘불운’을 강조해 기사화했습니다.<br/><br/>그럼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보도자료 내용이 무엇인지 학인해 보겠습니다.<br/><br/>“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암센터 연구팀은 자신들이 개발한 통계 모델을 이용해 ‘줄기세포 분열 횟수’와 암 발생률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다. 31개 장기 조직별 줄기세포 분열 횟수와 같은 조직의 암 발생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줄기세포 분열 횟수와 암 발생률의 상관계수가 0.804, 퍼센트로는 65%로 나타났다. ‘줄기세포 분열 횟수’와 암 발생의 상관계수가 65%라는 결론이다.”<br/><br/>내용을 보고 의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연구팀이 계산한 것은 장기 조직별 줄기세포 분열 횟수와 암 발생률의 상관계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관계수가 무작위 돌연변이가 암 전체의 주요 요인이란 인과 관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장기 조직별로 줄기세포 분열 횟수가 달라 돌연변이 확률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토대로 돌연변이가 암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br/><br/>그래서 이번에는 논문을 찾아봤습니다.<br/><br/>“(중략) 조직 유형별 평생 암 위험도가 자기재생 세포들의 세포분열 총 횟수와 강한 상관관계(0.804)를 갖고 있다. 이는 신체조직들 간에 나타나는 암 위험도 차이(variation)에서 3분의 1만이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기질에 의한다는 점을 나타낸다(중략).”<br/><br/>논문 역시 ‘인체의 장기 조직별 암 발생률 차이가 무작위 돌연변이에 크게(65%) 영향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암의 65%가 무작위 돌연변이에 기인한다는 언론 보도와 다릅니다. 인체 장기 조직별 암 발생률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를 전체 암의 발병 요인으로 확대 해석하다니, 당황스럽습니다.<br/><br/>당연히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비난을 쏟아부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사이언스지도 ‘논문 해석상의 문제였다’는 요지로 해명기사를 냈습니다. <br/><br/>‘불운’은 보도 가치를 높여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사여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암에 걸리는 것이 운에 달렸다는 전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 더욱 상기시킨 소동이었습니다. 조심하면 암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0.txt

제목: 원전 주변 주민 갑상선암 발병 논란, 법원 "일부 인정"에 학계는 "연관성 입증 안돼"  
날짜: 2015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810016090674  
본문: 국내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학술단체와 관계기관들이 28일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이 원전과 연관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br/><br/>대한방사선과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방사선생명과학회, 원자력의학진흥협의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등 13개 학회와 단체가 같이 했다<br/><br/>이번 성명은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가 지난해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과 원전 방사선 노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중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br/><br/>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원전주변 방사선량은 일반인의 법적 연간 선량한도인 1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원전주변 지역의 방사선량률은 원전이 없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br/><br/>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20년간 수행한 원전역학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여성 갑상선암도 ‘방사선 이외의 요인’으로 추론됐다.<br/><br/>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로 만약 원전 방사선의 영향이라면 유방암 등의 다른 암도 증가 경향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점,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야 하는데 유독 여성만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이 꼽혔다. 또 갑상선암 발생률이 원전주변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지목됐다. <br/><br/>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된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해외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선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1.txt

제목: [비상식의 사회]정보의 홍수, 불안 키우는 언론과 전문가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7100000025  
본문: 여러 정보와 지식들이 유통되는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는 이런 괴담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사실(fact)을 찾아 알려야 하고, 전문가는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br/><br/>요즈음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루텐이란 밀, 보리, 귀리 등에 들어 있는 글루테닌(glutenin)과 글리아딘(gliadin)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일종의 불용성 단백질로 곡물을 가공하면 생성된다. 이 글루텐 덕분에 차진 밀가루 음식의 식감을 즐길 수 있고, 빵을 부풀게 할 수도 있다. 국수나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여러 번 치대는 이유도 글루텐의 생성을 높여 더욱 쫄깃하고 차진 식감을 즐기기 위한 것이다.<br/><br/>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국수와 빵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종합편성채널방송 프로그램들로 인해 이를 함유하지 않은 빵과 과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br/><br/>이들 방송을 보면 가정의학 전문의와 한의사들이 출연하여 밀가루 중독증과 글루텐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밀가루 중독증이란 밀가루 내 글루텐이 분해되면서 엑소핀이라는 마약유사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 엑소핀으로 인해 밀가루를 먹으면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자꾸 먹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루텐으로 인해 여드름, 피부가려움, 설사, 변비, 비만, 습진, 탈모 등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분해된 글루텐이 장 점막에 붙어 점막을 파괴함으로써 과민성 장염 증후군과 만성 소화장애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한다.<br/><br/>밀가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미국인들을 보면 미국 인구의 20%가 과민성 장염 증후군과 만성 소화 장애를 앓고 있으며 미국 인구의 40%가 속쓰림과 습진, 우울증, 당뇨병 등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까지 제시하며 글루텐의 위해성을 주장하고 있다.<br/><br/>방송만 보면 마치 글루텐이 마약과 같고, 만병의 근원처럼 느껴진다. 밀가루 음식만 끊으면 살도 빠지고 머리도 좋아지며 가지고 있던 모든 병이 나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조류에 편승하여 글루텐을 넣지 않았다는 식품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고 대체로 20% 이상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br/><br/>왜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서양에서는 수천년간 주식으로 먹어왔을까? 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는 이런 위험 식품에 대한 조사와 하루 섭취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br/><br/>실제를 확인해 보면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와는 다른 부분도 많다.<br/><br/>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만병의 근원?<br/>먼저 중독증을 일으킨다는 엑소핀은 1970년대 발견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어 관심을 받지 못한 물질이다. 엑소핀은 밀가루뿐만 아니라 우유와 쌀, 시금치 등에서도 생성되는데, 마약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려면 어느 정도의 농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밀가루 500g을 먹어야 7mg의 엑소핀이 생성된다. 이 또한 위장에서 대부분 소화되어 단 10%만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그 정도 양만으로도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면 강력한 마약 성분이므로 예전에 섭취를 제한했을 것이다. 그리고 글루텐이 일으킨다는 만성 소화 장애증도 글루텐 섭취와의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통계나 연구결과가 없는 형편이어서 이를 글루텐과 연계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부분 밀가루 섭취량이 많다 보니 각종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셀리악병과 같은 글루텐 불내증이 있으나 이는 약 1%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도 않는다.<br/><br/>결국 글루텐에 대한 불안증의 확산으로 식품업체들만 웃고 있다. 뒤늦게 방송시장에 뛰어든 종합편성채널들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욕구와 방송을 이용해 명성을 얻으려는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글루텐 불안증 덕분에 국민들이 20% 이상 비싼 글루텐 프리 제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br/><br/>과거 방송과 언론기관이 소수일 때에는 엄청난 신뢰를 받아 왔었다.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거는 “신문에 나왔어”, “방송에서 봤어”였다. 그러면 다른 이는 이를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언론매체가 다양해지고,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수단들이 많아지면서 언론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느껴진다. 이제는 신문에 나온 것도 검증을 해봐야 하고 방송에 나오는 화면들도 악마의 편집이 아닌지 앞뒤 정황을 따져봐야 하니 말이다. 아무리 시청률이 지상 최고의 과제라 하더라도 충격과 공포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충격과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된 인터넷 사이비 언론매체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br/><br/>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도덕성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방송에 나온 글루텐의 위험성들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앞뒤 뚝 잘라서 문제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반론과 의견도 소개해야 할 것이다. 글루텐이 그렇게 문제라면 식약처에 글루텐을 마약물질로 등록하라는 청원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자는 운동을 해야지 밀가루를 먹지 않았더니 살이 빠졌다는 것으로 넘어가면 길거리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들과 무엇이 다른가?<br/><br/>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언론의 신뢰도<br/>식약처 등의 정부기관도 국민의 식생활과 보건위생에 관계된 중요한 사안들은 직접 조사하고 실험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밀가루에 대해 그렇게 불안해한다면 면밀한 실험과 조사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한 밀가루 섭취 권장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떨어진 담배 판매량을 지키기 위해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과장하는 조사 발표 같은 것 말고 말이다.<br/><br/>새해에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괴담들이 떠돌고 있다. 중국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큰 시안의 피라미드를 숨기고 있다든지, 암스토롱이 실제로 달에 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든지 하는 음모론부터 천안함과 세월호에 대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쓰면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까지.<br/><br/>여러 정보와 지식들이 유통되는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는 이런 괴담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사실(fact)을 찾아 보도하고 알려야 하고,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괴담으로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줘야 할 것이다.<br/><br/><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2.txt

제목: [경향마당]진짜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날짜: 2015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7100000101  
본문: 한 집안의 가장이자 중견기업 과장인 ㄱ씨는 월평균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이다. 교육비,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사용했고 어지간한 지출은 신용 및 직불카드를 이용한다. 교회에 다니며 헌금도 상당히 했으며, 출마한 지인을 위해 정치자금 후원도 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사 연금보험상품에도 매달 30만원씩 불입하고, 의료실비,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여럿 있다. ㄱ씨는 1월 교육비, 의료비, 연금보험 납입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고, 국세청에서 200만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아 ‘13월의 보너스’를 톡톡히 누렸다.<br/><br/>조그만 기업체 간부로 일하는 ㄴ씨는 식대 10만원을 포함해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 역시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다가 웬만한 지출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한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없는 돈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소득공제가 되는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족 전체적으로 20만원 이상 불입하고 있다. ㄴ씨는 1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지만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채 5만원이 되지 않았다.<br/><br/>ㄱ씨와 ㄴ씨는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상당액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며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은 비슷하지만 환급받는 세금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 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해당되고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즉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공제에 해당되는 핵심 항목은 부양가족과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 및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보험, 기부금 등이다.<br/><br/>박근혜 정부가 기존 소득공제 중심 체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꾸면서 그나마 고소득층에 유리한 규정이 다소 바로잡히긴 했지만, 13월의 보너스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줄었느니 하는 불만의 목소리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급여생활자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들만의 ‘풍족한 불평’인 경우가 많다.<br/><br/>연말정산은 왜 하고 세금 환급은 왜 해주는가? 특히나 교육비, 의료비,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왜 해주는가? 사실 한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교육비, 의료비가 똑같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더불어 소득이 적고 불안정하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각종 보험이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상품 등에는 낼 돈도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부는 이런 각종 사보험상품 납입액에 대해 상당한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br/><br/>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한데 세금을 통한 빈부격차 조정능력도 매우 취약하다. 더구나 이런 식의 각종 공제제도는 소득이 높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를 오히려 더 벌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물론 기부금이나 거래투명성을 위한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등에 대한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을 꾸려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교육비와 각종 사보험 상품에 납입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는 소득간 격차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며,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왜곡하는 것이다.<br/><br/>부양하는 아이가 있다고 세금공제를 하지 말고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라. 교육비를 썼다고 환급해주지 말고 그 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부터 시행하라.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세금공제를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에 세금을 써라. ○○생명의 연금보험에 불입했다고 세금 깎아주지말고 그 돈으로 기초연금을 올려라. ‘지출’했다고 ‘세금’을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세금’으로 ‘지출’ 자체를 줄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며 올바른 복지국가의 방향이다.<br/><br/>※ <이렇게>는 열린 지면입니다. 경향신문에 대한 비판, 제언 등 소재와 글의 형식에 관계없이 독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회 흐름을 짚을 수 있는 독자 여러분의 살아 있는 글로 충실히 지면을 꾸미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글은 op@kyunghyang.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3701-1202~4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3.txt

제목: 설 건강선물 추천 ‘지구스피루리나’, 면역증가에 효과  
날짜: 2015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610016054679  
본문: 100세 시대, 고령화 및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감기나 암 등 다양한 면역계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br/>&nbsp;<br/>특히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부터는 부모님이나 친지들의 선물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선물로 건강식품이 많이 추천되고 있기도 하다.<br/>&nbsp;<br/>국내에서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2009년 생산실적이 9598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 해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의 개별인정형제품은 수 억원 이상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br/><br/>㈜이에스그룹은 26일&nbsp;명절 선물용으로 스틱 포장된 ‘지구스피루리나’ 제품을 추천했다. 업체 측은 "스피루리나는 청남색의 나선형 미세조류(사이아노박테리아)로 인체 노화의 원인이 되는 방어력을 높여주는 식품"이라고 발혔다.<br/>&nbsp;<br/>업체 측은 스피루리나는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의 일종으로&nbsp;이 미생물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포함해 약 60여 가지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화흡수율이&nbsp;높아 체내에 질이 좋은 방어세포들을 만들어 내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준다고도 했다. .<br/>&nbsp;<br/>㈜이에스그룹 관계자는&nbsp;"스피루리나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면역세포의 수가 증가되고, 각 면역세포의 전투력이 현저히 향상되어 병균이나 암 등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로부터 보호하는 훌륭한 식품이 된다"고 말했다.<br/>&nbsp;<br/>일본 여자영양대학 하야시 박사는, 실험용 쥐를 이용한 연구에서 스피루리나를 많이 첨가한 사료를 먹인 쥐에서 항체의 양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또 에버트 박사나 바오지양 박사 등은 스피루리나가 항체 E의 양을 증가시키고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고 업체 측은 덧붙였다.<br/>&nbsp;<br/>업체 측은&nbsp;국내에서는 ‘지구스피루리나 스틱’ 제품으로 출시됐다고 밝혔다. 지구스피루리나 스틱 제품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물과 태양에너지만으로 성장하는 DIC스피루리나 원료가 98.38% 함유되어 높고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br/>&nbsp;<br/>특히 필수아미노산 8가지를 모두 함유한 양질의 단백질이 65% 이상으로 풍부하여 이상적인 단백질을 조성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철분, 칼슘, 불포화지방산도 고르게 함유되어 다른 건강 기능식품을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br/>&nbsp;<br/>제품 상세 내용 및 구입은 ㈜이에스그룹 지구스피루리나 홈페이지(www.spirulina.co.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업체 측은 덧붙였다.<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4.txt

제목: 김자옥 남편 오승근, “내 마지막 인사에 눈 깜빡거리며 눈물흘려”  
날짜: 2015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610016054687  
본문: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1951~2014년)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64)이 KBS 1TV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에 출연해 부부 간의 사랑이야기를 들려준다.<br/><br/>제작진은 “오승근씨가 26일 방송에서 김자옥과 운명적인 첫 만남부터 결혼 이야기, 부부에게 닥친 위기와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아름답고도 슬픈 러브스토리를 들려준다”고 밝혔다. <br/><br/>생전 남편 오승근을 ‘아빠’라고 불렀던 김자옥은 지난해 11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전 “<span class='quot0'>아빠…나는 더 이상 이제 연기를 못할 것 같아</span>”라고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br/><br/><br/><br/><br/><br/>숨지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오는 3월로 결혼날짜를 잡은 아들의 결혼 준비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김자옥은 지난해 9월 갑작스러운 구토와 두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br/><br/>진단 결과 이미 암이 뇌까지 전이된 상태였지만 오승근은 김자옥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염증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치료 후유증으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자 김자옥은 남은 기력마저 잃었다.<br/><br/>떠나기 3일 전 결국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자옥은 기관 내 삽관으로 말은 못하고 들을 수만 있는 상태였다. <br/><br/>오승근은 “<span class='quot1'>주치의가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고, 내 말 알아들었으면 눈 깜박거려보라고 했더니 (아내가)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span>”고 말했다.<br/><br/>KBS 1TV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오승근편은 26일 오후 7시30분 방송된다.<br/><br/><br/><br/><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5.txt

제목: 은평연세병원 확장 이전... “지역거점 병원 자리매김 할 것”  
날짜: 2015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610016065177  
본문: 서울 은평구 은평연세 병원(대표원장 서진학)은&nbsp;오는 3월 완공을 목표로 시작한 공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고 26일 밝혔다.&nbsp;<br/>&nbsp;<br/>서진학 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갑상선,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병원 진료 과목 질환자들의 내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인근에 확장이전과 함께 대학병원 급 검사와 수술장비들을 추가로 더 운영하고, 내원 환자들의 대기시간 해소와 더 빠르고 정밀한 검사·치료를 위해 병원 규모로 확장해 이전하게 되었다</span>”고 밝혔다.<br/>&nbsp;<br/>병원 측은&nbsp;환자 대기 공간을 넓히고 동선을 재배치해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 별로 원하는 검진을 특화 시켜 진행할 수 있는 맞춤형 검사 등 차별화된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검진실시와 동시에 즉시 치료와 수술까지 가능한 원 스톱 수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br/>&nbsp;<br/>병원 측에서는 이번 병원 확장이전을 통해 지역사회 병원의 일원으로서 보건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보건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 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nbsp;<br/>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조기진단 및 치료내시경 시스템과 외과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병원으로서, 환자 중심의 평생주치의 병원,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병원,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로 대학병원 편중 해소를 통한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span>”고&nbsp;전했다.<br/>&nbsp;<br/>한편, 은평연세병원은 갑상선, 유방암, 위암,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하지정맥류 및 내과 진료 및 수술을 중점으로, 각 질환 별 전문적인 진료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br/>&nbsp;<br/>또 각 질환들의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갑상선센터, 유방센터, 하지정맥류 센터, 대장항문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복강경수술 센터, 정형외과 및 외상 센터 등으로 분류해 특화된 진료를 하고 있으며, 갑상선과 유방암의 경우 대학병원 암 병동 급의 시설과 최신 장비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6.txt

제목: [책과 삶]절망의 끝을 걸어가는 보통사람들의 희망 찾기  
날짜: 2015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4100000018  
본문: ▲ 끝의 시작…서유미 지음 | 민음사 | 180쪽 | 1만3000원<br/><br/>유일하게 의탁했던 것마저 잃고 바닥을 쳤을 때 되레 새로 시작할 기운이 생긴다는 건 무신경한 위로같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소설가 서유미씨(40)의 경장편소설 <끝의 시작>은 그 불가사의한 순간을 그려 보인다.<br/><br/>소설 속 인물들은 가족의 자살, 청년실업, 질병으로 무너진 가계처럼 더 듣지 않아도 모두 잘 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작가가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들을 일부러 골라 이야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뉴스 속에서는 한 인간이라기보다 누구로 대체해도 비슷할 표본처럼 다뤄지던 이들의 삶과 사랑을 소설은 소중하게 여민다.<br/><br/>이야기는 30대 후반의 부부인 영무와 여진, 취업 준비생 소정 세 사람의 시점으로 펼쳐진다. 이들은 모두 거의 화내는 일 없이 주어진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종류의 사람들이다. 물이 빠진 것처럼 생기 없고 건조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를 발견했던 날의 기억이나 숙명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인생을 생생하게 이끌 만큼 강한 사람은 드물다.<br/><br/>영무의 아내 여진이 이혼을 결심하고 통보했을 때, 영무의 어머니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두 달간 시한부 생을 시작한다. 그동안 여진은 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갓 군에서 제대한 대학생 석현과 밀애를 나눈다. 영업이 끝난 미용실에서 밤의 연인이 뒹구는 동안, 영무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죽음의 그늘에 잠긴다.<br/><br/><br/><br/>왜 여진이 불륜에 온몸을 던지는지, 왜 영무는 무정하고 서투르기만 한 남자인지 인물들의 사정은 하나씩 풀려 나온다. 어린 날 아버지가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뒤 영무는 세상에 벽을 세우고 살았다. “영무도 인생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 (…) 그러나 팔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어떤 상황에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br/><br/>여진은 그런 영무를 채근하듯 결혼했지만 열정적이었던 여진은 3년 새 무기력한 인간으로 변했다. 아이도 가졌다가 잃었다. 잉태된 아이를 기뻐하기보다 아버지 되기를 두려워했던 영무는 뒤늦게 울었지만 여진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희망이나 기대 앞에선 구경꾼처럼 멀뚱거리고 불안하게 쳐다보더니, 이제 와서 왜 우는 건가 싶었다. 미안해하고 괴로워한다는 건 알겠는데 생명보다 죽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불편하고 싫었다.”<br/><br/>영무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학자금을 갚고 취업을 준비하는 소정은 대물림된 가난을 내내 등에 지고 살아 왔다. 길거리에서 동사체가 발견됐을 때 떠들썩하게 부각되는 가난이 아니라, 모두가 섞여 사는 일터와 학교 같은 곳에서 가난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기를 써야 하는 젊은이의 가난이 숨막힌다. 소정의 가족은 아버지 죽음 앞에서 슬픔보다 가장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더 시달린다. 인생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간 소정의 동생이 1년 만에 전화해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돈을 부쳐 달라는데 소정이 가진 건 28만2000원이 전부다. 소정의 친척과 친구들도 다 가난하다. “<span class='quot0'>이 가난한 피의 흐름을 멈추고 발목에 매달린 쇠공을 없애려면 손목을 끊거나 발목을 자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span>”<br/><br/>넉넉하고 유순한 연인 진수에게서 소정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달콤함을 맛봤지만 잠깐이었다. 계층 차이가 연애에 미치는 영향, 자살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사랑법, 젊은 남자와의 시간이 생의 마지막 순간인 듯 충만하게 즐기는 유부녀의 열망과 외로움까지, 이 소설에서는 사랑도 다 비루하다.<br/><br/>4월이 흘러가는 동안 인물들은 그들이 가졌던 희망의 전부를 다 잃었다. 소정은 애인을, 영무는 어머니와 아내를, 여진은 어린 연인을 보냈다. 그런데 예고되던 끝에 다다른 순간에 내내 이야기를 지배하던 절망은 조금 걷히는 느낌이다. 소설은 긴 좌절과 아주 적은 함량의 희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책을 덮고 나니 후자에 힘이 실린다. 4월이 가면 자연스레 5월이 오듯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두려웠지만 그래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작가의 작은 낙관은 정직한 것 같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7.txt

제목: [‘건강도약 2015’ 인터뷰](3) 안세현 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 소장  
날짜: 2015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3100000064  
본문: 유방암은 갑상샘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여성 암이다. 1996년 3801명에서 2011년 1만6967명으로 연간 발병자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조기 진단이 쉽고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보조치료인 항암(제)치료, 항호르몬치료 및 방사선치료 발달과 최신 표적치료 개발로 치료율과 생존율이 매우 높다.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환자의 5년 생존율이 90%를 넘는다. 중증 유방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아산병원의 1만여명 분석 결과에서도 5년 생존율 86.8%, 10년 생존율 80.6%로 나타났다.<br/><br/>안세현 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 소장(58·유방내분비외과)은 “<span class='quot0'>기본적으로 유방암 치료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진들과 시스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학자들과 임상의사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그 결과를 임상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유방암 정복을 앞당기는 요체</span>”라고 강조했다.<br/><br/><br/>▲ 여성 암으론 갑상샘암 이어 많아<br/>환자 늘지만 5년 생존율 90% 넘어<br/>운동으로 비만 줄이고 체력 키워야<br/><br/>- 유방암 치료율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br/><br/>“맞춤형 치료, 즉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개별 환자의 상태나 종양의 특성에 맞는 치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때 어떤 환자, 어떤 종양이 재발 위험도가 높고 어떤 약제에 가장 잘 반응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정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암세포들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각 암세포들을 특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표적치료제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치료에 대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는 환자, 약물치료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이겨 나가려고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환자,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진료실에서 웃음을 보여주는 환자가 치료 성적도 좋았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은 유방암의 완치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br/><br/>- 수술을 비롯한 유방암 치료의 최신 경향은 어떻습니까.<br/><br/>“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 전체를 잘랐지만 요즘은 70% 이상은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많아져서도 그렇고, 선행항암·선행항호르몬 치료를 통해 크기를 줄여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범위를 줄였습니다.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유방 복원수술이 늘었다는 점인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 정도에 그쳤던 동시유방복원수술이 서울아산병원에서만 2000례가 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40% 가까이 동시복원수술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자신의 유두를 보존하는 유두보존 유방절제술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유방암은 암 조직의 성공적인 제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용적 측면도 수술 성적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환자의 삶의 질 측면과 더불어 여성의 상징인 유방의 원래 모습을 간직하는 수술기법이 점점 발달하고, 임상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br/><br/>- 치료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br/><br/>“유방암은 수술 이후 항암치료, 항호르몬치료, 표적치료 혹은 방사선치료 등 향후 재발을 줄이기 위한 추가 보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수술 후 결과에서 병기 및 호르몬수용체 발현 유무와 ‘Her-2 유전자’ 과발현 여부를 알아보는 수술 후 병리학적 검사 소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치료들의 조합이 이루어져 시행됩니다. 환자분들은 치료에 따라 유방외과는 물론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치료 관련 설명을 잘 듣고,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 혹은 치료 후의 경과에서 재활운동, 암 관련 정신건강적인 면, 기타 동반된 만성질환에 대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수록 완치율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 및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과의 소통,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긍정적인 사고 및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br/><br/>안 교수는 2013년 4월 유방암 수술 2만례를 넘어섰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수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개인별 유방암 발생률 예측도구도 개발했다. 2004년 유방암 환자들의 모임인 ‘핑크리본회’ 설립을 주도하고, 유방암 및 유방건강 국민캠페인에도 노력하고 있다. 매월 환자들과 찜질방에서 정기적 모임을 갖는다.<br/><br/>- 유방암 환자가 점점 늘어 한 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은 없나요.<br/><br/>“지속적 발병률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서구화된 생활양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식생활, 체형 변화로 인한 이른 초경, 늦은 폐경, 그리고 늦은 결혼 및 출산,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로 여성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많아진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 여성에 비해 평균연령이 10세 정도 빨리 발병하는 ‘폐경 전’ ‘분만 전’ 유방암 환자가 많습니다. 고위험군이 유방암 예방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거나, 외국에서 예방적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유방암 발병 원인을 줄이는 생활습관과 더불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br/><br/>- 환자나 완치자들의 활기찬 삶을 위한 조언을 해주십시오.<br/><br/>“암은 암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두려움을 수반하게 됩니다. 최근 5년 생존율이 95%에 육박하는 조기 유방암이 많아 장기 생존 유방암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만큼 암 생존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환자들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일상적인 활동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알맞은 운동을 통해 체력 향상을 꾀하고, 특히 유방암 발병 원인인 비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유방암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다행스럽게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어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br/><br/>▲ 주요 약력 : 서울대 의대 졸업, 울산대 의대 외과학 주임교수,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외과 과장(현)·외과 임상과장(현), 미국유방학회 정회원(현), 미국임상종양학회 정회원(현), 연강학술상 수상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8.txt

제목: 영화 한마당  
날짜: 2015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3100000071  
본문: (감독 | 출연 | 관람등급)<br/><br/>■ 엑스 마키나(알렉스 가랜드 | 돔놀 글리슨 | 19세 이상)= 유능한 프로그래머 칼렙은 치열한 경쟁 끝에 인공지능 분야의 천재 개발자 네이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외부엔 알려지지 않은 네이든의 비밀 연구소에 초대받은 칼렙은 네이든이 창조한 매혹적인 인공지능 ‘에이바’를 만난다. 그녀의 인격과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네이든이 프로그래밍한 것인지 테스트가 진행된다. 칼렙은 점점 네이든과 에이바를 의심한다. 108분.<br/><br/><br/>■ 와일드(장 마크 발레 | 리즈 위더스푼 | 19세 이상)= 셰릴 스트레이드는 폭력적인 아빠와 가난으로 인해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다. 엄마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려는 순간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엄마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엄마의 죽음 이후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던 셰릴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극한을 넘나들게 하는 도보여행 코스 PCT(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인)를 걷기로 결심한다. 119분.<br/><br/>■ 미스터 터너(마이크 리 | 티모시 스폴 | 19세 이상)= 19세기 미술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터너는 영국을 벗어나 여행을 다니며 영감을 얻는다. 그러던 중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그는 기존의 화풍을 벗어난 파격적인 기법의 풍경화를 선보이지만 세간의 조롱을 산다. 심지어 터너의 시력이 악화됐다는 소문까지 돈다. 1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79.txt

제목: [책과 삶]절망의 끝을 걸어가는 보통사람들의 희망 찾기  
날짜: 2015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310016049037  
본문: <b>▲ 끝의 시작…서유미 지음 | 민음사 | 180쪽 | 1만3000원</b><br/><br/>유일하게 의탁했던 것마저 잃고 바닥을 쳤을 때 되레 새로 시작할 기운이 생긴다는 건 무신경한 위로같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소설가 서유미씨(40)의 경장편소설 <끝의 시작>은 그 불가사의한 순간을 그려 보인다.<br/><br/>소설 속 인물들은 가족의 자살, 청년실업, 질병으로 무너진 가계처럼 더 듣지 않아도 모두 잘 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작가가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들을 일부러 골라 이야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뉴스 속에서는 한 인간이라기보다 누구로 대체해도 비슷할 표본처럼 다뤄지던 이들의 삶과 사랑을 소설은 소중하게 여민다.<br/><br/>이야기는 30대 후반의 부부인 영무와 여진, 취업 준비생 소정 세 사람의 시점으로 펼쳐진다. 이들은 모두 거의 화내는 일 없이 주어진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종류의 사람들이다. 물이 빠진 것처럼 생기 없고 건조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를 발견했던 날의 기억이나 숙명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인생을 생생하게 이끌 만큼 강한 사람은 드물다.<br/><br/>영무의 아내 여진이 이혼을 결심하고 통보했을 때, 영무의 어머니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두 달간 시한부 생을 시작한다. 그동안 여진은 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갓 군에서 제대한 대학생 석현과 밀애를 나눈다. 영업이 끝난 미용실에서 밤의 연인이 뒹구는 동안, 영무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죽음의 그늘에 잠긴다.<br/><br/><br/><br/>왜 여진이 불륜에 온몸을 던지는지, 왜 영무는 무정하고 서투르기만 한 남자인지 인물들의 사정은 하나씩 풀려 나온다. 어린 날 아버지가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뒤 영무는 세상에 벽을 세우고 살았다. “영무도 인생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 (…) 그러나 팔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어떤 상황에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br/><br/>여진은 그런 영무를 채근하듯 결혼했지만 열정적이었던 여진은 3년 새 무기력한 인간으로 변했다. 아이도 가졌다가 잃었다. 잉태된 아이를 기뻐하기보다 아버지 되기를 두려워했던 영무는 뒤늦게 울었지만 여진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희망이나 기대 앞에선 구경꾼처럼 멀뚱거리고 불안하게 쳐다보더니, 이제 와서 왜 우는 건가 싶었다. 미안해하고 괴로워한다는 건 알겠는데 생명보다 죽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불편하고 싫었다.”<br/><br/>영무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학자금을 갚고 취업을 준비하는 소정은 대물림된 가난을 내내 등에 지고 살아 왔다. 길거리에서 동사체가 발견됐을 때 떠들썩하게 부각되는 가난이 아니라, 모두가 섞여 사는 일터와 학교 같은 곳에서 가난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기를 써야 하는 젊은이의 가난이 숨막힌다. 소정의 가족은 아버지 죽음 앞에서 슬픔보다 가장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더 시달린다. 인생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간 소정의 동생이 1년 만에 전화해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돈을 부쳐 달라는데 소정이 가진 건 28만2000원이 전부다. 소정의 친척과 친구들도 다 가난하다. “<span class='quot0'>이 가난한 피의 흐름을 멈추고 발목에 매달린 쇠공을 없애려면 손목을 끊거나 발목을 자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span>”<br/><br/>넉넉하고 유순한 연인 진수에게서 소정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달콤함을 맛봤지만 잠깐이었다. 계층 차이가 연애에 미치는 영향, 자살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사랑법, 젊은 남자와의 시간이 생의 마지막 순간인 듯 충만하게 즐기는 유부녀의 열망과 외로움까지, 이 소설에서는 사랑도 다 비루하다.<br/><br/>4월이 흘러가는 동안 인물들은 그들이 가졌던 희망의 전부를 다 잃었다. 소정은 애인을, 영무는 어머니와 아내를, 여진은 어린 연인을 보냈다. 그런데 예고되던 끝에 다다른 순간에 내내 이야기를 지배하던 절망은 조금 걷히는 느낌이다. 소설은 긴 좌절과 아주 적은 함량의 희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책을 덮고 나니 후자에 힘이 실린다. 4월이 가면 자연스레 5월이 오듯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두려웠지만 그래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작가의 작은 낙관은 정직한 것 같다.<br/><br/><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0.txt

제목: [영화 한마당]엑스 마키나 外  
날짜: 2015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210016039754  
본문: (감독 | 출연 | 관람등급)<br/><br/>■ 엑스 마키나(알렉스 가랜드 | 돔놀 글리슨 | 19세 이상)= 유능한 프로그래머 칼렙은 치열한 경쟁 끝에 인공지능 분야의 천재 개발자 네이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외부엔 알려지지 않은 네이든의 비밀 연구소에 초대받은 칼렙은 네이든이 창조한 매혹적인 인공지능 ‘에이바’를 만난다. 그녀의 인격과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네이든이 프로그래밍한 것인지 테스트가 진행된다. 칼렙은 점점 네이든과 에이바를 의심한다. 108분.<br/><br/><br/>■ 와일드(장 마크 발레 | 리즈 위더스푼 | 19세 이상)= 셰릴 스트레이드는 폭력적인 아빠와 가난으로 인해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다. 엄마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려는 순간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엄마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엄마의 죽음 이후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던 셰릴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극한을 넘나들게 하는 도보여행 코스 PCT(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인)를 걷기로 결심한다. 119분.<br/><br/>■ 미스터 터너(마이크 리 | 티모시 스폴 | 19세 이상)= 19세기 미술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터너는 영국을 벗어나 여행을 다니며 영감을 얻는다. 그러던 중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그는 기존의 화풍을 벗어난 파격적인 기법의 풍경화를 선보이지만 세간의 조롱을 산다. 심지어 터너의 시력이 악화됐다는 소문까지 돈다. 1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1.txt

제목: 연극 연출서 주목할 신예 여성 3인방  
날짜: 2015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2100000082  
본문: “<span class='quot0'>경력 10년 미만의 신예 연출가들, 하지만 이들을 주목하라.</span>” 서울문화재단(대표 조선희)이 지난해 3월 공모한 연극 부문 지원에는 모두 57편의 작품이 몰렸다. 그중 선정된 것은 3편이다. 이래은(41)의 <날개, 돋다>, 김수정(32)의 <안전가족>, 구자혜(33)의 <디스 디스토피아>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 연출가의 연극이다. 지난 7개월간 워크숍과 낭독공연 등을 거친 3편의 연극은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문화재단 측은 “<span class='quot1'>동시대의 삶을 통찰하는 젊은 연출가 3인의 날카로운 시선</span>” “<span class='quot1'>‘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연극</span>”이라는 표현으로 이들의 연극에 주목한 이유를 밝혔다. <br/><br/><br/>■ 이래은 - ‘날개, 돋다’ 1월 22일 ~ 25일<br/>“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15살짜리의 절규 담아<br/><br/><br/>이들 셋 중에 나이는 제일 많지만 연극적 경험은 많지 않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고양이가 말했어>로 데뷔했다. 하지만 오래도록 휴업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 키우는 경험을 토대로 <서른, 엄마>를 쓰고 연출했다. 연극의 맛을 살짝 알려는 찰나에 남편에게 암이 찾아왔다. 2008년이었다. 삶이 무겁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남편에게 그 무거움을 내비치고 말았다. 그날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연극을 다시 하라는 권유였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만든 연극이 <날개, 돋다>이다.<br/><br/>주인공은 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다. 엄마는 새, 아빠는 나무꾼이다.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되자 등에 날개가 돋는다. 아이는 거울을 보면서 “난 이상해, 못생겼어”라고 중얼거린다. 자신의 날개를 증오하고 부모도 미워한다. 날개를 칼로 자르려고 버둥댄다. 이 연극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절규하는 15살짜리의 이야기다. <br/><br/>그런데 동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홀짝거리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껄렁해 보이는 10대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중 한 아이가 다가오더니 내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그거 기네스 맥주죠?” 아이는 이것저것 말을 붙였고 난 그 아이가 싫지 않았다. “<span class='quot0'>너 어른 되길 기다리고 있지?</span>”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가 빙그레 웃었다. 난 그렇게 낯선 아이에게,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건네는 연극쟁이가 되고 싶다.<br/><br/>■ 김수정 - ‘안전가족’ 1월29일 ~ 2월1일<br/>“내가 선택한 삶을 사나” 그런 질문으로 봐주길<br/><br/><br/>화가 나서 연극을 시작했다. 최초의 화는 중학교 때 찾아왔다. 홍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그때 정부에서 준 수재민 지원금이 75만원이었다. 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 날마다 목이 빠지게 답장을 기다렸다. 어느 날 날아온 답장에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적혀 있었다. 화가 났다. 내 고향은 전남 화순이고 부모님은 DJ 지지자였다. 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다. 어른들한테 대들고 방황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고교 시절에 연극 서클에 들어간 것도 공부 안 하고 ‘딴따라 짓’ 하고 싶어서였다.<br/><br/>한국예술종합학교는 장학금이 많았다.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갈 구멍은 많았다. 내 생활비뿐 아니라 몰락한 집안의 가계도 거들어야 했다. 스무 살 때부터 별별 아르바이트를 다했다. 목표는 1억원이었다. 거의 10년 걸려 목표가 채워졌을 때 엄마한테 선물했다. 장녀 콤플렉스? 모르겠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연극 데뷔는 배우로 했다. 2005년 이상우 선생의 <변>이라는 연극이었다. 지금도 좋아하는 연극 스승이다. 그런데 대학로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곳곳에서 겪었다. 배우 생활을 접고 연출가로 나서면서 화가 좀 풀린 것 같다. <안전가족>은 연출가로서 7번째 작품이다. <송곳니>라는 그리스 영화를 오늘날 한국을 배경으로 각색했다. ‘나는 과연,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봐주기 바란다.<br/><br/>■ 구자혜 - ‘디스 디스토피아’ 2월 4일 ~ 8일<br/>왜 맞아야 하는지 몰랐던 내가 겪은 폭력의 경험<br/><br/><br/>이화여대 연극반에서 연극을 시작했다. 첫 배역이 할아버지 역할이었는데 그 후에도 남자 배역만 했다. 왜 나의 여성성에 주목하지 않는가? 어쨌든 나는 그렇게 남자 분장으로 무대에 서면서 희곡을 20편쯤 썼다. 소설도 10편쯤 썼다. 물론 대학 시절의 습작이지만 참 많이 썼던 것 같다. 2010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모한 신작 희곡 페스티벌에서 <먼지섬>이 당선돼 연극쟁이로 신고식을 치렀다. 이듬해에 국립극단에 조연출로 들어갔다. 손진책 선생의 <3월의 눈>, 김동현 선배의 <벌>에서 조연출을 맡았다. 김광보 선배의 조연출도 1년쯤 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국립극단에서 <3월의 눈> 첫 연습을 하던 날이다. 연습실에 웬 할아버지가 계셨다. 솔직히 난 그분이 장민호 선생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그날 연습을 보다가 울었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건 처음이었다. 내가 초보 연출가로서 욕망했던 것은 스타일이 강한 연극이었는데, 그런 자의식이 와르르 무너졌다.<br/><br/>난 겁이 많다. 소심해서 다른 사람하고 눈도 잘 맞추지 못한다. 어릴 때 많이 맞아서인 것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였다. 난 공부도 꽤 잘하는 아이였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왜 맞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디스 디스토피아>에는 내가 겪었던 폭력의 경험들이 녹아 있다. 세상과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연극을 하고 싶다. 연출가로서 ‘움직임과 소리’에 관심이 많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2.txt

제목: 오는 25일은 세계 한센병의 날, "질병 퇴치와 장애 방지 쌍끌이 공중보건 전략 필요"  
날짜: 2015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210016037488  
본문: 오는 25일은 제 62회 세계 한센병의 날(World Leprosy Day)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형(하늘의 형벌)’으로 여겨지는 한센병(일명 나병)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일부 나라에서 여전히 환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br/><br/>세계적인 한센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라올 홀레로(Raoul Follereau, 1903~1977)는 아프리카 여행 중 한센환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1954년 저명인사 등 15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 한센병의 날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100여 국가에서는 매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세계 한센병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br/><br/>“저에게 비행기와 폭격기 중 1대만 주십시오. 1대 값이 약 50억 프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이 세상 모든 한센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라올 홀레로는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우어와 소련 각료회의 의장인 마렌코프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한센병 퇴치에 누구보다 앞장섰다.<br/><br/><br/><br/><br/><br/>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인도에서 기원전 600년경에 쓰여진 것이며, 중국에서는 기원전 40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알렉산더대왕의 동방정벌 이후 지중해 쪽으로 질병이 확산된 후 12세기경 전체 유럽으로 확산되어 창궐하였고 그 후 서서히 감소되었다.<br/><br/>우리나라에서는 서기 1400년경부터 기록이 있으며, 그 유행은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중국)로부터 유입되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 있다.<br/><br/>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Mycobacterium leprae)은 1873년 노르웨이의 한센(Hansen, 1841~1912)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처음에는 이를 한센병의 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879년 독일의 나이셀(Neisser)에 의해서 한센의 발견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코호(Koch)가 결핵균을 발견하기 전이다. 나균을 발견한 한센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나균에 의한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됐다.<br/><br/><br/><br/><br/><br/>■한센병 전문가 감소 등으로 잠재적 위험 상존<br/><br/>세계보건기구 및 각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한센사업의 결과로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의 유병률은 약 90% 이상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약 10여개국에서만 한센병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로만 남아 있다. 최근에는 인도, 브라질, 모잠비크, 네팔,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등 6개국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의 환자수는 전세계 환자의 80%, 신환자의 85%를 차지한다.<br/><br/>전세계 등록 환자수는 1985년 535만 명에서 2013년 18만명으로, 새로운 환자는 5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한국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한센병 사업대상자 1만 1805명, 한센병(활동성) 환자수 210명, 한센장애인 9040명 등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71.9세이다.<br/><br/>한국한센복지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한센병 저유병 국가에서는 신환자 발생 감소 및 저유병률로 한센병의 공공 의료적 중요성이 감소, 사회 전반적으로 한센병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었다.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이 축소하여 다양한 부문의 한센전문가 감소로 인한 적절한 치료의 부실화 초래가 우려된다. 또한 외국 근로자나 국제결혼 등 한센병 고유병 국가 출신의 국내 이주 증가 등 한센병의 잠재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센병이 질병에 의한 신경병증성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며, 실명의 주요 원인이라는 면이 대두되면서 한센병의 새로운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사업의 방향이 한센병 퇴치라는 측면에서 장애 방지를 위한 공중보건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br/><br/><br/><br/><br/><br/>국내에서 숫자는 적지만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한센병 진단이 쉽지 않다. 한센복지협회가 일반 의료기관과 진단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고 있다.<br/><br/>■한국한센복지협회 등에서 조기 검진 가능<br/><br/>현재 국내에서 한센사업대상자의 정기검진을 위해 전국 19개반의 이동진료반이 운영되고 있다. 한센복지협회 17개반, 민간 한센사업기관 2개반이다. 전국 255개 보건소 및 88개 정착마을의 한센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재활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한센병에 의한 장애예방을 도모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무의도서 주민 등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br/><br/>한센사업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중앙이동진료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진료에서 종양(암) 표지자 검사,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체지방 검사, 심전도 검사, X-레이 검사 등을 시행하며,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br/><br/><br/><br/><br/><br/>◇한센병이란 무엇인가?<br/><br/>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이다. 나균은 결핵균과 같은 항산균으로 세균의 일종이다. 결핵균과 매우 비슷한 모습과 세균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감염되어 발병되는 경우는 결핵에 비해 매우 적고, 단지 나균에 대한 면역 기능이 약한 경우에서만 한센병이 발생한다. 과거 유전병으로 생각되기도 했지만, 현대 의학에서 한센병은 분명히 유전병이 아니고 나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정의된다.<br/><br/>나균은 증식 속도가 매우 느려서 병의 잠복기가 5~20년이나 된다. 나균의 감염력은 매우 낮으며 증상이 심한 한자와의 매우 긴밀한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한센병 환자나 한센병이 다 나은 후 단지 후유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염력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br/><br/>◇한센병은 무서운 병인가?<br/><br/>한센병운 한 때의 ‘불치의 병’에서 이제는 ‘완치의 병’으로 바꾸었다.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인 변형을 거의 남기는 일 없이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다. 비록 변형이 있다 하여도 이미 한센병이 치료되었다면 감염의 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 공중보건학계의 정설이다.<br/><br/>답손, 크로파지민, 리팜피신 등 3개의 약제를 조합해 이용하는 한센병 치료법을 복합화학요법(MDT)이라고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로 시작되어 현재는 세계적으로 한센병 치료에 사용한다. <br/><br/>◇한센병은 가벼운 병인가?<br/><br/>전문가들은 한센병이 잘 감염되지 않고, 게다가 치료에 의해 확실히 치유되기 때문에 무서운 병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센병은 피부 외에 말초 신경도 침범하기 때문에 얼굴, 손 발 등에 감각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손과 발에 감각마비가 있으면 뜨거움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치기 쉽고, 화상도 쉽게 생길 수 있다.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악화되어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적지 않다. 감각마비도 한센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남지 않는다.<br/><br/>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얼굴이나 손 발 등에 감각마비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어려가지 후유증을 남겨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후유증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 감각마비와 같은 말초 신경의 장애와 이에 따르는 후유증을 막는 것은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한다.<br/><br/>◇한센병 조기진단과 치료는?<br/><br/>한센병은 피부와 말초신경의 병이다.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은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을 침범하여 피부와 말초신경의 증상을 일으킨다. 피부 증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가려움은 없으며, 감각(따뜻함, 차가움, 아픔 등)의 저하가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나 화상 등이 생기는 일이 흔하다. 말초신경 증상으로는 해당 신경의 감각마비와 함께 운동의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면 주로 얼굴과 손, 발 등에 변형(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br/><br/>현재 국내에서는 한센복지협회 한센병연구원과 전국에 있는 협회 지부 피부과의원 및 기타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국가에 의해서 전액 무상으로 이루어진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3.txt

제목: 연극 연출서 주목할 신예 여성 3인방  
날짜: 2015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11001603121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당신 삶은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던진 날선 질문</strong><!-- SUB\_TITLE\_END--><br/><br/>“<span class='quot0'>경력 10년 미만의 신예 연출가들, 하지만 이들을 주목하라.</span>” 서울문화재단(대표 조선희)이 지난해 3월 공모한 연극 부문 지원에는 모두 57편의 작품이 몰렸다. 그중 선정된 것은 3편이다. 이래은(41)의 <날개, 돋다>, 김수정(32)의 <안전가족>, 구자혜(33)의 <디스 디스토피아>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 연출가의 연극이다. 지난 7개월간 워크숍과 낭독공연 등을 거친 3편의 연극은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문화재단 측은 “<span class='quot1'>동시대의 삶을 통찰하는 젊은 연출가 3인의 날카로운 시선</span>” “<span class='quot1'>‘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연극</span>”이라는 표현으로 이들의 연극에 주목한 이유를 밝혔다. <br/><br/><br/><b>■ 이래은 - ‘날개, 돋다’ 1월 22일 ~ 25일<br/>“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15살짜리의 절규 담아</b><br/><br/><br/>이들 셋 중에 나이는 제일 많지만 연극적 경험은 많지 않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고양이가 말했어>로 데뷔했다. 하지만 오래도록 휴업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 키우는 경험을 토대로 <서른, 엄마>를 쓰고 연출했다. 연극의 맛을 살짝 알려는 찰나에 남편에게 암이 찾아왔다. 2008년이었다. 삶이 무겁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남편에게 그 무거움을 내비치고 말았다. 그날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연극을 다시 하라는 권유였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만든 연극이 <날개, 돋다>이다.<br/><br/>주인공은 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다. 엄마는 새, 아빠는 나무꾼이다.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되자 등에 날개가 돋는다. 아이는 거울을 보면서 “난 이상해, 못생겼어”라고 중얼거린다. 자신의 날개를 증오하고 부모도 미워한다. 날개를 칼로 자르려고 버둥댄다. 이 연극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절규하는 15살짜리의 이야기다. <br/><br/>그런데 동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홀짝거리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껄렁해 보이는 10대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중 한 아이가 다가오더니 내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그거 기네스 맥주죠?” 아이는 이것저것 말을 붙였고 난 그 아이가 싫지 않았다. “<span class='quot0'>너 어른 되길 기다리고 있지?</span>”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가 빙그레 웃었다. 난 그렇게 낯선 아이에게,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건네는 연극쟁이가 되고 싶다.<br/><br/><b>■ 김수정 - ‘안전가족’ 1월29일 ~ 2월1일<br/>“내가 선택한 삶을 사나” 그런 질문으로 봐주길</b><br/><br/><br/>화가 나서 연극을 시작했다. 최초의 화는 중학교 때 찾아왔다. 홍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그때 정부에서 준 수재민 지원금이 75만원이었다. 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 날마다 목이 빠지게 답장을 기다렸다. 어느 날 날아온 답장에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적혀 있었다. 화가 났다. 내 고향은 전남 화순이고 부모님은 DJ 지지자였다. 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다. 어른들한테 대들고 방황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고교 시절에 연극 서클에 들어간 것도 공부 안 하고 ‘딴따라 짓’ 하고 싶어서였다.<br/><br/>한국예술종합학교는 장학금이 많았다.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갈 구멍은 많았다. 내 생활비뿐 아니라 몰락한 집안의 가계도 거들어야 했다. 스무 살 때부터 별별 아르바이트를 다했다. 목표는 1억원이었다. 거의 10년 걸려 목표가 채워졌을 때 엄마한테 선물했다. 장녀 콤플렉스? 모르겠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연극 데뷔는 배우로 했다. 2005년 이상우 선생의 <변>이라는 연극이었다. 지금도 좋아하는 연극 스승이다. 그런데 대학로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곳곳에서 겪었다. 배우 생활을 접고 연출가로 나서면서 화가 좀 풀린 것 같다. <안전가족>은 연출가로서 7번째 작품이다. <송곳니>라는 그리스 영화를 오늘날 한국을 배경으로 각색했다. ‘나는 과연,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봐주기 바란다.<br/><br/><b>■ 구자혜 - ‘디스 디스토피아’ 2월 4일 ~ 8일<br/>왜 맞아야 하는지 몰랐던 내가 겪은 폭력의 경험</b><br/><br/><br/>이화여대 연극반에서 연극을 시작했다. 첫 배역이 할아버지 역할이었는데 그 후에도 남자 배역만 했다. 왜 나의 여성성에 주목하지 않는가? 어쨌든 나는 그렇게 남자 분장으로 무대에 서면서 희곡을 20편쯤 썼다. 소설도 10편쯤 썼다. 물론 대학 시절의 습작이지만 참 많이 썼던 것 같다. 2010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모한 신작 희곡 페스티벌에서 <먼지섬>이 당선돼 연극쟁이로 신고식을 치렀다. 이듬해에 국립극단에 조연출로 들어갔다. 손진책 선생의 <3월의 눈>, 김동현 선배의 <벌>에서 조연출을 맡았다. 김광보 선배의 조연출도 1년쯤 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국립극단에서 <3월의 눈> 첫 연습을 하던 날이다. 연습실에 웬 할아버지가 계셨다. 솔직히 난 그분이 장민호 선생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그날 연습을 보다가 울었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건 처음이었다. 내가 초보 연출가로서 욕망했던 것은 스타일이 강한 연극이었는데, 그런 자의식이 와르르 무너졌다.<br/><br/>난 겁이 많다. 소심해서 다른 사람하고 눈도 잘 맞추지 못한다. 어릴 때 많이 맞아서인 것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였다. 난 공부도 꽤 잘하는 아이였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왜 맞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디스 디스토피아>에는 내가 겪었던 폭력의 경험들이 녹아 있다. 세상과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연극을 하고 싶다. 연출가로서 ‘움직임과 소리’에 관심이 많다.<br/><br/><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4.txt

제목: [건강설계]진화하는 관장요법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0100000013  
본문: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배변이 원활해지도록 먼저 시도한다. 습관 교정을 통해서도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먹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그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br/><br/>이런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관장법이다. 관장은 변비 치료를 목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사용됐고, 현재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치료법이다.<br/><br/>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관장은 이 고통을 해결해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br/><br/>배앓이를 하는 어린이가 관장만 했을 뿐인데도 복통이 사라지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된다. 암과 같은 중병을 가진 환자가 암 통증보다도 오히려 변비로 더 고통스러워하다가 관장 후에는 환하게 웃기도 한다. 중증의 중풍 환자가 관장 후에 배변 기능이 회복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br/><br/>변비약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것처럼 관장 방법도 다양하다. 단순히 변을 배출시키는 방법에서부터 약물의 효과를 전달하는 보류 관장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br/><br/>또한 부적절한 방식으로 관장을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장을 할 때에는 전문인의 진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br/><br/>최근엔 관장이 해독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내과의 막스 거슨은 커피 관장을 개발해 암 치료를 했다. 일본의 유명 대장전문의인 80세의 신야 히로미는 몇 십년간 커피 관장을 통해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 장제스 전 대만 총통의 부인 쑹메이링 여사는 매일 저녁 온수 관장을 했다. 이 덕에 106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관장은 변비 치료를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br/><br/><이응세 예한의원 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5.txt

제목: 왜 새삼스레, 백남준이 뜰까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0100000114  
본문: 백남준이 뜬다?<br/><br/>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1932~2006)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든 작가다. 서울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고등학교, 도쿄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독일에서 미술, 음악사를 공부한 뒤 뉴욕에서 주로 활동했던 코스모폴리탄인 그는 1963년 독일 부퍼탈과 뉴욕에서 전시회를 가지면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일상적 매체인 텔레비전을 예술 오브제로 채택한 그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날로 발전하는 전자기술과 융합해 다채로운 작품으로 탄생했다. 그는 전 인류가 기술을 통해 상호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공동체로 향한다는 유토피아적 발상을 펼쳤으며, 동시에 작품에 선불교에 기반을 둔 동양철학의 숨결을 불어넣음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성을 획득했다.<br/><br/>이런 백남준이 새삼스레 ‘뜬다’는 말은 세계 미술시장이 그의 작품에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가고시안갤러리가 지난해 백남준 유족과 전속작가 계약을 맺고 작품 거래를 중개하기 시작했으며,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한꺼번에 작품 9점을 구매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백남준전을 열고 있다. 앞서 스미스소니언 미술관(2013년)과 뉴욕 록펠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2014년)에서도 회고전이 열렸다.<br/><br/><br/>국내 화랑 가운데는 학고재갤러리가 이런 흐름에 맞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고재는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 항저우 삼상현대미술관에서의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전과 학고재상하이갤러리에서의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전을 개최한 데 이어, 두 전시의 출품작 12점을 추려 다시 서울 삼청로 학고재갤러리에서 ‘W3’전을 마련했다. 표제작인 ‘W3’와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갤러리에서 열린 첫 전시 출품작인 5피스의 싱글채널비디오를 제외하고는 소품들이다.<br/><br/>‘W3’는 www, 즉 월드와이드웹을 말한다. 암실에 64대의 모니터를 2개의 X자 모양으로 교차 설치한 이 작품은 전체 재생시간 20분짜리 영상을 1초 간격으로 옆 모니터에 전달한다. 백남준 작품에 이미 등장했던 현대무용가 머스 커닝햄의 동작,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의 연주 퍼포먼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장면 등이 편집된 영상은 일련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전자고속도로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 작품은 전자통신기술이 가져온 역동적 소통 문화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백남준은 인터넷이란 개념이 생기기도 전인 1974년 이 작품을 구상해 록펠러재단에 ‘전자 초고속도로(Electronic Superhighway)’란 제목으로 제출했다가 지원을 거절당한 뒤 1994년에야 완성했다.<br/><br/><br/>일상에서 흔히 보는 오브제와 소형 모니터를 결합시킨 비디오 조각 작품으로는 ‘샬롯’이 눈에 띈다.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과 삶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를 담아 로봇 작품으로 제작했는데 샬롯 무어만은 특히 의미가 크다. 작가는 1964년 뉴욕으로 이주한 뒤 만난 아방가르드 첼리스트 무어만과 함께 ‘오페라 섹스트로닉’(1967)을 비롯해 많은 오디오, 비디오, 퍼포먼스 작품을 했다. 부인 구보다 시게코의 질투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는 못했다. 무어만이 죽은 지 3년 뒤인 1995년 만든 ‘샬롯’은 인간의 형상을 한 첼로를 중심으로 무어만의 퍼포먼스 장면이 재생되는 11개의 모니터를 배치했다. 1991년 무어만의 마지막 퍼포먼스를 염두에 둔 이 작품에서 전면에 걸쳐진 색색의 전선은 암 투병의 고통 속에서 모르핀을 투여한 채 공연하는 그녀의 모습이 흡사 굿판의 무당 같았다는 회고를 담고 있다. 21일부터 3월15일까지. (02)720-1524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6.txt

제목: 매일 운동해도 하루 8~9시간씩 앉아있으면 빨리 죽는다  
날짜: 2015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2010016018029  
본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도 하루 8~9시간 이상씩 앉아 있으면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토론토재활연구소(Toronto Rehabilitation Institute)가 19일(현지시간) 미국내과의학저널인 ‘애널오브인터널메디신(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캐나다 공영방송 CBC 뉴스는 “<span class='quot0'>토론토재활연구소가 41개국을 상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랜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심장병과 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span>”고 밝혔다. <br/><br/>연구소 측은 하루 중 서있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긴 생활습관이 죽음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br/><br/><br/>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심장질환과 암 등에 걸릴 확률이 15~2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90%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구소 측은 “매일 하루 한시간 이상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소용없다”고 밝혔다. 특히 하루 8~9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 ‘건강 적신호’는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측은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또하나의 흡연과 같다”고 표현했다. <br/><br/>장시간 앉아있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물리적 운동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건강은 나빠지고 온갖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br/><br/>연구책임자인 알터 박사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조언했다.<br/><br/> 알터 박사는 “<span class='quot1'>30분에 한번씩 1~3분쯤이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1'>서서 있으면 앉아 있을때보다 칼로리가 두배 정도 더 소모된다</span>”고 밝혔다. 알터 박사는 “<span class='quot1'>매일 하루에 15~20분씩이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br/>미국 CBS뉴스는 연구결과와 함께 ‘서서 일하는 회사’를 소개했다. 버지니아주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직원의 70%가 서서 일하는 작업대를 이용하고 있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7.txt

제목: 과학자들은 왜 ‘쌍둥이 연구’에 매력 느낄까?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9100000098  
본문: ▲ 특정 질병이 유전자 영향인지 환경 때문인지 연구 가능해져<br/>쌍둥이를 우주에 보내 실험도<br/>‘생활습관이 유전자 변화시킨다’ 쌍둥이 연구 통해 사실로 확인<br/><br/>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의 인기가 높다. 방송인 이휘재씨의 쌍둥이 아들 ‘서언’ ‘서준’뿐 아니라 가수 SES의 멤버 슈의 쌍둥이 ‘라율’ ‘라희’도 인기 상한가다. 요즘 방송계는 쌍둥이들의 전성시대다. <br/><br/>최근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다태아(쌍둥이)가 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30일 “<span class='quot0'>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만에 3배로 늘었다</span>”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43만6455명 가운데 다태아는 1만4372명으로 3.3%를 차지했다. 20년 전인 1993년 출생아 71만5826명 가운데 다태아가 8108명으로 1.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br/><br/>쌍둥이는 과학자들, 특히 유전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는 게놈(유전자 총합)이 같기 때문에 유전성 질병이나 질병과 유전자, 환경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br/><br/><br/>■ 게놈 똑같아 유전자 연구에 장점<br/><br/>과학자들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이유는 쌍둥이 유전자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된 뒤 수정란이 반으로 나뉘어 생긴다. 일란성 쌍둥이는 게놈이 똑같다. 이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게놈을 비교하면 특정 질병이 유전자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연구해 알 수 있다. 난자가 2개 이상 배란돼 각각 정자와 수정되면 이란성 쌍둥이가 생긴다.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지 않다. 다만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경우 이들의 유전자 차이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험할 때보다 실험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br/><br/>이런 특성을 이용해 오는 3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무중력 우주여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에 돌입한다. NASA는 지난 4일 “<span class='quot1'>우주비행사이자 쌍둥이 형제인 스콧 켈리와 마크 켈리가 무중력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에 참가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무중력은 지구 주위를 도는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내부 등에서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과 지구로부터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평형을 이뤄 상쇄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이 무중력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근육 및 관절이 약화된다. 얼굴이 붓고 피부 노화 속도도 빨라진다.<br/><br/>쌍둥이의 형인 스콧은 상공 350㎞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1년간 머물면서 신체적 변화를 측정한다. ISS 내부는 무중력 상태다. 그동안 쌍둥이 동생 마크는 지상에서 지내게 된다. NASA 측은 지상과 우주에서 각각 채취한 그들의 소변과 대변 샘플 및 각종 신체 측정 자료를 이용해 골밀도, 세포 노화, 심혈관 변화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주비행사가 1년간 ISS에 머무는 것은 1994년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14개월 머문 이후 가장 긴 것이다. <br/><br/><br/>■ 쌍둥이 연구가 밝혀낸 사실들<br/><br/>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유전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br/><br/>지난해 11월 세계 유명 학술지 셀(Cell)에는 유전자가 사람의 장 내 미생물 조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이제까지 대부분 연구결과들은 개인 식생활 등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장 내 미생물은 비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연구팀은 영국의 트윈스유케이(TwinsUK) 연구팀과 손잡고 245쌍의 일란성 쌍둥이, 245쌍의 이란성 쌍둥이, 20명의 비쌍둥이로부터 대변 샘플을 수집했다. 이후 이들의 장 내 미생물 분포를 조사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br/><br/>최근 들어 쌍둥이 연구를 통해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는 게놈이 똑같지만 수명이나 질병, 키, 몸무게 등은 다르다. 일란성 쌍둥이 한쪽은 암에 걸려도 다른 한쪽은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생활환경과 생활습관 등에 따라 유전자 활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br/><br/>영국 킹스칼리지 쌍둥이연구소 소장인 팀 스펙터 교수는 DNA에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붙으면 DNA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를 들어 암을 유발하는 ‘p53’이라는 유전자를 몸속에 지니고 있어도 이 유전자에 메틸화 반응이 일어나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메틸화는 생활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한다. <br/><br/>스펙터 교수팀은 지난해 2월 일란성 쌍둥이도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세계 유명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다. <br/><br/>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 25쌍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라도 고통을 느끼는 기준과 강도가 제각기 달랐다. 실험 참가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특정 참가자들은 ‘TRPA1’이라는 유전자에 화학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즉 화학반응을 통해 유전자 활성도에 차이가 생겨 쌍둥이라도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졌다는 말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8.txt

제목: 왜 새삼스레, 백남준이 뜰까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91001601371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한국인 최초의 세계적 거장에 미·영 유명 미술관서 부쩍 관심</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국내 화랑도 발맞춰 잇단 전시</strong><!-- SUB\_TITLE\_END--><br/><br/>백남준이 뜬다?<br/><br/>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1932~2006)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든 작가다. 서울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고등학교, 도쿄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독일에서 미술, 음악사를 공부한 뒤 뉴욕에서 주로 활동했던 코스모폴리탄인 그는 1963년 독일 부퍼탈과 뉴욕에서 전시회를 가지면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일상적 매체인 텔레비전을 예술 오브제로 채택한 그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날로 발전하는 전자기술과 융합해 다채로운 작품으로 탄생했다. 그는 전 인류가 기술을 통해 상호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공동체로 향한다는 유토피아적 발상을 펼쳤으며, 동시에 작품에 선불교에 기반을 둔 동양철학의 숨결을 불어넣음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성을 획득했다.<br/><br/>이런 백남준이 새삼스레 ‘뜬다’는 말은 세계 미술시장이 그의 작품에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가고시안갤러리가 지난해 백남준 유족과 전속작가 계약을 맺고 작품 거래를 중개하기 시작했으며,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한꺼번에 작품 9점을 구매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백남준전을 열고 있다. 앞서 스미스소니언 미술관(2013년)과 뉴욕 록펠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2014년)에서도 회고전이 열렸다.<br/><br/><br/>국내 화랑 가운데는 학고재갤러리가 이런 흐름에 맞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고재는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 항저우 삼상현대미술관에서의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전과 학고재상하이갤러리에서의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전을 개최한 데 이어, 두 전시의 출품작 12점을 추려 다시 서울 삼청로 학고재갤러리에서 ‘W3’전을 마련했다. 표제작인 ‘W3’와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갤러리에서 열린 첫 전시 출품작인 5피스의 싱글채널비디오를 제외하고는 소품들이다.<br/><br/>‘W3’는 www, 즉 월드와이드웹을 말한다. 암실에 64대의 모니터를 2개의 X자 모양으로 교차 설치한 이 작품은 전체 재생시간 20분짜리 영상을 1초 간격으로 옆 모니터에 전달한다. 백남준 작품에 이미 등장했던 현대무용가 머스 커닝햄의 동작,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의 연주 퍼포먼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장면 등이 편집된 영상은 일련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전자고속도로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 작품은 전자통신기술이 가져온 역동적 소통 문화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백남준은 인터넷이란 개념이 생기기도 전인 1974년 이 작품을 구상해 록펠러재단에 ‘전자 초고속도로(Electronic Superhighway)’란 제목으로 제출했다가 지원을 거절당한 뒤 1994년에야 완성했다.<br/><br/><br/>일상에서 흔히 보는 오브제와 소형 모니터를 결합시킨 비디오 조각 작품으로는 ‘샬롯’이 눈에 띈다.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과 삶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를 담아 로봇 작품으로 제작했는데 샬롯 무어만은 특히 의미가 크다. 작가는 1964년 뉴욕으로 이주한 뒤 만난 아방가르드 첼리스트 무어만과 함께 ‘오페라 섹스트로닉’(1967)을 비롯해 많은 오디오, 비디오, 퍼포먼스 작품을 했다. 부인 구보다 시게코의 질투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는 못했다. 무어만이 죽은 지 3년 뒤인 1995년 만든 ‘샬롯’은 인간의 형상을 한 첼로를 중심으로 무어만의 퍼포먼스 장면이 재생되는 11개의 모니터를 배치했다. 1991년 무어만의 마지막 퍼포먼스를 염두에 둔 이 작품에서 전면에 걸쳐진 색색의 전선은 암 투병의 고통 속에서 모르핀을 투여한 채 공연하는 그녀의 모습이 흡사 굿판의 무당 같았다는 회고를 담고 있다. 21일부터 3월15일까지. (02)720-1524<br/><br/><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89.txt

제목: [이건의 소방이야기 19]소방청사는 안전·보건의 종합체다  
날짜: 2015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910016010630  
본문: 흔히들 “집 한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라고 말한다. 단지 예쁘기만 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만족스러운 집을 짓는다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집을 짓는 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그만큼 고통이 뒤따르는 법이다. 집을 짓는 시기, 예산과 규모 결정, 부지선정, 현장방문, 공적장부 검토 등 어려운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다.<br/><br/>이렇듯 일반주택도 한번 건축하기가 힘든 일인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울리는 소방서를 짓는 일은 당연히 그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br/><br/>최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경남 남해소방서, 경북 경산소방서, 태백소방서 화전119안전센터, 중앙119구조본부 대구청사 등이 신축되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소방학교 화재종합훈련장, 서울 성동소방서, 서울 은평구 소방행정타운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br/><br/>하지만, 소방서 설계기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소방관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기준은 찾아보기가 힘들다.<br/><br/>그나마 2014년 7월에 작성된 서울 성동소방서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기준 및 같은 해 10월에 나온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신속한 출동을 위한 공간배치와 출동동선을 강조한 내용이라든지, 소방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에 대한 대비책을 설계시 반영하라는 내용 정도가 전부다.<br/><br/>하지만, 이마저도 야간 당직자를 위한 당직실이 지상 3층에 위치해 있어서 야간에 30초 이내(주간 20초 이내)라는 차고지 탈출기준 시간에 맞추기 위해 뛰어내려오다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높다.<br/><br/>미국에서는 소방관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한 소방서 및 훈련센터의 설계기준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방화협회(NFPA) 기준 1402, 1403 그리고 1500이다.<br/><br/>한편, 미국의 <FIREHOUSE>라는 소방잡지사는 매년 소방서 청사를 심사해서 디자인상(Design Award)을 수여하고 있다. 벌써 14년째 해 오고 있는 일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소방서 청사 건축 경험이 있는 전·현직 소방서장 4명과 건축가 2명이 심사의원으로 위촉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단지 외형적으로만 근사한 건물에 높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소방대원들의 보건, 안전 그리고 복지를 위한 따스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한다.<br/><br/>2014년 미국에서 건축된 소방서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소방서 청사 내부 어디에서든지 빠르고 효과적인 출동 동선을 구축하기 위한 공간배치, 건축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소방대원들을 위한 다목적 훈련시설을 짓는다든지, 방화복 보관을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여성소방대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숙소 증설도 추세다.<br/><br/>여기에 소방대원의 암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차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설치, 유해가스로부터 소방대원을 지키기 위해 소방대원 숙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출동 후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화복 전용 세탁기 및 세탁공간 확보, 보안을 위해 소방서 청사 주변 감시카메라 설치, 친환경 소방서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 채광을 최대한 반영한 설계 등도 주목할 만하다.미국에서 소방서 청사를 신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요조사(Needs Assessment) 단계, 기획(Planning) 단계, 디자인(Design) 단계, 그리고 건축(Construction) 단계다. <br/><br/>수요조사 단계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지, 장비, 차량, 그리고 인원 등을 파악한 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출동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청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성장도를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br/><br/>기획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요소요소를 고려하고, 주변 이웃들의 상황 및 각종 제약사항 등을 파악해서 부지를 선정한다.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환경 및 교통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도로 증설계획이 있는지 또는 화재취약지구가 있는지를 연구한 뒤, 건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 편성 시에는 현장답사비용, 기존 건물 철거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컨설팅 비용 및 건물 표지판 등 세세한 분야까지 챙겨봐야 한다.<br/><br/>다음으로 디자인단계가 참 중요하다. 소방서 청사를 디자인할 때에는 안전, 다목적 훈련, 건물의 견고성, 향후 개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설계한다.<br/><br/>마지막으로는 건축단계다. 소방서에는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사무용 공간, 소방대원들을 위한 숙소 및 주방, 출동차량 차고, 기타 구급대원들을 위한 위생실(Medical Room)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잘 반영해서 견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개보수가 용이하게,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br/>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더 많은 소방서, 안전센터, 그리고 소방훈련시설 등을 짓게 될 것이다. <br/><br/>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방서를 지어야 한다. 또한 테러나 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소방서를 지어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소방서를 지어야 한다. <br/><br/>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건축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이전에 소방서의 주인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과 보건이 최대한 반영된 소방관을 위한 안전 및 보건설계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br/><br/>결론적으로, 소방서 청사는 소방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관이 보다 더 쾌적하게 근무하고, 안전하게 훈련하고, 건강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과 보건의 종합체>가 되어야 한다.<br/><br/><이 건 |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0.txt

제목: 여의열전(女醫列傳) '말말말' 파노라마, 신종 유행어로 등장  
날짜: 2015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810016002186  
본문: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교육·연구·진료의 3박자를 갖춘 여의학자 명의들을 소개한 <여의열전(女醫列傳)>. 이 책에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의학자로서 성공한 46인의 삶과 꿈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 내용 중 인생이나 의료의 핵심을 궤뚫고 있는 ‘촌철살인’ 어록들이 새로운 유행어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모아봤다.<br/><br/>→“여자가 바느질 더 잘하지 않느냐.” 선천선 기형 수술의 ‘달인’ 박귀원 교수가 주니어 때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들은 말. 여의사들이 진료의 섬세함과 꼼꼼함뿐 아니라 수술 스킬(술기)에서도 원초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얘기하는 인용구가 되었다.<br/><br/><br/><br/>→“큰 꿈을 꾸기 보다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암 방사선치료 및 ‘협진의 여왕’ 서창옥 교수가 가슴에 늘 새기는 좌우명. 너무 큰 목표에 매몰돼 허우적거리지 말고 ‘매사에 열심히 하라’는, 주변에 대한 충고나 자신의 다짐에 적절한 비유가 되고 있다.<br/><br/>→“왜 질환을 놓쳤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심장초음파의 ‘고감도 센서’ 심완주 교수가 전공의 교육에서 재삼 강조하는 대목. 100% 안전한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문제의 원인을 꼭 재점점하라는 뜻이다.<br/><br/><br/><br/><br/><br/>→“소아과는 환자 100명이면 100번 웃을 수 있어 행복해요.” 소아알레르기 분야 ‘선구자’ 편복양 교수의 행복론. 소아과 진료의 밝은 면을 잘 보여준다. 전공의 과정이 힘들고 전망도 어두워 지원을 기피하는 다른 과에서도 이 대목을 인용해 적극적인 인재영입 홍보를 하고 있다고.<br/><br/>→“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항암제 임상연구의 권위자, ‘살인미소’ 라선영 교수가 밝힌 암 정복의 요체.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不殆)는 병법서 <손자(孫子)>의 ‘모공편(謀攻篇)’에 나오는 필승 전략으로, 암의 실체를 아는 과정인 의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하는 고사성어로 떠올랐다.<br/><br/><br/><br/><br/><br/>→“과장님 방 앞에서 가마니 깔고 누우려 했다.” 족부·족관절 분야의 ‘여걸’ 배서영 교수가 전공의(레지던트) 지원할 때 정형외과에서 안 받아주면 돌입하려고 했던 행동계획 중 하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싶은 경우 떠올려지는 말이라고 한다.<br/><br/>→“한 곳을 함께 바라보고 같이 발전하자.” 이른둥이 치료의 ‘대모’ 장윤실 교수의 진료 좌우명. 팀워크 및 협진의 중요성과 성과를 얘기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만한 어록으로 꼽힌다.<br/><br/><br/><br/><br/><br/>◇여의열전(女醫列傳), 여의학자 46인의 성공인생 이야기(경향신문 발간, 336쪽·1만 8000원)◇<br/><br/>필자(저자)는 박효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건강과학팀장·부장, 건강의료 전문기자다. 그는 ‘여의열전’ 기획시리즈로 한국과학기자협회 2014년도 ‘GSK의학기자상’을 수상했다. 네이버 캐스트에 건강의 날(‘건강 날날날’)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1.txt

제목: 과학자들은 왜 ‘쌍둥이 연구’에 매력 느낄까?  
날짜: 2015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81001600547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게놈 똑같은 일란성 인간 질병 연구 열쇠</strong><!-- SUB\_TITLE\_END--><br/><br/><b>▲ 특정 질병이 유전자 영향인지 환경 때문인지 연구 가능해져<br/>쌍둥이를 우주에 보내 실험도<br/>‘생활습관이 유전자 변화시킨다’ 쌍둥이 연구 통해 사실로 확인</b><br/><br/>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의 인기가 높다. 방송인 이휘재씨의 쌍둥이 아들 ‘서언’ ‘서준’뿐 아니라 가수 SES의 멤버 슈의 쌍둥이 ‘라율’ ‘라희’도 인기 상한가다. 요즘 방송계는 쌍둥이들의 전성시대다. <br/><br/>최근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다태아(쌍둥이)가 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30일 “<span class='quot0'>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만에 3배로 늘었다</span>”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43만6455명 가운데 다태아는 1만4372명으로 3.3%를 차지했다. 20년 전인 1993년 출생아 71만5826명 가운데 다태아가 8108명으로 1.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br/><br/>쌍둥이는 과학자들, 특히 유전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는 게놈(유전자 총합)이 같기 때문에 유전성 질병이나 질병과 유전자, 환경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br/><br/><br/><b>■ 게놈 똑같아 유전자 연구에 장점</b><br/><br/>과학자들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이유는 쌍둥이 유전자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된 뒤 수정란이 반으로 나뉘어 생긴다. 일란성 쌍둥이는 게놈이 똑같다. 이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게놈을 비교하면 특정 질병이 유전자의 영향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연구해 알 수 있다. 난자가 2개 이상 배란돼 각각 정자와 수정되면 이란성 쌍둥이가 생긴다.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지 않다. 다만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경우 이들의 유전자 차이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험할 때보다 실험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br/><br/>이런 특성을 이용해 오는 3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무중력 우주여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에 돌입한다. NASA는 지난 4일 “<span class='quot1'>우주비행사이자 쌍둥이 형제인 스콧 켈리와 마크 켈리가 무중력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에 참가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무중력은 지구 주위를 도는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내부 등에서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과 지구로부터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평형을 이뤄 상쇄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이 무중력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근육 및 관절이 약화된다. 얼굴이 붓고 피부 노화 속도도 빨라진다.<br/><br/>쌍둥이의 형인 스콧은 상공 350㎞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1년간 머물면서 신체적 변화를 측정한다. ISS 내부는 무중력 상태다. 그동안 쌍둥이 동생 마크는 지상에서 지내게 된다. NASA 측은 지상과 우주에서 각각 채취한 그들의 소변과 대변 샘플 및 각종 신체 측정 자료를 이용해 골밀도, 세포 노화, 심혈관 변화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주비행사가 1년간 ISS에 머무는 것은 1994년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14개월 머문 이후 가장 긴 것이다. <br/><br/><br/><b>■ 쌍둥이 연구가 밝혀낸 사실들</b><br/><br/>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유전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br/><br/>지난해 11월 세계 유명 학술지 셀(Cell)에는 유전자가 사람의 장 내 미생물 조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이제까지 대부분 연구결과들은 개인 식생활 등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장 내 미생물은 비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연구팀은 영국의 트윈스유케이(TwinsUK) 연구팀과 손잡고 245쌍의 일란성 쌍둥이, 245쌍의 이란성 쌍둥이, 20명의 비쌍둥이로부터 대변 샘플을 수집했다. 이후 이들의 장 내 미생물 분포를 조사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br/><br/>최근 들어 쌍둥이 연구를 통해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는 게놈이 똑같지만 수명이나 질병, 키, 몸무게 등은 다르다. 일란성 쌍둥이 한쪽은 암에 걸려도 다른 한쪽은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생활환경과 생활습관 등에 따라 유전자 활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br/><br/>영국 킹스칼리지 쌍둥이연구소 소장인 팀 스펙터 교수는 DNA에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붙으면 DNA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를 들어 암을 유발하는 ‘p53’이라는 유전자를 몸속에 지니고 있어도 이 유전자에 메틸화 반응이 일어나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메틸화는 생활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한다. <br/><br/>스펙터 교수팀은 지난해 2월 일란성 쌍둥이도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세계 유명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다. <br/><br/>연구팀은 일란성 쌍둥이 25쌍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라도 고통을 느끼는 기준과 강도가 제각기 달랐다. 실험 참가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특정 참가자들은 ‘TRPA1’이라는 유전자에 화학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즉 화학반응을 통해 유전자 활성도에 차이가 생겨 쌍둥이라도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졌다는 말이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2.txt

제목: 2015년엔 달나라 관광? 20년 전 미래학자가 꼽은 올해 일어날 일  
날짜: 2015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710016001203  
본문: “<span class='quot0'>제대로 맞춘 것 하나도 없군.</span>” “진짜 막 쓴 듯.”<br/><br/>2015년 초,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과거 기사들에 대한 반응이다. <br/><br/>‘어머니는 왜 그리 고생만 하셨을까.’ 첫 번째로 거론된 기사의 제목이다. 실린 신문은 매거진X. 경향신문 섹션지였다. 기사의 부제는 ‘미래의 주부, 2015년의 가정생활’이다. 전통음식점을 경영하는 나이 38세 한소라씨의 2015년 어느날 하루를 가상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옆에 실린 그래픽 자료 속, 사이버틱한 의상을 입은 여인이 한소라씨일까. 그건 모르겠다. 기사가 실린 날짜는 1995년 7월 31일. 그러니까 2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 기사다. 누리꾼들이 “막 썼다”고 평가한 까닭은 같이 제시되어 있는 2015년을 예측한 다른 기사들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1면에서 계속된 매거진X 본지기사의 제목은 이렇다. ‘2015년에는 달나라 관광 가능.’ 보다시피 아폴로 계획 이후 인간의 달 탐사는 아직 실현된 적이 없다. <br/><br/><br/><br/>이어 붙어 있는 한겨레신문 1992년 12월 17일자 기사의 제목은 ‘2015년 암 완전정복’이다. 암과 관련한 최신 의학정보를 탐사해 쓴 다치바나 다케시의 책 <암, 생과 사의 수수께끼에 도전하다>에 따르면 인류가 ‘암 정복’과 관련해 달성한 위치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기사 제목은 이것이다. ‘교통난·차 대기오염 2015년쯤 해소.’ 오늘 아침 출근 때도 기자는 막힌 길에서 버스가 움직이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br/><br/>그런데 뜯어보면 아무렇게나 막 쓴 기사는 아니다. 달나라 관광 예측은 기자가 한 것이 아니라 이언 피어슨이라는 미래학자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언 피어슨이 작성한 ‘미래시간표’에 따르면 인간게놈 프로젝트가 2005년께에는 완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실제 완성은 예상보다 5년이 이른 2000년에 이뤄졌다. 하지만 2015년엔 개개인의 의료카드에 게놈이 기록될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다. 화상휴대폰 등장(2000년), 인간과 기계의 대화 가능(2005년) 등의 예측도 대충 앞당겨 실현됐다. 기사 말미에는 이언 피어슨의 미래시간표를 볼 수 있는 URL주소가 첨부되어 있지만 현재는 열리지 않는다. <br/><br/>20년 전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유병선 경향신문 기자다. 지금은 회사를 퇴직한 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씨즈(seed:s)라는 비영리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당시 기사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밀레니엄을 앞두고 언론사별로 미래예측 기획이 막 시작되던 때</span>”라며 “<span class='quot1'>그 기사를 쓴 뒤 ‘밀레니엄 키워드’라는 꼭지명으로 1년 가까이 미래 삶 예측기사를 기획해 신문에 연재했던 것이 기억난다</span>”고 덧붙였다. <br/><br/>‘미래시간표’를 만들어 제시했던 이언 피어슨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검색해보니 지금도 ‘잘 나가는’ 미래학자다. 앞서 언급한 2015년 달나라 관광 등 숱한 ‘틀린 예측’이 있었지만 개인 홈페이지 등에 소개한 ‘업적’에선 그 예측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br/><br/><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3.txt

제목: 삼성전자 “혈액암·뇌종양·유방암 보상”  
날짜: 2015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7100000050  
본문: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장 근로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백혈병을 포함해 모든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자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br/><br/>삼성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백혈병 2차 조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br/><br/>삼성전자는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혈액암에는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이 포함된다. 또 기존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포함해 총 7개 질병을 보상 대상으로 분류했다.<br/><br/>보상 대상 발병자에 대해선 담당직무와 재직기간, 퇴직과 발병 시기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인과관계 고려없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어떤 일을 했는가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br/><br/>이날 조정에 참석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측은 보상 대상에 혈액암은 물론 신경계암과 생식계암 등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무 중 발병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며 퇴직 후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까지 포함해 해당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렸다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4.txt

제목: 삼성전자 “혈액암·뇌종양·유방암 보상”  
날짜: 2015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61001600006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자 대상</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반올림 “질병·기간 더 늘려야”</strong><!-- SUB\_TITLE\_END--><br/><br/>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장 근로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백혈병을 포함해 모든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자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br/><br/>삼성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백혈병 2차 조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br/><br/>삼성전자는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혈액암에는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이 포함된다. 또 기존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포함해 총 7개 질병을 보상 대상으로 분류했다.<br/><br/>보상 대상 발병자에 대해선 담당직무와 재직기간, 퇴직과 발병 시기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인과관계 고려없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어떤 일을 했는가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br/><br/>이날 조정에 참석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측은 보상 대상에 혈액암은 물론 신경계암과 생식계암 등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무 중 발병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며 퇴직 후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까지 포함해 해당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렸다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br/><br/><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5.txt

제목: 여성 의사 숫자 크게 증가, 병원계에 점점 세지는 여풍(女風) 당당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510015986879  
본문: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여풍(女風)이다.<br/><br/>최근 교육과 진료, 연구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여의사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보직에 진출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한다. 임상과장, 센터장, 진료·연구 부장, 국·실의 차장 등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br/><br/>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여성이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을 거의 독식하고 선거직 학장까지 거머쥐는 일도 적지 않다. 얼마전 지방의 국립대병원에도 여성 병원장이 처음으로 탄생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간호본부장이나 약제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 보직자가 수장을 맡고 있다. 여성 홍보팀장도 늘고 있다.<br/><br/><br/><br/>■경향신문 ‘여의열전(女醫列傳)’ 시리즈에서 확인<br/><br/>경향신문은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여간 한국 의료를 이끄는 여의학자들을 취재해 지면에 게재했다. 타이틀이 ‘여의열전(女醫列傳)’이다. 의학자의 3대 요소인 교육·연구·진료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여성 의학자들의 이야기는 한국 의료의 중심으로 여의사들이 떠오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br/><br/>관련 최신 통계를 한번 살펴보자. 의과대학의 여성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다. 서울대는 의학과(본과) 전체의 여학생 비율이 1993년 17%에서 2003년 33%, 그리고 2013년엔 38%로 집계됐다. 본과 1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 말 현재 절반이 여성이다.<br/><br/>연세대 의대의 경우 1994년 전체 여학생 비율 22%에서 2004년 44%로 늘어났으며, 2014년의 경우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합쳐 33%다.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48%나 되는데, 이는 학부 성적이 뛰어난 여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양대는 2004년 16%(의대)에서 2014년 44%(의대 37%, 의학전문대학원 58%)로 껑충 뛰었다. 가톨릭대 의대는 1994년 25%, 2004년 39%, 2014년 51%로 여학생 비율이 계속 높아졌다(2013년엔 70%나 됐다).<br/><br/><br/><br/><br/><br/>■의대·대학병원의 여학생·여교수 숫자 증가일로<br/><br/>의대나 대학병원에 여교수의 숫자도 증가일로에 있다. 서울대병원은 여교수 비율이 1993년 불과 2%에서 2003년 5%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14%에 달했다. 여교수 숫자가 60명에 육박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여교수 비율이 2009년 28%에서 2013년 39%로 늘어 82명이 여교수다.<br/><br/>미래의 재원인 전공의들은 어떤가.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인턴은 32%, 레지던트는 35%가 여성이다. 대형 병원들은 이미 2010년에 전공의(레지던트) 여의사 비율이 서울아산병원 54.6%, 삼성서울병원 50.1%, 서울대병원 47.6%, 세브란스병원 41.6%로 절반 내외를 차지했을 정도다.<br/><br/>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2013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총 3059명. 이 중 여자 의사가 33%를 차지한다. 2013년 상반기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중 여의사는 1만 9604명으로 22.4%를 차지했다.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남성이 주도하던 영역에 진출하는 여의사도 상당하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외과 전문의(교수·임상강사 포함)의 여성 비율이 23%(62명 중 14명), 전공의 여성 비율은 35%(31명 중 11명)로 3~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 임상강사(전임의)는 24명 중 10명(42%), 전공의는 46명 중 14명(30%)이 여성이다.<br/><br/><br/><br/><br/><br/>■글로벌 한국 의료의 새 지평, 여의사들이 활짝<br/><br/>이같은 지표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병원계에도 사회 전반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그들의 역할이 증가된다는 얘기다.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이제 한국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인공들은 여의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 의료기관들이 여성 의료인을 채용하고 보직자로 임명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부분으로 수용될 전망이다.<br/><br/>“여성의 따뜻하고 유연한 리더십은 소통이 중요한 이 시대에 더욱 돋보인다. 한국의 여의사들도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적 의학자라는 새 역할과 역량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이순남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br/><br/>“병원계의 변화에 섬세하게 대응하는 능력에서는 여성이 우위를 가진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득력, 공감력 등 여러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능력있는 의료인들을 성별에 상관없이 보직자에 임명하는 병원의 환경변화가 좀 더 강조돼야 할 부분이다.”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경영관리실장·비뇨기과 과장)<br/><br/>한국 의료계는 국외의 환경까지 감안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의료기관들도 이제는 글로벌 인재상을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글로벌 의사상’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은 급부상하는 여의사들을 빼놓고는 이뤄질 수 없는 대목이다.<br/><br/><br/><br/><br/><br/>■‘여의열전’ 빛나는 46인 여의학자들 소속·분야<br/><br/><1부 錦上添花(금상첨화) : 비단 위에 꽃 향기를 더하다><br/><br/>박귀원 서울대병원 소아외과 교수(선천성기형 수술, 2014년 3월부터 중앙대병원 소속), 서창옥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방사선 암치료), 심완주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심장초음파 진단), 김미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자궁근종 수술), 이은숙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장(유방암 수술), 편복양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알레르기질환), 문혜성 이화여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부인암 수술), 원혜성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고위험 태아치료·태아내시경), 김윤덕 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안성형·성형안과), 양형인 강동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류머티즘·자가면역 질환).<br/><br/><2부 囊中之錐(낭중지추) : 능력과 재주가 두드러지다><br/><br/>라선영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항암 약물치료), 문남주 중앙대병원 안과 교수(시각 재활), 박영은 부산대병원 신경과 교수(희소난치성 근육병), 한진영 동아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진단혈액학·진단세포유전학), 박해심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천식·알레르기·면역학),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안과 교수(사시·소아안과·신경안과), 김영훈 인제대 부산백병원 신장내과 교수(콩팥병·신장이식),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소화기내시경), 박수은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 감염질환).<br/><br/><3부 愚公移山(우공이산) : 끊임없이 노력해 이뤄내다><br/><br/>김교순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신장), 이남준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간이식), 전은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이석증·어지럼증), 정희진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인플루엔자·백신), 유승영 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망막질환·황반질환), 배서영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교수(족부·족관절), 신동원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소아청소년 정신의학·ADHD), 홍순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갑상선암 병리진단), 박미연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과장(여드름·색소질환).<br/><br/><4부 漸入佳境(점입가경) : 점점 좋은 경지로 들어가다><br/><br/>김문영 가톨릭관동대 의대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고위험·쌍태아임신 및 분만·태아초음파진단), 박정화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간경변·줄기세포치료), 윤하나 이화여대 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요실금·배뇨장애·성의학), 박시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이명·난청), 김현아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 김미정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봇재활·줄기세포치료), 김은영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운동이상질환), 김명아 서울시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심장 중재시술), 유시현 순천향대 천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통증치료).<br/><br/><5부 靑出於藍(청출어람) : 앞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다><br/><br/>최은경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유전체분석 맞춤암치료), 황미수 영남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유방영상학), 장윤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른둥이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안규리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신장이식·유전성 콩팥질환), 김용란 건양대 김안과병원 소아안과 교수(소아안과질환·병원경영), 홍기연 원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항노화 치료·갱년기 장애), 정태영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악성뇌종양·소아뇌종양), 최은희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생활습관 의학·스포츠 및 통증 재활), 임동미 건양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갑상선암·당뇨합병증).<br/><br/>◇여의열전(女醫列傳), 여의학자 46인의 성공인생 이야기(경향신문 발간, 336쪽·1만 8000원)◇<br/><br/>필자(저자)는 박효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건강과학팀장·부장, 건강의료 전문기자다. 그는 ‘여의열전’ 기획시리즈로 한국과학기자협회 2014년도 ‘GSK의학기자상’을 수상했다. 네이버 캐스트에 건강의 날(‘건강 날날날’)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6.txt

제목: 월 7백만원 리스료 내고 BMW 타면서 “세금 못 내”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51001599294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경기, 체납자 리스 사용 조사… 159명 리스 보증금 51억 압류</strong><!-- SUB\_TITLE\_END--><br/><br/>부천의 성형외과 의사 ㄱ씨는 아우디·BMW 승용차를 1500만원의 보증금과 월 7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면서도 3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며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ㄴ씨는 1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원의 리스료를 내며 제네시스와 i30 승용차를 운행했으나 역시 1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br/><br/>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614명을 대상으로 리스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1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고액체납자 상당수는 유명 성형외과와 의료법인, 회계세무법인 대표, 법조계 변호사로 이들의 체납액만 해도 17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br/><br/>이들 체납자들은 고급 외제차량인 페라리, 재규어, 벤츠 등은 물론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리스료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br/><br/>특히 다수 의료계 종사자들은 시가 3억~10억원가량의 로봇척추치료기기와 암치료기기인 온코써미아, 최첨단 MRI 기기와 같은 고가 장비를 매월 1000만~2700만원까지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중 159명의 리스보증금 51억5300만원(231대)을 압류조치했다.<br/><br/><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7.txt

제목: [한의사 강용혁의 멘털 동의보감]‘진짜’ 착한 양이 되자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510015996634  
본문: 양띠 해 목표로 ‘착하게 살자’는 어떨까. 선현들은 몸도 마음도 삶도, 착하게 살 것을 강조했다. 질병이나 우환은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온다는 관점이다. 단, ‘착하다’는 개념에 주의해야 한다. 양처럼 공격성 없이 순하거나, 물에 물탄 듯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내색 않고 잘 참는 것이 착한 것일까.<br/><br/>‘착할 선(善)’이란 요즘 말로는 ‘적절함’으로 풀이된다. 가뭄에 바짝 마른 농작물에 물을 주는 행위는 적절하고 착한 것이다. 반면, 장마철에 물을 더 준다면 이는 모질고 악한 행동이다. ‘물을 준다’는 행위 자체보다 상황의 적절함 여부로 선악이 갈린다.<br/><br/><br/>1년째 만성 두통과 관절통증 때문에 내원한 한 중년 부부를 보자. 진통제를 달고 살고 살갗이 아린 통증까지 반복되지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원인은 시아버지 스트레스였다.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전문직인데, 며느릿감은 전문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결혼을 강력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날짜도 잡았지만, 시아버지는 불쑥 사돈댁에 전화로 결혼 취소를 통보해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br/><br/>결혼 후에도 시아버지의 무례는 반복됐다. 무리한 돈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효심이 부족하다’며 호통을 쳤다. 며느리한테 불쑥 섭섭하다며 폭언을 하고 집밖으로 내쫓기까지 했다. 남편 역시 그런 아버지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래도 아버지인데…. 다 내가 못나고 부족한 탓’이라며 아버지에게 매번 승복하고 만다.<br/><br/>그런 남편 역시 “아버지한테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평생 맞춰 산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네가 좀 참아라’라며 되레 역정을 내 부부싸움만 잦아졌다. 결국 아내는 “‘남편 성정이 너무 착해서 그렇다. 저렇게 착한 남편을 만난 것도 내 복’이라 여기고 마음을 다스렸다”고 말한다.<br/><br/>과연, 이들이 착한 것일까. 아니면 모진 것일까. 착한 것이라면 화병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내 남편이 착해서’라고 합리화해봐도, 무의식에서는 분노가 솟구치고 그를 다스릴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br/><br/>이렇게 양처럼 순한 이들이 오히려 암처럼 큰 병을 얻는 것도 비슷한 원리다. 담배 피지 않는데 폐암과 대장암이 오는 식이다. 착한 게 착한 게 아니라 모질고 악한 것이었으며,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노예로 산 셈이다. 그저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착각이다. 물을 줘야 할지 오히려 고인 물을 빼내야 할지 구분하지 못한 채 모질게 산 셈이다.<br/><br/>이 부부에게 필요한 처방은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지만, 당장 살아날 궁리만 하면 결국 죽게 된다. 여차하면 시아버지와도 연을 끊을 각오로 지나친 무례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죽을 각오다. 그렇지 않고 도망만 다니니 결국 부부가 아파 죽게 된 것이다.<br/><br/>나에게 한없이 모진 상대에게 순한 양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결코 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질고 악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큰소리도 치고 당당히 싸우기도 하는 것이 진짜 착한 것이다. 올해는 모두가 착하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br/><br/><center><!--outlink\_start\_1--> <a href=http://m.podbbang.com/ch/6994 target=new> <font color=#3399FF size=4> <b>☞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 팟캐스트 듣기</b></font> </a> <!--outlink\_end\_1--></center><br/><br/><강용혁 | 분당 마음자리한의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8.txt

제목: [한의사 강용혁의 멘털 동의보감]‘진짜’ 착한 양이 되자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510015992848  
본문: 양띠 해 목표로 ‘착하게 살자’는 어떨까. 선현들은 몸도 마음도 삶도, 착하게 살 것을 강조했다. 질병이나 우환은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온다는 관점이다. 단, ‘착하다’는 개념에 주의해야 한다. 양처럼 공격성 없이 순하거나, 물에 물탄 듯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내색 않고 잘 참는 것이 착한 것일까.<br/><br/>‘착할 선(善)’이란 요즘 말로는 ‘적절함’으로 풀이된다. 가뭄에 바짝 마른 농작물에 물을 주는 행위는 적절하고 착한 것이다. 반면, 장마철에 물을 더 준다면 이는 모질고 악한 행동이다. ‘물을 준다’는 행위 자체보다 상황의 적절함 여부로 선악이 갈린다.<br/><br/><br/>1년째 만성 두통과 관절통증 때문에 내원한 한 중년 부부를 보자. 진통제를 달고 살고 살갗이 아린 통증까지 반복되지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원인은 시아버지 스트레스였다.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전문직인데, 며느릿감은 전문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결혼을 강력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날짜도 잡았지만, 시아버지는 불쑥 사돈댁에 전화로 결혼 취소를 통보해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br/><br/>결혼 후에도 시아버지의 무례는 반복됐다. 무리한 돈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효심이 부족하다’며 호통을 쳤다. 며느리한테 불쑥 섭섭하다며 폭언을 하고 집밖으로 내쫓기까지 했다. 남편 역시 그런 아버지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래도 아버지인데…. 다 내가 못나고 부족한 탓’이라며 아버지에게 매번 승복하고 만다.<br/><br/>그런 남편 역시 “아버지한테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평생 맞춰 산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네가 좀 참아라’라며 되레 역정을 내 부부싸움만 잦아졌다. 결국 아내는 “‘남편 성정이 너무 착해서 그렇다. 저렇게 착한 남편을 만난 것도 내 복’이라 여기고 마음을 다스렸다”고 말한다.<br/><br/>과연, 이들이 착한 것일까. 아니면 모진 것일까. 착한 것이라면 화병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내 남편이 착해서’라고 합리화해봐도, 무의식에서는 분노가 솟구치고 그를 다스릴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br/><br/>이렇게 양처럼 순한 이들이 오히려 암처럼 큰 병을 얻는 것도 비슷한 원리다. 담배 피지 않는데 폐암과 대장암이 오는 식이다. 착한 게 착한 게 아니라 모질고 악한 것이었으며,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노예로 산 셈이다. 그저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착각이다. 물을 줘야 할지 오히려 고인 물을 빼내야 할지 구분하지 못한 채 모질게 산 셈이다.<br/><br/>이 부부에게 필요한 처방은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지만, 당장 살아날 궁리만 하면 결국 죽게 된다. 여차하면 시아버지와도 연을 끊을 각오로 지나친 무례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죽을 각오다. 그렇지 않고 도망만 다니니 결국 부부가 아파 죽게 된 것이다.<br/><br/>나에게 한없이 모진 상대에게 순한 양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결코 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질고 악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큰소리도 치고 당당히 싸우기도 하는 것이 진짜 착한 것이다. 올해는 모두가 착하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br/><br/><center><!--outlink\_start\_1--> <a href=http://m.podbbang.com/ch/6994 target=new> <font color=#3399FF size=4> <b>☞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 팟캐스트 듣기</b></font> </a> <!--outlink\_end\_1--></center><br/><br/><강용혁 | 분당 마음자리한의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099.txt

제목: 2050년이면 80세 미만 암 사망자 사라진다?  
날짜: 2015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410015983018  
본문: 최근 암 예방과 치료분야에서 나온 진전이 빠른 속도로 이행되면 영국에서 오는 2050년까지 80세 미만 암 사망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br/><br/>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과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현재 암을 예방하거나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인디펜던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연구팀은 낮아지는 흡연율과 점차 더 빨라지는 진단, 방사선 및 약물치료, 외과수술의 발전으로 1990년 이후 암 사망 비율이 매년 1% 하락했으며, 이 추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br/><br/><br/><br/>이 결과 영국은 2050년까지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암으로 죽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br/><br/>공중보건정책 전문가 데이비드 테일러 UCL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올해는 통상보다 많은 약 32만5000명의 영국인이 치명적인 암 발병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통상적인 암으로 인한 사망비율은 20년 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br/><br/>테일러 명예교수는 또한 20세기 상반기는 전염병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20세기 후반에는 혈관질환 사망 비율이 감소했다면서 다음의 큰 변화는 암 관련 사망의 감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번 보고서에 대해 영국 암 연구소 정책담당 책임자 엠마 그린우드는 오는 2030년까지 암 환자 4분의 3을 발병 후 10년 동안 생존토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진단 방법을 더 발전시키고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 요소”라고 덧붙였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0.txt

제목: 아욱은 식물성 비아그라다? 중국인을 현혹시킨 유언비어로 선정  
날짜: 2015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410015982002  
본문: 흰색 달걀이 영양가가 더 많다? 돼지 피를 마시면 폐를 보호할 수 있다? 아욱은 식물 비아그라다?<br/><br/>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 중에서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짓상식’ 10가지를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베이징시인터넷정보판공실, 서우두인터넷망협회가 대표적인 중국어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바이두와 함께 2014년 동안 누리꾼들의 검색 횟수 등을 근거로 집계한 것이다.<br/><br/>1위는 ‘흰색 달걀은 영양소가 더 많다’로 지난해 1096만번이 검색됐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달걀 내부 영양소가 모두 형성된 뒤에 껍질 색깔이 결정된다. 껍질 색과 영양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적었다.<br/><br/>두 번째로 많이 검색된 것은 ‘목이버섯과 돼지 피가 폐를 정화한다(829만번)’였고 세 번째는 ‘수돗물 염소가 암을 유발한다(650만 번)’였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목이버섯과 돼지 피는 위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폐를 정화할 수 없다” “염소는 물을 살균하는 가장 일반적인 성분이다. 국제암연구센터도 발암 성분을 분류할 때 염소를 카페인과 동급으로 놓는다”고 밝혔다.<br/><br/>네 번째로 많이 검색된 것은 ‘아욱은 당뇨 치료에 좋은 식물성 비아그라다’였다. 그 다음은 ‘독 콩나물은 성조숙증, 암, 성기 기형 등을 유발한다’였다. ‘산소가 풍부한 물은 농축산소를 직접 먹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룩한 물이다’ ‘과일에 있는 효소는 독소제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얼굴을 보호한다’가 각각 뒤를 이었다.<br/><br/>인터넷정보판공실은 “물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며 산소는 호흡을 통해 공급받는다. 인체는 소화기관을 통해 산소를 흡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일 효소에 대해서는 “과일 효소는 양배추 등 다른 식물에 있는 효소와 별반 다른 게 없다”고 했다.<br/><br/>여덟 번째는 ‘구운 고기를 먹은 뒤 먹는 배, 특히 삶을 배는 암을 예방한다’였고 아홉 번째는 ‘물수건에는 독이 있다’였다. 마지막은 ‘통화할 때 휴대폰에서 나오는 열은 화상을 일으킨다’였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배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통화할 때 휴대폰에서 나오는 열은 섭씨 50도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br/><br/>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랫동안 과학적인 근거 없이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10개를 꼽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런 소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인터넷은 더욱 깨끗한 공간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1.txt

제목: [문화비평]우리 사회의 복원지점은 어디인가  
날짜: 2015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310015975710  
본문: SBS 월화드라마 <펀치>는 3년 전 <추적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박경수 작가의 최신작이다. <추적자>는 2012년 대선 정국에 등장해 부패한 대선 후보와 맞서는 소시민의 이야기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냈다. 다음 해에 발표한 <황금의 제국>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탐욕에 눈먼 자들이 재벌기업의 총수 자리를 차지하려 이전투구를 벌이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검찰 세계를 정조준 한 <펀치>에 이르러 박경수 작가는 정치, 자본, 법이라는 한국 사회 주요 지배 권력의 속성을 해부하는 이른바 ‘권력 삼부작’을 완성하고 있다.<br/><br/>세 작품이 일종의 연작 성격을 띤다는 것은 <펀치> 주인공 박정환(김래원)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황금의 제국> 주인공 장태주(고수)의 결말에서부터 이어지는 느낌을 준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황금의 제국>에서 장태주는 정환과 같은 법대생이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꿈이 좌절되자 인생역전을 꿈꾸며 부동산 개발업자로 진로의 방향을 뒤튼 인물이다. 그 길 안에서 맛본 돈의 달콤한 유혹은 그를 제어장치 없는 폭주기관차에 태워 끝내 자살이라는 파국으로 이끌었다.<br/><br/><펀치>의 전개는 장태주처럼 성공의 정점을 향해 초고속 질주하던 박정환이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는 데서부터 본격화된다. 욕망을 멈출 수 없었던 정환은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수술대 위에 눕고 수술 실패로 코마 상태에 빠진다. 그가 성공을 위해 저질러왔던 수많은 비리를 알고 있는 동료 검사이자 전처 신하경(김아중)은 만약 정환이 깨어난다면 다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 말이 신호라도 되듯 다시 일어난 정환의 삶은 말하자면 장태주가 죽음에서 돌아와 얻은 또 한 번의 기회와도 같다. <펀치>의 상징적 키워드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복원지점</span></span>”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정환의 뇌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뇌손상으로 인한 섬망증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복원지점</span></span>”이 있는데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환각이 펼쳐진다고. 그 말대로 정환을 찾아온 섬망증은 그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를 드러낸다. 성공을 꿈꾸며 비리 검사 이태준(조재현)의 손을 굳게 잡았던 날이었다. 그로 인해 출세를 보장받았지만 사랑하는 아내, 딸과는 멀어지고 권력욕으로만 가득 차게 된 그때를 정환은 돌이키고 싶은 것이다. 박경수 작가는 늘 인물들의 삶의 항로를 뒤바꾼 윤리적 선택의 순간에 대해 그려왔다. 이득을 얻는 비윤리적 삶과 아무 이득 없는 윤리적 삶 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질문을 던져왔다. 가령 <추적자> 마지막 회에서 부패한 정치인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가 놀라운 승리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또는 <황금의 제국>의 인물들이 탐욕의 괴물이 되고 마는 것처럼. 한 사회의 구조라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br/><br/>박경수 작가가 끈질기게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복원지점</span></span>”에 대해 말하는 것은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우리의 선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다. 너도 나도 “자본의 포커판”에 동참했던 <황금의 제국> 시절에는 수많은 이들이 철거로 밀려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으며,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졌다. 그 비극에 눈감자 이번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실제 <펀치> 첫 회에서는 그 참사를 연상시키는 어린이집 버스 사고가 묘사된다. 전복으로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사고의 원인은 원가절감을 노리고 불량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회사에 있었다. 그 회사는 부도 직전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 도피로 노동자 수천 명의 해고와 열 명의 죽음을 불러온 곳이기도 하다. <펀치>는 박정환이 출세를 위해 세탁해준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출발하며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불러와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아예 복원력을 상실하기 전에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자고.<br/><br/><김선영 | 드라마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2.txt

제목: 직구 다이어트 식품서 사용 금지 약품 검출  
날짜: 2015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3100000124  
본문: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에서 뇌졸중과 장기능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해외에서 이미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br/><br/>한국소비자원은 대표적 해외직구 사이트인 아마존·이베이 등에서 판매량이 많은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구입해 시험 검사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7개 제품에서 식품위생법상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br/><br/>시부트라민은 애초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 ‘리덕틸’ 등 유명 비만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됐다. 이후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중지됐다. 섭취할 경우 식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br/><br/>센노사이드는 통상 설사약에 들어가던 성분으로 역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지만 과다 복용 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br/><br/>시부트라민이 포함된 제품은 ‘비 폴렌 캡슐스’(중국), ‘리다’(태국), ‘내츄럴 맥스 슬리밍’(홍콩), ‘시트 앤 슬림’(중국), ‘슬리맥스15’(인도) 등 5개 제품으로 적게는 4000ppm에서 많게는 8만ppm이 넘는 양이 검출됐다.<br/><br/>‘얀히 슬림 하스피탈 필’(태국)에선 1900ppm에 이르는 센노사이드가 검출됐고, ‘슬림 퍼펙트 암’(중국)에선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각각 1만4000ppm, 900ppm씩 검출됐다.<br/><br/>특히 문제 성분이 검출된 7개 제품 중 5개는 이미 지난해 미국·캐나다·독일·홍콩 등에서 리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국내에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소비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시부트라민의 경우 해외 리콜 제품들이 100ppm 내외가 검출됐던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이고 복용 시 그만큼 위험하다</span>”고 말했다.<br/><br/>소비자원은 수입·통관 시 해외 리콜 제품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span class='quot1'>해외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된 설명만 보고 제품을 구입하면 실제 효능이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약품 등 건강보조식품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3.txt

제목: 직구 다이어트 식품서 사용 금지 약품 검출  
날짜: 2015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21001596741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소비자원, 해외 사이트 인기 14개 제품 분석 ‘절반이 부적합’</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구입 않는 것이 가장 현명”</strong><!-- SUB\_TITLE\_END--><br/><br/>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에서 뇌졸중과 장기능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해외에서 이미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br/><br/>한국소비자원은 대표적 해외직구 사이트인 아마존·이베이 등에서 판매량이 많은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구입해 시험 검사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7개 제품에서 식품위생법상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br/><br/>시부트라민은 애초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 ‘리덕틸’ 등 유명 비만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됐다. 이후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중지됐다. 섭취할 경우 식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br/><br/>센노사이드는 통상 설사약에 들어가던 성분으로 역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지만 과다 복용 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br/><br/>시부트라민이 포함된 제품은 ‘비 폴렌 캡슐스’(중국), ‘리다’(태국), ‘내츄럴 맥스 슬리밍’(홍콩), ‘시트 앤 슬림’(중국), ‘슬리맥스15’(인도) 등 5개 제품으로 적게는 4000ppm에서 많게는 8만ppm이 넘는 양이 검출됐다.<br/><br/>‘얀히 슬림 하스피탈 필’(태국)에선 1900ppm에 이르는 센노사이드가 검출됐고, ‘슬림 퍼펙트 암’(중국)에선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각각 1만4000ppm, 900ppm씩 검출됐다.<br/><br/>특히 문제 성분이 검출된 7개 제품 중 5개는 이미 지난해 미국·캐나다·독일·홍콩 등에서 리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국내에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소비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시부트라민의 경우 해외 리콜 제품들이 100ppm 내외가 검출됐던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이고 복용 시 그만큼 위험하다</span>”고 말했다.<br/><br/>소비자원은 수입·통관 시 해외 리콜 제품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span class='quot1'>해외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된 설명만 보고 제품을 구입하면 실제 효능이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약품 등 건강보조식품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span>”고 말했다.<br/><br/><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4.txt

제목: H.O.T 이재원 암 진단 받아  
날짜: 2015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1010015956092  
본문: H.O.T 출신 이재원이 갑상선 암을 판정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br/>한 매체는 10일 “이재원이 최근 갑상선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재원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지난해 연말 본격화 됐던 H.O.T의 재결합 활동도 미뤄졌다는 것이다.<br/><br/>이재원은 수술을 받고 완치 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이재원은 지난해에 한중 문화 교류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고 현재도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공연을 여는 등 꾸준히 팬들을 만나고 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5.txt

제목: [‘건강도약 2015’ 인터뷰](1) 노성훈 연세암병원장  
날짜: 2015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9100000056  
본문: 보건복지부의 최신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끝낸 암 경험자는 1999~2012년에만 총 123만4879명이다. 그 이전과 이후까지 합산하면 암을 겪고 있거나 암을 극복한 인구는 훨씬 많다. 현재 한국의 암 치료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암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일부 암은 치료 성적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생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사망원인 ‘부동의 1위’이다. 암은 여전히 건강의 최대 이슈라는 얘기다.<br/><br/>노성훈 연세암병원장(61·외과)은 경향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만성질환처럼 돼버린 암의 조기진단이나 치료뿐 아니라 앞으로는 예방과 암 치료 후 삶의 질도 중시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을 겪은 사람들은 재발에 대한 걱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심리적 위축을 느끼는 만큼 암 생존자들을 위해 다학제적인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span>”고 말했다.<br/><br/><br/>- 우리나라 암 치료의 현재 좌표,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br/><br/>“국내 병원들은 새로운 암 치료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관한 한 상당수 암에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정보, 선천적·후천적 성향을 고려해 암을 치료하는 맞춤형 의학으로 발전해가고 있죠.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분자의학과 정밀의학 도입으로 치료율은 더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암은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암과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의료계와 국가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 의학을 시행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하고, 암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 및 생활습관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br/><br/>- 매년 숫자가 늘어나는 암 환자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br/><br/>“암 치료는 수술, 약물, 방사선 등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학제간 치료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내 환자’ 관점이 아닌 ‘우리 환자’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 관리, 재발 방지, 감염 및 만성질환 관리, 환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환자의 사회복귀 등 다방면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암 치료에만 집중한 나머지 환자들의 정서 및 심리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어요. 긴 대기시간, 의료진의 시간에 맞춘 일률적인 회진, 미진한 설명, 한밤중에 시행되는 일상적인 검사로 환자들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암 치료 후에도 의료진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br/><br/>노 원장은 위암 수술의 권위자다. 지금까지 9500여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 중 암덩어리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것을 최소화해 수술 과정에서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림프절 절제를 철저히 해서 암 전이나 재발을 방지하는 근치적 절제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새롭게 확장해 독립 개원한 연세암병원 원장을 맡은 이후에도 1주일에 6~7건의 위암 수술과 70명 내외의 외래진료를 한다.<br/><br/>-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br/><br/>“위암은 국내에서 매년 2만5000명 정도가 걸립니다. 과잉진단 논란이 있는 갑상선(갑상샘)암을 빼면 위암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며 위암 사망률은 전체 암 가운데 3번째입니다. 그러나 치료 성적이 매우 높아 수술을 받으면 80% 생존율을 기록하지요.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조기 진단은 국가 암관리 정책과 국민의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정기적인 내시경 진단을 통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늦게 발견돼 수술 성적이 좋지 않거나 수술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다수 암이 그렇지만 위암은 특히 수술이 우선 잘 돼야 치료율이 높아요. 수술이 가장 중요하고, 수술 자체가 완치인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이 잘 되려면 일찍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방을 위한 식습관 개선과 운동은 필수이고요.”<br/><br/>노 원장은 “<span class='quot0'>위암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방암이나 대장암처럼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암에 적용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연세암병원은 1995년부터 위암 환자 개개인의 암 조직을 보관하는 유전자 은행을 운영해 왔고, 그들의 임상정보를 축적한 것이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한다.<br/><br/>- 최근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위암 수술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br/><br/>“조기 위암이 늘면서 복강경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수술 후 적은 통증과 빠른 회복이 장점이지만 진행성 위암에 대해서는 장기 생존율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로봇 수술은 3차원 영상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로봇팔을 이용해 수술을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싼 게 단점이죠. 로봇 수술 대상이 되는 위암 환자는 복강경 수술과 같습니다. 암 병변이 있는 위와 주변의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데는 개복수술이 아직까지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br/><br/>노 원장은 “<span class='quot0'>암은 그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10명 중 7명이 완치되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병이므로 암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모든 것을 환자와 그 가족의 눈높이에서 보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시간은 정말로 골든타임, 금쪽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다짐했다.<br/><br/>▲ 주요 약력<br/><br/>연세대 의대 졸업 / 대한위암학회 회장 / 대한암학회 이사장 / 국제위암학회 조직위원장 / 대한암협회 집행이사(현) / 세계위암학회 회장(현) / 연세대 외과학 주임교수(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6.txt

제목: 암 사망자 10명 중 3명만 생명보험  
날짜: 2015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7100000099  
본문: 한국인 사망원인의 1위가 암이지만, 암 사망자 가운데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가 들수록 암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암 발병률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오히려 보험금 수령액이 적었다.<br/><br/>6일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암 사망자는 2만3000여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7만3000여명)의 31.5%를 차지했다.<br/><br/><br/>이들 중 60세 이상 암 사망자가 지급받은 암 관련 보험금은 1인당 평균 2800만원이었다. 이는 60세 미만이 받는 1인당 평균 보험금(8900만원)의 31.4%에 불과했다. 암 관련 보험금에는 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br/><br/>20~40대 암 사망자는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반면 50대는 평균 7500여만원을 받았고 60대부터는 수령액이 더 떨어졌다. 60대 암 사망자의 보험금 수령액은 3860만원, 70대는 1580만원, 80대는 690만원이었다. 90대 이상은 100만원에 그쳤다. 60대 이상 사망자가 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 등 4개 담보 가운데 받은 1인당 담보는 평균 2.2개로, 60세 미만(3.2개)보다 평균 1개가 적었다. <br/><br/>60세 이상의 암 보험금 수령액이 60세 미만보다 크게 낮은 것은 고령층이 암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암 관련 보장수준을 적게 설정해 가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br/><br/>보험개발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보험은 가입 4년 정도가 지나면 유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0년이 지나면 10% 수준에 그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은 대개 고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7.txt

제목: [출장발명가 노승권의 알면 힘이 되는 생물학] 표적 항암제 ‘세라노스틱 7’  
날짜: 2015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7100000007  
본문: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 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효율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화학 요법은 탈모·구토·어지럼증과 급격한 체중 감소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항암제가 있다면 치료 효과는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어들 것입니다.<br/><br/>암세포는 세포막 바깥에 특이한 돌기를 갖고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 산소(특히 과산화수소)를 정상 세포의 10배가량 생산하는 등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이런 특성을 인식해(마커) 암세포를 찾아냅니다. 표적 항암제는 인식 부위와 항암제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몸 안을 돌아다니다 암세포를 만나면 달라붙은 다음 항암제로 공격합니다. 모습이 미사일과 닮았습니다. 인식 부위가 유도 장치라면 항암제는 폭탄에 해당됩니다. 공격자의 유도에 따라 목표물을 찾아내 정확하게 공격하는 미사일이 일반 포탄에 비해 효율이 뛰어난 것은 당연합니다.<br/><br/>표적 항암제 잠재 수요가 막대하다 보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중 암세포의 돌기에만 달라붙는 단일 클론 항체와 항암제를 결합한 방식의 표적 항암제는 오래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이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br/><br/>최근에는 암세포 고유의 고농도 과산화수소(H₂O₂)를 표지로 삼는 표적 항암제가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고려대 김종승 교수를 주축으로 한 연구팀이 주인공입니다. 연구팀은 항암제인 5-플루오로우라실 두 분자와 에티디움 브롬(EtBr) 한 분자를 결합한 형태의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세라노스틱 7(Theranostic 7)’으로 명명된 이 물질을 암에 걸린 생쥐에 주입했더니 암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정확하게 찾아가 5-플루오로우라실을 방출했습니다. 암세포의 과산화수소는 인식 표지가 됐을 뿐 아니라 항암제가 결합에서 풀려나는 것을 돕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방출된 5-플루오로우라실은 암세포의 DNA 합성을 저해하고 RNA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결국 암세포를 사멸시켰습니다. 세라노스틱 7에 접목할 수 있는 항암제는 5-플루오로우라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폭탄을 가리지 않듯 세라노스틱 7에도 다양한 항암제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br/><br/>세라노스틱 7에는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티디움 브롬이 암세포가 죽으면서 분비하는 물질들과 반응해 형광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형광을 관찰하면 암세포의 사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br/><br/>‘세라노스틱 7’이란 이름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세라노스틱은 치료(therapeutic)와 진단(diagnostic)의 합성어입니다. 치료와 진단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암제를 비롯한 약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세라노스틱을 활용하면 항암제·항생제 같은 약이 특정 개인과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라노스틱 개념이 접목된 ‘세라노스틱 7’은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 기능과 치료 효과, 그리고 진단 기능을 갖춘 삼위일체형 표적 항암제라 할 수 있습니다.<br/><br/>연구팀은 JACS(미국화학회지)에 세라노스틱 7의 항암 효과를 확인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세라노스틱 7은 5-플루오로우라실보다 암세포 사멸 능력이 훨씬 강했고, 암세포가 죽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결과로 JACS의 표지를 장식할 만합니다. 세라노스틱 7이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상업화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8.txt

제목: 암 사망자 10명 중 3명만 생명보험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61001591171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고령자일수록 수령액도 적어</strong><!-- SUB\_TITLE\_END--><br/><br/>한국인 사망원인의 1위가 암이지만, 암 사망자 가운데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가 들수록 암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암 발병률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오히려 보험금 수령액이 적었다.<br/><br/>6일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암 사망자는 2만3000여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7만3000여명)의 31.5%를 차지했다.<br/><br/><br/>이들 중 60세 이상 암 사망자가 지급받은 암 관련 보험금은 1인당 평균 2800만원이었다. 이는 60세 미만이 받는 1인당 평균 보험금(8900만원)의 31.4%에 불과했다. 암 관련 보험금에는 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br/><br/>20~40대 암 사망자는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반면 50대는 평균 7500여만원을 받았고 60대부터는 수령액이 더 떨어졌다. 60대 암 사망자의 보험금 수령액은 3860만원, 70대는 1580만원, 80대는 690만원이었다. 90대 이상은 100만원에 그쳤다. 60대 이상 사망자가 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 등 4개 담보 가운데 받은 1인당 담보는 평균 2.2개로, 60세 미만(3.2개)보다 평균 1개가 적었다. <br/><br/>60세 이상의 암 보험금 수령액이 60세 미만보다 크게 낮은 것은 고령층이 암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암 관련 보장수준을 적게 설정해 가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br/><br/>보험개발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보험은 가입 4년 정도가 지나면 유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0년이 지나면 10% 수준에 그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은 대개 고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09.txt

제목: 암 사망자 10명 중 3명만 보험 가입.. 나이 많을수록 보험금도 적어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610015908948  
본문: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암이지만, 암으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가 들수록 암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암 발병률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오히려 보험금 수령액이 적었다.<br/><br/>6일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암 사망자는 2만3000여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7만3000여명)의 31.5%를 차지했다.<br/><br/>이들 중 60세 이상 암 사망자가 지급받은 암 관련 보험금은 1인당 평균 2800만원이었다. 이는 60세 미만이 받는 1인당 평균 보험금(8900만원)의 31.4%에 불과했다. 암 관련 보험금에는 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br/><br/>20~40대 암 사망자는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반면 50대는 평균 7500여만원을 받았고 60대부터는 수령액이 더 떨어졌다. 60대 암 사망자의 보험금 수령액은 3860만원, 70대는 1580만원, 80대는 690만원이었다. 90대 이상은 100만원에 그쳤다.<br/><br/>60대 이상 사망자가 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 등 4개 담보 가운데 받은 1인당 담보는 평균 2.2개로, 60세 미만(3.2개)보다 평균 1개가 적었다. <br/><br/>60세 이상의 암 보험금 수령액이 60세 미만보다 크게 낮은 것은 고령층이 암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암 관련 보장수준을 적게 설정해 가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br/><br/>보험개발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보험은 가입 4년 정도가 지나면 유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0년이 지나면 10% 수준에 그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은 대개 고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0.txt

제목: 암 수술 후 요양 치료, 보험금 다 못 받는다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6100000127  
본문: 암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암수술 후 요양병원의 입원·치료 시 비용을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어 관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유의해야 한다.<br/><br/>ㄱ씨는 4개월 전 한 대학병원에 2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암보험에 가입했던 보험사로부터 이에 대한 입원 및 수술비를 전액 지급받았다. 이후 ㄱ씨는 이 대학병원에서 통원하며 방사능 치료를 받았고,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ㄱ씨는 퇴원 후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비의 일부만을 지급했다. ㄱ씨는 보험사가 일부만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br/><br/>이에 대해 금감원은 ㄱ씨의 경우 입원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5일 낸 분쟁조정신청 분석자료를 보면 보험약관에서는 ‘입원’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암보험의 경우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br/><br/>법원 판례에서도 재발방지나 항암치료의 후유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도 ㄱ씨가 받은 통원치료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고, 방사능 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도 암에 대한 직접 치료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치료라고 본 것이다.<br/><br/>또 보험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 설명을 부실하게 듣고 자필서명을 형식적으로 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흔하고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약관이나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하기 때문이다.<br/><br/>하지만 형식적으로 했더라도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상 자필서명,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모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만약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r/><br/>정기예금 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만기 때 실제 받는 만기환급금이 가입 설계서상 예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기예금 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계속 떨어져 이를 적용해 적립하는 만기환급금 액수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통 보험사들은 만기환급금 적립 현황에 대해 안내장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해주므로 이를 통해 적립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1.txt

제목: 강원도 생산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없어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610015908935  
본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을 검사한 결과,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br/><br/>방사능 물질 중 세슘이나 요오드는 식품을 통해 인체에 들어와 축적되면 암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br/><br/>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먹을 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강원도와 시·군에서 수거한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105건의 유통 식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했다.<br/><br/><br/><br/><br/><br/>수거된 유통 식품은 강원도 동해 연안에서 어획한 문어, 오징어, 도루묵, 임연수어 등 수산물 47건과 배추, 무우, 현미 등 농산물 54건, 가공식품 두부 4건 등이다.<br/><br/><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2.txt

제목: 지구상에 ‘착한 흡연’이 있을까  
날짜: 2015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6100000028  
본문: “<span class='quot0'>담배 끊다가 암 걸리겠더라고요.</span>”<br/><br/>담배를 끊는 과정의 스트레스가 더 유해하다는 소리는 흡연자들의 흔한 핑계다. 김진태씨(31)는 금연 스트레스가 암을 부를 정도라고 비유했다. 김씨의 금연 시도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곧 백일을 맞는 첫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김씨도 진지하게 금연을 고민했다.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그래도 차마 갓난아기 얼굴에 담배 냄새를 풍기기는 곤란해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식도 이 결정을 거들었다.<br/><br/>전자담배도 금연대상, 값도 인상 예상<br/>비슷한 시기에 전자담배를 시작한 직장 동료들 중에서 김씨는 비교적 전자담배에 만족하는 편이다. “향도 바꿔 피울 수 있고, 옆사람 피해주는 것도 없으니까요. 담뱃값 오르는 데 비하면 가격도 싼 셈이고요.” 장점도 있지만 일반적인 궐련 흡연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궐련 흡연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동료들 중에는 담배 피우는 맛이 아니라며 금연구역 같은 데서나 대용으로 쓰는 부류도 많아요. 카트리지 사는 게 좀 번거롭다는 건 저도 느끼는 거고.”<br/><br/>전자담배는 액상형으로 된 니코틴 카트리지를 초음파나 열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담배 형태다. 일반 궐련을 피우는 느낌을 주기 위해 수증기가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나오는 기체의 성분은 궐련의 담배 연기와는 전혀 다르다. 주변에 퍼지는 냄새가 적기 때문에 일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워선 안 된다.<br/><br/>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흡연구역도 확대되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일반 궐련 대신 전자담배 등 대체재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존 담배시장을 가장 빠르게 위협하는 것은 전자담배다.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판매된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나 급증했다. 니코틴이 들어 있는 액상 카트리지는 인터넷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흡입 용구인 무화기와 니코틴 없는 대체 액상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br/><br/>“한 번 시연해봐요. 종류 많으니까 우리(가게)는 한 번씩 맛보게 해주거든.”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들러보니 다양한 형태의 무화기와 액상이 진열되어 있다. 점주 이모씨(49)가 전자담배에 관해 설명하는 동안에도 드나드는 손님들로 현관종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지금 연말이 피크인 것 같아. 담배 끊어볼까 해서 처음 오는 손님이 반, 카트리지 세금도 오르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 반.” 새해부터 오르는 담뱃값은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당 400원에서 628원으로 오른다. 건강증진부담금도 1㎖당 221원에서 525원으로 오르고, 추가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도 1㎖당 370원이 부과된다.<br/><br/>궐련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자담배는 보름에 약 2㎖ 카트리지 하나를 소모한다. 대중적인 모델의 경우 2㎖ 카트리지 하나에 1만5000원 안팎의 가격으로 살 수 있어 궐련 담배에 비해선 가격이 낮은 편이다. 점주 이씨는 “<span class='quot1'>새해에 가격 오르면 정확히 얼마에 팔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카트리지당 1만원까지는 안 오를 테니까 그래도 보통 담배보다는 싼 편</span>”이라고 말했다.<br/><br/>유행에 민감한 젊은층에서는 물담배도 인기를 끌고 있다. 물담배는 중동지역에서 인기 있는 흡연 방식의 하나로 담배 연기를 향이 담긴 물을 통과시켜 흡연하는 식이다. 서울의 홍대나 이태원 등 젊은층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물담배를 제공하는 카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br/><br/>이태원의 한 물담배 취급 카페에 들어서자 달콤한 향의 연기가 훅 끼쳐 왔다. 이 카페에서 만난 흡연자 김모씨(28)는 ‘줄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가벼운 흡연자들도 물담배는 부담없이 피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br/><br/>“물담배는 순해요. 연기는 나는데 향도 좋고 담배 안 피는 사람도 연기가 안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부드러운 데다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파는 음식점을 겸하기도 해 비교적 여성 손님이 많은 점도 물담배 카페의 특색이다. 하지만 물담배 카페 역시 새해부터 적용되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따라 물담배 흡연 역시 전면 금지된다. 카페 업주 최모씨(38)는 “<span class='quot2'>대부분 손님들이 새해엔 물담배 흡연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데 불법으로 영업할 수도 없어 고민</span>”이라고 말했다.<br/><br/>물담배 카페 젊은층에게 인기 끌어<br/>흡연 때문에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 역시 물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담배는 물이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들이마신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를 한 번 흡입할 때마다 흡수되는 니코틴 양은 일반 궐련에 비해 낮지만 그만큼 물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 체내 니코틴 흡수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의 흡입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역시 물담배 흡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br/><br/>이에 비해 전자담배는 직접적인 연소반응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인식도 퍼져 있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액상의 성분은 니코틴 외에 향료와 감미료, 글리세롤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 궐련의 유해물질이 고온의 연소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5000여종 이상의 물질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종류는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메탄 등 종류와 양 모두가 극히 적기 때문에 ‘비교적’ 덜 유해하다는 데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에 보고된 이외에 더 이상 유해물질이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며, 안전한 니코틴 대체요법이지만 권장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전자담배 역시 새로운 담배의 형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br/><br/>대체재는 있지만 흡연의 탈출구는 없는 셈이다. “<span class='quot0'>결국은 완전 금연이 가장 확실하고 건강을 위한 길이다.</span>” 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박사는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다한 니코틴 흡입으로 인해 니코틴 중독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는 유해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 박사는 “<span class='quot3'>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전자담배의 마케팅을 금지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홍보하는 데 대해서도 소비자 기만행위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3.txt

제목: 암 수술 후 요양 치료, 보험금 다 못 받는다  
날짜: 2015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51001590736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직접 치료’ 때만 입원비 지급</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저금리 땐 만기환급금도 줄어</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가입 전 약관 내용 숙지해야</strong><!-- SUB\_TITLE\_END--><br/><br/>암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암수술 후 요양병원의 입원·치료 시 비용을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어 관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유의해야 한다.<br/><br/>ㄱ씨는 4개월 전 한 대학병원에 2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암보험에 가입했던 보험사로부터 이에 대한 입원 및 수술비를 전액 지급받았다. 이후 ㄱ씨는 이 대학병원에서 통원하며 방사능 치료를 받았고,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ㄱ씨는 퇴원 후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비의 일부만을 지급했다. ㄱ씨는 보험사가 일부만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br/><br/>이에 대해 금감원은 ㄱ씨의 경우 입원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5일 낸 분쟁조정신청 분석자료를 보면 보험약관에서는 ‘입원’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암보험의 경우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br/><br/>법원 판례에서도 재발방지나 항암치료의 후유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도 ㄱ씨가 받은 통원치료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고, 방사능 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도 암에 대한 직접 치료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치료라고 본 것이다.<br/><br/>또 보험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 설명을 부실하게 듣고 자필서명을 형식적으로 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흔하고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약관이나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하기 때문이다.<br/><br/>하지만 형식적으로 했더라도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상 자필서명,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모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만약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r/><br/>정기예금 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만기 때 실제 받는 만기환급금이 가입 설계서상 예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기예금 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계속 떨어져 이를 적용해 적립하는 만기환급금 액수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통 보험사들은 만기환급금 적립 현황에 대해 안내장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해주므로 이를 통해 적립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br/><br/><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4.txt

제목: “암의 3분의 2는 돌연변이 세포 때문”  
날짜: 2015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21001590416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미 연구팀 “유전·습관보다 큰 영향”</strong><!-- SUB\_TITLE\_END--><br/><br/>유전적인 요인이나 생활습관이 암을 부른다는 통설과 달리 암의 3분의 2는 세포분열에서 ‘우연히’ 일어난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1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줄기세포의 돌연변이 횟수와 암이 발생하는 비율을 분석했다. 죽은 세포를 보충하기 위해 인체에서는 끊임없이 줄기세포가 분열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DNA 돌연변이가 암의 원인이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br/><br/>하지만 돌연변이가 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br/><br/>연구진은 머리와 폐, 피부 등 31가지 인체 조직에서 줄기세포가 일생 동안 분열하는 횟수와 이 조직에서 암이 발생하는 확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줄기세포가 분열하는 횟수와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암 발병의 65%는 줄기세포가 분열할 때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누적되면서 생긴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를 이끈 버트 보겔스타인 교수는 “<span class='quot0'>모든 암은 불운(돌연변이)과 환경, 유전적 요인의 조합으로 발생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5.txt

제목: [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가난과 편견… 할아버지가 지켜낸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날짜: 2015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2100000122  
본문: ▲ “만주서 동분서주한 조부 생전 고향땅 결국 못 밟아<br/>손자 고생 끝에 귀국했지만 대 이어 못 배우고 못 살아”<br/><br/>그런 말을 하는 동생도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을 하지, 왜 항일운동을 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어놨나. 친일파들은 다들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br/><br/>그래도 독립운동가 이승연 선생(1889~1956)의 손자 이무열씨(65)는 아직도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잊어버린 ‘국치일(國恥日)’까지 꼬박꼬박 챙긴다.<br/><br/><br/>이씨의 할아버지 이승연 선생은 1919년 3월21일 경북 안동 편항시장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이 선생과 시위 군중은 주재소까지 달려가 유리창과 책상, 의자를 부수고 서류를 파기했다. 일본 경찰로부터 총칼과 제복을 뺏어 우물에 버렸다. 이 선생 등은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모닥불을 피우며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자진 해산했다. 이 선생은 이 일로 2년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br/><br/>1939년 이 선생은 4남매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갔다. 옥고를 치른 뒤 일본과 중국을 떠돌며 동분서주했지만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을 견디기 어려웠다. 가족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오상현(五常縣)에 둥지를 틀었다. 막막한 황무지에 물을 대고 한국식 논농사를 일구기까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생은 서당을 열어 함께 온 조선 아이들을 가르쳤다.<br/><br/>이 선생은 생전에 광복을 맞았지만 곧이은 분단으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1956년 중국에서 눈을 감았다. 이무열씨의 부친은 이 선생의 막내아들이다. 이씨의 부친은 어릴 적 장티푸스를 앓았다. 병원 한 번 못 가고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얻은 탓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다행히 계산이 빠르고 글씨를 잘 써서 공산당 관리들 밑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산해 주는 등의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br/><br/>“한겨울에도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닐 정도로 가난했죠. 눈밭을 걷다 보니 신발이 안 보였어요. 되짚어 보니 눈에 거꾸로 박혀 있는 겁니다. 결국 신발 두 짝을 손에 들고 학교까지 가는 바람에 발이 동상에 걸려 겨우내 학교를 못 갔지요.”<br/><br/>옷은 하도 기워 입어 본판이 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씨는 1970년 결혼식 때도 군데군데 기운 바지를 입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혼 비용이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 설상가상으로 이씨의 어머니도 풍습성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1996년에, 아버지는 한 해 뒤에 세상을 떠났다. 이승연 선생과 그의 아들 내외는 생존 당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1996년 이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을 뿐이다. “아버지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은 게 전부였지요. 1997년에 한국에 나오신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암으로 눈을 감았습니다.”<br/><br/>순탄치 못한 삶은 3대에 걸쳐 이어졌다. 이씨는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毛澤東)을 비판했다가 발각돼 3년 가까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 학업도 중학교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사업을 전전했지만 실패하고 돈만 날렸다. 나중에는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KBS 사회교육방송을 빠짐없이 챙겨 들으며 조국을 잊지 않았다.<br/><br/>이씨는 2000년 한국행을 택했다. 형제자매와 사촌 등 9명이 함께 왔지만 정착지원금 3500만원, 임대아파트 1채만 지급됐다. 임대아파트는 먼저 한국에 온 사촌에게 내 주고 공장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 일은 닥치는 대로 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은 기본이었고 사출 공장이나 서적 포장 라인에서도 일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병마였다. 서울 가리봉동 아웃렛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닦으면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일한 게 화근이었다. 병원에 갔더니 관절이 찢어진 청바지처럼 너덜너덜해졌다고 했다. 좀 나아진다 싶더니 탈장 수술을 해야 했고 허리 디스크까지 왔다. 지난해에는 전립샘암까지 덮쳤다. <br/><br/>“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데 우리가 3대째요. 그런데 친형제와 사촌까지 합쳐 10여명 남매 중에서 고졸도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4대째까지도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죠.” <br/><br/>이씨는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 <중국과 중국교회>라는 책을 쓸 정도로 학업에 대한 욕구가 컸지만 생계 때문에 제대로 잇질 못했다. <br/><br/>대접은 바라지도 않지만 차별은 서럽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일당 10만원 줄 것도 7만~8만원밖에 안 준다</span>”고 했다. “<span class='quot1'>형제 중에 둘째도 몸이 안 좋아 쉬고 있고 막내 여동생도 몸이 다 망가졌어요….</span>” 말을 잇지 못하는 이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암이 온 집안을 총공격하는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남동생이 위암, 재작년에는 큰 여동생이 자궁암, 작년에는 나한테 전립샘암이 오고….”<br/><br/>정부나 사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뭘 해 줘야 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건 말 안 한다”고 했다. “한 번씩 행사에 다녀오면서 나눠 주는 태극기를 집에 갖다놔요. 7살짜리 막내 손자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그걸 보더니 ‘대한민국’ 고함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싶었어요. 얘네들에겐 우리 같은 일 없도록 해야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6.txt

제목: .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1100000010  
본문: Select Health Info<br/>임신 초기 산전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요즘 산모들에게 비타민 D 결핍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br/>깜짝 놀란 적이 있다. 젊은 여성들뿐 아니라 중·장년층 여성들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br/>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고, 각종 암 발병 가능성도 높아진다.<br/><br/>All about Vitamin D<br/>알파벳만큼이나 다양한 비타민의 종류. 하지만 꾸준히 건강관리에 힘쓰고 날마다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이들이 아니라면 그만큼 쉽게 놓칠 수 있는 영양소이기도 하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아연 등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격이 약해지고 뼈의 밀도가 감소해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br/>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 자극을 받은 피하지방 속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프로비타민 D가 전환되면서 만들어진다. 이는 혈액을 타고 간과 신장을 거치면서 활성비타민으로 바뀐다. 한국인 성인의 경우 비타민 D의 정상치는 30IU/dL 이상이다. 10 미만이면 결핍, 30까지는 부족으로 본다. 과거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돼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 활동이 적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br/>문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도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타민 D의 결핍은 골밀도, 골강도의 감소 및 골절의 증가, 근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성장기 소아에게는 구루병을 일으키고 성인들은 골연화증, 골다공증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경 여성의 30%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조사 대상 1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폐경 여성은 대부분 체내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br/>최근에는 비타민 D와 면역력, 암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비타민 D가 세균을 죽이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유방을 포함한 폐와 피부, 대장, 뼈 등의 암 세포 증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비타민 D가 결핍됐을 경우 피로나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느낄 수도 있으며, 비타민 D가 월경 증후군을 완화하고 치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학설 역시 보고되고 있다.<br/><br/>How to Get Vitamin D<br/>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20분 정도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 일광욕을 하는 것이 비타민 D 생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햇볕만으로 필요한 비타민 D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위치상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B의 양이 적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 양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 등을 바르다 보니 남성들에 비해 더욱 발병 빈도가 높다.<br/>이에 전문가들은 차선책으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이나 비타민 D 영양 보충제 섭취를 권한다. 식품 중에는 정어리, 멸치, 연어, 고등어 등과 말린 표고버섯, 달걀노른자 등에 비타민 D가 포함돼 있다. 비타민 보충제의 경우 과다 복용시 칼슘 농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잘 지키도록 한다. 남녀 성인의 비타민 D 권장량은 200IU이고 59세 이상인 사람, 임신부와 수유부는 일반인의 2배이다. 보충제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br/>한편 임신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일수록 비타민 D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엄마의 비타민 D가 아이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우스햄튼대학은 산모의 출산 전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자녀의 근력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br/><br/>Profile<br/>최재경 전문의는…<br/>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전문이사를 겸하고 있다.<br/><br/>I Love<br/>Vitamin D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7.txt

제목: 겨울 과일 똑 소리 나는 보관법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1100000035  
본문: 혹독한 추위는 야속하지만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최고인 겨울 과일의 등장은 반갑기만 하다. 냉장고만 맹신하며 쟁여둔 사과와 귤. 방심하고 있다가는 반은 썩어서 버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과일별 특성과 보관법을 제대로 알아두자.<br/><br/>귤맛 좋고 먹기 편하며 저렴하기까지 한 겨울철 대표 과일.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카로틴 성분이 함유돼 눈 건강관리에 좋으며 몸속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돕기도 한다. 보통 상자째 베란다나 주방에 두고 먹지만, 잘못 보관하면 얼마 못 가 썩어버리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어 고난도의 보관 노하우가 필요하다.<br/><br/>보관법 1 연한 농도의 소금물에 1, 2분 정도 헹군다. 귤껍질 표면의 농약이 제거되고 보관 기간도 늘릴 수 있다. 2 공기가 통하지 않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맛이 날 수 있으므로 실온에 보관하자. 서늘한 곳에 두면 보름까지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3 귤끼리 부딪히면서 생기는 수분 때문에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들러붙지 않게 종이나 신문지로 낱개 포장해서 겹겹이 쌓아두는 게 좋다.<br/><br/>Tip 맛없는 귤 활용법 귤과 설탕을 1:1 비율로 번갈아가며 켜켜이 쌓아 귤청을 만들어보자. 샐러드나 핫케이크 시럽 등 각종 요리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br/><br/>감<br/>올해는 태풍이나 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없어 과일의 작황이 좋다. 그중에서도 감은 예년 대비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저렴하다. 늦가을 수확해 홍시를 만들어 먹는 큼직한 대봉감의 경우 잘 보관하면 겨울철 별미 간식으로 그만이다.<br/><br/>보관법 1 감은 무르기 쉬워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단감의 경우 온도가 상승할수록 과육이 쉽게 무르기 때문에 신문지나 비닐봉지로 덮어 0℃ 정도의 저온에 보관한다. 2 보관 전 물에 헹구거나 심하게 닦지 않는다. 3 대봉감의 경우 통풍이 잘되는 곳에 감꼭지를 아래 방향으로 해 세워두면 10~20일 뒤에 자연 홍시가 돼 먹기 좋다. Tip 감꼭지 활용법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감 생산지 하동에서는 감꼭지를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해둔다. 한약재로도 쓰이는 감꼭지는 물을 조금 넣고 팔팔 끓여 마시면 기관지염을 치료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심한 딸꾹질을 멎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아이들 설사가 심할 때도 도움이 된다.<br/><br/>사과<br/>사과는 하루에 한 개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기산, 섬유소, 칼슘 등이 풍부한 과일이다. 특히 사과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은 항바이러스·항균 작용이 뛰어나 암과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 사과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 및 채소를 쉽게 숙성시켜 변질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토마토와 멜론 역시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배출하니 기억해두자.<br/><br/>보관법 1 신문지나 랩, 지퍼백, 위생 봉지 등을 이용해 낱개 포장해서 보관하면 사과의 당도와 수분이 오랜 시간 유지된다. 2 저온 보관하면 사과의 당도가 더 높아진다. 실온보다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 냉장고보다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한다. 최적 온도는 -1℃에서 0℃ 사이로, -2℃ 이하에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사과가 얼어서 갈색으로 변할 수 있다.<br/><br/>Tip 사과초 만들기 사과초를 만들고 싶다면 구입 직후 흠집이 없고 단단한 사과를 골라 사용하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4~6등분한 사과를 항아리나 유리병으로 된 밀폐 용기에 담은 뒤 차곡차곡 누룩가루를 뿌린다. 윗부분을 짚이나 거즈, 흰 천으로 덮고 돌로 눌러 공기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뒤 3개월 정도 숙성하면 식욕을 돋우는 데 일등 공신인 새콤한 사과초가 완성된다. 흠집이 있는 사과의 경우 식초가 부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br/><br/>딸기<br/>새콤달콤함이 입맛을 돋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 하우스 재배가 일반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겨울 과일이 됐다. 딸기는 레몬보다 비타민 C가 2배 이상 많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원기를 회복시키며 체력을 보강한다. 또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 예방에도 탁월하다.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 기미, 주근깨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br/><br/>보관법 1 딸기 꼭지 부분을 제거하지 말고 씻지 않은 채로 냉장 보관한다. 2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랩에 싸두거나 밀폐 용기를 활용한다.<br/><br/>배<br/>겨울을 이기는 과일로 알려진 배는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 소화 촉진, 변비 등에 좋다. 또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기관지염, 가래, 기침을 줄여줘 감기를 예방한다. 단맛이 강해 다양한 요리에 천연 조미료로 활용할 수 있다.<br/><br/>보관법 1 사과, 토마토 등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는 과일과는 절대 같이 보관하지 말 것. 배의 과육이 물러진다. 2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이므로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지로 포장한다. 3 비닐봉지로 한 번 더 밀봉해 공기 접촉을 차단하고, 냉장 보관하면 오래도록 과즙이 풍부한 배를 먹을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8.txt

제목: 신도들 속여 5000원짜리 주식 50만원에 사게 한 목사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110015902392  
본문: 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부실회사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속여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사기·주식매입법 위반 등)로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종파의 목사 ㄱ씨(7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br/><br/>ㄱ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 한 비상장회사가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 가족 등 800여명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r/><br/>신도들은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주당 50만원에 샀다가 고스란히 손해를 안았다.<br/><br/>ㄱ씨는 설교 등을 통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br/><br/>ㄱ씨는 이 회사가 금융당국 인가 없이 총 261억원어치의 증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115억원의 은행 부당대출을 받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br/><br/>검찰은 ㄱ씨가 이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br/><br/>하지만 ㄱ씨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19.txt

제목: TEXT Relation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1100000025  
본문: Relation<br/>글 김지윤 기자 사진 김성구, 안지영 참고 서적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김병수 저, 프롬북스)<br/><br/>대다수의 남자들은 마흔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안’, ‘위기’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한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제 같지 않은 체력,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를 더욱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때때로 가족의 위기가 되기도 한다. 남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걱정거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흔과 마주한 남편들의 고민을<br/>김병수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풀었다.<br/><br/>Q 마흔을 앞두고 건강 걱정이 앞섭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나 과로로 쓰러지는 동료들을 하나둘 볼 때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라는 책 제목에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이○○, 39, 직장인)<br/>신체적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가 바로 40대입니다.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없으면 안 되고, 뱃살이 나오는 때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 무렵부터 지인들이 암에 걸리거나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요. 자연히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지요.<br/>개중에는 ‘술을 끊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이 결심들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40대는 그만큼 일과 책임감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위장에 구멍이 나고, 고혈압으로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해도 회식엔 꼭 참석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생기는 예외적인 일들이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조각조각의 증상들은 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긍정은 자만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병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최소 6개월, 1년은 쌓인 겁니다.<br/>수많은 상담자들이 마흔의 위기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실 약을 먹고 보신을 하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라도 먹으며 버텨보자’ 하는 심정인 거죠. 그 불안함을 바탕으로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뱃살부터 줄이세요. 삶은 점점 더 추운 곳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의 인생입니다. 동사하지 않으려면 몸을 쓰면서 뛰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할수록 정신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br/><br/>Q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고 남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제 모습이 비참하고 아내 보기도 부끄럽습니다.<br/>(최○○, 43, 자영업자)<br/>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상당수의 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극단적인 분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도 하십니다. 정력이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다움을 잃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자들에게 성생활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마음속에는 ‘아내가 이런 나로 인해 바람을 피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중년 여성들은, 성적으로 활발한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관심이 없거나 관심 자체가 떨어지는데도 말이죠.<br/>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40대가 되면서 성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20, 30대 때와 달리 당뇨, 혈압, 비만 등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성 기능 저하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게, 기대치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br/><br/>Q 아내와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으면 아이들을 통합니다. 아내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아내도 나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저도 저만의 사정이 있는데, 그런 마음도 모른 채 잔소리를 할 땐 화가 납니다. 분명 아내가 변했습니다. (조○○, 41, 공무원)<br/>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해도 호르몬의 힘을 당해낼순 없습니다. 마흔은 신체적으로 여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남성호르몬이 줄어드는 시작점입니다. 여성들과 달리 점진적으로 그 과정을 겪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변화하는 원인을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내가 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라고 투사해 찾으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나 가족 입장에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남자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어쩌면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변한 것일수도 있습니다.<br/>실제로 40대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남편과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입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 서운하다”라고 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 대화가 성립될 수 없겠죠. 중년의 결혼생활은 달콤했던 신혼과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화의 싹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통하려 하지 말라고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40대의 남녀는 관심사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주로 건강, 승진 등 개인적인 것에 비중을 두는 반면 여성들은 육아, 가족, 쇼핑 등에 의미를 둡니다. 관심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뇌구조가 다른데 완벽한 소통이 가능할까요?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아줘’라고 기대하다 보면 갈등만 쌓일 겁니다.<br/>더욱이 40대 이상의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제한돼 있어요. 저는 이를 감정 난독증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남자들은 “외로워”라는 말을 하지 않고 “술 한 잔 해야겠어”라고 말합니다. “<span class='quot0'>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불안해</span>”도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겠어”라고 돌려 말합니다. 자기감정을 엉뚱하게 읽다 보니 표현도 그리 되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br/><br/>Q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했듯 열심히 돈을 벌어다주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더군요.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벌써부터 사춘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들 녀석은 저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싶습니다.<br/>(유○○, 41, 회사원)<br/>남자들은 일단 외롭다는 느낌이 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중립적인 행동들도 나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은 어느 순간 미움으로 바뀝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게 되고, 사소한 잘못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죠.<br/>안타깝게도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5차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시계와 자녀들의 시계는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을 완화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이를 지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자식들이 다가와주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욕심 아닐까요?<br/><br/>Q 올해로 입사한 지 15년. 회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흔을 지나고 보니 바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기만 하네요. 경쟁 사회에서 내 몫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도 무섭습니다.<br/>(도○○, 43, 회사원)<br/>40대가 되면 대부분 조직 내 관리자의 위치에 오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가려면 후배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하죠. 개중엔 여전히 강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바깥으로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조직이라는 공간은 그런 배려를 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버릇없는 후배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밉니다. 40대들이 중요하게 여긴 의리나 책임감도 요즘 20, 30대에게는 안 통합니다. 출근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br/>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면 본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3단계를 제안합니다. 먼저 ‘그럴 수도 있겠다’,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인정하세요. 상대에게 표현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든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해주기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다독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난 이걸 원한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표현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데 이 방법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렇질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br/>나의 고민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를 누군가가 굳이 대신 해결해줄 것이 아니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마음의 문을 닫곤 하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내가 약해지면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 것’이라고 여겨 불안해합니다. 그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br/><br/>Q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기, 마흔이 됐지만 제 삶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김○○, 40, 군인)<br/>나이 듦과 상관없이 남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마음은 20대인데 체력이나 현실적인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다 보니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흔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벌어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이들은 이상을 좇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오랜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회의감 탓에 일상이 퍽퍽합니다. 희망과 환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걸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여자와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도 성공할 거 같고… 그런 환상을 갖지 마세요. 삶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하세요.<br/>우리나라 남자들의 경우 30~50대에 우울증 비율과 공황장애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우울증은 여자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잠이 오질 않는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다, 건강검진엔 이상이 없는데 몸이 피곤하다 등 다른 원인을 이유로 찾습니다. 우울감을 회복하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나이를 먹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최소 3~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좋아집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고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증상이 완화될 것입니다.<br/><br/>Profile<br/>김병수 전문의는…<br/>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 최초로 이라크 자이툰 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KBS-2TV ‘남자의 자격’에서 ‘남자, 그리고 중년의 사춘기’라는 미션으로 출연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명쾌한 분석을 들려주기도 했다.<br/><br/>예전 같지 않은 제 모습이 비참하고 아내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0.txt

제목: ‘미생’의 밉상 쌍두마차…‘하 대리’ 전석호& ‘성 대리’ 태인호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1100000076  
본문: 근래 드라마에서 이토록 눈길을 끄는 조연이 또 있었나 싶다. 놀라울 만큼 직장인의 모습을 실감 나게 연기해 인기 드라마 tvN ‘미생’의 신 스틸러로 등극한 하 대리 역의 전석호(31), 성 대리 역의 태인호(35) 얘기다.<br/><br/>그 간 브라운관에는 멋있고, 착하고, 능력 있는 비현실적인 실장님들이 충분히 넘쳐났다. “<span class='quot0'>대체 어떤 회사에 저런 실장이 있어?</span>” 하고 하품이 날 때쯤 ‘미생’ 속 ‘대리님’들의 등장은 몹시 신선했다. 후배에게 툭하면 고함을 지르고 업무를 떠넘기며 공을 가로채는 등 무척이나 현실적인 그 캐릭터들의 열연 덕에 ‘미생’은 리얼리티를 획득했고 훨씬 풍성해졌다. 특히 하 대리, 성 대리는 후배 안영이, 한석율과 갈등을 빚는 ‘밉상 캐릭터’로 등장해 아슬아슬하면서도 쫀쫀한 재미를 선사했다. 어쩜 저렇게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직장 상사 역을 태연하게 잘해내는지 두 남자의 화면 밖 모습이 몹시 궁금했다.<br/><br/>밉상 캐릭터에 대한 변명<br/>‘미생’ 팬들 사이에서 ‘암 유발자’로 불리기도 할 만큼 얄미운 연기가 일품이다.<br/><br/>태인호(성 대리) 그거 내 얘기지? 초반에는 성 대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웃음). 애초부터 한석율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대본을 보고 나도 깜짝깜짝 놀랐다. 매니저를 통해 들었는데 극 중 한석율(변요한 분)에게 ‘소시오패스’라고 호통쳤을 때 그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 직장인들에게 성 대리 같은 캐릭터가 이토록 파란을 일으킬 줄은…. 그때 느꼈다. ‘내가 좀 더 얄밉게 해야겠구나’ 하고.<br/><br/>전석호(하 대리) 드라마 초반에는 내가 더 욕을 먹었다. 그러다가 마 부장님으로 옮겨갔다가 이제는 인호 형에게 ‘욕 지분’이 몰렸다(웃음). 하 대리는 후반부로 가면서 좀 덜 밉지 않나? 그런데 정말 싫어할 만한 캐릭터는 마 부장님 아닌가 싶다. 마 부장님은 내가 봐도 좀 심하다.<br/>태인호 맞다. 난 그 정도는 아니다.<br/><br/>하 대리, 성 대리 역할을 다른 배우들이 할 뻔했다고 들었다.<br/>전석호 지난 8월 연극 공연과 ‘미생’ 촬영 시작이 겹쳐서 출연 못할 뻔했다. 웹툰을 워낙 재미있게 봤던 터라 관심이 있었지만 무대를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날짜가 겹쳐서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 나는 그냥 ‘내 것이 아니었나 보지 뭐’ 하고 넘겼는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왔다. 두 번이나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감독님을 뵈러 가서 3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다. 감독님이 정말 좋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여건상 못할 것 같다고 직접 말씀을 드렸다. 감독님이 공연이 끝날 때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시더라. 기대는 안 했는데, 공연 마지막 날 감독님에게 진짜 전화가 온 거다. “내일부터 출근해”라고.<br/><br/>태인호 나는 처음에는 강 대리(철강팀 장백기의 선배) 역할로 오디션을 봤다. 그런데 감독님이 갑자기 성 대리 대사를 해보라고 주시더라. 짤막한 대사였는데, 그 뒤에 성 대리로 결정됐다. 내 얼굴이 선하게 생겨서 성 대리처럼 나쁜 행동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오히려 반대의 이미지니까 성 대리 역을 맡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셨다.<br/><br/>각자 맡은 밉상 캐릭터에 대한 나름의 설정이 있었을 것 같다.<br/>전석호 나는 하 대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을지 몰랐다. 그냥 ‘그래, 회사에 이런 사람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연기했다. 하 대리에 대해 변명을 좀 해본다면, 이 친구는 진짜 일밖에 모른다. 일 외에는 딴 생각을 거의 안 한다. 안영이가 트럭을 몰았다는 걸 알았을 때 고래고래 욕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는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하 대리는 사수 입장에서 화가 났을 거다. 안영이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이 서툰 면이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시청자들이 하 대리를 좋아해주기 시작하더라. 진짜 안영이를 걱정해서 화냈다는 걸 느낀 거겠지.<br/><br/>태인호 성 대리는 여자를 좋아한다(웃음).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후딱 처리하거나 한석율에게 시킨다. 항상 여자와 어울릴 궁리, 친구들과 놀 궁리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사실 성 대리 역할을 하면서 정말 재밌다. 요즘은 ‘성 대리는 지금 뭐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다른 역할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동안 안으로 감정을 누르는 역을 주로 했는데, 성 대리는 자기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연기하기에 무척 재밌는 인물이다.<br/><br/>전석호 성 대리도 그렇고, 하 대리도 그렇고 작가님과 감독님이 캐릭터를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연기하는 입장에서 더 재미있다.<br/><br/>대리들끼리도 친해졌다고 들었다.<br/>태인호 시무식 회차 때 회사 옥상에서 대리들이 모이는 신이 있었다. 그날 촬영이 일찍 끝났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다 같이 맥주 한 잔 하면서 친해졌다. 극 중에서는 부딪히는 신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진짜 반갑더라.<br/><br/>전석호 대리들 중에서 내가 막내라서 대표로 대리 6인방 형님들 번호를 다 받아서 채팅방을 만들었다. 우리끼리는 더 오래 가자는 얘기도 자주 한다. 사실은 인터뷰 제안이 왔을 때도 대리들 방에 올려서 형들에게 “「레이디경향」에서 인터뷰하자는데 할까?” 하고 의견을 물어봤다. 다들 만장일치로 “당연히 해야지!” 하더라. 김 대리 역의 (김)대명이 형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농담도 하고(웃음). 나는 소속사도 없고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도 처음이라 형들에게 많이 물어본다. 사실 인호 형과 같이 인터뷰한다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았다.<br/><br/>태인호 석호가 형들에게 애교도 피우고 먼저 편하게 다가오고 붙임성 있게 잘한다. 하 대리와는 다르게 귀여운 구석이 있다.<br/><br/>시끌벅적 자원팀이 부러운 섬유팀<br/>자원팀, 섬유팀의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br/>태인호 석률이로 나오는 변요한은 나와 비슷한 면이 있다. 둘 다 조금 내성적이라고나 할까? 석률이가 촬영장에서 가끔 혼자 앉아 대본을 보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아, 지금은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멀리서 바라만 본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더 친해지고 싶고 그렇다. 촬영 끝나고 고생했다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편이다.<br/><br/>전석호 스태프들이 인호 형과 요한이를 나란히 앉혀놓고 막 서로 이야기하라고 장난을 치기도 한다.<br/><br/>태인호 그러면 더 어색해진다고!<br/>전석호 자원팀은 얼굴만 셋이지, 몸은 하나다. 정 과장, 유 대리, 나 이렇게 셋이서 샴쌍둥이처럼 꼭 붙어 다닌다. 그러고 보니 극 중과 실제가 비슷해졌다. 안영이만 빼놓고 다니는! 실은 안영이 역의 강소라씨와도 물론 더 친해지고 싶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성격도 좋고 착하다. 다 남자들이다 보니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면은 극 중 자원팀 남자들과 비슷하다. 우리도 이제는 안영이를 완전히 팀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무래도 남자들 틈에 여자 한 명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지.<br/><br/>태인호 자원팀이 대기실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나도 자원팀으로 옮기고 싶다(웃음). 대기실에서 제일 시끄러운 팀이다.<br/><br/>시청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난 배우들이다. ‘미생’ 이전은 어땠나?<br/><br/>전석호 주로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다. 공연을 정말 좋아한다. 5, 6년 전부터 극단 연우무대에서 창작극을 주로 했다. 인도 여행기를 그린 창작극 ‘인디아 블로그’를 할 때는 배우뿐만 아니라 공동 창작자로도 참여했다. 한 달 동안 인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 소스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었다. 2인극이라 주변에서는 힘들겠다고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오롯이 무대에 서 있던 나는 정작 힘든 줄도 모르고 신나게 했다. 이후에 ‘조난자들(제33회 하와이영화제 대상 수상에 이어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 잇달아 초청됐다)’이란 영화에도 출연했는데, 그래도 난 태생이 연극 무대다. 드라마는 ‘미생’이 처음이다.<br/><br/>태인호 나도 드라마에서 이렇게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건 처음이다. 고향인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연극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영화를 해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다. 영화는 배우를 시작할 때부터 막연한 로망 같은 존재였다. 대규모 상업영화는 아니지만 독립영화 작업을 꾸준히 했고(영화 ‘해운대’, ‘신세계’, ‘영도’ 등에 출연한 11년 차 배우다). 얼마 전 개봉한 ‘국제시장’에도 출연했다. 황정민 선배의 아들 역할이다. 거기서도 약간 얄미운 성격으로 나온다.<br/><br/>전석호 하하하. 형은 참 일관성 있는데!<br/><br/>혹시 ‘미생’에서 한 번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나?<br/>전석호 오 차장! 당연히 오 차장 역이다. 주인공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캐릭터를 풍부하게 그려낼 수 있는 역이라 배우로서는 정말 탐난다. 그리고 최 전무 역할도 재미있을 것 같다. 현장에서 보면 최 전무 이경영 선배님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다.<br/><br/>태인호 다른 역할은 크게 욕심이 안 나는데, 이성민 선배가 맡으신 오 차장 역은 정말 매력이 있다. 나이를 더 먹으면 해보고 싶다.<br/><br/>부모님에게 기쁨을 준 ‘미생’<br/>‘미생’ 출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br/>태인호 아버지가 무뚝뚝하시고 표현이 없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촬영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나를 보고 씨익 웃으신다. 부모님께서 ‘미생’ 재방송까지 보고 또 보시면서 “저 사람은 어떻노? 쟤는 어떻노?” 계속 물으신다.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싶긴 한데 “오늘 하 대리 만났는데 되게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시니까 나도 신나서 계속 보고를 하게 되더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고, 현장에서 좋은 배우들 만나게 된 것도 정말 좋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께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구나 싶어서 이 드라마에 참 감사하다.<br/><br/>전석호 나도 비슷하다. 그동안 나한테는 좋아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일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눈으로 성과가 확인이 안 되니까 답답하셨을 수도 있다. 그런데 TV의 힘이 참 대단하다. 화면으로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좋으신가 보다. “뭘 또 봐! 아까 봤다며!” 하고 면박을 줘도 계속 보신다. ‘우리 아들이 미생에 나온다’라고 자랑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 안영이에게 화내듯이 엄마에게도 그러지 마시라고 막 화를 낸다. 누구에게 뽐내고 그러는 게 부끄럽고 민망해서 싫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좋지만 ‘미생’으로 지금 관심을 받는다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고, 또 누군가는 공장에 나가는 것처럼 나는 그냥 연기를 하는 거다.<br/><br/>태인호 멋있는데?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웃음).<br/>전석호 사실 짠하기도 하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연극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는 참 못했구나 싶어서. 남들이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서 성과급 받고 이럴 때 그런 소소한 재미도 못 드렸으니까. 제일 짠할 때가 엄마가 새벽에 재방송을 보다가 졸고 계실 때다. 엄마를 붙잡고 울고 싶기도 하다. 미안해서. 지금 이렇게 관심받는 것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듯 쭉 좋지만은 않을 테니까.<br/><br/>하 대리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br/>전석호 맞다. 나도 하 대리처럼 표현을 잘 못한다. 엄마에게도 그렇고. 엄마와 친구처럼 친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예쁘게 표현하진 못한다. 하 대리처럼 버럭 하지. 특히 여자들에게 표현을 더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원래 입도 걸걸하고 목소리도 크니까 더 조심스럽고, 낯간지러운 걸 진짜 싫어한다. 연애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었다. 크리스마스카드를 줄 때도 그냥 카드만 사서 준다.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 있지 않나. 달콤한 말 같은 건 절대 못 쓰겠다. 대학 다닐 때 여자 후배들에게도 그랬다. 하 대리는 일 앞에서 여자라고 봐주는 건 없다. 나도 그런 편이다. 그런 면은 하 대리와 똑같다.<br/><br/>성 대리는 여자들과 통화할 때 다정하던데, 실제 태인호도 그런가?<br/>태인호 어휴, 성 대리처럼 “오빠야~” 이런 건 못 한다. 나도 석호와 비슷하다. 표현을 잘 못한다.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생각하면서 절절 끓어도 겉으로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못한다. 나는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서 정말 미안하거나 고마울 때는 손편지를 쓴다.<br/><br/>일을 안 할 때는 주로 뭘 하나?<br/>전석호 난 워커홀릭이다. 일이 없을 때도 계속 연기 생각, 공연 생각만 하는 것 같다. 관심 분야가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 공연도 거의 쉬지 않고 쭉 이어서 하는 편이다. 공연과 공연 사이에 잠깐 쉴 때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과 모여서 다음엔 또 무슨 작업을 해볼까, 하고 작당 모의를 한다. 종종 종로에 내려서 대학로까지 걸어가곤 한다.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하고, 바람도 쐬고, 햇빛도 쬐고 그러면서 잠깐씩 쉬는 거다.<br/><br/>태인호 쉴 때는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에 잘 가는 편이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시는 것도 좋고 만드는 것도 좋다. 단역배우로 일하면서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커피에 완전히 푹 빠졌다. 마침 일도 많이 없었기에 커피 공부를 했다. 맛있다고 소문난 카페는 거의 다 돌았다. 바리스타 일을 배우면서 커피의 맛을 자유자재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반해버린 거다(인터뷰하는 카페에서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어떤 원두를 쓰는지 대번에 알아맞혔다).<br/><br/>진짜 회사원이 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br/>전석호 나는 회사를 다녀도 잘 적응할 것 같다. 지옥의 출퇴근길만 빼면. 배우는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혼자라서 자유롭지만 혼자라서 외롭다. 지금처럼 드라마를 하면서 인호 형같은 좋은 동료도 만나긴 했지만 형에겐 형의 길이 있고, 나에겐 나의 길이 있다. 배우들은 다 그렇다.<br/><br/>태인호 직장생활이란 걸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다. 배우는 그렇게 조직에 속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정말 궁금했다. 현재 ‘미생’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중이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세트장에 들어서면 기분이 ‘탁’ 하고 전환된다. ‘회사원 연기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게 회사원 성 대리가 된다.<br/><br/>두 배우에게 ‘미생’은 어떤 직장이었나?<br/>전석호 우연히 받게 된 기분 좋은 선물!<br/>태인호 갈 때마다 즐거웠던 최고의 직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1.txt

제목: [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가난과 편견… 할아버지가 지켜낸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날짜: 2015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1011001590271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건국훈장 애족장’ 이승연 선생의 손자 이무열씨</strong><!-- SUB\_TITLE\_END--><br/><br/><b>▲ “만주서 동분서주한 조부 생전 고향땅 결국 못 밟아<br/>손자 고생 끝에 귀국했지만 대 이어 못 배우고 못 살아”</b><br/><br/>그런 말을 하는 동생도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을 하지, 왜 항일운동을 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어놨나. 친일파들은 다들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br/><br/>그래도 독립운동가 이승연 선생(1889~1956)의 손자 이무열씨(65)는 아직도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잊어버린 ‘국치일(國恥日)’까지 꼬박꼬박 챙긴다.<br/><br/><br/>이씨의 할아버지 이승연 선생은 1919년 3월21일 경북 안동 편항시장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이 선생과 시위 군중은 주재소까지 달려가 유리창과 책상, 의자를 부수고 서류를 파기했다. 일본 경찰로부터 총칼과 제복을 뺏어 우물에 버렸다. 이 선생 등은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모닥불을 피우며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자진 해산했다. 이 선생은 이 일로 2년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br/><br/>1939년 이 선생은 4남매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갔다. 옥고를 치른 뒤 일본과 중국을 떠돌며 동분서주했지만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을 견디기 어려웠다. 가족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오상현(五常縣)에 둥지를 틀었다. 막막한 황무지에 물을 대고 한국식 논농사를 일구기까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생은 서당을 열어 함께 온 조선 아이들을 가르쳤다.<br/><br/>이 선생은 생전에 광복을 맞았지만 곧이은 분단으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1956년 중국에서 눈을 감았다. 이무열씨의 부친은 이 선생의 막내아들이다. 이씨의 부친은 어릴 적 장티푸스를 앓았다. 병원 한 번 못 가고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얻은 탓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다행히 계산이 빠르고 글씨를 잘 써서 공산당 관리들 밑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산해 주는 등의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br/><br/>“한겨울에도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닐 정도로 가난했죠. 눈밭을 걷다 보니 신발이 안 보였어요. 되짚어 보니 눈에 거꾸로 박혀 있는 겁니다. 결국 신발 두 짝을 손에 들고 학교까지 가는 바람에 발이 동상에 걸려 겨우내 학교를 못 갔지요.”<br/><br/>옷은 하도 기워 입어 본판이 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씨는 1970년 결혼식 때도 군데군데 기운 바지를 입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혼 비용이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 설상가상으로 이씨의 어머니도 풍습성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1996년에, 아버지는 한 해 뒤에 세상을 떠났다. 이승연 선생과 그의 아들 내외는 생존 당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1996년 이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을 뿐이다. “아버지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은 게 전부였지요. 1997년에 한국에 나오신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암으로 눈을 감았습니다.”<br/><br/>순탄치 못한 삶은 3대에 걸쳐 이어졌다. 이씨는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毛澤東)을 비판했다가 발각돼 3년 가까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 학업도 중학교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사업을 전전했지만 실패하고 돈만 날렸다. 나중에는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KBS 사회교육방송을 빠짐없이 챙겨 들으며 조국을 잊지 않았다.<br/><br/>이씨는 2000년 한국행을 택했다. 형제자매와 사촌 등 9명이 함께 왔지만 정착지원금 3500만원, 임대아파트 1채만 지급됐다. 임대아파트는 먼저 한국에 온 사촌에게 내 주고 공장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 일은 닥치는 대로 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은 기본이었고 사출 공장이나 서적 포장 라인에서도 일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병마였다. 서울 가리봉동 아웃렛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닦으면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일한 게 화근이었다. 병원에 갔더니 관절이 찢어진 청바지처럼 너덜너덜해졌다고 했다. 좀 나아진다 싶더니 탈장 수술을 해야 했고 허리 디스크까지 왔다. 지난해에는 전립샘암까지 덮쳤다. <br/><br/>“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데 우리가 3대째요. 그런데 친형제와 사촌까지 합쳐 10여명 남매 중에서 고졸도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4대째까지도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죠.” <br/><br/>이씨는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 <중국과 중국교회>라는 책을 쓸 정도로 학업에 대한 욕구가 컸지만 생계 때문에 제대로 잇질 못했다. <br/><br/>대접은 바라지도 않지만 차별은 서럽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일당 10만원 줄 것도 7만~8만원밖에 안 준다</span>”고 했다. “<span class='quot1'>형제 중에 둘째도 몸이 안 좋아 쉬고 있고 막내 여동생도 몸이 다 망가졌어요….</span>” 말을 잇지 못하는 이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암이 온 집안을 총공격하는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남동생이 위암, 재작년에는 큰 여동생이 자궁암, 작년에는 나한테 전립샘암이 오고….”<br/><br/>정부나 사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뭘 해 줘야 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건 말 안 한다”고 했다. “한 번씩 행사에 다녀오면서 나눠 주는 태극기를 집에 갖다놔요. 7살짜리 막내 손자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그걸 보더니 ‘대한민국’ 고함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싶었어요. 얘네들에겐 우리 같은 일 없도록 해야지.”<br/><br/><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2.txt

제목: SBS ‘8시 뉴스’ 하차 김성준 앵커 “결국 촌스럽게 글 남깁니다”  
날짜: 2014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3110015901973  
본문: 31일을 끝으로 SBS <8시 뉴스>에서 하차하는 김성준 앵커(49·사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청자들을 향해 클로징 코멘트를 남겼다.<br/><br/>김 앵커는 이날 오전 SNS에 “<span class='quot0'>결국 촌스럽게 흔적을 남깁니다</span>”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br/><br/>김 앵커는 폐암에 걸려 생애 마지막 앵커 맨트를 한 피터 제닝스를 언급하며 “<span class='quot0'>암에 걸린 게 아니고, 나쁜 앵커도 아니고 (아마도) 더구나 방송을 떠나는 것 역시 아니어서 천.만.다.행</span>”이라고 말했다.<br/><br/><br/><br/>그러면서 “SBS 드라마 <피노키오>의 ‘나쁜 앵커’ 송차옥이 ‘<span class='quot3'>제가 오늘 뉴스타임즈를 떠납니다</span>’라고 클로징 멘트를 하던 성탄 전야에, 저도 곧 앵커에서 물러난다는 발표가 났다. 오늘이 그 날”이라고 밝혔다. <br/><br/>이어 “뉴스를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건 지인이거나 가까운 취재원이었던 분들을 특정해서 비판해야 했던 경우였다”며 “제가 대단히 정의로워서 사사로운 인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다. 해야 할 말을 안하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갔다가 시청자들 질책을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br/><br/>김 앵커는 “저는 언젠가 찾아올 오늘을 상상하면서 오래 전 결심한 게 하나 있다”며 “‘피터 제닝스처럼 온 몸으로 감동을 선사할 자신이 없으면 무슨 대단한 일 하고 떠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자. 떠나는 자리에 촌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말자’ 그런데 막상 그 날을 맞고 보니 이런 결심 자체가 호사(豪奢)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br/>김 앵커는 이어 “<span class='quot0'>마지막 클로징도 지나간 매일들과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31일 오늘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혹시 저녁때 시간되시면 ‘본방 사수’도 고려해 달라</span>”고 시청자들에게 주문했다.<br/><br/>2011년 3월21일부터 <8시 뉴스> 메인 앵커를 맡아온 김성준 앵커는 현안 마다 일침을 가하는 클로징 코멘트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br/><br/>앵커를 맡은 방송 첫날에도 “<span class='quot1'>SBS ‘8시 뉴스’는 앵커가 바뀌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뉴스의 진실을 찾고 파헤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려는 노력이다</span>”라는 클로징 멘트를 남겼었다. 김 앵커의 후임으로 신동욱 앵커가 1월1일부터 <8시 뉴스>를 진행한다.<br/><br/><br/><br/><br/><br/>다음은 글 전문<br/><br/><br/><br/><<span class='quot0'>결국 촌스럽게 흔적을 남깁니다</span>><br/><br/><br/><br/>지금은 세상을 떠난 ABC 뉴스 앵커 피터 제닝스가 생애 마지막 앵커 멘트를 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이미 반쪽이었고 목소리는 심하게 쉬었지만 특유의 품격과 위트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br/><br/>“<span class='quot2'>제가 폐암에 걸렸다고 통보 받았습니다.</span>”<br/><br/>SBS 드라마 피노키오의 ‘나쁜 앵커’ 송차옥이 “<span class='quot3'>제가 오늘 뉴스타임즈를 떠납니다</span>”고 클로징 멘트를 하던 성탄 전야에, 저도 곧 앵커에서 물러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br/><br/>암에 걸린 게 아니고, 나쁜 앵커도 아니고 (아마도…), 더구나 방송을 떠나는 것 역시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br/><br/>뉴스는 기자들이 만드는 것이고 앵커는 그걸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앵커가 스스로 빛나려고 욕심내면 뉴스가 빛 바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 뉴스를 맡고 나서 넥타이도 가급적 어둡거나 무채색인 걸로 골라 매왔습니다. <br/><br/>다만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그날 그날 뉴스에 소개한 중요한 가치에 대해 좀 더 강조해보려는 욕심을 냈던 건 인정합니다. 그 가치들 가운데 가장 반복적으로 힘을 줬던 게 소통과 배려, 그리고 다양성이었습니다.<br/><br/>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SBS가 뽑은 2014년의 단어는‘분노’ 였습니다. <br/><br/>분노 앞에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br/><br/>이제는 논리보다 소통이 우선인 시댑니다. 저는 정부와 정치권이, 또는 대립하는 개인과 집단이 자기 주장의 날만 세우지 말고 소통부터 하기를 바랐습니다. <br/><br/>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친구가 되면 그 뒤엔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친구니까 맞는 말 일거야”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br/><br/>보육시설 아이들 한끼 밥값이 또래 초등학생 급식비의 반토막 수준이라던 뉴스 기억나시는지요. <br/><br/>시민단체가 아우성쳤더니 정부가 달랑 100원 올려주기로 했는데 여야가 싸우느라 예산처리시한을 놓쳐서 그나마도 무산됐습니다. <br/><br/>SBS 취재팀은 이 뉴스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br/><br/>그 아이들 건강검진을 받게 해서 열에 아홉 꼴로 빈혈이라는 사실도 파헤쳤습니다. <br/><br/>국회가 100원 올려주고 손 털려고 할 때 저희는 또 비판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 밥과 찬이 그럭저럭 먹을 만 해졌습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배려하는 세상에 한 걸음은 다가간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br/><br/>다양성은 조금 논쟁적인 가치였습니다. <br/><br/>경쟁 제일주의 사회, 내 밥그릇 챙기기도 버거운 분들 앞에서 다양성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br/><br/>하지만, 회식가면 “짜장면으로 통일”을 외치는 문화, 우리 대학 우리 기수 우리 지역 출신 아니면 끼어주지 않는 문화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r/><br/>미래를 살아갈 경쟁력은 창의성뿐인데 창의성의 원천은 다양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br/>외국인 엄마를 둔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그 집 가서 외국 음식도 맛보고 외국어도 몇 마디 배울 수 있을 텐데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왕따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반론도 많았지만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br/><br/>뉴스를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건 지인이거나 가까운 취재원이었던 분들을 특정해서 비판해야 했던 경우였습니다. <br/><br/>제가 대단히 정의로워서 사사로운 인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안하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갔다가 시청자들 질책을 받으면 정신이 버쩍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br/><br/>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br/><br/>경찰조직의 비리를 꼬집고 난 다음 날 한 경찰관의 아내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br/><br/>‘박봉에 위험까지 감수하며 국민에 봉사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남편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왜 조직 일부의 잘못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다녀야 하나요?’ 제 말 한마디에 애꿎은 이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철없는 앵커가 흥분해서 뜻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소란만 피운 경우가 잦았습니다. 반성했습니다.<br/><br/>시청자 여러분이 주신 사랑은 한 가슴에 안기 무거웠습니다. <br/><br/>그동안 제가 받아온 사랑은 사실 밤낮으로 현장을 뛰면서 진실을 찾아 헤매온 모든 SBS 뉴스 구성원들 몫입니다. <br/><br/>그동안 SBS 8 뉴스가 야단 맞을 게 있었다면 그건 제 몫으로 짊어지겠습니다. 실향민의 아들이 ‘종북 앵커’라는 기상천외한 욕까지 들어 봤는데 애정 담긴 질책이야 주시면 주실 수록 고마울 겁니다.<br/><br/>자 이제 마지막 클로징 얘깁니다. <br/><br/>저는 언젠가 찾아올 오늘을 상상하면서 오래 전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br/><br/>“피터 제닝스처럼 온 몸으로 감동을 선사할 자신이 없으면 무슨 대단한 일 하고 떠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자. 떠나는 자리에 촌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말자.” 그런데 막상 그 날을 맞고 보니 이런 결심 자체가 호사(豪奢)였던 것 같습니다.<br/><br/>그래서 더욱 결심대로 갑니다. 마지막 클로징도 지나간 매일들과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31일 오늘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녁때 시간되시면‘본방 사수’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고맙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3.txt

제목: [사회공헌 특집]아모레퍼시픽 - 여성 암 환우 메이크업 봉사로 ‘희망 전달’  
날짜: 2014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30100000110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여성의 미에 특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공헌도 ‘뷰티케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 암환우의 메이크업과 피부관리를 돕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이 공헌사업도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여성암환우에게 메이크업·피부관리 기술을 전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암환우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관리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 서울대병원에서는 유방암을 이겨낸 개그우먼 이성미씨를 초청해 토크쇼를 개최, 180여명의 암환우를 대상으로 내외면의 아름다움의 중요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10월과 11월, 전국 총 20개 병원에서 하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br/><br/>아모레퍼시픽은 올해 한국예술원과 함께 캠페인 현장에 참여하는 여성 암환우들이 쉽게 따라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암환우를 위한 스킨케어 방법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한국예술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음악, 영상, 율동 등을 제작했다. 한국예술원 홈페이지,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포털인 ‘Make up your life’ 사이트(www.makeupyourlife.net) 등에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4.txt

제목: [사회공헌 특집]아모레퍼시픽 - 여성 암 환우 메이크업 봉사로 ‘희망 전달’  
날짜: 2014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910015887190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여성의 미에 특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공헌도 ‘뷰티케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 암환우의 메이크업과 피부관리를 돕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이 공헌사업도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여성암환우에게 메이크업·피부관리 기술을 전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암환우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관리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 서울대병원에서는 유방암을 이겨낸 개그우먼 이성미씨를 초청해 토크쇼를 개최, 180여명의 암환우를 대상으로 내외면의 아름다움의 중요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10월과 11월, 전국 총 20개 병원에서 하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br/><br/>아모레퍼시픽은 올해 한국예술원과 함께 캠페인 현장에 참여하는 여성 암환우들이 쉽게 따라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암환우를 위한 스킨케어 방법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한국예술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음악, 영상, 율동 등을 제작했다. 한국예술원 홈페이지,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포털인 ‘Make up your life’ 사이트(www.makeupyourlife.net) 등에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5.txt

제목: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한방요법으로도 다스린다  
날짜: 2014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910015887108  
본문: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환자의 발병빈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상포진은 바늘로 찌르는 극심한 통증과 피부에 수포성 물집이 함께 동반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져 발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초기에 항바이러스, 소염진통제등으로 치료하고 있다.<br/>&#160;<br/>한방에서는 대상포진의 원인을 신경성 어혈, 습담 즉 독소가 신경에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켜 발병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맞게 초기에 한약 및 청혈해독요법으로 어혈을 풀어주어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면 후유증 없이 개운하게 나을 수 있으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br/>&#160;<br/>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있거나 병후 암, 디스크 등 기타 질병 수술 후 몸이 원기가 떨어지고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초기에 낫지 않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남아 수년, 수십 년 극심한 통증을 받는&#160;경우가 많다.<br/>&#160;<br/>대상포진이 초기 1개월 내 낫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대상포진후유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근원적인 치료법이 없으니 대증치료로 마약성진통제, 항경련제 약물 등을 처방하고 신경차단술 통증치료를 하고 있으나 약물복용 및 신경차단술 통증치료 신경을 마비시켜서 오히려 비만 등 성인병을 유발하여 수명 단축하는 부작용이 오게 된다.<br/>&#160;<br/>부산 재호한의원 서재호원장은 대상포진이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도 한약 청혈해독요법 및 침, 약침 등의 근원적인 한방치료로 완치 및 재발방지를 도와주고 있으며, 수년간 고생하는 환자들도 한방치료로 많이 완치 및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br/>&#160;<br/>대상포진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대상포진 발병의 원인이 되는 피를 탁하게 하는 음식 즉 인스턴트, 육류, 음료수, 술, 담배, 찬 음식 등을 삼가고,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유산소운동과 충분한 수면,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6.txt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가능해질까  
날짜: 2014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810015880111  
본문: 보건당국이 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접종 여부를 내년부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교적 비싼 비용을 부담할만한 암 예방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등이 관건이다.<br/><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포함할지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span>”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판매중인 자궁경부암 백신은 ‘가다실’과 ‘서바릭스’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40여개국은 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한 상태다.<br/><br/>그간 30~50만원(3회 접종)의 접종 비용에 비해 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비용 대비 효과성은 ‘질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명’이 1년 느는데 2000만원~3000만원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금액보다 부담액이 크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없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담액은 3200만원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br/><br/>부작용 논란도 있다. 해당 백신을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백신접종 후 원인불명의 만성적인 통증, 보행장해 등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권장’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br/><br/>하지만 최근 가다실과 서바릭스 모두 소아에게는 3회가 아닌 2회만 접종해도 되도록 기준이 낮아져 비용이 3분의 2로 줄게 되면서, 판세가 달라지고 있다. 국내외 보건당국은 가다실은 9∼13세 남녀, 서바릭스는 9∼14세 여아에게 2회만 접종해도 된다고 승인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이달 초 발표한 새 지침에서 9∼13세 여아는 2회만 접종받도록 권고했다.<br/><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2회 접종으로도 충분해지면서 비용 부담이 낮아진 데다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확대돼 자궁경부암 백신의 우선순위도 많이 당겨진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1'>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예방접종사업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7.txt

제목: [건강]화끈·따끔… 남들은 모르는 ‘입안의 불덩이’ 구강작열감증후군 늘어  
날짜: 20141226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6100000040  
본문: 혀, 입천장의 앞쪽, 입술 등이 화끈거리고, 쓰리거나 따끔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때로는 입안이 마르거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복합적 증상을 겪기도 한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입안의 이물감과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증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에는 음식물을 먹는 것이 힘들어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수면장애가 심해지거나 우울증상이 생기기도 한다.<br/>서울대 치과병원 진료통계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1만5727명의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2004년 29명에서 2013년 3026명으로 환자가 급증했다. 여자가 1만3116명으로 남자(2611명)의 5배나 됐다. 80%가 50·60·70대 환자였다.<br/>서울대 치과병원 구강내과 고홍섭 교수는 “<span class='quot0'>50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 10명 중 1~2명이 경험할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0'>고령 인구 및 만성질환자·약물복용자 증가로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span>”고 분석했다.<br/><br/>고 교수에 따르면 혀나 구강점막에 가해지는 만성적인 자극이나 구강건조증, 빈혈·당뇨·비타민 부족 등 만성질환을 앓거나 수면장애 및 불안, 우울증 등이 감각신경계의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다.<br/>격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적 요인도 입안 통증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원인이 되는 정신과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 특히 폐경기를 거치면서 불안·초조감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여성들은 구강작열감증후군에 걸리기 쉽다. 또 구강암과 같은 암 질환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많이 나타난다.<br/>구강작열감증후군은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 혈당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빈혈인 줄 미처 몰랐던 환자들은 당뇨와 빈혈을 치료하면 입안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구강작열감이 더 심해진다. 이럴 때는 인공타액을 사용하거나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에 곰팡이가 많이 자라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때는 균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향진균제를 쓴다.<br/>구강건조감이 뚜렷할 경우 입안에 물기를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수분이 많은 음식이나 채소 섭취, 무설탕 껌을 조금 씹는 것이 좋다. 침을 의도적으로라도 짜내어 타액의 부족을 줄인다. 매운 음식이나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해야 한다. 혀에 불편감이 있을 때 혀를 치아에 자꾸 대보거나 문질러 보는 것도 삼가야 한다.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을 받고 불안감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br/>고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기에 발견해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만큼 제때 치과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8.txt

제목: 중년 33명 ‘거시기 남성중창단’ “이웃 위해 따뜻한 노래 불러요”  
날짜: 20141226  
기자: 정유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6100000082  
본문: 때가 꼬질꼬질한 깜장 교복에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거리를 쏘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세계 철학사> 등과 같은 금서를 읽으며 세상에 눈뜨고, 시대의 아픔을 알게 됐다. 1980년대 초 ‘아침 이슬’을 숨죽여 부르던 까까머리 고교 동창생들은 “배불뚝이가 되고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도 가슴 따뜻한 노래를 부르자”고 다짐했다.<br/>기억 속에 봉인돼 있던 고교 동창생들의 약속이 중년의 나이가 돼서야 지켜졌다. 중년 남성 33명이 결성한 ‘GSGQ 중창단’(거시기 남성중창단·Geo Si Gi Quartet)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정동 구세군회관에서 고아와 독거노인, 미혼모 등 600명에게 희망의 노래를 선물했다.<br/><br/>“모두 팍팍한 현실을 잘도 버티고 이겨냈더군요. 이제라도 노래로 세상을 밝혀보자고 했지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마음만은 10대 청년이지요.”<br/>방송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박주씨(52)는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며 “연말 바쁜 일정에도 연습장으로 달려오는 단원들을 보면 기적이 따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br/>이들이 음악으로 다시 뭉친 것은 10년 전인 2004년 말이었다. 고교 동창생 5명이 오랜만에 모임을 갖고 사는 얘기를 나누다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부딪치는 술잔 가득 화음이 넘쳤다. 테너와 바리톤, 베이스 등 4중창으로 부른 ‘아침 이슬’ ‘그날’ ‘보리밭’ 등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br/>곧바로 친구찾기에 나섰다. 의사, 변호사, 교수도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은 친구도 있었다. 대학 시절 운동권에서 지금은 야권 활동가로 일하는 고교 동창도 있었다. 이들은 중창단 이름을 ‘GSGQ’로 지었다. 매주 금요일밤 2시간씩 연습을 했고 연말이면 불우 이웃돕기 공연에 나섰다. 2005년 8명이던 중창단원은 10년 만에 33명으로 늘었다.<br/>물류사업가 김상우씨(52)는 “<span class='quot0'>시간이 날 때마다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무대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운증후군을 앓는 어린이들과 크리스마스 합동 공연을 할 때는 눈물이 쏟아져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br/>회사부도로 개인사업을 준비 중인 윤기풍씨(52)는 “세상에 눈이 내리면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게 된다”며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br/>올해로 10년째 연말 이웃돕기 공연에 나서고 있는 GSGQ는 강추위가 닥친 지난 19일 서울 명동 자선냄비 앞에서 공연을 했다. 적지 않은 성금도 보탰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장 김윤식씨(52)는 “<span class='quot1'>내년에는 가난한 음악 영재들을 위해 장학사업도 펼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겠냐</span>”고 음을 뗐다.<br/>“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29.txt

제목: 중년 33명 ‘거시기 남성중창단’ “이웃 위해 따뜻한 노래 불러요”  
날짜: 2014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51001587133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독거노인 등 600명 초청 공연</strong><!-- SUB\_TITLE\_END--><br/><br/>때가 꼬질꼬질한 깜장 교복에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거리를 쏘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세계 철학사> 등과 같은 금서를 읽으며 세상에 눈뜨고, 시대의 아픔을 알게 됐다. 1980년대 초 ‘아침 이슬’을 숨죽여 부르던 까까머리 고교 동창생들은 “배불뚝이가 되고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도 가슴 따뜻한 노래를 부르자”고 다짐했다.<br/><br/>기억 속에 봉인돼 있던 고교 동창생들의 약속이 중년의 나이가 돼서야 지켜졌다. 중년 남성 33명이 결성한 ‘GSGQ 중창단’(거시기 남성중창단·Geo Si Gi Quartet)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정동 구세군회관에서 고아와 독거노인, 미혼모 등 600명에게 희망의 노래를 선물했다.<br/><br/><br/>“모두 팍팍한 현실을 잘도 버티고 이겨냈더군요. 이제라도 노래로 세상을 밝혀보자고 했지요.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마음만은 10대 청년이지요.”<br/><br/>방송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박주씨(52)는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며 “연말 바쁜 일정에도 연습장으로 달려오는 단원들을 보면 기적이 따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br/><br/>이들이 음악으로 다시 뭉친 것은 10년 전인 2004년 말이었다. 고교 동창생 5명이 오랜만에 모임을 갖고 사는 얘기를 나누다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부딪치는 술잔 가득 화음이 넘쳤다. 테너와 바리톤, 베이스 등 4중창으로 부른 ‘아침 이슬’ ‘그날’ ‘보리밭’ 등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br/><br/>곧바로 친구찾기에 나섰다. 의사, 변호사, 교수도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은 친구도 있었다. 대학 시절 운동권에서 지금은 야권 활동가로 일하는 고교 동창도 있었다. 이들은 중창단 이름을 ‘GSGQ’로 지었다. 매주 금요일밤 2시간씩 연습을 했고 연말이면 불우 이웃돕기 공연에 나섰다. 2005년 8명이던 중창단원은 10년 만에 33명으로 늘었다.<br/><br/>물류사업가 김상우씨(52)는 “<span class='quot0'>시간이 날 때마다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무대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운증후군을 앓는 어린이들과 크리스마스 합동 공연을 할 때는 눈물이 쏟아져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br/><br/>회사부도로 개인사업을 준비 중인 윤기풍씨(52)는 “세상에 눈이 내리면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게 된다”며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br/><br/>올해로 10년째 연말 이웃돕기 공연에 나서고 있는 GSGQ는 강추위가 닥친 지난 19일 서울 명동 자선냄비 앞에서 공연을 했다. 적지 않은 성금도 보탰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장 김윤식씨(52)는 “<span class='quot1'>내년에는 가난한 음악 영재들을 위해 장학사업도 펼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겠냐</span>”고 음을 뗐다.<br/><br/>“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br/><br/><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0.txt

제목: 향기로운 녹색 바다 건너 신비로운 삼나무 숲으로  
날짜: 20141225  
기자: 박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5100000033  
본문: 지난 6일 일본 후쿠오카현 야메시 야마노이공원에서는 젖은 흙냄새, 녹차향, 삼나무향이 바람을 타고 왔다. 공원을 둘러싼 숲 너머 어떤 풍경이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숲으로 난 언덕길 위 눈에 익은 파란색 표식이 보였다. 느리게 걷는 조랑말을 의미하는 제주 올레길의 상징 ‘간세’다. 이날 일본 규슈의 13번째 올레 코스인 ‘야메 올레’가 개장했다.<br/><br/>■ 불의 나라는 가라<br/>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일본규슈추진기구는 2011년부터 일본 규슈지역 7개 현에서 올레 코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슈는 일본 열도를 이루는 4개의 큰 섬(혼슈·규슈·시코쿠·홋카이도)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다. 따뜻한 날씨에 강수량이 풍부해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한반도 및 대륙과 가까워 예로부터 신문물의 거점 역할을 했다. 백제와의 교류 흔적이 있는 구마모토, 일본 최초의 개항지인 나가사키, 메이지유신의 발상지 가고시마 등이 모두 규슈에 있다. 규슈 한복판에는 활화산인 아소산이 있다. 덕분에 ‘온천의 나라’ 일본에서도 ‘화산’과 ‘온천’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일본 내 별칭이 ‘불의 나라’일 정도이다. <br/>‘불의 나라’ 이미지는 자랑이자 족쇄다. 해마다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규슈를 찾지만 대부분 온천에서 2~3시간 즐기다 쇼핑이나 다른 먹거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패턴을 보인다. 지역 전체에 돈이 돌지 않는다. 협회가 제주 올레의 성공을 주목하고 먼저 요청함으로써 규슈 올레길이 만들어졌다. 올 12월 후쿠오카현의 ‘야메 코스’와 오이타현의 ‘벳푸 코스’ 등 2개 길이 새로 개장해 코스는 총 14개이다. <br/>■ 녹색 바다가 있습니다<br/>후쿠오카현 남부에 위치한 야메시는 지금은 한적하지만 고대에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야메 코스를 걸으면 제일 먼저 도난잔(童男山)고분을 만나게 된다. 고분은 기원전 2~3세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찾아 다니던 서복이 데려온 동남의 무덤으로 해석하는 학설도 있다. 야메시에는 이 외에 약 300기의 대형 고분이 있으며 그중 75개가 올레길에 주변에 있다. 일부는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다.<br/>이 지역은 녹차로도 유명하다. 야메중앙차공동조합에서 재배·건조·판매를 관리한다. 야메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현지인들이 ‘미도리노 우미(翠の海)’라 부르는 중앙대다원이다. 면적이 62만㎡에 달한다. 얕은 구릉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두 시간을 걸으니 말 그대로 끝없이 펼쳐진 차밭이 나타났다. 3.4㎞ 밖에서도 느껴지던 향기의 근원이었다. 출발 전 야메시 주민들의 말이 떠올랐다. “바다가 없어서 볼거리가 없다고요? 우리 지역에는 녹색 바다가 있습니다.” <br/><br/>■ 온천과 생활의 흔적<br/>이튿날 오이타현 벳푸를 방문했다. 온천으로 유명한 벳푸는 규슈 관광의 명과 암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도시다. 쓰루미다케산과 유후다케산 일대 온천 주변에 여전히 유황 증기가 피어나고 일본 제일의 용출량을 자랑한다. ‘온천 말고 할 게 없다’ ‘온천만 계속 보니까 지겨우니 빨리 떠야 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도 강해 숙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br/>벳푸 코스는 직선이 아니고 원이다. 아소쿠주국립공원 내 해발 600m 시다카호(志高湖)에서 출발해 산의 능선을 타고 11㎞를 돌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다. 시다카호는 1200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호수로 2㎞나 되는 둘레를 빽빽한 녹음이 에워싸고 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녹음과 별,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사계절의 풍경 변화가 뚜렷한 곳이다.<br/>벳푸 코스 절반은 사실상 등산 코스다. 능선이 가팔라 쉽지 않았다. 대나무를 주워 알맞은 길이로 꺾어 지팡이 삼아 걸었다. 흙산이라 길은 폭신폭신했다. 울창한 삼나무 숲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500년 수령의 삼나무는 신비롭기까지 했다. 먼발치를 보면 유후다케산 설경이 눈에 보인다. 벳푸 코스에서는 유후다케산(해발고도 1385m)과 쓰루미다케산(1584m)이 보인다. 산들은 가까이서 보면 웅장하고 멀리서 보면 설산과 녹림이 어우러져 우아하다.<br/>올레길은 비경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자연과 마을을 잇는 코스를 구성해야 올레길로 인정받는다. 벳푸 코스는 계단식 논이 곳곳에 나타났다. 숲길을 7㎞가량 걸으면 에다고(枝鄕) 마을이 나타난다. 12월인데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가 많았다. 벽에다 곶감을 말려 걸어놓은 집도 있다.<br/>올레 코스가 처음 개장한 2012년 일본인 방문객은 5470명이다. 지난 7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7민3700명이다. 일본인 비율은 46.9%였다.<br/>▲ 길잡이<br/>● 규슈는 후쿠오카,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나가사키, 구마모토, 사가 총 7개의 현으로 구성돼 있다. 올레길은 모든 현에 마련돼 있다. 내년 4월 15번째 코스 개장을 앞두고 있다. <br/>● 인천발 후쿠오카행 비행기는 매일 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배편으로는 후쿠오카항까지 3시간 걸린다. 오이타현에 갈 때는 오이타공항을 이용하거나 후쿠오카에서 JR 철도를 이용한다. <br/>● 코스 난이도는 다음과 같다. 야메 코스 9.2㎞(하), 벳푸 코스 11㎞(중상), 고코노에야마나미 코스 12.2㎞(중). 야메 코스는 초심자에게, 벳푸 코스는 등산에 익숙한 사람에게, 고코노에야마나미 코스는 다양한 풍경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권한다. <br/>● 야메 코스에서 조금 떨어진 야메관광물산관 도키메키(八女觀光物産館ときめき)에서 야메차·쑥만두 등 토산품과 전통 목공예품을 판다.<br/>● 벳푸 코스 종점에서 자동차로 40분 걸리는 지고쿠무시 코보 칸나와는 온천의 유황 증기로 해물·야채를 쪄 먹을 수 있는 지옥찜으로 유명하다. 벳푸·고코노에야마나미 코스에서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다. <br/>● 여행자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오후 3시 이전에 하산하도록 스케줄을 짜야 한다. 규슈관광추진기구(www.welcomekyushu.or.kr)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1.txt

제목: 암 발생률 사상 첫 감소  
날짜: 20141224  
기자: 곽희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4100000115  
본문: 조기에 발견하면 위암·대장암·유방암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90%가 넘고, 갑상샘·전립샘암은 전혀 문제가 없다. 국민 41명 중 1명이 암에 걸리지만,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을 ‘불치병’으로 생각하던 인식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23일 공개한 ‘2012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보면 2012년 22만4177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견됐다.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2011년 439.5명에서 2012년 445.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0년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보정한 암발생률(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이 기간 323.1명에서 319.5명으로 줄었다. 연평표준화발생률이긴 하지만, 암발생률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국립암센터 측은 “<span class='quot0'>폭증했던 유방암·갑상샘암의 증가 추세가 꺾인 것 등이 영향을 준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견된 암환자의 상대생존율은 68.1%였다. 암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살 수 있다는 의미다. 5년 상대생존율은 갑상샘암(100%)·전립샘암(92.3%)·유방암(91.3%)·대장암(74.8%)·위암(71.5%)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간암(30.1%)·폐암(21.9%)·췌장암(8.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br/>201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9.6%)이었고, 위암(13.8%)·대장암(12.9%)·폐암(9.9%)·유방암(7.4%)이 뒤를 이었다.<br/>한국인의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다. <br/>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암을 앓은 경험자는 123만4879명이다. 전체 국민 41명당 1명이 암을 앓고 있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2.txt

제목: 시민단체, MB 자택 앞에서 “생태계 난장판 만든 4대강 수사해야”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410015863485  
본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서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br/><br/>위원회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특히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span class='quot0'>건강검진에서 암, 고혈압, 당뇨 등 중병이 드러났는데 의사는 ‘별문제 없다’고 한 격</span>”이라고 지적했다. <br/><br/><br/><br/>이들은 “22조원을 쓰고 생태계를 난장판으로 만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뿐 아니라 수사도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연 직후 ‘녹조라떼’, ‘국정조사 초대권’ 등이 그려진 대형 사진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3.txt

제목: [인물로 본 2014 - 진 별]민주화운동 힘쓴 언론계 거목 성유보 외  
날짜: 20141224  
기자: 고영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4100000105  
본문: 올해도 세상과 이별을 고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언론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매진했던 인사에서부터 팬들의 뇌리에서 가시지 않은 문화계 인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별’들이 졌다. 그들은 자취를 감췄지만, 그들이 없는 ‘빈자리’는 크다.<br/>언론·정치·경제<br/><br/>지난 10월8일 세상을 떠난 성유보 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언론계의 ‘거목’이었다. 196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그는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해직 이후 동료들과 ‘동아투위’를 결성, 위원장을 맡아 해직기자 복직과 언론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 1984년에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월간 ‘말’을 창간했고, 1986년에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힘을 쏟았다. 1988년 ‘한겨레’ 초대 편집국장을 지냈고,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세상을 뜨기 전까지 희망래일 이사장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br/><br/>지난 3월15일 타계한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일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책조정실장, 통일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통일정책의 초석을 다진 ‘정책통’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남북 차관급 회담 수석대표로 나서 10개월가량 막혀 있던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했다.<br/>첫 나일론 생산 섬유산업 개척 이동찬<br/><br/>한국 섬유산업의 기틀을 다진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11월8일 별세했다. 1957년 이원만 선대 회장과 함께 한국나이롱주식회사를 창립해 국내 최초로 나일론 실을 생산함으로써 섬유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1977년 코오롱 회장으로 취임해 1996년 은퇴할 때까지 필름, 비디오테이프, 정보통신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 전 회장은 1992년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기업인 최초로 받았다. 황영조·이봉주·김완기 등 국내 주요 마라토너를 배출한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를 여는 등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했다. 생전 그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는 ‘마라톤식 경영’으로 코오롱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br/><br/>지난 7일 유명을 달리한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꼽혔던 경제학자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재벌 문제를 연구했다.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운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그는 진보세력의 진영 논리와는 거리를 뒀다. 2011년 8월 ‘창비’ 기고문을 통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희망버스의 구호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 논쟁의 한 복판에 서기도 했다. <br/>한국 록음악 지탱한 ‘마왕’ 신해철<br/>장 협착 수술 뒤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5일 만인 10월27일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는 사회성 짙은 가사로 ‘의식 있는 뮤지션’이란 찬사와 함께 ‘마왕’이란 별칭을 얻었다. 그는 1988년 밴드 ‘무한궤도’로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솔로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도시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1990년대 한국 록음악을 지탱했다. <br/><br/>그는 거침없는 독설과 입담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고 사회적 발언도 마다하지 않은 ‘소셜테이너’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장례식 도중 화장 절차를 중단하고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됐다. 그의 죽음은 유족과 병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료사고 분쟁으로 이어졌다.<br/>암투병 속 활동 ‘만년 소녀’ 김자옥<br/><br/>지난 11월16일 세상과 이별한 김자옥씨는 암 투병 속에서 활동을 멈추지 않은 ‘만년 소녀’였다.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연기생활을 시작한 그는 <목마 위의 여자> <지붕위의 남자> 등 영화와 <유혹> <배반의 장미> 등 드라마를 통해 1970~1980년대를 풍미했다.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40대 중반 때인 1996년 ‘공주는 외로워’라는 음반을 내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 ‘공주’라는 별칭도 얻었다. 올 1월까지도 케이블 채널 tvN의 유럽 배낭여행기 <꽃보다 누나>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방사선 치료를 미루고 <꽃보다 누나> 촬영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지난 7월1일 타계한 안동림 전 청주대 교수는 ‘문화계의 르네상스인’으로 불렸다. 국내 첫 클래식 음반 가이드북 <이 한 장의 명반>의 저자인 그는 고려대 영문학과를 나와 1960년대 중반에는 경향신문 특집부 기자로 일하기도 했다. 청주대 영문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 때까지 재직하면서 소설가, 음악비평가로 폭넓게 활동했다. 한학과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장자>와 <벽암록>을 번역하고 주석해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음반사 ‘성음’이 간행하는 잡지에 연재한 글을 모아 펴낸 <이 한 장의 명반>은 지금까지도 클래식 애호가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1560쪽 분량의 이 책은 클래식 분야의 단행본 중에서 최고의 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br/><br/>지난 6월9일 노환으로 별세한 김흥수 화백은 ‘하모니즘’ 창시자다. 일본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후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장과 서울대 미술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br/>1955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면서 누드를 주요 소재로 삼은 그는 여성의 누드와 기하학적 도형으로 된 추상화를 대비시켜 그리는 등 이질적 요소를 조화롭게 꾸며 예술성을 끌어내는 독특한 조형주의 화풍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던 그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예술혼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br/><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br/>해외 유명인사들<br/>로빈 윌리엄스 안타까운 자살… 남미 문학 거장 마르케스도 떠나<br/>전 세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도 우리 곁을 떠났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미세스 다웃파이어> 등에서 연기력을 과시한 할리우드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자살 소식은 세계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8월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존 키팅 선생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달 발표된 부검 결과 윌리엄스의 사인은 ‘루이체 치매로 인한 자살’로 결론났다. 루이체 치매는 퇴행성 치매의 일종으로, 환자들은 대개 시각·청각적 환각을 경험하게 된다.<br/><br/>세계인들은 윌리엄스의 사망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구글이 지난 16일 발표한 올 들어 가장 많이 검색된 유명 인사로 윌리엄스가 1위에 오를 정도였다. 윌리엄스가 출연했던 영화와 대사들도 관심을 모았다. 영화 <간디>로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을 수상한 영국 감독 리처드 애튼버러, 할리우드의 영원한 아역 배우 셜리 템플도 올해 팬들의 곁을 떠난 대중문화계의 ‘큰 별’이었다. <br/><br/>올해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세상을 떴다. 콜롬비아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지난 4월17일 멕시코의 자택에서 사망했다. 1999년 림프암이 발견돼 투병생활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영면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콜롬비아인’이라고 평가한 마르케스는 <백년 동안의 고독> <족장의 가을> 등의 소설을 남겼다. 남미의 실상을 묘사한 그는 1982년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연대’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읽기도 했다.<br/>작가이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권의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사회운동가인 나딘 고디머는 지난 7월13일 별세했다. 대표작 <거짓의 날들> <내 아들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그는 199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이기도 했던 고디머는 정부의 에이즈 근절 활동이 더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2008년 북한 평양 공연 지휘를 맡았던 로린 마젤, 미국의 흑인 여류 문학가 마야 앤젤루도 올해 숨진 문화·예술계 인사다.<br/>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했던 올해 아리엘 샤론 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월 별세했다. 1967년 ‘6일 전쟁’과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등 아랍 국가와의 전쟁에 잇달아 참가했던 샤론은 1982년에는 국방장관으로 레바논과도 전쟁을 치르며 ‘중동의 불도저’란 별칭을 얻었다. 2000년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 거주지 알 악사 모스크를 방문해 ‘2차 인티파다’(봉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후 이스라엘인 정착촌 철거를 시도하며 분리정책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2006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8년 만에 숨졌다. <br/>그가 사망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에 정착촌 건설을 늘렸다. 이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잦아져 ‘3차 인티파다’ 우려까지 나왔다.<br/>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전 조지아 대통령도 지난 7월 타계했다. 셰바르드나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옛 소련 대통령일 때 외교장관을 맡아 동서 냉전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셰바르드나제가 숨진 올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공격해 ‘신냉전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다.1971년 19세의 나이로 중미 카리브해의 소국 아이티를 통치한 세습 독재자 장 클로드 뒤발리에, 아프리카 모잠비크 출신의 포르투갈 축구 영웅 에우제비우도 올해 유명을 달리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4.txt

제목: 여수주민 ‘갑상생암’ 발병률 10년만에 안정세  
날짜: 2014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410015863719  
본문: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두고 있어 한때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전남 여수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율이 최근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br/><br/>전남 여수지역 주민의 갑상생암은 지난 2009년 전국 평균치의 4배 가량인 412명이 발병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제기됐다.<br/><br/>화순전남대병원(원장 조용범)과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석모)는 24일 ‘여수시 갑상샘암 역학조사결과’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실시한 ‘여수시 갑상샘암 역학조사’결과 여수시 발생률이 전국 평균치와 비슷해졌다고 밝혔다. <br/><br/>지난 2000년 이후 여수시의 갑상샘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1년에 연간 100명을 넘었고, 2004년에 연간 300명을 넘는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br/><br/>특히 2009년에는 412명이 진단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br/><br/>지난 2005년부터 여수시의 갑상샘암 초과발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시의회와 언론에서 이를 집중 거론해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br/><br/>조사 결과 2012년 여수시 갑상샘암 발생률은 여자가 10만명당 104.9명으로 광주전남 104.1명, 목포 99.7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전국평균 96.8명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br/><br/>남자는 10만명당 27.6명으로 광주·전남 23.7명, 목포의 21.9명, 전국(2011년) 20.2명에 비해 높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번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와 여수시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여수시와 대조 지역인 목포시에서 발생한 약 1200여명의 갑상샘암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광주·전남지역암등록 자료를 분석해 나온 것이다. <br/><br/>전남대 병원 측은 “<span class='quot0'>여수시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200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전국 평균 및 광주·전남평균치와 비슷해졌다</span>”고 밝혔다. <br/><br/>갑상샘암의 발생 위험요인은 흡연과 비만, 요오드섭취, 갑상선염 등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br/><br/>여수지역의 갑상샘암환자는 대조지역에 비해 종양크기가 더 작은 상태에서 조기에 진단을 받았으며, 주로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경우 종양의 크기가 더 작았다고 전남대병원 측은 설명했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5.txt

제목: 암 발생률 사상 첫 감소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31001585947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2012년 10만명당 3.6명 줄어</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국민 41명당 1명 ‘암 진단’</strong><!-- SUB\_TITLE\_END--><br/><br/>조기에 발견하면 위암·대장암·유방암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90%가 넘고, 갑상샘·전립샘암은 전혀 문제가 없다. 국민 41명 중 1명이 암에 걸리지만,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을 ‘불치병’으로 생각하던 인식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br/><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23일 공개한 ‘2012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보면 2012년 22만4177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견됐다.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2011년 439.5명에서 2012년 445.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0년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보정한 암발생률(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이 기간 323.1명에서 319.5명으로 줄었다. 연평표준화발생률이긴 하지만, 암발생률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국립암센터 측은 “<span class='quot0'>폭증했던 유방암·갑상샘암의 증가 추세가 꺾인 것 등이 영향을 준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br/><br/>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견된 암환자의 상대생존율은 68.1%였다. 암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살 수 있다는 의미다. 5년 상대생존율은 갑상샘암(100%)·전립샘암(92.3%)·유방암(91.3%)·대장암(74.8%)·위암(71.5%)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간암(30.1%)·폐암(21.9%)·췌장암(8.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br/><br/>201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9.6%)이었고, 위암(13.8%)·대장암(12.9%)·폐암(9.9%)·유방암(7.4%)이 뒤를 이었다.<br/><br/>한국인의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다. <br/><br/>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암을 앓은 경험자는 123만4879명이다. 전체 국민 41명당 1명이 암을 앓고 있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br/><br/><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6.txt

제목: 국내 의료진, 암세포 미토콘드리아만 공격하는 항암물질 개발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310015852005  
본문: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 암세포 제거를 유도하는 항암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br/><br/>고려대 화학과 김종승 교수팀은 23일 암세포를 찾아가는 기능의 바이오틴과 대장암 치료제(5-FU), DNA와 결합하는 형광물질 브롬화에티듐(EtBr)을 하나로 결합시킨 표적형 암치료제 ‘세라노스틱7’을 개발했다고 밝혔다.<br/><br/>연구진은 세라노스틱7은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저분자 화합물로 기존 항암제를 보완해 항암효과를 개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지’(JACS) 온라인판에 지난달 게재됐으며 24일자 인쇄판 표지논문으로 실릴 예정이다. <br/><br/>세라노스틱7을 투여하면 바이오틴이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바이오틴 수용체와 결합하고, 이어 암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다량 생성되는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H₂O₂)에 의해 분자 내 항암제 5-FU와 브롬화에티듐이 방출된다.<br/><br/>방출된 5-FU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함께 방출된 브롬화에티듐은 미토콘드리아나 세포 핵의 DNA와 결합,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과정을 형광으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br/><br/>연구진이 사람의 암세포를 피부 아래에 접종해 만든 암모델 생쥐에 세라노스틱7을 14주간 투여한 결과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항암제 5-FU만 투여한 대조군보다 암 조직이 눈에 띄게 사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연구는 낮은 항암효과를 보이는 기존 약물을 다분자로 결합시켜 항암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암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키는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항암제 합성기술을 개발한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7.txt

제목: 이애랑 숭의여대 교수 “우리나라 사람 고기 더 먹어야 1인당 소비량 미국의 3분의 1”  
날짜: 20141223  
기자: 김경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3100000132  
본문: “고기의 어원은 고기(高氣)다. 고기를 먹으면, 즉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의 기운이 돋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br/>경향신문이 지난 19일 서울 남산 숭의여대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애랑 숭의여대 교수(식품영양과·사진)의 첫마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1인당 1년 고기 소비량은 43.7㎏(2013년)이다. <br/>2009년 1인당 소비량(38.7㎏)과 비교해 볼 때 육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를 만나 육식에 대한 오해와 건강한 육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br/><br/>- 우리나라의 1인당 고기 소비량은 적절한 수준인가.<br/>“전체적으로 고기를 더 먹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적다. 돼지고기를 21.8㎏으로 가장 많이 먹고 이어 닭고기와 소고기 순이다.”<br/>- 그런데 최근 들어 육류기피 현상이 일고 있다.<br/>“<span class='quot0'>육류 섭취가 아니라 음식 과잉섭취가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span>”<br/>- 살을 빼기 위해 고기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br/>“균형있는 육류 섭취가 중요하다.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원이다. 단백질은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한다. 어른이든, 아이든 자신의 손바닥 정도 크기의 고기가 적정한 섭취량이다.”<br/>- 다이어트를 위해 살코기만 먹는 사람도 있다.<br/>“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 채소와 함께 먹어야 효과가 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흡수한다. 조직을 만드는 데 단백질을 사용한다. 단백질만 먹으면 에너지로의 전환율이 낮아진다. 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질소가 필요 이상으로 생긴다. 질소는 콩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br/>- 육식이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고혈압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br/>“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다.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절반 정도는 우리 몸 스스로 만든다. 나머지 반은 먹는 것으로 채운다. 모든 동물의 기본은 세포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든다. 필요 이상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단단히 굳어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고기가 아니라 음식의 과잉섭취 때문에 생긴다.”<br/>- 네 발 달린 동물 고기는 가능한 한 먹지 말라는 속설이 있다.<br/>“오해다. 유정란과 무정란에 영양소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돼지고기든, 오리고기든 그 고기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에는 차이가 없다. 요즘 거세게 부는 웰빙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본다. 유기농 작물을 선호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사육된 동물을 먹자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br/>- 한약을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br/>“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방에서 내려오는 관습 같은 것 아닐까. 다만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다.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혹시라도 약효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생긴 얘기인지 모르겠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은 여름철에 돼지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다. 저장성이 떨어져 그랬을 것이다.” <br/>- 암환자는 고기를 자제하라고 한다.<br/>“암환자에게는 영양결핍이 더 큰 문제다. 육식이 암을 활성화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력회복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이 면역성을 좋게 만든다. 단백질에 항암효과가 있는 것이다.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정상세포도 자라지 못한다. 무엇보다 의사 처방에 따르는 게 좋다. 속설이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8.txt

제목: [신간] 경향신문 여의열전(女醫列傳), 한국의 최고 여의사들을 발굴하다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310015855502  
본문: ■아름다운 손, 따뜻한 가슴, 그리고 응축된 에너지<br/><br/>의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아르스 롱가, 비타 브레비스 Ars longa, Vita brevis). - 히포크라테스<br/><br/>소아 수술의 ‘달인’ 박귀원, 항암전선 ‘협진의 여왕’ 서창옥, 소아알레르기학의 ‘선구자’ 편복양, 안성형의 ‘글로벌 리더’ 김윤덕, 항암 연구의 ‘선봉장’ 라선영, 시각재활의 ‘견인차’ 문남주, 난치성 근육병의 ‘슈퍼루키’ 박영은, 소아사시의 ‘등불’ 백혜정, 태아 수술의 ‘신의 손’ 원혜성, 이명·난청의 ‘베테랑’ 박시내, 비뇨기과 ‘여성전문의 1호’ 윤하나, 쌍태아 자연분만의 ‘신기원’ 김문영, 맞춤 암치료의 ‘개척자’ 최은경, 유방영상학의 ‘큰언니’ 황미수, 황반질환 분야 ‘차세대 주자’ 유승영, 운동의학의 ‘선두 마차’ 최은희….<br/><br/>한국 의료계는 최근 여의사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역할이 커지면서 바야흐로 여풍(女風)이 불고 있다. 이 새로운 바람과 물결을 일찍이 감지해 그 근원을 탐구하고 미래상을 조망한 <여의열전(女醫列傳), 한국 의료를 이끄는 46인의 여의학자들 >이 경향신문에서 최근 출간됐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 여간 <경향신문> 지면에 연재된 ‘여의열전’ 기획인터뷰 시리즈 내용과 기자의 비망록을 토대로 엮은 책이다.<br/><br/><br/><br/><여의열전>은 교육·진료·연구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여의사 46인을 錦上添花(금상첨화), 囊中之錐(낭중지추), 愚公移山(우공이산), 漸入佳境(점입가경), 靑出於藍(청출어람) 등 5부로 나눠 의미를 부여했다. 직장에서 남성들과 당당히 경쟁했으며 아직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열정적인 모습을 그렸다. 초·중·고 시절, 의대 생활, 의사국시 합격 후 인턴 및 전공의 수련 과정, 전문의 취득 후 펠로(전임의) 과정, 해외연수 등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로 존재했으며 스승을 비롯한 멘토들이 어떻게 성원했는지도 알려주고 있다. 46가지 질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록했다. 각 인물에 대한 원장·의료원장 등 원장단의 인물평도 눈길을 모은다.<br/><br/>■교육·연구·진료 등 ‘3박자’ 이룩한 ‘비망록’ 펼쳐<br/><br/><여의열전>에 따르면 한국 의료의 중추로 떠오른 여의사들은 어릴 때부터, 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학업 등 여러가지 방면에 천부적인 자질을 보였다. 의대 시절과 전공의 수련 및 해외연수 과정에서는 인내를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이 얻게 된 ‘명의(名醫)’ 칭호는 진료뿐 아니라 연구업적, 그리고 환자 사랑과 봉사 정신이 밑바탕이 되었다.<br/><br/>의료계도 잘 모르는 일화도 많이 발굴했다. 박귀원 교수는 ‘엄친딸’이었다. 법대에 가고 싶었지만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span class='quot0'>법대에 가면 등록금을 안 대주겠다</span>”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의대에 진학했다. 영원한 ‘아빠의 친구’ 편복양 교수는 언론인이었던 아버지와 소녀시절부터 청진동으로 해장국을 먹으러 다니며 부녀지간의 정이 남달랐다. ‘착한 규리’ 안규리 교수는 규리라는 이름이 노벨상을 탄 퀴리부인의 이름과 영문이 같다. 과학자였던 아버지가 딸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 ‘병원경영의 후계자’ 김용란 원장은 전공의 시절, 아버지가 세운 김안과에서 야간 당직을 서며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감성을 키웠다.<br/><br/><br/><br/><br/><br/>■46인 여의학자의 성공 인생과 46가지 질병 소개<br/><br/>1부 錦上添花(금상첨화)는 소아수술, 방사선 암치료, 심장초음파, 유방암 수술, 자궁근종 치료, 소아알레르기, 부인암 수술, 고난도 태아치료, 성형안과, 류머티즘 분야를 조명했다.<br/><br/>2부 囊中之錐(낭중지추)는 항암 약물치료, 시력재활, 희소 근육병 치료, 혈액·세포진단, 알레르기 연구, 소아사시 수술, 만성콩팥병 및 장기이식, 치료내시경, 신생아 감염 분야를 다뤘다.<br/><br/>3부 愚公移山(우공이산)에는 소아신장, 간이식, 이석정복술, 백신 연구개발, 눈 황반질환, 족부·족관절, ADHD, 갑상선 병리진단, 난치성 여드름 분야가 등장한다.<br/><br/>4부 漸入佳境(점입가경)은 쌍태아 자연분만, 간경화 줄기세포치료, 배뇨장애·요실금, 이명·난청, 골관절염, 로봇재활치료, 운동이상질환 뇌수술, 심장중재시술, 통증치료 분야다.<br/><br/>5부 靑出於藍(청출어람)은 맞춤 암치료, 유방영상진단, 초미숙아, 면역학 및 이종이식, 병원 경영, 노화방지, 뇌종양 수술, 생활습관의학, 갑상샘암 분야를 소개했다.<br/><br/>■의대생·전문의 여성 비율 증가…외과 계열 강세<br/><br/>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2013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총 3059명. 이 중 여자 의사가 33%를 차지한다. 한국여자의사회 통계를 보면 이미 2010년에 전공의(레지던트) 여의사 비율이 서울아산병원 54.6%, 삼성서울병원 50.1%, 서울대병원 47.6%, 세브란스병원 41.6%에 달했다.<br/><br/>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남성이 주도하던 영역에 진출하는 여의사도 상당하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외과 전문의(교수·임상강사 포함)의 여성 비율이 23%(62명 중 14명), 전공의 여성 비율은 35%(31명 중 11명)로 3~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 임상강사(전임의)는 24명 중 10명(42%), 전공의는 46명 중 14명(30%)이 여성이다.<br/><br/>의과대학 여학생 증가 추세는 앞으로 여의사들의 숫자와 역할이 더 커질 것을 예고한다. 서울대는 의학과(본과 1~4학년) 여학생 비율이 1993년 17%, 2003년 33%, 2013년 38%로 상승일로에 있다. 2014년 본과 1학년만 따지면 50%가 여성이다.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현재 전체 여학생의 비율이 48%나 된다. 한양대는 2004년 16%(의대)에서 2014년 44%(의대 37%, 의학전문대학원 58%)로 껑충 뛰었다. 가톨릭대는 1994년 25%, 2004년 39%, 2014년 51%로 나타났으며 2013년엔 70%나 됐다.<br/><br/><br/><br/><br/><br/>■‘여의열전’ 빛나는 46인 여의학자들의 소속·분야<br/><br/><1부 錦上添花(금상첨화) : 비단 위에 꽃 향기를 더하다><br/><br/>박귀원 서울대병원 소아외과 교수(선천성기형 수술, 2014년 3월부터 중앙대병원 소속), 서창옥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방사선 암치료), 심완주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심장초음파 진단), 김미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자궁근종 수술), 이은숙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장(유방암 수술), 편복양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알레르기질환), 문혜성 이화여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부인암 수술), 원혜성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고위험 태아치료·태아내시경), 김윤덕 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안성형·성형안과), 양형인 강동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류머티즘·자가면역 질환).<br/><br/><2부 囊中之錐(낭중지추) : 능력과 재주가 두드러지다><br/><br/>라선영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항암 약물치료), 문남주 중앙대병원 안과 교수(시각 재활), 박영은 부산대병원 신경과 교수(희소난치성 근육병), 한진영 동아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진단혈액학·진단세포유전학), 박해심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천식·알레르기·면역학),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안과 교수(사시·소아안과·신경안과), 김영훈 인제대 부산백병원 신장내과 교수(콩팥병·신장이식),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소화기내시경), 박수은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 감염질환).<br/><br/><3부 愚公移山(우공이산) : 끊임없이 노력해 이뤄내다><br/><br/>김교순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신장), 이남준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간이식), 전은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이석증·어지럼증), 정희진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인플루엔자·백신), 유승영 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망막질환·황반질환), 배서영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교수(족부·족관절), 신동원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소아청소년 정신의학·ADHD), 홍순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갑상선암 병리진단), 박미연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과장(여드름·색소질환).<br/><br/><4부 漸入佳境(점입가경) : 점점 좋은 경지로 들어가다><br/><br/>김문영 가톨릭관동대 의대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고위험·쌍태아임신 및 분만·태아초음파진단), 박정화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간경변·줄기세포치료), 윤하나 이화여대 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요실금·배뇨장애·성의학), 박시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이명·난청), 김현아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 김미정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봇재활·줄기세포치료), 김은영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운동이상질환), 김명아 서울시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심장 중재시술), 유시현 순천향대 천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통증치료).<br/><br/><5부 靑出於藍(청출어람) : 앞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다><br/><br/>최은경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유전체분석 맞춤암치료), 황미수 영남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유방영상학), 장윤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른둥이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안규리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신장이식·유전성 콩팥질환), 김용란 건양대 김안과병원 소아안과 교수(소아안과질환·병원경영), 홍기연 원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항노화 치료·갱년기 장애), 정태영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악성뇌종양·소아뇌종양), 최은희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생활습관 의학·스포츠 및 통증 재활), 임동미 건양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갑상선암·당뇨합병증).<br/><br/>◇여의열전(女醫列傳), 여의학자 46인의 성공인생 이야기(경향신문 발간, 336쪽·1만 8000원)◇<br/><br/>필자(저자)는 박효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건강과학팀장·부장, 건강의료 전문기자다. 그는 ‘여의열전’ 기획시리즈로 한국과학기자협회 2014년도 ‘GSK의학기자상’을 수상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39.txt

제목: [김홍민의 문화의 발견]비운의 탐정소설가 노버트 데이비스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3100000014  
본문: 1943년에 데이비스의 첫 장편 <탐정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가 출간되었을 때 미스터리 비평가인 존 아포스톨루는 이 작품에 대해 “이제까지 쓰인 가장 웃긴 탐정소설이자 데이비스가 정점을 찍은 우스꽝스러운 모험담”이라고 평했다.<br/><br/>“몇 년 전에 노버트 데이비스라는 작가의 탐정소설을 아주 재밌게 읽었네. 그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두 명의 친구들에게도 빌려주었고 모두 내 의견에 동조했지.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수백 권의 소설을 읽었고 또 읽는 것을 좋아했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마 두 권일 거야. 그 중 하나가 데이비스의 책이라네.” 비트겐슈타인이 제자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추리소설의 광팬이었다는 것은 <비트겐슈타인 평전>이나 제자인 노먼 맬컴의 회상록 <비트겐슈타인의 추억>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스트리트 앤 스미스’에서 발행한 펄프 잡지 <디텍티브 스토리 매거진>을 즐겨 읽었으며 이 잡지로부터 “꽤 많은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를 종종 했다. 평전에 따르면, (모든 분야를 통틀어)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높이 평가한 작가는 노버트 데이비스였다고 한다. 아아 철학계의 슈퍼스타가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던 탐정소설가라니 궁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대관절 노버트 데이비스는 누구인가. 나는 인터넷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펄프 작가의 프로필>이라는 글을 통해 그의 생애에 관해 얻어들을 수 있었다.<br/><br/>학비를 벌기 위해 탐정소설 쓰기 시작<br/>노버트 해리슨 데이비스는 1909년 4월 18일, 일리노이 모리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로버트 데이비스였고 그의 가문에 로버트란 이름을 가진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버트의 부모는 전통에서 약간 벗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데이비스는 자신의 이름을 싫어했다. “계집애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친구들은 ‘버트’라고 불렀다. 스탠퍼드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틈틈이 데이비스는 탐정소설을 썼다. 가난한 농촌마을 출신의 법대생은 어떤 계기로 탐정소설을 쓰기 시작했을까. 대공황 직후였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데이비스는 법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br/><br/>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잔디를 깎고 차를 닦고 모래를 퍼서 날라보았지만 성실히 노동하는 삶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내 타자기로.” 이 글에 따르면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탐정소설을 쓰기 시작한 듯하다. 1932년 6월, 데이비스는 펄프 잡지 <블랙마스크>에 첫 작품을 발표한다. 이듬해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다임 디텍티브>, <디텍티브 픽션 위클리> 등에 작품을 팔아 원고료를 받는 작가였다. 탐정소설을 쓰는 것만으로도 벌이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그는 변호사 시험을 포기하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br/><br/>데이비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작품을 쓰며 여러 펄프 잡지 작가들과 교류했다. 이들의 모임은 ‘픽셔니어즈’(The Fictioneers)라는 이름이었고 스물다섯 명 정도가 이 그룹에 속해 있었다. 데이비스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레이먼드 챈들러도 모임에 나왔다고 한다. 그는 데이비스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챈들러의 얘기를 들어보자. “나는 <블랙마스크>에 발표한 첫 작품을 쓰기 전 펄프 픽션에 대해 연구하던 시절에 노버트 데이비스의 초기 작품을 읽었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더군요. <레드 구스>는 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훗날 제임스 샌도가 앤솔로지를 만들 때 데이비스의 <캔자스시티 플래쉬>를 넣으라고 추천하기도 했지요. 이 소설은 <블랙마스크>에 실린 여러 소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작품입니다.” 챈들러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노버트 데이비스의 소설에 주목했다. 1943년에 그의 첫 장편 <탐정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가 출간되었을 때 미스터리 비평가인 존 아포스톨루는 이 작품에 대해 “이제까지 쓰인 가장 웃긴 탐정소설이자 데이비스가 정점을 찍은 우스꽝스러운 모험담”이라고 평하기도 했다.<br/><br/>챈들러와 아포스톨루가 말한 것처럼 데이비스의 작품에는 늘 ‘<블랙마스크>가 지향하는 터프함+스크루볼 코미디’가 어우러져 있었다. 그가 작품에서 구사하는 유머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비트겐슈타인과 챈들러를 사로잡은 매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유머 때문에 데이비스는 ‘팔리지 않는 작가’로 분류되었다. 이 세계의 전설이었던 <블랙마스크>의 편집장 조셉 T 쇼는 “액션으로 질주하는 내 잡지에 데이비스의 유머러스한 작품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겨우 다섯 편을 제외한 다른 소설은 일절 잡지에 싣지 않았다. 그 시절의 하드보일드 작가들은 “<span class='quot0'>터프가이 픽션의 성서인 <블랙마스크>에 작품을 싣기를 원한다면 유머러스한 요소를 죽여야 한다</span>”는 조언을 듣곤 했다. 챈들러가 보여준 재치와 달리 엉뚱하고(whimsy) 우스꽝스러웠던 데이비스 식의 유머가 통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동료 작가들로부터 하드보일드 소설의 최고 전문가로 여겨졌음에도 대중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br/><br/>고독과 좌절로 인해 마흔살에 자살<br/>1949년 7월 28일, 데이비스는 자동차 배기관에 호스를 연결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나이 마흔 살의 일이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죽기 직전 그는 암에 걸린 상태였고 아내는 유산했고 생활비가 없어 챈들러를 비롯한 동료 작가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고 작가로서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한마디로 고독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당대에 널리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만큼 좌절감도 컸다. 만약 데이비스가 살아생전에 비트겐슈타인의 찬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제자 노먼에게 그의 주소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데이비스의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노먼은 끝내 데이비스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참으로 얄궂은 일이다. <br/><br/><비트겐슈타인 평전>의 저자 레이 몽크는 노버트 데이비스가 죽기 전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 천재가 자신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죽고 나서 진가를 인정받은 작가가 어디 노버트 데이비스뿐이겠냐만, 그렇더라도 이런 뒷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역시 마음이 아프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쓴 이런 글(<The Thrilling Detective>에 실려 있다)을 인용해 주고 싶은 것이다. “그는 탐정소설 작가들 중에서도 이상한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다. 작품은 아주 소수만이 접해 볼 수 있으며 펄프 잡지 비평가들에게는 극구 칭찬받고 있다는 상황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운 좋게 어디선가 데이비스의 작품을 만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br/><br/><김홍민의 문화의 발견>은 이번호를 끝으로 연재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김홍민의 문화의 발견>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br/><br/><북스피어 대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0.txt

제목: 노년층 임플란트, ‘전신질환’ 여부 확인이 우선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310015853341  
본문: 노인치주질환자가 늘면서 노년층 임플란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임플란트가 보편화 된 만큼 시술 전 임플란트에 대한 정확한 자가진단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br/><br/>대부분의 치주질환자들은 치아가 깨지거나 잇몸 뼈가 손실된 치아, 뿌리만 남은 치아, 재신경치료로 자연치아를 뽑지 않아도 되는 치아, 심한 충치로 3분의 2 이상 부러진 치아, 잇몸병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결심한다.&#160;<br/><br/>보편화된 만큼 임플란트 시술을 쉽게 받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시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임플란트 시술환자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자신의 치아는 살려야 하며, 노인치주질환자의 경우는 전신질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br/><br/>특히 인구 고령화와 임플란트 대중화에 따라 시술받는 환자의 연령대가 높아진 만큼 전신질환 여부 및 구강상태를 면밀히 검진해야 한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전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시술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구강내검사, 치과형 X-레이&#8226;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구강상태를 진단한다.<br/><br/>특히 만성 소모성질환을 가진 치주환자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치주질환이 심혈관질환, 당뇨병, 저체중조산, 류마티스관절염, 만성 신장질환, 상기도 폐질환, 암, 기억력 감퇴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러 전신질환이 치주질환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치주질환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br/><br/>따라서 시술에 앞서 심혈관질환&#8226;당뇨 등 전신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개 해당 질환을 앓는 경우 저항력이 떨어져 감염 가능성이 크다. 무턱대고 시술을 진행할 경우 전신질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전신질환자는 시술 도중 과다 출혈의 위험도 있다.<br/><br/>새이플란트치과 부천점 이규석원장은 “치주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임플란트 실패율이 증가할 수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시술 전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새이플란트치과 부천점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들이 협진을 통해 환자의 증세를 꼼꼼하게 살피고, 치료 후에도 꼼꼼하게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에 신경을 쏟고 있다.내원 환자에게는 올바른 칫솔질과 개인별 맞춤치아관리법 등 치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br/><br/>현재 새이플란트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하는 ‘자연치아 살리기 프로젝트’와 '충치예방 교육 프로그램',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행복나눔 프로젝트', 치과의료기술개방 연구모임인 '새이플란트-임플란트' 연구회를 실시하고 있다.<br/><br/>새이플란트 치과는 명동, 목동, 이대, 천호, 광명, 부천, 인천점에서 진료 중이다. 진료 상담이나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1.txt

제목: [인물로 본 2014 - 진 별]민주화운동 힘쓴 언론계 거목 성유보  
날짜: 2014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310015859293  
본문: 올해도 세상과 이별을 고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언론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매진했던 인사에서부터 팬들의 뇌리에서 가시지 않은 문화계 인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별’들이 졌다. 그들은 자취를 감췄지만, 그들이 없는 ‘빈자리’는 크다.<br/><br/><b>◆ 언론·정치·경제<br/><font color="gray">첫 나일론 생산 섬유산업 개척 이동찬</font></b><br/><br/><br/>지난 10월8일 세상을 떠난 성유보 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언론계의 ‘거목’이었다. 196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그는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해직 이후 동료들과 ‘동아투위’를 결성, 위원장을 맡아 해직기자 복직과 언론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 1984년에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월간 ‘말’을 창간했고, 1986년에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힘을 쏟았다. 1988년 ‘한겨레’ 초대 편집국장을 지냈고,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세상을 뜨기 전까지 희망래일 이사장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br/><br/>지난 3월15일 타계한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일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책조정실장, 통일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통일정책의 초석을 다진 ‘정책통’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남북 차관급 회담 수석대표로 나서 10개월가량 막혀 있던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했다.<br/><br/><br/><br/>한국 섬유산업의 기틀을 다진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11월8일 별세했다. 1957년 이원만 선대 회장과 함께 한국나이롱주식회사를 창립해 국내 최초로 나일론 실을 생산함으로써 섬유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1977년 코오롱 회장으로 취임해 1996년 은퇴할 때까지 필름, 비디오테이프, 정보통신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 전 회장은 1992년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기업인 최초로 받았다. 황영조·이봉주·김완기 등 국내 주요 마라토너를 배출한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를 여는 등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했다. 생전 그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는 ‘마라톤식 경영’으로 코오롱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br/><br/>지난 7일 유명을 달리한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꼽혔던 경제학자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재벌 문제를 연구했다.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운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그는 진보세력의 진영 논리와는 거리를 뒀다. 2011년 8월 ‘창비’ 기고문을 통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희망버스의 구호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 논쟁의 한 복판에 서기도 했다. <br/><br/><b>◆ 문화<br/><font color="gray">한국 록음악 지탱한 ‘마왕’ 신해철… 암투병 속 활동 ‘만년 소녀’ 김자옥</font></b><br/><br/>장 협착 수술 뒤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5일 만인 10월27일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는 사회성 짙은 가사로 ‘의식 있는 뮤지션’이란 찬사와 함께 ‘마왕’이란 별칭을 얻었다. 그는 1988년 밴드 ‘무한궤도’로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솔로가수와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도시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1990년대 한국 록음악을 지탱했다. <br/><br/><br/><br/>그는 거침없는 독설과 입담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고 사회적 발언도 마다하지 않은 ‘소셜테이너’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장례식 도중 화장 절차를 중단하고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됐다. 그의 죽음은 유족과 병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료사고 분쟁으로 이어졌다.<br/><br/>지난 11월16일 세상과 이별한 김자옥씨는 암 투병 속에서 활동을 멈추지 않은 ‘만년 소녀’였다.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연기생활을 시작한 그는 <목마 위의 여자> <지붕위의 남자> 등 영화와 <유혹> <배반의 장미> 등 드라마를 통해 1970~1980년대를 풍미했다.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40대 중반 때인 1996년 ‘공주는 외로워’라는 음반을 내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 ‘공주’라는 별칭도 얻었다. 올 1월까지도 케이블 채널 tvN의 유럽 배낭여행기 <꽃보다 누나>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방사선 치료를 미루고 <꽃보다 누나> 촬영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지난 7월1일 타계한 안동림 전 청주대 교수는 ‘문화계의 르네상스인’으로 불렸다. 국내 첫 클래식 음반 가이드북 <이 한 장의 명반>의 저자인 그는 고려대 영문학과를 나와 1960년대 중반에는 경향신문 특집부 기자로 일하기도 했다. 청주대 영문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 때까지 재직하면서 소설가, 음악비평가로 폭넓게 활동했다. 한학과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장자>와 <벽암록>을 번역하고 주석해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음반사 ‘성음’이 간행하는 잡지에 연재한 글을 모아 펴낸 <이 한 장의 명반>은 지금까지도 클래식 애호가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1560쪽 분량의 이 책은 클래식 분야의 단행본 중에서 최고의 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br/><br/><br/><br/>지난 6월9일 노환으로 별세한 김흥수 화백은 ‘하모니즘’ 창시자다. 일본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후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장과 서울대 미술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br/><br/>1955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면서 누드를 주요 소재로 삼은 그는 여성의 누드와 기하학적 도형으로 된 추상화를 대비시켜 그리는 등 이질적 요소를 조화롭게 꾸며 예술성을 끌어내는 독특한 조형주의 화풍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던 그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예술혼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br/><br/><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br/><br/><b>◆ 해외 유명인사들</b><br/><font color="gray"><b>로빈 윌리엄스 안타까운 자살… 남미 문학 거장 마르케스도 떠나</b></font><br/><br/>전 세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도 우리 곁을 떠났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미세스 다웃파이어> 등에서 연기력을 과시한 할리우드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자살 소식은 세계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8월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존 키팅 선생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달 발표된 부검 결과 윌리엄스의 사인은 ‘루이체 치매로 인한 자살’로 결론났다. 루이체 치매는 퇴행성 치매의 일종으로, 환자들은 대개 시각·청각적 환각을 경험하게 된다.<br/><br/><br/>세계인들은 윌리엄스의 사망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구글이 지난 16일 발표한 올 들어 가장 많이 검색된 유명 인사로 윌리엄스가 1위에 오를 정도였다. 윌리엄스가 출연했던 영화와 대사들도 관심을 모았다. 영화 <간디>로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을 수상한 영국 감독 리처드 애튼버러, 할리우드의 영원한 아역 배우 셜리 템플도 올해 팬들의 곁을 떠난 대중문화계의 ‘큰 별’이었다. <br/><br/><br/><br/>올해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세상을 떴다. 콜롬비아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지난 4월17일 멕시코의 자택에서 사망했다. 1999년 림프암이 발견돼 투병생활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영면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콜롬비아인’이라고 평가한 마르케스는 <백년 동안의 고독> <족장의 가을> 등의 소설을 남겼다. 남미의 실상을 묘사한 그는 1982년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연대’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읽기도 했다.<br/><br/>작가이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권의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사회운동가인 나딘 고디머는 지난 7월13일 별세했다. 대표작 <거짓의 날들> <내 아들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그는 199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이기도 했던 고디머는 정부의 에이즈 근절 활동이 더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2008년 북한 평양 공연 지휘를 맡았던 로린 마젤, 미국의 흑인 여류 문학가 마야 앤젤루도 올해 숨진 문화·예술계 인사다.<br/><br/>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했던 올해 아리엘 샤론 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월 별세했다. 1967년 ‘6일 전쟁’과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등 아랍 국가와의 전쟁에 잇달아 참가했던 샤론은 1982년에는 국방장관으로 레바논과도 전쟁을 치르며 ‘중동의 불도저’란 별칭을 얻었다. 2000년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 거주지 알 악사 모스크를 방문해 ‘2차 인티파다’(봉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이후 이스라엘인 정착촌 철거를 시도하며 분리정책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2006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8년 만에 숨졌다. <br/><br/>그가 사망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에 정착촌 건설을 늘렸다. 이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잦아져 ‘3차 인티파다’ 우려까지 나왔다.<br/><br/>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전 조지아 대통령도 지난 7월 타계했다. 셰바르드나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옛 소련 대통령일 때 외교장관을 맡아 동서 냉전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셰바르드나제가 숨진 올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공격해 ‘신냉전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다.1971년 19세의 나이로 중미 카리브해의 소국 아이티를 통치한 세습 독재자 장 클로드 뒤발리에, 아프리카 모잠비크 출신의 포르투갈 축구 영웅 에우제비우도 올해 유명을 달리했다.<br/><br/><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2.txt

제목: 일 대학병원서 간 수술한 환자 무더기 사망  
날짜: 20141223  
기자: 구정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3100000102  
본문: 일본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시에 있는 군마대학병원(사진)에서 간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집단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br/>요미우리신문 등은 이 병원에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복강경을 이용해 간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 8명이 숨졌고, 같은 기간 간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 84명 중에서도 60~80대 남녀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수술들을 모두 40대 외과 조교수 한 명이 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br/><br/>후생노동성은 당초 복강경 수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나, 이 과정에서 개복수술 환자들도 10명이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술 사망률이 11.9%에 달해, 일본 전체의 간 개복수술 사망률에 비해 3배나 높았다. <br/>이 병원에서 수술 도중 숨진 환자의 딸인 60대 여성은 요미우리신문에 “아버지도, 가족도 수술로 인해 사망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br/>이 여성의 아버지는 간 개복수술을 받은 뒤 약 50일 후에 숨졌다. 이 여성은 “의사로부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3주가 지나면 퇴원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수술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의료진은 ‘좋아지고 있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의 아버지뿐 아니라, 개복수술 뒤 사망한 환자 10명이 모두 수술 3개월 안에 패혈증과 간 기능부전 등이 일어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br/>숨진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여전히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또 수술 전후 관리와 치료 과정의 문제점, 수술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확실치 않다”고만 했다.<br/>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구마모토대학 부속병원에서 60대 여성 환자와 폐암에 걸린 80대 남성 환자의 검체가 바뀌어, 암이 발견되지 않은 여성의 폐 3분의 1을 절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쿄의 국립의료연구센터 병원에서 소아암에 걸린 1세 아기에게 이식해야 할 말초혈세포를 주치의가 옆방의 4세 여아에게 잘못 이식했다. 이 병원에서는 소아에게 투여하면 안되는 프로포폴을 5년 동안 63명에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사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br/>당국은 국립병원과 대학 부속병원 등의 경우 의료사고 사망자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있다. 공익법인인 일본의료평가기구가 지난 6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 사망자 의무보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약 700곳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3.txt

제목: 이애랑 숭의여대 교수 “우리나라 사람 고기 더 먹어야 1인당 소비량 미국의 3분의 1”  
날짜: 2014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210015850998  
본문: “고기의 어원은 고기(高氣)다. 고기를 먹으면, 즉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의 기운이 돋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br/><br/>경향신문이 지난 19일 서울 남산 숭의여대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애랑 숭의여대 교수(식품영양과·사진)의 첫마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1인당 1년 고기 소비량은 43.7㎏(2013년)이다. <br/><br/>2009년 1인당 소비량(38.7㎏)과 비교해 볼 때 육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를 만나 육식에 대한 오해와 건강한 육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br/><br/><br/>- 우리나라의 1인당 고기 소비량은 적절한 수준인가.<br/><br/>“전체적으로 고기를 더 먹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적다. 돼지고기를 21.8㎏으로 가장 많이 먹고 이어 닭고기와 소고기 순이다.”<br/><br/>- 그런데 최근 들어 육류기피 현상이 일고 있다.<br/><br/>“<span class='quot0'>육류 섭취가 아니라 음식 과잉섭취가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span>”<br/><br/>- 살을 빼기 위해 고기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br/><br/>“균형있는 육류 섭취가 중요하다.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원이다. 단백질은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한다. 어른이든, 아이든 자신의 손바닥 정도 크기의 고기가 적정한 섭취량이다.”<br/><br/>- 다이어트를 위해 살코기만 먹는 사람도 있다.<br/><br/>“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 채소와 함께 먹어야 효과가 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흡수한다. 조직을 만드는 데 단백질을 사용한다. 단백질만 먹으면 에너지로의 전환율이 낮아진다. 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질소가 필요 이상으로 생긴다. 질소는 콩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br/><br/>- 육식이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고혈압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br/><br/>“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다.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절반 정도는 우리 몸 스스로 만든다. 나머지 반은 먹는 것으로 채운다. 모든 동물의 기본은 세포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든다. 필요 이상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단단히 굳어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고기가 아니라 음식의 과잉섭취 때문에 생긴다.”<br/><br/>- 네 발 달린 동물 고기는 가능한 한 먹지 말라는 속설이 있다.<br/><br/>“오해다. 유정란과 무정란에 영양소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돼지고기든, 오리고기든 그 고기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에는 차이가 없다. 요즘 거세게 부는 웰빙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본다. 유기농 작물을 선호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사육된 동물을 먹자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br/><br/>- 한약을 먹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br/><br/>“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방에서 내려오는 관습 같은 것 아닐까. 다만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다.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혹시라도 약효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생긴 얘기인지 모르겠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은 여름철에 돼지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다. 저장성이 떨어져 그랬을 것이다.” <br/><br/>- 암환자는 고기를 자제하라고 한다.<br/><br/>“암환자에게는 영양결핍이 더 큰 문제다. 육식이 암을 활성화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력회복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이 면역성을 좋게 만든다. 단백질에 항암효과가 있는 것이다.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정상세포도 자라지 못한다. 무엇보다 의사 처방에 따르는 게 좋다. 속설이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br/><br/><김경은 편집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4.txt

제목: [속보]봉하마을 사자바위서 40대 여성 투신  
날짜: 2014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210015845363  
본문: 40대 여성이 봉하마을 사자바위에서 투신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br/><br/>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35분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자바위 아래에서 ㄱ씨(44·여)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마산삼성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중태다.<br/><br/>당일 오전 9시쯤 봉하산 등산객이 사자바위에서 ㄱ씨 지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502전경대 등이 사자바위 인근에서 합동수색을 벌이다 사자바위 아래에 쓰러져 있던 ㄱ씨를 발견했다.<br/><br/>경찰은 ㄱ씨가 2개월 전 암 진단을 받은 후 우울증세를 보이다 지난 20일 오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남편 진술을 바탕으로 ㄱ씨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5.txt

제목: Y염색체의 위기…1000만년 뒤엔 남성이 사라질지 모른다?  
날짜: 20141222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2100000050  
본문: 포유류의 성별을 결정짓는 염색체는 X와 Y 두 개다. XX형은 여성, XY형은 남성이 된다. 인간이 가진 염색체 23쌍 중 1쌍의 염색체가 성을 결정짓는 것이다.<br/>최근 남성을 결정하는 Y염색체가 퇴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Y염색체 위기설이 불거졌다. 1000만년 뒤에는 Y염색체를 가진 남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물론 Y염색체 퇴화 추세가 꺾였다는 반론도 나온다.<br/>크기가 작은 Y염색체<br/>Y염색체는 인간이 가진 23쌍 염색체 가운데 크기가 끝에서 세 번째로 작다. 인간의 전체 염기서열(게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Y염색체에 들어 있는 의미 있는 유전정보인 유전자는 현재 78개가 알려져 있다. 대부분 정자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다.<br/>반면 X염색체는 인간 염색체 중에서 여덟 번째로 크다. 전체 염기서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나 된다. Y염색체의 2.7배다. 밝혀진 유전자 수도 1100여개에 달한다. Y염색체와 비교해 유전자의 기능도 질병 등과 관련되는 등 다양하다. X염색체와 비교해 Y염색체의 기능이 적고 포함하고 있는 유전정보도 적은 것이다.<br/>▲3억~1억8000만년 전 등장<br/>생성 초기 비해 97% 유전자 사라져<br/>인간 염색체 중 가장 급격한 변화<br/>퇴화 멈췄다는 주장도 있는데<br/>Y의 운명은…<br/><br/>흡연이 Y염색체를 없앤다<br/>흡연 습관이 Y염색체를 없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웁살라대 얀 두만스키 교수 연구팀은 흡연, 비흡연 남성들의 혈구세포를 비교한 뒤 흡연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혈구세포에 Y염색체가 없을 확률이 최대 4.3배 높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는 지난 4일 국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혈구세포는 혈액 속에 존재하는 적혈구, 백혈구 등 세포를 말한다. 연구팀은 스웨덴 남성 6000명에게서 채취된 혈구세포 속의 DNA를 비교해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br/>혈구에서 Y염색체가 소실되면 수명이 짧아지거나 암 발생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두만스키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7월 Y염색체 소실이 인간 수명을 줄이고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결과는 지난해 8월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지네틱스(Nature Genetic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Y염색체의 소실 정도에 따라 남성의 암 위험을 평가하는 진단법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br/>두만스키 교수 연구결과에 학계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진이 Y염색체의 소실과 수명 감소, 암 발생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Y염색체의 소실이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br/><br/>Y염색체는 퇴화중<br/>Y염색체 퇴화설을 처음 주장한 것은 호주 국립대 제니퍼 그레이브즈 교수 연구팀이다. 이들은 2002년 동물 Y염색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니 진화 과정에서 Y염색체 크기가 작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에 내놓았다. 퇴화 속도를 감안하면 1000만년 안에 Y염색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당시 학계에 충격을 던져줬다.<br/>Y염색체는 3억~1억8000만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인원이 등장하기 이전이다. Y염색체 등장 이전에 지구상에 살던 포유류는 온도나 산성도에 따라 성이 결정됐을 것으로 학계는 추측하고 있다. 실제 파충류 등은 온도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br/>Y염색체는 등장 이후 1억~2억년간 퇴화했다. Y염색체는 생성 당시 X염색체와 크기가 비슷했다. 현재 Y염색체는 생성 초기와 비교해 97%의 유전자가 사라졌다. 인간이 가진 23쌍의 염색체 가운데 가장 급격한 유전적 변화를 겪었다.<br/>Y염색체가 퇴화한 이유는 X염색체와 짝을 이뤘기 때문이다. 염색체 속 유전자들은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변이를 한다. X염색체와 X염색체가 조합되면 유전자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교환되면서 보전될 수 있다. 그러나 Y염색체는 Y염색체가 아니라 X염색체와 조합된다. X와 Y는 유전자 위치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가 교환되면서 보전되지 못하고 스스로 퇴화하는 것이다.<br/>Y염색체에서 발견된 유전자 78개 중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20개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Y염색체의 핵심 기능인 정자 생산에는 단 2개의 유전자만 관여하고 있다.<br/>지난 4월 Y염색체의 퇴화가 멈추고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화이트헤드 생명의학연구소 연구팀은 Y염색체가 2500만년 전까지 급속도로 퇴화했지만 이후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에 실었다. 침팬지 등 포유류의 Y염색체 유전자 진화를 분석한 결과 2500만년 전부터 1000만년 전까지 Y염색체에서 사라진 유전자는 1개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Y염색체에는 생존과 정자 생산에 필요한 필수 유전자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Y염색체 존재 이유가 정자 생산뿐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br/>Y염색체 퇴화설을 주장했던 그레이브즈 교수 연구팀은 고슴도치 등 일부 동물에서는 실제 Y염색체가 퇴화돼 없어진 사례가 있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앞으로 Y염색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6.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5년 12월 22일  
날짜: 2014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2100000002  
본문: 암 말기 엄마, 자식들이 눈에 밟혀<br/>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췌장암 말기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은주씨는 지리산에 있는 요양원에 6개월째 머물며 매일 “나는 살 수 있다”고 주문을 왼다. 이혼 후 16살 아들, 9살 딸을 혼자 키워 온 은주씨는 금쪽같은 자식들을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지독한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고 말았다.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에 은주씨는 남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한다.<br/>기후변화로 쫓겨난 난민들 실태<br/>기후의 반란(MBC 오후 11시15분) = 기후난민들의 처절한 실상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되짚어 본다. 또한 미래에 기후난민이 가져올 국제안보의 위협을 예측해 본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해마다 홍수와 열대성 폭풍 등 거대한 기후재난으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으로 몰락하고 있다. 난민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려 하지만 받아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7.txt

제목: 일본 군마 대학병원서 간 수술환자들 무더기 사망...당국 조사  
날짜: 2014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210015848982  
본문: 일본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시에 있는 군마대학병원에서 간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집단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br/><br/>요미우리신문 등은 이 병원에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복강경을 이용해 간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 8명이 숨졌고, 같은 기간 간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 84명 중에서도 60~80대 남녀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수술들을 모두 40대 외과 조교수 한 명이 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br/><br/>후생노동성은 당초 복강경 수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나, 이 과정에서 개복수술 환자들도 10명이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술 사망률이 11.9%에 달해, 일본 전체의 간 개복수술 사망률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이 병원에서 수술 도중 숨진 환자의 딸인 60대 여성은 요미우리 신문에 “<span class='quot0'>아버지도, 가족도 수술로 인해 사망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br/><br/>이 여성의 아버지는 간 개복수술을 받은 뒤 약 50일 후에 숨졌다. 이 여성은 “의사로부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3주 지나면 퇴원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수술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의료진은 ‘좋아지고 있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의 아버지뿐 아니라, 개복수술 뒤 사망한 환자 10명이 모두 수술 3개월 안에 패혈증과 간 기능부전 등이 일어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br/><br/>숨진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여전히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측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며, 수술 전후 관리와 치료 과정의 문제점, 수술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확실치 않다”고만 밝혔다.<br/><br/>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구마모토현 구마모토대학 부속병원에서 60대 여성 환자와 폐암에 걸린 80대 남성 환자의 검체가 바뀌어, 암이 발견되지 않은 여성의 폐 3분의1을 절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쿄의 국립의료연구센터 병원에서 소아암에 걸린 1세 아기에게 이식해야 할 말초혈세포를 주치의가 옆방의 4세 여아에게 잘못 이식했다. 이 병원에서는 소아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프로포폴을 5년 동안 63명에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사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br/><br/>당국은 국립병원과 대학 부속병원 등의 경우 의료사고 사망자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신청하는 기관에 한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인 일본의료평가기구가 지난 6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 사망자 의무보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약 700곳이다.<br/><br/><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8.txt

제목: 일 대학병원서 간 수술환자 5년새 18명 사망  
날짜: 2014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21001585079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외과의사 1명이 모두 집도</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패혈증·기능부전 등 생겨</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보건당국 원인 조사 착수</strong><!-- SUB\_TITLE\_END--><br/><br/>일본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시에 있는 군마대학병원(사진)에서 간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집단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br/><br/>요미우리신문 등은 이 병원에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복강경을 이용해 간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 8명이 숨졌고, 같은 기간 간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 84명 중에서도 60~80대 남녀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수술들을 모두 40대 외과 조교수 한 명이 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br/><br/>후생노동성은 당초 복강경 수술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나, 이 과정에서 개복수술 환자들도 10명이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술 사망률이 11.9%에 달해, 일본 전체의 간 개복수술 사망률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이 병원에서 수술 도중 숨진 환자의 딸인 60대 여성은 요미우리신문에 “아버지도, 가족도 수술로 인해 사망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br/><br/>이 여성의 아버지는 간 개복수술을 받은 뒤 약 50일 후에 숨졌다. 이 여성은 “의사로부터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3주가 지나면 퇴원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수술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의료진은 ‘좋아지고 있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의 아버지뿐 아니라, 개복수술 뒤 사망한 환자 10명이 모두 수술 3개월 안에 패혈증과 간 기능부전 등이 일어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br/><br/>숨진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여전히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또 수술 전후 관리와 치료 과정의 문제점, 수술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확실치 않다”고만 했다.<br/><br/>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구마모토대학 부속병원에서 60대 여성 환자와 폐암에 걸린 80대 남성 환자의 검체가 바뀌어, 암이 발견되지 않은 여성의 폐 3분의 1을 절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쿄의 국립의료연구센터 병원에서 소아암에 걸린 1세 아기에게 이식해야 할 말초혈세포를 주치의가 옆방의 4세 여아에게 잘못 이식했다. 이 병원에서는 소아에게 투여하면 안되는 프로포폴을 5년 동안 63명에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사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br/><br/>당국은 국립병원과 대학 부속병원 등의 경우 의료사고 사망자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있다. 공익법인인 일본의료평가기구가 지난 6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 사망자 의무보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약 700곳이다.<br/><br/><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49.txt

제목: Y염색체의 위기…1000만년 뒤엔 남성이 사라질지 모른다?  
날짜: 2014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110015841257  
본문: 포유류의 성별을 결정짓는 염색체는 X와 Y 두 개다. XX형은 여성, XY형은 남성이 된다. 인간이 가진 염색체 23쌍 중 1쌍의 염색체가 성을 결정짓는 것이다.<br/><br/>최근 남성을 결정하는 Y염색체가 퇴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Y염색체 위기설이 불거졌다. 1000만년 뒤에는 Y염색체를 가진 남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물론 Y염색체 퇴화 추세가 꺾였다는 반론도 나온다.<br/><br/><b>크기가 작은 Y염색체</b><br/>Y염색체는 인간이 가진 23쌍 염색체 가운데 크기가 끝에서 세 번째로 작다. 인간의 전체 염기서열(게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Y염색체에 들어 있는 의미 있는 유전정보인 유전자는 현재 78개가 알려져 있다. 대부분 정자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다.<br/><br/>반면 X염색체는 인간 염색체 중에서 여덟 번째로 크다. 전체 염기서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나 된다. Y염색체의 2.7배다. 밝혀진 유전자 수도 1100여개에 달한다. Y염색체와 비교해 유전자의 기능도 질병 등과 관련되는 등 다양하다. X염색체와 비교해 Y염색체의 기능이 적고 포함하고 있는 유전정보도 적은 것이다.<br/><br/><b>▲3억~1억8000만년 전 등장<br/>생성 초기 비해 97% 유전자 사라져<br/>인간 염색체 중 가장 급격한 변화<br/>퇴화 멈췄다는 주장도 있는데<br/>Y의 운명은…</b><br/><br/><br/><b>흡연이 Y염색체를 없앤다</b><br/>흡연 습관이 Y염색체를 없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웁살라대 얀 두만스키 교수 연구팀은 흡연, 비흡연 남성들의 혈구세포를 비교한 뒤 흡연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혈구세포에 Y염색체가 없을 확률이 최대 4.3배 높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는 지난 4일 국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혈구세포는 혈액 속에 존재하는 적혈구, 백혈구 등 세포를 말한다. 연구팀은 스웨덴 남성 6000명에게서 채취된 혈구세포 속의 DNA를 비교해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br/><br/>혈구에서 Y염색체가 소실되면 수명이 짧아지거나 암 발생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두만스키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7월 Y염색체 소실이 인간 수명을 줄이고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결과는 지난해 8월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지네틱스(Nature Genetic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Y염색체의 소실 정도에 따라 남성의 암 위험을 평가하는 진단법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br/><br/>두만스키 교수 연구결과에 학계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진이 Y염색체의 소실과 수명 감소, 암 발생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Y염색체의 소실이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br/><br/><br/><b>Y염색체는 퇴화중</b><br/>Y염색체 퇴화설을 처음 주장한 것은 호주 국립대 제니퍼 그레이브즈 교수 연구팀이다. 이들은 2002년 동물 Y염색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니 진화 과정에서 Y염색체 크기가 작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에 내놓았다. 퇴화 속도를 감안하면 1000만년 안에 Y염색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당시 학계에 충격을 던져줬다.<br/><br/>Y염색체는 3억~1억8000만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인원이 등장하기 이전이다. Y염색체 등장 이전에 지구상에 살던 포유류는 온도나 산성도에 따라 성이 결정됐을 것으로 학계는 추측하고 있다. 실제 파충류 등은 온도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br/><br/>Y염색체는 등장 이후 1억~2억년간 퇴화했다. Y염색체는 생성 당시 X염색체와 크기가 비슷했다. 현재 Y염색체는 생성 초기와 비교해 97%의 유전자가 사라졌다. 인간이 가진 23쌍의 염색체 가운데 가장 급격한 유전적 변화를 겪었다.<br/><br/>Y염색체가 퇴화한 이유는 X염색체와 짝을 이뤘기 때문이다. 염색체 속 유전자들은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변이를 한다. X염색체와 X염색체가 조합되면 유전자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교환되면서 보전될 수 있다. 그러나 Y염색체는 Y염색체가 아니라 X염색체와 조합된다. X와 Y는 유전자 위치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가 교환되면서 보전되지 못하고 스스로 퇴화하는 것이다.<br/><br/>Y염색체에서 발견된 유전자 78개 중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20개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Y염색체의 핵심 기능인 정자 생산에는 단 2개의 유전자만 관여하고 있다.<br/><br/>지난 4월 Y염색체의 퇴화가 멈추고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화이트헤드 생명의학연구소 연구팀은 Y염색체가 2500만년 전까지 급속도로 퇴화했지만 이후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에 실었다. 침팬지 등 포유류의 Y염색체 유전자 진화를 분석한 결과 2500만년 전부터 1000만년 전까지 Y염색체에서 사라진 유전자는 1개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Y염색체에는 생존과 정자 생산에 필요한 필수 유전자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Y염색체 존재 이유가 정자 생산뿐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br/><br/>Y염색체 퇴화설을 주장했던 그레이브즈 교수 연구팀은 고슴도치 등 일부 동물에서는 실제 Y염색체가 퇴화돼 없어진 사례가 있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앞으로 Y염색체 운명은 어떻게 될까.<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0.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4년 12월 22일  
날짜: 2014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110015840918  
본문: <b>암 말기 엄마, 자식들이 눈에 밟혀</b><br/>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췌장암 말기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은주씨는 지리산에 있는 요양원에 6개월째 머물며 매일 “나는 살 수 있다”고 주문을 왼다. 이혼 후 16살 아들, 9살 딸을 혼자 키워 온 은주씨는 금쪽같은 자식들을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지독한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고 말았다.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에 은주씨는 남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한다.<br/><br/><b>기후변화로 쫓겨난 난민들 실태</b><br/>기후의 반란(MBC 오후 11시15분) = 기후난민들의 처절한 실상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되짚어 본다. 또한 미래에 기후난민이 가져올 국제안보의 위협을 예측해 본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해마다 홍수와 열대성 폭풍 등 거대한 기후재난으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으로 몰락하고 있다. 난민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려 하지만 받아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1.txt

제목: “올해의 가장 중요한 환경뉴스는 ‘4대강 사업 환경파괴’”  
날짜: 2014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110015839991  
본문: 올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환경뉴스는 ‘4대강 사업 환경파괴’인 것으로 조사됐다.<br/><br/>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8∼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올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환경뉴스’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9.6%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책임문제’라고 답했다.<br/><br/>이어 ‘427개 기업의 산업폐수 해양투기문제’(11.6%),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스모그문제’(10.7%), ‘고리원전 갑상선암 주민환자 원전사업자 상대 승소판결’(8.1%), ‘전국 고압송전선로 지역주민 암 피해 호소’(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br/><br/><br/><br/>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내외 주요 환경 뉴스를 추천받아 약 1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10개 후보를 추린 뒤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br/><br/>환경보건시민센터는 또 올해의 환경시민상 수상자로 삼척원전반대범시민연대와 삼척원전반대투쟁위원회를 선정했다. 이 밖에 ‘환경감사패’ 수상자로는 석면문제 해결에 앞장선 중피종암 환자 정현식씨,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문제를 제기한 이진섭씨, 고압송전선로 인근의 전자파 문제를 제기한 교사 민승현씨,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석면 피해 책임을 일본 정부에 물은 유오카 가즈요시 센난지역석면피해모임 대표 등 6명이 선정됐다.<br/><br/>‘올해의 환경뉴스’ 발표와 ‘환경시민상’ 시상식 등은 22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리는 ‘2014 환경보건시민대회’에서 이뤄진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2.txt

제목: [기자칼럼]‘긴박한 생존상의 필요’  
날짜: 20141220  
기자: 박철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20100000032  
본문: 근로기준법상 기업주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때 긴박함이란 그저 ‘어려우니까 양해해달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실직은 한 사람, 한 가족을 절망으로 밀어넣는다. 명백한 ‘필요’를 입증해야 하고 기업의 객관적 사정은 회계장부로 파악할 수 있다. <br/>그런데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당시 회계장부는 부실투성이였고 앞으로 자동차를 더 생산하지 않을 것이란 비현실적 가정으로 손실을 부풀렸다. 이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밝혀낸 ‘사실’이다.<br/>노조 측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어 수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의 법 적용이 온당한지만을 따져야 할 대법원이 이 ‘사실’을 뒤집어버렸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 엉터리 회계가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에서는 ‘국제 금융위기’ ‘경기불황’ ‘경쟁력 약화’ ‘판매량 감소’ 등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했다.<br/>대법원이 적시한 정리해고의 근거들은 당시 정황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잣대가 아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밤새워 풀어 답을 내놓았더니, 구체적 설명 없이 그저 “그 답은 아닌 것 같다”고 덮어버린 격이다.<br/>쌍용차 해고자 2명이 평택공장 안 굴뚝 위에 올라간 지 일주일째다. 이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고, 또 포기할 수가 없다. 6년을 싸워온 강건한 노동자들이지만 요새는 자꾸 눈물이 새어나온다. 격한 어조로 회사를, 정부를, 사법부를 성토하던 이들이 이제는 “제발 손을 잡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굴뚝에 오르던 날, 한 해고자는 40대의 나이에 암으로 숨졌다.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나 그 가족의 26번째 죽음이다.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복직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극한의 지대에 올랐다.<br/>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신규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 1월이면 신차 ‘티볼리’가 출시되고 일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span class='quot0'>법적 결과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큰 틀에서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span>”고 말한 바 있다. 아난드 회장은 ‘티볼리’ 출시에 맞춰 내년 1월12일쯤 방한해 공장 안 기업노조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br/>충격적인 상황도 몇 차례 반복되면 무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고공농성을 다시 생각해본다. 쌍용차 굴뚝 위는 “폭이 1m쯤 되고 걸어보면 열여덟 발 정도” 되는 공간이다. 지붕이 없어 비가 오는 날은 속옷까지 흠뻑 젖는다. 최악의 혹한 속에 있다. 두드려패는 듯한 바람에 몸은 휘청거리고 굴뚝은 흔들려 멀미를 일으킬 정도다. 하루에 한 번씩만 저녁에 식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은 얼음밥을 삼켜야 한다. 귀가 날짜를 기약할 수 없고, 고통에서 벗어나 쉴 시간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br/>그러면서 그들은 공장 안을 바라본다. 고공농성 중인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회귀본능처럼 공장 안 동료들에게 찾아왔다. 회사와 기업노조가 올려주는 밥을 먹으며 조금이나마 가까워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일주일 만에 공장 안에서도 “내미는 손, 꼭 맞잡아 줍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돌기 시작했다. 부실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들은 ‘긴박한 생존상의 필요’를 쥐어짜듯 외치고 있다. 이창근 실장은 영하 10도의 얼음 같은 새벽에 굴뚝을 꾸역꾸역 오르면서 “서러웠다”고 했다. 언제까지 이 서러움을 칼날 같은 겨울바람 앞에 방치해 둘 것인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3.txt

제목: [사진 속으로]암에 관한 백과사전식 해부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9100000083  
본문: 암은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공포다. 이 공포는 극심한 통증, 끝없는 두려움, 슬픈 이별이라는 말들을 동반한다. 분명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세포지만, 내 몸의 일부라 하기에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 헛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다. 의술이라는 이름을 빌려 병원은 수술도 하고 처방도 하지만, 그 과정은 이성적이다 못해 차갑고 냉정하게만 느껴진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병을 핑계 삼아 마음이 분열을 시작하는 이유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의사에게 암은 무엇일까. 그것은 낱낱이 파헤쳐야만 하는 연구와 정복의 대상이다.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이다. <br/><br/><br/><br/>외과의사 노상익은 자신의 블로그에 암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 수기로 써내려간 진단서를 비롯해 처방 내용, 환자의 병력, 수술 마지막 단계에서 기록한 심장박동 그래프, 수술에서 떼어낸 암세포까지.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메모들은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보이기도 하고,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의 사진은 죽음을 날것 그대로 응시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술 장면과 환자들의 치료 과정까지를 사진으로 남긴다. 환자들의 앨범 사진을 모으거나 그가 살던 곳을 사진으로 찍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의술을 지닌 그가 사진술을 빌려 사진가라는 또 다른 수식을 갖는다. 동시에 암환자 삶을 기록하는 대변인이자, 수술 장면까지를 찍는 침입자가 되기도 한다. 오는 21일부터 스페이스22에서 ‘블로그: 외과 일기’전을 여는 노상익은 이렇듯 암을 둘러싼 백과사전식 해부를 시도한다. 암이 간단치 않은 세포인 것처럼 그가 보여주는 이미지의 층위 또한 복잡하다. 신기한 건 대체로 차가운 그 이미지들 속에서 공포이든 슬픔이든 불현듯 뜨거운 감정을 느낀다는 점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4.txt

제목: 로봇수술, 자궁암 등 일부 질병에만 효과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9100000136  
본문: 로봇수술이 자궁암 등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는 기존 수술 방식보다 크게 나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18일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자궁암, 결장암, 방광암, 폐·기관지암, 구강·인후두암, 식도암, 부신·신우요관암 등 7개 암에 대한 로봇수술 효과를 공개했다.<br/><br/>로봇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기존 수술보다 의미 있게 낮은 경우는 자궁암뿐이었다. 자궁암 중 자궁내막암은 로봇수술이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에 비해 상처와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다. 자궁경부암은 로봇수술이 개복수술 때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지만 복강경 수술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br/><br/>인후두암 로봇수술은 수술 후 삽관 제거일을 6.4일, 입원기간을 8.4일 단축시켰다. 결장암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보다 식이 시작일 0.7일, 가스 배출일 0.5일, 배변 시작일 0.6일을 단축시켰다. 방광암은 개복수술과 비교해 수술 후 패혈증·농양·호흡부전의 발생률이 낮았지만 협착 발생률은 더 높았다.<br/><br/>보의연은 폐·기관지암과 식도암, 부신·신우요관암에 대해서는 현재 축적된 근거만으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앞서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위암 로봇수술도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에서 다른 수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5.txt

제목: [기자칼럼]‘긴박한 생존상의 필요’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910015836837  
본문: 근로기준법상 기업주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때 긴박함이란 그저 ‘어려우니까 양해해달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실직은 한 사람, 한 가족을 절망으로 밀어넣는다. 명백한 ‘필요’를 입증해야 하고 기업의 객관적 사정은 회계장부로 파악할 수 있다.<br/><br/>그런데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당시 회계장부는 부실투성이였고 앞으로 자동차를 더 생산하지 않을 것이란 비현실적 가정으로 손실을 부풀렸다. 이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밝혀낸 ‘사실’이다.<br/><br/>노조 측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어 수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의 법 적용이 온당한지만을 따져야 할 대법원이 이 ‘사실’을 뒤집어버렸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 엉터리 회계가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에서는 ‘국제 금융위기’ ‘경기불황’ ‘경쟁력 약화’ ‘판매량 감소’ 등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했다.<br/><br/>대법원이 적시한 정리해고의 근거들은 당시 정황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잣대가 아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밤새워 풀어 답을 내놓았더니, 구체적 설명 없이 그저 “그 답은 아닌 것 같다”고 덮어버린 격이다.<br/><br/>쌍용차 해고자 2명이 평택공장 안 굴뚝 위에 올라간 지 일주일째다. 이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고, 또 포기할 수가 없다. 6년을 싸워온 강건한 노동자들이지만 요새는 자꾸 눈물이 새어나온다. 격한 어조로 회사를, 정부를, 사법부를 성토하던 이들이 이제는 “제발 손을 잡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굴뚝에 오르던 날, 한 해고자는 40대의 나이에 암으로 숨졌다.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나 그 가족의 26번째 죽음이다.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복직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극한의 지대에 올랐다.<br/><br/>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신규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 1월이면 신차 ‘티볼리’가 출시되고 일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span class='quot0'>법적 결과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큰 틀에서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span>”고 말한 바 있다. 아난드 회장은 ‘티볼리’ 출시에 맞춰 내년 1월12일쯤 방한해 공장 안 기업노조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br/><br/>충격적인 상황도 몇 차례 반복되면 무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고공농성을 다시 생각해본다. 쌍용차 굴뚝 위는 “폭이 1m쯤 되고 걸어보면 열여덟 발 정도” 되는 공간이다. 지붕이 없어 비가 오는 날은 속옷까지 흠뻑 젖는다. 최악의 혹한 속에 있다. 두드려패는 듯한 바람에 몸은 휘청거리고 굴뚝은 흔들려 멀미를 일으킬 정도다. 하루에 한 번씩만 저녁에 식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은 얼음밥을 삼켜야 한다. 귀가 날짜를 기약할 수 없고, 고통에서 벗어나 쉴 시간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br/><br/>그러면서 그들은 공장 안을 바라본다. 고공농성 중인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회귀본능처럼 공장 안 동료들에게 찾아왔다. 회사와 기업노조가 올려주는 밥을 먹으며 조금이나마 가까워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일주일 만에 공장 안에서도 “내미는 손, 꼭 맞잡아 줍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돌기 시작했다. 부실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들은 ‘긴박한 생존상의 필요’를 쥐어짜듯 외치고 있다. 이창근 실장은 영하 10도의 얼음 같은 새벽에 굴뚝을 꾸역꾸역 오르면서 “서러웠다”고 했다. 언제까지 이 서러움을 칼날 같은 겨울바람 앞에 방치해 둘 것인가.<br/><br/><박철응 | 정책사회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6.txt

제목: [사진 속으로]암에 관한 백과사전식 해부  
날짜: 2014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810015829702  
본문: 암은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공포다. 이 공포는 극심한 통증, 끝없는 두려움, 슬픈 이별이라는 말들을 동반한다. 분명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세포지만, 내 몸의 일부라 하기에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 헛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다. 의술이라는 이름을 빌려 병원은 수술도 하고 처방도 하지만, 그 과정은 이성적이다 못해 차갑고 냉정하게만 느껴진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병을 핑계 삼아 마음이 분열을 시작하는 이유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의사에게 암은 무엇일까. 그것은 낱낱이 파헤쳐야만 하는 연구와 정복의 대상이다.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이다.<br/><br/><br/><br/>외과의사 노상익은 자신의 블로그에 암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 수기로 써내려간 진단서를 비롯해 처방 내용, 환자의 병력, 수술 마지막 단계에서 기록한 심장박동 그래프, 수술에서 떼어낸 암세포까지.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메모들은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보이기도 하고,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의 사진은 죽음을 날것 그대로 응시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술 장면과 환자들의 치료 과정까지를 사진으로 남긴다. 환자들의 앨범 사진을 모으거나 그가 살던 곳을 사진으로 찍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의술을 지닌 그가 사진술을 빌려 사진가라는 또 다른 수식을 갖는다. 동시에 암환자 삶을 기록하는 대변인이자, 수술 장면까지를 찍는 침입자가 되기도 한다. 오는 21일부터 스페이스22에서 ‘블로그: 외과 일기’전을 여는 노상익은 이렇듯 암을 둘러싼 백과사전식 해부를 시도한다. 암이 간단치 않은 세포인 것처럼 그가 보여주는 이미지의 층위 또한 복잡하다. 신기한 건 대체로 차가운 그 이미지들 속에서 공포이든 슬픔이든 불현듯 뜨거운 감정을 느낀다는 점이다.<br/><br/><송수정 전시 기획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7.txt

제목: 로봇수술, 자궁암 등 일부 질병에만 효과  
날짜: 2014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810015830078  
본문: 로봇수술이 자궁암 등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는 기존 수술 방식보다 크게 나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18일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자궁암, 결장암, 방광암, 폐·기관지암, 구강·인후두암, 식도암, 부신·신우요관암 등 7개 암에 대한 로봇수술 효과를 공개했다.<br/><br/>로봇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기존 수술보다 의미 있게 낮은 경우는 자궁암뿐이었다. 자궁암 중 자궁내막암은 로봇수술이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에 비해 상처와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다. 자궁경부암은 로봇수술이 개복수술 때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지만 복강경 수술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br/><br/>인후두암 로봇수술은 수술 후 삽관 제거일을 6.4일, 입원기간을 8.4일 단축시켰다. 결장암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보다 식이 시작일 0.7일, 가스 배출일 0.5일, 배변 시작일 0.6일을 단축시켰다. 방광암은 개복수술과 비교해 수술 후 패혈증·농양·호흡부전의 발생률이 낮았지만 협착 발생률은 더 높았다.<br/><br/>보의연은 폐·기관지암과 식도암, 부신·신우요관암에 대해서는 현재 축적된 근거만으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앞서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위암 로봇수술도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에서 다른 수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8.txt

제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받은 말기 암환자, 진료비도 적게 써  
날짜: 2014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810015828417  
본문: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은 말기 암환자의 진료비가 그렇지 않은 암환자의 경우보다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2013년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암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br/><br/>연구원은 항암치료와 항암수술, 골밀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 ‘적극적 항암치료집단’과 통증치료를 위주로 하는 ‘완화의료집단’을 나눠 입원기간에 따른 평균 진료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적극적 항암치료집안의 진료비는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가라프게 늘어나는 반면 완화의료집단의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었다. 예를들어, 적극적 항암치료집단의 말기 암환자가 30일 입원하는 동안 1410만원을 썼지만, 완화의료집단의 말기 암환자는 같은 기간 533만원의 진료비를 썼다. <br/><br/>그러나 완화의료집단에 속한 환자는 2.6%로, 적극적 항암치료집단에 속한 환자 수(97.4%)에 비해 크게 적었다. 아직까지 완화의료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현재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54개소 868병상에 불과하다. <br/><br/>연구원은 “<span class='quot0'>건강보험법의 목적에 ‘국민의 존엄한 죽음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well dying)’를 돕는 것이 완화의료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59.txt

제목: “봄여름가을겨울 전태관 암치료…기도해주세요”  
날짜: 2014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6100000171  
본문: 2인조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의 멤버 전태관(사진 오른쪽)이 암 치료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br/><br/>봄여름가을겨울의 멤버 김종진(왼쪽)은 15일 오후 자신의 밴드 대표 블로그(blog.naver.com/ilovessaw)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br/><br/>김종진은 “<span class='quot0'>안타깝지만 저희 봄여름가을겨울도 침통한 소식을 하나 전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2년 전 신장암으로 신장을 한 쪽 떼어내고도 왕성하게 활동해온 전태관군이 최근 암이 어깨로 전이 돼 부득이하게 당분간 연주 활동을 못 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김종진에 따르면 전태관은 소속사의 경영 업무를 맡아 후배 뮤지션 활동을 돕게 되며, 동시에 회복에 전념하게 된다. 김종진은 “<span class='quot0'>이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방송을 통해 긍정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고, 어깨가 완치돼 연주자로 복귀할 때까지 봄여름가을겨울의 음악 활동은 저 김종진에게 부탁했다</span>”고 덧붙였다. 김종진은 이어 “<span class='quot0'>지난 28년간 우리 곁에서 감동의 소리를 전했던 명연주자의 복귀를 위해 기도 부탁한다</span>”고 바랐다.<br/><br/>한편 전태관은 김종진을 통해 “<span class='quot1'>둘보다 혼자는 외로울 테니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span>”면서 “<span class='quot1'>그동안 음악을 통해 함께 울고 웃어준 동료들, 봄여름가을겨울을 믿고 사랑해주신 음악 팬들에게 감사드린다</span>”고 인사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0.txt

제목: [단독]‘봄여름가을겨울’ 활동중단…전태관 암 재발로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510015800594  
본문: 밴드 ‘봄여름가을겨울’ 멤버 전태관이 당분간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br/><br/>전태관은 2년 전 신장암 발병으로 신장 한쪽을 떼어낸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암이 어깨부위로 전이돼 부득이하게 당분간 연주활동을 못하게 됐다.<br/><br/>향후 전태관은 음악 활동 대신 SSaW Ent의 경영업무를 맡아 동료 후배 뮤지션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br/><br/>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후 전태관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방송을 통해 긍정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어깨가 완치되어 연주자로 복귀할 때까지 ‘봄여름가을겨울’의 음악활동은 김종진에게 부탁한 것으로 안다</span>”고 밝혔다.<br/><br/>전태관은 “<span class='quot1'>둘보다 혼자는 외로울테니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span>”며 “<span class='quot1'>그동안 음악을 통해 함께 울고 웃어준 동료들, ‘봄여름가을겨울’을 믿고 사랑해주신 음악팬들에게 감사드린다</span>”라는 메시지를 전했다.<br/><br/>‘봄여름가을겨울’은 1986년 김종진·전태관·유재하·장기호가 김현식과 함께 ‘김현식과 봄여름가을겨울’을 결성하면서 출발했다. 유재하의 탈퇴 이후 박성식의 합류했다. 1988년 김종진와 전태관만으로 ‘봄여름가을겨울’이란 이름으로, 첫 앨범 ‘봄여름가을겨울’ 1집을 발매했다. 1989년 2집 ‘봄여름가을겨울2-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을 발매했고, 수록곡 ‘어떤이의 꿈’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2002년 7집 정규음반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실린 동명의 타이틀곡도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br/><br/><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1.txt

제목: 트위터로 본 2014년 연예계는?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5100000120  
본문: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는 한국 연예 스타들과 지근 거리에 있다. 대부분의 스타들이 트위터로 대중과 가까이 교류하는 등 직접적인 교류 창구로 활용 중이다.<br/><br/>활용법은 다양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고, 사회적인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시각으로 촌평을 더했다. 누군가는 결혼을 발표하기도, 또 갑작스럽게 불거진 열애설에 대한 빠른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br/><br/>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는 경우 역시 많았고, 섣불리 올린 글로 거꾸로 논란을 양산시킨 경우 역시 있었다. <br/><br/>올해도 트위터 속 스타들은 많은 트렌드를 함께 했다. 트위터 코리아가 2014년을 집계하며 꼽은 다양한 기록을 짚어본다. <br/><br/>▲한국의 트위터 킹은 누구?<br/><br/>국내 트위터 계정 운영자 중 ‘팔로어’가 많은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연예인이 차지했다. 게다가 팬층이 많기로 유명한 가수들이 순위를 독식했다.<br/><br/>14일 현재 팔로어 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은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다. 441만 명의 팔로어를 자랑했다. <br/><br/>슈퍼주니어의 아성은 단단했다. 시원과 함께 동해(2위, 428만 명), 예성(5위, 299만 명), 이특(7위, 275만 명), 려욱(8위, 269만 명), 은혁(9위, 264만 명) 등의 멤버들이 10위권 중 6개의 순위를 쓸어 담았다.<br/><br/>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싸이는 380만 명으로 3위를,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은 357만 명으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드래곤의 경우 한 해 동안 트위터 팔로어를 125만 명가량 추가하면서 4위로 치솟을 수 있었다. <br/><br/>여자 가수는 2명이 10위권에 진입했다.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275만 명으로 6위에 들었고, 가수 보아가 259만 명으로 10위에 안착했다. 연예인이 아닌 최다 팔로워 보유 운영자는 전체 부문에서 16위를 차지한 작가 이외수였다. 암 투병 중인 이외수 작가는 14일 현재 184만 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다. <br/><br/>▲골든 트위트는?<br/><br/>국내 트위터 계정 중 가장 많은 ‘리트윗’을 기록한 게시물은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쓴 것이다. 지난 4월17일 ‘프레이 포 사우스 코리아(한국을 위해 기도해달라)’란 짤막한 글이 오르자 각국의 팬들이 너나 없이 글을 퍼날랐다. 참혹했던 세월호 사고를 접한 세계 각국의 팬들이 생존자의 무사 귀환을 함께 빌었다. 당시 글은 모두 5만2912건 리트윗됐다. <br/><br/>리트윗 수 2위를 기록한 것은 ‘트위터 킹’ 최시원의 게시물이었다. SM 가수들의 합동 공연인 ‘SM타운’의 무대 뒷이야기를 담은 글과 사진이었다. ‘위드 뷰티풀 레이디스’라는 글 아래 첨부된 사진에서 최시원은 여장을 한 동료 멤버 규현과 부둥켜 안아 폭소탄을 터뜨렸다. 사진에는 이 밖에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샤이니의 민호가 각각 여장한 모습이 함께 들어가 큰 호응을 불렀다. 무려 4만4000여 건의 리트윗이 발생했다. <br/><br/>이 밖에 최시원의 셀카가 3위를, Mnet 생방송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 계정이 쏴 올린 그룹 엑소K의 360도 회전 동영상 2편이 4위와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최시원의 ‘태국 어머니의 날 축하 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축하 글’, 규현의 ‘일본 여행 사진’ ‘무대 뒷모습’ 등도 모두 톱10에 들었다. <br/><br/>▲아시아 각국의 트렌드 장악 <br/><br/>트위터 코리아는 “<span class='quot0'>K팝 가수들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상당수 국가들에서도 해시태그(hash tag) 트렌드 부문 순위권을 장식했다</span>”며 각 국의 순위도 함께 소개했다. ‘해시태그’란 이용자들이 검색의 편의성을 위해 ‘#’ 뒤에 검색어를 지정하는 것을 일컫는다.<br/><br/>태국의 경우 국가 전체 해시태그 부문 1위를 한국 K팝 그룹의 앨범 제목인 ‘12월의 기적’이 차지했다. 또 그룹 BAP(2위), 동방신기(3위), 방탄소년단(4위) 등 상위 30위권 내 17개가 K팝과 관련된 단어로 조사됐다. <br/><br/>베트남 역시 3위, 5위, 7위, 9위, 11위 등 상위 30위 중 19개가 K팝 관련 단어였다. 이 밖에 대만은 30위 중 12개, 말레이시아는 5개가 각각 K팝 가수들의 몫이었다. <br/><br/>▲전 세계 부문 & 국내 비연예 부문은?<br/><br/>전 세계에서 트위터 팔로워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인물은 미국 팝 여가수 레이디가가로 집계됐다. 4300만 명에 이르는 팔로어가 그의 글과 사진을 구독하고 있다.<br/><br/>최다 리트윗을 기록한 골든 게시물은 지난 3월 오스카 시상식에서 ‘엘런쇼’ 계정을 통해 알린 미국 코미디언 엘런 드제너러스의 셀카 사진이었다. 쟁쟁한 10여 명의 스타들이 환하게 웃는 장면이 사진 한 점에 모두 들어 있었다. 이 사진은 336만 건의 리트윗을 일으켰다. <br/><br/>트위터 코리아는 “<span class='quot0'>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5억 건의 트위터 글이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내의 경우 K팝 관련 소식 외에, 4월 세월호 침몰 소식, 2월 김연아 은메달 수상,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 8월 교황 방한, 10월 인천아시안게임 농구 결승 등 다수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많은 글이 생성돼 트위터를 달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2.txt

제목: 여성과학기술자상에 함시현·임혜숙 교수, 유향숙 연구원  
날짜: 2014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5100000070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과학기술자들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의 올해 수상자로 숙명여대 화학과 함시현 교수(45),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임혜숙 교수(5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향숙 명예연구원(65)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br/>이학 부문 수상자인 함 교수는 치매나 암, 광우병 등의 원인인 단백질 응집 현상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 부문 임 교수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망 장비의 핵심부품인 패킷전달 엔진의 고속화를 위한 알고리즘 구조를 개발했다. 진흥 부문 유 명예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의장으로 활동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3.txt

제목: 여성과학기술자상에 함시현·임혜숙 교수, 유향숙 연구원  
날짜: 2014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410015795755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과학기술자들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의 올해 수상자로 숙명여대 화학과 함시현 교수(45),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임혜숙 교수(5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향숙 명예연구원(65)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br/><br/><br/><br/>이학 부문 수상자인 함 교수는 치매나 암, 광우병 등의 원인인 단백질 응집 현상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학 부문 임 교수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망 장비의 핵심부품인 패킷전달 엔진의 고속화를 위한 알고리즘 구조를 개발했다. 진흥 부문 유 명예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의장으로 활동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4.txt

제목: [이채린의 뉴욕서점가]환자의 생존보다 생의 끝자락 삶의 질을 생각하라  
날짜: 20141213  
기자: 이채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3100000004  
본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아툴 가완디 | 메트로폴리탄북스<br/>의학발전으로 수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40년이나 늘어났다. 자식들은 멀리 사는 가운데 노인전문요양원(너싱홈)의 인기가 많아졌지만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데 급급해 삶의 질과 사람들과의 교감까지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br/>외과의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툴 가완디(Atul Gawande)가 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Being Mortal)>는 의료인이나 너싱홈이 그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노화와 죽음에 대해 성찰하면서 의미있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와 생의 말기에 중요한 것들’이라는 부제의 이 책은 그의 네번째 저서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br/>미국인에게 유언장 작성은 매우 보편적인 일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젊은 나이에도 흔히 준비하는데, 요즘은 코마에 빠졌을 때의 처치나 고통스러운 수술 대신 호스피스를 택하겠다는 등 삶의 말기에 대한 자신의 선택도 종종 포함시킨다. <br/>저자와 마찬가지로 외과의였던 아버지는 암에 걸렸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대로 생각하거나 남과 소통할 수 없는 삶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역시 의사인 아내를 비롯해 가족과 상의했다. 생명유지만을 위한 치료를 멈추고 호스피스를 택한 그는 거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생의 말기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한 뒤 생존보다 삶의 질을 가능한한 끝까지 최대화한 결정이었다. <br/>부모가 너싱홈에서 마치 주차장의 자동차처럼 안전하게 있길 바라는 자식들도 스스로의 삶이라면 비록 위험하더라도 자율권을 갖길 바랄 것이다. 생존과 안전이 유일한 목표인 나날들에서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을 지속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곳이 너싱홈이어야 한다. <br/>저자는 돌이켜보니 의대에서는 병을 고쳐 생명을 연장하고 죽지 않도록 하는 법만 배웠지, 사망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한다. 또 의사들은 노화과정을 삶의 일부로 보기보다 ‘질환’으로 취급해 치료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한다. 환자를 그저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에 임박하거나 삶이 제한적이 되더라도 각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변화가 노인학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br/>안락사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어떨까. 현재 미국 5개주에서는 불치병 환자가 치사량의 약물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죽음을 돕는 것보다 개인의 우선 순위를 도출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통해 돕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방법은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미래에 대해 어떤 공포와 근심을 갖고 있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지키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어떤 것은 희생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안되나.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의사와 환자는 남은 생의 방향성을 찾게 된다. <br/>1945년에는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집에서 죽음을 맞았지만, 공격적인 치료가 성행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이 비율이 17%로 줄었다. 추세는 다시 변해 지난 5년간은 호스피스의 도움 아래 사망한 경우가 45%에 달했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어떻게 늙고 죽을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5.txt

제목: FT ‘올해의 인물’에 팀 쿡, 애플 선전·커밍아웃 평가  
날짜: 20141213  
기자: 남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3100000050  
본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54·사진)가 파이낸셜타임스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br/>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 “<span class='quot0'>올해는 쿡이 전임자의 그늘을 벗어나 애플에 자신이 만든 가치를 각인시킨 해</span>”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쿡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사망하기 두 달 전인 2011년 8월 애플 CEO로 취임했다.<br/><br/>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잡스 사후 애플의 혁신 정신이 퇴색했다고 우려했지만, 쿡은 ‘애플 워치’와 ‘애플 페이’ 등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는 등 패션과 금융 영역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6와 6플러스가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고도 평가했다. 잡스와 같은 ‘쇼맨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아직까지 쿡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쿡은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br/>신문은 “애플이 거둔 성과만으로도 쿡을 ‘올해의 인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스스로를 드러낸 용기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며 쿡이 지난 10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신문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실리콘밸리에 쿡의 커밍아웃이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6.txt

제목: 우유 많이 마시면 암·성조숙증 유발?  
날짜: 20141212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2100000111  
본문: 완전 식품으로 여겨지던 우유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암에 걸린다거나,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조숙증을 유발해 성장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br/>이에 대해 학술단체인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과 지역사회영양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기대 교육대학원 이정희 교수(영양교육 전공)는 “<span class='quot0'>우유를 많이 마시면 암에 걸린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span>”고 밝혔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올해 ‘미국암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유전자 변형 기술로 생산한 소 성장호르몬(rBGH)을 투여한 젖소에서 짠 우유를 마시더라도 사람 체내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1)의 농도 상승은 매우 미미하며 이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지는 불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span>”고 밝혔다. IGF-1은 암세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는 “<span class='quot2'>현재 한국인의 우유 섭취량을 고려할 때 암을 일으킬까 두려워 우유를 멀리하는 것은 난센스</span>”라고 지적했다.<br/>이정희 교수는 “<span class='quot3'>우유가 성조숙증을 불러 성장 장애로 이어진다고 오해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3'>성조숙증은 우유 탓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상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주된 원인</span>”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우유에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성장과 뼈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이다.<br/>최근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6만1000여명과 남성 4만5000여명을 11년 이상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우유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사망률이 1.9배 늘었다. 그러나 이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우유 섭취량은 한국인의 평균(남성 77.6g, 여성 73g)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정희 교수는 “<span class='quot3'>스웨덴은 지방과 육류 단백질의 섭취량이 많아 해당 연구결과를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7.txt

제목: 말기암 환자 위한 호스피스 시설 크게 부족  
날짜: 20141212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2100000106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기반으로 올해 안에 고시를 제정해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할 방침이다. 말기암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br/>11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하 학회)에 따르면 2011년 암관리법이 제정돼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연간 암으로 죽는 환자가 7만5000여명인데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숫자는 크게 부족하다. 전국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체 말기암 환자의 약 12%만 수용할 수 있는 54곳(883병상)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등록을 할 뿐 아니라 입원하더라도 한 달이 넘으면 퇴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병상 대부분이 대형병원과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기관 및 지역별 균형을 맞춘 병상수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충분한 호스피스 시설을 갖춰 암환자뿐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br/>이창걸 학회 이사장(연세대 의대 방사선종양학과)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 “<span class='quot0'>현재 우리나라 암환자의 삶의 질은 사실상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시범사업을 끝낸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를 완화의료 전문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이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다학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를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질 향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프라 확대와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8.txt

제목: [이채린의 뉴욕서점가]환자의 생존보다 생의 끝자락 삶의 질을 생각하라  
날짜: 2014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210015790685  
본문: <b>▲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아툴 가완디 | 메트로폴리탄북스</b><br/><br/>의학발전으로 수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40년이나 늘어났다. 자식들은 멀리 사는 가운데 노인전문요양원(너싱홈)의 인기가 많아졌지만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데 급급해 삶의 질과 사람들과의 교감까지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br/><br/>외과의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툴 가완디(Atul Gawande)가 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Being Mortal)>는 의료인이나 너싱홈이 그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노화와 죽음에 대해 성찰하면서 의미있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와 생의 말기에 중요한 것들’이라는 부제의 이 책은 그의 네번째 저서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br/><br/>미국인에게 유언장 작성은 매우 보편적인 일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젊은 나이에도 흔히 준비하는데, 요즘은 코마에 빠졌을 때의 처치나 고통스러운 수술 대신 호스피스를 택하겠다는 등 삶의 말기에 대한 자신의 선택도 종종 포함시킨다. <br/><br/>저자와 마찬가지로 외과의였던 아버지는 암에 걸렸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대로 생각하거나 남과 소통할 수 없는 삶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역시 의사인 아내를 비롯해 가족과 상의했다. 생명유지만을 위한 치료를 멈추고 호스피스를 택한 그는 거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생의 말기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한 뒤 생존보다 삶의 질을 가능한한 끝까지 최대화한 결정이었다. <br/><br/>부모가 너싱홈에서 마치 주차장의 자동차처럼 안전하게 있길 바라는 자식들도 스스로의 삶이라면 비록 위험하더라도 자율권을 갖길 바랄 것이다. 생존과 안전이 유일한 목표인 나날들에서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을 지속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곳이 너싱홈이어야 한다. <br/><br/>저자는 돌이켜보니 의대에서는 병을 고쳐 생명을 연장하고 죽지 않도록 하는 법만 배웠지, 사망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한다. 또 의사들은 노화과정을 삶의 일부로 보기보다 ‘질환’으로 취급해 치료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한다. 환자를 그저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에 임박하거나 삶이 제한적이 되더라도 각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변화가 노인학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br/><br/>안락사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어떨까. 현재 미국 5개주에서는 불치병 환자가 치사량의 약물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죽음을 돕는 것보다 개인의 우선 순위를 도출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통해 돕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방법은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미래에 대해 어떤 공포와 근심을 갖고 있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지키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어떤 것은 희생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안되나.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의사와 환자는 남은 생의 방향성을 찾게 된다. <br/><br/>1945년에는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집에서 죽음을 맞았지만, 공격적인 치료가 성행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이 비율이 17%로 줄었다. 추세는 다시 변해 지난 5년간은 호스피스의 도움 아래 사망한 경우가 45%에 달했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어떻게 늙고 죽을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이다.<br/><br/><이채린 | 뉴욕통신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69.txt

제목: 겨울에 더 위험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의 3박자 … 금연·절주는 기본 짜게 먹지 말고 운동 꼭 해라  
날짜: 20141212  
기자: 도재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2100000110  
본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2~3시간) 안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진료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br/>강원대병원(강원), 경북대병원(경북), 제주대병원(제주), 경상대병원(경남), 전남대병원(전남), 충북대병원(충북), 동아대병원(부산), 원광대병원(전북), 충남대병원(충남),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인하대병원(인천) 등이다. 상당한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과 인력 등 전국적인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br/><br/>심뇌혈관질환이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협심증) 등 심장질환, 뇌졸중(뇌내출혈·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그리고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동맥경화증을 가리킨다.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을 합치면 암보다 많다. 겨울철에는 심뇌혈관 응급 질환 발생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려면 금연·절주, 싱겁게 먹기, 꾸준한 운동이라는 3박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br/>흡연자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정도나 높다. 금연한 지 1년 정도 지나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흡연자와 같이 사는 비흡연자는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1.3배, 뇌혈관질환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br/>한두 잔의 술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병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1.2g.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기구(FAO) 목표 수준인 5g보다 훨씬 많다. 짜게 먹으면 우선적으로 혈압이 높아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br/>적절한 신체 활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켜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망위험을 줄여준다.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체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다. 시간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총 30분 이상 운동을 해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0.txt

제목: FT ‘올해의 인물’에 팀 쿡, 애플 선전·커밍아웃 평가  
날짜: 2014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210015791073  
본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54·사진)가 파이낸셜타임스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br/><br/>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 “<span class='quot0'>올해는 쿡이 전임자의 그늘을 벗어나 애플에 자신이 만든 가치를 각인시킨 해</span>”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쿡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사망하기 두 달 전인 2011년 8월 애플 CEO로 취임했다.<br/><br/><br/>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잡스 사후 애플의 혁신 정신이 퇴색했다고 우려했지만, 쿡은 ‘애플 워치’와 ‘애플 페이’ 등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는 등 패션과 금융 영역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6와 6플러스가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고도 평가했다. 잡스와 같은 ‘쇼맨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아직까지 쿡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쿡은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br/><br/>신문은 “애플이 거둔 성과만으로도 쿡을 ‘올해의 인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스스로를 드러낸 용기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며 쿡이 지난 10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신문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실리콘밸리에 쿡의 커밍아웃이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1.txt

제목: 말기암 환자 위한 호스피스 시설 크게 부족  
날짜: 2014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110015785462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기반으로 올해 안에 고시를 제정해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할 방침이다. 말기암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br/><br/>11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하 학회)에 따르면 2011년 암관리법이 제정돼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연간 암으로 죽는 환자가 7만5000여명인데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숫자는 크게 부족하다. 전국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체 말기암 환자의 약 12%만 수용할 수 있는 54곳(883병상)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등록을 할 뿐 아니라 입원하더라도 한 달이 넘으면 퇴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병상 대부분이 대형병원과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기관 및 지역별 균형을 맞춘 병상수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br/>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충분한 호스피스 시설을 갖춰 암환자뿐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br/><br/>이창걸 학회 이사장(연세대 의대 방사선종양학과)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 “<span class='quot0'>현재 우리나라 암환자의 삶의 질은 사실상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시범사업을 끝낸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를 완화의료 전문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이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다학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를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질 향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프라 확대와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2.txt

제목: [새책]여의열전(女醫列傳), 한국 의료를 이끄는 46인의 여의학자들  
날짜: 2014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010015773034  
본문: ■성공한 명의(名醫) 여의학자 46인의 일과 인생 이야기<br/><br/>소아 수술의 달인 박귀원, 이종이식의 권위자 안규리, 심장초음파의 고감도 센서 심완주, 시각재활의 문을 연 문남주, 안성형의 리더 김윤덕, 이명·난청 분야의 희망봉 박시내, 소아 간이식의 베테랑 이남준, 난치성 근육병의 슈퍼루키 박영은, 소아알레르기학의 선구자 편복양, 맞춤 암치료의 개척자 최은경, 항암 연구의 선봉장 라선영, 간경화 줄기세포 치료의 박정화, 비뇨기과 여성전문의 1호 윤하나….<br/><br/><br/><br/>명의(名醫) 여의사들을 소개한 <여의열전(女醫列傳)>에는 의학자로서 성공해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은 46인 여의사들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박효순 경향신문 건강과학팀장(강의료 전문기자)이 1년 여간 전국을 취재한 비망록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박 기자는 ‘여의열전’ 기획으로 한국과학기자협회 2014년도 ‘GSK의학기자상’ 수상했다.<br/><br/>저자는 46인의 여의학자들을 錦上添花(금상첨화), 囊中之錐(낭중지추), 愚公移山(우공이산), 漸入佳境(점입가경), 靑出於藍(청출어람) 등 5부로 나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계에서도 잘 모르는 숨은 에피소드가 많이 나온다. 바야흐로 여초(女超)시대, 점점 세지는 여풍(女風)의 단면들도 엿보인다. (경향신문 발간, 336쪽·1만 8000원)<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3.txt

제목: ‘땅콩 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경복궁 한옥호텔 건립에도 불똥?  
날짜: 2014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010015769636  
본문: ‘땅콩 리턴’ 논란으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대한항공이 추진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 건립에 불똥이 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복궁 한옥호텔 설립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 옆 건립 문제 등으로 두고 논란이 지속돼왔다.<br/><br/>10일 관련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2900억 원을 들여 경복궁 옆 옛 주미대사관 숙소부지 3만6000여㎡를 사들인 뒤 7성급 한옥형 특급호텔과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환경을 해치고,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의 학습 환경을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호텔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다.<br/><br/>호텔 건립을 위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은 호텔부지가 학교 옆에 붙어 있는 탓에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호텔 부지 인근에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현행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학교 주변 50m 내)에는 호텔 건립이 불가능하고 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50∼200m)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br/><b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2년 대법원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구 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span class='quot0'>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span>”고 최종판결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span class='quot1'>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이어 “<span class='quot1'>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식사이후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부마저 훈령을 개정해가며 업자들의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손쉽도록 도와주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리턴’사태로 9일 전격 보직사퇴하기는 했지만 오너 일가의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이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4.txt

제목: ‘기부 천사’ 양현종, 초대 최동원상 상금 절반 모교 등 쾌척  
날짜: 2014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10100000081  
본문: 양현종(26·KIA)이 올해도 조용하게 선행하고 있다.<br/><br/>양현종은 지난달 11일 부산에서 제1회 최동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프로야구 레전드 최동원을 기리며 최고의 활약을 한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제정됐다. 양현종은 올해 16승 8패, 방어율 4.25로 활약했다. KIA는 4강에서 탈락해 하위권으로 처졌지만 양현종의 활약은 빛났다.<br/><br/>이 상을 통해 받은 상금은 2000만원이었다. 양현종은 이 상금 중 절반 이상을 야구 후배들에게 조용히 썼다.<br/><br/>모교인 광주 학강초등학교와 동성중학교, 동성고등학교에 야구공을 100상자씩 보냈고 양산 원동중학교에 30상자, 고 최동원의 모교인 경남고등학교에는 40상자를 선물했다. 양산 원동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폐교될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 7월 대통령기대회 우승까지 차지한 사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br/><br/>양현종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런 선물을 보냈다. 뜻밖의 선물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던 원동중학교 최윤현 야구부장이 최동원기념사업회에 연락해오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br/><br/>양현종은 또 하나의 선행을 준비하고 있다. “선행이라고 하기에 부끄럽다”고 항상 말하지만 올해도 친구들과 함께 자선 일일호프 행사를 연다.<br/><br/>양현종은 2006년 쿠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청소년 대표팀 동기생들과 함께 지난해 일일호프를 개최했다. 1989년생인 김선빈을 제외하고 모두 1988년생 동기들로 이뤄진 당시 대표팀 친구들 중에는 양현종·김광현·이재곤처럼 지금 프로야구 스타가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야구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다. 이 ‘88둥이’들은 원래 2012년 처음으로 행사를 계획했지만 친구 중 한 명인 이두환(전 KIA)이 행사 전날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슬픔 속에 물거품이 됐다. 친구들은 1년 뒤인 지난해 12월20일 친구 두환이를 기리며 일일호프를 열어 수익금을 이두환의 부모님에게 전했다.<br/><br/>올해도 좋은 뜻을 이어간다.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주점에서 양현종이 주축이 돼 일일호프와 자선경매 행사를 개최한다.<br/><br/>올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했던 양현종은 포스팅 결과에 따른 구단의 반대로 잠시 꿈을 미루게 됐다. 실망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겨울, 원래의 ‘미소 천사’ 양현종으로 돌아가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5.txt

제목: [경향마당]담뱃값 인상 앞서 금연대책 마련해야  
날짜: 20141209  
기자: 구자풍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9100000073  
본문: 정부는 정말 흡연자들이 담배 끊기를 원하는 것일까. 지난 20년간 담배를 피워온 흡연자의 입장에서 이번 담뱃세 인상은 참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터의 노동자로 살아가며 수많은 스트레스를 담배 한 모금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공감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br/>담배의 유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흡연자들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나 역시 과거에 담배를 끊기 위해 금연침도 맞아보고 전자담배도 피워보고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무료 패치도 붙여봤지만 번번이 금연에 실패했다.<br/>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흡연자들이 내 온 세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였고, 금연사업 비중은 3~4%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거둘 건강부담금도 28%만 금연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은 벌써 무색해 보인다.<br/>지금 이 순간 정부에 진심으로 묻고 싶다. 정말 국민들이 담배를 끊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지 말이다. 암에 걸려도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금연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담배를 끊고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면, 담뱃값만 천정부지로 높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증세 결정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br/>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무료 패치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흡연자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br/>하루 살 길이 빤한 자영업자나 월급쟁이 입장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따로 내 보건소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이나 직장 근처 어느 병원에서나 쉽게 금연 진료나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금연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비싼 치료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몇 주짜리 복잡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약서를 쓰거나 캠프를 가야만 치료 혜택을 준다면 정부에선 생색이 날지 몰라도 실질적인 금연 지원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br/>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혼자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기도 힘든 1200만명 흡연자들을 대변해, 부디 정부가 담뱃세를 올릴 때만큼만 속도를 내서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연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길 강력히 건의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6.txt

제목: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오너 일가 숙원사업 위해 초법적 행동"···경실련 비판  
날짜: 2014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910015761523  
본문: 지난 5일(현지시간)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비행기를 후진시켜 객실 사무장을 내리게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학교 앞 호텔 건립 강행 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br/><b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논평을 내고 “<span class='quot0'>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시켜 달라</span>”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 대법원은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span class='quot0'>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span>”고 최종판결했다.<br/><br/>하지만 경실련은 “<span class='quot1'>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발언을 두고 “<span class='quot1'>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손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다</span>”고 꼬집었다.<br/><br/>이어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식사이후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중”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부마저 훈령을 개정해가며 업자들의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손쉽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경실련은 “<span class='quot1'>정부와 여당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은 강행 명분도 없을 뿐더라 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기업오너 일가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해결에 불과한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정부·여당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산 보호에 나서라</span>”고 촉구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7.txt

제목: 폐암 환자 흉수 제거 시 기흉 발생 우려  
날짜: 2014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810015751869  
본문: 많은 폐암 환자들이 흉수 증상을 겪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흉수란 흉막과 늑막, 두 겹의 막 안쪽 공간인 흉막강에 특정 질환에 의한 액체가 고이는 것을 말한다.<br/><br/>이러한 흉수는 심부전, 간경변, 신증후군 등의 다른 장기의 질환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또 흉막강 내에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 결핵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며, 폐암이나 전이성 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흔히 흉수에 동반되는 증상은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다.<br/><br/>폐암 환자들이 겪는 고민은, 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제거 후에도 찾아오는 후유증이라고 한다. 흉수를 빼고 나도 금방 다시 차오르고, 흉관 삽입이나 늑막 유착술 등의 추가적인 치료로 인해 몸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br/><br/>최근에는 이를 막기 위해 흉수가 차오르지 않는 치료나, 흉수에 효과적인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br/><br/>실제&#160;40대 여성 폐암 환자 유민정씨(가명)는 흉수를 빼는 과정에서 흉수천자로 인한 기흉이 발생했다. 통증을 호소하던 차에 한방치료를 병행하여 2개월 후 더 이상 흉수가 차지 않은 상태를 확인했고, 좌측 폐 아래쪽의 손상 소견도 많이 감소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br/>&#160;<br/>유씨를 진료한 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치료의 장점은 실제로 흉수가 차오르는 걸 방지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 폐암 치료를 위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말기암, 전이, 재발암이나 더 이상의 서양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부터 유씨와 같이 암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항암치료와 한방치료 병행을 원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소람한방병원은 현재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에 대해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는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8.txt

제목: 간암 투병 중 생애 첫 문학상 수상한 복거일  
날짜: 20141208  
기자: 김여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8100000048  
본문: ▲ 선박연구소 동료들과 대전서 특별한 모임<br/>“<span class='quot0'>시한부 인생, 다 포기하고 글 쓰는데 그게 3년이네요</span>”<br/>지난 5일 경북 경주 동리목월문학관에서 생애 첫 문학상인 제17회 동리문학상을 받은 작가 복거일씨(68·사진)를 위해 4일 밤 대전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그와 함께 청춘을 보낸 선박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선백해양플랜트연구소) 후배 15명이 수상을 축하하고, 말기에 접어든 복씨의 간암 투병을 지지하기 위한 자리였다. “<span class='quot0'>복 실장님이 술을 드실 수 있을 때 모시고 싶었습니다.</span>” 작가가 되기 전 복씨는 선박연구소에 입사해 9년 일하다 글을 쓰기 위해 퇴사했다. 공교롭게도 복씨의 연구소 동료들 가운데 소설가 이정씨, 시인 최형태씨 등 작가가 둘 더 나왔다. 복씨는 이번 동리문학상 수상작인 소설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문학동네)를 통해 3년째 접어든 간암 투병 사실을 지난 봄 처음 알렸다.<br/>30여년 만에 찾은 옛 단골 순대집에서 오랜 동료들을 만난 복씨는 상을 받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1987년 42세에 발표한 <비명을 찾아서>로 유명 작가가 됐지만 문학상을 받은 적이 없다.<br/><br/>“내가 죽을 날이 되니 봐준다고 상을 주는 거겠죠. 문단은 끼리끼리잖아요. 문인들은 보통 종교적인 철학에 가까운데 난 과학 소설을 쓰고, 문인·지식인들은 대부분 좌파인데 난 우파니까 골치 아픈 사람인 거지. 또 문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찬성하는데, 내가 문화미래포럼 창설한 날 시비를 걸었어요. ‘북한에는 진정한 작가가 존재할 수 없다. 있으려면 아오지탄광이나 요덕수용소에 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보수 언론에 대문짝하게 나고, 그러니 나는 문단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br/>일체의 암 치료를 거부해 온 복씨는 이날 막걸리도 맥주도 홀짝홀짝 마셨다. “이제 걱정할 기한은 지났어요. 병에 걸리기 전엔 친구들이 부르면 짜증을 냈죠. 나 작품 써야 하는데 그러면서. 1년마다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 야심을 버렸죠. 이젠 작품 하나를 못 쓸 수도 있을 테니까. 병 뒤론 전부 포기하고 글 쓰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3년이네요.”<br/>복씨와 동료들은 밤이 깊도록 옛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연구소 시절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원칙주의자로 연구소장과 싸우는 게 다반사였던 복씨의 별명은 ‘친정아버지’, ‘독립연대장’이었다고 했다. 결혼이 늦어 기숙사에 오래 살았던 복씨는 ‘이상한 독신자가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고스톱만 친다’는 투서 때문에 쫓겨난 적도 있다.<br/>“여기서 처음 속사정을 이야기할게요. 그때가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광주 사태 났을 때인데, 나는 외신 방송을 들으니까 광주로 곧 진압군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대전 연구원들은 골프 치러 간다죠. 내가 아는 현실과 연구소 현실 사이 간극이 큰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그랬다고. 혼자 유별나게 매트리스 못 쓰고 침대에 베니어판 깔고 잤던 것도, 밤새 잠을 못 자고 서성이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아팠던 거야. 그 얘기를 그때 대전에선 못했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79.txt

제목: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원리 발견  
날짜: 20141208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8100000046  
본문: 국내 연구진이 배아줄기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단백질의 작용 원리를 밝혔다. 배아줄기세포는 인체의 다양한 기관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새로운 난치병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br/>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이대엽 교수와 한용만 교수 공동연구팀은 7일 “<span class='quot0'>배아줄기세포의 핵 안에 있는 단백질 중 하나인 ‘린28A(LIN28A)’에 메틸기(-CH3)가 붙으면 줄기세포의 성장이 방해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줄기세포 분야 국제학술지 ‘셀 스템 셀(Cell Stem Cell)’에 4일 게재됐다.<br/>린28A 단백질은 일본 교토대 야마가타 신야 교수가 이를 이용해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만들면서 각광받은 단백질이다. 야마가타 교수는 iPS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연구진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포함된 린28A 단백질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줄기세포의 분화가 저해되지만 메틸기가 붙지 않으면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메틸기 결합에 효소인 ‘셋7/9(SET7/9)’이 관여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배아줄기세포에서 린28A가 성숙 속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밝힌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 암과 난치병 치료 등이 임상단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데 의의가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0.txt

제목: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두 아버지  
날짜: 20141208  
기자: 강유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8100000025  
본문: 성석제의 소설 <투명인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태어난 김만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세상을 등지고 두메산골 농부로서의 삶을 선택한 아버지,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뛰어난 형 덕분에 만수는 어린 시절부터 꼴머슴 차남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공부만 하던 형이 큰돈을 벌겠다며 나선 베트남전에서 주검으로 돌아오자 차남 만수는 실질적 가장이 된다. 서울 변두리로 이사와 성실함 하나만으로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지만 50줄을 넘어선 가장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다. 마포대교 위에서 그는 마침내 ‘투명인간’이 되고 만다. <br/>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는 얼핏 보면 만수와 비슷해 보인다. 농담이지만, 이름조차 한 글자 차이 아닌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표본으로 만수가 선택되었다면, 유년기에 한국 전쟁을 겪었던, 이전 출생자들의 표본이 바로 ‘덕수’다. 1950년 흥남철수 때 여동생을 잡고, 끌고, 업고 피란선에 올랐던 인물이니 아마 대략 1930년대 말이나 40년대 초반 생일 확률이 높다.<br/>소설 <투명인간>이나 영화 <국제시장>이나 대한민국의 격동기, 1960~80년대를 몸뚱이 하나로 살아내야 했던 이 시대 아버지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투명인간>의 만수가 차남이었던 것에 비해 <국제시장>의 덕수가 장남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소설가 이기호의 말처럼 차남의 역사와 장남의 역사는 무릇 다르게 기억되고, 기록되기 때문이다.<br/>장남 덕수와 그의 가족들은 피란선을 타고 내려와 부산 국제시장에서 터를 잡고 있던 고모의 가게 ‘꽃분이네’에 거처를 마련한다. 잃어버린 여동생이나 소식이 불분명한 아버지보다 더 급한 것은 남아 있는 자식들의 생계이다. 어머니는 큰아들 덕수를 불러 앉혀 놓고, 네가 이 집안의 장남이며 가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br/>그래서 장남 덕수는 지금이라면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시절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생계를 보탠다. 슈샤인보이로 구두를 닦고, 뭇매를 견디며 사수한 초콜릿을 동생들의 입에 넣어 준다.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수가 서울 근교로 이사 온 뒤 삭막한 인심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부산에 피란 온 덕수는 좋은 친구를 만나 텃세도 면한다. 텃세보다는 인심과 온정이 피란민의 어린 가장을 돌본다. <br/>이후 덕수의 삶은 70, 80년대 한국 현대사의 중요 장면을 경유한다. 60년대 1차 파독된 광부들 사이에 끼어 광산에 가고, 70년대 베트남전에서 상사 직원으로 근무한다. 그리고 80년대, 월남한 피란민으로서 이산가족 찾기의 주인공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 나선다. 덕수를 움직이는 삶의 동력은 ‘장남’이라는 호명의 무게와 ‘생계’라는 경제적 압박이다. 그는 어린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학업을 포기한 채 독일에 가고, 자신의 꿈을 버리고 베트남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벌어 온 돈으로 차남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막내 여동생은 결혼을 한다.<br/><br/>▲ 소설 ‘투명인간’ 영화 ‘국제시장’<br/>만수와 덕수란 이름의 아버지<br/>격동기 ‘희생적 삶’ 꼭 닮았지만<br/>마지막 ‘뒷모습’은 너무 다르다<br/>덕수가 살아온 60여년간의 삶은 고도성장기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폐허에서 시작한 전쟁기 소년가장이 희생과 도전을 거듭해 결국 한 가정을 지켜 낸 이야기가 바로 <국제시장>인 셈이다. 1950년 흥남철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014년 현재 부산 남포동 국제시장에서 끝난다. 두 시간 여의 러닝타임이 짧은 것은 아니지만 64년의 시간을 담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br/>흥남철수, 독일, 베트남, 이산가족 찾기라는 큰 네 가지 서사적 매듭 위에서 그 사이의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괄호에 넣어진다. 가난한 피란 가족의 장남으로서 ‘가계’를 세워 나가는 경제이야기가 전경화될 뿐 이면에 감춰진 다른 이야기들은 다룰 겨를이 없다. 아니, 다루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며 그 희생을 딛고 일어선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윤택함이다.<br/>영화 속에서 아버지 덕수는 ‘이 고생을 우리 자식이 아닌 우리가 겪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라고 말한다. 66년 덕수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 온 후 곧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 자식 세대는 우리가 ‘386’세대라고 부르는 67년생쯤 될 것이다. 결국, 67년 이후 태어난 우리는 폐허 위에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 부의 기반을 창출해 준 ‘아버지’에게 따뜻한 감사와 뜨거운 눈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br/>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영화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소설 <투명인간>에서 주인공 만수는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싸우다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하루 스무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도 20% 복리 이자를 당해 낼 수는 없다. 아내의 투병, 자살을 선택한 조카. 50이 넘은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br/>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뭔가를 남겨야 할 텐데, 종일 소꼴을 먹였던 60년대 개운리 만수의 삶보다 나아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아니, 더 나빠졌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만수는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가진 마포대교 위에 서 있다.<br/>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일생을 보낸 덕수의 끝은 다르다. <br/>그에게는 이를테면, 노후가 있다. ‘알박이’라고 비난받는 가게 ‘꽃분이네’도, 치매도, 암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아내도, 그리고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있다. 무엇보다, 집안 가득 사람 온기를 채워주는 자식, 손자들이 가득하다. 덕수도, 만수도 모두 ‘우리의 아버지’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아버지들의 뒷모습은 너무도 다르다. ‘아버지’가 다른 건지 ‘우리’가 다른 건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1.txt

제목: [경향마당]담뱃값 인상 앞서 금연대책 마련해야  
날짜: 2014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810015758289  
본문: 정부는 정말 흡연자들이 담배 끊기를 원하는 것일까. 지난 20년간 담배를 피워온 흡연자의 입장에서 이번 담뱃세 인상은 참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터의 노동자로 살아가며 수많은 스트레스를 담배 한 모금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공감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br/><br/>담배의 유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흡연자들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나 역시 과거에 담배를 끊기 위해 금연침도 맞아보고 전자담배도 피워보고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무료 패치도 붙여봤지만 번번이 금연에 실패했다.<br/><br/>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흡연자들이 내 온 세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였고, 금연사업 비중은 3~4%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거둘 건강부담금도 28%만 금연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은 벌써 무색해 보인다.<br/><br/>지금 이 순간 정부에 진심으로 묻고 싶다. 정말 국민들이 담배를 끊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지 말이다. 암에 걸려도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금연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담배를 끊고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면, 담뱃값만 천정부지로 높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증세 결정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br/><br/>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무료 패치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흡연자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br/><br/>하루 살 길이 빤한 자영업자나 월급쟁이 입장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따로 내 보건소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이나 직장 근처 어느 병원에서나 쉽게 금연 진료나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금연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비싼 치료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몇 주짜리 복잡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약서를 쓰거나 캠프를 가야만 치료 혜택을 준다면 정부에선 생색이 날지 몰라도 실질적인 금연 지원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br/><br/>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혼자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기도 힘든 1200만명 흡연자들을 대변해, 부디 정부가 담뱃세를 올릴 때만큼만 속도를 내서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연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길 강력히 건의한다.<br/><br/><구자풍 | 농업인·충남 당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2.txt

제목: 12년전 동결보관한 난자로 출산 성공...일본 30대 여성  
날짜: 2014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710015747186  
본문: 일본 아이치(愛知)현에 사는 여성(30)은 고교 2학년이던 2001년 혈액암인 악성림프종을 앓게 됐다.<br/><br/>여성은 병원 측으로부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제 투여와 골수이식이 필요하며,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 향후 난자 생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br/><br/>여성은 결국 본격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전 불임치료시설을 통해 난자 2개를 채취한 뒤 액체질소로 동결, 영하 196도에서 보관해 놨다. 이 여성은 다행히 1개월 뒤 골수이식 등을 통해 암을 극복했다. <br/><br/>암을 이겨내고 성인이 된 여성은 2013년 결혼했다. 여성은 결혼 후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한 뒤 수정란을 다시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지난 8월 아이치현 나고야(名古屋) 시내의 한 병원에서 체중 3295g의 남자 아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br/><br/>마이니치신문은 일본에서 10년 이상 동결보관하고 있던 난자로부터 출산한 사례는 아주 드물다고 7일 전했다. <br/><br/>신문은 이번 출산이 성공한 이후 암치료 등으로 불임을 걱정하게 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만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질병도 없는 여성들이 미래의 임신을 대비해 난자를 동결해두는 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br/><br/>한편 일본생식의학회는 2013년부터 건강한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허용하고 있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3.txt

제목: 복거일, 간암 투병 중 생애 첫 문학상 수상  
날짜: 2014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71001574969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연구소 시절엔 투서 때문에 쫓겨나고 문단에서는 미운 오리새끼였는데…”</strong><!-- SUB\_TITLE\_END--><br/><br/><b>▲ 선박연구소 동료들과 대전서 특별한 모임<br/>“<span class='quot0'>시한부 인생, 다 포기하고 글 쓰는데 그게 3년이네요</span>”</b><br/><br/>지난 5일 경북 경주 동리목월문학관에서 생애 첫 문학상인 제17회 동리문학상을 받은 작가 복거일씨(68·사진)를 위해 4일 밤 대전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그와 함께 청춘을 보낸 선박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선백해양플랜트연구소) 후배 15명이 수상을 축하하고, 말기에 접어든 복씨의 간암 투병을 지지하기 위한 자리였다. “<span class='quot0'>복 실장님이 술을 드실 수 있을 때 모시고 싶었습니다.</span>” 작가가 되기 전 복씨는 선박연구소에 입사해 9년 일하다 글을 쓰기 위해 퇴사했다. 공교롭게도 복씨의 연구소 동료들 가운데 소설가 이정씨, 시인 최형태씨 등 작가가 둘 더 나왔다. 복씨는 이번 동리문학상 수상작인 소설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문학동네)를 통해 3년째 접어든 간암 투병 사실을 지난 봄 처음 알렸다.<br/><br/>30여년 만에 찾은 옛 단골 순대집에서 오랜 동료들을 만난 복씨는 상을 받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1987년 42세에 발표한 <비명을 찾아서>로 유명 작가가 됐지만 문학상을 받은 적이 없다.<br/><br/><br/>“내가 죽을 날이 되니 봐준다고 상을 주는 거겠죠. 문단은 끼리끼리잖아요. 문인들은 보통 종교적인 철학에 가까운데 난 과학 소설을 쓰고, 문인·지식인들은 대부분 좌파인데 난 우파니까 골치 아픈 사람인 거지. 또 문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찬성하는데, 내가 문화미래포럼 창설한 날 시비를 걸었어요. ‘북한에는 진정한 작가가 존재할 수 없다. 있으려면 아오지탄광이나 요덕수용소에 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보수 언론에 대문짝하게 나고, 그러니 나는 문단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br/><br/>일체의 암 치료를 거부해 온 복씨는 이날 막걸리도 맥주도 홀짝홀짝 마셨다. “이제 걱정할 기한은 지났어요. 병에 걸리기 전엔 친구들이 부르면 짜증을 냈죠. 나 작품 써야 하는데 그러면서. 1년마다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 야심을 버렸죠. 이젠 작품 하나를 못 쓸 수도 있을 테니까. 병 뒤론 전부 포기하고 글 쓰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3년이네요.”<br/><br/>복씨와 동료들은 밤이 깊도록 옛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연구소 시절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원칙주의자로 연구소장과 싸우는 게 다반사였던 복씨의 별명은 ‘친정아버지’, ‘독립연대장’이었다고 했다. 결혼이 늦어 기숙사에 오래 살았던 복씨는 ‘이상한 독신자가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고스톱만 친다’는 투서 때문에 쫓겨난 적도 있다.<br/><br/>“여기서 처음 속사정을 이야기할게요. 그때가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광주 사태 났을 때인데, 나는 외신 방송을 들으니까 광주로 곧 진압군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대전 연구원들은 골프 치러 간다죠. 내가 아는 현실과 연구소 현실 사이 간극이 큰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그랬다고. 혼자 유별나게 매트리스 못 쓰고 침대에 베니어판 깔고 잤던 것도, 밤새 잠을 못 자고 서성이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아팠던 거야. 그 얘기를 그때 대전에선 못했지.”<br/><br/><대전 | 글·사진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4.txt

제목: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원리 발견  
날짜: 2014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71001574968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이대엽·한용만 교수팀 “<span class='quot0'>메틸기 유무 따라 성장 방해·촉진</span>”</strong><!-- SUB\_TITLE\_END--><br/><br/>국내 연구진이 배아줄기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단백질의 작용 원리를 밝혔다. 배아줄기세포는 인체의 다양한 기관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새로운 난치병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이대엽 교수와 한용만 교수 공동연구팀은 7일 “<span class='quot1'>배아줄기세포의 핵 안에 있는 단백질 중 하나인 ‘린28A(LIN28A)’에 메틸기(-CH3)가 붙으면 줄기세포의 성장이 방해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줄기세포 분야 국제학술지 ‘셀 스템 셀(Cell Stem Cell)’에 4일 게재됐다.<br/><br/>린28A 단백질은 일본 교토대 야마가타 신야 교수가 이를 이용해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만들면서 각광받은 단백질이다. 야마가타 교수는 iPS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연구진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포함된 린28A 단백질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줄기세포의 분화가 저해되지만 메틸기가 붙지 않으면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메틸기 결합에 효소인 ‘셋7/9(SET7/9)’이 관여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배아줄기세포에서 린28A가 성숙 속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밝힌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 암과 난치병 치료 등이 임상단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데 의의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5.txt

제목: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두 아버지  
날짜: 2014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710015749649  
본문: 성석제의 소설 <투명인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태어난 김만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세상을 등지고 두메산골 농부로서의 삶을 선택한 아버지,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뛰어난 형 덕분에 만수는 어린 시절부터 꼴머슴 차남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공부만 하던 형이 큰돈을 벌겠다며 나선 베트남전에서 주검으로 돌아오자 차남 만수는 실질적 가장이 된다. 서울 변두리로 이사와 성실함 하나만으로 고군분투하며 자리를 잡지만 50줄을 넘어선 가장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다. 마포대교 위에서 그는 마침내 ‘투명인간’이 되고 만다.<br/><br/>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는 얼핏 보면 만수와 비슷해 보인다. 농담이지만, 이름조차 한 글자 차이 아닌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표본으로 만수가 선택되었다면, 유년기에 한국 전쟁을 겪었던, 이전 출생자들의 표본이 바로 ‘덕수’다. 1950년 흥남철수 때 여동생을 잡고, 끌고, 업고 피란선에 올랐던 인물이니 아마 대략 1930년대 말이나 40년대 초반 생일 확률이 높다.<br/><br/>소설 <투명인간>이나 영화 <국제시장>이나 대한민국의 격동기, 1960~80년대를 몸뚱이 하나로 살아내야 했던 이 시대 아버지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투명인간>의 만수가 차남이었던 것에 비해 <국제시장>의 덕수가 장남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소설가 이기호의 말처럼 차남의 역사와 장남의 역사는 무릇 다르게 기억되고, 기록되기 때문이다.<br/><br/>장남 덕수와 그의 가족들은 피란선을 타고 내려와 부산 국제시장에서 터를 잡고 있던 고모의 가게 ‘꽃분이네’에 거처를 마련한다. 잃어버린 여동생이나 소식이 불분명한 아버지보다 더 급한 것은 남아 있는 자식들의 생계이다. 어머니는 큰아들 덕수를 불러 앉혀 놓고, 네가 이 집안의 장남이며 가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br/><br/>그래서 장남 덕수는 지금이라면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시절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생계를 보탠다. 슈샤인보이로 구두를 닦고, 뭇매를 견디며 사수한 초콜릿을 동생들의 입에 넣어 준다.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수가 서울 근교로 이사 온 뒤 삭막한 인심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부산에 피란 온 덕수는 좋은 친구를 만나 텃세도 면한다. 텃세보다는 인심과 온정이 피란민의 어린 가장을 돌본다. <br/><br/>이후 덕수의 삶은 70, 80년대 한국 현대사의 중요 장면을 경유한다. 60년대 1차 파독된 광부들 사이에 끼어 광산에 가고, 70년대 베트남전에서 상사 직원으로 근무한다. 그리고 80년대, 월남한 피란민으로서 이산가족 찾기의 주인공으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 나선다. 덕수를 움직이는 삶의 동력은 ‘장남’이라는 호명의 무게와 ‘생계’라는 경제적 압박이다. 그는 어린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학업을 포기한 채 독일에 가고, 자신의 꿈을 버리고 베트남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벌어 온 돈으로 차남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막내 여동생은 결혼을 한다.<br/><br/><br/><b>▲ 소설 ‘투명인간’ 영화 ‘국제시장’<br/>만수와 덕수란 이름의 아버지<br/>격동기 ‘희생적 삶’ 꼭 닮았지만<br/>마지막 ‘뒷모습’은 너무 다르다</b><br/><br/>덕수가 살아온 60여년간의 삶은 고도성장기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폐허에서 시작한 전쟁기 소년가장이 희생과 도전을 거듭해 결국 한 가정을 지켜 낸 이야기가 바로 <국제시장>인 셈이다. 1950년 흥남철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2014년 현재 부산 남포동 국제시장에서 끝난다. 두 시간 여의 러닝타임이 짧은 것은 아니지만 64년의 시간을 담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br/><br/>흥남철수, 독일, 베트남, 이산가족 찾기라는 큰 네 가지 서사적 매듭 위에서 그 사이의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괄호에 넣어진다. 가난한 피란 가족의 장남으로서 ‘가계’를 세워 나가는 경제이야기가 전경화될 뿐 이면에 감춰진 다른 이야기들은 다룰 겨를이 없다. 아니, 다루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며 그 희생을 딛고 일어선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윤택함이다.<br/><br/>영화 속에서 아버지 덕수는 ‘이 고생을 우리 자식이 아닌 우리가 겪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라고 말한다. 66년 덕수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 온 후 곧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 자식 세대는 우리가 ‘386’세대라고 부르는 67년생쯤 될 것이다. 결국, 67년 이후 태어난 우리는 폐허 위에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 부의 기반을 창출해 준 ‘아버지’에게 따뜻한 감사와 뜨거운 눈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br/><br/>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영화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소설 <투명인간>에서 주인공 만수는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싸우다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하루 스무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도 20% 복리 이자를 당해 낼 수는 없다. 아내의 투병, 자살을 선택한 조카. 50이 넘은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br/><br/>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뭔가를 남겨야 할 텐데, 종일 소꼴을 먹였던 60년대 개운리 만수의 삶보다 나아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아니, 더 나빠졌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만수는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가진 마포대교 위에 서 있다.<br/><br/>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일생을 보낸 덕수의 끝은 다르다. <br/><br/>그에게는 이를테면, 노후가 있다. ‘알박이’라고 비난받는 가게 ‘꽃분이네’도, 치매도, 암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아내도, 그리고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있다. 무엇보다, 집안 가득 사람 온기를 채워주는 자식, 손자들이 가득하다. 덕수도, 만수도 모두 ‘우리의 아버지’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아버지들의 뒷모습은 너무도 다르다. ‘아버지’가 다른 건지 ‘우리’가 다른 건지, 생각해볼 문제이다.<br/><br/><강유정 | 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6.txt

제목: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일반고가 다시 50% 넘어  
날짜: 20141206  
기자: 박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6100000062  
본문: 201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난해보다 강세를 보였다. 서울대가 5일 발표한 ‘201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선발 결과’를 보면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서 올해 일반고 합격생 비율은 35.4%로 지난해 28.3%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수시모집 전체 합격자 중 일반고 합격자의 비율도 전체 2408명 중 1219명으로 50.6%를 차지했다. 서울대 수시 합격자 중 일반고 비율은 2013학년에 54%였다가 2014학년도 46.3%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과반을 넘어섰다.<br/>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비율은 모두 떨어졌다. 자사고 비율은 전년도 15.1%에서 13.2%, 과학고는 8.7%에서 7.2%, 외국어고는 9.3%에서 8.4%로 하락했다.<br/>기회균형전형에서도 지난해 77.0%에서 86.1%로 일반고 학생 합격 비중이 늘었다.<br/>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서울대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에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해 상대적으로 내신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보다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pan>”고 말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1'>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한 교내특별활동, 특기적 재능계발, 면접 대비 등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수시에서는 연평도에서도 최초로 서울대 합격자가 나왔다. 전교생이 9명인 인천 옹진군 연평고 이승렬군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합격했다. 연평고는 전교생이 9명이지만 이군은 해병대 군인과 1 대 1 수업을 받으며 공부했다. 중학교 때 어머니를 여읜 이수경양은 중학교 수학 교사의 양육을 받아 간호대학에 합격했다. 경북 경산에 살던 이양은 어머니가 암으로 숨지자 친척이 있는 함안군으로 이사를 왔고, 전학 온 함안여중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던 천양자씨가 이양을 뒷바라지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특출하지 않던 이양은 천씨 덕분에 꾸준히 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인문반 1등까지 해 꿈을 이뤘다.<br/>경기 광명 광문고 축구부 3학년 이요한군(19)은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다 부상을 당해 꿈이 꺾였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울대 체육교육과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이군은 중·고등학교 모두 축구부 선수로 뛰었지만 중학교 때 부상을 당했다. 의사로부터 ‘앞으로 운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선교사이자 심리상담가인 어머니의 격려와 축구부 감독과 학교 교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7.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희망 2015 나눔캠페인’에 10억  
날짜: 2014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5100000030  
본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회장(사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개하는 ‘희망 2015 나눔캠페인’에 10억원을 기탁했다. <br/><br/>이 성금은 여성 가장 자립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뷰티풀 라이프’사업에 사용된다. 취약 계층 여성 가장들에게 취업 지원 교육과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해 그들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 중 30.2%가 취업에 성공했다.<br/><br/>‘뷰티풀 라이프’ 사업은 아모레퍼시픽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을 지정 기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지난 2002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왔다. 올해 기탁 금액은 지난해 5억원에서 2배 늘어난 10억원으로 여성을 위한 사랑 나눔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r/><br/>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회장은 “<span class='quot0'>아모레퍼시픽은 신뢰와 책임을 신조로 여기던 창업자의 뜻을 이어받아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더 많은 여성이 더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 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아모레퍼시픽은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r/><br/>여성 암 환자들에게 화장과 피부 관리 등 외모 가꾸기 노하우를 전수해 외면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이도록 돕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와 피부 변화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자들을 위해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직접 병실과 집에 찾아가 스스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br/><br/>또 유방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핑크 리본 캠페인’,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희망가게’, 친환경 사회 공헌 활동인 ‘그린 사이클’ 캠페인 등을 전개 중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8.txt

제목: [건강]위 내시경의 ‘진화’  
날짜: 2014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5100000020  
본문: 위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40세 이상은 1~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발견된 조기 암은 복강경이나 개복 없이 치료내시경으로 잘라낼 수 있다. 분당차병원 내시경센터장 조주영 교수(소화기내과)는 “<span class='quot0'>내시경을 이용한 다양한 위암 진단 및 수술법이 개발돼 완치율도 높다</span>”고 말했다. 조 교수의 도움말로 내시경 진단과 치료의 최신 현황을 알아본다.<br/><br/>■ 조기 위암을 구분하는 기준<br/>위벽은 점막·점막 하층·근육층·장막층 등 4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위암은 암세포가 조직에 얼마만큼 깊이 침범했느냐에 따라 병기가 판정된다. 조기 위암은 종양이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점막 부위까지만 자리 잡은 암은 림프선 등 다른 경로로 전이될 위험이 거의 없다.<br/>■ 최신 내시경 진단의 정밀도<br/>조기 암은 말 그대로 매우 초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내시경으로는 육안으로 주변의 정상 조직과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광학 기술의 발달로 확대내시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소내시경, 자가형광내시경, 현미경내시경도 등장, 조기 위암이나 전암 병변의 발견율이 크게 높아졌다. 세계 내시경 시장에는 다양한 성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현미경내시경은 1000배까지 확대해 세포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95% 이상의 정확한 암 진단율을 보인다. 칼스톨츠 연성 내시경은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내시경이 해결하지 못했던 1~5㎜ 미소위암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최고의 화질을 구현했다.<br/><br/>■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현황<br/>조기 위암 발견율이 매년 증가되어 약 60%에 이르고 있다. 위암에서의 위절제술은 병변이 포함된 위 전체를 절제하거나 부분 절제하면서 림프절 절제를 같이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위암의 전단계인 위선종과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은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이라는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 뗏장을 떼내듯 암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장기 추적 결과 위절제술의 결과와 비슷한 성적을 보여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됐다. 국내 248개 의료기관에서 매년 3만건 이상의 ESD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br/>■ 내시경 암 절제술의 한계점<br/>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절제술은 원칙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 종양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면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위암에 국한된다. 내시경 검사 소견에서 내시경 절제의 적응증을 벗어나는 조기 위암을 발견했을 때는 CT와 내시경 초음파를 동원해 완전 절제 가능성과 림프절 전이 위험성을 평가한다.<br/>하지만 림프절 전이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내시경 절제술의 한계점이다. 현재 조기 위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양한 치료법들의 적응증을 확립함으로써 개별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기 위암에서 림프절 전이 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최소침습 치료법으로 내시경과 복강경을 접목한 ‘노츠’ 수술법이 연구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89.txt

제목: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일반고가 다시 50% 넘어  
날짜: 2014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51001574514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자사고·특목고 비율은 하락</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내신 성적 많이 반영 영향 분석</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연평도에서 첫 합격자 나와</strong><!-- SUB\_TITLE\_END--><br/><br/>201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난해보다 강세를 보였다. 서울대가 5일 발표한 ‘201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선발 결과’를 보면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서 올해 일반고 합격생 비율은 35.4%로 지난해 28.3%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수시모집 전체 합격자 중 일반고 합격자의 비율도 전체 2408명 중 1219명으로 50.6%를 차지했다. 서울대 수시 합격자 중 일반고 비율은 2013학년에 54%였다가 2014학년도 46.3%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과반을 넘어섰다.<br/><br/>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비율은 모두 떨어졌다. 자사고 비율은 전년도 15.1%에서 13.2%, 과학고는 8.7%에서 7.2%, 외국어고는 9.3%에서 8.4%로 하락했다.<br/><br/>기회균형전형에서도 지난해 77.0%에서 86.1%로 일반고 학생 합격 비중이 늘었다.<br/><br/>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서울대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에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해 상대적으로 내신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보다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pan>”고 말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1'>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한 교내특별활동, 특기적 재능계발, 면접 대비 등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수시에서는 연평도에서도 최초로 서울대 합격자가 나왔다. 전교생이 9명인 인천 옹진군 연평고 이승렬군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합격했다. 연평고는 전교생이 9명이지만 이군은 해병대 군인과 1 대 1 수업을 받으며 공부했다. 중학교 때 어머니를 여읜 이수경양은 중학교 수학 교사의 양육을 받아 간호대학에 합격했다. 경북 경산에 살던 이양은 어머니가 암으로 숨지자 친척이 있는 함안군으로 이사를 왔고, 전학 온 함안여중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던 천양자씨가 이양을 뒷바라지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특출하지 않던 이양은 천씨 덕분에 꾸준히 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인문반 1등까지 해 꿈을 이뤘다.<br/><br/>경기 광명 광문고 축구부 3학년 이요한군(19)은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다 부상을 당해 꿈이 꺾였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울대 체육교육과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의사로부터 ‘앞으로 운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선교사이자 심리상담가인 어머니의 격려와 축구부 감독과 학교 교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br/><br/><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0.txt

제목: ‘협박 대자보’ 쓴 대학생들 “최경환 아저씨, 다같이 망하자는 겁니까”  
날짜: 2014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510016328918  
본문: 지난 3일 서울 신촌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과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정규직 과보호’ 등의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는 대자보다. 이 대자보는 지난 4일 혜화역과 강남역에도 붙었다.<br/><br/>경향신문 비즈앤라이프는 4일 이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은 ‘미스핏츠’(MISFITS.kr)라는 대안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br/><br/>이들은 “미스핏츠의 최근 기사 중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를 대자보로 붙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자보에 이어 우리의 주장을 담은 편지를 써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실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br/><br/><br/><br/>대자보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 26일 최 부총리가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여해 한 말을 비판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span class='quot0'>(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br/><br/><br/><br/>대자보는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 되서 불안한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니, 트렌드 따라 ‘창조적’이라고 해드릴게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라고 물었다. <br/><br/><br/><br/>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정부가 얼마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다음은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과의 일문일답.<br/><br/><br/><br/>-대안미디어 미스핏츠는 무엇이고, 왜 만들었나.<br/><br/><br/><br/><br/><br/>“20대의 발언이 담긴, 20대 미디어가 없어서 만들었다. 20대 문제는 20대가 말해야만 가장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진들은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다양하다.” <br/><br/><br/><br/>-대자보는 왜 붙였고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br/><br/>“우선 대자보를 붙여서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자보도 결국 의견 표명의 한 형식일 뿐인데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왜 대단한 일이고 누구나 하지 못하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자보는 혜화역과 강남역에도 붙였다. 대자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br/><br/><br/><br/><br/><br/><br/><br/>-가족들 반응이 궁금하다. <br/><br/>“<span class='quot1'>이모티콘 응원을 받았다.(웃음)</span>”<br/><br/><br/><br/><br/><br/>-대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br/><br/>“대학생이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힘들다. 일례로 신촌에서 방 하나짜리 월세를 살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었다. 지금은 더 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열된 스펙 경쟁도 힘들고,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도 비싼 방세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매일 이렇게 힘든 것이 현실이다.”<br/><br/><br/><br/>-대자보를 쓰는 일은 이력서에 경력을 한 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다. <br/><br/>“세 줄짜리 이력을 준비하는게 이번 일보다 더 편하다. 이력서를 위해서라면 한 줄 이력에 불과한 이걸 왜 준비하겠나.”<br/><br/><br/><br/><br/><br/>-앞으로 취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br/><br/>“<span class='quot1'>20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미스핏츠에 집중하겠다.</span>”<br/><br/><br/><br/>-20대 의견을 대변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은 뭔가.<br/><br/>“‘청춘의 집’ 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비교해 한국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 주는 것이다.”<br/><br/><br/><br/>-그밖에 다른 계획은.<br/><br/>“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우리 주장을 담은 편지를 직접 작성해 보낼 예정이다. 최 부총리가 직접 읽고 답장을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언론 보도를 보면 ‘연대생들의 대자보’라고 나가고 있다. 우리는 연대생이지만 동시에 보통 청년에 불과하다. 규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지지하는 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br/><br/><br/><br/><br/><br/><!--video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tr><td><!--videosrc\_start\_1--><center><iframe width="560" height="315" src="//www.youtube.com/embed/VykatE\_UYHI"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center><!--videosrc\_end\_1--></td></tr><tr><td><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616588><!--cap\_start\_1-->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보내는 학생들의 영상편지<br/><!--cap\_end\_1--></font></td></tr></table><!--videotbl\_end\_1--><br/><br/>다음은 대자보 전문이다. <br/><br/><br/><br/>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br/><br/><br/><br/>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신 말 때문에요. 총리 대 찌질이 대학생을 말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우리가 그냥 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요즘 욕 많이 드시느라 힘들다고 소주 한 잔 따르신다면, 저는 그거, 냅다 뺏어 제 잔 부어 채우렵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삶은 아저씨 생각이랑 많이 다릅니다.<br/><br/><br/><br/>작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은 암으로 죽고, 20대는 자살로 죽었답니다. 장년층이 속 곯아 암으로 죽는다면, 청년층은 애쓰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천삼백만 원어치 빚을 지고 대학을 나갑니다. 요즘엔 취업도 힘들어서, 1년 정도 ‘취준’ 하는 건 찡찡 댈 축에도 못 끼고요. 기업들은 ‘스펙초월’이다 뭐다 하는데, 주변에 토익점수 하나 없이 이력서 쓰는 애들, 본 적 없습니다.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 두 명이 야근하는 분량을 합치면 일자리 하나는 거뜬히 나오는데, 왜 채용 인원은 그렇게 적습니까.<br/><br/><br/><br/>고생 대결 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잘 좀 해보자고요. 우리도 부모한테 빚 안지고, 독립해서 멀쩡히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이 고생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 데 가고 싶어 한다고요. 이 빚, 본인이 못 갚으면 부모 빚 되고 형제 빚 되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못 만들면 청년만 손해가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또 하나의 부모 최경환씨? 우리가 취업 못하고, 창업 망하고, 집 못 사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고요. 우리가 엄마아빠가 가진 부동산들 안 사주면 집은 누가 사고, 부모님 받으실 연금은 누가 내요. 청년이 이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끊으면, 달릴 힘이 어디서 날까요?<br/><br/><br/><br/>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 낸다고 저희 미래 책임져 주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60살 되면 남는 연금이 없을 테니까요. 예? 그러면서 20만 원 지원하고 다자녀 낳으라고 하고요. 택도 없네요. 자주 이렇게 헛소리 하시면 우리는 순순히 애를 낳아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청년을 ‘봉’으로 알고 선거 때만 빚 좋은 개살구를 던지면, 우리는 순순히 연금을 내주지도, 집을 사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br/><br/><br/><br/>맞습니다. 협박입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이유는 아저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니, 트렌드 따라 ‘창조적’이라고 해드릴게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br/><br/><br/><br/>아저씨,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들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아빠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내복 한 벌 못 사드릴 거라고요.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설마, 애 기를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을 저에게 뭔가 막 기대하고, 그러실 거 아니죠?<br/><br/><br/><br/>정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래를 갉아먹고 지금 당장 얼마나 배부를 수 있습니까?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 세대에게 짐을 미뤄두고, 장년 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아저씨,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건 권유나 애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 ‘같이’ 좀 살길을 찾아봅시다. <br/><br/><br/><br/>MISFITS.kr<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1.txt

제목: ‘협박 대자보’ 쓴 대학생들 “최경환 아저씨, 다같이 망하자는 겁니까”  
날짜: 2014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510015740896  
본문: 지난 3일 서울 신촌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과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정규직 과보호’ 등의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는 대자보다. 이 대자보는 지난 4일 혜화역과 강남역에도 붙었다.<br/><br/>경향신문 비즈앤라이프는 4일 이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은 ‘미스핏츠’(MISFITS.kr)라는 대안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br/><br/>이들은 “미스핏츠의 최근 기사 중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를 대자보로 붙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자보에 이어 우리의 주장을 담은 편지를 써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실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br/><br/><br/><br/>대자보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 26일 최 부총리가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여해 한 말을 비판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span class='quot0'>(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br/><br/><br/><br/>대자보는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 되서 불안한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니, 트렌드 따라 ‘창조적’이라고 해드릴게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라고 물었다. <br/><br/><br/><br/>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정부가 얼마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다음은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과의 일문일답.<br/><br/><br/><br/>-대안미디어 미스핏츠는 무엇이고, 왜 만들었나.<br/><br/><br/><br/><br/><br/>“20대의 발언이 담긴, 20대 미디어가 없어서 만들었다. 20대 문제는 20대가 말해야만 가장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진들은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다양하다.” <br/><br/><br/><br/>-대자보는 왜 붙였고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br/><br/>“우선 대자보를 붙여서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자보도 결국 의견 표명의 한 형식일 뿐인데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왜 대단한 일이고 누구나 하지 못하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대자보는 혜화역과 강남역에도 붙였다. 대자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br/><br/><br/><br/><br/><br/><br/><br/>-가족들 반응이 궁금하다. <br/><br/>“<span class='quot1'>이모티콘 응원을 받았다.(웃음)</span>”<br/><br/><br/><br/><br/><br/>-대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br/><br/>“대학생이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힘들다. 일례로 신촌에서 방 하나짜리 월세를 살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었다. 지금은 더 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열된 스펙 경쟁도 힘들고,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도 비싼 방세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매일 이렇게 힘든 것이 현실이다.”<br/><br/><br/><br/>-대자보를 쓰는 일은 이력서에 경력을 한 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다. <br/><br/>“세 줄짜리 이력을 준비하는게 이번 일보다 더 편하다. 이력서를 위해서라면 한 줄 이력에 불과한 이걸 왜 준비하겠나.”<br/><br/><br/><br/><br/><br/>-앞으로 취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br/><br/>“<span class='quot1'>20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미스핏츠에 집중하겠다.</span>”<br/><br/><br/><br/>-20대 의견을 대변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은 뭔가.<br/><br/>“‘청춘의 집’ 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비교해 한국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 주는 것이다.”<br/><br/><br/><br/>-그밖에 다른 계획은.<br/><br/>“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우리 주장을 담은 편지를 직접 작성해 보낼 예정이다. 최 부총리가 직접 읽고 답장을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언론 보도를 보면 ‘연대생들의 대자보’라고 나가고 있다. 우리는 연대생이지만 동시에 보통 청년에 불과하다. 규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지지하는 학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br/><br/><br/><br/><br/><br/><!--video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tr><td><!--videosrc\_start\_1--><center><iframe width="560" height="315" src="//www.youtube.com/embed/VykatE\_UYHI"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center><!--videosrc\_end\_1--></td></tr><tr><td><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616588><!--cap\_start\_1-->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보내는 학생들의 영상편지<br/><!--cap\_end\_1--></font></td></tr></table><!--videotbl\_end\_1--><br/><br/>다음은 대자보 전문이다. <br/><br/><br/><br/>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br/><br/><br/><br/>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신 말 때문에요. 총리 대 찌질이 대학생을 말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우리가 그냥 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요즘 욕 많이 드시느라 힘들다고 소주 한 잔 따르신다면, 저는 그거, 냅다 뺏어 제 잔 부어 채우렵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삶은 아저씨 생각이랑 많이 다릅니다.<br/><br/><br/><br/>작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은 암으로 죽고, 20대는 자살로 죽었답니다. 장년층이 속 곯아 암으로 죽는다면, 청년층은 애쓰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천삼백만 원어치 빚을 지고 대학을 나갑니다. 요즘엔 취업도 힘들어서, 1년 정도 ‘취준’ 하는 건 찡찡 댈 축에도 못 끼고요. 기업들은 ‘스펙초월’이다 뭐다 하는데, 주변에 토익점수 하나 없이 이력서 쓰는 애들, 본 적 없습니다.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 두 명이 야근하는 분량을 합치면 일자리 하나는 거뜬히 나오는데, 왜 채용 인원은 그렇게 적습니까.<br/><br/><br/><br/>고생 대결 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잘 좀 해보자고요. 우리도 부모한테 빚 안지고, 독립해서 멀쩡히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이 고생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 데 가고 싶어 한다고요. 이 빚, 본인이 못 갚으면 부모 빚 되고 형제 빚 되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못 만들면 청년만 손해가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또 하나의 부모 최경환씨? 우리가 취업 못하고, 창업 망하고, 집 못 사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고요. 우리가 엄마아빠가 가진 부동산들 안 사주면 집은 누가 사고, 부모님 받으실 연금은 누가 내요. 청년이 이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끊으면, 달릴 힘이 어디서 날까요?<br/><br/><br/><br/>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 낸다고 저희 미래 책임져 주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60살 되면 남는 연금이 없을 테니까요. 예? 그러면서 20만 원 지원하고 다자녀 낳으라고 하고요. 택도 없네요. 자주 이렇게 헛소리 하시면 우리는 순순히 애를 낳아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청년을 ‘봉’으로 알고 선거 때만 빚 좋은 개살구를 던지면, 우리는 순순히 연금을 내주지도, 집을 사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br/><br/><br/><br/>맞습니다. 협박입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이유는 아저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니, 트렌드 따라 ‘창조적’이라고 해드릴게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요?<br/><br/><br/><br/>아저씨,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들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아빠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내복 한 벌 못 사드릴 거라고요.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설마, 애 기를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을 저에게 뭔가 막 기대하고, 그러실 거 아니죠?<br/><br/><br/><br/>정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래를 갉아먹고 지금 당장 얼마나 배부를 수 있습니까?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 세대에게 짐을 미뤄두고, 장년 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아저씨,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건 권유나 애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 ‘같이’ 좀 살길을 찾아봅시다. <br/><br/><br/><br/>MISFITS.kr<br/><br/><한승곤 PD hs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2.txt

제목: 작년 태어난 아이 기대수명 81.9년…통계청 발표, 남 78.5 여 85.1  
날짜: 2014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4100000045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2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br/><br/>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녀 아이의 기대수명은 각각 78.5년과 85.1년이다. 남녀 전체적으로는 81.9년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6년, 여자는 0.4년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서는 남자는 4.7년, 여자는 4.2년 늘었다.<br/><br/>지난해 기준으로 40세인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39.7년, 45.9년이다. 60세인 남녀는 각각 22.0년, 27.0년이다.<br/><br/>2013년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 28.1%, 여성 16.6%였다.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남성 9.3%, 여성 11.5%이고 심장질환 사망확률은 남성 9.1%, 여성 11.9%로 나타났다.<br/><br/>특정 연령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0세, 65세, 80세에서 암에 의한 사망 확률이 가장 높고 여성은 0세와 65세가 암으로, 80세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br/><br/>한국의 기대수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 남성은 회원국 평균(77.6년)보다 1.0년, 여성은 회원국 평균(82.8년)보다 2.2년 더 길었다. <br/><br/>OECD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성의 경우 아이슬란드(81.6년), 여성은 일본(86.4년)이다.<br/><br/>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3.txt

제목: 대학생들의 ‘협박 대자보’···“최경환 아저씨, 저 화 났습니다”  
날짜: 2014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410015735615  
본문: 대학가에 대자보가 재등장했다. 대학생들이 학내 게시판에 손수 쓴 대자보를 붙였다.<br/><br/>이번 대자보는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겸 부총리에게 보내는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학생들은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span class='quot0'>부총리 취임과 함께 약속했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을 지켜라</span>”고 촉구했다.<br/><br/>또 “정치권과 정부가 청년들에게는 와닿지도 않는 정책을 내놓으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청년세대에게 짐만 미루지 말고, 서로 잘살수 있게 도와달라”고 대자보에 썼다.<br/><br/>이하내용은 대자보 전문이다.<br/><br/><br/><br/>-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br/><br/><br/><br/>“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신 말 때문에요. 총리 대 찌질이 대학생으로 말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우리가 그냥 포장마차에서 만났다고 상상해봅시다. 요즘 욕 많이 드시느라 힘들다고 소주 한 잔 따르신다면, 저는 그거, 냅다 뺏어 제 잔부터 채우렵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삶은 아저씨 생각이랑 많이도 다릅니다.<br/><br/><br/><br/>작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은 암으로 죽고, 20대는 자살로 죽었답니다. 장년층이 속 곯아 암으로 죽는다면, 청년층은 애쓰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천 삼백만원어치 빚을 지고 대학을 나갑니다. 요즘엔 취업도 힘들어서, 1년 정도 ‘취준’하는 건 찡찡댈 축에도 못 끼고요. 기업들은 ‘스펙초월’이다 뭐다 하는데, 주변에 토익 점수 하나 없이 이력서 쓰는 애들, 본 적 없습니다.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 두 명이 야근하는 분량을 합치면 일자리 하나는 거뜬히 나오는데, 왜 채용 인원은 그렇게 적습니까.<br/><br/><br/><br/>고생대결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잘 좀 해보자고요. 우리도 부모한테 빚 안지고, 독립해서 멀쩡히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이 고생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 데 가고 싶어 한다고요. 이 빚, 본인이 못 갚으면 부모 빚 되고 형제 빚 되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못 만들면 청년만 손해가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또 하나의 부모 최경환씨? 우리가 취업 못하고, 창업 망하고, 집 못사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고요. 우리가 엄마아빠가 가진 부동산들 안 사주면 집은 누가 사고, 부모님 받으실 연금은 누가 내요. 청년이 이 사회의 허리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끊으면, 달릴 힘이 어디서 날까요?<br/><br/><br/><br/>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돈 낸다고 저희 미래 책임져 주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60살 되면 남는 연금이 없을테니까요. 예? 그러면서 20만원 지원하고 다자녀 낳으라고 하고요. 택도 없네요.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시면 우리는 순순히 애를 낳아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청년을 ‘봉’으로 알고 선거때만 빛 좋은 개살구를 던지면, 우리는 순순히 연금을 내주지도, 집을 사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br/><br/><br/><br/>맞습니다. 협박입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이유는 아저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로 들렸거든요.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만인데, 자꾸 아저씨는 ‘창의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아니, 트렌드따라 ‘창조적’이라고 해드릴게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물만 좋은 선물이었나요?<br/><br/><br/><br/>아저씨,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들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못드리고 내복 한 벌 못사드릴 거라고요.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설마, 애 기를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을 저에게 뭔가 막 기대하고, 그러실 거 아니죠?<br/><br/><br/><br/>정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래를 갉아먹고 지금 당장 얼마나 배부를 수 있습니까?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세대에게 짐을 미뤄두고, 장년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아저씨 다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건 권유나 애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우리 ‘같이’ 좀 살 길을 찾아봅시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4.txt

제목: "골드미스, 당신도 자궁건강 관리해야"  
날짜: 2014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310015727117  
본문: 드라마나 로맨스물의 일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레퍼토리는 이제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다. 한 정부기관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에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30~45세 사이 미혼 여성이 지난 6년새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선택이 된 여성들, 이들의 결정엔 바뀐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br/>&nbsp;<br/>결혼을 원하는 남자들도 이젠 맞벌이 할 배우자를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맞벌이의 부담 외에 시대의 변화에도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일과 살림, 그리고 육아의 삼중 부담을 안겨주는 큰 짐으로 여기고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로 결심한 고소득 여성이 늘고 있는 것. 여기엔 여성의 일에 대한 성취감과 더불어 바뀐 시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고정 관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nbsp;<br/>그러나 혼자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다. 특히 고소득의 미혼 여성의 경우 과중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 해소를 위해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기엔 너무나 바쁜 것이 현실이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음식의 잦은 섭취는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자궁관련 여성질환도 우려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미혼인 만큼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거나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br/>&nbsp;<br/>국내 여성암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성에 대한 담론이 자유로운 시대가 된 만큼, 성관계가 있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자궁경부암 검사는 결혼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번의 성관계로도 감염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인 HPV, 우리말로 ‘인유두종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여성이 일생을 통해 한번은 감염된다고 한다. 성관계가 주요 감염 원인이긴 하지만 HPV 감염이 문란한 생활을 보여준다거나 성병과 연결 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br/>&nbsp;<br/>자궁경부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면역력 등 개인의 상태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자궁경부에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일단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고, 또 감염 후 암 진행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조기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3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2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 정기검사는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nbsp;매우 중요하다고 한다.<br/>&nbsp;<br/>자궁 경부의 세포를 채취하여 단순히 눈으로 관찰하는 세포진 검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많은 여성들을 자궁경부암의 위험에서 구해낸 공이 크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원인이 밝혀진 암인만큼, 원인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해졌다. 원인 바이러스의 종류와 양까지 알려주는 ‘HPV DNA 검사’가&nbsp;자궁경부암 검사의 큰 틀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br/>&nbsp;<br/>정기적으로 HPV DNA 검사를 받는다면 누적되는 데이터를 통하여 효과적인 자궁경부암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검사를 위해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다른 여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되니, 소홀해지기 쉬운 미혼여성들의 건강관리에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자궁경부의 바이러스 정보를&nbsp;알려주는 신기술 분자진단 분야에선 국내 기업 씨젠이 알려져 있다. 씨젠 HPV DNA 자궁경부암 검사를 비롯하여 자궁경부암에 관한 정보와 생활습관 등에 관해 ‘씨젠우먼’ 사이트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5.txt

제목: 요즘 아기의 수명은?…10년전보다 4.5년 늘어나  
날짜: 2014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310015726775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역대 최저인 6.5년을 기록했다.<br/><br/>3일 통계청의 ‘2013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녀 아이의 기대수명은 각각 78.5년, 85.1년이며 전체적으로는 81.9년에 달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0.6년, 여자는 0.4년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서는 남자는 4.7년, 여자는 4.2년(전체 4.5년)이나 늘었다. <br/><br/>지난해 태어난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6.5년)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은 “<span class='quot0'>과거와 달리 남성들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기대수명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span>”분석했다. <br/><br/>지난해 태어난 남녀 아이가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각각 55.2%, 76.7%로 분석됐다. 2003년보다는 남녀가 각각 15.8%포인트, 13.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br/><br/>한편 작년 출생한 아이는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남자는 28.1%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증가했고, 여자도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16.6%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남녀 각각 9.1%, 11.9%로 뒤를 이었다. <br/><br/>만약 암이 제거된다면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4.7년, 여자 2.8년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65세 남성이 암에 안 걸릴 경우 남자는 3.9년, 여자는 2년의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6.txt

제목: 명태·다시마 등 수산물 6.7% 방사성물질 세슘137 검출  
날짜: 20141203  
기자: 박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3100000101  
본문: 명태·다시마 등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시료 6.7%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 외국산 검출률이 국내산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산 조사 대상 150개 시료 중 10개(6.7%)에서 세슘137이 나왔다. 세슘137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핵실험이나 원전사고 등 인위적 핵분열이 일어날 때에만 발생한다. 검출 시료는 고등어, 명태, 명태곤이, 명태알, 대구, 대구곤이, 대구알, 다시마, 오징어, 꽁치, 미역이다. <br/>시료별 검출빈도는 명태(부산물 포함)가 1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다시마(7.7%), 고등어(6.7%), 대구(2.9%) 순이었다. 명태 부산물(14.3%)의 검출률은 명태(13.3%)보다 높았다.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명태(부산물 포함)의 검출빈도가 높다고 봤다. <br/>외국산 생선의 세슘137 검출비율은 10.7%로 국내산 2.7%보다 4배가량 높았다. 원산지별로는 러시아산이 전체 46개 시료 중 6개, 노르웨이산 5개 중 1개(20%), 미국산이 10개 중 1개에서 검출됐다. <br/>평균 검출량은 0.41베크렐(Bq)/㎏이었다. 국내산은 0.58Bq/㎏이었고 러시아산은 0.38Bq/㎏, 노르웨이산은 0.43Bq/㎏이었다. 국내 수산품 안전기준은 100Bq/㎏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익중 교수는 <한국탈핵>에서 “<span class='quot0'>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하며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span>”고 썼다. 3개 환경단체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시료는 모두 대형마트에서 산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구입한 시료에서는 검출 사례가 1건도 나오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대형마트 검출률이 높은 것은 외국산 어종이 많은 것의 영향으로 보이나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br/>환경단체들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span class='quot1'>현행 규정상 국내산과 일본산 이외의 외국산 식품은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내로 들어 있으면 유통이 가능하지만, 외국산 농산물 중 일본산은 2.3%에 불과하고 러시아산과 중국산 비중이 각각 28%와 32%에 달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7.txt

제목: 서울 출퇴근 직장인에게 적합한 수도권 아파트  
날짜: 2014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310015723664  
본문: 서울 강남이나 도심에 있는 아파트는 출퇴근하기 편하지만 가격이 비싸 젊은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출퇴근 시간이 짧고 직장에 가까울수록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서울의 전셋값은 2년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br/><br/>잘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이나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서울 강남,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내집 마련용으로 분양받을 만한 아파트를 소개했다. 강남권으로 출퇴근한다면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용인 등 경기남부권과 구리 등 경기 동부권이 적합하다. 광화문 등 도심에 직장이 있다면 광명, 고양, 구리 등에서 고르는 게 좋다. <br/><br/>닥터아파트 권일 분양권거래소장은 “<span class='quot0'>교통여건이 좋은 경기지역은 수요가 탄탄해 회복기에 가격 상승여력도 좋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분양가가 꾸준하게 오르는 만큼 연내에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생각해볼만하다</span>”고 말했다.<br/><br/>■강남권 출퇴근족<br/><br/>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 C2-2, 3블록에 전용면적 97~133㎡, 총 214가구를 짓는 ‘위례아트리버 푸르지오’를 이달 중 분양한다. 위례신사선 중앙역(가칭), 트램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강남방면으로 이동이 쉬워진다. <br/><br/>또 C2-4, 5, 6블록에는 전용면적 84㎡, 총 630가구를 짓는 ‘위례우남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 역세권 단지로 송파방면과 강남수서 방면으로 이동이 쉽다. 차량으로는 송파대로 진입이 쉬워 강남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br/><br/>현대엔지니어링은 광교신도시 하동 원천호수공원 D3블록에 전용면적 97~155㎡, 총 928가구를 짓는 힐스테이트 광교를 12월 중 분양한다. 신분당선 연장(20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강남역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용서고속도로 연결사업이 추진돼 광교에서 양재IC로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br/><br/>한화건설이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824-1에 전용면적 82·112㎡, 총 1067가구를 짓는 수원 권선 꿈에그린1차를 12월 중 분양한다. 차량으로 과천의왕간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서울 양재 등 강남권으로 이동이 쉽다. 서울지하철 1호선 수원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 <br/><br/>■도심권 출퇴근족<br/><br/>포스코건설이 경기 구리시 인창동 614-11에 전용면적 74~114㎡, 총 407가구를 짓는 구리 더샵 그린포레를 분양한다. 서울북부간선로, 망우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방면, 서울외곽순환로와 11월 21일 개통한 암사대교를 통해 올림픽대로 진입이 좋아져 강남권으로 이동이 더욱 쉬워졌다. 중앙선 구리역을 통해 시청, 왕십리 방면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br/><br/>호반건설이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지구 주상1블록에 전용면적 59~98㎡, 총 1430가구를 짓는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이 12월 중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 역세권으로 서울역 일대와 신길역을 통해 여의도 일대로 출퇴근하기가 쉽다. 차로는 서부간선로 등을 통해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초, 강남 방면으로 차량이동 여건도 개선된다. <br/><br/><br/><br/><br/><br/><안호기 선임기자 haho0@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8.txt

제목: 방사성물질 100% 못 거르는 담수화시설 “발암 우려”에 가동 연기  
날짜: 20141202  
기자: 권기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2100000141  
본문: 부산시가 고리원전 인근 바닷물을 식수로 쓰기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성했다가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자 물 공급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바닷물을 음용수로 쓰기 위해 거액의 담수화 시설을 지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br/>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span class='quot0'>환경단체 조사결과 소량이지만 방사성물질이 원전 온배수 배출구 주변 5㎞ 이내 수산물과 토양에서 검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음용수를 이달 중 기장군 5만여가구에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달로 연기한다</span>”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문제없다던 부산시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br/>경주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성물질이 원전 온배수 배출구 주변 5㎞ 이내 수산물과 토양에서 검출됐다. 특히 고리 1호기 배수구 4곳에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이 모두 검출됐다. 해수담수화시설과 가장 가까운 배출구의 거리는 10㎞에 불과했다.<br/>조사 결과를 놓고 기장군 주민들이 우려하자 시는 물 공급을 연기한 뒤 매주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역삼투막을 이용한 정수과정을 거치고 있어 요오드와 세슘을 95~99% 걸러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br/>그러나 주민들은 “오랜 기간 물을 마실 경우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요오드와 세슘 이외에 다른 방사성물질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과자치연구소 서토덕 기획실장은 “<span class='quot1'>액체 방사성폐기물 가운데 99.9%는 삼중수소</span>”라며 “<span class='quot1'>역삼투막 방식으로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삼중수소는 원전 배출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핵종이다. 반감기는 12년으로 대부분 산소와 반응해 물 형태로 존재한다. 염색체의 손상과 이상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br/>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돼 시민단체들이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br/>정치권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span class='quot2'>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기장군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요금과 안전성 문제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span>”이라고 밝혔다.<br/>해수담수화시설은 바닷물을 음용수로 만드는 설비로 지금까지 섬 지역에 소규모로 세워졌다. <br/>부산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음용수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 시음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부터 음용수를 공급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199.txt

제목: 명태·다시마 등 수산물 6.7% 방사성물질 세슘137 검출  
날짜: 2014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21001572083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대부분 외국산으로 기준치 이하… “일 원전 사고 탓”</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환경단체 “방사능 검사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strong><!-- SUB\_TITLE\_END--><br/><br/>명태·다시마 등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시료 6.7%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 외국산 검출률이 국내산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br/>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산 조사 대상 150개 시료 중 10개(6.7%)에서 세슘137이 나왔다. 세슘137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핵실험이나 원전사고 등 인위적 핵분열이 일어날 때에만 발생한다. 검출 시료는 고등어, 명태, 명태곤이, 명태알, 대구, 대구곤이, 대구알, 다시마, 오징어, 꽁치, 미역이다. <br/><br/>시료별 검출빈도는 명태(부산물 포함)가 1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다시마(7.7%), 고등어(6.7%), 대구(2.9%) 순이었다. 명태 부산물(14.3%)의 검출률은 명태(13.3%)보다 높았다.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명태(부산물 포함)의 검출빈도가 높다고 봤다. <br/><br/>외국산 생선의 세슘137 검출비율은 10.7%로 국내산 2.7%보다 4배가량 높았다. 원산지별로는 러시아산이 전체 46개 시료 중 6개, 노르웨이산 5개 중 1개(20%), 미국산이 10개 중 1개에서 검출됐다. <br/><br/>평균 검출량은 0.41베크렐(Bq)/㎏이었다. 국내산은 0.58Bq/㎏이었고 러시아산은 0.38Bq/㎏, 노르웨이산은 0.43Bq/㎏이었다. 국내 수산품 안전기준은 100Bq/㎏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익중 교수는 <한국탈핵>에서 “<span class='quot0'>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하며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span>”고 썼다. 3개 환경단체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시료는 모두 대형마트에서 산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구입한 시료에서는 검출 사례가 1건도 나오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대형마트 검출률이 높은 것은 외국산 어종이 많은 것의 영향으로 보이나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br/><br/>환경단체들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span class='quot1'>현행 규정상 국내산과 일본산 이외의 외국산 식품은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내로 들어 있으면 유통이 가능하지만, 외국산 농산물 중 일본산은 2.3%에 불과하고 러시아산과 중국산 비중이 각각 28%와 32%에 달한다</span>”고 밝혔다.<br/><br/><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0.txt

제목: [박연선의 청춘통신-울릉에서 책을 읽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1100000193  
본문: 박연선은 KBS울릉에서 일하고 있는 젊고 잘생긴 아나운서다. 28세의 그는 지금 동쪽의 먼 바다 위 울릉도에 자신의 피 끓는 청춘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매일 책을 읽는다. 다치바나 다카시가 말했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수께끼의 10년’이 그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연선의 청춘통신-울릉에서 책을 읽다’는 울릉도에서 한반도의 전역으로 송출되는 박연선의 청춘독서통신이다.<br/><br/><br/>얼마 전부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종합베스트셀러 목록에 다시 오르더니 <미생>을 제치고 1위까지 올라섰다. 출간된 지 2년이나 된 이 책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일까. 물론 도서정가제 직전 책값을 크게 할인한 덕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할인 판매된 도서가 이밖에도 굉장히 많았던 점이 걸린다. 게다가 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이 이어지면서 베스트셀러 목록 최상단에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다. <br/><br/><br/>2년 전, <용의자 X의 헌신>의 영화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전체에 관심이 집중됐던 때보다 더 주목받는 현상은 참 흥미롭다. 어쨌든 단순히 할인 판매의 영향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좋은 작품이라서 가능한 일이다.<br/><br/>‘베스트셀러의 사회학’이라는 말이 있다. 당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그 시기의 사회적 결핍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어떤 것을 이 소설이 상기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br/><br/>나미야 잡화점에 3인조 도둑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채워준 것은 우리에게 이미 판타지가 돼 버린 것들이다. 이 소설에는 생면부지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거나, 부모가 자신들의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히 깨고 자식의 꿈을 지지하는 일화가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런 것은 현실에서 없다고…. 현실에게 끔찍하게 배신당한 경험 때문일 것이다.<br/><br/>전도유망한 운동선수가 암에 걸린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방법도, 성공한 사업가가 누군가의 조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현실에는 없다. 지금의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지도, 아름답게 소통하지도 못한다. <br/><br/><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 소설 속 따뜻하고 감동적인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우리는 수많은 연결고리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배려와 관용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다. 엄청난 비용이 들거나 심리적 고통이 따르는 행위도 아니다. 지극히 간단한 인식과 행동일 뿐이다.<br/><br/><br/>오랜만에 방송국 동료와 울릉도 도동 시가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기로 했다. 해병대 시절 공수훈련도 꽤 잘 해치운 나다. 그런데 그런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니 눈앞이 아찔했다. 떨리는 마음을 동행한 부장님의 팔에 덜어놓고 도동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봤다. 각자의 목적과 개성을 가진 건물들이 수많은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다.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각자의 용도와 쓰임은 다 다른 건물들. 하지만 전체를 조망하니 ‘도동 시가지’라는 매우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됐다. 새삼 의지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부장님의 팔뚝이 정말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다.<br/><br/>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서로에게 의지한 채 멋진 그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처럼 말이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윤옥 옮김 / 456쪽 / 1만4800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1.txt

제목: 마약 공급책이었던 여인 윤설희, 입을 열다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1100000069  
본문: 윤설희라는 이름이 낯설지도 모른다. 2009년 배우 주지훈이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불구속 기소된 사건 당시, 그녀도 엑스터시 해외 밀반입이란 죄목으로 구속됐다. 수많은 연예인과 모델들이 연루됐지만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고, ‘공급책’이란 이유로 그녀에게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저 단역배우였던 그녀가 왜 그런 대범하고도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 2012년 4월 출소한 윤설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br/><br/>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br/>윤설희(30)가 스튜디오에 들어왔다. 여린 몸매와 청순한 외모. 겉모습만 보고 누가 그녀를 5년 전 주지훈이 연루됐던 마약 사건의 공급책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연예계 경력은 10년을 훌쩍 넘었고, 여러 영화에 단역배우로 출연했던 그녀가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불행히도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이었다. 그것도 마약사범으로. 왠지 보통내기가 아닐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의 모습은 그저 인터뷰 사진 촬영으로 바짝 긴장해 있는 신인 연기자 같았다.<br/><br/>사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설희라는 배우를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사건 이후 처음 인터뷰를 하는 거라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저는 그냥 윤설희예요. 과거의 큰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몇 개의 좋지 못한 단어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의 방황과 과오를 크게 뉘우치고 세상으로 다시 걸음마를 시작한 평범한 연기자로 봐주시면 좋겠어요.<br/><br/>연예계 데뷔는 언제였나요? 2002년에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후 소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오랜 무명 시절을 지내왔지요. 영화 ‘타짜’, ‘색즉시공2’, ‘불꽃처럼 나비처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에서 단역으로 출연했어요.<br/><br/>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요? 네.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죠. 매일매일 제멋대로 지냈고 순간의 유혹에 금세 흔들렸죠.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내리막길을 향해 과속을 하던 저였어요.<br/><br/>그때 친구들, 지금 연락하나요? 아니요. 나쁜 짓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다시는 안 볼 각오로 인간관계를 모두 청산했어요. 그 탓에 지금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br/><br/>그럼 평소 일이 없을 때는 뭘 하고 지내나요? 최근에는 캘리그래피를 통해 제 마음을 써내려가고 글씨를 통해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그녀는 자신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몇 점 가져와 보여주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생각들을 써보고 주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작은 종이에 담아 전해보기도 해요. 과거에는 포천 유기견센터와 인연이 닿아 강아지 두 마리를 데려와 키웠어요. 그런데 구속 당시 한 마리가 아파서 떠나고 그 후 나머지 한 마리도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출소 뒤에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했는데 엄마가 지인에게 분양받아온 강아지와 다시 잘 지내고 있어요.<br/><br/>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 3남매 중 둘째예요.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제가 네 살 때 돌아가셨고 엄마가 작은 식당을 하시며 억척스럽게 3남매를 키워내셨어요.<br/><br/>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런데 당시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엄마는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번씩 면회를 오셨어요. 지금도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제가 식당일을 도와드리곤 하는데 엄마의 손을 이제야 보게 됐어요. 엄마는 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로 인해 힘들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여 가슴이 아파요.<br/><br/>2년 6개월, 그곳에서는<br/>지난 2009년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설희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를 거쳐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교도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느껴졌다.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고, 출소 뒤에도 안정된 삶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br/><br/>실형이 선고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제가 철이 없었죠. 경찰서에서 그냥 조사만 받고 집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심에서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최종 선고까지 그대로 갔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br/><br/>큰 범죄인 줄 몰랐나요? 법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어요. 함께 놀던 친구들은 해외에 나가면 약을 가져왔고, 저 역시 으레 가져오는 건 줄 알았어요. 남동생이 “누나가 만약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잡혔다면 사형당했을 거야”라고 말할 때까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건지도 몰랐으니까요.<br/><br/>그렇다면 혼자 실형을 받은 게 억울하진 않나요? 제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커질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럼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달게 벌을 받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br/><br/>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사건 발생 뒤부터 출소할 때까지 모든 시간이 힘들었어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저로 인해 가족, 친구, 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게 돼 정말 많은 후회를 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무서웠어요. 잠깐의 유혹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가져왔으니까요.<br/><br/>수감 생활 자체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죠? 그 안에서도 제가 화제의 인물이었던지라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그래서 혼거 생활을 하다가 독거로 옮기기를 반복했어요. 수감 생활이라는 건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도 혼자라는 개념이 없고 항상 지켜보는 이가 있어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갑상샘과 목에 혹이 있었는데 수감 기간 중 수술을 받았어요.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갈 때도, 심지어 수술대에 올랐을 때도 제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죠. 식사를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 했기 때문에 늘 위장병을 달고 살았고 몸무게가 35kg까지 빠졌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서 5kg 정도 찐 거예요.<br/><br/>35kg이요? 지금도 이렇게 말랐는데? 체중뿐만 아니라 구속이 되고 나서 생리가 아예 끊겨서 거의 5년간 소식이 없었어요. 산부인과에 다녔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신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요가나 운동을 시작하고 생활이 안정되니 몸은 많이 나아졌어요.<br/><br/>출소 뒤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사실은 저에 대한 기사들을 출소 뒤에 처음 접했어요. 가족이 일부러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날 알아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br/><br/>개명을 하거나 아예 연예계를 떠나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없나요? 형제 중에서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외모가 가장 많이 닮았대요. 어린 시절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제 이름 석 자라서 개명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다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교육생 과정으로 바리스타, 네일아트, 피부관리사를 일을 배우며 자격증도 땄거든요. 감히 연기를 다시 시작할 생각은 못했죠<br/><br/>‘윤설희’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br/>그녀는 최근 6개월간 ‘먹이사슬’, ‘사토미를 찾아라’, ‘거짓말2014’, ‘환상’ 등 다섯 편의 영화에 연이어 출연했다. 콘텐츠 시장의 변화로 극장 개봉용 성인 영화의 붐을 타고 그녀는 다작 배우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영화의 특성상 노출을 피할 수 없지만 그녀가 오랜 무명 생활 동안 꿈꿔왔던 주인공 역의 기회도 찾아왔다.<br/><br/>재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단 한 번도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으리란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우연한 계기로 제작사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던 것이 영화 ‘먹이사슬’이었어요. 영화의 시놉시스를 받고 극중 인물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일어서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정말 컸어요.<br/><br/>가장 큰 힘을 준 사람이 있나요?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계시는 현재호 이사님과 신동호 감독님이 아버지같이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영화 메이크업을 담당해주신 신 감독님의 사모님도 같은 여자로서 조언해주셨기 때문에 큰 의지가 됐어요. 이제는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고민이 있을 때는 늘 상담을 요청해요.<br/><br/>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영화에서 연기가 늘었다는 평도 있어요. 네. ‘먹이사슬’은 저도 좀 어색했는데, ‘사토미를 찾아라’나 ‘거짓말2014’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고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알아가겠더라고요. 내가 카메라를 의식하고 대사를 한다고 생각되면 관객들 에게 이미 들켜버리는 거죠. 영화의 디테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br/>성인 영화이긴 하지만 주연급 연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단역 할 때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10년 무명 생활 동안 주인공은 특출한 분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주는 대본만 열심히 외워서 하던 연기였다면 이제 작품 한 신, 한 신마다 카타르시스를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 있음을 느껴요.<br/><br/>노출이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노출은 늘 둘째 문제예요. 제가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큰 영화든 작은 영화든, 노출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욕심인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br/><br/>이렇게 언론과 첫 인터뷰했는데 또 비난을 받으면 어쩌죠?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욕을 먹을 것이 있으면 먹어야지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받아들이겠습니다.<br/><br/>지난 사건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태어나게 됐고 윤설희 저를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서른이 돼 어른이 됐지만 이제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br/><br/>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시간들을 이제 웃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에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2.txt

제목: 4개월 된 QM3 곳곳 부식···핵심부품 결함도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110015710776  
본문: 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3와 중형세단 SM5 등 주력 모델에서 차체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br/><br/>지난 7월 르노삼성차 QM3를 구입한 학원 강사 김모씨(56)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속 20㎞ 정도의 속도로 도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 운전석 앞바퀴 쪽에서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갑자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렸다. 급제동을 했지만 이미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 연석을 들이받은 후였다. 도로가에 사람이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br/><br/>김씨는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한 후에야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로어암(lower arm)’이 구부러진 사실을 알게 됐다. 바퀴 움직임을 콘트롤하는 로어암이 구부러지거나 절단되면 김씨의 경우처럼 핸들 조작을 할 수 없게 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br/><br/>김씨는 르노삼성차 측에 제품 결함 문제를 항의했으나, 르노삼성차 측은 김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속도를 높인 상황이거나 고속도로 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니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마저 든다</span>”며 “<span class='quot0'>더욱 화나는 건 운전자 실수로 몰아가는 르노삼성차 측의 대응</span>”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br/><br/>황당한 일은 차량 입고 후에도 벌어졌다.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 곳곳이 부식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구입한 지 4개월된 차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녹이 슬어 있었다. 정비업소 직원도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견적도 만만찮게 나왔다. 김씨는 60가지 이상의 부품교체와 공임비용을 합해 총 340만원이 적힌 견적서를 받았다. <br/><br/>김씨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 등 전문기관에 문제의 차량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br/><br/>르노삼성차 측은 이번 사고를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다. 차량이 인도의 연석을 들이받이면서 그 충격으로 로어암이 구부러졌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해당 고객이 접수한 사고 차량의 사진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방지턱을 넘다가 일어난 사고라기 보다 연석을 받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부식 문제와 관련, “<span class='quot2'>코팅이 안 된 부분은 녹이 생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차량의 안전이나 주행능력과는 무관한 부분</span>”이라고 말했다.<br/><br/>르노삼성차의 로어암 관련 결함 논란은 올 초에도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출고된 지 1년이 안 된 SM5에서 주행 중 ‘로어암 볼 조인트’가 빠지는 일이 었었다. 사고 피해 당사자는 당시 “로어암 볼트가 빠지면서 차량이 급격히 오른쪽으로 쏠렸고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가까스로 멈춰 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르노삼성차 측은 “<span class='quot3'>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로어암 볼 조인트가 빠졌다</span>”고 반박했다.<br/><br/>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span class='quot4'>시속 20㎞ 정도의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 로어암이 구부러지는 것은 드문 경우</span>”라면서 “<span class='quot4'>제품의 결함 가능성에 대해 제조사 측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3.txt

제목: 방사성물질 100% 못 거르는 담수화시설 “발암 우려”에 가동 연기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11001571197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고리원전 인근 부산 기장 주민에 이달 중 식수공급 무산</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환경단체·정치권 “안전성 우려되는데 설치 잘못” 지적</strong><!-- SUB\_TITLE\_END--><br/><br/>부산시가 고리원전 인근 바닷물을 식수로 쓰기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성했다가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자 물 공급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바닷물을 음용수로 쓰기 위해 거액의 담수화 시설을 지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br/><br/>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span class='quot1'>환경단체 조사결과 소량이지만 방사성물질이 원전 온배수 배출구 주변 5㎞ 이내 수산물과 토양에서 검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음용수를 이달 중 기장군 5만여가구에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달로 연기한다</span>”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문제없다던 부산시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br/><br/>경주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성물질이 원전 온배수 배출구 주변 5㎞ 이내 수산물과 토양에서 검출됐다. 특히 고리 1호기 배수구 4곳에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이 모두 검출됐다. 해수담수화시설과 가장 가까운 배출구의 거리는 10㎞에 불과했다.<br/><br/>조사 결과를 놓고 기장군 주민들이 우려하자 시는 물 공급을 연기한 뒤 매주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역삼투막을 이용한 정수과정을 거치고 있어 요오드와 세슘을 95~99% 걸러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br/><br/>그러나 주민들은 “오랜 기간 물을 마실 경우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요오드와 세슘 이외에 다른 방사성물질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과자치연구소 서토덕 기획실장은 “<span class='quot2'>액체 방사성폐기물 가운데 99.9%는 삼중수소</span>”라며 “<span class='quot2'>역삼투막 방식으로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br/><br/>삼중수소는 원전 배출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핵종이다. 반감기는 12년으로 대부분 산소와 반응해 물 형태로 존재한다. 염색체의 손상과 이상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br/><br/>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돼 시민단체들이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br/><br/>정치권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span class='quot3'>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기장군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요금과 안전성 문제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span>”이라고 밝혔다.<br/><br/>해수담수화시설은 바닷물을 음용수로 만드는 설비로 지금까지 섬 지역에 소규모로 세워졌다. <br/><br/>부산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음용수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 시음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부터 음용수를 공급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부산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4.txt

제목: 2014년 「레이디경향」 기자들이 뽑은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1100000085  
본문: Special Feature ①<br/>올 한 해는 비교적 차분하게 지나갔다.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이어진 추모의 물결이 오래도록 지속된 상반기는 특히 조용했다. 이후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이 쏟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았다. 유난히 톱스타들의 결혼이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열애, 결별 소식도 적었다. 내년에는 더욱 밝고 유쾌한 뉴스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묵묵히 올 한 해를 빛낸 각 분야별 베스트를 꼽아봤다.<br/><br/>1 올해의 영화<br/>한 줄 평 물 만나면 뜬다!<br/><br/>BEST 명량<br/>한국 영화의 흥행사를 다시 쓴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로 좋은 출발을 보인 ‘명량’은 이후 ‘최단 기간 내 ○○만 명 돌파’의 기록을 경신해 나가기 바빴다. 단지 숫자에 불과한 신드롬은 아니었다. 1597년 단 12척의 배로 3백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그린 이 작품을 통해 그의 리더십이 재조명되면서 서점가에는 이순신 관련 서적들이 쏟아졌다.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낸 최민식, 류승룡 두 주인공은 다시 한번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했다.<br/><br/>Plus 변호인 개봉은 지난 연말, 그러나 그 여파는 올 초까지 이어졌다.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돈 없고, ‘빽’ 없고, 가방 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모티브로 했다. 영화 흥행 후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br/>Plus 겨울왕국 개봉 후 10개월이 흐른 시점의 핼러윈데이까지 점령했을 정도로 ‘겨울왕국’의 열풍은 대단했다. 주인공 엘사의 의상은 여자 유치원생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됐고, 주제가 ‘렛 잇 고’는 2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이면 언제나 울려 퍼지는 돌림노래였다.<br/>Plus 수상한 그녀 뜻밖의 흥행 스코어를 기록한 작품이다. 스무 살 꽃다운 처녀의 몸으로 돌아간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난생처음 누리게 된 빛나는 전성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로 ‘도가니’의 황동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화제가 됐다. 톱스타 배우는 없었지만 세대를 넘나드는 나문희, 심은경의 연기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에 충분했다. 특히 심은경은 ‘써니’, ‘광해’ 이후 3연타에 성공하며 충무로의 유망주로 떠올랐다.<br/><br/>2014 영화 흥행 순위(11월 19일 현재)<br/>영화명 전국 관객 수 개봉일<br/>명량16,928,783명7월<br/>겨울왕국 10,296,101명1월<br/>수상한 그녀 8,656,417명 1월<br/>해적: 바다로 간 산적7,017,113명8월<br/>변호인5,688,892명12월(2013)<br/>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5,295,935명6월<br/>인터스텔라5,440,156명(상영 중)11월<br/>군도: 민란의 시대 4,661,552명 7월<br/>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베스트4,313,446명 5월<br/>어메이징 스파이더맨4,164,946명 4월<br/><br/>2 올해의 예능<br/>한 줄 평 여전히 아빠 대세, 외국인도 대세<br/><br/>BEST 슈퍼맨이 돌아왔다!<br/>‘추블리’의 인기에 도전장을 내민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바로 송일국의 삼둥이 아들들인 대한, 민국, 만세가 그 주인공. 이제 막 말을 배운 세 아이와 고군분투하는 아빠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입가에 연신 미소를 짓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치 드라마 속 재벌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듯 취업, 결혼에 이어 육아까지 ‘3포 세대’가 겪고 있는 애환을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기자들의 예리한 평. 더불어 늘어가는 간접광고 PPL도….<br/><br/>Plus 비정상회담 월요병으로 힘들어하는 2030 세대 사이에서 이슈가 된 프로그램이다. 동시에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런 꽃미남 외국인을 섭외하지 못했나, 하고 기자들을 자책하게 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3명의 한국인 MC 유세윤, 전현무, 성시경과 개성 강한 11개국 외국인 패널들이 생활 밀착형 문제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훈훈한 외모와 토종 한국인 못지않은 입담으로 진솔함을 보여준 패널들의 활약이 결정적 인기 요인이다. 그러나 일본의 ‘기미가요’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시청자들에게 뭇매를 맞았으며 현재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br/>Plus 꽃보다 시리즈 할배, 누나들에 이어 청춘까지. 기존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섭외력과 나영석 PD의 편집 실력에 박수를 보낸다. 준비 없는 갑작스러운 출발을 컨셉트로 하지만 결코 빈약하지 않은 여행 일정이나 그 속에서 보여주는 출연자들의 돌발 행동이 큰 웃음을 선사했다. ‘짐꾼’ 이서진과 이승기의 출연은 신의 한 수.<br/><br/>3 올해의 드라마<br/>한 줄 평 케이블 드라마 강세. 오히려 공중파가 막장<br/><br/>BEST 왔다! 장보리<br/>한 자릿수 시청률로 출발했을 정도로 극 초반에만 해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심지어 진부한 출생의 비밀과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억지스러운 요소가 가득한 전개, 일부 인물들의 극단적이고 패륜적인 행동으로 인해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전개, 김순옥 작가의 감칠맛 나는 필력과 백호민 PD의 연출력, 배우들의 열연 덕에 논란은 화제로 급변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로 2회 연속 결방되자 시청자 게시판에 불만의 글이 도배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악녀’의 대명사가 된 연민정 역의 이유리가 재발견됐고, 악역 잡는 ‘탄산남’ 성혁은 남자주인공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다.<br/><br/>Plus 별에서 온 그대 ‘역시 전지현!’이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드라마다. 14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그녀는 실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살아 있는 캐릭터 천송이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엽기적인 그녀’ 이후 또 한 번의 주가를 올렸다. 그녀가 입었던 옷, 사용한 화장품 역시 언제나 완판. ‘대장금’ 이후 사그라지던 중국 내 한류 드라마의 불씨를 지피는 데도 공을 세웠다.<br/>Plus 밀회 대본, 연출, 음악, 열연. 모든 것이 완벽했다. 20세 연하와 사랑에 빠진 김희애의 삶도, 그녀가 속한 상류층의 부조리나 인간의 욕망 이야기도, 3040 여성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극중 대사였던 “특급 칭찬”, 김희애의 물광 메이크업이 덩달아 화제가 됐다.<br/><br/>4 올해의 이슈 메이커<br/>한 줄 평 역시나 예측불허 연예계<br/><br/>BEST 이병헌<br/>사건은 자신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걸 그룹 멤버 D씨와 모델 L씨를 강남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난히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가 많았던 배우였던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그의 이미지에 결정타를 날렸다. 한편 사건 후 이민정과의 별거설 등에 휩싸였으나 두 사람은 미국 LA 인근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등 애정전선 이상무를 과시했다. 네티즌들은 엄앵란과 평행이론을 제기하기도.<br/><br/>Plus 차승원 친자 소송에 휘말리며 뜻하지 않게 가족사가 공개됐다. 프로게이머였던 아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르내릴 때도 묵묵히 용서를 청했던 그였기에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고백이 더욱 진솔하게 전해졌다. 사건 후 그는 대중들 사이에서 잘생긴 외모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중 남자로 우뚝 섰다.<br/>Plus 송혜교 평소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송혜교가 탈세 혐의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 그러나 그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매서운 여론 폭탄. 결국 그녀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시사회에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br/><br/>5 올해의 작별<br/>한 줄 평 예상치 못한, 그래서 더 슬픈<br/><br/>Good Bye 신해철<br/>‘마왕’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한민국을 비통에 빠뜨렸다. 사인은 소장 및 심낭 천공에 의한 패혈증. 유가족과 동료 가수들은 장례 절차 중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부검을 결정했고, 이를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학가요제로 데뷔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였던 그는 청춘들의 우상이자 현실과 호흡하는 예술가였다. 동시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한 독설가이자 소셜테이너였다. 생전에 남긴 영상 유언장이 남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다.<br/><br/>Plus 김자옥 동료들이 기억하는 그녀는 언제나 밝고 따뜻한 배우였다. 대중들이 기억하는 그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그녀는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왔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했다. 내년 3월, 남편 오승근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br/>Plus 레이디스코드 리세·은비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레이디스코드의 권리세와 고은비. 이들은 지방에서 진행된 KBS-1TV ‘열린 음악회’ 녹화 후 서울로 올라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다섯 멤버 중 두 사람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가 된 케이스로, 간절히 원했던 꿈이 현실로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애잔하다.<br/><br/>6 올해의 커플<br/>한 줄 평 한·중 커플의 결혼, 톱스타 열애 기근 현상<br/><br/>BEST 탕웨이·김태용<br/>영화 ‘만추’의 감독과 배우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앞서 탕웨이가 분당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던 터. 깜짝 결혼 발표부터 비밀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새댁이 된 뒤 다시 찾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녀는 “그를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로도 서로 잘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행복한 속내를 전했다.<br/><br/>Plus 채림·가오쯔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또 한 쌍의 ‘한·중 커플’이다. 두 사람은 중국 CCTV 드라마 ‘이씨 가문’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 것이 계기가 돼 사랑을 키웠다. 결혼에 앞서 가오쯔치는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채림에게 한국어 노래를 불러주며 반지를 끼워주는 등 로맨틱한 공개 프러포즈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0월 말, 한국에서 전통 혼례로 부부가 됐으며 자신들의 SNS 등을 통해 달콤한 신혼생활을 전하고 있다.<br/>Plus 김연아·김원중 빙판 위에서 피어난 원조 국민 여동생의 사랑은 적지않은 충격을 안겼다. 상대는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 보도가 된 시점은 그녀가 은퇴 발표를 한 이후였지만 두 사람의 열애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였다. 평소 시원시원한 성격을 드러내온 김연아 선수 측은 이를 곧바로 쿨하게 인정하며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김원중 선수가 합숙훈련 도중 숙소를 이탈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외국의 매체들이 결별설을 제기했고 두 사람 역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를 인정했다.<br/><br/>7 올해의 번외<br/>한 줄 평 빼놓기 아쉬운 그들, 일단 ‘으리’ 김보성과 ‘식탐송’ 이국주<br/><br/>BEST 난방비 열사, 김부선<br/>발단은 배우 김부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 자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부터다. 단순 폭행 사건인 줄로만 알았던 이날의 다툼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불거진 것. 이후 서울시와 성동구청이 나서 난방비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가구가 난방 계량기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 측은 조작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한편 정치권으로도 이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아파트 난방 계량기 조작 등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br/><br/>Plus 미안하다, 고승덕 지난 6·4 지방 교육감 선거 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고승덕 전 후보. 그러나 오랜 기간 청소년 전문가를 자처하며 인지도를 높여왔던 그는 딸 고캔디씨가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라는 요지의 폭로 글을 올린 후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한편 거리 유세 당시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며 절규했던 장면은 각종 패러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br/>Plus 2% 아쉬운 컴백, 서태지 신비주의를 벗은 서태지가 5년 만에 컴백했다. ‘소격동’, ‘크리스말로윈’ 등 그가 내놓은 곡들은 역시나 연일 화제와 함께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됐다. 또 배우 이지아와의 이혼, 배우 이은성과의 결혼, 2세 출산 등 그간 철저하게 사생활을 비밀에 부쳐왔던 그는 복귀 방법에 있어 이례적으로 토크쇼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의 파격 행보를 선택해 이목을 끌었다. 그럼에도 전성기 시절의 파워나 파장을 만들어내지 못해 아쉽다는 것이 기자들의 의견이다.<br/><br/>\* 이 기사는 「레이디경향」 취재팀 기자들의 방담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5.txt

제목: 행복 디렉터 김진세의 행복 실천  
날짜: 2014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201100000013  
본문: 所向 [소향]<br/>행복을 향해 가는 곳<br/>아쉽게도 혹은 시원하게도,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마지막에 섰다. 이달에는 필자의 전문 영역인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 다뤄볼까 한다. 행복의 반대말이라고도 불리는 ‘우울증!’ 이제 우울증을 이기는 법을 실천해보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다.<br/><br/>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이후에는 암이나 심장 질환보다,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우울증은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신체의 기능을 떨어트려 질병을 만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을 불행의 질병이라고 한다. 다행히 우울증은 비교적 치료가 잘되는 병이다.<br/>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자는 취지로, 지난 11월호에 공지했듯이,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독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20여 년 동안 우울증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사연부터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박탈감과 외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이혼 후 절망에 휩싸인 주부 등 다양한 독자의 사연을 받았다. 어떤 독자는 당장 입원이 필요한 중증 우울증이어서, 또 어떤 독자는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외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3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다.<br/><br/>사례 1 자꾸자꾸 떠오르는 나쁜 생각, 산후 우울증<br/>“<span class='quot0'>정말이지 죽을죄를 짓는 것이지만, 저도 모르게 아이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요.</span>”<br/>32세 A씨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을 터트렸다.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 했다. 매사 의욕이 없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식욕도 없다.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유 없이 남편이 보기 싫고 미웠다. 이런 고통은 한 달 전부터 심해졌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는 그냥 우울한 정도였다. 다들 첫아이 낳으면 그렇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진 것이다. 평소 얌전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드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고 했다.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치료를 결심했다고 한다.<br/>A씨는 산후 우울증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다.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몸속에서 높게 유지되다가 출산 직후 급격히 떨어진다.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변화는 대뇌 신경전달물질의 혼란을 일으켜 기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br/>에스트로겐의 변화는 모든 산모에게 일어난다. 약 80%의 산모가 허전하고 눈물이 쉽게 나며 기분이 처지는 ‘산후 우울 기분 상태(Postpartum Blue)’를 겪게 된다. 실제로 A씨처럼 산후 우울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10%다. 왜 누구는 그저 기분이 조금 처지는 정도인데, 누구는 심각한 우울증 상태가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부터 기분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우울증 병력이 있거나, 임신과 출산의 압박감이 큰 경우에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다. 요즘과 같이 양육 부담이 심한 상황도 산후 우울증, 임신 우울증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다.<br/>산후 우울증의 치료는 복잡한 면이 있다. 수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모유에는 거의 여과 없이 엄마가 복용한 약물과 그 대사물이 축적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수유를 중단하고 약물치료를 했다. 가벼운 우울증이라면 약물 없이 심리 상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가해충동’을 동반한 A씨와 같이 심각한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br/>최근에는 경두개자기자극술(TMS)이라는 치료법으로 심각한 우울증도 약물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다. 항우울증 약물이 체내에 흡수돼 대뇌까지 올라가 화학적인 작용으로 신경전달물질 체계를 정상화한다면, TMS는 뇌의 신경회로에 자기장(자석)으로 자극을 주어 신경전달물질 체계를 정상화한다. 이 치료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효과 면에서도 약물치료에 뒤지지 않는다. 매일 혹은 적어도 이틀에 1회, 3주 이상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으니 약물 부작용도 없고 비교적 신속하고 재발률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혹은 A씨와 같이 수유를 해야 하는 산모에게는 최적의 치료법이다.<br/>TMS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되자 A씨는 미소를 찾았다. 3주 동안의 급성기 치료 코스가 끝났을 때 아직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나 그녀의 삶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된 듯 보였다. 4주째 되는 날, 아이와 함께 방문한 그녀가 활짝 웃었다.<br/>“선생님, 이제는 아이가 밉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미워해요? 이제야 진짜로 엄마가 된 거 같아요.”<br/>아이의 출산은 한 가정의 축복이며 행복이어야 한다. 그러나 산후 우울증은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불행에 빠트리기 쉽다. 배우자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우울증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 고통을 겪기 쉽기 때문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산후 우울증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br/><br/><br/>사례 2 텅 비어 있는 자존감, 심인성 우울증<br/>40대의 B씨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그녀의 고민은 “늘 허전하고 외로우며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2년 전부터 이런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심해졌지만, 생각해보면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명문대학 출신에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며,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에 겨워’ 그런다고 자책할 정도였다.<br/>“<span class='quot0'>사실 돌이켜보면 어릴 적부터 우울증이 있었나 봐요.</span>”<br/>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 권위적인 아버지는 폭군이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에게도 자주 손찌검을 했다. 심성이 여린 어머니는 무서워서 늘 피할 궁리만 했다. 오히려 장녀인 B씨가 엄마를 보호해야 했다. 형제들은 그런 그녀를 걱정해주기는커녕 약삭빠르지 못하다고 비아냥거렸다. 결혼 또한 집에서 탈출하려고 서둘러 식을 올린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해줄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던 남편은 신혼기가 지나가자 급격히 아내에 대한 관심을 접어갔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녀에게 무덤덤하게만 대하는 남편에게 서운함만 쌓여갔고, B씨는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이를 이겨냈다.<br/>그러던 중 2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쳤고 아이들도 걱정돼 지금껏 함께 살고 있지만, 그에 대한 미운 감정은 많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이상하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자신이 못나서 그런 것 같다는 것이다. 남편이 저지른 잘못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분명한데도, 자신이 똑똑하지 못하고 성격이 물러 터져서 이런 불행이 닥쳤다고 믿고 있었다.<br/><br/>B씨는 자존감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성격이 형성되는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 당장 심각한 우울증 증상은 없었기에 심리검사부터 시작했다. 심리검사는 치료 계획을 위한 것인 동시에, 그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돌아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심리검사 결과는 그녀의 자존감 결여를 이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심리검사 결과를 마주한 그녀는 한참을 통곡했다. 그녀에게 소량의 약물과 함께 매주 1~2회 1시간씩의 심리 상담을 권했다. 약물치료로 그녀의 증상은 어느 정도 개선됐고, 심리 상담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좋아졌다. 마침내 4주가 됐을 때, 그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br/>“자존감을 채우려면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심리 상담을 받으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리 상담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br/>자존감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혹은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 자존감은 어릴 적 부모의 사랑에 의해 성장한다. 하지만 그녀는 폭군인 아버지와 연약한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자존감 결여가 심각하면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다. 명품 백도, 큰 집도, 값비싼 보석도 자존감을 대신할 수는 없다.<br/>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지극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고 또 완벽하지 않다. 타인에 의한 자존감의 복구는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할 것인가? 우선은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뒤에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살아가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는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br/><br/><br/>사례 3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갱년기 우울증<br/>50대 주부 C씨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어색한 표정으로 상담을 시작했다.<br/>“제대로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산부인과에 가라 하고, 또 누구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라 하고….”<br/>그녀는 지난가을부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평소 추위를 잘 타서 여름에도 이불이 없으면 못 자는데, 이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도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더워서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다. 갑자기 열이 훅 올라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등에서 땀이 한 바가지 나온다는 것이다.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며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도 생겼다. 또 자신의 감정을 도통 제어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평소 살갑지는 않아도 별 탈 없이 지내왔던 남편이 너무 미워서 톡톡 쏘아붙이기 일쑤였다. 일찍 시집간 딸아이 때문에 50대에 할머니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세상 사는 재미를 알게 해주는 귀염둥이 손녀마저 귀찮아지기도 했다. 걷잡을 수 없이 짜증이 나 스스로 창피할 정도였다. 평소에는 무척 낙천적이라 늘 밝고 남을 웃기기도 잘해서 친구가 끊이질 않았는데 말이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이었다. 마치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한마디로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br/>그녀는 지난달 폐경이 됐다고 한다. 몇 달 전부터 불규칙해진 생리가 마침내 두 달째 소식이 없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비슷한 증상이 한둘이 아니었다. TV나 신문을 보니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았다. 생리 현상이 끊긴 것이니 당연히 산부인과에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br/><br/>갱년기는 난소의 기능이 다해 여성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리 현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안면홍조나 불면 혹은 열감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공연히 슬프고 짜증이 많이 나는 우울증, 초조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불안증, 여기저기 몸이 아프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신체화 증상이 동반된다면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돼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른다.<br/>그냥 참으면 호전되지 않을까? 물론 갱년기 현상은 인간의 노화와 관련된 생리 변화이니 적응이 될 수 있고, 적응만 되면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난 100세 시대인데, 만약 50세 전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된다면 중년 이후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갱년기나 노년기에 생기는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매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br/>C씨에게는 약물 위주의 치료를 시작했다.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신체적으로 원인이 있는데다가, 당장의 불안과 불면증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슬픔과 절망감이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른다고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불안과 불면이 가장 흔한 자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 노인의 경우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약물치료가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2주간의 약물 복용으로 호전을 보이던 C씨는 4주가 되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밝고 유머러스한 중년의 그녀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br/>“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어요. 약 몇 알 먹고 이리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br/>세월이 좋아져서 ‘약 몇 알’에 행복을 찾을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우울증 역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 긍정적인 마음, 규칙적인 생활, 운동과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햇빛을 많이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맺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필요하다. 사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방법은 정신과 육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br/>예방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불행을 만드는 우울증을 얻는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그냥 방치하면 비극이 시작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다. 하루에 4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자살하는 사람 중 80%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어도 우울하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억력과 판단력도 떨어져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떨어져 수면과 식욕의 변화, 무기력감, 소화 장애나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슬프고 우울해진다. 행복은 주관적 감정이다. 심각하든 경미하든 우울증은 불행을 만든다.<br/>C씨의 이야기처럼 요즘은 우울증 치료가 어렵지 않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해야 하고, 질병의 특성상 장기간 유지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80~90%는 완치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병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은 불행을 만들지만 치료가 잘되는 병’임을 이미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편견이다. ‘나를 나약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혹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낙인이 찍힐 거야’라는 편견 말이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강건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요즘의 정신건강의학과는 애인과 다툼을 하고 찾을 정도로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 그리고 치료에 대한 편견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잊지 말기를. ‘행복은 실천’이다.<br/><br/>행복 더하기 The History<br/>참 빠르네요. 벌써 만 6년이 됐다니요. ‘김진세의 인터뷰\_긍정의 힘’이란 제목으로 2009년 1월호를 통해 배우 정보석씨를 만났습니다. 2012년부터는 최광식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시작으로 ‘명사에게 행복을 묻다’라는 타이틀의 인터뷰를, 그리고 2014년 올해에는 ‘행복 디렉터 김진세의 행복 실천’을 내걸고 엄홍길 대장과 함께 눈 덮인 북한산을 오르며 1월을 시작했지요. 모두 일흔두 가지 이야기였지만 주제는 단 하나, ‘행복’이었습니다. ‘긍정의 힘’은 다르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긍정의 힘’의 이론적 배경이 됐던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뿌리는 모두 행복인 셈이지요.<br/>생각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첫 시작을 열어주었던 정보석씨, 두 번이나 만났던 엄홍길 대장과 방송인 김미화씨, 이틀에 걸쳐 두 번의 인터뷰를 한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씨,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까지 챙겨주셨던 이외수 작가, 내가 사랑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전날 막걸리를 많이 마셔서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 ‘꾸뻬씨 시리즈’의 작가 프랑수아 를로르, 녹음기 고장으로 공황에 빠졌던 핸드볼 여제 임오경 감독, 인터뷰 후에 친구가 된 시골 의사 박경철, 넉넉한 웃음의 최불암 선생님, 정말 닮고 싶었던 학자 최재천·김광현 교수님, 동료이자 존경하는 의사인 채정호 박사와 이시형 박사. 이 밖에도 연예, 문화, 체육, 학계, 정치, 언론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은 만나서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br/>인터뷰를 연재하는 동안 애정 어린 소감을 담은 애독자 엽서를 보내주신 독자들 그리고 필자와 6년간을 함께한 담당 기자를 비롯한 편집부 기자들과 사진기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긴 여정을 이어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br/>끝으로 행복을 향한 일흔두 번의 목소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궁금하시지요. 하지만 답은 뻔합니다. ‘행복해지기는 참 어렵고도 쉬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br/>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br/><br/>Profile<br/>행복 디렉터 김진세 박사는…<br/>여자보다 여자 마음을 더 잘 아는 여성 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친 이들을 위한 상담을 하는 한편, ‘행복연구소 해피언스’를 통해 행복 찾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행복 멘토’라 불리고 있다. 본지에 2009년 1월호부터 3년간 ‘김진세의 인터뷰\_ 긍정의 힘’을 진행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행복학 개론’을 통해 명사들의 행복법을 전해왔다. 저서로는 「마흔의 심리학」(공저), 역서 「뜨겁게 사랑하거나 쿨하게 떠나거나」, 「심리학 초콜릿」, 「스타트 신드롬」, 「애티튜드」가 있다. 트위터 @happy\_mentor<br/><br/>“자존감을 채우려면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심리 상담을 받으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리 상담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6.txt

제목: 기부천사 박수관 영창신기술그룹 회장, 고향 주민에 ‘맞춤형 의료봉사’  
날짜: 2014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3010015700784  
본문: ‘기부천사’로 통하는 전남 여수 출신 박수관 영창신기술그룹(YC-TEC)회장(64)이 이번에는 고향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 따뜻한 행보를 했다.<br/><br/>박 회장은 30일 여수 돌산읍 금성리 작금부락 보건지소에서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이·미용 등 동절기를 앞두고 맞춤형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br/><br/>이날 의료봉사활동은 진료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 치료를 위해 부산에서 관련 의료분야 명성을 얻고 있는 윤내과 윤종경 원장 등 의료진 4명과 함께 실시했다.<br/><br/>이번 활동에는 부산에서 ‘초음파 기’와 심장질환 진찰 장비 등을 적접 가져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진료했다.<br/><br/>박 회장은 이날 1차 진료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주민 20여명에 대해 2차 진료까지 무료로 지속하며 주민 건강을 챙겨주기로 했다.<br/><br/>이날 봉사활동에는 여수에서 사랑 한방병원을 열고 있는 박기주 원장 등도 함께 했다.<br/><br/>의료진들은 이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검진과 함께 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침술과 뜸 등으로 치료하는 등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br/><br/>이날 봉사활동에는 박 회장이 지난 2012년 자신의 법명을 따서 꾸린 여수 명진한마음봉사회 회원 50여명도 참여해 주민들에게 맛 있는 떡국을 끓여 대접했다.<br/><br/>섬마을 출신인 박수관 회장은 지난 2012년 명진봉사회 출범 이후 낙도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보건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3년째 맞춤형 의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br/><br/>1차 진료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병한 암 등 각종 주요 질환자를 발견해 2차 진료와 수술비를 지원하며, 섬 주민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br/><br/>섬마을 주민 의료지원 뿐 아니라 1990년대 초반부터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부산과 고향인 여수 주민들에게 명절마다 대형트럭에 사랑의 쌀을 가득싣고 찾고 있다.<br/><br/>자신이 어려서 겪은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며, 통큰 지원활동을 25년재 이어가고 있다. <br/><br/>무료 진료와 사랑의 쌀 전달 외에도 부산과 여수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기금도 쾌척하면서 기업인의 진정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br/><br/>박 회장은 앞서 지난 20일 여수 문예회관에서 여수 주민을 대상으로 ‘작은 나눔,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주제의 교양강연을 하며 고향주민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줬다.<br/><br/>이날 박회장은 ‘무소유’를 실천하다 열반에 든 법정스님과 인연을 소개하며 “<span class='quot0'>나눔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다</span>”고 설파했다. <br/><br/>박수관 회장은 부산에서 (주)YC-TEC을 모기업으로 (주)명신수산과 (주)정산개발 등의 자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YC-TEC 현지 법인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br/><br/>2009년부터는 부산·경남지역 베트남 명예총영직을 맡아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증진과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민간 외교관역할도 맡아하고 있다.<br/><br/>그동안 부산과 여수지역의 다양한 봉사와 사회공헌에 모두 200억원 가량을 쾌척하면서 ‘기부천사’로 통하고 있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7.txt

제목: [새 책]밀레니얼 칠드런 外  
날짜: 2014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9100000016  
본문: ▲ 밀레니얼 칠드런…장은선 | 비룡소<br/>미래의 학교와 ‘비성년자’들 이야기를 그린 청소년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인구가 늘어 아이를 낳으려면 ‘자식세’를 물어야 하는 미래 사회, 세금 낼 능력 없는 부모들은 몰래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버린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모두 ‘학교’라는 기관으로 보내지며 시험 성적에 따라 숙소, 급식 수준 등 모든 게 달라진다. 1만원<br/><br/>▲ 이빨 사냥꾼…조원희 | 이야기꽃<br/>아이가 악몽을 꿨다. 조용한 초원, 코끼리 얼굴을 한 사냥꾼들이 벌거벗은 아이에게 수십발 총을 쏘고 연장을 동원해 아이의 엄니를 뽑아낸다. 뽑힌 엄니는 담배 파이프, 지팡이, 촛대 같은 장식품이 돼 팔린다. 아이의 꿈은 코끼리들에게는 지독한 현실이다. 코끼리는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에게 17분에 한 마리씩 살해된다고 한다. 1만3000원<br/><br/>▲ 원 플러스 원…조조 모예스 | 살림<br/>싱글맘 제스는 열일곱 살에 낳은 수학천재 딸아이와 별거 중인 남편의 아들을 키우며 늘 돈에 쪼들린다. 어느 날 딸의 재능을 알아본 명문학교에서 입학 권유를 해 오자, 제스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금이 큰 수학대회에 딸을 참가시키러 간다. 이 여정에 우연히 젊은 부자 에드가 함께하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지고 여행은 점점 길어진다. 오정아 옮김. 1만5000원<br/><br/>▲ 내 가족의 역사…리쿤우 | 북멘토<br/>현대 중국사를 만화로 재현해 온 저자가 평범한 가족의 일대기를 통해 잊혀지는 전쟁의 기억을 되살린다. 골동품 시장에 간 ‘리’에게 사내가 다가와 대단한 물건이 있다고 귀띔한다. 사내를 따라간 리는 빈민가에서 마지막 유산을 품고 죽어가는 노인을 만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세계 유수 문화제, 도서전에서 수상했다. 김택규 옮김. 1만4000원<br/><br/>▲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이해인 | 마음산책<br/>올해 칠순, 수녀원 입회 50년을 맞은 이해인 수녀의 신작시 100편과 2011~2014년을 꼼꼼히 기록한 일기 100편을 엮었다. 2008년 암 수술 후 겪은 투병의 고통과 외로움에도 작가의 글에는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 사람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바치는 시와 세월호 유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를 기록한 일기도 있다. 1만2500원<br/><br/>▲ 그것도 괜찮겠네…이사카 코타로 | 웅진지식하우스<br/>추리소설 <골든 슬럼버> 작가의 산문집이다. 작가는 새치기한 사람에게도 살살 대하고, 냉장고가 텅 비었어도 자랑스럽게 말한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조용한 도시로 내려가 작가로 살던 10년 동안 쓴 일상 이야기 60여편을 담았다. 남들한테 중요치 않은 일에 크게 신경 쓰고, 안되는 일에도 애쓰는 작가의 착하고 엉뚱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오유리 옮김. 1만3000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8.txt

제목: [새 책]밀레니얼 칠드런 外  
날짜: 2014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810015698139  
본문: <b>▲ 밀레니얼 칠드런…장은선 | 비룡소</b><br/><br/>미래의 학교와 ‘비성년자’들 이야기를 그린 청소년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인구가 늘어 아이를 낳으려면 ‘자식세’를 물어야 하는 미래 사회, 세금 낼 능력 없는 부모들은 몰래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버린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모두 ‘학교’라는 기관으로 보내지며 시험 성적에 따라 숙소, 급식 수준 등 모든 게 달라진다. 1만원<br/><br/><br/><b>▲ 이빨 사냥꾼…조원희 | 이야기꽃</b><br/><br/>아이가 악몽을 꿨다. 조용한 초원, 코끼리 얼굴을 한 사냥꾼들이 벌거벗은 아이에게 수십발 총을 쏘고 연장을 동원해 아이의 엄니를 뽑아낸다. 뽑힌 엄니는 담배 파이프, 지팡이, 촛대 같은 장식품이 돼 팔린다. 아이의 꿈은 코끼리들에게는 지독한 현실이다. 코끼리는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에게 17분에 한 마리씩 살해된다고 한다. 1만3000원<br/><br/><br/><b>▲ 원 플러스 원…조조 모예스 | 살림</b><br/><br/>싱글맘 제스는 열일곱 살에 낳은 수학천재 딸아이와 별거 중인 남편의 아들을 키우며 늘 돈에 쪼들린다. 어느 날 딸의 재능을 알아본 명문학교에서 입학 권유를 해 오자, 제스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금이 큰 수학대회에 딸을 참가시키러 간다. 이 여정에 우연히 젊은 부자 에드가 함께하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지고 여행은 점점 길어진다. 오정아 옮김. 1만5000원<br/><br/><br/><b>▲ 내 가족의 역사…리쿤우 | 북멘토</b><br/><br/>현대 중국사를 만화로 재현해 온 저자가 평범한 가족의 일대기를 통해 잊혀지는 전쟁의 기억을 되살린다. 골동품 시장에 간 ‘리’에게 사내가 다가와 대단한 물건이 있다고 귀띔한다. 사내를 따라간 리는 빈민가에서 마지막 유산을 품고 죽어가는 노인을 만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세계 유수 문화제, 도서전에서 수상했다. 김택규 옮김. 1만4000원<br/><br/><br/><b>▲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이해인 | 마음산책</b><br/><br/>올해 칠순, 수녀원 입회 50년을 맞은 이해인 수녀의 신작시 100편과 2011~2014년을 꼼꼼히 기록한 일기 100편을 엮었다. 2008년 암 수술 후 겪은 투병의 고통과 외로움에도 작가의 글에는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 사람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바치는 시와 세월호 유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를 기록한 일기도 있다. 1만2500원<br/><br/><br/><b>▲ 그것도 괜찮겠네…이사카 코타로 | 웅진지식하우스</b><br/><br/>추리소설 <골든 슬럼버> 작가의 산문집이다. 작가는 새치기한 사람에게도 살살 대하고, 냉장고가 텅 비었어도 자랑스럽게 말한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조용한 도시로 내려가 작가로 살던 10년 동안 쓴 일상 이야기 60여편을 담았다. 남들한테 중요치 않은 일에 크게 신경 쓰고, 안되는 일에도 애쓰는 작가의 착하고 엉뚱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오유리 옮김. 1만3000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09.txt

제목: 서울 10~30대 ‘자살’로 가장 많이 죽었다…40대 이후는 ‘암’  
날짜: 20141127  
기자: 배문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7100000110  
본문: 서울에 사는 젊은층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비만율과 음주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6일 발간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주요 사망원인’ 통계를 통해 지난해 사망자는 총 4만2063명으로 2008년(3만8298명)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은 자살이 가장 많았고, 40대부터는 암이 주된 원인이었다.<br/>지난해 10대 사망자 151명의 사망원인은 자살이 35.1%를 차지했다. 이어 암·운수사고 순이었다. 20대 사망자는 2003년 861명에서 2012년 497명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552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20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자살자가 51.6%인 285명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숨진 30대 1092명 중 자살자는 39.7%인 433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순위였다. 40대 사망자 2456명 중 32%, 50대 5067명 중 40.8%, 60대 6379명 중 48.8%, 70대 이상 사망자 2만6069명 중 25.9%는 암으로 숨졌다.<br/><br/>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8.8세에서 2013년 82.9세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건강 불안은 증가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08년 50.9%에서 2013년 44.5%로 줄었다. 성인 남녀의 비만율도 높아졌다. 남자는 10명 중 3명이 비만상태였다. <br/>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주와 흡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30~40대는 음주율·흡연율·비만율·스트레스 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직장이나 가정 등의 스트레스 때문에’(58.2%), 음주자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해서’(66.6%) 끊기가 어렵다고 답했다.<br/>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저소득층일수록 건강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등 소득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개인의 잘못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0.txt

제목: [출장발명가 노승권의 알면 힘이 되는 생물학]덩치 크면 암에 걸릴 확률 높을까?  
날짜: 20141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6100000050  
본문: 약 40년 전의 일입니다. 막 서른 살을 넘긴 영국의 병리학자인 리처드 페토는 “세포 하나의 암 발병 확률은 이론적으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세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덩치가 큰 동물’이 암에 걸릴 확률도 더 높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포유동물의 세포 크기는 서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몸집이 크면 작은 동물에 비해 세포 수가 많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던 그는 이 가정이 맞는지 곧장 확인해 봤고 그 결과 ‘모든 포유류는 몸집 크기와 상관없이 암에 걸릴 확률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추측이 틀렸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페토의 역설’이라고 합니다.<br/>페토의 역설이 발견되고 나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은 동물은 신진대사가 빨라 ‘활성 산소’를 많이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활성 산소는 암 발생과 관계가 깊다고 의심받는 물질입니다. 작은 동물의 세포들이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큰 동물보다 세포 수는 비록 적지만 암에 걸릴 전체 확률은 비슷하다는 이론입니다. 또 큰 동물들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많이 갖도록 진화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장도 페토의 역설을 속시원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br/>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진화생물학자인 카츠라키스가 “덩치가 클수록 ‘특정 발암성 바이러스’를 잘 억제한다. 그 결과 페토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br/>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DNA에는 염기서열에 쉽게 끼어들고 뛰쳐나오기도 하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섞여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비활성화돼 있지만 가끔 활성화돼 게놈에 드나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암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이를 억지하는 능력이 덩치가 클수록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수백만 년 동안 포유류와 더불어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 게놈의 5~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br/>카츠라키스 연구팀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포유동물 38종을 대상으로 몸집 크기와 지난 1000만년 동안 게놈에 받아들인 바이러스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몸집이 클수록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몸집이 작은 생쥐는 3331개인 반면에 인간은 348개, 돌고래는 55개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습니다.<br/>위의 연구 결과는 크고 오래 사는 동물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수를 제약하는 모종의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음을 암시합니다. 올해 71세가 된 피토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암 억제력을 키운 동물만 덩치가 커졌음이 분명하다. 대단한 성과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큰 동물이 암 억제력을 어떻게 키웠는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고래나 코끼리 같은 큰 동물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많거나 유전자의 효율성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할 뿐입니다.<br/>피토의 역설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큰 동물들은 암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br/>암을 연구하는 유전학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카를로 말리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span class='quot0'>암 예방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참고할 만한 결과다</span>”라고 평했습니다.<br/>페토의 역설이 일어나는 방식이 하루빨리 더욱 정확하게 밝혀져 암 예방과 치료에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1.txt

제목: 서울 10~30대 ‘자살’로 가장 많이 죽었다… 40대 이후는 ‘암’  
날짜: 20141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61001568307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남자 10명 중 3명 ‘비만’… 작년 기대수명 82.9세</strong><!-- SUB\_TITLE\_END--><br/><br/>서울에 사는 젊은층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비만율과 음주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6일 발간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주요 사망원인’ 통계를 통해 지난해 사망자는 총 4만2063명으로 2008년(3만8298명)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은 자살이 가장 많았고, 40대부터는 암이 주된 원인이었다.<br/><br/>지난해 10대 사망자 151명의 사망원인은 자살이 35.1%를 차지했다. 이어 암·운수사고 순이었다. 20대 사망자는 2003년 861명에서 2012년 497명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552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20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자살자가 51.6%인 285명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숨진 30대 1092명 중 자살자는 39.7%인 433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순위였다. 40대 사망자 2456명 중 32%, 50대 5067명 중 40.8%, 60대 6379명 중 48.8%, 70대 이상 사망자 2만6069명 중 25.9%는 암으로 숨졌다.<br/><br/><br/>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8.8세에서 2013년 82.9세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건강 불안은 증가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08년 50.9%에서 2013년 44.5%로 줄었다. 성인 남녀의 비만율도 높아졌다. 남자는 10명 중 3명이 비만상태였다. <br/><br/>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주와 흡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30~40대는 음주율·흡연율·비만율·스트레스 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직장이나 가정 등의 스트레스 때문에’(58.2%), 음주자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해서’(66.6%) 끊기가 어렵다고 답했다.<br/><br/>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저소득층일수록 건강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등 소득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개인의 잘못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2.txt

제목: 서울시 1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날짜: 20141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610015677159  
본문: 서울시민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198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br/><br/>서울시가 26일 발간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주요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는 총 4만2063명으로 2008년(3만8298명)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지난해 사망자 중 31%(1만3028명)가 암으로 사망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알츠하이머병 순이었다.<br/><br/>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은 자살이 가장 많았다. 40대부터는 암이 가장 많았다.<br/><br/><br/><br/><!--img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 width=600><tr><td><!--imgsrc\_start\_1--><img src=http://img.khan.co.kr/news/2014/11/26/l\_2014112601003727200285321.jpg width=600 hspace=1 vspace=1><!--imgsrc\_end\_1--></td></tr><tr><td><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616588><!--cap\_start\_1-->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자살 예방 문구가 적혀 있다. 마포대교 난간에는 자살 시도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시민들이 공모한 이미지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br/>&nbsp;<!--cap\_end\_1--></font></td></tr></table><!--imgtbl\_end\_1--><br/><br/>지난해 10대 사망자 151명의 사망원인은 자살, 암, 운수사고 순이었다. 남자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이 여자보다 2.6배 높았다.<br/><br/>20대 사망자는 2003년 861명에서 2012년 497명까지 줄었으나, 2013년 552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자살률 증가 때문이었다. 20대 사망자 552명 중 51.6%(285명)이 자살을 했다. <br/><br/>30대는 본격적인 사회생활과 함께 음주, 흡연,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시기다.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자살(39.7%)이었으나, 이때부터 암 사망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사망자 수는 2003년 1605명에서 2013년 1092명으로 감소했으며, 자살 사망자는 2011년부터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br/><br/>40대 사망자 2456명 중 32%, 50대 사망자 5067명 중 40.8%, 60대 사망자 6379명 중 48.8%, 70대 이상 사망자 2만6069명 중 25.9%는 암으로 숨졌다. <br/><br/>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8.8세에서 2013년 82.9세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건강 불안은 증가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08년 50.9%에서 2013년 44.5%로 줄었다. 또한 만 13세 이상 서울시민이 앞으로 늘어나야 할 복지서비스 1위로 ‘건강’(38.8%)을 꼽았다.<br/><br/>30~40대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흡연과 고위험 음주, 비만, 스트레스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금주가 어려운 이유 1위는 ‘사회생활에 필요해서’(66.6%), 금연이 어려운 이유 1위는 ‘스트레스 때문’(58.2%)라고 답했다.<br/><br/>서울시는 “<span class='quot0'>최근 우리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명이 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건강한 삶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span>”이라고 밝혔다.<br/><br/><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3.txt

제목: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암세포만 공격  
날짜: 2014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510015668758  
본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br/>최근 암세포만 공격하는 치료법이 공개됐다.<br/>&nbsp;<br/>이 치료법은 지난 15일 제19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가 소개한 ‘다가(多價)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으로, 국내기업인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과 공동임상연구로 진행되고 있다.<br/>&nbsp;<br/>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은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펩타이드(항원)를 찾아내고 추가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지상세포는 암세포의 살상을 담당하는 킬러T세포에게 암세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킬러T세포가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아베종양내과 측의 설명이다.<br/>&nbsp;<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는 우리 몸에 1% 미만, 정맥혈액에는 0.1% 미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량채혈로는 수지상세포 치료를 할 수 없어 임파구만 배양하여 치료하는 수준이었다</span>”고 전했다.<br/>&nbsp;<br/>또한 기존 치료는 성분채혈에 약 5000ml가 필요해 환자의 몸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펩타이드도 1~2종류 정도이고 단쇄(單鎖) 펩타이드라 치료효과도 부족했다. 이외에도 동결보관 후 해빙하여 치료에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결합된 항원이 떨어지고 정맥주사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br/>&nbsp;<br/>아베 박사는 “<span class='quot1'>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 치료법은 정맥혈에 있는 8~11%의 단구를 분리해 활용한 것으로, 약 25ml의 소량채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br/>&nbsp;<br/>즉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후 여러 종류의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를 추가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펩타이드는 장쇄(長鎖)라 항암 작용기간이 길고 암세포의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림프절에 피하주사 방식으로 사용된다.<br/>&nbsp;<br/>학술발표 자리에서 아베 박사는 전이&#8729;재발암 환자에게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적용한 치료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 진행성 폐암환자 22명 중 15명(68.2%), 진행성 대장암환자 32명 중 19명(59.4%), 진행성 췌장암환자 42명 중 18명(42.9%)에서 치료효과가 얻었다고 한다.<br/>&nbsp;<br/>해당 치료는 환자의 수지상세포에 평균 5개의 펩타이드를 추가한 것으로, 사용된 펩타이드는GV1001, MAGE-A3, NY-ESO-1, WT1, MUC1, CEA, CA125, 써바이빈 등이다.<br/>&nbsp;<br/>아베 박사는 끝으로 “<span class='quot1'>같은 사람의 같은 암세포라 해도 표면에 제시된 항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펩타이드와 일치되는 킬러T세포가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결국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의 특징은 치료기술과 개인 맞춤형 항원의 추가사용에 있다</span>”고 덧붙였다.<br/>&nbsp;<br/>다가 신수지상세포는 2014년 7월 특허(특허 제5577472호)를 마친 상태다.<br/>&nbsp;</div>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4.txt

제목: 호스피스 병동 촬영한 다큐 영화 ‘목숨’… 이창재 감독이 말하는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법  
날짜: 2014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5100000096  
본문: 이곳에서 죽음은 일상이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평균 21일 후에 세상과 이별한다. 말기 암 등으로 완치가 어려운 환자가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남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곳, ‘호스피스’ 병동이다. 이창재 감독(47·사진)은 죽음이 일상인 이 공간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 1년 남짓 죽음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달 4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목숨>에는 이 감독이 본 죽음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최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이 감독을 만나 그가 영화를 찍으며 느낀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br/><br/>(1) 수긍하라<br/>예전에 중환자실에서 친구의 임종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는 몸 전체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연결하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작별인사할 시간도 없이 친구를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죠.<br/>이는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현상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도태이자 소멸로서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환자를 치료합니다. <br/>하지만 환자가 죽은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죽음’은 빨리 치워야 하는 것이니까요. 장지로 가는 차들은 대부분 새벽에 출발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그런 차들을 보면 ‘재수없다’는 속설이 있어서죠.<br/>마치 시속 100㎞로 달리는 차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다가 급정지시키듯이 죽음을 대합니다. 급정지시킨 차가 폭발하거나 충돌하면 운전자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다칩니다. 차를 천천히 세우듯,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br/><br/>(2) 삶이 곧 죽음<br/>호스피스 병동에 간 환자들에게 의사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span class='quot0'>많이 편안하게 해드릴까요, 아예 주무시는 것처럼 해드릴까요, 좀 아프지만 깨어있는 시간이 많게 해드릴까요</span>”라고 하죠. 진통제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까 묻는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환자가 정합니다. 환자들이 이 질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br/>삶과 죽음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죽음을 보면 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저와 연배가 비슷한 박수명씨의 죽음이 마치 저의 경험처럼 느껴졌어요.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5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 말자, 가까운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 생활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이와 잘 놀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8살 된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주죠.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많이 한 말도 ‘내 삶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br/><br/>(3) 의미를 묻자<br/>저는 죽음이 누군가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이가 죽으면 가장 먼저 슬프고 또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는 ‘왜’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죠. <br/>얼마 전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우리에게 온몸으로 질문을 하고 갔어요. 그가 죽은 과정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말하는 겁니다. <br/>신해철씨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는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같은 생각을 했잖아요.<br/>어떤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큰 질문이라 생각하면서 계속 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외면하면 안됩니다. 덮어버리려고 해서도 안되고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사회도 성숙하게 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5.txt

제목: 한국 여의학자 리더 ‘여의열전’ 발간…저자 박효순 경향신문 기자  
날짜: 2014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410015665067  
본문: 한국 의료계를 이끄는 여자 의학자들을 소개한 <여의열전(女醫列傳)>(경향신문, 336쪽·1만 8000원)이 발간됐다. 교육·연구·진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여성 의학자들을 소개한 책이다.<br/><br/>이 책에 소개된 여자 의학자들은 대학병원의 원장과 의료원장을 비롯해, 의대 학장, 원로 여교수, 병원홍보 전문가 등 46명이다. <여의열전>에 소개된 이들은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남성들과 당당히 경쟁했으며, 의학발전을 위해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뛰었다. 천부적인 자질, 각고의 노력과 인내, 새로운 도전과 열정이 그들의 성공시대를 빚어낸 원동력이다.<br/><br/>이 책은 박효순 경향신문 건강의료 전문기자가 1년이 넘게 전국을 발로 누비며 인터뷰를 통해 취재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업적이나 의학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휴머니즘과 여의사의 더 큰 가능성을 조명했다. 그는 “이제 여의사들은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중심”이라며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한국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고 밝혔다.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에 등장하는 46인의 여의학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자, 개척자, 선구자, 신기원, 베테랑, 차세대 주자, 희망봉, 산파역, 대모, 글로벌 리더 등으로 손꼽히고 있다.<br/><br/>1부에서는 소아수술(3만건), 방사선 암치료, 심장초음파, 유방암 수술, 자궁근종 치료, 소아알레르기, 부인암 수술, 고난도 태아치료, 성형안과, 류머티즘 분야를 소개했다. 2부는 항암 약물치료, 시력재활, 희소 근육병 치료, 혈액·세포진단, 알레르기 연구, 소아사시 수술, 만성콩팥병 및 장기이식, 치료내시경, 신생아 감염 분야에 대해 조명했다. 3부는 소아신장, 간이식, 이석정복술, 백신 연구개발, 눈 황반질환, 족부·족관절, ADHD, 갑상선 병리진단, 난치성 여드름 분야다. 4부에는 쌍태아 자연분만, 간경화 줄기세포치료, 배뇨장애·요실금, 이명·난청, 골관절염, 로봇재활치료, 운동이상질환 뇌수술, 심장중재시술, 통증치료에 대한 것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5부에서는 맞춤 암치료, 유방영상진단, 초미숙아, 면역학 및 이종이식, 병원 경영, 노화방지, 뇌종양 수술, 생활습관의학, 갑상샘암 분야를 다뤘다.<br/><br/>한편 <여의열전>은 소개된 여의학자들이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질환의 건강 및 의학정보 46가지도 같이 수록했다. 각각의 교수에 대한 해당 병원장 등의 짧은 글 인물평이 눈길을 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6.txt

제목: [깐깐한 Mr.심의 피부돌직구]겨울철 자외선차단제는 필수?  
날짜: 2014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4100000011  
본문: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관하기 위해 독일로 가는 출장길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120여년 전 세계 최초로 크림 제형을 개발한 유세린의 연구소가 자리 잡은, 기초 화장품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독일. 그들은 과연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지 궁금했다.<br/><br/>내심 ‘무언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달리 아주 심플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침에 쓰는 기초 화장품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2개만 쓴다는 것이다.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아이크림 등 수많은 기초 화장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과 아주 달랐다.<br/><br/>그럼 자외선차단제는 어떨까? 흐린 날이 대부분인 겨울철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여름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때도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근면, 성실, 정직, 모범 시민들의 나라 독일답게 정말 화장품을 정확히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다.<br/><br/>사시사철, 집에 있을 때도, 사무실 안에서도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우리의 사용 습관과는 사뭇 달랐다. 겨울철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부분의 자외선차단제는 UVB(자외선B)를 차단하는 제품이다. 추위로 인해 바깥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손과 얼굴밖에 없는데 그나마 얼굴을 자외선 차단제로 도배를 하면 비타민D를 합성하는 UVB를 대부분 차단하게 되어, 각종 암과 성인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비타민D의 결핍’을 가져올 수 있다.<br/><br/>실제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비타민D의 적정 농도는 30~100ng/㎖인데 한국인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비타민D의 최소 적정 농도가 30ng/㎖를 넘지 못한다. 즉 자외선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자외선 차단제의 남용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비타민D 결핍을 겪고 있는 것이다. <br/><br/>이렇듯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UVB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백해무익한 일이다. 그런데 UVA(자외선A)는 다르다고 한다. UVA는 UVB와는 달리 10%가량이 오존층에 흡수되고 90%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되는데 유리창·커튼까지 통과해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우리의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피부 노화를 진행시킨다고 하기에 우리는 겨울철에도 자외선A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br/><br/>하지만 한국기상청 관측자 료에 의하면 UVA의 월별 복사량은 5~6월에 최대이며 겨울철에는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정도의 적은 UVA의 양이 피부에 광노화를 초래할 수준일까? 한국인의 피부는 자외선A의 양이 증가해 피부에 손상을 줄 정도가 되면 자체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생성해 자외선 차단막을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여름철에 피부가 까맣게 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겨울철 자외선A의 양이 피부에 손상을 줄 정도의 양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기상청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자외선 지수가 3을 넘지 않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기상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겨울철의 자외선 지수는 3을 넘지 않는다. <br/><br/>따라서 한국의 겨울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점심시간에 바깥으로 나가 햇빛을 쬐어 평소에 부족했던 비타민D를 조금이라도 생성하게 해 주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7.txt

제목: 호스피스 병동 촬영한 다큐 영화 ‘목숨’… 이창재 감독이 말하는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법  
날짜: 2014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410015665532  
본문: 이곳에서 죽음은 일상이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평균 21일 후에 세상과 이별한다. 말기 암 등으로 완치가 어려운 환자가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남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곳, ‘호스피스’ 병동이다. 이창재 감독(47·사진)은 죽음이 일상인 이 공간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 1년 남짓 죽음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달 4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목숨>에는 이 감독이 본 죽음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최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이 감독을 만나 그가 영화를 찍으며 느낀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br/><br/><br/><b>(1) 수긍하라</b><br/>예전에 중환자실에서 친구의 임종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는 몸 전체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연결하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작별인사할 시간도 없이 친구를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죠.<br/><br/>이는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현상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도태이자 소멸로서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환자를 치료합니다. <br/><br/>하지만 환자가 죽은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죽음’은 빨리 치워야 하는 것이니까요. 장지로 가는 차들은 대부분 새벽에 출발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그런 차들을 보면 ‘재수없다’는 속설이 있어서죠.<br/><br/>마치 시속 100㎞로 달리는 차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다가 급정지시키듯이 죽음을 대합니다. 급정지시킨 차가 폭발하거나 충돌하면 운전자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다칩니다. 차를 천천히 세우듯,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br/><br/><br/><b>(2) 삶이 곧 죽음</b><br/><br/>호스피스 병동에 간 환자들에게 의사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span class='quot0'>많이 편안하게 해드릴까요, 아예 주무시는 것처럼 해드릴까요, 좀 아프지만 깨어있는 시간이 많게 해드릴까요</span>”라고 하죠. 진통제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까 묻는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환자가 정합니다. 환자들이 이 질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br/><br/>삶과 죽음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죽음을 보면 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저와 연배가 비슷한 박수명씨의 죽음이 마치 저의 경험처럼 느껴졌어요.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5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 말자, 가까운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 생활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이와 잘 놀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8살 된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주죠.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많이 한 말도 ‘내 삶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br/><br/><br/><b>(3) 의미를 묻자</b><br/><br/>저는 죽음이 누군가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이가 죽으면 가장 먼저 슬프고 또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는 ‘왜’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죠. <br/><br/>얼마 전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우리에게 온몸으로 질문을 하고 갔어요. 그가 죽은 과정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말하는 겁니다. <br/><br/>신해철씨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는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같은 생각을 했잖아요.<br/><br/>어떤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큰 질문이라 생각하면서 계속 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외면하면 안됩니다. 덮어버리려고 해서도 안되고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사회도 성숙하게 됩니다.<br/><br/><글 이혜인·사진 김정근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8.txt

제목: [이건의 소방이야기]⑫여러분의 소방대원은 안전하십니까?  
날짜: 2014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310015656782  
본문: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세계 최강국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된 국가 중에서 가장 화재에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 받는다.<br/><br/>미국방화협회(NFPA)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124만건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240명이며, 1만5925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br/><br/>이렇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소방대원들은 25초 마다 출동하고 있다. 출동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방대원은 그 만큼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순직하는 소방대원의 수는 평균 100여명에 이른다.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1순위로 여긴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기 이전에 소방대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br/><br/>미연방소방국(USFA)을 비롯한 정부기구들과 미국방화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소방대원의 안전을 연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br/><br/>다양성에 기초를 둔 미국소방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운영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br/><br/>해마다 대한민국에서도 평균 8명의 소방관이 순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원이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의 안전이 중요하다.<br/><br/>겨울이 다가오면서 화재와 각종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사람들이 ‘재난의 골든타임’을 잘못 해석해서 소방관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빠른 출동과 빠른 화재진압만을 강조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계획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고스란히 현장을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몫이 된다.<br/><br/>이밖에도 소방관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소방서 내부에도 많이 있다. 소방관들의 안전과 보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소방서 청사 설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br/><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단체인 국제 암 연구기구(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소방차에서 배출하는 경유엔진 배기가스(Diesel Engine Exhaust)가 소방관의 암을 유발하는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환경청(EPA), 미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 미국방화협회 등도 소방차 배기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br/><br/>이로 인해 미국 소방관 암 예방협회(The Fire Fighter Cancer Foundation)와 일선 소방서는 암을 유발하는 배기가스의 위험성으로부터 소방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대원이 거주하는 숙소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차 배기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다.<br/><br/>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소방서 차고 바로 옆에 안전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차 시동점검시 소방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가 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br/><br/>또한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미 연방 산업안전보건청에서는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의 수치가 85㏈ 이상이면 소방대원의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br/><br/>이 외에도 소방서 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주인 소방서장은 종사원인 소방대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복만을 위한 전용세탁기를 독립된 공간에 비치해 소방서에 복귀한 뒤에도 2차 감염에 따른 예방조치까지도 실시하고 있다.<br/><br/>이 모든 것이 소방서의 주인인 소방대원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br/><br/>미국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중심에는 안전담당관(Safety Officer)의 역할이 매우 크다. 안전담당관의 직무는 소방서 청사 안전점검, 소방대원의 예방접종과 감염기록 관리, 현장안전, 각종 안전사고보고서 작성, 소방서 안전위원회 운영, 개인보호장구 청소와 청결상태 점검 등이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 바뀐 안전기준과 규정을 연구하고 소방대원을 교육하는 업무를 한다. 이 모든 업무의 든든한 후원자는 바로 소방서장이다.<br/><br/>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방의 선진화를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시스템을 미국이나 혹은 유럽으로부터 도입해서 이를 ‘소방의 글로벌화’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소방의 선진화는 대한민국 소방관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휴식을 취하고 훈련을 받고 출동대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소방관들은 소방 본연의 임무인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방관이 소방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방의 선진화라는 말이다. 지금 여러분의 소방대원은 얼마나 안전하십니까?<br/><br/><이 건 |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19.txt

제목: [저자와의 대화]‘식물의 인문학’ 펴낸 박중환씨  
날짜: 20141122  
기자: 정원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2100000026  
본문: <식물의 인문학>(한길사)은 식물과 인간의 만남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를테면 나물비빔밥을 먹으면 졸음이 오는 이유는 식물이 자기 보호를 위해 품고 있는 약리성분 때문이라는 것,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피톤치드 같은 2차대사 산물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는 것, 가난했던 북유럽에 감자가 유입돼 식량이 풍부해지고 인구가 늘면서 유럽 권력의 판도가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변했다는 등의 이야기다. 정치·경제·비즈니스·문학·음악·영화·의학·역사 등에서 찾은 식물 관련 이야기들이 1장 ‘꽃’, 2장 ‘잎’, 3장 ‘열매’ 등에 빼곡하게 박혀 있다.<br/>저자 박중환씨(64)는 마지막 장 ‘뿌리’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사막 녹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 쓴 책입니다. 식물 이야기는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쓴 거예요.”<br/><br/>그는 부산일보에서 13년, 시사저널에서 8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 시사저널이 파산한 다음의 일이다. 그는 21년 기자생활을 접고 고향 진주로 내려갔다. 경상대 원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형의 연구실은 녹색천지였다. 형과의 대화를 통해 ‘식물도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감에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 꽃대를 올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홀린 듯 들은 그는 다음날부터 식물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식물세계에도 권력이 있었고 경제와 경영이 있었다. 1999년에는 원예회사를 차리고 농사꾼이자 사업가로 변모했다.<br/>박씨는 “숲이 사라지면 문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4대 문명이 몰락한 이유도 거대한 도시와 신전을 짓느라 숲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가 보기에 지금 지구는 ‘말기 암환자’다. 현재 지구의 35%가 사막인데 2000년 전부터 사막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37%, 아프리카의 32%가 사막이거나 사막화 지대다. 매년 남한의 절반이 넘는 면적인 600만㏊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사막화로 7억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또 다른 11억명이 식량난으로 죽거나 고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자원을 놓고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br/><br/>박씨는 2006년 사업차 내몽골을 다녀온 일을 계기로 사막화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몽골은 1900년대까지만 해도 초원과 삼림이 많았어요. 지금은 국토의 70%가 사막이거나 사막화 지대입니다. 해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황사는 네이멍구 고원과 고비사막, 중국 북서쪽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 고작 폭이 10~30m에 불과한 녹지대를 조성해놓고 황사 바람을 막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막을 녹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br/>사막 녹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심은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막 구릉지의 대부분은 지하에 지층수를 품고 있다. 이런 곳에 관정을 박고 급수관을 깐 뒤 태양광발전을 이용해 물을 대면 반경 1㎞ 이상의 사막을 숲으로 바꿀 수 있다. “나무를 심고 3년만 잘 보살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식물이 스스로 자랍니다. 6년이 지나면 숲다운 모습을 갖추게 돼요. 식물의 위대한 생명력 덕분이죠.”<br/>사막 녹화는 단순히 황사 예방 차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지구 북반부를 마치 허리띠처럼 두르고 있는 ‘사막 벨트’는 북극권의 영구동토대를 녹이는 화덕이다. 사막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성장을 이룬다는 녹색성장은 허구</span>”라고 말했다. “<기후 커넥션>을 쓴 앨라배마대학 수석연구원인 로이 스펜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대기 중 수증기를 늘려야 합니다. 이는 사막 녹화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0.txt

제목: [우리 산의 인문학](21) 호랑이산의 생활사  
날짜: 2014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2100000015  
본문: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 속담이 있듯 호랑이는 한국인들의 생활사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맹수다.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와 고조선 건국신화에서부터 호랑이가 등장하니 우리와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 호랑이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궁궐이든 마을이든 전국 어디나 출몰해 호환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곶감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고양이처럼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한 ‘까치호랑이’ 민화를 보면 서민들이 얼마나 호랑이를 친근하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다. 호랑이는 지킴이기도 했다. 맹호도나 호랑이발톱노리개 등은 병과 액운을 쫓는 기능으로 민간에서 쓰였다. 호랑이는 물리쳐야 할 대상이면서 사람을 수호하는 신성을 띠기도 했던 것이다.<br/><br/>■ 호랑이는 친근하면서도 두려운 대상<br/>산신도에서 산신은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다. 호랑이를 산신으로 섬긴 토템의 흔적이다. 호랑이는 두렵고 사나운 상징이기에 예부터 신앙의 대상이었다. “<span class='quot0'>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섬긴다.</span>” <후한서> 동이전의 기록이다. 호랑이 신앙은 늦어도 고조선시대의 내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백과사전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서술로 보아 당시까지 호랑이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음도 확인된다. 민간에서는 산신을 호랑이와 동일시했기에, 호랑이를 산신령 혹은 산왕대신(山王大神)으로 불렀다.<br/>호랑이산신을 섬기게 된 데에는 전래의 화전생활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전은 고대적 농경방식이지만, “<span class='quot1'>조선후기까지도 그 규모가 평전(平田)과 비슷했다</span>”(<경세유표>)고 정약용이 말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화전을 해서 먹고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산간에 화전을 일구는 경우도 흔했다. 화전민들이 호랑이에게 입은 피해는 극심했던 것 같다. 호식총(虎食塚)이라는 독특한 장묘 풍습이 그 생활사의 흔적이다. 호랑이에게 당한 유해는 화장하여 그 자리에 돌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시루를 엎어놓고 쇠젓가락을 꼽는다. 호식총의 분포는 전국적이나 백두대간의 태백산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br/>산촌 사람들이 호랑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옥에 설치하는 호망(虎網)도 있었다. 굵은 밧줄로 망을 엮어 서까래에서 마당으로 늘어뜨려 그물을 치는 것이다. 또 산멕이라는 호환방지 신앙의례도 영동지역에 있었다.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서 지내는 일종의 산신제다. 산멕이라는 말이 흥미롭다. 살아 있는 존재처럼 산에게 음식을 먹인다는 것이다. 음식을 대접하는 대상은 산신 혹은 호랑이였다. 강원 삼척의 일부 지역에서는 백호를 서낭신으로 모시기도 했다.<br/>■ 화전생활 문화사에서 이어진 ‘신격화’<br/>화등잔처럼 커다란 눈을 부라리고 있는 김홍도의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를 보면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사실적이다. 호랑이의 두려운 이미지는 산에도 투영되었다. 호랑이의 기세처럼 사나운 모습으로 바위가 곤두서 있는 돌투성이 산이나 호랑이가 쭈그려 앉아 있는 모양새의 산에는 호랑이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명으로는 호산, 호암산, 임호산 등 다양한 명칭들이 나온다. 경북 청도 대천리와 순지리에 걸쳐 있는 호산(해발 314m)은 형상이 호랑이 머리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전남 영암 신북면과 나주 반남면 경계에 위치한 호산(156m)도 같은 이름이다. 바위산으로 호암산(虎巖山)은 서울 시흥, 경기 이천, 충남 부여, 전남 여수, 북한의 평강 등에 있다. 임호산(林虎山)은 경남 김해에 읍내를 마주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 용호산(龍虎山)은 경남 통영과 경기 연천에 있다. 그 밖에도 호랑이산은 숱하게 많다.<br/>이웃 중국과 일본에도 호랑이산이 있을까? 중국 강서성에 있는 용호산이 유명하다. 남쪽 봉우리는 용처럼, 북쪽 봉우리는 호랑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산의 경치가 신비스러워 도교의 성지가 되었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었다. 그래서 호랑이산으로 비유되는 산은 있지만 우리처럼 생활사에 다가와 있는 산은 아니다.<br/>풍수가 우리 땅에 적용되면서 호랑이산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고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풍수는 몰라도 좌청룡 우백호는 알고 있다. 그 우백호가 호랑이다. 명당터에서 바라보는 오른편 산을 백호라고 한다. 한양의 우백호는 인왕산이다. “<span class='quot0'>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span>”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왕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태종 10년(1405) 7월25일, “밤에 호랑이가 근정전 뜰에 들어왔다”. 왕조실록 기록이다. 풍수에서 백호는 명당터를 보고 순하게 쭈그려 앉은 모양새가 좋다고 보았고, 왼편의 청룡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거나 높으면 좋지 않다고 해석했다. 왜 백호일까? 원래 백호는 동아시아 천문도에서 서쪽을 관장하는 별자리로, 사신(四神)의 하나였다. 장소지킴이의 수호별이었다. 별 백호가 풍수사상과 결합하여 산 백호로 확장된 것이다.<br/><br/>■ 풍수에 호랑이산…‘명당터’의 상징으로<br/>전형적인 풍수 명당의 하나로 호랑이 형국도 생겨났다.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형국(맹호출림형)’이 대표적이다. 경기 이천 백사면에 호암산이라고 있다. 능선에 호랑이 형상으로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으로 인해 예로부터 명인이 많이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혈을 자르려고 말뚝을 박고, 호랑이 눈 부위의 돌을 뽑아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명인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 어디나 있는 단맥(斷脈) 설화다. 그 호암산에는 호암사(虎巖寺)라는 옛 절이 있었다.<br/>가뜩이나 호랑이가 무서운 판에 호랑이처럼 사나운 산이 있어 위협적으로 보일 때는 제압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는 호압사(虎壓寺)라는 재미난 이름의 절이 있다. 호랑이를 제압하는 절이라는 뜻이다. 왜 이런 절이 세워졌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련 기록이 있다. “호암산은 우뚝한 형세가 범이 가는 것 같고, 또 험하고 위태한 바위가 있는데 호암이라 부른다. 북쪽에 궁교(弓橋)와 사자암(獅子庵)이 있는데 모두 범이 가는 듯한 산세를 누르려는 것이다.” <시흥군읍지>(1899)에는 동화 같은 돌개(石狗) 이야기도 나온다. “산이 호랑이가 걸터앉은 듯하다. 한양에 도읍을 정했을 때 돌로 만든 개 4마리로 지키도록 했다.” <br/>조선 건국 초의 일이었다. 태조는 만년의 사직을 위해 궁궐을 짓는데 이상하게도 허물어져 내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목수들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물었다. 대답인즉 밤마다 호랑이가 달려드는 꿈에 시달리는데, 반은 호랑이고 반은 형체도 알 수 없는 괴물이 궁궐을 부순다는 것이었다. 고민하던 어느 날 홀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났다. “<span class='quot0'>저기 한강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보시오.</span>” 호암산이었다. 이성계는 비로소 궁궐이 무너져 내린 까닭을 알아차렸다. 즉시 저 산봉우리의 기세를 누를 방도를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호랑이는 본시 꼬리를 밟히면 꼼짝하지 못하는 짐승이오. 그 꼬리 부분에 절을 지으면 만사가 순조로우리라” 하고는 사라졌다. 놀라 잠을 깬 이성계는 당장 그곳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호압사이고 노인은 무학대사란다.<br/>호압사는 호암산의 꼬리 부분을 마주하고 입지했다. 사자암도 현재 상도동에 있다. 사자로 호랑이를 경계하려는 뜻이다. 활의 역할을 하는 궁교도, 호암산에 남아 있는 돌개도 호랑이산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호암산에 대한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김해의 임호산(179m)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다. 산이 고을을 바라보며 앉은 호랑이 모습을 하였다. 김해 사람들은 호랑이산의 기운이 고을에 해나 끼치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다. 어떻게 방비했을까? 절을 들여세웠다. 그것도 호랑이 아가리 부위에다. 부처님의 위력과 자비로 산호랑이가 다스려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함께. 지금도 흥부암(興府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br/>■ 민속놀이·풍수·설화 곳곳 호랑이와 결합<br/>호랑이산으로 인한 민속놀이도 생겨났다. 전남 영암 도포리의 도포제 줄다리기다. 150여년의 내력이 있는데 음력 정월 5일과 칠월 칠석에 행해진다. 유래가 재미있다. 마을 주위로 서쪽은 사자산, 북쪽은 호산(虎山)이 있는데 마을산은 돼지산이고 마을터는 돼지형국이란다. 맹수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안한 입지 형세인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을까? 돼지산에 천제단을 모시고 하늘제사를 올린 뒤 무사가 호랑이산과 사자산을 겨냥해 화살을 쏘는 주술 의식을 한다. 이어서 줄다리기를 한다.<br/>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와 호랑이산은 풍수, 민속, 종교, 설화, 놀이와 의례 등과 결합된 복합적인 문화코드의 생활사였다. 근대에는 국토 모양을 호랑이로 본 일도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때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郞)가 한반도의 형상을 토끼로 비유하자 최남선이 발끈하여 호랑이지도로 그렸다. “<span class='quot0'>무한한 포부와 용기로써 아시아 대륙과 세계에 웅비하려는 맹호</span>”라고 했다. 호랑이산 코드가 호랑이한반도로 버전업된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1.txt

제목: [건강 단신]당뇨 극복 ‘위풍당당 걷기대회’ 外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1100000071  
본문: ■ 당뇨 극복 ‘위풍당당 걷기대회’<br/>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센터(센터장 안규정 교수)는 오는 29일 오전 8시30분부터 당뇨 극복을 위한 ‘제7회 위풍당당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3개 강연을 듣고 병원 인근 일자산을 1시간가량 걸은 뒤 혈당측정 및 시상식을 갖는다. 100명을 미리 접수하며 참가비(3000원)는 이웃돕기에 쓰인다. (02)440-7058<br/>■ ‘암 다시 안 걸리기’ 건강강좌<br/>서울대 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21일 오후 4시 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 다시는 걸리지 않기’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사전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다. (02)2072-0077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2.txt

제목: [저자와의 대화]‘식물의 인문학’ 펴낸 박중환씨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11001565270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숲이 사라지면 문명도 없다… 숲 조성해 사막녹화 절실”</strong><!-- SUB\_TITLE\_END--><br/><br/><식물의 인문학>(한길사)은 식물과 인간의 만남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를테면 나물비빔밥을 먹으면 졸음이 오는 이유는 식물이 자기 보호를 위해 품고 있는 약리성분 때문이라는 것,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피톤치드 같은 2차대사 산물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는 것, 가난했던 북유럽에 감자가 유입돼 식량이 풍부해지고 인구가 늘면서 유럽 권력의 판도가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변했다는 등의 이야기다. 정치·경제·비즈니스·문학·음악·영화·의학·역사 등에서 찾은 식물 관련 이야기들이 1장 ‘꽃’, 2장 ‘잎’, 3장 ‘열매’ 등에 빼곡하게 박혀 있다.<br/><br/>저자 박중환씨(64)는 마지막 장 ‘뿌리’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사막 녹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 쓴 책입니다. 식물 이야기는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쓴 거예요.”<br/><br/><br/>그는 부산일보에서 13년, 시사저널에서 8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 시사저널이 파산한 다음의 일이다. 그는 21년 기자생활을 접고 고향 진주로 내려갔다. 경상대 원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형의 연구실은 녹색천지였다. 형과의 대화를 통해 ‘식물도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감에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 꽃대를 올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홀린 듯 들은 그는 다음날부터 식물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식물세계에도 권력이 있었고 경제와 경영이 있었다. 1999년에는 원예회사를 차리고 농사꾼이자 사업가로 변모했다.<br/><br/>박씨는 “숲이 사라지면 문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4대 문명이 몰락한 이유도 거대한 도시와 신전을 짓느라 숲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가 보기에 지금 지구는 ‘말기 암환자’다. 현재 지구의 35%가 사막인데 2000년 전부터 사막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37%, 아프리카의 32%가 사막이거나 사막화 지대다. 매년 남한의 절반이 넘는 면적인 600만㏊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사막화로 7억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또 다른 11억명이 식량난으로 죽거나 고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자원을 놓고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br/><br/><br/>박씨는 2006년 사업차 내몽골을 다녀온 일을 계기로 사막화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몽골은 1900년대까지만 해도 초원과 삼림이 많았어요. 지금은 국토의 70%가 사막이거나 사막화 지대입니다. 해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황사는 네이멍구 고원과 고비사막, 중국 북서쪽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 고작 폭이 10~30m에 불과한 녹지대를 조성해놓고 황사 바람을 막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막을 녹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br/><br/>사막 녹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심은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막 구릉지의 대부분은 지하에 지층수를 품고 있다. 이런 곳에 관정을 박고 급수관을 깐 뒤 태양광발전을 이용해 물을 대면 반경 1㎞ 이상의 사막을 숲으로 바꿀 수 있다. “나무를 심고 3년만 잘 보살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식물이 스스로 자랍니다. 6년이 지나면 숲다운 모습을 갖추게 돼요. 식물의 위대한 생명력 덕분이죠.”<br/><br/>사막 녹화는 단순히 황사 예방 차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지구 북반부를 마치 허리띠처럼 두르고 있는 ‘사막 벨트’는 북극권의 영구동토대를 녹이는 화덕이다. 사막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성장을 이룬다는 녹색성장은 허구</span>”라고 말했다. “<기후 커넥션>을 쓴 앨라배마대학 수석연구원인 로이 스펜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대기 중 수증기를 늘려야 합니다. 이는 사막 녹화의 유일한 대안입니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3.txt

제목: [우리 산의 인문학](21) 호랑이산의 생활사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2110015652682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이 땅서 사라진 호랑이… 우리 삶엔 살아있다</strong><!-- SUB\_TITLE\_END--><br/><br/>“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 속담이 있듯 호랑이는 한국인들의 생활사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맹수다.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와 고조선 건국신화에서부터 호랑이가 등장하니 우리와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 호랑이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궁궐이든 마을이든 전국 어디나 출몰해 호환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곶감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고양이처럼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한 ‘까치호랑이’ 민화를 보면 서민들이 얼마나 호랑이를 친근하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다. 호랑이는 지킴이기도 했다. 맹호도나 호랑이발톱노리개 등은 병과 액운을 쫓는 기능으로 민간에서 쓰였다. 호랑이는 물리쳐야 할 대상이면서 사람을 수호하는 신성을 띠기도 했던 것이다.<br/><br/><br/><b>■ 호랑이는 친근하면서도 두려운 대상</b><br/><br/>산신도에서 산신은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다. 호랑이를 산신으로 섬긴 토템의 흔적이다. 호랑이는 두렵고 사나운 상징이기에 예부터 신앙의 대상이었다. “<span class='quot0'>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섬긴다.</span>” <후한서> 동이전의 기록이다. 호랑이 신앙은 늦어도 고조선시대의 내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백과사전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서술로 보아 당시까지 호랑이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음도 확인된다. 민간에서는 산신을 호랑이와 동일시했기에, 호랑이를 산신령 혹은 산왕대신(山王大神)으로 불렀다.<br/><br/>호랑이산신을 섬기게 된 데에는 전래의 화전생활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전은 고대적 농경방식이지만, “<span class='quot1'>조선후기까지도 그 규모가 평전(平田)과 비슷했다</span>”(<경세유표>)고 정약용이 말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화전을 해서 먹고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산간에 화전을 일구는 경우도 흔했다. 화전민들이 호랑이에게 입은 피해는 극심했던 것 같다. 호식총(虎食塚)이라는 독특한 장묘 풍습이 그 생활사의 흔적이다. 호랑이에게 당한 유해는 화장하여 그 자리에 돌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시루를 엎어놓고 쇠젓가락을 꼽는다. 호식총의 분포는 전국적이나 백두대간의 태백산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br/><br/>산촌 사람들이 호랑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옥에 설치하는 호망(虎網)도 있었다. 굵은 밧줄로 망을 엮어 서까래에서 마당으로 늘어뜨려 그물을 치는 것이다. 또 산멕이라는 호환방지 신앙의례도 영동지역에 있었다.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서 지내는 일종의 산신제다. 산멕이라는 말이 흥미롭다. 살아 있는 존재처럼 산에게 음식을 먹인다는 것이다. 음식을 대접하는 대상은 산신 혹은 호랑이였다. 강원 삼척의 일부 지역에서는 백호를 서낭신으로 모시기도 했다.<br/><br/><b>■ 화전생활 문화사에서 이어진 ‘신격화’</b><br/><br/>화등잔처럼 커다란 눈을 부라리고 있는 김홍도의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를 보면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사실적이다. 호랑이의 두려운 이미지는 산에도 투영되었다. 호랑이의 기세처럼 사나운 모습으로 바위가 곤두서 있는 돌투성이 산이나 호랑이가 쭈그려 앉아 있는 모양새의 산에는 호랑이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명으로는 호산, 호암산, 임호산 등 다양한 명칭들이 나온다. 경북 청도 대천리와 순지리에 걸쳐 있는 호산(해발 314m)은 형상이 호랑이 머리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전남 영암 신북면과 나주 반남면 경계에 위치한 호산(156m)도 같은 이름이다. 바위산으로 호암산(虎巖山)은 서울 시흥, 경기 이천, 충남 부여, 전남 여수, 북한의 평강 등에 있다. 임호산(林虎山)은 경남 김해에 읍내를 마주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 용호산(龍虎山)은 경남 통영과 경기 연천에 있다. 그 밖에도 호랑이산은 숱하게 많다.<br/><br/>이웃 중국과 일본에도 호랑이산이 있을까? 중국 강서성에 있는 용호산이 유명하다. 남쪽 봉우리는 용처럼, 북쪽 봉우리는 호랑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산의 경치가 신비스러워 도교의 성지가 되었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었다. 그래서 호랑이산으로 비유되는 산은 있지만 우리처럼 생활사에 다가와 있는 산은 아니다.<br/><br/>풍수가 우리 땅에 적용되면서 호랑이산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고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풍수는 몰라도 좌청룡 우백호는 알고 있다. 그 우백호가 호랑이다. 명당터에서 바라보는 오른편 산을 백호라고 한다. 한양의 우백호는 인왕산이다. “<span class='quot0'>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span>”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왕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태종 10년(1405) 7월25일, “밤에 호랑이가 근정전 뜰에 들어왔다”. 왕조실록 기록이다. 풍수에서 백호는 명당터를 보고 순하게 쭈그려 앉은 모양새가 좋다고 보았고, 왼편의 청룡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거나 높으면 좋지 않다고 해석했다. 왜 백호일까? 원래 백호는 동아시아 천문도에서 서쪽을 관장하는 별자리로, 사신(四神)의 하나였다. 장소지킴이의 수호별이었다. 별 백호가 풍수사상과 결합하여 산 백호로 확장된 것이다.<br/><br/><br/><b>■ 풍수에 호랑이산…‘명당터’의 상징으로</b><br/><br/>전형적인 풍수 명당의 하나로 호랑이 형국도 생겨났다.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형국(맹호출림형)’이 대표적이다. 경기 이천 백사면에 호암산이라고 있다. 능선에 호랑이 형상으로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으로 인해 예로부터 명인이 많이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혈을 자르려고 말뚝을 박고, 호랑이 눈 부위의 돌을 뽑아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명인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 어디나 있는 단맥(斷脈) 설화다. 그 호암산에는 호암사(虎巖寺)라는 옛 절이 있었다.<br/><br/>가뜩이나 호랑이가 무서운 판에 호랑이처럼 사나운 산이 있어 위협적으로 보일 때는 제압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는 호압사(虎壓寺)라는 재미난 이름의 절이 있다. 호랑이를 제압하는 절이라는 뜻이다. 왜 이런 절이 세워졌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련 기록이 있다. “호암산은 우뚝한 형세가 범이 가는 것 같고, 또 험하고 위태한 바위가 있는데 호암이라 부른다. 북쪽에 궁교(弓橋)와 사자암(獅子庵)이 있는데 모두 범이 가는 듯한 산세를 누르려는 것이다.” <시흥군읍지>(1899)에는 동화 같은 돌개(石狗) 이야기도 나온다. “산이 호랑이가 걸터앉은 듯하다. 한양에 도읍을 정했을 때 돌로 만든 개 4마리로 지키도록 했다.” <br/><br/>조선 건국 초의 일이었다. 태조는 만년의 사직을 위해 궁궐을 짓는데 이상하게도 허물어져 내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목수들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물었다. 대답인즉 밤마다 호랑이가 달려드는 꿈에 시달리는데, 반은 호랑이고 반은 형체도 알 수 없는 괴물이 궁궐을 부순다는 것이었다. 고민하던 어느 날 홀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났다. “<span class='quot0'>저기 한강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보시오.</span>” 호암산이었다. 이성계는 비로소 궁궐이 무너져 내린 까닭을 알아차렸다. 즉시 저 산봉우리의 기세를 누를 방도를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호랑이는 본시 꼬리를 밟히면 꼼짝하지 못하는 짐승이오. 그 꼬리 부분에 절을 지으면 만사가 순조로우리라” 하고는 사라졌다. 놀라 잠을 깬 이성계는 당장 그곳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호압사이고 노인은 무학대사란다.<br/><br/>호압사는 호암산의 꼬리 부분을 마주하고 입지했다. 사자암도 현재 상도동에 있다. 사자로 호랑이를 경계하려는 뜻이다. 활의 역할을 하는 궁교도, 호암산에 남아 있는 돌개도 호랑이산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호암산에 대한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김해의 임호산(179m)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다. 산이 고을을 바라보며 앉은 호랑이 모습을 하였다. 김해 사람들은 호랑이산의 기운이 고을에 해나 끼치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다. 어떻게 방비했을까? 절을 들여세웠다. 그것도 호랑이 아가리 부위에다. 부처님의 위력과 자비로 산호랑이가 다스려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함께. 지금도 흥부암(興府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br/><br/><b>■ 민속놀이·풍수·설화 곳곳 호랑이와 결합</b><br/><br/>호랑이산으로 인한 민속놀이도 생겨났다. 전남 영암 도포리의 도포제 줄다리기다. 150여년의 내력이 있는데 음력 정월 5일과 칠월 칠석에 행해진다. 유래가 재미있다. 마을 주위로 서쪽은 사자산, 북쪽은 호산(虎山)이 있는데 마을산은 돼지산이고 마을터는 돼지형국이란다. 맹수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안한 입지 형세인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을까? 돼지산에 천제단을 모시고 하늘제사를 올린 뒤 무사가 호랑이산과 사자산을 겨냥해 화살을 쏘는 주술 의식을 한다. 이어서 줄다리기를 한다.<br/><br/>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와 호랑이산은 풍수, 민속, 종교, 설화, 놀이와 의례 등과 결합된 복합적인 문화코드의 생활사였다. 근대에는 국토 모양을 호랑이로 본 일도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때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郞)가 한반도의 형상을 토끼로 비유하자 최남선이 발끈하여 호랑이지도로 그렸다. “<span class='quot0'>무한한 포부와 용기로써 아시아 대륙과 세계에 웅비하려는 맹호</span>”라고 했다. 호랑이산 코드가 호랑이한반도로 버전업된 것이다.<br/><br/><최원석 | 경상대 HK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4.txt

제목: "당신의 결혼, 혹시 자궁경부암을 키우고 있진 않나요?"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910015633842  
본문: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이 암을, 그것도 여성에게 치명적인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0;자궁경부암의 위험에 대한 여러 대조군에 관해 다루고 있는 예방의학회의 학회지에 따르면 ‘결혼’이라는 변수를 두고 보았을 때 별거, 이혼, 재혼, 사별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160;<br/>일반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70~80%는 나쁜 식습관과 환경요인이고, 그 외에 유전 등의 이유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요인 중 모든 암에 공통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여성이 더 많은 심리적·물리적 피해를 입게 되는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사건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안정된 결혼생활을 할 때 보다 자궁경부암에 더 위험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뜻밖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관계를 통해 전파 확률이 높은 자궁경부암의 경우 가정불화로 배우자를 통한 물리적 감염확률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순수한 스트레스와 암 발병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160;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br/>&#160;<br/>한국에서 결혼을 통해 여성이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는 우리말의 ‘한’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킬 만큼 뿌리 깊다. 이것은 어머니 세대에선 소위 ‘화병’이라는 스트레스의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대학병원의 외과 전문의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암이라는 질병에 ‘사연으로 작동하는 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사연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엔 암세포에 취약할 지도 모른다는 말을 덧붙였다.<br/>&#160;<br/>시대가 바뀌어 여권이 신장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대우도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결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일방적으로 여성의 몫일 때가 많다. 생활의 많은 부분,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자궁경부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피할 수 없어도 내 몸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할 수 있다. 바로 건강 검진, 그 중에서도 자궁경부암을 위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다.<br/>&#160;<br/>자궁경부암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암이기도 하다. HPV, 우리말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바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다. 바이러스 감염 후 암으로 진행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본격적인 1기 암으로 진행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른 어떤 암보다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30대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자궁경부암 국가 검진이 바로 이 같은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br/>&#160;<br/>원인이 알려져 있는 암인 이상,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HPV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국가 검진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를 보는 검사가 아닌,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검사라고 한다. 자궁 경부에 감염된 원인 바이러스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알려주는 자궁 관리를 위한 검사로 HPV DNA 검사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HPV DNA 검사란 DNA를 대규모로 증가시키는 분자 진단 기술을 사용하여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의 종류와 양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160;검사라고 한다.&#160;<br/>&#160;<br/>정기 검진과 함께 금연과 식생활 개선 등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함께 한다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160;씨젠우먼 사이트에선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과 HPV DNA 검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5.txt

제목: 동료·유족 오열 속에 故 김자옥 발인 엄수  
날짜: 2014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910015632133  
본문: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의 발인식이 빈소가 마련됐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19일 엄수됐다.<br/><br/>동료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할 만큼 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고인을 떠나보내기에 앞서 발인 예배가 진행됐다. 박미선 이경실 이성미 조형기 송은이 강부자 서우림 정재순 강석우 등 많은 동료 연예인이 참석해 애도했다. <br/><br/>운구차가 병원을 떠날 때 참석자들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br/><br/><br/><br/>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던 고인은 이후 암이 임파선과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1년여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달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br/><br/>고인은 화장된 뒤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6.txt

제목: 대한암협회, 항암제 치료 보장성 강화 토론회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8100000130  
본문: 대한암협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암 환자를 위해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br/>‘대한민국 암 정책, 환자를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암 치료제의 위험 분담 계약제 적용과 고가 항암제 접근성 강화 등 암 정책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br/>1·2부는 대한암협회 노동영 부회장(대학암학회 이사장)의 진행 아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을,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고려대학교 종양혈액내과 교수)이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 측면에서 정책적 보완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br/>이어 3부 종합 토론에서는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진행으로 보건복지부 정영기 팀장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국립암센터 이덕형 본부장, 대한암학회 김열홍 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7.txt

제목: “자옥 누나와 함께 할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8100000102  
본문: 16일 별세한 배우 故 김자옥의 방송 프로그램 유작인 케이블채널 tvN의 <꽃보다 누나>(‘ 꽃누나’)의 제작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인을 애도했다. <br/><br/><꽃누나> 제작진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17일 글을 올렸다. 제작진은 지난 1월 종방한 프로그램 중 김자옥의 등장 사진을 올리며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자옥 누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br/><br/>이어 “자옥 누나가 늘 이야기하던 긍정, 희망, 용기 그리고 행복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br/><br/><꽃누나>는 김자옥이 1998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패널로 출연한 이후 15년 만에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며, 그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지난해 11월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에서 김자옥은 배우 윤여정, 김희애, 이미연, 이승기와 어울려 동유럽의 크로아티아로 떠났다. <br/><br/>김자옥은 크로아티아 여행 기간 소녀 같은 순수함과 발랄함 그리고 2008년 대장암 투병 사실을 밝히면서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다. 프로그램은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코리아 집계 결과 종방 시청률이 6%를 넘기며 케이블채널로서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br/><br/>하지만 김자옥이 대장에서 폐로 전이된 암 세포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둠으로써 <꽃누나>는 고인의 유작으로 남게 됐다.<br/><br/>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는 연예계를 비롯해 고인의 마지막을 슬퍼하는 조문객으로 가득 찼다. 생전 절친한 동료였던 배우 윤소정은 “<span class='quot0'>가장 예뻐했던 후배고 (김자옥이)인터뷰할 때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난 번 만났을 때도 (예비)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년 3월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니</span>”라며 오열했다.<br/><br/>함께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에 출연했던 아역배우 서신애도 SNS에 글을 올려 고인을 애도했다. 그는 17일 “<지붕뚫고 하이킥>때 처음 뵀던 김자옥 할머니.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씀으로 대해주시던 분이었다. 언제나 공주같으셨고 고우셨다”며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정말 실감이 안 난다. 꼭 좋은 곳 가셔서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편안히 주무시길”이라고 적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8.txt

제목: [클릭TV]너무 사랑스러운 견공들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8100000008  
본문: 야비한 인간들과는 거리가 멀다. 복잡한 세상사에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맑은 눈동자에는 순박함이 비치고, 풍성한 털에서는 포근함이 보인다. TV 프로그램은 고결하고 깨끗한 개의 이미지를 잘 활용한다.<br/><br/>특히 드라마에서는 남녀주인공들의 만남을 주도하는 월하노인(月下老人)이 된다. 개가 중매한 관계는 더 순수하게 보인다.<br/><br/>SBS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비와 크리스탈을 만나게 해준 건 개 ‘달봉’이다.<br/><br/>비가 크리스탈에게 달봉이를 맡기는 ‘우연’은 크리스탈이 준 소시지를 먹고 목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로 찾은 동물병원에서 달봉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br/><br/>비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달봉이를 크리스탈에게 맡기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만들어졌다.<br/><br/>MBC <압구정 백야>에서 송원근과 박하나는 어릴 적 함께 자란 인연이 있지만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br/><br/>그러다 송원근의 개 ‘왕비’를 박하나가 찾아주게 되고, 송원근은 박하나를 되레 개도둑으로 오해하면서 악연을 가장한 인연의 끈을 이어가게 된다.<br/><br/><압구정 백야>의 송원근은 “<span class='quot0'>개 키우면 심장병도 예방되고 정신건강에도 좋다</span>”고 말하지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는 만인에게 호감의 대상이다.<br/><br/>JTBC 드라마 <유나의 거리>의 애견 ‘만두’는 치매로 길을 잃은 노인을 찾아내고, 배우지망생에게는 연기 연습 파트너가 되어준다.<br/><br/>TV 속 개는 용변을 치우거나 목욕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 그저 충성스럽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즐기기만 하면 되니 아낌없이 사랑을 받는다.<br/><br/>2007년 <해피선데이-1박2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애견 상근이는 프로그램의 마스코트로 큰 사랑을 받았다.<br/><br/>팬들은 상근이 미니홈피, 상근이 인터넷 팬카페를 만들었다. 심지어 말을 못하는 데도 KBS 라디오 <박수홍의 두근두근 11시>에까지 출연했다. 개 훈련사가 상근이 짖는 소리를 통역해 청취자들에게 전하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진행했었다.<br/><br/><1박2일>에서 상근이를 발탁했던 나영석 PD는 tvN <삼시세끼>에서는 밍키를 캐스팅했다.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의 재롱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재미다.<br/><br/>이서진과 옥택연이라는 두 남자 주인공들 사이에서 밍키는 여자 게스트같이 귀염둥이 역할을 해낸다. 옥택연이 밍키를 안고 귀여워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장면이다. 말을 할 수 없는 개의 의사는 정확히 알 도리가 없다. 개의 귀여운 몸짓이나 행동, 짖는 소리는 제작진의 의도대로 풀이하기 좋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막을 통해 밍키의 행동과 소리는 ‘예능화’된다.<br/><br/>태생적으로 충성스럽고 순진한 이미지를 품고 있다.<br/><br/>드라마 속 남녀주인공들의 사랑 매개체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호감형 외모는 등장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돌봐야 하는 책임 없이 애견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선 시청자들의 요구도 만족시킨다.<br/><br/>게다가 소리와 행동을 제작진의 각본대로 짜맞춰 보여줄 수 있으니 TV는 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29.txt

제목: [IT 칼럼]‘로봇의 도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8100000018  
본문: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이자,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우주수송 전문기업 스페이스X를 창업한 엘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이 인류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화제다. 그는 지난 10월 MIT에서의 연설 중 “인간 존속의 가장 큰 위협은 아마 인공지능일 것이고, 우리는 악마를 맞이하는 중”이라며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가 지난 3월 마크 저커버그, 제리 양, 제프 베조스 등과 함께 인공지능 전문기업 바이케리어스(Vicarious)에 투자한 사실을 떠올리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그의 경고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br/><br/>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은 비약적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의 무인 자동차, IBM의 왓슨 기반 인지 컴퓨팅 사업, 딥러닝을 통한 사람 수준의 음성·이미지 인식 기능 등 이제는 실제 서비스나 일상에 도입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 세계적 IT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가 하면 인재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구글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는 레이 커즈와일 같은 미래학자는 2040년이 되면 새로운 인류인 트랜스휴먼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br/><br/>그런데 왜 철학자나 인문·사회과학자, 법률가들은 물론 엘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조차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일까? ‘완전 무인자동차를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자.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 기준 연간 3만3000명이 넘는다. 만일 완전 무인자동차가 등장해 이 숫자를 1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낮출 수 있다면 완전 무인자동차를 받아들일 것인가? 강연에서 자주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다.<br/><br/>왜 많은 사람이 반대할까?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기계의 판단에 따른 실수는 그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 해도 아직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과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의 부수적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유럽에선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이미 로보로(RoboLaw)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br/><br/>IBM의 왓슨은 현재 암환자 치료보조 역할, 기업의 중역회의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록과 개인 상태를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 신체로 바꾸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할 것인지, 브레인 칩을 통해 검색·이메일 검사 등을 뇌에서 자동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등 무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br/><br/>이러한 모든 이슈는 한 나라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주제다. 최근 ‘기술의 윤리학’과 ‘로봇의 도덕’을 논의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수준에 와 있는데도, 프로그램에 어떻게 도덕과 윤리의식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기본적인 모델링 단계에서의 검토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법률적 판단은 아직 거론조차 못하고 있다.<br/><br/>우리 주변에 지능을 가진 개체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단지 기술 담당자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없앨 것이라는 게 빌 게이츠의 전망이고, 한 연구에선 700개 이상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이런 변화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미래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충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br/><br/><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장·세종대 ES센터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0.txt

제목: 하이병원, 내달 인천 계산동에 제3병원 개원  
날짜: 2014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8100000133  
본문: 하이병원은 12월1일 인천 계산동에 제3병원(이하 인천 하이병원)을 개원한다. <br/>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에 90병상을 갖춘 인천 하이병원은 척추·관절·내과에 외과를 더해 총 4개 센터로 운영된다. 외과센터는 특히 부천과 일산 하이병원과 달리 하지정맥류, 액취증, 대장항문 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장 손상 환자의 혈액 투석을 실시하는 ‘인공신장실’이 들어서고,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종합 검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외 최신형 자기공명영상장치(MRI), CT, X-ray, 관절내시경 등의 진단 장비와 함께 물리 치료실과 운동 치료실이 마련돼 있다.<br/>한편 인천 하이병원의 수장으로는 김인철 부천 하이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이 자리를 옮겨 맡게 된다. 가천의대 길병원 외래교수를 역임한 김 원장은 최근 5년간 신경성형술을 포함해 2500건 이상의 척추 수술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1.txt

제목: 故 김자옥 친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빈소 지켜…“내 아들 같아”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710015612666  
본문: 지난 16일 별세한 배우 고 김자옥의 남동생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br/><br/>김자옥은 이날 오전 7시40분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br/><br/>평소 김자옥은 남동생인 김태욱 아나운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었다. 김자옥은 지난해 출연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span class='quot0'>걔(김태욱)가 내 아들 같아</span>”라고 애틋한 정을 표현했다. 또 “아들 같은 막내 동생이 지천명이 넘었다. 결혼은 안하느냐“고 묻자 “안하겠다고 했다. 그 나이에 뭘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br/><br/><br/><br/>한편 김자옥의 소속사 측은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밝혔다.<br/><br/>고인의 유족으로는 1984년 재혼한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이 있다.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고인의 친동생이다.<br/><br/>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다. 입관은 18일 오후 3시, 발인은 19일 오전 8시30분이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2.txt

제목: 대장암 전이 폐암 합병증, 63세에 끝내 하늘로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7100000089  
본문: 배우 김자옥이 16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63세.<br/><br/>고 김자옥 측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했다.<br/><br/>김자옥 측은 “16일 오전 7시40분 별세했다”면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14일 오후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고 3일간의 사투를 설명했다. 김자옥 측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최종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한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19일로 잡혔다. <br/><br/>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자옥은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40여년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1996년에는 <공주는 외로워>라는 음반을 내고 대표곡 ‘공주는 외로워’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에는 드라마 <맛있는 인생> <세번 결혼하는 여자> 등에 출연했으며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대중적인 친밀도를 높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3.txt

제목: [과학 오디세이]GMO 안전성 프로젝트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7100000017  
본문: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인체에 위험한지를 추적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미 20여년간 세계인이 섭취해온 GMO의 안전성을 새삼스레 검증하겠다고 나선 사실 자체가 의아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사는 동물섭취 실험 등을 통해 GMO가 보통 농산물처럼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존의 실험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의 출범은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과학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br/><br/>11일 러시아, 유럽, 미국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실험설계에 기반을 둔 ‘팩터 GMO 프로젝트(factorgmo.com)’를 내년에 가동한다고 세계 언론에 알렸다. 비정부기구를 표방한 러시아의 한 단체(NAGS)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연구 목표가 상당히 직설적이다. GMO가 암의 발생, 생식력 저하, 선천성 결함 등을 유발하는지 규명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 문제들은 기존의 GMO 심사에서도 면밀히 검토돼 왔다. 팩터 GMO 프로젝트가 새로운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관찰에 있다.<br/><br/>그동안 독성 실험은 주로 쥐에게 90일간 GMO를 섭취하게 하고 반응을 지켜보도록 설계돼 있었다. 또한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두 세대를 관찰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관찰 기간이 2~3년으로 확장됐다. 쥐의 전체 생애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총 다섯 세대까지 확인하겠다고 한다. 실험에 동원될 쥐의 수는 무려 6000마리에 달한다. 이전의 동물 실험이 짧은 기간에 이뤄져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세간의 우려를 반영했다.<br/><br/>사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결과는 이미 2년 전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교수 연구진이 미국의 학술지 ‘식품과 화학독성학’에 게재한 논문에서다. 연구진은 세계인이 섭취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옥수수(NK603), 그리고 이 옥수수 밭에 살포했을 때 주변 잡초만 제거하는 제초제(라운드업)를 2년간 쥐에게 먹이면서 상태를 관찰했다. 둘 다 대표적인 GMO 개발사인 몬산토의 제품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보통의 먹이를 섭취한 쥐에 비해 각종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 없지만 종양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확인 실험이 좀 더 긴 시간 동안 수행돼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결과였다.<br/><br/>하지만 세계 과학계와 정부의 전반적인 반응은 냉담했다. 한편으로 다수 과학자들이 실험방법의 오류를 지적하며 학술지 측에 논문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동안 논문에 대한 비판의 글과 이에 대한 반박의 글이 학술지 홈페이지에 13편이나 게재됐다. 마침내 2013년 11월 학술지 측이 철회를 결정했지만, 그 사유가 묘했다. 실험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과학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다른 학술지에서 논문을 다시 게재해주는 특이한 상황도 벌어졌다.<br/><br/>팩터 GMO 프로젝트 역시 몬산토의 옥수수와 라운드업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라운드업의 섭취 실험은 몬산토의 애초 기대와는 달리 그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제초제에 저항력을 지닌 ‘슈퍼잡초’가 발생함으로써 더 많은, 더 강력한 제초제의 사용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br/><br/>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약 270억원이 필요하다. 추진단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구비를 후원하는 주체는 GMO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어디도 아니라면서 연구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탈리아의 암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따라 자신이 어쩌면 몬산토의 지지자가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몬산토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br/><br/>추진단은 조만간 후원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계 기구나 각국 정부에서 GMO의 안전성을 지지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간됐다. 하지만 기존 학계의 연구내용을 검토한 것이 대부분이며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직접 수행한 사례는 없다. 팩터 GMO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4.txt

제목: 드라마·영화로 불꽃같은 44년… 화보로 보는 故 김자옥 일대기, 공주로 살다 꽃으로 영면한 ‘만인의 누나’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7100000087  
본문: 16일 오전 세상을 떠난 고 김자옥은 언제나 밝은 얼굴의 소유자였다. 유쾌한 웃음이 압권인 그는 연예계 전반에서 신망이 두터웠을 만큼 품성 좋고, 예의 바른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br/><br/>타고난 끼로 다양한 영역을 두루 오가며 빼어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드라마, 영화, 예능, 가요 등 다방면에서 남긴 흔적이 매우 짙다. <br/><br/>‘스포츠경향’이 고인의 지난 생활을 연혁과 함께 관련 화보로 되돌아본다.<br/><br/>▲ 김자옥 꽃피다<br/><br/>김자옥은 1951년 10월 당시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시인 김상화씨의 2남5녀 중 3녀로 태어났다. 예쁜 얼굴과 다앙? 끼로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시절부터 대외 활동이 활발해, CBS기독교방송 어린이 전속 성우로 활동했다. 배화여중 재학 시절 TBC 동양방송 드라마 <우리집 5남매>에 잠시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처음 TV에 얼굴을 비쳤다. <br/><br/>본격적인 데뷔해는 1970년이다. 그해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입사했고, 이듬해인 1971년 KBS로 스카웃돼 <심청전>의 여주인공이 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br/><br/>김자옥은 성우로도 짧게 활약했다. 1974년 화제의 MBC라디오 드라마 <사랑의 계절>에서 성우를 맡아 한국방송대상 성우상을 거머쥐는 실력도 뽐냈다. <br/><br/>좋은 목소리는 집안의 유전이기도 했다. 김자옥의 막내 남동생이 바로 SBS 아나운서 김태욱이다. <br/><br/>▲ 화려한 스타덤<br/><br/>1975년 김수현 작가가 집필한 MBC 일일연속극 <수선화> 등을 바탕으로 김자옥은 본격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br/><br/>높은 인기는 밀려드는 각종 상과, 각종 CF 촬영으로도 쉽게 확인됐다. 1975년 그해 백상예술대상 여자최우수연기상과 인기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MBC 연기대상 우수상도 수여했다. ‘비오비타~’라는 외침이 들렸던 일동제약 ‘비오비타’를 비롯해, 빙그레 ‘비비빅’ ‘미스차’ ‘바난자’ 등의 CF 모델로 활약했다. 1979년부터는 오뚜기 식품에서 약 7년간 전속 모델로 활동했다.<br/><br/>1975년 이후부터 김자옥은 매년 몇 편씩의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움켜쥐었다. <들장미> <쇠랑산처녀> <내일이면> <꽃사슴> <행복의 문> 등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br/><br/>1980년 가수 최백호와 결혼식을 올리지만 성격 차이로 3년 만에 이혼하면서 다소 주춤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1984년 가수 오승근과 재혼하면서 지금까지 금실 좋은 부부로 여겨져왔다. <br/><br/>배우로서 꾸준히 활동하던 김자옥은 1996년 MBC 코미디 프로그램 <오늘은 좋은 날>에 출연해 예능 감각을 크게 자랑하기도 했다. 조혜련과 함께 여고생 역할로 출연했던 김자옥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능청스럽게 대꾸하는 것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결국 그해 태진아와 함께 ‘공주는 외로워’라는 싱글곡을 발표해 가요 차트 톱7에 오르는 깜짝 돌풍을 일으켰다. <br/><br/>▲ 별이 되다<br/><br/>2000년대에도 그는 꾸준하고 왕성하게 대중들과 교류했다. <굳세어라 금순아> <내이름은 김삼순> <커피프린스 1호점> 등의 드라마와 <동갑내기 과외하기> <제니 주노> 등의 영화에서 시청자 및 관객들과 만났다. 2009년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을 통해서도 젊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br/><br/>그 무렵 그는 건강 검진 도중 대장암을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했다. 당시만 해도 수술 경과가 좋아 곧바로 일선 연기자로 되돌아 왔고 지난해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는 등 주춤하지 않는 활동으로 시청자들에게 미소를 선사했다.<br/><br/>암이 재발한 것은 올해 초로 보인다. 폐 등으로 전이돼 손 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14일 오후 병원으로 실려가 16일 오전 끝내 눈을 감았다. <br/><br/>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1남1녀가 있다. 남편 오승근은 남성 듀오 ‘금과은’ 멤버 출신으로, ‘있을 때 잘해’ 등의 히트곡을 소유하고 있다. <br/><br/>고 김자옥은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눈을 감았다. 고인은 3일간의 장례 뒤 19일 오전 발인돼 영면에 든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5.txt

제목: [속보]배우 김자옥 폐암으로 별세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610015607570  
본문: 배우 김자옥이 16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br/><br/>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 <br/><br/>김자옥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span class='quot0'>대장암 투병중 암 세포가 임파선과 폐에 전이돼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다</span>”고 밝힌 바 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6.txt

제목: 김자옥 별세…‘공주’로 살다가 ‘꽃’이 돼 영면하다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610015607787  
본문: 40년 넘게 대한민국을 울고 웃겨온 배우 김자옥이 16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br/><br/>폐암으로 별세한 김자옥은 생전 한 방송에서 “대장암 투병중 암 세포가 임파선과 폐에 전이됐다. 3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작년에 임파선, 폐에 암이 전이돼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김자옥은 투병 중에도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해왔다. 고인은 지난해 tvN ‘꽃보다 누나’를 통해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다. <br/><br/>김자옥은 1951년 부산에서 시인의 딸로 태어났다. 서울교대 부속 초등학교 재학시절 기독교방송 어린이 전속 성우 활동을 했다. 이후 배화여자중학교 재학 중 TBC 드라마 ‘우리집 5남매’로 데뷔했다.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에 합격하면서 정식으로 성인 연기자 입문을 했다. <br/><br/>20대이던 70년대, 드라마 ‘심청전’(1971), ‘한중록’(1972), ‘신부들’(1973) 등 2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70년대엔 ‘보통여자’(1976) ‘미스양의 모험’(1977) ‘상처’(1978) ‘태양을 훔친 여자’(1979) 등 영화 12편에도 출연했다. <br/><br/>김자옥은 당시 청순 가련한 이미지로 ‘눈물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금 갖고 있는 코믹한 이미지는 90년대에 들어 얻었다. 1996년 공주병에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코믹한 노래 ‘공주는 외로워’를 발표해 인기를 이어갔다.<br/><br/>김자옥은 최근까지도 ‘꽃보다 누나’와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오작교 형제들’ 등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br/><br/>영면에 든 김자옥의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이다. 장지는 미정이다.<br/><br/><!--video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tr><td><!--videosrc\_start\_1--><iframe width="540" height="304" src="http://www.youtube.com/embed/HLj9siP0RNY"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videosrc\_end\_1--></td></tr></table><!--videotbl\_end\_1--><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7.txt

제목: ‘꽃보다 누나’ 김자옥, 폐암으로 별세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610015607617  
본문: 배우 김자옥이 16일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br/><br/>고인은 지난해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 출연했고, 올해 1월 종영된 케이블 채널 tvN의 배낭여행기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근 다시 건강이 악화됐다. 과거 대장암으로 투병했는데 얼마 전 폐로 암이 전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유족으로는 가수 오승근과 아들이 있으며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19일이다.<br/><br/><!--video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tr><td><!--videosrc\_start\_1--><iframe width="540" height="304" src="http://www.youtube.com/embed/HLj9siP0RNY"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videosrc\_end\_1--></td></tr></table><!--videotbl\_end\_1--><br/><br/><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8.txt

제목: 김자옥 “암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병…남편에게 좋은 말 해줘야지”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610015607798  
본문: 김자옥이 방송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영면에 든 김자옥을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br/><br/>김자옥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의 마지막회 게스트로 출연했다. <br/><br/>이날 김자옥은 과거 대장암 투병 도중 임파선과 폐로 암이 전이된 사실을 고백했다. 김자옥은 “당시 증상도 없었는데 종합 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넘어선 암을 발견했다. 다행히 수술하기 좋은 부위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며 암투병에 대해 언급했다. <br/><br/>이어 그녀는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밝혔다. <br/><br/>한편 김자옥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발인이다.<br/><br/><!--video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tr><td><!--videosrc\_start\_1--><iframe width="540" height="304" src="http://www.youtube.com/embed/HLj9siP0RNY"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videosrc\_end\_1--></td></tr></table><!--videotbl\_end\_1--><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39.txt

제목: 이외수 “마왕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610015608219  
본문: <strong>이외수, 김자옥 별세 소식에 애도 “아름답고 선량한 분”<br/><br/></strong>소설가 이외수(68)가 배우 김자옥의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br/><br/>이외수는 16일 경향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로 알린 김자옥의 별세 소식을 전달하며 “마왕님에 이어 공주님도 가셨군요. 모두 이 땅에 오래 계셔야 할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량하신 분들이시지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br/><br/><br/><br/>김자옥은 16일 오전 7시40분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소울재커 측은 “김자옥이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금요일 오후 병세가 급속히 악회돼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전했다.<br/><br/>고인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이며 장지는 정해지지 않았다.<br/><br/><오은지 인턴기자 oeun0206@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0.txt

제목: [전문]소속사 “김자옥 오늘 오전 7시40분 별세…가족들이 자리 지켜”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610015608106  
본문: 배우 김자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br/><br/>소속사는 16일 “연기자 김자옥이 16일 오전 7시40분 별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면서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고 덧붙였다.<br/><br/>고 김씨의 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과 아들이 있으며,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이며 장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br/><br/>1951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자옥은 배화여자중학교 재학 중 TBC 드라마 ‘우리집 5남매’로 데뷔했다.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후 1971년 KBS 드라마 ‘심청전’의 여주인공에 발탁되며 스타덤에 올랐다. 1975년에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수선화’에 출연해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당시 ‘수선화’는 일일극 시청률 1위를 기록할만큼 인기가 있었다. 김자옥은 이 드라마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br/><br/>1996년에는 앨범 ‘공주는 외로워’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윤여정, 이미연 등과 함께 tvN ‘꽃보다 누나’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br/><br/><br/><br/>소속사가 밝힌 공식입장 전문이다. <br/><br/><br/><br/>연기자 김자옥씨가 2014년 11월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하셨습니다<br/><br/>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1월14일 금요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 <br/><br/>지난 40여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br/><br/><!--video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tr><td><!--videosrc\_start\_1--><iframe width="540" height="304" src="http://www.youtube.com/embed/HLj9siP0RNY"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videosrc\_end\_1--></td></tr></table><!--videotbl\_end\_1--><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1.txt

제목: [과학 오디세이]GMO 안전성 프로젝트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610015609671  
본문: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인체에 위험한지를 추적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미 20여년간 세계인이 섭취해온 GMO의 안전성을 새삼스레 검증하겠다고 나선 사실 자체가 의아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사는 동물섭취 실험 등을 통해 GMO가 보통 농산물처럼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존의 실험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의 출범은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과학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br/><br/>11일 러시아, 유럽, 미국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실험설계에 기반을 둔 ‘팩터 GMO 프로젝트(factorgmo.com)’를 내년에 가동한다고 세계 언론에 알렸다. 비정부기구를 표방한 러시아의 한 단체(NAGS)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연구 목표가 상당히 직설적이다. GMO가 암의 발생, 생식력 저하, 선천성 결함 등을 유발하는지 규명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 문제들은 기존의 GMO 심사에서도 면밀히 검토돼 왔다. 팩터 GMO 프로젝트가 새로운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관찰에 있다.<br/><br/>그동안 독성 실험은 주로 쥐에게 90일간 GMO를 섭취하게 하고 반응을 지켜보도록 설계돼 있었다. 또한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두 세대를 관찰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관찰 기간이 2~3년으로 확장됐다. 쥐의 전체 생애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총 다섯 세대까지 확인하겠다고 한다. 실험에 동원될 쥐의 수는 무려 6000마리에 달한다. 이전의 동물 실험이 짧은 기간에 이뤄져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세간의 우려를 반영했다.<br/><br/>사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결과는 이미 2년 전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교수 연구진이 미국의 학술지 ‘식품과 화학독성학’에 게재한 논문에서다. 연구진은 세계인이 섭취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옥수수(NK603), 그리고 이 옥수수 밭에 살포했을 때 주변 잡초만 제거하는 제초제(라운드업)를 2년간 쥐에게 먹이면서 상태를 관찰했다. 둘 다 대표적인 GMO 개발사인 몬산토의 제품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보통의 먹이를 섭취한 쥐에 비해 각종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 없지만 종양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확인 실험이 좀 더 긴 시간 동안 수행돼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결과였다.<br/><br/>하지만 세계 과학계와 정부의 전반적인 반응은 냉담했다. 한편으로 다수 과학자들이 실험방법의 오류를 지적하며 학술지 측에 논문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동안 논문에 대한 비판의 글과 이에 대한 반박의 글이 학술지 홈페이지에 13편이나 게재됐다. 마침내 2013년 11월 학술지 측이 철회를 결정했지만, 그 사유가 묘했다. 실험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과학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다른 학술지에서 논문을 다시 게재해주는 특이한 상황도 벌어졌다.<br/><br/>팩터 GMO 프로젝트 역시 몬산토의 옥수수와 라운드업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라운드업의 섭취 실험은 몬산토의 애초 기대와는 달리 그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제초제에 저항력을 지닌 ‘슈퍼잡초’가 발생함으로써 더 많은, 더 강력한 제초제의 사용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br/><br/>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약 270억원이 필요하다. 추진단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구비를 후원하는 주체는 GMO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어디도 아니라면서 연구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탈리아의 암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따라 자신이 어쩌면 몬산토의 지지자가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몬산토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br/><br/>추진단은 조만간 후원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험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계 기구나 각국 정부에서 GMO의 안전성을 지지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간됐다. 하지만 기존 학계의 연구내용을 검토한 것이 대부분이며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직접 수행한 사례는 없다. 팩터 GMO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br/><br/><김훈기 |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2.txt

제목: [그때 김자옥]‘대장암’ 수술과 ‘70억원 부도’ 이겨낸 오승근·김자옥 부부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610015607797  
본문: <div style="border: solid 1px #DDD;background-color: #F5F5F5;padding: 10px 15px 15px 15px;font-size: 13px;line-height: 22px;\_height: 1%;margin-bottom: 20px;">16일 배우 김자옥이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언제나 소녀였던 김자옥은 ‘공주’와 ‘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간직한 채 영면에 들었다. 그녀를 하늘나라로 이끈 병은 암이다. 2008년 대장암 수술 후 재기를 다짐하던 김자옥의 투병 소식은 팬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를 다시 살펴본다. 2008년 8월 같은 해 5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자옥이 레이디경향과 가졌던 인터뷰다. 김자옥·오승근 부부가 인터뷰에서 밝힌 “늘 신혼처럼 산다”는 말이 당시 많은 독자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편집자주] </div><br/><br/>아래는 기사 전문(2008년 8월, 레이디경향)<br/><br/>‘대장암’ 수술과 ‘70억원 부도’ 이겨낸 오승근·김자옥 부부<br/><br/>탤런트 김자옥이 지난 5월 비밀리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줬다. 여기에 트로트 가수인 남편 오승근 역시 김자옥과 같은 ‘대장암’ 초기 증상으로 같은 날 수술을 받았다고 밝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70억원의 전 재산을 모두 날린 후에도 “옆에 있는 아내 때문에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가수 오승근. 그가 밝히는 ‘우리 부부가 늘 신혼처럼 사는 이유’. <br/><br/><strong>대장암 초기 증상, 부부가 동시에 수술<br/><br/></strong>우연이었을까. 기자가 김자옥의 남편인 트로트 가수 오승근을 만나기로 한 날, ‘탤런트 김자옥 비밀리에 대장암 수술’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지난 5월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 초기라는 게 밝혀졌고, 곧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 물론 그 뒤, 몸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해 드라마 촬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br/><br/><br/><br/>기자를 만난 오승근은 “<span class='quot0'>기사에 대장암이라고 떴어요?</span>”라고 반문하며 “<span class='quot0'>대장암이라기보다 ‘선종’에 가깝다</span>”며 큰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작은 혹을 뜻한다. <br/><br/>“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장에 선종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장에 있는 작은 선종을 떼어내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았어요. 그 선종은 저도 있었는데요 뭘. 같이 수술했어요.”<br/><br/>부인 김자옥뿐만 아니라 남편 오승근 역시 같은 대장암 초기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 부부가 살면서 닮아간다지만, 서로 아픈 곳까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과 일주일 정도의 입원으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br/><br/>‘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더니 그는 “<span class='quot0'>여자들은 특히 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꼭 받는 게 좋다</span>”고 권유했다. 또 “지금은 둘 다 무척 건강하고, 음식도 다 잘 먹는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br/><br/>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남다른 건강법은 없단다. “걷기 운동을 좋아해요. 일주일에 두 번은 빠른 걸음으로 집 앞 한강 둔치를 4~5km 정도 걷죠. 또 비타민 C도 많이 먹어요.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열 알 정도 먹어요.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요? 예전에는 저도 한 알씩 먹었는데, 비타민을 먹으면 내장이 굉장히 편해요. 살도 더 이상 안 찌고 내장의 탄산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내도 같이 먹죠.”<br/><br/>그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br/><br/><strong>IMF 때 사업으로 70억원 부도, 아직도 신용불량<br/><br/></strong>오승근은 1969년 밴드 ‘투 에이스’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1975년에는 ‘금과 은’의 멤버로 활동하다 1980년 솔로로 전향했다. 하지만 이후 결핵늑막을 앓으면서 가수 생활을 접고, 1984년 아버지의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물려받아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배우 김자옥과 결혼했다. <br/><br/>처음에는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여행사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1998년 IMF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회사는 부도가 났다. “IMF 때 정말 크게 부도가 났죠. 70억원가량의 전 재산을 순식간에 날렸으니까요. 여행사라는 게 세계 각국에 지점을 만들어놓아야 하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었죠. 그것도 다 갚지 못해서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걸려 있어요(웃음).”<br/><br/>오승근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사업체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 그중에는 어머니 재산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 <br/><br/>“당시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집사람이 고생 많았죠. 그런데 아내가 대단한 게 분명히 속상할 텐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요. 조그마한 체격에 오히려 저한테 힘내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줬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고마워서 죽을 때까지 잘해주고 싶어요.”<br/><br/>그렇게 사업을 접고, 무엇을 하면서 먹고살까를 고민을 하던 중 아내가 “젊었을 때 노래를 했으니까, 노래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을 하더라는 것. 때마침 아내 김자옥은 태진아와 함께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을 내고 가수로 활동하던 때였다. 태진아가 오승근의 가수 컴백을 도왔고, 김자옥 역시 적극 홍보 활동에 나섰다. <br/><br/>그렇게 나온 앨범이 바로 2002년 히트 친 ‘있을 때 잘해’다. 1980년대 초반 가수에서 은퇴한 지 17년 만의 컴백이었다. 오랫동안 가수로서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의 구성진 목소리는 많은 중년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이후 그는 ‘장미꽃 한 송이’ 등 잇따라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를 다져갔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사랑하지만’이라는 곡을 내놓고 지금 방송국과 행사장을 누비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br/><br/>오승근은 기자에게 ‘올드 팝송’이 녹음된 CD를 한 장 건넸다. 개인적으로 팝송을 좋아해서 ‘비매품’으로 2005년에 올드 팝 앨범을 만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벌써 1만 장이 넘게 나갔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팝송에 남달리 애착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다. 처음 노래를 듣고 배우게 된 계기가 바로 팝송이었던 것. <br/><br/>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팝송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음을 느끼지만, 올드 팝송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갖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br/><br/>한때 부평과 경기도 백운 호수 근처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던 그는 앞으로의 소망이 ‘팝송 클럽’을 여는 것이란다. 재즈 클럽도 있는데, 왜 ‘팝송 클럽’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것. 나아가 ‘팝 콘서트’도 가져보고 싶은 꿈이 있다. <br/><br/>2003년에 개봉한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잠깐 출연한 적이 있는 그에게 연기에 대한 꿈을 물으니 “연기는 꽝”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동갑내기 과외하기’ 역시 출연하기로 했던 배역이 펑크가 나서 대신 나간 것뿐이라고. 결혼 초에는 아내가 대본 연습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br/><br/><strong>서로를 부르는 애칭은 ‘엄마’, ‘아빠’<br/><br/><br/><br/></strong><br/><br/>오승근·김자옥 부부는 항상 신혼처럼 알콩달콩 사는 걸로 유명하다. 방송에서 김자옥의 이미지는 ‘공주’ 같은 혹은 ‘소녀’ 같은 예쁜 아줌마에 가깝다. 하지만 오승근은 아내가 매우 털털한 성격이라고 말한다. <br/><br/>“결혼하기 전에 프러포즈를 할 때 ‘우리 연극같이 살자’는 말로 대신했어요. 아내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조금의 ‘꾸밈’은 있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살면서 ‘부부 생활’을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br/><br/>그렇게 서로 연극하는 것처럼 살기 때문인지, 둘 사이에는 싸움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나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들 때문에 큰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큰소리 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한다. 행여 작은 말다툼을 한다고 해도 화해를 하는 데 하루가 넘질 않는다. <br/><br/>“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내가 ‘아빠(오승근을 부르는 애칭) 밥 먹었어?’라며 먼저 다가와서 기분을 풀어주기도 해요.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서로의 기분이나 컨디션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br/><br/>오승근은 아내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고, 김자옥 역시 남편을 ‘아빠’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서로를 아내와 남편이라기보다 절친한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것.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받들어야 한다는 봉건적인 사고방식도 이들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r/><br/>“저는 부부가 서로 애인처럼, 친구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남자만 신경 쓰면, 빨리 늙거든요. 그냥 서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br/><br/>그는 요리를 하고 싶으면 먼저 파스타나 잔치국수 등을 요리해 아내에게 내민다. 또 밥 하기 싫을 때는 종종 인스턴트 쌀밥을 이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는 인생,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웃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br/><br/>김자옥이 남편을 위해 잘해주는 요리는 김치찌개. 이렇게 서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선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설거지 하는 걸 좋아한다고. “제가 설거지를 자주 해보니까, 여자들이 진짜 힘든 걸 알겠어요. 어깨도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안 그래도 작은데, 설거지하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 내가 막 하고 싶어져요.”<br/><br/><strong>결혼 25주년에는 은혼식과 함께 세계 여행 할 터<br/><br/></strong><br/><br/> 올해로 결혼 24주년을 맞는 이들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의심과 불만이 없다. 상대방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절대 물어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내년 결혼 25주년에는 ‘은혼식’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둘이 마음 편하게 세계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br/><br/>슬하에 둔 딸 오지연(30)양과 아들 오영환(21)군은 지금 해외에서 유학 중이다. 딸은 연세대 종교음악과에서 전자오르간을 전공,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해외연수 중이다.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갔고, 음악전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현재는 학교에서 프로듀싱과 연주, 편곡 등의 모든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프로듀싱에 꿈을 두고 있다고 한다. <br/><br/>‘아들과 딸이 모두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나 보다’고 하니 그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다. <br/><br/>오승근에게 앞으로의 꿈에 대해 물었다. “가수로서는 이왕 노래를 시작했으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목소리가 나오는 한 노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팝송도 부르고요. 조만간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다들 어른이 돼서 새로운 가정을 다시 꾸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웃음).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br/><br/>오승근과 인터뷰를 마치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결혼식 주례사가 생각났다. 인생의 갖은 우여곡절을 모두 겪고 나서도 이들처럼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br/><br/><!--video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tr><td><!--videosrc\_start\_1--><iframe width="540" height="304" src="http://www.youtube.com/embed/HLj9siP0RNY"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videosrc\_end\_1--></td></tr></table><!--videotbl\_end\_1--><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3.txt

제목: [의술 인술]갑상샘암의 두 얼굴  
날짜: 2014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4100000033  
본문: 많은 사람이 갑상샘(선)암을 착한 암이라 부른다. 착한 암, 순한 암이라는 말은 갑상샘암 전문의사가 먼저 쓰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갑상샘암이 커지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거니와,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가 잘될 것이니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 쓰기 시작한 단어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갑상샘암 검진과 수술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 말이 마치 갑상샘암을 방치해도 되는 암, 가만히 놔둬도 되는 암인 양 오용되고 있다.<br/><br/>실제로 암을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갑상샘암도 다른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방사능 노출 방법 이외에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예방법이 없어 조기에 검진을 받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은 모든 암의 치료원칙이기도 하다.<br/><br/>대다수의 갑상샘암이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암인 것은 맞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갑상샘 분화암(유두암, 여포암)이다. 그러나 분화암 역시 종양이 느린 속도로 자란다는 것일 뿐이지 그대로 방치하란 얘기가 아니다. 암이 커지면 결국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갑상샘암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다. 분화암에 비해 유병률이 낮긴 하나 미분화암, 수질암은 난치성 갑상샘암으로 종양이 빨리 자라 예후가 좋지 않다.<br/><br/>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갑상샘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환자 스스로가 진행성 갑상샘암을 시사하는 통증 및 쉰 목소리, 객혈, 연하곤란과 같은 증상을 느낄 정도까지 방치하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어 수술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갑상샘 전문의가 아니라면 1㎝ 이상의 큰 암도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갑상샘암이 아무리 예후가 좋다고 하나 종양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큰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술 이후 합병증과 재발률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전엔 갑상샘 종양이 예후가 좋은 분화암인지, 난치성에 해당하는 암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br/><br/>따라서 갑상샘암도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갑상샘 초음파를 이용한 미세침 세포검사와 같은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싶다. 특히 갑상샘 종양을 이미 진단받은 경우, 소아청소년기에 두경부나 전신 방사선 조사(照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부모가 갑상샘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반드시 갑상샘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br/><br/>갑상샘암의 치료는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가이드라인은 종양이 0.5㎝ 미만일 경우 세포검사를 하지 말고, 1㎝가 넘으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0.5㎝ 미만이더라도 암이 기도와 식도, 혈관, 림프절, 성대 신경 주위에 위치한 경우 전이 위험이 높고, 0.6~1㎝ 갑상샘암도 일부에서 측면 림프절 전이와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보다는 수술이 권유된다. 따라서 갑상샘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갑상샘 전문의와 충분히 논의한 후 본인의 암 병기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는다면 갑상샘암의 완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4.txt

제목: [글로벌 한국 의료 2014 특집]서울성모병원 비뇨기암팀 - 최고 비뇨기암 치료 명성 ‘해외로, 해외로’  
날짜: 2014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4100000046  
본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암팀의 라인업은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뛰어난 수술능력 덕에 늘 ‘최초’ ‘최고’ 수식어가 붙는다. 국내 최초로 전립선암, 이식콩팥절제, 방광전절제 등의 복강경 수술에 성공한 황태곤 교수를 필두로 전립선암 로봇수술 베테랑이자 아·태전립선학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지열 교수, 최소 침습 전립선암 수술의 차세대 주자 홍성후 교수 등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다.<br/><br/>최고 비뇨기암 치료의 명성은 해외까지 뻗어가고 있다. 해외 환자뿐 아니라 외국 의사들도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러 온다. 특히 2013년 러시아에서 비뇨기암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가 전년 대비 58% 늘어났다. <br/><br/>최근 이지열 교수에게 다빈치 로봇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러시아인 콘드라트예프 세르게이(60)는 “며칠 만에 회복되어 집에 일찍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br/><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수술은 치료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고려해주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 답은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 등 최소침습술에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로봇 수술은 몸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전립선암을 떼어내면서 발기신경을 보존하고 괄약근 손상도 막을 수 있다.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다. 4개의 팔을 가진 수술전용 로봇으로 세심한 수술이 가능하며 정밀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을 입체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 수술 시간은 보통 2~3시간으로 수술 3~4일 후면 퇴원한다.<br/><br/>서울성모병원 비뇨기암팀의 성적은 뚜렷하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이 병원에서 수술한 비뇨기암 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은 전립선암 92%, 신장암 82%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수술한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은 전립선암 102%, 신장암 86%다. 또 전립선암의 재발 없이 생존하는 3년 무재발생존율도 복강경 수술은 91.9%, 로봇 수술은 92.6%였다.<br/><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비뇨기 질환, 특히 전립선암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 검진과 더불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금연, 금주 등 건강수칙을 지켜달라</span>”고 당부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5.txt

제목: [건강]허리둘레 줄이고 담배 끊어야 ‘120세’ 희망  
날짜: 2014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4100000032  
본문: “<span class='quot0'>올해를 금세기 내 건강수명 120세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span>”<br/><br/>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건협은 연간 400만명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한익 회장(71·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span class='quot1'>건강의 적신호를 미리 발견해 운동과 영양,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근거 중심의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군(건강경계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br/><br/><br/>조 회장의 말처럼 건협이 추구하는 목표는 건강위험군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이다. 건강검진으로 발견한 건강위험군에게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비만 예방 및 관리, 금연·절주 활동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br/><br/>나의 허리둘레 알기 및 건강수치 기억하기 캠페인, 청소년 금연짱 홈페이지 운영, 금연소책자 배포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br/><br/>“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캠프 운영, 공모전 개최, 건강캠페인 전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br/><br/>건협은 지난해 4436명의 암 확진자, 8만4000여명의 당뇨병 질환자, 27만7000여명의 당뇨병 고위험군(경계인) 등 수많은 질환자와 건강위험군을 찾았다. 질환자는 600개 협약 진료기관으로 안내하고, 건강위험군에게는 질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br/><br/>건협은 그동안의 건강증진 활동 경험을 살려 북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수단에서 기생충 질환 관리사업을 펼치고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협 본부와 16개 시·도 지부의 직원과 건협 어머니사랑봉사단은 의료취약계층 무료검진 및 봉사활동과 건강 환경 가꾸기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6.txt

제목: [글로벌 한국 의료 2014 특집]경희의료원 국제진료센터 - 양·한방 맞춤형 검진… 해외 환자 몰려  
날짜: 2014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4100000043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매년 해외 의료봉사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국제보건의료 향상에 꾸준히 기여했다. <br/><br/>1999년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시작으로 네팔, 몽골, 태국, 캄포디아, 러시아 등에서 2만4000여명의 환자를 현지 진료한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었다. <br/><br/>밀려드는 해외 환자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했다.<br/><br/><br/>국제진료센터는 이제 러시아는 물론 중국, 미국,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지의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2만3000명, 2013년 3만여명, 2014년 10월까지 2만4000여명을 합쳐 2010년 이후 치료한 외국인 환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br/><br/>조중생 국제진료센터장(이비인후과 교수)은 “<span class='quot0'>2013년 몽골 고비사막과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올해 7월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의사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꾸준한 해외 봉사활동과 의사 연수교육을 통해 해외 의료봉사를 선도하고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해외 환자들의 이목을 끄는 비결</span>”이라고 밝혔다.<br/><br/>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분야는 양·한방 맞춤형 건강검진을 비롯해 소화기암,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 인공관절, 안질환,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등이다.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비만, 피부미용, 디톡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한방 진료와 우수한 치료효과가 해외 환자의 요구 및 만족도와 맞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br/><br/>1대1 통역 서비스 역시 강점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전문 통역직원 전담제를 시행해 외국인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7.txt

제목: 암 환자를 위한 스마트 가발·내비게이션 깔창…‘입는 컴퓨터’의 진화, 카이스트서 경진대회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310015594256  
본문: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 심박수와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멋스러움과 기능적 측면을 모두 갖춘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보호자에게 응급 상황을 알리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br/><br/>13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 경진대회’에 참가한 성균관대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이날 경진대회 본선에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내놓은 작품 15개가 출품됐다.<br/><br/>암 환자를 위한 스마트 가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스마트 헬멧, 프레젠테이션 제어 의복, 내비게이션 깔창 등 ‘입는 컴퓨터’의 진화를 보여주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쏟아졌다.<br/><br/><br/><br/><br/><br/>웨어러블 컴퓨터는 사용자가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체와 의복 일부분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와 연동된 인터넷 기반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 분야는 건강관리와 정보·오락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에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 출품작도 15점 중 6개가 건강관리 제품이고, 9개는 정보·오락용으로 제작됐다. <br/><br/>영남대 학생들이 출품한 스마트 헬멧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 앞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후방카메라의 영상과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 등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작품이다. 또 세종대 학생들이 출품한 프레젠테이션 의상은 마우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발표자의 동작과 음성을 인식해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가거나 확대·축소 되도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br/><br/>이 밖에도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신발에 장착된 웨어러블 기기가 진동을 인식해 여행 경로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깔창’과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물속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앞을 볼 수 있도록 고안돼 수중 구조·수색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수경’ 등 다양한 출품작이 눈길을 끌었다.<br/><br/><br/><br/><br/><br/>경진대회 위원장인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시계와 안경, 의류 등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웨어러블 기기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기기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span>”고 말했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8.txt

제목: 수술 후 퇴원한 이외수 “암 극복하고야 말겠다”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310015593368  
본문: 12일 퇴원해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 자택으로 돌아간 소설가 이외수씨가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위암 극복의 의지를 밝혔다.<br/><br/>이씨는 “퇴원하고 감성마을 집필실에서의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이 밝았네요. 여기는 벌써 겨울입니다. 미친바람이 떼 지어 몰려다니는 소리. 창문이 푸득거리며 몸살을 앓는 소리. 얼마나 많은 날들을 불면으로 뒤척여야 봄이 올까요”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br/><br/>이어 그는 “하지만 누구의 인생에도 겨울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저는 오로지 암을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지요.”라며 병마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하는 트친들이여. 오늘도 기쁜 일만 그대들께”라는 인삿말로 글을 마무리했다.<br/> <br/><br/>앞서 지난달 22일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긴 투병에 들어갑니다. 검사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라고 쓴 글을 통해 자신의 투병 사실을 알렸다.<br/><br/>이씨는 하루 전인 21일 위출혈로 병원에 입원했고, 정밀검사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아 28일 위암 수술을 받았다.<br/><br/><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49.txt

제목: 송호철 우석대의료원장 “재활치료 강점 살려 암환자 삶의 질 높일 계획”  
날짜: 20141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310015597006  
본문: 송호철 우석대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사진) 취임식이 13일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 김응권 우석대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정희석 법인 사무국장, 한방병원 교수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br/><br/>송 원장은 “<span class='quot0'>전문적인 진료프로그램을 갖춘 진료센터를 개설하고 확장해 난치성 질환을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방병원이 갖고 있는 재활치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암이나 뇌졸중 환자 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br/><br/>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신임 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길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1'>임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병원을 이끌어 간다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김응권 우석대 총장은 “<span class='quot2'>송 원장은 한의학계에서 많은 신임을 얻고 있는 실력있는 의료인이자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젊은 경영인</span>”이라고 소개했다.<br/><br/>.<br/><br/>송 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의 여러 치료기술인 한약, 추나, 약침, 침 등은 수술 후 유착, 통증, 운동장애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수술 후와 사고 후 재활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우석대의료원은 항암면역센터 개설과 척추재활센터를 개편하고, 여성의학센터를 통해 여성질환 치료와 함께 산후조리원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등산과 운동프로그램으로 암과 난치병 환자들의 치유를 돕는 한편 아토피센터, 종합검진센터 등의 건강 강좌와 지역 공헌 프로그램을 강화한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0.txt

제목: 최초의 랩 히트곡 ‘래퍼스 딜라이트’ 래퍼 빅 뱅크 행크 사망  
날짜: 2014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210015583927  
본문: 최초의 랩 히트곡을 낸 힙합그룹 ‘슈거힐 갱 ’의 래퍼 빅 뱅크 행크(본명 헨리 잭슨)가 11일(현지시간) 향년 57세로 사망했다.<br/><br/>슈거힐 갱의 다른 멤버들인 원더 마이크와 마스터 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암으로 고통받았던 빅 뱅크 행크가 미국 뉴저지 잉글우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하면서 명복을 빌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br/><br/>1970년대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서 시작된 랩은 비트와 가사로 구성되며 멜로디보다 리듬에 기반을 둔 보컬 기술이다. 흑인 청년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과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특유의 억양과 구어체 표현을 기반으로 각운의 단어를 리듬에 맞춰 발성하는 방식으로 즐기면서 시작됐다. <br/><br/>빅 뱅크 행크가 소속된 슈거힐 갱이 1980년에 발표한 히트곡 ‘래퍼스 딜라이트’가 빌보드 메인차트에서 ‘톱 40’에 36위까지 진입하면서 랩은 흑인 하위문화에서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인정을 받게 됐다. 빅 뱅크 행크는 나이트클럽 경비원 등으로 일하다 나중에 ‘힙합의 어머니’로 평가받았던 가수 출신의 프로듀서 실비아 로빈슨의 눈에 띄어 슈거힐 갱 멤버로 합류했다.<br/><br/>이들의 그룹명 슈거힐은 할램 서쪽에 실제로 위치한 지명이며 음반으로 제작된 초기의 랩은 사회적 이슈보다는 파티의 여흥을 더하는 가볍고 밝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br/><br/>슈거힐 갱은 이후 ‘아파치’와 ‘8번째 원더’ 등 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 1999년 내놓은 어린이용 랩 앨범 ‘점프 온 잇’이 이들의 마지막 스튜디오 음반이다.<br/><br/>슈거힐 갱과 빅 뱅크 행크가 불을 당긴 후 랩은 단순한 음악 장르나 인종을 넘어 미국 하층민의 삶의 방식이자 그들 특유의 정신세계를 대변해주는 창구가 됐다. 랩은 재즈와 록에 이어 미국 대중음악에 흑인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사례로 재즈나 록이 미국 남부에서 유럽이민자 문화와 융합해 발생한 것과 달리 또다른 독자적인 흑인문화인 자메이카 지역 음악과 융합된 것이 특징이다.<br/><br/>‘파티 뮤직’으로 여겨지던 랩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영향을 준 아티스트로는 랩에 사회적 이슈와 공격적인 리듬을 더 한 런디엠씨 등이 꼽힌다. 런디엠씨는 대중적 성공을 누린 후 “<span class='quot0'>마이클 잭슨은 프린스에 눌렸고 프린스는 우리에게 눌렸다</span>”는 발언으로 흑인음악의 흐름을 표현하기도 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1.txt

제목: [건강설계]뱃살 늘 때 수명은 준다  
날짜: 2014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1100000009  
본문: “<span class='quot0'>10년의 시간을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가 적절한 비용이라 생각하는가?</span>”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답변도 각자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10년을 구매한다는 말이 실현 불가능한 말은 아니다. 다만 이때의 10년은 지금 바로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그냥 믿으라는 말은 아니다. 이미 임상에서 검증된 증거를 단순히 내 몸에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네덜란드 연구팀이 미국 프래밍엄 건강조사에 참여한 3000여명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40살 때 비만이면 수명이 각각 여성은 7.1년, 남성은 5.8년이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 데다가 담배까지 피울 경우 정상이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13년 정도 수명이 짧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br/><br/>과식에 의한 수명 단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과식으로 인해 영양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다. 이것이 오래되면 암이나 부속 장기의 노화가 촉진된다. 둘째로 세포 자살을 막는다. 병든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을 막게 되어 암세포처럼 계속 자라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해독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인체는 수백만 가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탈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인체의 유전자를 동원한 해독능력이 있기 때문이다.<br/><br/>산삼을 먹어서 수명이 10년 연장됐다는 보고는 없다. 하지만 미국 노화연구소의 조지 로스 박사는 15년 동안 원숭이에게 평균 식사량의 30%를 줄인 절식 실험을 한 중간 발표에서 수명이 30% 이상 연장됐다고 밝혔다. 쥐를 비롯한 포유류에서도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원숭이 유전자와 95% 이상 일치하는 사람에게 아주 보수적으로 대비시킨다 해도 10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확실한 장수법이 있는데도 실생활에서 다이어트하기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br/><br/>뱃살 속에 들어 있는 지방덩어리는 30대 이후에 많이 쌓이는데 이는 혈관 속으로 쉽게 녹아 들어가 성인병을 일으키는 독소 역할을 하게 된다. 뱃살이 1인치 늘어날 때마다 수명이 3년 감소한다는 말을 농담으로만 듣지 말 것!<br/><br/><손철훈 예한의원 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2.txt

제목: 많이 웃으면 암치료 부작용 줄어든다  
날짜: 20141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1010015566847  
본문: 암환자가 많이 웃으면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팀은 10일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 34명을 웃음치료그룹(15명)과 방사선 단독치료그룹(19명)으로 나눠 중증 피부염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br/><br/>연구결과 웃음치료를 받은 그룹의 발생률은 66.6%로, 웃음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의 84.2%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방사선으로 인한 중증 피부염은 항암 방사선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다. 피부가 발개지거나 열감,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80% 정도가 이런 중증 피부염을 겪는다.<br/><br/>연구팀은 총 16회에 걸쳐 웃음치료를 병행하면서 1~3단계의 피부염 등급(RTOG)을 측정했다. 피부염 1등급은 특정 부위가 붓고 가려운 정도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상태다. 2등급은 전체가 붓고 피부의 일부가 벗겨지는 정도이고, 3등급은 피부 전체가 벗겨지면서 진물이 나오는 화상과 비슷한 정도다. 2~3등급이 중증 피부염에 해당한다.<br/><br/>웃음요법은 거울보고 웃기, 음악에 맞춰 춤추기,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며 활동하기 등의 신체활동과 타인과의 교감을 중심으로 주 2회, 각 1시간씩 실시됐다.<br/><br/>웃음치료를 받은 그룹의 피부염은 2등급 이상의 증중 피부염 환자에게 효과가 컸다. 이 그룹 내 웃음치료 여부에 따른 차이는 최대 20% 포인트에 달했다고 의료진은 설명했다.<br/><br/>공 교수는 “<span class='quot0'>웃음치료가 투병 중인 암환자의 마인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초기 단계의 연구이긴 하지만 웃음치료 효과의 검증 대상을 기존 삶의 질, 우울, 불안 등에서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넓힌 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3.txt

제목: PET-CT, 방사선 피폭량 적다더니… 연간 자연 노출량의 최대 8배  
날짜: 2014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6100000120  
본문: 암 진단 장비인 양전자컴퓨터단층(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자연 상태에서 쬐는 방사선량의 3~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5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고 PET-CT 검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br/><br/>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암을 조기 진단하거나 완치 여부 등을 판정할 때 사용한다. PET-CT를 촬영할 때 방사선 피폭량은 10~25mSv(밀리시버트)이며, 1년간 일상생활에서 쬐는 방사선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건강한 사람이 암 조기 진단을 위해 PET-CT 촬영을 하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것이다.<br/><br/>복지부 등이 공동 작성한 의료기관 권고사항은 PET-CT 촬영 시 방사선량을 암 진단에 필요한 적정 수준인 12mSv 이하로 설정하고, 검사받는 사람에게 촬영의 이득과 위험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진자용 표준 안내문에는 촬영 시 피폭량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을 조기 진단해야 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span>”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4.txt

제목: 삼성그룹, 2014 삼성행복대상 시상식 개최  
날짜: 2014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610015549205  
본문: 삼성그룹이 6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빌딩 컨퍼런스홀에서 ‘2014년 삼성행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br/><br/>삼성행복대상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여성, 학술·예술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여성, 효행 실천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된다.<br/><br/>올해 여성선도상에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61), 여성창조상에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44), 가족화목상에 e세대 가정봉사단이 선정됐다. 청소년상 수상자는 김솔비(18·제주여상고 3학년), 박세은(18·관양고 3학년), 송은혜(18·해남공고 3학년), 이준영(17·부평공고 2학년), 정다영(18·전주사대부고 3학년) 학생이다.<br/><br/>정진성 교수는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과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내면서 위안부, 결혼 이주여성 등 인권을 위해 앞장선 공적을 평가 받았다. 정 교수는 한국여성학회장과 서울대 인권센터장도 맡았다.<br/><br/>백성희 교수는 세계 최초로 암전이 억제 유전자 및 암 전이 단백질 기능을 규명하는 등 암 조절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해 한국 연구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br/><br/>e세대 가정봉사단은 서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 270여명의 봉사단원이 독거노인 132명에게 봉사활동을 해 봉사단원 가족의 화목을 증진하고 혈연을 넘은 삼세대 통합 가족의 화목한 모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청소년상을 받은 5명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질병·장애·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정을 이끌고 학업에 매진했다.<br/><br/>수상자들은 4월부터 국내 각계 주요기관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고, 6~8월 부문별 심사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청소년상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원, 나머지 수상자들에게는 각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br/><br/><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5.txt

제목: [TV 전상서]또 뜬금없이 등장인물 죽이는 작가  
날짜: 2014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6100000056  
본문: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임성한 방송작가를 ‘전위예술가’라고 규정합니다. 극작을 몰라서 막장드라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레이저를 뿜게 하고 드라마에 말풍선을 넣는 등 전위예술가처럼 일부러 드라마로 과격한 형식을 실험하는 것 같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br/><br/>드라마가 도덕교과서도 아니고 계몽사상을 전할 이유도 없지만 아무리 전위예술가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의 확인’이 아닐까요. 자신의 옷을 찢고 물을 뿌리는 등의 과격한 행위를 해도 결국 그것이 삶을 통찰하거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체감하게 하기에 전위예술이 예술의 한 장르로 존재할 것입니다.<br/><br/>임성한 작가가 작품마다 개를 등장시키고 삼천배 등 불교의식이 강한 대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 등은 그의 취향이자 개성이므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채로운 실험을 한다해도 어떻게 작품마다 등장인물을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r/><br/><br/>지난주에 MBC 일일극 <압구정백야>에서 심형탁씨(사진)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는 장면이 방영되자 ‘임성한 데스노트, 드디어 발동’ ‘임성한 저주 시작’ 등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만든 캐릭터의 살생부를 만들고 저주를 하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임 작가는 그동안 각 작품에서 개그프로를 보고 웃다가 질식사, 등산 갔다가 추락사, 거울을 통해 그림자 없는 자기 모습 보고 충격사시키는 등 등장인물들을 수시로 죽여, ‘죽이기’는 이젠 그의 공식이 됐습니다. 개연성도 필연성도 없이 출연자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공분하고 연기자들조차 황당해해도 임 작가는 그의 철학을 버리지 않습니다. <br/><br/>방송작가가 드라마의 전지전능한 권력자라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 진리이긴 해도 그렇게 죽음을 쉽게, 드라마의 소품처럼 다루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r/><br/>전작 <오로라공주>에서 암에 걸린 주인공의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대사로 독특한 생명 철학을 보여준 임 작가가 암세포는 그리 소중히 여기면서 왜 정작 사람의 생명은 경시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 시청률이 7%였던 <압구정백야>가 심형탁씨의 죽음 후 10%로 올랐다는데, 설마 이걸 작가와 MBC 제작진이 기뻐하지는 않겠지요. <br/><br/>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다음엔 누가 죽을까’가 호기심거리가 되는 드라마를 ‘시청률’로만 평가한다면 제작진의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6.txt

제목: PET-CT, 방사선 피폭량 적다더니… 연간 자연 노출량의 최대 8배  
날짜: 2014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51001554401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복지부 ‘위험 고지’ 권고</strong><!-- SUB\_TITLE\_END--><br/><br/>암 진단 장비인 양전자컴퓨터단층(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자연 상태에서 쬐는 방사선량의 3~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5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고 PET-CT 검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br/><br/>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암을 조기 진단하거나 완치 여부 등을 판정할 때 사용한다. PET-CT를 촬영할 때 방사선 피폭량은 10~25mSv(밀리시버트)이며, 1년간 일상생활에서 쬐는 방사선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건강한 사람이 암 조기 진단을 위해 PET-CT 촬영을 하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것이다.<br/><br/>복지부 등이 공동 작성한 의료기관 권고사항은 PET-CT 촬영 시 방사선량을 암 진단에 필요한 적정 수준인 12mSv 이하로 설정하고, 검사받는 사람에게 촬영의 이득과 위험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진자용 표준 안내문에는 촬영 시 피폭량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을 조기 진단해야 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span>”라고 밝혔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7.txt

제목: [출장발명가 노승권의 알면 힘이 되는 생물학]모든 콜레스테롤은 해롭다? 콜레스테롤 바로알기  
날짜: 2014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5100000011  
본문: 콜레스테롤은 한국인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한국인 사망 원인 2위와 3위는 남녀 공히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있는 질병들입니다. 여기에 고혈압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여성 사망 원인 7위, 남성 10위)까지 더하면 콜레스테롤과 관련 있는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남녀 모두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사망률과 맞먹을 정도입니다.<br/><br/>이 통계만 보면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br/><br/>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일부도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듭니다. 다만 과잉의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됩니다. 혈관벽에 ‘피떡(혈전)’ 형태로 달라붙어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br/><br/>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는 운반 단백질(Carrier Protein)에 붙어 있습니다. 운반 단백질과 결합한 콜레스테롤을 지질단백질(Lipoprotein)이라고 하는데 지질단백질은 밀도에 따라 ‘저밀도 지질단백질(LDL: Low Density Lipoprotein)’ ‘고밀도 지질단백질(HDL: High Density Lipoprotein)’ ‘초저밀도 지질단백질’(VLDL: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등으로 나뉩니다.<br/><br/>그중 고밀도 지질단백질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주위를 단백질이 반지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결합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고밀도 지질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잉여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 분해되도록 하는 등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조절하는 이로운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HDL이 많을수록 LDL은 적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는 저밀도 지질단백질(LDL)은 분자량 1500가량의 콜레스테롤로 이뤄진 핵과 하나의 단백질이 결합한 형태를 보입니다. LDL은 크기와 밀도가 다양한데 크기가 작을수록 혈관벽에 잘 달라 붙습니다. LDL이 바로 심혈관질환의 주범입니다. 일단 LDL이 자리잡으면 백혈구들이 LDL을 산화시키고 여기에 다시 점점 더 많은 LDL과 백혈구들이 엉켜붙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br/><br/>초저밀도 지질단백질은 ‘또 하나의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인지질 등 다른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기가 매우 작고(30~80nm) 많은 중성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데 일조를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혈압을 올려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건강검진 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를 근거로 추정합니다. 정상수치는 5~30ml/dl입니다.<br/><br/>건강은 아는 만큼, 그리고 관리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관리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8.txt

제목: [TV 전상서]또 뜬금없이 등장인물 죽이는 작가  
날짜: 2014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510015543656  
본문: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임성한 방송작가를 ‘전위예술가’라고 규정합니다. 극작을 몰라서 막장드라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레이저를 뿜게 하고 드라마에 말풍선을 넣는 등 전위예술가처럼 일부러 드라마로 과격한 형식을 실험하는 것 같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br/><br/>드라마가 도덕교과서도 아니고 계몽사상을 전할 이유도 없지만 아무리 전위예술가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의 확인’이 아닐까요. 자신의 옷을 찢고 물을 뿌리는 등의 과격한 행위를 해도 결국 그것이 삶을 통찰하거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체감하게 하기에 전위예술이 예술의 한 장르로 존재할 것입니다.<br/><br/>임성한 작가가 작품마다 개를 등장시키고 삼천배 등 불교의식이 강한 대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 등은 그의 취향이자 개성이므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채로운 실험을 한다해도 어떻게 작품마다 등장인물을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r/><br/><br/>지난주에 MBC 일일극 <압구정백야>에서 심형탁씨(사진)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는 장면이 방영되자 ‘임성한 데스노트, 드디어 발동’ ‘임성한 저주 시작’ 등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만든 캐릭터의 살생부를 만들고 저주를 하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임 작가는 그동안 각 작품에서 개그프로를 보고 웃다가 질식사, 등산 갔다가 추락사, 거울을 통해 그림자 없는 자기 모습 보고 충격사시키는 등 등장인물들을 수시로 죽여, ‘죽이기’는 이젠 그의 공식이 됐습니다. 개연성도 필연성도 없이 출연자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공분하고 연기자들조차 황당해해도 임 작가는 그의 철학을 버리지 않습니다. <br/><br/>방송작가가 드라마의 전지전능한 권력자라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 진리이긴 해도 그렇게 죽음을 쉽게, 드라마의 소품처럼 다루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r/><br/>전작 <오로라공주>에서 암에 걸린 주인공의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대사로 독특한 생명 철학을 보여준 임 작가가 암세포는 그리 소중히 여기면서 왜 정작 사람의 생명은 경시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 시청률이 7%였던 <압구정백야>가 심형탁씨의 죽음 후 10%로 올랐다는데, 설마 이걸 작가와 MBC 제작진이 기뻐하지는 않겠지요. <br/><br/>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다음엔 누가 죽을까’가 호기심거리가 되는 드라마를 ‘시청률’로만 평가한다면 제작진의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br/><br/><유인경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59.txt

제목: 여성 폐암환자 88%가 비흡연자  
날짜: 20141104  
기자: 곽희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4100000160  
본문: 여성 폐암 환자의 88%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간접흡연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br/>국립암센터는 200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폐암센터에서 수술 받은 831명의 여성 중 730명(87.8%)이 흡연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폐암 발병 원인의 90%는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이다. 이진수 폐암센터 박사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은 1950~1960년대 부모나 남편, 조부모와 한방에서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경험이 노년기 들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br/>여성 폐암환자는 남성에 비해 늘고 있다.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국내 인구 10만명당 폐암 발생률은 1999년 28.9명에서 2011년 28.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폐암 환자는 이 기간 12.9명에서 15.5명으로 크게 늘었다. 남성 폐암 환자가 같은 기간 51.9명에서 46.7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br/>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치료는 비교적 우수하다. 폐암초기(IA기)에 수술 받은 비흡연 여성의 5년 생존율은 96.6%로, 나머지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84.4%)보다 높다. 암센터 측은 “표적치료제 효과가 흡연 환자보다 비흡연 여성 환자에게서 더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0.txt

제목: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위태롭게 젊은, 우리들의 ‘촐라체’ 박범신  
날짜: 2014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4100000016  
본문: 그가 불멸의 ‘은교’ 같은 소설을 써낼 수 있는 건 여전히 살아 있는 순정이 있기 때문이다. 70을 앞둔 그는 죽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쓰고, 도무지 죽지 않는 감수성과 순정 때문에 울고, 긴장감이 죽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까봐 오늘도 자신을 철저한 고독 속으로 유배시킨다.<br/><br/>지난여름, 독일 본에서 함께 지낸 프랑스 교수의 책상에서 ‘박범신’이라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오, 오!”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박범신의 소설 <더러운 책상>을 프랑스 드크레센조 출판사에서 출간한 것이었다. 문학을 공부하는 청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자전적 소설 <더러운 책상>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소설이다. 성장소설인데도 계몽적이지 않아서 박범신답다. 40권이 넘는 그의 장편소설 중에 내가 가장 아끼는 소설이었으나, 국내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봄, 프랑스의 권위 있는 평론가 모리스 무리에가 ‘위대한 한국 작가, 위대한 소설’로 박범신의 <더러운 책상>을 소개한 덕분에 자신도 읽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의 소설이 이국땅에서 새로운 언어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걸 작가는 알고 있을까. “이 소설 최고야!” 그가 말했고 “안목이 탁월하군!” 내가 답했다.<br/><br/>소설가 박범신. 그의 소설은 늘 전작을 배반하고 새로운 얼굴을 내민다. 그래서 박범신의 작품세계를 몇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추세가 문화 전반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요즘, 나에게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들라고 한다면 가장 탐나는 작가가 박범신이다. 그의 소설은 신만 나누어 놓아도 탄탄한 시나리오가 된다. 박범신의 소설은 영화 13편, 드라마 12편, 무용, 노래, 연극, 입체작품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탄생했다. 집필관이 있는 논산에서 박범신 작가를 만났다.<br/><br/>문학, 목매달고 죽어도 좋을 나무<br/>책 귀신이랑 떨어져 살아야 사람 된다고, 아버지는 18세 박범신을 계룡산 국사봉으로 보냈다. 아들이 안쓰러웠던 아버지는 딱 한 권 <희곡 시나리오선집>을 이불 보따리에 넣어주셨다. 책 모서리가 다 닳도록 읽었고, 덕분에 박범신은 작가가 되었다.<br/><br/>지독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다. 훗날 영화화된 소설 <풀잎처럼 눕다>는 고등학교 때 쓴 시나리오를 소설로 옮겨 쓴 것이다. 시골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문학밖에 없어서 소설가가 되었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나 얼마 못 버티고 서울로 상경했다. 잡지사 기자, 드라마 더빙원고를 소설로 옮겨 쓰는 일을 하다가 대학으로 돌아갔다. 원광대 국문과에 편입하여 아내를 만났고 졸업 후엔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면서 작가의 삶이 열렸다. ‘여름의 잔해’는 낙방한 원고를 모아둔 박스에 들어가 있었으나, 이를 우연히 발견한 기자가 본심 책상에 슬쩍 올려놓아 당선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의 당선소감은 비장하고 당돌했다. ‘문학, 목매달고 죽어도 좋을 나무!’<br/><br/>등단 후 매달 소설 600장을 쓰기도 했고, 잡지 3개에 동시연재를 하기도 했으며, 등단 후 10년간 20권의 소설을 출간했다. 문학에 목매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신들린 작업이었다.<br/><br/>내 아버지와 박범신<br/>열여섯 살, 내가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 마흔아홉 살 내 아버지는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서재 밖을 나오지 않았다. 책을 읽고 싶은 건지,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자 구석방에 유배지를 만든 건지 모를 일이었다. 나보다 아버지가 위태롭고 불안해 보였다. 나는 오랜 시간 아버지와 불화했고, 이해하기 싫었으나 그를 알고 싶어서, 아버지가 부재 중인 날 비밀의 방에 잠입하여 책상 위의 책들을 훔쳐 읽었다. 한동안은 박범신의 책만 쌓여 있었다. <죽음보다 깊은 잠>을 시작으로 박범신을 만났고,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침묵의 집>을 갖다드렸다. 박범신의 소설 중 최고라 했다. 아버지가 이승에서 읽은 마지막 소설이었다.<br/><br/>대중의 찬미 박수와 엘리트 비평가들의 인민재판<br/>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는 작가가 축복받은 시대였다. 연예인보다 작가의 인기가 높았다. 그 한복판에 작가 박범신이 있었다. 그의 소설은 영상적 묘사가 탁월한 덕분에 대중성을 동시에 얻는다. 박범신은 대중적 인기작가일 뿐이라는 오해와 비판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대중들의 찬미미사와 비평가들의 인민재판 사이에서 멀미를 겪으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범신은 예리하고 예민한 사람이다. 다수의 찬미미사보다 소수 엘리트 비평가들의 비판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상처이자 굴욕이었을 것이다.<br/><br/>“저처럼 대중에게 드러나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과 떠 있는 소문에 의한 이미지 사이에 깜깜한 오해의 거리감이 있죠. 예술가는 참담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건 내게 축복이었어요. 나를 긴장시켰기 때문이죠. 내 몸을 추락과 상승,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 오가게 하며 나를 긴장시켰기에 상상력의 우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창작력의 에너지였던 셈이죠.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br/><br/>그 가파른 경계에 예민한 박범신이 서 있었다. 오로지 원고지를 메워서 세 아이를 키워야 했다. 매일 쓰지 않았다면 미치거나 자살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br/><br/>아버지, 굴욕을 견디는 외로운 짐승<br/>그가 어떻게 그 시절을 건너왔을까, 나의 의문은 <소금>을 통해 해소되었다. 자신의 소금기를 다 빨려버린 이 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 꿈 같은 건 일찌감치 포기한 아버지, 굴욕과 모욕을 견디느라 쓰러진 아버지의 목에 빨대를 꽂고 단물을 빨아먹는 우리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br/><br/>“아버지는 슬프고 아름다운 존재죠. 소금기는 존재의 근원이에요. 죽음은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일사병으로 쓰러졌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간호했다면 살았을 텐데, 아들은 곧 일어나겠지 하고 서울로 떠나요. 소금을 생산하는 아비가 몸뚱이 안의 소금을 챙기지 못해서 죽는 것은 아이러니죠.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소금을 챙기지 못하면서 새끼들이 잘 빨아먹을 수 있도록 등을 대주고 있어요.”<br/><br/>자본주의가 장악한 시대, 아비의 소금기를 빨아먹는 것쯤이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아비는 “물 좀 주소” 외치는데, 핏줄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어떠한 미안함도 없이 아버지의 목에 빨대를 꽂는다. 과연 윤리적인가? 소설은 우리에게 묻는다.<br/><br/>암 선고를 받은 명우는 목에 빨대가 꽂힌 ‘아버지’라는 삶을 버리고 가출하고, 딸은 그를 찾아 헤맨다. 내 아버지도, 지금 등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든 아버지들도 가끔은 집을 버리고 가출하고 싶었으리라. 쓸쓸하고 눈물겨운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글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나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책상에서 훔쳐 읽던 소설을 통해서 내 아버지도 오욕칠정을 가진 남자였구나, 굴욕을 견디고 욕망을 삼키고 목에 빨대 꽂힌 채 쓰러져 죽은 게 내 아비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글을 읽는 동안, 나는 수도 없이 집 나간 아버지를 찾아 나서고, 아버지를 만나고 울고 화해해야 했다.<br/><br/>‘아버지는 또 속으로 저승사자를 향해 외치고 있었을 것이다. 난 지금 못 가, 저 어린 것 때문에 못 가, 나는 아버지야, 애비노릇 저것 클 때까진 해야 해….’ 산문집 <남자들 쓸쓸하다>에서 만난 문장을 안고 며칠 밤을 운 적도 있었다.<br/><br/>상상력의 불이 꺼지면, 박범신은 사라진다<br/>1993년, 그는 ‘상상력의 불은 꺼졌다’는 글을 발표하고 절필선언을 한다. 대중적 인기와 기득권이 좋았으나 어느 순간 기득권을 버리고 죽어서 새로 태어나야겠다는 절실함이 생겼다.<br/><br/>“한 인간으로서의 나, 작가로서의 나, 독자들이 이미지로 갖고 있는 소문으로서의 나는 각각 너무 멀다고 느꼈지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나 사이도 그러했고요. 너무 고독했어요. 베스트셀러 시장을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장편 <외등>을 연재하다가 절필선언을 하고 3년 동안 용인 외딴집에 은거해 오로지 혼자 지냈어요. 독자들이 나를 잊기 바랐던 시기였고, 유명작가로서 얻은 기득권이 해체되길 기다린 시기라고나 할까요. 절필은 작가로서 일종의 자기죽음의 선언이었지요, 나날이 죽고 싶었고 새로 태어나고 싶던 시기였지요.”<br/><br/>교수직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히말라야에 가서 3개월을 걸어다녔다. 몸무게는 50㎏까지 내려갔다. 사서 하는 고통이지만 나를 긴장시켜야만 글을 쓸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 자신을 긴장시키기 위해서는 늘 변화를 시도해야만 했다.<br/><br/>“나를 긴장시킬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해봤으니 이제 안 해 본 건 이혼밖에 없는 거예요. 원고를 쓰다가 새벽에 침실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함께 오래 산 남편이 아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건 슬픈 일이에요. 이 여자와 이혼한다는 생각을 하니 울컥 눈물이 나더군요. 젊은 시절 내가 사랑한 여자는 오간 데 없고 그 얼굴에는 나와 함께한 41년 인생 동안 잃어버린 젊음과 열망…, 잃어버린 것만 가득했어요. 뜨겁게 그 여자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저처럼 감상적이면 이혼할 수가 없어요.”(웃음)<br/><br/>차라리 소설을 버리는 게 쉽겠다는 생각을 했다. 혼자 고향 논산으로 내려갔다. 문학적으로 더 긴장하기 위해서 철저히 고독하고 거친 환경으로 자신을 유배시켰다.<br/><br/>강남 룸싸롱엔 ‘은교’가 산다… 소설 <은교>에 대한 오해<br/>소설 <은교>. 17세 소녀 은교는 과연 그에게 여자였을까? 소설을 안 본 독자들은 노교수가 은교를 사랑했다고 오해한다.<br/><br/>“은교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우린 모두 마음속에 은교를 품어야 해요. 마음속에 꿈꾸는 것, 그리운 것, 진선미를 갖춘 완전한 아름다움, 그게 다 은교인 거죠. 내겐 좋은 소설이 은교예요. 은교는 영원히 불멸하는 17세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가치가 은교입니다. 노인의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주자학이 전파한 바이러스죠.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 노욕이라 하지 마세요. 나는 꽃이 아름다운 걸 느끼는 데 50년이 걸렸어요. 은교를 꺾어서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바라보고 싶은 것, 이게 은교의 본질이죠. 내 소설을 오해하지 마세요.”<br/><br/>소설 속에 젊은 서지우와 노교수 이적요의 노트는 있지만 은교의 노트는 없다. 은교는 현실의 존재가 아니라 관념이자 불멸하는 꿈의 존재인 것이다.<br/><br/>“<은교>를 쓴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영화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은교가 일종의 보통명사처럼 회자되고 있어요. 강남의 룸싸롱마다 ‘은교’가 있고, 여자를 만나면 성희롱처럼 ‘너 내 은교 해줄래?’ 말하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대요. 내 작품이 문학작품으로 비판받고 회자되는 건 환영하지만, ‘은교’를 오독할 거라면 차라리 잊어주세요. 늙어가는 노인의 슬픔, 그렇지만 그 시간에 순응하고 싶지 않은 반역의 마음이 담긴 소설이란 걸, 독자들은 알 것입니다.”<br/><br/>박범신의 나이와 호기심은 함께 자란다<br/>2005년, 네이버에 소설 <촐라체>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작가는 박범신이었다. 인터넷 소설은 저급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던 시절이었고, 문학성을 인정받은 작가가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었기에 적잖이 당황했다. 육체적 나이가 높아질수록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자라는 듯했다. 출판사를 설득하여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간하는 모험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도 박범신이었다. <은교>를 출간할 때의 일이다. 그의 시도는 늘 성공했다. <촐라체>는 100만명 이상의 독자들이 읽었고, 그 후 인터넷 소설 쓰기는 보편화됐다.<br/><br/>“<촐라체>를 연재할 때 후배들이 말렸어요. 무절제하게 달리는 악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작가로서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다…. 악플은 처음부터 걱정 안 했습니다. 평생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악플이 있다면 다 박범신의 문학에 대한 거겠죠. 문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작가죠. 인터넷 글쓰기가 저급하다는 인식은 저한테 전투력을 배가시켰죠. 내가 인터넷 상에서 모범적인 글쓰기를 한 번 해볼 게. 거기가 쓰레기통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겠다고 생각했죠. 작가는 독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문학이 소외되지 않아요.”<br/><br/>감수성이 살아 있다는 것, 천당과 지옥을 왕래하는 것<br/>“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환경적으로 불행해서가 아니라 내 감수성에 비치는 세계는 여전히 불온하고, 광기로 가득 차 있고, 상처투성이에요. 내가 행복해진다면 무엇을 동력으로 글을 쓰겠어요. 작가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가슴 아프게 느끼는 존재지요. ‘좋은 소설이 나의 은교야, 소설은 나의 촐라체야, 더 좋은 소설을 써 봐야지’ 하면서 우기고 가는 거지요.”<br/><br/>다음 소설은 어떤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지 그에게 물었다.<br/><br/>“<은교>를 써서 성공했으면 다음에 비슷한 스타일로 <금교>를 써야 장사가 좀 되죠.(웃음) 그런데 난 <소금>을 썼습니다. 전혀 다른 작가가 쓴 것 같은 소설이죠. 나는 끝없이 내가 쓴 작품을 배신하려고 노력하고, 독자를 어떻게 깜짝 놀라게 할까 고민합니다. 아직도 쓰지 못한 가슴속 이야기가 많아요.”<br/><br/>‘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br/>어느날 한밤중에 딸에게서 온 문자다.<br/>“뭔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듯했어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죠. ‘사랑에 완성이 있겠니…’라고 답장을 했지만 밤새 걱정을 했지요. 아침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답했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고 믿는 여자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거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아내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자궁을 가지지 못한 자의 한계라고 할까요? 자궁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지키고 희망을 접지 않는 것은 남자들이 이를 수 없는 경지죠.”<br/><br/>이룰 수 없을지라도 가슴속에 ‘촐라체’ 하나 품고<br/>그의 집필관이 있는 논산에서는 2년째, 독자와 작가가 만나서 함께 걷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와초 박범신 문학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 18일, 작가와의 대담을 맡게 된 건 내게 남다른 의미였다. 열여섯 살의 나와 마흔아홉 살 아버지, 늙지 않는 박범신이 다시 모였다.<br/><br/>늦은 밤, 문학축제는 끝났지만 작가도 독자들도 차마 아쉬워서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4일간 작가와 함께 논산의 아름다운 산천을 걷는 ‘소풍’ 행사부터 공연과 작가와의 대담으로 꾸며진 문학제, 집필관 오픈하우스까지 5일간 논산에 머문 독자들도 여러 명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문학축제를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은 어떨까.<br/><br/>“민망하고 부끄럽지요. 안 하고 싶었는데 고향사람들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웠어요. 논산 집을 공개하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독자들이 작가의 서재를 방문하는 건 특별한 경험이 될 테니까 저도 좋아요. 논산 길을 함께 걷다가 독자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해요. 작년 걷기행사 때 만난 처녀 총각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이번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내가 주례를 서줄 거예요. 육체적 나이듦이 주는 흐뭇함이란 게 있어요.”<br/><br/>그에게 꼭 묻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을 건넸다.<br/><br/>“젊음은 아름답지만 늘 위태롭습니다. 저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br/><br/>“젊음은 어느 시대든 불안한 거지만, 젊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에너지도 함께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정체성만 확인한다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자기 내부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br/><br/>집에 돌아온 나는, 다시 촐라체를 펼쳤다.<br/><br/>촐라체는 ‘산’이며 ‘꿈’이고, 살아 있는 ‘사람’이며 온갖 카르마를 쓸어내는 ‘커다란 빗자루’이다. 예컨대, 내겐 평생 ‘문학’이 피켈 하나 들고 거대한 빙벽을 실존적으로 올라야 되는 ‘촐라체’였고, 앞으로도 아마 죽는 날까지 그럴 것이다…. 이 유한한 인생에서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욕망에 따른 ‘성취’가 아니라 이룰 수 없을지라도 가슴속에 ‘촐라체’ 하나 품고 사는 일이 아니겠는가.(본문 11쪽)<br/><br/>위태롭게 젊은, 작가 박범신. 70을 앞둔 작가가 뿜어내는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은 죽음과의 투쟁이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쓰고, 도무지 죽지 않는 감수성과 순정 때문에 울고, 긴장감이 죽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까봐 오늘도 자신을 철저한 고독 속으로 유배시킨다.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기에 도무지 늙을 시간이 없는 사람 박범신- 당신은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촐라체!<br/><br/><박상미 문화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1.txt

제목: 어느 인턴의 고백 “개인비서로 부려먹고, 교수 논문 정리까지”  
날짜: 20141104  
기자: 박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4100000202  
본문: ‘정형외과 인턴(수련의) 과정 사고팔기’는 “인턴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하고 가혹한 일들 때문에 생겨났다”는 게 전·현직 세브란스병원 인턴들의 분석이다. 인턴 과정 암거래 관행을 다룬 경향신문 보도(3일자 1·3면) 이후 전·현직 세브란스병원 인턴들이 추가로 사고팔기 관행 문제를 증언했다. <br/><br/>현직 세브란스병원 인턴 ㄱ씨는 3일 “<span class='quot0'>비밀이 보장된다면 몇 가지 기사 내용에 덧붙일 것이 있다</span>”고 경향신문에 알려왔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인턴 과정의 구체적 거래 액수가 100만~700만원이라며 허술한 병원 감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병원 측에서 사전에 인턴들에게 감사 예정 사실을 알렸고, 감사도 진술서만 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전했다.<br/>수년 전 세브란스병원 인턴 과정을 마친 ㄴ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년 전부터 돈을 주고 정형외과 인턴을 거래하는 관행이 생겼다. 지난달 의국장 간담회 때 ‘다 징계처리하려다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기사가 더 일찍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r/>그는 “정형외과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된다”며 “문제는 인턴들이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분노로 가득 차고 책임감도 사라지며 환자들에게도 불친절하게 된다. 결국 환자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br/>ㄴ씨는 자신이 인턴을 하며 겪은 일도 전했다. 그는 “일 자체도 힘들고 하루 1~2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일들까지 감당해야 하는 게 더 힘들었다. 레지던트를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담배 한 보루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야 했고, 레지던트와 그의 여자친구 100일 기념일에 케이크를 사는 일까지 했다. 인턴을 개인비서같이 부려먹는다”고 말했다.<br/>ㄴ씨는 인턴들이 교수 논문의 연구 데이터 정리까지 떠맡았다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보통은 연구 간호사가 하거나 논문을 실제로 쓰는 레지던트가 해야 하는 연구 데이터 정리를 인턴에게 시킨다</span>”고 했다. <br/>세브란스병원 측은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 인턴들 간 문제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병원이 개인 간의 금전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이 실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서를 받은 것이 최선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인턴끼리 병원에서 정해진 교육 방침을 어기고 자신들끼리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도덕성 문제로 본다</span>”고 말했다. <br/>또 다른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돈이 오간 것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더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의사가 되는 인턴 과정이 전체적으로 힘든 과정이고 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br/>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span class='quot2'>현 인턴제의 폐지를 통해 순기능은 최대한 유지하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 중이며 시행 시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문제와 전공의 선발 등의 혼선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함현석 의대협 회장은 앞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3'>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인턴을 보호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턴제 폐지가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2.txt

제목: “간접흡연 때문에”···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 증가세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310015521637  
본문: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적 가족에 의한 간접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br/><br/>3일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의 암 통계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폐암 수술을 받은 2948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 환자가 10명 중 3명꼴에 해당하는 831명(28.2%)으로 집계됐다. <br/><br/>주목할 점은 이중 대다수인 730명(87.8%)이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br/><br/><br/><br/>폐암센터 이진수 박사는 “<span class='quot0'>50~60년대 가난했던 시절 부모나 남편, 조부모, 형제와 한방에 함께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간접흡연에 노출된게 노년기 들어 폐암으로 진단받는 주요 이유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 <br/><br/>이어 “어릴 적 남성보다 여성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었던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br/><br/>여성 폐암환자 증가 추세는 국내 폐암 발생 통계치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인구 10만명당 폐암 발생률은 1999년 28.9명에서 2011년 28.7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2.9명에서 15.5명으로 유독 증가했다. 반면 남성은 10만명당 51.9명에서 46.7명으로 줄었다.<br/><br/>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흡연 폐암 여성의 수술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초기(IA기) 폐암의 경우 비흡연 여성의 5년 생존율이 96.6%로 전체 폐암환자의 5년 생존율(84.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수술 후 재발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는 재발 이후부터 중앙생존값이 34개월로, 5년 생존율도 22.5%에 달했다.<br/><br/>암센터는 표적치료제에 잘 듣는 유전자변이가 흡연자보다 비흡연 여성 폐암환자한테 더 많아 암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br/><br/>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1'>폐암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금연하고 간접흡연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특히 영유아나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pan>”고 권고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3.txt

제목: 여성 폐암환자 88%가 비흡연자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31001552795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어릴 적 간접흡연 탓 추정</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남성보다 발병 증가율 뚜렷</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흡연자보다 생존율은 높아</strong><!-- SUB\_TITLE\_END--><br/><br/>여성 폐암 환자의 88%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간접흡연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br/><br/>국립암센터는 200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폐암센터에서 수술 받은 831명의 여성 중 730명(87.8%)이 흡연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폐암 발병 원인의 90%는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이다. 이진수 폐암센터 박사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은 1950~1960년대 부모나 남편, 조부모와 한방에서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경험이 노년기 들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br/><br/>여성 폐암환자는 남성에 비해 늘고 있다.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국내 인구 10만명당 폐암 발생률은 1999년 28.9명에서 2011년 28.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폐암 환자는 이 기간 12.9명에서 15.5명으로 크게 늘었다. 남성 폐암 환자가 같은 기간 51.9명에서 46.7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br/><br/>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치료는 비교적 우수하다. 폐암초기(IA기)에 수술 받은 비흡연 여성의 5년 생존율은 96.6%로, 나머지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84.4%)보다 높다. 암센터 측은 “표적치료제 효과가 흡연 환자보다 비흡연 여성 환자에게서 더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br/><br/><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4.txt

제목: 자궁경부암 정기검진, 미혼여성들도 중요성 커져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310015525684  
본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25세 이하 미혼여성의 34%는 성 경험을 갖고 있고 25%는 1개월에 3차례 이상의 정기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경험 나이는 19~20세가 가장 많았다. 이는 순천향대 산부인과의 ‘한국 젊은 여성의 성의식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성관계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바뀐 인식을 보여준다.<br/>&#160;<br/>자유롭고 대담해진 연애, 연애와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 좀 더 대담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TV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현실에서의 대화와 실천도 좀 더 과감해졌다.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통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임신했음을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피임법 등 실제적인 성교육과 관련 질환과 책임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br/>&#160;<br/>이처럼 첫 성경험 나이가 어려지고 25세 이하 미혼여성들의 자유로운 성생활이 보고되면서 그에 다른 성매개질환의 예방적 조치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성관계로 감염되는 인두유종바이러스(HPV)가 여성의 자궁 경부에 침투하여 생기는 자궁경부암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한다.<br/><br/>실제로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상피내암으로 진료받는 젊은 여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상피내암으로 진료받은 20~29세 여성은 50%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그 나이대의 여성들이 상피내암, 혹은 1기 암을 갖고 있을 확률은 매우 높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나이인 30세에도 수검률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10대는 1% 미만, 20대는 5% 미만이 자의에 의해 검진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관계 관련 통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다.<br/>&#160;<br/>논란의 중심에 있는 값비싼 예방적 조치보다는 널리 검증된 방법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성관계가 있다면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을 나이나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저렴한 검진비용과 간단한 방법 덕에&#160;널리 시행되고 있는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 국가 검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20대 이하의 정기검진은 기왕이면 더욱 정확하고 명쾌한 검사로 시행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br/>&#160;<br/>분자진단 기술의 HPV DNA 검사는 자궁경부에 감염된 바이러스의 종류와 양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검사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160;초기 자각증상이 없는 자궁경부암은 검진 대상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면 암으로의 전이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한다.&#160;더불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함께 실천해 간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한다.&#160;씨젠우먼 사이트(www.seegenewoman.com)를 방문한다면 자궁경부암 검진과 생활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업체 측은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5.txt

제목: 제17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 성료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310015527339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대만 타이페이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제17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이하 ICOM)’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ICOM은 한의협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는 전통의학분야 국제학술대회다.<br/><br/><br/><br/>이번 대회주제는 ‘건강증진을 위한 전통의학: 과거, 현재, 미래’였으며 증상에 대한 전통의학 진단기준연구, 전통약물 표준화연구, 임상연구와 Case리포트, 암 예방·치료법 등 약 300여편의 학술논문과 포스터 등이 발표됐다.<br/><br/>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동양의학회(ISOM)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지금까지 국제동양의학회가 발전해 온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ISOM 발전에 기여한 전통의학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다.<br/><br/>공로패 수여자는 홍순봉 전 ISOM 회장, 선우기 전 ISOM 사무총장 등이다.<br/><br/>대회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시도지부 및 한의학회 임원진을 비롯한 100여명의 한의학계 인사 및 관계자가 참석해 뜻을 기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6.txt

제목: 아사이베리, 망고스틴 주스가 만병통치약?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310015526437  
본문: 아사이베리,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로 만든 주스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10배의 이득을 올린 다단계 판매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서울 강남경찰서는 과일주스의 성분을 허위 표기하고 암, 당뇨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외국계 다단계판매회사 회장 정모씨(47)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제품설명회를 열고 “<span class='quot0'>암, 당뇨병 등 10가지 질병 치료·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span>”고 속여 6만7000명에게 다단계방식으로 과일주스 45만병을 팔아 739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br/><br/>이들은 주스 1병에 7000∼9000원에 공급받아 7만7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이베리, 망고스틴 등으로 만든 제품에 ‘원액 100%’라고 표기했으나 실제로 정제수와 구연산, 잔탄검 등이 첨가된 주스였다. 판매원 직급을 15단계로 나눠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다단계 회원을 모집, 직급과 매출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일부 다단계 판매원들은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각종 주스의 효능을 과장해 의약품처럼 혼동할 수 있도록 한 동영상 등을 게시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7.txt

제목: “진료비 50% 할인” 불법 환자유인…속빈강정 진료 우려  
날짜: 2014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310015527935  
본문: “110개 항목 건강검진 140만 원→60만 원, 인공관절수술 50% 할인, 선착순 100명에게 뼈 이식비용 반값…’<br/><br/>진료비 할인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다. 기업이나 아파트 단지 등과 협약을 맺고 VIP 카드를 발급해 우대 혜택을 주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아예 할인 쿠폰을 발급하기도 한다.<br/><br/>문제는 진료비 할인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도 진료비 할인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할인된 의료쿠폰이나 시술권을 판매하는 것도 물론 불법이다.<br/><br/>의료계 전문가들은 병원의 진료비 할인 경쟁이 심화되면 적정 진료를 보장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환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br/><br/>인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ㄱ씨는 지난해 증상이 심한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수술을 미뤘다.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인근 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ㄱ씨는 최근 인근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ㄱ씨를 재수술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척추수술 부위의 조직과 신경이 뒤엉켜 상태가 악화됐다”고 귀띔했다.<br/><br/>검사비를 대폭 할인해 주는 건강검진도 피해가 잠재돼 있다. 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건강검진 비용을 대폭 낮춘 병원은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 CT나 MRI 장비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촬영 후 판독이 힘들거나 판독 과정이 정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방사선 영상의 화질 불량, 또는 잘못된 판독으로 암을 진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br/><br/>의료계 관계자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표준화나 정량화가 안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같은 진료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은 오히려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8.txt

제목: 순천 청암대,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날짜: 2014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210015517805  
본문: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일본 관련학회 등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br/><br/>순천 청암대는 1일과 2일 학내 건강복지관 3층 합동강의실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을 열었다고 밝혔다. <br/><br/>이번 행사는 청암대학교, 일본 국제쿠마노학회, 일본 명치대학대학원교양디자인연구과, 명치대학사생학·기층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대만 남대과기대학과 재한명치대학교우회가 후원했다. <br/><br/>심포지엄은 ‘일본학의 구축을 위해’라는 큰 주제로 지난 1일 오후 일본 명치대학 법학부의 하야시 마사히코(林 雅彦) 교수의 개회사와 청암대학교 강명운 총장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br/><br/>이어 일본 명치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만 유학생 린슈틴(林書廷)과 이와이하루코(岩井 晴子)씨,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인 홍성목 교수, 국제쿠마노학회 회원인 야스이 타다오(安井 理夫)씨가 발제했다.<br/><br/>2일은 교수세션으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전렬 교수와 일본 명치대학의 하야시 마사히코 교수의 사회로 잔행했다.<br/><br/>청암대학교 오기훈 교수는 ‘헤이케이야기(平家物語り)에서 보이는 운명의식’, 김인덕 교수는 ‘항일운동가 박열 선생의 사상과 사생관’에 대해 발표했다.<br/><br/>한국 외국어대학교 김종덕 교수는 ‘일본 헤이안(平安)시대의 병과 이야기의 작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덕 수석연구원은 ‘한국 일본 대중문화 수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br/><br/>일본 명치대학 카네야카 아키오(金山 秋男) 교수는 ‘일본인의 타계관의 조형을 갖는다’는 주제로, 이케다 이사오(池田 功) 교수는 ‘일본 근현대문학 작품에서 질병 묘사의 변용을 결핵과 암과 ED를 중심으로’ 발표했다.<br/><br/>대만 남대과기대학 신사쿠 신이치(神作 晋一) 교수는 대학의 일본어 중급수업을 예로 들어 ‘TV 프로그램을 도입한 일본어 수업의 운영’에 대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교수 등이 나섰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일본 각지에서 20여명이 찾았다.<br/><br/>이번 국제심포지움은 2012년 일본 명치대학, 2013년 중앙대학교에 이어 청암대학교에서 3번째로 열었으며, 지방대 차원의 행사는 처음이다.<br/><br/>청암대학교 측은 “<span class='quot0'>개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지방대학으로서 국제학술 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주최했다</span>”고 말했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69.txt

제목: 우리 가족 위협하는 갑상샘암 올바로 알기  
날짜: 2014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1100000001  
본문: 최근 한 방송 매체에서 뮤지컬 배우 전수경이 4년 전 갑상샘암 투병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됐다. 그녀는 “뮤지컬 배우로서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라고 밝히며 갑상샘암 투병시의 심경을 전했다. 모델 겸 배우 변정수 또한 “<span class='quot0'>2년 전 갑상샘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리마인드 웨딩을 올렸다</span>”라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현재는 건강을 되찾아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암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기 검진과 적극적인 수술 치료 덕분이었다.<br/><br/>암 발생률 1위,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br/>갑상샘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한다.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총 4만5백68명이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1위, 남성의 경우는 7위에 해당하며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 4.7배 많다.<br/><br/>갑상샘암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여성호르몬이 갑상샘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15세에서 64세까지 남녀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샘암이다. 따라서 갑상샘암은 모든 성별, 전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암이지만 뚜렷한 예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br/><br/>갑상샘은 목의 앞부분에 갑상샘 연골을 기준으로 2, 3cm 아래에 위치해 있다. 내분비 기관 중 하나로 갑상샘호르몬을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내보내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갑상샘암은 목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갑상샘에 생기는 암을 총칭한다.<br/><br/>혹시 내 가족이 갑상샘암 고위험군?<br/>갑상샘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방사선 조사(照射)나 방사선 치료 경력, 가족력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두경부에 방사선 조사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소아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전신 방사선 조사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등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br/><br/>가족력이 있어도 고위험군으로, 부모가 갑상샘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진단받은 경우 자녀에게 갑상샘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 아들의 경우 7.8배, 딸의 경우 2.8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갑상샘암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br/><br/>진행이 빠른 갑상샘암도 있어 주의해야<br/>갑상샘암은 진행이 느려 ‘거북이암’이라고도 불린다. 실제로 국내 갑상샘암의 95%를 차지하는 갑상샘 유두암은 천천히 퍼지는 특징이 있어 다른 암처럼 시간을 다퉈 치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부 갑상샘암은 진행 속도가 빨라 주위 조직 침윤 및 원격 전이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br/><br/>이러한 암을 미분화암이라고 하는데, 갑상샘암 환자 1백 명 중 5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암세포는 성숙 정도인 분화도에 따라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나뉜다. 분화암은 성숙이 비교적 잘돼 정상 세포를 많이 닮았지만, 미분화암은 정상 세포와 거의 닮지 않고 미성숙한 형태를 보인다. 미분화암은 암세포의 분열이나 퍼져나가는 속도가 빨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r/><br/>정기검진 중요, 치료 빨리 할수록 좋아<br/>강남차병원 외과 박해린 교수는 “<span class='quot1'>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 덩어리가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 바로 치료하는 것이 갑상샘암 완치로 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span>”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span class='quot1'>이미 갑상샘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암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라고 밝혔다.<br/><br/>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등에 따르면 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현재 크기만으로 앞으로의 전이 양상이나 예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고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갑상샘암의 치료를 결정할 때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Check List<br/>이것이 갑상샘암의 위험 신호들!<br/>V 목 부위의 결절이 크거나 최근에 갑자기 커졌다.<br/>V 결절이 커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 호흡 곤란 증상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적이 있다.<br/>V 갑상샘에 덩어리가 있으면서 목소리도 변했다.<br/>V 결절이 주위 조직과 붙어 있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br/>V 결절이 매우 딱딱하게 만져진다.<br/>V 결절과 같은 쪽에서 림프절이 만져진다.<br/>V 가족 중에 갑상샘암 환자가 있고 갑상샘에 결절이 만져진다.<br/><br/>Mini Interview<br/>강남차병원 외과 박해린 교수가 알려주는<br/>갑상샘암 수술 팁<br/>1 갑상샘암 수술은 크기뿐 아니라 위치와 종류, 고위험군 여부를 모두 고려해 결정한다.<br/>2 0.5cm 이하의 경우에는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미세침 세포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절이 기도, 식도, 혈관, 림프절, 성대 신경 주위에 있는 경우 수술을 한다.<br/>3 0.6cm와 1cm 사이는 측면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적 관찰보다는 수술을 권유한다. 1cm 이상은 무조건 수술한다.<br/>4 갑상샘암 중 예후가 좋은 분화암(유두암, 여포암)이 아닌 미분화암, 수질암과 같은 난치성 암의 경우 수술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0.txt

제목: .  
날짜: 2014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1100000048  
본문: Info<br/>최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형질전환 ‘형광 소’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불을 끄고 소에게 자외선을 비추면 코 부분이 마치 형광 스티커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서 형광 소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건 아닐 테고, 형광 소가 도대체 뭐지?<br/><br/>형광물질, 그거 나쁜 거 아님?<br/>형광물질 하면 화장지를 더 하얗게 만들려고 넣는 형광증백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소의 코에 나타나는 형광빛은 그것과 전혀 다른 물질이다. 정식 명칭은 녹색 형광 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이란 것으로 해파리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연구한 일본 과학자 시모무라 오사무는 200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쉽게 말해 체세포 내에 이 녹색 형광 단백질의 DNA가 존재할 경우. 소에서 털이 없는 부분(코, 발 혹은 귀)에 강한 형광색을 발현하게 만든다.<br/><br/>그럼 녹색 형광 단백질을 왜 소에게 넣으려 하는데?<br/>반짝반짝하는 예쁜 형광색을 해파리에게서만 보면 되지 인위적으로 동물에게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동물을 통해 생산하고 싶은 유용한 유전자들이 잘 발현됐는지 이 형광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냥 체세포 복제를 한 동물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일이 발현이 잘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한다. 그저 불을 끈 상태로 자외선을 비춰봐서 형광색이 나면 유전자 발현의 성공 여부를 금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생쥐, 닭, 물고기 등을 통해 녹색 형광 단백질 발현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에는 소와 같은 큰 동물에서 발현한 성공 사례도 있었다. 소와 같이 몸집이 큰 동물에게 필요한 유용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암 등을 치료하는 고가의 단백질을 더 값싸고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게다가 이번에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생산한 형광 소의 경우 코의 색깔을 임의로 바꿀 수도 있다. 이는 생명공학 부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br/><br/>색깔이 바뀐다고? 그게 무슨 의미지?<br/>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와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만든 소는 기존 형광 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존에 형질전환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래 유전자를 소의 정자, 난자, 수정란에 넣었는데, 이는 암 유발 유전자를 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DNA 트랜스포존’이란 것을 주입한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소를 생산했다. 자, 여기서 DNA 트랜스포존에 밑줄 쫙! 트랜스포존이란 본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끼어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생산된 소는 처음에는 녹색을 띠고 있으나 재조합 단백질이라는 특수 물질을 주입하면 적색으로 바뀔 수 있다. 세포 단계가 아닌 성체 단계에서 임의로 유전자 조절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이를 응용하면 외래 유전자를 쉽게 삽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은 물론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소를 통한 세계 최초의 사례 보고로, 현재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와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공동으로 이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br/><br/>그럼,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지?<br/>이번 형광 소의 생산으로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단백질을 우유를 통해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연구진들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항암 치료에 쓰이는 ‘인터루킨’이라는 단백질을 우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형질전환 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항암치료제의 비용은 싸지고 손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1.txt

제목: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다 3  
날짜: 2014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1100000053  
본문: Talk Well-being Trend<br/>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급격히 피로를 느끼는 순간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br/>‘내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였나?’ 자꾸만 피곤하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디톡스 주스 한 잔으로 몸의 기운을 되찾아줄 때다. 꾸준히 마시기만 해도 피부와 몸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비법에 대해.<br/><br/>What?<br/>디톡스가 헬스&뷰티 분야의 트렌드 키워드로 자리한 지 꽤 오래됐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파파라치 컷에 찍힌 물병 속에 든 정체불명의 주스와 유명 배우가 다이어트로 마신다는 주스 등이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며 디톡스 열풍에 돛을 달았다. 디톡스는 ‘유독한(Toxic) 것을 제거한다(De)’라는 뜻이다. 현대인이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온갖 스트레스, 공해, 유해 화합물 등이 우리가 없애고 싶어 하는 독소. 평소 독소 배출과 노폐물 제거의 키워드에 열광하던 필자는 사실 안 해본 디톡스 요법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종류의 디톡스 유경험자다. 다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 이것저것 좋다는 주스를 많이 마신다고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디톡스 주스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김래영 원장은 “<span class='quot0'>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 또 체질에 맞는 주스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span>”라고 전한다. 디톡스 주스를 선택하기에 앞서 본인의 상태를 자가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재료만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보다 날짜나 요일별로 구분해두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재료를 선택할 것.<br/><br/>Why?<br/>필자는 약 8년간 아침마다 지켜온 습관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500ml에 갓 짜낸 레몬즙을 2큰술 정도 넣고 3~4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이다. 매일 레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오이를 갈아서 물에 타거나 마테차나 홍차 등을 우려 마시기도 한다. 이 습관을 들인 뒤 변비로 고생하거나 장에 이상이 생긴 적이 없다. 레몬, 마테차 등은 장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아침에 연하게 타서 마시면 밤새 정체된 몸의 순환을 돕고 생기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 제철에 구하기 쉬운 재료를 우선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효능의 재료를 선택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br/><br/>How?<br/>최근 3일, 2주 등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디톡스 주스만 마셔서 몸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디톡스 주스 요법을 실행할 때 주의할 점은 좋다는 재료로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몸에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것. 3일 정도 하루에 한 번씩 원하는 재료로 주스를 만들어 음용해보고 피부 트러블이나 더부룩함 등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또 염분과 당분을 지나치게 절제하면 탈수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홉 번 구운 9회 죽염과 꿀 등으로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과 염분, 포도당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br/><br/>지금 딱 제철, 디톡스 주스 대표 재료<br/>과일 대표 주자, 사과<br/>사과는 대부분의 채소, 과일과 맛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스를 만들 때 많이 활용하는 과일. 유기산, 섬유소, 플라보노이드 등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됐다. 특히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껍질째 먹는 게 좋다. 비타민 A와 C도 풍부해 피부 미용에 좋고 사과의 유기산은 피로와 숙취 해소 효과도 있다. 가을 제철에 알이 잘 여문 사과를 대량으로 구입해 매일 아침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시면 좋다. 단,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지만 밤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사과는 수분이 적당히 있지만 주스를 만들 때 따로 수분을 더해야 마시기 좋다. 파인애플, 오이 등 수분이 많은 재료와 함께 주스를 만들 때는 물을 조금만 넣어도 된다.<br/><br/>사과를 활용한 디톡스 주스 Red Moon<br/>아침에 식사 대신 마시면 장내 순환은 물론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는 주스. 비트는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좋은데,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간이 걱정된다면 비트를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과와 비트 모두 변비를 개선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여기에 요거트를 곁들이면 금상첨화.<br/>재료<br/>사과 1개, 비트 50g, 플레인 요거트 1/2컵, 레몬 슬라이스 1/4개, 마누카 꿀 1큰술<br/>만들기<br/>비트는 껍질을 벗겨 깍둑썰기하고 사과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깍둑썰기한 다음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간다.<br/><br/>잎채소 대표 주자, 케일<br/>다른 잎채소에 비해 조직이 단단하고 영양 주스를 만들기에 적당하다. 철분과 칼슘이 많으며 항산화 물질인 멜라토닌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리로 인해 철분이 손실되기 쉽고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여성에게 좋다. 또 혈관과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베타카로틴 성분이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특유의 쓴맛과 향이 다소 거북하거나 입맛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섞어 주스를 만들거나 식후에 섭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케일은 수분이 많지 않아 과일을 적당량 섞는다고 해도 주스로 만들면 다소 퍽퍽하다. 물이나 요구르트를 섞어 농도를 조절할 것.<br/><br/>케일을 활용한 디톡스 주스 Deep Sea of Green<br/>녹색 재료가 들어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피로감을 풀어주는 주스. 이뇨 작용을 돕는 코코넛 워터와 파인애플을 섞으면 맛과 건강 모두 잡을 수 있다. 스피루리나는 노화 방지 및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몸의 저항력을 강화해 감염을 예방한다. 단, 스피루리나는 처음 먹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비릿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4작은술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간다.<br/>재료<br/>코코넛 워터 1컵, 케일 잎 5장, 파인애플 슬라이스 1조각, 스피루리나 1작은술, 애플민트 잎 1장<br/>만들기<br/>분량의 재료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간 뒤 애플민트 잎을 올린다.<br/><br/>Check!<br/>맞춤형 디톡스를 위한 체크 리스트<br/>-소화불량<br/>-두통<br/>-지속되는 우울감<br/>-혀의 이물감<br/>-피부색 변화<br/>-여드름<br/>-허리 사이즈 증가<br/>-면역 체계 방어력 저하<br/>-콜레스테롤 수치 상승<br/>-알레르기<br/>-고혈압<br/>-다크서클<br/><br/>\* 위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몸속에 독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사실 1가지 이상만 돼도 자신의 몸에 맞는 디톡스 주스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2.txt

제목: 행복 트레이너 임미정과 함께하는 탄탄한 몸만들기 필살 트레이닝 5  
날짜: 2014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1100000049  
본문: HEALTH<br/>기온이 떨어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움직임도 적어지기 십상.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운동 의지를 다지자.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피트니스센터 못지않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br/><br/>밴드의 탄성을 이용해 근력을 강화하는 탄력 밴드는 생각보다 다양한 운동 효과를 발휘한다. 어깨부터 다리까지 전신운동이 가능하며, 특히 혼자서는 하기 힘든 등 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잡는 위치에 따라 운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돼 필라테스나 요가에도 사용되는 기구다. 무엇보다 휴대가 간편해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br/><br/>어깨 스트레칭<br/>밴드를 넓게 잡고 서서히 어깨를 회전시켜 몸 뒤쪽으로 넘긴 다음 다시 앞으로 가져온다. 이때 어깨와 가슴, 팔에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며 동작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한다. 어깨와 가슴 운동 전후 실시한다.<br/><br/>어깨 운동<br/>사이드 래터럴 레이즈<br/>밴드를 한쪽 발끝에 걸고 주먹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는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팔을 올렸다가 내린다. 팔을 올릴 때 팔꿈치를 다 펴지 않고 어깨부터 손목까지 힘을 줘 어깨 부분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실시한다. 양쪽 10회씩 3세트 반복한다.<br/><br/>가슴 운동<br/>체스트 프레스<br/>밴드를 등 뒤로 두른 뒤 양쪽 끝을 주먹이 아래쪽을 향하게 해 잡는다. 팔을 겨드랑이 높이로 고정시킨 채 서서히 앞으로 뻗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팔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허리는 곧게 펴고 가슴은 앞으로 내민다. 10회씩 3세트 반복한다.<br/>Tip 팔 안쪽과 가슴이 긴장돼야 하며 호흡은 당길 때 들이쉬고 밀어줄 때 내쉰다. 가슴이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br/><br/>등 운동 시티드 로우<br/>1 바닥에 발을 뻗고 앉은 상태에서 밴드를 발에 걸친다. 이때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허리를 곧게 펴 가슴을 내민다. 근력에 맞게 그립을 잡되 주먹은 안쪽이나 아래쪽을 향하게 잡는다.<br/>2 가슴을 내밀며 팔이 옆구리를 스치듯 뒤로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어깨의 힘으로 팔꿈치를 뒤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실시한다. 10회씩 3세트 실시한다.<br/>Tip 등 운동은 손목의 힘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받아선 안 된다. 항상 어깨와 팔꿈치 이동으로 운동이 되게 한다.<br/><br/>엉덩이&허벅지 운동<br/>데드 리프트<br/>1 밴드를 발끝에 끼우고 무릎 바로 아래쪽 길이로 그립을 잡는다.<br/>2 발바닥을 이용해 지면을 민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일어섰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10회씩 3세트 실시한다.<br/>Tip 상체는 일으켜 정면을 보며 무릎은 모이지 않게 한다.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을 탄력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br/><br/>팔 운동 암컬<br/>밴드를 한쪽 발에 걸고 그립을 잡는다. 허리는 곧게 펴고 팔꿈치를 고정시킨 뒤 손목이 꺾이지 않게 이두근에 힘을 집중시키며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양쪽 10회씩 3세트 반복한다.<br/>Tip 팔꿈치를 몸에 붙이지 않는다.<br/><br/>트라이셉스 익스텐션<br/>다리를 앞뒤로 2보 정도 벌린 뒤 뒤쪽 다리에 밴드를 걸고 근력에 맞게 양손으로 밴드를 잡는다. 이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다. 팔꿈치는 귀 옆에 고정시킨 채 머리 위쪽으로 밀어 올렸다가 내린다. 처진 팔뚝 살을 탄력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10회씩 3세트 한다.<br/>Tip 한쪽 팔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팔에 고루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실시한다.<br/><br/>원 암 로우<br/>1 다리를 앞뒤로 1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밴드를 한손으로 잡고 반대쪽 다리에 건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를 숙이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허리는 곧게 편다.<br/>2 가슴을 내밀며 팔이 옆구리를 스치는 느낌으로 뒤로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어깨의 힘으로 팔꿈치를 뒤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실시한다. 10회씩 3세트 반복한다.<br/>Tip 반대쪽과 번갈아 실시하며 밴드를 당길 때 자세가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한다. 복부와 허리에 긴장을 유지하면 운동할 때 더욱 효과가 있다.<br/><br/>Level Up!<br/>복부 운동 같은 준비 동작에서 팔은 움직이지 않고 복부의 힘으로 배를 접어준다. 이때 팔의 힘으로 당지기 않도록 주의한다. 10회씩 3세트 실시한다.<br/><br/><br/>다리 운동 레그컬<br/>1 밴드를 한쪽 발목에 걸고 반대쪽 발끝에 끼운 뒤 한쪽 발을 뒤로 살짝 뺀다.<br/>2 뒤쪽 다리의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뒤로 접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양쪽 번갈아 10회씩 3세트 실시한다.<br/>Tip 다리를 접을 때는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접어준다. 중심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 벽을 잡고 하면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다.<br/><br/>골반 운동<br/>1 한쪽 발목에 밴드를 걸고 반대쪽 발끝에 끼운다. 허리는 곧게 펴고 다리는 양쪽으로 벌린다.<br/>2 밴드를 발목에 건 다리를 서서히 올렸다가 내린다. 양쪽 10회씩 3세트 실시한다.<br/>Tip 너무 빠르게, 너무 과도하게 동작을 실시하면 골반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적당히 올린다.<br/><br/>Gift<br/>독자 50명에게 멀티 운동기구 ‘스포밴드’를 드립니다!<br/>● 응모 요령\_애독자 엽서에 응모권을 붙여 「레이디경향」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br/>● 발표&수령\_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2014년 12월호와 「레이디경향」 홈페이지(ladykhan.co.kr) [독자 이벤트] 메뉴에 11월 25일 발표합니다. 선물은 우송해드리며 우송비는 당첨자 부담입니다.<br/><br/>모든 동작은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밴드의 탄력을 충분히 느끼며 천천히 시행합니다. 밴드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에서 동작을 취하고 정점에서는 2초 정도 멈춰주세요. 꾸준히, 점점 탄력을 높여가다 보면 근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br/><br/>profile<br/>행복 트레이너 임미정은…<br/>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 두 아이를 둔 주부.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메달리스트로 2011년 ‘KBS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에 출연해 3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의 우먼 파워를 보여줬다. 현재 보디빌딩협회 심사위원과 청소년 캠프의 스포츠 멘토로 활동 중. 필살 트레이닝을 통해 「레이디경향」 독자들의 잠들어 있는 몸을 깨우는 데 앞장선다.<br/><br/>응모권<br/>스포밴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3.txt

제목: [우리 산의 인문학](18) 비봉산의 문화 생태  
날짜: 20141101  
기자: 최원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1100000090  
본문: 춘향가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산세 따라서 사람도 타고나는 법이여.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矗:삐죽)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순순(順順)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터 보면 자른 목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사람이 나면 선할 땐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성(別惡之性)이라.” <br/>이 사설은 산세를 타고 사람이 나고, 산세에 따라 지역적인 인성도 달리 형성된다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한 가마 속의 도자기가 비슷하게 구워지듯이 같은 공간과 환경 속에서 비슷한 문화와 인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녕 산이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 <br/>비봉산(飛鳳山)이라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지방도시의 진산이었다. 조선시대 250여개 지방 진산 중에서 가장 많은 산 이름이 비봉산이다. 충청도 제천, 경상도 선산·진주·봉화·의성, 강원도 양구·정선, 경기도 안성·화성·안양, 전라도 완주·고흥·화순에도 있다. 전국에 봉황과 관련한 산과 마을지명은 134개에 이른다는 한 연구결과도 있다. 봉황이 나타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비봉산 아래에는 인물이 난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정말 비봉산 아래의 고을은 번영을 보장받고 귀한 인물이 나는 것일까?<br/>비봉산은 봉황산 계열의 산이다. 한국의 산에서 봉황산은 용산과 함께 대표적인 산 이름 유형이다. 일반명칭으로 봉산 혹은 봉황산이고 신체 부위를 따서 봉두산(鳳頭山), 봉미산(鳳尾山)이라고도 했다. 자태로 보아 날아간다 비봉산(飛鳳山), 춤춘다 무봉산(舞鳳山), 운다 봉명산(鳳鳴山), 머문다 유봉산(留鳳山), 의젓하다 봉의산(鳳儀山), 위엄있다 위봉산(威鳳山)이라고도 했다. 산 모양은 새가 날개를 펼친 듯 가로로 길쭉하거나 날개를 접고 서있는 듯 세로로 우뚝한 등 다양하다. <br/><br/>■ 산이란 대상을 ‘보는 행위’를 통해 문화로<br/>빙산의 일각처럼 의식도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이 전개된다. 산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지 김광섭 시인(1905-1977)은 이렇게 심상적으로 표현했다. “<span class='quot0'>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엎댔다가는, 틀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span>” 산이 새의 이미지로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 마음에 틀을 남기고 가는 존재로 형상화된 것이다.<br/>이렇듯 산을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이미지로 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한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로 이해하면 쉽다. “<span class='quot0'>대사의 얼굴은 돼지 같구려.</span>” “<span class='quot0'>전하의 용안은 부처님 같으십니다.</span>” “어찌 그렇게 보시는가?” “<span class='quot0'>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지요.</span>” 그것이 투사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그것이다.<br/>산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이 있지만 그것이 보는 행위를 통해 인식될 때는 사람과 문화에 따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인다. 산이 텍스트로 읽혀지는 것이다. 대상을 보는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뇌라는 인지기관을 통하는 사이에 문화라는 매개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다. <br/>옛사람들의 비봉산 인식은 풍수적·심리적·사회적·경관적 필터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풍수적으로 산은 봉황이라는 형국과 기운을 띤 유기체적인 대상으로 인지된다. 그 산에는 어김없이 비봉귀소형(날아가는 봉황이 둥지에 깃든 형국) 등의 봉황 명당이 있다. 심리적으로 봉황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산에 투사되어 동일시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으로 비봉산이 진산(鎭山)으로 공식화되면서 향촌공동체 사이에 공유지식이 되고 태도의 합의가 형성된다. 경관적으로 대나무 숲 등과 같은 봉황산과 관련된 파생경관이 형성되어 실체로서 공고해지는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비봉산 문화생태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br/>요즘엔 생태라는 말도 진화하여 자연생태, 인간생태, 사회생태에다 인터넷생태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온라인과 같은 가상의 생태는 예전에도 있었다. 봉황 생태가 그것이다. 봉황은 존재하지도 않은 상상의 새다. 그런데 “봉황은 벽오동 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예천(단샘)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봉황이 실제의 새인 양 천연스레 말하는 <장자> 이야기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봉황의 생태를 확고히 믿었다. <br/>■ 상상 속 봉황에 대한 옛 사람들의 믿음<br/>“전남 화순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 살았던 산이 있었다. 새들은 신령스러워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땐 요란스럽게 울었다. 소음을 참다못한 한 농부가 숲에 불을 질러 버렸다. 불길은 세찬 바람을 타고 온 산을 감쌌고 새들은 모조리 타 죽고 말았다. 그런데 잿더미로 변한 산 위에서 암(봉)황새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다가 수(봉)황새의 옆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사람들은 새의 넋을 불쌍히 여겨 함께 묻어주었다. 그 후로부터 이 산을 비봉산이라 했다. 능성고을은 예부터 부자 고을로 이름 높았고 인물도 많이 배출된 고장이었다. 그러나 새들이 모조리 불에 타 죽은 뒤부터 재앙이 끊이지 않고 전염병도 만연했다. 이듬해엔 홍수도 덮쳐 수백 명이 죽었다.” 이 설화 속의 비봉산은 조류 생태계가 풍부한 산임을 알 수 있다. 일시에 생태계가 파괴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이 닥친다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적인 자연생태 설화다. <br/>봉황은 용과 함께 각각 날짐승과 길짐승을 대표하는 신성한 상징물이다. 용, 거북, 기린과 함께 네 가지의 영물이다. 봉황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날아오기에 덕치(德治)와 태평성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순자>에 “예부터 임금의 다스림이 살림을 좋아하고 죽임을 미워하면 봉황이 나무에 줄지어 나타난다”라고 했다. 봉황의 사회생태다. 지방 고을의 대표적 진산으로 봉황산(비봉산)을 선호한 것은 이런 정치사회적 이유 때문이었다.<br/><br/>■ 봉황의 생태를 따라 파생된 산이름들<br/>봉황 생태로 인해 파생된 산(이름)도 줄줄이 생겼다. 봉황은 대나무를 좋아한다고 하여 죽방산(竹防山)이라 했고, 까치가 울면 잡으려 봉황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한다고 하여 까치산(鵲山)을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이야기다. 오동나무에 깃든다고 오산(梧山), 대나무열매를 먹고 산다고 죽실산(竹實山), 봉실산(鳳實山)도 생겼다. 그래서 봉황산을 진산으로 둔 여러 고을과 마을에서는 대나무 숲을 조성했다. 한술 더 떠서 봉황알도 만들었다. 경북 선산에는 오란산(五卵山)이라고 있었다. 봉황의 다섯 알을 상징한 조산이다. 봉황이 날아와 알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인물이 한 명씩 난다고 믿었다. 고장을 부흥할 만한 큰 인물을 기대하는 심리의식이었다. 봉황알은 지역에 따라 난산(卵山), 난함산(卵含山)이라고도 불렀다. 봉황산으로 인해 봉산동, 봉죽동 등 수많은 봉자 돌림 마을지명도 숱하게 생겼다. <br/>■ 봉황은 바람… 기운 넘치는 태평성대의 꿈<br/>진주의 비봉산은 도심 북쪽에 시내를 에워싸고 있는 162m의 나지막한 산이다. 마치 봉황이 날개를 크게 펼친 듯 모양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풍수사상의 성행으로 비봉산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고을경관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진주는 진산이 비봉형이라 사방의 배치는 모두 봉(鳳)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객사 앞에는 봉명루(鳳鳴樓)가 있고 마을 이름으로 죽동(竹洞)이 있다. 벌로수와 옥현에 대나무를 심었는데 죽실(竹實)은 봉이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 이름을 망진(網鎭)이라고 한 것은 봉이 그물을 보면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들에 작평(鵲坪)이 있는 것은 봉이 까치를 보면 날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양지>(1633)에 나오는 비봉산 문화생태 이야기다.<br/>왜 하필 비봉인가? 봉황이란 어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근원으로 바람에 이른다. 봉(鳳)은 갑골문에서 바람(風)과 같이 통용됐다고 한다. 봉새(鳳鳥)는 바람신(風神)으로 나온다. <금경(禽經)>에도 “봉은 날짐승으로 매류이다. 풍백(風伯)이라고 말한다. 비상하면 하늘에 큰바람이 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비봉은 하늘로 날아오르려 날개를 펼치는 활기찬 바람이다. 비봉산은 형상화된 봉황의 날갯짓이다. 비봉산으로 인해 고장의 주민들은 집단공동체적으로 고무되고 고취되는 것이다.<br/>흥미로운 건 우리말 바람이 함축하고 있는 다중적인 의미다. 바람난다, 바람 맞았다, 바람 잡다, 바람 들다, 모두 바람이다. 이 바람은 외적인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내적인 기운의 움직임이다. 그 바람은 마음과 몸, 너와 나, 사람과 산에도 있다. “<span class='quot0'>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다.</span>” 서정주 시인의 바람이다. 비봉산을 진산으로 둔 고을 주민들이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span class='quot0'>고을을 키운 건 8할이 비봉산이다.</span>” 조선시대 사람들은 비봉산을 곁에 둠으로써 봉황 같은 인물을 염원하고 자손이 융성하며 봉황이 머무는 태평한 고장을 만들려 했다. 그 비봉산은 주민들에게 우러르고 닮을 산으로서 상징화된 산천에너지요, 형상화된 산천무의식이었다. <br/>“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세월호 추모곡이다. 역사의 바람이 된 아이들아, 우리 산하의 봉황으로 깃들어 자유롭게 날거라. 천년에도 꺼지지 않는 바람의 산이 되어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4.txt

제목: 겨울이 성큼! 따스한 패브릭 인테리어  
날짜: 2014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101100000031  
본문: 차디찬 냉기가 스며드는 날엔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보드라운 촉감의 퍼와 두툼한 니트, 보기만 해도 따스한 울 등을 이용해 훈훈함을 더해보자. 겨울이 성큼 다가온 이맘때 제안하는 따스한 패브릭 인테리어.<br/><br/>플라워 패턴으로<br/>빈티지한 멋을 낸 침실<br/>쌀쌀한 날씨에 따스한 패브릭이 가장 절실한 곳은 단연 침실이다. 보기만 해도 온기가 전해지는 침구류로 아늑하고 포근한 침실을 연출해보자. 겨울용 패브릭은 대부분 짙은 컬러라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 플라워 패턴 벽지나 침구류로 포인트를 주면 화사함과 빈티지한 멋이 가미된다. 보드라운 러그도 침실에서 빠질 수 없는 소품.<br/><br/>1 침대 옆 벽면에는 선반이나 훅을 설치해 허전함을 덜어낸다. 앤티크 스타일 훅 16만원, 월스타일. 2 단조로운 공간에 빈티지한 꽃무늬 벽지로 화사함을 더해보자. 15만원, 다브. 3 보들보들한 감촉이 느껴지는 심플한 다크 그레이 샴 쿠션. 5만4천원, 마르멜로. 4·5 이국적인 플라워 패턴이 프린트된 목화 워싱 베개와 워싱 차렵이불.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모달 원단으로 만들어 친환경적이며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한다. 항균 기능이 있는 베개 커버 안에는 천연 목화솜을 넣었다. 이불과 패드, 베개 커버 세트. 87만원, 디자이너스 길드. 6 침대 위에 베드 스프레드를 깔아 따스함을 더해보자. 니트 베드 스프레드 30만5천원, 마르멜로. 7·8 퀼팅 디자인으로 푹신함이 배가된 이불. 벨벳 이불 38만7천원·코튼 이불 45만5천원, 마르멜로. 9 침실에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원형 울 러그 15만원, 멍석마당.<br/>\*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향초와 블랭킷으로 분위기 있게<br/>작지만 따스한 온기를 주기에 더없이 좋은 것이 바로 향초. 다양한 크기의 향초를 테이블 위에 놓고 화병이나 앤티크한 소품과 함께 장식하자. 향초를 빈티지한 촛대 위에 장식하면 고풍스러운 멋이 나고, 니트 블랭킷 위에 놓으면 따스함이 배가된다. 직접 털실로 짠 니트 홀더를 향초에 입히면 겨울철에 어울리는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br/><br/>1·3 도자기 그릇에 담겨 있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살려주는 향초. 천연 소이왁스로 제작돼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맑고 산뜻한 향, 파우더리한 향, 플로럴 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각 3만5천원, 블랑쉬엘. 2 나무 심지로 만든 글라스 소이왁스 캔들. 4만원, 블랑쉬엘. 4 블랭킷처럼 연출한 니트 쿠션 커버. 6만1천원, Rooms5. \*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쿠션과 조명 장식으로 아늑함을 더한 거실<br/>하루 동안의 피곤함을 달래고 휴식을 취하는 거실 소파는 감각적인 쿠션과 블랭킷으로 아늑하게 연출해볼 것. 심플하고 차분한 디자인의 소파라면 패턴이나 타이포그래피가 프린트된 쿠션을, 컬러풀하고 화려한 소파라면 패턴이 없고 무게감 있는 단색 쿠션을 놓는 것이 좋다. 소파 한쪽에는 울이나 니트 소재의 블랭킷을 두어 온기를 더하자. 벽에는 DIY로 은은한 조명 장식을 달아 분위기 있게 꾸며본다. 시중에서 파는 꼬마전구에 각각 도일리 페이퍼를 감아 벽에 리드미컬하게 붙이면 간단하면서도 멋진 조명 장식이 연출된다.<br/><br/>1 깔끔한 영문 타이포그래피가 프린트된 면 쿠션. 2만7천2백원, 상상후. 2 사슴 일러스트로 북유럽풍 느낌을 살린 면 쿠션. 침실이나 거실 소파에 포인트 소품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2만7천2백원, 상상후. 3 허전한 공간에 장식 소품으로 놓기 좋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15만원, 마르멜로. 4 소파에 블랭킷을 놓으면 따스함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멋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도 난다. 78만원, 다브. \*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암체어와 러그로 포근하게<br/>퍼와 니트 소재 블랭킷, 러그만 몇 개 놓아도 공간이 금세 훈훈해진다. 심플한 암체어에 따스한 소재의 블랭킷과 쿠션을 놓고 바닥에는 러그를 깔 것. 애니멀 패턴 러그로 화려하고 개성 있는 멋을 내는 것도 좋다. 조그마한 램프나 양초를 담은 병으로 은은한 조명 효과를 낼 수도 있다.<br/><br/>1 굵직한 꽈배기 문양이 멋스러운 니트 쿠션. 가을, 겨울에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디자인이다. 4만9천5백원, Rooms5. 2 클래식하면서 빈티지한 멋을 풍기는 트렁크. 다양한 공간에서 장식 소품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다. 16만원, 월스타일. 3 양초를 넣어 분위기 있는 조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병. 15만원, 월스타일. 4 보드라운 감촉 덕분에 훈훈함이 절로 전해지는 퍼 쿠션. 쌀쌀한 날씨에 소파나 침대 등 곳곳에 놓아보자. 10만원, 루스. \*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블랭킷 데커레이션<br/>집 안 곳곳에 블랭킷을 걸쳐놓아 온기를 더해보자. 테라스가 있다면 울타리에 다양한 블랭킷을 겹쳐서 널어 분위기 있는 전원주택처럼 꾸밀 수도 있다. 체크 패턴의 블랭킷은 클래식하면서 빈티지한 멋이 전해지는데, 낡은 스툴이나 심플한 쿠션 등과 함께 연출하면 멋스러운 컨트리 스타일이 완성된다.<br/><br/>1·2·3·4 다양한 블랭킷을 여러 개 겹쳐서 연출해 따스하게 꾸며보자. 큼직한 체크 패턴의 울 블랭킷은 클래식하면서 빈티지한 멋을 선사한다. 각 6만2천원, 다브. 5 촘촘한 체크 패턴이 아기자기한 울 쿠션. 빈티지한 블랭킷과 함께 연출하면 더욱 멋스럽다. 1만원, 루스. 6 차분한 컬러의 쿠션은 어느 공간에서나 무난하게 어울린다. 딥 그린 컬러의 니트 쿠션 8만원, 루스. \*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따스함이 녹아든 북카페 같은 거실<br/>냉기가 감돌수록 따뜻한 담요를 덮고 즐기는 독서는 그야말로 꿀맛이다. 거실 한쪽에 책장을 마련하고, 1인용 소파나 의자를 놓아 독서 공간을 연출한다. 의자위에 따스한 소재의 블랭킷을 놓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책을 읽을 때의 지루함을 달래줄 티타임용 테이블까지 함께 두면 금상첨화다. 테이블과 의자는 자연스러운 원목 소재를 선택해 북카페 같은 거실로 완성시켜보자.<br/><br/>1 원목과 철제 소재로 제작된 깔끔한 의자. 의자 위에 블랭킷을 놓아 독서하고 싶은 아늑한 분위기로 연출해보자. 45만원, W101. 2·3 원목 소재와 블랙 철제의 조화는 언제 봐도 멋스럽다. 내추럴한 원목 테이블&스툴 세트 42만원, W101. 4 북극곰 일러스트가 프린트된 캔버스 면 쿠션. 15만9천2백원, Rooms5. 5 헤링본 원단에 클래식한 타탄체크 패턴이 디자인돼 고급스럽다. 모노톤 컬러가 조화를 이룬 면 쿠션 2만9천4백원, Rooms5.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포근한 느낌을 주는 쿠션 데커레이션<br/>가을, 겨울철 가장 쉽고 간편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인 쿠션. 기존에 있던 쿠션을 니트나 울, 퍼 소재 등의 커버로 바꾸기만 해도 분위기가 쉽게 전환된다. 니트 커버는 짜임의 굵기에 따라 각기 다른 멋이 나는데 두터운 짜임이 특히 멋스럽다. 거실이나 코지 공간에 도톰한 러그를 깔고 다양한 쿠션을 놓아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을 연출해보자.<br/><br/>1 앤티크한 라피아 소재 바구니. 자질구레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동시에 빈티지한 멋까지 낼 수 있다. 18만원, 월스타일. 2 입체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원목 사각 스툴. 뚜껑을 열어 수납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7만원, W101. 3·4·5 촘촘한 짜임이 깔끔한 느낌을 주는 울과 아크릴 혼방 쿠션. 아이보리, 라벤더, 퍼플 등 다양한 컬러를 함께 연출해도 멋스럽다. 각 6만1천원, Rooms5. 6 쌀쌀한 계절에 장식용 소품으로 활용하기에 그만인 털실. 2만5천원, Into. 7 정교한 짜임이 감각적인 니트 블랭킷. 담백한 베이지와 오렌지 컬러의 배색이 감각적이다. 78만원, 다브. 8 울과 실크 소재 혼방으로 만들어진 원형 러그. 15만원, 멍석마당.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5.txt

제목: [건강]개복 없이 위 줄이면 ‘고도비만’ 벗어날까  
날짜: 20141031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31100000028  
본문: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계질환, 수면무호흡증, 관절염,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과 그 합병증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특히 각종 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먹는 양 또한 대단하다. 몸이 무거워 움직임 또한 둔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비만 개선이 어려운 이유다. 최근 고도비만 해결을 위해 위를 축소시켜 먹는 양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고도비만수술(비만대사수술)이 적용되고 있다. 얼마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 수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관심이 높아졌다.<br/>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비만클리닉과 순천향대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비만수술)은 위밴드수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3가지가 있다. 모두 개복없이 복강경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 후 비만과 동반된 당뇨나 고혈압, 콩팥질환 등 다른 질환까지 좋아지게 된다.<br/>위밴드수술은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위밴드’라고 불리는 장치를 채워 위장으로 음식이 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다. 개복이 필요없고 위를 직접 절개하지 않으므로 외과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식사량은 밴드 내에 있는 풍선을 부풀려 조절한다.<br/>위소매절제술은 위의 불룩하게 나온 부분을 길게 절제해 위를 원통 모양(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이 수술을 받으면 위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단순히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절제되는 부위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세포군도 제거되기 때문에 식욕감퇴도 유도할 수 있다.<br/>위우회술은 위를 길게 잘라내 윗부분을 조금만 남기고 소장을 바로 연결하여 음식이 십이지장을 거치지 않고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의 흡수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수술의 장점은 무엇보다 당뇨병 개선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br/>이러한 수술을 받게 되면 한 끼 먹는 양이 밥과 반찬 모두 합쳐도 종이컵 하나 정도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의 45~80%까지 체중감량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관련 합병증이 대부분 개선되거나 나아졌다.<br/>하지만 비만수술은 단지 음식 조절이 이전보다 쉽게 되는 것일 뿐 수술 자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쁜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6.txt

제목: 성영철·김태진 교수팀, 자궁경부전암 치료 백신 세계 첫 개발  
날짜: 20141031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31100000099  
본문: 국내 연구진이 자궁경부암 전단계인 자궁경부전암 환자를 치료할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자궁경부전암은 수술로만 치료해왔으나 백신 주사가 개발되면서 보다 간편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58·왼쪽 사진)와 제일병원 김태진 교수(49·오른쪽) 공동연구팀은 30일 “<span class='quot0'>자궁경부전암 후기 환자 9명에게 치료백신 ‘GX-188E’를 투여하는 임상1상 시험을 한 결과 7명에게서 원인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병이 완치됐다</span>”고 밝혔다. 치료율이 79% 이상인 자궁경부암 치료제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는 국제 유명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30일 게재됐다.<br/><br/>자궁경부암은 자궁 경부에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가 감염돼 생긴다. 국내 여성 가운데 17.6%가 HPV에 감염돼있고 감염자 중 14.1%인 62만명에게서 자궁경부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2006년 HPV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가다실’이 개발됐다. 그러나 이미 HPV에 감염된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HPV에 감염돼 암으로 발전한 환자는 자궁경부암 발생 부위를 원추 형태로 도려내는 ‘원추 절제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수술은 조산, 유산, 불임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HPV 감염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br/>연구팀은 바이러스 유전자 단편을 이용해 치료백신 ‘GX-188E’를 만들었다. 이 치료백신은 몸속의 면역 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자궁경부전암 후기 단계에 있는 환자 9명의 어깨근육에 백신을 주사한 결과 7명을 완치시켰다.<br/>또 ‘다기능 킬러 T세포’가 활성화될수록 자궁경부암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연구진은 지난 5월 국내 서울성모병원과 제일병원, 고대 구로병원 등에서 72명의 자궁경부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2상 시험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해 임상2상 시험을 지속할 계획이다.<br/>성영철 교수는 “<span class='quot1'>임상시험을 가속화해 2017년까지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span>”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7.txt

제목: [글로벌 제약 헬스케어 기업 사회공헌]한국먼디파마-소아암 환자·가족 정서적 지원…긴급생계비도 전달  
날짜: 2014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31100000002  
본문: 한국먼디파마는 매해 창립일(5월20일)을 기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한국소아암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br/>국내 통증치료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먼디파마는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을 응원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먼디파마 희망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에는 직접 만든 꽃바구니와 함께 구급상자도 함께 전달했다(사진).<br/><br/>또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희망나눔 기금’을 조성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긴급생계비의 기금은 직원 참여형 자선모금 활동인 ‘희망저금통’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됐다. 한국먼디파마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 직원에게 희망저금통을 배포한 후,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출연해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활용한다. 각 팀에서 제출한 저금통들을 대형 저울에 달아 저금통의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간 팀은 ‘한국먼디파마 기부천사’로 선발된다.<br/>2013년 10월에는 한국먼디파마 직원들이 소아암 환자와 그 형제들에게 책을 골라 선물하는 ‘희망 북마스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아암 환자들은 질병 치료 과정에서 신체 기능 저하, 인지능력 저하, 정서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결석이 잦는 등 학업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먼디파마 직원들은 지원 대상 어린이들의 성별 및 연령에 맞춘 양서를 직접 골라 선물했다. 어린이들의 독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책을 고른 사연과 꾸준한 독서활동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도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8.txt

제목: [우리 산의 인문학](18) 비봉산의 문화 생태  
날짜: 2014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311001551555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사람도 타고나는 법이여</strong><!-- SUB\_TITLE\_END--><br/><br/>춘향가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산세 따라서 사람도 타고나는 법이여.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矗:삐죽)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순순(順順)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터 보면 자른 목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사람이 나면 선할 땐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성(別惡之性)이라.” <br/><br/>이 사설은 산세를 타고 사람이 나고, 산세에 따라 지역적인 인성도 달리 형성된다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한 가마 속의 도자기가 비슷하게 구워지듯이 같은 공간과 환경 속에서 비슷한 문화와 인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녕 산이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 <br/><br/>비봉산(飛鳳山)이라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지방도시의 진산이었다. 조선시대 250여개 지방 진산 중에서 가장 많은 산 이름이 비봉산이다. 충청도 제천, 경상도 선산·진주·봉화·의성, 강원도 양구·정선, 경기도 안성·화성·안양, 전라도 완주·고흥·화순에도 있다. 전국에 봉황과 관련한 산과 마을지명은 134개에 이른다는 한 연구결과도 있다. 봉황이 나타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비봉산 아래에는 인물이 난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정말 비봉산 아래의 고을은 번영을 보장받고 귀한 인물이 나는 것일까?<br/><br/>비봉산은 봉황산 계열의 산이다. 한국의 산에서 봉황산은 용산과 함께 대표적인 산 이름 유형이다. 일반명칭으로 봉산 혹은 봉황산이고 신체 부위를 따서 봉두산(鳳頭山), 봉미산(鳳尾山)이라고도 했다. 자태로 보아 날아간다 비봉산(飛鳳山), 춤춘다 무봉산(舞鳳山), 운다 봉명산(鳳鳴山), 머문다 유봉산(留鳳山), 의젓하다 봉의산(鳳儀山), 위엄있다 위봉산(威鳳山)이라고도 했다. 산 모양은 새가 날개를 펼친 듯 가로로 길쭉하거나 날개를 접고 서있는 듯 세로로 우뚝한 등 다양하다. <br/><br/><br/><b>■ 산이란 대상을 ‘보는 행위’를 통해 문화로</b><br/><br/>빙산의 일각처럼 의식도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이 전개된다. 산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지 김광섭 시인(1905-1977)은 이렇게 심상적으로 표현했다. “<span class='quot0'>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엎댔다가는, 틀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span>” 산이 새의 이미지로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 마음에 틀을 남기고 가는 존재로 형상화된 것이다.<br/><br/>이렇듯 산을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이미지로 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한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로 이해하면 쉽다. “<span class='quot0'>대사의 얼굴은 돼지 같구려.</span>” “<span class='quot0'>전하의 용안은 부처님 같으십니다.</span>” “어찌 그렇게 보시는가?” “<span class='quot0'>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지요.</span>” 그것이 투사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그것이다.<br/><br/>산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이 있지만 그것이 보는 행위를 통해 인식될 때는 사람과 문화에 따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인다. 산이 텍스트로 읽혀지는 것이다. 대상을 보는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뇌라는 인지기관을 통하는 사이에 문화라는 매개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다. <br/><br/>옛사람들의 비봉산 인식은 풍수적·심리적·사회적·경관적 필터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풍수적으로 산은 봉황이라는 형국과 기운을 띤 유기체적인 대상으로 인지된다. 그 산에는 어김없이 비봉귀소형(날아가는 봉황이 둥지에 깃든 형국) 등의 봉황 명당이 있다. 심리적으로 봉황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산에 투사되어 동일시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으로 비봉산이 진산(鎭山)으로 공식화되면서 향촌공동체 사이에 공유지식이 되고 태도의 합의가 형성된다. 경관적으로 대나무 숲 등과 같은 봉황산과 관련된 파생경관이 형성되어 실체로서 공고해지는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비봉산 문화생태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br/><br/>요즘엔 생태라는 말도 진화하여 자연생태, 인간생태, 사회생태에다 인터넷생태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온라인과 같은 가상의 생태는 예전에도 있었다. 봉황 생태가 그것이다. 봉황은 존재하지도 않은 상상의 새다. 그런데 “봉황은 벽오동 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예천(단샘)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봉황이 실제의 새인 양 천연스레 말하는 <장자> 이야기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봉황의 생태를 확고히 믿었다. <br/><br/><b>■ 상상 속 봉황에 대한 옛 사람들의 믿음</b><br/><br/>“전남 화순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 살았던 산이 있었다. 새들은 신령스러워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땐 요란스럽게 울었다. 소음을 참다못한 한 농부가 숲에 불을 질러 버렸다. 불길은 세찬 바람을 타고 온 산을 감쌌고 새들은 모조리 타 죽고 말았다. 그런데 잿더미로 변한 산 위에서 암(봉)황새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다가 수(봉)황새의 옆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사람들은 새의 넋을 불쌍히 여겨 함께 묻어주었다. 그 후로부터 이 산을 비봉산이라 했다. 능성고을은 예부터 부자 고을로 이름 높았고 인물도 많이 배출된 고장이었다. 그러나 새들이 모조리 불에 타 죽은 뒤부터 재앙이 끊이지 않고 전염병도 만연했다. 이듬해엔 홍수도 덮쳐 수백 명이 죽었다.” 이 설화 속의 비봉산은 조류 생태계가 풍부한 산임을 알 수 있다. 일시에 생태계가 파괴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이 닥친다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적인 자연생태 설화다. <br/><br/>봉황은 용과 함께 각각 날짐승과 길짐승을 대표하는 신성한 상징물이다. 용, 거북, 기린과 함께 네 가지의 영물이다. 봉황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날아오기에 덕치(德治)와 태평성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순자>에 “예부터 임금의 다스림이 살림을 좋아하고 죽임을 미워하면 봉황이 나무에 줄지어 나타난다”라고 했다. 봉황의 사회생태다. 지방 고을의 대표적 진산으로 봉황산(비봉산)을 선호한 것은 이런 정치사회적 이유 때문이었다.<br/><br/><br/><b>■ 봉황의 생태를 따라 파생된 산이름들</b><br/><br/>봉황 생태로 인해 파생된 산(이름)도 줄줄이 생겼다. 봉황은 대나무를 좋아한다고 하여 죽방산(竹防山)이라 했고, 까치가 울면 잡으려 봉황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한다고 하여 까치산(鵲山)을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이야기다. 오동나무에 깃든다고 오산(梧山), 대나무열매를 먹고 산다고 죽실산(竹實山), 봉실산(鳳實山)도 생겼다. 그래서 봉황산을 진산으로 둔 여러 고을과 마을에서는 대나무 숲을 조성했다. 한술 더 떠서 봉황알도 만들었다. 경북 선산에는 오란산(五卵山)이라고 있었다. 봉황의 다섯 알을 상징한 조산이다. 봉황이 날아와 알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인물이 한 명씩 난다고 믿었다. 고장을 부흥할 만한 큰 인물을 기대하는 심리의식이었다. 봉황알은 지역에 따라 난산(卵山), 난함산(卵含山)이라고도 불렀다. 봉황산으로 인해 봉산동, 봉죽동 등 수많은 봉자 돌림 마을지명도 숱하게 생겼다. <br/><br/><b>■ 봉황은 바람… 기운 넘치는 태평성대의 꿈</b><br/><br/>진주의 비봉산은 도심 북쪽에 시내를 에워싸고 있는 162m의 나지막한 산이다. 마치 봉황이 날개를 크게 펼친 듯 모양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풍수사상의 성행으로 비봉산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고을경관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진주는 진산이 비봉형이라 사방의 배치는 모두 봉(鳳)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객사 앞에는 봉명루(鳳鳴樓)가 있고 마을 이름으로 죽동(竹洞)이 있다. 벌로수와 옥현에 대나무를 심었는데 죽실(竹實)은 봉이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 이름을 망진(網鎭)이라고 한 것은 봉이 그물을 보면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들에 작평(鵲坪)이 있는 것은 봉이 까치를 보면 날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양지>(1633)에 나오는 비봉산 문화생태 이야기다.<br/><br/>왜 하필 비봉인가? 봉황이란 어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근원으로 바람에 이른다. 봉(鳳)은 갑골문에서 바람(風)과 같이 통용됐다고 한다. 봉새(鳳鳥)는 바람신(風神)으로 나온다. <금경(禽經)>에도 “봉은 날짐승으로 매류이다. 풍백(風伯)이라고 말한다. 비상하면 하늘에 큰바람이 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비봉은 하늘로 날아오르려 날개를 펼치는 활기찬 바람이다. 비봉산은 형상화된 봉황의 날갯짓이다. 비봉산으로 인해 고장의 주민들은 집단공동체적으로 고무되고 고취되는 것이다.<br/><br/>흥미로운 건 우리말 바람이 함축하고 있는 다중적인 의미다. 바람난다, 바람 맞았다, 바람 잡다, 바람 들다, 모두 바람이다. 이 바람은 외적인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내적인 기운의 움직임이다. 그 바람은 마음과 몸, 너와 나, 사람과 산에도 있다. “<span class='quot0'>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다.</span>” 서정주 시인의 바람이다. 비봉산을 진산으로 둔 고을 주민들이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span class='quot0'>고을을 키운 건 8할이 비봉산이다.</span>” 조선시대 사람들은 비봉산을 곁에 둠으로써 봉황 같은 인물을 염원하고 자손이 융성하며 봉황이 머무는 태평한 고장을 만들려 했다. 그 비봉산은 주민들에게 우러르고 닮을 산으로서 상징화된 산천에너지요, 형상화된 산천무의식이었다. <br/><br/>“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세월호 추모곡이다. 역사의 바람이 된 아이들아, 우리 산하의 봉황으로 깃들어 자유롭게 날거라. 천년에도 꺼지지 않는 바람의 산이 되어라.<br/><br/><최원석 | 경상대 HK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79.txt

제목: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소화기암, 조기 검진에서 나아가 예방과 다학제 치료 시대로"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3010015502682  
본문: ■세계내과학술대회 성료…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br/><br/>대한내과학회 주최로 지난 24~28일 서울에서 열린 제32회 세계내과학회 학술대회(세계내과학술대회)에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화기암에 대해 동서양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상황과 변화하는 시각에 대해 논의했다. 이 학술대회는 2년마다 열린다. 이번에는 70여 나라에서 6000여 명이 참가했다.<br/><br/>소화기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췌담도암, 식도암 등을 말한다. 한국에서 발병률이 특히 높다. 지금까지 단순히 암을 조기 진단하는 이차적인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던 시각에서 적극 벗어나 여러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br/><br/><br/>첫째, 소화기암은 여러 암중에서도 식이, 생활 방식, 사회경제적 환경 등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이 많다. 이러한 환경요인 조절을 통해 소화암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일차적 예방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br/><br/>둘째, 최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첨단기술을 소화기암 치료에 이용, 기존의 조기 진단에 해당하는 이차적 예방의 효과 및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첨단 광학기술을 내시경에 접목하여 작고 관찰하기 어려운 소화기암을 발견하고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광역학, 의료용 레이저, 고주파, 냉동요법 등을 이용한 새로운 소화기암 치료법에 대한 경험이 증가했다. 또 수술과 내시경 검사는 따로 생각하는 과거의 치료 경계를 깨고 기존의 수술방법과 내시경 기술을 협력하는 등 최소 침습적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강화돼야 한다.<br/><br/>셋째, 암덩어리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암환자의 삶의 질이 강조되고 이를 고려한 맞춤 치료의 적용 확대다. 최근 항암 약물개발에서도 각 암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암표적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br/><br/>넷째, 이러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이뤄내기 위한 다학제적인 환자 케어가 요청된다.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소화기암 치료에 관여하는 전문과의 전문의들이 과간 협력을 강화해 소화기암 환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br/><br/>‘우리 내과, 하나되어 세계로! 더 건강한 세상을 향하여’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학술행사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간학회 등 12개 학회와 개원내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0.txt

제목: 술 마시고 자기 전엔 양치질을, 숙취 해소엔 녹차·유자차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3010015526363  
본문: 술 마시고 자기 전에는 양치질을 하는 게 좋고, 숙취 해소에는 유자차와 꿀물·녹차가 좋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한달 동안 온라인 상에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별도로 마련된 ‘술래(來)잡기’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음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술래(來)잡기는 ‘술도 잡고 건강한 내일도 잡자’는 뜻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br/><br/>이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얼굴이나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사람은 술을 자제해야 한다. 알코옥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기능이 약한 체질이기 때문이다. 체질적으로 술에 약한 사람은 독성물질을 분해할 수 없다.<br/><br/>빈 속에 술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장 속에서 알코올 흡수는 빨라지는 반면, 알코올 분해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술 마시고 자기 전에는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 침속에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다. 이 때문에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게 되면 알코올과 알코올 속의 각종 발암물질이 구강 점막과 식도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 <br/><br/>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아스라파긴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나물국, 유해산소를 없애는 메티오닌이 풍부한 북어국, 타우린이 풍부한 조개국이 좋다. 또 꿀물, 유자차, 녹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br/><br/><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1.txt

제목: 성영철·김태진 교수팀, 자궁경부전암 치료 백신 세계 첫 개발  
날짜: 2014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3010015520252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strong><!-- SUB\_TITLE\_END--><br/><br/>국내 연구진이 자궁경부암 전단계인 자궁경부전암 환자를 치료할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자궁경부전암은 수술로만 치료해왔으나 백신 주사가 개발되면서 보다 간편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58·왼쪽 사진)와 제일병원 김태진 교수(49·오른쪽) 공동연구팀은 30일 “<span class='quot0'>자궁경부전암 후기 환자 9명에게 치료백신 ‘GX-188E’를 투여하는 임상1상 시험을 한 결과 7명에게서 원인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병이 완치됐다</span>”고 밝혔다. 치료율이 79% 이상인 자궁경부암 치료제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는 국제 유명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30일 게재됐다.<br/><br/><br/>자궁경부암은 자궁 경부에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가 감염돼 생긴다. 국내 여성 가운데 17.6%가 HPV에 감염돼있고 감염자 중 14.1%인 62만명에게서 자궁경부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2006년 HPV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가다실’이 개발됐다. 그러나 이미 HPV에 감염된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HPV에 감염돼 암으로 발전한 환자는 자궁경부암 발생 부위를 원추 형태로 도려내는 ‘원추 절제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수술은 조산, 유산, 불임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HPV 감염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br/><br/>연구팀은 바이러스 유전자 단편을 이용해 치료백신 ‘GX-188E’를 만들었다. 이 치료백신은 몸속의 면역 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자궁경부전암 후기 단계에 있는 환자 9명의 어깨근육에 백신을 주사한 결과 7명을 완치시켰다.<br/><br/>또 ‘다기능 킬러 T세포’가 활성화될수록 자궁경부암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연구진은 지난 5월 국내 서울성모병원과 제일병원, 고대 구로병원 등에서 72명의 자궁경부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2상 시험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해 임상2상 시험을 지속할 계획이다.<br/><br/>성영철 교수는 “<span class='quot1'>임상시험을 가속화해 2017년까지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span>”라고 말했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2.txt

제목: 맥도날드 식품안전 언론인상, 배문기 편집인과 이경택 기자 수상 영예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910015499230  
본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맥도날드와 함께 선정하는 ‘제 2회 맥도날드 식품안전 언론인상’은 배문기 한국식품의약신문 편집인과 문화일보 이경택 전국부장이 지난 24일 열린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할술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r/><br/>이 부장과 배 편집인은 전문적이고 유익한 식품지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전달해 식품안전 문화 확산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br/><br/>맥도날드는 식품안전 언론인상 수여 외에도 지난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내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br/><br/>■건양대병원 황원민 교수, 세계내과학술대회 최우수 초록상<br/><br/>건양대병원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가 24~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2회 세계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br/><br/>이번 연구는 인위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도록 형질을 전환시킨 마우스(실험용 쥐)를 이용해 허혈성 신장손상이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다.<br/><br/>황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미 심장이나 암에 오메가3의 항염증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 신장학 분야에도 더 많은 임상데이터가 쌓인다면 질병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3.txt

제목: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강원래, 장애를 이긴 ‘꿍따리 샤바라’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8100000016  
본문: 올해로 장애인으로 산 지 14년째. 분노, 좌절의 시간을 이겨낸 그는 이전보다 더 속 깊은 남자와 멋진 아빠가 되어 감동과 행복을 나눠주고 있다. 안무가, 라디오 DJ, 대학 강사, <꿍따리 유랑단> 대표, 대학생….<br/><br/>그는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도전한다.<br/><br/>꼭 한 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강원래. 하지만 그와의 만남은 늘 망설여졌다. 자칫 말실수라도 하면 화내고 가버릴 것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우리들이 열광했던 <클론>의 강원래 오빠는 한국에서 가장 춤 잘 추는 남자이자 까칠한 남자였다. 소문 속에서 만나는 그는 ‘차가운 사람’이었으나 최근에 태어난 아들 ‘선이’에게 쓴 편지를 모아서 낸 책을 읽고 난 후 걱정과 오해가 사라졌다. 2014년, 내가 직접 만난 강원래는 깊고 솔직한 사람이었다.<br/><br/>“<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병신 됐는데 무슨 강연이야!</span></span>”<br/>2000년 11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는 불법 유턴하는 차에 치여서 1급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욕을 하기도 했다. 덕분에 병실 침대에 한 달 반 동안 묶여 있기도 했다. 다 깨부수고 심지어 불도 지르고 싶었다. ‘병신’이란 말을 듣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솔직한 심정을 말했더니,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며 지극히 정상인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덕배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span class='quot0'>베개가 썩을 때까지 울어라, 짜샤!</span>”<br/><br/>“올해가 장애인으로 산 지 14년 되는 해예요. 부정, 분노, 좌절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 난폭해진 저를 변화시킨 건 아내 송이와 여전히 저를 멋진 놈이라고 불러주는 준엽이었어요. 선배 장애인들의 ‘세상을 향해 욕하면 세상이 욕으로 답하고,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이 웃음으로 답한다’는 조언도 큰 힘이 되었죠.”<br/><br/>사고 이후 4년 동안 칩거하던 강원래에게 한 통의 메일이 온다. 보호관찰소에 있는 폭주족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병신 됐는데 무슨 강연이야!</span></span>” 화를 내며 거절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넌 정말 잘할 것 같다며 해보라고 권했다. 계속되는 설득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말썽쟁이들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년 강원래’들을 발견했다. 1년에 10회씩, 전국 강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다.<br/><br/>“나도 그 시절에 상처 때문에 춤추고, 나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건 사회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강자에게서 받은 상처를 약자에게 분출하게 되잖아요. 너희들, 상처 많이 받았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지? 그래도 너희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희들을 이해해….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공연으로 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도 나쁜 놈인데 뭘 가르치고 훈계하겠어요?”<br/><br/>공부를 시작하다<br/>그는 지금 연극영화과 4학년이다. 연극영화를 전공하면서 심리학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뮤지컬, 연극, 영화 연출을 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br/><br/>“영화 <똥파리>를 보면서도 엄청 울었어요. 저 새끼가 욕하는 이유가 다 상처 때문이구나. <빨래>라는 연극을 보면 ‘당신의 젖은 마음 내가 말려 드릴게요’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를 들은 순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바람에 맡겨두면 빨래가 마르듯이 우리의 젖은 마음도 언젠가는 마른다는 것, 나도 이런 위안을 주는 연극과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내가 <빨래>에서 느꼈던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자. 가르치기보다는 느끼게 해주고,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적 충격을 주고 싶었어요. <꿍따리 유랑단>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br/><br/>어디든지 찾아가는 <꿍따리 유랑단><br/>“<꿍따리 유랑단> 공연과 ‘장애인식 바꾸기’ 강연 합니다. 연락주세요!” 페이스북에 그가 직접 올린 글이다.<br/><br/>‘한 팔 격투기 챔피언’, 발성장애 ‘인기가수’, 키 작은 ‘트로트 가수’, ‘휠체어 소녀’, ‘청각장애 댄서’, ‘성대모사 달인’인 시각장애인, ‘건방진 한 손 마술사’가 함께 만들어내는 90분의 공연은 재미와 감동과 눈물로 흠뻑 젖는 시간이다.<br/><br/>장애가 있지만 재주가 많은 친구들이 보호관찰소 청소년과 소년원생들에게 ‘장애를 가진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공연이다. ‘장애인들 뻔하지, 시간 때우는 거겠지’ 하며 공연장에 들어온 말썽꾸러기들이 ‘정말 감동받았다, 열심히 사는 장애인들을 보며 나 자신을 반성했다’는 메일을 보내올 때 큰 보람을 느낀다.<br/><br/>한창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 받던 출연료의 5%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거나, 오히려 돈을 더 쓰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시골 분교에서 공연하고 20만원을 받았다. 단원들의 출연료는 고스란히 강원래의 주머니에서 나갔다. 그래도 즐거웠다. 계획한 대로 공연이 잘 치러졌고, 관객들이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출연료를 떠나서 어설픈 공연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싫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공연을 하고 싶다.<br/><br/>“입양이나 하지”<br/>아내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에 도전해서 7번이나 실패를 했다. 지친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다. “입양이나 하지.” 걱정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무심코 던지는 사람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부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6년 전, 반려견 똘똘이를 입양했다. 많은 갈등과 싸움으로 힘들었던 부부를 다시 사랑으로 묶어준 것도 똘똘이었다.<br/><br/>휠체어 밑에 엎드려서 걷지 못하는 아빠를 늘 지켜주고,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해준 것도 똘똘이었다. 똘똘이로 인해서 다시 행복을 되찾았을 때 기적처럼 새 생명이 부부를 찾아왔다. 하지만…, 똘똘이는 아들 ‘선’이가 태어나기 5개월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똘똘이 얘기만 나오면 부부는 여전히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한다.<br/><br/>엄마 ‘김송’의 이야기<br/>한 남자에게 편지 200통을 보내고 500통을 받았다. 남자친구는 군복무 30개월 동안 ‘내 사랑 송이’라는 제목으로 500여통의 손편지를 보내왔다. 남들은 ‘한 남자만 사랑한 바보 같은 여자’라고 말하지만, 오늘까지 강원래의 아내 김송으로 살 수 있는 건 손편지 500통이 낳은 힘이다.<br/>열여섯 살 때, 춤 잘 추는 강원래에게 첫눈에 반했고,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서 동거를 시작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 11월 9일,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가 두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br/><br/>“상견례 때 시아버지께서 ‘내 딸이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결혼 못 하게 할 건데…. 내 아들에게 시집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을 때 목 놓아 울었어요. 살면서 위기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저 남자를 평생 수발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절망감에도 빠지고 집밖으로 돌기도 했죠. 이혼하자고 싸우고, 남편 가슴에 상처 내는 말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작년 결혼기념일에 임신이 되었다는 기적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 남자가 굉장히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저를 감동시켜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편에 대한 악플을 달 때 정말 힘들어요. 아기 아빠는 자신을 포장할 줄 모르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힘든 시절을 이제 겨우 건너왔어요. 남편이 오해를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내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을 다 잘 키우기 위해 좋은 어른이 될 겁니다.”<br/><br/>아빠 ‘강원래’의 이야기<br/>“<형제는 용감했다>는 뮤지컬에서 아빠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너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거야.’ 그 대사가 주는 울림이 정말 컸어요. 내 아버지가 언제부터 담배를 폈을까? 첫 경험은 언제 했을까?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났을까? 나쁜 짓도 해봤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선’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편지에 썼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빠는 성년이 되기 전에 담배도 피웠고, 술도 마셨고, 할아버지 지갑에서 돈도 훔쳤고, 말썽꾸러기 짓을 정말 많이 했어.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좋지만 너는 남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살아갈 이 세상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다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아내도 함께요.”<br/><br/>그는 아이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다. 엄마 아빠의 편지는 <우리 사랑 선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났다.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랑하는 선! 엄마 아빠의 편지 잘 읽고 꼭 답장 바란다. -아빠 강원래”<br/><br/>베풀 선(宣)- 행복한 2인자가 되어 줄래?<br/>2014년 6월, 3.9㎏의 우람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베풀 ‘선’(宣), ‘강선’이다. 아빠를 쏙 빼닮았고,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까르르 웃는다.<br/><br/>“아내와 저는 1인자가 아니었어요. 선이도 1인자를 빛내주는 2인자가 되어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클론> 활동을 할 때도 준엽이가 1인자였지 저는 친구 덕을 많이 본 2인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예전에 전신마비 장애인 박승일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고 그의 언어를 여자친구가 해독하고…. 그 모습 보면서 나는 내 상황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꿈을 이루기까지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입 시험을 볼 때 답지를 보여준 친구가 있었기에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준엽이 덕분에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하고 베풀면서 사는 삶…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잖아요? 선이를 보면 우리 부부를 닮았다는 자체가 정말 기뻐요. 선이가 댄서가 되길 바라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언젠가 선이가 춤을 추고 싶다고 말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땐 확실히 밀어 줘야죠.”<br/><br/>초보아빠는 아들 선이가 빨리 걸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요즘은 선배 아빠들을 만나면 아이가 몇 개월 때 걸었냐고 가장 먼저 물어본다. 아빠는 아들이 걸을 날만 기다린다.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하고, 귀가하는 아빠를 마중 나오면 좋겠다. 아빠의 휠체어를 아들이 힘차게 밀어주면 좋겠다. 아빠가 주인아저씨 몰래 껌을 훔쳤던 집 앞 구멍가게에도 아들과 함께 가보고 싶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싶다. 뛰면서 함께 놀아줄 수는 없지만, 사고 쳐도 기댈 수 있는 편하고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자신은 있다.<br/><br/>장애도 하나의 개성이다<br/>장애를 갖고 사는 데 가장 힘든 건 육체적 고통보다 외로움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늘 불편했다. 거리에서 장애인을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사람 살 만한 세상이 아닐까.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나 지방 공연을 갈 때에도 가능하면 혼자 다닌다. 혼자서도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동정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이 장애인들을 가장 불편하게 한다. 장애도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단지 나와 다를 뿐이라고….<br/><br/>“‘몸도 불편한 사람이 밖엔 왜 나왔을까?’ 하는 시선보다는 ‘잘 나왔어요. 함께 놀아요. 불편한 점 있어요? 도와줄까요?’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힘들죠? 극복하세요’라는 말보다 ‘지금도 멋져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밌게 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배려가 있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br/><br/>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br/>‘가해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자꾸 생각난다. ‘나는 이제 행복한데, 그분은, 그 가족은 잘 살고 있을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고를 낸 분의 가족이 병실을 찾아온 적이 있다. 아내에게 합의를 부탁했다고 한다. 남편이 차가운 구치소 방바닥에서 고생을 하니까 선처를 부탁한다고. 그때 아내 송이는 울면서 괴로워했다.<br/><br/>재활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무대에 다시 올랐다. 하루아침에 파트너를 잃고 혼자가 된 준엽이에게 나는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고, 준엽이는 분명 피해자였다. 준엽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무대에 올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클론> 5집을 내고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면서 <내 사랑 송이>를 불렀다. 다시 행복이 찾아오자 ‘가해자’란 단어가 떠올랐다. 인생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br/><br/>“사고를 낸 가해자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제가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다행히 그분은 내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입니다. 사고 당시에 내 헬멧을 벗겨주던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해요. 장애를 받아들이고 제가 원하는 일도 마음껏 하고, 새로운 꿈도 꾸고, 누굴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날 딴 길로 갈 걸…’ 이 정도의 아쉬움이 있을 뿐이죠.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고 싶어요. 나도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그분의 상처를 위로해드리고 싶어요.”<br/><br/>개성 강한 남자 강원래, 멋진 아빠 강원래<br/>나는 그를 이렇게 불러주고 싶다. 가식 없이 솔직한 남자 강원래와 어린아이처럼 맑게 웃는 아내 김송은 참 어울리는 부부였다.<br/><br/>그들을 만나러 가면서 임신 8개월차 후배를 데리고 나갔다. 인터뷰를 마친 뒤 그는 예비엄마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육아 비법’을 전수했다. <모신>이라는 책을 읽어라, 나는 무척 감동을 받았다, 아이에겐 엄마 자궁 속이 천국이다, 그 속에 있을 때부터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라…. 그는 웬만한 엄마들보다 태교와 유아교육에 대한 내공이 탄탄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2000년 11월, 사고가 나기 전, 무대를 활보하던 신화적인 댄스가수 ‘강원래’도 멋있었지만, 지금의 ‘강원래’가 더 멋져 보였다.<br/><br/>그는 여전히 꿈을 꾼다. 안무가, 라디오 DJ, 대학 강사, 장애인 인식 바꾸기 강연자, <꿍따리 유랑단> 대표, 대학생…. 그의 직함은 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도전한다.<br/><br/>강원래씨! 개성 강한 당신의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연극과 영화를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강원래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의 젖은 마음들을 말려 주세요!<br/><br/><박상미 문화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4.txt

제목: [시론]가을이 파주에서 오는 까닭  
날짜: 20141025  
기자: 서해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5100000006  
본문: 일찍부터 책이 있고 가을이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가을은 파주에서 시작된다. <br/>이 가을을 위하여 잉크 냄새 가득한 축문 한 묶음을 바친다. 출판사 일조각 도서목록이다. 목록이름 1953-2003. 때로 목록만으로도 살아 있는 지식역사와 조우하고 묵직한 제목과 제목 사이에서 시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오직 책이름만이 그러하다. 목록의 주인은 환갑을 넘긴 출판사와 그 출판인 한만년이다. 책도시에서 그 둘을 하나로 기리는 제사이자 잔치이자 전시회 이름은 출판인 한만년과 일조각(열화당책박물관, 10·2~12·26)이다. <br/>책이란 기록과 기억의 저장 장치다. 이를 다시 기록과 기억하는 일로 형상화해낸 이기웅(열화당 대표)은 제 몫을 오직 한 글자로 줄여 말했다. 염(殮). 기록과 기억을 추스르고 다듬어내는 염습이라는 뜻이렷다. 가히 지상에서 가장 짧은 제문이다. 반세기 동안 2000여 책을 세상에 내놓은 한 출판인의 일생에 대한 후학의 옷자락 빈틈없이 가지런한 말이다. 때로 한 글자만으로도 문자향은 족히 깊다. 경포호를 건너가 만나던 배다리집 선교장 선비가 이렇듯 허사도 후렴도 없이 단정한 데는 내력이 있다. <br/>한 물결로 지은 활자의 집 일조각은 한국 출판에서 돛대 같은 구실을 하며 시대와 사람과 문자와 지식 사이를 예순 해 넘게 헤쳐왔다. 우선 그 출판사의 첫 책이 한만년의 장인이요, 소설가이자 제헌헌법을 기초한 헌법학자 유진오의 <(신고)헌법해의>다. 이 책은 애초 명세당에서 찍었던 것인데 한만년이 출판을 배운 고종사촌이 운영하던 탐구당으로 옮겨갔다가 세 번째 펴내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장인을 책으로 모셔온 셈이다. <br/>암스테르담 프리젠 운하를 따라가면 합스부르크 왕관을 쓰고 있는 서교회 바로 건너편에 안네 프랑크네 집이 있다. 그 꼭대기 다락방에서 보이는 교회 시계탑이 십오 분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안네는 친구 같다고 일기에 적었다. 그 문장을 한국어로 처음 들려준 건 한만년의 아내 유효숙의 번역으로 나온 <별은 창 너머(안네의 일기)>(1954)였다. 눈매 깊은 안네의 단발머리 사진이 표지에 박힌 초간본(영어와 일어 중역)은 전시장 서가에서 뽑아볼 수 있다. 일조각 첫 책은 장인이 썼고 두 번째는 아내가 번역한 책이다. 한만년은 처가에 글 빚을 졌고 실로 이는 드문 축복이었다. <br/>일조각이 이뤄낸 가장 굵은 공적으로 꼽아야 하는 건 한국사를 식민사학에서 일어서게 한 줄기찬 기획과 성과다.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을 필두로 몇 권만 수평으로 펼쳐 봐도 목록이 그대로 한국사 연구가 된다. 한국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책이 1500여 종에 이를 지경이니 그 출판사집 아들(한홍구, 현대사학자)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강의 대부분을 자기 집에서 나온 책으로 배웠다는 말은 한낱 허투가 아니다.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이라는 양대 잡지 또한 초기에 이 출판사 품에서 발행되었다. 이 일련의 활동은 일조각이 한국 지성사의 저수지요, 거대한 지적 물결이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br/>임정 법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로 귀국해 동아일보 창간기자였고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한기악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둘째아들 한만년은 집 없이 떠돌면서도 먼저 활자로 된 집을 짓고 이윽고 아버지 아호를 새겨 월봉저작상을 제정했다. 첫 수상작은 <서간도시종기>였다. 우당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이 쓴 이 책은 그 여섯 형제의 독립운동에 대해 한땀 한땀 뜬 기록문학이다. 한국출판금고 설립, 출판업 면세 혜택, 저작자 원고료와 인세에서 소득세 면제 등도 출판인 한만년의 생각과 손을 거쳐갔다. 소격동 가는 길 사간동 벽돌집 출판문화회관은 그를 중심으로 쌓아올린 책과 지성의 오랜 토론장이다. <br/>말을 심고 문자를 일으키는 일이 출판이다. 인간사유의 통합적 집약체인 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이자 국가요, 지성의 뜨락이자 광야요, 옆집 세간살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골목이자 끝없는 대로이고, 무엇보다 집요한 향연이다. 이를 재구성하는 기억의 역사를 전시로 만나는 일은 책도시(파주북소리 2014)가 주는 가을 선물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5.txt

제목: [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24) 인체해부학의 탄생  
날짜: 20141025  
기자: 황상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5100000030  
본문: 지금부터 꼭 500년 전인 1514년, 벨기에 브뤼셀(당시는 네덜란드령)의 유명한 의사·약사 가문에서 한 아기가 탄생했다. 아기는 자라서 가족들의 염원대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실 주치의가 되어 집안의 전통을 이었다. 이것뿐이라면 이 소중한 지면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그가 만 스물아홉 살이 되기 직전에 이룬 업적이 이번 이야기의 주제이다. 의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인 이 위업을 흔히 ‘현대의학(modern medicine)의 기원’이라고 일컫는다. 영어 ‘modern’은 근대로도, 현대로도 번역된다. 역사학 용어로는 근대라고 옮겨야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근대는 현대 이전이라는 어감을 주는 까닭에 여기서는 부득이 ‘현대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br/><br/>■ 해부학은 생리학·병리학의 ‘기초’<br/>40여년 전 대학 재학 시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통하지 않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1학년 1학기 내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무소불위의 과목이었다. 학점은 조직학(미세해부학)을 포함해서 11학점, 수업시간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토요일까지 포함해 오후 내내 배정된 실습시간 가운데 해부학 실습은 엿새 중에 나흘이나 되었다. 수업 주간도 20주나 되어서, 3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자나 깨나 해부학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해부학 용어들을 뒤죽박죽 머릿속에 쑤셔넣었다. 시험 날이면 머릿속의 기억이 와르르 쏟아질까 염려되어 발걸음도 조심스레 시험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시험지에 답을 적을 때마다 기억은 손가락 끝을 통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해부학 공부를 왜 시키는지, 우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br/>인체해부학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의학은 틀림없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 현대의학은 고대 그리스 의학이나 한의학 등 다른 의학 체계들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체해부학의 유무가 핵심적이다. 오늘날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지만 한의학 자체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교육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br/>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은 대체로 현대의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반복한다. 학생들은 맨 처음에 해부학, 그 다음에 생리학, 이어서 병리학을 공부한 뒤 내과와 외과 등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과목을 접하게 된다. 현대의학은 서양에서 16세기부터 이런 순서로 발전해 왔으며 발전의 밑바탕에는 해부학이 있다.<br/>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질병 명칭을 살펴보자. 대체로 폐-결핵, 유방-암, 위-궤양, 신장-결석과 같이 폐, 유방, 위, 신장 등 질병 발생 부위의 해부학 명칭이 나오고 이어서 병의 특성이 언급된다. 서양에서도 18세기경까지는 주로 열병, 기침병, 설사병 등으로 불리다가 해부학의 영향을 받아 그런 식으로 변화했다. 사람 이름이나 마찬가지로 병 이름에도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19세기 중엽 이래 외과의 비약적인 발전도 해부학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렵다. 요컨대 현대의학은 인체해부학이라는 자궁에서 잉태되었다.<br/>■ 동물 해부 통해 인체의 구조 유추<br/>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였다. <br/>서양도 마찬가지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280년 무렵부터 20여년간 주로 사형수들에 대한 해부가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체해부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고대 이집트 등에서 행해진 미라 만들기는 해부학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시신에 칼을 대는 목적은 오직 부패하기 쉬운 내장 장기들을 끄집어내어 따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 <br/>더욱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졌던 인체해부의 내용은 몇 차례 큰 화재로 말끔히 사라져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 의학의 황제 갈레노스도 동물 해부를 토대로 인체 구조를 유추했을 뿐이다.<br/>그러던 차에 놀랍게도 12세기 들어 이탈리아에서 오랜 금기가 풀려 인체해부가 행해졌고 13세기부터 사례가 증가했다. 아마도 법의학적 이유에서 볼로냐와 피렌체에서 해부가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프랑스의 몽펠리에 그리고 14세기 중엽 흑사병이 창궐하는 동안 아비뇽에서도 교황의 후원 아래 해부가 실시되었다. <br/>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로냐 대학의 문디누스(Mundinus·1270~1326년)의 저서 <해부학 강의>에서 보듯이 인체 구조에 관한 지식에는 발전이 없었다.<br/><br/>■ 갈레노스 추종자들 비난에 해부학 단념<br/>이런 상황에서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1514~1564년)가 등장했다. 그의 명저 <인체 구조에 관하여>(De Humani Corporis Fabrica)는 저자 스스로 직접 행한 인체해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현대적인 해부학 책이다. 어려서부터 곤충과 작은 동물 해부를 즐겨했던 베살리우스는 벨기에의 루뱅 대학과 프랑스 파리 대학 의학부에서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동물과 인체를 해부했다.<br/>파리 대학을 졸업한 베살리우스는 당시 의학 분야에서 볼로냐 대학과 함께 서양 최고를 다투던 파도바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곧 외과 및 해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1537년의 일이다. 그리고 화가 반 칼카르(Jan Stephan van Calcar)의 도움을 받아 1543년 일곱 권으로 된 <인체 구조에 관하여>를 출간했다. 1543년은 현대적인 우주관을 세우는 데 밑받침이 된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1473~1543년)의 저작 <천구들의 회전 운동에 관하여>가 출간된 해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천문학과 인간학에 대한 혁명은 같은 해에 시작되었다. (코페르니쿠스도 1501년부터 3년간 파도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베살리우스와 면식은 없었다.)<br/>베살리우스는 자신의 책에서 인체해부 등 손으로 하는 행위를 경멸하는 의사들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과감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원숭이, 돼지, 개 등을 해부하고는 그 결과를 인체에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갈레노스의 오류들, 예컨대 다섯 엽의 간, 일곱 조각의 흉골, 두 부분으로 나뉜 하악골, 뿔 모양의 자궁 등을 스스로의 관찰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지적하고 바로잡았다.<br/>자신의 연구에 대한 기성 의학자들의 부당한 비난과 질시에 지친 베살리우스는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해부학도 단념했다. 대신 황실 주치의라는 선망의 자리를 얻어 가문의 영광을 이어갔다. 파리 대학 시절 스승인 실비우스(Sylvius·1478~1555년)를 필두로 많은 의학 교수들이 베살리우스를 맹렬히 공격했던 것은 1000년이 넘도록 도전받지 않았으며 그들이 신봉해 마지 않은 갈레노스의 오류를 지적한 베살리우스의 태도와 성과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비우스도 불경스러운 제자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제자의 방법대로 직접 해부하고 관찰한 결과 갈레노스의 여러 잘못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잘못들은 물론 인체해부를 할 수 없었던 갈레노스가 원숭이와 돼지 등 동물 해부에서 관찰한 사실들을 인체에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생긴 것들이었다. 갈레노스의 절대적 추종자였던 실비우스는 차마 갈레노스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어서 갈레노스 이후 천몇백년 사이에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화했다는 천재적인 변명을 늘어놓았다.<br/>의사인 해부학 교수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해부하고, 눈으로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무렵까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인체를 해부하는 것은 당시 비천한 신분인 이발사-외과의사의 몫이었고 해부학 교수는 갈레노스의 해부학 책이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들을 강독할 뿐이었다. 결국 베살리우스는 당시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통해, 곧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의 신분으로 손수 해부하고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장인적 전통과 (철)학자적 전통이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문이 열리는 과학혁명기의 특징이 의학 분야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br/>■ 다 빈치가 인체해부학 창시자?<br/>이러한 베살리우스의 업적을 통해 해부학 발전의 길이 열린 것은 물론이고, 해부학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인 생리학과 병리학이 탄생했다. 따라서 베살리우스를 인체해부학의 시조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다.<br/>베살리우스가 해부학을 하루아침에 혼자 힘으로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학문적 성취는 크지 않았지만 그에 앞서 몇백년 동안 많은 인체해부 행위가 있었다. 그 가운데는 르네상스 예술 사조의 영향으로 화가와 조각가들이 인체의 정확한 묘사를 위해 인체해부를 행한 것도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1452~1519년)가 수많은 인체해부를 통해 뛰어난 해부도들을 남긴 것이 좋은 보기이다. 죽은 지 200년이 넘어서야 공개된 레오나르도의 해부도가 생전이나 사망 직후에 알려졌다면 우리는 베살리우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를 인체해부학의 창시자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6.txt

제목: ‘절망의 암’ 췌장암 치료 희망의 길 여는 두 ‘명의’… EBS ‘명의 3.0’  
날짜: 20141024  
기자: 이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4100000006  
본문: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치료가 어렵기로 잘 알려진 암이다. 발병 후 5년 생존율이 8%밖에 되지 않고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80%에 육박하는 암이다. <br/>24일 EBS <명의 3.0>에서는 ‘암, 희망을 이야기하다-1부 췌장암’편을 방송한다. 방송에서는 췌장암 진단 방법과 췌장암 치료의 새 길을 열고 있는 두 명의 명의를 소개한다.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췌장암 생존율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고 난도 수술로 알려진 위 유문 보존 췌장·십이지장 절제술은 췌장암 생존율을 높이는 표준 수술법이다. 수술 후 항암·방사선의 동시 치료와 항암치료제의 발달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췌장암 치료의 명의로 알려진 최동욱·이규택 교수가 췌장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한다.<br/>환자 박은영씨는 지난해 9월 4기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췌장암에서 전이된 암세포가 간의 절반 이상을 뒤덮을 정도로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1, 2차 항암 치료를 받은 끝에 박씨는 그토록 원했던 일상으로 돌아왔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7.txt

제목: 원전 주변 암환자들 집단소송 줄 이을 듯  
날짜: 20141024  
기자: 백승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4100000093  
본문: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린 것은 방사성물질을 방출한 원전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국 원전 지역 피해주민들의 집단소송이 가시화하고 있다.<br/>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반핵의사회) 등 8개 단체는 23일 고리·월성·한울·한빛원전 주변의 암 발병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공동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고 신청자격은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8~10㎞) 내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이 중 갑상샘암 발병자다.<br/>이는 서울대 의학연구원 등이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보고서’에 원전 인근 지역의 암 발병 주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1.8배 많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부산지법도 지난 17일 고리원전 주변 주민 박모씨(48)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을 판결하면서 이 보고서를 반영했다. <br/>환경단체들은 부산지법의 판결과 함께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해당 물질의 무해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원전 주변 암환자들이 원전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형 사고 발생에 의한 대량의 방사능 피폭뿐만 아니라 평소 원전에서 나오는 법적 기준치 이내의 방사선량도 인체에 해롭고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해왔다. <br/>환경단체들은 1차 공동소송 원고 모집기한을 내달 30일로 정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역학조사 결과 여러 종류의 암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갑상샘암이어서 1차적으로 갑상샘암 발병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span>”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향후 소송 추이를 봐가며 원고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다른 암환자들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span>”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반핵의사회가 원전과 주변 주민 암 발병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br/>실제로 원전 주변에 암 발병자가 많다는 역학조사 결과와 주민들의 증언이 적지 않다. 부산 기장군과 동남원자력의학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리원전 주변 주민 49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명이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에서는 감포·양남 등 월성원전 인근 지역 해산물 작목반 해녀들이 집중적으로 암에 걸렸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span class='quot1'>경주 해녀들의 암 발병은 중수로 원전의 냉각재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필터에 걸러지지 않고 외부로 누출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8.txt

제목: 말기암 투병 중 박사학위 “공부가 희망의 끈”  
날짜: 20141024  
기자: 박용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4100000121  
본문: “대학에서의 공부는 병마와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br/>지난 8월 전북 우석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딴 김영숙씨(54·사진)가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22일 1000만원의 장학금을 대학에 내놨다. 말기암 환자인 그가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희망의 끈이 된 것은 공부였다.<br/><br/>김씨와 우석대의 인연은 1999년 시작됐다.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불혹이 가까울 무렵에 우석대 조경도시디자인학과에 편입했다. 시골에서 꽃밭을 가꾸며 사는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늦깎이 공부에 불이 붙어 대학을 마친 뒤 내친김에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에 도전했다.<br/>순탄해 보이던 그의 인생에 4년 전부터 시련이 잇따라 닥쳐왔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병간호와 가사, 학업을 병행하는 고난이 시작됐다. 남편이 입원한 분당과 학교를 오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는 않았다. 2년 뒤 이번엔 병마가 김씨를 덮쳤다. 병원에서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신체적 고통도 물론이지만 야속한 마음이 극한까지 치달았다.<br/>“뭔가 하지 않으면 더 살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공부가 더 하고 싶어지더군요.”<br/>그의 삶을 지탱해준 희망의 끈은 공부와 연구였다.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밀려드는 고통을 책을 잡으며 달랬다. 공부에 몰두하고 있으면 병마도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다행히 남편의 병세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호전돼 갔다. 남편을 돌봐야 하는 간병인, 환자, 세 자녀의 엄마,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라는 1인 4역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김씨는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 자연생태보건기사 자격증을 따냈다.<br/>지난 8월 김씨는 파초의 문화상징성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파초는 지식인들에게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 자신의 지식을 온전하게 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소재로 알려진 식물이다. 주변에서는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도 학업을 놓지 않은 김씨의 인생과 파초와 닮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br/>김 박사는 현재 연구활동을 지속하면서 전주의 한 건설회사에서 조경과 식재의 자문 역을 맡고 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공부에 대한 열정이 병마를 이겨내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대학에서 받은 큰 혜택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공부와 학업에 매진하며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89.txt

제목: [건강]“아랍, 의료한류 메카 부상”  
날짜: 20141024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4100000012  
본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세계 의료·병원 산업의 각축장인 중동 시장에서 ‘의료한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br/>2011년 이후 국내에서 아랍권 난치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의료기관이 됐고, 올해부터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br/>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59·순환기내과·사진)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보건청이 국비 지원하는 각종 중증혈액질환 및 암·간질환 환자들이 수준 높은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서울성모병원은 최근 몇 년간 아랍권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아종양 및 조혈모세포 이식, 뇌성마비 등 선천성 희귀질환 치료를 다수 성공시켜 ‘난치병 치료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다.<br/>승 원장은 “<span class='quot0'>그동안 아랍권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현지에 본격적으로 의료를 수출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건진센터)를 운영하기로 최종 계약했고, ‘아부다비 암센터’와 ‘두바이 건진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양해각서도 교환했다</span>”고 설명했다.<br/>서울성모병원은 지난 9월22일 중동 보건의료사업 지주회사인 VPS헬스케어그룹과 아부다비 건진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운영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연말쯤 문을 열 건진센터는 아부다비 중심지인 마리나몰 내에 3000㎡(약 900평) 규모로 설립된다. 모든 개원 비용은 현지에서 책임진다. 서울성모병원은 한국에서 파견하는 의료진(25명) 인건비와 운영 수수료(매출의 10%, 5년간 100억원 예상) 등을 받는다.<br/>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고, 치료 성적과 각종 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br/>특히 아랍 현지에서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환자중심 진료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승 원장은 “<span class='quot0'>아부다비 건진센터 운영은 신규 환자 유치 채널을 개설했다는 의미도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의료 수출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친화적 진료 인프라도 갖출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조혈모세포 이식 5000례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안센터는 국내 각막이식 수술의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아랍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미국·프랑스·몽골·카자흐스탄·중국·캐나다·네덜란드인 등 다양하다. 이 중 가장 높은 진료수익을 안겨주는 곳이 아랍권으로, 환자 1명당 6000만원에서 5억원대의 진료비를 쓰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0.txt

제목: [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24) 인체해부학의 탄생  
날짜: 2014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41001547018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인체해부학 시조 베살리우스, 의학의 황제 갈레노스 오류 잡으려다 된서리</strong><!-- SUB\_TITLE\_END--><br/><br/>지금부터 꼭 500년 전인 1514년, 벨기에 브뤼셀(당시는 네덜란드령)의 유명한 의사·약사 가문에서 한 아기가 탄생했다. 아기는 자라서 가족들의 염원대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실 주치의가 되어 집안의 전통을 이었다. 이것뿐이라면 이 소중한 지면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그가 만 스물아홉 살이 되기 직전에 이룬 업적이 이번 이야기의 주제이다. 의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인 이 위업을 흔히 ‘현대의학(modern medicine)의 기원’이라고 일컫는다. 영어 ‘modern’은 근대로도, 현대로도 번역된다. 역사학 용어로는 근대라고 옮겨야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근대는 현대 이전이라는 어감을 주는 까닭에 여기서는 부득이 ‘현대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br/><br/><br/><b>■ 해부학은 생리학·병리학의 ‘기초’</b><br/><br/>40여년 전 대학 재학 시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통하지 않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1학년 1학기 내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무소불위의 과목이었다. 학점은 조직학(미세해부학)을 포함해서 11학점, 수업시간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토요일까지 포함해 오후 내내 배정된 실습시간 가운데 해부학 실습은 엿새 중에 나흘이나 되었다. 수업 주간도 20주나 되어서, 3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자나 깨나 해부학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해부학 용어들을 뒤죽박죽 머릿속에 쑤셔넣었다. 시험 날이면 머릿속의 기억이 와르르 쏟아질까 염려되어 발걸음도 조심스레 시험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시험지에 답을 적을 때마다 기억은 손가락 끝을 통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해부학 공부를 왜 시키는지, 우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br/><br/>인체해부학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의학은 틀림없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 현대의학은 고대 그리스 의학이나 한의학 등 다른 의학 체계들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체해부학의 유무가 핵심적이다. 오늘날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지만 한의학 자체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교육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br/><br/>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은 대체로 현대의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반복한다. 학생들은 맨 처음에 해부학, 그 다음에 생리학, 이어서 병리학을 공부한 뒤 내과와 외과 등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과목을 접하게 된다. 현대의학은 서양에서 16세기부터 이런 순서로 발전해 왔으며 발전의 밑바탕에는 해부학이 있다.<br/><br/>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질병 명칭을 살펴보자. 대체로 폐-결핵, 유방-암, 위-궤양, 신장-결석과 같이 폐, 유방, 위, 신장 등 질병 발생 부위의 해부학 명칭이 나오고 이어서 병의 특성이 언급된다. 서양에서도 18세기경까지는 주로 열병, 기침병, 설사병 등으로 불리다가 해부학의 영향을 받아 그런 식으로 변화했다. 사람 이름이나 마찬가지로 병 이름에도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19세기 중엽 이래 외과의 비약적인 발전도 해부학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렵다. 요컨대 현대의학은 인체해부학이라는 자궁에서 잉태되었다.<br/><br/><b>■ 동물 해부 통해 인체의 구조 유추</b><br/><br/>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였다. <br/><br/>서양도 마찬가지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280년 무렵부터 20여년간 주로 사형수들에 대한 해부가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체해부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고대 이집트 등에서 행해진 미라 만들기는 해부학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시신에 칼을 대는 목적은 오직 부패하기 쉬운 내장 장기들을 끄집어내어 따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 <br/><br/>더욱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졌던 인체해부의 내용은 몇 차례 큰 화재로 말끔히 사라져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 의학의 황제 갈레노스도 동물 해부를 토대로 인체 구조를 유추했을 뿐이다.<br/><br/>그러던 차에 놀랍게도 12세기 들어 이탈리아에서 오랜 금기가 풀려 인체해부가 행해졌고 13세기부터 사례가 증가했다. 아마도 법의학적 이유에서 볼로냐와 피렌체에서 해부가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프랑스의 몽펠리에 그리고 14세기 중엽 흑사병이 창궐하는 동안 아비뇽에서도 교황의 후원 아래 해부가 실시되었다. <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로냐 대학의 문디누스(Mundinus·1270~1326년)의 저서 <해부학 강의>에서 보듯이 인체 구조에 관한 지식에는 발전이 없었다.<br/><br/><br/><b>■ 갈레노스 추종자들 비난에 해부학 단념</b><br/><br/>이런 상황에서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1514~1564년)가 등장했다. 그의 명저 <인체 구조에 관하여>(De Humani Corporis Fabrica)는 저자 스스로 직접 행한 인체해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현대적인 해부학 책이다. 어려서부터 곤충과 작은 동물 해부를 즐겨했던 베살리우스는 벨기에의 루뱅 대학과 프랑스 파리 대학 의학부에서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동물과 인체를 해부했다.<br/><br/>파리 대학을 졸업한 베살리우스는 당시 의학 분야에서 볼로냐 대학과 함께 서양 최고를 다투던 파도바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곧 외과 및 해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1537년의 일이다. 그리고 화가 반 칼카르(Jan Stephan van Calcar)의 도움을 받아 1543년 일곱 권으로 된 <인체 구조에 관하여>를 출간했다. 1543년은 현대적인 우주관을 세우는 데 밑받침이 된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1473~1543년)의 저작 <천구들의 회전 운동에 관하여>가 출간된 해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천문학과 인간학에 대한 혁명은 같은 해에 시작되었다. (코페르니쿠스도 1501년부터 3년간 파도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베살리우스와 면식은 없었다.)<br/><br/>베살리우스는 자신의 책에서 인체해부 등 손으로 하는 행위를 경멸하는 의사들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과감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원숭이, 돼지, 개 등을 해부하고는 그 결과를 인체에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갈레노스의 오류들, 예컨대 다섯 엽의 간, 일곱 조각의 흉골, 두 부분으로 나뉜 하악골, 뿔 모양의 자궁 등을 스스로의 관찰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지적하고 바로잡았다.<br/><br/>자신의 연구에 대한 기성 의학자들의 부당한 비난과 질시에 지친 베살리우스는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해부학도 단념했다. 대신 황실 주치의라는 선망의 자리를 얻어 가문의 영광을 이어갔다. 파리 대학 시절 스승인 실비우스(Sylvius·1478~1555년)를 필두로 많은 의학 교수들이 베살리우스를 맹렬히 공격했던 것은 1000년이 넘도록 도전받지 않았으며 그들이 신봉해 마지 않은 갈레노스의 오류를 지적한 베살리우스의 태도와 성과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비우스도 불경스러운 제자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제자의 방법대로 직접 해부하고 관찰한 결과 갈레노스의 여러 잘못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잘못들은 물론 인체해부를 할 수 없었던 갈레노스가 원숭이와 돼지 등 동물 해부에서 관찰한 사실들을 인체에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생긴 것들이었다. 갈레노스의 절대적 추종자였던 실비우스는 차마 갈레노스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어서 갈레노스 이후 천몇백년 사이에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화했다는 천재적인 변명을 늘어놓았다.<br/><br/>의사인 해부학 교수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해부하고, 눈으로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무렵까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인체를 해부하는 것은 당시 비천한 신분인 이발사-외과의사의 몫이었고 해부학 교수는 갈레노스의 해부학 책이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들을 강독할 뿐이었다. 결국 베살리우스는 당시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통해, 곧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의 신분으로 손수 해부하고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장인적 전통과 (철)학자적 전통이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문이 열리는 과학혁명기의 특징이 의학 분야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br/><br/><b>■ 다 빈치가 인체해부학 창시자?</b><br/><br/>이러한 베살리우스의 업적을 통해 해부학 발전의 길이 열린 것은 물론이고, 해부학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인 생리학과 병리학이 탄생했다. 따라서 베살리우스를 인체해부학의 시조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다.<br/><br/>베살리우스가 해부학을 하루아침에 혼자 힘으로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학문적 성취는 크지 않았지만 그에 앞서 몇백년 동안 많은 인체해부 행위가 있었다. 그 가운데는 르네상스 예술 사조의 영향으로 화가와 조각가들이 인체의 정확한 묘사를 위해 인체해부를 행한 것도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1452~1519년)가 수많은 인체해부를 통해 뛰어난 해부도들을 남긴 것이 좋은 보기이다. 죽은 지 200년이 넘어서야 공개된 레오나르도의 해부도가 생전이나 사망 직후에 알려졌다면 우리는 베살리우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를 인체해부학의 창시자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br/><br/><황상익 | 서울대 의대 교수·의사학>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1.txt

제목: [정희진의 낯선 사이]“죽으면 그만인데 이래 살면 뭐하겠노”  
날짜: 20141024  
기자: 정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4100000034  
본문: 내 아버지는 공초(空超) 오상순 시인을 핑계 삼아 평생 하루 세 갑 담배를 피우셨다. 늘 어머니와 싸우셨지만 같은 말로 대응하셨다. 공초 선생은 폐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즐기며 죽음에 의연했다는 것이다. (시시한 삶을 초월한) “죽음에 의연”, 이 표현을 특히 강조하셨다. <br/>나를 포함해 과자, 술, 담배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기호 식품을 즐기는(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span class='quot0'>얼마나 사는 인생이라고, 이 맛있는 것을 참아서까지….</span>” 내 친구는 식사 대신 케이크와 도넛, 캐러멜 마키아토 커피를 달고 산다. 당연히 비만이다. 먹을 때마다 죄의식과 자기혐오를 호소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내 스트레스 알지? 나를 위로하는 것은 얘들뿐”이라고 한다. 중독자의 심정, 비슷할 것이다. 나 역시 먹을거리에 대한 집착이 있고, 비슷한 논리로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외롭고 지루한 노동의 연속, 취미도 이동도 친밀감도 없는 일상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자극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기대 외에는 시간을 견딜 방법이 없다. <br/>소설가 정찬의 ‘은빛 동전’이라는 단편이 있다. 1960년대 가난한 시절. 주인공의 어머니는 열 식구의 생활을 꾸리느라 집안일에다 삯바느질과 찹쌀떡 장사까지 한다. 가난의 고통과 더불어 고부 갈등, 아니 시어머니로부터 이유 없는 학대까지 당하고 있다. 현모양처 규범에 충실했던 어머니로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죽으면 그만인데 이래 살면 뭐하겠노”라며 일탈을 감행한다. 한 푼이 절실한 시절, 아들만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시킨 것이다. 그날은 어머니 인생의 첫 번째 일탈. 두 번째는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자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에게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인다. 어쨌든 그날 어머니에게 탕수육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져본 최대의 유혹이었고 그 유혹을 감행한 일탈이었다. <br/>나는 이 소설을 읽고 자기연민에 울었다. 감히 그리고 맥락도 없는 비교지만, 나의 경우는 “이렇게 살면 뭐할까, 어차피 죽을 건데”라며 시작한 일탈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소설로 치면, 없는 살림에 매일 탕수육을 먹고 있는 셈이다. <br/>중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단히 영광스럽거나 의미로 충만한 인생은 드물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자기 계발에 매진하는 인간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기호 식품으로 일상을 버틴다. 먹는 게 건강에 나쁜가, 참는 스트레스가 더 나쁜가 갈등하지만 대개는 후자의 판정승. 특히 금연은 쉽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친구들의 금연 결심, 금단현상 호소, 실패, 흡연을 반복하는 ‘간증’에 이력이 났다. 다이어트와 금연 중 무엇이 더 힘드냐고 물으면 다들, “둘 다”란다. <br/>행위에 대한 중독이든, 특정 성분 중독이든 갱생은 쉽지 않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일시적이어서 그렇지 ‘약효’가 있기 때문이다. 몸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더 좋아한다. 익숙함은 인간사의 대표적 부정의다. 적응(중독)된 몸은 삶의 방식이자 양식(糧食)이다. <br/>이처럼 중독은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여정에서 만난 엉뚱한(물론 때론 폭탄 같은) 친구다. 누구나 대하소설을 쓰거나 마더 테레사처럼 살다 갈 수는 없다. 몰입할, 헌신할, 절절히 사랑할 대상을 찾는 데 실패하면, 사회가 권하는 손쉬운 대상이 공허를 메워준다.<br/>이 글의 요지. 나는 비흡연자지만 담뱃값 인상과 그 논리에 반대한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겠지만, 나는 이 정책의 발상과 인간관이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 기호품 중독자의 몸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가 인간의 품격이자 ‘수준’을 가늠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지박약을 매일 인정하고 자책하는 국민이 많다면, 이 역시 공중 보건에 좋지 않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다. 금연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래야 성공한다.<br/>보건복지부를 운영하면서 담배와 인삼을 파는 정부 정책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해한다. 그러나 ‘의지박약의 흡연자’를 낙인 삼아 세계적 추세의 금연에 대처하는 방식은 안이하다. 박근혜 정부가 담배가 주는 만큼의 위안을 줄 자신이 없다면, 담배 가격을 그대로 두기를 바란다. 익숙함이라는 인간 본성을 이용한 가격 올리기, 비열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2.txt

제목: ‘절망의 암’ 췌장암 치료 희망의 길 여는 두 ‘명의’… EBS ‘명의 3.0’  
날짜: 2014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310015462130  
본문: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치료가 어렵기로 잘 알려진 암이다. 발병 후 5년 생존율이 8%밖에 되지 않고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80%에 육박하는 암이다.<br/><br/>24일 EBS <명의 3.0>에서는 ‘암, 희망을 이야기하다-1부 췌장암’편을 방송한다. 방송에서는 췌장암 진단 방법과 췌장암 치료의 새 길을 열고 있는 두 명의 명의를 소개한다.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췌장암 생존율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고 난도 수술로 알려진 위 유문 보존 췌장·십이지장 절제술은 췌장암 생존율을 높이는 표준 수술법이다. 수술 후 항암·방사선의 동시 치료와 항암치료제의 발달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췌장암 치료의 명의로 알려진 최동욱·이규택 교수가 췌장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한다.<br/><br/>환자 박은영씨는 지난해 9월 4기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췌장암에서 전이된 암세포가 간의 절반 이상을 뒤덮을 정도로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1, 2차 항암 치료를 받은 끝에 박씨는 그토록 원했던 일상으로 돌아왔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3.txt

제목: 류영준 교수 “실제로 내가 PD에게 물었다, 진실이 먼저냐 국익이 먼저냐”  
날짜: 20141023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3100000154  
본문: “<span class='quot0'>논문조작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아 미안했습니다.</span>”<br/>‘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41)는 줄기세포 조작을 다룬 영화 <제보자>의 감상평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영화를 제작한 측에 감사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이번 영화는 언론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진짜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영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span>”고 했다.<br/>지난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 들른 류 교수는 영화를 본 심경을 이같이 털어놓았다. 류 교수는 2002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팀에 합류했다. 팀장으로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다 2004년 말 황 전 교수의 여러 비리를 견디다 못해 연구실을 나왔다. 이후 그가 MBC 시사 프로그램 에 난자의 비윤리적 제공 문제와 논문조작 문제를 제보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홍역’을 앓았다. <br/><br/>■ “윤민철 PD와 이장환 박사 첫 대면이 백미”<br/>류 교수는 <제보자> 명장면으로 생물학에 문외한이던 윤민철 PD(박해일)가 논문조작에 대해 황 전 교수의 극중 인물인 이장환 박사(이경영)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울대 연구실을 찾아 수십명의 연구진과 마주하며 인터뷰하는 장면을 뽑았다. 류 교수는 “실제 당당하던 황 전 교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형(의 한학수 PD)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라고 논문조작을 처음 인정했다”며 “영화에 당시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제보자가 윤민철 PD와 처음 만나는 장면도 실제와 흡사하다고 한다. 제보자인 류 교수는 한 PD에게 “<span class='quot1'>진실이 먼저냐, 국익이 먼저냐</span>”고 물었다. 그는 “<span class='quot1'>한 PD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진실이 곧 국익’이라고 답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만약 잠시라도 주저했다면 나는 제보를 안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었다</span>”고 했다. 인생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폭로를 앞두고 망설이던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br/>실제와 다른 부분도 있다. 복제 강아지 ‘몰리’가 암에 걸리고 이장환 박사가 몰리를 쓰다듬는 장면이나, 영화 속 제보자 딸이 아픈 것은 허구다.<br/>■ 익명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논문조작<br/>2005년 겨울 황 전 교수 논문조작 논쟁이 가열됐을 때 제보자가 류 교수라는 점이 알려졌다. 일하던 원자력병원에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집에도 취재진이 진을 쳤다. 사표를 냈다. 도피생활이 시작됐다. 8개월 된 딸과 부인을 데리고 찜질방, 모텔, 지인 집을 전전했다.<br/>다수 언론이 그의 편이 아니었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1'>2005년 12월4일 한 방송사에서 황 전 교수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내보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날 밤 (생명과학자들의 익명 커뮤니티) ‘브릭’에 어나니머스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이 ‘더 쇼 머스트 고 온(쇼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span>”고 말했다. 어나니머스는 논문조작 증거를 찾아내면 감자 한 박스 보내겠다는 발칙한 단서를 달았다. 다음날 대화명 ‘아릉’이 브릭에 논문 사진 조작 증거를 올렸다. 류 교수는 “정말 극적이었다”며 “<span class='quot1'>이때부터 언론에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검증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span>”고 말했다.<br/>논문조작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브릭의 주요 멤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류 교수에게 전달했다. 2006년 12월 서울 신촌 한 식당에 모인 이들 앞에서 류 교수는 참 많이 울었다. 당시를 회고하던 류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1'>황 전 교수의 조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pan>”고 진단했다. 황 박사는 언론에 복제동물을 개발했다고 하면서도 논문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간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1'>실험실에서 복제 젖소가 실제 개발된 건 2003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당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연구실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자축했다</span>”고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연구자들끼리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제야 나왔구나’라고 했다</span>”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br/>류 교수는 황 전 교수의 논문조작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br/>“<span class='quot0'>국가적 유명세와 권력에 대한 유혹 때문에 끊임없이 논문조작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span>”<br/>▲ 황우석 사건 후 줄기세포 연구<br/>성인세포로 복제 단계까지… 일,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노벨상’<br/>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는 어떻게 됐을까. 이는 인위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복제하려는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한 뒤 실험실에서 배양해 줄기세포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br/>황 전 교수가 2005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가 조작으로 결론 난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는 8년이 지난 뒤 미국 연구진이 만들어냈다. 미국 오리건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해 지난해 5월 과학잡지 ‘셀(Cell)’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핵을 제거한 난자에 태아에서 얻은 피부세포를 넣어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br/>지난 4월18일 국내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팀과 미국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정영기 교수팀이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데 성공해 국제 저널 ‘셀 스템셀’에 게재했다. 이들은 성인세포를 이용해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직접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br/>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는 난자를 사용해야 해 윤리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인간 체세포에 바이러스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연구가 활발하다. 세계 최초로 iPS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일본 교토대 야마가타 신야 교수는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4.txt

제목: [정희진의 낯선 사이]“죽으면 그만인데 이래 살면 뭐하겠노”  
날짜: 2014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310015462843  
본문: 내 아버지는 공초(空超) 오상순 시인을 핑계 삼아 평생 하루 세 갑 담배를 피우셨다. 늘 어머니와 싸우셨지만 같은 말로 대응하셨다. 공초 선생은 폐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즐기며 죽음에 의연했다는 것이다. (시시한 삶을 초월한) “죽음에 의연”, 이 표현을 특히 강조하셨다.<br/><br/>나를 포함해 과자, 술, 담배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기호 식품을 즐기는(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span class='quot0'>얼마나 사는 인생이라고, 이 맛있는 것을 참아서까지….</span>” 내 친구는 식사 대신 케이크와 도넛, 캐러멜 마키아토 커피를 달고 산다. 당연히 비만이다. 먹을 때마다 죄의식과 자기혐오를 호소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내 스트레스 알지? 나를 위로하는 것은 얘들뿐”이라고 한다. 중독자의 심정, 비슷할 것이다. 나 역시 먹을거리에 대한 집착이 있고, 비슷한 논리로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외롭고 지루한 노동의 연속, 취미도 이동도 친밀감도 없는 일상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자극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기대 외에는 시간을 견딜 방법이 없다. <br/><br/>소설가 정찬의 ‘은빛 동전’이라는 단편이 있다. 1960년대 가난한 시절. 주인공의 어머니는 열 식구의 생활을 꾸리느라 집안일에다 삯바느질과 찹쌀떡 장사까지 한다. 가난의 고통과 더불어 고부 갈등, 아니 시어머니로부터 이유 없는 학대까지 당하고 있다. 현모양처 규범에 충실했던 어머니로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죽으면 그만인데 이래 살면 뭐하겠노”라며 일탈을 감행한다. 한 푼이 절실한 시절, 아들만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시킨 것이다. 그날은 어머니 인생의 첫 번째 일탈. 두 번째는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자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에게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인다. 어쨌든 그날 어머니에게 탕수육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져본 최대의 유혹이었고 그 유혹을 감행한 일탈이었다. <br/><br/>나는 이 소설을 읽고 자기연민에 울었다. 감히 그리고 맥락도 없는 비교지만, 나의 경우는 “이렇게 살면 뭐할까, 어차피 죽을 건데”라며 시작한 일탈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소설로 치면, 없는 살림에 매일 탕수육을 먹고 있는 셈이다. <br/><br/>중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단히 영광스럽거나 의미로 충만한 인생은 드물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자기 계발에 매진하는 인간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기호 식품으로 일상을 버틴다. 먹는 게 건강에 나쁜가, 참는 스트레스가 더 나쁜가 갈등하지만 대개는 후자의 판정승. 특히 금연은 쉽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친구들의 금연 결심, 금단현상 호소, 실패, 흡연을 반복하는 ‘간증’에 이력이 났다. 다이어트와 금연 중 무엇이 더 힘드냐고 물으면 다들, “둘 다”란다. <br/><br/>행위에 대한 중독이든, 특정 성분 중독이든 갱생은 쉽지 않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일시적이어서 그렇지 ‘약효’가 있기 때문이다. 몸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더 좋아한다. 익숙함은 인간사의 대표적 부정의다. 적응(중독)된 몸은 삶의 방식이자 양식(糧食)이다. <br/><br/>이처럼 중독은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여정에서 만난 엉뚱한(물론 때론 폭탄 같은) 친구다. 누구나 대하소설을 쓰거나 마더 테레사처럼 살다 갈 수는 없다. 몰입할, 헌신할, 절절히 사랑할 대상을 찾는 데 실패하면, 사회가 권하는 손쉬운 대상이 공허를 메워준다.<br/><br/>이 글의 요지. 나는 비흡연자지만 담뱃값 인상과 그 논리에 반대한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겠지만, 나는 이 정책의 발상과 인간관이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 기호품 중독자의 몸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가 인간의 품격이자 ‘수준’을 가늠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지박약을 매일 인정하고 자책하는 국민이 많다면, 이 역시 공중 보건에 좋지 않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다. 금연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래야 성공한다.<br/><br/>보건복지부를 운영하면서 담배와 인삼을 파는 정부 정책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해한다. 그러나 ‘의지박약의 흡연자’를 낙인 삼아 세계적 추세의 금연에 대처하는 방식은 안이하다. 박근혜 정부가 담배가 주는 만큼의 위안을 줄 자신이 없다면, 담배 가격을 그대로 두기를 바란다. 익숙함이라는 인간 본성을 이용한 가격 올리기, 비열하다.<br/><br/><정희진 | 여성학 강사>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5.txt

제목: 안치환 노래 인생 25년 ‘박스 세트 앨범’ “빨갱이란 말 싫다… 시대의 피울음”  
날짜: 20141022  
기자: 박경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2100000050  
본문: 가수 안치환(49)이 자신의 노래 인생 25년을 집약한 박스 세트 앨범 <안치환 앤솔로지-컴플리트 마이셀프>를 내놓았다. 이전에 발표했던 곡들을 다시 부르고 녹음한 97곡을 6장의 CD에 정리한 것이다. 작업에 걸린 시간은 10년. 최근 서울 연희동 자택 지하 스튜디오에서 만난 안치환은 “<span class='quot0'>2004년 이 스튜디오를 만든 뒤 예전에 녹음했던 곡들 중 아쉬웠던 것을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다시 녹음하면서 시작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기만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결과물로 이어지게 될지는 몰랐다</span>”고 말했다. 그가 발표한 10개의 정규앨범 중 7집까지는 소위 ‘셋방살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 임대 기간과 비용에 쫓겨 이뤄진 것이 많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br/><br/>앨범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내가 만일’ ‘소금인형’ 등 사랑에 관한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오늘이 좋다’처럼 삶의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광야에서’ 등 저항의 메시지다.<br/>“듣기 편하라고 나눴어요. 사실 음악 하는 사람에게 저항가요니 사랑노래니 하며 굳이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모든 노래는 다 나에게서 나온 내 마음이고 정신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짜냈던 기름 같은 건데…. 그전에도 간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앨범을 듣다 마치 돌부리에 걸리는 것처럼 정서적 일관성을 주지 않는다고요.”<br/>97곡 중 1곡은 세상에 처음 나온 곡이다. 제목은 ‘빨갱이’. “<span class='quot1'>이 세상에 가장 서글픈 그 말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비겁한 그 말/ 빨갱이-넌 빨갱이/ 이 세상에 가장 무식한 그 말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그 말/ 이젠 정말 싫다/ 제발 그만 멈춰.</span>” 현대사의 아픔과 처절한 현실을 담아낸 단어로 만들어낸 노랫말은 피울음 같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후벼 판다.<br/>그는 “<span class='quot1'>금기시되는 주제지만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span>”라며 “<span class='quot1'>음악 인생에 화룡점정하는 느낌</span>”이라고 말했다. 이 곡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곡을 완성했던 것은 지난해다. 앨범에 싣기 전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싶었다. 기왕이면 곡의 전개상 랩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았다. 예전에 뜻을 함께했던 동료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너무 세서 걱정된다”고도 했고, “나는 하고 싶지만…” 하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br/>“이건 뭔가 싶었죠. 배신감 같은 것도 들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싶기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말이죠. 결국 다 없던 걸로 하고 제 목소리로만 이번 앨범에 싣게 된 거예요.”<br/>앨범은 당초 4월에 발매할 계획이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미뤄지면서 생긴 시간 동안 건강검진을 한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 결과도 좋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 비해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는 “<span class='quot1'>얼마 전에 쇼케이스도 잘 치렀고 별문제는 없다</span>”며 웃었다.<br/>“ 예전에 암으로 죽은 친구도 생각나면서 정말 힘들었겠다 싶었죠. 쉬었다 가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니 다행스럽고 감사하기도 해요.” 앨범은 1000세트 한정판으로, 홈페이지(www.anchihwan.com)를 통해서만 판매한다. 또 이 중 30여곡은 따로 골라 올해 말까지 2장의 LP로 낼 계획이다.<br/>“1980년대와 비교해보면 가시적인 민주화 외에 우리 사회는 바뀐 게 없어요. 육체적인 부분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부분은 더 고약해졌죠. 통일, 교육, 환경, 노동 등 모든 부문에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요. 대중의 정서를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저항가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죠.”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6.txt

제목: 체 게바라 유명 사진 촬영한 르네 뷔리 별세  
날짜: 20141022  
기자: 정유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2100000025  
본문: 1960년대 쿠바 혁명기에 시가를 문 체 게바라의 흑백 사진을 찍어 유명해진 스위스의 사진 거장 르네 뷔리가 사망했다. 향년 81세.<br/>세계적 보도사진 작가그룹인 매그넘은 암으로 투병하던 뷔리가 20일(현지시간) 취리히에서 숨졌다고 밝혔다.<br/>마틴 파 매그넘 회장은 “<span class='quot0'>뷔리는 전후의 위대한 사진가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넉넉한 사람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매그넘에 대한 헌신과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 출중한 능력이 그의 유산</span>”이라며 애도했다.<br/><br/>1933년생인 뷔리는 10대 소년이었던 1946년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스위스를 방문해 카퍼레이드를 하자 아버지의 카메라로 처칠의 모습을 담으면서 사진에 발을 들였다.<br/>23세 때는 농아학교를 찍어 ‘농아를 위한 탄주’라는 제목을 붙인 사진이 미국 잡지 라이프에 실리면서 주목받았다.<br/>1956년 매그넘에 합류한 뷔리는 1963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중 시가를 피우며 상념에 잠긴 듯한 전설적 혁명가 체 게바라의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은 세계 전역에 퍼져 나가 유명해졌다.<br/>뷔리는 나중에 체 게바라에 대해 “오만한 사람이지만 매력이 있었다. 우리에 갇힌 호랑이 같았다”고 회고했다.<br/>이 밖에도 세계적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낸 피델 카스트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건축가 르코르뷔지에 등의 사진을 연달아 촬영했다.<br/>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해 뷔리는 “불도저처럼 덤벼들면 안된다”면서 섬세한 접근을 강조했다. <br/>뷔리는 중동과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각지를 누비며 취재활동을 했다. 그가 남긴 사진 30만장은 스위스 로잔의 엘리제 사진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7.txt

제목: 영화 ‘제보자’ 실제 주인공 류영준 교수 “실제로 내가 PD에게 물었다, 진실이 먼저냐 국익이 먼저냐”  
날짜: 201410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21001545463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황우석 논문 조작 제보자</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논문조작 밝힌 주역들보다 언론인에 초점 맞춰 아쉬워</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황 전 교수, 99년부터 조작… 실제 복제 소 개발은 4년 후</strong><!-- SUB\_TITLE\_END--><br/><br/>“<span class='quot0'>논문조작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아 미안했습니다.</span>”<br/><br/>‘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41)는 줄기세포 조작을 다룬 영화 <제보자>의 감상평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영화를 제작한 측에 감사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이번 영화는 언론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진짜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영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span>”고 했다.<br/><br/>지난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 들른 류 교수는 영화를 본 심경을 이같이 털어놓았다. 류 교수는 2002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팀에 합류했다. 팀장으로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다 2004년 말 황 전 교수의 여러 비리를 견디다 못해 연구실을 나왔다. 이후 그가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난자의 비윤리적 제공 문제와 논문조작 문제를 제보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홍역’을 앓았다. <br/><br/><br/><b>■ “윤민철 PD와 이장환 박사 첫 대면이 백미”</b><br/><br/>류 교수는 <제보자> 명장면으로 생물학에 문외한이던 윤민철 PD(박해일)가 논문조작에 대해 황 전 교수의 극중 인물인 이장환 박사(이경영)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울대 연구실을 찾아 수십명의 연구진과 마주하며 인터뷰하는 장면을 뽑았다. 류 교수는 “실제 당당하던 황 전 교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형(<PD수첩>의 한학수 PD)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라고 논문조작을 처음 인정했다”며 “영화에 당시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br/>제보자가 윤민철 PD와 처음 만나는 장면도 실제와 흡사하다고 한다. 제보자인 류 교수는 한 PD에게 “<span class='quot1'>진실이 먼저냐, 국익이 먼저냐</span>”고 물었다. 그는 “<span class='quot1'>한 PD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진실이 곧 국익’이라고 답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만약 잠시라도 주저했다면 나는 제보를 안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었다</span>”고 했다. 인생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폭로를 앞두고 망설이던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br/><br/>실제와 다른 부분도 있다. 복제 강아지 ‘몰리’가 암에 걸리고 이장환 박사가 몰리를 쓰다듬는 장면이나, 영화 속 제보자 딸이 아픈 것은 허구다.<br/><br/><b>■ 익명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논문조작</b><br/><br/>2005년 겨울 황 전 교수 논문조작 논쟁이 가열됐을 때 제보자가 류 교수라는 점이 알려졌다. 일하던 원자력병원에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집에도 취재진이 진을 쳤다. 사표를 냈다. 도피생활이 시작됐다. 8개월 된 딸과 부인을 데리고 찜질방, 모텔, 지인 집을 전전했다.<br/><br/>다수 언론이 그의 편이 아니었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1'>2005년 12월4일 한 방송사에서 황 전 교수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내보내 여론이 안 좋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날 밤 (생명과학자들의 익명 커뮤니티) ‘브릭’에 어나니머스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이 ‘더 쇼 머스트 고 온(쇼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span>”고 말했다. 어나니머스는 논문조작 증거를 찾아내면 감자 한 박스 보내겠다는 발칙한 단서를 달았다. 다음날 대화명 ‘아릉’이 브릭에 논문 사진 조작 증거를 올렸다. 류 교수는 “정말 극적이었다”며 “<span class='quot1'>이때부터 언론에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검증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span>”고 말했다.<br/><br/>논문조작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브릭의 주요 멤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류 교수에게 전달했다. 2006년 12월 서울 신촌 한 식당에 모인 이들 앞에서 류 교수는 참 많이 울었다. 당시를 회고하던 류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br/><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1'>황 전 교수의 조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pan>”고 진단했다. 황 박사는 언론에 복제동물을 개발했다고 하면서도 논문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간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1'>실험실에서 복제 젖소가 실제 개발된 건 2003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당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연구실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자축했다</span>”고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연구자들끼리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제야 나왔구나’라고 했다</span>”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br/><br/>류 교수는 황 전 교수의 논문조작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br/><br/>“<span class='quot0'>국가적 유명세와 권력에 대한 유혹 때문에 끊임없이 논문조작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span>”<br/><br/><div style="border: solid 1px #DDD;background-color: #F5F5F5;padding: 10px 15px 15px 15px;font-size: 13px;line-height: 22px;\_height: 1%;margin-bottom: 20px;"><b>▲ 황우석 사건 후 줄기세포 연구<br/>성인세포로 복제 단계까지… 일,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노벨상’</b><br/><br/>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는 어떻게 됐을까. 이는 인위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복제하려는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한 뒤 실험실에서 배양해 줄기세포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br/><br/>황 전 교수가 2005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가 조작으로 결론 난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는 8년이 지난 뒤 미국 연구진이 만들어냈다. 미국 오리건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해 지난해 5월 과학잡지 ‘셀(Cell)’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핵을 제거한 난자에 태아에서 얻은 피부세포를 넣어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br/><br/>지난 4월18일 국내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팀과 미국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정영기 교수팀이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데 성공해 국제 저널 ‘셀 스템셀’에 게재했다. 이들은 성인세포를 이용해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직접 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br/><br/>인간 배아 복제 줄기세포는 난자를 사용해야 해 윤리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인간 체세포에 바이러스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연구가 활발하다. 세계 최초로 iPS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일본 교토대 야마가타 신야 교수는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div><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8.txt

제목: [바른세상병원의 바른 척추·관절]흡연이 허리통증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날짜: 2014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1100000044  
본문: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담뱃값과 흡연율은 대체로 반비례한다. 담뱃값이 오를수록 흡연 인구는 줄어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다. 반면 성인 흡연율은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br/><br/>당장 애연가들은 비상이다. 한곳에서 1인당 파는 담배의 양을 제한하자 편의점을 돌며 도토리 모으듯 2~3갑씩 담배를 사 모으는 다람쥐족이 등장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다.<br/><br/>필자는 의사로서 담뱃값 인상 여부를 떠나 금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찬성한다. 담배는 잘 알려져 있듯이 폐암과 폐 질환, 각종 암의 주요인으로 꼽히며, 주위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허리와 관절에도 악영향을 준다. 담배 연기는 기관지를 자극해 기관지염과 만성 기침을 유발, 복부와 디스크의 압력을 높여 디스크가 파열되는 원인이기도 한다. 담배의 니코틴이 체내에 쌓이면 칼슘 등의 미네랄을 감소시켜 척추 뼈에 미세한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을 야기한다.<br/><br/>실제 흡연과 허리 통증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로체스터 의대 글렌 레히틴 박사는 척추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았거나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흡연 실태를 조사·분석해 보니 담배를 끊는 것이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br/><br/>흡연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혈액의 기능을 떨어뜨려 모세혈관 축소와 혈액 순환 방해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렇듯 척추 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척추 디스크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 디스크 영양 공급은 자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전적으로 척추 뼈의 혈액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이다. 디스크에 원활하게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디스크 수핵의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해지고 주위 조직이 상해 디스크가 터지고 통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허리 건강이 걱정된다면 금연하는 것이 좋고,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br/><br/>무엇보다 허리디스크, 척추압박골절, 척추전방전위증 등이 심해 척추 유합술이나 고정술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흡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 흡연자가 척추유합술이나 고정술을 받을 경우 금속 고정물이 척추에 고정되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흡연을 하면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일산화탄소의 양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조직 내 산소량이 부족해지는데, 이런 경우 뼈의 생성력이 떨어지면서 뼈 융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br/><br/>진료를 받으러 온 많은 환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평소 허리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필자는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운동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하고, 담배를 피운다면 꼭 금연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건강을 위해 평소 수영, 등산,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이런 운동이 소용 없다. 허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이 우선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299.txt

제목: [사설]원전과 갑상샘암 인과관계 인정한 법원 판결  
날짜: 2014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0100000030  
본문: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오래 살면서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씨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박씨는 고리원전으로부터 10㎞ 안팎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span>”며 한수원 측에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원전과 일부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시민 건강권 제고와 관련해 획기적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br/>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의 전향적 인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재판부는 원전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유효선량) 이하의 방사선량을 방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간유효선량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절대적 안전을 담보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 손배 소송에서와 달리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의 엄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수원 측이 원전과 갑상샘암 발병 간 ‘인과관계 불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br/>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의 사례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1심에서 승소한 박씨의 사연은 기구하다. 남편은 직장암 판정을 받았으며 아들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2012년 일가족 세 명이 함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박씨에 대해서만 원전 측 책임을 인정했다. 전국의 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비슷한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이 드물지 않을 것으로 본다.<br/>언제까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텐가. 이제는 국가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정부는 민관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노후 원전의 연장 가동을 포기하는 등 기존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강원 삼척 주민투표에서 원전 반대 의사가 압도적으로 나타난 데 이어, 경북 영덕 등 다른 원전 예정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터다. 탈(脫)원전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0.txt

제목: 남겨진 3남매… “애들은 아빠가 자는 줄 알아”  
날짜: 20141020  
기자: 허남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20100000148  
본문: “손주들은 지금도 제 아빠가 자는 줄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6살짜리 큰아이에게 ‘(아빠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져봐라’고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영문을 몰라요.”<br/>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35)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윤씨의 아버지(67)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눈물을 삼켰다. 장례식장에는 윤씨의 6살 딸, 5살 아들, 3살짜리 딸 등 3남매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뛰어놀고 있었다.<br/><br/>태양광 설비업체에 다니는 윤씨는 지난 17일 회사 동료 두 명과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가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잠깐 공연을 지켜보다 사고를 당했다. 회사에서는 책임감이 강하고, 집에서는 자상한 30대 가장은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로 세 아이와 부인을 두고 먼저 떠났다. 동료 조모씨(35)도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br/>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중에는 역시 세 남매를 두고 함께 변을 당한 40대 부부, 기러기 아빠, 외동아들·외동딸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19일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은 떠난 이들을 애통해하는 가족, 동료, 친지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br/>암투병 중인 아내 권모씨(46)에게 “기분전환을 시켜 주겠다”며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정모씨(47) 부부 역시 세 남매만 남기고 떠났다. 정씨는 다리를 다쳐 2년간 일을 쉬다 올해 초 판교의 벤처기업 관리인으로 취업했고, 부인 권씨는 암수술을 받은 뒤 요양 중이었다. 빈소가 차려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한 유족은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갈 수가 있어. 그동안 고생만 하다 이제 살 만한데…. 애들은 어떡하라고”라며 오열했다. 빈소를 지키던 아들(20)은 “아빠가 평소 농담으로 ‘나 없으면 네가 엄마하고 동생들 잘 보살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말 못하고 엄마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인 여동생(18)과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 여동생(11)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br/>사고 현장에서 공연을 보다 고인이 된 이모씨(45)는 부인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두 아들을 중국으로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였다. 분당지역 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니던 그는 두 달 전 새 전셋집을 얻어놓고 내년 2월 가족의 합류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씨는 사고 직전 직장 동료와 통화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으나 동료들이 성남지역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인상착의를 확인해 발견됐다.<br/>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강모씨(24)는 사고 현장 근처 어학시험 업체에 얼마 전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 김모씨(27)와 함께 공연을 보러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생일이 같은 날인데다 평소 친구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 주변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br/>이날 희생자 홍모씨(29)의 발인식이 오전 11시30분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유족과 직장동료 등 50여명이 마지막 떠나는 길을 지켜봤고, 홍씨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끝내 쓰러지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1.txt

제목: ‘판교 참사’ 빈소 안타까운 사연들… 남겨진 3남매 “애들은 아빠가 자는 줄 알아”  
날짜: 2014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91001542804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암투병 아내 기분전환 하려다… 가족 기다리던 기러기 아빠…</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희생자 첫 발인에 ‘눈물바다’</strong><!-- SUB\_TITLE\_END--><br/><br/>“손주들은 지금도 제 아빠가 자는 줄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6살짜리 큰아이에게 ‘(아빠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져봐라’고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영문을 몰라요.”<br/><br/>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35)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윤씨의 아버지(67)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눈물을 삼켰다. 장례식장에는 윤씨의 6살 딸, 5살 아들, 3살짜리 딸 등 3남매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뛰어놀고 있었다.<br/><br/><br/>태양광 설비업체에 다니는 윤씨는 지난 17일 회사 동료 두 명과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가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잠깐 공연을 지켜보다 사고를 당했다. 회사에서는 책임감이 강하고, 집에서는 자상한 30대 가장은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로 세 아이와 부인을 두고 먼저 떠났다. 동료 조모씨(35)도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중에는 역시 세 남매를 두고 함께 변을 당한 40대 부부, 기러기 아빠, 외동아들·외동딸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19일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은 떠난 이들을 애통해하는 가족, 동료, 친지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br/><br/>암투병 중인 아내 권모씨(46)에게 “기분전환을 시켜 주겠다”며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정모씨(47) 부부 역시 세 남매만 남기고 떠났다. 정씨는 다리를 다쳐 2년간 일을 쉬다 올해 초 판교의 벤처기업 관리인으로 취업했고, 부인 권씨는 암수술을 받은 뒤 요양 중이었다. 빈소가 차려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한 유족은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갈 수가 있어. 그동안 고생만 하다 이제 살 만한데…. 애들은 어떡하라고”라며 오열했다. 빈소를 지키던 아들(20)은 “아빠가 평소 농담으로 ‘나 없으면 네가 엄마하고 동생들 잘 보살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말 못하고 엄마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인 여동생(18)과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 여동생(11)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br/><br/>사고 현장에서 공연을 보다 고인이 된 이모씨(45)는 부인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두 아들을 중국으로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였다. 분당지역 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니던 그는 두 달 전 새 전셋집을 얻어놓고 내년 2월 가족의 합류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씨는 사고 직전 직장 동료와 통화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으나 동료들이 성남지역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인상착의를 확인해 발견됐다.<br/><br/>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강모씨(24)는 사고 현장 근처 어학시험 업체에 얼마 전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 김모씨(27)와 함께 공연을 보러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생일이 같은 날인데다 평소 친구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 주변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br/><br/>이날 희생자 홍모씨(29)의 발인식이 오전 11시30분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유족과 직장동료 등 50여명이 마지막 떠나는 길을 지켜봤고, 홍씨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끝내 쓰러지기도 했다.<br/><br/><성남 | 허남설·경태영·조형국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2.txt

제목: “고리 인근 주민 갑상샘암, 원전에 책임” 첫 판결  
날짜: 20141018  
기자: 권기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8100000054  
본문: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린 것은 방사선을 방출한 원전의 책임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원전 주변 주민의 암 발병에 원전 책임을 물은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등 원전 주변 주민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br/>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씨(48)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pan class='quot0'>원전의 방사선 방출로 인해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pan>”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1'>박씨가 고리원전 6기로부터 10㎞ 이내 또는 10㎞ 남짓 떨어진 곳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선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span>”고 밝혔다.<br/><br/>재판부는 “<span class='quot1'>갑상샘암은 방사선 노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span>”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의학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 원전에서 5~30㎞ 떨어진 지역의 경우 30㎞ 밖 지역에 비해 1.8배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다른 암과 달리 갑상샘암은 원전으로부터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span class='quot1'>방출된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한 연간유효선량 한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절대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span>”고 밝혔다. 특히 “박씨가 침해당한 이익은 신체의 건강에 관련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기타 다른 이익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공공의 필요에 쉽게 희생될 수 없는 법익”이라고 밝혔다.<br/>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은 “<span class='quot2'>원전과 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반핵의사회가 데이터를 더 찾아내 재검증 작업을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원전과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향후 소송 제기의 기폭제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3.txt

제목: [사설]검·경이 매일 의료정보 수천건 들여다본다니  
날짜: 2014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8100000003  
본문: 검찰과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일 수천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가입자 정보 435만여건을 검·경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600여건에 이른다. 제공된 정보 중에는 낙태수술이나 암수술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br/>검·경은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 같은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그럼에도 외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 지침까지 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한다. 수사기관에는 이토록 저자세인 반면 당사자에겐 정보 제공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니 기막힐 뿐이다. 도대체 건보공단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br/>적법성 여부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서울고법은 차모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넘긴 네이버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포털업체들은 ‘수사기관 요청 시 통신사업자가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검·경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해왔는데, 법원이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포털업체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주요 포털사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넘겨주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 취지에 비춰볼 때 일반 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의료정보 제공행위는 불법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br/>최근 카카오톡과 밴드 등을 둘러싼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크다. 여기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해 법원의 영장 없이는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의료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뒤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건보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하는 행위도 반드시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4.txt

제목: [새 책]조까라마이싱 外  
날짜: 2014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8100000017  
본문: ▲ 조까라마이싱…김일석 | 산지니<br/>“<span class='quot0'>걸레 빗자루 들고 구석구석 박박 기던/ 늙고 값싼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가/ 덜거덕거리는 무릎과 허리 곧추세워 대오를 짜니/ 교육 모리배들아, 느낌 어떠냐?/ 황당하냐?/(…)/ 에라이 니기미/ 조까라마이싱이다!</span>” 평생 비정규 교육 노동자로 살아온 시인은 “<span class='quot0'>비정규직 투쟁현장, 밀양, 가난한 공동체의 상처 깊은 분들께 삼가 이 시집을 바친다</span>”고 밝혔다. 1만2000원<br/><br/>▲ 비밀의 다락방…아이린 와츠 | 단비<br/>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소녀가 만났다. 일곱 살에 암으로 엄마를 잃은 케이티는 엄마 초상화에 대고 하루 일과를 들려주며 자란다. 아빠가 재혼하고 동생이 태어나며 더욱 외톨이라고 느끼게 된다. 집이 점점 불편해진 케이티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집에서 1900년대의 영국 소녀 ‘릴리’의 환영을 만난다. 허정화 옮김. 1만1000원<br/><br/>▲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번째…김솔 | 문학과지성사<br/>동시대 다양한 이슈를 소재로 한 소설 10편에는 작가의 해박한 지식이 덧붙여져 공들여 쓴 느낌이 난다. ‘피그말리온 살인사건’에서는 피그말리온 신화와 백설공주의 거울 모티프를 패러디해서 외모지상주의와 외설적인 대중문화를 비판하고, ‘소설 작법’에서는 한국 출판계와 독서 시장을 풍자한다. 2012년 등단한 작가의 첫 소설집. 1만4000원<br/><br/>▲ 청춘은 아름다워…헤르만 헤세 | 문학동네<br/>1900~1954년 작가가 쓴 100여편의 단편 소설 중 국내에 첫 번역된 작품 ‘늑대’ ‘꼬마 굴뚝 청소부’ ‘한스 디를람의 수습 시절’ 등 3편을 포함해 11편을 묶었다. 작가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대표작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을 담겠다는 취지로 엮은 책이다. 박경희 옮김. 1만4500원<br/><br/>▲ 산과 강은 바다에서 만나고…임혁백 | 나남<br/>고려대 교수인 저자가 ‘디오니소스적 방랑’을 좌우명으로, 지중해와 아드리아해 주변 도시를 탐방하고 돌아왔다. 부제에 붙은 ‘지중해 역사문화’처럼 책에는 저자가 다닌 세계의 역사 이야기가 많아 여행 에세이라기보다 인문서에 가깝다. 방랑기의 주제는 ‘남부독일의 빛과 그림자’ ‘지중해와 아드리아 해를 가진 아름다운 이탈리아’ 등 4가지로 나뉜다. 1만6000원<br/><br/>▲ 연예인이 되기 위한 34계명…이동규 | 행복한책읽기<br/>저자는 <웃찾사>와 <도전! 1000곡>을 만든 전직 SBS 예능 PD이자 현직 방송연예과 교수다. 그가 PD로서의 경험을 살려 연예인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철학, 자세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연예인은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지만 스타가 되려면 상품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만5800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5.txt

제목: 강원래, 장애를 이긴 ‘꿍따리 샤바라’  
날짜: 2014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810015526265  
본문: <div style='color:#2c75ff;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올해로 장애인으로 산 지 14년째. 분노, 좌절의 시간을 이겨낸 그는 이전보다 더 속 깊은 남자와 멋진 아빠가 되어 감동과 행복을 나눠주고 있다. 안무가, 라디오 DJ, 대학 강사, <꿍따리 유랑단> 대표, 대학생…. 그는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도전한다.<br/></div><br/><br/>꼭 한 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강원래. 하지만 그와의 만남은 늘 망설여졌다. 자칫 말실수라도 하면 화내고 가버릴 것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우리들이 열광했던 <클론>의 강원래 오빠는 한국에서 가장 춤 잘 추는 남자이자 까칠한 남자였다. 소문 속에서 만나는 그는 ‘차가운 사람’이었으나 최근에 태어난 아들 ‘선이’에게 쓴 편지를 모아서 낸 책을 읽고 난 후 걱정과 오해가 사라졌다. 2014년, 내가 직접 만난 강원래는 깊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br/><br/><strong>“<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병신 됐는데 무슨 강연이야!</span></span>” <br/><br/></strong>2000년 11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는 불법 유턴하는 차에 치여서 1급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욕을 하기도 했다. 덕분에 병실 침대에 한 달 반 동안 묶여 있기도 했다. 다 깨부수고 심지어 불도 지르고 싶었다. ‘병신’이란 말을 듣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솔직한 심정을 말했더니,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며 지극히 정상인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덕배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span class='quot0'>베개가 썩을 때까지 울어라, 짜샤!</span>” <br/><br/>“올해가 장애인으로 산 지 14년 되는 해예요. 부정, 분노, 좌절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 난폭해진 저를 변화시킨 건 아내 송이와 여전히 저를 멋진 놈이라고 불러주는 준엽이었어요. 선배 장애인들의 ‘세상을 향해 욕하면 세상이 욕으로 답하고,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이 웃음으로 답한다’는 조언도 큰 힘이 되었죠.” <br/><br/>사고 이후 4년 동안 칩거하던 강원래에게 한 통의 메일이 온다. 보호관찰소에 있는 폭주족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병신 됐는데 무슨 강연이야!</span></span>” 화를 내며 거절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넌 정말 잘할 것 같다며 해보라고 권했다. 계속되는 설득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말썽쟁이들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년 강원래’들을 발견했다. 1년에 10회씩, 전국 강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다.<br/><br/>“나도 그 시절에 상처 때문에 춤추고, 나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건 사회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강자에게서 받은 상처를 약자에게 분출하게 되잖아요. 너희들, 상처 많이 받았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지? 그래도 너희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너희들을 이해해….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공연으로 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도 나쁜 놈인데 뭘 가르치고 훈계하겠어요?” <br/><br/><strong>공부를 시작하다<br/><br/></strong>그는 지금 연극영화과 4학년이다. 연극영화를 전공하면서 심리학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뮤지컬, 연극, 영화 연출을 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br/><br/>“지금도 후배 댄서를 만나면 너도 상처가 많구나 생각해요. 예전엔 상처 많은 애들이 춤을 췄거든요.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영화 <똥파리>를 보면서도 엄청 울었어요. 저 새끼가 욕하는 이유가 다 상처 때문이구나. <빨래>라는 연극을 보면 ‘당신의 젖은 마음 내가 말려 드릴게요’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를 들은 순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바람에 맡겨두면 빨래가 마르듯이 우리의 젖은 마음도 언젠가는 마른다는 것, 나도 이런 위안을 주는 연극과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내가 <빨래>에서 느꼈던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자. 가르치기보다는 느끼게 해주고,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적 충격을 주고 싶었어요. <꿍따리 유랑단>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br/><br/><br/><br/><strong>어디든지 찾아가는 <꿍따리 유랑단> <br/><br/></strong>“<꿍따리 유랑단> 공연과 ‘장애인식 바꾸기’ 강연 합니다. 연락주세요!” 페이스북에 그가 직접 올린 글이다. <br/><br/>‘한 팔 격투기 챔피언’, 발성장애 ‘인기가수’, 키 작은 ‘트로트 가수’, ‘휠체어 소녀’, ‘청각장애 댄서’, ‘성대모사 달인’인 시각장애인, ‘건방진 한 손 마술사’가 함께 만들어내는 90분의 공연은 재미와 감동과 눈물로 흠뻑 젖는 시간이다.<br/><br/>장애가 있지만 재주가 많은 친구들이 보호관찰소 청소년과 소년원생들에게 ‘장애를 가진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공연이다. ‘장애인들 뻔하지, 시간 때우는 거겠지’ 하며 공연장에 들어온 말썽꾸러기들이 ‘정말 감동받았다, 열심히 사는 장애인들을 보며 나 자신을 반성했다’는 메일을 보내올 때 큰 보람을 느낀다. <br/><br/>한창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 받던 출연료의 5%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거나, 오히려 돈을 더 쓰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시골 분교에서 공연하고 20만원을 받았다. 단원들의 출연료는 고스란히 강원래의 주머니에서 나갔다. 그래도 즐거웠다. 계획한 대로 공연이 잘 치러졌고, 관객들이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출연료를 떠나서 어설픈 공연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싫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공연을 하고 싶다. <br/><br/><strong>“입양이나 하지” <br/><br/></strong>아내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에 도전해서 7번이나 실패를 했다. 지친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다. “입양이나 하지.” 걱정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무심코 던지는 사람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부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6년 전, 반려견 똘똘이를 입양했다. 많은 갈등과 싸움으로 힘들었던 부부를 다시 사랑으로 묶어준 것도 똘똘이었다. <br/><br/>휠체어 밑에 엎드려서 걷지 못하는 아빠를 늘 지켜주고,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해준 것도 똘똘이었다. 똘똘이로 인해서 다시 행복을 되찾았을 때 기적처럼 새 생명이 부부를 찾아왔다. 하지만…, 똘똘이는 아들 ‘선’이가 태어나기 5개월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똘똘이 얘기만 나오면 부부는 여전히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한다.<br/><br/><strong>엄마 ‘김송’의 이야기<br/><br/></strong>한 남자에게 편지 200통을 보내고 500통을 받았다. 남자친구는 군복무 30개월 동안 ‘내 사랑 송이’라는 제목으로 500여통의 손편지를 보내왔다. 남들은 ‘한 남자만 사랑한 바보 같은 여자’라고 말하지만, 오늘까지 강원래의 아내 김송으로 살 수 있는 건 손편지 500통이 낳은 힘이다. <br/><br/>열여섯 살 때, 춤 잘 추는 강원래에게 첫눈에 반했고,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서 동거를 시작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 11월 9일,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가 두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br/><br/>“상견례 때 시아버지께서 ‘내 딸이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결혼 못 하게 할 건데…. 내 아들에게 시집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을 때 목 놓아 울었어요. 살면서 위기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저 남자를 평생 수발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절망감에도 빠지고 집밖으로 돌기도 했죠. 이혼하자고 싸우고, 남편 가슴에 상처 내는 말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작년 결혼기념일에 임신이 되었다는 기적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 남자가 굉장히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저를 감동시켜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편에 대한 악플을 달 때 정말 힘들어요. 아기 아빠는 자신을 포장할 줄 모르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힘든 시절을 이제 겨우 건너왔어요. 남편이 오해를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내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을 다 잘 키우기 위해 좋은 어른이 될 겁니다.” <br/><br/> <strong>아빠 ‘강원래’의 이야기<br/><br/></strong>“<형제는 용감했다>는 뮤지컬에서 아빠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너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거야.’ 그 대사가 주는 울림이 정말 컸어요. 내 아버지가 언제부터 담배를 폈을까? 첫 경험은 언제 했을까?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났을까? 나쁜 짓도 해봤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선’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편지에 썼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빠는 성년이 되기 전에 담배도 피웠고, 술도 마셨고, 할아버지 지갑에서 돈도 훔쳤고, 말썽꾸러기 짓을 정말 많이 했어.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좋지만 너는 남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살아갈 이 세상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다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아내도 함께요.”<br/><br/>그는 아이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다. 엄마 아빠의 편지는 <우리 사랑 선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났다.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랑하는 선! 엄마 아빠의 편지 잘 읽고 꼭 답장 바란다. -아빠 강원래” <br/><br/><strong>베풀 선(宣)- 행복한 2인자가 되어 줄래?<br/><br/></strong>2014년 6월, 3.9㎏의 우람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베풀 ‘선’(宣), ‘강선’이다. 아빠를 쏙 빼닮았고,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까르르 웃는다. <br/><br/>“아내와 저는 1인자가 아니었어요. 선이도 1인자를 빛내주는 2인자가 되어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클론> 활동을 할 때도 준엽이가 1인자였지 저는 친구 덕을 많이 본 2인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예전에 전신마비 장애인 박승일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고 그의 언어를 여자친구가 해독하고…. 그 모습 보면서 나는 내 상황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꿈을 이루기까지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입 시험을 볼 때 답지를 보여준 친구가 있었기에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준엽이 덕분에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하고 베풀면서 사는 삶…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잖아요? 선이를 보면 우리 부부를 닮았다는 자체가 정말 기뻐요. 선이가 댄서가 되길 바라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언젠가 선이가 춤을 추고 싶다고 말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땐 확실히 밀어 줘야죠.” <br/><br/>초보아빠는 아들 선이가 빨리 걸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요즘은 선배 아빠들을 만나면 아이가 몇 개월 때 걸었냐고 가장 먼저 물어본다. 아빠는 아들이 걸을 날만 기다린다.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하고, 귀가하는 아빠를 마중 나오면 좋겠다. 아빠의 휠체어를 아들이 힘차게 밀어주면 좋겠다. 아빠가 주인아저씨 몰래 껌을 훔쳤던 집 앞 구멍가게에도 아들과 함께 가보고 싶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싶다. 뛰면서 함께 놀아줄 수는 없지만, 사고 쳐도 기댈 수 있는 편하고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자신은 있다.<br/><br/><strong>장애도 하나의 개성이다<br/><br/></strong>장애를 갖고 사는 데 가장 힘든 건 육체적 고통보다 외로움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늘 불편했다. 거리에서 장애인을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사람 살 만한 세상이 아닐까.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나 지방 공연을 갈 때에도 가능하면 혼자 다닌다. 혼자서도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동정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이 장애인들을 가장 불편하게 한다. 장애도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단지 나와 다를 뿐이라고….<br/><br/>“‘몸도 불편한 사람이 밖엔 왜 나왔을까?’ 하는 시선보다는 ‘잘 나왔어요. 함께 놀아요. 불편한 점 있어요? 도와줄까요?’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힘들죠? 극복하세요’라는 말보다 ‘지금도 멋져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밌게 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배려가 있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br/><br/> <strong>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br/><br/></strong> ‘가해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자꾸 생각난다. ‘나는 이제 행복한데, 그분은, 그 가족은 잘 살고 있을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고를 낸 분의 가족이 병실을 찾아온 적이 있다. 아내에게 합의를 부탁했다고 한다. 남편이 차가운 구치소 방바닥에서 고생을 하니까 선처를 부탁한다고. 그때 아내 송이는 울면서 괴로워했다. <br/><br/>재활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무대에 다시 올랐다. 하루아침에 파트너를 잃고 혼자가 된 준엽이에게 나는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고, 준엽이는 분명 피해자였다. 준엽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무대에 올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클론> 5집을 내고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면서 <내 사랑 송이>를 불렀다. 다시 행복이 찾아오자 ‘가해자’란 단어가 떠올랐다. 인생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br/><br/>“사고를 낸 가해자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제가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다행히 그분은 내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입니다. 사고 당시에 내 헬멧을 벗겨주던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해요. 장애를 받아들이고 제가 원하는 일도 마음껏 하고, 새로운 꿈도 꾸고, 누굴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날 딴 길로 갈 걸…’ 이 정도의 아쉬움이 있을 뿐이죠.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고 싶어요. 나도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그분의 상처를 위로해드리고 싶어요.”<br/><br/><strong>개성 강한 남자 강원래, 멋진 아빠 강원래<br/><br/></strong> 나는 그를 이렇게 불러주고 싶다. 가식 없이 솔직한 남자 강원래와 어린아이처럼 맑게 웃는 아내 김송은 참 어울리는 부부였다. <br/><br/>그들을 만나러 가면서 임신 8개월차 후배를 데리고 나갔다. 인터뷰를 마친 뒤 그는 예비엄마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육아 비법’을 전수했다. <모신>이라는 책을 읽어라, 나는 무척 감동을 받았다, 아이에겐 엄마 자궁 속이 천국이다, 그 속에 있을 때부터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라…. 그는 웬만한 엄마들보다 태교와 유아교육에 대한 내공이 탄탄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2000년 11월, 사고가 나기 전, 무대를 활보하던 신화적인 댄스가수 ‘강원래’도 멋있었지만, 지금의 ‘강원래’가 더 멋져 보였다. <br/><br/>그는 여전히 꿈을 꾼다. 안무가, 라디오 DJ, 대학 강사, 장애인 인식 바꾸기 강연자, <꿍따리 유랑단> 대표, 대학생…. 그의 직함은 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도전한다.<br/><br/>강원래씨! 개성 강한 당신의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연극과 영화를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강원래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의 젖은 마음들을 말려 주세요!<br/><br/><박상미 문화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6.txt

제목: 탄산음료 마시면 빨리 늙는다?···4.6년 더 늙어  
날짜: 2014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710015420630  
본문: 탄산음료를 마시면 DNA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진은 학술지 미국보건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탄산음료를 하루에 350㎖ 마신 사람의 DNA는 정상보다 4.6년 더 노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br/><br/>탄산음료가 비만과 2형 당뇨병의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노화 촉진과 관계있다는 사실은 처음 드러났다.<br/><br/>연구진은 20세에서 6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5309명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섭취량과 백혈구를 조사했다.<br/><br/>조사 결과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피실험자의 염색체 끝에 자리잡고 DNA를 보호하는 모자 격인 사슬 중합체가 정상보다 짧았고 분열 증식할 때마다 더 짧아졌다. 사슬 중합체는 생체 수명 시계 역할을 하면서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r/><br/>기존 연구에서 흡연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슬 중합체 길이 사이의 연관성은 이미 밝혀졌다. 연구를 이끈 엘리사 에펠 교수는 “<span class='quot0'>설탕 범벅인 탄산음료를 꾸준히 마시는 것은 신체에 설탕 대사 부담을 가중시켜 각종 질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세포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span>”고 말했다.<br/><br/>하지만 에펠 교수는 이번 연구가 설탕이 든 탄산음료가 DNA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밝혀냈을 뿐 직접적인 노화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연구의 한계를 인정했다.<br/><br/>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네소타대 데이비드 제이컵스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가설”이라면서 “<span class='quot1'>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가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7.txt

제목: [건강]‘혈전 질환’ 교통사고보다 더 위협적  
날짜: 20141017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7100000011  
본문: 정맥혈전색전증은 혈관 내부에 혈전이 생겨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 정맥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다리 부위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증,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생기는 폐색전증 등이 있다.<br/>국제혈전지혈학회와 바이엘 헬스케어는 10월13일을 ‘세계 혈전의 날’(World Thrombosis Day·그림)로 제정했다. 첫 해인 올해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혈전 질환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환의 심각성이나 구체적인 위험 신호 및 증상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br/><br/>대표적인 혈전 질환인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72%가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중 하나는 알고 있었으며, 41%는 두 질환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다.<br/>하지만 이러한 인지 수준에 비해 혈전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교통사고, 에이즈, 혈전 질환, 유방암, 전립선(샘)암 중 생명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교통사고, 19%가 에이즈를 각각 꼽았다. 혈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그러나 혈전 질환은 서구에서 37초마다 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유럽에서 해마다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숨진 사람은 교통사고, 에이즈,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숨진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3배나 많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8.txt

제목: [건강]‘혈전 질환’ 교통사고보다 더 위협적  
날짜: 20141017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7100000008  
본문: 정맥혈전색전증은 혈관 내부에 혈전이 생겨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 정맥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다리 부위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증,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생기는 폐색전증 등이 있다.<br/>국제혈전지혈학회와 바이엘 헬스케어는 10월13일을 ‘세계 혈전의 날’(World Thrombosis Day·그림)로 제정했다. 첫 해인 올해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혈전 질환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환의 심각성이나 구체적인 위험 신호 및 증상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br/><br/>대표적인 혈전 질환인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72%가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중 하나는 알고 있었으며, 41%는 두 질환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다.<br/>하지만 이러한 인지 수준에 비해 혈전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교통사고, 에이즈, 혈전 질환, 유방암, 전립선(샘)암 중 생명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교통사고, 19%가 에이즈를 각각 꼽았다. 혈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그러나 혈전 질환은 서구에서 37초마다 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유럽에서 해마다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숨진 사람은 교통사고, 에이즈,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숨진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3배나 많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09.txt

제목: 한국 유방암 발병률, 동아시아 1위···젊은층 많은 ‘서구형’  
날짜: 2014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610015410868  
본문: 한국의 유방암 발병률이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1위로 나타나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젊은층에서 발생이 잦은 ‘서구형’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16일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송병주)가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내놓은 ‘한국인 유방암의 국내외 최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8년 10만 명당 38.9명꼴로 발생하던 유방암은 2012년 10만 명당 52.1명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장기간 동아시아 유방암 발병률 1위를 기록했던 일본은 2012년 10만 명당 5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br/><br/>한국인 유방암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 서구형이며,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이 잦다는 점이다.<br/><br/>우선 유방암 환자를 나이별로 보면 만 15~54세 연령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일본에 앞섰는데, 15~44세까지의 유방암 발생률은 미국마저도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br/><br/><br/><br/>올해 조사에서는 생활습관의 급격한 서구화가 유방암 발병률과 양상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됐다.<br/><br/>지방섭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strogen Receptor Positive, ER+)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방암은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꾸준히 반응해 성장이 촉진되는 것이 특징으로, 발병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이 있어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유형의 유방암이다. <br/><br/>2002년에 전체 환자의 58.2%였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비율이 2012년에는 73%까지 상승했다. <br/><br/>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발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포화 지방 섭취와 관계가 밀접하다.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포화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정도 높았다.<br/><br/>한국인의 식습관도 서구화되며 지방 섭취가 많이 늘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의 1일 섭취량이 1998년 53.7g에서 2012년 85.1g으로 15년 동안 약 60% 상승했다. 지방을 기준 이상 섭취하는 사람도 5명 중 1명(22.1%)꼴이었다.<br/><br/><br/><br/>발병률은 높아졌지만 유방암 사망률은 OECD 국가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유방암 사망률은 일본(9.8명)이나 미국(14.9명)보다 현저히 낮은 10만 명당 6.1명에 불과했다. <br/><br/>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0기나 1기에 암을 진단받는 비율이 2000년 32.6%에서 2012년 56.24%에 상승한 게 가장 큰 이유다. 조기 진단이 늘어나면서 치료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자기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절제술이 67.2%를 차지했으며 2000년에는 한 해 99건이었던 유방재건수술이 2012년에는 910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신의 유방을 지키고,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 시술의 보편화로 많은 환자가 여성의 상징성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0.txt

제목: “왓(What)?” 백발의 학생들 영어 막히면 또 “왓”  
날짜: 2014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5100000071  
본문: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흥부가 주걱에 뺨을 맞아 벌러덩 나동그라진다. 볼을 붙잡을 새도 없이 곧장 놀부 아내의 치맛자락을 쥐고 늘어진 흥부는 어눌한 영어 대사를 외친다. “플리즈 기브미 라이스, 암 헝그리! 기브미 라이스!” 주걱을 휘두르며 흥부를 쫓는 놀부 아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객석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곧이어 흥부 가족이 박을 썰 땐 청중도 다같이 박자에 맞춰 흥겹게 “렛소! 렛소!(Let’s saw)”를 연호했다.<br/>고교 3학년 3반이 준비한 연극 에선 백발에 작은 코안경을 끼고 꼬부랑 할아버지로 분장한 맹진사 아버지 캐릭터가 단연 인기였다. 별다른 대사도 없지만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고개와 지팡이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사마다 “왓(What)?”을 외치는 모습에 객석에선 연신 웃음이 터져나왔다.<br/><br/>10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일성여중·고 학생들의 ‘제13회 영어 말하기대회’ 본선이 진행됐다. <br/>이 학교는 과거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개인적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학력인정기관이다. 현재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함께 다니고 있다.<br/>영어 말하기대회 본선엔 총 15팀이 출전해 다양한 영어 스피치, 연극, 뮤지컬 등을 선보였다. 앞서 학교에서 치러진 예선엔 30여팀이 참여해 경쟁률이 2 대 1에 이르렀다.<br/>무대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올랐다.<br/>‘What color do you feel like?’라는 제목의 스피치를 발표한 중1 과정 이모씨(54)는 뒤늦게 중학교에 다니는 만학도지만 통역관이 꿈이다. 이씨는 “<span class='quot0'>학교를 오기 전에도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원을 다니고 영어공부를 계속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영어 말하기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경험을 쌓고 통역관 꿈에도 다가갈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br/>영어 뮤지컬 <라푼젤(Rapunzel)>에서 내레이션을 선보인 이모씨(69)는 이날의 최고령자다. 고3 과정에 재학 중인 그는 “<span class='quot0'>몇 달 뒤면 여고 시절이 마무리되는데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무대에 서게 됐다</span>”고 말했다.<br/>대부분의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탓에 한 달이 넘는 준비기간도 충분치는 않았다.<br/>일성여고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백수진 교사는 “<span class='quot1'>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선생님들 비는 시간 등을 활용해서 말하기대회 준비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여러 명이 모여야 하는 연극의 경우 서로 연습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 고생했다</span>”고 말했다.<br/>늦은 배움이다보니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도 난점이었다. <라푼젤>의 내레이터 역을 맡은 최고령 이씨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좋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대사 밑에 깨알같이 한글로 토를 달아 들고다니며 외우기도 했다.<br/>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br/>본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해서 우황청심환까지 먹었다는 한 학생은 발음을 틀렸다. 하지만 그는 대회가 끝난 후 “<span class='quot1'>너무 긴장해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span>”며 너스레를 떨었다. 뮤지컬 <라푼젤>에서 라푼젤 공주 역할을 한 정모씨(63)는 본선에서 작은 실수를 해 극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서운해 울기도 했다. 충남 당진에서 통학하는 그는 이날도 음대 출신 딸이 함께 연습을 봐주기도 했다. 그는 결국 대상을 거머쥐었다.<br/>백 교사는 영어 말하기대회가 갖는 의미를 ‘자신감’이라고 했다.<br/>그는 “<span class='quot1'>본선에 출전한 모든 팀은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무조건 상을 하나씩 받는다</span>”며 “<span class='quot1'>매년 이어가고 있는 영어 말하기대회 본선엔 가족들도 오고, 전교생들이 다 모이는 자리다보니 이 행사를 잘해낸 학생들은 영어 실력보다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자체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학업이 늦다보니 본래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벅찬데, 이런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겐 굉장한 성취감의 동기가 된다</span>”고 했다.<br/>한 발짝 늦지만,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망은 컸다.<br/>본선에서 <흥부와 놀부> 연극에 참가했던 중3 과정 한모씨(49)는 “어렸을 때 아래로 동생들이 많다보니 동생들 교육시키느라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며 “학교에서 수업뿐 아니라 말하기대회 준비 등 모든 활동이 즐겁다”고 말했다. <br/>졸업하고 나서는 ‘화문석’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 그는 “<span class='quot2'>동생들을 다 졸업시키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 가장 남는 것은 공부를 하지 못한 한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늦게나마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1.txt

제목: “왓(What)?” 백발의 학생들 영어 막히면 또 “왓”  
날짜: 2014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410015399002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서울 일성여중·고 20~80대 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본선</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우황청심환 먹고 연기도… “공부에 나이 없다” 향학열</strong><!-- SUB\_TITLE\_END--><br/><br/>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흥부가 주걱에 뺨을 맞아 벌러덩 나동그라진다. 볼을 붙잡을 새도 없이 곧장 놀부 아내의 치맛자락을 쥐고 늘어진 흥부는 어눌한 영어 대사를 외친다. “플리즈 기브미 라이스, 암 헝그리! 기브미 라이스!” 주걱을 휘두르며 흥부를 쫓는 놀부 아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객석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곧이어 흥부 가족이 박을 썰 땐 청중도 다같이 박자에 맞춰 흥겹게 “렛소! 렛소!(Let’s saw)”를 연호했다.<br/><br/>고교 3학년 3반이 준비한 연극 <The Wedding Day(맹진사댁 경사났네)>에선 백발에 작은 코안경을 끼고 꼬부랑 할아버지로 분장한 맹진사 아버지 캐릭터가 단연 인기였다. 별다른 대사도 없지만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고개와 지팡이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사마다 “왓(What)?”을 외치는 모습에 객석에선 연신 웃음이 터져나왔다.<br/><br/><br/>10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일성여중·고 학생들의 ‘제13회 영어 말하기대회’ 본선이 진행됐다. <br/><br/>이 학교는 과거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개인적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학력인정기관이다. 현재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함께 다니고 있다.<br/><br/>영어 말하기대회 본선엔 총 15팀이 출전해 다양한 영어 스피치, 연극, 뮤지컬 등을 선보였다. 앞서 학교에서 치러진 예선엔 30여팀이 참여해 경쟁률이 2 대 1에 이르렀다.<br/><br/>무대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올랐다.<br/><br/>‘What color do you feel like?’라는 제목의 스피치를 발표한 중1 과정 이모씨(54)는 뒤늦게 중학교에 다니는 만학도지만 통역관이 꿈이다. 이씨는 “<span class='quot0'>학교를 오기 전에도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원을 다니고 영어공부를 계속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영어 말하기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경험을 쌓고 통역관 꿈에도 다가갈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영어 뮤지컬 <라푼젤(Rapunzel)>에서 내레이션을 선보인 이모씨(69)는 이날의 최고령자다. 고3 과정에 재학 중인 그는 “<span class='quot0'>몇 달 뒤면 여고 시절이 마무리되는데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무대에 서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대부분의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탓에 한 달이 넘는 준비기간도 충분치는 않았다.<br/><br/>일성여고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백수진 교사는 “<span class='quot1'>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선생님들 비는 시간 등을 활용해서 말하기대회 준비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여러 명이 모여야 하는 연극의 경우 서로 연습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 고생했다</span>”고 말했다.<br/><br/>늦은 배움이다보니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도 난점이었다. <라푼젤>의 내레이터 역을 맡은 최고령 이씨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좋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대사 밑에 깨알같이 한글로 토를 달아 들고다니며 외우기도 했다.<br/><br/>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br/><br/>본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해서 우황청심환까지 먹었다는 한 학생은 발음을 틀렸다. 하지만 그는 대회가 끝난 후 “<span class='quot1'>너무 긴장해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span>”며 너스레를 떨었다. 뮤지컬 <라푼젤>에서 라푼젤 공주 역할을 한 정모씨(63)는 본선에서 작은 실수를 해 극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서운해 울기도 했다. 충남 당진에서 통학하는 그는 이날도 음대 출신 딸이 함께 연습을 봐주기도 했다. 그는 결국 대상을 거머쥐었다.<br/><br/>백 교사는 영어 말하기대회가 갖는 의미를 ‘자신감’이라고 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1'>본선에 출전한 모든 팀은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무조건 상을 하나씩 받는다</span>”며 “<span class='quot1'>매년 이어가고 있는 영어 말하기대회 본선엔 가족들도 오고, 전교생들이 다 모이는 자리다보니 이 행사를 잘해낸 학생들은 영어 실력보다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자체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학업이 늦다보니 본래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벅찬데, 이런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겐 굉장한 성취감의 동기가 된다</span>”고 했다.<br/><br/>한 발짝 늦지만,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망은 컸다.<br/><br/>본선에서 <흥부와 놀부> 연극에 참가했던 중3 과정 한모씨(49)는 “어렸을 때 아래로 동생들이 많다보니 동생들 교육시키느라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며 “학교에서 수업뿐 아니라 말하기대회 준비 등 모든 활동이 즐겁다”고 말했다. <br/><br/>졸업하고 나서는 ‘화문석’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 그는 “<span class='quot2'>동생들을 다 졸업시키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 가장 남는 것은 공부를 하지 못한 한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늦게나마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2.txt

제목: [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23) 성경에 나타나는 질병과 치유  
날짜: 20141011  
기자: 황상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11100000030  
본문: ▲ 구약에선… 질병·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 그리스 신화와 비슷한 인과응보<br/>▲ 신약에선… 민중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예수. 한센병 환자 고친 기록 특히 많아<br/>얼마 전 말기 암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친지가 있다. 웬만하면 한두 차례 다른 방법에 눈길을 돌릴 법도 하건만 한결같이 주치의를 신뢰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는 마침내 완쾌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완치를 계기로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직접 치료해준 주치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br/>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또 각기 존중받아야 한다. (종교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 중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질병에서 낫기 위한 것도 적지 않을 터이다. 이런 종류의 신앙을 기복적이라고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는 과연 정당할까?<br/>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와 의술은 오랫동안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선사시대는 물론이고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의술의 종교적이고 초자연적인 특성은 퇴색되지 않았다. 이번 회에서 이야기할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 시대에도 그러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경전이거니와 신·구약 시대의 삶을 증언하는 역사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학적, 종교적 해석과 더불어 역사적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질병과 치유, 그리고 환자 이야기가 풍부해서 의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br/>구약성경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개인과 집단의 죄에 분노한 신의 징벌로 묘사된다. (여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까지만 표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창세기 3장)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로 내 몸이 병들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 내 허리가 굽고 꼬부라졌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슬픔으로 다닙니다. 내 등은 열로 후끈거리고 내 몸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시편 38장. ‘다윗의 시’)<br/>또한 구약성경에서는 질병과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역시 신의 몫이다. “<span class='quot0'>그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네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span>”(시편 103장. ‘다윗의 시’) 요컨대 의학사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질병과 치유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 신화와 매우 흡사하다.<br/><br/>신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환자를 치유케 하는 기적이다. 기적의 수는 분류 방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4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37가지 기적 가운데 치유 기적이 26가지로 70%나 차지한다. “<span class='quot0'>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span>”(요한복음 21장)라는 구절을 보면 예수의 치유 기적은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다.<br/>예수의 공생애(公生涯) 기간이 불과 2, 3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치유 기적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해석이 있다. 반면에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지, 단지 병을 치료받기 위해 자신을 찾는 데 대해서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신학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신학적 논의와는 별도로, 예수가 행한 기적 가운데 치유에 관한 것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예수 시대에 질병과 그 치유는 민중들의 절박한 문제였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종교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합리적 의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2000년 전 예수처럼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에게 의탁하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br/>예수는 질병 치유를 통해 고통 받는 수많은 민중들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마태복음 11장) 예수 스스로 자신의 행적 가운데 치료 행위를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다.<br/>구약성경에서는 질병과 고통을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자 인과응보로 묘사했다. 그럼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요한복음 9장) 물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종교적 선포가 뒤따르지만 질병을 인과응보적 방식으로 취급하는 데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예수가 죄와 질병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span class='quot0'>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span>”(요한복음 5장)<br/>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치유를 행한 주요한 질병은 중풍(마비),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한센병(나병) 등이다. 그리고 예수의 주된 치유 방식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통한 것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 ‘일어나 네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마태복음 9장) 어느 개신교 성직자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했다. 잔뜩 위축돼 자기 속에 갇혀 있던 사람에게 예수가 용기를 불어넣어 바깥세상을 향해 나가게 했다는 것이다.<br/>또 소경과 귀머거리, 벙어리의 치유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했다는 식이다. 말씀을 통한 중풍(마비),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환자의 치유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적 설명도 가능하다. 이런 질병들은 신체에 뚜렷한 병리적 이상이 없이 심인성(心因性)으로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심리적 치료로 나을 수 있다. 예수가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와 그에 대한 환자의 굳은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는 설명이다.<br/>예수의 치유 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센병에 관한 것이다. (문둥병은 한센병을 비하하는 말로 의학계에서는 되도록 쓰지 않지만 여기서는 성경 그대로 인용한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마침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8장)<br/>한센병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병으로, 한센병 환자는 큰 죄를 저질러 신에게서 무서운 징벌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았고 목숨은 붙어 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웃시야)도 산당을 헐지 않아 백성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별궁에서 지냈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다.”(열왕기하 15장) 아무리 왕이라도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아 한센병에 걸리면 제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했다. 웃시야 왕은 죽어서도 왕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초라한 묘지에 묻혔다. 하지만 예수는 이런 천덕꾸러기 환자의 몸에 자신의 손을 대어 천형을 치료했다. 당시의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행동이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는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3.txt

제목: 원전 사고 대비 방재대책 ‘총체적 부실’  
날짜: 2014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9100000053  
본문: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수립되어 있는 방재 계획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br/>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span class='quot0'>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양시설 등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피가 가장 큰 문제</span>”라면서 “<span class='quot0'>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대피 체계 혼란으로 4.5㎞ 떨어진 후타마 병원 환자 70여명이 사망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도 원전에서 4.3㎞ 내에 꽤 큰 요양시설이 있는데, 이런 원전 주변 특수시설 현황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며 “관련 시설과 협의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원안위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당초 “<span class='quot1'>원안위도 특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span>”고 답변했다가 이후 “착각했다”고 사과했다.<br/>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span class='quot2'>원전 사고는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인데도 안전규제 인력은 부족한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74명가량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올해 원안위 인력은 19명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span>”고 말했다.<br/>지자체가 마련한 방재 계획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새정치연합)은 “<span class='quot3'>다수 지자체에서 원전 재난이 발생하면 ‘(사고) 영향을 받지 않은 곳’ 또는 ‘우물’에서 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span>”며 “<span class='quot3'>상하수도가 보급되면서 우물 사용이 대폭 줄어든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변 우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삼중수소가 발견될 정도로 우물물은 안전하지 않다</span>”고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4.txt

제목: 국내 의료진, 암유발하지 않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제작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610015342094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전자기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줄기세포 제작 과정에 암도 유발되지 않는다.<br/><br/>이번 결과가 안전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김종필 교수팀이 이러한 연구 성과를 냈다고 6일 밝혔다. <br/><br/>전자기파는 지구상의 생명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팀은 특정 전자기파동 에너지의 경우 세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br/><br/>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세포 리프로그래밍’을 통해 전자기파 유도 역분화 줄기세포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은 세포의 운명을 자유자재로 전환해 환자 맞춤형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줄기세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다. <br/><br/>지금까지 개발된 만능 유도 줄기세포는 효율이 낮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암세포 유발 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br/><br/>하지만 전자기파동 에너지를 이용한 결과 제작효율이 기존에 비해 약 37배 향상됐으며, 암 유발 인자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br/><br/>이러한 전자기파 자극을 활용하면 기존에 개발된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도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다. <br/><br/>김종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이론과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 연구는 미래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 아래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ACS Nano’ 9월 2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5.txt

제목: ‘제시카 탈퇴 소동 일에…’ 이수만 부인상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6100000015  
본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프로듀서(62)가 부인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br/><br/>이수만 프로듀서의 부인인 김은진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병인 소장암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3세. <br/><br/>발인은 지난 2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br/><br/>미국에서 거주하던 고인은 지난해 11월께 국내로 입국해 강원도 인근에서 요양 등으로 몸을 돌봐왔다. 이미 미국에서 지난 2012년 12월 암을 발견해 손을 쓰고 항암치료를 계속해 받아왔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고 한다.<br/><br/>이수만 프로듀서와 절친한 중견 가수 ㄱ씨는 지난해 ‘스포츠경향’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형수(김은진씨)가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span>”며 암 투병 사실을 귀띔한 바 있다. <br/><br/>가요계 매니저 ㄴ씨도 “<span class='quot1'>지난해 한국에 들어와 강원도에 머물기 시작한 것도 차분히 생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span>”고 말했다.<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이수만 프로듀서는 발병 직후부터 임종 직전까지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 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2'>그러나 결국 암이 다시 재발하게 돼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됐다</span>”고 말했다. 또 “고인이 가는 길에 명복을 빌어달라”고 덧붙였다. <br/><br/>이수만 프로듀서와 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석사 과정 시절 만나 1984년 결혼했다. 이 프로듀서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당시 김씨는 인근 UCLA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각각 전공하던 유학생이었다. <br/><br/>1983년 UCLA 한인학생회측이 이수만 프로듀서를 초대해 노래를 부탁하면서 두 사람은 인연을 맺게 됐다. 고인은 현재 아들 현규, 영규군을 남겼다. <br/><br/>한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가 인터넷에 팀 탈퇴와 관련된 글을 쓴 시점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가 부인상을 당한 시점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br/><br/>앞서 지난달 30일 새벽 제시카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글을 게재하고 “<span class='quot3'>회사와 8명으로부터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span>”고 밝혀 북새통이 일어난 바 있다.<br/><br/>비슷한 시기 이수만 프로듀서는 부인 김은진씨의 사투를 지켜보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병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고, 이후 장례식이 급히 준비되기 시작했다. <br/><br/>30일 내부적으로는 임종과 관련한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제시카와 소녀시대 및 소속사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시끄러웠다. 소속사는 제시카의 글이 오른 지 한참이 지난 30일 오후에서야 뒤늦게 대응 자료를 내고 “소녀시대는 앞으로 8인조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제시카는 1일 오전 다시 홍보대행사를 통해 “<span class='quot3'>크게 상처 받았고, 당혹스럽다</span>”는 입장을 재차 내며 다툼을 이어갔다. <br/><br/>5일 현재 인터넷 댓글에는 두 일을 연계해 언급하는 내용이 수시로 게재되고 있다. “두 일이 겹쳤다” “<span class='quot4'>탈퇴 소동이 상중에 일어났다니</span>” 등 다양한 반응이 흘러나왔다. 개중에는 제시카가 실기했다는 언급도 있었다.<br/><br/>연예계 관계자 ㄱ씨는 “제시카가 저간의 사정을 모르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하면서 “두 가지 일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들의 경우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6.txt

제목: 이수만 SM 회장 부인 별세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6100000071  
본문: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62)의 부인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M은 이수만 회장의 부인 김은진씨가 지난달 30일 소장암으로 별세했다고 5일 밝혔다. SM은 “<span class='quot0'>2012년 12월 소장암이 최초 발견돼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회장이 간호했으나 암이 재발해 별세했다</span>”고 설명했다. 장례는 고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렀으며 지난 2일 발인을 마쳤다고 SM은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7.txt

제목: [창간기획 - 한국 사회는 ○○ 사회다]명랑사회·건전사회·정의사회… 현실은 ‘거꾸로’  
날짜: 20141006  
기자: 박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6100000105  
본문: ‘○○사회’ 조어는 오늘날의 현상만은 아니다. <br/>군사 정권은 ‘명랑사회’ ‘건전사회’ ‘신뢰사회’ 같은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조어를 만들었다. 전두환의 ‘정의사회’처럼 정권의 ‘○○사회’는 <br/>실제 사회 현상 및 방향과 거꾸로 갈 때가 많았다.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에선 ‘전투사회’ ‘고속사회’ ‘복합위험사회’ ‘탈선사회’ 같은 말을 만들었다. <br/>사회가 겪는 문제점의 한 단면을 지적한 조어다. 낙관 속에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맑은 사회’ ‘정직이 지배하는 사회’ ‘성숙사회’도 있다. <br/>1960년부터 1999년까지 정권과 시민사회, 학자, 언론이 규정한 ‘○○사회’ 조어의 변천사는 당시 한국 사회를 알려주는 지표와도 같다.<br/><br/>■ 1960년대 - 명랑사회<br/>“<span class='quot0'>치안확보로 명랑사회 이룩하자</span>” “<span class='quot0'>풍요한 민주사회로 승공통일(공산주의를 이기고 통일)</span>”. ‘명랑사회’나 ‘풍요한 민주사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조어다. 1960년대 군사정권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일방적으로 정해 하향식으로 전한 조어가 많았다. ‘반공이념’도 빠지지 않았다. 명랑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았던 그 시대의 문제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조어들이다. <br/>언론들은 ‘각하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보도한다. “<span class='quot0'>치안확보를 철저히 해 ‘명랑사회’를 이룩하고 한국교육발전의 암이었던 학교재단의 분규와 파벌싸움을 해소하라.</span>”(1962년 2월8일자 동아일보 1면) 대통령 취임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박정희의 지시사항이다. 5년 뒤 ‘명랑사회’는 사회 일반에도 퍼졌다. “<span class='quot0'>어떤 두 학생의 대화를 들으면 아주 친한 사이면서 어두가 욕으로 시작된다.(…)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명랑한 학교, 명랑한 사회를 이룩해야겠다.</span>”(1967년 9월6일자 경향신문 8면) 한 시민이 신문에 기고한 글 내용이다. <br/>‘민주사회’는 북한과의 체제경쟁 속에서 나온 말이다. 박정희의 ‘민주’는 ‘반공’과 동의어였다. 1966년 7월18일자 동아일보 1면 ‘풍요한 민주사회로 승공통일’이란 제목의 기사는 박정희의 담화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민주역량의 배양과 풍요한 ‘민주사회’ 건설에 승공통일의 길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우리의 실력을 길러 승공통일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span>”고 했다.<br/><br/>■ 1970년대 - 건전사회<br/>“<span class='quot0'> ‘대중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무력한 개인이 되고 권력과 일로부터 소외돼 호소력 있는 선동자의 말에 쉽게 빠져 온 사회가 광적인 전체주의적 체제를 환영하는 사회다.</span>” 1971년 7월4일 서강대에 모인 학자들은 한국이 대중사회냐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대중사회라 본 학자들은 “<span class='quot1'>달구지와 트럭이 공존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근대적 핵가족이 동시에 있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혼재’라는 한국사회의 특징 때문에 나타난 문제</span>”라고 설명했다. 반대 학자들은 “한국사회과학자들이 역사의식과 문제의식 없이 사회문제를 보며 대중사회 운운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br/>학계의 ‘대중사회’ 논쟁은 보기 드문 것이었다. 1970년대 ‘대중사회’를 빼곤 당대 사회를 그대로 들여다보려는 사회학적인 시도를 찾기 힘들다. 하물며 사회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다. 1960년대 조어의 경향은 이어졌다. 군사정권은 ‘건강한 사회’ ‘정보지식중심의 사회’ ‘명랑복지사회’ ‘건전사회’ 등의 조어를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정치적으로 억압됐던 당시 사회의 실상이나 실제 비전과는 거리가 먼 ‘말뿐인 말’들이었다. <br/>‘80년대 복지사회 앞당겨 이룩’ 기사(1976년 12월10일 경향신문 1면)에는 “<span class='quot2'>1976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전국 5500명의 새마을지도자와 7500명의 새마을유공자가 모여 ‘자립복지사회’를 다짐했다</span>”는 내용이 나온다. ‘명랑복지사회건설 박 대통령 검사장 회의서 유시’(1970년 12월16일자 매일경제 1면)를 보면 박정희는 “<span class='quot3'>질서·정의·근면과 검소를 바탕으로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이룩해 명랑하고 안정된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대한교육연합회는 1976년 5월2일부터 8일까지 새학교운동, 우리말 바로 쓰기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교육을 벌였다. <br/><br/>■ 1980~1987 - 정의사회<br/>정권의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 속에서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말이 등장했다. 최근의 ‘피로사회’ ‘위기사회’처럼 사회의 한 단면을 부각시키는 ‘고속사회’ 같은 말이 한 예다. <br/>동아일보는 1981년 1월1일자 ‘고속사회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속도로가 생긴 뒤 스스로를 ‘고속인생을 살고 있다’고 푸념하는 서울의 한 전기회사 상무 박모씨(42)의 사연을 소개했다. <br/> 박씨는 일주일에 2~5번 서울-부산을 왕복하며 전국이 1일 생활권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는 “<span class='quot3'>차를 타고 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차량들과 미처 음미할 사이도 없이 지나가버리는 들판풍경뿐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3'>고속이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완속에 대한 향수가 짙어진다</span>”고 했다. 이 기사는 박씨의 사연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한 1970년대를 1960년대와 비교하며 ‘껑충껑충 뛰면서 초고속으로 살아온 시대였다’고 설명했다. 기술혁신과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부지런히 따라가기에도 바쁜 시대가 됐고, 공해·노인문제 등도 더불어 생겼다고 지적했다.<br/>언론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5공의 ‘정의사회’ ‘신뢰사회’ 같은 조어를 반복 소개했다. ‘정의사회 앞에 특권 없다’ 기사(1982년 5월18일자 경향신문)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척인 이규광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을 구속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이씨 구속이 전두환의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측면이라고 설명한다.<br/><br/>■ 1988~1999 - 복합위험사회<br/>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8년 ‘민주사회’란 조어가 등장한다. 1960년대 박정희의 기만적인 ‘민주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 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설립됐다.<br/> 1989년 1월 김성현씨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사회 이룩 기대’라는 제목의 기고를 보냈다. 김씨는 “<span class='quot4'>애초에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 외세를 등에 업고 태어났으며 6공화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4'>전두환·이순자 부부의 구속처벌과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통해 새로운 민주사회가 도래하길 바란다</span>”고 썼다. <br/>1990년대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사회’가 나왔다. “한국사회는 외국에 잠깐이라도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되물을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전투사회’입니다. 전투사회에서는 기다림을 인내하는 사이에 곧 그 전투에서 지고 만다는 생각이 팽배, 여유나 기다림은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지요.” 연세대 송복 교수는 1990년 11월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사회를 ‘전투사회’로 규정했다. <br/>송 교수는 “<span class='quot5'>우리 사회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유례없는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유는 최근 30년 사이 사회적 이동이 ‘급격하면서도 과격하게’ 이뤄졌지만 갈등의 빈도를 줄이고 강도를 낮추기 위한 갈등관리철학이나 기술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 <br/>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1996년 1월9일 ‘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부패방지기본법 등 제도 개선’ ‘부정재산환수 및 부패감시단 구성을 위한 시민행동’ 등을 추진하며 당시 문제가 됐던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부패가 없는 ‘맑은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br/>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 원인을 ‘○○사회’로 분석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1998년 3월에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펴낸 책 <한국인의 삶의 질-신체적·심리적 안전>은 한국사회를 ‘복합위험사회’ ‘폭증사회’ ‘날림사회’로 규정했다. 이 책의 저자 임현진 서울대 교수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를 예로 들며 “<span class='quot6'>정책 당국자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술공학적으로 해결하려 할 뿐 위험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사회체계의 내조에 무관심하다</span>”고 지적했다. <br/>임 교수는 “<span class='quot6'>한국사회는 선진국형, 후진국형, 한국 특유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사고공화국</span>”이라며 “<span class='quot6'>후진국형이란 공휴일을 빼고 하루 평균 223명이 다치고 9명이 죽는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1997년 상반기 기준)에서, 한국 특유형이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로 상징되는 ‘폭증사회, 날림사회’형 안전사고에서 잘 드러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8.txt

제목: [의술 인술]괜찮아, 사랑이야  
날짜: 2014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3100000015  
본문: 정신건강의학과는 편견과 맞서게 되는 일이 많은 진료과다.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도 진료에 앞서 여러 편견들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멀쩡하게 우울증 치료를 받고 “회복하게 되어 고맙다” “덕분에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됐다”고 인사를 건네면서도 보험사나 직장에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정신과 진단명을 빼달라고 한다. 심지어 다른 과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다.<br/><br/>어린 자녀들을 치료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때로는 병의 경과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보다 아이의 진료 경력이 군입대나 취직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누군가가 아이의 진료 내역을 열람하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 보이기까지 한다.<br/><br/>의사로서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환자나 보호자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도덕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환자와 보호자, 주변인, 때론 동료 의사들에게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스티그마(stigma, 낙인)를 걷어내는 작업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신과 의사의 숙명(?)과도 같다.<br/><br/>그래서 올여름 방영됐던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는 선물 같은 드라마였다. 어떨 때는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설득보다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 한방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환자들의 이야기를,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고마웠다. ‘정신과 환자들을 차별하는 보험사들의 보험 약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의 기능에 더 큰 손상을 준다’고, ‘의무 기록은 본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지 않아도 멋진 배우들이 대신 울고, 웃고, 말해주니 고마울 수밖에.<br/><br/>이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혹시 병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나’ 가슴을 졸였다. 하지만 이내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다. 드라마의 목적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런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 드라마 관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가 아는 병과 증상들에 대해 ‘일반인들은 저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이해하기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보니, 더 깊은 재미와 감동이 느껴졌다. 더구나 판타지 추구(fantasy seeking)라는 재미도 없으면 무슨 드라마 볼 맛이 나겠는가.<br/><br/>예전에 ‘가장 잔인한 일본 사람의 이름은 뭘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까니마또까(깐 이마 또 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하필 아픈 데를 또 건드리니 얼마나 아플까. 세상 모든 사람을 환자 취급하는 태도에는 반대다. 하지만 누구든지 아플 수 있다.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은 그 아픔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위로를 받기도 한다. 아픈 사람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줘야 한다. 드라마에서 배우 성동일씨의 대사가 참 인상 깊었다. “<span class='quot0'>암이다, 다리가 잘렸다, 그런 환자나 장애인들은 위로나 동정이라도 받는데, 정신증은 죄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span>”<br/><br/>정신증은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중증 질환에 속한다. 그들을 위로해 주자. 아픈 거니까. 차별과 편견으로 그들을 더 아프게 하지 말자. 그것은 ‘까니마또까’만큼 잔인한 일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19.txt

제목: [건강]독감 접종, 만성질환자는 ‘사백신’ 맞으세요  
날짜: 2014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3100000011  
본문: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독감을 비롯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한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br/><br/>만성질환자가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접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의 예방접종에 대해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이혜진 교수(가정의학과)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성질환자의 일반적인 백신 정보는 각각 환자들의 상태에 맞춘 내용이 아니므로 예방접종뿐 아니라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해서도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br/>일반적으로 (성인) 만성질환자에게 추천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간염, 파상풍이다.<br/><br/>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러운 고열, 인후통, 기침, 객담 등 감기 증상과 함께 두통, 근육통, 피로를 동반한다. 합병증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폐렴이다. 학계는 모든 성인이 매년 접종을 받도록 권한다.접종 시기는 10~12월이다. 만성질환자는 필수적으로 접종하되 생백신을 피하고 ‘불활성화 백신(사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br/><br/>폐렴구균은 성인의 5~10%에서 검출된다. 기침, 재채기를 통해 옮거나 본인의 균에 의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폐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뇌수막염, 균혈증도 일으킨다. 폐렴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객담, 기침, 흉통, 호흡곤란 등이며 폐렴구균 폐렴환자의 5~7%가 사망한다. 보통 만성질환이 없다면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하지만,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 이전이라도 정상면역인 경우 23가 백신을 1회 접종하고, 5년이 경과하고 65세 이상이면 재접종을 받는다. 만성신질환(콩팥병)으로 인해 면역이 감소된 경우는 13가 백신접종을 고려한다.<br/><br/>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병하는 질환으로 통증이 수일간 지속된 뒤 작은 발진 및 수포가 신경을 따라 발생한다. 국내 인구의 10~32%는 일생에 한 번 이상 대상포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65%가량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이 권유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이므로 면역 저하자나 그 가족은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가 예정된 암환자나 가족은 치료 2주 전~치료 3개월 후까지 접종을 피해야 한다. 접종 전 주치의와 꼭 상의해야 한다.<br/><br/>파상풍은 한 번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므로 모든 성인에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예방접종이 권유된다. 65세 이상은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Td)을 접종한다.<br/><br/>B형 간염은 특히 50세 이상에서 만성간질환이나 신질환이 있는 경우, B형 간염환자의 가족은 항체검사 후 필요 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A형 간염도 만성간질환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br/><br/>만성질환자 가족의 경우 생백신을 접종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러나 심한 면역저하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환자의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 생백신의 접종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혹시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이미 맞았다면 2~6주가량 떨어져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0.txt

제목: [건강]‘간암의 씨앗’ 간경화의 3대 적은 간염·술·비만  
날짜: 2014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3100000016  
본문: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3년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10만명당 149.0명에 이른다. 이 중 간암으로 인한 사망은 22.6명으로 폐암 34.0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왕성한 활동 연령대인 40대와 50대에서는 간암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연간 사회경제적 부담이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대한간암학회 서경석 회장(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은 “<span class='quot0'>이처럼 간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불량한 이유는 간암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특히 환자 대다수가 간경화(간경변증)를 함께 가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 특히 간암 조기검진 사업과 간암 예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br/>간암은 2003년부터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에 포함돼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을 대상으로 1년마다 간 초음파 검사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간암 조기검진 수검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br/><br/>간암학회에 따르면 간암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간경화다. 정상 간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섬유조직이 들어차 간이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한다. 간경화의 4대 위험요인은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과도한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초기 간암 환자들 중에서도 간경화 때문에 수술을 잘하고도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br/><br/>만성 B형 간염이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간염의 활성도를 검사해 필요한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항바이러스제를 적절히 치료받으면 간경화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낮다. 만성 C형 간염 환자들 중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인지도)는 약 35%에 불과하다. 서 회장은 “<span class='quot0'>C형 간염 선별검사를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만 40세, 만 66세)에 포함시켜 간경화증으로 진행하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br/>과도한 음주는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폭음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상인의 경우 1회 음주량으로 소주 반 병 이내가 바람직하며, 여성은 그 절반 이하가 적당하다. 한 번 음주를 한 뒤에는 2~3일 음주를 자제해야 한다. 지속적인 음주는 지방간의 주범이다.<br/><br/>지방간 환자 중 복부비만의 원인인 비알코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81.0%에서 2011년 82.9%, 2013년 83.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발생이 줄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따른 간경변으로 간암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br/><br/>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는 “<span class='quot1'>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 중 일부도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원인이 불분명한 간암 환자 일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span>”고 분석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요인은 복부 비만과 당뇨병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span class='quot2'>40세 이상의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 보유자, 간경변증이 있는 간암 발병 고위험군은 원인질환 치료와 함께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1.txt

제목: “40대 금연 땐 수명단축 위험 90% 줄어”  
날짜: 20141002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2100000089  
본문: 40대에 담배를 끊으면 수명 단축 위험을 90%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미국 공중보건국장 명의로 발간된 보고서 ‘흡연과 건강’의 요약본을 번역해 국회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br/>보고서는 흡연이 유발할 수 있는 암과 만성질환 종류에 10가지 질환을 새로 추가했다. 추가된 암은 간암과 결직장암이며, 만성질환은 당뇨와 결핵, 노인성 황반변성증, 남성 성기능 장애(발기부전), 자궁 외 임신, 모성흡연으로 인한 선천적 결함(구강안면 파열), 류머티즘 관절염, 면역기능 등이 포함됐다. 간접흡연 시 뇌졸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추가됐다.<br/>보고서는 흡연자들의 수명이 평균 10년 단축되지만, 40세 이후 금연하면 수명 단축 위험을 90%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60세에 금연을 시작해도 위험률을 40% 정도 줄일 수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흡연과 간접흡연 탓에 조기사망한 사람은 흡연 관련 암 사망자 658만명을 포함해 모두 2083만명이며, 올해는 미국에서 흡연·간접흡연으로 50만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br/>건보공단은 지난달 12일 담배소송 1차 변론에서 이 보고서 번역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담배의 폐해에 대한 연구 결과가 금연 캠페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2.txt

제목: [출장발명가 노승권의 알면 힘이 되는 생물학] 소식은 인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까?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1100000194  
본문: 2009년 미국의 위스콘신 국립 영장류연구소(WNPRC)에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br/><br/>영장류인 ‘붉은털원숭이’를 20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 칼로리 섭취를 30% 낮춘 원숭이 집단이 음식을 마음껏 먹은 대조군에 비해 암·심장병·당뇨병 같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았고, 수명도 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칼로리 제한(소식, 단식,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영장류에서 확인한 것입니다.<br/><br/>2012년 8월 이번에는 ‘네이처’라는 과학저널에 위의 내용과 상반된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하나가 발표됐습니다.<br/><br/>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노화연구소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23년 동안 ‘붉은털원숭이’를 추적 조사한 결과 칼로리 제한(칼로리 섭취 30% 낮춤)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연구에서도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들은 당뇨병과 암·심혈관질환의 발병이 늦춰지는 건강 증진 효과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칼로리를 적게 섭취한 원숭이들은 그렇지 않은 원숭이들에 비해 더 건강하게 살지만 수명은 비슷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br/><br/>그럼 똑같이 ‘붉은털원숭이’를 대상으로 비슷한 기간 칼로리 섭취를 30%를 낮춰서 진행한 두 연구의 결과가 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을까요?<br/><br/>과학자들은 우선 먹이의 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연구팀의 먹이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양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구체적 영양 조성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입니다. 위스콘신 먹이는 설탕이 28.5%였던 반면 국립보건원은 3.9%에 불과했습니다. 설탕이 수명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위스콘신 연구팀의 대조군(Control)이 당뇨병에 40% 이상이 걸렸지만 국립보건원은 그 비율이 단 12.5 %에 머문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br/>또 하나의 차이는 대조군의 음식 섭취량입니다. 위스콘신의 대조군 원숭이들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나, 국립보건원의 경우는 일정한 양만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팀의 대조군은 체중에서 차이가 있었고, 음식을 적게 먹은 국립보건원 대조군 원숭이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살았습니다.<br/><br/>칼로리 제한의 수명 연장 효과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과 암, 그리고 심혈관계질환의 발병이 늦춰지고 축적된 체지방이 연소돼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br/><br/>소식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니 저도 해볼 생각입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3.txt

제목: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다 2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1100000044  
본문: Talk Well-being Trend<br/>스스로 현명하게 건강을 지켜내며 진정한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사람들의 열망은 단순히 노화를 막는 차원에서 벗어나 현재의 나이보다 어려지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어려진다는 것. 단순히 동안으로 보이는 일차원적인 방법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세포 자체의 건강함이 전신을 지배할 때 누릴 수 있는 ‘Youth’ 그 본질에 대해 파헤쳐봤다.<br/><br/>What? 최근 노화 자체를 막아내는 자연적인 처방을 비롯해 다양한 시술과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노화는 최대한 더디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모든 이들의 소망이 아닐까. 이러한 소망은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노화를 예방하는’이라는 ‘안티에이징(Anti-aging)’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린 나이로 돌아가자’는 개념의 ‘디에이징(De-aging)’이라는 더욱 적극적인 관리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에서 벗어나 진짜로 어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세월과 무관한 듯 나이를 먹지 않는 비법은 있을까? 이에 대해 세민성형외과 홍종욱 원장은 “<span class='quot0'>세포의 나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쇠락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span>”라고 말한다. 이는 몸속 젊음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세포 기관 중 하나인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에 관여하며, 내막에 ATP 합성효소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 우리 몸 각 기관의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인 셈. 미토콘드리아의 쇠락을 막아 피부 세포질의 근간이 되는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재료를 섭취하고 적절한 시술을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br/><br/>Why?<br/>그렇다면 디에이징과 관련해 건강과 피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거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젊게 사는 비결’, ‘혈액 정화’, ‘몸속 노폐물을 제거해야 오래 산다’와 같은 이야기가 소개된다. 건강이 안 좋으면 피부톤이나 피붓결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한방에서는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체내 어혈과 담이 많아지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탄력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평소 내 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충분한 숙면과 영양 섭취, 금연, 금주 등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몸 안팎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br/><br/>Check List!<br/>얼굴 상태로 알아보는 노화 정도<br/>-주름이 눈에 도드라진다.<br/>-눈가, 입가를 중심으로 처짐 현상이 눈에 띈다.<br/>-볼 부위의 지방이 움푹 들어가 파여 보인다.<br/>-예전에 비해 관자놀이가 꺼지고 광대가 돌출돼 보인다.<br/>-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모공이 눈에 띈다.<br/>-피부가 건조하다.<br/>-전체 얼굴 윤곽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해 보인다.<br/>-눈꺼풀 아랫부분이 불룩하게 내려와 지방층이 잡힌다.<br/>-입술선 윗부분에 미세한 주름이 잡혀 화장할 때 신경 쓰인다.<br/><br/>\* 위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디에이징 관리에 힘써야 할 때!<br/><br/>Expert’s Comment<br/>“<span class='quot1'>동안 성형술로 디에이징 실현</span>”<br/>디에이징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노화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노화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노화 시술의 의미보다 동안 성형술이라는 표현이 디에이징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미 처진 피부는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안면거상술이 효과적이며, 미세지방이식술 또한 디에이징 효과를 보는 데 중요한 시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br/>홍종욱(세민성형외과 원장)<br/><br/>“<span class='quot1'>디에이징을 위해서는 세포 재생 가동이 중요</span>”<br/>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과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것이 현대인이 바라는 디에이징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고루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세포의 기능을 재생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이상을 조기 발견하고 각종 독성 물질이 체내에 어느 정도 축적됐는지 판단해 면역 증강요법을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br/>오진하(푸른마음클리닉 대표)<br/><br/>“해독으로 노화 물질 제거”<br/>화와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반면 행복하고 여유로운 상태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디에이징을 위해서는 해독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대사와 노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 과산화지질 등의 물질은 체내 장기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노화 물질은 적절한 해독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김래영(압구정대자인한의원 원장)<br/><br/>How?<br/>01 먹으면서 젊어지는 자연의 식재료 처방전<br/>셀프 디에이징 케어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식이요법. 전문가들이 직접 먹고 마시며 디에이징 효과를 봤다는 재료를 엄선했다.<br/><br/>땅속에서 캐낸 젊음, 우엉<br/>“쉽게 몸이 붓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탓에 건강이 염려됐는데 지인이 추천한 우엉차를 마시면서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폴리페놀, 사포닌 등이 많이 함유돼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 재생 효과도 탁월해요. 얇게 썰어 말린 우엉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끝. 위장 장애나 내장 기관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예요.” 테미(뷰티숍 스타일플로어 원장)<br/><br/>발아 새싹의 힘, 밀싹<br/>“질병으로 고생 중인 부모님의 치료를 위해 기르게 된 밀싹. SOD라는 성분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독성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과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이죠. 아침마다 착즙기에 밀싹을 갈아서 즙으로 마시는데, 진한 녹색의 풀 내음 그 자체의 향이 나요. 한 달 이상 마시니 주변에서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br/>이다혜(뷰티 칼럼니스트)<br/><br/>진정한 비타민 C의 보고, 고지베리<br/>“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면역력이 부쩍 약해진 탓에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고지베리를 접하게 됐어요. 말린 고지베리를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간식처럼 늘 입에 달고 살았더니 최근 6개월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비타민 C 함량이 오렌지의 5백 배나 되죠. 또 유해산소 제거 능력을 뜻하는 항산화지수가 오렌지 750, 딸기 1,200인 반면 고지베리는 25,100으로 초특급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br/>한신영(푸드 스타일리스트)<br/><br/>02 완벽한 디에이징을 위한 솔루션 3<br/>어려지기로 맘먹었는데 셀프케어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 조금 생소하지만 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테라피 3가지를 소개한다.<br/><br/>Solution 1 맥시무스<br/>피부 진피에 강력한 열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의 재생을 촉진시켜 얇고 처진 피부를 탱탱하고 두껍게 만들어준다. 지방 아래쪽의 심부에 위치한 스마스(SMAS)층과 근육층을 직접 당겨 올리며 자극해 얼굴은 리프팅 효과를, 몸은 확실한 윤곽 형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Solution 2 오존테라피<br/>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하인리히 바르브루크의 이론에서 시초된 치료 방법. 산소를 체내에 주입해 자연 치유력을 높여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 치료에 이용되면서 오존 치료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br/><br/>Solution 3 고압산소테라피<br/>운동선수들이 과격한 운동 후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최근 디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테라피로 발전하게 됐다. 일상적인 혈액 속 산소 농도보다 훨씬 높은 산소가 혈액에 녹아들어 조직과 장기에 많은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원리로 세포 재생과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4.txt

제목: LADIES’ COUNSELOR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1100000098  
본문: 레이디경향<br/><br/>건강 고민<br/>정지안(서울라헬여성의원 원장)<br/>서수진(더엘 클리닉&메디컬 스파 원장)<br/>강용혁(마음자리 한의원 원장)<br/>안상철 (서울리마치과 대표원장)<br/>서재돈(재돈성형외과 원장)<br/><br/><br/>육아 고민<br/>손석한(연세신경정신과 원장)<br/><br/>교육 고민<br/>노관호(노원 뉴스터디 원장)<br/><br/>재테크 고민<br/>우용표(더 코칭&컴퍼니 대표)<br/>윤희권(YOON’S FPG 대표)<br/>이천(㈜희망재무설계 대표)<br/><br/>고민 상담 접수는…<br/>● 「레이디경향」 애독자 엽서, 이메일(ladykh@khan.kr), 공식 블로그(ladykh.khan.kr) [고민 해결 방]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제목에 [고민 상담]이라 적어주세요.<br/><br/>부부·가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명절 때마다 돈 요구하는 시댁, 우울증 남편,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br/>이직할 때 고려할 점<br/><br/>Q 명절과 생신, 연말 가족 모임에 조카들 생일까지 챙기라는 형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다가 음식이나 선물보다 돈으로 달라고 하시네요. 명절 때면 큰댁에서 제사 비용과 선물, 애들 용돈, 작은댁 역시 선물과 애들 한 명 한 명의 용돈을 원합니다. 먼 친척 아이들까지 줘야 할 용돈만 1백만원 이상이고, 선물에 제사 비용까지 하면 1백50만~1백80만원은 기본입니다. 더 황당한 건 큰댁에서 저보고 올해부터 제사 비용을 더 달라는 겁니다. 화가 치미는 걸 남편 얼굴을 봐서 “네” 하고 돌아왔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한 달에 1백만원 적금 붓기도 힘든데 그만큼의 돈을 명절 선물로 드려야 한다니 너무 힘이 들어요. 정작 친정집에는 캔 선물 세트 하나 달랑 들고 갔어요. 생각만 해도 서럽고 눈물이 나네요. 명절 때 돈을 요구하는 시댁이 이상할 뿐입니다. 솔직히 부담된다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따라야할까요? (충북 청주시 · 오OO)<br/><br/>김숙기 각 가정마다 처한 경제적인 상황과 지출 범위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가정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형님이 요구하는 범위와 지출액이 부담스럽고, 가정경제가 흔들릴 만큼 무리해서까지 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br/>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은 자기 기준에서 더 큰 것을 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처받지 말고 그냥 이해하세요. 대신 ‘상대방은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것일 뿐, 취사선택과 결정권은 나(혹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지시키세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매번 “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span class='quot0'>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경제 사정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span>”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우면 “남편과 상의 좀 해볼게요” 혹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라고 시작하세요.<br/>대부분 맞벌이 가정일 경우, 요구하는 것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되면 상대방은 ‘두 사람이 벌어들이니 돈의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가 요구하면 그대로 따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님에게 말할 때, 내용은 단호하되 표현은 부드럽게 한다면 좋은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으니 관계가 악화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br/><br/>Q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는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으로 30년 넘게 싸우며 살았는데 이 나이가 돼서도 나아지지 않네요. 나이를 먹으면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여전히 술과 자잘한 돈 문제로 속을 썩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남편이 순했는데 이제 술만 마시면 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말을 내뱉네요. 다른 부부들은 나이가 들면 싸움도 줄어든다는데 우리 부부는 왜 이런 것인지, 솔직히 이제라도 이혼하고 혼자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아직 결혼 안 한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네요. 그간 남편과 살며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한탄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부산 해운대구·황OO)<br/><br/>이정희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문제 행동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가 충족되기는커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 돼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30년 넘게 부부가 서로의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견뎌오긴 했지만 자기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br/>우선 부인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태도는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 문제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고 문제 해결도 같이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털어놓는 불만과 원망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시길 바랍니다. 남편 입장에서 느껴온 감정이 있을 테니 들어주신 뒤 마음에 공감을 표해보세요. ‘당신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이죠.<br/>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본인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달라고 하신 뒤 부인께서 느껴온 감정에 대해 표현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배우자의 감정을 서로 읽어주고 이해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응어리진 마음의 매듭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대화가 어렵다면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br/><br/>Q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남편,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저와의 대화도 피하고 자꾸 저를 밀어내려고 해서 서럽고 눈물이 납니다. 요즘 회사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해서 응원도 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다 귀찮다네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br/>(대구 북구·이OO)<br/><br/>김선재 부인이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울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회사일이 힘들게 느껴져 좌절에 빠졌거나, 상사의 압박 등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우울증이 오고 나면 회사 문제가 아닌 다른 일에도 무기력해지고 부인과의 대화도 피하는 등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가정 문제가 아니어도 일단 발생하면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등 생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데 우울증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꼭 치료받아야 합니다.<br/>이럴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인은 애정이 식은 것일까? 가정에 위기가 온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싸우게 되면 우울한 남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속히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병과 달리 우울증을 놓치기 쉬운 것은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이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무기력하다, 기운이 없다, 밥맛이 없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침묵 등으로 표현하죠.<br/>우울증도 병이란 인식을 갖고 조기 진단할수록 예후가 좋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속히 병원을 찾아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br/><br/>Q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느껴지는 친구, 친한 사이도 아닌데 오랜만에 아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로 청첩장 보내주겠다는 친구. 끊는 게 나을까요? 갈수록 인간관계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퍼주는 제 성격이 독이 됐던 과거가 생각나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 ‘부당거래’ 대사가 생각나요.<br/>(서울 송파구·강OO)<br/><br/>안은영 이 친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할 때 청첩장은 대표적인 식별 장치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느긋하고, 받는 사람은 느닷없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던’ 친구가 괘씸하긴 합니다만, 관계를 끊는 건 무의미해요. 상대방은 ‘끊겼다’라는 사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요. 어른이 된다는 건 관계가 좁아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관계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즉 적당한 체념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연락이 뜸하다가 이런저런 경조사에만 얼굴을 비치는 미약하고 느슨한 관계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친구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당신은 이제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어른이 돼가는 레이스를 시작한 거죠. 좌충우돌 성장하는 ‘어른의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r/><br/>Q 이직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직급, 연봉, 업무 내용…. 무엇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지 궁금해요.<br/>(경기 구리시·이OO)<br/><br/>안은영 후배들에게 저는 한결같이 말해왔습니다. 이직할 때 가장 먼저 연봉을 고려하라고. 자아실현과 자기계발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밥벌이를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다면 당신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한 대가로 받는 연봉이겠죠. 이런 현실이 가혹하고 정나미 떨어진다면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평소 꿈꾸던 자아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합당한가를 고려한 다음 당신이 평소 직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을 꼽아보세요. 직장 분위기, 신뢰할 만한 팀원들, 회사의 발전성 등. 같은 업종이라면 함께 일할 팀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기혼이라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할 테니,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 좋겠지요.<br/><br/>profile<br/>김숙기는…<br/>나우미가족문화<br/>연구원 원장.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까지, 각종 부부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솔루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부 문제 전문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br/>속 시원한 솔루션으로 독자들의 고민을 풀어준다.<br/><br/>profile<br/>이정희는…<br/>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임상심리사.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같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언으로 단순한 부부 문제 해결을 넘어 공감과 위로가 되는 따뜻한 솔루션을 제시한다.<br/><br/>profile<br/>김선재는…<br/>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PJ 마음건강의원 원장. 부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병리적 증상과 고민에 대해 핵심을 짚어낸 답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부들이 모르는 남성 심리까지 꿰뚫어본다.<br/><br/>profile<br/>안은영은…<br/>사랑과 결혼, 일과 성공, 돈과 인생 등 여자의 인생에 대한 담백한 조언을 담은 「여자생활백서」로 여성 독자들의 ‘언니’로 자리 잡은 베스트셀러 작가. 「여자 공감」, 「여자 인생 충전기」 등을 썼다.<br/><br/>육아·교육 고민<br/>이달의 키워드 사립 초등학교 계속 다녀야할까?, 말이 느린 4세, 하위권 중학생 공부법,<br/>아이의 배변 훈련, 욕심 많은 아이, 엄마 때리는 어린 딸<br/><br/>Q 아이가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수준별로 나눠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영어를 별로 접하지 않고 입학한지라 늘 초급반입니다. 아이가 무척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은데 교육상, 정서상 괜찮을까요? 학교를 옮겨야 할지, 영어 사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서울 마포구 · 김OO)<br/><br/>노관호 자존심이 상해 학교를 옮기는 것은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어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영어 사교육은 하되 아이에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늦더라도 목표를 잡고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면 반드시 아이는 성장할 겁니다.<br/><br/>Q 각종 매체에서 다루는 교육 기사들은 대부분 우수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중학생인데 성적이 하위권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부법이나 기초 학습 증진법이 있을까요?<br/>(강원 춘천시·김OO)<br/><br/>노관호 성적이 낮은 경우 우선 당장 성적을 올리고자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시기와 동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중장기 로드맵 그리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학습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영재원, 특목고, 대학 모두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며, 이를 써내려가는 동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도록 해보세요. 보통 못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위권 학생일수록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학습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br/><br/>Q 4세 아이를 둔 워킹 맘입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또래에 비해 말이 너무 느립니다. 또래 아이들을 보면 서너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말하는데 저희 아이는 한 단어, 잘해야 “밥, 싫어” 정도 수준으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친정엄마는 늘 아이에게 BBC 어린이 채널을 틀어주고 일상 단어도 영어 단어로 알려주는데 그게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br/>(이메일 사연)<br/><br/>노관호 5세에 문장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의사소통은 서로 혹은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교감하고 발달하며 이로 인해 학습 능력과 지식이 충족되는데, 현재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아이와 상호작용이 되는 환경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퇴근 후에는 반드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만약 만 4세까지 말이 늦어 걱정되신다면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언어·놀이 치료사를 통한 언어 발달 지연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영재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언어와 친숙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성을 기르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십시오.<br/><br/>Q 47개월 된 아들이 배변 훈련을 마치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외출할 때는 아직도 기저귀가 필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배변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요? (서울 성동구 · 임OO)<br/><br/>손석한 배변 훈련은 아이에게 최초의 어려운 발달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대개 부모는 너무 일찍 아이의 대변 가리기를 훈련시키면서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 결과적으로 대변을 가리는 시기가 더 늦어지거나 불안, 공격성,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br/>의학적으로 유분증은 만 4세가 지났음에도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지 못하고 기저귀나 바지에 지리거나, 방 안이나 거실 등의 엉뚱한 장소에서 대변을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아이의 경우 47개월이기 때문에 현재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분증일 가능성이 크지요.<br/>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처법은 가정 내의 갈등이나 긴장 요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부모와 가정을 모두 편안하게 인식하게끔 해서 심리적으로 이완 상태에 놓이게 해주세요. 지적하기나 벌주기를 멈추고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십시오. 대변을 잘 가리는 날에는 칭찬과 상을 주고 달력에 표시를 하십시오. 변기에 앉는 연습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반드시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또 변비를 예방하는 고섬유질 식품(과일, 채소, 곡물 등)의 섭취를 늘리십시오.<br/>배변 훈련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아이를 부끄럽게 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유분증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까지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유분증으로 악화하더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절대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다그쳐서 강압적 배변 훈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유분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아이의 성격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br/><br/>Q 6세 둘째 아이가 먹을 걸 나누질 못해요. 혼자만 먹으려 하고 제가 한 입 먹으면 울음을 터뜨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남아 있는 것조차 안 먹을 정도예요. 맛있는 게 있더라도 항상 어른 먼저 드려야 한다고 훈육합니다만, 따라주질 않네요. (부산 사하구 · 정OO)<br/><br/>손석한 독점 욕구가 매우 강한 아이입니다. 공유 혹은 나눔의 가치는 대개 만 3, 4세 이후부터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서서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만 7, 8세가 돼서야 마지못해 나눔을 실행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나눔, 공유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덕목입니다.<br/>현재 부모님이 나름의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위적 혹은 서열을 강조하는 훈육보다는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함께 먹으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에는 너에게 더 많은 음식을 나눠줄 것임’을 일러주세요. 남을 생각하는 배려 자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실천한 다음 더 맛있는 음식이나 더 좋은 보상을 제공하십시오. 비록 물질적 차원의 보상이 칭찬 등의 무형적 보상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만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먼저 음식을 나눠주거나 남에게 권한다면 더 큰 보상을 제공해야 하겠지요.<br/>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모가 의식적으로 아이 앞에서 나누는 행동을 자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서로 반찬을 나눠주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음식을 권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모방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br/><br/>Q 4세 딸아이가 자꾸 저를 때려요. 그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른이 때린 것처럼 아파요. 그럴 때면 두 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럼 또 금세 울어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이메일 사연)<br/><br/>손석한 엄마가 아이의 때리는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다만 고함을 질러서 아이를 울리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이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엄마를 때리기 때문에 손을 잡은 거야. 엄마를 때리는 행동은 잘못이야. 나쁜 행동이니까 앞으로 때리지 마”라고 훈육하십시오. 아이가 엄마의 힘에 눌려서 “앙” 하고 우는 대신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네”라는 대답을 하게끔 상황을 종료시키십시오. 이와 같은 훈육 과정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뤄져야 아이의 공격적 행동이 점차 사라질 겁니다.<br/>그리고 아이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올바른 손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즉 “OO의 손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포크를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이야”라는 말과 함께 실제로 아이와 엄마가 손을 이용한 놀이를 시작해보세요. 색칠하기나 블록 쌓기 등의 놀이가 매우 유용합니다.<br/><br/>profile<br/>노관호는…<br/>목동 하이스트 본원의 특목 강사를 거쳐 목동 미래탐구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타임교육 직영 노원 뉴스터디 원장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목의 핵심을 꿰뚫는 학습 전략을 제시해<br/>큰 인기를 끌고 있다.<br/><br/>profile<br/>손석한은…<br/>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이자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각 언론매체의 자문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 감으로 키우지 마라」(e북), 「지금 내 아이에게 해야 할 80가지 질문」,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빠의 대화 혁명」 등이 있다.<br/><br/>재테크 고민<br/>이달의 키워드 신규 분양 아파트 전세 계약, 대출금 계산, 아파트 매입 후 할 일,<br/>출산 예정 부부의 재무 관리<br/><br/>Q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대출금은 없고 잔금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특약사항이 있나요?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한 건지 궁금합니다. (경기 용인시 · 이OO)<br/><br/>우용표 입주 연도가 좀 지난 아파트와 달리 신규 분양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첫째, 신규 분양 아파트가 내가 결혼할 시기에 완공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완공이나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봄 결혼하시는 시기에 맞춰 아파트도 입주가 가능해야 할 텐데 혹시 모르니 직접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아파트의 외관은 거의 완성돼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중이라면 안심해도 됩니다. 둘째,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집주인들은 계약금만 넣고 나머지는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치릅니다.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는 “대출금은 없고 잔금만 남았다”라는 말은 믿기 힘듭니다. 아마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 경우 특약사항에 ‘해당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 몰래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겪어야 할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br/>이 2가지만 주의하시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 계약 방법과 같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br/><br/>Q 맞벌이 부부로 합산 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1억원 정도 대출받으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 계산법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경북 안동시·최OO)<br/><br/>우용표 최근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주택 자금에 대해서도 기금이 많이 마련돼 활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나라에서 주택에 대해 대출해주는 제도인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잘 아시리라 봅니다.<br/>대출금 계산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환 기간에 따라 그리고 대출금을 갚는 방식에 따라 그 가짓수가 곱하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총 4가지이고,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2가지이니 대출을 받아 갚는 방법만 해도 8가지가 됩니다.<br/>그래서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봤습니다. 만일 1억원을 디딤돌 대출을 받고 대출 기간은 20년, 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대출 금리를 3.3%라고 했을 때 20년간 매월 57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부족할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대출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기금포털(nhf.mltm.go.kr)에서 정확한 계산법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br/><br/>Q 최근 2억5천5백만원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에 준비해야 할 법무사 등기수수료와 취득세, 기타 필요 경비가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시 근저당 설정 비용도 따로 있는 건가요?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으로 언제 해야 하나요? (서울 성북구·조OO)<br/><br/>우용표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듯합니다. 앞으로 값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보통의 상품을 사는 것과는 다른 보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br/>이제 잔금 치르는 일만 남은 상황이라면 크게 비용은 2가지가 듭니다. 세금과 수수료인데요. 우선 세금은 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기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금액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1%이고 여기에 다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 붙게 됩니다. 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세 2백50만원과 지방교육세 25만원을 합해 2백7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여기에 인지세 15만원(1억~10억원 사이는 15만원)까지 총 2백90만원이 필요합니다.<br/>다음으로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중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소와 서류를 처리해준 법무사에게 주게 될 금액인데,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매 대금의 0.4% 선에서 협의해 결정하시면 되니 최대 1백만원 이내로 수수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3억원까지는 8만5천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0.08%가 부과되니 2억5천5백만원에 대한 금액은 20만5천원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1만5천원은 따로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 2백90만원과 수수료 1백22만원으로, 총 4백12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br/>마지막으로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니 특별히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 일에 맞게 준비될 겁니다.<br/><br/>Q 결혼 2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출발해 이래저래 고충이 많았지만 2년간 적금을 부어 2천만원을 모아 전셋집 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 내년 5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고민은 아내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현재 저희 부부의 재무 상태를 점검받고 싶습니다.<br/>(경기 의정부시·윤OO)<br/><br/><표><br/>1:1 맞춤 재무 상담<br/>수입 내역<br/>남편 35세, 회사원, 월급 세후 3백70만원<br/>아내 35세, 회사원, 월급 세후 2백10만원<br/><br/>지출 내역<br/>현금 1백20만원<br/>-남편 용돈 70만원(통신비, 교통비 포함)<br/>-아내 용돈 50만원(통신비, 교통비 포함)<br/><br/>저축 ① 1백77만원<br/>-청약 매월 2만원<br/>-연금 매월 25만원<br/>-펀드 매월 20만원<br/>-2년 만기 적금 매월 1백20만원<br/>-1년 만기 적금 매월 10만원<br/><br/>저축 ② CMA 예치(비상금) 2백만원<br/>고정 및 변동 지출 약 2백80만원<br/>-보험 26만1천9백60원(남편 18만5천66원+아내 7만6천8백94원)<br/>-아파트 대출이자 40만원 (대출금 1억2천만원, 연 3.5% 변동금리 대출)<br/>-공과금 및 아파트 관리비 월 평균 30만원<br/>-생활비 1백만원<br/>-부모님 용돈 40만원<br/>-자동차 유지비 30만원<br/>-경조사 10만~20만원<br/>-기타 비상금<br/><br/>이천 우선 소비지출부터 줄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출산에 따른 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줄고, 복직하더라도 아이 보육을 위한 지출이 커서 출산 전의 가계 재무 구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직을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에 맞춰 재무 설계를 해야 합니다.<br/>자신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월 평균적인 소비지출액이 현재 약 4백만원입니다. 2인 가구 지출로는 과도한 편이죠. 방만한 소비지출 습관부터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아내의 휴직으로 수입이 적어지면 대개 저축부터 줄이는데, 가계의 불필요한 소비지출부터 줄여야 합니다. 통신비와 교통비가 포함돼 있더라도 부부의 용돈으로 매월 1백2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빚이 1억2천만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그 빚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보험을 비롯해 아이 관련 비용까지 추가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활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월 40만원씩 지출하는 효도 비용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 액수를 줄이거나 명절이나 생신 같은 기념일에만 드리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br/>또 출산 비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출산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2년 만기 적금에 1백2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데, 아내가 휴직하게 되면 어차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약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되므로 지금 해약해서 CMA에 돈을 모아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또 출산 비용을 제외하고 5백만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준비해둬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에 해약할 경우 무조건 손해인 금융 상품을 해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소비지출 규모를 줄이고 출산 비용과 비상금 확보가 끝나면 2년 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해 단기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현재 1억9천만원인데 요즘같이 전세금이 인상되는 추세면 2천만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현재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이자만 40만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만일 대출금리가 인상된다면 그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전세금 상환 계획을 세우다 보면 빚에 대해 자각하게 됩니다. 소비지출 규모를 마음 단단히 먹고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계획을 수정해 실행하사기 바랍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br/><br/>profile<br/>우용표는…<br/>더 코칭&컴퍼니 대표. 대기업 입사 후 7년간 적자 인생임을 깨닫고 재테크에 입문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개인 재무설계와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도 펼치고 있다.<br/><br/>profile<br/>이천은…<br/>㈜희망재무설계 대표. 신입사원의 통장 관리부터 기업인들의 자산 관리까지 폭넓은 계층의 재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결혼과 동시에 부자 되는 커플리치」,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등이 있다.<br/><br/>건강 고민<br/>이달의 키워드 부정교합 치료법, 숙면하는 법, 부유방 수술<br/><br/>Q 열 살 된 둘째 딸이 부정교합이 심해요. 양악수술 외에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서울 강남구 · 안OO)<br/><br/>안상철 나이가 어리고 성장 시기이므로 아직 양악수술은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밀검사를 통해 성장을 예측해 추후 양악수술 여부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연령대에는 교정치료를 추천합니다. 고정성 교정 장치(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정기)를 사용한 교정치료의 경우,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가 완료되는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며 초등학교 4, 5학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교정은 치아를 예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아 우식증 예방이나 만성치주염 예방과 같은 건강한 구강관리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용 목적 외에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교정은 중요한 치료 및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br/><br/>Q 부유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의합니다. 민소매 옷을 입으면 부유방이 보여서 걱정입니다. 부유방의 수술 비용과 수술시 부작용에 관해 알려주세요. (서울 성북구·이OO)<br/><br/>서재돈 부유방은 겨드랑에 마치 혹이 달린 모양으로 자리 잡는데, 청소년기에 유방이 발달하면서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양쪽 부유방은 모양이나 크기가 다를 수도 있으며 유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유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정상적인 유방과 같이 유선 조직을 가지고 있어 생리 전이나 임신 중 크기가 커지거나 딱딱해지는 월경전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br/>대부분의 여성들이 부유방을 단순히 살이 쪄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 치료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부유방은 정상적인 유방 조직과 동일하게 유선 조직이 발달해 발생하는 것으로, 퇴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방과 마찬가지로 부유방의 유선 조직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br/>수술 방법에는 지방 흡입과 유선 조직 절제 2가지가 있는데, 크기가 작은 경우 겨드랑이 안쪽 주름을 통해 지방 흡입 형식으로 유선 조직까지 함께 제거하면 개선됩니다. 부유방의 크기가 크고 처진 경우에 한해 피부 절개와 함께 유선 조직 절제를 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3~5일 정도며, 약 1주일이 지나면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거시 절개가 필요한 수술과 지방흡입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수술받아야 흉터는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유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유방 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통해 부유방, 겨드랑이 임파선, 종양 유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br/><br/>Q 깊은 잠을 못 자고 밤에 여러 번씩 깨고, 꿈도 자주 꿔요. 그래서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숙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서울 종로구·권OO)<br/><br/>강용혁 불면증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가벼운 운동인 산책, 음악 감상 등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심리적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면장애와 그로 인한 후유증은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지만, 진짜 원인은 심리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의존하기보다 심리적 원인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꿈은 낮 동안 부정적 감정들이 무의식에 억압됐다가 밤에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은 결국 일상에서 억압된 부정적 정서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소하면 수면장애도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br/>가장 빈번한 유형은 ‘분노의 억압’이나 ‘불안의 회피’입니다. 낮 동안 화나는 일이 많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내가 더 불리해진다는 생각에 억지로 참는 경우입니다. 상대에게 계속 맞춰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이는 수면장애로 이어집니다. 즉, 스스로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돌봐주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며 무시하고 억압해버린 대가가 잦은 꿈과 수면장애인 거죠. 또 미래에 대한 지나친 계획이나 다양한 불안감도 원인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화나고 불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br/><br/>profile<br/>안상철은…<br/>구강외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오스템 임플란트 임상지도의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서울리마치과 대표원장이다.<br/><br/>profile<br/>서재돈은…<br/>성형외과 전문의. 재돈성형외과 원장이자 인제대학교 성형외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 미국미용성형외과저널에 논문이 채택되는 등 학술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br/><br/>profile<br/>강용혁은…<br/>마음자리 한의원 원장. 한방 성정 분석 전문가로 우울증, 화병, 불안장애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방정신과 관련 저술 및 강의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을 스캔하다」, 「닥터K의 마음문제 상담소」 등이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5.txt

제목: 병원 주식회사의 탄생부터 휴대전화 화상 진료까지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1100000037  
본문: Info<br/>보통 생활의 기본 요소로 의식주(衣食住)를 꼽는다. 하지만 살면서 이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병원을 상징하는 의(醫)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안다. 결코 줄일 수 없는 게 병원비라는 것을. 병원은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민영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br/><br/>Issue 1<br/>정부 주도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br/>필수 요소지만 의식주만큼 격차가 큰 항목도 드물다. 입고, 먹고, 사는 곳에 따라 한 사람의 경제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다. 거리에는 유명 디자이너 옷을 입은 사람과 이월 상품 옷을 입은 사람이 뒤섞여 지나간다.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의 답이 그 사람의 형편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돈으로 차이가 정해지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병(病)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같은 위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최고의 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영세 병원을 전전한다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br/>의료민영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질병 치료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정서다. 치료와 건강관리는 부자나 중산층 국민들만 누리는 사치의 재화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필수적이자 공공의 성격이 강한 재화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은 소득,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성별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다.<br/>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의료복지 확대 정책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장밋빛 공약을 내놨다. 그런데 당선 뒤 인수위 활동 기간에 이르러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된 공약이라고 밝혔다. 복지 강화를 외치던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를 관철하려는 정부 측과 반대하는 시민·의료계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의료민영화가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br/><br/>Issue 2<br/>병원, 뭐가 달라지는 거지? 병원 주식회사<br/>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 완화 대책을 이행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span>”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의료 영역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리 자법인의 설립이 허용되면 환자 편의를 위해 운영했던 기존의 병원 부대사업인 주차장, 장례식장, 구내식당을 넘어 부동산, 건강식품, 의료기기업, 화장품 등을 만들고 판매하는 ‘의료사업체’를 차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의료법인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병원의 자회사가 의약품 제조와 유통을 장악한 뒤 환자 진료와 연계해 최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필수가 아니더라도 “이 약이 좋다”라는 의사의 한마디는 환자에게 처방전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처럼 병원과 연계된 자회사는 환자의 불안을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br/>현재의 비영리법인 병원 구조에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이를 병원 내로 재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즉, 수익이 생기면 인력, 시설,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해야 하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병원 외부로 돈을 빼돌릴 수 없다는 것. 우리나라 병원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특징과 관련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영리 자법인을 설립해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 자회사는 의료기관과 분리된다. 의료기관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외부로 배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리 자회사는 의료기관의 샴쌍둥이와 같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영리 자회사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간다.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 유출이 가능해지면 병원의 수익을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하지만 영리 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재인 의료 부문에 영리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투자라는 미명 아래 의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자법인의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br/><br/>Issue 3<br/>이제 안방에서 휴대전화로 치료받는다 원격진료<br/>정부가 9월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진료는 참여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가 혈압,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인터넷 포털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전송하면 의사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를 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및 화상 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 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전송장치 등 필요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첨단 의료산업의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br/>하지만 의협은 의사가 직접 살펴봐도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 병인데, 원격진료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되물었다. 원격진료 추진의 중심에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 장비 업체와 대형 병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원격진료의 일환인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환자 1인당 건강관리로 1천31만원이 소요됐고, 1개월에 약 27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1년간 당화혈색소(HbA1c)가 0.34% 감소했다고 한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비용 대비 효율과 의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br/>의협은 “원격진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인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라며 “일방적인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화제 하나를 개발하는 데도 보통 10여 년의 연구 기간과 1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휴대전화 진료에 5천만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의협은 휴대전화 진료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 의원의 1차 진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br/><br/>Issue 4<br/>보험, 몇 개나 가입했나요? 민간보험 활성화<br/>의료민영화의 뒤에는 민간보험이 있다. 바꿔 말하면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민간보험의 활성화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의 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암처럼 큰 병에 걸리면 몸보다 돈 걱정이 앞선다. 전세금 빼서 병원비를 내는 경우도 태반이고, 치료비와 생활고에 시달려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때문에 사람들은 큰 병에 대비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다.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다른 대응 수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질병 발생 위험에 대비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은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세금을 더 걷어 공공 의료를 확대할 것인가, 국민 개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민간 재정을 확대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공공 의료를 확대하면 세금이 늘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젊은이가 노인과 어린아이를,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돕는 연대적 성격의 건강보장제도가 된다. 반대의 길로 들어서면 민간 보험이 활성화된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만큼 부담도 늘어난다.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위축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은 더욱 어려워진다.<br/>민간보험이 강화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치료 거부,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병원과 의료보험회사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증가하고 환자는 치료비 부담에 소송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의료민영화로 병원이 돈을 버는 만큼 국민총생산도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의료민영화로 버는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 것인가? 돈의 흐름에서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br/><br/>Issue 5<br/>진료의 양극화 부를까?<br/>적극적 복지의 중요성<br/>오랫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일자리와 노후, 건강과 의료가 불안해졌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시장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경제적 부에 학력의 대물림 현상까지 일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빈곤과 질병의 대물림’까지 겹쳐지고 있다. 최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 수준이 고소득층 자녀들의 건강 수준보다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구조화돼가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를 자본에 맡기면 건강의 불평등 현상과 ‘빈곤과 질병의 대물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체념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이 없는, 희망 없는 사회다.<br/>보수 진영과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은 경제와 복지를 ‘성장이냐 분배냐’의 대립적 이분법으로 구분해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작은 정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 불안을 심화시켰고, 이른바 낙수 효과 부재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보편적이고 적극적 복지를 통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경제사회적 안정감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이루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복지는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br/><br/>Mini Interview<br/>“<span class='quot1'>의료민영화, 비용 대비 효과 낮을 수도 있다</span>”<br/>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br/><br/>의료민영화의 쟁점은 무엇인가?<br/>의료민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공적(Public) 영역을 민간에 내주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국가에서는 의료를 공적 영역으로 간주한다. 민간 자본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를 극대화하려고 애쓴다. 자본의 목적은 ‘돈’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그럼에도 의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통제와 함께 법인 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할 시점에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 도입으로 의료체제의 공공성을 흔드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영역인 의료를 자본의 투자처로 허용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br/><br/>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차이점은?<br/>이명박 정부가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추진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자회사 설립 허용과 같은 세밀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의료민영화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오히려 당시에 ‘의료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내세웠던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역행하는 셈이다.<br/><br/>의료민영화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br/>보통 시장을 더 많이 도입하면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의 장점인데, 의료민영화는 복지국가에서 관료주의적 비효율이 나타날 때 일부 도입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이 지나치게 높아 부작용이 나타날 때 부분적 민영화로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장과 경쟁이 너무 과도해서 문제이기 때문이다.<br/><br/>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br/>스웨덴의 병원을 예로 들고 싶다. 스웨덴에서는 병원을 전부 국가가 관할한다. 비용도 국가가 조세를 통해 조달한다. 모두 사실상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다. 광역 지역 간 의료 수준의 격차가 없고, 국민 누구나 같은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중산층이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는 이에 따라 병원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 중산층과 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이렇게 가야 한다. ‘특정적 평등주의’라는 말이 있다. 소비자의 구매력과 무관하게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영역인 의료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공정하게 확대되면 인적 자본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쓰이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고 경제성장의 원천이다.<br/><br/>profile 이상이 교수는…<br/>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 전공)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을 하며 의료복지 정책의 문제점에 눈을 떴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6.txt

제목: 천년 고찰과 수려한 자연의 선물  
날짜: 2014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1001100000053  
본문: SPECIAL TOUR<br/>경상남도 양산은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아 더욱 신비로운 고장이다. 많은 고찰과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이름난 곳이지만 그 안의 세밀하고도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숨은 명소 찾기의 즐거움을 선사할 양산 여행을 떠나보자.<br/><br/>경상남도 동남부에 위치한 양산은 수려한 산천과 고찰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양산 3대 명산으로 불리는 영축산, 천성산, 천태산을 중심으로 한 빼어난 자연경관과 이름만으로 위용을 자랑하는 통도사, 내원사 등의 고찰이 이곳에 자리해 있다. 낙동강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날씨마다 변화무쌍한 장관을 선보이는 임경대, 기암절벽과 다양한 계곡 풍경으로 ‘경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내원사계곡까지 양산은 풍성한 자연의 선물들로 가득하다. 또 홍룡폭포, 배내골, 법기 수원지 등 숨어 있는 보석과도 같은 명승지도 많다.<br/><br/>양산 절경, 그 시작을 여는 통도사<br/>양산시의 자랑이자 ‘제1절경’이 통도사다. 영축산 줄기에 장엄하게 펼쳐진 통도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재위 15년(646년)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다. 우리나라 ‘삼보(三寶) 사찰’ 중 하나인 불보(佛寶) 사찰로, 부처님의 진신 사리와 금강 가사를 모시는 대표적인 절이다.<br/>통도사의 자연경관은 이른 봄 매화꽃이 이루는 절경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곳을 직접 찾은 이들은 사찰로 들어가는 길 자체에 매료된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이곳이 바로 통도사 암자 순례길이다. 제주에 올레길, 지리산에 둘레길이 있다면, 양산에는 통도사 암자 순례길이 있다. 암자 순례길은 2011년 경상남도에서 ‘경남의 걷고 싶은 길’로 선정하기도 했다.<br/>암자 순례길은 하북면 통도사 산문을 지나 ‘통도 8경’의 하나인 무풍한송길에서 시작돼 통도사 후문에서 끝난다. 무풍한송(舞風寒松)은 ‘바람은 춤추고 소나무는 차다’라는 뜻. 길 이름이 한 줄의 시와 진배없다. 암자 순례길은 길 옆 작은 개울의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맛이 일품이다. 또 통도사 내 13개 암자를 거치게 되는데, 들꽃과 16만 도자대장경으로 유명한 서운암, 금개구리 전설이 내려오는 자장암, 고 경봉 스님이 기거했던 삼소굴이 있는 극락암 등 암자마다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이다. 암자 순례길은 13km 정도의 코스로, 전체 도보시 약 6시간 20분이 소요된다.<br/>통도사 암자 여행은 또 다른 묘미를 주는 여행 코스다. 통도사의 자장 안에는 무려 19개의 암자가 있는데 마치 통도사를 중심으로 요새를 이룬 듯하다.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는 암자는 서운암이다. 통도사 주차장 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보타암과 취운암을 지나 서운암이 나타난다. 서운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수천 개는 족히 되는 장독들이다. 바람과 햇살에 익어가는 된장과 고추장, 간장을 담은 장독이 도열된 풍경은 가히 장관을 이룬다.<br/>서운암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는 작은 불상이 무려 3천여 개나 모셔져 있는 삼천불전이다. 성파 스님이 1985년부터 5년 동안 흙으로 구워낸 도자 삼천불들이다. 또 서운암 주변은 무려 1백여 종이 넘는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는 야생화 군락지이기도 하다.<br/>통도사 내 성보박물관도 꼭 한 번 들러볼 만하다. 우리나라 사찰 중 유형 불교 지정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박물관 사상 가장 풍부한 불교 유물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불교회화 전문 박물관이기도 하다.<br/>통도사 위치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문의 통도사 055-382-7182, 서운암 055-382-7094, 성보박물관 055-382-1001<br/><br/>양산 절경의 백미<br/>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로운 여운,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간직한 양산은 모험심 가득한 여행자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양산 8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과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숨은 명소까지 양산 절경의 5대 백미를 소개한다.<br/><br/>1 무지갯빛 물여울의 유혹 홍룡폭포<br/>양산 8경 중 하나인 홍룡폭포. 물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물보라가 사방으로 퍼질 때 무지개가 보인다 하여 ‘무지개 홍(虹)’, ‘여울 롱(瀧)’ 자를 써서 ‘홍롱’폭포로 불렸으나 세월이 지나며 점차 ‘홍룡’으로 부르게 됐다. 혹자는 물보라 사이의 형상이 선녀가 춤을 추는 듯하고 황룡이 승천하는 것 같다 하여 홍룡폭포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홍룡폭포 아래 홍룡사 입구엔 가홍정이라는 조그만 정자가 드나드는 길손을 맞이한다.<br/>위치 양산시 상북면 홍룡로 372 일원 문의 055-382-4112<br/><br/>2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오봉산 임경대<br/>양산의 정취를 한눈에 훑어보려면 오봉산 임경대(臨鏡臺)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양산 8경 중 7경이기도 한 임경대는 통일신라시대 대문장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시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최치원 선생은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 이 일대 암벽 위에 서서 낙동강을 바라보며 한 편의 시를 썼다.<br/>‘안개 낀 봉우리 뾰족뾰족 물은 늠실늠실/거울 속 인가가 푸른 봉우리 마주했네/어디로 외로운 배 바람 잔뜩 안고 가나?/별안간 날던 새 자취 없이 아득하네.’<br/>낙동강에 비친 산의 모습이 마치 거울 같다고 읊은 시에서 임경대라는 말이 유래됐다.<br/>임경대는 2001년 개봉된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과 차태현의 이별 장소로도 유명하다. 전지현이 “견우야~, 미안해~”라는 유명 대사를 외쳤던 곳이 바로 임경대다. 임경대는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풍광이 절경이다. 구름이 흘러갈 때는 운해로 뒤덮인 모습으로 장관을 이루고, 황혼이 깃들 무렵이면 매혹적인 붉은빛으로 여행자를 압도한다. 뿐이랴. 눈이라도 내리면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눈의 왕국이 펼쳐진다.<br/>위치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원<br/>문의 055-382-4112<br/><br/>3 기암절벽의 신비한 기운 내원사<br/>내원사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풍광이다. 내원사 계곡은 영남 알프스의 남쪽 주봉인 천성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북쪽으로 흐르며 만들어놓은 계곡이다. 경남의 소금강이라는 말이 허명이 아닐 정도로 기암절벽이 계곡마다 펼쳐져 있어 신비한 느낌을 준다. 계곡 곳곳에서 3층 바위와 작은 폭포, 소, 병풍바위를 찾아볼 수 있다. 통도사가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내원사는 다분히 여성적이다. 내원사가 비구니들이 정진하는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드럽고 고운 선을 지닌 절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처럼 소담해서다. 내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6·25전쟁 때 전소됐으나 1958년 비구니 수옥 스님의 원력으로 새롭게 중창됐다.<br/>위치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 207 문의 055-374-5211<br/><br/>4 80여 년 만에 개방된 청정지 법기 수원지<br/>법기 수원지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축조됐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1년 7월 일부 구간이 개방되면서 사람들에게 힐링의 장이 되고 있다. 80여 년 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허락된 이곳은 울울창창한 자연이 살아 숨 쉰다. 30m가 넘는 편백나무 1만여 그루와 울창한 히말라야시다 숲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준다.<br/>현재 개방된 곳은 수원지 전체 6백80만㎡ 중 댐과 수림지 2만㎡ 등으로 사람들에게 허락된 길은 지극히 짧다. 숲길을 지나면 저수지로 올라가는 1백24개의 ‘하늘 계단’과 조우하게 된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노라면 어느새 독특한 모양의 반송과 고요하게 빛나는 저수지가 우리를 반긴다. 이곳은 편백나무를 비롯해 독특한 부채 모양의 반송, 히말라야시다, 벚나무, 추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 다양한 수목으로 우거져 있다. 축조 당시 심어진 것으로, 80년생에서부터 1백30년생이 넘는 나무들이 꿋꿋하게 자태를 뽐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br/>위치 양산시 동면 법기로 918-13 문의 055-383-5379<br/><br/>5 아름다운 자전거길 황산 베랑길<br/>황산 베랑길은 법기 수원지와 함께 양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낙동강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으로, 지난 2012년 안전행정부가 국토 종주 자전거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했다.<br/>황산 베랑길은 양산시 물금 취수장에서 원동 취수장까지 2.2km 구간에 이른다. 기찻길 옆에 조성돼 운치를 더하며, 특히 전국적으로 자전거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있는 코스다. 낙동강에 구조물을 설치한 데크 형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었던 옛 영남대로의 일부인 황산잔도를 따라 조성해 잔도의 흔적이 완연하다.<br/>위치 양산시 물금읍 낙동로 444 일원 문의 055-382-4112<br/><br/>양산의 또 다른 매력<br/>양산 절경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있다. 양산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부터 양산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타워, 스키장은 물론 친환경 농촌 체험까지 가능하다. 때마다 열리는 각양각색의 축제 또한 양산 여행의 색다른 묘미다.<br/><br/>1 최적의 가족 단위 여행지 대운산 자연휴양림<br/>양산 8경 중 하나인 대운산 내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으로 특히 주변 풍취가 뛰어나다. 울창한 수풀과 폭포가 장관이며 삼림욕을 즐기기에도 적격이어서 특히 가족 단위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부산과 울산 중간 지점에 있어 접근성이 높은데다 편의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다. 족구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장, 연못, 물놀이장 등이 조성돼 있으며, 산책하기 좋은 데크 로드와 대운산 정상까지 연결된 등산로가 잘 정비돼 휴양림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br/>위치 양산시 탑골길 208-124 문의 055-366-9566~7<br/><br/>2 역사와 문화가 깃든 복합 문화 공간 양산시립박물관<br/>양산의 역사를 알아보고 싶다면 양산시립박물관을 둘러봐야 한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열린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양산시립박물관은 대강당과 시청각실, 기획전시실, 어린이 역사 체험실, 양산 역사실, 양산 고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시청각실에는 3D 입체 영상관을 설치해 양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다.<br/>위치 양산시 북정로 78 문의 055-392-3313<br/><br/>3 접근성이 용이한 국내 최남단 스키장 에덴밸리 스키장<br/>겨울철 여행지로는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 천성산, 신불산 줄기 끝에 세워진 에덴밸리 스키장을 추천한다. 국내 최남단 스키장이다. 슬로프<br/>총 연장 거리 6km에 최장 거리 1.5km, 1시간당 1만6천여 명을 수송하는 최신형 POMA 초고속 리프트, 콘도, MTB 코스, 워터파크 등의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접근성도 용이하다. 영남 타 지역에서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고, 김해공항과도 30분 남짓 떨어진 거리라 서울과 경기 지방에서도 항공편을 이용해 쉽게 갈 수 있다. 승마장, 눈썰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테니스장, 키즈 파크와 함께 사우나, 노래방, PC방, 각종 레스토랑 등도 마련돼 있다.<br/>위치 양산시 원동면 어실로 1206 문의 055-379-8000<br/>4 드넓은 조망권과 아름다운 불빛 향연 양산타워<br/>여유가 있다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양산타워에 올라 양산 시내를 둘러보자. 전망대에서는 양산의 주변 경관은 물론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김해 일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전망대 망원경으로는 남쪽으로 수십 km나 떨어진 낙동강 하구언까지 자세히 볼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울주군까지 조망할 수 있다. 밤이면 양산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인 영대교의 화려한 불빛과 영대교 인근의 음악 분수가 펼치는 풍경을 보는 것도 좋다.<br/>위치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1 문의 055-367-9026<br/><br/>5 태고의 비경을 간직 배내골, 통도골<br/>영남 알프스의 심장부에 위치한 배내골은 뛰어난 풍광으로 이름 높은 곳이다. 야생 배나무가 많이 자란다 하여 배내골이라고 한다. 고지대 사이에 낀 골짜기여서 여름에도 냉기가 감돌 정도로 청량하다. 또 아직도 태고의 비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봄이면 고로쇠 수액이 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이 물을 먹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배내골 마을 뒷산 통도골은 크고 작은 폭포와 고로쇠나무 서식지로 유명하다. 통도골의 선녀탕은 영화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이기도 하다.<br/>위치 양산시 원동면 선리 일원 문의 055-382-4112<br/><br/>양산 여행자를 위한 실속 정보<br/>먹는 것과 자는 곳, 이동 수단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여행 계획의 절반이 완성된다. 초보 여행자일수록 알뜰살뜰 챙길 만한 양산 여행 실속 정보를 소개한다.<br/><br/>맛집<br/>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채 전문점인 경기식당(055-382-7772)은 영축산에서 자생하는 고사리, 산나물, 푸른나물 등 7가지 각종 산나물을 비빔밥 재료로 사용해 향이 독특하고 산나물 특유의 맛을 즐길 수 있다. TV 프로그램 ‘VJ 특공대’, ‘6시 내 고향’ 등에 소개된 산삼 요리 전문점인 산삼마루한(055-381-4346), 약선 요리로 유명한 죽림산방(055-374-3392)에서는 건강식을 맛볼 수 있다. 양산의 향토 음식이기도 한 민물 매운탕은 산바다집(055-375-6677)과 호포 포구나무집(055-369-9194)이 유명하다. 특히 1급수에서만 사는 빠가사리 매운탕이 일품으로, 잡내가 전혀 없고 맛이 얼큰하면서도 시원하다.<br/><br/>숙소<br/>통도사 근처의 통도환타지아콘도(055-379-7000), 통도자연관광호텔(055-381-1010), 통도신라호텔(055-381-4700)이 깔끔하다. 펜션은 주로 원동면 배내골 일대에 집중돼 있으며, 대운산자연휴양림(055-382-4112)은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양산시 문화관광과 홈페이지(tour.yangsan.go.kr)를 참조하면 된다.<br/><br/>찾아가는 길<br/>기차 서울에서 기차로 양산을 가려면 서울역에서 울산역까지 KTX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20분이다. 서울역에서 부산 구포역까지도 KTX 이용시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구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구포역과 인접해 있어 양산역으로 갈 경우 2호선으로 환승해 가면 된다.<br/>버스 시외버스는 서울남부터미널(02-521-8550, www.nambuterminal.co.kr)에서 양산시외버스를 타면 된다.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br/>자가용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양산 통도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 서울-경부고속도로 한남IC-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경부고속도로 김천분기점-대구부산고속도로 동대구분기점-중앙고속도로 대동분기점-양산대로-양산 통도사(통도사 나들목에서 절까지는 10분 소요. 내원사와 홍룡사는 35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된다.)<br/><br/>Tip 통도사 템플스테이<br/>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참선을 통해 정신적 풍요를 얻고 싶다면 템플스테이에 참여해보자.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일상에서 잊어버린 전통 문화의 향훈과 자연과 하나 되는 본래의 내 모습을 찾는 좋은 체험이 될 것이다.<br/><br/>주요 프로그램 사물 관람 및 스님의 일상 체험, 수행, 명상 및 요가, 솔밭 보행로 걷기, 사찰 둘러보기, 다도 체험, 통도사 성보박물관 참관 및 인경 체험, 자연과 하나 되는 삶(계곡 물놀이), 사물놀이 및 민요 따라 부르기, 걷기 명상 등<br/>휴식형 템플스테이 1박 2일 5만원(하루 연장시 2만원 추가)<br/>맞춤형 템플스테이 1 기업 연수, 세미나, 단체 수련회, 어린이/청소년 캠프, 기념식 등 2 일반인 기준 1박 2일은 6만~10만원, 2박 3일은 9만~15만원 3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br/>문의 및 접수 통도사 055-382-7182, www.tongdosa.or.kr<br/><br/>Tip 양산의 축제<br/>양산의 대표적 축제로는 ‘삽량문화축전’이 있다. 매년 10월 신라시대 박제상 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리며, 테마극과 거리 퍼레이드 등 각종 공연 행사,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매년 3월에는 봄의 전령 매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원동 매화 축제’가 열린다. 낙동강변 기찻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매화를 배경으로 꽃길산책로 소공연, 매화 사생 대회, 매화 체험 행사 등 풍성한 이벤트가 펼쳐지며, 축제 행사 기간에는 행사장 주변 마을에서 청정 지역 원동의 특산품인 원동 청정 미나리 시식과 딸기 따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서운암에서도 들꽃 축제가 벌어진다. 매년 4월 금낭화와 할미꽃, 매발톱꽃 등 수만 포기의 야생화가 자태를 드러내 관광객들을 설레게 한다. 5월에 열리는 ‘천성산 철쭉제’도 압권이다. 철쭉꽃이 절정을 이루는 이 시기 천성산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br/><br/>Tip 논스톱 양산 여행,<br/>KTX와 렌터카 연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br/>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KTX를 타면 도착역에서 렌터카 비용의 주중 40%, 주말 35%를 할인해준다. 양산 여행을 한다면 울산역에서 내려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하고 역에 반납하면 된다. 코레일 렌터카(www.korailrentcar.com) 패키지를 활용하면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주변 여행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2010년 말부터 렌터카 사업에 진출해 현재 동대구역과 신경주역, 울산역에서 각각 렌터카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도와 직영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형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코레일 렌터카 울산역 지점은 총 15대(아반떼MD 12대, YF 쏘나타 LPG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br/>문의 052-263-7799<br/><br/>통도사<br/>무풍한송길<br/>홍룡폭포<br/>내원사<br/>법기 수원지<br/>황산 베랑길<br/>오봉산 임경대<br/>대운산 자연휴양림<br/>양산시립박물관<br/>배내골, 통도골<br/>양산들애<br/>양산천 음악분수<br/>에덴밸리 스키장<br/>삽량문화축전 불꽃<br/>양산타워<br/>민물 매운탕<br/>산채 비빔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7.txt

제목: 암환자 25만명 늘었는데 연간 진료비만 2조원 육박… 누적 환자 143만여명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30100000200  
본문: 지난해 25만1025명이 암 환자로 새로 등록하고, 1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진료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누적 암 환자는 143만7310명으로 집계됐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동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이같이 밝혔다.<br/><br/>지난해 새로 등록된 암 환자는 갑상샘암이 4만2738만명(17%)으로 가장 많고 위암 2만8502명, 대장암 2만5333명, 폐암 1만9475명, 유방암 1만7388명 순으로 2~5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4271명이 등록해 가장 많고, 서울 5만539명, 경북 1만4843명 순이었다. 지난해 신규 암 등록환자의 진료비는 1조9606억원으로 만성질환 중 1위를 차지했다.<br/><br/><br/>지난해까지 누적된 암 등록환자는 갑상샘암이 29만1177명(20.3%)으로 가장 많고, 위암 20만4580명(14.2%), 대장암 16만4909명(11.6%), 유방암 14만3676명(10%), 전립선암 5만1411명(3.6%) 순이다.<br/><br/>11개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지난해 1375만명(27.5%)이고 고혈압이 551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경계질환(259만명), 정신·행동장애(247만명), 당뇨병(232만명)이 뒤를 이었고 암은 8위였다.<br/><br/>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50조9552억원의 35.5%를 차지했다.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22만원이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102만원)의 3배가 넘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8.txt

제목: ‘공공의료 병상’은 10% 밑으로 뚝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30100000201  
본문: 국내 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고령화 추세와 의료영리화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그 밑을 받쳐야 할 공공의료 틀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br/><br/>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보건의료 병상(보건소 등 포함) 비율은 2008년 11.1%에서 지난해 9.5%로 하락했다. 이 비율이 한 자릿수가 된 것은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은 모두 공공보건의료 병상이며, 캐나다(99.15)·호주(69.25%)·프랑스(62.3%)도 높다. 의료영리화가 만연한 미국도 공공의료병상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24.5%이다.<br/><br/>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민간 병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9% 급증한 사이 공공의료기관 수는 1.5%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300여개 병상을 보유했던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폐업한 것도 공공의료 병상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br/><br/>공공의료가 부실할수록 환자들이 합리적 가격에 적정 진료를 받을 기회는 줄어든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2년 62.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암 등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도입해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그만큼 비급여·과잉진료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0'>정부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나 영리자회사 허용 등 민간 병원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 전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적정 의료모델을 내놓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29.txt

제목: 불평등 사회에 분노하는 ‘피케티 열풍’의 명과 암  
날짜: 2014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30100000024  
본문: ‘불평등’과 ‘양극화’는 시대를 가로지르는 열쇠말이다. 한국까지 상륙한 피케티 열풍도 이 열쇠말에 겹쳐져 있다. 그의 저작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앞질러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돈이 돈을 불려나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물려받은 돈이 계층을 결정하는 ‘세습자본주의’가 지금 자본주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br/><br/>‘상위 1%에 대한 증세’의 조세정책<br/>피케티는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의 해법을 조세정책에서 찾는다. 첫째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80%로 높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피케티는 조세정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자본소득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출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한다.<br/><br/>‘불평등’과 ‘양극화’가 오래된 사회문제이며, ‘부자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도 피케티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케티의 해법을 ‘메시아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현실에서 피케티가 말하는 ‘조세정책’만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주장한 세습자본주의에만 초점을 맞춰 ‘상위 1%’에 대한 조세에만 집중하다보면 다른 중요한 불평등의 원인들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br/><br/>김공회 당인리 대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 상위 1%에 대한 증세가 소득 하위 50%의 소득 증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피케티의 책에는 그런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득 하위 50%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노동자가 현실에서 마주치고 있는 자본가는 세 부류다. 임금을 주는 고용주, 월세 등 주거비를 내는 집주인, 그리고 대출이자를 갚는 은행 및 대부업체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주거환경은 늘 불안하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제로에 가깝지만, 대부업의 금리는 낮췄다고 해도 최고 34.9%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김 박사는 이러한 현실에서 분배는 다수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쟁점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케티의 말대로 상위 1%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지표상으로는 불평등이 완화되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 하위 50%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까.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하위 50%가 중심이 되는 정치·사회 의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세정책으로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피케티의 정책은 다소 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위 50%를 넘어선 중산계급들을 화나게 만들려면 그보다 못사는 사람들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기보다 잘사는 사람들의 불평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피케티가 말하는 조세정책이 불평등 완화의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br/><br/>‘피케티 열풍’은 한국사회 불평등 방증<br/>같은 맥락에서 이재욱 정치학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통해 자본소득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상위 1%의 부의 편중이 심화된다는 것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누가 어떤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주체와 권력’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그는 “피케티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석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주체’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피케티가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예컨대 1945~1975년 사이에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노동계급의 역할이 있었다. 갈등국면에서 타협을 이뤄내는 등 노동자의 조직적인 역량이 강했던 원인이 작동하고 있었다. 피케티가 말한 정책적 대안에 있어서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체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피케티 열풍’이 과세문제에만 집중되다 보면 이 또한 불평등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나 불만의 표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br/><br/>한국 사회의 피케티 열풍은 대중들이 불평등을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정의’ ‘불평등’과 관련한 열풍이 잦았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안철수 현상’, 최근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 열풍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이 지나가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이재욱 박사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현실적인 쟁점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br/><br/>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 박사는 피케티 열풍이 지나친 낙관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피케티가 불평등 문제를 전면 슬로건으로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 희망적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또 다른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피케티를 ‘록스타’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1980~90년대 한국에 외국의 진보이론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런 이론들이 사회적 문제를 금방 해결해줄 수 있는 메시아적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케티 이론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 피케티 이론으로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볼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비판을 해서 껍데기만 남겨둘 것도 아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꾸준히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0.txt

제목: 암환자 25만명 늘었는데 연간 진료비만 2조원 육박… 누적 환자 143만여명  
날짜: 2014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910015301122  
본문: 지난해 25만1025명이 암 환자로 새로 등록하고, 1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진료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누적 암 환자는 143만7310명으로 집계됐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동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이같이 밝혔다.<br/><br/>지난해 새로 등록된 암 환자는 갑상샘암이 4만2738만명(17%)으로 가장 많고 위암 2만8502명, 대장암 2만5333명, 폐암 1만9475명, 유방암 1만7388명 순으로 2~5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4271명이 등록해 가장 많고, 서울 5만539명, 경북 1만4843명 순이었다. 지난해 신규 암 등록환자의 진료비는 1조9606억원으로 만성질환 중 1위를 차지했다.<br/><br/><br/>지난해까지 누적된 암 등록환자는 갑상샘암이 29만1177명(20.3%)으로 가장 많고, 위암 20만4580명(14.2%), 대장암 16만4909명(11.6%), 유방암 14만3676명(10%), 전립선암 5만1411명(3.6%) 순이다.<br/><br/>11개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지난해 1375만명(27.5%)이고 고혈압이 551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경계질환(259만명), 정신·행동장애(247만명), 당뇨병(232만명)이 뒤를 이었고 암은 8위였다.<br/><br/>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50조9552억원의 35.5%를 차지했다.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22만원이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102만원)의 3배가 넘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1.txt

제목: ‘공공의료 병상’은 10% 밑으로 뚝  
날짜: 2014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91001530239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작년 9.5%… 첫 한 자릿수</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진주의료원 폐업 영향도</strong><!-- SUB\_TITLE\_END--><br/><br/>국내 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고령화 추세와 의료영리화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그 밑을 받쳐야 할 공공의료 틀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br/><br/>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보건의료 병상(보건소 등 포함) 비율은 2008년 11.1%에서 지난해 9.5%로 하락했다. 이 비율이 한 자릿수가 된 것은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은 모두 공공보건의료 병상이며, 캐나다(99.15)·호주(69.25%)·프랑스(62.3%)도 높다. 의료영리화가 만연한 미국도 공공의료병상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24.5%이다.<br/><br/>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민간 병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9% 급증한 사이 공공의료기관 수는 1.5%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300여개 병상을 보유했던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폐업한 것도 공공의료 병상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br/><br/>공공의료가 부실할수록 환자들이 합리적 가격에 적정 진료를 받을 기회는 줄어든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2년 62.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암 등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도입해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그만큼 비급여·과잉진료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0'>정부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나 영리자회사 허용 등 민간 병원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 전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적정 의료모델을 내놓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2.txt

제목: [시론]‘탱자’가 될 메디텔  
날짜: 2014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7100000006  
본문: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병원 옆 건물 2층에 있는 뷔페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식당은 음식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좋아, 병원 직원이나 방문객들로 항상 붐빈다. 병원과는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도 편하다. 식당이 있는 그 건물이 요즘 한국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에 딸린 호텔, 일명 메디텔이다. <br/><br/>엠디 앤더슨 병원이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운영은 유명 호텔체인이 맡아 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이 메디텔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말하면, 다들 의아해한다. 멀리서 진료받으러 온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다. <br/><br/>어찌 보면,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 병원(Hospital)과 호텔(Hotel)이 같은 어원을 가지는 데서도 알 수 있듯 환자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호텔 서비스는 병원이 갖추어야 할 여러 기능 중 하나이다. 병원과 호텔 연계가 기능적 측면에서 어색하지 않은 이유이다.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등의 국영병원에서도 이미 1980년대부터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메디텔을 활용하고 있다. <br/><br/>그러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멀쩡하던 것이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희한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메디텔도 그 전철을 밟는 것 같다. 정부는 지금껏 메디텔이 없어서 해외 환자 유치가 어려웠던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미국을 찾는 해외 환자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미국의 10대 암 병원들 중에서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엠디 앤더슨 병원을 포함해 두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실비로 제공하거나 지역 호텔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런데도 매년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환자들이 이들 병원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메디텔이 아니라 병원과 의사가 병을 고치는 실력과 이에 대한 환자의 신뢰이다. <br/><br/>엠디 앤더슨 병원의 호텔은 그야말로 환자 편의를 위한 부차적 서비스이다. 이것으로 인해 환자 진료가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미국이 아무리 영리의료의 원조라고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금기는 지킨다. 그러나 한국의 메디텔은 애초의 출발 자체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다. 수익 논리에 휘둘리면서 돈벌이 의료가 횡행하고, 그 파장이 메디텔 밖의 내국인 진료에까지 미칠 공산이 크다.<br/><br/>그간 정부가 내세운 해외 환자 유치라는 명분조차도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메디텔을 사실상 국내 환자용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메디텔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을 심화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메디텔로 해외 환자를 잡는다더니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서울 병원이 지방 병원을 잡고,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잡게 생겼다. <br/><br/>정부와 메디텔 찬성론자들은 우리도 동남아의 몇몇 병원들처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스파, 피부관리, 마사지, 미용성형 시술 등으로 돈을 벌자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메디텔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서비스를 폄하할 이유도 없고, 이것으로 돈 버는 것을 말릴 일도 없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의 정부가 나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두 팔 걷고 나서 야단법석을 피울 사안은 아니다. 더구나 이것이 한국의 성장동력이고, 이 정부의 창조경제라니, 한마디로 창피스럽다. <br/><br/>최근 정부는 메디텔 외에도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온갖 영리적 부대사업 허용 등 수많은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병원에 난장을 차릴 기세다. 의사와 병원에 더 이상 진료 수입에만 안주하지 말고, 재주껏 돈을 벌어보라고 한껏 부추긴다. 장차 이것이 만들어낼 미래의 의료는 어떤 모습일까? 사업 수완이 좋은 의사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우직하게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뒤처져 도태되는 의료. 이것은 의사에게는 불행이고 환자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3.txt

제목: [책과 삶]‘귀하신 몸’ 조선 명의… 이황의 청탁도 안먹혔다  
날짜: 2014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7100000031  
본문: ▲ 조선의약생활사…신동원 지음 | 들녘 | 951쪽 | 3만9000원<br/><br/>사람이 어느 날 덜컥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명의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명의로 일컬어지는 의사들은 많지 않을뿐더러 대개 서울 대형 병원에 집중해 있다. 그들에게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두세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진료 예약자가 줄 서 있기 때문이다. 1분1초가 아까운 환자와 가족은 속만 타들어간다.<br/><br/>이런 광경은 16세기 조선에서도 목격된다. 퇴계 이황의 경우를 보자. 지방에 사는 이황의 인척이 중병에 걸려 이황에게 한양의 명의를 수소문해 처방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황이 아는 한 당시 명의는 안현, 손사균, 유지번 등 너댓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명의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황은 이들을 찾아갔지만 번번이 헛걸음이었다. 다른 고위직 양반의 청탁 등으로 왕진을 갔거나 돌보는 환자가 많아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황은 인척에게 보낸 편지에 “<span class='quot0'>모두 대신들의 명령으로 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대며 불러도 오지 않거니와, 친히 찾아가보아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span>”라고 적었다. 이황 같은 고위 관료조차 이 정도라면 벼슬이나 ‘빽’이 없는 평범한 양반들이 명의에게 진료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br/><br/>서울과 지방의 의료양극화도 심했다. 명의는 물론 제대로 교육받은 의원은 한양에 몰려 있었다. 지방 사람은 아플 때 전문적인 진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명의부터 찾는 중병 환자의 심리는 물론 지역 간 의료불균형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br/><br/>‘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이라는 부제가 붙은 <조선의약생활사>는 우리 선조들이 무슨 병을 앓았고 어떤 의학 지식을 활용했으며 어떤 약을 썼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의료제도와 질병의 사회학적 의미를 살피기도 하지만 책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개인의 병앓이’다. 크고 작은 병앓이 모습을 통해 한 가족, 한 개인의 생활사를 세밀하게 그려낸다. 카이스트에서 한국과학사를 가르치는 저자 신동원 교수는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span class='quot1'>노비들은 병났을 때 어떤 약을 썼나요</span>”라는 질문을 간혹 듣는다고 한다. 책에는 이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다. 평민과 천민의 병앓이에 얽힌 내용이 풍부하다. 대중역사서의 성격이 도드라진 이 책은 낯선 질병 용어, 의약 용어가 수두룩하지만 전혀 딱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독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술을 표방한 저자의 의도가 살아 있다.<br/><br/><br/>노비의 병앓이에 대한 기록으로 이문건의 <묵재일기>만큼 자세하고 가치 있는 사료는 없다. 16세기 인물 이문건은 조광조의 문하생이었던 탓에 스승이 몰락하자 자신도 유배생활을 하는 등 변변한 벼슬을 갖지 못한 사대부였다. 하지만 의학에 대한 조예가 남달라 각종 의약서를 익히고 직접 진맥하며 약을 조제하기도 했다. 그는 가족은 물론 노비들의 병앓이와 치료 내용을 매일 꼼꼼하게 기록했다. <br/><br/>가령 돌금이라는 여종을 보자. 돌금은 세 차례 학질을 앓았는데 그때마다 이문건은 복숭아씨를 복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복숭아씨는 효과가 없었다. 만수라는 남자 종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두통이 심한 증상이 오래가자 소주를 마셨더니 변이 나오는 듯했다고 떠벌렸다. 천민들 사이에 술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 만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문건은 음주치료법은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만수를 나무랐다.<br/><br/>몹쓸 역병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이문건은 손자 한 명과 같은 또래 노비 2명이 나란히 역병인 두창(痘瘡)으로 앓아누웠다고 기록했다. 몸에 콩알 같은 붉은 멍울이 솟아나는 병증 탓에 두창이라 불리는 이 병은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었다. 이런저런 약을 써보았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자 이문건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거리를 하고 맹인 점쟁이(판수)를 불러 독경을 하게 했다. 무당과 판수는 조선시대 의료행위의 일익을 담당한 직업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br/><br/>인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 배후에 신의 힘이 있다고 믿어버린다. 두창의 경우가 그랬다. 조선시대 대중은 두창이 귀신들이 노해서 발병한다고 여겨 귀신을 달래줘야 낫는다고 믿었다. 이문건 같은 지식인도 그랬으니 일자무식 평민들이야 두말할 것 있겠는가. 이숙권의 <패관잡기>에는 두창신 숭배현상이 잘 묘사돼 있다. 두창이 발병한 집을 드나들 때 풍습으로 “관을 쓰고 허리띠를 매어 대면한 양 정중히 고하고, 두창이 끝난 지 1~2년 동안은 오히려 제사를 꺼린다”고 적혀 있다. 유학을 섬기는 사대부가 제사를 걸렀다니 공맹보다 두창신이 더 무서웠나보다. 몸이 아플 때 무당굿을 벌이는 광경은 21세기에 와서도 끊이지 않을 만큼 질병과 의학의 관계는 여전히 과학 영역만으로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br/><br/>생로병사라는 말처럼 병이란 곧 삶이기도 하다. 삶은 질병의 연속이라는 말이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이문건처럼 조선 사대부는 의학을 익히고 베푸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나라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했다. 치병이 곧 치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비가 진료를 하고 침을 놓으며 탕약을 끓이는 일이 조선시대에는 흔한 풍경이었다. 유의(儒醫)라는 명칭은 거기서 왔다.<br/><br/>다산 정약용도 <마과회통> 같은 의학서를 편찬할 정도로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심했고 40세 때 중풍을 앓는 등 병약한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자 의학이라는 자구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span class='quot2'>약절구는 자주 찧어 이끼 낄 새가 없지만 차 달이는 일은 드물어 화로에 먼지 앉았지.</span>” 정약용이 49세 때 읊었다는 시 구절이다. 그는 병든 몸을 달래는 데 당시 유입되기 시작한 담배를 애용했다.<br/><br/>저자는 고려시대 이전 대중의 의약생활사를 엿볼 만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고려시대도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정도만 이를 언급한다. 그럼에도 과거 우리 선조들의 의료문화가 한 손아귀에 잡힌다. 방대한 자료를 찾아 재구성하고 오늘날 다른 학자의 연구동향까지 꼼꼼히 정리한 <조선의약생활사>는 땀으로 쓴 대중역사서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4.txt

제목: [우리 산의 인문학](13) 마이산 파노라마  
날짜: 2014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7100000013  
본문: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전북 진안의 마이산이 첫째일 것 같다. 어마어마한 두 돌봉우리가 희한한 모습으로 솟구친 마이산을 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다. 진안지역 주민들은 마이산을 어떻게 생각할까? 괴이한 산으로 받아들일까? 오랫동안 마이산을 어떻게 보고 대했고, 어떤 관계를 맺어 지금에 이르렀는지, 마이산 문화사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br/><br/>마이산은 경관, 지형·지질 등 여러 측면에서 이질적이라고 할 만큼 두드러진다. 경관이 특이하다 보니 2003년에 국가 명승(제12호)으로도 지정되었다. 지형·지질적인 형성 원인도 남다르다. 1억년에 걸쳐 원래 호수 바닥에 퇴적되어 굳어 있던 것이 지각운동에 의해 융기하면서 침식되고 남은 모습으로 밝혀졌다. 자갈, 모래, 흙이 콘크리트 반죽처럼 쌓인 봉우리 역암층으로는 그 규모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br/><br/>마이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살펴보면 흥미롭기까지 하다. 마이산처럼 기이한 산, 신령한 산, 꺼림칙한 산 등 여러 시선의 파노라마가 다채롭게 드러나는 산이 있을까 싶다. 여기에는 각각의 사회문화적 시선과 견지가 반영되어 있다.<br/><br/><br/>■ 신비스러운 외양 예로부터 숭배 대상으로<br/><br/>기이한 생김새로 본 것은 옛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김종직(1431~1492)은 마이산을 보더니 “하늘 밖으로 떨어진 기이한 봉우리, 뾰족한 한 쌍이 말의 귀와 같네”라고 놀라워했다. 조구상(1645~1712)은 “옥 봉우리 쌍으로 서서 높은 하늘에 꽂혔구나”라고 감탄했다. 운무를 걸치고 있는 마이산의 모습은 신비스러움으로도 비쳤다. 조찬한(1572~1631)은 이를 보고 “봉황이 부리를 일으킨 듯, 용의 귀가 잠긴 듯”하다고 비유했다. 이 모두 사대부 지식인 계층이나 외부 유람객이 마이산을 본 시선이다. 마이산을 구경의 대상으로 보고 놀람과 감탄으로 반응하는 패턴이다. <br/><br/>마이산의 신비스러운 외양은 지역과 국가의 신앙적인 숭배로 이어졌다. 산에 인접한 외사양마을과 화전(꽃밭쟁이)마을 주민들은 가뭄이 들어 비를 기원할 때 마이산 꼭대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신령한 산(靈山)이었기 때문이다. 마이산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나라의 제사를 받은 명산이었다. <삼국사기>에 소사(小祀)의 대상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마이산 산제사는 고려와 조선후기까지도 이어진 듯하다. 영조 때 편찬된 <문헌비고>(1770)에 “지금도 봄가을에 제사를 지낸다”고 적고 있다. 그것이 조선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흐지부지되다가 1984년에 다시 마이산신제로 부활되었다. 마이산의 신성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무의식이 유지되어 지역공동체 차원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br/><br/>■ 주민에겐 신성함, 지배층엔 꺼림칙한 산<br/><br/>마이산이 주는 장소 이미지는 종교적 신성과 결합하여 요소요소에 상징 경관이 형성됐다. 예부터 마이산은 기도터로 유명했다. 마이산에 있었던 혈암사, 쇄암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된 옛 절이었다. 마이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돌탑군도 우뚝 선 암·수 마이가 빚어내는 분위기와 연관하지 않고선 상상할 수 없는 조형물이다. 숫마이봉 아랫도리에 천연동굴이 있고 맑은 샘이 나오는데, 그 동굴도 화엄굴(혹은 화암굴)이라는 불교적 명칭이 생겼고 샘물을 마시면 득남한다는 신비로운 전설도 붙었다. <br/><br/>그런데 마이산은 기괴한 생김새 때문에 꺼림칙한 산으로 상반되게 인식되기도 했다. 마이산의 기이함은 보는 이에 따라 거부감으로도 비쳤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마이산을 둔 고을 이름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다’라는 뜻의 진안(鎭安)이라고 불렀다. 신라 왕조 때의 일이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마이산에 대한 중앙 권력층의 경계의식은 계속됐다. 고려 태조가 금강 이남 지방은 산의 모양과 땅의 형세가 (왕도를) 등지고 거역한다고 유훈(훈요십조)에서 말했는데 조선조에는 말이 더해져서 계룡산에서 마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금강의 물줄기가 활과 화살 모양(公자)을 이루어 개성뿐만 아니라 한양까지 겨누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에 기록된 이야기다. 그렇다면 계룡산은 서울을 겨누는 화살촉이고 마이산 맥인 금남정맥 줄기는 화살대며 마이산은 화살대 끝의 시위를 먹이는 형국인 셈이다. 중앙의 정치권력이 지역적 편견을 개입해 마이산을 본 시선이다.<br/><br/>이렇듯 같은 마이산이라도 보는 시선과 대하는 태도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 관점에 따라서도, 시간적·공간적으로도 달랐다. 외부 유람객과 내부 주민들의 견지도 같지 않았다. 진안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미술시간에 마이산을 그리라고 했더니 사는 곳에 따라 모두 다른 모습으로 그렸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마이산을 보는 내부적 시선은 어떻게 나타날까? 친밀하고 친숙하게 보는 점이 크게 다르다.<br/><br/>■ 두 봉우리 ‘부부 산신 민담’ 세계서 희귀<br/><br/>마이산 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생김새는 암수에서 나아가 부부 혹은 부모로 인식되었다. 암마이(686m)·숫마이(680m)로 본 것은 일반적인 시선이라고 할지라도, 부부 산신이라는 전설은 진안지역에 구전되는 것이다. 부부 산신이 승천할 새벽 무렵에 한 아낙네가 물 길러 왔다가 “산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외치는 바람에 그만 지금 모습대로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다. 한국에 산의 수만큼 많은 산신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처녀 산신은 있어도 부부 산신은 마이산이 유일한 것 같다. 세계적으로도 부부 산신 민담은 희귀한 사례임이 분명하다. 또한 진안지역에서는 마이산 두 봉우리를 어미봉(母峯)·아비봉(父峯)으로도 불렀다. “<span class='quot0'>동쪽 것은 아비이고 서쪽 것은 어미로, 서로 마주 보고 있다</span>”는 것이다. <진안지>의 기록이다. 한국에 어미산(母山)과 형제봉은 흔히 있지만 어미봉·아비봉이 나란히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지역주민이 아니고선 이렇게 부부나 부모처럼 가족적으로 마이산을 보고 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br/><br/>지역주민들에게 마이산은 삶 속에 들어 있는 생활공간이었다. 생활 속의 마이산을 들여다보자. 진안읍 반월리 주민들은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마이산과 해의 거리를 보고 시간을 짐작했단다. 마이산이 해시계인 셈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비가 안 와 다급할 때 마이산을 과감히 이용(?)하기도 했다. 암마이산 정상에 올라가 하늘 제사를 지낸 후 돼지를 잡아 피를 흩뿌렸던 것이다. 신성한 명산을 더럽혔으니 천지신명이 노해서 비를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외사양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다. 마이산을 구경왔던 사람이 산이 잘 보이는 곳에 정착해 살면서 형성된 마을도 있다. 진안읍 사양동이 그랬다.<br/><br/>진안지역에서 풍수로 해석되거나 평가했던 마이산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 사회계층이나 보이는 위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마이산의 우뚝 선 봉우리가 붓같이 생겨 문필봉이라고 좋게 보는 편이 있다. 지역에 과거급제자와 인물이 많이 나기를 바라는 시선이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서 마이산은 마을 안을 빠끔히 엿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규봉(窺峰)이라고 해 흉하게 친다. 또 어떤 마을에서 마이산은 곰보 얼굴(풍화혈 현상) 같고, 어느 마을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나워 보이기도 한다. 거대한 남근석으로 보여 풍기문란이 일 것 같은가 하면, 삐죽삐죽한 봉우리에 화기가 비쳐 마을에 불기운이 불 것 같기도 하다. 마을사람들이 이런 부정적 평가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대응했을까?<br/><br/>■ 주변 고을·마을서 ‘부모의 산’ 굳은 믿음<br/><br/>마이산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은 풍수적 해석도 있었을지언정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마을공동체가 대응한 것은 고작 마을 입구에 자그만 숲 울타리를 조성해서 가림막을 친 정도다. 진안읍에 가림리라고 있는데, 내(川)가 갈라져서 유래됐다고도 하지만 숲으로 가렸다 해서 붙은 지명이라는 해석도 생겼다. 그러나 그것도 마이산을 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마을이 좋으라고 숲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왜 주민들은 부정적 해석에 크게 개의치 않고 마이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을까?<br/><br/>오랫동안 내려온 마이산의 명산 의식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떻게 비유하고 해석하든 주민들에게 마이산은 고을과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영산이었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든 마이산은 부부와 부모로 은유되는 가족 관계의 산이었다. 이런 마이산에 대한 주민의 혈통의식은 비록 그 모습이 칼처럼 사납든 못생긴 곰보이든 흉측한 남근석이든 아무 상관없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고맙고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렇게 마이산은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 조금씩 녹아들어 갔다. 기괴하게 보이던 산이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산이 되었다. 일상적인 생활경관이 되었다. <br/><br/>분별없는 평상심이 도(道)라는 선종의 깨우침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진안주민들에게 마이산이 저렇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묻는 이를 도리어 의아하게 생각하는 눈빛으로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마이산요? 그냥 산이지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5.txt

제목: 원전 내 컴퓨터망 ID·비밀번호 한수원 직원들, 용역업체 알려줘  
날짜: 2014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5100000110  
본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내 업무용 컴퓨터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주요 업무 를 대신 처리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r/><br/>산업부는 24일 “<span class='quot0'>한수원이 용역업체에 방사성폐기물 배출의 최종 허가 권한이 있는 간부 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승인까지 대리 결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한수원에 조사토록 지시했고, 이와 별도로 산업부 차원의 조사단을 꾸려 현장급파 중</span>”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전날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해 드러났다.<br/><br/>영광, 고리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배출 등 방사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처리해야 할 관련 업무 일지 작성 등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특히 방사성폐기물 배출의 최종 허가 승인권을 가진 한수원 간부 직원 계정과 비밀번호도 공유했다.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일 수도 있는 방사성폐기물 배출의 최종 승인 결재까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맡긴 것이다. 한수원 내부 규정상 이 같은 업무는 자사 직원이 직접 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배출 허가는 방사선 안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br/><br/>한수원은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에게 컴퓨터 접속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때마다 한수원 직원들은 전화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관행은 2003년 원전에 업무용 내부 컴퓨터망이 도입된 이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br/><br/>산업부는 보안규정 위반자 등을 엄중 문책하고, 이런 사례가 다른 원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6.txt

제목: [김경의 트렌드 vs 클래식]그대, 문학 중년에게  
날짜: 2014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5100000046  
본문: 사십대 남성이 돌연사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이 나라에서 ‘중년 남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왠지 울적하다.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약육강식의 원리로 쉴새없이 찍어누르는 사회 속에서 알맞게 구겨지고 비굴해진 남자의 씁쓸한 모습. 하지만 그 살찌고 망가진 육체 안에 여전히 풋풋한 ‘소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득 슬퍼진다.<br/><br/>앗, 그런데 그런 그들이 최근 느닷없이 출판계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오십대가 되면 감수성이 예민해진 남성들이 여성보다 소설이나 시집 같은 문학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문학 중년’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니…. 매우 센티멘털하게 느껴지는 굿 뉴스여서 오랜 만에 가슴까지 설?다. 심지어 혼자 신이 났다. 중년 남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의 리스트를 떠올리며…. <br/><br/>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은 레이먼드 챈들러. 석유회사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자기 내면에서 살고 있던 소년의 불꽃’이 저지른 일련의 실수 때문에 해고당한 후 실업자가 되어 비로소 소설을 썼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연 첫 번째로 꼽고 싶다. 44세부터 쓰기 시작해서 51세가 돼서야 마침내 첫 장편 소설 <빅 슬립>을 출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의 대가가 된 그다. 무엇보다 그가 창조한 필립 말로라는 탐정이 너무도 매력적이다. 부패와 탐욕이 들끓는 시대의 욕망과 절망을 추적하는 외롭고 위험한 인물. 냉철하지만 감상적이고, 신랄할 정도로 지성적인 남자. 타락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가난했던 패배자. 하지만 그 영혼만큼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그 남자 필립 말로가 등장하는 탐정 소설 <빅 슬립>이나 <안녕, 내 사랑>, 그리고 그를 창조한 레이먼드 챈들러의 창작 비밀이 담긴 에세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를 함께 추천한다.<br/><br/>두 번째 추천작은 서머싯 몸의 <달과 6펜스>. 폴 고갱의 삶을 모델로 한 주인공 스트릭랜드는 마흔에 집을 떠난다. 버젓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증권 중개인이며 아내와 두 아이까지 거느린 사람이 마흔이 되어 느닷없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몰인정하게 처자식을 내팽개친다. 그리곤 세상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욕해도 본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남들 눈에는 ‘승산 없는 도박처럼 보이는 일’이었겠지만 그 자신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떤 진실한 열정이 이끄는 일이었으니까. 천하의 악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암처럼 자라고 있던 창조 본능’에 따라 화가가 된 남자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중년이라는 나이가 마치 ‘악의 꽃’처럼 매우 유혹적으로 느껴진다. <br/><br/>세 번째는 언젠가 ‘내일이 새로울 수 없으리라는 확실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중년의 가을은 난감하다’고 했던 분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책이다.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 맞다, 얼마 전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주인공 역을 연기했던 동명의 영화 원작 소설. 라틴어 교사로 조용하고 정돈된 삶을 살던 한 남자가 수업을 하다 말고 ‘그냥’ 떠나버리는 이야기. 심지어 그는 가방조차 챙기지 않았다. 가방을 교실 탁자에 그대로 남겨둔 채 남자는 리스본으로 떠나 버린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포르투갈의 한 귀족이 쓴 책에 이끌려 저자가 침묵한 책 속의 비밀들을 파헤쳐 보고자 리스본으로 떠났을 때의 나이가…. 나라는 한 인간을 규정하던 직업, 관계, 도시, 나라 같은 매우 익숙한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에 종종 목이 멘다면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br/><br/>정확히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span class='quot0'>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span>” 그게 바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라고 난 생각한다. 그 나머지 세계, 우리가 그 나이가 되도록 미처 경험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엿보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에 대한 전망을 얻고자 하는 중년의 독서 말이다.<br/><br/>누구보다 중년의 위기와 그 가능성에 주목했던 심리학자 칼 융에 의하면 중년은 새로운 중심이 ‘자기’가 될 절호의 타이밍이며, ‘자기로 살아가는 평화’와 ‘변화를 통한 치유’를 모색할 때다. 무엇보다 중년에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자의든 타의든 경쟁 구도를 떨어져 나가 얼마간 체념한 자의 정신적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경험에 의해 폭넓게 확장된 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나 자신이 품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 말이다. 그러니 즐겁게 골라 보자. 무슨 책을 읽을지…. 자기계발서는 가련한 청년들에게나 던져주고 이제는 시집이나 소설을 읽을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7.txt

제목: [김경의 트렌드 vs 클래식]그대, 문학 중년에게  
날짜: 2014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410015266832  
본문: 사십대 남성이 돌연사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이 나라에서 ‘중년 남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왠지 울적하다.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약육강식의 원리로 쉴새없이 찍어누르는 사회 속에서 알맞게 구겨지고 비굴해진 남자의 씁쓸한 모습. 하지만 그 살찌고 망가진 육체 안에 여전히 풋풋한 ‘소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득 슬퍼진다.<br/><br/>앗, 그런데 그런 그들이 최근 느닷없이 출판계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오십대가 되면 감수성이 예민해진 남성들이 여성보다 소설이나 시집 같은 문학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문학 중년’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니…. 매우 센티멘털하게 느껴지는 굿 뉴스여서 오랜 만에 가슴까지 설��다. 심지어 혼자 신이 났다. 중년 남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의 리스트를 떠올리며…. <br/><br/>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은 레이먼드 챈들러. 석유회사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자기 내면에서 살고 있던 소년의 불꽃’이 저지른 일련의 실수 때문에 해고당한 후 실업자가 되어 비로소 소설을 썼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연 첫 번째로 꼽고 싶다. 44세부터 쓰기 시작해서 51세가 돼서야 마침내 첫 장편 소설 <빅 슬립>을 출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의 대가가 된 그다. 무엇보다 그가 창조한 필립 말로라는 탐정이 너무도 매력적이다. 부패와 탐욕이 들끓는 시대의 욕망과 절망을 추적하는 외롭고 위험한 인물. 냉철하지만 감상적이고, 신랄할 정도로 지성적인 남자. 타락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가난했던 패배자. 하지만 그 영혼만큼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그 남자 필립 말로가 등장하는 탐정 소설 <빅 슬립>이나 <안녕, 내 사랑>, 그리고 그를 창조한 레이먼드 챈들러의 창작 비밀이 담긴 에세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를 함께 추천한다.<br/><br/>두 번째 추천작은 서머싯 몸의 <달과 6펜스>. 폴 고갱의 삶을 모델로 한 주인공 스트릭랜드는 마흔에 집을 떠난다. 버젓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증권 중개인이며 아내와 두 아이까지 거느린 사람이 마흔이 되어 느닷없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몰인정하게 처자식을 내팽개친다. 그리곤 세상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욕해도 본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남들 눈에는 ‘승산 없는 도박처럼 보이는 일’이었겠지만 그 자신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떤 진실한 열정이 이끄는 일이었으니까. 천하의 악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암처럼 자라고 있던 창조 본능’에 따라 화가가 된 남자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중년이라는 나이가 마치 ‘악의 꽃’처럼 매우 유혹적으로 느껴진다. <br/><br/>세 번째는 언젠가 ‘내일이 새로울 수 없으리라는 확실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중년의 가을은 난감하다’고 했던 분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책이다.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 맞다, 얼마 전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주인공 역을 연기했던 동명의 영화 원작 소설. 라틴어 교사로 조용하고 정돈된 삶을 살던 한 남자가 수업을 하다 말고 ‘그냥’ 떠나버리는 이야기. 심지어 그는 가방조차 챙기지 않았다. 가방을 교실 탁자에 그대로 남겨둔 채 남자는 리스본으로 떠나 버린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포르투갈의 한 귀족이 쓴 책에 이끌려 저자가 침묵한 책 속의 비밀들을 파헤쳐 보고자 리스본으로 떠났을 때의 나이가…. 나라는 한 인간을 규정하던 직업, 관계, 도시, 나라 같은 매우 익숙한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에 종종 목이 멘다면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br/><br/>정확히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span class='quot0'>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span>” 그게 바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라고 난 생각한다. 그 나머지 세계, 우리가 그 나이가 되도록 미처 경험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엿보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에 대한 전망을 얻고자 하는 중년의 독서 말이다.<br/><br/>누구보다 중년의 위기와 그 가능성에 주목했던 심리학자 칼 융에 의하면 중년은 새로운 중심이 ‘자기’가 될 절호의 타이밍이며, ‘자기로 살아가는 평화’와 ‘변화를 통한 치유’를 모색할 때다. 무엇보다 중년에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자의든 타의든 경쟁 구도를 떨어져 나가 얼마간 체념한 자의 정신적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경험에 의해 폭넓게 확장된 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나 자신이 품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 말이다. 그러니 즐겁게 골라 보자. 무슨 책을 읽을지…. 자기계발서는 가련한 청년들에게나 던져주고 이제는 시집이나 소설을 읽을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br/><br/><김경 | 칼럼니스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8.txt

제목: 자살자 수 1년 만에 다시 늘어… 하루 평균 40명  
날짜: 2014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4100000101  
본문: 감소세를 보였던 자살자 수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하루 평균 40명에 달했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자살이 큰 폭으로 늘었다.<br/><br/>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4427명으로 전년보다 267명(1.9%) 늘었다. 하루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하는 사람 수인 ‘자살률’은 28.5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늘었다. 자살률은 경제위기 때마다 오르는 경향이 있다.<br/><br/><br/>2003년에는 22.6명이었던 자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1명, 2010년 31.2명, 2012년 31.7명까지 치솟았다. 2012년 28.1명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br/><br/>지난해 자살률이 상승한 것은 30~50대 남성 자살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50대 남성의 자살률은 2012년 53.2명에서 지난해 58.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40대 남성의 자살률은 42.9명에서 47.2명으로, 30대 남성은 34.6명에서 36.4명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과 비슷한 17~20명 수준으로 증감폭은 0.5명 내외였다. 자살은 10~30대 사망원인 1위, 40~50대 사망원인 2위로 꼽혔다.<br/><br/>지난해 사망순위 1위는 암이었다. 30대는 위암,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으로 사망한 비율이 높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39.txt

제목: 군 사법제도개혁, 마지막 기회다  
날짜: 2014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3100000027  
본문: 8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장.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현안보고 자리였다. 첫 질의에 나선 우윤근 위원(새정치연합)이 사진을 들어 보였다. 언론에 유출된 윤 일병의 사체 사진이었다. 상체 전부가 온통 피멍으로 뒤덮여 검붉게 변한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혹했다. 그 상태만 보더라도 가히 그 폭행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필자 역시 군대에 아들을 보내놓은 입장이라 사진만 보고 있어도 명치 끝이 저미듯 쓰라렸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 군의 폭력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은 달랐다.<br/><br/>법사위원 : “<span class='quot0'>4월 7일 목숨을 잃었는데 장관은 (취임하면서) 그간 과정을 보고받으셨습니까?</span>”<br/>국방부 장관 : “보고받은 바가 없고….”<br/>법사위원 : “없어요?”<br/>국방부 장관 : “<span class='quot1'>제가 인지한 것은 7월 31일입니다.</span>”<br/><br/>군인권센터가 제보를 받아 이 사건의 내막을 언론에 폭로한 시점이었다. 국방부는 4월 초 사건 직후 윤 일병이 단순히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 폐쇄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브리핑을 했었다. 윤 일병의 시신상태를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김관진 전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연대장 이하 몇몇 간부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 그때까지 이 사건은 수사부터 기소, 재판까지 28사단 내에서 조용히 ‘처리’될 참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한 많은 군 사건들이 그렇게 처리됐을 것이다.<br/><br/>지휘관이 마음만 먹으면 은폐·조작 가능<br/>지금의 우리나라 군을 보면 50~60년 전의 과거를 보는 듯하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지 60년이 흘렀지만 군은 여전히 우리가 전시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사법제도에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군 기강을 와해한다거나 지휘권을 약화시킨다며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군 사법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군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지휘권이 침해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군 개혁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것이 군내 사건·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그럴 듯한 대책들이 쏟아지지만 군내 폭력범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있는 이유다. 암 수술을 해야 할 환자가 스스로 소독약만 바르고 있으니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군의 그러한 폐쇄주의의 핵심에는 폐쇄적인 군 사법제도가 있다.<br/><br/>현재 군의 법무조직체계를 보면, 예하부대의 경우 그 부대의 지휘관이 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동시에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각 군 본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 국방부의 경우엔 국방부 장관이 그러하다. 게다가 사건을 수사하는 헌병대 역시 동일한 지휘관에게 소속되어 있다. 즉,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모든 처리단계를 장악하고 있는 지휘관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은폐·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br/><br/>실제 재판과정에서 지휘관은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일반장교 중 한 명을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심판관은 재판장의 자격으로 해당 재판을 주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판사에 의해 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관할관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확인감경권) 이 또한 사법과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br/><br/>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헌병대와 군검찰 간의 관계다. 헌병대는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단급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검찰부와는 달리 단위 부대장 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군검찰보다 지휘관의 입김에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쉽다. 게다가 헌병조직이 군검찰조직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군검찰이 헌병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명령이나 지휘를 하기란 어려운 구조다.<br/><br/>근대사법제도의 기본 원칙들마저 무시하고 있는 현행 군 사법제도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br/><br/>군 사법개혁의 두 가지 키워드는 ‘개방’과 ‘균형’이다. 현재의 군 사법제도는 형사사법절차로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자가 얼마 전 군사재판을 일반법원에서 맡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br/><br/>수사부터 재판까지 진실규명에 한계<br/>군사재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장교가 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해야만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할관의 확인감경권 역시 이미 그 명분을 상실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육군 군사법원에서 확인감경권 행사 현황을 보면 25건 중 군형법범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교통범죄이거나 폭력범죄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더 이상 군사재판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군사법원을 사법부 내 특수법원 형태로 편제를 바꾼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br/><br/>해외 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들은 군사법원이 아예 없거나 군사법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지휘관이 군검찰과 군판사를 휘하에 두고 전권을 휘두르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경우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에 관여한 것이 밝혀지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혹자는 군사법원 폐지에 관하여 헌법 개정사항이라고도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했을 뿐 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헌법까지 개정이 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지금의 군사법원을 사법부 내 특수법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br/><br/>또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헌병이 수사에 있어서 군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계급을 중시하는 군의 특성상 군검찰조직과 헌병조직 간의 계급 조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는 군 사법개혁안 중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결합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br/><br/>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군은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가 하면 특별인권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야단법석을 피웠다. 그러나 뒤에서는 군 수뇌부들끼리 모여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감경권 폐지 불가 등을 결의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위한 면죄부 감사를 하는 등 새까만 속내를 들키고 말았다. 2005년 당시 다 만들어놓은 군 사법제도 개편안이 끝끝내 좌절된 이유도 이와 같은 군의 반발 때문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군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사실의 방증인 셈이다. 군 사법개혁을 고민해온 많은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 많은 장병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군의 기강은 억압과 폭력으로 확립되지 않는다. 국가가 나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그 희생을 값지게 여겨줄 때 병사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군의 사기가 되고 기강이 되는 것임을 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br/><br/><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0.txt

제목: 국내외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자궁경부암 조기진단 위한 HPV검사 활성화 방안 모색  
날짜: 2014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210015241736  
본문: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위한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한 여성재단과 한국여성암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위한 HPV 검사의 최신 지견' 심포지엄이 18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개최됐다.<br/>&nbsp;<br/>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궁경부암 진단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국내외 HPV 검사 현황 및 미래에 대해 네덜란드의 병리학자인 Chris Meijer 박사와 고대의대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br/>&nbsp;<br/>이재관 교수는 "자궁경부 세포검사에 기초한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사업은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HPV DNA 검사는 일차선별검사법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br/>&nbsp;<br/>이어 이 교수는 "국내 일차선별검사로서 HPV DNA 검사의 도입에는 HPV 검사 정도 관리 및 의료 수가체계의 왜곡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향후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조기검진 및 HPV 예방접종사업을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nbsp;<br/>연자 발표에 이어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을 위한 HPV 검사요건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해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허수영 교수, 관동의대 병리과 홍성란 교수, 연세의대 병리과 조남훈 교수,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조현찬 교수의 패널토의도 진행됐다.<br/>&nbsp;<br/>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1위인 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만 연 4000명에게 발생하고 하루 평균 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분명한데 99.7%가 HPV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다.<br/>&nbsp;<br/>특히 자궁경부암 발병까지 최대 20년이 걸리고, 암 중에서 유일하게 암 전(前) 단계를 긴 시간 동안 거치기 때문에 HPV 감염 상태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궁경부암은 HPV 검사를 통한 추적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br/>&nbsp;<br/>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씨젠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동 후원했으며, 씨젠은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1.txt

제목: 밀양·청도 주민들 요구는… “초고압 전자파에 생명 위협… 백지화 아니면 지중화하라”  
날짜: 20140920  
기자: 김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0100000067  
본문: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송전탑을 세워 본격적으로 전력 공급을 시작하면 초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생명권을 위협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br/>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움직임이 거센 곳은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경남 밀양시 부북·상동·산외·단장 4개면과 밀양 송전선로에서 분산·연결되는 345㎸ 송전탑이 건설되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송전탑이 건설되면 각각 76만5000V와 34만5000V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게 된다. 주민들은 실제 345㎸ 등 대형 송전탑 25기가 둘러싼 전남 여수시 율촌면 봉두마을 등지를 답사하고 그곳 주민들이 암과 백혈병으로 숨졌거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민들은 봉두마을에서 소나 염소 등 동물의 폐사·사산·기형출산 등도 접했다.<br/>이 때문에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마을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백지화하거나 경과지 변경,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9년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중재로 갈등조정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등 여러 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주민과 한전의 팽팽한 입장 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전은 결국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br/>송전탑 건설이 조만간 준공되지만 주민들은 끝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계획이다. 이남우씨(72·밀양시 부북면)는 “<span class='quot0'>전자레인지 전자파도 해롭다는데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span>”고 말했다. 빈기수씨(50·청도군 각북면)는 “주민들이 대안까지 내놓았는데 정부와 한전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진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br/>시민·사회·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정부와 한전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마치 ‘대정전 사태’ 등이 벌어질 것처럼 불안감만 조성한 채 강행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2.txt

제목: [책과 삶]인종·여성·소수자…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법  
날짜: 2014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20100000022  
본문: ▲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클로드 M 스틸 지음·정여진 옮김 | 바이북스 | 304쪽 |1만8000원<br/>미국 명문대에 다니는 백인 학생 테드 맥두걸이 경험한 사례를 한번 보자.<br/>평범한 학생인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학’이란 강의를 신청했는데 수업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크게 긴장했다. 45명의 학생 중 대부분이 흑인이고 일부는 아시아계였으며 백인이라고는 자신을 포함해 단 2명이었다. 그는 수업 중 토론을 하면서 몸을 사려야 했다. 혹시나 무심코 한 발언으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오해가 두려웠던 그는 평소와 달리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없었다. 당연히 강의가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긴장감 때문에 그는 학습에 크게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br/>테드 맥두걸을 긴장시킨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저자는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고정관념 위협’ 때문이라고 풀이한다.<br/>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은 저자가 1995년 발표한 사회심리학의 한 개념이다. 이는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이나 걱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테드의 경우 많은 흑인들 사이에 있다 보니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고정관념을 확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긴장감을 느꼈다.<br/>고정관념 위협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정체성 비상사태(identity contingency)’란 개념도 알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정체성 비상사태는 이미 주어진 사회적 정체성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말한다. 테드의 경우를 보면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큰 백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 긴장감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테드와 같은 강의실에 있던 흑인 학생들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은 테드가 안은 심리적 압박이나 긴장감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다.<br/>백인 학생 테드 대신에 여성, 흑인, 히스패닉, 노인, 암환자, 동성애자 등을 대입하면 또 다른 여러 부정적 고정관념이 떠오른다. 여성이나 흑인 등은 여러 상황에서 고정관념 위협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은 감당하지 않을 정체성 비상사태를 떠안아야만 한다.<br/><br/>이 책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깊고도 넓게 개개인은 물론 각종 집단, 사회, 나아가 국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며 고정관념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고정관념이 미치는 해악은 이미 많이 알려졌으나 이 책은 그 해악의 실상은 물론 개인이나 집단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br/>저자는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자신이 진행해온 다양한 과학적 실험 결과는 물론 학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풍성하게 담아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도와준다. 다양한 사례, 연구결과들을 보면 고정관념 위협은 특정 개인이나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뒤덮은 먹구름이다. 또 심리나 생각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까지도 지배한다. <br/>저자가 제시하는 고정관념 위협이나 정체성 비상사태의 대표적 극복 방안은 ‘임계 질량 효과’와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이다. 임계 질량은 특정 환경에서 소수자들의 수가 늘어나 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지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 9명의 판사 중 오코너가 유일한 여성일 때 오코너는 판결이든 사소한 행동이든 여성주의 성향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려야 했지만 긴스버그가 들어오자 오코너는 비로소 그 압박감에서 해방됐다. 9명 중 2명이라는 여성의 수가 임계 질량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비 균형, 대학에서의 인종을 고려한 선발 등으로 응용될 수 있다.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은 자신이 유능한 존재이며, 양심적이고 능력이 충분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br/>많은 실험 결과는 양심적이고 능력이 충분하다는 주관적인 느낌 하나만으로도 고정관념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span class='quot0'>정체성 비상사태나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공존하는 시민사회를 이룩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확신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책은 이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3.txt

제목: [김영기의 내 인생의 책](5) 캘리코조 | 존 그리샴  
날짜: 20140919  
기자: 김영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9100000148  
본문: ▲ 캘리코조 | 존 그리샴<br/>농구계에 오래도록 몸담았던 나에게 최근 한동안 농구를 떠나 인생의 여유를 즐기던 시간이 있었다. 존 그리샴의 작품들은 그런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줬다. 이 책은 지난해 읽었다. 내가 접한 그리샴의 소설 20여편 중 스포츠와 관련된 작품은 <블리처스> <플레잉 포 피자>와 이 책 등 3권인데 그중 <캘리코 조>는 여운이 오래도록 남았던 의미 있는 작품이다.<br/>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의 떠오르는 신예 타자 조 캐슬은 승승장구하며 잘나가다가 뉴욕 메츠의 노장 투수 워런 트레이시의 빈볼에 맞아 선수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가 야구장 잔디 깎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서로 원망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의 빈볼 장면을 목격하고 평생 죄의식에 살던 폴이 암으로 시한부 삶을 남겨둔 트레이시를 조 캐슬의 고향 캘리코 콕에 모시고 가 사과하게 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낸다.<br/>농구선수로 오래 시간을 보낸 나 또한 선수 시절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상대 선수로 인해 코뼈와 팔이 부러지기도 했고, 발목이 돌아가기도 했다. 얼굴에 꿰맨 상처만 해도 100바늘은 족히 넘을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나는 ‘캘리코 조’와 같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내가 다친 기억은 생생하지만 내가 상대를 다치게 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br/>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뒤 ‘누군가 나로 인해 지금껏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죄책감이 들었고 무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혹시 나처럼 마음속에 오래도록 청산하지 못한 빚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한번쯤 뒤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4.txt

제목: 밀양·청도 주민들 요구는… “초고압 전자파에 생명 위협, 백지화 아니면 지중화하라”  
날짜: 2014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910015231460  
본문: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송전탑을 세워 본격적으로 전력 공급을 시작하면 초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생명권을 위협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br/><br/>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움직임이 거센 곳은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경남 밀양시 부북·상동·산외·단장 4개면과 밀양 송전선로에서 분산·연결되는 345㎸ 송전탑이 건설되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송전탑이 건설되면 각각 76만5000V와 34만5000V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게 된다. 주민들은 실제 345㎸ 등 대형 송전탑 25기가 둘러싼 전남 여수시 율촌면 봉두마을 등지를 답사하고 그곳 주민들이 암과 백혈병으로 숨졌거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민들은 봉두마을에서 소나 염소 등 동물의 폐사·사산·기형출산 등도 접했다.<br/><br/>이 때문에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마을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백지화하거나 경과지 변경,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9년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중재로 갈등조정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등 여러 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주민과 한전의 팽팽한 입장 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전은 결국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br/><br/>송전탑 건설이 조만간 준공되지만 주민들은 끝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계획이다. 이남우씨(72·밀양시 부북면)는 “<span class='quot0'>전자레인지 전자파도 해롭다는데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span>”고 말했다. 빈기수씨(50·청도군 각북면)는 “주민들이 대안까지 내놓았는데 정부와 한전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진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br/><br/>시민·사회·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정부와 한전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마치 ‘대정전 사태’ 등이 벌어질 것처럼 불안감만 조성한 채 강행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br/><br/><밀양 | 김정훈 기자·청도 | 최슬기 기자 j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5.txt

제목: [책과 삶]인종·여성·소수자…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법  
날짜: 2014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910015231279  
본문: <b>▲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클로드 M 스틸 지음·정여진 옮김 | 바이북스 | 304쪽 |1만8000원</b><br/><br/>미국 명문대에 다니는 백인 학생 테드 맥두걸이 경험한 사례를 한번 보자.<br/><br/>평범한 학생인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학’이란 강의를 신청했는데 수업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크게 긴장했다. 45명의 학생 중 대부분이 흑인이고 일부는 아시아계였으며 백인이라고는 자신을 포함해 단 2명이었다. 그는 수업 중 토론을 하면서 몸을 사려야 했다. 혹시나 무심코 한 발언으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오해가 두려웠던 그는 평소와 달리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없었다. 당연히 강의가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긴장감 때문에 그는 학습에 크게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br/><br/>테드 맥두걸을 긴장시킨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저자는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고정관념 위협’ 때문이라고 풀이한다.<br/><br/>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은 저자가 1995년 발표한 사회심리학의 한 개념이다. 이는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이나 걱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테드의 경우 많은 흑인들 사이에 있다 보니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고정관념을 확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긴장감을 느꼈다.<br/><br/>고정관념 위협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정체성 비상사태(identity contingency)’란 개념도 알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정체성 비상사태는 이미 주어진 사회적 정체성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말한다. 테드의 경우를 보면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큰 백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 긴장감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테드와 같은 강의실에 있던 흑인 학생들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은 테드가 안은 심리적 압박이나 긴장감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다.<br/><br/>백인 학생 테드 대신에 여성, 흑인, 히스패닉, 노인, 암환자, 동성애자 등을 대입하면 또 다른 여러 부정적 고정관념이 떠오른다. 여성이나 흑인 등은 여러 상황에서 고정관념 위협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은 감당하지 않을 정체성 비상사태를 떠안아야만 한다.<br/><br/><br/>이 책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깊고도 넓게 개개인은 물론 각종 집단, 사회, 나아가 국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며 고정관념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고정관념이 미치는 해악은 이미 많이 알려졌으나 이 책은 그 해악의 실상은 물론 개인이나 집단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br/><br/>저자는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자신이 진행해온 다양한 과학적 실험 결과는 물론 학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풍성하게 담아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도와준다. 다양한 사례, 연구결과들을 보면 고정관념 위협은 특정 개인이나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뒤덮은 먹구름이다. 또 심리나 생각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까지도 지배한다. <br/><br/>저자가 제시하는 고정관념 위협이나 정체성 비상사태의 대표적 극복 방안은 ‘임계 질량 효과’와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이다. 임계 질량은 특정 환경에서 소수자들의 수가 늘어나 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지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 9명의 판사 중 오코너가 유일한 여성일 때 오코너는 판결이든 사소한 행동이든 여성주의 성향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려야 했지만 긴스버그가 들어오자 오코너는 비로소 그 압박감에서 해방됐다. 9명 중 2명이라는 여성의 수가 임계 질량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비 균형, 대학에서의 인종을 고려한 선발 등으로 응용될 수 있다.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은 자신이 유능한 존재이며, 양심적이고 능력이 충분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br/><br/>많은 실험 결과는 양심적이고 능력이 충분하다는 주관적인 느낌 하나만으로도 고정관념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span class='quot0'>정체성 비상사태나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공존하는 시민사회를 이룩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확신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책은 이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걸었던 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다</span>”고 밝혔다.<br/><br/><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6.txt

제목: 세계 최초 수정란에 유전자 넣어 ‘형광소’ 생산  
날짜: 20140918  
기자: 이성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8100000095  
본문: 인체에 유용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형질전환 형광소’(사진)를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해냈다. 유전자를 수정란에 직접 넣어 형광소를 생산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br/>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는 17일 “<span class='quot0'>서울대 수의과대학과 공동연구 결과 유전자를 직접 주입해 소의 형질이 변하는지를 형광물질로 확인할 수 있는 ‘형질전환 형광소’를 세계 최초로 생산했다</span>”고 밝혔다. 형질전환은 외부 유전자를 넣었을 때 생명체 형질이 변하는 현상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유전자를 소에 넣어 우유를 통해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으로 얻고자 하는 게 연구 목표다.<br/><br/>이번에 태어난 소는 눈, 코, 혀, 발굽 등이 형광색을 띠고 있지만 재조합 특수물질을 주입하면 적색으로 바뀐다. 이를 응용하면 바이오 신약 원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를 쉽게 삽입할 수 있어, 기존 연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br/>기존에 형광소를 생산할 때 바이러스를 이용해 외부 유전자를 소의 정자, 난자, 수정란 등에 넣었다. 그러나 암 유발 유전자까지 활성화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전체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이동 유전자(transposon)’를 수정란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양측은 이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br/>장건종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1'>이번 형광소 탄생 기술을 기반으로, 이르면 내년쯤 유용 단백질을 분비하는 ‘형질전환 소’도 생산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7.txt

제목: 생방송 중 시한부 삶 고백한 앵커 “삶에 최선 다하는 것이 목표”  
날짜: 201409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410015182480  
본문: 미국 일리노이의 한 지역 TV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던 한 앵커가 자신이 뇌종양 판정을 받아 몇 달 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살아 있는 한 끝까지 뉴스를 전하겠다고 밝혀 시청하던 시청자들을 감동에 젖게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br/><br/>일리노이의 지역 방송(WCIA-TV)에서 9년째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앵커 데이브 벤턴(51)은 생방송 진행 도중 동료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몇 주전 의사로부터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며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 4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br/><br/>데이브는 “<span class='quot0'>며칠을 살더라도 삶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0'>내가 할 수 있는 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겠다</span>”고 말했다. 또 “격려해주는 많은 시청자들의 힘이 나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덧붙였다.<br/><br/>데이브는 이날 방송에서 담담한 어조로 자신은 종양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span class='quot0'>나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나의 삶은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나를 데려갈 것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매우 평안하다</span>”고 마치 뉴스를 진행하듯 말해 시청자들을 감동하게 했다.<br/><br/>이에 동료 여성 앵커는 “<span class='quot1'>당신의 긍정적인 태도는 암을 극복하는 데도 강력한 힘이 될 것</span>”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데이브는 다시 한 번 “<span class='quot0'>뉴스를 진행한 지난 9년 동안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며 어느 날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날이 온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었다</span>”고 말했다.<br/><br/>데이브는 시카고 태생으로 아내와 함께 장성한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브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몇 주 전 자신이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는 했으나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은 이날 처음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 방송을 통해 밝혔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8.txt

제목: 세계 첫 만능줄기세포 수술  
날짜: 20140913  
기자: 윤희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3100000060  
본문: 일본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 연구팀이 12일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이용, 시력을 상실한 환자를 회복시키는 임상연구용 수술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수가 세계 최초로 제작에 성공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만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br/>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가령황반변성(加齡黃斑變性)’이라는 병으로 물체가 뒤틀려 보이거나 시력이 낮아지는 증상을 갖고 있는 일본 효고(兵庫)현의 70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이 수술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가령황반변성 증상이 있는 환자의 세포를 통해 만들어낸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망막색소상피세포로 변화시킨 뒤 이를 얇은 판(시트) 상태로 만들어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br/>연구팀은 “환자의 피부를 채취해 만능줄기세포를 만든 뒤 이를 빛과 색을 느끼는 망막세포로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환자의 눈에 이식해 재생하는 수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br/>이번 임상연구는 만능유도줄기세포의 안전성 확인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이식한 세포가 뿌리를 내리는지, 암으로 변할 위험성은 없는지, 시력회복 효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br/>전문가들은 이번 임상연구 수술의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이 분야의 연구가 큰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월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사용해 진행하는 세계 최초의 임상연구를 승인한 바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49.txt

제목: ‘분쟁 광물, 노동 착취, 환경 오염 싫어요’ 착한 스마트폰  
날짜: 20140913  
기자: 윤승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3100000038  
본문: 지난 9일 애플이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애플 워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스마트폰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다. 사실 스마트폰 부품에 쓰이는 원료는 대부분 아프리카 중부 군사조직의 ‘자금줄’인 ‘분쟁 광물’이다. 또 부품 공장의 노동자들은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일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은 받지 못한다.<br/>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정 무역’ 개념을 스마트폰에 적용한, ‘공정한(fair) 전화(phone)’가 지난해 5월 첫선을 보였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 페어폰은 회사명과 같은 이름의 스마트폰 ‘페어폰’을 지난해 2만5000대 팔았다. 올해도 3만5000대를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br/>페어폰의 창업자 바스 판 아벨은 파이낸셜타임스에 “<span class='quot0'>우리는 스마트폰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span>”고 회사 설립 취지를 밝혔다. ‘착한 스마트폰’인 페어폰은 제품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br/><br/>■ 내전 지역 피묻은 ‘분쟁 광물’은 이제 그만<br/>구리, 철, 알루미늄, 니켈, 텅스텐, 탄탈룸…. 스마트폰의 회로와 부품에 쓰이는 광물은 40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부품 경량화에 쓰이는 탄탈룸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텅스텐과 탄탈룸은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기도 하다.텅스텐과 탄탈룸, 주석(Tin)과 금(Gold)은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다. 이른바 ‘3TG’로 불린다. 이 광물들은 주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채굴·생산된다. 문제는 민주콩고의 정부군과 반군·무장세력이 광산업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분쟁 광물을 팔아 그 수익으로 무기를 사들였다. 군사조직들은 이를 기반으로 1998년부터 내전을 벌였다. 내전은 지난해 11월 일단락됐지만 그동안 약 540만명이 숨지고 수많은 여성들은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 때문에 민주콩고의 내전은 풍부한 광물 때문에 벌어진 ‘역설적 비극’으로 평가받고 있다.<br/>분쟁 광물 사용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2010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흔히 금융개혁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안에는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분쟁 광물 사용 규제안도 포함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글로벌 브랜드와 제조·하청업체들은 SEC에 분쟁 광물 사용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또, SEC가 규정한 분쟁 광물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분쟁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큰 탓에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환경 컨설팅업체 클레이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광물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SEC에 밝힌 업체는 대상 업체의 6%에 불과했다.<br/>그러나 페어폰은 분쟁과 무관한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콩고 현지를 직접 방문해 군 조직과 무관한 주석·탄탈룸 공급처를 개척했다. 페어폰은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광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권리 신장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br/>■ 노동 환경을 위해 생산업체와의 관계 개선<br/>백혈병에 걸려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의 사례는 첨단기기 부품 생산에 얼마나 많은 독성물질이 쓰이는지를 일깨워줬다. 스마트폰 부품 생산 과정에도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쓰인다. 미국 환경·소비자단체인 그린아메리카는 중국 내 애플 납품업체 노동자 150만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암, 백혈병, 간·신장 질환 및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미 환경청(EPA)이 분류한 물질들이다. 그린아메리카는 노동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막는 데 생산업체가 들이는 비용은 기기 한 대당 불과 1달러라고 지적했다.<br/>글로벌 브랜드-생산업체 간의 수직적인 관계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방해한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생산업체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어난다. 생산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생산업체들에 노동 인권은 뒷전이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저임금·과노동’을 방조하면서, 노동 인권 보장과 적정 임금 지급은 생산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긴다. 미국 인권단체 낫포세일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인 전자제품 글로벌 브랜드 39곳 중 노키아만이 생산업체 공장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아이폰을 생산하던 대만 업체 팍스콘의 중국 공장에서는 저임금과 취약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2009년부터 연쇄 자살을 하기도 했다. 페어폰은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혔다.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생산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업체를 선정할 때는 기술 수준뿐 아니라 사회·환경 공헌도를 살피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복지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리고 활동 내역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선정 기준이다.<br/>전체 산업 구조가 단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한단계씩 기업간 관계를 바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페어폰의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페어폰은 ‘노동자 복지 기금’을 조성했다. 페어폰 한 대당 5달러인 기금은 페어폰과 중국 생산업체가 2.5달러씩 지불해 조성했다. 지난해 생산한 페어폰 2만5000대가 모두 팔려 12만5000달러가 기금으로 모였다. <br/>페어폰은 지난 6월 기금 사용 방안을 논의할 ‘노동자 대표부’를 중국 공장 노동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br/><br/>■ 부품 교체해 오래 쓰고 폐기물은 재활용<br/>전자제품에는 금속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될 경우 필연적으로 중금속 쓰레기가 생긴다. 미국에서 매립되는 유해 중금속 폐기물 중 70%가 전자제품 폐기물, 이른바 ‘e쓰레기’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신기술을 탑재한 전자제품이 나타나면, 앞서 생산된 제품은 곧바로 폐기물이 됐다. 신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폰은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르다. 그만큼 매년 버려지는 스마트폰 양도 적지 않다. 미 환경청은 2009년 미국에서 수명이 다한 휴대 전자기기(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 등)가 총 1억4100만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기기는 1170만대로, 8%에 불과했다.<br/>e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휴대폰 재활용이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 환경청이 나서 버려질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br/>미국에서는 낡은 폐휴대폰 구매업체가 2010년 처음 등장한 이래 2014년 현재 100여곳까지 늘었다. 문제는 아직 개도국에선 스마트폰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br/>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국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폐기물이 화물선을 통해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 가나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폰에 쓰이는 프탈레이트 등 독성 화학물질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 환경청은 휴대폰 100만대를 재활용하면 구리 1만6000㎏, 은 350㎏, 금 34㎏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br/>스마트폰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은 페어폰의 설립 목적 중 하나다. 이 때문에 페어폰 측은 “쓰고 있는 휴대폰이 있다면 (굳이 페어폰을 사지 말고) 그냥 쓰라”고 권한다. 페어폰의 경우,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고객이 직접 설명서에 따라 교체·정비하도록 한다. 부품 하나가 고장 나서 휴대폰 전체를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br/>페어폰은 e쓰레기 근절을 위한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네덜란드 환경단체 ‘클로징 더 루프’와 손을 잡고 가나에서 버려진 휴대폰 7만5000대를 수거해 벨기에 재활용업체에 보냈다. 페어폰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지난 2월 가나 현지를 직접 방문해, 현지 주민들이 버린 휴대폰을 수리해주기도 했다. <br/><br/>▲ 연간 생산량 3만5000대로 제한… OS도 사회적 기업이 개발…<br/>한국에선 직접 구입 못해<br/><br/>페어폰은 아직 한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는 없다. ‘저임금·과노동’에서 비롯되는 기존 글로벌 브랜드 생산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소량 생산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페어폰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대로 제품을 생산한다. 연간 생산량도 3만5000대로 못박았다.<br/>이 때문에 페어폰을 주문한 뒤 제품을 받아보는 데 최장 6주가 걸린다. 직접 배송이 가능한 지역도 유럽으로 제한돼 있다. 페어폰 수천대가 중국 충칭(重慶)에 있는 공장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본사로 운송되면, 본사 직원 30명이 유럽 각국으로 보낼 제품들을 분류한다. 대신 페어폰은 웹사이트를 통해 생산 소식과 배송 과정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페어폰 2만640대가 팔렸다. 지난해 판매량의 80%가 넘는 수치다.<br/>페어폰의 사양은 애플, 삼성 등 글로벌 브랜드의 최신 스마트폰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음에도 가격이 310유로(약 42만원)에 불과하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운영체제(OS)로는 페어폰 전용 안드로이드 체제가 쓰이는데, 이를 개발한 기업 역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인 콰미코프다.<br/>공정한 스마트폰을 꿈꾸지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바스 판 아벨은 “<span class='quot0'>아직 100% 공정한 스마트폰은 아니다</span>”라며 아쉬워한다. <br/>판 아벨은 지난달 온라인매체 그린비즈닷컴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분쟁과 무관한 광물을 공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아동 노동문제까지는 당장 해결할 수 없었다</span>”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0.txt

제목: 세계 첫 만능줄기세포 수술  
날짜: 2014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210015179192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일 연구팀, 70대 환자에 이식… 망막 재생 여부 4년간 관찰</strong><!-- SUB\_TITLE\_END--><br/><br/>일본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 연구팀이 12일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이용, 시력을 상실한 환자를 회복시키는 임상연구용 수술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수가 세계 최초로 제작에 성공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만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가령황반변성(加齡黃斑變性)’이라는 병으로 물체가 뒤틀려 보이거나 시력이 낮아지는 증상을 갖고 있는 일본 효고(兵庫)현의 70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이 수술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가령황반변성 증상이 있는 환자의 세포를 통해 만들어낸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망막색소상피세포로 변화시킨 뒤 이를 얇은 판(시트) 상태로 만들어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br/><br/>연구팀은 “환자의 피부를 채취해 만능줄기세포를 만든 뒤 이를 빛과 색을 느끼는 망막세포로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환자의 눈에 이식해 재생하는 수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번 임상연구는 만능유도줄기세포의 안전성 확인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이식한 세포가 뿌리를 내리는지, 암으로 변할 위험성은 없는지, 시력회복 효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br/><br/>전문가들은 이번 임상연구 수술의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이 분야의 연구가 큰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월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사용해 진행하는 세계 최초의 임상연구를 승인한 바 있다.<br/><br/><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1.txt

제목: ‘분쟁 광물, 노동 착취, 환경 오염 싫어요’ 착한 스마트폰  
날짜: 2014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21001517895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공정무역 개념을 적용해 지난해 첫선을 보인 ‘페어폰’… 원료 규제·투명한 공정·e쓰레기 줄이기로 ‘스마트폰의 그림자’를 넘으려는 실험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strong><!-- SUB\_TITLE\_END--><br/><br/>지난 9일 애플이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애플 워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스마트폰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다. 사실 스마트폰 부품에 쓰이는 원료는 대부분 아프리카 중부 군사조직의 ‘자금줄’인 ‘분쟁 광물’이다. 또 부품 공장의 노동자들은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일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은 받지 못한다.<br/><br/>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정 무역’ 개념을 스마트폰에 적용한, ‘공정한(fair) 전화(phone)’가 지난해 5월 첫선을 보였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 페어폰은 회사명과 같은 이름의 스마트폰 ‘페어폰’을 지난해 2만5000대 팔았다. 올해도 3만5000대를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br/><br/>페어폰의 창업자 바스 판 아벨은 파이낸셜타임스에 “<span class='quot0'>우리는 스마트폰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span>”고 회사 설립 취지를 밝혔다. ‘착한 스마트폰’인 페어폰은 제품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br/><br/><br/><br/><b>■ 내전 지역 피묻은 ‘분쟁 광물’은 이제 그만</b><br/><br/>구리, 철, 알루미늄, 니켈, 텅스텐, 탄탈룸…. 스마트폰의 회로와 부품에 쓰이는 광물은 40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부품 경량화에 쓰이는 탄탈룸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텅스텐과 탄탈룸은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기도 하다.텅스텐과 탄탈룸, 주석(Tin)과 금(Gold)은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다. 이른바 ‘3TG’로 불린다. 이 광물들은 주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채굴·생산된다. 문제는 민주콩고의 정부군과 반군·무장세력이 광산업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분쟁 광물을 팔아 그 수익으로 무기를 사들였다. 군사조직들은 이를 기반으로 1998년부터 내전을 벌였다. 내전은 지난해 11월 일단락됐지만 그동안 약 540만명이 숨지고 수많은 여성들은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 때문에 민주콩고의 내전은 풍부한 광물 때문에 벌어진 ‘역설적 비극’으로 평가받고 있다.<br/><br/>분쟁 광물 사용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2010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흔히 금융개혁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안에는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분쟁 광물 사용 규제안도 포함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글로벌 브랜드와 제조·하청업체들은 SEC에 분쟁 광물 사용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또, SEC가 규정한 분쟁 광물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분쟁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큰 탓에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환경 컨설팅업체 클레이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광물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SEC에 밝힌 업체는 대상 업체의 6%에 불과했다.<br/><br/>그러나 페어폰은 분쟁과 무관한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콩고 현지를 직접 방문해 군 조직과 무관한 주석·탄탈룸 공급처를 개척했다. 페어폰은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광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권리 신장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br/><br/><b>■ 노동 환경을 위해 생산업체와의 관계 개선</b><br/><br/>백혈병에 걸려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의 사례는 첨단기기 부품 생산에 얼마나 많은 독성물질이 쓰이는지를 일깨워줬다. 스마트폰 부품 생산 과정에도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쓰인다. 미국 환경·소비자단체인 그린아메리카는 중국 내 애플 납품업체 노동자 150만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암, 백혈병, 간·신장 질환 및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미 환경청(EPA)이 분류한 물질들이다. 그린아메리카는 노동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막는 데 생산업체가 들이는 비용은 기기 한 대당 불과 1달러라고 지적했다.<br/><br/>글로벌 브랜드-생산업체 간의 수직적인 관계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방해한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생산업체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어난다. 생산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생산업체들에 노동 인권은 뒷전이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저임금·과노동’을 방조하면서, 노동 인권 보장과 적정 임금 지급은 생산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긴다. 미국 인권단체 낫포세일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인 전자제품 글로벌 브랜드 39곳 중 노키아만이 생산업체 공장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아이폰을 생산하던 대만 업체 팍스콘의 중국 공장에서는 저임금과 취약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2009년부터 연쇄 자살을 하기도 했다. 페어폰은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혔다.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생산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업체를 선정할 때는 기술 수준뿐 아니라 사회·환경 공헌도를 살피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복지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리고 활동 내역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선정 기준이다.<br/><br/>전체 산업 구조가 단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한단계씩 기업간 관계를 바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페어폰의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페어폰은 ‘노동자 복지 기금’을 조성했다. 페어폰 한 대당 5달러인 기금은 페어폰과 중국 생산업체가 2.5달러씩 지불해 조성했다. 지난해 생산한 페어폰 2만5000대가 모두 팔려 12만5000달러가 기금으로 모였다. <br/><br/>페어폰은 지난 6월 기금 사용 방안을 논의할 ‘노동자 대표부’를 중국 공장 노동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br/><br/><br/><b>■ 부품 교체해 오래 쓰고 폐기물은 재활용</b><br/><br/>전자제품에는 금속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될 경우 필연적으로 중금속 쓰레기가 생긴다. 미국에서 매립되는 유해 중금속 폐기물 중 70%가 전자제품 폐기물, 이른바 ‘e쓰레기’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신기술을 탑재한 전자제품이 나타나면, 앞서 생산된 제품은 곧바로 폐기물이 됐다. 신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폰은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르다. 그만큼 매년 버려지는 스마트폰 양도 적지 않다. 미 환경청은 2009년 미국에서 수명이 다한 휴대 전자기기(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 등)가 총 1억4100만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기기는 1170만대로, 8%에 불과했다.<br/><br/>e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휴대폰 재활용이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 환경청이 나서 버려질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br/><br/>미국에서는 낡은 폐휴대폰 구매업체가 2010년 처음 등장한 이래 2014년 현재 100여곳까지 늘었다. 문제는 아직 개도국에선 스마트폰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br/><br/>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국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폐기물이 화물선을 통해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 가나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폰에 쓰이는 프탈레이트 등 독성 화학물질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 환경청은 휴대폰 100만대를 재활용하면 구리 1만6000㎏, 은 350㎏, 금 34㎏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br/><br/>스마트폰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은 페어폰의 설립 목적 중 하나다. 이 때문에 페어폰 측은 “쓰고 있는 휴대폰이 있다면 (굳이 페어폰을 사지 말고) 그냥 쓰라”고 권한다. 페어폰의 경우,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고객이 직접 설명서에 따라 교체·정비하도록 한다. 부품 하나가 고장 나서 휴대폰 전체를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br/><br/>페어폰은 e쓰레기 근절을 위한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네덜란드 환경단체 ‘클로징 더 루프’와 손을 잡고 가나에서 버려진 휴대폰 7만5000대를 수거해 벨기에 재활용업체에 보냈다. 페어폰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지난 2월 가나 현지를 직접 방문해, 현지 주민들이 버린 휴대폰을 수리해주기도 했다. <br/><br/><br/><br/><div style="border: solid 1px #DDD;background-color: #F5F5F5;padding: 10px 15px 15px 15px;font-size: 13px;line-height: 22px;\_height: 1%;margin-bottom: 20px;"><b>▲ 연간 생산량 3만5000대로 제한… OS도 사회적 기업이 개발…<br/>한국에선 직접 구입 못해</b><br/><br/><br/>페어폰은 아직 한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는 없다. ‘저임금·과노동’에서 비롯되는 기존 글로벌 브랜드 생산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소량 생산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페어폰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대로 제품을 생산한다. 연간 생산량도 3만5000대로 못박았다.<br/><br/>이 때문에 페어폰을 주문한 뒤 제품을 받아보는 데 최장 6주가 걸린다. 직접 배송이 가능한 지역도 유럽으로 제한돼 있다. 페어폰 수천대가 중국 충칭(重慶)에 있는 공장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본사로 운송되면, 본사 직원 30명이 유럽 각국으로 보낼 제품들을 분류한다. 대신 페어폰은 웹사이트를 통해 생산 소식과 배송 과정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페어폰 2만640대가 팔렸다. 지난해 판매량의 80%가 넘는 수치다.<br/><br/>페어폰의 사양은 애플, 삼성 등 글로벌 브랜드의 최신 스마트폰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음에도 가격이 310유로(약 42만원)에 불과하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운영체제(OS)로는 페어폰 전용 안드로이드 체제가 쓰이는데, 이를 개발한 기업 역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인 콰미코프다.<br/><br/>공정한 스마트폰을 꿈꾸지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바스 판 아벨은 “<span class='quot0'>아직 100% 공정한 스마트폰은 아니다</span>”라며 아쉬워한다. <br/><br/>판 아벨은 지난달 온라인매체 그린비즈닷컴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분쟁과 무관한 광물을 공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아동 노동문제까지는 당장 해결할 수 없었다</span>”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br/><br/><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2.txt

제목: ‘담뱃값 인상’ 시민 반응 “건강 아닌 세수 확보 위한 것” 흡연자들 정부 비판 목소리  
날짜: 2014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111001517111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생활비 걱정… 벌써 사재기도</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비흡연자 “금연 효과” 환영</strong><!-- SUB\_TITLE\_END--><br/><br/>정부가 현재 2500원 안팎의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2000원가량 올리겠다는 입장을 11일 공식 발표하자 흡연자 중심으로 세수 확보 목적의 조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환영했다. <br/><br/>흡연자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세수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반발했다. 회사원 김모씨(34)는 “<span class='quot0'>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말이 기만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다 다른 부가가치세에도 손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 회사원 민모씨(27)는 “<span class='quot1'>정부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담뱃값에 붙는 세금이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법인세는 왜 OECD 기준에 맞추지 않는지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 인터넷 관련 기사에는 “담뱃값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선진국 수준에 맞추라”는 댓글도 이어졌다. <br/><br/>회사원 김모씨(43)는 생활비를 걱정했다. 그는 “담배라는 게 한번에 끊기 힘든데, 생활비를 어떻게 절약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배모씨(56)도 “연초 인상으로 다른 물가도 인상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나같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피해볼까 걱정”이라고 했다. <br/><br/>담배 사재기는 벌써 시작됐다. 1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10일 하루 담배 판매량이 전주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미술작가 이모씨(33)도 “<span class='quot2'>동료 중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담배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아 담뱃값이 오르면 다른 생활비를 줄이는 이들이 많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반면 담뱃값 인상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br/><br/>회사원 이모씨(31)는 “<span class='quot1'>암 걸려서 치료받는 것이 결국에는 가계에 더 부담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담배는 생필품도 아니고 기호품이니 두 갑 피울 걸 하나로 줄이기라도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주부 이모씨(34)는 “담배가격이 싸서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건 문제”라며 “가격이 오르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3.txt

제목: “세 살 딸이 스무 살 될 때까지 곁에 있고 싶어요” 폐암 말기 미혼모 박소연씨의 소망  
날짜: 2014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4100000103  
본문: 2013년 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립암센터. 폐암 말기 환자 박소연씨(당시 28세)는 의사의 말에 눈물을 왈칵 쏟았다. 의사는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이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미 6번 이상 약을 바꾸며 항암치료를 받았다. 유통 항암제 대부분을 사용했다. 8년을 치료해준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br/><br/>하지만 박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폐암 말기를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br/><br/>박씨는 폐암 환자들에겐 ‘꿈’ 같은 사람이다. 2005년 8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대학교 2학년 때다. 어학연수 갈 돈을 벌려고 취직한 의류판매회사 신체검사에서 병이 드러났다. 의사는 “7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폐암과 싸워 이겨냈다. <br/><br/><br/>그 과정에서 여러 번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 병원 간판색인 초록색만 봐도 구토를 할 정도로 항암치료는 힘들었다. 치료 때는 일주일간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토하기만 했다.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일부러 약을 먹지 않기도 했다. 치료를 독촉하던 홀어머니 김득순씨(51)와도 많이 싸웠다. <br/><br/>삶의 의지를 북돋운 건 딸 민하(3)가 생기면서다. 투병 중이던 2011년 3월 민하를 출산했다. 항암치료 중에는 생리가 없어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이었다. 박씨와 교제하던 민하 아빠는 예상치 못한 아기와 암 투병 중인 박씨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다. 미혼모가 된 박씨와 어머니 김씨는 민하를 포기하려고 했다. 입양기관들은 폐암 환자인 박씨에게서 태어난 민하를 받아주지 않았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갈 수 있는 곳은 보육원뿐이었다. 정을 붙이지 않으려고 1주일 넘도록 민하 얼굴을 외면했던 박씨는 민하의 웃는 낯을 한번 본 뒤로 포기할 수 없었다. 직접 키우기 시작했다. 민하를 위해 다시 살고 싶어졌다.<br/><br/>국립암센터를 나선 지난해 2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던 박씨는 서울대병원에서 희망을 찾았다. 의사는 박씨에게 “<span class='quot0'>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암제 ‘잴코리’ 처방을 받아보겠느냐</span>”고 제안했다. 1알에 16만7500원, 하루 2알을 먹어야 했다.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이 넘었다. 약은 박씨에게 잘 맞았다. 복용한 지 2주일 뒤 암 세포가 많이 줄었다.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br/><br/>그러나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박씨는 미혼모단체의 후원과 성금,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아 약값을 냈다. 이제 더 이상 도움받을 곳이 없다.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자택에서 만난 박씨가 말했다. <br/><br/>“약을 먹은 뒤 아이와 놀아줄 수 있게 됐어요. 밖에 나가 팔짝팔짝 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해요. 보험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건강보험공단, 제약사,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이와 놀이공원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외롭지 않게 자라도록 20살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4.txt

제목: 막걸리에서 항암·항종양물질 첫 확인  
날짜: 2014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4100000048  
본문: 막걸리에서 암의 발생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항종양물질인 스콸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br/><br/>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 하재호 박사 연구팀은 3일 “최근 연구에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막걸리에 스콸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면서 “함량도 맥주와 포도주보다 50~200배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막걸리를 조금씩 마시면 암을 예방하고 노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박사 연구팀은 스콸렌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효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 박사 연구팀은 2011년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졸 성분을 세계 최초로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br/><br/>하 박사는 “<span class='quot0'>막걸리가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술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막걸리의 가라앉은 부분에 스콸렌과 파네졸이 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잘 흔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br/>스콸렌과 파네졸 분석기술에 관한 연구결과는 지난 2월 국내 분석전문 학술지인 한국분석과학회지와 세계적인 식품 관련 전문학술지에 각각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한 스콸렌과 파네졸 간편 분석기술도 국제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5.txt

제목: 충북 제천 금수산…빼어난 비경에 홀리고 폭포수 장관에 넋놓고  
날짜: 2014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4100000009  
본문: 바람 끝이 가볍다. 맑고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든다. 추석이 코앞이니 가을의 문턱이다. 땡볕에 미룬 등반, 산꾼들은 신난다. 충북 제천과 단양에 몸을 나눈 금수산에 오른다. 해발 고도는 1016m. 워밍업 수준의 적당한 높이다. 산정은 조망이 빼어나고 암봉 또한 장관이라 찾는 이들이 제법 많다. 산사면 거대한 바위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폭포수와 3단 선녀탕은 가히 대한민국 최고다.<br/><br/>금수산(錦繡山). 산세가 얼마나 고우면 ‘비단에 수를 놓은 것 같다’고 했을까. 멀리서 보면 산릉이 미녀가 누워 있는 모습을 닮아 ‘미녀봉’이라고도 부른다. 한데 이 산의 본래 이름은 백암산(白巖山)이다. 새하얀 구름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산이란 뜻이다. 조선 중기 단양군수로 있던 퇴계 이황은 생각이 달랐다.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금수산으로 개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명산은 대개 불리는 이름이 여럿이다. 금수산도 예외는 아니다. 예부터 상악산(上岳山) 금수산(金水山, 錦秀山), 적성산(赤城山), 무암산(茂巖山, 霧巖山)으로 불렸다.<br/><br/><br/>암봉을 머리에 얹은 금수산은 월악산 국립공원 최북단에 솟아 있다. 한국 100대 명산에 이름을 올렸고, 단양에서는 제2의 단양팔경에 꼽힌다. 산행은 금수산으로 바로 오르지 않고 서쪽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 망덕봉(해발 926m)에 올라 능선을 타고 금수산 정상을 찍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무난하다. 8㎞ 거리에 6시간 정도 걸린다. <br/><br/>수산면 상천마을을 들머리로 삼아 산자락에 다가선다. 금수산과 가은산에 둘러싸여 아늑한 마을은 낮은 돌담을 두른 풍광이 전형적인 산촌이다. 산수유가 유명하지만 제천시에서 숯가마를 테마로 삼아 민속마을로 새롭게 조성했다. 산행 후 피곤한 심신을 숯가마 찜질로 다스려 볼 만하다.<br/><br/><br/>월악산 국립공원 백운동 공원지킴터 앞 운하교를 건너 마을로 들어선다. 마을회관 좌측, 제멋대로 구부러진 10여 그루의 소나무가 군락을 이뤄 운치를 더해준다. 마을 끄트머리에는 산신각이 유독 도드라진 보문정사가 터를 잡고 있다.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 과수원을 지나면 길은 두 갈래. 우측은 금수산 정상(3.5㎞)으로 향하고, 좌측은 용담폭포를 지나 망덕봉(2.2㎞)에 이른다. 용담폭포로 가는 길은 제천 자드락길 4코스 녹색마을길의 종착점이다. <br/><br/>아침 안개가 산바람에 흩어진 울창한 숲으로 파고든다. 금수산 백운동 계곡을 훑고 내려오는 계류에 탁족을 즐기는 산꾼들이 시끌벅적하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막걸리 한잔 들이켜고 가라”고 청하는데 마음이 급하다. 어둑한 숲, 청각에 의지해 물소리를 쫓아간다. 200여m 계곡을 타고 오르자 거대한 암반을 훑고 쏟아지는 폭포수가 장쾌하다. 노송과 동백나무숲에 둘러싸인 폭포는 5m 깊이의 소(沼)에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승천하는 용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용담폭포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선시대 이름은 용추다.<br/><br/><br/>1661년 청풍부사 이단상은 ‘청풍 금수산 기우문’을 남겨 청풍관아 주도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후 1689년 청풍부사 오도일은 기문에 “<span class='quot0'>옛날 백운암의 노승이 주문을 외워 용을 시켜 바위를 뚫어 못을 만든 연유로 홍수나 가뭄에 기도하는 것으로 삼았다</span>”고 기록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수산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30m 높이의 폭포수를 맞으면 신경통과 통증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봄부터 가을까지 탐방객이 이어진다.<br/><br/>용담폭포의 백미는 선녀탕. 폭포 상단에 자리한 3개의 소(상·중·하탕)는 그 옛날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전설과 함께 금수산을 수호하던 신룡이 승천하면서 남긴 3개의 발자국이라고 전해진다. 용담폭포와 선녀탕에는 주나라 황제의 전설이 서려 있다. 황제가 세수를 하다 대야 속에 아름다운 폭포 모습이 보여 신하에게 동녘으로 가서 대야에 비친 폭포를 찾아보라 했는데, 그 폭포가 바로 용담폭포다.<br/><br/><br/>시원한 폭포수에 세상 시름 쓸려보내고 자그마한 나무 다리를 건너 망덕봉으로 향한다. 정상까지는 2.3㎞. 우거진 숲길을 따라 오르자 철계단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산자락에 코를 박고 오를 만큼 가파르다. 철계단 끄트머리 용담폭포 전망대에 이르자 시야가 터진다. 늘씬한 자태를 뽐내는 용담폭포는 선녀탕에서 잠시 숨을 고른 폭포수가 거대한 암반을 타고 내려오는 풍광이 절경이다.<br/><br/>깎아지른 거대한 절벽을 둘로 가르는 폭포는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듯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다. 짙푸른 소나무에 살짝 가린 3개의 소는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간다는 전설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멀리 고개를 들자 월악산 영봉이 날카롭게 치솟고, 짙푸른 초록 연봉이 사방에 일렁인다. 산밑에 나지막이 엎드린 상천마을은 소인국처럼 보이고, 멀리 청풍호는 옹달샘 같다. <br/><br/><br/>망덕봉 8부 능선 아래, 거대한 바위가 눈길을 끈다. 금수산 명물 족두리바위와 독수리바위다. 곳곳에 기암을 얹은 망덕봉에서 금수산 정상까지는 능선을 타고 간다. 거리는 2㎞ 남짓. 숲을 뚫고 들어오는 산바람이 신선하다. 뚝 떨어진 숲길은 이내 장딴지가 뻐근해지는 오르막으로 이어진다. 마침내 산정에 이르자 망덕봉과는 또 다른 풍광이다. 멀리 신선봉, 국망봉, 비로봉을 연결하는 소백산 능선이 이어지고, 서쪽으로 망덕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남쪽으로 짙푸른 청풍호가 아련하고 소백산 연화봉 천문대, 월악산, 대미산, 황장산도 눈안에 든다. 발 아래 유람선이 떠 다니는 충주호(청풍호)는 그림 같다. 기암 전시장인 산정에는 왕바위가 우뚝하다. 삼라만상을 펼쳐놓은 풍광에 잠시 넋을 잃는다. <br/><br/>금수산 동쪽 기슭에선 금수암(錦繡巖)을 만난다. 3m 높이의 백암이다. 붉은 빛의 바위에는 산·물·구름 모양이 그려져 있어 일명 ‘화암(畵巖)’이라 불린다. 7부 능선 능강계곡에는 얼음골이 숨어 있다. 돌밭의 돌무더기를 들추면 자그마한 얼음 덩어리가 쏟아진다. 4월 초에서 8월 초까지 얼음을 볼 수 있고, 처서가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 <br/><br/>금수산자락 신선봉 아래에 터를 잡은 정방사도 풍광이 압권이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집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 제비집처럼 매달려 있다. 법당 마당에 오르면 날아갈 듯한 비봉산과 월악산 백두대간 능선이 청풍호와 어우러져 그림처럼 다가온다. 기암절벽에 기대어 청풍호를 굽어보고 있는 자그마한 절집은 해거름에 펼쳐지는 일몰 또한 눈물 나게 아름답다. <br/><br/>◆귀띔<br/> <br/>의림지·박달재·배론성지 주변 볼거리 즐비…자드락길 7코스 골라가는 재미<br/><br/>■찾아가는 길:서울→중앙고속도로 남제천 나들목→82번 지방도→금성면 소재지→청풍대교 삼거리→왼쪽 20번 지방도로→금수산 입구 삼거리→좌측 도로→상천리 금수산 주차장<br/><br/>■주변 볼거리:월악산, 의림지, 박달재, 배론성지, 청풍문화재단지, 자양영당, 탁사정, 점말동굴, 덕동계곡, 옥순봉, 한방명의촌, 산야초마을, 용하구곡, 신륵사 등<br/><br/>■맛집:산행 들머리에 자리한 산골주막(043-651-5884)은 손두부전골과 토종닭백숙, 더덕무침구이 등의 음식과 옥수수오목주와 옥수수황기주 등을 맛볼 수 있다. 이외 교리가든(민물매운탕, 043-648-0077), 산마루식당(곤드레밥, 043-645-9119), 산야초마을(향토음식, 043-651-3336), 대보명가(약초밥상, 043-643-3050) 등 <br/><br/>■자드락길:(1코스)청풍 만남의 광장-능강교, 19.7㎞. (2코스)능강교-정방사, 1.6㎞. (3코스)능강교-얼음골, 5.4㎞. (4코스)능강교-상천민속마을, 7.3㎞. (5코스)상천민속마을-옥순대교, 5.2㎞. (6코스)옥순대교-지곡리, 9.9㎞. (7코스)지곡리-말목장, 8.9㎞<br/><br/>■숙박:리솜포레스트(02-5989-114), E.S리조트(043-648-0480), 마린힐펜션&카페(010-8845-1355), 레이크&힐호텔(043-640-7000), 제천관광호텔(043-643-411), 월악산유스호스텔(043-651-7001) 등<br/><br/>■문의:제천시청 문화관광과 (043)641-5140~7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6.txt

제목: 암세포 전이 촉진하는 효소 발견  
날짜: 20140903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3100000052  
본문: 암세포가 인체 내 타 기관으로 전이되도록 촉진하는 효소가 발견됐다. 이 효소를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암 전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돼 암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br/>한국원자력의학원 엄홍덕 박사 연구팀은 2일 “콤플렉스1(complex1)이라는 효소가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지난달 6일 암 전이 분야 전문 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과 지난달 20일 유럽분자생물학회지(EMBO)에 두 편의 논문으로 게재됐다.<br/>전이암은 ‘두번째 암’으로도 불리는데,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 치료 효과가 낮고 암 전이가 일어나는 원리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 암환자 생존율이 66.3%이나, 전이암 환자 생존율은 18.7%에 불과하다. <br/>연구팀은 폐암에 걸린 세포와 쥐를 이용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콤플렉스1’ 효소가 암 전이를 촉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콤플렉스1 효소는 그 양이 과할 경우 인체에 해를 입히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암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전이 과정에서는 쓸모없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백스(Bax)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br/>엄홍덕 박사는 “<span class='quot0'>암 전이 경로 규명을 통해 암 전이를 억제하는 물질이나 기술을 개발하면 암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7.txt

제목: “세 살 딸이 스무 살 될 때까지 곁에 있고 싶어요” 폐암 말기 미혼모 박소연씨의 소망  
날짜: 2014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31001513010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일곱달도 못 산다고 했지만 9년을 기적처럼 버텨내</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병원도 포기한 지금, 남은 건 비급여 항암제 복용뿐</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한달 약값 1000만원… 건보적용 호소에 ‘기다리라’만</strong><!-- SUB\_TITLE\_END--><br/><br/>2013년 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립암센터. 폐암 말기 환자 박소연씨(당시 28세)는 의사의 말에 눈물을 왈칵 쏟았다. 의사는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이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미 6번 이상 약을 바꾸며 항암치료를 받았다. 유통 항암제 대부분을 사용했다. 8년을 치료해준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br/><br/>하지만 박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폐암 말기를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br/><br/>박씨는 폐암 환자들에겐 ‘꿈’ 같은 사람이다. 2005년 8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대학교 2학년 때다. 어학연수 갈 돈을 벌려고 취직한 의류판매회사 신체검사에서 병이 드러났다. 의사는 “7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폐암과 싸워 이겨냈다. <br/><br/><br/>그 과정에서 여러 번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 병원 간판색인 초록색만 봐도 구토를 할 정도로 항암치료는 힘들었다. 치료 때는 일주일간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토하기만 했다.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일부러 약을 먹지 않기도 했다. 치료를 독촉하던 홀어머니 김득순씨(51)와도 많이 싸웠다. <br/><br/>삶의 의지를 북돋운 건 딸 민하(3)가 생기면서다. 투병 중이던 2011년 3월 민하를 출산했다. 항암치료 중에는 생리가 없어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이었다. 박씨와 교제하던 민하 아빠는 예상치 못한 아기와 암 투병 중인 박씨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다. 미혼모가 된 박씨와 어머니 김씨는 민하를 포기하려고 했다. 입양기관들은 폐암 환자인 박씨에게서 태어난 민하를 받아주지 않았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갈 수 있는 곳은 보육원뿐이었다. 정을 붙이지 않으려고 1주일 넘도록 민하 얼굴을 외면했던 박씨는 민하의 웃는 낯을 한번 본 뒤로 포기할 수 없었다. 직접 키우기 시작했다. 민하를 위해 다시 살고 싶어졌다.<br/><br/>국립암센터를 나선 지난해 2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던 박씨는 서울대병원에서 희망을 찾았다. 의사는 박씨에게 “<span class='quot0'>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암제 ‘잴코리’ 처방을 받아보겠느냐</span>”고 제안했다. 1알에 16만7500원, 하루 2알을 먹어야 했다.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이 넘었다. 약은 박씨에게 잘 맞았다. 복용한 지 2주일 뒤 암 세포가 많이 줄었다.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br/><br/>그러나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박씨는 미혼모단체의 후원과 성금,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아 약값을 냈다. 이제 더 이상 도움받을 곳이 없다.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자택에서 만난 박씨가 말했다. <br/><br/>“약을 먹은 뒤 아이와 놀아줄 수 있게 됐어요. 밖에 나가 팔짝팔짝 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해요. 보험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건강보험공단, 제약사,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이와 놀이공원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외롭지 않게 자라도록 20살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br/><br/><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8.txt

제목: 막걸리에서 항암·항종양물질 첫 확인  
날짜: 2014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31001513001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하재호 박사팀 “암·노화 예방”</strong><!-- SUB\_TITLE\_END--><br/><br/>막걸리에서 암의 발생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항종양물질인 스콸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br/><br/>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 하재호 박사 연구팀은 3일 “최근 연구에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막걸리에 스콸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면서 “함량도 맥주와 포도주보다 50~200배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막걸리를 조금씩 마시면 암을 예방하고 노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박사 연구팀은 스콸렌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효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 박사 연구팀은 2011년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졸 성분을 세계 최초로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br/><br/>하 박사는 “<span class='quot0'>막걸리가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술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막걸리의 가라앉은 부분에 스콸렌과 파네졸이 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잘 흔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br/>스콸렌과 파네졸 분석기술에 관한 연구결과는 지난 2월 국내 분석전문 학술지인 한국분석과학회지와 세계적인 식품 관련 전문학술지에 각각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한 스콸렌과 파네졸 간편 분석기술도 국제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다.<br/><br/><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59.txt

제목: [경향의 눈]“공회전, 안돼~!”  
날짜: 20140902  
기자: 신동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2100000058  
본문: “안돼~! 안돼~! 정말 안돼~! 음주운전/ 꼬리물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서울 경찰버스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이 광고 문안을 이제 외울 경지에 이르렀다. 출퇴근 길목에 늘어선 경찰버스 행렬을 지나면서 올여름 내내 강제학습(?)을 한 결과다. 광고 문안이 낯익은 개그맨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잘 어울려 애써 읽지 않더라도 저절로 머리에 쏙~ 들어온 덕도 있다. 교통문화를 개선하려는 서울 경찰의 의지와 노력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되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안돼~! 안돼~! 제발 안돼~! 공회전.”<br/>최근 공회전에 대한 규제가 부쩍 강화됐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휘발유·가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걸 운전자는 알 것이다. 지난달 10일부터는 공회전 위반 차량에 운전자가 없거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위반을 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업무는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와 각 자치구가 수행한다. 하지만 경찰차는 아무리 공회전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차량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이다.<br/>경찰버스가 공회전을 하는 이유는 냉난방 때문이다. 일반 차량도 대기 온도가 5도 미만 또는 25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허용 시간이 10분으로 늘어나고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 제도가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에는 관대한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회전이 무해하다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br/>나라가 법률과 조례 등으로 공회전을 제한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우선 연료 낭비가 심하다. 차량 연료의 10~15%가 공회전으로 낭비된다고 하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2000㏄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제한하면 연간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공회전 줄이기를 비롯해 경제속도 준수하기, 트렁크 비우기 등 ‘친환경·경제운전 10계명’을 지키면 차량 한 대당 연간 36만원,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1조7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br/>경찰버스가 공회전으로 연료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계산해보았다. 한국기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2ℓ급 경유버스가 1시간 공회전을 하면 연료가 1.4ℓ가량 소모된다. 에어컨을 틀면 20% 정도 더 소모되니까 대략 1.68ℓ라고 보면 될 듯하다. 경찰버스가 출동해서 대기하는 이유는 ‘집회관리’가 대부분이다. 내가 여름 두 달 동안 매일 지나쳤던 경찰버스 10여대도 그렇다. 이 버스들이 계속 공회전을 했다면 연료 소모량이 얼추 2만5000ℓ, 금액으로는 ℓ당 1600원으로 쳐도 4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br/>전 세계가 고민하는 기후변화도 공회전 단속의 절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경유는 ℓ당 2.59㎏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찰은 단지 한 군데의 집회 관리를 위해 두 달 동안 약 65t 상당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교통부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연간 8500만t에 이른다.<br/>서울 대기오염의 70%가량은 차량 배기가스가 원인이고 그 가운데서도 최고 원흉이 대형 경유차로 알려져 있다.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2년 발암물질 1등급(암 발생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으로 상향조정했을 정도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경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블랙카본(BC) 등은 암 유발, 광화학 반응, 지구 온난화, 성층권 파괴 등 다양한 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 나라가 강력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도한 공회전은 각종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노력은 물론 자동차 업계가 이룬 성과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특히 이를 가장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경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회전을 줄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br/>경찰도 나름대로 고민과 노력은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380V용 외부 배전시설에서 전기를 끌어와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일반 220V용 무시동 에어컨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말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 경찰버스 광고판에 ‘공회전, 안돼~!’를 추가할 수 있을 수준으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0.txt

제목: 암 관여 ‘티로신 인산화 효소’ 세계 첫 규명  
날짜: 20140901  
기자: 송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1100000152  
본문: 국내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세포외기질(세포 바깥 쪽 그물 모양의 복잡한 구조)을 조절하는 ‘단백질 티로신 인산화 효소’를 세계 최초로 찾아냈다. 섬유증이나 암 등 질병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여창열 이화여대 생명과학전공 교수와 말콤 휘트먼 미국 하버드 치과대학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진이 단백질 티로신 인산화 효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생명과학분야 국제학술지인 ‘셀’에 지난 29일자에 ‘주목받는 논문’으로 실렸다.<br/>몸속 대부분의 세포는 세포외기질을 통해 결합하고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 세포 생존, 기능, 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세포외기질이 몸속 기관이나 조직에 과다 축적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섬유증을 일으킨다. 이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해선 세포외기질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티로신 인산화 효소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였다. 단백질 티로신 인산화 효소는 단백질 간 결합이나 활성을 조절해 다양한 세포 활동에 관여한다.<br/>연구진은 생쥐 실험을 통해 VLK라는 단백질이 세포외기질 형성 및 조절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VLK는 인체 내에도 존재하며, VLK 유전자가 골밀도 조절과 소아 천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VLK의 기능 이상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br/>향후 VLK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규명하면 섬유증과 같은 질병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포외기질 분해가 동반되는 암 전이와 관절염 등의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1.txt

제목: 거리에서 ‘엄마’를 추억하다 신주쿠 골든가  
날짜: 2014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901100000082  
본문: 「레이디경향」 일본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씨는 재일교포가 아닌 뉴커머다. 뉴커머란 1980년대 후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일본에 건너가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을 일컫는데, 그녀는 중학교 때 홀로된 엄마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쿄 신주쿠 골든가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파인트리’라는 바를 운영했던 그녀의 엄마는 지난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민정씨는 그리움을 담아 「엄마의 도쿄」라는 수필집을 발간했다. 그리고 오늘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거리, 골든가를 걷는다.<br/><br/>만화 「심야식당」의 배경지 골든가 걷기<br/>골든가(Golden街). 세 평짜리 바(Bar)가 다닥다닥 들어선 이곳에 어쩌다가 ‘황금의 거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가부키초가 화려한 환락가라면 이곳은 대화를 원하는 이들이 찾는 조용하고 은밀한 공간이다. 골든가 대부분의 가게는 단골손님만 받는다. 처음 오는 손님은 단골의 소개를 받아야 올 수 있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암묵적인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손님 대부분은 연극인, 작가, 출판 편집자들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술 한 잔을 나누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br/><br/>“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곳은 암시장, 이후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가였어요. 1958년 매춘방지법 시행 후 술집들이 들어서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죠. 골든가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좁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오히려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듯해요.”<br/><br/>김민정씨의 엄마는 골든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손님으로조차 진입하기 힘든 이곳에, 이방인이었었기에 어떻게 입성할 수 있었을까?<br/><br/>“엄마는 원래 술을 마시지 못했어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졌죠. 그런 엄마가 골든가 바의 여주인이 된 건 ‘가르강튀아’라는 바에서 만난 ‘단코 아줌마’와 친해진 우연한 인연 때문이었어요.”<br/><br/>마흔이 넘었지만 아름답고 무엇보다 사교적이던 그녀의 엄마는 가사도우미보다는 가게를 여는 쪽이 성향에 맞았다. 뒤늦게 칵테일 만드는 법을 배웠고 생맥주 따르는 법을 익혔다. 그렇게 시작한 가게 덕분에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은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br/><br/>“골든가에는 메뉴판이 없는 가게도 흔해요. 손님의 요청에 따라 그날 있는 재료로 손맛으로 차려낸 음식을 내놓는 집도 있죠. 만화 「심야식당」에 등장하는 ‘메시야’처럼 말이죠.”<br/><br/>원작 만화가 아베 야로는 실제로 골든가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곳에서 그는 달걀말이와 소시지볶음을 술안주로 먹으며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으리라.<br/><br/>“실제로 골든가에 ‘메시야’란 가게는 없지만 인간미 넘치는 분위기와 소소한 대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은 그대로예요. 골목골목을 차지한 좁은 가게들이 꼬마전등을 켜놓고 손님을 받지요. 손님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풀어놓고, 주인은 손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줍니다. 때로는 같이 웃다 울고, 싸우고 충고하고,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죠.”<br/><br/>운이 좋으면 저명한 작가를 마주할 수도 있는 곳이다. 트랜스젠더와 성인 영화 여배우를 만날지도 모른다. 이곳의 주인장들은 손님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 서로가 그리운 사람들이 저녁이면 하나둘씩 몰려드는 곳, 골든가는 도심 속 오아시스다.<br/><br/>파인트리, 엄마의 심야 식당<br/>엄마가 가게를 열 당시 김민정씨는 고교생이었다. 사춘기였던 그녀는 “술집을 열겠다”라는 엄마의 말이 부끄러울 뿐이었다.<br/><br/>“당시 저는 골든가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창피할 따름이었죠. 혹시라도 학교에 알려지면 친구들이 싫어하거나 놀리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다행히 일본은 직업에 대한 차별이 적은 분위기라 제가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br/><br/>엄마는 파인트리에서 한국 주부로서 갈고닦은 요리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김밥을 말고 돼지고기 장조림을 조렸다. 가지런히 달걀도 넣었다. 일본에서 먹기 힘든 게장이며 삼계탕도 만들었다. 가족에게 먹이듯 재료도 싱싱하고 건강에 좋은 것만 고집했다. 파인트리는 골든가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가게로 소문이 났고 바가 아닌 음식점 같았다.<br/><br/>“지금 생각해보면 파인트리는 엄마만의 심야 식당이었어요. 손님 대부분은 기자와 편집자였어요. 손님들은 엄마의 이름 가운데 자에 존칭을 붙여 ‘영상’이라고 불렀어요. 엄마의 시원시원하고 밝은 모습은 그야말로 영(Young)했죠.”<br/><br/>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손님에게는 김밥을 들려 보내기도 하고, 좋은 고기가 들어오면 양념해두었다가 단골손님에게만 가는 길에 살짝 건네주었다. 후한 한국인의 인심에 손님들은 배가 고파 찾아왔고 정이 그리워 들렀다.<br/><br/>“어느새 저도 학교가 끝나면 교복을 입은 채 달려가곤 했어요. 글을 쓰고 편집하는 손님들은 내게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교과서를 펴놓고 가게에 앉아 한자 수업을 들었죠.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를 일본어로 읽는 법을 알려준 건 바의 손님들이었어요.”<br/><br/>물론 한국 여자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인인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텃세를 부리는 인근의 점주들도 있었다.<br/><br/>“엄마에게 ‘조센징’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는 우익 성향의 손님도 있었고, 엄마의 말 한마디에 토라져서 발길을 끊는 손님도 있었어요. 손님들은 고마운 존재지만 때로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죠. 엄마와 저는 그렇게 타국 생활을 통해 사람 대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갔어요.”<br/><br/>먹고살기 위해 시작한 가게. 그녀는 20년간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서 일했다. 엄마는 ‘주인이 앉아 있으면 절대로 손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믿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허기를 채워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하루에 한 끼 먹는 생활을 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었다.<br/><br/>“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게를 꾸렸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퇴원하면 가장 먼저 가게로 달려갔어요. 헐거워진 옷에 가발을 쓰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혹시라도 손님들 눈에 아프고 처량해 보일까 봐 평소에 쓰지 않던 파운데이션과 립스틱도 발랐어요.”<br/><br/>암 투병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은 팔을 걷어붙였다. 그들은 자선 파티를 열어 그녀의 병원비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외롭지만은 않았던 이방인의 삶을 뒤로하고 그들의 곁을 떠났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파인트리는 「심야식당」의 남자 주인장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저씨가 3일 내내 끓인 카레나 직접 바다에 나가 잡은 물고기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골든가…, 그저 우리에겐 낯선 장소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민정씨는 한때 그곳에서 따스한 정을 나누었던 한 한국인이 있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한다.<br/><br/>골든가 가는 법<br/>주소는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1초메. 신주쿠 역<br/>동쪽 출구로 나와 조금만 걸으면 일본 최대의 환락가 가부키초가 나온다. 가부키초를 지나 신주쿠 구청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맞은편이 골든가다. 가수 마돈나의 ‘Jump’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했으며 지금도 각종 영화의 로케이션 장소로 쓰인다. 보통 저녁 시간에 문을 열어 밤새 영업을 하고 가게마다 제각기 특색을 갖고 있다.<br/><br/>야마노테선 신주쿠 역 동쪽 출구<br/>구청거리<br/>★골든가<br/>구청<br/>가부키초<br/><br/>사교성이 넘쳐 누구에게든 밝고 친절했던 엄마의 젊은 시절.<br/>파인트리를 이어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저씨.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2.txt

제목: [책과 삶]복종의 진정한 의미는 강요 아닌 대화… 수도사들의 강아지 양육법  
날짜: 2014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30100000019  
본문: ▲ 뉴스킷 수도원의 강아지들…뉴스킷 수도사들 지음·김윤정 옮김 | 바다출판사 | 360쪽 | 1만3800원<br/>눈부시게 화창한 3월의 오후, 임신 59일째가 된 셰퍼드 앙카에게 출산을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난다. 평소와 달리 눈을 크게 뜨고 헐떡거리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다. 그날 밤 기나긴 진통이 찾아오고 마침내 출산이 시작된다. “태아를 감싼 주머니가 마치 다량의 잉크가 번져 나오는 모양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실 위에 설치된 온열 램프의 불빛 덕에 태반 안에 들어 있는 앞발 두 개가 얼핏 보였다. 앙카가 온 힘을 다해 태반을 밀어내면서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br/>암컷 셰퍼드의 출산 장면으로 시작하는 <뉴스킷 수도원의 강아지들>은 개와 함께 보낸 뉴스킷 수도원 수도사들의 이야기다. 뉴욕 북쪽 케임브리지에 자리잡고 있는 조용한 수도원 뉴스킷은 신을 향한 묵상과 일상적 노동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여느 수도원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 수도사들은 일용할 양식을 강아지 양육과 입양을 통해 얻는다는 점이 남다르다. <br/>그러나 이들에게 출산부터 양육, 입양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한 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생명의 신비와 그 신비를 허락한 하느님의 신비를 본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키우는 동물, 특히 개와의 관계를 통해서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키워간다. 개의 타고난 천성과 욕구는 숨겨져 있던 내 본연의 모습을 이끌어내어 만물을 창조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시킨다.”<br/>수도사들의 강아지 양육은 강아지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br/>수도사들은 “강아지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경험들을 폭넓게 제공하여 강아지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사회화 교육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는 강아지나 인간이 다를 바 없다. 강아지를 입양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수도사들은 “개라는 하나의 창조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으로 개를 입양하고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왜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어떤 타입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개와 동반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br/>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중요한 것도 일방적인 복종 훈련이 아니라 대화다. 수도사들은 복종의 진정한 의미는 강요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침묵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목소리를 드높여 소리치는 대신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의 말속에 숨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개를 몰아세우는 대신 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br/>뉴스킷 수도원의 강아지를 입양해 키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모리스 센닥의 말은 개를 키우는 것이 한 생명과 또 다른 생명이 서로에 대한 깊은 내적 이해에 도달하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는 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내가 바랐던 그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개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개는 내가 바라는 모든 모습을 채워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에게 그런 것들을 줘야 하죠. 그런 후에야 당신은 당신이 원했던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br/>책에는 뉴스킷 수도원 수도사들이 30년 넘게 축적한 강아지 양육 방법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수도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무지한 장님이다. 인간은 이제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br/>이 책의 원서는 미국에서 1991년에 출간됐다. 국내에는 2003년에 번역 소개됐는데 이번에 나온 책은 수도사들이 2011년에 훈련법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펴낸 개정판을 우리말로 옮겼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3.txt

제목: “토마토,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특정 식품 의존 안좋아” 반론도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910015090775  
본문: 토마토가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BBC,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은 27일(현지시간) 150g 분량에 해당하는 토마토나 토마토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매주 10회 이상 먹는 남자는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18%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br/><br/>영국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브리스톨대학 공동 연구팀은 토마토의 항암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미국 암연구협회가 발행하는 의학저널 ‘암 역학, 생물표지, 예방’ 최신호에 게재했다.<br/><br/><br/><br/><br/><br/>연구팀은 50~69세 영국 남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식단과 생활방식을 분석했다.<br/><br/>연구팀은 토마토의 항암 성분은 DNA와 세포 손상을 보호해주는 항산화물질인 라이코펜(lycopene)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br/><br/>전립선 암은 전 세계에서 남자들에게 두번째로 흔한 암이며 영국의 경우 매년 4만17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1만700명에 달한다.<br/><br/>연구팀은 또 토마토 이외에 과일이나 채소를 하루 5회 이상 섭취하는 남자는 2.5회 섭취하는 남자에 비해 전립선 암 위험이 24% 감소했다고 밝혔다.<br/><br/>브리스톨 대학 바네사 에르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 결과는 토마토가 전립선 암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언급했다.<br/><br/>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토마토가 전립선 암을 예방해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br/><br/>전립선 암 전문가인 영국의 레인 프레임 박사는 “<span class='quot1'>이번과 같은 유형의 연구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특정한 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4.txt

제목: [건강 단신]이대목동병원 ‘악골괴사치료센터’ 外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9100000025  
본문: ■ 이대목동병원 ‘악골괴사치료센터’<br/>이대목동병원 치과진료부가 ‘난치성 악골괴사질환 치료연구센터’(센터장 김선종)를 개소했다. <br/>이 센터는 이화여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악골괴사질환 치료를 위한 임상 연구 및 치료법 개발에 주력한다. 오는 9월5일 이대목동병원 의학관에서 개소 기념 학술행사가 열린다.<br/><br/>■ 연세암병원, 환자·가족 건강강좌<br/>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는 오는 9월4일 오후 1시30분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대장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대장암의 내시경 치료, 수술 치료, 항암 치료 등 치료법에 대한 강연과 암환자의 영양, 암 생존자 통합관리, 명상과 뇌호흡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02)2228-4080<br/>■ 보라매병원, 관절질환 시민강좌<br/>서울시 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 정형외과는 오는 9월3일 오후 3시부터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관절질환’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 (02)870-2893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5.txt

제목: [책과 삶]복종의 진정한 의미는 강요 아닌 대화… 수도사들의 강아지 양육법  
날짜: 2014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910015092745  
본문: <b>▲ 뉴스킷 수도원의 강아지들…뉴스킷 수도사들 지음·김윤정 옮김 | 바다출판사 | 360쪽 | 1만3800원</b><br/><br/>눈부시게 화창한 3월의 오후, 임신 59일째가 된 셰퍼드 앙카에게 출산을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난다. 평소와 달리 눈을 크게 뜨고 헐떡거리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다. 그날 밤 기나긴 진통이 찾아오고 마침내 출산이 시작된다. “태아를 감싼 주머니가 마치 다량의 잉크가 번져 나오는 모양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실 위에 설치된 온열 램프의 불빛 덕에 태반 안에 들어 있는 앞발 두 개가 얼핏 보였다. 앙카가 온 힘을 다해 태반을 밀어내면서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br/><br/>암컷 셰퍼드의 출산 장면으로 시작하는 <뉴스킷 수도원의 강아지들>은 개와 함께 보낸 뉴스킷 수도원 수도사들의 이야기다. 뉴욕 북쪽 케임브리지에 자리잡고 있는 조용한 수도원 뉴스킷은 신을 향한 묵상과 일상적 노동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여느 수도원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 수도사들은 일용할 양식을 강아지 양육과 입양을 통해 얻는다는 점이 남다르다. <br/><br/>그러나 이들에게 출산부터 양육, 입양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한 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생명의 신비와 그 신비를 허락한 하느님의 신비를 본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키우는 동물, 특히 개와의 관계를 통해서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키워간다. 개의 타고난 천성과 욕구는 숨겨져 있던 내 본연의 모습을 이끌어내어 만물을 창조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시킨다.”<br/><br/>수도사들의 강아지 양육은 강아지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br/><br/>수도사들은 “강아지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경험들을 폭넓게 제공하여 강아지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사회화 교육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는 강아지나 인간이 다를 바 없다. 강아지를 입양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수도사들은 “개라는 하나의 창조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으로 개를 입양하고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왜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어떤 타입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개와 동반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br/><br/>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중요한 것도 일방적인 복종 훈련이 아니라 대화다. 수도사들은 복종의 진정한 의미는 강요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침묵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목소리를 드높여 소리치는 대신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의 말속에 숨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개를 몰아세우는 대신 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br/><br/>뉴스킷 수도원의 강아지를 입양해 키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모리스 센닥의 말은 개를 키우는 것이 한 생명과 또 다른 생명이 서로에 대한 깊은 내적 이해에 도달하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는 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내가 바랐던 그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개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개는 내가 바라는 모든 모습을 채워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에게 그런 것들을 줘야 하죠. 그런 후에야 당신은 당신이 원했던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br/><br/>책에는 뉴스킷 수도원 수도사들이 30년 넘게 축적한 강아지 양육 방법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수도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무지한 장님이다. 인간은 이제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br/><br/>이 책의 원서는 미국에서 1991년에 출간됐다. 국내에는 2003년에 번역 소개됐는데 이번에 나온 책은 수도사들이 2011년에 훈련법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펴낸 개정판을 우리말로 옮겼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6.txt

제목: 1700만 관객 눈앞… ‘명량’의 소용돌이에 빠진 한국영화 시장  
날짜: 2014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81001507801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탄탄한 기획력이 성공 확인… CG 시장에 활기 ‘명’</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대형 영화만 투자 쏠릴 땐 ‘다양성’ 퇴보 우려 ‘암’</strong><!-- SUB\_TITLE\_END--><br/><br/>그야말로 유례없는 흥행이다. 역대 최고 흥행 영화 <아바타>를 제친 영화 <명량>은 1700만 관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봉 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일별 관객수 2위 자리를 지키며 28일 기준 약 1653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명량>의 흥행은 올해 상반기 유난히 침체됐던 한국 영화시장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명량>은 영화 성수기에 단순히 관객을 영화관으로 많이 불러들인 것을 넘어서 업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br/><br/><br/><br/><br/><명량>의 성공은 대형 영화의 투자와 제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제작비가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영화가 많이 제작될 경우 컴퓨터그래픽(CG) 시장은 활기를 띨 수 있다. <명량>의 CG를 담당한 매크로그래프의 박성용 실장은 “<span class='quot0'>CG를 주력으로 삼는 영화들은 CG 비용으로만 50억~60억원이 들어간다</span>”며 “<span class='quot0'>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가 아니면 CG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한국 영화시장이 2000년대 중반 크게 성장하고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CG 업계도 활기를 띤 측면이 있다</span>”고 말했다. <괴물> <태극기 휘날리며> 등 제작비가 큰 규모의 영화들에 CG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업계도 같이 성장했다. 이번에 화제를 모은 <명량>의 해상전투신에는 90% 이상의 장면에 CG 기술이 들어갔다.<br/><br/>또한 <명량>의 흥행은 대형 영화들 중에서도 탄탄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올여름 개봉한 제작비 100억원대의 영화들 몇몇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지만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한 <명량>은 큰 성공을 거뒀다. CJ엔터테인먼트 영화투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61분의 해상전투신이 관객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 CG 기술이 어떤지 애니메이션화해서 미리 보는 프리비즈 버전을 여러 차례 봤다</span>”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영화들의 경우 4개월 정도면 끝나는 과정인데 명량은 1년 가까이 논의를 계속했다”고 말했다.<br/><br/>그렇지만 <명량>이 오히려 걱정거리를 던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명량>으로 인해 생긴 대형 영화에 대한 투자 열기는 현재 양극화돼 있는 한국 영화시장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명량>으로 고조된 투자와 관람 열기가 중간급, 소규모 영화들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대형 영화들에만 관객이 쏠리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영화평론가 남동철씨는 “<span class='quot2'>한국 영화시장은 양극화가 무척 심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제작비가 100억원이 넘는 영화와 3억원 이하의 영화로 극단적으로 구분돼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중간 정도의 영화들이 많아야 다양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영화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 영화시장에서 관객점유율은 CJ, NEW, 쇼박스, 롯데 등 상위 4개 배급사에서 전체 영화시장의 절반 이상인 68.4%를 가져갔다. 5위인 해외 배급사 소니를 합하면 77.9%로 전체의 5분의 4 정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span class='quot3'>한국 영화 관객 1500만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전체 영화에 대한 관객의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고 몇몇 영화에만 집중된다면 영화적 다양성 차원에서는 좋지 못하다</span>”고 말했다.<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7.txt

제목: 원로 소설가 손장순씨 별세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6100000112  
본문: 원로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손장순 전 한양대 불문과 교수가 24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아산병원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br/><br/>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고와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58년 ‘현대문학’에 단편 ‘입상’과 ‘전신’을 발표해 등단했다. 이후 <한국인> <공지> <세화의 성> 등 화제작들을 발표해 큰 인기를 얻었다. 고인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서울대 강사를 지낸 뒤 1986년부터는 한양대 교수로 재직했다. 1996년에는 여성문학 계간지 ‘라 플륌(la plume)’을 창간해 발행인 겸 편집인을 지냈다. 2011년에는 모교인 서울대에 20억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다. 고인은 언론인 출신 남편이 2005년 간암으로 세상을 뜬 뒤 남편의 이름을 딴 ‘임승준 자유언론인상’을 제정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상했으나 건강문제로 시상을 중단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최희승씨가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8시4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8.txt

제목: [생태줌인]처마 밑 제비집 101호, 102호, 103호…  
날짜: 2014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6100000019  
본문: 제비는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준 흥부에게 은혜를 갚은 새이자 봄의 전령사로 예로부터 아주 친숙했던 존재다. 제비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양수리 한 집에는 제비들이 매년 찾아들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처마 밑 곳곳에 둥지를 틀고 번식했다. 둥지마다 새끼들이 머리를 내밀고 재잘거린다. 심지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백열전구에도 흙을 물어다 아슬아슬하게 둥지를 틀어 놓았다. 이곳에서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뜨락에 들어서면 둥지 이곳 저곳에서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는 소리가 들려온다.<br/><br/>잠자리, 파리, 작은 벌 같은 먹이를 사냥해 입에 물고 둥지로 날아드는 어미 제비들로 뜨락은 분주하다. 제비 어미들은 사냥한 먹이를 물고 날아와 빨랫줄에 앉는다. 숨 고르기를 하고서야 둥지로 날아들어 새끼들에게 먹이를 전해준다. 새끼들이 서로 먹여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낸다. 어미들은 누가 먹을 차례인지 알고 고루 먹인다. 제비 어미들은 사냥에서 돌아올 때는 지붕을 넘어서 뜨락으로 들어오지만 날아나갈 때만큼은 열린 대문간을 통해 나간다.<br/><br/>암컷은 둥지 주변에 누군가 있으면 처마 끝이나 뜨락의 빨랫줄에 앉아서 둥지를 바라보며 사냥을 나가지 않는다. 제비는 잠자리, 벌, 나방, 메뚜기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해충을 잡아먹는 들판의 일꾼이었다. 살충제를 살포하면서 곤충들이 줄어들었고, 사람과 친숙했던 제비들도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br/>제비들은 여름철새로 4월 하순이면 돌아와 진흙과 마른 풀잎 줄기를 섞어서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정교하게 틀거나 묵은 둥지를 보수해 사용한다. 제비는 많게는 6개의 알을 낳고 15일 정도 포란을 거쳐 새끼가 부화가 되면 17~24일간 키운 후 둥지를 떠난다.<br/><br/>이재흥<생태사진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69.txt

제목: [사례로 보는 ‘보험 분쟁’]복잡하고 애매한 보험약관, 보험금도 아는 만큼 받는다  
날짜: 20140825  
기자: 이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5100000066  
본문: 강에서 땅콩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부딪혀도 교통사고라 볼 수 있을까. 고주파열 치료도 수술로 볼 수 있을까.<br/>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 상품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험약관 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보험사와 가입자가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에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담겨 있어 참고해볼 만하다.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www.fcsc.kr)에서 볼 수 있고, 이 중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봤다.<br/>■ 정밀진단 별문제 없는데…<br/>사례1) 정밀진단 결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할까.<br/>ㄱ씨는 유방에 몽우리가 잡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재검진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은 뒤 다음해에 종신보험계약에 가입했다. 이후 ㄱ씨는 재검사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절제수술을 받은 뒤 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ㄱ씨가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br/>→ 첫번째 정밀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당시 ㄱ씨가 유방 질환이 있다고 알던 것도 아니므로 ㄱ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서 규정한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br/>■ 심리검사 결과 안 밝혔는데…<br/>사례2) 심리검사 결과를 보험 계약 전 알려주지 않은 것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까.<br/>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ㄴ씨는 보험 가입 1년여 전 불안감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심리검사인 다면적 인성검사(MMPI) 결과와 관련해 담당의사와 면담한 적이 있다. 보험 가입 후 ㄴ씨는 심한 불안감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ㄴ씨의 가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MMPI 검사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정신질환 장애로 치료받던 중 자살한 만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br/>→ MMPI는 심리검사 중 하나이고, 최근 기업체 선발 과정 등 비정신과적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검사라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알릴 의무에 포함되는 정밀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 자살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br/>■ 교통사고 구호하다 2차 사고<br/>사례3) 교통사고 후 도로에서 구호 조치를 받다 2차 사고를 당했다면.<br/>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ㄷ씨는 동승자에 의해 3차로에 정차된 차량 옆에 눕혀진 채 119구급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주행 중이던 한 화물트럭이 ㄷ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ㄷ씨는 결국 사망하게 됐다. ㄷ씨의 가족은 보험사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1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일반재해 사망보험금(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맞섰다.<br/>→ 약관상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돼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후속 사고도 포함하는 의미다. ㄷ씨의 사망과 1차 사고는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만큼 단순히 2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적절치 않고, 보험사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br/>■ 고주파열 치료는 수술일까?<br/>사례5) 감상샘 고주파열 치료도 수술로 볼 수 있나.<br/>ㅁ씨는 갑상샘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열 치료를 2회 받은 뒤 보험사에 수술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주파열 치료를 수술로 보기 어렵다며 맞서다 1회분의 수술급여금만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했다.<br/>→ 고주파열 치료는 열로 종양을 태워 크기를 줄여나가는 중간적 치료방법으로, 수술로 보기보다는 의료적 처치에 가깝다. 또 아직은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br/>■ 땅콩보트 사고도 교통사고?<br/>사례4) 땅콩보트를 타다 사고를 당한 것도 교통사고라 볼 수 있나.<br/>ㄹ씨는 땅콩보트를 타던 중 정박해 있던 보트와 충돌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ㄹ씨에게 일반재해 장해급여금(540만원)을 지급했지만 ㄹ씨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br/>→ 보험약관상 ‘교통재해 분류표’에 명시된 교통기관에는 요트, 모터보트, 보트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땅콩보트는 땅콩 모양으로 생긴 튜브로 자체 동력이 없이 모터보트 등에 로프로 연결돼 수면 위를 이끌려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물 위에 떠있기 위해 이용하는 튜브와 유사할 뿐 교통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땅콩보트 충돌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에 대해서는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0.txt

제목: [박연선의 청춘통신…울릉에서 책을 읽다]만날때도 쓰고 헤어질 때도 쓰는 말, 안녕…‘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날짜: 2014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5100000021  
본문: 먼발치서 저동항을 바라보니 만남과 이별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남은 이들은 멀리 떠나는 여객선 뒤꽁무니, 지나간 물길까지 눈에 담는다. 세상의 모든 이별은 언제나 쓸쓸하다.<br/><br/>울릉도를 찾았던 여자 친구를 어렵게 보냈다. 서운한 마음 가눌 길 없어 떠나는 배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부터 자꾸만 가슴이 간질간질했다. 그 간지러움의 정체는 ‘설렘’이었다. 여자친구가 선물로 쥐여 주고 간 새 태블릿PC 때문이다. 슬픔과 설렘, 이 괴상한 조합의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며 나는 태블릿을 내려다봤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했다. ‘용서해 줘. 이것은 남자의 본능 같은 거야….’ 가만히 부팅버튼을 눌러 책 한 권을 다운받았다.<br/><br/>바로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안녕, 헤이즐>의 원작이다. 이 책의 원제는 ‘The fault in our stars’다. 책은 원제 그대로를 번역했지만 영화 제목은 영 딴판이다. 나는 영화에 쓰인 제목도 좋다. ‘안녕’이라는 말은 만날 때도 쓰고 헤어질 때도 쓴다. ‘안녕’의 이런 이중적 의미와 ‘영원과 죽음’ ‘사랑과 이별’이 교차하는 작품 내용은 실로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조합이다.<br/><br/>주인공 헤이즐은 말기 암과 맞서 싸우고 있는 16세 소녀다. 그녀가 사랑하는 어거스터스는 골육종으로 다리를 잘라냈다. 소년과 소녀, 사랑, 말기 암….<br/><br/>소설의 도입부를 읽을 때만 해도 눈물깨나 흘릴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이건 정말이지 멋진 사랑이야기다.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의 이별 앞에서 서로를 기억함으로써 유한한 인생을 영원이라는 무한대로 만들어가는 사랑! 아픈 것만 뺀다면, 누구라도 일생에 한번은 이토록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br/><br/>이렇게 이 소설은 삶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1과 0 사이에 무한대의 소수점이 존재하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삶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수한 의미가 있지 않으냐고 소설은 묻는다. 사라진 존재가 돼 모든 사람들에게 망각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 바로 잊지 않는 일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br/><br/>세상을 일찍 떠나야 했던 소녀와 소년의 이야기였기 때문일까?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는 단순한 로맨스로만 읽히지 않는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마치 기억의 세력과 망각의 세력이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잊음에 대한 강요가 마치 폭력 같다. 이 나라에서는 기억도 정치적이어야 하는가? 아니, 왜 그래야 하는가? 태블릿을 종료시키며 나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br/><br/>만날 때도 쓰고, 헤어질 때도 쓰는 말, 안녕…. 그래! ‘안녕, 세월호 친구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1.txt

제목: “문단ㆍ학계서 외톨이지만 글로 영향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날짜: 2014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310015038204  
본문: [유인경이 만난 사람] 80대에도 치열하게 글쓰는 이어령 선생<br/><br/><br/><br/>평생을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살까. ‘대한민국 대표 지성’인 이어령 선생은 ‘우상의 파괴’와 ‘저항의 문학’을 외쳤던 20대 열혈 문학평론가에서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의 주창자로 80대에도 맹활약하고 있다.<br/><br/>생전에 최인호 작가는 “<span class='quot0'>이어령 선생님의 손에 들린 붓과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그 놀라운 혀는 손오공의 손에 들린 여의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 최 작가가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읽고 싶은 이어령>이란 책이다. 최 작가가 이 선생의 수많은 글들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글만을 가려 뽑은 이어령 에세이의 결정체다. 이 선생이 1967년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 최 작가를 데뷔시킨 인연이 아름다운 책으로 탄생했다. 그 책을 보니 이 선생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졌다.<br/><br/><br/><br/>직접 쓰거나 기획한 책이 300여권에 이르는데, 이번 책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br/><br/>“이번 책에 소개된 글들은 대부분 제가 20~30대 때 쓴 글들이에요. 옛글을 내놓는 것은 마치 학창시절이나 신입사원 때의 사진,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러운 모습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데 80대에 그런 글을 내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서문에도 소개했듯 최인호가 암으로 투병을 할 무렵, 제가 문병을 가야 하는데도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아끼는 제 글을 골라 엮은 가제본 책을 갖고 왔더군요. 그때는 거절했는데 얼마 후 인호가 타계했어요. 인호가 없었다면, 그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책은 아마도 이 세상에 영영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 의지로 내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출판되고 보니 의미가 있더군요. 지울 수 없는 제 흔적들을 찾을 수 있고, 다시 보니 감회도 새롭습니다. 당시 제 글을 읽은 나이든 독자들에게도 추억이 될 수 있고요.”<br/><br/>소설이 아닌 글들은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서인지 다시 읽으면 진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생님의 글은 어느 시대에 쓰신 글이건 항상 신선합니다. 시대의 한계에 매몰되지 않는 보편성이라고나 할까요.<br/><br/>“저는 한 번 쓴 글은 다시 읽지 않고 지난 일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항상 앞을 향해서 달렸어요. 이 책은 다시 읽어보니 문장이 ‘~것이다’로 끝나던데 당시엔 아주 새로운 문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 노인네처럼 썼을까 싶긴 하더군요. (글쓰기는) 80대인 지금 더 치열하게 써서 감각적으로는 더 젊게 느껴질 겁니다.”<br/><br/>문단 데뷔 당시엔 평론가로 필명을 날리셨죠.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청개구리를 해부하자 김이 모락모락 난다고 표현한 것을 ‘개구리는 냉혈동물이라 김이 안 난다’고 지적하거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동이가 왼손으로 채찍을 잡는 묘사로 왼손잡이 주인공의 친자임을 암시했는데 왼손잡이는 유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냉철하다 못해 모진 비평을 많이 했습니다.<br/><br/>“혈기왕성한 20대 젊은이니까 가능했죠. 그 소설들은 팩트가 틀린 것이지 문학적 사상이나 문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항상 ‘내 머리로 생각해 내가 판단한 것만 믿는다’는 소신이 있어요. 남이 만든 요리가 아니라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 먹자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독약을 마시고 제자들과 나눈 말이 유명한데 아주 길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도대체 어떤 독약을 먹었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 말을 할 수 있나 궁금했습니다. 당시 사료를 찾아보니 헴로크란 독약을 넣었더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계속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죠. 아마 제가 막내여서 혼자 생각하고, 사물에 호기심이 많고, 다소 버릇 없는 성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불쌍한 아이죠. 항상 따져 묻는 건방진 아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모형제도 싫어하죠. 그래서 글을 쓰면 항상 논쟁이나 말썽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img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 width=600><tr><td><!--imgsrc\_start\_1--><img src=http://img.khan.co.kr/news/2014/08/23/l\_2014082301003155400253341.jpg width=600 hspace=1 vspace=1><!--imgsrc\_end\_1--></td></tr><tr><td><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616588><!--cap\_start\_1-->이어령 선생<br/>/이상훈 선임기자<!--cap\_end\_1--></font></td></tr></table><!--imgtbl\_end\_1-->남정현의 <분지>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는 등 당시엔 매우 진보적이고 저항적인 문인이었는데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중도에 있습니다. 좌우나 진보·보수로도 규정되지 않고요.<br/><br/>“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혹한 시대였어요. 반공법이 있어 간첩을 옹호하거나 변호해도 잡혀가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는 작가 남정현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문학, 문학의 순수성을 옹호한 것입니다. 남 작가를 기소한 이들에게 ‘당신들에게만 법이 있나. 나도 법을 지킨다. 나의 법은 문법, 창작법, 수사법(레토릭)이다’라고 주장했죠. 유신 시절에 제가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쓴 글 가운데 150여건이 당시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았습니다. 서슬 퍼런 당시 기관원들과 정말 지독히 오랜 시간을 실랑이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는 완전히 불신임을 받았다’라고 제가 쓴 문장을 갖고 ‘완전하다는 것은 숫자로 얼마냐. 100%냐. 그럼 국민이 전부 불신임한다는 거냐. 나는 불신임을 안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 등등의 주장을 펴더군요. 저는 ‘불신임도가 100%라는 것이지 100%가 불신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죠. 박정희 대통령의 분식장려 운동도 ‘죽 먹던 국민을 밥 먹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왜 밀가루를 먹으라고 하냐’는 칼럼을 썼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경향신문의 <여적>을 비롯, <지평선> <분수대> 등 타 신문의 칼럼을 새로 만들고 쓰면서 매일같이 정부와 싸웠습니다. 저는 좌도 우도 아니었기에 양쪽 모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br/><br/>색깔이나 성향보다는 글이란 ‘무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아주 뾰족하고 예리한 칼이었다면 요즘 글은 부드럽고 푸근한 손 같다고나 할까요.<br/><br/>“예전에 쓴 날카로운 비판의 글을 보면 과연 그게 옳았냐는 회의가 들어요. 좀 더 창조적인 글을 쓸 걸 하는 후회도 들고요. 제일 쓰기 쉬운 게 비판의 글입니다. 특히 권력층을 비판하면 독자의 박수도 크죠. 제일 쓰기 어려운 글이 긍정과 창조적인 글입니다. 오해도 많고 너무 앞서가서 이해도 못 받습니다. 제 글이 날선 비판에서 긍정과 창조로 바뀐 것은 제가 늙고 생활의 여유가 있어 비판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 삶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독설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쳐 긍정과 창조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결국 창조는 긍정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br/><br/>20대에 신문사 논설위원을 시작으로 대학교수, 문화부 장관, 문학사상 대표, 서울올림픽 기획자. 새천년준비위원장 등 소위 문화권력이었는데 권력은 안 누렸습니다. 작가들이 워낙 탈권위적이긴 합니다만….<br/><br/>“자의로 그런 자리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장관 제의도 몇 번 거절하다 문화공보부가 아니라 최초로 ‘문화부’가 신설된다기에 맡았습니다. 권력 욕심이 없으면 뭐든 자유롭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어요. 모든 인사권도 간섭받지 않았고 대통령 결재가 난 사안도 직접 따져서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시 만든 10개년 계획은 계속 이어졌죠. 특히 뿌듯한 것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만든 것입니다.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문화부 소속으로 하고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국립교육기관으로 만들었죠. 한예종 출신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장관을 자진사퇴하고 연말까지 임기를 마치는 국무회의 5분 전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장관이건 공무원이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면 절대 나쁜 짓 하는 사기꾼 협잡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관여한 자리마다 소신껏 일할 여건이 주어져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br/><br/>언젠가 인터뷰에서 20세기가 베토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모차르트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br/><br/>“이젠 비극의 영웅인 베토벤의 고뇌 어린 진지함과 암울함보다는 모차르트의 경쾌함과 천진함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은 땀과 눈물과 고통의 결과입니다. 정말 어렵게, 가난하고 기구하게 살아 음악도 장중하고 가라앉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전쟁을 거치고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하던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숨 걸고 민주화를 쟁취했으니 저항과 투쟁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즐겁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고뇌하지 않고도 최상의 영혼을 누릴 수 있다, 너무 안일한 이지고잉이 아니라 평화롭고 재미있는 일을 신명나게 하자는 뜻이죠. 그래야 진정한 창의성,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부유층이 많은 스탠퍼드대학의 졸업식에서 ‘Stay foolish, Stay Hungry’란 말을 했을까요. 바보같이, 배고프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을 만큼 무모한 일을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신나게 도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를 위한 도전이 아니라 모차르트처럼 천진한 도전을 할 때 창조적이 됩니다.”<br/><br/>모차르트는 천재인데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의 숱한 업적과 아이디어를 보고 천재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만….<br/><br/>“어릴 땐 저도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천자문을 깨치고 중학 때 프로이트를 읽었으니 선생님들의 말씀이 다 시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천재는 글 하나를 써도 달라요. 이상의 <권태>를 비롯한 시를 읽으면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할까, 타고난 천재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전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다만 지적 호기심 등의 목마름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창조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재는 대부분 요절합니다. 저는 서른을 넘고부터 천재가 아님을 알았죠. 점점 나이 들면서 오래 산 사람 가운데 천재를 찾아보니 괴테가 있더군요. 괴테도 대단히 박식했지만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감히 대기만성형의 괴테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imgtbl\_start\_2--><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 width=600><tr><td><!--imgsrc\_start\_2--><img src=http://img.khan.co.kr/news/2014/08/23/l\_2014082301003155400253342.jpg width=600 hspace=1 vspace=1><!--imgsrc\_end\_2--></td></tr><tr><td><f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30% color=616588><!--cap\_start\_2-->이어령 선생<br/>/ 이상훈 선임기자<!--cap\_end\_2--></font></td></tr></table><!--imgtbl\_end\_2-->최근에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비롯한 신앙 관련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가나 예술가들이 종교에 경도하면 작품세계가 달라지거나 좁아지던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br/><br/>“저는 감히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기도 부끄럽습니다. 또 톨스토이형이 아니라 도스토옙스키형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 않고 신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목사들에게도 설교보다 접촉하라고 하지요.”<br/><br/>가정법률상담소를 만든 이태영 박사는 팔순 무렵에 한 인터뷰에서 그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는 질문에 ‘평생 일만 하느라 놀아본 적이 없다. 시간이 나도 놀 줄 모르는 게 후회스럽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에 많은 것을 이룬 선생님도 후회스러운 일이 있나요.<br/><br/>“전 한 번도 직장다운 직장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신문사 논설위원, 대학교수, 장관 등 누구에게 구속되거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을 다니며 상하관계에 얽매인 적이 없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제가 모신 최초의 상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 융화하거나 타협하는 일에 서툽니다. 하도 제 목소리를 내니 노 대통령이 자신의 인생관인 ‘참용기’를 배우라고 하더군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라’는 뜻이랍니다. 평소 못 참고 용서하지 않고 못 기다린 탓인지 저는 교수인데 제자도 없고 작가에 문학사상이란 문학지도 운영했는데 따르는 문인도 없어요. 이상문학상을 만들었는데 제 팔순잔치에 이상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한 명도 오지 않았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이죠. 진작 참용기를 익힐 걸 하는 후회는 합니다.” <br/><br/>60세에 이화여대에서 정년 퇴직할 때 고별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슘페터의 말을 인용했죠. 선생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br/><br/>“30대에 이미 두 권의 명저를 내어 유명인사가 되었던 슘페터는 ‘당신은 진정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유럽 미녀들 사이의 최고 연인, 유럽 최고의 승마인, 그 다음으로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기억되고 싶다’고요. 그러나 66세로 그가 하버드대서 마지막 강의를 할 무렵 그때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아주 달랐습니다. ‘나는 대여섯 명의 우수한 학생을 일류 경제학자로 키운 선생으로 남고 싶다. 나도 이제는 책이나 이론으로 기억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나이가 된 것이다.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책이나 이론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팔순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훌륭한 학자도 아니고, 이상적인 남편이나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문단과 학계에서도 외톨이인 편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신화학자 이윤기 선생처럼 제 글이나 시를 외는 이들, 혹은 거리에서도 제가 쓴 글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해주는 분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글로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br/><br/><br/><br/>자신은 천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82세에도 빛나는 눈과 거침없는 말투, 숱한 인용구와 사람 이름을 술술 풀어내는 그를 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의 주장대로 천재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어령 선생은 여의봉을 여전히 휘두르는 영원한 손오공이다.<br/><br/><유인경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2.txt

제목: VJ특공대, 암치료 효과 높이는 요가치료 소개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210015035304  
본문: 최근 웃음치료나 요가치료를 통해 암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이나 항암치료, 한방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보조 요법을 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br/><br/>이런 가운데 KBS2 'VJ특공대'에서는 암환자의 회복을 돕고 정신적 안정과 치료 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병원을 방문, 암환자를 위한 웃음치료와 요가치료 모습을 소개했다.<br/><br/>실제로 웃음이 장 운동을 촉진시키거나 염증수치가 내려간다는 등의 연구 논문도 나와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는 요가나 명상 등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환자와 관련 요법을 받지 않고 암치료만 받았던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요가와 명상을 병행한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길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br/><br/>양한방협진을 통해 암환자를 진료하는 소람한방병원 하태현 한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의 통증 완화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치료 프로그램의 하나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3.txt

제목: 원조 섹시배우 김진아, 복귀 꿈 못이루고…80년대 별이 지다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2100000045  
본문: 배우 김진아가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향년 51세. <br/>김진아 측은 “올해 초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했다”면서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동생인 배우 김진근과 가족 등이 두 달 전부터 하와이로 건너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고 21일 밝혔다. <br/>암과 함께 각종 합병증이 뒤따르면서 김진아는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한다.<br/>가족들과 연예계 동료들은 모두 그의 때 이른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김진근의 부인이자 배우인 정애연 역시 21일 오후 “기도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애도를 바랐다. <br/>고인은 특히 지난해부터 국내 지상파에 출연하며 재기를 노려왔던 터라 아쉬움을 낳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KBS 아침프로그램 <여유만만>에 나와 하와이 생활과 가족들을 공개하면서 밝고 풍요로운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br/>김진아는 유명한 스타 가족의 일원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br/>1963년 배우 김진규와 김보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동생인 김진근, 올케인 정애연 등 모두 영화와 드라마에서 왕성하게 활약 중인 배우다. 또 이모부는 배우 이덕화이고, 제부는 코미디언 최병서다. ‘신라의 달밤’을 불렀던 원로가수 현인과는 사돈지간이기도 하다.<br/>김진아는 1980년대를 주름잡은 섹시 스타로 이름을 날렸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연산일기>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내시> 등 굵직한 영화를 거쳤고, 드라마 <개성시대> <욕망의 바다> <명성황후> 등에도 얼굴을 비쳤다. 당시 최고 인기 쇼프로그램인 MBC <토요일 토요일이 즐거워>에서 메인 MC를 볼 만큼 팬층이 두터웠다. <br/>지난 2010년에는 임상수의 화제작 <하인>에서 여의사로 출연해 배우로서 열정을 드러냈다. <br/>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한 그는 최근 입양한 아들 매튜와 함께 하와이에서 거주해왔다. 유족들은 하와이에서 조촐한 장례식을 치른 뒤 이달 중 국내에서도 지인들을 위한 장례식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4.txt

제목: [의술 인술]4대 중증질환 ‘보험급여 사각’ 없애야  
날짜: 20140822  
기자: 김홍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2100000007  
본문: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4대 중증질환의 대상 환자로 추계되는 159만명 중 절반 이상(약 57%)인 암환자들을 위해 항암제와 같은 고가 의약품에 대한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고됐다.<br/>하지만 올해 정부가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대상 약제 22개 중 항암제는 5개 정도에 불과하다. <br/>암 환자는 고가의 항암제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br/>대표적인 사례가 사망률 1위인 폐암이다. 과거 특정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폐암의 치료 방법은 1차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4~6주기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암이 재발할 경우 2차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 치료 후 휴지기에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음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기존 1차 치료를 오래 지속하면 누적 독성이 발생해 부득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br/>최근 주기 제한이 없는 효율적이고도 독성이 약한 약제를 통한 유지요법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암이 더 진행하기 전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항암제를 휴지기 없이 지속적으로 투여해, 암 진행을 지연시키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존기간을 더 연장시키는 새로운 치료방법이다.<br/>그러나 이런 유지요법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이 특정 환자군으로 제한되어 의료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항암치료 전과 비교해 항암치료로 종양의 크기가 확연히 줄어들거나 커지지 않고 유지되는 환자군 모두 유지요법의 보험급여 대상이 돼야 한다. <br/>그럼에도 제한적인 보험 적용으로 다수의 폐암 환자가 생존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br/>해외에서는 이미 유지요법에 대한 효과를 인정해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암 치료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 유럽임상암학회의 진료지침도 특정 환자군이나 유도요법 이후 반응에 관계없이 유지요법이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반해 모든 폐암 환자군에게 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다.<br/>한국에서도 의사단체와 관련 학회가 해외 임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든 폐암 환자군에게 형평성 있게 보험급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아직도 급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한적인 급여 기준에 따른 처방권 제한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는 배치되는 ‘없애야 할 손톱 밑의 가시’와 같은 규제다. <br/>대부분 항암제는 고가이므로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상대적으로 환자의 기대여명이 짧아 보험급여를 기다리는 동안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질환의 보험 이슈와는 중요도가 다르다. <br/>1차 항암치료에 대한 종양 반응 결과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의미 있는 생존기간 연장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환자군이 보험급여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대상 환자가 소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균등한 치료제 선택 및 치료 기회라는 환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br/>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이런 보험급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br/>정부 관련 기관과 의료 전문가가 함께 진료 현장의 필요와 환자의 요구를 신속히 검토하고 하루빨리 임상 현장에 적용해 촌각을 다투는 암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건강보험 재정의 압박과 이로 인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소외된 환자들도 형평성에 입각해 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이 시급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5.txt

제목: [부고]영화배우 김진아 별세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2100000038  
본문: 1980년대 인기 배우 김진아씨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1세다.<br/><br/>김진아씨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씨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span class='quot0'>김진근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를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봄 말기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김진아씨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했다.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딸>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섹시한 이미지로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6.txt

제목: 환자 급증하는 자궁암·난소암 치료법…EBS ‘명의 3.0’  
날짜: 20140822  
기자: 이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2100000001  
본문: 자궁암과 난소암 같은 부인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99년 721건이던 자궁내막암 발생 건수는 2011년 무려 1921건으로 2.5배나 증가했다. 난소암 역시 10년 동안 환자 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 22일 EBS <명의 3.0>은 ‘삶을 위협하는 까다로운 암-자궁암·난소암’ 편을 방송한다. 방송에서는 자궁암·난소암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난소암은 병이 진행될수록 종양의 크기가 커져 복통, 복부팽배, 빈뇨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많은 환자들은 비만·대장질환과 난소암의 증상을 혼동한다. 생리가 아닌데 하혈을 하거나 혈뇨가 나오면 자궁경부암·자궁내막암의 증상인 자궁출혈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 <br/>부인암이 재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재발 위치, 정도에 따라 수술과 치료가 가능하다. 말기 난소암 판정을 받은 후 두 번이나 재발을 겪은 60대 여성은 8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방송에는 송용상 서울대 암연구소장과 난소암 치료의 권위자 박상윤 박사가 나와 자궁암·난소암의 원인과 증상, 치료방법을 소개한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7.txt

제목: 서울시내 모든 보건소에서 20분이면 에이즈 검사  
날짜: 2014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210015034005  
본문: 서울시내 보건소에서 20분이면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br/><br/>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 전체 25개 보건소에 에이즈 ‘신속검사법’을 도입해 누구나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고, 2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br/><br/>검사를 받을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br/><br/><br/><br/><br/><br/>기존 검사는 EIA(항체 효소 면역시험)법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3~7일이 걸렸다. 새로 도입되는 신속검사법은 손가락에서 한 방울의 혈액을 체취해 일회용 검사 키트에 떨어뜨려 20분이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 보건소에서 신속검사법을 시범 운영해왔으며, 내년 모든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br/><br/>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판정한다. 감염이 확인되면 국가와 서울시가 에이즈 관련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br/><br/>신속검사법을 도입한 결과 에이즈 조기 발견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0일부터 6월 말까지 신속검사법을 도입한 4개 보건소의 평균 검진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건에서 948건으로 7배, 양성 검진건수는 2.5에서 15건으로 6배 늘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방지환 교수는 “<span class='quot0'>신속검사법 전면 도입으로 감염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전파를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2012년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은 7788명으로 매년 800여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감염인의 37%가 서울에 살고 있다. 현재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로 감염인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일상 생활로는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데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br/><br/>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span class='quot1'>서울시내 전 보건소에서 신속검사 가능한 만큼 익명으로 이뤄지는 검사를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발견된 감염인을 위한 상담과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br/><br/>■ 에이즈 관련 기본 상식 (자료 : 서울시)<br/><br/>1. HIV와 AIDS는 같은 말이다?<br/><br/>정답 : X<br/><br/>☞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br/><br/> - 바이러스로, HIV 감염인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br/><br/>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br/><br/> - HIV 감염 후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총칭.<br/><br/><br/><br/>2. 세계 에이즈의 날이란 ?<br/><br/>☞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에 대한 정보공유와 감염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날로 2015.12.01(월)은 제28회 째를 맞게됩니다.<br/><br/><br/><br/>3. HIV에 감염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br/><br/>정답 : X<br/><br/>☞ HIV 감염인이란 HIV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중 질병이 진행되어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되었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나는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br/><br/><br/><br/>4. HIV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감염 되지 않는다?<br/><br/>정답 : O<br/><br/>☞ HIV 감염인과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떠먹는 경우 감염인의 숟가락에 감염인의 침과 함께 바이러스가 묻어 나와 HIV 감염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br/><br/><br/><br/>5. HIV 감염인과 손을 잡거나 같이 운동을 해도 HIV에 감염이 안 된다?<br/><br/>정답 : O<br/><br/>☞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 교환될 수 있는 체액인 땀에는 극히 소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 상대방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br/><br/><br/><br/>6. HIV 감염인과 키스를 해도 HIV에 감염 되지 않는다?<br/><br/>정답 : O<br/><br/>☞ 키스만으로는 감염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양의 HIV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침에는 1ml당 5개미만의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어 키스를 통해 감염인의 침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더라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br/><br/><br/><br/>7. 모기를 통해 HIV에 감염된다?<br/><br/>정답 : X<br/><br/>☞ HIV는 인간의 체내에서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므로 HIV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HIV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에 감염되지 않습니다.<br/><br/><br/><br/>8. HIV 감염인과 한번이라도 성관계를 가지면 HIV에 감염된다?<br/><br/>정답 : X<br/><br/>☞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 감염률로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콘돔사용을 습관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br/><br/><br/><br/>9. HIV 검사(에이즈 검사)는 실명으로 안 해도 된다?<br/><br/>정답 : O<br/><br/>☞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HIV 검사를 기피하므로 익명검사를 법으로 규정하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제4항) 권장하고 있습니다. <br/><br/>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 검사 전에 익명검사를 요청하면 됩니다.<br/><br/><br/><br/>10.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무조건 에이즈 인가요?<br/><br/>정답 : X<br/><br/>☞ 초기증상으로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에이즈를 확진하지는 않습니다. HIV 감염의 초기 증상으로는 열, 근육통, 감기증상 등의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입니다. 증상만으로 HIV 감염을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HIV 검사를 통해 확진 받아야 합니다.<br/><br/><br/><br/>11. HIV에 감염되면 바로 죽게 된다?<br/><br/>정답 : X<br/><br/>☞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결핍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년~1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는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br/><br/><br/><br/>12. 에이즈는 치료제가 있다?<br/><br/>정답 : O<br/><br/>☞ 현재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의 증식을 억제하여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입니다. 현재는 탁월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꾸준한 약제의 복용을 통해 감염인은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br/><br/><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8.txt

제목: [부고]영화배우 김진아 별세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110015028132  
본문: 1980년대 인기 배우 김진아씨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1세다.<br/><br/><br/>김진아씨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씨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span class='quot0'>김진근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를 전해왔다</span>”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봄 말기암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br/>김진아씨는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했다. 이후 <수렁에서 건진 내딸>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밤의 열기 속으로>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섹시한 이미지로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79.txt

제목: 자궁경부암, 독감 검사 등 최신 트렌드의 ‘분자진단법’ 관심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110015026570  
본문: <p style="text-align: center;"><br/><br/><br/>분자진단은 DNA, RNA 등 유전물질을 대상으로 분자생물학, 분자유전학적 기술을 이용한 검사 분야를 통칭하는 말이다.&nbsp;좁게는 PCR 방법으로 유전자 (DNA, RNA)를 이용, 질병을 검사하는 것을 뜻한다.<br/><br/>PCR은 쉽게 얘기하면 일명 성능 좋은 ‘DNA 복사기’로 아주 적은 양의 DNA도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배로 증폭시켜준다. 머리카락, 타액 등을 분석하여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거나 친자 분석 등에 이용되는 방법이다.<br/><br/>의료계에서는 PCR을 이용한 분자진단 검사를 통해 세균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배양이 잘 안되거나 위험해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와 기존 검사법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br/><br/>또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유전 정보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처방이 가능하며,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br/><br/>‘분자진단’이라 하면 다소 낯선 용어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경험한 진단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br/><br/>지난 2009년 대 유행한 신종플루확진검사, 겨울철마다 유행하는 계절독감과 일반 감기, 폐렴균을 구분하는 검사,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바로 분자진단 검사이다.<br/><br/>㈜씨젠은 독창적 기술인 동시다중 분자진단 검사 기술을 보유한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호흡기 질환, 결핵, 간염,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검사뿐 아니라 약제 내성, 암 유발 돌연변이, 유전질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자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최근, 씨젠은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정기 검진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씨젠우먼(www.씨젠우먼.com)이라는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0.txt

제목: [경향포토]암 예방하는 요리입니다  
날짜: 2014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010015016150  
본문: 20일(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은 신관 2층 로비에서 이 병원 암통합케어센터 닥터들이 추천한 ‘암 예방 쿠킹레시피’ 시식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 암예방 건강 요리법을 소개하고 총 7가지의 암예방 요리를 소개해 환자와 가족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br/><br/><김정근기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1.txt

제목: [조국의 밥과 법]‘저파(低派)’ 프란치스코가 남긴 과제  
날짜: 20140820  
기자: 조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0100000037  
본문: 가히 ‘프란치스코 현상’이라 할 만하다. ‘파파 프란치스코’의 말씀과 행보, 눈빛과 손동작 하나하나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육화(肉化)된 신앙의 진면목 앞에 종교를 넘어 거의 모든 시민은 감동을 받았다. “<span class='quot0'>국민소득 3만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다</span>”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엄청난 위세를 뽐내는 건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며, 최고급 명품과 명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그 뒷면에서는 가난, 불안, 소외, 억압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한국적 현상이자 세계적 현상을 교황은 직설화법으로 비판했다.<br/>교황은 “<span class='quot1'>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빈다</span>”고 축원했고, “<span class='quot1'>막대한 부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span>”를 경고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껴안았다.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저파(低派)’였다.<br/>힘과 돈을 가진 자들 중 교황의 이런 발언에 마음 불편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속으로 “종교인이 왜 정치발언이야!”, “남미 출신이라 ‘해방신학’에 물들었구먼!”이라며 툴툴거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반공권위주의 체제가 종료한 지 오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황 정도의 발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좌경용공’으로 낙인찍히고 공격받는다. 언제부터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노선 외에는 모두 ‘종북좌빨’이 되어버리지 않았던가.<br/>정부, 기업, 언론 등도 모두 교황 방문을 환영했지만, 그의 비전과 제안은 외면했다. 아니 정반대로 움직였다. 교황은 취임 후 “<span class='quot1'>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이며 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span>”임을 계속 강조했다. <br/>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명분 아래 부동산 및 서비스업 규제 완화, 의료시장 영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보수언론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 뒤에서 기업은 미소 짓고 있다. 대선 시기 써먹었던 ‘경제 민주화’ 깃발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은 ‘율리아나’라는 가톨릭 세례명을 갖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신념과 행동은 ‘프란치스코’의 정반대 편에 있다.<br/>한편 교황은 “<span class='quot1'>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싸우라</span>”고 강론했지만,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가 교황 방한을 축하하며 뽑았던 기사 제목은 “<span class='quot1'>돈이 도네요… 고마워요, 프란치스코</span>”였다. 또한 교황은 “무한경쟁 사조에 맞서라”라고 강조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최상부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와 문화를 찬미하고 있다. <br/>교황은 세월호 유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피해자,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등을 만나 위로했지만, 정부는 줄곧 이들을 배제하거나 억압해왔다.<br/>‘파파 프란치스코’는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추한 민낯을 드러냈고, 이윤과 욕망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맹성(猛省)의 기회를 주었다. 그의 언행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며 깊고 넓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필자도 ‘프란치스코주의자’는 되고 싶다.<br/>그러나 그가 던진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역시 이 땅에 사는 우리다. ‘파파 프란치스코’를 찬미한다고 그가 지적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가 선택한 ‘쏘울’을 탄다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교황이 지적한 문제는 단지 신심(信心)과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세속의 정치, 법,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세상의 모순과 부딪치며 끈질기게 노력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 교황 자신이 “<span class='quot1'>공동선을 위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기적</span>”이라며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span class='quot1'>중립을 지켜야 하니 세월호 리본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span>”는 질문에 “<span class='quot1'>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span>”고 답했음을 기억하자.<br/>‘파파 프란치스코’를 칭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실천이 없으면 ‘체 게바라’라는 기표(記標)가 그랬던 것처럼, ‘파파 프란치스코’는 ‘혁명성’이 사라진 또 다른 ‘문화상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2.txt

제목: 자궁경부암 대비책은? ‘HPV DNA 검사’로 사전 대비 가능  
날짜: 2014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010015017596  
본문: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에서 하루에 3명꼴로 사망률이 발생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씨젠의 CF에서도 자궁경부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여성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대비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br/><br/>자궁경부암 사전 검사인 ‘HPV DNA 검사’가 한 방법으로 꼽힌다.&#160;HPV(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다가오므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HPV DNA를 직접 검사 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br/><br/>HPV의 종류는 약 100여 가지로 매우 다양하며 암 발생 기전과 관련하여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저위험군 바이러스로 나누어 진다.<br/><br/>저위험군 바이러스는 대부분 인체 표피에 사마귀를 만들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감염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실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고위험군 바이러스(HPV 16, 18, 21,31,33, 35, 39, 45, 52, 56, 58, 59, 66, 68)는 지속적인 감염 상태가 되면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br/><br/>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자세가&#160;필요하다.<br/><br/>이 때문에 자궁경부암 사전 검사 즉 씨젠의 ‘HPV DNA 검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이 밝혔다.&#160;HPV에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이며 감염량은 어떻게 되는지, 내 몸에 들어온 HPV가 내 면역체계와의 싸움에서 이겼는지 또 다시 새로운 종류의 HPV에 감염된 건 아닌지에 대해 꾸준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br/><br/>이러한 자궁경부암 HPV DNA 검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씨젠우먼( www.씨젠우먼.com )에서 확인 가능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3.txt

제목: 설계사에게 병력 다 이야기하고 가입했는데… 암 진단 받자, 보험사선 “원금도 못 주겠다”  
날짜: 20140820  
기자: 홍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0100000061  
본문: ㄱ씨는 지난해 5월 ㅎ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암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평소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전립선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설계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보험 가입을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설계사는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답했고, ㄱ씨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 가입 계약서에 서명했다.<br/>최근 ㄱ씨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그나마 1년 동안 보험료를 내며 암보험을 들어놓은 게 다행이라 여겼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그동안 낸 보험료 환불도 거부했다. 계약서에 ‘최근 1년 이내에 검사 여부’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여부’ 등의 답변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br/>보험설계사에게 알렸어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업계 관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금융당국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br/>금융권 고위관계자는 19일 “<span class='quot0'>대부업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계약직 모집인인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에 가입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실제 ㅎ사 약관엔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얘기했더라도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br/>ㄱ씨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부실한 설명 탓에 ‘보험료 원금 손실’이 발생한 만큼 ㅎ사가 보험료 원금만큼은 ㄱ씨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ㅎ사는 “원금 환급도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ㄱ씨 측은 전했다. ㄱ씨는 보험금은 물론 원금도 건질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br/>금감원은 ‘보험 가입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사 외무사원(설계사)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병력을 보험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다. <br/>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일뿐더러 설계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경우 계약직인 영세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span>”고도 했다. 비용을 낮추고 책임을 최대한 피하려는 대형 보험사의 지속적인 목소리도 한몫한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br/>그러나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동양사태 후 불완전판매 방지가 감독 일선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span>”며 “<span class='quot2'>설계사 책임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는 구조적 관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span>”고 우려했다. <br/>ㅎ사는 이날 “해당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점은 회사 차원에서 확인했고 ㄱ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보험설계사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4.txt

제목: [경향포토]암예방 요리 소개합니다  
날짜: 2014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2010015016146  
본문: 20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에서 암통합케어센터 의사들이 추천한 '암 예방 쿠킹레시피' 시식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 암예방 건강 요리법을 소개하고 총 7가지의 암예방 요리를 소개했다<br/><br/><김정근기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5.txt

제목: 연세의료원 “경증 환자 줄이고, 중증 위주 진료”  
날짜: 20140819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9100000102  
본문: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몰려드는 현상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임기 동안 이런 한국 의료의 왜곡현상을 바로잡는 데 세브란스가 앞장서겠습니다.”<br/>지난 1일 취임한 정남식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62·심장내과·사진)은 1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앞으로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과 난치성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정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재 모순적으로 굴러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연세의료원이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span>”라며 “<span class='quot1'>굳이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필요가 없는 경증환자를 설득해 협력병원(동네병원)으로 다시 보내려면 사회의 도움 및 환자와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이날 정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등 3000여 병상을 운영하는 ‘세브란스’의 새로운 가치로 ‘병원을 넘어선 병원’(Beyond Hospital)을 천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제중원 힐링캠프’를 준비 중이다. 그는 “<span class='quot1'>힐링캠프는 대학, 종교, 문화단체의 재능 기부로 암 환자와 중증·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모임마당, 미술·음악 치료, 식사 및 영양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정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질병 치료라는 병원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6.txt

제목: [조국의 밥과 법]‘저파(低派)’ 프란치스코가 남긴 과제  
날짜: 2014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910015008312  
본문: 가히 ‘프란치스코 현상’이라 할 만하다. ‘파파 프란치스코’의 말씀과 행보, 눈빛과 손동작 하나하나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육화(肉化)된 신앙의 진면목 앞에 종교를 넘어 거의 모든 시민은 감동을 받았다. “<span class='quot0'>국민소득 3만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다</span>”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엄청난 위세를 뽐내는 건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며, 최고급 명품과 명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그 뒷면에서는 가난, 불안, 소외, 억압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한국적 현상이자 세계적 현상을 교황은 직설화법으로 비판했다.<br/><br/>교황은 “<span class='quot1'>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빈다</span>”고 축원했고, “<span class='quot1'>막대한 부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span>”를 경고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껴안았다.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저파(低派)’였다.<br/><br/>힘과 돈을 가진 자들 중 교황의 이런 발언에 마음 불편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속으로 “종교인이 왜 정치발언이야!”, “남미 출신이라 ‘해방신학’에 물들었구먼!”이라며 툴툴거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반공권위주의 체제가 종료한 지 오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황 정도의 발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좌경용공’으로 낙인찍히고 공격받는다. 언제부터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노선 외에는 모두 ‘종북좌빨’이 되어버리지 않았던가.<br/><br/>정부, 기업, 언론 등도 모두 교황 방문을 환영했지만, 그의 비전과 제안은 외면했다. 아니 정반대로 움직였다. 교황은 취임 후 “<span class='quot1'>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이며 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span>”임을 계속 강조했다. <br/><br/>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명분 아래 부동산 및 서비스업 규제 완화, 의료시장 영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보수언론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 뒤에서 기업은 미소 짓고 있다. 대선 시기 써먹었던 ‘경제 민주화’ 깃발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은 ‘율리아나’라는 가톨릭 세례명을 갖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신념과 행동은 ‘프란치스코’의 정반대 편에 있다.<br/><br/>한편 교황은 “<span class='quot1'>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싸우라</span>”고 강론했지만,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가 교황 방한을 축하하며 뽑았던 기사 제목은 “<span class='quot1'>돈이 도네요… 고마워요, 프란치스코</span>”였다. 또한 교황은 “무한경쟁 사조에 맞서라”라고 강조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최상부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와 문화를 찬미하고 있다. <br/><br/>교황은 세월호 유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피해자,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등을 만나 위로했지만, 정부는 줄곧 이들을 배제하거나 억압해왔다.<br/><br/>‘파파 프란치스코’는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추한 민낯을 드러냈고, 이윤과 욕망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맹성(猛省)의 기회를 주었다. 그의 언행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며 깊고 넓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필자도 ‘프란치스코주의자’는 되고 싶다.<br/><br/>그러나 그가 던진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역시 이 땅에 사는 우리다. ‘파파 프란치스코’를 찬미한다고 그가 지적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가 선택한 ‘쏘울’을 탄다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교황이 지적한 문제는 단지 신심(信心)과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세속의 정치, 법,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세상의 모순과 부딪치며 끈질기게 노력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 교황 자신이 “<span class='quot1'>공동선을 위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기적</span>”이라며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span class='quot1'>중립을 지켜야 하니 세월호 리본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span>”는 질문에 “<span class='quot1'>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span>”고 답했음을 기억하자.<br/><br/>‘파파 프란치스코’를 칭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실천이 없으면 ‘체 게바라’라는 기표(記標)가 그랬던 것처럼, ‘파파 프란치스코’는 ‘혁명성’이 사라진 또 다른 ‘문화상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br/><br/><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7.txt

제목: 김대건 신부 생가서 헌화·기도… 환자·불임 극복 부부에 축복도  
날짜: 20140816  
기자: 임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6100000067  
본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충남 당진의 솔뫼성지를 찾았다. 솔뫼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1821~1846)가 나고 자란 곳이다. 교황은 오후 4시50분쯤 솔뫼성지 입구에서 무개차로 갈아타고 유흥식 대전교구장과 함께 성지 내 김대건 신부 생가로 이동했다. 교황은 김 신부의 생가 전방 30m에서 내린 뒤 유 주교와 함께 걸어 생가에 도착했다. 이용호 솔뫼성지 주임신부가 교황을 안내했다. 교황은 ㄱ자형 기와집으로 만들어진 생가 마루에 꽃단지를 놓고 마루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마루 뒤 벽에 걸린 김 신부 초상화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1분 정도 고개를 숙였던 교황은 가슴에 성호를 그은 뒤 의자에서 일어나 김대건 신부 초상화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br/><br/>이어 김 신부 생가 마당에 성수를 뿌린 뒤 경호용 바리케이드 밖에 늘어선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위로했다. 이동하던 중 교황은 희귀병, 암 등 병마와 싸우는 환자, 불임을 극복한 부부 20여쌍과 그들의 자녀를 만나 축복했다. 솔뫼성지는 불임 부부를 위한 기도처로 명성을 얻고 있다.<br/>‘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솔뫼성지는 교황이 4박5일 방한 기간 중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마주하는 첫번째 장소다. ‘한국의 베들레헴’으로 불린다.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인 김진후, 작은할아버지 김종한, 아버지 김제준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이다. 이 집안에서만 11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김대건 신부는 1836년 16세 때 프랑스 모방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신학생 후보로 선발돼 최양업 등과 함께 파리외방전교회 동양대표부가 있는 마카오에 유학을 다녀왔다. 이후 1845년 사제 서품을 받아 한국인 최초의 신부가 된 김대건 신부는 선교를 하다 이듬해인 1846년 체포돼 26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8.txt

제목: 무한경쟁·비인간적 경제모델 비판… 인간 존엄성 강조  
날짜: 20140816  
기자: 임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6100000073  
본문: “<span class='quot0'>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span>”<br/>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이틀째인 15일에도 물질주의를 비판하면서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경제를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밝혔다. 교황은 이날 오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과 삼종기도,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 연설 등을 통해 ‘메시지’에 중점을 두는 방한 행보를 이어갔다. <br/><br/>이날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교황은 무한경쟁과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비판했다. 교황은 “<span class='quot1'>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빈다</span>”며 “<span class='quot1'>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빈다</span>”고 말했다. 또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br/>그는 “복음이 제시하는 희망은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면서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론을 마쳤다. <br/>교황은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내용이 위주인 삼종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span class='quot1'>우리는 또한 성모님께서 우리 중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특별히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 존엄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도록 간청한다</span>”며 일자리를 갖지 못함으로써 존엄을 위협받는 실업자, 미취업자를 위해 기도했다.<br/>이어 솔뫼성지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교황은 연설을 통해 “<span class='quot2'>마치 정신적인 사막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span>”며 정신적 빈곤을 우려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우리를 괴롭히는 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우리 삶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물질과 권력, 쾌락 숭배의 징후들을 본다</span>”고 말했다. “<span class='quot0'>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 외로움, 남모를 절망감에 고통 받고 있다</span>”고도 했다.<br/>교황은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span class='quot0'>우리 모두 평화와 우정을 나누며 사는 세상, 장벽을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폭력과 편견을 거부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교회는 전 인류의 일치를 위한 씨앗,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더 풍요롭게 하는 일치를 이루도록 부름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이날 메시지에 대해 신학자 김근수씨는 “<span class='quot3'>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는 건 종교 지도자로서는 드문 아주 독특한 말</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아르헨티나 출신인 교황은 남미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가난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가톨릭대 신학대학장인 백운철 신부는 “<span class='quot4'>교황은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웃에게 헌신했던 삶을 젊은이들이 본받아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헌신하기를 강조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포괄적인 메시지</span>”라고 밝혔다. <br/>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는 “<span class='quot5'>교황이 한국 사회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상황을 혹시나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을까 우려했는데, 말씀을 보면 정확히 짚고 계시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삼종기도의 세월호 메시지 전문<br/>우리는 특별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인 대재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br/>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당신의 평화 안에 맞아 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형제자매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나선 이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길 기도합니다.<br/>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슬픔 속에 하나가 되었으니,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br/>우리는 또한 성모님께서 우리 중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특별히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 존엄한 인간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도록 간청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89.txt

제목: [책과 삶]“사별한 가족들 상처 드러내고 위로받아야”  
날짜: 2014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6100000019  
본문: ▲ 자살의 전설…데이비드 밴 지음·조영학 옮김 | 아르떼 | 320쪽 | 1만3000원<br/>열세살 때 아버지의 자살을 겪은 소년이 있다. 아버지가 죽는 걸 막을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어른이 되어서도 놓지 못했다. 데이비드 밴(48·사진)의 소설 <자살의 전설>은 남겨진 자로서 고통받으면서도, 거짓된 화해 대신 처참한 진실을 택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br/>인적 드문 섬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들어왔다. 사냥과 낚시로 음식을 마련해야 하고, 낡은 오두막을 수리하기 위해 각종 연장과 목재를 손수 다뤄야 한다. 곰이 집을 부수고 식량을 빼앗아갈까 걱정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응당 그래야 하는 아버지의 상이 있다. 어떤 문제건 든든하게 뚝딱 처리해내며, 열세살 난 아들에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법과 야생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것이다.<br/>그러나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 <자살의 전설>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수콴섬’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그는 섬에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뭘 배워야 할지조차 모른다. 그저 충동적인 도피에 아들을 끼워넣었다. 아버지는 밤마다 흐느껴 울면서 자신이 바람피웠던 여자와 창녀들에 대해, 자신의 인생과 기회가 끝나버린 것 같은 기분을 고백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울음을 들어야 하는 밤이 두렵다. 아버지의 절망과 슬픔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 아버지는 사냥을 나갔다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둘이 머무르는 오두막 천장을 향해 총질을 해댄다. 무책임하고 나약하고 친밀하지도 않은 아버지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싶지만, 그가 정말 자살할까봐 소년은 처참한 섬을 떠나지 못하고 점점 불행해진다.<br/>소설 속의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싶었지만, 수십년간 그러지 못했다. 그것은 작가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떨어져 살던 아버지는 작가가 13살 때 1년간 알래스카에서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실제로는 거절당한 아버지는 이후 곧 자살했다. “저는 3년 동안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더러워진 느낌이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실망했을지, 그의 절망이 어떤 것이었을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떨칠 수 없었고 굉장히 무서웠어요.”<br/>‘수콴 섬’은 작가가 아버지를 따라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죄의식에서 태어난 허구의 이야기지만, 실제 그와 아버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섬세한 문장은 하나하나 무겁고 냉정해서, 한순간도 미화하는 법이 없다. “아버지는 속삭이며 훌쩍거렸다. 절망이 만들어내는 기이하고 끔찍한 소음들이 바로 옆에서 들려왔건만 달아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존재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로이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립된 섬, 장대하고 무자비한 자연 속의 황량한 부자 관계는 신화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소설이 훌륭한 것은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학적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br/>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위태롭고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로이다. 작가의 분신인 로이가 죽고,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과 함께 방황하는 이야기를 쓴 이후에야 작가는 치유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건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야기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이후,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고 30년 동안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 분노의 요체가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그 이후에는 아버지의 사체에 대해 묘사한다든가 하는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br/><br/>책 속에 등장하는 ‘수콴 섬’ 외의 단편들에서 아버지는 내내 다른 방식으로 자살하거나 아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상상과 실험을 한다. 자살한 아버지는 약하고 변덕스럽고 못난 인간이었다고 쓰기까지 작가가 어떤 시간들을 견뎌냈을지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제 책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가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압박과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가족도 그랬던 것이죠.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한다’는 그리스 비극의 요체가 곧 우리 삶입니다.”<br/>작가의 삶에는 상처가 많아 보인다. 아버지 외에도 가족과 친지 네 명이 자살하거나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처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내 책은 비록 한 사람의 자살과 그 가족들의 사별을 다루고 있지만, 이 같은 일을 겪은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때때로 정부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살률이 늘어날까 걱정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런 스트레스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살로 인해 사람들이 엄청난 절망을 느끼는 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충격과 파급을 직시하는 게 먼저입니다.”<br/>12년간 받아주는 데가 없어 출간되지 못했던 이 책은 결국 20개국에 번역돼 전 세계 12개 문학상을 받았고, 11개국에서 ‘올해의 책’에 40회 선정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0.txt

제목: [교황 방한 이틀째]김대건 신부 생가서 헌화·기도… 환자·불임 극복 부부에 축복도  
날짜: 2014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51001498430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한국의 베들레헴’ 솔뫼성지 방문</strong><!-- SUB\_TITLE\_END--><br/><br/>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충남 당진의 솔뫼성지를 찾았다. 솔뫼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1821~1846)가 나고 자란 곳이다. 교황은 오후 4시50분쯤 솔뫼성지 입구에서 무개차로 갈아타고 유흥식 대전교구장과 함께 성지 내 김대건 신부 생가로 이동했다. 교황은 김 신부의 생가 전방 30m에서 내린 뒤 유 주교와 함께 걸어 생가에 도착했다. 이용호 솔뫼성지 주임신부가 교황을 안내했다. 교황은 ㄱ자형 기와집으로 만들어진 생가 마루에 꽃단지를 놓고 마루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마루 뒤 벽에 걸린 김 신부 초상화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1분 정도 고개를 숙였던 교황은 가슴에 성호를 그은 뒤 의자에서 일어나 김대건 신부 초상화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br/><br/><br/>이어 김 신부 생가 마당에 성수를 뿌린 뒤 경호용 바리케이드 밖에 늘어선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위로했다. 이동하던 중 교황은 희귀병, 암 등 병마와 싸우는 환자, 불임을 극복한 부부 20여쌍과 그들의 자녀를 만나 축복했다. 솔뫼성지는 불임 부부를 위한 기도처로 명성을 얻고 있다.<br/><br/>‘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솔뫼성지는 교황이 4박5일 방한 기간 중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마주하는 첫번째 장소다. ‘한국의 베들레헴’으로 불린다.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인 김진후, 작은할아버지 김종한, 아버지 김제준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이다. 이 집안에서만 11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김대건 신부는 1836년 16세 때 프랑스 모방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신학생 후보로 선발돼 최양업 등과 함께 파리외방전교회 동양대표부가 있는 마카오에 유학을 다녀왔다. 이후 1845년 사제 서품을 받아 한국인 최초의 신부가 된 김대건 신부는 선교를 하다 이듬해인 1846년 체포돼 26세의 나이로 순교했다.<br/><br/><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1.txt

제목: 교황 “세월호 사건…연대·협력하길 바란다”  
날짜: 2014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510014982428  
본문: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도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시 언급했다.<br/><br/>15일 오전 성모승천대축일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교황은 ‘삼종기도’에서 “<span class='quot0'>이 비극적인 사건(세월호 참사)을 통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슬픔 속에 하나가 되었으니,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span>”라고 기도했다. 교황은 “<span class='quot0'>우리는 특별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인 대재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span>”고 말했다. 이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당신의 평화 안에 맞아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형제자매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나선 이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삼종기도는 가톨릭에서 아침·정오·저녁의 정해진 시간에 그리스도의 강생(降生)과 성모마리아를 공경하는 뜻으로 바치는 기도다. 종을 세 번 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br/><br/>앞서 교황은 14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해서도 환영 나온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 바 있다.<br/><br/><br/><br/><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color: rgb(0, 0, 0);"><a href="http://photo.khan.co.kr/pstarcatalog.html?art\_id=20140815140428" target="\_blank" >☞ [화보] 노란 리본 단 교황 </a></span></center><br/><br/>한편 이날 삼종기도에 앞선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교황은 무한경쟁과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비판했다. 교황은 “<span class='quot0'>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빈다</span>”고 말했다. 또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br/><br/>교황은 또 한번 희망을 강조했다. 그는 “희망은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며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론을 마쳤다.<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2.txt

제목: [교황 방한 이틀째]무한경쟁·비인간적 경제모델 비판… 인간 존엄성 강조  
날짜: 2014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51001498408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미사강론·연설 등 이틀째 행보</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 희망을 절대 빼앗기지 않길”</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아시아 청년들과 만남선 정신적 빈곤의 확산 우려도</strong><!-- SUB\_TITLE\_END--><br/><br/>“<span class='quot0'>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span>”<br/><br/>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이틀째인 15일에도 물질주의를 비판하면서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경제를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밝혔다. 교황은 이날 오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과 삼종기도,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 연설 등을 통해 ‘메시지’에 중점을 두는 방한 행보를 이어갔다. <br/><br/><br/>이날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교황은 무한경쟁과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비판했다. 교황은 “<span class='quot1'>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빈다</span>”며 “<span class='quot1'>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빈다</span>”고 말했다. 또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br/><br/>그는 “복음이 제시하는 희망은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면서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기쁨과 확신을 찾고, 결코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강론을 마쳤다. <br/><br/>교황은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내용이 위주인 삼종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span class='quot1'>우리는 또한 성모님께서 우리 중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특별히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 존엄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도록 간청한다</span>”며 일자리를 갖지 못함으로써 존엄을 위협받는 실업자, 미취업자를 위해 기도했다.<br/><br/>이어 솔뫼성지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교황은 연설을 통해 “<span class='quot2'>마치 정신적인 사막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span>”며 정신적 빈곤을 우려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우리를 괴롭히는 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우리 삶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물질과 권력, 쾌락 숭배의 징후들을 본다</span>”고 말했다. “<span class='quot0'>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 외로움, 남모를 절망감에 고통 받고 있다</span>”고도 했다.<br/><br/>교황은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span class='quot0'>우리 모두 평화와 우정을 나누며 사는 세상, 장벽을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폭력과 편견을 거부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교회는 전 인류의 일치를 위한 씨앗,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더 풍요롭게 하는 일치를 이루도록 부름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이날 메시지에 대해 신학자 김근수씨는 “<span class='quot3'>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는 건 종교 지도자로서는 드문 아주 독특한 말</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아르헨티나 출신인 교황은 남미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가난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가톨릭대 신학대학장인 백운철 신부는 “<span class='quot4'>교황은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웃에게 헌신했던 삶을 젊은이들이 본받아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헌신하기를 강조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포괄적인 메시지</span>”라고 밝혔다. <br/><br/>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는 “<span class='quot5'>교황이 한국 사회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상황을 혹시나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을까 우려했는데, 말씀을 보면 정확히 짚고 계시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3.txt

제목: [여적]수학 필즈상  
날짜: 20140815  
기자: 신동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5100000011  
본문: 영국 수학자 하디가 인도 출신 제자 라마누잔에게 문병을 갔다. 하디는 잡담으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번호 1729가 별로 재미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라마누잔이 즉각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숫자입니다.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두 세제곱 수의 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1729는 1211+111 및 1011+911,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의 오묘한 세계와 수학자들의 천재적 면모를 알게 해주는 유명한 일화다.<br/>1729라는 평범한 숫자를 매우 특별한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수학이다.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초(超)미시·거시 세계에까지 인간의 지성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수학 덕분이라고 할 만하다. 당연히 그런 것은 천재들의 몫이다. 라마누잔도 그 한 명으로서 하디에 의해 발굴돼 ‘라마누잔의 정리’를 비롯해 소립자물리학, 컴퓨터과학, 우주과학, 암 연구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수학적 업적을 남겼다. 하디와 라마누잔의 관계는 지난 11일 타계한 로빈 윌리엄스와 ‘하버드 수재’ 출신의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굿 윌 헌팅>을 떠오르게 한다.<br/>세계 최고 천재들의 향연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수학계의 올림픽’이라는 세계수학자대회가 그제 삼성동 코엑스에서 필즈상 시상을 시작으로 개막됐다. 필즈상은 지난 4년간 가장 중요한 수학적 업적을 이룬 40세 이하의 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이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굿 윌 헌팅>에서 청소부(맷 데이먼 분)의 수학적 천재성을 알아본 교수가 필즈상 수상자이고, 그에게 수학뿐 아니라 삶의 해법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상담사(로빈 윌리엄스 분)도 한때 필즈상을 놓고 경쟁했던 수학자였다. <br/>이번 서울 대회 필즈상 수상자 중 이란 출신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여성으로서, 브라질 출신 아르투르 아빌라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이외 국가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각각 최초의 수상자라고 한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우등생’인 한국은 아직 필즈상과는 인연이 없다. 상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적·사회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필요는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4.txt

제목: "암도 생명인데···" 암환자들 '말기암' 의미 잘몰라  
날짜: 2014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410014977300  
본문: 의사로부터 “말기암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환자와 가족. 그들이 받아들이는 ‘말기암’이란 어떤 의미일까.<br/><br/>의학적으로 말기암은 환자가 수개월 내엑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수술이나 화학요법 등 치료보다는 삶을 정리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br/><br/>하지만 우리나라 암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말기암’이란 용어를 삶의 마지막이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14일 서울대학교병원 윤영호 교수와 이준구 전문의가 국내 17개 병원의 암환자(1242명), 가족(1289명), 암전문의(303명), 일반인(1006명) 등 38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말기암’ 선고를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시한부 선고’로 본다는 응답은 45.6%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난치암이나 재발암 정도로 생각하는 셈이다. <br/><br/>답변자들은 항암치료에도 암이 진행하는 난치암(21.2%), 재발·전이암(19.4%), 수주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임종기(11.4%), 초기는 지났으나 완치도 가능한 국소암(2.5%) 등의 순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br/><br/>연구팀은 “응답자들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말기암을 해석하지 않았으며,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을 치료나 생명연장이 가능한 재발· 전이암, 국소암 등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br/><br/>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말기암에 대한 해석 차이는 말기 통보나 연명의료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과 심각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은 말기암의 명확한 정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말기암을 보다 세심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 ‘의료의사결정(Medical Decision Making)’ 최근호에 실렸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5.txt

제목: 할리우드 스타 로렌 바콜 뇌졸중으로 사망  
날짜: 2014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4100000052  
본문: 1940~1950년대 할리우드에서 활약한 미국 여배우 로렌 바콜이 12일(현지시간) 숨졌다. 향년 89세. <br/><br/>미국 연예전문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은 바콜이 이날 아침 뉴욕 맨해튼 인근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험프리 보가트 재단도 트위터에 “<span class='quot0'>그녀의 삶에 대해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span>”며 바콜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험프리 보가트는 바콜의 첫 남편이다.<br/>1924년 뉴욕에서 태어난 바콜은 19세 때 모델로 데뷔했다. 1944년 영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주인공 오디션에 합격한 이후 여배우의 길을 걸었다. 이 영화에서 함께 주연을 맡은 보가트와 25살의 나이차를 딛고 1945년 결혼했다. 1957년 보가트가 암으로 숨질 때까지 부부는 당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로 불렸다. <br/>이 기간 동안 바콜은 영화 <키 라르고>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바콜은 당시 174㎝의 큰 키와 허스키한 목소리로 할리우드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6.txt

제목: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 점검 면제  
날짜: 20140813  
기자: 곽희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3100000140  
본문: 12일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안전성 점검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의 생명안전이 시장논리에 밀린 것이다. 보건의료계는 “환자가 임상시험 대상이냐”고 반발했다.<br/>정부는 올 하반기 고시를 개정해 안전성 점검 면제 대상을 현행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업성이 있는 동종(타인) 줄기세포, 이종(동물) 줄기세포 치료제를 바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연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br/>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span class='quot0'>2012년 벨기에·스위스, 2009년 독일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세계 의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가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정부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도 낮출 방침이다. 현재는 유전질환·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둘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체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안전성만 입증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br/>변혜진 기획실장은 “<span class='quot1'>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환자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치료를 받으려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환자는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면서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br/>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환자의 민감정보 보호 측면에서 논란거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지만 환자의 서명을 받아 건강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것</span>”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7.txt

제목: 할리우드 스타 로렌 바콜 뇌졸중으로 사망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310014970344  
본문: 1940~1950년대 할리우드에서 활약한 미국 여배우 로렌 바콜이 12일(현지시간) 숨졌다. 향년 89세.<br/><br/><br/>미국 연예전문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은 바콜이 이날 아침 뉴욕 맨해튼 인근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험프리 보가트 재단도 트위터에 “<span class='quot0'>그녀의 삶에 대해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span>”며 바콜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험프리 보가트는 바콜의 첫 남편이다.<br/><br/>1924년 뉴욕에서 태어난 바콜은 19세 때 모델로 데뷔했다. 1944년 영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주인공 오디션에 합격한 이후 여배우의 길을 걸었다. 이 영화에서 함께 주연을 맡은 보가트와 25살의 나이차를 딛고 1945년 결혼했다. 1957년 보가트가 암으로 숨질 때까지 부부는 당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로 불렸다. <br/><br/>이 기간 동안 바콜은 영화 <키 라르고>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바콜은 당시 174㎝의 큰 키와 허스키한 목소리로 할리우드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br/><br/><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8.txt

제목: 외다리 소년 투수에 희망 심어준 외팔 투수  
날짜: 2014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3100000087  
본문: 100년을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프로야구(MLB)에는 오른손이 조막손인데도 노히트노런을 달성한 짐 애보트, 외팔이 외야수로 유명한 피트 그레이, 손가락이 세 개뿐인 오른손으로 시카고 컵스의 마지막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모데카이 브라운 등 장애 속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쓴 선수들이 많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선발투수로 활약한 데이브 드라베키(58·사진)와 만 11세 소년 피터 주카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공개했다.<br/><br/>드라베키는 왼쪽 팔이 없다. 1988년 왼팔에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은 드라베키는 1991년 암이 재발해 왼팔을 절단했다. 잘린 팔로는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64승 57패 평균자책점 3.13의 성적을 남긴 채 은퇴했다. 주카는 생후 10개월에 ‘2개월 내 사망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진단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성장판 이상으로 오른 다리가 왼 다리보다 훨씬 짧았고 짧은 다리마저 2년 전 암세포가 발견돼 절단했다. 이후 주카는 실의에 빠져 숨어 지내왔다. 그런 둘이 2013년 우연하게 만났다. 드라베키가 병원과 학교, 교회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극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다가 주카를 보게 된 것이다. 당시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며 등교를 꺼린 주카에게 드라베키는 “신은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다. 당당하게 친구들과 어울려라”고 조언했다.<br/><br/>드라베키로부터 자신감을 얻어 야구 동아리에 가입한 뒤 투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카는 “<span class='quot0'>나도 커서 드라베키처럼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399.txt

제목: 왼팔 자른 SF 전 투수 드라베키, 한쪽 다리 절단한 11세 소년에 용기 주고 마운드에 서게 하다  
날짜: 20140813  
기자: 윤은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3100000038  
본문: 100년을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프로야구(MLB)에는 오른손이 조막손인데도 노히트노런을 달성한 짐 애보트, 외팔이 외야수로 유명한 피트 그레이, 손가락이 세 개뿐인 오른손으로 시카고 컵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모데카이 브라운 등 장애 속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쓴 선수들이 많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선발투수로 활약한 데이브 드라베키(58)와 만 11세 소년 피터 주카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공개했다.<br/>드라베키는 왼팔이 없다. 1988년 왼팔에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은 드라베키는 1991년 암이 재발해 왼팔을 절단했다. 잘린 팔로는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64승 57패 평균자책점 3.13의 성적을 남긴 채 은퇴했다. 주카는 생후 10개월에 ‘2개월 내 사망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진단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성장판 이상으로 오른 다리가 왼 다리보다 훨씬 짧았고 짧은 다리마저 2년 전 암세포가 발견돼 절단했다. 이후 주카는 실의에 빠져 숨어 지내왔다.<br/>그런 둘이 2013년 우연하게 만났다. 드라베키가 병원과 학교, 교회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극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다가 주카를 보게 된 것이다. 당시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등교를 꺼린 주카에게 드라베키는 “신은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다. 당당하게 친구들과 어울려라”고 조언했다.<br/>드라베키로부터 자신감을 얻어 야구 동아리에 가입한 뒤 투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카는 “<span class='quot0'>나도 커서 드라베키처럼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0.txt

제목: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 점검 면제  
날짜: 2014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21001552582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의료계 “환자가 임상시험 대상이냐” 반발… 의료기관 진료기록 공유 추진 논란</strong><!-- SUB\_TITLE\_END--><br/><br/>12일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안전성 점검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의 생명안전이 시장논리에 밀린 것이다. 보건의료계는 “환자가 임상시험 대상이냐”고 반발했다.<br/><br/>정부는 올 하반기 고시를 개정해 안전성 점검 면제 대상을 현행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업성이 있는 동종(타인) 줄기세포, 이종(동물) 줄기세포 치료제를 바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연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br/><br/>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span class='quot0'>2012년 벨기에·스위스, 2009년 독일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세계 의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가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정부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도 낮출 방침이다. 현재는 유전질환·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둘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체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안전성만 입증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br/><br/>변혜진 기획실장은 “<span class='quot1'>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환자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치료를 받으려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환자는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면서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br/><br/>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환자의 민감정보 보호 측면에서 논란거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지만 환자의 서명을 받아 건강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것</span>”이라고 비판했다.<br/><br/><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1.txt

제목: 가슴모양까지 고려한 유방재건술  
날짜: 2014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210014956978  
본문: <p style="text-align: center;"><br/><p style="text-align: justify;">몇 년 전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권순자씨(54·가명)는 유방재건술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과 로컬병원 등을 다니며&#160;상담을 받았다.&#160;이왕이면 예쁘게 가슴을 만들고 싶어서 아직도 수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br/><br/>여성성과 모성을 상징하는 유방에 암이란 병으로 위협 받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의학의 발달로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슴을 절제해 버리고 나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br/><br/>유방재건술의 방법은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술과, 가슴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 브라바를 이용하여 자가지방을 이식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하지만&#160;다양한 방법의 유방재건술이라도 환자 개개인에 피부 탄력도나 흉곽의 크기를 고려하여 가슴을 ‘아름답게’ 복원하는 것이 유방재건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br/><br/>최근 들어 유방절제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진행했던 유방암 환자들이 가슴의 모양과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외과를 찾고 있다. 가슴크기의 균형과 미적인 부분까지 충족하기 위해 유방재건 재수술을 받기 위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br/><br/>압구정 더성형외과 옥재진 박사는 “<span class='quot0'>그동안은 가슴재건수술을 대학학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부 성형외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형물을 사용한 재건수술은 물론, 까다롭고 고난도의 수술 실력을 필요로 하는 자가조직 재건수술, 대학병원급 시설과 수술력, 성형외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슴의 아름다움까지&#160;충족해 주기 때문에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span>”고 말한다.<br/><br/>또 “최근 유방재건술은 반대쪽 정상 가슴과 비슷한지, 본래의 가슴처럼 자연스러운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가 90~95% 달하고 있다”며 “유방재건술은 일반 미용개념인 가슴확대, 축소술과는 달리 수술대상이 유방암 환자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일반 건강한 환자보다 수술 중 신체 반응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숙련된 가슴분야 전문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유방재건술을 받을 경우, 직접 집도하여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상적인 가슴을 비대칭 없이 완성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로컬병원은 검진과 수술, 사후 관리까지 모두 한 번의 부담으로 해결되는 비용절감 효과와 병원에 따라 사후 무료 초음파 검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 각광받는 추세다.<br/><br/>옥재진 박사는 “유방재건술은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가슴을 재건하는 수술이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교해야 한다"며 "따라서 정확한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이 갖춰진 병원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2.txt

제목: [특집| 한국의 IT쇄국정책]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방안은 꼼수였나  
날짜: 2014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2100000029  
본문: “IT 강국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쯤에는 맞았다. 쇼핑몰이나 인터넷도 잘 되고…. 지금도 인프라는 잘 되어 있다. 인터넷 생태계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초반의 성공에 도취되어 생태계 진화에 발을 못 맞춘 것이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위원 겸 미디어 경영학 박사의 말이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에 대한 언급이다.<br/><br/>오랜 이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나오던 우려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기술 액티브x를 활용한 공인인증서가 처음 나온 것은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부터다. ‘초반쯤엔 맞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여건에서는 쇼핑몰 물건 구입이나 돈 이체 등에서 필수적인 보안, 즉 암호화기술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까지 최신 웹브라우저였던 인터넷익스플로어4에 적용된 암호화기술은 40비트와 128비트였는데, 미국 정부는 자국의 보안상 이유로 외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인터넷익스플로어를 40비트로 제한했다. 40비트로 만들어진 암호는 0부터 숫자를 차례로 대입하여 암호를 푸는 단순 해킹 기술로도 3시간 내외면 풀 수 있는 낮은 수준이다. 당시 국정원은 ‘SEED’라는 국내 표준암호를 민간과 함께 개발해 적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택한 플러그인이 액티브x였다.<br/><br/>왜 액티브x였을까. “쉬웠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이미 만들어진 모듈을 갖다 붙이면 끝이었기 때문이다.” 강 박사의 말이다. 처음 개발될 당시에 쉬운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종속형으로 시간을 벌었으면 그 다음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MS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어가 아니면 전자상거래도, 인터넷뱅킹도 할 수 없게 돼버린 한국 현실에 대한 개탄이다.<br/><br/>‘MS의 나라’가 돼버린 한국의 현실<br/>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암호기술팀장으로 당시 공인인증서 개발에 관여했다. 그도 지금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인인증서가 어떻게 ‘대세’가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곳은 지금은 해체된 정보통신부다. 한시적인 조직이었던 정보통신부로서는 차기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보안’이라는 아이템이었다. 보안 암호기술은 여럿이 있는데, 당시 정통부가 특히 주목한 것이 인증서 기술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서와 비슷하다.<br/><br/>정부가 뭔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 보인 것이다. 기왕 이 분야를 차기 먹거리로 삼는다면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야 하는데, 1000만명 보급운동을 벌이기 시작하게 되었고….” 김 교수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 적용된 인감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쓰게 되는 것이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는 정부가 주도한 공인인증서가 카드사 등 금융권에 아주 좋지 않은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다. “공인인증서가 안전한 수단이고, 보안사고가 생겨도 공인인증서를 쓰도록 했으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준 것이다. 이것이 큰 문제인 건 보안사고가 생겨도 그 책임을 사용하는 개인 탓으로 돌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br/><br/>“<span class='quot0'>금년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상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 7월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방안이다. 비록 온라인 계좌이체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외되었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실현되는 것일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명의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이라는 문건이 배포되었다. 이 문건을 읽다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br/><br/>추진 배경 설명에 이어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것이 “외국인의 ‘천송이코트’ 구매문제 해결 및 활성화”다. 해결책은 산업부와 무역협회의 외국인 전용 쇼핑몰(kmall24)의 개설이다.<br/><br/>이른바 천송이코트는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역을 맡은 톱스타 전지현이 입고 나온 코트를 말한다. 지난 3월 20일 진행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암덩어리 규제’의 예로 이 ‘천송이코트’를 들며,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국인이 구입하려고 한국 쇼핑몰에 접속하더라도 바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의 장벽에 가로막혀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동기자회견이 있던 7월 28일,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천송이코트를 언급할 당시, 외국의 간편결제서비스와 손잡은 국내 대형쇼핑몰에서 천송이코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예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당국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금융위는 경향신문 보도 다음날 반박자료를 내고 “<span class='quot1'>당시 3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을 대형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등이 없이 팔았다면 불법</span>”이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논쟁이다. 핵심은 국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인터넷익스플로어가 아닌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다른 브라우저로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게 가능해지느냐의 문제다.<br/><br/>외국인 전용쇼핑몰은 땜질식 처방<br/>“항상 그래 왔다. 면피성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강 박사의 말이다. 외국인 전용쇼핑몰을 만들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span class='quot1'>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의 젊은 사무관들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는다</span>”고 덧붙였다. “실제 미래부 사무관들을 만나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나 의무사용 폐지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윗선이다. 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결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제할 것이 있으면 비서나 부인이 다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야권의 핵심 정책담당자에게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 법 개정안을 들고 갔었다. 정통부 관료 출신인 이 분의 첫 반응은 이랬다. ‘아니, 왜 그 좋은 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까.’”<br/><br/>7월 28일 정부 부처가 내놓은 ‘간편화 방안’ 자료를 보면 “<span class='quot2'>9월부터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공인인증서’를 보급·확산시키겠다</span>”고 되어 있다. 보도자료에 맞춰 언론들은 “9월부터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쓴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9월부터면 지금부터 한 달 뒤다. 이렇게 쉽게 ‘퇴출’이 가능했는데 10년이 넘도록 논란을 유발하며 지속되어온 이유는 뭘까.<br/><br/>‘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공인인증서’ 개발을 담당하는 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정책과다. 과 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다. 4월부터 개발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다른 액티브x와 관계된 문제들은 인터넷정책과 소관이다. 그쪽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라.” 인터넷정책과에 확인해봤다. 그런데 이야기가 달랐다. 자신들이 8월에 하기로 한 내용은 “액티브x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있는지 관련 업계를 통해 알아보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관계부처 합동 방안’의 꼼수가 있다.<br/><br/>공인인증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띄우면 키보드 보안, 웹 방화벽 등 다른 액티브x 플러그인을 거래할 때마다 매번 설치해야 한다. 앞서의 플러그인이 실행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 묶음으로만 작동이 된다. 간단히 말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9월부터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3'>보급을 확산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업체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시점은 아직까지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못박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span class='quot0'>우리 부서에서는 금년 말까지라고 기한을 정해 넘겼었는데….</span>” 이른바 관계부처 합동 문서를 기자와 함께 확인한 미래부 관계자는 당황한 눈치다. 7월 28일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어쨌든 9월이 최종 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br/><br/>“솔직히 이번에는 개선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포털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라. 2009년부터 ‘다음달부터 개선, 간편 결제 추진된다’는 보도가 계속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는가.” 한창민 오픈넷 사무국장의 말이다.<br/><br/>그런데 뭔가 기시감이 느껴진다. 2007~ 2008년 아이폰의 한국 상륙이 2년 넘게 지체될 때의 논란과 판박이다. 심지어 아이폰의 도입을 두고 ‘다음달에는 들어온다’는 이른바 ‘담달 폰’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진 것까지 유사하다. 한국 IT의 쇄국정책, 갈라파고스적 진화라는 비난을 받았던 ‘위피의무탑재’와 똑같은 비난을 지금 ‘액티브x 공인인증서’가 받고 있다.<br/><br/>“<span class='quot0'>당국·금융계 굳이 바꿀 필요성 못 느껴</span>”<br/>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 간편 결제 ‘경험’이 이른바 해외 직구족들을 통해 확산되고, 아마존의 ‘원클릭’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대형 글로벌 쇼핑몰이 한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과 카드사 등 금융계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록 타기팅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코트’ 발언에 화들짝 놀라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왜일까. 2007~8년 위피의무탑재 폐지 논란 당시의 통신사와 정부 당국이 취했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말한다. “당시 피처폰 사업을 하던 통신사들과 IT 당국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스템에서도 돈을 잘 벌어왔거든요. 인증시장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금융당국 또는 IT 쇄국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퇴임해 다시 가는 곳이 이들 인증기관의 알짜배기 일자리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과 관료, 정치권 사이에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br/><br/>이른바 7·28 대책 이후 일부 경제지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이 불안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드사가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PG(Payment Gateway)사, 즉 인터넷 결제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에 넘기는 것은 규모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카드사나 금융권의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것일까. 올해 연말쯤이면 정부 당국 발표대로 공인인증서 대신 다른 결제수단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일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4'>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일부 금융권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은 남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을 개정하거나 여건을 만드는 일이지 강제할 수는 없는 일</span>”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금융업계의 ‘저항’과 관련해서도 그는 “<span class='quot4'>비유적으로 말하면 아직 아무도 안 간 길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4'>국회에서의 법적인 이슈, 금융권의 관행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span>”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3.txt

제목: 주말밤 22만명, 음악의 향연에 젖다  
날짜: 2014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1100000041  
본문: 대형 공연 3제가 9일 주말 서울 공연가를 장식했다. 이날 서울 소재 3대 공연장으로 꼽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올림픽주경기장, 잠실 실내체육관이 모두 음악 팬으로 가득 들어차는 이례적인 현상이 빚어졌다. 주말 동안 22만여 명의 관객이 가수들의 음악을 향유했다. 싸이를 비롯해 오즈 오스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경우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음악페스티벌 ‘시티브레이크’에 출연해 흥겨운 공연 무대를 풀었고, JYP엔터테인먼트의 합동 공연물로 유명한 ‘JYP네이션’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화려한 성찬을 마련했다. 또 다른 대형 스타디움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는 그룹 JYJ가 3년 만에 팀 컴백 공연을 갖고 월드 투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br/><br/>풍성했던 세 음악 향연의 현장과 분위기를 정리한다. <br/><br/>■ 여름은 뭐니해도 ‘록페’! 시티브레이크2014<br/><br/>올해 주요 록페스티벌로 꼽히는 시티브레이크는 자칭 ‘국제가수’ 싸이와 헤비메탈계 거물인 오지 오스본의 농익은 무대가 압권이었다.<br/><br/>당초 이 공연을 즈음해 컴백곡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싸이는 9일 컴백과 맞물리는 공연 대신 자신의 히트곡을 바탕으로 한 공연으로 좌중을 사로잡았다. <br/><br/>‘라잇 나우’를 필두로 ‘연예인’ ‘새’ ‘낙원’ ‘위아더 원’ ‘강남스타일’ ‘여행을 떠나요’ 등 10여 곡의 노래를 잇따라 불러갔다. 싸이 특유의 여름 공연 브랜드인 ‘흠뻑쇼’를 연상케하는 각종 물 이벤트도 동원됐다. 싸이는 아쉽지만 지난달 내놨던 힙합곡 ‘행오버’의 무대를 펼치지는 않았다. 싸이는 신곡 ‘대디’의 뮤직비디오 작업을 끝내는 대로 화려한 컴백을 준비한다. <br/><br/>싸이를 뒤이어 나왔던 오지 오스본은 65세 노익장을 과시하며 팬과 교류했다.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헤비메탈의 제왕답게 무대를 폭넓게 쓰며 날카로운 고음의 음악을 시종 던져댔다. 소화전을 방불케하는 물호스를 들고 곳곳을 향해 뿌려대는 형상도 흥미를 일으켰다.<br/><br/>이날 공연에는 밴드 데프톤즈, 후바스탱크 등을 비롯해 넬, 더네이버후드 등의 뮤지션이 연달아 무대에 섰다. <br/><br/>■ 모여라 패밀리! JYP네이션 <br/><br/>JYP네이션은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30여 명이 모여 만드는 합동 공연이다. 2년 만에 소개된 올해 공연에는 ‘원 마이크’라는 부제가 붙었다. 9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막을 올린 공연에는 수장 박진영을 포함, 그룹 2AM, 2PM, 미쓰에이, 갓세븐, 선미, 핫펠트(예은), 백아연, 15&, 버나드박 등이 출연해 풍성한 볼거리의 무대를 선보였다.<br/><br/>이 음악 레이블 회사에서 쏟아낸 수많은 히트곡 무대뿐 아니라 가수끼리의 협업 무대도 돋보였다. <br/><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하나의 마이크로 JYP 소속 아티스트들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콘서트 부제를 ‘원 마이크’로 지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협업 무대로 합동 콘서트만의 색다른 재미를 주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br/><br/>암전된 무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가수는 ‘JYP’ 박진영이었다. ‘날 떠나지마’의 전주를 키보드 애드리브 연주로 소화한 박진영에 이어 갓세븐, 버나드박, 2PM, 2AM, 15&, 백아연, 선미, 미쓰에이, 핫펠트 등 출연진이 차례로 등장했다. 특별 게스트 출연으로 주목을 끈 버나드박은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와 ‘대낮에 한 이별’을 함께 불렀다. 이외에도 백아연과 그룹 갓세븐 마크·잭슨·뱀뱀의 ‘어 굿 보이’, 그룹 2AM 슬옹과 백아연의 ‘그대네요’, 백예린·2AM 조권·2PM 준케이의 ‘문득’ 등 특색 있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비롯해 JYP 소속 가수들의 히트곡 무대가 연이어 펼쳐졌다.<br/><br/>가수들은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올라 ‘10점 만점에 10점’ ‘그녀는 예뻤다’ ‘핸즈 업’을 합창하며 ‘JYP네이션- 원 마이크’의 서울 공연을 성황리에 마감했다.<br/><br/>10일 서울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 차례 더 열린 ‘2014 JYP네이션- 원 마이크’는 이후 오는 30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 9월5일~7일 일본 도쿄 국립 요요기 제 1체육관에서 각각 해외 투어 일정을 이어간다<br/><br/>■ 뭉치니 더 강한 JYJ<br/><br/>각자 개별 활동에 매진하던 JYJ의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더 리턴 오브 더 킹’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세우고 3년 만에 팬과 재회했다. <br/><br/>모처럼 진행되는 공연을 국내외 팬들은 크게 반겼다. 공연 내내 환호성을 지르며 재회의 순간을 만끽했다.<br/><br/>이날 ‘비 마이 걸’ ‘인 헤븐’ ‘발렌타인’ 등 JYJ의 대표곡이 수시로 울려펴졌다.<br/><br/>팬뿐 아니라 가수들의 감격도 남달라 보였다. 박유천은 “<span class='quot1'>함께 뭉쳐 더욱 아름답지 않느냐</span>”라고 컴백 소감을 피력했다. <br/><br/>개별 활동으로 쌓은 이질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코너는 흥미로웠다. 김준수와 김재중, 박유천은 각자의 솔로곡과 솔로 무대를 선보이며 늘어난 기량을 과시했다.<br/><br/>김준수는 최근 자신들의 노래 ‘백시트’가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판정을 받은 데 대해 “<span class='quot2'>방송 정지를 당했지만, 안 그래도 못 올라간다</span>”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SM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지만 여전히 방송 출연이 원할치 않음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10일 오후 JYJ는 SBS <인기가요>에 1위 후보로 올랐지만, 방송 출연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br/><br/>김재중은 “<span class='quot3'>방송을 떠나 팬들에게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 기쁘고 특별하다</span>”고 말했다.<br/><br/>올해 10주년을 맞은 JYJ는 “<span class='quot4'>우리를 따라와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span>”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인사했다. JYJ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홍콩, 상하이 등 해외 8개국을 도는 투어를 이어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4.txt

제목: 재미동포, 25년 만에 ‘친딸 살해 혐의’ 누명 벗어  
날짜: 20140811  
기자: 고영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1100000063  
본문: “<span class='quot0'>제가 왜 딸을 죽이겠습니까.</span>”<br/>미국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한탁씨(79)가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br/>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씨에게 내려졌던 방화·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를 120일 안에 재기소하거나 석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검찰이 198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백을 호소해온 이씨는 올해 중 펜실베이니아 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br/>철도고와 연세대를 거쳐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78년 뉴욕으로 간 이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평범한 이민자였다. 하지만 1989년 7월29일 큰딸 지연씨(당시 20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다. <br/>당시 이씨는 탈출했지만 지연씨는 수양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방화 혐의를 제기했고, 누전 등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화재 전문가들의 조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씨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조차 “<span class='quot1'>우울증을 앓던 딸이 자살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킨 것</span>”이라며 방화에 무게를 뒀다. 결국 “우울증을 앓던 딸과 관계가 좋지 않던 이씨가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그의 셔츠와 바지에 묻어 있는 발화성 물질이 그 증거”라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종신형이 선고됐다. 동포들이 꾸린 구명위원회는 “<span class='quot2'>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채 재판이 진행됐다</span>”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r/>이후 이씨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우리 지연이를 죽이겠나”라면서 누명을 벗기 위해 변호사를 4차례나 바꿔가며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의 부인은 뉴저지에서 외롭게 암과 싸우는 등 이씨 가정의 시련은 깊어져만 갔다. <br/>그러나 2012년 항소법원이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씨 사건을 맡은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는 “검찰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그의 옷에 묻은 발화물질이 모두 다르다”는 화재 감식 전문가 존 렌티니 박사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한 뒤 하급법원에 ‘증거심리’를 명령했다. 지난 5월29일 열린 증거심리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증거가 과학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했고, 결국 법원이 유죄평결을 무효화했다.<br/>이씨를 기소했던 검사는 “<span class='quot3'>시간이 너무 지나서 재기소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신중히 재검토하고 결정하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5.txt

제목: 재미동포, 25년 만에 ‘친딸 살해 혐의’ 누명 벗어  
날짜: 2014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101001552581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이한탁씨, 미 법원서 ‘유죄평결 무효’ 판결받아</strong><!-- SUB\_TITLE\_END--><br/><br/>“<span class='quot0'>제가 왜 딸을 죽이겠습니까.</span>”<br/><br/>미국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한탁씨(79)가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br/><br/>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씨에게 내려졌던 방화·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를 120일 안에 재기소하거나 석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검찰이 198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백을 호소해온 이씨는 올해 중 펜실베이니아 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br/><br/>철도고와 연세대를 거쳐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78년 뉴욕으로 간 이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평범한 이민자였다. 하지만 1989년 7월29일 큰딸 지연씨(당시 20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다. <br/><br/>당시 이씨는 탈출했지만 지연씨는 수양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방화 혐의를 제기했고, 누전 등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화재 전문가들의 조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씨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조차 “<span class='quot1'>우울증을 앓던 딸이 자살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킨 것</span>”이라며 방화에 무게를 뒀다. 결국 “우울증을 앓던 딸과 관계가 좋지 않던 이씨가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그의 셔츠와 바지에 묻어 있는 발화성 물질이 그 증거”라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종신형이 선고됐다. 동포들이 꾸린 구명위원회는 “<span class='quot2'>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채 재판이 진행됐다</span>”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r/><br/>이후 이씨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우리 지연이를 죽이겠나”라면서 누명을 벗기 위해 변호사를 4차례나 바꿔가며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의 부인은 뉴저지에서 외롭게 암과 싸우는 등 이씨 가정의 시련은 깊어져만 갔다. <br/><br/>그러나 2012년 항소법원이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씨 사건을 맡은 변호사 피터 골드버거는 “검찰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그의 옷에 묻은 발화물질이 모두 다르다”는 화재 감식 전문가 존 렌티니 박사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한 뒤 하급법원에 ‘증거심리’를 명령했다. 지난 5월29일 열린 증거심리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증거가 과학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했고, 결국 법원이 유죄평결을 무효화했다.<br/><br/>이씨를 기소했던 검사는 “<span class='quot3'>시간이 너무 지나서 재기소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신중히 재검토하고 결정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6.txt

제목: [책과 삶]‘거리 인문학자’의 마지막 결론, 자유에 대하여  
날짜: 2014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9100000024  
본문: ▲ 인문학은 자유다…얼 쇼리스 지음·박우정 옮김 | 현암사 | 464쪽 | 2만원<br/>저자의 이름이 낯익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의 주창자인 얼 쇼리스는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다. 2005년 이화여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강연했고, 이듬해에는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같은 해에 그의 저서 <희망의 인문학>(이매진)이 국내에 번역 출간돼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쇼리스는 말기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며 ‘인문학 전도사’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고 2012년 5월27일 타계했다. <인문학은 자유다>는 그의 유작이다. <br/>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쇼리스는 인문학의 핵심을 자유로 요약한다. 책의 원제는 ‘The Art of Freedom’이다. 자유야말로 그가 도달한 마지막 결론인 셈이다. 이 책은 그가 설립한 인문학 과정인 ‘클레멘트 코스’의 준비에서부터 시작, 세계 곳곳에서 이 코스를 실시한 사례와 경험을 에세이적 문체로 풀어놓고 있다. 미국 시카고와 오클라호마, 매사추세츠 등을 비롯해 캐나다의 헬리팩스와 멕시코의 마야마을, 알래스카의 추피크족과 유피크족, 수단 다르푸르의 난민촌 등 세계 여러 곳에서의 경험을 들려준다. 교수와 학생들의 면모, 수업 내용과 그에 따른 반응 등 시시콜콜하면서도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진다.<br/>애초에 그는 ‘인문학 전도사’가 아니었다.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진 언론인이자 사회비평가였다. 그가 인문학 교육자로 변신해 클레멘트 코스를 만든 계기는 우연하고 놀랍게 찾아왔다. 1995년 어느날, 쇼리스는 뉴욕시 북부의 베드퍼드힐스 교도소를 찾았다. 빈곤과 관련해 책을 쓰고 있던 그는 수년 동안 수백명을 인터뷰해 빈곤의 원인과 이론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빈곤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교도소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했다.<br/><br/>“<span class='quot0'>생기 없는 눈동자에 얼굴에 기미가 낀 그녀</span>”의 이름은 비니스 워커였다. 쇼리스가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묻자 그녀는 “정신적인 삶을 누리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빠르고 단조로운 말투였다. “정신적 삶이 무슨 뜻이냐?”고 재차 묻자 “<span class='quot0'>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span>”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정신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도심으로 데려가 연극, 박물관, 공연, 강연을 보고 듣게 하는 겁니다.”<br/>인문학을 공부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빈곤 탈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영 떠나지 않았던 쇼리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해 추잡함, 폭력, 굶주림,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 클레멘트 코스를 개설한다. 도덕철학, 예술사, 역사, 문학, 논리학의 고전을 함께 읽는 프로그램이었다. 쇼리스는 다시 교도소를 찾아가 작은 방에서 그녀와 마주한다. 도서 목록을 죽 불러주자 그녀가 예의 시큰둥한 말투로 말한다. “빠진 게 있어요.” “뭐죠?”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가 빠졌어요.” “좋아요. 동굴의 비유로 이 과정을 시작할게요.”<br/>클레멘트 코스의 첫발을 내디딘 지역은 뉴욕이었다. 쇼리스는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사유를 확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택했다. 그가 타계하던 2012년까지 17년간 클레멘트 코스는 캐나다, 멕시코, 알래스카, 호주 등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번듯한 강의실이 아니어도 수업은 이뤄졌다. 산골 오지, 교도소, 노숙인 센터, 시위 현장, 이주민 밀집 지역 등에서도 진행됐다. <br/>책에는 난관의 기록들도 적지 않다. 뉴욕에서는 입학 거부를 당한 학생이 클레멘트 센터에 불을 질렀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옥·살해되던 가나에서는 클레멘트 코스를 체제 전복 활동으로 여겼다. 쇼리스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백한다.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진행한 코스에서는 사랑의 힘을 간과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사랑이야말로 인문학의 정수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는다. 물론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도 적었다. 한데 아쉬운 것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시시콜콜한 인상기에 대체로 머물고 말았다는 점이다.<br/>가난한 이들을 위해 희망의 인문학을 설파한 쇼리스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굴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이다. 그 자유를 향한 사랑, 아울러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라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부자들은 인문학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인문학이 정치적으로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7.txt

제목: [건강]병 달고 사는 우리 엄마, 포괄적 검사 받아야겠네  
날짜: 20140808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8100000050  
본문: 한국인은 죽기 전까지 평균 10년 이상 질병을 앓는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을 제외한 주요 사망원인 중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천식 등 만성질환이 두드러진다. 2012년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전체 진료비 중 34.4%를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했다.<br/>평균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건강한 장수가 아니라 질병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로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br/>서울 서남병원 이홍수 백세건강센터장은 “<span class='quot0'>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수명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사회가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노인 대다수는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보통과 다른 임상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인 검사와 연속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br/>이홍수 센터장은 “<span class='quot1'>기억력이 떨어지고 체중의 변화가 있으며, 식욕이 떨어지거나 잘 먹지 못하는 증세가 생기면 노인포괄평가를 받아 전반적인 몸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우울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지며 소변 보기가 불편한 증상을 비롯해 서너 가지 증상이 겹친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노인포괄평가란 신체적 건강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자의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한 뒤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의료를 말한다. 옷입기, 양치질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관한 것부터 물건 사기, 금전 관리 등 복잡한 과제 해결능력을 평가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표 질환인 치매를 고려해 인지기능평가도 진행한다. 인지기능 저하는 단순히 기억력 감퇴 등 뇌기능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곧바로 악영향을 준다.<br/>여러 연구논문과 전문의들은 만성질환이 상당수 잘못된 식이와 운동 부족으로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물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다.<br/>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노인 대다수가 만성질환으로 약을 많이 먹다보니 처방한 약을 먹지 않거나 잘못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 복용지도가 꼭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와 함께 영양섭취, 운동요법 등 교육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서남병원 백세건강센터에 등록을 하면 노인포괄평가 검사(무료) 후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영양 처방 및 교육, 고혈압·당뇨·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관리 무료교육인 백세건강교실에도 다닐 수 있다. 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처방약에 대한 복용지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8.txt

제목: [이보형 원장의 몸짱으로 100세까지]‘하루 1시간 9가지 운동’ 심혈관·혈압 걱정 ‘뚝’  
날짜: 2014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7100000031  
본문: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0명 중 3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사망자 수를 합치면 1위로 암만큼이나 사망자 수가 많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암 등 다른 병과 달리 심혈관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중년들은 더욱 경계해야 할 질병이다. 스포맥스 건강기능연구원 대표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보형씨가 실버 세대를 위해 하루 1시간, 9가지 헬스 동작만으로 심혈관과 혈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시연은 미스터코리아 출신 ‘몸짱할배’ 김종곤씨(69)가 맡았다. <br/><br/>성인병 물리치는 메디컬 트레이닝<br/><br/>1회 면역력 높이는 1일 1시간 운동코스 <br/><br/>2회 하루 40분! 암 예방 8가지 근력운동 <br/><br/>3회 심혈관·혈압 환자 ‘해라 vs 하지마라’<br/><br/>4회 당뇨 합병증 예방·대사 회복 운동 <br/><br/>■심혈관·혈압을 관리하는 9가지 운동 <br/><br/>런지-얼티네이트 덤벨 프레스-풀 다운-카프 레이즈-시티드 체스트 프레스-시티드 로-스쿼트-스탠딩 덤벨 리스트 컬-시티드 벤트 레그 레이즈<br/><br/>■운동방법 <br/><br/>심혈관이나 혈압이 걱정인 사람은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트레이너를 찾는다. 동작마다 20번 할 수 있는 무게로 10번만 시행하되, 가급적 중간에 휴식 없이 9가지 동작(1세트)을 모두 마친 뒤 2~3분 쉰다. 운동 배열이 틀리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순서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2주마다 1세트씩 늘려가고 3세트 이상은 하지 않는다. 동작마다 기구의 무게를 달리 할 것. <br/><br/>심혈관계와 혈압은 한집안 식구다. 안보이면 궁금하고, 보이면 서로 다투기도 한다. 심혈관 질병을 낳는 주요 원인은 흡연, 폭음,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다. 그중 문제의 발단은 지나친 육류의 섭취다. 육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높아진 혈액의 농도로 인해 좁아진 혈관벽은 상당한 압력을 받는다. 특히 혈관이 2개의 가지로 갈라진 부분이 강한 충격을 받아 손상이 더 쉽고, 이에 상한 혈관의 면역세포 매크로파지가 이를 보강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침착을 더욱 촉진시킨다. <br/><br/>심혈관계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과격한 운동은 금물이다. 신체 안정 시 5ℓ의 혈액이 50초 만에 몸 한 바퀴를 돈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1분당 20ℓ에 가까운 혈액이 12초 만에 몸 한 바퀴를 돈다. 이런 초스피드의 혈류로 동맥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지고 동맥은 더 빨리 상하게 된다. 신체가 응급조치로 콜레스테롤을 침착시키는 수리 과정을 거치며 악순환은 계속된다. 이는 심장이나 뇌 등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동작의 가장 힘든 부분인 사점(dead point)에 가까울수록 목의 내부가 닫히고 횡경막이 위로 올라가며 심장의 아래 정맥이 압박을 받으면서 혈압이 순간 올라가게 된다. 기구를 들어 올릴 때 또는 밀 때 혈압이 많이 오른는 것이다. 중년일수록 이런 상황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br/><br/>심혈관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근력이나 파워, 근지구력을 키울 수 있으나 각 세트 사이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 기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휴식 시간 없이 운동을 이어가는 방법이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이다. 단순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보다 심박 수가 증가하고 에너지 요구량이 많다. 연구에서도 1회성 운동의 급성효과에서 수축기 혈압이 운동 후 12시간까지 감소한 사례도 있다. <br/><br/>또 한가지 심혈관 질병이 의심되는 중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피트니스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PT운동과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근력운동에는 ‘운동 단위’라는 것이 있다. 10번을 겨우 할 수 있는 무게로 동작을 시행할 때 10번에 가까워 질수록 아주 작고 약한 운동 단위가 적용되는데 이때 혈압을 급상승시킨다. 그러므로 5~6번 이내에서 동작을 멈춰야 한다. 또 절대로 중간에 호흡을 멈춰서는 안된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은 차지만 호흡을 계속 해야 하는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br/><br/>심혈관에 좋은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은 운동 종목 몇 가지를 나열해 순환하는 방식이다. 이때 운동을 하는 주동근과 반대 근육인 길항근의 배열이 매우 중요하다. 배열이 틀려지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 혈압상승폭은 다리보다는 팔 운동에서 더 높게 나타나므로, 가급적 상체를 앞으로 숙였을 때 몸에 부하가 담겨지는 동작은 주의를 요한다. <br/><br/>■이보형 원장은<br/><br/>대한보디빌딩협회 전 부회장이자 스포맥스 건강기능연구원 대표원장으로, 건강 기능에 대해 연구 중이다. 1974년 대한민국 미스터 코리아가 됐다. 방송에 다수 출연하는 등 꾸준한 업계 활동으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2012년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 초청 학술발표 및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지만 넘치는 에너지로 미스터 코리아 대회 진행을 전담하고 있다.<br/><br/>사진 스포맥스·의상협찬 리복 휘트니스, 머슬마니아 한국지부(프로모터 김근범 www.musclemania.kr)·장소협찬 레이노 토탈 휘트니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09.txt

제목: 액션 블록버스터 지겹다면… 잔잔한 ‘감동’에 젖어보자  
날짜: 2014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7100000047  
본문: ■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br/>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이 여름을 맞아 찾아온다.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 <미드나잇 인 파리> <로마 위드 러브> 등은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며 국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매직 인 더 문라이트>는 192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마법’이라는 색다른 요소가 가미됐다. 배우 콜린 퍼스가 중국인 스타마술사 웨이링수를, 엠마 스톤이 심령술사 소피로 등장한다. 웨이링수는 심령술사인 소피가 영혼을 불러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소피의 정체를 밝히려던 웨이링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영화는 1920년대 남부 프랑스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당시 유행했던 프렌치룩과 자동차, 찻잔 등의 소품은 소품팀이 전 세계를 돌며 수집해 재현해낸 것이다. 이 밖에도 암에 걸린 18세 소녀와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안녕, 헤이즐>, 음악영화 <원스>의 존 카니 감독이 만든 음악영화 <비긴 어게인> 등이 8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br/><br/>■ 성장통을 겪는 청춘들<br/>오는 14일 개봉하는 <18:우리들의 성장느와르>는 1990년대 말 남자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 동도(이재응)는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 현승을 만나면서 평범하던 생활에 변화를 겪는다. 동도는 무리에 섞여 부천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소주를 마시며 난생처음 해보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남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존재하는 역학관계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대 말 당시 유행했던 떡볶이 코트, 듀스의 음악 등의 배경이 추억을 불러일으킨다.<br/>영화 <숫호구>와 <족구왕>은 20~30대 청년들의 모습을 발랄하게 담아냈다. <숫호구>는 서른 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해본 청년 원준이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몸매와 얼굴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만화 같은 이야기다. <족구왕>은 보잘것없는 스펙을 가진 24살 대학생 홍만섭이 캠퍼스 족구대회에 나가는 내용이다.<br/><br/>■ 싱그러운 자연과 인간<br/>지난달 말 개봉한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허브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싱그러움을 주는 영화다. 말을 하지 못하는 폴은 어릴 적 부모를 잃은 후 두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마담 프루스트가 자신의 집에 꾸며놓은 작은 정원을 방문하게 된다. 폴은 마담 프루스트가 키우는 작물로 우려낸 차를 먹고 과거의 상처와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영화는 프랑스 영화 특유의 발랄하면서도 엉뚱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2011년 애니메이션 <일루셔니스트>로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실뱅 쇼메의 작품으로, 동화를 보는 것 같은 색감과 설정들로 가득하다.<br/>북유럽 원시림을 8년 동안 관찰해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숲의 전설>,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만든 김진만-김정민 PD가 제작한 곤충 다큐멘터리 <곤충왕국 3D> 등의 영화는 스크린에 자연을 그대로 담아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0.txt

제목: 액션 블록버스터 지겹다면… 잔잔한 ‘감동’에 젖어보자  
날짜: 2014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61001492352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동화 같은 사랑·성장통 청춘·싱그러운 자연 영화 ‘눈길’</strong><!-- SUB\_TITLE\_END--><br/><br/><b>■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b><br/><br/>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이 여름을 맞아 찾아온다.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 <미드나잇 인 파리> <로마 위드 러브> 등은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며 국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매직 인 더 문라이트>는 192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마법’이라는 색다른 요소가 가미됐다. 배우 콜린 퍼스가 중국인 스타마술사 웨이링수를, 엠마 스톤이 심령술사 소피로 등장한다. 웨이링수는 심령술사인 소피가 영혼을 불러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소피의 정체를 밝히려던 웨이링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영화는 1920년대 남부 프랑스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당시 유행했던 프렌치룩과 자동차, 찻잔 등의 소품은 소품팀이 전 세계를 돌며 수집해 재현해낸 것이다. 이 밖에도 암에 걸린 18세 소녀와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안녕, 헤이즐>, 음악영화 <원스>의 존 카니 감독이 만든 음악영화 <비긴 어게인> 등이 8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br/><br/><br/><br/><b>■ 성장통을 겪는 청춘들</b><br/><br/>오는 14일 개봉하는 <18:우리들의 성장느와르>는 1990년대 말 남자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 동도(이재응)는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 현승을 만나면서 평범하던 생활에 변화를 겪는다. 동도는 무리에 섞여 부천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소주를 마시며 난생처음 해보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남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존재하는 역학관계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대 말 당시 유행했던 떡볶이 코트, 듀스의 음악 등의 배경이 추억을 불러일으킨다.<br/><br/>영화 <숫호구>와 <족구왕>은 20~30대 청년들의 모습을 발랄하게 담아냈다. <숫호구>는 서른 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해본 청년 원준이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몸매와 얼굴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만화 같은 이야기다. <족구왕>은 보잘것없는 스펙을 가진 24살 대학생 홍만섭이 캠퍼스 족구대회에 나가는 내용이다.<br/><br/><br/><b>■ 싱그러운 자연과 인간</b><br/><br/>지난달 말 개봉한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허브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싱그러움을 주는 영화다. 말을 하지 못하는 폴은 어릴 적 부모를 잃은 후 두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마담 프루스트가 자신의 집에 꾸며놓은 작은 정원을 방문하게 된다. 폴은 마담 프루스트가 키우는 작물로 우려낸 차를 먹고 과거의 상처와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영화는 프랑스 영화 특유의 발랄하면서도 엉뚱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2011년 애니메이션 <일루셔니스트>로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실뱅 쇼메의 작품으로, 동화를 보는 것 같은 색감과 설정들로 가득하다.<br/><br/>북유럽 원시림을 8년 동안 관찰해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숲의 전설>,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만든 김진만-김정민 PD가 제작한 곤충 다큐멘터리 <곤충왕국 3D> 등의 영화는 스크린에 자연을 그대로 담아냈다.<br/><br/><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1.txt

제목: ‘사고 당시 장관’ 김관진 실장 문책론 확산  
날짜: 2014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51001491500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책임 안 물으면 국민 용납 안해”… 야당 주장에 여당도 수긍</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군 수뇌부 무관심 탓 사고 안 끊겨… 국방부, 은폐 의혹 감사</strong><!-- SUB\_TITLE\_END--><br/><br/>국방부는 5일 28사단에서 폭행·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 수뇌부의 병사들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가 드러난 만큼 대대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br/><br/>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0'>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늘부터 일주일가량 28사단과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을 상대로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감사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처음 접했다고 언급하고,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나서야 사건의 참혹성이 알려지는 등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br/><br/>하지만 육군은 이날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 자문을 구하자고 국방부 검찰단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커가는데 여전히 ‘군내 해결’ 고집을 부린 셈이다.<br/><br/>사건 발생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육군부대 정밀 진단,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윤 일병 사망사건 경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사의 사망 자체에는 무관심했다는 방증이다.<br/><br/>병사들이 ‘값싼 목숨’ 취급을 받은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2011년 12월에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 몫으로 들어온 조의금을 군 간부들이 빼돌려 회식비·격려금으로 써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고 당시에도 사고 발생 뒤 1시간30분이 넘어서야 의료 인력이 도착해, 살릴 수도 있었던 생명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때도 군의 부실한 응급치료 체계가 도마에 올랐지만 공염불이었다.<br/><br/>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병사를 5개월 동안 방치해 뒤늦게 뇌종양 판정을 받게 하거나 악성 종양 환자인 병사를 7개월이나 방치해 말기암 환자로 만드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일선 전투원인 병사들 생명에 대한 군 수뇌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없으면 비극은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br/><br/>윤 일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책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보고 누락이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휘체계 최정점에 있던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되면서다.<br/><br/>야당은 전날에 이어 김 실장을 정조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사단장만 보직해임 징계로 끝내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군단장, 참모총장, 당시 장관이 책임 사퇴하지 않으면 재발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김 실장 책임론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span class='quot1'>(야당이)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본다</span>”고 말했다.<br/><br/><a href="http://news.khan.co.kr/event/poll2014/" target="\_blank"><strong>☞ 국민이 뽑은 ‘드림내각’ 바로가기</strong></a><br/><br/><황경상·정환보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2.txt

제목: '과잉검진' 논란 갑상선암, 건강보험 진료비 4년새 2배로 급증  
날짜: 2014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410014900508  
본문: 과잉검진 논란에 휩싸인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4년 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못 하도록 권고안을 만들려는 가운데 나온 통계자료이다.<br/><br/>이에 따라 사망률 감소 등 조기검진의 효과가 불투명한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제한하는 정부의 검진 권고안 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br/><br/>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갑상선암(상병기호 C73) 청구건수와 금액자료(2009~2013년)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9년 1224억원, 2010년 1579억원, 2011년 1767억원, 2012년 2071억원, 2013년 2211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09년과 비교해 2013년에는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br/><br/>갑상선암 요양급여비 청구건수도 2009년 67만1771건에서 2010년 80만2716건, 2011년 93만3161건, 2012년 133만2282건, 2013년 149만822건 등으로 급증했다. 청구건수 역시 2009년 67만건에서 2013년 149만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br/><br/>환자 자신이 내는 의료비도 만만찮게 늘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9년 163억원에서 2010년 125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1년 169억원으로 늘었고 2012년 203억원, 2013년 227억원 등으로 껑충 뛰었다.<br/><br/>현재 국내에서는 갑상선암 과다진단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 3월 중순에는 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갑상선암 과다진단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br/><br/>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달 중순 토론회를 열어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에게는 갑상선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br/><br/>중앙암등록본부의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발생해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다.<br/><br/>지난 30년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해 갑상선암은 2007년부터 위암을 밀어내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증가속도도 가파르다.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았다.<br/><br/>반면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3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 갑상선암 사망률은 1999년 0.6명, 2002년 0.7명, 2008년 0.8명, 2010년 0.7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가장 유력한 갑상선암 급증 원인으로 초음파 등과 같은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조기 진단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3.txt

제목: [책과 삶]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서 찾은 삶과 존재의 본질  
날짜: 2014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2100000024  
본문: ▲ 무의미의 축제…밀란 쿤데라 지음·방미경 옮김 | 민음사 | 152쪽 | 1만3000원<br/>농담할 자유는 어떤 종류의 자유보다도 전위적이다. 보통 별 의미 없는 언행인 농담과 장난은 삶에 없어도 무방하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 이념, 도덕, 권위, 상식 등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를 농담 같은 사건으로 폄훼하고 전복하는 것은 밀란 쿤데라가 <농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불멸> <느림> 등 전작에서 보여온 오랜 문학적 태도였다.<br/>올해 85세인 그가 내놓은 장편소설 <무의미의 축제>는 농담이 힘을 잃어가는 세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담고 있다.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없고, 개조할 수도 없고, 한심하게 굴러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어.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지만 내 눈에는 우리 장난이 힘을 잃었다는 게 보인다.” 엄숙한 의미의 세상에서 농담이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장난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소설 속 인식은 우리네 현실과도 겹친다.<br/>이야기는 알랭, 라몽, 샤를, 칼리방 네 친구의 기승전결 없는 일상과 대화, 그들이 지어낸 스탈린과 그 협력자들이 등장하는 극 두 축으로 진행된다. 여성들이 모두 비슷하게 생긴 배꼽을 새로운 에로티시즘의 매개처럼 드러내는 모습에서 알랭은 단 하나의 의미와 목표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세계의 징후를 발견한다. 그러나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의미’를 전하려는 시도는 ‘어둠 속의 도약’처럼 대부분 실패한다.<br/>다르델로는 항상 돋보이길 원하고 진중한 척하지만 그의 전 직장동료 라몽은 ‘머저리’로 여긴다. 라몽이 그를 처음 진심으로 친근하게 느끼는 건, 다르델로가 멀쩡한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이유 없이 내뱉은 거짓말에 속은 뒤다. 다르델로는 여자를 꼬드기기 위해 세련된 기교를 활용하지만, “평범하고 흥미롭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말로써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카클리크에게 여자를 빼앗긴다. 남편이 죽어 슬프다는 프랑크 부인은 입 속에 빵과 살라미를 끊임없이 밀어 넣으면서 “인간은 고독 그 자체일 뿐”이라고 말한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라몽은 비웃지만, 그에게 비웃음을 당한 순간 프랑크 부인은 진정으로 고독한 인간이 돼 버린다.<br/>소설은 차라리 보잘것없고 하찮고 우습게 여겨지는 무의미한 행위가 거대한 의미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그린다. 의미는 본래 의도와 무관한 순간에 구성된다. <br/>스탈린은 그가 점령한 프로이센의 도시 이름을 동료 미하일 칼리닌 소비에트 의장 이름을 따서 ‘칼리닌그라드’로 지었다. 둘 사이에 무슨 위대한 우정이 있었던 건지 쿤데라가 지어낸 이야기를 보자.<br/><br/>스탈린은 자주 요의를 느끼는 늙은 칼리닌이 화장실에 못 가게 일부러 이야기를 길게 늘어뜨린다. 결국 칼리닌은 회의석에서 바지에 오줌을 싼다. 음모와 배신, 투옥, 암살 같은 것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스탈린은 연민의 능력이 마비됐지만, 그가 무의미하게 칼리닌을 괴롭히는 동안 고통받는 자에 대한 애정, 오래 잊었던 그 감정이 되살아난다. “팬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괴로움을 견딘다는 것… 청결의 순교자가 된다는 것 (…) 이보다 더 비속하고 더 인간적인 영웅적 행위가 존재하겠냐? 나는 우리 거리들에 이름을 장식한 이른바 그 위인이라는 자들은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은 야망, 허영, 거짓말, 잔혹성 덕분에 유명해진 거야.” 또 스탈린은 동료들이 그의 농담을 과장된 거짓말로 오해해 비웃은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거대한 꿈과 의지를 버린다.<br/>이처럼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러나 획일적으로 추앙하는 가치를 부정한 뒤, 독창적 정의로 정곡을 찌르는 쿤데라의 익살과 지성은 세월에 빛바래지 않았다. 신성불가침 같은 인권이 포괄하지 못하는 인간 실존의 영역을 발견한 부분도 흥미롭다. “모두가 인간의 권리에 대해 떠들어 대지. 얼마나 우습니! 너는 무슨 권리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 못생겼다는 것, 그것도 역시 인간의 권리에 속하나? 한평생 짐처럼 추함을 짊어지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너는 아니? (…)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란 그저 아무 쓸데없는 것들에만 관련되어 있어, 그걸 얻겠다고 발버둥치거나 거창한 인권선언문 같은 걸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br/>모든 게 무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심하는 것은 냉소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수가 별 볼 일 없다며 내버려둔 것들에서까지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 그걸 인정하려면, 그리고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br/>언뜻 작가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것처럼 보이는 라몽의 이 말조차 사실 소설 속에서는 대상에게 별 인상을 못 준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지어낸 무의미한 거짓말이 위로를 전한다. <무의미의 축제>는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 위태롭게 설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를 축제처럼 즐기라고 전하는 것 같다. 이 책에서 몇 가지 의미를 추리려는 것도 무의미한 일일지 모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4.txt

제목: “세월호 이후 박근혜 정부 ‘재난 자본주의’ 극명해져”  
날짜: 2014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210014895933  
본문: <div style='color:#2c75ff;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유인경이 만난 사람] <내릴 수 없는 배> 펴낸 우석훈 박사<br/></div><br/><br/><88만원 세대>라는 책으로 승자독식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꼬집은 우석훈 박사. 그가 세월호 참사 100일 무렵에 책 <내릴 수 없는 배>를 선보였다. 아직도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차라리 덮어버리고 싶은 페이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회는 비극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회는 재난을 통해 더 망가진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만난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우석훈 박사를 만나 세월호 참사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내릴 수 없는 배에 태워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지 물었다.<br/><br/><br/><br/>사회학자도 아닌 경제학자가 왜 세월호에 관한 책을 썼습니까. <br/><br/>“저도 세월호 뉴스를 운전하면서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막연히 사망자가 있겠지만 그래도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배를 탄 사람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등등의 소식을 접하며 경제학자로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대표하던 구소련에서 경제가 부패하면서 전략 핵잠수함에 불량부품이 사용돼 일어난 K-19 사건처럼 이 사건도 자본주의 경제가 문제일까, 혹은 시장경제나 신자유주의가 문제인가 등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 배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거든요. 경제학자로 배 산업에 관한 관심도 있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주요 개발계획 중에 크루즈 사업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국내 페리의 위험을 알게 됐습니다. 또 오랜 친구가 암으로 병상에 있을 때 병문안을 갔더니 인천~제주 페리가 정말 재미있다며 꼭 타보라고 권했어요. 혼자 여행이 아니라 아내, 아이와 함께 갈 여행이라 꼼꼼하게 알아봤더니 정말 문제가 많아 안 탔죠. 진작 그런 위험들을 경고했어야 했다는 자책감도 컸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경우 오래된 곳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 할 일이 너무 많아 탈진한 상태이고, 신생단체는 노하우가 없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면으로 분석하고 의미있는 작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br/><br/>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자료를 찾고, 집필 기간 내내 펑펑 울면서 쓸 만큼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br/><br/>“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발표를 보고 서였습니다. 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배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언론도 없더군요.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입니다. 진상규명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뤄지면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체 왜 그 배에서 사고가 났을까, 왜 그 배는 탑승자 명단도 엉성하고 과적 등등 문제가 많은지를 잘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불감증, 관피아, 유병언 가족에 관해 탓하기 전에 배에 관련한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썼습니다.”<br/><br/><br/><br/>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뭔가요.<br/><br/>“이 사건은 세월호에서 구조된 학생들도 강조했듯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재난 자본주의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 ‘재난 자본주의’의 작동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재난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에 놀라고 당황할 때, 그 사회 기득권 집단이 자신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에도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 중 하나로 ‘5급 공무원 공채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공채를 줄이고 특채를 늘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부유층 자녀들이 특채로 5급 공무원이 되겠다는 얘기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도 마찬가지로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나머지 임기를 보내겠다고 볼 수도 있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없애버렸어요. 사실 세월호 참사 때도 전 국민이 목격한 것처럼, 대형 참사가 터지면 구조 가능한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1분, 1초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고권력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돈과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걸 없애고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합니까?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떠안기 싫다는 뜻 아닌가요?”<br/><br/>외국에서도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조직개편을 하지 않나요.<br/><br/>“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전부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쪽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했다가 2005년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태풍 카트리나 이후 다시 백악관이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면 조직을 만들거나 기념건물부터 만들려는 안일한 생각이 계속 사고들을 일으키는 셈입니다.”<br/><br/>우리나라 배, 선박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br/><br/>“사고가 난 근본 원인은 선박산업의 문제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연안여객의 이윤율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철도(KTX)와 저가항공이 비슷한 시기에 다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고유가까지 겹쳤습니다. 승객은 줄고 비용은 늘고, 이윤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완화라는 명분하에 선박 연령을 늘려주는 쪽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선박 제한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고, 세월호는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사다가 증축한 배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기 전에는 못 살아도 새 배를 탔거든요.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일본이 타다가 버린 배를 타는 나라가 됐어요. 중국도 선박 제한 연령이 28년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 타다 버린 배를 타는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더욱 더 가슴 아픈 것은 단원고 학생들은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 배에 태워져 수장된 것입니다.” <br/><br/>고등학생들이 배에 태워지다니요. 어떤 의미인가요.<br/><br/>“단원고는 선박여행을 택한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비용’을 댔습니다. 뱃삯이 비행기삯보다 싸고 숙박비도 하루치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납득이 안 됐어요. 저가항공이 널려 있고 대규모 인원이라 숙박비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 세월호 비용이 절대 싸지가 않아요. 학생들도 총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란 의문이 들어 다른 고려사항이 없었는지를 뒤졌고, 그러다 공문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2011년 부산해양항만청과 제주해양관리단이 ‘페리 산업이 어려우니 수학여행을 보내 달라’고 교육당국 등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운임이 편도 7만1000원으로 저가항공과 비교하면 결코 싸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수학여행 비용 일부가 페리 산업의 생존에 보태진 것이고 국가가 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업계의 이익을 보장해준 셈이죠. 집권 후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 선박업계의 ‘수익성 보장’은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 교육에 쓴다는 상식이 아닌, 교육을 돈 버는 데 쓴다는 비상식의 상징인 사건입니다. 학생들에게 페리 수학여행을 독려한 데는 교육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벌주기는커녕 부총리로 격상시킨다니….”<br/><br/><br/><br/>세월호 참사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던데요.<br/><br/>“배와 비행기의 문제에서도 양극화가 확인되더군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9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연안 선박의 ‘안전’을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배경뿐 아니라 참사 이후로도 ‘양극화’는 계속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의문 중 하나가 ‘서울 강남 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자였다면 구조작업이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됐을까’입니다. 괜한 억측이 아닙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수학여행 실태를 좀 들여다보니 서울 강남지역의 학교들은 비행기를 이용하더라구요. 또 강남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재난이 2011년 우면산 산사태였습니다. 당시 인근 호텔이 피해자들에게 빵을 무료로 주고 방도 최저가로 제공해줬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떤가요. 체육관에서 난민처럼 지냈습니다.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이 수용됐던 진도체육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국립 남도국악원이 있어요. 숙박시설이 갖춰진 이 곳에 누가 묵었나요? 현지 파견된 공무원, 경찰, 일부 기자들이 묵었습니다. 이게 양극화의 단면이 아닌가요.” <br/><br/>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벌써 인천~제주 간 항로가 폐쇄돼 물류난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br/><br/>“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가 가장 슬프게 만난’ 사건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으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국가개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첫 단추로 ‘연안여객의 완전공영제’를 제안합니다. 스코틀랜드, 캐나다 등이 ‘안전’을 위해 연안여객 공영제를 도입한 나라들이죠. 연안여객 산업규모를 보니까 선박회사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1조원, 부채를 제하면 4000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운항이 중단된 세월호 노선인 인천에서 제주만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면, 연간 50억원 정도면 됩니다. 이 노선은 청해진이 독점적으로 운항하던 것입니다. 여긴 현재 운항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니, 관련된 4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제주)가 같이 운항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적어도 배의 ‘안전’ 문제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br/><br/>여객선의 ‘공영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영화’ 문제와 정확히 반대로 가자는 주장인데요.<br/><br/>“세월호 참사는 민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선박과 관련해 정부가 관리하던 영역을 민간으로 떠넘길 경우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재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해 만들어진 구조가 어떻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보여준 셈이죠.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문제는 매우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 시작은 ‘내릴 수 없는 배’에 태워진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배를 정박하고 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제 다시 우리 아이들을 배에 태워도 좋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정부, 선박업계, 심지어 교육기관까지 배에 관련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br/><br/>유병언씨는 사망했지만 그 자녀들로부터 환수한 돈으로 유가족 보상이나 연안여객 공영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br/><br/>“그건 배의 안전이나 선박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섬에서 사는 분들이나 어떤 이유건 반드시 배를 타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배를 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내릴 수 없는 배에 탔다는 이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유병언씨 자녀들을 공개 수배한 포스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 돈을 유용했다고 전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재벌 2·3세들은 모두 벽보에 사진이 도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br/><br/><br/><br/>카뮈의 <페스트>로 시작되는 이 책은 우리 선박업만이 아니라 재난 자본주의와 관련된 사안들을 의미있으면서도 쉽게 풀이했다. 그런데 정작 우 박사의 다른 책들에 비해 잘 안 팔린단다. 말로는 “세월호, 절대 안 잊겠다”를 강조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게 아닐까. 외면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다.<br/><br/><유인경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5.txt

제목: LADIES’ COUNSELOR  
날짜: 2014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1100000102  
본문: 레이디경향<br/>건강 고민<br/>서수진(더엘 클리닉&메디컬 스파 원장)<br/>최광현(한국트라우마가족치료연구소 소장)<br/>안상철 (서울리마치과 대표원장)<br/><br/>육아 고민<br/>손석한(연세신경정신과 원장)<br/><br/>교육 고민<br/>노관호(노원 뉴스터디 원장)<br/><br/>재테크 고민<br/>우용표(더 코칭&컴퍼니 대표)<br/>윤희권(YOON’s FPG 대표)<br/>이천(㈜희망재무설계 대표)<br/><br/>고민 상담 접수는…<br/>● 「레이디경향」 애독자 엽서, 이메일(ladykh@khan.kr), 공식 블로그(ladykh.khan.kr) [고민 해결 방]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제목에 [고민 상담]이라 적어주세요.<br/><br/>부부·가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시아버지의 재혼, 자격증 공부 반대하는 남편, 파산 신청 방법<br/><br/>Q 올해 여든이 되신 시아버님께서 재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식 된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무 살가량 차이 나는 여성분과 몇 년째 사귀시는데, 사실혼 관계인 듯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 황OO)<br/>김숙기 요즘 혼자 되신 어르신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찾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면서 외로움을 참고 견디며 노후를 보내기 싫다고 말하지요. 시아버님도 마찬가지겠죠? 스무 살 어린 여성과 몇 년째 깊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여성에 대한 확신이 들어 정식으로 재혼 절차를 밟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재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아버님을 지지해주세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의 재혼이 자식들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지원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나 재산 상속으로 인한 분쟁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가족이 모여 함께 잘 합의해나간다면 시아버님의 재혼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혼자 계신 시아버님의 반찬 하나라도 챙겨야 하는 사람은 바쁘게 사는 며느리일 테니까요. 시아버님의 인생은 그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식에게는 양해와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 결정권은 없지요. 기쁜 마음으로 시아버님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길 바랍니다.<br/><br/>Q 요즘 자격증 취득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오전에는 자격증 취득 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방과 후 돌봄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일만 한다고 남편의 불만이 많아 요즘 냉전 중입니다. 자격증을 하나씩 딸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정말 크더군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남편의 반대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부의 역할, 일, 공부 3가지 다 하고 싶은 게 욕심일까요? (대구 수성구·강OO)<br/>이정희 자격증 취득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성취감까지 느끼고 계시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엄마, 아내 역할에 공부, 직장까지 병행하느라 힘을 많이 쓰실 것 같군요. 아마도 이러한 일을 다 하시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균형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남편과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br/>우선 남편이 이야기하는 자녀 양육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자녀들의 연령 수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아기나 아동기라면 부모의 세심한 돌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도 보람된 일이지만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의무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온전한 기쁨이나 성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바람이나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가족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해야 할 것 같습니다.<br/>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요. 혹여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불만족을 자격증 따는 것으로 충족시키려 하는 마음은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둘 것인지 등을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셨으면 합니다.<br/><br/>Q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려니 상담료가 무척 비싸더라고요. 파산 신청과 회생 과정을 혼자서 하려는데 조금 어렵네요. 기본적인 정보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남 무안군·김OO)<br/>이인철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채무자만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격 심사가 이뤄집니다. 다음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본 뒤 신중한 마음으로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 무료 상담 신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br/>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 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br/>2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부담 담보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화의 절차 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br/>3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혹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혹은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 운영자, 개인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제도 초기에는 신고 소득이 낮으면 신청 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에 규의 변경으로 통계 소득에 기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계 소득 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br/><br/>그 밖의 요건 낭비 혹은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해도 신청할 수 있나?<br/>파산 절차의 경우 낭비, 도박 혹은 기타 사행 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혹은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해도 개인회생 신청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는 데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br/>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br/>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br/>변제 금액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br/>우리나라 법에는 최저 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매달 1만원씩 96개월간(8년간) 총 96만원만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도 요건에 맞는 한 법원은 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최소한 월 10만원의 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br/><br/>Profile<br/>김숙기는…<br/>나우미가족문화<br/>연구원 원장.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까지, 각종 부부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솔루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부 문제 전문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속 시원한 솔루션으로 독자들의 고민을 풀어준다.<br/><br/>Profile<br/>이인철은…<br/>법무법인 윈의 대표변호사. 조정 잘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두 사람의 행복하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똑똑한 이혼법을 조언한다. 저서로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가 있다.<br/><br/>Profile<br/>이정희는…<br/>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임상심리사.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같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언으로 단순한 부부 문제 해결을 넘어 공감과 위로가 되는 따뜻한 솔루션을 제시한다.<br/><br/>재테크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MMF vs CMA, 적금 풍차 돌리기, 재테크에 무관심한 남편, 보험 리모델링<br/><br/>Q 최근 CMA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행 거래와는 달리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네요. 왜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는다고 하는지, MMF통장과 CMA통장은 무엇이 다른지, 30대 직장인인 저에게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와 CMA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 성남시 · 이OO)<br/>우용표 재테크의 시작이라 하는 CMA에 관심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유리한 출발점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CMA통장은 금융회사에서 단기 투자를 해 그 수익을 CMA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통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므로 원금 보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MA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만 넣어도 그만큼의 이자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은행 예금, 적금 상품에 비해 하루 단위로 자금이 불어나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보람도 느끼게 해줍니다. MMF도 이와 비슷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굴려서 CMA와 마찬가지로 하루 단위로 수익을 얻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br/>두 상품을 비교해보자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CMA의 장점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MMF의 장점은 CMA에 비해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CMA는 MMF에 비해 수익이 조금 적은 편이며, MMF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을 좀 더 얻고자 한다면 MMF가, 안전성이 중요하다면 CMA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CMA가 증권 계좌와의 연결성이나 원금 보장 측면에서 직장인에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br/><br/>Q 최근 적금이 만기가 돼 새로운 적금을 찾다가 ‘풍차 돌리기’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몇몇 블로거들의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메일 사연)<br/>우용표 매월 새롭게 적금에 가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1년짜리 적금을 들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적금통장 하나에 월 납입금액 10만원, 두번 째 달에는 적금통장 하나가 추가돼 적금통장 2개에 월 납입금액 20만원이 되지요. 그리고 열두 번째 달에는 적금통장은 12개가 되고 월 납입금액은 1백20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13개월 차, 즉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처음 가입했던 적금이 만기가 돼 원금 1백20만원이 회수되고 그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원금 1백20만원이 회수됩니다. 이런 구조가 마치 풍차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해 ‘풍차 돌리기’라고 이름 붙은 것이지요.<br/><br/>Q 남편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고 재테크, 노후 대책에도 무심한 편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 제가 분양권이나 임대권을 구입하자고 하는데 항상 반대만 하네요. 노후 대책에 관심 없는 남편,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서울 은평구 · 최OO)<br/>윤희권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무관심의 원인이 해결돼야 답이 나올 듯합니다. 무관심인지, 아니면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이라 보수적인 투자와 재테크만을 선호할 수도 있고, 투자 이후의 번거로운 관리가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아내가 조바심 내거나 졸라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따라서 주도권을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을 써보길 권합니다. 이는 남편의 역할과 가장의 위치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전략인데, 남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해보시는 겁니다. 이때 절대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책임과 권한을 남편한테 넌지시 넘겨줘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부담감을 안겨보시길 바랍니다.<br/>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3자이면서 객관성을 띤 전문가의 조언이 좋은 약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대화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br/>또 노후에 대한 현실감이 없는 것이 원인일 경우 실제 주변의 사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br/>Q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보험입니다. 수입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설계사에 맡겨두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혜택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이거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재무 상담을 요청합니다.<br/>(서울 관악구·김OO)<br/>이천 전체 상품 구성으로 봤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꼼꼼하게 챙겨서 가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장은 부족하고 부부의 암 보장은 과도한 편입니다. 가족 모두가 불필요한 특약들을 싸다고 추가하다 보니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차를 사러 갔다가 옵션을 추가하다 보니 중형차와 비슷한 가격이 돼 중형차를 사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br/>가장 큰 문제는 저축보다 보장성 보험료를 더 내는 것입니다. 현재 월 수입 3백만원 중에 매월 저축하는 비용은 30만원인 데 반해 보장성 보험료로는 월 38만원 정도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발생할 아이들 교육비, 가족을 위한 주택자금, 부부의 노후자금 등을 위해서는 30만원을 저축하면서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위험 대비를 위해 보험료로 저축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비용인 점을 먼저 이해하고 저비용·고효율 위주로 보장 대책을 재수립해야 합니다.<br/>가입 연도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르겠지만 가족 전부가 실손 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상해나 사고로 입원할 경우 10% 정도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총 4천8백만원까지는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특약을 주축으로 나머지 특약들은 꼭 필요한 보장만 적절한 보장 금액으로 가입하면 됩니다.<br/>부부의 암보험은 해지하고 남편분은 현대 하이퍼펙트보험에 암 진단비 1천만원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독자님은 삼성 여성시대건강보험에 암 진단비가 1천만원이 있으므로 한화 카네이션하나로 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암 진단비 4천만원을<br/>1천만원으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조정하면 됩니다. 남편의 부족한 사망 보장은 1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아이들 독립할 때까지만 정기보험으로 보완하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60세 만기 60세 납입 조건으로 3, 4만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br/>끝으로 이번 기회에 가족분들 보험 특약들을 꼼꼼히 따져봐서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전부 해지하고, 필요한 특약이라도 과도하게 보장 금액을 설정한 것은 감액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의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5만원 내외로 조정해보세요. 대부분의 보험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내용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의사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br/><br/><표><br/>가계 월 평균 수입3백만원<br/>월 저축액30만원<br/>남편(39세)<br/>ㆍ현대해상 암보험 15년 갱신 80세 만기: 불입금 3만원<br/>ㆍ현대해상 하이퍼펙트종합보험(실비 보험, 암 진단시 1천만원, 질병 사망시 7천만원, 재해 사망시 1억원) 20년 납 100세 만기: 불입금 10만원<br/>아내(39세)<br/>ㆍ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 80세 만기: 불입 만기<br/>ㆍ한화손해보험 카네이션하나로 실비보험 20년 납 80세 만기(암 진단시 4천만원): 불입금 12만원<br/>ㆍ삼성생명 암보험 15년 갱신 100세 만기(진단시 1천만원): 불입금 2만5천9백60원(3개월 됐음)<br/>딸(7세)<br/>ㆍ현대해상 실비보험 20년 납 20세 보장: 불입금 4만원<br/>아들(3세)<br/>ㆍ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불입금 6만4천원<br/><br/>Profile<br/>윤희권은…<br/>YOON’S FPG 대표. 개인 재무 컨설팅을 비롯해 기업 강연, 퇴직연금 FP 양성 교육, 재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과 개인 재무부터 은퇴, 증여, 상속, 가정 재무 상담까지 상세하게 재무설계를 조언한다.<br/><br/>Profile<br/>이천은…<br/>㈜희망재무설계 대표. 신입사원의 통장 관리부터 기업인들의 자산 관리까지 폭넓은 계층의 재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결혼과 동시에 부자 되는 커플리치」,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등이 있다.<br/><br/>Profile<br/>우용표는…<br/>더 코칭&컴퍼니 대표. 대기업 입사 후 7년간 적자 인생임을 깨닫고 재테크에 입문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개인 재무설계와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도 펼치고 있다.<br/><br/>육아·교육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손발톱 물어뜯는 딸아이, 성적 뚝뚝 떨어지는 중1, 아이의 불리불안, 친구를 무는 아이,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 지도하는 법, 5세 아이 첫 교육<br/><br/>Q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이 손톱과 발톱을 물어뜯고, 잘 때 머리맡에 베개 2개, 양옆에 인형 4, 5개를 놓고 잡니다. 이러한 습관을 어떻게 고쳐줘야 할까요? 한편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인천 남동구 · 천OO)<br/>손석한 아이가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일종의 ‘자기 위안’을 위한 것들입니다. 즉 아이는 자신의 손발톱을 물어뜯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 전 곁에 놓아두는 베개와 인형은 자신을 보살피고 관심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창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떠한 이유든지 엄마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절로 사라지곤 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데 더 큰 재미를 느끼거나 다른 놀이나 장난감 등에 열중하기 때문이지요. 아이의 경우처럼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까지 지속된다면, 심리적 불안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위안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이를 잘 관찰하고, 세심한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직접적인 질문(예: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야?”,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 등)을 통해서 불안의 내용 혹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를 안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아이가 손발톱을 물어뜯을 때는 가볍게 지적을 한 뒤 다른 놀이 활동으로 전환시키고, 자기 전 물건을 놓아주는 대신에 엄마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의 활동으로 대체해보십시오. 엄마의 노력만으로 힘에 부칠 때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도움받기를 권유합니다.<br/><br/>Q 중1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책을 좋아하고, 나름 영리해서 별 고민이 없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필기한 것 좀 보자고 하면 요새는 노트 필기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보는 배치고사에서는 반에서 1, 2등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줄곧 성적이 뚝뚝 떨어져요. 지금은 평균 60점대예요. 이대로 가다간 영영 공부를 놓아버릴 것 같아요. 동기가 될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메일 사연)<br/>노관호 ‘노트 필기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수업시간에 집중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업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노트 필기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학습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중학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만 정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어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님 혹은 교육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후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학습적 요소를 생각해 조금씩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세요. 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 캠프나 리더십 캠프를 통해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br/><br/>Q 저는 초보 주부이자 직장 맘으로 아이를 부모님 댁에 떨어뜨려놓고 있습니다. 아이가 분리불안이 무척 심한데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달서구·양OO)<br/>손석한 아이를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을 자주 보여줘서 아이로 하여금 엄마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을 일정하게 해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시간과 만나는 시간의 규칙성(혹은 주기성)을 깨닫게 하고, 떨어지기까지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급하다고 아이 몰래 나간다든지 혹은 빨리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직장에 늦지 않으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br/>따라서 떨어질 때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이와 마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아이도 적응해나갈 것입니다. 점차 아이는 엄마의 출근 시간에 힘들어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br/>직장에서도 자주 전화를 해서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낮 시간에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서 운다면, 주변 어른이 도와줘 엄마와 통화하게끔 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이와 떨어질 때 또 중요한 것은 엄마와 영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돌아와 아이를 만난다는 점을 강조해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따가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엄마가 돌아올게”라든지 “나중에 깜깜할 때 와서 같이 목욕할게” 등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시오.<br/><br/>Q 저희 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옆집 아이로 인한 고민입니다. 말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18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주중에는 외할아버지와 주말에는 엄마, 아빠와 보냅니다.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대면 눈을 흘기고 이를 악뭅니다. 겁이 엄청 많으며,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를 물어서 심한 상처를 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친구가 손을 잡아주려고 하니 물었습니다. 지나가다 그 상황을 목격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행동을 제지시켰더니 글썽글썽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아이가 심하게 울었다면서 어린이집에 와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에게는 어떤 점을 말해주거나 알려줘야 할까요? (이메일 사연)<br/>손석한 비록 공격적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면에는 불안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주변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친구의 접근조차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없고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 부모와 애착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할아버지가 부모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지만,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평일 저녁 외할아버지, 주말 부모, 평일 낮 어린이집이라는 세가지 환경에 모두 적응하기란 아이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br/>아이를 훈육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선생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은 어디에 가든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가질 때 불안해지고, 그것이 공격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br/>아이 주변에 여러 친구들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는 한 명의 친구를 점차 익숙하게 받아들이게끔 해주세요. 여기에는 선생님의 개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에게 “이 친구는 참 좋은 아이야. 너와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이 오는 거란다”라는 말로 주변 상황을 안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주세요. 겁이 많다는 특성 역시 불안에서 기인하므로 가급적 아이에게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제를 주는 것보다는 충분히 익숙한 활동을 반복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안이 점차 사라져야 아이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br/><br/>Q 7세 아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도무지 한 가지 일에 20, 30분 이상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림을 그리다가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피아노를 치는 등 무슨 일을 시작하면 제대로 마무리 짓기 전에 금세 질려서 이리저리 다른 할 거리를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를 시작하면 분명하게 끝을 맺거나 잠시라도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엄마로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br/>(경기 성남시·장OO)<br/>노관호 20, 30분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이 또래에 맞는 정상적인 집중 시간입니다. 단, 주의가 산만하거나 한 가지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은 자제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스탠퍼드 대학의 워터 미셀 교수는 5, 6세를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주고는 20분 동안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실험을 한 결과 이를 잘 수행한 학생이 자제력이 있고, 15~20년 후 학습 성취도도 좋았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자제력을 키우면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가 잘하고 흥미 있는 것을 찾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흥미가 없거나 어려운 일도 이것을 수행하면 만화를 보여준다든지 간식을 준다든지 하는 상을 주면서 조금씩 재미를 느끼게 해보세요.<br/><br/>Q 다섯 살 아이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고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다들 영어유치원이다 뭐다 많이들 보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 첫 교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메일 사연)<br/>노관호 다섯 살 아이에게는 의사 소통 능력과 사회적 지능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영어유치원을 보낸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남들 따라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학습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학부모님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초등학교에 진학시 충돌을 줄여주고 올바른 학습과 대인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 유치원을 다닌 학생이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중요하고, 유행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우선순위, 학부모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영어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가정에서 가르치긴 힘든 부분은 학원이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강좌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br/><br/>Profile<br/>손석한은…<br/>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이자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각 언론매체의 자문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 감으로 키우지 마라」(e북), 「지금 내 아이에게 해야 할 80가지 질문」,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빠의 대화 혁명」 등이 있다.<br/><br/>Profile<br/>노관호는…<br/>목동 하이스트 본원의 특목 강사를 거쳐 목동 미래탐구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타임교육 직영 노원 뉴스터디 원장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목의 핵심을 꿰뚫는 학습 전략을 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br/><br/>건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폐경 징후 의심, 자궁내막증과 난임의 상관관계, 성인 여드름 자가 치료법, 안면홍조 대처법<br/><br/>Q 43세 주부입니다. 최근 들어 생리시 양상이 예전과는 다른 듯해 걱정입니다. 생리 첫날은 양이 조금, 2일째 많이, 3일째 조금, 4일째는 끝났나 할 정도로 안 나오고 5일째부터 이후 3, 4일간 팬티라이너에 조금 묻는 정도입니다. 생리 혈색도 초콜릿이 연상될 정도로 검붉고요. 이러다 보니 양은 많지 않지만 생리 기간이 7, 8일 정도 됩니다. 혹시 폐경을 앞둔 일반적인 증상일까요? 아니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경기 안산시 · 정OO)<br/>정지안 나이가 듦에 따라 생리양이 감소하거나 생리 주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생리양의 감소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더 이상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분이라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검진 차원에서 받아보기를 권하며, 초음파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br/><br/>Q 예전에 자궁내막증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첫아이 임신 후 둘째 아이가 안 생겨서 한약을 먹고, 좌훈 치료도 받으며 식이요법과 운동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궁내막증이 임신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은데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둘째 아이를 꼭 갖고 싶거든요.<br/>(경북 칠곡군·최OO)<br/>정지안 자궁내막증은 난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궁내막증은 그 자체로 난소 기능 저하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이후 난소 기능은 3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도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골반강 내의 자궁내막증과 수술 이후의 유착은 나팔관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br/>자궁내막증의 치료에 식이요법, 운동, 인스턴트 음식이나 환경호르몬의 제한 등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며 한방 치료, 좌훈 치료 등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임신을 위한 노력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됐다면 산부인과에 내원해 질 초음파검사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소 기능 확인을 위한 피검사 및 나팔관 조영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최근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자궁내막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있어 이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인스턴트식품 섭취를 줄이고 환경호르몬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br/><br/>Q 30대 초반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를 다녀도 그때뿐이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여드름이 얼굴 전체와 목둘레에까지 퍼집니다. 자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관악구·권OO)<br/>서수진 여드름의 3대 주요 원인으로 여드름균, 과도한 각질, 피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 관리 방법은 적당한 클렌저를 이용해 꼼꼼하게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1주일에 1번씩은 부드러운 각질 연화제(스크럽)를 이용해 각질 정리를 하며, 항균 성분이 있는 제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여드름을 비위생적인 손으로 짜거나 터트리면 염증, 흉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30대 피부는 10, 20대와는 달리 피부 재생 능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가 치료만을 고집한다면 더 큰 흉터가 남게 됩니다. 꾸준한 자가 관리와 함께 피부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집니다.<br/>특히 성인 여드름은 건강 상태나 컨디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는 생활 패턴, 부족한 수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고 몸의 각종 호르몬 분비나 균형이 깨지면서 성인 여드름은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신체 상태나 심리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부를 열심히 관리해도 성인 여드름은 완치하기가 힘들어집니다.<br/>생활 습관과 수면 시간을 잘 지키고 소화가 잘되는 건강한 음식들을 잘 챙겨 드세요. 필요하다면 모발 검사, 소변 유기산 검사 등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파악한 뒤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유익 균들을 보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br/><br/>Q 안면홍조로 얼굴이 자주 붉어져서 피부과 약을 먹고 있는데,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졌다를 반복할 뿐 크게 호전되지 않아요. 제 습관이 문제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면홍조가 심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경기 포천시·박OO)<br/>서수진 뜨거운 열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우나, 찜질방 같은 열이 많이 날 수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하고 뜨겁고 매운 음식도 삼가야 합니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야외 활동은 자제하세요. 여름철 운전을 할 때는 충분히 시원한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습관이 있는데,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모니터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안면홍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열을 식히는 일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br/><br/>Profile<br/>정지안은…<br/>서울라헬여성의원 산부인과 원장으로 불임, 생리불순, 부인과 질환, 사춘기 클리닉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br/><br/>Profile<br/>서수진은…<br/>피부과 전문의, 더엘 클리닉&메디컬 스파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각종 매체에서 뷰티 엑스퍼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6.txt

제목: 행복 디렉터 김진세의 행복 실천  
날짜: 2014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1100000003  
본문: 所向 [소향]<br/>행복을 향해 가는 곳<br/>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운동을 하며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건강검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라고 한다. 과연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직접 체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br/><br/>건강하다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쉽다. 물론 행복에는 세트포인트(Set-point)라는 것이 있어 큰 불행을 맞이해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큰 질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도 1년 정도가 지나면 아프기 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질병으로 인한 불행 속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것보다야 다행이겠지만, 결코 짧지 않은 1년이라는 시간도 불행하지 않게 보낼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해, 미리미리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br/>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의 예방이다. 만약 예방이 어렵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만 불행을 줄일 수 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데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부러워한다는 ‘국가건강검진’이 존재한다. 당연히 건강검진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때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br/>어떻게 하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건강검진은 대학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다양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이용이 편리하고 나름 전문성도 갖춘 지역 내 전문 클리닉을 찾아갔다. 건강검진 특화 병원 속편한내과의 강동훈 박사를 만나 건강검진을 통한 행복 실천법을 체험해보았다.<br/><br/>월드컵 결승전이 대수인가<br/>새벽 4시, 두 번째 세척 약을 먹었다.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정작 골을 넣는 장면은 보지도 못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미루고 미루다 연말이 돼서야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행복 실천’을 위해 무더운 한여름에, 그것도 월드컵 결승전 당일 굳이 검사를 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자 솔직히 짜증이 나기도 했다. 이미 전날 저녁 8시부터 세척 약을 마신 것이 아까운 마음에 꾹 참고 들이켰지만 수월하지 않았다. 설사를 유도해 장을 청소하는 약이기에 목을 넘어갈 때 비눗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과거에 비하면 향긋한 오렌지 향도 나고, 마셔야 하는 세척 약의 양도 반으로 줄었지만, 1시간 동안 1L의 약과 1L의 물을 먹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약을 다 먹고 나면 속이 부글거리기 시작한다. 화장실을 수차례 드나들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뭔가 더 남은 것 같은 불안함을 떨치기 힘들었다. 그러나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시야가 좋지 않을 것이 자명하니 내 몸 생각을 해서 꾹 참을 수밖에.<br/>오전 8시 30분, 병원에 도착했다. 밤새 마시고 쏟아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데다 어제 이른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담당 의사인 강 박사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건강의 변화와 최근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오늘 할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문진표를 작성했다. 운동량, 흡연 및 음주 습관 등을 적다 보면 평소의 건강에 대한 습관을 돌이켜보게 된다. 혈압, 몸무게와 비만도, 청력검사, 시력검사를 하고, 기본적인 피검사를 위한 채혈을 했다. 그리고 가슴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기본적인 검사는 끝이 난 셈이다.<br/><br/>3년 만의 대장내시경<br/>이제 남은 것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장 및 위내시경이 기다리고 있다. 오전 9시경. 처음 입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엉덩이에 덮개가 달린 대장내시경용 검사복으로 갈아입었다. 대장내시경은 항문으로 기구를 넣으니, 말 그대로 기능성 검사복 그 자체였다. 간호사의 안내로 침대에 누웠더니 링거 병이 매달린 정맥주사를 놓는다. 이 주사는 검사 중 필요한 약물을 투입하고, 또 혹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친절한 설명과 함께 간호사가 (장내 가스를 줄이거나 구토 반응을 줄여주는) 전처치 물약을 마시게 했다. 밤새 먹은 세척 약이 떠올라 내키지 않았지만 막상 마셔보니 양도 한 모금뿐이고 맛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그러고는 검사를 위한 자세를 잡아 제대로 눕게 했다. 이어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 이완 약물과 수면 유도 약물을 주사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br/>사실 필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생애주기에 따른 검사보다 일찍 대장내시경을 하게 됐다. 법으로는 만 50세 이상의 암 검진에 해당하는 검사다. 그런데 마흔 중턱의 어느 해, 의사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송년회에서였다. 외과 전문의 친구가 “다른 암은 몰라도 위장관에 생기는 암은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된다”라며, 모두가 내시경을 받아보길 강력하게 권했다. 보통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정작 의사들은 아프면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암과 같은 치명적 질병의 경우, 의사에게서는 더 악화된 상태로 발견되기 쉽다. 이런 어리석은 불행을 막고자 필자는 그다음 날 바로 위장과 대장 검사 일정을 잡았다. 검사 결과 대장에서 다수의 용종이 발견됐지만 다행스럽게 모두 양성이었다.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장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그 이후 내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매년 대장내시경을 받았고, 2년에 걸쳐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후부터는 3년마다 검사를 받기로 했다. 올해가 바로 3년째 되는 해다.<br/><br/>내 몸에 미안한 마음<br/>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잘 자고 난 기분. 시계를 보았다. 한참 만에 눈의 초점이 맞춰져 보니 10시경. 수면내시경이라고는 하지만 어렴풋이 남는 것이 있다. 정맥주사를 이용해서 잠이 들었지만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진 않지만 기억이 난다. 몇 차례 아랫배의 통증을 느꼈고, 의사에게 아프다고 하소연했던 것 같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배 속이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난 뒤 생각을 해보니, 여느 때보다 검사 시간이 길었던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마치 전날 술을 많이 마셔 숙취를 느끼는 것처럼, 발걸음이 불안정했고 사물에 대한 인식이 약간 무뎠다. 물론 10분쯤 지나고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다.<br/>담당 의사와 만났다. 예상대로 또다시 용종이 발견됐다고 한다. 초기에 발견됐던 용종보다는 크기도 작고 모양새로 보아 양성인 것으로 판단됐지만, 일단 생검을 통해 용종을 제거했다고 했다.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의 검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평소에 좀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누구나 할 후회와 함께 내 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좀 짜증이 났었지만 어제 저녁 죽을 고생을 잘 참아냈던 것이 다행이다 싶었다. 연말에 검사를 했다면 용종이 더 커졌을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끝으로 의사는 생검 결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출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한두 끼는 미음으로 먹고, 이후 죽과 같은 부드러운 식사를 한 후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상적인 식사를 시작하라고 했다.<br/><br/>왜 건강검진인가<br/>검진을 무사히 마치고 강 박사에게 ‘행복과 건강’ 그리고 건강검진의 역할 등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주문했다.<br/>“‘건강검진’이란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양의학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이학적 검사란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이나 청진기로 들어보는 청진 같은 것을 말하고요. 검진을 통해 모든 질병을 알아내거나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검진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과 조기 치료를 해서 효과가 좋은 질병을 찾아내는 겁니다.”<br/>국가건강검진은 2009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0~71개월), 학동기(6~18세), 성인기(19~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나누어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조사,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 등을 실시한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로,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받아야 한다. 또 만 40세와 만 66세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간염검사, 암검진, 노인기능평가 등이 추가된다. 암검진은 연령에 따라 위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중 위험군), 간암(만 40세 이상 중 위험군), 유방암(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에 대한 검사를 2년마다 받도록 돼 있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금식과 일부러 병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을 귀찮아하거나 꺼리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한다.<br/>“검진의 기본 목적은 암이나 악성 질환을 미리 발견해 치료하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동맥경화증이나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해 검진을 소홀히 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를 간과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br/>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를 보면, 기대수명은 81.2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70.7세라고 한다. 평균적으로 70세 이후에 10여 년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앓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결과다. 이 시기에 건강해야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수명을 10년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 박사는 강조했다.<br/>“그 밖에 다른 장점도 많지요. 2014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일반 건강검진사업 효과를 평가해 일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사망 위험이 최대 35%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전체 암 발생 위험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 건강검진에 따른 조기 발견 효과로 분석했고요.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국가 암검진은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 암검진에 갑상선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은 포함되지 않고, 흉부 사진으로 진단되지 않는 폐암도 30%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시행돼야 하거든요.”<br/>모든 질병을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검진을 통해 건강과 행복이 증진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이야기는 없을까?<br/>“특히 사회 활동이 많은 40, 50대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돌연사하는 경우도 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얻는 정확하지 않은 건강 정보로 자가 진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해 질병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기도 하고요. 1년 중 반나절의 시간을 투자해 검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br/><br/>‘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하다<br/>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강 박사는 몇몇 사례를 들려주었다.<br/>“기본 검진을 하기 위해 내원한 32세 여성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청진 중 심장 잡음이 청취됐어요. 추가적으로 심장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거대한 좌심방 종양을 진단하고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국가 유방암검진을 받은 40대 주부가 치밀유방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특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바람에 1년 뒤 유방암으로 진단돼 유방절제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br/>치밀유방은 특별한 질병이 아니지만 유방 조직이 치밀해 유방 조직 내에 있는 혹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의학적으로 치밀유방은 유방 초음파검사가 권장되지만 증상이 없고 비용이 부담돼 많은 여성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진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향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br/>필자의 경우 40대 중반에 받은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만을 따랐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순간 아찔해진다.<br/>“일반적으로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서 5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증상과 대장암 위험인자가 없는 정상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궤양성대장염,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유전적으로 직계 가족이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변비, 배변 장애, 혈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40대 이전이라도 대장내시경 검사가 권장됩니다.”<br/>평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변이 정상적이지 않은 과민성 대장증을 갖고 있던 필자는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선종성 용종은 대장에 생기는 양성 혹이지만 암의 전단계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선종성 용종은 증상이 없는 50세 이상의 성인이 대장내시경을 할 경우 약 30%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하다. 이때 크기가 1cm보다 작은 경우는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매우 드물지만, 2cm보다 크면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30% 이상 되므로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것이다.<br/>세심한 설명으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이해가 됐는데, 간혹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언론을 통해 접하기도 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br/>“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면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포함한 고가의 종합검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 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 계측을 잘 파악해 필요한 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고가의 검진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많고, 때로는 전신 CT검사를 포함한 고가 검진은 방사선 노출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향후 10년 이상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br/><br/>전문가의 건강관리법<br/>강 박사는 첫해는 소화기 질환을 위주로 검진을 하고, 다음해에는 심장이나 성인병 혹은 뇌 질환 위주로, 그다음 해에는 폐암 등 호흡기 질환에 중점을 두는 등 계획된 검진을 하면 중복되는 검사를 피하고 저비용으로 검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굳이 대학병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검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검진받을 것을 권했다. 끝으로 주부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br/>“주부는 가정의 중심이자 원동력입니다. 주부가 아프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죠. 무엇보다 평소에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게을리하다 보면 결국 병을 얻게 되기 쉬우니까요.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유산소운동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물론 만 30세부터는 자궁암검진, 만 40세부터는 유방암검진을 받으셔야 하고요.”<br/>더불어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으로 건강이 염려되는 주부들의 고민, 남편 건강에 대한 충고도 들려주었다.<br/>“중년의 남자들에게는 특히 복부비만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음주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복부비만은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 복압이 높아져서 소화액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속 쓰림이나 가슴 통증을 동반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br/>복부비만을 예방하려면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하며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은 직장인은 칼로리가 높은 술과 안주를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많은데, 에너지로 연소되지 못하고 중성지방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br/>“지방의 대사를 촉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지요. 식이요법으로 해조류를 권장하는데 이는 특유의 섬유질이 있어 변비를 방지하고 포만감을 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함유돼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욕을 억제한다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니코틴 성분은 동맥경화를 증가시켜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다양한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권합니다.”<br/>늘 궁금한 것이 있었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을까? 과연 조언하는 대로 살고 있을까? 행복을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의 건강관리법이 궁금했다.<br/>“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1주일에 3회 이상 저녁 식사 후에 가족과 한강 시민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유산소운동을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 장래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바쁘게 살면서 대화가 부족해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같이 운동을 하고 서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서 부부간 대화가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생주스를 마시고, 아침을 거르지 않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음식 섭취로 인한 칼로리를 예상하고, 과식을 하면 저녁에 늦더라도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도록 노력하고 있지요.”<br/>며칠 후 검진 결과가 담긴 우편물을 받았고, 설명을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식이 조절과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가장 신경이 쓰였던 용종은 조직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암에 대한 걱정은 놓을 수 있었다. 앞으로 2년 후 대장내시경을 다시 받아서 용종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벌써 밤새 세척 약을 먹을 생각으로 걱정이 되지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수확에 비하면 그쯤이야!<br/><br/>접수→문진표 작성→기본검사(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 검사)→소변검사→ 혈액검사→심전도검사→흉부 X선검사→내시경검사 순으로 검진이 이뤄졌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검사와 자궁경부암검사가 내시경검사 이전에 시행된다.<br/><br/>Profile 행복 디렉터 김진세 박사는…<br/>여자보다 여자 마음을 더 잘 아는 여성 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친 이들을 위한 상담을 하는 한편, ‘행복연구소 해피언스’를 통해 행복 찾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행복 멘토’라 불리고 있다. 본지에 2008년 1월호부터 3년간 ‘김진세의 인터뷰\_ 긍정의 힘’을 진행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행복학 개론’을 통해 명사들의 행복법을 전해왔다. 저서로는 「마흔의 심리학」(공저), 역서 「뜨겁게 사랑하거나 쿨하게 떠나거나」, 「심리학 초콜릿」, 「스타트 신드롬」, 「애티튜드」가 있다. 트위터 @happy\_mentor<br/><br/>Profile<br/>강동훈 박사는…<br/>속편한내과 서울한강센터 대표원장. 고려대학교 의료원 소화기 내과 전임의,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소화기센터 연구원, 가천의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과장·부교수 등을 거친 내과 전문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7.txt

제목: “초등학생 딸이 BB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날짜: 2014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1100000015  
본문: MOM’S<br/>10대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BB크림을 바르는 시대다. 하지만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본 엄마의 심정은 복잡하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자니 아이와 싸우기 십상이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자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br/><br/>얼마 전 10대 아이들의 용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단어는 바로 ‘컴싸아라’다. 얼핏 들어서는 어떤 뜻인지 짐작조차 힘들지만 10대는 물론 초등학생들에게도 유명한 단어라고 한다. 컴싸아라란 컴퓨터용 사인펜 아이라이너의 준말로 주로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쓰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눈 화장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활용법이지만, 실제로 화장품을 사기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유용한 팁이라고 한다. 컴싸아라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화장법에 관심이 많은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br/>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10대 화장’만 검색해도 금세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잘 어울리는 화장법을 알려주세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라인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등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솔직한 고민이 줄줄이 나온다. 아이들의 현실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바로 사춘기 딸을 둔 부모다. 부모 눈에는 아직 어리기만 한 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BB크림을 바르며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은 화장을 하는 아이들은 학업엔 관심이 없는 불량한 학생이라 여겼던 터라 적잖은 충격을 받는다.<br/>아이를 붙잡고 “화장하지 마”라고 운을 떼면 아이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왜?”라고 묻는다. 아이의 화장을 단념시킬 그럴듯한 명분을 생각해내려 애쓴 끝에 “학생은 화장하는 거 아냐”, “일찍 화장을 하면 피부 망가져”,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야지”라는 대답이 할 수 있는 전부다. 하지만 나라님도 못 이기는 천하무적 사춘기 소녀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 만무하다. 결국 하지 말라는 부모와 하겠다는 아이가 대립 하며 갈등만 깊어지게 된다.<br/><br/>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매출 좌우하는 10대 파워<br/>거리에서 만나는 화장한 10대를 보면 하나같이 화장법이 똑같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본래 자기 피부톤보다 2단계는 밝게, 무조건 얼굴을 하얗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목과 얼굴의 경계가 도드라지고 피부 화장은 답답해 보인다. 또 눈을 강조하는 아이 메이크업을 중요하게 생각해 아이라인은 두껍게 그려 눈꼬리 끝을 최대한 길게 뺀다. 한마디로 피부는 하얗게, 눈은 커 보이는 화장법을 선호한다.<br/>이런 유행 때문에 아이들의 화장품 소모는 굉장히 빠른 편이며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구매하는 빈도도 잦다. 어른의 입장에선 ‘아이들이 사면 얼마나 사겠어’ 싶겠지만 현재 화장품 업계의 주요 소비층을 살펴본다면 아이들의 주머닛돈이라 무시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로드 숍 브랜드 화장품 매출 1위인 더페이스샵의 경우 최근 3년간 10대 회원이 23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일각에선 10대 회원들이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br/>서울 명동의 로드 숍 매장을 방문하는 10명 중 5명은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이고, 나머지 5명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 그래서 어린 소비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장품 업계에선 적극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의 양대 산맥이라고 꼽히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 ‘나나스비’와 ‘틴:클리어’라는 10대 전용 화장품을 출시했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을 홍보 모델로 기용하며 어린 고객 유치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br/>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10대 취향을 겨냥해 제품 컨셉트와 디자인, 제품명 등을 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중저가 브랜드 숍은 공주풍의 소녀스러운 컨셉트를 내세우고 있고, 매장은 마치 인형의 집처럼 꾸몄으며 판매하는 제품 역시 아기자기해 장난감을 연상시킨다. 당연히 매장 안에 북적이는 고객 또한 교복 입은 아이들이다. 아무리 중저가라고 해도 아이라이너 하나에 6천~8천원 선, BB크림은 1만5천~2만원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세일 기간이면 말이 달라진다. 로드 숍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0~50%로 할인의 폭이 굉장히 커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br/>화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진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문구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일도 제법 된다. 저가 브랜드 숍의 가격보다 더 저렴하며 접근성이 쉬워 호기심에 한두 개 사기에 딱 좋다. 문제는 문구점에서 파는 화장품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이다. 성분 표시가 거의 돼 있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게 만들어졌다. 한눈에도 성분이 의심 가는 수준인데, 이는 문구점 화장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br/>저가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간 순으로 전 성분을 나열해보면 각종 합성계면활성제와 폴리머, 심지어 자극성이 높은 파라벤이 무려 5종이나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광고에서는 각종 고가의 추출물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발암성이 높고 내분비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들이 들어 있기도 하다. 저가 브랜드가 주장하는 합리적 가격 책정이라는 것은 화장품 제조원가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 값싼 석유계 화학물로 만들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br/>성장기 아이들이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암을 유발하고 불임과 호르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위험하다. 게다가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10대 피부에 성인용 화장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기 쉽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화장을 하지 마라”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상 올바른 화장 교육법이 필요한 이유다.<br/><br/>아이의 화장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br/>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화장을 하는 것일까. 아이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즉 사춘기에 접어들면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게다가 고등학생도 성형을 할 만큼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10대 아이돌 스타의 대거 등장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허그맘 아동청소년 심리 상담 강동센터 양소영 원장은 부모들의 걱정과 달리 “<span class='quot0'>아이들의 화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span>”라고 말한다. 사춘기 아이들은 신체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2차 성징을 겪게 된다. 예쁜 외모를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화장을 그 수단으로 삼은 것일 뿐 비행이나 반항의 증거는 아니다.<br/>아이가 화장을 한다고 해도 학업과 일상에 별 무리가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화장품 사는 데 집착을 하며, 다른 것은 일절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보이는 것, 즉 자신의 외적인 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br/>간혹 “우리 아이는 화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며 자랑을 하는 부모가 있다. 하지만 양 원장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며 딱 잘라 말한다. 이런 아이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어떠한 이유로 화장을 하고 싶거나 예뻐지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는 경우와 자존감이 낮아 어차피 꾸며도 나는 예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회피하는 경우다. 결국 아이가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 원장은 조언한다.<br/>아이가 화장을 시작한다면 부모는 제일 먼저 딸이 외모를 꾸미고 싶어 하는 사춘기가 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럴 땐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된다. 먼저 어른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아이와 바른 대화를 할 수 있다. “화장을 왜 하니?”가 아닌 “<span class='quot1'>화장을 해서 예쁘게 보이고 싶구나</span>”라고 공감을 하며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충분한 공감을 나눈 뒤에는 어떤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왜 과한 화장이 좋지 않은지 등에 대해 차분히 대화하듯 이야기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상담 센터를 찾는 모녀 중 상당수가 ‘아이의 화장’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찾아올 정도로 많다. 수많은 사례를 접하지만 딸과 엄마의 입장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다고. 특히 엄마들은 양 원장에게 “우리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제발 화장을 안 하게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부모들은 ‘화장은 나쁜 것=고쳐야 하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딸과 엄마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br/>양 원장은 만약 딸과 대화가 힘들다면 함께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피부 상태, 앞으로 피부 변화에 대한 진단을 받으며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아이의 화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딸의 문제이기 전에 부모의 문제다.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이거나 부부 문제 등 다른 외부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며 공감하려는 자세다. 그제야 비로소 BB크림을 바른 얼굴이 아닌 훌쩍 자란 딸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br/><br/>연기자 김성령, 김성은 담당하는 베테랑 메이크업 아티스트<br/>brand m 이경은 원장이 말하는 10대를 위한 건강한 화장법<br/>이경은 원장은 우리나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1세대로 광고와 잡지 화보, 방송 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인 그녀는 요즘 아이들의 화장법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10대들의 이상적인 화장법은 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 외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 원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화장을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건강한 메이크업 방법에 대해.<br/><br/>스킨 메이크업 파운데이션보다는 기능성 BB크림을 여드름 피부를 가리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과하게 바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스킨, 로션, 수분크림을 바른 뒤 선크림을 바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BB크림이나 CC크림을 가볍게 발라주는 게 좋다. 또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컨실러로 커버를 하되 클렌징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젤이나 오일 타입 등 본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 꼼꼼히 지워야 한다.<br/><br/>아이 메이크업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눈 건강에 좋아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마스카라를 하는 것은 사실 눈에 굉장한 피로감을 준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촬영을 마친 뒤에 가장 먼저 지우는 것이 바로 아이 메이크업이다. 하물며 오랜 시간 앉아서 책을 봐야 하는 아이들의 눈 건강에 해롭다. 그럼에도 반드시 아이 메이크업을 사수해야 한다면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하고, 아이라인은 점막에만 살짝 그리도록 한다. 하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가급적 학생들이 아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br/><br/>포인트 메이크업 진한 색보다는 청순하고 깨끗한 느낌을 살려 블러셔나 아이섀도 등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다. 사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맑고 투명한 피부가 장점이라 색조 화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블러셔를 발라야겠다면 건조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크림 타입 제품이 좋다. 아이섀도의 경우 진한 색보단 펄이 들어간 제품으로 청순하고 깨끗한 느낌을 살리고, 입술은 립밤 기능이 있는 틴트로 마무리하면 훨씬 보기 좋을 것이다.<br/><br/>Mini Interview<br/>“화장으로 여드름을 가리지 말고<br/>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해요”<br/><br/>청소년기 피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br/>청소년기에는 안드로겐 호르몬이 급증한다. 피지선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며 활동도 또한 높아지고 피지량이 많아진다. 피지 분비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모공 출입구를 막는 일이 빈번해져 좁쌀형 여드름이 잘 생긴다. 또 피부 장벽과 면역 체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좁쌀형 여드름이 염증형 여드름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흔하다.<br/><br/>어린 나이에 화장을 시작하면 어떤 문제를 초래하나?<br/>가뜩이나 청소년기에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 여드름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른다면 더욱더 악화될 소지가 많다. 게다가 화장이 두꺼워지면 클렌징 역시 피부에 큰 자극을 준다. 많이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크림은 얼굴의 유분막까지 제거하게 돼 피부 보호 장벽이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 피부 보호 장벽이 약해지면 기존의 좁쌀형 여드름이 쉽게 화농이 되며 자극성 피부염도 잘 생긴다.<br/><br/>실제로 화장으로 인한 문제로 내원하는 아이들이 있는지?<br/>주로 두꺼운 화장으로 여드름이 악화돼 내원한다. 사춘기 청소년은 외모에 민감하기 때문에 무조건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대신 모공을 덜 막는 파우더 제품으로 가볍게 바르라고 말하는 편이다. 커버력이 좋은 제품일수록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 과정 중에는 파운데이션이나 BB크림을 바르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또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 아이 메이크업으로 인해 자극성 피부염이 생겼는데 이를 오랫동안 방치해 눈 주위에 만성적인 색소침착까지 동반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br/><br/>화장을 시작하기 적절한 연령이나 기준이 있을까?<br/>화장을 하지 않아도 안색이 밝고 맑게 유지되는 나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수록 좋다. 나이가 들면 안색이 창백하거나 칙칙해서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게 화장이다. 따라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부터 열을 올릴 필요는 없다. 단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한다. 만약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너무 번들거린다면 파우더로 적당히 눌러준다.<br/><br/>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년기에 바르는 화장품이 각각 달라야 할 것 같은데?<br/>나이별로 달라지기보다는 얼굴에 피지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사춘기 전후로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베이비 로션은 유분기가 많은 편이라 피지선이 발달해 여드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주니어 화장품은 보통 여드름이 고민인 아이들을 겨냥해 만든다. 매일 바르는 보습제에도 살리실산, 트리클로산, 티트리 오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 많은데, 여드름 치료 성분은 따로 바르는 게 좋다.<br/><br/>피부과 전문의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화장법이 있다면?<br/>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많이 시작하는데 그보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드름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색소침착과 파인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여드름 전용 화장품 속에 포함된 자극 성분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자극 성분이 적은 보습제 로션을 기본으로 해 선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선크림을 발랐다면 거품이 많이 나는 저자극성 폼 세안제로 충분히 세안해야 한다. 요즘엔 화장품의 종류가 많고 손쉽게 살 수 있으니 피부과에서 화장품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br/><br/><표><br/>화장품을 사기 전 반드시 확인!<br/>발암성이 의심되는 성분<br/>아보벤젠, 이소프로필 알코올, 소디움 라우릴황산염&소디움 라우레스황산염, 트리에탄올아민, 폴리에틸렌글리콜, 합성착색료(특히 황색 4호, 적색 219호, 황색 204호, 적색 202호),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소르빈산, 호르몬류(에스트로겐, 난포호르몬, 에스트라지올, 에티닐에스트라지올),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r/><br/>환경호르몬이 의심되는 성분<br/>파라벤 , 트리클로산 ,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옥시벤존<br/><br/>알레르기 유발이 의심되는 성분<br/>이미다졸리디닐 유레아,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디엠디엠히단토인, 미네랄 오일, 티몰, 트리이소프로파놀아민, 인공향료, 페녹시에탄올<br/><br/>Profile 양소영 원장은…<br/>아동 상담 전문가이자 부모 교육 전문가로 초등학생의 심리를 다룬 「청개구리 초등 심리학」을 썼다. 라디오, TV 등 언론은 물론 기업체, 학교 등에서 강연을 하며 종횡무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이자 허그맘 강동센터 원장으로 있다.<br/><br/>Profile 최혜진 원장은…<br/>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여드름 집중 치료 전문 병원인<br/>서울진 피부과의 대표 원장으로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8.txt

제목: 아버지의 유작 출연한 배우 조동인의 날갯짓  
날짜: 2014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1100000043  
본문: 영화 ‘스톤’은 상영관에서는 막을 내린 지 오래됐다. 그러나 뒤늦게 다른 경로로 영화를 접한 사람들을 통해 ‘숨겨진 수작’이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다 할 작품성을 가진 한국 영화가 드문 요즘, 영화는 감우처럼 영화 팬들의 마음을 달달하게 적셔주었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고 조세래 감독의 아들인 배우 조동인을 만났다.<br/><br/>영화관에서 못 봐서 미안하다!<br/>영화 ‘스톤’은 그저 그런 조폭 영화인 줄만 알았다. 킬링 타임용으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길 바라며 IPTV 소액 결제 후 영화를 보았다. 바둑에 대한 디테일, 가슴을 깊이 울리는 대사 한 마디 한 마디, 배우들의 명연기.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갈 무렵, 미처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못하고 놓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왔다.<br/><br/>뒤늦게 영화의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영화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스톤’을 검색했더니 역시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영화 팬들은 ‘요 근래 보기 드문 명작’, ‘숨겨진 수작’이라며 이 영화를 강력 추천했다. 담백하지만 눈에 띄는 연기를 한 신인 배우 조동인(25)에 대한 칭찬도 보였다. 영화는 일명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의 출연작이 아니었기에 국내 언론이나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큰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해외 영화제에서는 초청장을 연이어 보내오고 있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 하와이 국제영화제, 프랑스 도빌 아시아 영화제, 최근에는 후쿠오카 아시안 영화제까지 말이다. 직접 영화제에 참석했던 조동인은 동양적이고 특수한 ‘바둑’이라는 영화 소재 덕분인 것 같다고 말한다.<br/><br/>“바둑을 누아르에 접목한 점이 독특해 외국인들의 시선을 끌었나 봐요. 다들 처음에는 ‘조폭’ 영화로 착각하시더군요. 바둑을 통해 본 인생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외국 심사위원들은 그런 점을 높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br/><br/>‘바둑은 서로가 한 수씩 두는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게임이다’, ‘정말 인생이 바둑이라면 첫수부터 다시 두고 싶다’ 등 영화에는 다양한 인생사를 바둑판에 점철시켜 표현한 대사들이 많이 나온다. 영화 속 대국 장면은 조세래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찍어 고수들의 디테일이 살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나리오 작가 시절 기원에서 바둑 선생님을 했던 감독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br/><br/>“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저도 바둑을 배웠어요. 덕분에 프로에 가까운 실력을 가진 캐릭터 ‘민수’를 대역 없이 연기할 수 있었죠.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바둑은 손 모양만 봐도, 바둑알을 놓는 소리만 들어도 급수나 실력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영화 속 다른 배우의 손 대역도 맡아서 했어요.”<br/><br/>그는 직접 시범을 보였다. 작년에 크게 흥행했던 모 한국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바둑 고수임에도 손동작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말이다. 바둑알을 중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내려놓을 때는 아래에 있는 검지를 빼 중지를 아래로 내리며 바둑판에 탁! 놓는다. 웬만큼 배워서는 쉽지 않은 손동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br/><br/>아버지에게 받은 ‘배우’라는 선물<br/>조동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연기는 이번 영화를 빼곤 전무하지만 그의 연기 인생은 18세에 극단 ‘꼭두’ 입단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다수의 작품을 읽어가며 익힌 캐릭터 분석이 큰 도움이 됐단다.<br/><br/>“어릴 때부터 유일한 장래희망이 배우였어요. 그런데 제가 숫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대사조차 못치겠더라고요. 선생님 앞에서 불을 끄고 연습했을 정도예요. 영화 촬영 기간 두 달 동안은 무척 긴장해서 잠을 못 이루곤 했죠.”<br/><br/>그는 감독인 아버지가 만든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촬영 내내 그를 짓눌렀다. 불우한 환경에 놓인 주인공 민수에게 몰입하기 위해 친구들과 연락도 끊은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했다. 기타로 ‘가장 슬픈 코드’라고 불리는 에이마이너를 반복해 튕기며 민수의 감정으로 빠져들었다.<br/><br/>“촬영이 시작되고 며칠 잘 넘어간다 싶었는데 감독님이 ‘민수, 네가 무슨 아마추어야?’ 하시며 제 연기에 화를 내셨어요. 조금씩 녹아가던 마음이 다시 급속 냉동으로 얼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님은 아들이라 더 엄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기원에서 바둑 선생님을 하실 때 아이들이 떠들어서 엄청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별로 떠들지도 않은 저를 대표로 때리시더라고요.”<br/><br/>촬영 당시 그에게 바라는 감독의 주문은 한결같았다. “절제하라”였다. 심지어 연기를 하지 말고 힘을 빼라고 했다. 그의 상대역은 김뢰하, 박원상 등 에너지 넘치는 성격파 배우들이었다. 그 사이에서는 차라리 악을 쓰는 연기가 쉬웠다.<br/><br/>“연기하는 데 힘 있는 발성도 꽤 중요하잖아요. 연기력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고요. 그걸 배제한 채 연기를 하라고 지시하시니 불만이 많았어요. ‘이 대사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면 감독님은 ‘그건 민수가 아니다’라고 어김없이 제동을 거셨죠. 그런데 완성된 영화를 보니 감독님 말씀이 맞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했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어요.”<br/><br/>그러나 조세래 감독은 자신의 작품이 개봉하는 걸 보지 못하고, 연출부 스태프로 영화에 참여한 첫째 아들 조현우(28), 주인공을 맡은 둘째 아들 조동인을 남긴 채 지난해 11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br/><br/>“쉽게 받을 수 없는 큰 선물을 주고 가셨죠. 그런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영화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 이 영화를 찍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돌아가셨을까? 하는….”<br/><br/>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조금 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 홍보 인터뷰 중 그 이야기만 나오면 더이상의 대화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더랬다. 많이 담담해졌지만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쉬움, 평생 가슴속에 묻어야 하는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얀 전쟁’,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로 각종 영화제를 휩쓴 성공한 시나리오 작가였지만 늘 자신의 작품에 목말라했고, 21년 만에 영화감독의 꿈을 이룬 아버지. 그가 남겨진 두 아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지 두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br/><br/>“형도 어린 시절부터 늘 영화감독을 꿈꿨어요. 초등학교 때 집에 낡은 캠코더가 있었는데, 형은 블록버스터를 찍겠다며 집 모형을 만들고 라이터와 신문지로 불을 지르고 촬영하곤 했죠.”<br/><br/>형 조현우는 현재 단편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냉정하게 평가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소중한 존재다.<br/><br/>“시나리오를 쓰면 항상 보여줘요.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당연해졌어요. 재밌는 웹툰을 발견하면 어떻게 영화화해야 할지 서로 의논도 하고요. 형은 가끔 놀랄 정도로 소재 선택이나 글에 센스가 있어요.”<br/><br/>“<span class='quot0'>형의 단편영화에서는 당연히 주인공을 맡느냐</span>” 물었더니 그건 아니란다. 소속사 대표님과 함께 시나리오와 개런티 조건을 보고 합당하면 촬영하겠다는 다부진 계획.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다.<br/><br/>마지막 추억, 행복했다<br/>조동인은 영화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촬영했던 매 순간이 가슴속에 남아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br/><br/>“‘다시 찍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이 장면은 내가 어떻게 했지?’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아닌 민수가 오롯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은 다시 해보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br/><br/>아버지 대신 섰던 국제 영화제의 레드카펫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인터뷰 전에 다녀왔던 일본 후쿠오카 아시안 영화제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했다.<br/><br/>“후쿠오카 영화제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제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관객들과 편하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소규모 연극을 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br/><br/>그를 보기 위해 도쿄에서 날아온 일본인 여성 팬도 생겼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한다.<br/><br/>“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때부터 팬이 되셨고, 제 사인을 세 번이나 받으셨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사인을 받자마자 ‘왜 사인이 매번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사인을 해준 경험이 별로 없었으니 그때마다 달랐던 모양이에요(웃음).”<br/><br/>아직도 카메라 앞에서는 어색함을 감출 수가 없다. 주변 스태프들에게 ‘몸치’냐고 놀림을 받기도 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span class='quot0'>내가 할 수 있는 건 눈알 돌리는 것뿐!</span>”이라며 유쾌하게 웃는다.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분위기를 탈 줄은 안다.<br/><br/>“누구처럼 되고 싶다, 라고 마음속에 새긴 분들은 많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를 아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언젠가는 내면이 아주 복잡한 악역을 꼭 해보고 싶고요.”<br/>사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배우의 느낌이 담겨 있다. 아직은 조동인만의 캐릭터가 명확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제2의 누구’라는 표현은 섣불리 쓰지 않겠다. 앞으로 그는 자신만의 캐릭터가 분명한 배우가 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19.txt

제목: 요즘 대세! 망고 즐기기  
날짜: 2014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1100000075  
본문: 껍질을 벗기면 황금빛 고운 살결이 모습을 드러낸다. 윤기가 흐르는 탱글탱글한 비주얼에 먹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망고. ‘국민 과일’ 타이틀을 넘보며 무섭게 인기몰이 중인 망고를 색다르게 즐겨보자. 다채로운 망고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카페도 골랐다.<br/><br/>망고, 왜 인기일까?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열대 지방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과일이 바로 망고다. 여행지에서 한껏 들뜬 기분 때문인지, 원산지에서 먹어서인지 국내에서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원산지에서 맛본 망고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늘면서 망고 수입량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입량이 늘다 보니 원산지 업체 간 수출 경쟁이 심해졌고 이는 망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원래 망고는 비싼 과일로 통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난 것.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사람들은 ‘맛’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다. 망고가 이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간단하다. 맛있으니까!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철에 달콤하면서도 상쾌하고 시원한 맛을 선사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br/><br/>상큼 달콤! 건강에도 좋은 망고 망고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다. 각종 비타민도 다양하게 들어 있어 피부 건강에 좋고, 제아잔틴이나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노화 방지 효과를 준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천식과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잘 익은 망고는 노란색과 녹색 중간 정도이며 껍질이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난다. 만졌을 때 너무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것, 멍이 있거나 발효된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br/><br/>집에서 즐기는 시판 망고 메뉴<br/>망고 빙수<br/><br/>재료<br/>망고 1/2개, 과일 치즈 40g, 빙수용 팥 1/2컵, 우유 1/3컵, 연유·얼음 적당량, 애플민트 잎 약간<br/><br/>만들기<br/>1 망고는 가운데 씨 부분을 중심으로 길이로 3등분해 썬 뒤 과육에 1×1cm 크기로 칼집을 넣은 다음 숟가락으로 과육만 떠낸다. 2 과일 치즈는 1×1cm 크기의 큐브 형태로 썬다. 3 얼음은 빙수기로 갈아서 그릇에 수북이 담고 우유와 연유를 뿌린 뒤 빙수용 팥과 ①의 망고, ②의 과일 치즈를 올린다. 기호에 따라 애플민트 잎을 올린다.<br/>Tip 망고는 가운데 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손질할 때 이 부분을 빗겨서 썰어야 한다. 망고 가운데 부분을 대략 폭 1cm로 잡고 생선포를 뜰 때 세 장 포 뜨기를 하듯 길이로 3등분한다.<br/><br/>망고 유자에이드<br/><br/>재료<br/>망고 1개, 유자청 2작은술, 탄산수 1컵, 얼음 적당량<br/><br/>만들기<br/>1 망고는 가운데 씨 부분을 중심으로 길이로 3등분해 썬 뒤 과육에 1×1cm 크기로 칼집을 넣은 다음 숟가락으로 과육만 떠낸다. 2 믹서에 ①의 망고와 유자청, 탄산수, 얼음을 함께 넣고 곱게 간다. 3 컵에 얼음을 채우고 ②를 담는다.<br/><br/>색다른 망고 메뉴에 도전!<br/>망고 버거<br/><br/>재료<br/>망고·양파·토마토 1/4개씩, 느타리버섯 1/4팩, 햄버거 빵 2개, 양상추 잎·치즈 1/2장씩, 식용유 적당량, 햄버거 패티(다진 쇠고기 150g, 양파 1/4개, 식빵 1/2장, 달걀물 1큰술, 마늘 1/2톨, 소금 1/3작은술, 넛맥가루·후춧가루 약간씩), 소스(토마토홀 1과 1/2큰술, 바질 잎 5장, 올리브유 1/2작은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br/><br/>만들기<br/>1 패티 재료 중 다진 쇠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빼고 식빵은 가장자리를 썰어낸 뒤 커터를 이용해 잘게 갈고 양파와 마늘은 곱게 다진다. 2 큰 볼에 ①의 재료와 나머지 패티 재료를 넣고 끈기가 생기도록 치댄 뒤 반죽을 2등분해 손바닥만 한 크기로 동글납작하게 패티 모양을 만든다. 3 분량의 소스 재료를 믹서에 넣어 곱게 간 다음 소스 팬에 부어 팔팔 끓여 살짝 조린 뒤 한 김 식힌다. 4 양파와 토마토는 둥근 모양을 살려 0.5cm 폭으로 슬라이스하고 느타리버섯과 양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찢는다. 5 망고는 과육에 1cm 간격으로 길게 칼집을 넣은 뒤 숟가락으로 과육만 떠낸다. 6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②의 패티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7 ⑥의 팬에 ④의 느타리버섯을 넣고 살짝 익힌다. 8 햄버거 빵 1장에 ③의 소스를 바른 뒤 ④의 양상추-⑥의 패티-치즈-④의 양파-토마토-느타리버섯-⑤의 망고 순으로 올리고 나머지 빵을 덮는다.<br/><br/>살사 망고를 곁들인 나초<br/><br/>재료<br/>망고 1/2개, 나초 적당량, 레몬 1/4개, 소금 1/8 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살사소스(토마토 1/2개, 양파 1/8개, 마늘 1/2톨, 이탤리언 파슬리·딜 1줄기씩, 소금 1/4작은술, 올리브유 1/2큰술, 오렌지 농축액 3/4큰술)<br/><br/>만들기<br/>1 망고는 가운데 씨 부분을 중심으로 길이로 3등분한 뒤 과육에 1×1cm 크기로 칼집을 넣은 다음 숟가락으로 과육만 떠낸다. 2 볼에 ①의 망고를 담고 레몬으로 즙을 짜서 고루 섞은 뒤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다. 3 살사소스 재료 중 양파는 굵게 다지고 토마토는 웨지 모양으로 썰어 씨를 긁어낸 뒤 굵게 다진다. 마늘도 다진다. 4 딜은 잎을 떼어내고 이탤리언 파슬리는 1cm 길이로 썬다. 5 작은 볼에 올리브유, 오렌지 농축액, 소금을 넣고 거품기를 이용해 고루 섞은 뒤 ③의 양파와 토마토, 마늘, ④의 딜과 이탤리언 파슬리를 넣고 고루 섞어 10분 정도 둔다. 6 ②의 망고에 ⑤의 살사소스를 넣고 가볍게 버무려 그릇에 담고 한쪽에 나초를 곁들인다.<br/><br/>망고 리코타치즈샐러드<br/><br/>재료<br/>망고 1개, 리코타치즈 150g, 샐러드용 채소 한 줌(70g),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올리브유 적당량, 마늘 요거트드레싱(플레인 요거트 1/2컵, 마요네즈·레몬즙 1큰술씩, 다진 마늘 1/2작은술, 꿀 1작은술, 소금 1/4작은술, 흰 후춧가루 약간)<br/><br/>만들기<br/>1 망고는 가운데 씨 부분을 중심으로 길이로 3등분해 썬 뒤 과육에 1cm 간격으로 길게 칼집을 넣고 숟가락으로 과육만 떠내 접시에 담는다. 2 샐러드용 채소는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털어낸 뒤 소금, 후춧가루, 올리브유를 뿌린 다음 가볍게 버무려 ①의 망고 옆에 담는다. 3 리코타치즈를 티스푼으로 떠서 ②의 접시 군데군데에 뿌려 올린다. 4 볼에 분량의 마늘 요거트드레싱 재료를 담고 거품기로 고루 저은 다음 ③에 고루 뿌린다.<br/><br/>망고로 입맛 사로잡은 인기 카페 메뉴<br/>대만에서 건너온 망고 빙수<br/><br/>미트프레시<br/>대만에 50개 이상의 매장을 둔 정통 디저트 브랜드 미트프레시가 국내에 상륙했다. 망고 빙수가 유명한 대만에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로 대표 메뉴인 망고 빙수를 시키면 거대한 비주얼에 한 번, 맛에 두 번 놀라게 된다. 산처럼 쌓아 올린 빙수를 보고 ‘다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잠시, 생망고와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시럽의 달달하고 상큼한 맛에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어느새 그릇을 깨끗이 비우게 된다.<br/>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1시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02길 11 문의 070-7423-5277<br/><br/>먹음직스럽게 쌓아 올린 비주얼이 입맛을 돋우는 망고 빙수. 아이스크림과 망고 시럽의 달콤함이 더해졌다. 1만2천9백원.<br/><br/>푹신한 얼음의 망고 빙수<br/>로이즈<br/>테이크아웃 전문이라 매장이 작지만 맛을 보고 나면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곳. ‘생망고 목화 빙수’, ‘생망고 우유 목화 빙수’라는 메뉴 이름처럼 목화솜같이 푹신하고 부드러운 얼음이 특징으로 마치 장인이 얼음을 한 겹 한 겹 부드럽게 깔아놓은 듯하다. 입 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빙수와 상큼한 망고 맛이 일품. 신선한 망고를 얹은 망고스무디와 망고 파인애플주스, 망고 허니브레드 메뉴도 있다.<br/>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 주소 서울 중구 무교로 15 문의 02-756-8788<br/><br/>1 신선하고 상큼한 망고를 풍부하게 담은 망고주스. 5천8백원. 2 목화솜처럼 보송보송한 얼음이 특징인 생망고 목화 빙수와 생망고 우유 목화 빙수. 스몰 5천원, 레귤러 8천5백원.<br/><br/>다양한 메뉴가 한자리에<br/>망고하하<br/>빙수는 물론 주스, 스무디, 버블티, 아이스크림, 와플, 요거트 등 애플망고로 만든 다채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망고의 신선한 맛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인데, 비결은 대만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최상급 애플 망고를 특별한 방식으로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것. 애플망고를 얼려서 곱게 간 애플망고 빙수는 깊은 맛이 전해지고, 와플은 상큼한 과육과 달콤한 휘핑크림이 조화를 이룬다.<br/>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11시 주소 서울 중구 명동8길 45 문의 070-7793-5037<br/><br/>1 부드러운 소프트아이스크림 위에 애플망고와 시럽을 토핑했다. 4천5백원.<br/>2 요거트에 애플망고 과육을 얹어 깔끔한 맛을 낸다. 4천5백원.<br/>3 상큼한 애플망고와 달콤한 휘핑크림의 조화가 일품인 애플망고 와플. 1만1천9백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0.txt

제목: .  
날짜: 2014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801100000063  
본문: FASHION<br/>몇 년간 꾸준히 트렌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스루 룩 덕분에 속옷은 패션 아이템의 일부로<br/>자리 잡았다. 감추기에 급급했던 속옷을 오히려 어떻게 멋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 속옷과 옷의 환상의 매치 룰을 찾았다.<br/><br/>환상의 짝꿍 찾기<br/>오간자 블라우스+브라톱<br/>시스루 룩이 대세라지만 오간자 소재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블라우스에 브라만 착용하기는 부담스럽다. 일반 슬리브리스톱 디자인의 브라톱을 매치하면 한층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착용감이 편리한 것은 덤이다.<br/><br/>슬리브리스톱+스트랩리스 브라<br/>슬리브리스톱을 입을 때 유용한 것은 끈이 보일 염려가 없는 스트랩리스 브라. 흘러내린 브라 끈은 단정하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슴선 아래를 와이어가 받쳐주는 타입을 선택해야 흘러내리지 않는다.<br/><br/>브이넥 톱+푸시 업 브라<br/>가슴골이 깊게 파인 톱을 입을 때는 가슴 라인을 잘 살려주는 푸시 업 브라가 제격이다. 가슴 라인이 봉긋하게 솟아올라야 브이넥만의 섹시함을 발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br/><br/>백리스 원피스+누브라<br/>시스루 룩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백리스 디자인엔 등이 훤히 드러나도록 매치할 것. 등 라인을 드러내면서 가슴의 볼륨도 살리고 싶다면 앞섶으로 여미는 타입의 누브라를 선택한다.<br/><br/>화이트셔츠+스킨 컬러 브라<br/>화이트셔츠 안에 블랙 컬러의 브라를 매치해 섹시한 멋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오피스 룩처럼 단정하게 연출할 땐 스킨 컬러 브라를 매치해 최대한 드러내지 않게 스타일링하는 것이 현명하다.<br/><br/>스포티 톱+스포츠 브라<br/>암홀이 깊게 파인 슬리브리스톱에는 러닝톱을 매치한다. 클로징 후크와 와이어가 없어 편한 스포츠 브라톱이나 러닝톱은 운동할 때 뿐 아니라 캐주얼한 데일리 룩에도 잘 어울리는데, 일반 브라를 입었을 때보다 더 스타일리시하다.<br/><br/>1 도트 패턴 오간자 블라우스 4만5천원, 잇플레이스. 화이트 슬랙스 팬츠 14만8천원, 발렌시아. 레드 클러치백 23만3천원, 파슬. 블랙&화이트 오픈토 부티힐 39만9천원, 나무하나.<br/>블랙 슬리브리스 브라톱 10만원대, 엠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br/><br/>2 화이트 아일릿 슬리브리스 톱 4만9천원, ZARA. A라인 미니스커트 10만9천원, 블루페페. 주얼 장식 레더 밴드 팔찌 6만원대, 까밀라 by 바바라. 패턴 플랫폼 샌들 9만8천원, ALDO. 블랙 플라워 모티브 장식 목걸이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딥 그린 스트랩리스 브라 10만8천원, 캘빈클라인 언더웨어.<br/><br/>3 블랙 캐미솔 톱 가격미정 ZARA. 블랙 레이스 쇼츠 가격미정, 에고이스트. 제브러 패턴 송치 팔찌 2만2천원, 케이트앤켈리. 네이비&레드 배색 스트랩힐 18만9천원, 스타카토.<br/>블랙 샤이니 푸시 업 브라 6만7천원, 비비안.<br/><br/>4 셔링 디테일 백리스 원피스 12만9천원, ZARA. 뱅글 디자인 시계 57만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오렌지&브라운&화이트 배색 오픈토 샌들 6만원대, 까밀라 by 바바라.<br/>스킨 컬러 접착식 누브라 6만8천원, 비비안.<br/><br/>5 캡 소매 슬리브리스 화이트 블라우스 가격미정, 나이스크랍. 체크 패턴 H라인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13만9천원, JJ지고트. 실버&화이트 배색 시계 19만3천원, 파슬 워치 by 파슬코리아. 블루 체인 백 30만원대, 러브캣. 스트랩 웨지힐 샌들 4만원대, 까밀라 by 바바라.<br/>가슴을 감싸주는 스킨 컬러 브라 6만9천원, 비비안.<br/><br/>6 블랙&화이트 일러스트 포인트 슬리브리스 톱 5만9천원·핫 핑크 트레이닝 쇼츠 5만5천원·핑크 끈 포인트 블랙 러닝화 가격미정, 아디다스 퍼포먼스.<br/>핑크 그래픽 패턴 포인트 스포츠 브라톱 4만9천원, 아디다스 퍼포먼스.<br/><br/>시스루 룩에 매치하기<br/>청순해 보이는 시스루 룩이란 바로 이런 것. 뷔스티에 스타일의 브라를 화이트 와플 망사 셔츠와 레이어드해 한 벌의 옷처럼 연출해보자. 여기에 화이트 쇼츠를 더해 올 화이트 룩을 완성하면 고급스러운 무드까지 살아난다.<br/><br/>누드톤의 슬리브리스 톱과 채도가 높은 컬러 브라의 매치로 완성한 톤온톤 룩. 비슷한 톤의 컬러 매치는 무심한 듯 은은하게 섹시한 매력을 풍긴다. 하의 역시 브라운 레드톤을 선택해 전체적인 색감을 맞출 것.<br/><br/>세련된 느낌의 화이트 룩에 포인트를 살리고 싶다면 비비드한 컬러의 브라를 선택한다. 레이스 셔츠와 레이스 브라는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져 다소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룩에 활기를 더해준다.<br/><br/>화이트 레이스 시스루 티셔츠는 장식적이고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플로럴 2가지 패턴이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사하지만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하와이안 무드를 연출해보자.<br/><br/>레이스 브라에 누드톤의 캡으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블랙 레이스 브라는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슬리브리스톱의 시폰 소재와 어우러져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와이드 5부 팬츠로 매니시한 무드를 더해 반전 매력을 배가시킨다.<br/><br/>블랙 레이스 브라를 꼭 블랙 톱에만 매치하라는 법은 없다. 블랙과 블랙의 조화는 강렬해 보일 수 있는 반면 화이트 톱과의 매치는 청순한 듯 섹시한 이미지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패셔너블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br/><br/>1 피케 디자인 와플 망사 롱 셔츠 34만9천원, g-cut. 화이트 쇼츠 가격미정, 빈폴 레이디스. 스터드 장식 핑크 팔찌 2만9천원, 케이트앤켈리. 실버 스트랩 슈즈 7만원대, 까밀라 by 바바라.<br/>뷔스티에 스타일 화이트 브라 1만5천8백원, 포에버21.<br/><br/>2 누드 컬러 슬리브리스 니트 톱 31만9천원, 우바. 리본 디테일 쇼츠 6만9천원, ZARA. 핑크 스터드 장식 팔찌 가격미정·그린 레더 밴드 팔찌 2만6천원, 케이트앤켈리. 크리스털 장식 베이지 스트랩힐 가격미정, 세라.<br/>코럴 컬러 브라 2만8천원, 캘빈클라인 언더웨어.<br/><br/>3 화이트 레이스 시스루 셔츠 4만5천원, 클리지. 화이트 슬랙스 팬츠 가격미정, 데무. 도트 패턴 뱅글 가격미정, 콜록. 화이트 밴드 플랫폼 슈즈 가격미정, 스타카토.<br/>옐로 레이스 브라 9천8백원, 포에버21.<br/><br/>4 회이트 레이스 시스루 티셔츠 15만8천원, 발렌시아. 플라워 패턴 펀칭 디테일 미니스커트 16만8천원, 에고이스트. 레드 레더 팔찌 2만2천원, 콜록. 화이트 스트랩 웨지힐 샌들 가격미정, 소다.<br/>애니메이션 프린팅 브라톱 6만9천원, 69슬램.<br/><br/>5블랙 시스루 슬리브리스 톱 1만원대, 잭앤질. 블랙 와이드 5부 팬츠 7만9천8백원, H CONNECT. 크리스털 장식 골드 목걸이 가격미정 프란시스케이. 골드&버건디 배색 클러치백 12만5천원, 슈퍼노바. 베이비 핑크 밴드 웨지힐 슈즈 29만9천원, g-cut.<br/>블랙 레이스 시스루 브라 13만8천원, 캘빈클라인 언더웨어.<br/><br/>6 화이트 레이스 슬리브리스 톱 1만원대, 포에버21. 화이트 아일릿 디테일 맥시스커트 49만8천원, 제라드다렐. 에스닉 무드 목걸이 5만2천8백원·태슬 장식 체인 팔찌 2만8천5백원, 프란시스케이. 블루 스트랩 웨지힐 샌들 18만9천원, 스타카토.<br/>블랙 레이스 브라 23만원, 바바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1.txt

제목: [이보형 원장의 몸짱으로 100세까지]암세포 자리잡을 틈 없이… 근육을 탄탄하게!  
날짜: 20140731  
기자: 이보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31100000025  
본문: 성인병 물리치는 메디컬 트레이닝 - 2회 하루 40분! 암 예방 8가지 근력운동 <br/><br/>■‘돌연변이 세포’ 암, 예방이 최고 <br/>… 근육과 순환계 동시에 자극하는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 가장 효과<br/>누구에게나 ‘암’은 두려운 존재다.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암이라는 존재를 죽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은 또 다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스포맥스 건강기능연구원 대표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보형씨는 실버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주장한다. 하루 한 시간 미만의 헬스 동작만으로도 암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딱 한 시간 웨이트로 전립선암 3기를 극복한 김종곤씨(69)의 시연으로 이원장의 ‘메디컬 트레이닝’을 소개한다. 암환자로 전락해 삶의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가, 이를 극복하고 제2의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의 선택만 남았다. <br/>■ 암을 예방하는 1시간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 <br/>벤치 프레스-벤트 오버 로우-푸시 업-데드 리프트-런지-레그 레이즈-프런트 스쿼트-크런치 <br/>■ 운동방법 <br/>20번 할 수 있는 무게로 각 동작을 15번씩 시행한다. 8가지 동작을 휴식없이 연이어 마친다. 1세트 이후 2~3분의 휴식을 취한 뒤 3세트를 반복한다. 초보라면 1세트씩만 시행하고 2주에 1세트씩 늘린다. 정확한 동작으로 시행하되, 총 3세트 이상은 하지 않는다. 단, 이미 합병증이 진행된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지시를 따른다.<br/><br/>사람은 누구나 질병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질병은 스스로 몸을 치유하고 정화시키려는 생체 본능의 노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암 세포 역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암 세포는 ‘내 몸이 죽으면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br/>암세포는 우리 몸 어딘가에서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폐물 배출이 장기간 막혀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암세포는 산소공급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세포에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암세포의 80%는 강력한 유전자 변이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는 아무 이유 없이, 또 마음대로 변이를 일으키지 못한다. 세포 환경 자체가 열악해 어쩔 수 없이 돌연변이의 길을 택한 것뿐이다. 한마디로 암세포를 불쌍하게 여기면 된다. <br/>성인 몸은 매일 3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교체되며 하루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없어진다. 교체되는 세포 중 1%가 악성 세포로 바뀐다.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결합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나 암세포는 필요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쓰레기통을 뒤진다. 이 때문에 암세포는 신진대사 산물인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그중 젖산의 발효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 이는 굶주렸을 때 자신의 배설물로 허기를 채우는 동물에 비유할 수 있다. <br/>예컨대 인체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포 주변의 결합 조직에 단백질을 쓰레기처럼 버린다. 이것으로 잠시나마 심혈관계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쓰레기 더미가 두꺼워지면 세포의 영양 통로가 차단되어 세포들이 굶어죽게 되므로 차선책으로 쌓인 단백질을 재결합해 콜라겐 섬유로 바꿔 동맥혈관 내벽을 두텁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다. 인체는 끝내 면역계의 주요기관인 림프관에까지 단백질의 일부를 쓸어 넣게 되고, 평소에도 일이 많던 림프관은 노후된 세포의 잔해물 처리와 해독 작용으로 몸?을 앓다가 흐름이 둔화되고 끝내는 기능이 멈춘다. <br/>이때 급격하게 변한 환경으로 인해 정상세포는 돌연변이를 일으켜 비정상세포인 암세포로 변이된다.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잠시나마 보호를 받는 여유를 얻게 된다. 이처럼 암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관리 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비로소 몸을 통제한다. 최악의 환경에서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보존하는 생존 매커니즘인 것이다. 따라서 암을 질병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동반자의 개념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br/>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막힌 곳을 뚫고 좁은 곳을 넓히며 혈액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내부 기관들을 정비하면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을 수 있다. 이때는 운동 부하에 의한 근육의 자극과 함께 빠르게 순환하는 순환계의 움직임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적이다. <br/><br/>◆ 이보형 원장은<br/>전 대한보디빌딩협회 부회장이자 스포맥스 건강기능연구원 대표원장으로, 건강 기능에 대해 연구 중이다. 1974년 대한민국 미스터코리아가 됐다. 방송에 다수 출연하는 등 꾸준한 업계 활동으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70대의 나이지만 넘치는 에너지로 미스터코리아 대회 진행을 전담하고 있다.<br/><br/>사진 스포맥스<br/>의상협찬 리복 휘트니스, 머슬마니아 한국지부(프로모터 김근범 www.musclemania.kr)<br/>장소협찬 레이노 토탈 휘트니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2.txt

제목: [리뷰]영화 ‘안녕, 헤이즐’  
날짜: 20140731  
기자: 이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31100000053  
본문: ‘죽음’은 태어나고 먹고 자라는 것처럼 삶의 한 과정이다.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른 시일 내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 예견된 삶이라도 어찌됐든 ‘삶’이다. 슬픈 일은 슬픈 대로, 기쁜 일은 기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br/>영화 <안녕, 헤이즐>은 혈액암으로 인해 산소 호흡기를 항상 코에 찬 상태로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하는 18세 소녀 헤이즐(셰일린 우들리)이 주인공이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기적적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소녀 헤이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의사들은 헤이즐과 그의 부모에게 복용 중인 약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듣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한다.<br/><br/>소녀는 자신의 곁에 늘 머무르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헤이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인 <거대한 아픔>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인 “고통은 느껴야 해”를 되뇐다. 짧은 커트를 한 소녀는 힘든 일이 닥치면 씩씩하게 씩 웃고 만다. 그런 헤이즐은 암 환자 모임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18세 소년 어거스터스(안셀 엘고트)를 만난다. 헤이즐은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span class='quot0'>이 행동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담배가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타포다</span>”라면서 활짝 웃는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진다.<br/>두 사람의 사랑은 헤이즐의 성격답게 솔직하고 담담하고 꾸밈없다. 두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어거스터스는 자신이 죽은 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망각’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헤이즐은 “<span class='quot0'>두려운 것은 그냥 생각하지 마</span>” “<span class='quot0'>여러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span>”고 말한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이 역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br/><안녕, 헤이즐>은 2012년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존 그린의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The Fault In Our Stars)>를 원작으로 했다. 각본은 로맨틱 코미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500일의 썸머>의 작가인 스콧 뉴스타드터와 마이클 H 웨버가 맡았다. <안녕, 헤이즐> 역시 <500일의 썸머>에서처럼 너무 넘치지 않는 적당한 로맨틱함과 곳곳에 박혀 있는 명대사가 보는 이를 기분좋게 한다. 영화는 다음달 13일 개봉한다. 125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3.txt

제목: 임권택 ‘화장’ 베니스 이어 토론토 간다  
날짜: 2014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31100000018  
본문: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이 제39회 토론토 국제 영화제 ‘마스터(Masters)’ 섹션 부문에 공식초청됐다. <br/><br/>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칸, 베니스,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힌다. 해마다 60여 개국의 300편 이상의 영화가 상영되는 북미 최대 규모 영화제이자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진다. <br/><br/>영화 <화장>이 초청된 마스터 섹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영화 감독들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부문이다. 임권택 감독은 2004년 <하류인생>, 2007년 <천년학>으로 같은 섹션에 초청된 바 있다. 그간 미카엘 하네케, 크리스티앙 문쥬, 지아 장커 등 세계적 거장을 비롯해 임권택, 이창동, 홍상수, 김기덕 감독 등의 신작들이 소개됐다.<br/><br/>토론토 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지오반나 펄비(Giovanna Fulvi)는 <화장>에 대해 “<span class='quot0'>임권택 감독의 힘있고 독창적인 영화 제작 기법을 토대로 인생, 죽음, 사랑에 대하여 성숙하고 강렬한 시선으로 돌아본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더 혁신적인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있다</span>”고 평했다. <br/><br/>올해 토론토국제영화제는 9월4일 개막해 14일까지 열린다. <br/><br/>김훈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화장>은 암에 걸린 아내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이야기다.<br/><br/><화장>은 앞서 제71회 베니스 영화제 비경쟁 부문 마스터 감독들을 소개하는 갈라(gala) 상영작으로 초청된 바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4.txt

제목: [트래블&힐링-그곳에 가면…]남한땅에서 만나는 작은 금강산  
날짜: 2014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31100000022  
본문: 소금강(小金剛)은 ‘작은 금강산’이다. ‘천하절경’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가는 길이 막혀 볼 수 없지만 금강산에 견줄 만한 비경이 남한 땅에도 제법 많다. 품에 드는 순간 금강산에 와 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br/><br/><br/>율곡이 직접 글로 써 남긴 강릉 청학동 ‘소금강’<br/>천년고찰 ‘금강사’와 바위수로 ‘십자소’ 지나면<br/>9개 물줄기 합창 ‘구룡폭포’… 계곡 따라 탄성<br/><br/>강원 강릉시 청학동 소금강은 우리나라 ‘소금강 1번지’이자 1970년 지정된 국내 최초의 명승지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청학산기>에서 ‘빼어난 산세가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한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소금강 내 유일한 사찰인 금강사 앞 영춘대에는 율곡이 새겼다고 전해지는 ‘小金剛(소금강)’이란 글씨가 또렷하다. <br/><br/><br/>오대산(해발 1563m) 동쪽 기슭, 산정을 향해 꿈틀거리는 소금강 계곡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오대산 줄기인 황병산을 주봉으로 좌·우 측에 매봉과 노인봉을 거느려 ‘학이 날개를 편 형국’이라 청학산이라고도 부른다. 청학산장 부근 무릉계를 경계로 하류 외소금강에는 금강문과 옥조대, 십자소, 옥수연 등의 명소가 줄줄이 이어지고, 상류 내소금강은 식당암, 구룡연, 청심대, 만물상 등을 품고 있다. 노인봉에서 흘러내려 소금강 계류에 합류하는 연곡천에서는 맑은 물에만 서식하는 은어와 산천어가 주인이다. <br/><br/>숲 짙은 계곡에서 만나는 첫 비경은 무릉계다. 여기서부터 급류와 청담, 기암이 줄줄이 이어진다. 골 깊은 소금강 계곡은 협곡이다. 그사이를 맑고 투명한 계류가 쉼없이 흐른다. 계류가 암반을 어루만지는 연화담을 지나면 금강사다. 금강송을 수문장처럼 두른 절집은 신라 때 지어진 천년 고찰이다. 이어 나타나는 십자소는 거대한 바위 수로다. 수로 양편과 바닥이 한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풍광은 경남 하동의 의신계곡 외에 보기 힘들다. 계곡으로 파고들수록 가파른 암벽이 이어져 오르고 내리기가 만만찮다. 한 발짝 들어설 때마다 옹골찬 산세와 비경에 압도당한다. <br/><br/>너른 마당을 옮겨놓은 듯한 식당암과 삼선암 언저리는 기암이 절경이다. 기암절벽에 둘러싸인 거대한 바위 아래로 일동천이 흐른다. 바위에 매달린 채 생명을 이어가는 소나무가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다가온다. 삼선암은 신라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훈련시키면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여기서 소나무·주목·굴참나무 울창한 숲길을 따르면 소금강의 백미인 구룡폭포를 만난다. <br/><br/>‘눈 감으면 한 폭포수 소리인데 눈 뜨면 아홉 폭포’라는 시구가 말해주듯 9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한몸을 이루고 있다. 9개의 못을 휘감아도는 계류가 새하얀 포말로 몸을 부수며 짙푸른 소로 내리꽂히는 모습이 장쾌하다. 계곡 가득한 폭포수 소리에 세속에 찌든 때를 씻고 발걸음을 재촉하면 만물상과 선녀탕이다. 거인상, 귀면암, 이월암, 촛대석 등이 변화무쌍한 만물상은 금강산의 만물상을 옮겨놓은 듯하다. <br/><br/>소금강 등반은 여기서 노인봉을 거쳐 진고개에 이른다. 산정에는 마의태자가 쌓았다는 아미산성이 남아 있다. 일반 관광객이라면 만물상에서 발길을 돌린다. 그 위로는 길이 험해 작심하고 올라야 한다. 이쯤에서 하산해도 핵심은 다 본 셈이다 . <br/><br/>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의 배경 화암8경<br/>각도 따라 모습 달리하는 기암괴석 ‘화표주’<br/>원시림의 신비 간직한 ‘광대곡’ 압권<br/><br/>강원도 정선 땅에도 소금강이란 이름의 절경이 숨어 있다. 화암팔경(화암약수, 거북바위, 용마소, 화암동굴, 화표주, 소금강, 몰운대, 광대곡) 중 제6경에 이름을 올렸다. 화암(畵岩)은 ‘그림 바위’다. 기기묘묘한 바위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풍광이 금강산 못지않아 소금강이란 이름이 붙었다.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중 ‘화표주’의 배경이 바로 화암이다. <br/><br/><br/>화암약수에서 421번 지방도로를 타고 소금강으로 방향을 잡으면 두 개의 돌기둥이 우뚝 솟은 화표주를 만난다. 여기서부터 몰운대까지 계곡을 ‘정선 소금강’이라 부른다. 한겨울 바위에 눈이 쌓인 ‘설암(雪岩)’이 압권이지만 녹음에 묻힌 이즈음 풍광도 감동받을 만하다. 계곡은 동강 상류인 조양강으로 흘러드는 어천을 사이에 두고 수직 바위 절벽의 호위를 받고 있다.<br/><br/>바위를 뚫고 샘솟는 화암약수 한 모금 들이켜고 길을 떠난다. 화암약수 진입로 오른쪽 위 거북바위와 약수터 못 미처 하천변에 자리한 용마소, 화암동굴을 거쳐 화표주에 이른다. 화암약수에서 424번 지방도로 몰운리 방면으로 들어서면 화표동 입구 삼거리다. 여기서 좌측으로 뾰족하게 우뚝 선 돌이 화표주다.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거대한 돌기둥이다. <br/><br/>여기서 424번 지방도로를 따라가자 좌우로 기암절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설경이 아름다워 설암이라 불리는 소금강은 어천에 발을 담근 기암괴석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몰운대 절벽 끝에 뿌리를 박고 홀로 선 소나무가 기묘하다. 구름도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쉬어간다는 몰운대 절벽 아래는 너른 반석을 어루만지는 계류가 쉼없이 흐른다. 예부터 그 풍광에 반해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시인 황동규는 ‘몰운대행’이라는 시를 남겼다. 노송 너머 발아래 소금강 계곡이 아련하다.<br/><br/>몰운대를 지나면 광대곡이다. 광대곡은 하늘과 구름과 땅이 맞붙은 신비의 계곡으로, 원시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태곳적부터 부정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전설을 품고 있다. 부정한 음식(닭고기·개고기)을 먹고 입산하면 모든 나뭇가지가 뱀으로 보인단다. 계곡 끝자락, 협곡을 가르는 영천폭포가 장관이다. <br/><br/>남한 땅에는 이외에도 지역 이름을 앞에 붙인 소금강이 제법 많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명소는 전북 완주의 대둔산(해발 878m)과 전남 영암의 월출산(해발 809m)이다. 완주와 충남 논산에 걸쳐 있는 대둔산은 금강산을 빼닮았다. 산자락을 가득 메운 바위 기둥이 죽순처럼 뾰족해 그 모양이 마치 산수화 병풍을 펼쳐놓은 듯 신비롭다. 이를 두고 원효대사는 ‘사흘을 둘러보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산’이라 했고, 만해 한용운과 우암 송시열도 글로써 예찬했다. <br/><br/>월출산의 산세도 만만찮다. 매월당 김시습이 ‘남쪽 고을에 그림 같은 산이 있으니, 달은 청천에서 뜨지 않고 이 산간에서 오르더라’라고 노래한 산이다. 원출산은 사방 100리에 큰 산이 없어 더욱 도드라진다. 땅의 기를 모아 하늘로 솟구친 형상이다. ‘영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경남 양산의 천성산(해발 922m), 경북 봉화의 청량산(해발 870m)을 비롯해 충북 보은의 속리산(해발 1058m),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걸쳐 있는 소요산(해발 536m) 등이 거대한 기암괴석을 떠받치고 있어 ‘소금강’이란 별칭을 달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5.txt

제목: [속보]여수 조선소서 누출된 암모니아는 소량에 노출돼도 부상  
날짜: 2014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3110014885408  
본문: 전남 여수의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선박에서 암모니아로 추정되는 가스가 유출돼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br/><br/>암모니아는 유독성 기체로 고량에 노출돼도 눈 자극과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br/><br/>31일 오후 4시 13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참치운반선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br/><br/>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진모씨(54)가 숨지고 화상이나 질식으로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12명은 경상이다. <br/><br/>폭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냉매 접촉으로 인한 화상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br/><br/>경찰과 소방당국은 급냉동 촉매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가스가 탱크 폭발로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r/><br/>다량의 가스가 순식간에 대기 중으로 퍼지며 일대에 한동안 악취가 진동하면서 심한 기침으로 말을 하기 어려웠고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br/><br/>암모니아는 각종 기계 냉매제로 일상에서는 주로 냉각제와 비료 원료로 사용된다. 가정에서도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된다.<br/><br/>악취가 나는 유독성 기체이기 때문에 작업장이나 일상에서 허용될 수 있는 농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br/><br/>조금만 유출돼도 특유의 악취가 나며 눈과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피부에 닿으면 홍반, 통증, 수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킨다.<br/><br/>강력한 냉매인 암모니아 가스가 대기로 유출되면 질산 등 폭발·부식성 가스가 생성돼 화상을 입게 된다.<br/><br/>인체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게 정설이지만 유출 농도에 따라 지연성 폐부종이나 호흡 정지까지 이를 수 있다.<br/><br/>공기보다 가벼워 대기 중에 노출되면 빠르게 희석된다. 이 때문에 대기 중 암모니아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유해성이 달라진다.<br/><br/>폭발성도 있어 석유 등의 연료와 결합하면 강력한 산화제 작용으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br/><br/>지난 2월 경기도 남양주시 빙그레 제2공장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했다.<br/><br/>당시 회사 측이 암모니아 유출을 감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6.txt

제목: [리뷰]영화 ‘안녕, 헤이즐’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301001487673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시한부 인생 10대 남녀사랑… 이토록 설레고 가슴 아플까</strong><!-- SUB\_TITLE\_END--><br/><br/>‘죽음’은 태어나고 먹고 자라는 것처럼 삶의 한 과정이다.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른 시일 내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 예견된 삶이라도 어찌됐든 ‘삶’이다. 슬픈 일은 슬픈 대로, 기쁜 일은 기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br/><br/>영화 <안녕, 헤이즐>은 혈액암으로 인해 산소 호흡기를 항상 코에 찬 상태로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하는 18세 소녀 헤이즐(셰일린 우들리)이 주인공이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기적적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소녀 헤이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의사들은 헤이즐과 그의 부모에게 복용 중인 약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듣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한다.<br/><br/><br/>소녀는 자신의 곁에 늘 머무르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헤이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인 <거대한 아픔>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인 “고통은 느껴야 해”를 되뇐다. 짧은 커트를 한 소녀는 힘든 일이 닥치면 씩씩하게 씩 웃고 만다. 그런 헤이즐은 암 환자 모임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18세 소년 어거스터스(안셀 엘고트)를 만난다. 헤이즐은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span class='quot0'>이 행동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담배가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타포다</span>”라면서 활짝 웃는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진다.<br/><br/>두 사람의 사랑은 헤이즐의 성격답게 솔직하고 담담하고 꾸밈없다. 두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어거스터스는 자신이 죽은 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망각’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헤이즐은 “<span class='quot0'>두려운 것은 그냥 생각하지 마</span>” “<span class='quot0'>여러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span>”고 말한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이 역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br/><br/><안녕, 헤이즐>은 2012년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존 그린의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The Fault In Our Stars)>를 원작으로 했다. 각본은 로맨틱 코미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500일의 썸머>의 작가인 스콧 뉴스타드터와 마이클 H 웨버가 맡았다. <안녕, 헤이즐> 역시 <500일의 썸머>에서처럼 너무 넘치지 않는 적당한 로맨틱함과 곳곳에 박혀 있는 명대사가 보는 이를 기분좋게 한다. 영화는 다음달 13일 개봉한다. 125분.<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7.txt

제목: “왜 나쁜 뉴스만 올려?” 욕하던 누리꾼, 정작 기사 보려 클릭···왜?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3010014874535  
본문: ‘나쁜 뉴스가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유’를 영국 공영방송 BBC가 ‘심리학’적 이유를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 온라인 ‘미래’ 섹션에 게재된 해당 칼럼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뉴스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왜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진다.<br/><br/>기자들은 “<span class='quot0'>냉소적인 기사나 정치인의 타락,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등이 이야기(뼈대)를 간단하게 만든다</span>”고 말한다. 해당 칼럼은 “독자들이 기자들의 (부정적인) 관점을 훈련시켰다는 이론도 있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은 좋은 뉴스를 선호한다고 답한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br/><br/>캐나다 맥길대학의 연구원 마크 트루서와 스튜어트 소로카는 이러한 의문을 탐구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눈동자 추적 연구’라며 피실험자들을 연구실에 불렀다. 연구진은 웹사이트에서 정치 뉴스를 보도록 요구한 뒤 카메라로 실험 참가자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파악했다. 참가자들은 요구대로 기사를 읽는 듯 했으나 눈동자는 다르게 움직였다. 참가자들은 짧은 영상에 눈길을 주고 난 뒤 읽고 싶은 정치 뉴스를 읽었다. <br/><br/>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연구진을 다소 낙담하게 만든다고 해석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패, 예기치 못한 사건, 위선적인 일 등 부정적인 기사에 관심을 보였다. <br/><br/>하지만 참가자들은 ‘어떤 뉴스를 선호하냐’는 질문에 여전히 “좋은 뉴스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미디어가 나쁜 뉴스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r/><br/>심리학자들은 ‘나쁜 뉴스를 듣고 기억하는 집단적 열망’에 대해 ‘부정성 선입견(negativity bias)’ 현상이라 설명한다. <br/><br/>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성향이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쁜 뉴스는 우리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신호가 된다는 것이다. <br/><br/>또 다른 실험에서도 ‘부정성 선입견’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에게 단어가 반짝일 때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암, 폭탄, 전쟁’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반짝일 때 ‘아기, 미소, 재미’ 등 긍정적 단어가 반짝일 때보다 빨리 버튼을 눌렀다. 사람들은 비록 언짢은 기분이 들더라도 긍정적 단어보다 부정적 단어를 더 빨리 인식한다는 것이다. <br/><br/>트루서와 소로카는 “사람들은 세상을 ‘장및빛’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여긴다”며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빛이 ‘나쁜 뉴스’를 더욱 눈에 띄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부정적 기사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현상은 ‘언론적인 냉소’나 ‘어두움에 대한 열망’ 보다 더 복합적인 이유가 개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나쁜 뉴스’가 나오는 날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더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br/><br/><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8.txt

제목: 한 달 1000만원 ‘항암제 값’에 더 아픈 희귀암환자  
날짜: 20140730  
기자: 심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30100000096  
본문: 신경덕씨(72)는 지난해 2월 비소세포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암세포가 너무 퍼져 수술도 불가능했다. 항암제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신씨는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었다. ‘잴코리’라는 이름의 약이다.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3~5%인 ALK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만 쓸 수 있는 항암제다.<br/>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은 국내에서 연간 200~300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병이다. 희귀병이라 약값도 비싸다. 신씨는 한 알에 16만원 하는 약을 하루에 2차례 먹어야 한다. 약값으로만 한 달에 1000만원이 나간다. 신씨는 약값을 대려고 아파트까지 처분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잴코리를 먹어 돈도 다 떨어졌다.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도 함께 먹는다. 잴코리 값 걱정 때문이다. 신씨는 “<span class='quot0'>한 달 약값으로 나가는 1000만원 돈뭉치가 내 뒤통수를 대패처럼 밀고 가는 기분</span>”이라고 말했다.<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잴코리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2012년 11월에 이어 2번째다. 비용-효과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평가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잴코리의 생명연장 효과는 인정이 됐지만 효과 차이가 기존 항암제와의 가격차보다 크다는 근거가 부족했다</span>”고 말했다.<br/>일본에서도 잴코리는 비싸다. 한 달 60알 기준 70만엔(약 700만원)이다. 하지만 급여화돼 환자는 약값의 10%만 부담하면 된다.<br/>잴코리 같은 희귀의약품은 비용-효과성 평가를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명공학사 젠자임코리아의 김성주 연구원은 최근 낸 논문에서 “희귀질환은 특성상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임상 근거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다른 의약품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희귀의약품은 사회적 필요성 같은 요소도 두루 살펴야 한다”고 했다.<br/>다국적 제약기업 화이자가 만드는 잴코리는 2012년 1월 세계 2번째로 국내에 출시됐다. 잴코리 임상시험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김동완 교수는 “잴코리를 복용하면 평균 8개월을 더 살 수가 있다. 환자 1명을 한 달 더 살게 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돈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는 “<span class='quot2'>치료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해야 되는 환자를 보면 안타깝다</span>”고 했다. <br/>고가 치료제 급여화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자이티가(전립선암)·미팩트주(골육종)·얼비툭스(대장암)·레블리미드(다발골수종)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40여 의약품 중 보험급여를 받는 치료제는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등 소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29.txt

제목: 한 달 1000만원 ‘항암제 값’에 더 아픈 희귀암환자  
날짜: 2014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91001486820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심평원,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잴코리’에 또 비급여 판정</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의료계 “경제성보다 사회적 합의로 급여화 문제 풀어야”</strong><!-- SUB\_TITLE\_END--><br/><br/>신경덕씨(72)는 지난해 2월 비소세포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암세포가 너무 퍼져 수술도 불가능했다. 항암제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신씨는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었다. ‘잴코리’라는 이름의 약이다.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3~5%인 ALK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만 쓸 수 있는 항암제다.<br/><br/>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은 국내에서 연간 200~300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병이다. 희귀병이라 약값도 비싸다. 신씨는 한 알에 16만원 하는 약을 하루에 2차례 먹어야 한다. 약값으로만 한 달에 1000만원이 나간다. 신씨는 약값을 대려고 아파트까지 처분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잴코리를 먹어 돈도 다 떨어졌다.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도 함께 먹는다. 잴코리 값 걱정 때문이다. 신씨는 “<span class='quot0'>한 달 약값으로 나가는 1000만원 돈뭉치가 내 뒤통수를 대패처럼 밀고 가는 기분</span>”이라고 말했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잴코리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2012년 11월에 이어 2번째다. 비용-효과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평가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잴코리의 생명연장 효과는 인정이 됐지만 효과 차이가 기존 항암제와의 가격차보다 크다는 근거가 부족했다</span>”고 말했다.<br/><br/>일본에서도 잴코리는 비싸다. 한 달 60알 기준 70만엔(약 700만원)이다. 하지만 급여화돼 환자는 약값의 10%만 부담하면 된다.<br/><br/>잴코리 같은 희귀의약품은 비용-효과성 평가를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명공학사 젠자임코리아의 김성주 연구원은 최근 낸 논문에서 “희귀질환은 특성상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임상 근거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다른 의약품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희귀의약품은 사회적 필요성 같은 요소도 두루 살펴야 한다”고 했다.<br/><br/>다국적 제약기업 화이자가 만드는 잴코리는 2012년 1월 세계 2번째로 국내에 출시됐다. 잴코리 임상시험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김동완 교수는 “잴코리를 복용하면 평균 8개월을 더 살 수가 있다. 환자 1명을 한 달 더 살게 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돈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는 “<span class='quot2'>치료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해야 되는 환자를 보면 안타깝다</span>”고 했다. <br/><br/>고가 치료제 급여화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자이티가(전립선암)·미팩트주(골육종)·얼비툭스(대장암)·레블리미드(다발골수종)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40여 의약품 중 보험급여를 받는 치료제는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등 소수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0.txt

제목: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구강암의 증상… EBS ‘명의 3.0’  
날짜: 2014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5100000006  
본문: 피로 때문에 입안에 생긴 곪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거나 목, 뺨, 혀 부근에 딱딱한 멍울이 만져진다면? 구강암 증상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구강암은 혀, 잇몸, 입천장 등 입 주변과 턱뼈, 안면부 근육에 생기는 암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구강암 환자들은 피로로 인해 흔히 생기는 구강 질환인 줄 알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br/>25일 EBS <명의 3.0>에서는 ‘삶을 위협하는 까다로운 암-구강암’ 편을 방송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약 530건의 구강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암 발생 환자 중 약 0.2%로 낮은 비율이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구강암 환자가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br/>EBS에서는 국내 구강암 분야에서 유명한 이종호 교수와 함께 구강암에 대한 특성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종호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환자들의 입안을 들여다봤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1.txt

제목: [건강]갑상샘암이라는데… 수술해야 할까 미뤄야 할까  
날짜: 20140725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5100000049  
본문: 국내 암 발생 1위인 갑상샘(갑상선)암을 둘러싸고 과잉진료 논란이 증폭되면서 보건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갑상샘암 조기 검진의 효과와 위해성을 따져 정부 차원의 검진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한다.<br/>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선별 검사를 권고하거나 또는 반대할 근거가 둘 다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점이 출발선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될 갑상샘암 권고안은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 일반인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미 갑상샘암으로 판정된 환자나 고위험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정된 수술을 미뤄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해당 병원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계는 보다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2010년에 ‘갑상샘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 권고안’을 통해 종양(결절)의 크기가 측면 림프절 전이와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0.6㎝ 이상일 때부터 관찰보다는 수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종양의 크기가 0.5㎝ 미만이더라도 종양의 위치와 초음파 화면상 악성을 시사하는 모양(형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수술 치료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같다. 하지만 종양의 크기가 0.5㎝ 이하인 경우 주위 림프절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세포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br/>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윤정한 회장(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외과)은 “<span class='quot0'>갑상샘암 전부를 착한 암이라고 인식해서는 안된다</span>”며 “<span class='quot0'>1년에 300명가량이 갑상샘암으로 사망하는데, 특히 미분화암이나 수질암의 경우 전이도 빠르고 치명성도 높다</span>”고 지적했다.<br/>암세포의 분열이나 퍼져 나가는 속도가 빠른 미분화암은 처음 진단 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며,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잘 듣지 않는다.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특히 암 조직이 기도, 식도, 혈관, 성대 신경, 림프절 주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암 크기가 작더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br/>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는 “가족력과 방사선 조사(照射)의 과거력이 있다면 검사도 꼭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성 갑상샘암 빈도는 9.6%로 일본(4.0~4.5%), 캐나다(4.4%), 미국(8.8%)에 비해 훨씬 높다. 만약 부모가 갑상샘 유두암이나 여포암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갑상샘암의 발병 위험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아들은 7.8배, 딸은 2.8배 늘어난다. 윤 회장은 “<span class='quot0'>갑상샘암 발생에 유전적인 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조기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암의 발견과 치료 적기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span>”고 설명했다.<br/>가족력뿐만 아니라 두경부에 방사선 조사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소아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전신 방사선 조사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다. 어린 나이에 방사선에 노출될수록 갑상샘암의 발생 위험이 늘어난다. 45세 이상의 나이, 남성, 크기와 상관없이 갑상샘 피막을 침범한 경우,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종양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조직형인 경우도 중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적극적인 검사와 수술이 필요하다.<br/>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 장항석 교수(외과)는 “<span class='quot1'>미국암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갑상샘암 5년 치료성적 자료를 보면 1기와 2기는 100% 치료율을 보인 반면, 3기는 93%, 4기는 51%로 치료율이 줄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초기에 치료를 하면 성적이 좋지만 늦게 진단해 병기가 높아지면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2.txt

제목: 홍상수·임권택 감독, 베니스영화제 간다  
날짜: 2014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5100000036  
본문: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의 언덕>이 제7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종티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다.<br/>베니스 영화제 공식 부문은 공식 경쟁(Venezia 71), 비경쟁(Out of Competition), 오리종티(Orizzonti), 베니스 클래식(Venice Classics) 총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리종티 부문은 세계 영화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장편 20여 편 이내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작품상, 감독상, 특별심사위원상, 특별혁신기여상, 최우수 단편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br/><자유의 언덕>은 인생에 중요했던 한 여인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리’가 서울에서 보낸 며칠을 다룬 작품이다. 일본 배우 카세료를 비롯해, 한국의 문소리·서영화·김의성 등이 출연한다. <br/>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은 비경쟁 부문 중 마스터 감독들을 소개하는 갈라(gala) 상영작으로 초청됐다. 비경쟁 부문에는 최대 12편까지 선정된다. 이중에는 역대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적이 있는 거장 감독들의 작품들도 포함된다. 이번 <화장>이 초청된 갈라 상영작 부문에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이 2007년에 초청된 바 있다. <br/>베니스 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엘레나 폴라치(Elena Pollacchi)가 “진정한 영화 ‘마스터’만이 이러한 어려운 소재를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 풍부하게 얘기하는 멋진 영화다”라고 평했다고 전했다. <br/><화장>은 암에 걸린 아내가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다른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서글픈 갈망을 그린 이야기로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안성기와 김규리가 주연을 맡았다. <br/>제71회 베니스 영화제는 오는 8월27일부터 9월6일까지 열리며, <화장>은 월드 프리미어로 베니스에서 첫선을 보이게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3.txt

제목: 인도에서 232개 치아 제거수술 받은 소년 화제  
날짜: 2014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510014840819  
본문: 인도에서 무려 232개의 치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소년이 화제가 되고 있다.<br/><br/>BBC 등 외신들은 “인도에서 17세 소년이 7시간에 걸쳐 232개의 치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아시크 가바이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오른쪽 턱의 붓기 때문에 뭄바이에 있는 JJ병원 치과의 수난다 디와레 의사를 찾았다. 18개월 동안 고통을 겪어오다가 동네 의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밝히는 데 실패한 뒤였다. <br/><br/>뭄바이의 이 병원에서 소년의 고통 원인이 복잡한 치아종양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의사는 “매우 희귀하고 세계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이것을 꺼내기 위해 (치과용) 끌과 망치를 사용해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모아보니 정말 하얀 진주 같았다</span>”고 말했다.<br/><br/>수술에는 2명의 외과의사 등 총 4명이 참여했다. 이제 이 소년은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br/><br/>의사는 “<span class='quot0'>이 소년은 매우 드문 경우로 지난 30년 의사 생활 동안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흥미로운 사례를 보고 흥분됐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는 의학문헌에 따르면 과거 종양으로부터 37개의 치아를 제거한 것이 최대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암으로 판명될까봐 걱정해서 아이를 뭄바이로 데려왔다”고 뭄바이 지역 언론에 말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4.txt

제목: 감사원 “대학병원, 암진단 CT 방사선 피폭 위해성 설명 부실”  
날짜: 20140724  
기자: 이지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4100000089  
본문: 일부 대학병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양전자방출컴퓨터전단촬영(PET-CT)’의 방사선 피폭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감사원이 23일 공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10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암 진단용 CT 일종인 PET-CT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br/>보고서는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PET-CT 사전동의서, 안내문,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PET-CT를 통해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방사선 피폭 위해성이 높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등 PET-CT 이용 시 방사성동위원소 주입으로 인한 내부 피폭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br/>PET-CT를 1회 촬영할 때마다 300M㏃(메가베크렐)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몸에 주입하게 되고, 13~25m㏜(밀리시버트)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계량(1m㏜)의 최소 13배가 넘고 일반 X레이를 200회 촬영한 것보다 큰 선량이다.<br/>감사원은 이에 따라 “<span class='quot0'>PET-CT의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PET-CT를 선택함으로써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다</span>”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검진 수진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5.txt

제목: [이보형 원장의 몸짱으로 100세까지 ]감기부터 암까지 철통방어! 면역을 높이는 운동  
날짜: 2014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4100000086  
본문: 100세시대 도래 이후 가장 큰 화두는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한군데 망가지기 마련인데, 병을 달고 오래 사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스포맥스 건강기능연구원 대표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보형씨는 실버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주장한다.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도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으로, 하루 한 시간 미만 투자한 간단한 헬스 동작만으로도 감기와 같은 질병부터 당뇨나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 하루 한 시간 운동을 실천해 “감기 한번 걸려 본 적 없다”는 미스터코리아 출신 ‘몸짱 할배’ 김종곤씨(69)가 이원장의<br/>‘메디컬 트레이닝’을 시연한다. <br/><br/>■면역력 높이는 1일 1시간 운동코스 <br/><br/>1코스: 벤치 프레스-푸시업-벤트 오버 로우-데드 리프트 <br/><br/>2코스: 런지-프런트 스쿼트-레그 레이즈-크런치 <br/><br/>3코스: 런닝머신<br/><br/><br/>■운동방법 <br/><br/>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보다 조금 ‘쉽다’고 느껴지는 무게의 도구를 이용해 동작마다 각 10번씩 시행한다. 1코스의 4가지 동작을 휴식없이 차례로 진행 한 뒤 1~2분간 쉰다. 1코스를 3세트 반복한다. 1코스 3세트 반복이 끝나면 곧바로 2코스로 들어가 1코스와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 반복한다. 그 다음 휴식 없이 3코스로 넘어가, 런닝 머신 위에서 20초 달리고 40초 걷기를 15분 반복한다. <br/><br/><br/>성인병 물리치는 메디컬 트레이닝<br/><br/>1회 면역력 높이는 1일 1시간 운동코스 <br/><br/>2회 하루 40분! 암 예방 8가지 근력운동 <br/><br/>3회 심혈관·혈압 환자 ‘해라 vs 하지마라’<br/><br/>4회 당뇨 합병증 예방·대사 회복 운동 <br/><br/>흔히 강도 높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각이다. 각종 연구 결과는 근력 운동을 심하게 하는 동안 병원균으로 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NK 세포(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면역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학계에는 운동선수들이 흔히 하는 오버트레이닝(고강도 장시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면역 기능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br/><br/>웨이트 트레이닝할 때 근육은 자극-손상-치유-회복-합성-성장의 여섯 단계를 거친다.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부하에 의한 근섬유의 자극과 손상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적절한 단백질과 항산화제, 면역 체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글루타민과 아미노산 등이 반드시 섭취되야 한다. 이후 다음 운동 시간까지 휴식을 취해 근육이 밀도있게 성장할 수 있어야 원만한 면역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다. <br/><br/>그러나 상대를 제압하고 공격해야 하는 스포츠는 오버트레이닝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또 경기 규칙상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진다. 강도있는 운동을 했을 경우 회복 시간이 72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운동은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스포츠는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다.<br/><br/>운동은 나와의 싸움이 아닌 타협이 돼야 한다. 타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면역은 몸에 가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적어도, 또 너무 많아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은 어느 정도일까? 적당한 운동이란 강도가 중·저강도(최대 근력의 40~60%)로 운동 시간은 무조건 한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넘길 경우 이화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로 조직을 산화시키고 회복에 차질을 야기하는 수많은 여건들을 만들어 내 면역 증가를 방해한다. <br/><br/>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과식이다. 이 때문에 실버세대는 특히 ‘먹긴 먹되 가볍게 먹는’ 절식이 필요하다. 절식은 외부로 부터 영양이 단절되는 단식과는 차이가 있다. 절식을 했을 경우 면역세포가 자신의 조직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과 전혀 관계 없는 폴립(Polyp)이나 암 조직 등을 먹어 치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주목해 인간에게는 또 다른 면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br/><br/>결국 적당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해 면역력을 높이면 그 면역세포가 질병을 다스린다는 함수관계가 성립된다. 요법이란 기법과 달리 “답이 확실하고, 꼭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버세대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사’ 가 최고의 처방인 이유다.<br/><br/>■ 이보형 원장은<br/><br/>전 대한보디빌딩협회 부회장이자 스포맥스 건강기능연구원 대표원장으로, 건강 기능에 대해 연구 중이다. 1974년 대한민국 미스터코리아가 됐다. 방송에 다수 출연하는 등 꾸준한 업계 활동으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70대의 나이지만 넘치는 에너지로 미스터코리아 대회 진행을 전담하고 있다.<br/><br/>글|강주일 기자 joo1020@kyunhhyang.com·사진 | 스포맥스·의상협찬 | 리복 휘트니스, 머슬마니아 한국지부(프로모터 김근범 www.musclemania.kr)·장소협찬 | 레이노 토탈 휘트니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6.txt

제목: 에너지 넘치는 당신 지면 안돼요 꼭 일어나세요  
날짜: 2014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3100000129  
본문: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유채영(41)의 쾌유와 기적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br/>특히 MBC 표준FM라디오 <좋은 주말 김경식, 유채영입니다> 청취자들은 본지(7월21일) 보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잇따라 쾌차를 기원하는 글을 해당 게시판에 올리는 중이다. <br/>유채영은 지난해 10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에 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않은 채 이 프로그램의 DJ를 묵묵히 맡아왔다.<br/>청취자 박원경씨는 “<span class='quot0'>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방송을 했다니</span>”라며 “<span class='quot0'>목소리에서도 예전처럼 활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요즘 신랑분이랑 티격태격하시나 했는데 기적이 꼭 일어나길</span>”이라고 적었다.<br/>또 다른 청취자 조성일씨는 “항상 유채영씨의 활기찬 목소리를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면서 “사랑하는 청취자를 외면하기에 당신은 너무 젊다. 힘내시고, 일어나라. 많은 청취자들이 이번 주 당신의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br/>청취자 이민경씨는 “<span class='quot1'>에너지 넘치는 언니였으니 꼭 이겨내리라 믿는다</span>”며 “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br/>현재 프로그램은 지난 19일 새로운 여성 DJ로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목이나 사진 등에서 유채영의 이름과 얼굴은 그대로 남아 있다. <br/>유채영과 평소 가까웠던 동료 연예인들의 응원 글도 이어지고 있다.<br/>유채영의 소식을 접한 힙합그룹 DJ DOC 멤버 김창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채영이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span class='quot2'>친구로서 해줄 게 없어 미안하다</span>”는 글을 올리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br/>개그맨 정준하 역시 트위터에 “<span class='quot3'>저를 위해 항상 마음 써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은 우리 유채영씨를 위해 단 1분이라도 꼭 기도해달라</span>”라며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개그우먼 김미연 역시 “우리 채영 언니 버텨낼 수 있게 기도해달라”며 “언니 힘내. 조금만 더 힘내야 해. 언니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라는 글을 올렸다.<br/>현재 유채영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머물고 있다. 남편 김주환씨와 가족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유채영의 곁을 지키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7.txt

제목: 암 투병중인 가수 유채영 위독…위암 전이돼 병세 악화  
날짜: 2014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2100000085  
본문: 가수 겸 방송인 유채영(41)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돼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악화됐다.<br/><br/>유채영은 위암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MBC 표준FM라디오 <좋은 주말 김경식, 유채영입니다>를 진행해오다, 병세가 위중해지면서 최근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br/><br/>현재 유채영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머물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08년 결혼한 남편 김주환씨와 가족들이 유채영의 곁을 지키고 있다.<br/><br/>가족들은 21일 오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는 중이다. <br/><br/>유채영의 병세는 지난해 10월 말 병원을 찾으면서 밝혀졌다. 유채영은 당시 곧바로 위암 말기 판정이 나와 개복 수술을 받았다. <br/><br/>하지만 수술 도중 기타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사실을 알고 암 세포 일부만 제거한 채,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다.<br/><br/>유채영-김주환씨 부부는 평소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커플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br/><br/>1994년 혼성그룹 쿨로 데뷔한 유채영은 이후 그룹 어스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영화 <색즉시공> 시리즈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br/><br/>유채영은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방송인으로서도 인기를 누렸다. 라디오 프로그램 DJ로 호평 받으면서 지난해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8.txt

제목: [박래군의 내 인생의 책](2) 불교와 인권 - 감옥서 만난 ‘생태적 인권’  
날짜: 20140722  
기자: 박래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2100000187  
본문: ▲ 불교와 인권 | 안옥선<br/>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 다섯 분을 355일 만에 장례를 치르고 자진 출두해서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서 넘어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4개월 가까이 지내면서 굶주린 사람처럼 책을 읽어냈던 게 2010년 봄의 일이다. 감옥만큼 책 읽기 좋은 환경은 없다. 그때 읽었던 수다한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br/>“<span class='quot0'>서구중심적 인권개념의 근본적 문제점은 반상생적·이기적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span>”라는 이 한마디, 결국 지금까지 내가 알아오고 고민해온 인권론은 서구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한 그것이었다. 이에 반해서 불교에서는 “인간 종뿐만 아니라 온 존재의 안녕을 함께 추구하고, 반실체적 자아관에 근거하며, 협동/상생과 반개인주의적/공동체적 관점에서 그러한 행동과 제도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온 생명 배려적/ 온 존재 존중적 인권을 추구한다”고 저자는 설파한다. <br/>이 책은 지금의 인권론이 순환적인 생태계의 일부를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잘라내 만들어낸 인위적인 배경에서 전개해왔다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서는 출소하면 꼭 저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 뒤에 얼굴만 한 번 뵈었을 뿐인데, 암 투병 끝에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 책은 그의 마지막 저서가 되고 말았다.<br/>4대강 사업이니, 핵발전소와 송전탑이니 하는 환경 이슈들이 인간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와 사람 자체를 결딴내고 있는 현실에서 “온 존재 존중적 인권, 혹은 생태적 인권은 명백히 온 존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새삼 공명하게 되는 나날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39.txt

제목: [기고]갑상샘암 정보의 옥석을 가리자  
날짜: 20140721  
기자: 이용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1100000038  
본문: 지난 4월 갑상샘 초음파 검진을 중단하자는 의사연대의 성명 발표 후 갑상샘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무척 높아진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갑상샘암의 양상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또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서로의 주장 중에는 달라도 너무 달라 혼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중 몇 가지를 짚어보고 싶다.<br/>“<span class='quot0'>10%의 갑상샘암은 위험하다?</span>” 이것은 아마 과거 자료를 인용한 말인 듯하다. 최근 갑상샘암은 대개 1㎝ 이하의 작은 암이고, 유두암과 여포암이 각각 96.8%, 1.6%로 98.4%가 예후가 좋은 암이며 이런 암으로 사망하는 예는 거의 없다. 예후가 나쁜 암인 역형성암은 0.2%에 불과하며 예후가 다소 나쁜 수질암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위험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2012년 12월 중앙암등록본부). <br/>“<span class='quot0'>좋은 암이라도 아주 무서운 암-역형성암으로 변할 수 있다</span>”는 주장이 있다. 필자도 역형성암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 암은 매우 치명적이기는 하나 수십년간 커다란 갑상샘 혹을 방치했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대부분이 60~70대 환자다. 역형성암과 초음파로 발견되는 유두상암은 생물학적 양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암이며 작은 암이 갑자기 역형성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다. <br/>“<span class='quot0'>지켜보다가 전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하느냐?</span>”는 말도 있다. 일반적으로 암이 전이되면 생존율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앞의 두 번의 말에 반응이 없던 환자라도 이쯤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갑상샘암의 림프절 전이는 대부분 미세한 전이이며,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신 전이인데 다행히 이럴 확률은 0.5% 이하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나이가 많거나 주변에 손으로 만져질 정도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갑상샘 밖으로 암이 자라나 주변 조직을 침범한 경우 그 중 아주 일부에서나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br/>“암이니 빨리 치료하자”는 얘기도 있다. 정말 그럴까? <br/>실제로 갑상샘암의 성장과정을 지켜본 연구에 의하면 10년간 3㎜도 자라지 않았던 경우가 84%나 되었다고 하니, 이 암이 얼마나 천천히 자라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 갑상샘암 수술을 받는 것은 20~30년, 아니 그 이상 훗날의 고통을 미리 예방하려고 수술받는 것인 만큼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br/>예를 들어보자. 50세 여자에게서 6㎜ 암이 발견되었다면 60세에 채 10㎜가 되지 않을 것이고 70세에 2㎝ 정도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폐전이가 발견되었다 치자. 폐전이가 되어도 10년쯤이나 지나서야 폐전이가 커져 결국 호흡곤란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할 것이다.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의 수술인 만큼,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암이 자라는지 매년 지켜보다가 커질 때 수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더구나 죽을 때까지 별로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br/>마지막으로, “수㎜에 불과하더라도 모두 제거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다. 정말 좋을까? 모두 제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사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논문이 있다(Billimoria, 2007). 이 논문을 보면 전절제술의 10년 생존율이 98%, 부분 절제술의 경우 97%다. 거의 같다는 뜻이다. 평생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릴 걸 생각하면 특히 수㎜에 불과한 갑상샘암의 경우 부분 절제술이 더 좋을 수도 있다. <br/>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면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갑상샘암에서 살아남아 건강한 삶을 이어가려면 갑상샘암을 조심하기보다 거짓 정보를 조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0.txt

제목: [기고]갑상샘암 정보의 옥석을 가리자  
날짜: 2014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2010014797004  
본문: 지난 4월 갑상샘 초음파 검진을 중단하자는 의사연대의 성명 발표 후 갑상샘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무척 높아진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갑상샘암의 양상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또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서로의 주장 중에는 달라도 너무 달라 혼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중 몇 가지를 짚어보고 싶다.<br/><br/>“<span class='quot0'>10%의 갑상샘암은 위험하다?</span>” 이것은 아마 과거 자료를 인용한 말인 듯하다. 최근 갑상샘암은 대개 1㎝ 이하의 작은 암이고, 유두암과 여포암이 각각 96.8%, 1.6%로 98.4%가 예후가 좋은 암이며 이런 암으로 사망하는 예는 거의 없다. 예후가 나쁜 암인 역형성암은 0.2%에 불과하며 예후가 다소 나쁜 수질암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위험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2012년 12월 중앙암등록본부). <br/><br/>“<span class='quot0'>좋은 암이라도 아주 무서운 암-역형성암으로 변할 수 있다</span>”는 주장이 있다. 필자도 역형성암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 암은 매우 치명적이기는 하나 수십년간 커다란 갑상샘 혹을 방치했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대부분이 60~70대 환자다. 역형성암과 초음파로 발견되는 유두상암은 생물학적 양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암이며 작은 암이 갑자기 역형성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다. <br/><br/>“<span class='quot0'>지켜보다가 전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하느냐?</span>”는 말도 있다. 일반적으로 암이 전이되면 생존율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앞의 두 번의 말에 반응이 없던 환자라도 이쯤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갑상샘암의 림프절 전이는 대부분 미세한 전이이며,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신 전이인데 다행히 이럴 확률은 0.5% 이하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나이가 많거나 주변에 손으로 만져질 정도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갑상샘 밖으로 암이 자라나 주변 조직을 침범한 경우 그 중 아주 일부에서나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br/><br/>“암이니 빨리 치료하자”는 얘기도 있다. 정말 그럴까? <br/><br/>실제로 갑상샘암의 성장과정을 지켜본 연구에 의하면 10년간 3㎜도 자라지 않았던 경우가 84%나 되었다고 하니, 이 암이 얼마나 천천히 자라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 갑상샘암 수술을 받는 것은 20~30년, 아니 그 이상 훗날의 고통을 미리 예방하려고 수술받는 것인 만큼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br/><br/>예를 들어보자. 50세 여자에게서 6㎜ 암이 발견되었다면 60세에 채 10㎜가 되지 않을 것이고 70세에 2㎝ 정도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폐전이가 발견되었다 치자. 폐전이가 되어도 10년쯤이나 지나서야 폐전이가 커져 결국 호흡곤란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할 것이다.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의 수술인 만큼,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암이 자라는지 매년 지켜보다가 커질 때 수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더구나 죽을 때까지 별로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br/><br/>마지막으로, “수㎜에 불과하더라도 모두 제거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다. 정말 좋을까? 모두 제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사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논문이 있다(Billimoria, 2007). 이 논문을 보면 전절제술의 10년 생존율이 98%, 부분 절제술의 경우 97%다. 거의 같다는 뜻이다. 평생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릴 걸 생각하면 특히 수㎜에 불과한 갑상샘암의 경우 부분 절제술이 더 좋을 수도 있다. <br/><br/>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면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갑상샘암에서 살아남아 건강한 삶을 이어가려면 갑상샘암을 조심하기보다 거짓 정보를 조심해야 할 때가 되었다.<br/><br/><이용식 |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1.txt

제목: 의학계의 ‘태권V’ 명승권 박사가 말하는 ‘거짓 의술’  
날짜: 2014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1910014793437  
본문: 언제 어디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완벽한’ 직업을 꼽으라면 변호사와 의사라고 한다. 변호사는 낙원에서도 ‘소송’을 만들고 의사는 천국에서도 ‘병’을 만들어 계속 일거리를 확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중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갑’(甲) 중에서도 갑이다. 그 ‘갑’들은 복잡한 카르텔을 만들어 자신의 특권을 전문가의 권위로 포장한다. 이들은 또 ‘공동의 적’에 대해 극렬한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선 눈을 감는다.<br/><br/><strong>‘메타분석’ 통해 임상실험 다시 검증<br/><br/></strong>그런데 요즘 의학계에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46)이다. 키도 자그맣고, 고집으로 똘똘 뭉친 만화의 ‘짱구’ 같은 외모이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연예인같지만 의사 가운을 입은 것으로 보아 분명 의사이다. 그는 기존 의학상식을 마구 까부순다. 한의사는 물론, 양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잘 아는 학교 선배, 동료 의사들의 무지와 몰염치를 적나라하게 지적한다. 심지어 그는 ‘겁도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비판한다.<br/><br/>그의 혹독한 비판에 의학계는 물론 비타민 제약업계, 건강보조식품업계, 한의학계까지 치명타를 맞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타민 업계는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비타민 제약업계와 건강보조식품 업계에서 보면 그는 ‘테러’라도 하고 싶을 만큼 얄미운 존재이다.<br/><br/>변변한 외국 물(유학)도 먹지 못한 그가 제약업계·건강보조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던 신무기는 바로 ‘메타분석’이다. 메타분석이란 개별연구를 종합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의학연구는 가장 먼저 비커나 시험관을 이용한 실험실 연구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동물실험에 적용한다. 실험용 쥐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단계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과학적이어야 한다. 먼저 환자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물질과 가짜약을 투여하는 실험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 약효가 없는 밀가루 덩어리를 약이라고 주어도 심리적으로 약효를 느끼는 경우가 20%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코호트 조사, 이른바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발생률을 추적하는 것이다. <br/><br/><strong>“비타민·건강보조식품 무용론” 주장<br/><br/></strong>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연구를 통해 나온 임상실험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최종 단계는 이런 개별 임상실험 결과를 모아 통계·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학계는 임상실험 결과만 놓고 약이나 식품의 효용성을 따져왔다. 그런데 최근 선진 의학계는 바로 이 메타분석을 통해 임상실험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br/><br/>메타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미국에서 16년간 이뤄진 47개의 수준 높은 임상실험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가 2007년 미의사협회지(JAMA)에 발표됐다. ‘비타민/항산화보충제 복용과 사망률 관련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암 예방에 좋다는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항산화보충제를 섭취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5% 높다는 것이었다. 천연 식품이 아닌 제약 형태의 비타민 보충제가 몸에 해롭다는 충격적인 결과는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성인의 50%가 비타민 보충제를 먹고 있다.(우리나라는 성인의 20% 정도가 복용한다)명 박사는 2005년부터 메타분석을 거의 독학으로 공부해 2007년 메타분석과 관련한 석사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그리고 2013년 30여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비타민 및 항산화보충제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효능’이라는 연구를 통해 비타민과 항산화보충제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방광암의 경우 암 발생률을 1.52%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됐다.<br/><br/>이후 세계적으로 메타분석이 많이 사용되면서 이런 사실이 속속 검증되고 확인됐다. 결국 미국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종합비타민이나 항산화보충제의 효능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는 것은 폐암 발생률을 높이므로 사용을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아울러 고용량 비타민의 감기에 대한 효능도 ‘근거 없음’으로 결론내렸다.<br/><br/>국제적으로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의사가 비타민 광고에 출연하는 등 비타민 광풍이 불고 있었다. 명 박사는 일부 의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0'>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비타민 쇼핑몰을 운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학교 선배나 서로 잘 아는 사이지만 이건 너무하다</span>”고 말했다.(그는 이들 의사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직접 접속해 보였다) 이런 잘못된 정보로 우리나라 성인의 20%, 암환자의 경우 무려 70%가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 명 박사는 이후 국제학술지에 논문 47편을 쓰면서 비타민뿐만 아니라 오메가3 같은 건강보조식품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유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br/><br/><strong>대학시절 개그맨 시험 본 ‘운동권 의대생’<br/><br/></strong>중학교 시절, 그의 꿈은 개그맨이나 만화가였다. 로보트 태권V를 많이 그렸다. 1994년 대학 본과 3학년 겨울방학 때 대학개그제에 참가, 3차 본선까지 진출했다가 떨어졌다. 나중에 SBS 개그맨 모집에 지원했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작가로 변신, 5개월 동안 개그작가를 한 적이 있다. <br/><br/>그가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살아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인생을 매우 치열하게 살고 있다. 사실 모르는 척 눈감아주면 그만일 동업자에게 혹독한 비판을 가하기란 쉽지 않다. <br/><br/>그는 “정의감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무슨 콤플렉스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의대생으로 드물게 사회과학서적을 파고들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고민하던 세칭 운동권 학생이었다. 그는 “<span class='quot0'>기독교 신자였지만 대학에 들어가 서클 활동을 하면서 마르크시즘, 유물론자로 세계관이 바뀌었다</span>”고 고백했다. 가난한 생활(그는 반지하 셋방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을 통해 “이 사회는 가진 자, 권력자들의 비리와 억압에 성실한 사람들이 압박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토로했다.<br/><br/>사실 그는 의대 졸업 후 형편이 안 돼 남들 다 가는 외국유학은커녕 대학원도 못 갔다. 군의관을 마친 후 1억5000만원 대출을 받아 봉천동에 병원을 개업했지만 10개월 만에 망했다. 하루 환자를 50~60명은 봐야 유지되는데, 20명밖에 보지 못한 것이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30대가 그에겐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이 진실로 행세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br/><br/>그는 병원을 말아먹고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가 메타분석이라는 유력한 ‘도구’를 얻었다.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한 근거중심 의학은 그동안 매우 과학적이라고 여겨졌던 의학계의 허상을 깨부수고 있다. <br/><br/>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거짓이 진실로 행세하고 있다. 철저히 과학적이어야 할 의학이 그럴 정도라면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 많은 토목공학자, 심지어 환경공학자들마저 “4대강 사업은 친환경적이며 생태환경에 유리하다”고 우겼다. 과학자들은 ‘자리’나 ‘연구비’에 과학의 양심을 팔았다. <br/><br/>결국 남은 것은 음모론만 횡행하는 사회가 됐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고, 국정원 댓글조작 사태도, 최근 세월호 참사도 그러했다. 과학적 설명보다, 정치적 논리와 이에 대응하는 음모론만 위세를 떨친다. 이런 황량한 시대, 그래서 명승권이란 존재가 특이해 보인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즐겨 그렸던 로보트 태권V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 <br/><br/>■악력<br/><br/>1968년생. 서울대 의대 석·박사(가정의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 과장.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방문학자.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상 수상(2013년)<br/><br/><br/><br/><div style='color:#2c75ff;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당장 비타민 판매 중지시켜야 한다”<br/></div>메타분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br/><br/>“단점 있다. 한계 인정한다. 100명 임상실험, 200명 임상실험 통계적으로 합친다고 단일연구로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연구를 정리하면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진료권고안으로도 유용하다.”<br/><br/>한의학에서 주장하는 수천년간 임상실험, 이것도 일종의 메타분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br/><br/>“전혀 아니다. (한의학은) 수백수천년간 그런 정보를 선택적으로, 과장해서 정리한 것이다. 근거중심 의학에서 임상실험 전 단계로 관찰단계를 거쳐 환자군 연구 단계가 있는데, 한의학은 이 약을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만 연구한 환자군 연구 수준이다.” <br/><br/>그렇다고 서양의학만 만고의 진리는 아니지 않는가.<br/><br/>“현존하는 최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하라는 것이다. 의학교과서에 나온 지식도 최신 지식 아니다. 3~4년 전 지식이다. 근거중심 의학의 중요한 잣대가 메타분석이다.”<br/><br/>현존하는 최상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지 않나. <br/><br/>“침술, 뜸, 구황, 허브(한약), 기, 기도, 명상 등을 모두 보완대체요법으로 분류한다. 미국 국립보완대체요법센터에서 2000년부터 2011년 동안 1년에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의 예산을 쓰고 이들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수백건을 임상실험한 결과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권고안 형식으로 공개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확인해 볼 수도 있다.”<br/><br/>이런 비타민이나 보완대체요법의 문제를 책임 있는 기관이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는가.<br/><br/>“그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염두에 둔다. 전체 의약품 시장 15조6000억원 중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3조6000억원이다. 이 건강기능식품 매출의 50%가 홍삼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식약처는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비타민이 오히려 방광암 사망률을 높인다면 식약처장은 당장 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 <br/><br/>제약회사에서 ‘봐달라’고 오는 곳은 없나.<br/><br/>“공식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 아마 스트레스는 받을 것이다.”<br/><br/>의학계에서 너무 튄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br/><br/>“<span class='quot1'>나는 이 일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는다.</span>”<br/><br/>이 시대 의사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는가.<br/><br/>“양심이다. 여기에 올바른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한 의학지식을 쉬지 않고 쌓아야 한다.”<br/><br/>결국 국민이 암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br/><br/>“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표준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적게 먹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 김치를 줄이고 다른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무엇보다 담배를 끊고 적절한 음주를 해야 한다. 싱겁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건 돈과 시간낭비이다.”<br/><br/><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2.txt

제목: 유방암 환자 ‘항암치료 게임’하며 치료받는다  
날짜: 20140718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18100000115  
본문: ‘게임 속의 아바타(또 다른 나)와 암 극복의 과정을 함께하세요.’<br/>항암 약물치료는 환자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의 대상이다. 항암제의 부작용이 많이 적어졌다고는 하나 필연적으로 구역, 구토가 여전히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의사가 아무리 최적의 치료방법을 정했더라도 환자가 그 계획에 따라오지 않거나 따라올 수 없다면 암 치료과정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br/>이런 항암치료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는 유방암 환자용 게임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가 씨엘게임즈와 공동으로 만든 ‘알라부’(I Love Breast)가 그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과제를 통해 나왔으며, 서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넥슨이 전액 지원했다.<br/><br/>이 게임은 실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가 게임 속에서 자신으로 설정된 아바타와 소통하면서 치료효과를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3주간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환자는 아바타가 적절한 치료과정을 거치며 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암치료에 대한 지식과 재활 의지를 얻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게임을 따라가며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도 습득한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에서 소그룹을 만든 뒤 게임을 하면서 정보와 감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기능성 소셜네트워크 게임이다.<br/>연구팀은 “게임 속 의사가 제시하는 퀘스트(게임 속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바타의 건강을 되찾는 일종의 미션 게임”이라며 “항암 약물치료의 순응도 및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br/>게임 속에서 환자는 본인에게 처방된 항암제의 종류, 구토·탈모 등 부작용 정도, 건강상태를 수치로 환산해 아바타에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아바타는 탁솔·시스플라틴 등 항암제를 알람에 맞춰 제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묘사도 사실적이다. 예를 들어 탁솔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아바타가 모자나 두건을 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코인(게임화폐)을 얻기 위해 트레드밀(러닝머신)에서 뛰어야 하는 식이다.<br/>이 밖에 게임은 항암효과 음식 요리하기,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기 등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들을 유도한다. 친구 기능을 활용해 암환자 친구들에게 메시지나 선물을 보내는 등 소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혼자만의 플레이가 아닌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끼리 정보 교환과 유대감 증진으로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준다.<br/>연구팀이 게임을 실제 유방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적용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게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를 느꼈으며, 게임을 통해 항암치료제 약 복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환자들은 암 치료의 유익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받아 암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게임을 다른 환자에게도 권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br/>장정순 교수는 “<span class='quot0'>알라부 게임을 유방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항암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환자들의 게임에 대한 몰입과 지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br/>한덕현 교수는 “<span class='quot1'>유방암 환자에게 적용해 나타난 긍정적인 반응과 교육 효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암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폭넓게 활용하고, 암환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에게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이 게임을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적용하게 될 의료진 중 한 명인 외과 김범규 교수는 “<span class='quot2'>알라부 게임은 암환자인 유저에게 실제 처방된 항암제, 구토 정도, 건강 수치를 게임 아바타 캐릭터에 설정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수술 전후에 있을 항암치료 간의 주요 지표들을 백분율로 보기 쉽게 표시해 의사와 환자가 쉽게 현재 캐릭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span>”고 평가했다.<br/>중앙대병원 연구팀은 국내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병동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순응도 연구를 시행한 뒤, 영문 버전을 개발해 조만간 미국 유타대학 암센터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3.txt

제목: [이보형 원장의 몸짱으로 100세까지]“건강하게 오래살기, 웨이트로 시작해 봐!”  
날짜: 2014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17100000143  
본문: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다. 노인들에게 가장 좋다는 걷기 운동이 과연 최선일까? 대한보디빌딩협회 부회장이자 스포맥스 건강기능연구원 대표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보형씨의 대답은 “아니오”다. 이 원장은 실버세대에게 ‘보디빌딩’을 강력 추천했다. 근육을 발달시키고 지방을 줄임으로써 건강하게 남은 삶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암·당뇨·심혈관질환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메디컬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원장은 전립선암 3기를 약물치료 대신 운동으로 극복한 미스터코리아 후배 김종곤씨(69)를 ‘산증인’으로 내세웠다. 하루 50분 근력운동으로 남보다 20년 젊게 살고 있는 두 사람과 함께 다음주부터 4회에 걸쳐 성인병을 예방하는 ‘메디컬 트레이닝’을 배워본다.<br/><br/>성인병 물리치는 메디컬 트레이닝<br/><br/>1회 면역력 높이는 1일 1시간 운동코스 <br/><br/>2회 하루 40분! 암 예방 8가지 근력운동 <br/><br/>3회 심혈관·혈압 환자 ‘해라 vs 하지마라’<br/><br/>4회 당뇨 합병증 예방·대사 회복 운동 <br/><br/><br/><br/>기자:김 선생님은 내일모레 칠순이라니 믿어지지 않네요.<br/><br/>김종곤(이하 김):1946년생인데, ‘58년 개띠’라고 해도 믿는다. 또래에 비해 젊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젊었을 때는 매일 운동하러 간다고 구박하던 아내가 지금은 매일 함께 운동한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68년 간이 많이 상해 의병제대했다. 해병대 출신의 젊은 군인이 의병제대했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서양인들처럼 건장한 근육질 몸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체육관에 붙어 있는 근육질 몸의 외국인 사진을 보고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 놓게 됐고, 그것이 헬스의 시작이었다.<br/><br/>기자:두 사람의 인연은…?<br/><br/>김:나는 1981년에 미스터코리아에 출전했고 이 원장은 1974년에 이미 그랑프리를 거머쥐었으니, 내가 까마득한 후배다. 지금도 운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br/><br/>기자:나이 들어서는 걷기 운동이 최고라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위험하지 않나요.<br/><br/>이보형(이하 이):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디빌딩은 근육을 발달시키고 지방을 줄임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운동이다. 승부가 걸려 있는 스포츠와 건강을 위한 운동은 달라야 한다. 운동은 상대와의 ‘경쟁’이 아닌 나와의 ‘타협’이다. 무리하고 잘못된 운동 방법이 보디빌딩과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시간을 1시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축구·마라톤 등 시간이 길고 강도가 높은 운동은 건강을 해치고,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어떤 이들은 근육을 키우겠다고 하루에 3~4시간씩 운동을 하고, 대회를 앞두고는 더 심하게 운동을 한다. 그러나 보디빌딩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나와의 싸움이지 대결이 아니다. 김씨는 내가 주장하는 ‘1일 1시간’ 운동을 평생 실천한 사람이다.<br/><br/>김:지금도 하루 운동량은 40분 정도, 길어도 50분 안에 모두 끝낸다. 내일 당장 시합을 뛰어야 하는 날에도 딱 1시간만 운동했다.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딱 1~2분만 쉰다.<br/><br/>이:처음부터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조금씩 즐겁게 평생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요즘 퍼스널 트레이너(PT)를 보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겠다고 회원들을 무지막지하게 운동시킨다.<br/><br/>김:용기 있는 사람이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지킨다. 모르면 물어 봐야 한다.<br/><br/>이:나이든 사람, 특히 혈압 높은 사람은 운동 순서가 중요하다. 혈관이 열리고 닫히면서 혈액이 들어가고 빠지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다. 운동에 주가 되는 주동근을 먼저 움직이고 이후 도와주는 근육들을 움직이면 운동시간을 줄여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당뇨환자는 특히 위험하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딱 맞는다. 운동은 의학에 가깝다. 김씨가 바로 운동으로 암을 치료한 케이스다.<br/><br/>기자:운동으로 암을 치료하다니요?<br/><br/>김:평소 건강하다 보니 전립선암을 앓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엽제 때문에 암환자가 생기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국가유공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평생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도 없었는데, 그곳에서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2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더 기운이 없어지고 힘들더라. 그래서 암치료를 포기하고, 평소처럼 운동을 하며 살기로 했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지난달 5대 암 검사에서 ‘정제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내 나이 또래는 어딘가 고장나 있기 마련인데, 나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 <br/><br/><br/>이:병을 ‘나를 배신한 친구’라고 생각해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br/><br/>기자:실버 세대에게 전수할 운동법은 뭔가요?<br/><br/>이:실버 세대가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에서의 심리 상태, 대처 방법, 음식 교환군 등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웨이트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요령껏 하는 방법도 담긴다. 특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내용도 있다. 집에서 쉽게 바벨이나 덤벨만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했다. 운동할 때는 30초, 1분, 3분 단위로 쉬는 ‘인터벌’이 중요한데, 너무 오래 쉬면 안 된다. 평소 두 사람이 1개 조가 돼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의 프로선수들도 굳이 퍼스널 트레이너 쓰지 않고 친구와 함께 운동한다. 그렇게 함께 운동하러 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br/><br/>기자:마지막으로 실버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br/><br/>김:웨이트 트레이닝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이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고 잘 안 빠지고 손톱도 빨리 자라는 기분이다. 외모가 젊어지니 만나는 사람도 젊어진다. 보통 10~20세 어린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삶도 젊어진다(웃음)<br/><br/>이: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성기능 강화 트레이닝이 따로 있다. 나이 들어도 매일 즐기고 느낄 수 있다. <br/><br/>◆몸짱할배들의 헬스 이야기<br/>보디빌딩은 건강 위한 나와의 싸움<br/>하루 50분 근력운동으로 암도 극복<br/>무리한 운동은 노화 지름길<br/>실버세대 맞춤운동 따라해보세요 <br/><br/>이보형 원장은<br/><br/>대한보디빌딩협회 부회장이자 스포맥스 건강기능연구원 대표원장으로, 건강 기능에 대해 연구 중이다. 1974년 대한민국 미스터코리아가 됐다. 방송에 다수 출연하는 등 꾸준한 업계 활동으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70대의 나이지만 넘치는 에너지로 미스터코리아 대회 진행을 전담하고 있다.<br/><br/><사진 | 스포맥스·의상협찬 | 리복 휘트니스, 머슬마니아 한국지부(프로모터 김근범 www.musclemania.kr)>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4.txt

제목: 한방암치료 효과,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입증  
날짜: 2014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1710014781894  
본문: 서구화된 식습관으로&nbsp;최근 대장암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다.&nbsp;채소위주의 식습관이&nbsp;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뀌면서 특히 암의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다.<br/><br/>2011년 국가암정보 통계를 보면,&nbsp;암종별 남성환자의 대장암 발병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올라올 만큼 증가세도 빠르다.&nbsp;대장암 사망률은 4위에 이른다.&nbsp;<br/><br/>그런데&nbsp;항암요법과 한방암치료를 병행한 환자에 대한 논문이 최근 발표돼 대장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번 논문은 국내 논문이 해외 학술지(Case Reports in Oncology)에 게재됐다는 점에서&nbsp;주목되고 있다.<br/><br/><div style="text-align: center"></div><br/>약침 등의 한방치료법이 서양의학과의 병행 치료 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은 많이 나와 있다. 한방치료 중 하나인 약침은 산삼, 녹용 등 한약재를 달여 추출한 약액을 고도로 정제해 혈자리에 주사하는 한방의료행위로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생체 기능 조정과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br/><br/>이번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대장암 수술 후 다발성으로 전이된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4개월간 항암화학요법 (FOLFIRI)과 한방 면역요법을 병행한 결과 종양의 크기가 감소했고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이 감소된 내용이 담겨있다.<br/><br/>이번 논문으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부작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의학적 수술 및 항암요법과 한방암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암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암정복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5.txt

제목: 암환자 치료 돕는 게임 나왔다  
날짜: 2014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16100000117  
본문: 항암치료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삶의 의지를 높여주는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이 개발됐다.<br/><br/>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콘텐츠진흥원 연구 과제를 통해 ‘씨엘게임즈’와 함께 암 환자의 항암치료 효과 향상을 위한 기능성 게임 <알라부>(I Love Breas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br/><br/><알라부>는 암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같은 온라인 게임 속의 아바타를 설정해 게임을 진행하며 의사가 준 임무(퀘스트)를 수행하는 미션게임이다.<br/><br/>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필연적으로 욕지기·구토 등의 부작용을 경험해 치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 무엇보다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br/><br/>이에 중앙대병원 장정순·한덕현 교수팀은 암 환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침습적 치료법이 아니라 오락의 일종인 게임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게임을 개발했다.<br/><br/>장정순·한덕현 교수팀은 “<span class='quot0'>게임을 실제 유방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적용해 사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게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를 느꼈으며, 게임을 통해 항암치료제 약 복용에 도움을 받았다</span>”고 설명했다. <br/><br/><알라부> 게임은 실제 항암 치료와 같은 주기인 3주간의 게임을 시행한다. <br/><br/>실제 게임상에 등장하는 탁솔·시스플라틴 등의 아이템은 실제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항암제로, 항암제 복용이 하나의 게임 미션이 돼 항암제를 제때에 먹을 수 있게 알람 기능과 항암제의 부작용도 하나의 게임 요소로 집어넣었다.<br/><br/>예를 들어 탁솔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자나 두건을 써야 하고 모자나 두건을 사기 위해서는 러닝머신을 뛰어 코인을 얻어야 하는 미션 기능 등을 게임에 적용했다. <br/><br/>더불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음식을 요리하거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헬스센터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콘텐츠를 적용할 때 현실에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각각의 자가치료 활동에는 고유의 행동이 존재해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현재 진행 상황을 즉각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게임에 대한 몰입감과 재미를 북돋우게 된다.<br/><br/>이 밖에 친구 기능을 활용해 암 환자 친구들에게 메시지나 선물을 보내는 등의 소셜 기능이 포함돼 혼자만의 플레이가 아닌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끼리 정보교환과 유대감 증진으로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br/><br/><알라부> 게임은 중앙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병동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순응도 연구를 시행한 뒤 영문 버전을 개발해 조만간 미국 유타대학 암센터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6.txt

제목: 암환자 치유 돕는 게임 〈알라부> 개발  
날짜: 2014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1510014762031  
본문: 암 환자들이 게임 속 또 다른 자아(아바타)가 암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치료에 대한 지식과 재활 의지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선보였다.<br/><br/>게임사 씨엘 게임즈는 15일 기능성 소셜네트워크 게임 <알라부>(I Love Breast)’를 중앙대학교병원 장정순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한덕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과제로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다.<br/><br/>이 게임은 암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같은 아바타를 두고, 게임 속 의사가 제시하는 퀘스트(게임 속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바타의 건강을 되찾는 일종의 미션 게임이다. 환자는 본인에게 처방된 항암제의 종류, 구토·탈모 등 부작용 정도, 건강상태 등을 수치로 환산해 아바타에 입력할 수 있다.<br/><br/><br/><br/><br/><br/>게임상에 설정된 아바타는 게임 속에서 탁솔·시스플라틴 등 항암제를 알람에 맞춰 제 시간에 복용해야한다. 항암 치료 부작용에 대한 묘사도 사실적이다. 탁솔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아바타가 모자나 두건을 사야하는데, 이에 필요한 코인(게임화폐)을 얻으려면 트레드밀(러닝머신)에서 뛰어야 한다. 이 게임은 항암효과 음식 요리하기,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기 등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7.txt

제목: ‘소록도 치과의사’ 오동찬씨에 제2회 성천상  
날짜: 20140715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15100000113  
본문: “소록도에 지원할 당시 어머님이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소록도로 가겠다고 하자 어머님이 극구 만류하셨죠. 1년만 공중보건의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br/>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해 온 치과의사 오동찬 의료부장(46·사진)이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br/><br/>오 부장은 1994년 조선대 치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26세의 나이로 국립소록도병원과 첫 인연을 맺었다. 어렸을 때 슈바이처 책을 읽으며 의사의 꿈을 키워왔던 그였지만 막상 소록도에서 만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많은 주민들이 한센병 후유증으로 아랫입술이 처져 침을 흘리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했다. 또 불편한 손(손가락이 없는) 때문에 양치가 어려워 각종 치과 질환으로 입속에 염증이 생겨 고름을 달고 사는 환자들을 두고 볼 수 없었다. 한센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들을 집중 연구했다. 마침내 ‘아랫입술 재건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 지금까지 400여명 환자들의 입술 성형을 도왔다. 지금까지 그가 돌봐온 한센병 환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br/>그는 2005년부터 매년 여름휴가나 명절 기간에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 한센병 환자가 많은 국가를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적을 뛰어넘는 한센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br/>“진료가 없는 날에는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정서적인 치유도 중요하기 때문이지요.”<br/>그는 “의사로서 소록도에 헌신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환자들에게 얻은 것이 더 많다”며 “앞으로 소외 이웃들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시상식은 다음달 26일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8.txt

제목: 중증 암환자 의사 공동진료비 수가 신설  
날짜: 20140709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9100000100  
본문: 9월1일부터 병원 4·5인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에 포함돼 대학병원 4인실 입원료가 하루 평균 6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내린다. <br/>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입원료는 하루 6만~11만원, 5인실은 4만~5만원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인실은 하루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정부가 제도 개편에 따른 병원 측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려 6인실 입원료(대학병원 기준)는 현재 하루 9770원에서 1만60원으로 290원 인상된다.<br/><br/>병원의 특수병상 수가도 인상된다. 격리실은 병원 규모와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는 신생아 입원실을 늘리도록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를 50% 정도 올린다. 중증 암환자를 의사 4~5명이 동시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비(의사 5인 기준 환자부담금 7000원)와 집중영양치료비(대학병원 기준 환자부담금 7370원) 등의 수가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수가 인상·신설로 환자 부담이 연간 1390억원가량 증가하지만 입원료 등 인하 규모가 7460억원이어서 환자 부담은 6070억원 정도 줄어든다</span>”고 밝혔다.<br/>건정심에선 ‘캡슐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 방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캡슐내시경 검사와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의 환자부담금이 130만~200만원에서 10만7000~4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49.txt

제목: [여적]큰빗이끼벌레  
날짜: 20140709  
기자: 신동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9100000019  
본문: 최근 4대강을 비롯해 전국 각지 정체 수역에서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 큰빗이끼벌레는 갑자기 나타난 신종 생물체가 아니다. 물속 고정된 곳에 붙어 군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태형동물(이끼벌레)은 고생대 초기부터 4억년 동안 1만6000여종이 화석종으로 확인될 정도로 지구상에 오랫동안 번성했던 생물이다. 현생종도 50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큰빗이끼벌레로서는 오히려 인간이 갑자기 나타난 괴생물체인 셈이다.<br/>우리나라에도 태형동물은 바다에 136종, 민물에 10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큰빗이끼벌레는 민물산 태형동물 가운데 한 종으로, 1995년 서지은 우석대 에코바이오학과 교수가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기 전까지 국내 미기록종이었다. 북미가 고향인 이 고착형 생물체가 어떻게 한국 내륙 깊숙이 들어와 살게 됐는지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서 교수가 조사할 당시 가두리 양식장이 없는 주암호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양식장 수입 물고기를 통해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br/>큰빗이끼벌레가 반갑지 않은 손님인 것은 분명하다. 생김새, 감촉, 냄새, 생태 모두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식장이나 공장 시설, 선박 등에 부착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최근 4대강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는 것 자체가 4대강 생태 환경이 바뀐 증거이기도 하다. 댐이나 저수지, 호수 등 정체 수역에서 사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으로 진출한 것은 4대강이 강이 아니라 호수 환경이 됐음을 말해준다.<br/>생태 교란종이 출현할 때마다 그것이 정력에 좋다거나 암에 특효가 있다는 걸 밝히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 지난 4일 공주보에서 큰빗이끼벌레를 보면서 그런 농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 농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을 따라 서식하는 큰다발이끼벌레가 그렇다. 한국 해역에도 널리 분포하는 이 태형동물에서 추출한 브리오스타틴(Bryostatin)이라는 천연 물질이 질 좋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다. 어쨌든 생태적 현실이 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0.txt

제목: 입원료 건보 확대… 9월부터 4인실 2만4000원  
날짜: 2014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81001471400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신생아실 입원료는 50% 올라</strong><!-- SUB\_TITLE\_END--><br/><br/>9월1일부터 병원 4·5인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에 포함돼 대학병원 4인실 입원료가 하루 평균 6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내린다. <br/><br/>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입원료는 하루 6만~11만원, 5인실은 4만~5만원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인실은 하루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정부가 제도 개편에 따른 병원 측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려 6인실 입원료(대학병원 기준)는 현재 하루 9770원에서 1만60원으로 290원 인상된다.<br/><br/><br/>병원의 특수병상 수가도 인상된다. 격리실은 병원 규모와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는 신생아 입원실을 늘리도록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를 50% 정도 올린다. 중증 암환자를 의사 4~5명이 동시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비(의사 5인 기준 환자부담금 7000원)와 집중영양치료비(대학병원 기준 환자부담금 7370원) 등의 수가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수가 인상·신설로 환자 부담이 연간 1390억원가량 증가하지만 입원료 등 인하 규모가 7460억원이어서 환자 부담은 6070억원 정도 줄어든다</span>”고 밝혔다.<br/><br/>건정심에선 ‘캡슐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 방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캡슐내시경 검사와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의 환자부담금이 130만~200만원에서 10만7000~4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1.txt

제목: “1년 내에 알츠하이머 걸릴까” 진단하는 혈액검사 나온다  
날짜: 2014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810014711088  
본문: 앞으로는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될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br/><br/>약한 기억력 손상을 겪고 있는 환자의 혈액을 검사하면 환자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개발됐다고 가디언이 8일 보도했다. 영국 킹스컬리지 대학 연구팀과 한 영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이 검사 방법은 향후 12개월 안에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될지를 약 87%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100유로~300유로(13만8000원~41만3000원)수준이며 향후 2년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br/><br/>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 치료제 개발 계획이 대부분 실패한 이유는 치매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치매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뇌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 동안 뇌가 지나치게 큰 손상을 입기 전에 치매를 치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예방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치매로 발전할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치매를 미리 진단하는 방법을 찾는데 매달려 왔다. 지난 3월 미국 과학자들이 기억력 문제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테스트 방법을 발표했으나 “<span class='quot0'>어떤 건강한 사람이 막을 길도 치료할 길도 없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겠냐</span>”는 한계에 부딪혔다.<br/><br/>반면 이번 연구는 이미 기억력에 약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팀은 1148개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 가벼운 기억력 손상을 겪는 사람들이 1년 안에 알츠하이머로 발전할지 여부와 연관이 있는 혈액 내 단백질 10개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더 많은 샘플을 통해 이 발견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상용화할 길을 마련할 계획이다.<br/><br/>영국 자선단체 ‘알츠하이머 소사이어티’ 제임스 피케트 대표는 “<span class='quot1'>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이지만 이 연구로 인해 ‘치매 혈액검사’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이 검사의 정확도는 아직 90% 미만이고, 이것은 10명 중 1명이 부정확한 결과를 받는다는 뜻</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 연구가 유용한 진단검사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더 개선돼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치매는 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인 NHS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치매 치료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치매에 대해 “<span class='quot2'>암 옆에 서 있는 인류의 가장 큰 적</span>”이라고 말하기도 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2.txt

제목: [서현의 내 인생의 책](1) 코스모스 - 대입시험 후 만난 ‘경이의 세계’  
날짜: 20140707  
기자: 서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7100000138  
본문: ▲ 코스모스 | 칼 세이건<br/>어느 경우에도 확률은 4분의 1이었다. 320번의 기회는 하루에 모두 소진해야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육십만명이 일직선 위에 도열했다. 그리고 어렴풋한 과녁을 향해 단 한발의 화살을 쏘았다. 과녁을 빗나가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br/>학력고사라고 썼는데 야만이라고 읽혔다. 그 무자비한 시험이 끝나고 산 첫 책이 <코스모스>였다. 내가 산 책 중에 가장 크고 두꺼웠다. 책을 펴니 보이저 2호가 토성을 지나며 보내온 컬러사진이 나왔다. 그것은 지구과학 시험을 위해 외워야 했던 혼돈스러운 암구호가 아니었다. 누런 갱지 위의 카오스를 밀어낸 화려한 코스모스였다. 천체가 펼치는, 천체에서 펼쳐지는 조화로운 세계.<br/>책에는 교과서에서 이름만 거론되던 그 거인들이 이뤄낸 성취가 구체적으로 등장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되 여전히 위대한 정신들이 바라본 세계의 모습은 숨 막히게 했다. 교실에서 익숙하던 물리, 화학, 생물의 구분도 없었다. 우주와 원자와 인간을 통합해서 보는 눈이 있을 따름이었다.<br/>아직도 선연히 기억나는 것은 확률 계산이었다. 우주에서 우리와 비슷한 지적 수준을 지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합리적 추론으로 그 수를 짚어나가는 과정은 경이 그 자체였다. 그 값은 1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었다.<br/>내 대학생활의 한 움큼을 쥐고 있던 종로서적은 사라졌다. 거기서 내가 산 <코스모스>는 지금 누렇게 변해 책꽂이에 꽂혀있다. 출판사를 바꾼 책은 더 화려하게 단장하고 서점에 깔려있다. 여전히 별은 빛나고 태양은 뜨겁다. 지구는 우주의 작고 푸른 점이되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렵게 거대하다. <코스모스>에는 그 표면에서 잠시 기식하다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뿌옇게 겹쳐진다. 매일 탐욕과 분노와 개탄으로 범벅이 되어 일간지를 덮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3.txt

제목: 건강보험 2016년부터 적자 전환···2018년 적자 2조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710014697505  
본문: 건강보험이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수입보다 1조~2조원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9년쯤 건강보험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함에 따라, 차기 정부 초기 건강보험료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br/><br/>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천427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br/><br/>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지출 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불어난다.<br/><br/>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하면서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은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떨어진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br/><br/>건강보험 법정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 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br/><br/>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결국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획안에서 공단은 기본적으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br/><br/>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에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 6320억원, 2018년 632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br/><br/>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 보고에서 “<span class='quot0'>적자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span>”이라고 밝혔지만, 2019년 적립률이 5%까지 떨어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4.txt

제목: 센 사후검증에 새 만능세포 꼼짝 못했네  
날짜: 20140707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7100000097  
본문: 국제 유명 과학저널 ‘네이처’는 2일(현지시간) “조작으로 판명된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 연구주임의 논문 2편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29일 발표된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만능세포’ 제작은 결국 조작과 논문 철회로 마침표를 찍었다.<br/>오보카타의 논문은 쥐의 세포를 홍차 정도의 약산성 용액에서 배양하면 줄기세포인 만능세포(STAP·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극 촉발에 의한 다분화능 획득 줄기세포’라는 긴 이름의 이 세포는 이후 인체의 모든 세포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난치병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개발 및 제작 경쟁이 치열하다.<br/>■ 혜성처럼 등장했다 사라진 오보카타 연구원<br/>오보카타는 혜성처럼 등장했다. 줄기세포 학계에서는 오보카타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기까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30살에 불과한 신진 과학자였다. <br/>그가 혜성처럼 등장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보카타는 일본 이화학연구소 발달생물학센터(CDB·Center for Developmental Biology)의 책임연구자(PI)였다. 경력이 짧은 데도 책임연구자로 기용될 수 있었던 것은 신진 연구자도 연구 아이디어만 좋다면 연구를 독자적으로 맡기는 발달생물학센터의 열린 연구 방식 때문이었다.<br/>발달생물학센터는 주기적으로 책임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모임을 연다. 연구 주제와 진행 상황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는 게 이곳의 전통이다. 이화학연구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보카타는 발표 차례가 되면 상사에게 말해 차례를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연구자들의 발표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발달생물학센터 내에서 오보카타의 연구는 비밀처럼 여겨졌다</span>”고 전했다.<br/>하지만 오보카타는 네이처에 논문 2편을 실으며 일약 스타 과학자로 떠올랐다. 아주 쉽게, 실패 확률도 별로 없이 만능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br/><br/>지금까지 줄기세포 제작 방법은 난자를 이용해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만들거나, 바이러스를 넣어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드는 2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난자를 이용해 윤리적 논란이 있거나 암이 생길 위험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 오보카타는 당시 단순히 산성 용액에 담그는 것만으로 줄기세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를 댄 것이다.<br/>이 논문이 발표된 뒤 연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만능세포가 그처럼 간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br/>또 근거로 제시한 영상 데이터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진 조사에서 이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계 신데렐라인 오보카타는 처음에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버텼으나, 결국 문제를 시인하고 논문 철회에 동의했다.<br/>일본은 오보카타 논문조작 사건 이후 폭풍에 휘말려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화학연구소의 ‘개혁위원회’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서 “<span class='quot1'>발달생물학센터를 조속히 해체하라</span>”고 요구한 상태다. 개혁위원회는 오보카타 연구주임의 채용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span class='quot2'>영어 공개 세미나를 생략하고 추천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주임으로 내정되는 것은 졸속 행정</span>”이라고 비판했다.<br/><br/>■ 강력해지는 사후 검증<br/>과학저널인 ‘네이처’는 영국의 네이처 출판그룹이 출간한다. 인용지수(연구자가 특정 저널에 실린 논문을 인용하는 횟수로 숫자가 클수록 저명한 저널)가 38 이상이다. 과학계에서는 미국과학진흥회(AAAS)가 발간하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와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이 저널에 논문이 게재됐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양대 저널은 논문을 게재하기까지 동료평가(peer review) 과정도 상대적으로 철저히 거친다고 알려져 있다.<br/>그러나 저널들은 논문 조작 여부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실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논문도 동료평가 과정을 거쳐 게재됐지만, 결국 조작으로 결론났다. 네이처는 2010년 ‘기후 변화’ 관련 논문의 데이터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자 사설을 통해 “<span class='quot3'>논문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3'>세계 최고 과학저널로서 소명을 다하겠다</span>”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문 조작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br/>학계에서 자율적으로 논문의 조작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 검증’이 강력해지고 있다. 오보카타의 논문 조작 논란이 알려지고, 이화학연구소의 공식 조사가 들어가기까지 논문검증사이트인 ‘펍피어’(Pubpeer)가 역할을 했다. 펍피어는 출간된 논문에 대해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달 수 있는 게시판형 웹사이트다. 오보카타 논문에 실린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견이 처음 올라온 사이트가 바로 펍피어다.<br/>또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의 역분화줄기세포 연구자인 폴 크뇌플러 교수의 연구실 블로그는 과학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장’이자 ‘법정’이 됐다. 만능세포의 재현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크뇌플러 교수의 블로그에서 재현 실험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오보카타가 논문에서 밝힌 제작 방법대로 실험했지만 만능세포를 만들 수 없었던 과학자들은 크뇌플러 교수 블로그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4'>만능세포 연구의 경우 획기적인데다가 간단했기 때문에 여러 실험실에서 바로 재현 실험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4'>동료 검증은 과학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연구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검증 강도도 강해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2005년 발생한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도 과학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이 과학자들의 논문 조작 여부를 밝히는 ‘사후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br/>연구윤리 부재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수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5'>오보카타 사건은 개인의 연구윤리 부정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5'>성실히 연구하는 다수의 과학자들까지 ‘거짓말쟁이’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5.txt

제목: [생태경제 이야기]생태적 문화 혹은 문화적 생태  
날짜: 20140704  
기자: 우석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4100000037  
본문: 유네스코나 유넵이나 같은 유엔 산하 기구이다. 유네스코를 모를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유넵(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은 좀 생소할 것이다. 유네스코나 유넵이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이다.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국제공무원이라는 신분과 함께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을 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과학·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유넵은 환경을 다루는 기구이다. 두 기관을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수년, 환경 보존에 관한 영향력은 유네스코가 절대적이다. ‘개발해야 잘살지’, 생태적 보존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 기립박수, 이런 형국이다. <br/>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기쁜 일이다. 위례신도시 개발한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엄청 난리치던 기억 같은 것은 잠시 잊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환영 발표를 보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했다. 생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였여도 못한 일을 유네스코가 한 방에 한 셈이다. <br/>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마련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주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기쁨은 잠시, 그럴수록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리창 너머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진 막막한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당장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을 잇는 문화관광 벨트를 만들자는 발표가 이어졌다. 그야말로, 그래 이런 게 공무원이지! <br/><br/>내가 가본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프랑스의 리옹이었다.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라는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다. 프랑스 공업과 금융의 축이었던 리옹이 파리에 밀려 몰락한 이후, 난개발로 향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면서 ‘절제’의 미덕을 보여준 도시로 기억에 남는다. 반면, 정말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에 갔을 때였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유네스코 등재가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불만들이 많았다. 결국 호주는 산림개발을 위해 여기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좀 빼달라고 신청하는 지경이 되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 가장 가슴이 찡했던 것은, 역시 히로시마의 원폭돔을 비롯한 피폭 흔적이었다. 여기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최초의 한국인 고위직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br/>생태와 문화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문화나 생태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 같다보니, 점점 더 미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다. 지금 당장 개발하면 바로 이익이 날 것 같지만, 참고 보존하면 오히려 미래에 더 큰 가치가 되는 경우가 늘었다. 역사성과 희소성, 생태적 기능 같은 것들이 그렇다. 국민소득이 늘수록, 가난하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의 사회적 가치도 높아진다. <br/>경복궁 옆에 호텔 짓는 것이 ‘암덩어리’와 싸우는 것이라고 하신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다. 규제 완화가 국가의 기본 방향이 된 시대, 우리는 문화와 생태의 결합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화가 더 생태적 모습을 갖추고, 생태가 문화적 양상과 결합된 시대, 그게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6.txt

제목: ‘차세대연극인스튜디오’ 이끄는 이병훈 연출가 “배우는 자의식을 빼내 몸이 열려야 해요”  
날짜: 20140703  
기자: 문학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3100000050  
본문: 연극의 위기가 거론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는 것일까?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얘기한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이 거칠고 빠른 세상이 한 편의 연극에 마음을 쏟을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다. 연극연출가 이병훈(62)은 “연극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그중에서도 “연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배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는 연극의 위기는 바로 배우의 위기다. 지난 1일 서울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만난 그는 “한국의 배우 90%가 제대로 연기를 할 줄 모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연극계 후배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그는 작심한 듯 말했다. <br/>연출가 이병훈은 현재 국립극단 산하의 차세대연극인스튜디오 소장을 맡고 있다. 일종의 배우 재교육 센터다. 2012년, 당시 국립극단 예술감독이던 연출가 손진책에게 이병훈이 직접 제안해 만든 스튜디오다. 3년째 배우들의 재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지금 우리 연극계에 긴급한 과제는 제대로 된 배우 양성”이라며 자신의 ‘배우론’을 펼쳐놨다.<br/><br/>▲ “한국 배우의 90%가 연기 몰라… 사회적 억압에 눌려서 산 탓”<br/>3년째 후배 재교육 매진… 교육생과 함께 ‘안톤 체호프’ 무대<br/>- 근원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배우란 뭘까요?<br/>“변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변하지 못하면 배우가 아닙니다. 무대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면 관객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관객은 그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햄릿이나 오셀로를 보러 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체적 전이입니다. 배우가 연극 속의 캐릭터를 이해해서 감정을 넣고 흉내를 냈으면 연기를 제대로 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신체 전이가 안되면 다 거짓이고 관념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배우가 농부 역할을 맡았으면 나와 농부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살펴야 돼요. 그래서 농부의 몸을 내 몸에 심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선 배우가 될 수 없어요. 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br/>- 그런데 몸이 열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굉장히 높은 산을 하나 넘는 거 아닙니까? 못 넘으면 좌절하는 거고.<br/>“요즘 젊은 배우들 중에서 몸이 열린 친구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억압, 트라우마…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만 자유로워 보일 뿐 속은 무엇인가에 꽉 눌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몸을 열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죠. 자의식 강하면 배우 못해요. 자의식을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가령 이런 식이죠. 단순한 걸 계속 반복시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벌렁대다’라는 말에서 ‘벌렁’이라는 부분만 1시간 내내 소리내게 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이 슬슬 올라와요. 어떤 친구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음악을 틀죠. 아주 강한 리듬의 하드록을.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br/>- 무슨 기 수련 같기도 하네요(웃음). 요즘도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자주 보시죠?<br/>“많이 보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 이 친구들이 연극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나’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러시아 배우 박탄코프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의 스승인 스타니슬랍스키도 ‘나의 존경하는 제자’라고 칭했던 배우죠. 암에 걸린 상태에서 마지막 작품으로 <투란도트>를 준비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얼음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연습을 합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연극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일화입니다. 연극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숭고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요즘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다보면 연극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왜소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연극을 한다니까요. 과거의 대학 연극반 수준보다 못한 프로 연극들이 허다해요.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관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네’라고 생각한다고요. 치명적이죠. 작품에 대한 인문적 이해도 관객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br/>- 최근에는 배우의 연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연기하지 않는 연기’라는 개념도 등장했는데요.<br/>“그런 건 어떤 경지에 올라야 가능한 거죠. (약간 흥분하면서) 지금 한국 연극판에 그런 배우가 누가 있습니까? 연기하지 않는 연기요? 그건 게으른 친구들의 자기변명이죠. 저는 연극학과 졸업하고 대학로 와서 3년쯤 되면 거의 폐인이 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배우로서 가장 황금기여야 할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죠. 연극의 가치도 잃고 배우로서의 패기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시작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스튜디오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배우 수업은 단지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공연으로 이어져야 하죠. 유럽 여러 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영국 출신의 거장 연출가 피터 브룩의 극단도 사실상 스튜디오입니다. 레프 도진의 말리극단도 그렇고, 프랑스 태양극단도 사실상 학교와 공연의 복합체입니다.”<br/>- 올해 재교육한 배우들을 이끌고 안톤 체호프의 <플라토노프>(6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를 공연 중인데 어떤 작품인가요?<br/>“체호프가 열아홉 살에 쓴 연극입니다. 탈출구 없는 삶, 무기력하게 부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삶에 대한 통찰이 담긴 작품을 썼다는 것이 놀랍죠. 올해 같이 땀 흘린 23명의 배우들이 전원 출연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7.txt

제목: [생태경제 이야기]생태적 문화 혹은 문화적 생태  
날짜: 2014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310014681819  
본문: 유네스코나 유넵이나 같은 유엔 산하 기구이다. 유네스코를 모를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유넵(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은 좀 생소할 것이다. 유네스코나 유넵이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이다.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국제공무원이라는 신분과 함께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을 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과학·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유넵은 환경을 다루는 기구이다. 두 기관을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수년, 환경 보존에 관한 영향력은 유네스코가 절대적이다. ‘개발해야 잘살지’, 생태적 보존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 기립박수, 이런 형국이다.<br/><br/>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기쁜 일이다. 위례신도시 개발한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엄청 난리치던 기억 같은 것은 잠시 잊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환영 발표를 보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했다. 생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였여도 못한 일을 유네스코가 한 방에 한 셈이다. <br/><br/>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마련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주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기쁨은 잠시, 그럴수록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리창 너머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진 막막한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당장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을 잇는 문화관광 벨트를 만들자는 발표가 이어졌다. 그야말로, 그래 이런 게 공무원이지! <br/><br/><br/>내가 가본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프랑스의 리옹이었다.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라는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다. 프랑스 공업과 금융의 축이었던 리옹이 파리에 밀려 몰락한 이후, 난개발로 향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면서 ‘절제’의 미덕을 보여준 도시로 기억에 남는다. 반면, 정말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에 갔을 때였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유네스코 등재가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불만들이 많았다. 결국 호주는 산림개발을 위해 여기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좀 빼달라고 신청하는 지경이 되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 가장 가슴이 찡했던 것은, 역시 히로시마의 원폭돔을 비롯한 피폭 흔적이었다. 여기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최초의 한국인 고위직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br/><br/>생태와 문화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문화나 생태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 같다보니, 점점 더 미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다. 지금 당장 개발하면 바로 이익이 날 것 같지만, 참고 보존하면 오히려 미래에 더 큰 가치가 되는 경우가 늘었다. 역사성과 희소성, 생태적 기능 같은 것들이 그렇다. 국민소득이 늘수록, 가난하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의 사회적 가치도 높아진다. <br/><br/>경복궁 옆에 호텔 짓는 것이 ‘암덩어리’와 싸우는 것이라고 하신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다. 규제 완화가 국가의 기본 방향이 된 시대, 우리는 문화와 생태의 결합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화가 더 생태적 모습을 갖추고, 생태가 문화적 양상과 결합된 시대, 그게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한다.<br/><br/><우석훈 | 영화기획자·경제학 박사>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8.txt

제목: 한국 자살률 10년 연속 OECD 1위 '불명예'  
날짜: 2014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210014668345  
본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과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이며, 남성 흡연율은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료 횟수와 입원 기간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인구 대비 의료 인력 규모는 최하위에 머물렀다.<br/><br/>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OECD 보건 통계 2014’(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2012년 기준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33.3명)보다는 낮아졌으나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보다 17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불명예스럽게도 10년 연속 1위였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인구 10만명당 1.7명이다. <br/><br/>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5.8%로 가장 낮았다.<br/><br/>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입원 일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14.3회로 1위로 평균(6.9회)의 2.1 배에 높다. 환자 1인당 입원 기간은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고 일본(31.2일)에 이어 2위였다. <br/><br/>보건의료 비용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다. 2012년 국민의료비는 9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였다. 이는 OECD 평균(9.3%)보다 낮다.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액도 2291달러로 평균(3484달러)을 밑돌았다. <br/><br/>반면 2007~2012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6.6%로 OECD 평균(2.3%)의 약 3배였다. 국민의료비는 보건의료 관련 재화·서비스의 최종 소비와 이 분야 하부구조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것이다. <br/><br/>의료비를 가계가 부담하는 비율도 높았다. 국민의료비를 재원 종류별로 나눠보면,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54.5%)은 평균(72.3%)보다 낮은 반면,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35.9%)은 평균(19.0%)을 크게 웃돌았다. <br/><br/>급증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비해,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최하위였다. 보건복지부는 “<span class='quot0'>의대 졸업자 수도 10만명당 8.2명으로 평균(11.1명)보다 낮아 중·장기적 의료 인력 수급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span>”고 지적했다. 1000명당 간호사 수(4.8명) 역시 평균(9.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br/><br/>체중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었다. 한국의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31.8%로, 일본(23.7%)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15세이상 연간 술 소비량(알코올 9.1ℓ)도 OECD 평균(9.0ℓ)과 비교해 많은 편이 아니었다. <br/><br/>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2년 기준 81.3세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었다. 2007년(79.4세)과 비교해 5년새 1.9년 늘어난 것으로, 증가 속도가 OECD 평균(1.2년)보다 빨랐다.<br/><br/>한편 우리나라의 1000명당 영아사망률(2.9명, OECD평균 4.0명)·10만명당 암 사망률(183.3명, 207.5명)·10만명당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43.2명, 119.2명)·1000명당 1일 항우울제 소비량(14.7회 투여분, 56.4회 투여분)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반면 10만명당 뇌혈관 질환 사망률(76.5명, 68.1명)·1000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28.4회 투여분, 20.3회 투여분)·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보유 대수(23.5대, 14대) 등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59.txt

제목: ‘차세대연극인스튜디오’ 이끄는 이병훈 연출가 “배우는 자의식을 빼내 몸이 열려야 해요”  
날짜: 2014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210014673477  
본문: 연극의 위기가 거론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는 것일까?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얘기한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이 거칠고 빠른 세상이 한 편의 연극에 마음을 쏟을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다. 연극연출가 이병훈(62)은 “연극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그중에서도 “연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배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는 연극의 위기는 바로 배우의 위기다. 지난 1일 서울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만난 그는 “한국의 배우 90%가 제대로 연기를 할 줄 모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연극계 후배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그는 작심한 듯 말했다.<br/><br/>연출가 이병훈은 현재 국립극단 산하의 차세대연극인스튜디오 소장을 맡고 있다. 일종의 배우 재교육 센터다. 2012년, 당시 국립극단 예술감독이던 연출가 손진책에게 이병훈이 직접 제안해 만든 스튜디오다. 3년째 배우들의 재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지금 우리 연극계에 긴급한 과제는 제대로 된 배우 양성”이라며 자신의 ‘배우론’을 펼쳐놨다.<br/><br/><br/><b>▲ “한국 배우의 90%가 연기 몰라… 사회적 억압에 눌려서 산 탓”<br/>3년째 후배 재교육 매진… 교육생과 함께 ‘안톤 체호프’ 무대</b><br/><br/>- 근원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배우란 뭘까요?<br/><br/>“변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변하지 못하면 배우가 아닙니다. 무대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면 관객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관객은 그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햄릿이나 오셀로를 보러 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체적 전이입니다. 배우가 연극 속의 캐릭터를 이해해서 감정을 넣고 흉내를 냈으면 연기를 제대로 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신체 전이가 안되면 다 거짓이고 관념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배우가 농부 역할을 맡았으면 나와 농부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살펴야 돼요. 그래서 농부의 몸을 내 몸에 심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선 배우가 될 수 없어요. 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br/><br/>- 그런데 몸이 열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굉장히 높은 산을 하나 넘는 거 아닙니까? 못 넘으면 좌절하는 거고.<br/><br/>“요즘 젊은 배우들 중에서 몸이 열린 친구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억압, 트라우마…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만 자유로워 보일 뿐 속은 무엇인가에 꽉 눌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몸을 열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죠. 자의식 강하면 배우 못해요. 자의식을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가령 이런 식이죠. 단순한 걸 계속 반복시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벌렁대다’라는 말에서 ‘벌렁’이라는 부분만 1시간 내내 소리내게 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이 슬슬 올라와요. 어떤 친구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음악을 틀죠. 아주 강한 리듬의 하드록을.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br/><br/>- 무슨 기 수련 같기도 하네요(웃음). 요즘도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자주 보시죠?<br/><br/>“많이 보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 이 친구들이 연극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나’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러시아 배우 박탄코프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의 스승인 스타니슬랍스키도 ‘나의 존경하는 제자’라고 칭했던 배우죠. 암에 걸린 상태에서 마지막 작품으로 <투란도트>를 준비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얼음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연습을 합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연극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일화입니다. 연극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숭고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요즘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다보면 연극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왜소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연극을 한다니까요. 과거의 대학 연극반 수준보다 못한 프로 연극들이 허다해요.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관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네’라고 생각한다고요. 치명적이죠. 작품에 대한 인문적 이해도 관객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br/><br/>- 최근에는 배우의 연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연기하지 않는 연기’라는 개념도 등장했는데요.<br/><br/>“그런 건 어떤 경지에 올라야 가능한 거죠. (약간 흥분하면서) 지금 한국 연극판에 그런 배우가 누가 있습니까? 연기하지 않는 연기요? 그건 게으른 친구들의 자기변명이죠. 저는 연극학과 졸업하고 대학로 와서 3년쯤 되면 거의 폐인이 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배우로서 가장 황금기여야 할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죠. 연극의 가치도 잃고 배우로서의 패기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시작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스튜디오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배우 수업은 단지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공연으로 이어져야 하죠. 유럽 여러 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영국 출신의 거장 연출가 피터 브룩의 극단도 사실상 스튜디오입니다. 레프 도진의 말리극단도 그렇고, 프랑스 태양극단도 사실상 학교와 공연의 복합체입니다.”<br/><br/>- 올해 재교육한 배우들을 이끌고 안톤 체호프의 <플라토노프>(6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를 공연 중인데 어떤 작품인가요?<br/><br/>“체호프가 열아홉 살에 쓴 연극입니다. 탈출구 없는 삶, 무기력하게 부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삶에 대한 통찰이 담긴 작품을 썼다는 것이 놀랍죠. 올해 같이 땀 흘린 23명의 배우들이 전원 출연합니다.”<br/><br/><글 문학수 선임기자·사진 정지윤 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0.txt

제목: 박봄 마약류 밀반입 ‘입건 유예 조치’ 논란  
날짜: 2014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2100000091  
본문: 걸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30)이 4년 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입건 유예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br/><br/>검찰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들여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br/><br/>당시 인천지검은 세관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뒤 우편물의 수취처인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을 찾아 방문 조사를 벌여 우편물의 주인이 박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계양구 주소지는 박봄의 할머니가 거주하는 곳이었다. <br/><br/>암페타민은 미국에서 합성된 중추신경 흥분제로, 엄격한 처방전 아래 우울증 등의 처방 약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환각 성분이 있어 단순 마약류로도 활용되거나 불법으로 유통될 때가 많다.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이라 지칭되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흡사해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온 마약류 약품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치료 약물로도 사용이 일절 금지돼 있다. <br/><br/>당시 검찰은 이를 내사 사건으로 접수한 뒤 박봄의 숙소 등을 찾아 사건 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r/><br/>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으로 암페타민 밀반입을 꾀한 이들을 구속 수사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내사 접수 40여일 만에 입건 유예키로 하고 내사를 종료했다. <br/><br/>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논란이 더불어 일어났다. ‘입건 유예’는 통상적으로 입건 후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 유예’ 보다도 낮은 단계의 조치다. 마약류 밀반입 의혹 사건에서 아예 입건 자체를 유예한 사례는 흔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br/><br/>투애니원은 당시 사건에 앞서 법무부 홍보대사를 맡고 있기도 했다. 이 밖에 2009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역임한 빅뱅 역시 멤버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되고, 멤버 대성 역시 사망 교통사고를 났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과 맞물려 검찰의 편들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br/><br/>검찰은 1일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봄의 경우 개인 질병으로 인해 미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이 약물을 복용해왔고, 국내에서도 이를 토대로 약물을 주문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사례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통상 입건 유예 처분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br/><br/>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도 1일 새벽 소속사 홈페이지 ‘YG라이프’에 ‘박봄 기사에 관한 해명글’이라는 제목의 장문 글을 쓰고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의혹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br/><br/>소속사는 당초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양현석 프로듀서는 자신이 직접 쓴 글로 갈음했다. 양 프로듀서는 A4 4장 분량으로 길게 써내려간 글에서 “<span class='quot0'>담배도, 술도 잘 먹지 않는 박봄이 하루 아침에 마약 밀수자가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할지, 굳이 설명하는 게 맞는지 오히려 일을 더 키우지나 않을지 고민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가만히 곁에서 지켜만 보는 일이 저에게 최선은 아닌 듯하다</span>”며 글을 직접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br/><br/>양 프로듀서에 따르면 어릴 적 미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박봄은 경기 도중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 양 프로듀서는 “<span class='quot0'>그 이후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왔고 미국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다</span>”고 말했다. 또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다행히 미국 대학병원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 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과정에서 모두 제출했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돼 무사히 마무리 된 일”이라고 말했다. <br/><br/>그는 “어느 부모가 마약인 줄 알고 약을 받아 주느냐”면서 “나도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를 갖고 다니는데 그게 어떤 성분인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양 프로듀서는 “<span class='quot0'>밤새 눈물만 흘리는 박봄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또다시 박봄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지난 얘기를 말씀 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니 기분이 착잡하다</span>”고 덧붙였다. <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각종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비슷한 사례에서도 일부 입건 및 구속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1.txt

제목: LADIES’ COUNSELOR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1100000131  
본문: 레이디경향<br/>건강 고민<br/>서수진(더엘 클리닉&메디컬 스파 원장)<br/>최광현(한국트라우마가족치료연구소 소장)<br/>안상철 (서울리마치과 대표원장)<br/><br/>육아 고민<br/>손석한(연세신경정신과 원장)<br/><br/>교육 고민<br/>노관호(노원 뉴스터디 원장)<br/><br/>재테크 고민<br/>우용표(더 코칭&컴퍼니 대표)<br/>윤희권(YOON’s FPG 대표)<br/><br/>고민 상담 접수는…<br/>● 「레이디경향」 애독자 엽서, 이메일(ladykh@khan.kr), 공식 블로그(ladykh.khan.kr) [고민 해결 방]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제목에 [고민 상담]이라 적어주시고, 선물 발송을 위한 연락처(공식 블로그 이용시 ‘비공개’ 댓글)를 남겨주세요.<br/><br/>부부·가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은행 빚 갚지 않는 남편, 외도로 인한 죄책감, 시어머니와의 양육 의견 차, 앞집 야동남 대처법, 여전히 낯설고 두렵기만 한 남편<br/><br/>Q 남편 퇴직 후 약간의 연금과 소일거리로 생활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퇴직 전 남편이 진 빚이 있는데 도무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빠듯한 생활이지만, 이자도 부담되고 마음이 불편해 빨리 갚고 털어버리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자기 통장에 넣어두려고만 합니다. 얼마 전엔 목돈이 생겨 일부를 상환했는데 그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구 수성구 · 이OO)<br/>김선재 우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한 남성들은 자신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 용도 폐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등으로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의기소침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과 같은 물질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돈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 결과는 지나친 절약과 저축으로 자린고비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창 활동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가족을 당황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br/>남편의 현재 행동에는 은퇴자들이 보이는 심리 상태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어찌 됐건 자신의 통장에 일정액 이상의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바탕에 불안이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일정액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품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등이 있겠지요.<br/>부인을 비롯한 가족은 남편의 이러한 마음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먼저, 지금까지 고생한 남편의 노고를 인정하고 수시로 감사를 표시해서 남편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의 존경과 애정이 변함이 없으며, 가족 모두 남편을 사랑하니 절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편이 안정감을 갖게 되면 그때 저축보다는 빚을 먼저 갚는 것이 합리적임을 받아들이게 돼(이미 남편이 알고 계실거라 사료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br/><br/>Q 남자친구의 가족과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데 겁이 나네요. 제가 전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요. 기분이 꺼림칙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전 중구·서OO)<br/>안은영 여자 입장에선 자신이 바람을 피운 건 잘못한 행동이지만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된 상태고, 남자 입장에선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 시련을 극복하고 성숙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는 수밖에요. 남자 쪽에서 과거를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면 결혼을 미루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맹세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br/><br/>Q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의견 차이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오냐오냐 하며 키우는 스타일이라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지네요.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요. 일하며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있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속이 상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최OO)<br/>김숙기 아이의 양육시 조부모와 부모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워킹 맘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돌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양육에서 빠져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br/>양육 문제를 놓고 시어머니와 계속 대립이 생길 때는 시어머니께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하세요. 시어머니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하고 자녀 양육은 엄마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진심을 다해 전달하세요. 또 ‘오냐오냐’ 하다 보면 아이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녀교육이 어렵다는 말씀을 전하세요. 함께 책이나 육아 방송 등을 시청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이 맞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br/>시어머니와 절대 대립하지 마시고 아이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책임감 있는 엄마의 모습과 함께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뜻에 따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br/><br/>Q 모든 고민을 받는다고 하시니 문의해볼게요. 저희 집 창문을 열면 앞집이 다 보이거든요. 저희 집엔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 앞집 남자가 야동을 자주 봐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경기 광명시·전OO)<br/>안은영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죠. ① 앞집 남자에게 취미생활은 존중하지만 사춘기 아이가 있으니 컴퓨터 모니터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청한다. ② 직접 말할 수 없다면 앞집 다른 가족에게 조용히 문의한다. ③ 창문에 발이나 시폰 커튼 등 바람은 들이되 유해 환경은 차단해주는 인테리어 소품을 건다. ④ 아이들에게 아저씨의 취미생활을 이해시키고(이미 다 알겠지만) 모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br/>요즘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조숙하고 ‘시크’합니다. 이미 또래끼리 말이 돌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앞집 아저씨’에 대해서. 이런 고민은 노심초사할 게 아니라 드러내서 공론화해도 됩니다.<br/><br/>Q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면 꼭 무서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처럼 겁부터 덜컥 나고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우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결혼 10년 차가 돼가는데 갑자기 낮선 사람처럼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왜 이런 걸까요? (서울 송파구·김OO)<br/>이정희 결혼 10년 차지만 아직도 남편에게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마음입니다. 무서운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건 아마도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창 시절 정말로 무서운 선생님에게 야단맞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권위적인 남성에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아버지나 주변 친척, 아니면 오빠나 지인 등의 남성이 엄격하고 차갑게 혹은 비판적인 자세로 혼을 냈거나 큰소리로 야단을 치며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된 공포나 불안이 남편의 태도에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br/>따라서 불안감의 근원을 찾아야 하고, 남편에게 남편의 태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큰소리를 지르면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 차분하게 보통의 목소리로 이야기해달라고. 그리고 과거의 불안감을 유발시켰던 대상과 현재의 남편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남편의 요구나 말에 대해 두려움으로 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부적절한 존재로 절하하는 평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br/><br/>Profile<br/>김선재는…<br/>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PJ 마음건강의원 원장. 부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병리적 증상과 고민에 대해 핵심을 짚어낸 답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부들이 모르는 남성 심리까지 꿰뚫어본다.<br/><br/>Profile<br/>이정희는…<br/>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임상심리사.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같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언으로 단순한 부부 문제 해결을 넘어 공감과 위로가 되는 따뜻한 솔루션을 제시한다.<br/><br/>Profile<br/>안은영은…<br/>사랑과 결혼, 일과 성공, 돈과 인생 등 여자의 인생에 대한 담백한 조언을 담은 「여자생활백서」로 여성 독자들의 ‘언니’로 자리 잡은 베스트셀러 작가. 「여자 공감」, 「여자 인생 충전기」 등을 썼다.<br/><br/>건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모기에 짓무른 아기 피부, 햇빛 알레르기 고민, 난임 부부의 고민, 다낭성난소증후군<br/><br/>Q 8세 딸아이가 매년 여름만 되면 다리 쪽에 모기 물린 자국이 짓무르는<br/>지경이 되면서 상처가 남아요. 여자애라 반바지 입을 때마다 걱정스럽네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있을까요?<br/>(인천 남동구 · 이OO)<br/>서수진 아무래도 모기 물린 곳이 가렵고 자극적이다 보니 아이의 손이<br/>계속 닿을 거예요. 긁지 말라고 누차 말해도 아직 어리다 보니 잘 따르지<br/>못할 겁니다. 피부 자체도 워낙 약할 수 있고 자꾸 만져서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난 곳에 깨끗하지 않은 손이 다시 닿으면서 재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짓무르고 상처가 남지요. 그리고 그 상처에<br/>자외선이 닿으면서 색소침착이 되고요.<br/>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나 옷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br/>이미 물렸다면 가려움증을 조절하면 한결 나아질 겁니다. 모기 물린 부위에 수시로 얼음찜질을 해주고 모기 물린 데 바르는 항히스타민제 · 스테로이드제 연고 등을 바른 뒤 차갑고 젖은 거즈로 드레싱을 해주는 것도 가려움증을 조절하면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고의 양을 적절히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br/>많은 양의 연고는 자칫 잘못하면 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린 부위가 손톱이나 잦은 마찰로 인해 상처가 남았다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합니다. 자극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로 인해 상처에 자극을 느낀다면 며칠 동안은 긴 옷 등을 입혀 강한 자외선은 피해야 합니다.<br/><br/>Q저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가려울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경기 안산시·이OO)<br/>서수진 햇빛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일 것입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피하고, 자외선에 노출될 때는 옷이나 신발, 모자, 장갑 등을 이용해 알레르기가 심한 부위를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br/>가려울 때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테로이드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게 되실 텐데요. 우선 가려운 부위의 체온을 내려주면 가려움증을 한결 덜 느끼게 됩니다. 냉찜질이나 얼음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깨끗하게 소독된 거즈 등을 적셔서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한 뒤 가려운 부위를 감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가워야 한다는 것과 거즈가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레르기 증상으로 가려움을 느낄 때 체온을 내려주고 수분을 공급하면 가려운 증상을 한결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의 경중에 따라 국소적 스테로이드 연고나 경우에 따라 먹는 약을 적절히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br/><br/>Q 주변에 생각보다 난임 부부가 많아요. 저희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 등 실질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br/>김재원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난임으로 진단하고 난임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5세 이상의 여성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 검사를 받도록 하고, 35세 미만이더라도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자궁내막증 등의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경우,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병원을 찾아 난임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br/>난임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한 호르몬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골반 초음파 및 남성 정액 검사 등으로 이뤄지며, 이러한 검사를 시행한 뒤 난임의 원인 및 기간, 부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br/>인공수정은 배란기에 자궁 안에 정자를 직접 넣어주는 시술이며, 시험관아기는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 체외 시험관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 수일간 배양해 이 수정란을 다시 자궁 내에 이식하는 시술입니다.<br/>불임 치료의 방법을 살펴보면, 불임 기본 검사를 한 뒤 원인을 찾게 됩니다. 원인이 남성인 경우 남성을 먼저 치료해 정자 상태를 좋게 만듭니다. 치료 뒤에도 정자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면 정도에 따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의 시술을 결정합니다. 여성 쪽의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 수술로 교정되는 질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궁 내막의 폴립입니다. 이것은 자궁 공간 안에 폴립이라는 양성 종양이 있는 것으로 상담 사례가 흔한 편입니다. 입원이 필요치 않은 간단한 자궁내시경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며, 수술 뒤 임신에 바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호르몬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르몬을 교정하는 약물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즙 분비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성선자극 호르몬, 다낭성난포증후군 등입니다. 호르몬 교정 뒤 다시 임신을 시도하면 임신 확률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궁난관조영술에서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자궁 안에 격막이나 유착 등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으면 자궁내시경 수술로 이상 부위를 수술한 뒤 임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난관이 막힌 경우에는 때에 따라 수술할 수도 있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해부학적, 호르몬 이상을 교정한 뒤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배란유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단계를 밟게 됩니다.<br/>① 배란유도: 보통 생리 3일째부터 투약이 시작되고 먹는 약과 주사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클로미펜이나페마라 등의 약을 생리 3일째부터 5일간 먹게 되며, 이 단계에서 임신이 되지 않으면 배란 유도 주사가 추가됩니다.<br/>② 인공수정: 먹는 약과 주사로 난자를 3개 정도 배란시킨 후 정자를 활성화 처리하여 자궁 안에 주입하게 됩니다.<br/>③ 시험관아기 시술: 시험관아기 시술은 배란주사를 맞아 난자를 10개 정도 배란유도한 후 난자를 초음파를 보면서 몸 밖으로 채취하여 수정시킵니다. 수정 과정이 몸 밖 시험관에서 일어난다고 하여 시험관아기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수정된 배아는 2~5일 후 자궁 안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은 배아이식이라고 합니다.<br/><br/>Q 몇 년 전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둘 있는지라 안심했는데, 어제 입은 바지가 오늘 맞지 않을 정도로 몸이 잘 붓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비도 심하고요. 암이나 폐경기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경기 용인시·신OO)<br/>김재원 다낭성난소증후군은 첫째, 불규칙한 생리 혹은 무월경 둘째, 남성호르몬 과다로 인한 증상 혹은 혈중 남성호르몬 과다 셋째,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를 보일 수 있는데 이 중 2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진단이 내려집니다.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배란 장애가 지속되므로 배란 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br/>또 배란 장애로 인한 생리불순, 부정출혈뿐만 아니라 남성호르몬 과다증으로 인한 증상(다모증, 여드름, 탈모증),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신과 무관한 경우라면 체중 조절, 운동 등을 포함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내당능 장애와 고지혈증 개선,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피임약을 복용해 남성호르몬 과다로 인한 증상 완화와 주기적인 생리 유도를 통한 자궁 내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br/>임신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체중조절, 운동과 같은 생활방식 변화는 기본이며, 배란유도제를 복용하면서 임신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 중 특히 비만인 경우에서는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에 전문의와 상담하여 현재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임신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한 상태나 내당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후 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중과 같은 임신 관련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빨리 임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신 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임신 후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한 출산을 돕는 길입니다.<br/><br/>Profile<br/>서수진은…<br/>피부과 전문의, 더엘 클리닉&메디컬 스파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각종 매체에서 뷰티 엑스퍼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br/><br/>Profile<br/>김재원은…<br/>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공의를 거쳐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불임 및 생식내분비 전임의로 근무했다. 현재 서울 라헬여성의원 원장으로 불임과 부인과 질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br/><br/>재테크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목돈 마련 노하우, 자녀를 위한 저축 보험 증여세, 하우스푸어의 주테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br/><br/>Q 5년 정도 직장을 다녔는데도 목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처음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서울 금천구 · 윤OO)<br/>우용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보며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연봉이 얼마이고, 몇 년간 일했으니 그동안 받은 월급만으로 집을 사고도 남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크게 과소비나 낭비를 한 것도 아니고 투자에 실패해서 돈을 날리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br/>두 손으로 물을 받으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스르륵 빠져나갑니다. 목돈을 모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든든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들게 일해 받은 월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는 합니다. 독자분처럼 소리 소문 없이 돈이 사라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무조건 안 쓰고 독하게 모으라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br/>우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돈을 넣어야 하는 상품이 좋을 듯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과 펀드가 있습니다. 보험을 예로들면,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일정 기간을 채우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목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목돈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이후 적은 돈이라도 아쉬울 때를 대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br/>그리고 펀드는 직장인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일명 장기 펀드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목돈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니, 우선 강제성이 있는 상품을 통해 종잣돈에서 시작해 목돈을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눈사람 만들 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하게 시작해서 점점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목돈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종잣돈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br/><br/>Q 2년 전, 13세 딸과 15세 아들 앞으로 각각 월 12만원씩 불입하는 연금과 월 6만원씩 불입하는 화재보험 상품인 목돈마련저축보험을 들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만 20세 전에 증여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쪽으로는 무지한 터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대전 서구 · 황OO)<br/>윤희권 많은 보험사에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연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가입해둔 장기 보험 상품에 이러한 증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성년자 증여공제 범위를 고려해 월 12만원의 보험료로 설계사가 추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증여세법상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미성년자에게는 1천5백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3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10년간 매월 12만5천원, 성인 자녀에게는 25만원을 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br/>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용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자가 불어나는 연금 상품으로 실제 수령 시기가 아주 먼 미래에 개시되기 때문에 다분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금은 1천5백만원 이내가 될 수 있지만 이자가 불어나면 그 총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다른 상품까지 자녀 명의로 가입돼 증여되고 있다면 그 또한 합산될 여지가 있습니다.<br/>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 이름으로 목돈 마련 저축 등을 가입한 뒤 만기시 찾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모의 돈으로 간주해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고 다른 신고 금액과 겹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면서 오랜 시간 복리로 불어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먼 미래 시점에 부모가 뜻한 바대로 충실히 원금과 이자 모두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br/>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공제 범위인 1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확인을 받은 뒤 자녀 통장에서 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에게 증여해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자녀 명의로 하고 통장 또한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당장 목돈이 필요 없다면 몇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를 해주던가 아니면, 10년 기간이 지나기 전 평가 금액이 공제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고를 하는 차선책이라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따님의 경우 20세까지 합산 원금이 1천9백여만원, 아드님의 경우 1천5백여만원인데, 현재의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가 3천만원으로 높아지므로 또한 여유가 있지요. 따라서 꼭 20세 시점보다는 10년이 되는 시점을 전후로 따져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br/><br/>Q 뉴스나 신문에서 ‘저금리 시대’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지만 이번에 적금을 들면서 체감했네요. 5년 전쯤 집을 사면서 이제나저제나 오를까 기다리고 있는데, 집값은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은 기분이에요.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주(住)테크 노하우가 궁금합니다.(서울 은평구 · 최OO)<br/>우용표 옛날처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시절에는 집을 사는 것은 재테크 수단으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금 규모에 따라 큰 집을 사느냐 작은 집을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집을 사기보다는 값이 비싸더라도 전세로 거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쉽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집값 상승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도 크게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우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br/>이런 방법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주테크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일 것까지는 없지만 나름 주거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현재의 집을 전세로 내놓으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평형이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받아 은행 대출을 일정 부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의 주택에 대해 전세 시세가 3억원이라면 전세를 3억원에 내놓고, 2억원짜리 전세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억원 정도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자 부담과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br/>그럼 전세 3억원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니까 그것도 빚 아니냐 싶으실 텐데, 전세 금액이 오른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겠고, 혹시라도 전셋값이 내려가서 새로 전세를 줄 때 1억5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면(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천만원만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5천만원의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주테크 방법은 집값이 오르면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br/><br/>Q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인이 세입자인 저도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쓸 당시엔 담보 대출이 없었고 2년 계약 중 8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달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메일 사연)<br/>우용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았으니 말이죠.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냉정하게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br/>2년 계약이라 하셨으니 전세로 입주했던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세 입주일이라면 1순위가 돼 경매 낙찰 금액을 통해 낙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 대출이 없었다 하니 집주인은 전세를 들인 이후 대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대출일)보다 앞선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이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경매가 끝날 때까지 혹은 전세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거주, 즉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br/>마지막으로 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후순위인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금을 통해 일부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는 아래와 같이 보증금 9천5백만원 이하는 3천2백만원까지 순위에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입주일이 2010년 이후일 것이므로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2천5백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 보증금은 시기와 지역마다 보증금의 범위와 보호되는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표><br/>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극과<br/>최우선 변제금 내역<br/>담보물건지역보증금 범위최우선 변제액<br/>서울특별시9,500만원 이하3,200만원<br/>2014년 수도권 중 과민억제권역8,000만원 이하2,700만원<br/>1월 1일광역시(군 제외)6,000만원 이하2,000만원<br/>부터용인, 안산,<br/>설정일김포, 광주시<br/>기타 지역4,500만원 이하1,500만원<br/><br/>Profile<br/>윤희권은…<br/>YOON’S FPG 대표. 개인 재무 컨설팅을 비롯해 기업 강연, 퇴직연금 FP 양성 교육, 재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과 개인 재무부터 은퇴, 증여, 상속, 가정 재무 상담까지 상세하게 재무설계를 조언한다.<br/><br/>Profile<br/>우용표는…<br/>더 코칭&컴퍼니 대표. 대기업 입사 후 7년간 적자 인생임을 깨닫고 재테크에 입문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개인 재무설계와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도 펼치고 있다.<br/><br/>육아·교육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동생에 대한 질투가 심한 첫째, 의사 되려는 아이,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중2,<br/>우리 아이 과외 시킬까, 말까?<br/><br/>Q 큰애가 31개월 여자아이, 둘째는 7개월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큰애가 이유 없이 작은애를 수시로 꼬집고 소리를 지르네요. 혼을 내면 “안 그럴 거예요”라고 대답하고는 돌아서면서 다시 꼬집어요. 요즘은 물건도 자주 집어던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저 이외에 모든 가족이 큰아이에게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이메일 사연)<br/>손석한 동생에 대한 질투 감정이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만 사라지면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형, 누나의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싶다는 무의식적 충동을 느끼곤 하는데, 이를 카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아마도 가족이 이러한 현상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큰애를 더 신경 쓰기는 합니다만, 그 결과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데에 실망해 다시 큰애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여전히 동생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섣불리 실망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갈수록 더 한다 해도 결국 큰애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 더 이상의 의심과 불안을 철회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대로 큰애를 때리거나 혼내지 마십시오, 일관적으로 큰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애가 동생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br/><br/>Q 중2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늘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신 공부만 충실히 할 뿐 선행학습은 하지 않아 좀 불안해하네요. 과학고를 가면 의예과 지원이 수월할까요? 어떤 학교가 유리한지 알 수 있을까요? 또 수학, 과학에 대한 선행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에게 팁을 좀 알려주세요. (경기 수원시·최OO)<br/>노관호 현재까지는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꼭 ‘과학고=의대’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2015학년부터는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갔던 수학·과학 특기자 의대 정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은 내신 심화형 학생에게는 자사고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학·과학을 얼마나 선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개념 이해가 잘 돼 있고 응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행은 가급적 1년 정도를 유지하되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교내 경시대회 혹은 사설 경시대회 대비도 탄탄히 하면 더욱 좋으며, 모든 입시에서 면접이 중요해진 만큼 면접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두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br/><br/>Q 현재 중2 아들을 두었는데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학교 입학 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수학·영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수학 과외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선 꼴찌를 면치 못해요. 아이 성향으로 봐서는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네요. 어떻게 공부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줘야 할지, 답답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속상하네요.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br/>노관호 너무 학습(學習) 중에 학(學)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무조건 학원에만 보낸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죠. 많이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는 목표에 대한 열정과 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단기 목표를 잡아(주 단위로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약점을 당장 보완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강점을 알고 더 잘하는 것을 키워나가게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www.viacharacter.org/survey/Account/Register 이 주소는 자기 성격 강점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Q 중학교 2학년 딸에게 학교 수업 외에 과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수학이 제일 걱정되는 아이라서 단과(수학)만 시키려 했는데, 하는 김에 종합반을 보낼까 고민 중입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네요. 전체적인 과목을 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잘하는 과목은 일단 두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br/>(서울 서대문구·김OO)<br/>노관호 질문의 요지가 수학이 제일 걱정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적은 나오는데 수학이 중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학습에 편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는 종합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수학 성적이 안 좋고 제일 어려워한다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알아야겠죠. 수학 교과는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중1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중2, 중3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는 수학 중심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br/><br/><br/>Profile<br/>손석한은…<br/>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이자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각 언론매체의 자문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 감으로 키우지 마라」(e북), 「지금 내 아이에게 해야 할 80가지 질문」,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빠의 대화 혁명」 등이 있다.<br/><br/>Profile<br/>노관호는…<br/>목동 하이스트 본원의 특목 강사를 거쳐 목동 미래탐구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타임교육 직영 노원 뉴스터디 원장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목의 핵심을 꿰뚫는 학습 전략을 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2.txt

제목: 소아암 이겨낸 용감한 가족들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1100000083  
본문: 發向 [발향]<br/>함께 걷는 길<br/>초여름 규슈는 푸르렀다. 나지막한 산속에 고요히 자리 잡은 다케오로 용감한 가족들이 길을 떠났다. 숲의 정령이 숨 쉬는 초록 숲 속으로, 내딛는 걸음걸음 웃음꽃이 피어났다.<br/><br/>일본에서 만나는 올레길<br/>‘집에 돌아가는 좁은 길’, 올레길은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도움을 받아 일본 규슈에도 12개의 올레 코스가 생겨났다. 그중 사가 현에 위치한 ‘다케오 코스’는 규슈를 찾는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길이다. 3천 년의 신비를 간직한 거대한 녹나무와 4백 년을 이어온 도자기 공방으로 유명한 온천 마을. 올레길 따라 산악 풍광을 만끽한 뒤 온천까지 즐길 수 있어 힐링 코스로도 더없이 좋다. 녹음이 짙어가던 초여름, 소아암을 이겨낸 용감한 여섯 가족이 규슈 여행길에 올랐다. 직원들이 월급의 1%를 사회공헌 여행 기금으로 모금하고 있는 ‘여행박사’가 주관이 돼 마련한 특별한 여행이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암과 싸우며 놀이터보다 병원에 익숙했던 아이들,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마음의 여유를 잃었던 가족들에게 계절의 푸르름만큼이나 생기 넘치는 시간이 펼쳐졌다.<br/><br/>길 위에서 이룬 가족의 꿈<br/>후쿠오카 국제공항에서 JR전철로 1시간 10분, 다케오 온천 역에서 시작되는 다케오 코스는 도심과 공원, 산과 호수를 지나는 14.5km의 길이다. 곳곳에 신사와 반딧불이 연못, 사가 현 우주과학관 등 흥미로운 장소들이 발길을 붙잡고 상급자 코스와 일반 코스로 나뉘어 취향에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용감한 가족들의 목적지는 다케오 신사 부근에 자리한 다케오 녹나무. 수령이 3천 년이나 된 이 나무는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이 반드시 들러서 보고 가는 다케오 코스의 진수다. 3천 년 동안 산 나무라니, 일본에서는 ‘파워 스폿’, 즉 좋은 기운을 받는 곳이라 하여 해마다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녹나무 순례길에 오른단다.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워 이긴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힘차게, 용감한 가족들의 행진이 시작됐다.<br/>완치 이후에도 재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아암은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만성질환이자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내야 하는 가족 질환이다. 치료비 부담도 크지만 간병을 위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형제자매들도 환자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도맡는다. 14세 이전에 발병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의 평균 치료 기간은 5년.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발 위험 때문에 가족 나들이나 해외여행은 꿈조차 꾸기 힘들다. 동그란 눈망울이 귀여운 열한 살 소녀 하은이네 가족 역시 하은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행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2012년 8월 발병 이후 1년 6개월의 치료 기간이 끝나고 유지 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번 여행에 참여하게 됐다.<br/>“처음 하은이가 아팠을 때만 해도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암담하기만 했는데,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니 이런 시간이 오네요. 잘 이겨내준 하은이를 축하해주는 것 같아요.”<br/>앞서 걸어가는 어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엄마의 눈에 슬며시 눈물이 비쳤다. 작은 몸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준 딸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구름 한 점 없는 날, 햇볕이 쏟아지는 날씨에 힘들 법도 한데 도현이, 준현이 두 개구쟁이 녀석은 뛰어다니느라 바쁘다. 다운증후군과 백혈병이라는 이중 장애를 앓고 있는 열한 살 동현이의 장난꾸러기 동생들이다. 아픈 형을 보살피느라 일찍 철이 든 두 아이는 멀리 떠나온 여행에서 제 나이를 찾았다. 형 동현이는 어느새 저만치 앞서 여행에서 만난 친구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br/><br/>한 걸음의 기적, 또 한 걸음의 희망<br/>다케오 녹나무로 이어지는 초입, 다케오 신사에 다다랐다. 씩씩하게 오르막을 오른 아이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신사 왼쪽으로 난 오솔길이 녹나무로 가는 길이다. 한낮의 햇살이 눈부신 초록빛을 뿜어내고 있는 길은 마치 여행자가 가야 할 곳을 안내하는 것만 같다. 오솔길에 들어서자 오른편엔 대나무 숲이, 왼쪽엔 삼나무 숲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누가누가 더 빨리 하늘에 닿나 내기라도 하는 듯 곧게도 솟았다.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청신한 바람에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시원하게 식어간다. 어린 마음에 남겨진 그간의 아픔들도 깨끗이 씻겨지길….<br/>“대나무 숲이 참 시원하고 좋아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MT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이렇게 오게 돼서 행복해요.”<br/>올해 대학교 졸업반인 아로는 이번 여행 참가자들 중 맏언니다. 그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맑은 얼굴에는 13년 전 골수암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한 투병 기간을 지나온 아픔이 숨겨져 있다. “<span class='quot0'>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span>”이라고 말하는 아로는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열 살 때의 어느 날, 7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던 아로가 성인이 돼 이 길을 걷고 있는 것만으로 희망은 또 한 번의 싹을 틔운다.<br/>숲을 지나 마침내 다케오 녹나무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아파트 6층 높이 정도 되는 거대한 할아버지 나무 앞에서 “와~”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이곳에서 3천 년을 버텨왔다니 신령이 깃들지 않을 수 없다. 사가 현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옆 도시 나가사키와 달리 이 일대가 전쟁의 참화를 피해간 것은 녹나무의 신덕이라 생각한단다.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꼬. 가만히 보니 속이 텅텅 비었다. 오래전 벼락이 떨어져 생긴 구멍이란다. 수천 년의 풍파를 견뎌낸 힘은 어쩌면 비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두 팔을 펼치고 한껏 기를 받았다.<br/><br/>전통 료칸에서 여행의 마무리<br/>다케오 코스의 종점은 바로 다케오 온천이다. 1천3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케오 온천은 알칼리성 온천으로 피로 해소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 올레길을 걸었으니 마지막으로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가라는 재치 있는 발상이다. 다케오 온천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온천 마을이 있는데, 일본 3대 미인탕으로 유명한 우레시노 온천이다.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우레시노 강가에 위치한 전통 료칸 ‘와라쿠엔’에 짐을 풀었다. 왜 미인 온천인고 하니 온천수에 함유된 나트륨 성분이 질병 치료는 물론 부드럽고 윤이 나는 피부를 되찾아준단다. 뜨끈한 온천탕에 몸을 담그니 낮 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용감한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한 여행이 저물어간다.<br/><br/>1 개구쟁이 지민이네 가족.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인 아빠와 엄마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준 형 지형이와 애교쟁이 동생 지우까지 모두 함께 스마일~.2 올레 코스 안내 표시인 파란색과 다홍색 리본이 코스 곳곳에서 여행자들을 맞는다. 3 다케오 신사와 다케오 녹나무를 가리키는 표지판. 한국어가 쓰여 있어 한국인 방문객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4 신사에서 다케오 녹나무로 향하는 오솔길. 5 열한 살 하은이네 가족. 비행기를 타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하은이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6 쌍둥이 정인·정윤 자매. 3분 먼저 태어난 정인이는 아픈 동생을 돌보는 의젓한 언니이자 둘도 없는 친구다. 7 나무판에 소원을 적어 거는 ‘에마’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비는 말들이 적혀 있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8 웃는 모습이 예뻐 여행 내내 ‘소녀시대’로 통했던 다슬과 아로 자매.<br/><br/>Tip 규슈 다케오 올레길 (14.5km, 예상 소요시간 4~5시간)<br/>●일반 코스(B코스) 다케오 온천 역(시작점)→시라이와 운동공원→기묘지(절)→ A·B 코스 분기점→ A·B 코스 합류점→다케오시 문화회관→다케오 신사 녹나무→다케오 고교 앞→사쿠라야마 공원 입구→다케오 온천 로몬(도착점)<br/>●상급자 코스(A코스)는 A·B 코스 분기점에서 반딧불이 연못을 지나 산악도로를 타고 산 정상에 올랐다 코스 합류점으로 돌아온다.<br/>●여행의 시작점인 다케오 온천 역까지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JR전철(특급)로 70분, 사가 공항에서는 사가 역 버스센터까지 버스로 40분 이동한 다음 JR전철로 40분 걸린다. 티웨이항공이 인천에서 사가 공항을 주 3일, 인천에서 후쿠오카 공항을<br/>매일 취항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3.txt

제목: 엄마와 함께 출근하는 날 7  
날짜: 2014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701100000060  
본문: MOM’S<br/>대한민국 주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잘해내기란 보통 쉽지 않은 일이다.<br/>그런 면에서 피윤정씨는 분명 보통이 아닌 사람이다. 두 딸을 키우면서 베이킹 전문 브랜드 ‘마망갸또’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열혈 워킹 맘, 피윤정 파티셰와 그녀의 딸 서은이를 만났다.<br/><br/>‘마망갸또’는 엄마(Maman)가 만들어주는 과자(Gateau)란 뜻의 디저트 카페로 다양한 색깔의 카페들이 즐비한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도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오너 셰프 피윤정씨(41)는 홍대점, 강남역점 카페 외에 베이킹 교육과 베이킹 제조사업부도 함께 꾸리고 있다. 이쯤 되니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뤄낸 성공적인 커리어에 슬그머니 샘이 날 지경이다. 더구나 엄마를 닮은 밝고 예쁘장한 딸 서은이를 보니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br/><br/>엄마 같은 파티셰가 될래요!<br/>피윤정씨의 둘째 딸 서은(13)이는 파티셰가 되는 것이 꿈이다. 언니 채은(16)이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서은이가 귀띔해준다. 일하는 엄마, 그것도 바쁜 엄마를 둔 아이들은 대개 엄마의 직업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엄마의 일이 무척 힘들어 보여서 나중에 절대로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엄마가 아주 멋져 보여서 자신도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다. 서은이는 후자 쪽이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지내는 엄마이지만 엄마의 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아닌 호감을 보인다.<br/>가로수길 마망갸또 베이킹 스튜디오에서 만난 서은이는 엄마의 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카페의 신메뉴 개발을 위해 레시피를 연구하는 엄마를 도와 적극적으로 빵 만들기에 도전했다. 아직 어린 손길이라 서툴기는 해도 끝까지 손을 놓는 법 없이 이것저것 질문해가며 애쓰는 모습에서 파티셰가 꿈이라는 말이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님이 느껴졌다.<br/>“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신경 써주지 못할 때가 많은데도 딸이 저처럼 되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일하는 엄마로서 그 어떤 칭찬보다 보람된 말이에요. 아, 물론 아직 어리니까 꿈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요(웃음)!”<br/>피윤정씨는 파티셰로서 마망갸또의 신메뉴 개발을 책임지는 한편, 매주 열리는 베이킹 클래스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친다. 카페가 잘 돌아가는지 수시로 3개 지점을 드나들면서 확인하는 것도 그녀의 몫.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엄마로서,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가족 식사와 아이들 공부를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보통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자마자 가로수길 마망갸또의 베이킹 스튜디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빵을 만들고,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와중에 도저히 짬이 날까 싶은데 부지런한 성격답게 자투리 시간을 알뜰하게 이용해 「엄마표 과자」, 「엄마표 아이스크림」, 「마망갸또의 홈 베이킹 스쿨」을 펴냈다.<br/><br/><br/>아이 키우며 취미로 시작한 빵 만들기<br/>피윤정씨가 일궈낸 성공이 놀라운 것은 순전히 지독한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베이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금융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다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회사를 나와 첫아이를 낳고서는 여느 엄마들처럼 육아에 파묻혀 정신없이 지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부터 일상이 너무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으로 무언가 만들기를 즐기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동네 학원에서 베이킹을 조금씩 배우다가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에쿠치 제과학원에 등록했다.<br/>“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업시간에 배운 아이템을 집에 돌아와서 매일 만들어보곤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레시피와 비슷한 유형의 빵을 찾아서 만드는 것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된 작품을 가져가 내밀면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곤 했죠(웃음).”<br/>아이를 들쳐 업고 밤마다 반죽하는 데 열을 올렸다. 파티셰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취미생활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클래스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임했다. 무슨 일이든 대충대충 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성향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빵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1년 반 정도를 보냈을 즈음, 어느 날 그녀를 가르치던 에쿠치상이 “이제는 하산해도 되겠다”라며 동네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를 열 정도의 실력이 됐다고 격려해주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다. 3, 4명을 모아놓고 집에서 첫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 수업에 재미를 붙여갈 때쯤 둘째 딸 서은이를 가졌다. 수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었다. 한 번 배우기 시작한 일, 끝을 보고 싶었다. 서은이가 세 살이 됐을 때 수업을 재개한 그녀는 좀 더 욕심을 내보기로 하고 르 꼬르동 블루 숙명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취미로만 하라던 남편도 그녀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뭐든지 열심히’가 몸에 밴 그녀는 그곳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수석 졸업생이 됐다.<br/>이후 아파트 상가의 허름하고 작은 점포를 얻어 ‘맘스컬러쿠키’를 오픈했다. 엄마가 구운 유기농 쿠키라는 점에서 일단 반응이 좋았다. 베이킹 클래스도 병행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작은아이는 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였다. 수업하랴, 쿠키 만들랴, 아이들 돌보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몇 번의 이전과 확장을 거쳐 지금의 ‘마망갸또’가 탄생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도 마망갸또에 합류해 인력, 세무, 행정, 경영 쪽 업무 전반을 맡아 그녀를 지원해주고 있다.<br/>“처음에는 생활이 무료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임하다 보니 다음 목표, 또 그다음 목표가 자연스레 생겨 여기까지 왔어요. 파티셰를 꿈꾸는 주부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지독하게, 치열하게 배우고 만들어보길 권합니다.”<br/><br/>파티셰 엄마도 식습관 교육은 어려워!<br/>피윤정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은이가 스튜디오 구석으로 가더니 부스럭 부스럭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곁눈질로 보니 알록달록 화려한 포장지에 싸인 그것은 짜고 강한 맛으로 유명한 시판 과자였다. 엄마가 인터뷰로 바쁜 동안 서은이는 과자 한 봉지를 깨끗이 먹어치웠다. 문득 딸이 있는 쪽을 돌아본 피윤정씨가 과자 봉지를 발견했다. 둘 사이에 잠시 투닥투닥 실랑이가 있었다. 먹지 말라는 엄마와 먹겠다는 딸의 대립은 여느 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 피윤정씨는 빵과 과자를 직접 만드는 전문가로서 시판 제품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뜻대로 잘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br/>“시판 과자나 간식에는 합성보존료, 합성착색료, 합성유화제 등 온갖 첨가제가 들어가니까 되도록 못 먹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통제가 잘 안 돼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만든 것만 먹일 수 있었는데,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디 그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먹게 되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매일 실랑이를 하죠(한숨).”<br/>그녀는 마망갸또에서 만드는 제품은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다른 엄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 밀, 유기농 설탕, 100% 우유버터, 무항생제 달걀, 천연 파우더 등 좀 비싸긴 해도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이유다. 두 딸을 키우면서 직접 만들어주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엄마의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날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든 ‘바나나 오믈렛’도 서은이가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메뉴다. 빵 만들기, 베이킹 클래스 진행 등 바쁜 파티셰 엄마와 하루를 함께한 서은이가 이윽고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가 직접 만든 케이크 접시를 앞에 놓고 모녀는 조잘조잘 수다를 이어나갔다. 모녀의 오붓한 티타임으로 달콤한 파티셰의 하루가 마무리됐다.<br/><br/>「마망갸또의 홈 베이킹 스쿨」에서 뽑은<br/>엄마표 홈메이드 간식 2가지<br/>견과류 듬뿍 너트쿠키<br/>쿠킹 타임 40분 쿠킹 레벨 ★☆☆<br/>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시판 과자 대신 건강한 쿠키를 만들어주자. 견과류에는 필수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해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씹히는 맛이 좋은 든든한 영양 간식이다.<br/><br/>재료 (12~15개 분량)<br/>버터 84g, 설탕·황설탕 12g씩, 소금 1g, 달걀 24g, 우유·오트밀·해바라기씨·호박씨·호두·피칸 10g씩, 박력분 66g, 베이킹파우더 2g, 장식용 견과류 적당량<br/>만들기<br/>1 볼에 버터를 부드럽게 풀고 설탕, 황설탕, 소금을 넣어 크림 상태로 만든다. 2 ①에 달걀을 여러 번에 나눠 넣고 충분히 섞는다. 3 ②에 우유를 천천히 넣어가며 섞는다. 4 박력분, 베이킹파우더를 함께 체에 내려 ③에 넣고 매끄럽게 섞는다. 5 ④에 오트밀, 해바라기씨, 호박씨, 호두, 피칸을 넣고 고루 섞는다. 6 ⑤의 반죽을 숟가락으로 적당히 떠서 오븐 팬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올린다. 7 ⑥의 반죽 위에 장식용 견과류(오트밀, 해바라기씨, 호박씨, 호두, 피칸 등)를 고루 올리고 170℃로 예열한 오븐에 18분 정도 굽는다.<br/><br/>Tip 설탕을 넣고 휘핑을 많이 할수록 도톰한 모양의 크기로 구워진다.<br/><br/>일본의 국민 빵 멜론빵<br/>쿠킹 타임 180분(발효 시간 포함) 쿠킹 레벨 ★★☆<br/>멜론빵은 빵의 표면에 붙은 과자 반죽이 구워지면서 멜론처럼 골이나 격자 모양이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드러운 식감을 지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br/><br/>재료 (8개 분량)<br/>빵 반죽(강력분 145g, 박력분·설탕 35g씩, 소금 2g, 인스턴트 이스트 4g, 달걀 25g, 연유 8g, 물 75g, 버터 18g), 쿠키 반죽(버터·달걀 25g씩, 설탕 40g, 박력분 80g, 딸기가루 4g, 여분의 설탕 약간), 물 적당량<br/>만들기<br/>1 볼에 빵 반죽 재료 중 강력분, 박력분, 설탕, 소금, 인스턴트 이스트를 담고 달걀, 연유, 물을 넣어 한 덩어리가 되도록 섞는다. 2 ①에 버터를 넣고 섞은 뒤 표면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반죽을 바닥에 치면서 충분히 반죽한다. 3 ②의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둥글게 만들어 볼에 넣고 랩을 씌운 다음 28℃에서 1시간 정도 1차 발효시킨다. 4 ③의 반죽을 40g씩 나눠 둥글리기 한 뒤 건조되지 않게 비닐로 덮어 10분 정도 중간 발효시켜 빵 반죽을 완성한다. 5 볼에 쿠키 반죽 재료 중 실온에 두어 부드러워진 버터와 설탕을 넣고 매끄럽게 섞은 뒤 달걀을 조금씩 섞어가며 충분히 섞는다. 6 ⑤에 박력분, 딸기가루를 함께 체에 내려 넣어 섞은 뒤 냉장고에 넣어 30분 정도 휴지시킨다. 7 ⑥의 반죽을 20g씩 나눠 밀대로 0.3cm 두께의 원형으로 밀어 물을 바르고 여분의 설탕을 묻힌다. 8 ④의 빵 반죽을 다시 둥글리기 한 뒤 위에 물을 바르고 ⑦의 쿠키 반죽을 올린다. 쿠키 반죽을 빵 반죽 위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가볍게 올려놓아야 나중에 쿠키 반죽이 찢어지지 않는다. 9 ⑧의 쿠키 반죽 위에 카드로 격자무늬를 새기고 28℃ 정도에서 1시간 정도 2차 발효한 뒤 180℃ 오븐에 15분 정도 굽는다.<br/><br/>Tip 쿠키 반죽에 딸기가루 대신 단호박가루, 녹차가루를 넣어도 된다<br/><br/>서은이의 일일 파티셰 체험 후기<br/>“<span class='quot0'>엄마처럼 맛있는 빵을 만드는 파티셰가 될 거예요</span>”<br/>오늘 엄마와 함께 만들어본 ‘바나나 오믈렛’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빵 중 하나예요. 그때는 먹기만 했는데 오늘 엄마랑 직접 만들어보니까 이 빵이 더 좋아졌어요! 손목 힘과 호흡을 조절해야 돼서 도우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비뚤게 만들어놓은 것도 금방 고쳐놓으시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수업을 하는 엄마의 모습은 멋있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도 재미있고요.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빵도 잘 만들고 사람들도 잘 가르치는 멋진 파티셰가 되고 싶어요!<br/><br/>Tip 파티셰 엄마가 짚어주는<br/>엄마라면 알아야 할 인공 식품첨가물<br/>1 방부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체내 세포에 독성을 끼쳐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통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어묵 등 일부 제품은 2, 3%의 과산화수소액을 순간적으로 사용해 표백 효과를 얻는다고 알려졌다. 식품 중의 과산화수소는 비교적 장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 기준을 정해 잔존량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br/>2 표백분ㆍ차아염소산나트륨은 유지, 전분 등의 표백과 음료, 채소 등의 살균 소독에 사용되는데 무기질이나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해 해로운 화학물질을 생성한다고 한다. 비타민 E를 파괴하거나 우리 몸에 유익한 장내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졌다.<br/>3 인공 식용색소는 빙과류에 많이 들어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합성색소는 31종 정도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공색소로는 적색 4호(소시지), 황색 4호, 황색 5호(젤리, 초코볼), 아질산나트륨(햄), 청색 1호(겨자가루) 등이 있다.<br/>4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식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콜라가 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지만 계속 카페인을 찾게 만드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 카페인 음료를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두통, 구토, 정서적 불안 등을 일으킬 수 있다.<br/><br/>profile 피윤정씨는…<br/>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열혈 워킹 맘. 엄마표 베이커리로 유명한 ‘마망갸또’의 오너 셰프이자 베이킹 스쿨 원장을 맡고 있다. 숙명여대 법학과 졸업 후 금융회사에 근무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베이킹을 시작했다. 에쿠치 제과학원과 르 꼬르동 블루 숙명아카데미에서 제과와 제빵을 수료했으며, 현재 수제 쿠키 쇼핑몰과 함께 베이킹 스쿨&디저트 카페 마망갸또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홍대, 강남역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책 「마망갸또의 홈 베이킹 스쿨」을 펴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4.txt

제목: [2014 상반기 리얼히트상품]모자연-세포죽  
날짜: 2014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7100000120  
본문: 모자연에서 출시한 ‘세포죽’이 주목받았다. 충북 충주의 한형선 약사(57)가 암 환자를 비롯한 고혈압, 변비 환자에게 채소, 과일, 현미 등 유기농 용법으로 재배한 16가지 재료로 죽을 만들어 준 것이 제품 개발의 시초가 됐다. <br/><br/>몸의 세포가 좋아진다고 해서 ‘세포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식약동원이 곧 약식동원이라는, 즉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근본적인 자가치유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다. 천연재료의 모양을 먹기 좋고 소화되기 좋게, 또 영양가는 물론 기호성과 저장성, 취급의 간편성을 증진시키면서 효소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가공한 식품이다. <br/><br/>인간의 죽음과 노화, 질병의 80%는 대장에서 시작된다. 장은 전신을 총괄하는 면역시스템의 총사령탑으로 뇌의 지배를 벗어나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일의 대부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불가사의한 장기다. 그런 장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파트너는 ‘유익한 미생물’이다. 모자연 ‘세포죽’의 재료는 찹쌀현미·현미·흑미·쥐눈이콩·양파·표고버섯·함초·신선초·보리새싹·클로렐라·톳·오미자·행초발효액·마늘발효액·오행초 등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장이 신뢰하는 유익한 미생물이 힘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들이다. <br/><br/>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세포를 더욱 건강하게 길러줘야만 한다. 치료를 받는 동안 정상 세포들이 공격을 받아 오히려 체력이 이전만 못하게 돼 질병과 싸워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개발한 한형선 약사는 “<span class='quot0'>수많은 환자들의 병명과 증상은 다 달라도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아픈 부위의 세포가 다 망가져 있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환자에게 접목한 결과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체험했다</span>”고 말했다. 세포죽은 식생활이 불규칙해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하는 이들이나 과일과 채소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이들에게 좋고 치질 개선과 대장암 예방에도 유익한 상품이다. 임산부는 물론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이나 두뇌발달에도 도움을 주며 각종 알레르기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5.txt

제목: [김달래의 체질과 식보약보]몸 찬 사람은 채소 섭취 줄여야  
날짜: 2014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7100000017  
본문: 채소나 과일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방송이나 신문이 매일 전하고 있다. <br/><br/>런던대학 연구팀이 2001년부터 12년 동안 영국인 6만5000여명의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560g 이상 먹은 사람은 사망 위험이 42% 감소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5%, 심장질환 사망률은 31% 줄었다고 한다. <br/><br/>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400g이다. 560g은 이보다 40% 많은 양으로, 평균 크기의 사과·귤·토마토·당근을 한 개씩 모두 먹는 양이다.<br/><br/>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을 얼마나 먹고 있으며, 얼마나 더 먹어야 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를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식품공급량을 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일 채소 섭취량은 413g, 1일 과일 섭취량은 171g이었다.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합하면 584g이다. 세계에서 채소와 과일을 이탈리아에 이어 2번째로 많이 먹고 있다. 이는 WHO 기준보다 46%(184g) 많은 양이다.<br/><br/>우리나라 사람 식단의 가장 큰 특징은 채소와 어패류를 많이 먹는 것이다. 미역과 다시마, 김, 톳 등 해조류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채소류는 통계청이나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br/><br/>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2011년 기준 168.9㎏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br/><br/>이탈리아(210.3㎏)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125.5㎏), 일본(130.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삼겹살 쌈을 먹을 때도 그 속에 다양한 채소를 함께 넣는다.<br/><br/>이제 한국 식단의 특성을 제대로 살펴 식단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육류와 어패류를 합쳤을 때 세계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또 채소 섭취량도 청소년이나 일부 직장인을 제외하면 부족하지 않으며, 노년층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채소와 과일은 몸을 차게 하고 소화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날것으로 먹으면 몸이 더욱 차가워진다.<br/><br/>특히 암환자나 다이어트에 몰두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채소를 더 먹으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br/><br/>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약 550㎏의 음식을 먹는데, 식품군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섭취량이 몰리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가 없다. 특히 해독주스가 인기를 끌면서 몸이 찬 여성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암환자의 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br/><br/>따라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br/><br/>참외와 수박, 오이 같은 박과 식물은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몸이 찬 사람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6.txt

제목: 아이유 & 울랄라세션 하모니는 어떨까  
날짜: 2014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5100000025  
본문: 가수 아이유와 남성그룹 울랄라세션이 의기투합했다.<br/><br/>두 팀은 오는 30일 함께 부른 신곡 ‘애타는 마음’을 공개하고 음악팬들의 마음을 적신다. <br/><br/>노래에는 특히 세상을 떠난 고 임윤택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br/><br/>노래는 최갑원 프로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음반 ‘더 릴릭스’의 다섯 번째 곡이다. 김도훈 PJ 작곡가가 공동으로 곡을 썼고, 최갑원이 가사를 맡았다. <br/><br/>녹음은 2012년 완료됐다. <br/><br/>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 2012년 겨울 녹음을 마치고 이듬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암 투병 중이던 멤버 고 임윤택이 세상을 떠나면서 발표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span>”고 말했다. 또 “그의 생전 음악적 열정이 상업적 이슈로 변질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에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br/><br/>울랄라세션은 오는 8월 새 앨범 발표를 목표로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7.txt

제목: [표지이야기]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4100000008  
본문: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도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험제도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런 것인가? 이를 위해 산재보험제도 앞에 선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br/><br/>1500만 이상 노동자가 산재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산재보험제도로 처리되는 경우는 적다. 현장에서 공상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을 못 이겨 산재로 처리하지 못한다. 현장을 다녀보면 사업주의 무재해율 운동에 가려지는 경우, 산재율이 부서나 관리자의 고과나 성과상여금 등에 연동되는 경우도 자주 본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대규모 노동조합이 있는 곳조차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언젠가부터 산재보험제도는 ‘수혜의 제도’로 변질되었다.<br/><br/>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법, 특히 산재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과연 1500만 노동자 중에 ‘산재교육’을 받은 이가 0.01%나 될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사고는 산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되는 방식과 기준을 거의 모른다. 직업성 암을 예로 들면,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 직업성 암이 2000건 이상 승인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들 나라에 비해 2~3%에 불과하다. 뇌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뇌심질환에 걸려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이를 치료하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노동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과로나 스트레스의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경우는 없다. 실제 뇌심질환 발생에 비해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사고도 마찬가지다. 가령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률 4위지만,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1년에 50건 정도에 불과하다.<br/><br/>노동자는 제도 모르고, 판정기준은 비현실적<br/>실제 산재를 신청하면 잘 승인되지도 않는다. 2008년 산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질병의 승인율은 끝없이 추락했다. 뇌심질환의 승인율은 12%대까지 떨어졌었다. 양대 노총의 반발에 힘입어 공단 내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 구성과 만성적 과로의 인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런 인정 기준(주 평균 60시간을 과로의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의학적·법률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일부 판정위원회의 경우 과도한 ‘상한선’으로 기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br/><br/>산재제도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가. 공단 지사의 현업 인력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작년까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20%도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승인율이 높아진 원인이 되었다. 질병의 경우 지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이송된 이후에는 새로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 이후 불승인된 산재사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는 단 7분간의 진술시간만을 부여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거의 마찬가지다. 법률상 명시된 증거조사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다.<br/><br/>산재 판정 기준은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12월 17일 개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단 지침 변경이다. 이미 6년 전 대법원은 “<span class='quot0'>자가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에 있어 근무지나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span>”고 했다. 이후 이러한 취지로 많은 하급심 판결 등이 쏟아져나왔지만, 공단은 자신의 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br/><br/>얼마 전 MBC에서 보도된 ‘공단의 비합리적인 CRPS 인정 기준’도 마찬가지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산재 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판례가 쏟아져나온 지 6년이 지나서야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단과 법원의 산재 인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2012년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소송 패소율은 16.3%로 나타났다. 실제 조정으로 인한 패소사건을 포함할 경우 10건 중 2건은 패소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공단의 인정 기준이 법원이 인정하는 산재법 법리와 동떨어진 것이다.<br/><br/>다시 돌아가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이 목적이다.<br/><br/>정부 재해율만 신경… 은폐 기업 엄벌해야<br/>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br/><br/>큰 틀에서 산재보험제도는 “보다 많은 노동자가”, “쉽게 접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하에서”, “인정되고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 은폐, 공상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재해율이 낮아졌다는 엉터리 통계를 발표하는 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일상화돼 있는 산재 은폐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br/><br/>이와 더불어 대부분 중대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현실을 볼 때, 원청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재 미인식 노동자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연구·실행해야 한다. 병원에 내원한 노동자의 사고와 질병이 산재인지 여부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유명무실한 산재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당연히 가입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밖에 산재 인정 기준으로 합리성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이 최소한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출발점일 것이다.<br/><br/>권동희 공인노무사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8.txt

제목: 갑상샘암 등 치료비 싼 암보험, 가입 즉시 보장  
날짜: 20140621  
기자: 홍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1100000056  
본문: 앞으로 갑상샘암 등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은 보험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이혼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타는 종신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보험상품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br/>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안’을 의결했다. 통상 갑상샘암 등 치료 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암은 일반암 보장금액의 10~20%만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일반암처럼 소액암도 90일 등의 기간을 설정해 가입 초기에 발병하면 보장하지 않았다. <br/>일반암의 무보장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입자가 암의 징후나 발병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려는 차원인데 갑상샘암 등 가벼운 암에 대해 소비자들이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간주하는 건 지나친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br/>이에 따라 금감원은 갑상샘암이나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br/>부부연금형 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다가 이혼을 하면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부연금형 보험은 예를 들어 남편(가입자)이 월 100만원을 연금처럼 받다가 사망하면 아내가 80만원 등 일정액을 승계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br/>기존에는 이혼을 해도 남편은 그대로 월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혼한 남편이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하면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내의 잠재적 승계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br/>보험사들은 앞으로 ‘매달 받는 보험’ ‘연금 타는 종신보험’ ‘손주사랑 보험’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칫 상해보험이나 사망보장 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손주 생일날 지급할 뿐인데도 손주(어린이)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br/>금감원은 법정감염병의 경우 확정진단서가 없어도 임상학적 진단이나 해당 치료내역 등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예컨대 어린이 성홍열은 별도의 검사 없이도 딸기혀, 눈충혈 등의 전형적인 징후가 있으면 치료를 실시하지만 확정진단서를 받으려면 세균검사 등 복잡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자동 갱신 보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최초 계약과 같은 수준의 과도한 계약 체결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69.txt

제목: [이채린의 뉴욕 서점가]하얀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 남성으로 산다는 것  
날짜: 20140621  
기자: 이채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1100000009  
본문: ▲ 빅 리틀 맨 : 나의 동양인 자아 탐구…알렉스 티존·호튼 미플린 하콧<br/>퓰리처상을 받은 전직 언론인이자 현직 교수인 작가 알렉스 티존(Alex Tizon)은 키 큰 백인 중심의 미국에서 작은 키, 갈색 피부, 왜소한 몸을 가진 동양 남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br/>그는 자서전이자 사회 역사서인 <빅 리틀 맨: 나의 동양인 자아 탐구(Big Little Man: In Search Of My Asian Self)>에서 필리핀 이민자 출신 남성으로 미국에 살면서 겪어온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갖게 되는 여정을 가감없이 담아냈다. 너무 솔직해 동양 출신 이민자라면 읽다가 약간 불편해질 정도다. <br/>작가는 1964년 부모를 따라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마침 미국의 베트남전 직접 개입이 시작되면서 뉴스에 보이는 동양인 얼굴은 모두 적들뿐이었다. 청소년기였던 1960~1970년대 미국에서 동양 남자의 이미지는 텔레비전, 영화, 책 어디를 둘러봐도 “<span class='quot0'>작고 수치스럽고 약해서 남성성 순위에서 가장 바닥</span>”이었다. <br/>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 미국으로 떠나온 부모는 미국을 ‘거인들의 나라’라고 부르며 많은 이민 1세대가 그렇듯 백인들의 미국과 미국식 생활양식을 동경했다. 아버지는 평생 노력했지만 두려워했고, 계속 뭔가를 갈망했고, 깊이 결점이 있었고, 만성적으로 불안해했고,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 아닐까 계속 의심하며 살았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 부자가 되지도, 많이 배우지도, 영어를 잘하지도, 미국화되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다. <br/>작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기존의 자신을 지워 없애고 바꿔 미국의 주류 백인문화에 동화되려는 미국화의 과정과 노력은 끝없는 자기부정과 자아파괴에 다름 아니었다. 작가는 그런 자신을 위로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신문에 동양인이 두각을 나타낸 기사를 보면 꼭 스크랩을 해두는 버릇까지 생겼다. 대학 시절에는 여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동양 여자와는 달리, 같은 동양인에게조차 데이트를 거부당한다는 동양 남자의 현실을 체험했다. 환경이 주는 동양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깊게 자아에 스며들어 그를 움츠러들고 외롭게 만들었다.<br/>그러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 기자가 되면서 점차 자기 정체성이 단단해져갔다. 1980년대 이후에는 남성성이 부각되는 정치나 경제, 스포츠 분야에 야후 최고경영자인 제리 양, 야오밍, 이치로 스즈키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동양 남자들도 소위 남성적인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 사회에 보여줬다. 또한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다섯 살 이하 어린이의 절반만이 백인이며, 2043년에는 백인이 소수계가 될 정도로 인구 구성도 바뀌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다른 동양 남자들도 서로 말을 안 했을 뿐, 저자와 다를 바 없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다. <br/>작가는 자신 속에 암처럼 자라지만 터놓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하얀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 가정 동양 남성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소속감을 찾는 여정을 마무리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0.txt

제목: [심리톡톡 나와 만나는 시간](6) 정신건강 전문의 이나미  
날짜: 20140621  
기자: 김향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1100000018  
본문: ▲ 슬픔과 절망 없인 창조 역시 불가능… 창조적 에너지는 이상한 것과 정상적인 것의 중간에서 나와…‘작은 나’ 버리고 ‘큰 나’를 지향해야<br/>경향신문 연례기획 ‘심리톡톡-나를 만나는 시간’ 6월 강연에서는 이나미 박사를 초청해 슬픔과 분노의 힘에 대해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융 심리학 전문가로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오십후애사전> <한국사회와 그 적들> <슬픔이 멈추는 시간> 등 유려한 심리에세이들을 발표해온 그는 슬픔과 절망 없이는 창조 역시 불가능하다는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3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열린 강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br/><br/>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이 간신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시나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분노라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의 따뜻한 얼굴 때문에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네요. <br/>오늘 발표의 주제는 슬픔이 어떻게 창조적인 에너지를 내느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슬프면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 정신·신체 에너지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럴 것 같잖아요. 생각 외로 많은 실험에서 기분이 좋아 붕 떠서 좋은 사람보다 때때로 슬프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적 에너지가 응축돼 있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br/>이 이미지들은 포르츄나, 사피엔시아, 관세음보살(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입니다. 운명을 관장하는 신들이죠. ‘포르츄나’는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이고, ‘사피엔시아’는 지혜의 신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국 쪽에서 운명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림을 보시면 포르츄나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같은 것에는 금이 들어 있어요. 포르츄나가 말하는 운명은 재물이죠. 사피엔시아는 가슴이 둘인데 이 가슴으로 젖을 먹여요. 가장 힘들 때 어머니가 젖을 주듯이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젖을 먹여줌으로써 헤쳐나가게 하는 신이죠. 관세음보살은 여러 가지 이형이 많은데, 중국의 여러 전설 중 하나에 따르면 공주 출신인 관세음보살이 어려서부터 자신은 비구니가 되겠다 하니까 왕과 왕비가 갖은 핍박을 가해요. 그러다 왕과 왕비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와서 말하길, ‘산 사람의 눈과 살을 먹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관세음보살이 자기 눈을 떼고 팔을 잘라서 부모에게 줘요. 왕과 왕비는 낫고 관세음보살은 손이 천 개, 눈이 천 개가 생깁니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원형적인 모티브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바리데기 전설이 있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르츄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방식, 사피엔시아나 관세음보살이 운명을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죠. 자기를 버리고 큰 것을 향해 갈 때 운명이 진실로 더 한 단계 높고 깊게 변한다는 것이죠. 융 심리학에서 말하자면,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지향할 때 슬픔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br/><br/>■ 긴장과 경쟁, 적당한 스트레스 때 창조적 삶<br/>아무리 슬프더라도 슬픔을 극복해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 빚이 몇 억원 있다고 하면 항상 울면서 슬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것을 찾아봐야겠다는 것이 창조적인 에너지예요. 사람의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지 여부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자본주의 시대니까 성공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가장 돈 많은 사람들 통계로 보면 아이비리그 출신은 5%도 안됩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20%에 육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지능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span class='quot0'>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포함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우울한 병에 걸려 있거나 우울해하는 습관이 있었다</span>”고 했어요. 그렇다면 창조적인 사람은 우울한 사람일까요.<br/>창조적인 에너지는 이상한 것과 정상적인 것의 중간이에요. 에지(edge)라고 하죠. 가장자리에 있을 때 창조적으로 됩니다.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창조적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창조적이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보적인 사람들이 창조적이어야 하는데요. <br/>우리나라 진보는 창의적이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보수가 너무 싫지만, 진보가 대안을 제시 안 해줘요. 보수적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진보가 밸런스를 못 맞춘다는 거죠. 진보가 진보답지가 않아요. 굉장히 기득권에 집착해 오히려 보수보다 보수스러운 그런 모습이 가끔 보여요. 우리나라 진보는 네트워크를 잘 형성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문창극 총리 지명자 관련 기사도 나왔는데요. 너무나 기억나는 게 탕평인사라면서 친이계를 쓴 것이라고 해요. 탕평책은 친박과 친이계를 섞은 것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욕하지만, 진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코드인사를 했잖아요. 지금보다는 낫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작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수를 욕하지만 진보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 진보가 진보답게 신속하게 나가지 못하고 항상 뒷북을 쳤던 것들, 뭔가 비전을 제시해 아이디어를 선점해야 하는데 신속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br/>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천재들을 볼게요. 특히 김수환 추기경은 종교적인 부문에서 전무후무한 분이죠. 진보건 보수건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아우를 수 있는 것도 사회적인 창조죠. 창녀였던 여자의 증언인데, 다른 유명인사들은 자기를 만나 “왜 그렇게 사느냐”며 가르치려 했으나 추기경은 이야기를 듣고 “고생 많이 했겠네”라며 딱 거기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 창조적인 리더입니다. 지시만 하는 리더는 집단을 창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시만 하는 사장은 “<span class='quot1'>불 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span>”고만 합니다. 지시형이 아닌 리더는 “불 날 위험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요. 그럼 구성원들이 알아서 아이디어를 꺼내요. 지시하는 조직과 다르게 창조적인 조직으로 변합니다.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 창조적인 지도자의 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사회는 편안한 사회는 아니에요. 긴장감도 있고 경쟁도 있고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창조적인 삶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내려고 지도자가 악역을 할 때도 있어요. ‘A+’ 남발하는 학교는 결코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br/>인체의 신비를 볼게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설파이트(DHEAS)라는 호르몬과 코르티솔은 길항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위궤양도 생기고 성호르몬이 이상해져 생리불순이나 성관계도 잘 안되고 혈관이 위축돼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 불임부부가 많은 이유도 호르몬 영향이 있어요. 근데 코르티솔이 나오면 몸에서는 DHEAS가 나와 이걸 견제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을 땐 지루해서 죽어요. 입맛도 없고요. 인간은 딱 두 가지라고 해요. 권태롭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뒤집어보면 불안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지루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우울한 영화를 본 다음에 판단력과 정확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아마도 우리 국민의 판단력이 최고조였을 때는 세월호 사고 직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br/><br/>■ 때론 우리 안의 ‘어두운 부분’ 볼 필요<br/>심리학자 카를 G 융은 17세기 영국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를 좋아했어요. 그가 그린 그림에서 가운데 웅크린 사람이 하느님입니다. 불경스럽게 보실 줄 모르겠지만. 하느님 위에 어둠이 있죠. 그 어둠의 무게에 눌려 있는데요. 하느님도 창조 전에 눌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창조 직전의 우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창조적인 행동을 하려면 고립감, 외로움을 꼭 느껴야 한다는 거죠.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모임 다 가고 아침 저녁 연속극 다 보고 화장하고 이러다보면 창조적이게 되기 어려워요. 외로워야 해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야 해요. 꽉 차 있으면 창조적이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뻥 뚫려 있고요. 이효리 같은 사람은 제주도 가길 잘한 것 같아요. 버려야 뭔가 다시 채워지죠. 좌절, 상처, 분노에서 다시 해가 뜬다고 해요. 슬픔에 잠겨 있으면 당시에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은 또 살게 돼 있죠. <br/>문필가는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큰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차림 추레해도 뭔가 따뜻해지는 듯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남 탓 하지 않고 꼭 운명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상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에너지가 있어요. 진짜 가치 있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사람이에요. 지식이나 지위와 상관없는 거죠. <br/>모든 세상에는 행복한 게 있으면 불행한 게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극복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공 뒤에 자리한 그림자는 깁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우리 안의 ‘그림자’를 볼 때가 필요해요. 작은 자아는 욕망에 휘둘린다면 큰 자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큰 자기 성취를 위해서는 자기 안의 어두운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의 어두운 부분을 보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창조다” 이러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죠. 창조경제. 창조적 기업 등. 창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서구의 기능주의적 창조적 이론에 의존해 그렇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1.txt

제목: 스트레스 치유하는 축령산 편백나무숲…EBS ‘하나뿐인 지구’  
날짜: 20140620  
기자: 이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0100000004  
본문: 전남 장성의 축령산은 한국에서 편백나무가 가장 많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축령산의 편백나무숲은 ‘치유의 숲’으로도 유명하다. 말기 암환자, 각종 희귀병 환자들이 매일같이 축령산의 편백나무 숲을 찾는다. 그들은 무엇에 끌려 이곳을 찾는 것일까.<br/>20일 EBS <하나뿐인 지구>에서는 ‘나는 매일 편백숲으로 간다’편을 방송한다. 편백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 편백나무는 보통의 나무보다 10배에 가까운 피톤치드(삼림욕을 할 때 나오는 항균성 물질)를 내뿜는다. 특히 편백나무의 피톤치드에는 항스트레스, 항우울을 돕는 성분이 다른 나무보다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제작진은 한 기업의 직원과 몇몇 가족을 데리고 축령산을 찾았다. 편백나무숲에서 일일 숲 체험 활동을 시작한 두 사람의 자율신경균형도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와 저항력 등을 측정했다. 이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삼림욕 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항력 수치는 올라갔다. 방송은 오후 8시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2.txt

제목: “병원 영리자회사에 투자한 자본이 수익 뽑아낼 대상은 환자·보호자들”  
날짜: 20140620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20100000088  
본문: 단식농성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46·사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선박 안전에 관한 규제 완화를 지목해 정부가 보건·의료 규제 완화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br/>그러나 복지부는 6·4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호텔·목욕업 등까지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br/><br/>정부의 입법예고 다음날인 11일 시작한 단식농성도 9일이 지났다.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유 위원장은 “<span class='quot0'>병원 영리자회사에 투자한 외부 자본이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대상은 환자와 보호자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이번 정책은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에 위배된다</span>”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 도입 정책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0'>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면 보건소를 늘리고 방문진료·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게 맞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는 서부경남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도록 내버려둔 채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한다</span>”고 꼬집었다. <br/>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공언했지만 실제 정책은 비정상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br/>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대책도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봤다. <br/>유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생활고에 시달렸던 송파 세 모녀는 아버지의 암 치료비를 부담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고, 오랜 간병이 고통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가라면 사람이 얼마나 아프든 어디에 살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span>”고 말했다.<br/>유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세월호 참사 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span>”며 수익과 효율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경고파업, 다음달 22일 전면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지 못하면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3.txt

제목: 2만원짜리 건강식품을 200만원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해온 일당 붙잡혀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910014561114  
본문: 노인과 부녀자들에게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원가의 100배에 이르는 가격의 만병통치약으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서울 중부경찰서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프로폴리스(꿀벌이 벌집을 만들 때 생성하는 물질로써 미네랄과 비타민 등 포함한 물질)가 함유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 암, 고혈압 등 질환을 치료해준다”고 속여 노인과 부녀자 2000여명에게 16억8100만원 가량을 판매해온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제품 제조유통업체 대표 이모씨(48)와 홍보직원 조모씨(35)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br/><br/>경찰 조사 결과, 전북 익산에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을 갖추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유통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이씨와 직원 조씨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일명 홍보관)를 거점으로 제품을 판매해왔다.<br/><br/>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암·당뇨를 낫게 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려준다.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이 프로폴리스를 먹고 나은 경우도 있다. TV에도 방영됐다”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서 만든 제품 중 가장 비싼 것은 2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무려 100배에 이르는 200만원대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br/><br/>또 이들은 60세가 넘는 노인과 부녀자만 골라 모아놓고 노래자랑 등 공연을 펼친 뒤 제품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속기 쉬운 대상 선정과 분위기 조성을 노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실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행정관청과 협조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4.txt

제목: “병원 영리자회사에 투자한 자본이 수익 뽑아낼 대상은 환자·보호자들”  
날짜: 2014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91001457047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정부 규제 완화’ 단식농성 저항</strong><!-- SUB\_TITLE\_END--><br/><br/>단식농성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46·사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선박 안전에 관한 규제 완화를 지목해 정부가 보건·의료 규제 완화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br/><br/>그러나 복지부는 6·4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호텔·목욕업 등까지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br/><br/><br/>정부의 입법예고 다음날인 11일 시작한 단식농성도 9일이 지났다.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유 위원장은 “<span class='quot0'>병원 영리자회사에 투자한 외부 자본이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대상은 환자와 보호자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이번 정책은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에 위배된다</span>”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 도입 정책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0'>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면 보건소를 늘리고 방문진료·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게 맞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는 서부경남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도록 내버려둔 채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한다</span>”고 꼬집었다. <br/><br/>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공언했지만 실제 정책은 비정상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br/><br/>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대책도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봤다. <br/><br/>유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생활고에 시달렸던 송파 세 모녀는 아버지의 암 치료비를 부담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고, 오랜 간병이 고통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가라면 사람이 얼마나 아프든 어디에 살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span>”고 말했다.<br/><br/>유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세월호 참사 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span>”며 수익과 효율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경고파업, 다음달 22일 전면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지 못하면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글 최희진·사진 김정근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5.txt

제목: [녹색세상]나쁜 꿈  
날짜: 20140619  
기자: 황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9100000030  
본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얼마 전 소방 점검을 나왔다. 검사 직원들이 우리 집 소화기를 흔들어보더니, 소화액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라고 한다.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다. 이어서 검사 직원들이 현관방 베란다로 간다. 베란다에 있는 붙박이 벽장문을 열더니 하는 말. “만약에 불이 나면 벽장 안의 이 벽을 뚫어 탈출하세요. 이 얇은 벽을 뚫으면 옆집이 나옵니다.” 이 집에서 산 지 4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이사를 왔을 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소화기를 사려고 어느 업체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가정용 소화기가 주문폭주로 품절 상태란다. 세월호 이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br/>소화기 주문에 실패한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큰불이 났고, 지구 전체가 불에 휩싸여 피할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죽고 싶었다. 불길이 머리에 닿았다. 말할 수 없이 뜨겁고 고통스러웠다. 그 순간 잠이 깼다. 그런데 안도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꿈보다 현실이 전혀 덜 무섭지 않기 때문이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어이없이 쉽게 일어나는 나라, 한국. 건물이 무너졌고, 다리가 무너졌고, 배가 가라앉았다. 다음 순서는 어쩌면 핵사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다.<br/>현재 한국의 원전은 23개이고, 추가로 5개가 건설 중이며, 정부는 2024년이 되면 총 42개의 원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은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이다. 땅 넓이에 대비한 원전 개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고가 났을 때 받는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남한 땅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피할 곳이 없다. 후쿠시마에는 총 10개의 원전이 일렬횡대로 늘어서 있었는데, 지진과 쓰나미 충격에서 1, 2, 3, 4호기만 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30년 넘은 원전은 모두 폭발했고, 30년이 안된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고가 남긴 교훈은 ‘핵발전소는 30년 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에는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이 두 개나 있다.<br/>지난 5월, 일본에서 탈핵 실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사법판결이 나왔다. 후쿠이 지방재판소가 오이(大飯) 핵발전소 3·4호기 가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은 채 재가동된 오이 핵발전소 3·4호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운전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었다. 판결문에서 “(핵발전소는) 법적으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경제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헌법상 ‘인격권’보다 낮은 위치에 놓여야 한다”며 “자연재해와 전쟁 외에 (인격권이라고 하는) 근원적 권리를 극히 광범위하게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핵발전소 사고밖에 없다”고 했다. 간사이 전력이 주장하는 국부(國富)의 상실에 대해서도 “국토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국민의 삶이야말로 국부”라며 “그것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국부의 상실”이라고 간사이 전력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br/>체르노빌 사고 30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형과 심장병, 암에 시달린다. 후쿠시마 이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이 탈핵을 결정했다. 세계는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오직 한국만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고리 원전은 무리한 수명연장과 비리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계속 가동되고 있고, 핵 마피아는 원전으로 이익을 챙길 ‘나쁜 꿈’을 계속 꾸고 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외치는 밀양의 노인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뻐꾸기 우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나는 매일 밤 지구가 불타는 ‘나쁜 꿈’을 꾼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6.txt

제목: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바꾸자](1) 규제 완화 아닌 규제 강화가 우선  
날짜: 20140616  
기자: 김남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6100000019  
본문: 세월호 참사는 1차적으로 선박 안전 점검과 안전 운항 관리에 대한 감독행정이 무너진 점에 기인한다. 결항하면 받은 요금을 반환해야 하니 선박회사는 안개가 자욱해 위험한 상태에서도 운항을 하려고 한다. 여객이 부족하면 과적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하니 고박장치 없이 컨테이너와 화물자동차를 마구 싣는다. 여객의 생명·안전을 생각하면 출항, 과적, 설비에 대한 철저한 선박 운항 관리 행정이 필요하다. <br/>그런데 선박 운항 관리 행정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맡고 있다. 선박 구조안전 점검행정은 민간단체인 한국선급이 담당하는데, 선박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점검업무를 하다 보니 선박의 불법 개조나 구명설비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어렵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해양수산부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을 엄격히 감독하면 된다고 했지만,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이사장이 전직 해양수산부의 선배 관료이니 후배 관료들이 엄격한 감독행정을 할 수도 없었다. <br/>이렇게 행정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해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을 행정법에서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는데 재개발조합, 금융감독원, 공제조합 등도 이런 예에 속한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사망과 재난을 입는 산재사업장의 안전점검 행정도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산업안전공단이나 대한안전관리협회 등 민간단체가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인 기업에서 점검업무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철저한 안전점검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탁행정기관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팔짱행정, 무책임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의 국정 운영기조가 ‘작은 정부. 시장(민간)자율’에 맞춰지다보니 이러한 ‘행정의 외주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br/>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원인에는 무책임한 규제 완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박회사들의 민원에 화답해 20년이던 노후선박 연령의 규제를 30년으로 완화하고, 엔진 가동 7000시간마다 하던 여객선 엔진검사를 9000시간마다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에 힘입어 일본에서 퇴역의 운명에 있던 선박이 한국에서 ‘세월호’로 새로이 출발할 수 있었다. <br/>현재 국내 내항화물선 2083척의 37%인 773척이 25년 이상의 노후선박이다. 부착판에 고박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던 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로 완화하고 제한된 차량만 선적할 수 있던 여객선에 대형 화물차량을 선적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때다. 이 모든 규제 완화가 세월호 침몰의 하나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규제 완화의 사례는 선박 안전뿐만이 아니다. 2009년 지하철과 철도의 수명은 25년에서 40년까지 연장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아예 수명제한이 없어졌다. <br/>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식 규제 완화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은 쉽게 무시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경기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도 심각한 안전문제의 이슈가 도사리고 있다. 20여년 전 수백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무리한 수직증축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2차례나 시도하다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다. 1차 안전진단에서는 도면만을 보고 진단하고, 주민들이 이주한 후 시행되는 2차 안전진단에서 철근상태 등 실제 상황을 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는 암이다”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전략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 되고 있다.<br/>문제의 해결은 ‘해경 해체’나 ‘국가안전처’ 신설이 아니다. 국정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이익 증대만을 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근로자·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와 같은 규제의 공익적 측면을 보지 않는 국정 운용기조가 계속 남아 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규제 완화만을 추진 목표로 하는 법과 제도를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도록 개정해야 한다. 기업의 사외이사나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전과 재난담당자, 노동자·중소상인·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목적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 ‘규제 완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의 생존만은 행정이 기본적으로 책임진다’는 책임행정이 국가개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7.txt

제목: [의술 인술]삶의 질 높인 유방암 표적치료 보험 적용  
날짜: 20140613  
기자: 이근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3100000019  
본문: 60대 중반의 진행성 유방암 환자 박순자씨(가명)는 뼈 전이가 진단된 후 병이 더 진행해 간에까지 전이가 발생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병행하고자 먹는(경구용) 표적 치료제를 선택한 환자는 8개월 이상 병이 조절되는 상태를 유지하며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삶을 즐기고 있다.<br/>지난 4월부터 보험 적용이 시작된 표적 항암제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는 박씨 같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전이가 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에서 벗어나, 비록 병은 가지고 있으나 조절을 하며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인도하는 듬직한 동아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br/>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주목을 받는 이 치료제는 기존 호르몬치료에 실패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허투(HER2) 음성인 폐경 후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표적 항암제다. <br/>기본적인 진행성 유방암 치료방법인 항암화학치료는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지만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탈모, 구토, 백혈구 감소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치료법의 눈부신 발전으로 항암화학요법도 이전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직 삶의 질 측면에서 더 발전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br/>항암 호르몬치료는 유방암과 관련이 높은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해 유방암 진행을 조절한다.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간 치료 시 내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아피니토는 암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요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의 우려도 줄여 항암 호르몬치료 시에 생기는 내성을 억제하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규모 임상 결과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종양의 성장 없는 생존기간을 두 배 이상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재발하거나 전이가 된 유방암 환자는 치료가 쉽지 않고 완치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치료는 생존기간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아피니토는 이러한 유방암 환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비록 병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br/>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돕고 좋은 영향을 줘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암환자의 치료도 마찬가지다. 암환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도움도 필요하다.<br/>의료진 입장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약제의 보험 적용은 오랜 가뭄 후에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와 같다.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국가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생명을 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를 기대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8.txt

제목: [건강]“가슴 성형, 급하지 않다면 아이 낳은 뒤에 하세요”  
날짜: 20140613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3100000018  
본문: 가슴성형 분야의 권위자인 스웨덴의 빅토리아 클리닉 원장 찰스 랜퀴스트 박사(51)는 “<span class='quot0'>가슴성형의 부작용은 보형물 문제보다는 시술 방식이 잘못돼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재건이든 미용이든 볼륨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원하고 개인의 체형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려면 보형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랜퀴스트 박사는 ‘가슴성형 수술 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5Ps)’을 주창해 전 세계적으로 수술의 안전성과 심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체형에 따라 보형물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웹사이트(www.victoriaclinic.com)도 운영하고 있다. 유방 보형물과 보톡스·필러를 공급하는 ‘엘러간 글로벌’ 주최로 지난 7~8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디컬 에스테틱 콘퍼런스(APMAC)에 참석한 랜퀴스트 박사를 만났다. <br/><br/>▲ “모유 수유 후 가슴 변형 고려해야<br/>부작용 대부분이 시술방식 잘못<br/>철저히 사전 조사해 의사 선택을”<br/>- 가슴성형 수술의 기본 개념인 다섯 가지 원칙이란.<br/>“단순히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포함해 수술 전부터 수술 이후까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수술 전에 적절한 환자를 선택하고, 둘째 그 환자에 적합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며, 셋째 환자의 신체에 맞는 황금비율을 고려해 생각을 해야 한다. 넷째 환자가 겪는 합병증이나 재수술의 확률을 최소화하는 수술 기법을 사용하고, 다섯째 수술 후에도 특정 기간 환자를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20여년간 쌓아온 경험과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철학적인 개념이다.”<br/>- 유방성형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br/>“핵심 키워드는 안전성이다.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사용하게 될 보형물이 철저하게 검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암을 발생시키지 않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신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 점은 내가 미국 식약청(FDA) 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는 이유다. 또 크기만 무조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 비율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잘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br/>- 유방성형 수술 전에 어떤 점을 꼭 고려해야 하나.<br/>“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 주기에서 ‘지금이 이런 수술을 받아야 할 적절한 시점인지’ ‘왜 내가 이걸 하려 하는지’를 자문해보는 것이다. 나는 수술 전에 꼭 아이를 낳으라고 말한다. (유방성형이) 모유 수유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모유 수유 이후에 가슴 모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수술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br/>- 출산 전이라도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br/>“당연하다. 확실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통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산 후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당장 가슴이 사회생활에서 장애물이 된다면 당연히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생의 희망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br/>- 일단 수술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한가.<br/>“첫번째로 찾아간 의사에게 바로 수술을 받지 말고, 환자 나름대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세부 전문 분야 및 건수 등 임상경험에 대해 꼭 물어봐야 한다. 시술 전후 사진, 합병증과 관련된 자료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사진도 1장이 아니라 수백장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병원 시설 역시 깨끗한지, 철저히 멸균돼 있는지, 마취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 병원이 뒷감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79.txt

제목: [경제와 세상]경제학자들에게 보내는 격문  
날짜: 20140612  
기자: 류동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2100000034  
본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동업자들은 친목을 위해 모이더라도 항상 음모와 술수로 끝을 맺는다는 식의 얘기를 한 바 있다. 굳이 그래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동업자인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은 삼가왔다. 누워서 침 뱉기일 수 있으므로. 그런데 오늘은 작정하고 경제학자들, 특히 한국의 경제학자들을 비판하고자 한다.<br/>경제학은 인접 사회과학에 비해서도 좌파건 우파건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일까? 서울 시내에 캠퍼스가 있는, 요컨대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쟁 하나는 잘 통과해서(한국에서 그것은 시험을 잘 친다는 것과 동의어이며, 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달리 “공부를 잘한다”는 것과는 동의어가 아니다.)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다. 아버지 ‘빽으로’ 서른 살에 교수나 시의원이 되는 ‘함량 미달’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대학은 스카이(SKY)를 나오고 대학원은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이다. 그렇다면 IMF나 미국경제학계에서조차 불평등의 귀환, 심지어는 마르크스의 귀환이 이슈가 되는 작금의 시점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터넷을 사흘만 들여다보지 않아도 따라 잡기 힘들 만큼 사건사고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서구 이론으로는 도무지 설명조차 되지 않는 현상들이 앞을 다투듯 생겨나는 이 사회과학적 연구주제의 보고인 한반도의 남쪽에서.<br/>먼저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계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것을 평생의 훈장으로 여기면서 ‘석학’이 된 뒤엔 철학책 한 권 안 읽는 분들이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므로,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부디 용서하시길!) 그러고는 “잃은 것은 예술이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라 했던 누군가의 말처럼이나, 평균적인 한국 경제학자보다 훨씬 오른쪽에 서서 권력을 위한 칼춤을 춘다. 얼마 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마친 뒤, 나름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다. 왜 경제학자들은 모두 성장지상론자이며 시장만능주의자인가? 그러나 사실 그 질문자의 시야에 들어온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이 부류의 분들이다. 서글픈 것은 바로 그분들이 ‘석학’으로만 머물면 좋으련만, 장관에서부터 국책연구원장까지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인류역사가 늘 그러하였듯이, 권력은 결국 인정욕구가 강한 이들의 몫일 따름이므로. 더 나쁜 것은 정권이 바뀌면 ‘실세’들은 힘을 잃어도 이분들은 경제전문가연하면서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좌파”정권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일부 “굴러온 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관련 포스트는 “박힌 돌”들의 차지였다.<br/>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경제학자들은 어떠한가? SSCI니 뭐니 하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싣느라 여념이 없다. 학계에서 인정도 받아야 하고, 어쩌면 더 중요한 동기일 수도 있는데 어중간한 돈벌이보다는 논문 써서 받는 성과급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암환자의 왼쪽 두 번째 발가락에 생긴 티눈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쓰는 의사와도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러하므로 학문의 모국 격인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들보다도 오히려 한국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 경제를 공부하는 경제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제학학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예전에 은사님 한 분이 즐겨 하시던 말씀이다. 슬프게도 그분 또한 경제학학자였다.)<br/>그러하므로 대중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학생 제자들이 피부로 느끼되 이론으로는 재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풀어주어야 할 막중한 역할을 경제학자들은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외친다. 경제학자들이여! “보수꼴통”이라 욕을 먹어도 좋다. 거리로 뛰쳐나와, 경제학자만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이 현실을 연구하고 발언하자. 유명한 말을 비틀어 인용하자면, 경제는 ‘석학’들에게만 맡겨두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0.txt

제목: 태아 사산 유발 희귀질환 ‘ECO증후군’ 원인 찾았다  
날짜: 20140611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1100000076  
본문: 태아의 신경, 뼈, 근육 등에 장애가 생겨 사산에 이르게 하는 선천성 희귀유전질환인 ‘ECO증후군’ 발병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span class='quot0'>동국대 약학대학 고혁완 교수(44)와 연세대 의과대학 복진웅 교수(45)가 세포 외부의 다양한 자극이나 신호를 내부로 전달하는 세포 표면의 섬모(cilia)에 이상이 생기면 ECO증후군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span>”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5월22일자에 게재됐다.<br/>ECO증후군은 2009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br/>몇명이 이 증상으로 사망했는지 집계조차 돼있지 않고, 치료법도 없다. 다만 ‘ICK’라는 유전자가 ECO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br/>그러나 ICK유전자에 발생한 돌연변이가 어떻게 ECO증후군을 일으키는지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다.<br/>연구팀은 ICK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 표면 섬모의 길이가 정상수준(1㎛)보다 길어지고, 이 때문에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br/>연구팀 실험 결과 ICK 유전자가 제거된 생쥐는 ECO 증후군과 유사하게 뇌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거나 손가락·발가락이 6개 이상 생겼다.<br/>고 교수는 “<span class='quot1'>원인이 불분명했던 희귀 유전질환이 섬모 기능 이상에 의한 세포 내 신호전달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섬모 기능과 관련된 비만·암·감각계 질환 연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1.txt

제목: 4·5인 병실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40610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0100000153  
본문: 9월부터 병원 4·5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가 하루 2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br/>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br/>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은 9월부터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일반병상 비율은 현재 74%에서 83%로 늘어나고,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대학병원 4인실 추가 병실료는 하루 6만3000~11만1000원, 5인실은 4만2000~4만4000원이다.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일반환자보다 더 낮아 4인실 입원료가 1일 4000~8000원, 5인실은 3000~6000원으로 내려간다.<br/>복지부는 입원료 부담 완화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 대학병원 4인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반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대학병원 1인실·특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2.txt

제목: [표지이야기]“원전폐쇄 경험 없는데 무슨 원전강국”  
날짜: 2014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10100000035  
본문: “<span class='quot0'>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던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span>” ‘세월호 사건 다음에 벌어질 대형 참사는 고리원전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다. 4월 16일 결정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논의를 거쳐 재가동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br/><br/>박근혜 정부에서 뒤늦게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원안위는 회의 속기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월 16일 결정 전 열린 회의는 4월 11일 열린 제24차 회의다. 그런데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은 안건에 없었다. 2기 원안위 첫 회의 속기록인 12차 회의록에서 벌어진 토론에 답이 있었다. ‘예방 차원의 정지’ 후 재가동의 경우 위원장과 사무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불시정지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수긍이 가지만 의문은 남는다. 위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결정과정에 정작 위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건 아닐까.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비상임)을 만난 까닭이다. 세간의 ‘고리 1호기 위험론’에 대해 ‘탈핵시민운동 출신의 원안위 위원’인 그의 견해가 궁금했다.<br/><br/>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4월 11일 24차 회의나 전후 회의에도 ‘고리원전 재가동’은 심의·의결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br/>“안건은 아니었고, 구두로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여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사를 해서 다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일 회의에서도 ‘16일 재가동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사실 통상적인 예비정비는 특별히 보고하진 않아요.”<br/><br/>결과론적 이야기가 되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나던 날 문제 많은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 만들어진 1기 원안위와 다른 점이라면 국회 추천으로 탈핵을 이야기하던 시민사회에서 김 위원을 포함해 두 분이 원안위에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걸까요.<br/>“사실 규정상 두 사람 이상이면 안건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두 사람뿐 아니라 국회 추천으로 들어온 4명, 그리고 정부 추천으로 들어온 위원까지 같이 안건을 제기하기도 합니다.”<br/><br/>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과거 1기와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았고,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는 회의가 1시간 만에 끝나서 비판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위원들이 원자력 마피아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고….<br/>“물론 한계는 있어요. 비상임위원으로서는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고요. 보고된 내용, 서류를 토대로 회의를 하다 보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실을 은폐하면 원안위도 알 수 없어요. 지난해 원안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주요 사고나 고장을 보면 대체로 은폐되었다가 원안위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경우가 많았어요. 고군분투입니다. 위원장도 일방적으로, 이를테면 친원전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전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위원들이 모두 열심입니다.”<br/><br/>구조적 한계도 있습니까.<br/>“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장갑이 없어 소방관이 아마존에서 개인 돈으로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었어요. 소방방재청이 가장 하위의 부서죠. 공무원들도 피하려고 합니다. 재난과 안전 쪽이 가장 표가 나지 않는 부서이니. 원자력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에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 발언이 나온 다음에 정부 모든 부처에 10% 이상 ‘암덩어리 규제’를 찾아내라고 구두로 목표 할당량이 떨어졌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것 때문에 바빴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니 얼버무리더라고요.”<br/><br/>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원래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총리실 산하로 원안위가 간 것에 대해 비판도 많았잖아요.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 것인데. 거기서 오는 한계도 있나요.<br/>“‘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산업부가 원자력감독법을 추진하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안전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규제를 완화하라는 식입니다. 부처가 없어서 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습니까.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장관급인데 규제기관이 차관급이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장관급이 아니니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도 원천 차단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가 뭔지도 모르고 거꾸로 된 해법을 내놓는데, 무엇을 알아서 ‘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결국 원자력 진흥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잘못된 판단의 이유죠. 산업부는 ‘원자력감독법을 힘센 데서 가지고 와야 한수원을 규제할 수 있다’, ‘원전마피아를 잡는 법’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니 원전 부품비리 사건에 산업부 전 차관까지 연루되어 있었는데 규제와 관리·감독을 다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br/><br/>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군요.<br/>“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하려면 규제기관을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 시그널을 주면 공무원은 바뀌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담당해요. 심지어 정치권과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임기를 일부러 선거와 엇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외부의 정치적 환경과 상관없이 부서가 존속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부서로 되게 하면 그 구성원들도 바뀔 겁니다.”<br/><br/>고리원전 1호기 문제를 이야기해 보죠. 설계수명 시한 30년을 넘겨 지난 2007년에 10년 연장 결정이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2017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셈이죠. 지난 결정 후 원안위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원안위에서 폐로(閉爐·원자로 문을 닫는 것) 논의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br/>“가동 중단이 아니라 폐로로 가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 프로세스를 밟는다면 원안위를 거쳐야 할 것이고요. 정치적 결정이라는 건 원전 문을 닫는다면 어떤 안전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br/><br/>30년 설계수명을 넘겨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수원 측은 ‘지난 2008년 이후 벌어진 전체 원전 관련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사고가 많았다는 주장인데요.<br/>“동의하기 힘듭니다. 설비가 노후화되면 고장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원안위에서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는 APR+의 설계인정 심사를 하고 있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 반영해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를테면 항공기 충돌대비든지,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냉각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든지, 내진설계가 훨씬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당신들 설명대로라면 이전에 지어져 가동 중인 원전은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던데요.”<br/><br/>한수원은 설계수명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도 미국이나 프랑스에 여럿 있다면서요.<br/>“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폐로한 원전 129개의 평균 수명은 22년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메르켈 총리가 17개 원전 중에서 고장과 사고가 잦은 8기를 바로 폐쇄했습니다. 원래 보수정당 수장으로 원전에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고리원전 1호기를 봅시다. 작년에도 18시간 동안 전원상실 사고가 있었어요. 핵연료는 장전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용후 핵연료는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1팀장, 2팀장이 다 스위치를 끄고 있다가 3팀장 차례가 되어서야 18시간 만에 전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확립된 것이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후 4호기, 5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가 폭발하면서 그 후 핵연료가 있으면 전원을 살려둬야 한다고 안전 매뉴얼이 갱신된 것입니다. 핵사고는 사고가 난 다음에야 원인이 뭔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br/><br/>세월호 참사의 경우 비정규직 선장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개인을 욕하기 전에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원전 운영에도 그런 요소가 있나요.<br/>“이를테면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줄였습니다. 제일 만만한 것이 정비파트예요. 정비인력을 계속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부품비리가 문제가 되니 순환보직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제 비리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운영이 아니라 구매파트거든요. 이 경우 순환보직해도 소용없어요. 예컨대 고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영광으로 가면 딸린 보따리장사들이 다 같이 따라갑니다. 원자력 안전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비리에 직접 노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소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프라이드가 높아야 하고 보수도 높아야 합니다. 사고의 가장 큰 이유가 휴먼 에러인데, 공기업 경영효율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정비인력을 감축하니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는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br/><br/>돌이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라는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직 폐로 경험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더라도 폐로 경험을 쌓아야 진정한 원자력 강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br/>“맞습니다. 원전 건설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체기술도 축적되어야지요.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폐로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지방선거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어요.”<br/><br/>원안위 법에 따르면 임기가 3년입니다. 올해 8월이면 임기 1년이 지나는 셈인데 고리원전 1호기나 월성 1호기 재연장 문제 등 큰 결정을 임기 내 다루게 되는 겁니까.<br/>“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에 다시 수명연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신청허가는 2년 전까지 내게 되어 있어요. 내년 6월까지는 원안위에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결국은 임기 내에 다루게 되겠죠.”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3.txt

제목: 조광현 교수팀, 인체 내 활성산소 작동원리 밝혀내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9100000060  
본문: 국내 연구진이 인체 내 활성산소의 작동원리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카이스트(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44·사진) 연구팀이 단백질 효소의 일종인 MLK3가 활성산소 농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br/><br/>활성산소는 인체 내 세포의 성장을 돕지만 과도할 경우 세포 손상을 일으켜 암과 당뇨, 노화 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포 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농도가 조절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연구팀은 정보기술(IT)과 생명과학기술(BT)이 융합된 통계 분석법을 활용해 기존의 활성산소 조절 메커니즘을 광범위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MLK3가 활성산소 농도 조절의 핵심 인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MLK3는 단백질에 인(P)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소다.<br/><br/>연구팀은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존재할 경우 MLK3가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ERK)을 활성화시켜 세포 분열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반면 활성산소의 양이 많을 경우 MLK3가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JNK)을 활성화해 세포가 죽도록 유도한다는 사실도 규명했다.<br/><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그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활성산소의 상반된 세포반응 원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노화 억제, 암 정복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시그널링’ 6월3일자에 실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4.txt

제목: 조광현 교수팀, 인체 내 활성산소 작동원리 밝혀내  
날짜: 2014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810014482053  
본문: 국내 연구진이 인체 내 활성산소의 작동원리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카이스트(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44·사진) 연구팀이 단백질 효소의 일종인 MLK3가 활성산소 농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br/><br/>활성산소는 인체 내 세포의 성장을 돕지만 과도할 경우 세포 손상을 일으켜 암과 당뇨, 노화 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포 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농도가 조절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연구팀은 정보기술(IT)과 생명과학기술(BT)이 융합된 통계 분석법을 활용해 기존의 활성산소 조절 메커니즘을 광범위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MLK3가 활성산소 농도 조절의 핵심 인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MLK3는 단백질에 인(P)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소다.<br/><br/>연구팀은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존재할 경우 MLK3가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ERK)을 활성화시켜 세포 분열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반면 활성산소의 양이 많을 경우 MLK3가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JNK)을 활성화해 세포가 죽도록 유도한다는 사실도 규명했다.<br/><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그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활성산소의 상반된 세포반응 원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노화 억제, 암 정복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시그널링’ 6월3일자에 실렸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5.txt

제목: “종교, 서로 달라 뵈지만 파고들면 한길로 통해”  
날짜: 20140606  
기자: 김석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6100000040  
본문: “근대 종교학자 윌리엄 밀러는 ‘한 가지 종교만 아는 건 종교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 모든 종교를 공부하자는 뜻에서 종교모임을 시작했습니다.”<br/>박재갑 국립암센터 석좌교수(66·사진)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종교발전포럼이 2009년 12월 창립 후 5년 만에 50번째 포럼을 연다. 이 포럼은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 아침마다 정례모임을 갖는다. 서울대 의대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을 지낸 박 교수는 국내 암 연구의 최고 권위자다. 그는 국립암센터 원장 시절 ‘금연 전도사’로도 유명했다. 그런데 정작 그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br/><br/>“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제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어요. 아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br/>종교발전포럼은 여러 종교의 원리와 경전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색도 없다. 운영은 200여명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꾸려간다. 회원 직업은 박 교수가 재직한 서울대 의대·치대 교수를 주축으로 기업인·종교인·공무원 등 다양하다.<br/>포럼은 모든 종교에 대해 열려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동학, 무교, 통일교, 이슬람, 주역, 서양철학 등의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질문한다. 한국종교발전포럼 홈페이지(http://www.koref.org)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한 강연 영상을 볼 수도 있다.<br/>“종교는 서로 달라보이지만 깊이 파고들면 한길로 통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종교 간 갈등을 빚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나쁜 종교는 없습니다. 과격분자들이 있을 뿐 종교 자체가 과격한 것은 아니죠.”<br/>박 교수는 이날도 “<span class='quot0'>담배는 독극물을 팔아 돈을 뜯어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사기극</span>”이라며 금연을 강조했다. 그는 일상생활 속 운동의 중요성을 주창하는 ‘운동화출근생활속운동’ 대표도 맡고 있다. 최근에 부산에서 일산 국립암센터까지 자전거여행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6.txt

제목: 서울 가회동성당 신축한 송차선 신부 “북촌 초대교회처럼 신앙의 꽃 피웠으면”  
날짜: 20140606  
기자: 김석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6100000041  
본문: 중국인 주문모 신부(1752~1801)는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사제다. 주 신부는 1795년 4월5일 부활대축일에 서울 ‘북촌 심처’에 있던 최인길의 집에서 정약종, 황사영 등 초기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조선 땅 첫 미사를 드렸다. 배교자의 밀고로 체포령이 내려지자 같은 동네 강완숙의 집으로 피신해 무려 6년을 숨어지내며 전교활동을 했다. 주 신부를 포함해 북촌 일대에서 활동한 초기 조선천주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신유박해(1801년)를 전후해 순교했다. 서울지역에서는 당시의 순교자들이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을 통해 복자(성인의 전 단계)에 오르게 된다.<br/>서울 종로구의 가회동성당은 이처럼 한국천주교사에서 중요한 북촌지역을 관할한다. 1949년 처음 세워진 낡은 건물을 허물고 지난해 말 새 성당을 준공했다. 연면적 3738.34㎡,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한옥과 양옥이 어우러진 구조가 눈길을 끈다. 송차선 주임신부(54)가 지난 2년여에 걸쳐 성당 재건축을 총지휘했다. 그는 건축가 출신 사제라는 특이한 이력 때문에 적임자로 지목됐다고 한다.<br/>송 신부는 “<span class='quot0'>가회동성당은 어디나 있는 평범한 성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첫 미사를 드린 초대 교회의 사적지이자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입증한 순교자들의 영성을 상징하는 본당</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런 정신을 담기 위해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 입은 조선의 선비와 벽안의 외국인 사제가 나란히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한옥과 성당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꾸몄다</span>”고 말했다. <br/><br/>▲ 중국 신부가 조선 최초 미사… 6년간 은신하며 선교한 지역<br/>복음의 씨앗 떨어졌던 땅에 역사와 순교 정신을 담아서<br/>건축가 사제가 새 성전 지어<br/>가회동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성당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도로 쪽에 나지막한 한옥을 배치하고 그 안에 덩치 큰 성전과 사제관 양옥을 숨겨두었다. 배롱나무와 돌담을 돌아 계단을 올라가면 비로소 성당 건물을 만난다. 또 건물의 상당 부분을 지하에 묻었다. 옛 성당 건물에 있던 십자가도 길가에서 한참 들여 지은 사제관의 꼭대기에 자그맣게 세웠다. 송 신부는 “<span class='quot0'>박해시대 숨어서 예배하던 천주교의 모습을 반영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200년 전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주 신부에게 세례받은 신자가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북촌에 숨어든 신자들이 곳곳에 원시적인 수도원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앙과 희생으로 한국천주교회를 지켜냈습니다.”<br/>송 신부는 “<span class='quot0'>당시는 주 신부가 머무는 곳이 성당 겸 천주교 활동의 중심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 역사와 순교정신을 이어받은 가회동성당은 ‘한국천주교의 모교회’인 셈</span>”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br/>성당 1층에 마련된 역사전시실은 한국천주교회와 가회동성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채워져 있다. 1800년대 ‘천주실의’ 원본, 왕의 천주교도 체포령인 ‘척사윤음’, 기해박해(1839년) 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한 ‘기해일기’, 로마에 소장돼 있는 원본을 영인한 ‘황사영 백서’ 등 희귀한 천주교 자료들이 눈길을 끈다. 이런 유물과 자료를 설명하는 글씨가 독특했다.<br/>“기해일기는 천주교 박해를 기록한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필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한글 글씨체는 아름답지요. 그 글씨체를 토대로 만든 글자가 가회체입니다. 간판과 안내판 등 성당의 모든 글자를 순교자의 얼이 배어 있는 가회체로 쓰고 있습니다.”<br/>한옥 지붕의 암·수막새 기와엔 ‘오병이어(五餠二魚)’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양을 넣었다. 한옥의 큰방에는 첫 미사 모습을, 작은방에는 강완숙의 집에서 숨어지내던 주 신부 모습을 전통인형으로 재현했다. 우리나라 전통인형 작가가 옛날 복식과 생활사 등 고증해 제작했다고 한다.<br/>가회동성당은 서울대교구 내 성지 23곳을 엮은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제2코스의 출발지다. 요즘에는 천주교 신자와 북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지난달 31일 성당을 찾았을 때는 염수정 추기경이 이끄는 ‘교황 방한 및 순교자 124위 시복 기념 도보성지순례단’을 만났다.<br/>송 신부는 성당 건너편 500m쯤 떨어진 곳에 남아 있는 석정보름우물(계동길 110)도 중요한 천주교 유적으로 꼽는다. 주 신부가 미사와 세례 때 성수로 썼다는 우물이다. 송 신부는 “<span class='quot0'>천주교 박해로 많은 순교자가 생기자 한동안 물에서 쓴맛이 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은 우물이 폐쇄됐지만 한국천주교 최초의 성수라는 역사성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조선 땅 첫 미사에 참석한 인물 중 주문모, 최인길, 정약종, 윤유일, 지황, 최창현, 김종교가 이번 교황 방한 때 복자가 되십니다. 주 신부를 숨겨준 강완숙과 그의 아들 홍필주도 복자품에 오릅니다. 이번에 시복되는 ‘하느님의 종’ 124명 중 20여명이 북촌을 본거지로 활동했습니다. 전국의 초기 천주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국내 유일한 사제인 주 신부를 찾아와 몰래 미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김대건 성인도 이곳에서 미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br/>송 신부는 “<span class='quot0'>북촌은 박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신앙의 꽃을 피운 기적의 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더 많은 역사자료를 찾아내 한국천주교의 초기 역사와 순교자들의 신앙생활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의친왕 이강 부부도 가회동성당서 세례<br/>성당엔 당시 경향신문 지면<br/><br/>서울 가회동성당 1층 역사자료실에는 1955년 8월18일자 경향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사진). ‘쓸쓸히 일생을 마친 이강공’이란 제목의 기사는 의친왕 이강(세례명 비오, 1877~1955)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가회동성당 주임사제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그의 임종 이틀 전에 의친왕비 김숙도 가회동성당에서 마리아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전한다. <br/>“<span class='quot1'>…그는 입교 동기로서 자기의 선조가 천주교를 탄압하여 이조 최근사를 피로 물들인 점을 자손의 한사람으로 속죄하고 싶었다는 것과 그렇게 무자비하게 천주교를 믿는 자를 처단했어도 웃음으로 목숨을 내놓았고 그후 날로 천주교 세력이 번성해가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는데….</span>”<br/>의친왕은 흥선대원군의 손자이자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다. 가회동성당 관계자는 의친왕의 세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뒤져 경향신문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성당 세례문서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 대원군은 1866년 병인박해 과정에서 12명의 프랑스 선교사 가운데 9명과 수천명의 신자들을 순교시키는 등 한국교회사상 가장 가혹한 박해를 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부인과 손자, 손자며느리 등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다. <br/>송차선 신부는 “<span class='quot2'>천주교를 박해한 조선 왕실의 후손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앙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span>”라며 “<span class='quot2'>이들의 천주교 입교로 가회동성당은 천주교 박해와 화해의 상징이 됐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7.txt

제목: 서울 가회동성당 신축한 송차선 신부 “북촌 초대교회처럼 신앙의 꽃 피웠으면”  
날짜: 2014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510014469508  
본문: 중국인 주문모 신부(1752~1801)는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사제다. 주 신부는 1795년 4월5일 부활대축일에 서울 ‘북촌 심처’에 있던 최인길의 집에서 정약종, 황사영 등 초기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조선 땅 첫 미사를 드렸다. 배교자의 밀고로 체포령이 내려지자 같은 동네 강완숙의 집으로 피신해 무려 6년을 숨어지내며 전교활동을 했다. 주 신부를 포함해 북촌 일대에서 활동한 초기 조선천주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신유박해(1801년)를 전후해 순교했다. 서울지역에서는 당시의 순교자들이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을 통해 복자(성인의 전 단계)에 오르게 된다.<br/><br/>서울 종로구의 가회동성당은 이처럼 한국천주교사에서 중요한 북촌지역을 관할한다. 1949년 처음 세워진 낡은 건물을 허물고 지난해 말 새 성당을 준공했다. 연면적 3738.34㎡,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한옥과 양옥이 어우러진 구조가 눈길을 끈다. 송차선 주임신부(54)가 지난 2년여에 걸쳐 성당 재건축을 총지휘했다. 그는 건축가 출신 사제라는 특이한 이력 때문에 적임자로 지목됐다고 한다.<br/><br/>송 신부는 “<span class='quot0'>가회동성당은 어디나 있는 평범한 성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첫 미사를 드린 초대 교회의 사적지이자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입증한 순교자들의 영성을 상징하는 본당</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런 정신을 담기 위해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 입은 조선의 선비와 벽안의 외국인 사제가 나란히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한옥과 성당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꾸몄다</span>”고 말했다. <br/><br/><br/><b>▲ 중국 신부가 조선 최초 미사… 6년간 은신하며 선교한 지역<br/>복음의 씨앗 떨어졌던 땅에 역사와 순교 정신을 담아서<br/>건축가 사제가 새 성전 지어</b><br/><br/>가회동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성당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도로 쪽에 나지막한 한옥을 배치하고 그 안에 덩치 큰 성전과 사제관 양옥을 숨겨두었다. 배롱나무와 돌담을 돌아 계단을 올라가면 비로소 성당 건물을 만난다. 또 건물의 상당 부분을 지하에 묻었다. 옛 성당 건물에 있던 십자가도 길가에서 한참 들여 지은 사제관의 꼭대기에 자그맣게 세웠다. 송 신부는 “<span class='quot0'>박해시대 숨어서 예배하던 천주교의 모습을 반영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200년 전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주 신부에게 세례받은 신자가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북촌에 숨어든 신자들이 곳곳에 원시적인 수도원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앙과 희생으로 한국천주교회를 지켜냈습니다.”<br/><br/>송 신부는 “<span class='quot0'>당시는 주 신부가 머무는 곳이 성당 겸 천주교 활동의 중심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 역사와 순교정신을 이어받은 가회동성당은 ‘한국천주교의 모교회’인 셈</span>”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br/><br/>성당 1층에 마련된 역사전시실은 한국천주교회와 가회동성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채워져 있다. 1800년대 ‘천주실의’ 원본, 왕의 천주교도 체포령인 ‘척사윤음’, 기해박해(1839년) 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한 ‘기해일기’, 로마에 소장돼 있는 원본을 영인한 ‘황사영 백서’ 등 희귀한 천주교 자료들이 눈길을 끈다. 이런 유물과 자료를 설명하는 글씨가 독특했다.<br/><br/>“기해일기는 천주교 박해를 기록한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필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한글 글씨체는 아름답지요. 그 글씨체를 토대로 만든 글자가 가회체입니다. 간판과 안내판 등 성당의 모든 글자를 순교자의 얼이 배어 있는 가회체로 쓰고 있습니다.”<br/><br/>한옥 지붕의 암·수막새 기와엔 ‘오병이어(五餠二魚)’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양을 넣었다. 한옥의 큰방에는 첫 미사 모습을, 작은방에는 강완숙의 집에서 숨어지내던 주 신부 모습을 전통인형으로 재현했다. 우리나라 전통인형 작가가 옛날 복식과 생활사 등 고증해 제작했다고 한다.<br/><br/>가회동성당은 서울대교구 내 성지 23곳을 엮은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제2코스의 출발지다. 요즘에는 천주교 신자와 북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지난달 31일 성당을 찾았을 때는 염수정 추기경이 이끄는 ‘교황 방한 및 순교자 124위 시복 기념 도보성지순례단’을 만났다.<br/><br/>송 신부는 성당 건너편 500m쯤 떨어진 곳에 남아 있는 석정보름우물(계동길 110)도 중요한 천주교 유적으로 꼽는다. 주 신부가 미사와 세례 때 성수로 썼다는 우물이다. 송 신부는 “<span class='quot0'>천주교 박해로 많은 순교자가 생기자 한동안 물에서 쓴맛이 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은 우물이 폐쇄됐지만 한국천주교 최초의 성수라는 역사성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조선 땅 첫 미사에 참석한 인물 중 주문모, 최인길, 정약종, 윤유일, 지황, 최창현, 김종교가 이번 교황 방한 때 복자가 되십니다. 주 신부를 숨겨준 강완숙과 그의 아들 홍필주도 복자품에 오릅니다. 이번에 시복되는 ‘하느님의 종’ 124명 중 20여명이 북촌을 본거지로 활동했습니다. 전국의 초기 천주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국내 유일한 사제인 주 신부를 찾아와 몰래 미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김대건 성인도 이곳에서 미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br/><br/>송 신부는 “<span class='quot0'>북촌은 박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신앙의 꽃을 피운 기적의 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더 많은 역사자료를 찾아내 한국천주교의 초기 역사와 순교자들의 신앙생활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div style="border: solid 1px #DDD;background-color: #F5F5F5;padding: 10px 15px 15px 15px;font-size: 13px;line-height: 22px;\_height: 1%;margin-bottom: 20px;"><b>■ 의친왕 이강 부부도 가회동성당서 세례<br/>성당엔 당시 경향신문 지면</b><br/><br/><br/>서울 가회동성당 1층 역사자료실에는 1955년 8월18일자 경향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사진). ‘쓸쓸히 일생을 마친 이강공’이란 제목의 기사는 의친왕 이강(세례명 비오, 1877~1955)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가회동성당 주임사제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그의 임종 이틀 전에 의친왕비 김숙도 가회동성당에서 마리아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전한다. <br/><br/>“<span class='quot1'>…그는 입교 동기로서 자기의 선조가 천주교를 탄압하여 이조 최근사를 피로 물들인 점을 자손의 한사람으로 속죄하고 싶었다는 것과 그렇게 무자비하게 천주교를 믿는 자를 처단했어도 웃음으로 목숨을 내놓았고 그후 날로 천주교 세력이 번성해가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는데….</span>”<br/><br/>의친왕은 흥선대원군의 손자이자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다. 가회동성당 관계자는 의친왕의 세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뒤져 경향신문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성당 세례문서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 대원군은 1866년 병인박해 과정에서 12명의 프랑스 선교사 가운데 9명과 수천명의 신자들을 순교시키는 등 한국교회사상 가장 가혹한 박해를 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부인과 손자, 손자며느리 등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다. <br/><br/>송차선 신부는 “<span class='quot2'>천주교를 박해한 조선 왕실의 후손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앙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span>”라며 “<span class='quot2'>이들의 천주교 입교로 가회동성당은 천주교 박해와 화해의 상징이 됐다</span>”고 말했다. </div><br/><br/><김석종 선임기자 sj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8.txt

제목: [특집]3만5000여명 활동 아모레 카운슬러가 캠페인의 주력부대  
날짜: 20140603  
기자: 김경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3100000059  
본문: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암수술 후에는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흐린 날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br/>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열린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에서 스킨케어 팁교육을 담당한 전하나 씨가 화장법을 강의하고 있었다. <br/>신체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br/>이날 행사에 참여한 22명의 환우는 한결같이 전 카운슬러의 강의에 집중했다. <br/>스킨케어 강좌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은 메이크업 강좌가 시작되었다. <br/>이 교육을 담당한 황윤영 씨가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과 도구를 가지고 등장하자 환우들은 더욱 진지해졌다. <br/>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24명의 카운슬러는 환우에게 직접 화장을 해주기도 했다.<br/>이날 행사에서 이미 5차례 항암치료를 받은 구정희씨(47)는 “<span class='quot0'>암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근깨가 많이 생겨 무력감에 빠져가고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오늘 배운 대로 앞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아프기 전 당당했던 제 모습과 자신감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다</span>”고 말했다. <br/>아모레 카운슬러 봉사단 임현희씨(55)는 2008년 첫 해부터 7년 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br/>임씨는 “<span class='quot1'>메이크업이라는 재능으로 환우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참여해 많은 환우분들께 활력을 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br/>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모레 카운슬러는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매년 500명씩 카운슬러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의 주력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89.txt

제목: [특집]여성 암 환자에 헤어·피부 관리법 등 전수, 자신감 회복 도와  
날짜: 20140603  
기자: 김경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3100000060  
본문: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미를 창조하는 화장품 회사라는 기업의 특성을 특화한 사회공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br/>암환우는 치료는 물론 그로 인한 외모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여성 암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지도’함으로써 환자의 육체와 정신 건강 회복을 돕는 게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이다. <br/><br/>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가 후원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아모레 카운슬러’와 방문판매경로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 여성 암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지난해까지 이 사회공헌활동에 2000여명의 아모레 카운슬러가 자원봉사자로 나서 총 8000여명의 여성 암환우에게 도움을 주었다.<br/>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환우를 대상으로 한다, 암환우가 많은 병원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병원별 30~60명 선착순)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가방, 교재, 브로셔, 헤라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 스킨케어 키트’로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br/>올해에도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전국 35개 병원을 비롯해 10차례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0일 잠실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올해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에 참여할 ‘2014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 상반기 병원 캠페인은 5월9일 부산 유바외과를 시작으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 서울대병원에서는 100여명의 암환우들을 대상으로 내외면의 아름다움의 중요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토크쇼를 개최할 계획이다.<br/>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장전생명’(粧典生命)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상하이 지역 최고 권위의 푸단대학교 병원에서 장전생명 캠페인을 전개한 데 이어 2012년부터 행사 횟수 및 대상을 보다 확대해 ’상해 암회복클럽’ ‘분홍천사기금’ 등 대표적인 여성암 관련 단체와 ‘서금병원’ ‘진여병원’ 등 주요 병원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0.txt

제목: [특집]‘여성에게 얻은 이익을 여성에게’ 아모레퍼시픽의 인간애  
날짜: 20140603  
기자: 김경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3100000061  
본문: 기업의 사회공헌 규모와 기업의 미래이익은 비례한다. 기업의 미래이익이 크다는 의미는 해당기업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의 가치가 높다고 해석되는 게 요즘의 추세다. 특히 생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회공헌이라면 그것의 가치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br/>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의 초점은 삶의 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캠페인 그리고 ‘희망가게’ ‘그린사이클’ 등은 인간애가 관통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탈모와 피부변화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탈모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암 발병에 따른 스트레스에 못지않다. 아모레퍼시픽 봉사자는 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전수하고 있다. <br/><br/>‘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이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유방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까지 24만여명의 참가를 통해 26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br/>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 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다. 희망가게는 음식점, 미장원, 개인택시, 매점, 세차장, 천연비누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창업을 지원해 모자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희망가게 창업주들은 창업자금뿐 아니라 컨설팅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 받고 있다.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을 개설한 뒤 10년 만인 지난해 200호점을 열었다.<br/>이들 사회공헌사업의 목적은 간단하다. 여성이 주요 고객인 화장품 회사인 만큼 여성으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여성에게 돌려준다는 기업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br/>즉 기업홍보를 위해 자선사업하듯 사회공헌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한 고객에게 공익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사회공헌포털인 ‘Make up your life’ 사이트(www.makeupyourlife.net)를 지난해 4월 새롭게 열었다. 이를 통해 ‘메이크 업 유어 라이프’·‘핑크리본’ 캠페인, ‘희망가게’ 등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활동을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1.txt

제목: [특집]3만5000여명 활동 아모레 카운슬러가 캠페인의 주력부대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210014439708  
본문: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암수술 후에는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흐린 날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br/><br/>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열린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에서 스킨케어 팁교육을 담당한 전하나 씨가 화장법을 강의하고 있었다. <br/><br/>신체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br/><br/>이날 행사에 참여한 22명의 환우는 한결같이 전 카운슬러의 강의에 집중했다. <br/><br/>스킨케어 강좌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은 메이크업 강좌가 시작되었다. <br/><br/>이 교육을 담당한 황윤영 씨가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과 도구를 가지고 등장하자 환우들은 더욱 진지해졌다. <br/><br/>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24명의 카운슬러는 환우에게 직접 화장을 해주기도 했다.<br/><br/>이날 행사에서 이미 5차례 항암치료를 받은 구정희씨(47)는 “<span class='quot0'>암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근깨가 많이 생겨 무력감에 빠져가고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오늘 배운 대로 앞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아프기 전 당당했던 제 모습과 자신감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다</span>”고 말했다. <br/><br/>아모레 카운슬러 봉사단 임현희씨(55)는 2008년 첫 해부터 7년 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br/><br/>임씨는 “<span class='quot1'>메이크업이라는 재능으로 환우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참여해 많은 환우분들께 활력을 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br/><br/>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모레 카운슬러는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매년 500명씩 카운슬러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의 주력 역할을 하고 있다.<br/><br/><김경은 편집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2.txt

제목: [특집]여성 암 환자에 헤어·피부 관리법 등 전수, 자신감 회복 도와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21001443970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7년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strong><!-- SUB\_TITLE\_END--><br/><br/>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미를 창조하는 화장품 회사라는 기업의 특성을 특화한 사회공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br/><br/>암환우는 치료는 물론 그로 인한 외모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여성 암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지도’함으로써 환자의 육체와 정신 건강 회복을 돕는 게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이다. <br/><br/><br/>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이 주최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가 후원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아모레 카운슬러’와 방문판매경로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 여성 암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지난해까지 이 사회공헌활동에 2000여명의 아모레 카운슬러가 자원봉사자로 나서 총 8000여명의 여성 암환우에게 도움을 주었다.<br/><br/>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환우를 대상으로 한다, 암환우가 많은 병원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병원별 30~60명 선착순)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가방, 교재, 브로셔, 헤라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 스킨케어 키트’로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br/><br/>올해에도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전국 35개 병원을 비롯해 10차례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0일 잠실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올해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에 참여할 ‘2014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 상반기 병원 캠페인은 5월9일 부산 유바외과를 시작으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 서울대병원에서는 100여명의 암환우들을 대상으로 내외면의 아름다움의 중요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토크쇼를 개최할 계획이다.<br/><br/>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장전생명’(粧典生命)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상하이 지역 최고 권위의 푸단대학교 병원에서 장전생명 캠페인을 전개한 데 이어 2012년부터 행사 횟수 및 대상을 보다 확대해 ’상해 암회복클럽’ ‘분홍천사기금’ 등 대표적인 여성암 관련 단체와 ‘서금병원’ ‘진여병원’ 등 주요 병원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br/><br/><김경은 편집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3.txt

제목: [특집]‘여성에게 얻은 이익을 여성에게’ 아모레퍼시픽의 인간애  
날짜: 2014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21001443971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삶의 질 향상 초점… 유방암 검진 지원 마라톤 매년 열어</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저소득 여성 창업 지원 ‘희망가게’는 10년 만에 200호점</strong><!-- SUB\_TITLE\_END--><br/><br/>기업의 사회공헌 규모와 기업의 미래이익은 비례한다. 기업의 미래이익이 크다는 의미는 해당기업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의 가치가 높다고 해석되는 게 요즘의 추세다. 특히 생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회공헌이라면 그것의 가치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br/><br/>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의 초점은 삶의 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인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캠페인 그리고 ‘희망가게’ ‘그린사이클’ 등은 인간애가 관통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탈모와 피부변화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탈모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암 발병에 따른 스트레스에 못지않다. 아모레퍼시픽 봉사자는 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전수하고 있다. <br/><br/><br/><br/>‘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이 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유방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까지 24만여명의 참가를 통해 26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br/><br/>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 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다. 희망가게는 음식점, 미장원, 개인택시, 매점, 세차장, 천연비누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창업을 지원해 모자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희망가게 창업주들은 창업자금뿐 아니라 컨설팅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 받고 있다.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을 개설한 뒤 10년 만인 지난해 200호점을 열었다.<br/><br/>이들 사회공헌사업의 목적은 간단하다. 여성이 주요 고객인 화장품 회사인 만큼 여성으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여성에게 돌려준다는 기업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br/><br/>즉 기업홍보를 위해 자선사업하듯 사회공헌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한 고객에게 공익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사회공헌포털인 ‘Make up your life’ 사이트(www.makeupyourlife.net)를 지난해 4월 새롭게 열었다. 이를 통해 ‘메이크 업 유어 라이프’·‘핑크리본’ 캠페인, ‘희망가게’ 등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활동을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br/><br/><김경은 편집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4.txt

제목: LADIES’ COUNSELOR  
날짜: 2014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601100000026  
본문: 레이디경향<br/>건강 고민<br/>정지안(서울라헬여성의원 원장)<br/>조애경(WE클리닉 대표원장)<br/>최광현(한국트라우마 가족치료연구소 소장)<br/>안상철 (서울리마치과 대표원장)<br/>박승만(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br/><br/>교육 고민<br/>노관호(노원 뉴스터디 원장)<br/><br/>육아 고민<br/>손석한(연세신경정신과 원장)<br/><br/>재테크 고민<br/>우용표(더 코칭&컴퍼니 대표)<br/>윤희권(Yoon’s FPG 대표)<br/><br/>고민 상담 접수는…<br/>● 「레이디경향」 애독자 엽서, 이메일(ladykh@khan.kr), 공식 블로그(ladykh.khan.kr) [고민 해결 방]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제목에 [고민 상담]이라 적어주시고, 선물 발송을 위한 연락처(공식 블로그 이용시 ‘비공개’ 댓글)를 남겨주세요.<br/><br/>부부·가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월급을 가져다주지 않는 남편, 남편과의 부끄러운 잠자리, 동창 모임 불륜?!, 늘 공짜 바라는 시누, 정력 집착<br/><br/>Q 가까이 지내는 언니의 고민입니다. 언니는 재혼해서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인데 지방에 사는 시누들이 계속 생활비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남편이 시누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언니는 여태껏 남편 월급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이 친정에서 조금씩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다는데, 이런 경우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대구 달서구 이OO)<br/>이인철 지인분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의 부양의무와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주부일 경우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줘야 합니다. 남편이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았음에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br/>남편이 효자라서 자신의 집에 잘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효자도 결혼을 하면 자신의 본가보다 처자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보다 본가의 식구들을 끔찍이 생각하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거나 이혼을 하고 본가 식구들과 같이 지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아내도 효자 남편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편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br/><br/>Q 임신 기간 중 살도 찌고 배도 나오니 남편과의 잠자리가 영 불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는 육아 스트레스로 더욱더 잠자리를 기피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남편이 옆으로 오는 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극복 방법 부탁드립니다.(대구 서구 김OO)<br/>안은영 ‘자신감을 가져라’,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교과서 같은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남편의 머릿속엔 아내의 뱃살과 늘어진 피부에 대한 실망보다는 ‘내가 예전만 못하면 어쩌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늘어진 뱃살로 인한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집중’을 못하면 남편의 머릿속엔 ‘예전만 못한 거였어…’란 자가 댓글이 달리겠지요. 걱정할 것은 뱃살이 아니라 집중이 안 되는 ‘부부의 케미’입니다.<br/><br/>Q 남편이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종종 동창 모임 사이트에도 들어가고 저 몰래 만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기 힘들어요. 동창은 아무래도 편하고 만나기 쉽기 때문에 불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큽니다. 요즘 그 일로 자주 다투네요. 어떻게 남편을 설득해야 할까요? (경기 화성시 최OO)<br/>김선재 남녀가 모이는 어떤 모임, 직장도 불륜의 위험성은 있을 것입니다. 동창 모임, 동호회 모임 등 많은 모임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남녀가 같이 근무합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을 봐도 가족보다 직장 혹은 모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처에 불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모임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배우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직장도 모임도 안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이 지뢰가 깔린 지뢰밭일 것입니다. 평상시 남편이 믿을 만했다면 동창 모임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br/>먼저,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요즘 세태와 각종 소문을 얘기하면서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인도 동창 모임이 있을 것이니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남편이 모임에 대해 좀 더 공개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모임은 어떤 모습인지 알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신의 마음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험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내게 생긴 불신과 불안함은 상대에게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두 사람이 더 투명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br/><br/>Q 시어머니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과 월세도 동일하게 내는데 시누들이 자꾸 공짜로 머리를 하러 오네요.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인정 없어 보이지만 시어머니께서 꼬박꼬박 월세를 올리는데 계속 공짜로 해주기엔 저도 스트레스네요. 일을 그만두자니 금전적으로 힘들고 계속하자니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br/>(서울 종로구 황OO)<br/>김숙기 고민되시겠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을 그만두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세요. 일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사람 관계 대처에 대한 갈등입니다. 우선, 시누들에게 이제 와서 머리한 값을 내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찾아와준 것이 고맙다고 반겨주세요. 대신 남편과 상의해서 평소 시어머니께 미용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세요. 잘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매번 월세를 올린 부분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정말 허튼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느껴지도록 보이셔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시댁에서도 인정해주고, 특히 미용실을 하고 있는 건물이 시어머니 명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br/><br/>Q 정력에 좋다는 일은 뭐든지 하고 나쁘다는 건 무조건 피하고 보는 남편이에요. 정력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 관악구 전OO)<br/>안은영 각종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새로운 다이어트 법에 귀를 쫑긋 세우는 여자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덜 먹고 강도 높게 운동해야 빠지는 거 알면서, 식탐은 못 줄이고 운동은 귀찮아 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거 먹는다고 정력 좋아집니까? 애정이 명약이지.<br/><br/>profile<br/>김선재는…<br/>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PJ 마음건강의원 원장. 부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병리적 증상과 고민에 대해 핵심을 짚어낸 답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부들이 모르는 남성 심리까지 꿰뚫어본다.<br/><br/>profile<br/>이인철은…<br/>법무법인 윈의 대표변호사. 조정 잘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두 사람의 행복하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똑똑한 이혼법을 조언한다. 저서로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가 있다.<br/><br/>profile<br/>안은영은…<br/>사랑과 결혼, 일과 성공, 돈과 인생 등 여자의 인생에 대한 담백한 조언을 담은 「여자생활백서」로 여성 독자들의 ‘언니’로 자리 잡은 베스트셀러 작가. 「여자 공감」, 「여자 인생 충전기」 등을 썼다.<br/><br/>건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밤마다 이 가는 아이, 흔한 여성 질환과 치료법, 우리 아이 더 클 수 있을까?, 출산 후 생리통, 아이 싸움에 치미는 화<br/><br/>Q 중2 아들 녀석이 요즘 키 크는 것에 무지 관심이 많네요. 아빠 174cm, 엄마 164cm로 평균 정도의 신장인데요. 현재 아들 녀석의 키가 174cm로 작은 편은 아니지만, 180cm까지는 커줬으면 좋겠거든요. 아직 목젖은 안 나왔고, 겨드랑이에 털도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털이 나면 거의 성장 막바지라고 하던데 맞나요?(경기 안산시 정OO)<br/>박승만 엄마 아빠의 키로 보면 아이의 유전 키는 175.5cm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전키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네요. 남자아이의 사춘기는 남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시작됩니다. 고환이 커지고 음경이 길어지며 6개월이 지나면 음모가 나오고, 대략 1년 반이 지나면 목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겨드랑이에 털이 보이면 대략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시기가 끝납니다. 현재 자녀의 사춘기 징후로만 보면 사춘기는 1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서 남은 급성장기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최종 신장을 예측하려면 성장판, 뼈 나이, 성장호르몬 수치 등을 검사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부의 징후만으로는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br/><br/>Q 제가 이달에 자궁근종수술을 했어요. 친구들을 보면 의외로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 증상과 치료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구 동구 김OO)<br/>정지안 30, 40대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부인과 질환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40대 이상이라면 유방암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br/>1 자궁근종 자궁평활근(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35세 여성의 40~50%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궁근종의 가장 흔한 타입인 자궁근육층 내에 위치한 근종은 사이즈가 작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 검진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생리통이 생겼거나 생리량 과다, 성교통, 아랫배에 딱딱한 혹이 만져지는 경우, 아랫배에 가스가 잘 차고 배가 나오는 경우, 만성 골반통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근종을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필요합니다.<br/>2 질염 여성의 70% 이상에서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질환입니다. 면역력 감소, 스트레스, 청결 상태, 성관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요. 질염을 방치할 경우 골반염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이는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청결제의 사용은 오히려 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세요.<br/>3 자궁경부암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HP V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 진행 속도가 느리며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잘되는 편입니다.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시행하고, HPV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죠.<br/>4 부정출혈 생리가 아닌 때 발생하는 질 출혈로 원인은 다양합니다. 배란 장애로 인한 것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궁내막의 이상(자궁내막의 용종, 자궁점막하 근종,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성교 후 발생하는 부정출혈의 경우 자궁경부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자궁내막 이상에 의한 부정출혈의 경우 자궁내시경을 통한 수술로 간단히 제거가 가능합니다.<br/>5 생리 불순 40, 50대에 폐경에 가까워질수록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변화, 호르몬 이상(갑상선 기능 이상, 유즙 분비호르몬 과다) 등도 생리 불순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규칙적이던 생리 주기가 1년에 1, 2회 정도로 불규칙해지는 것은 큰 이상은 아니지만, 생리 주기 변화가 반복된다면 원인을 찾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br/><br/>Q 둘째 출산 후 생리통이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미레나라는 피임 도구를 추천하던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부산 사상구 이OO)<br/>정지안 미레나는 T자형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된 자궁 내 피임 장치의 일종입니다. 이 피임 장치에는 레보노게스트렐이라는 호르몬이 함유돼 있어 매일 소량씩을 자궁 내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자궁 경부 점액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정자의 자궁 및 난소로의 이동을 억제하며, 자궁 및 난관에서의 정자의 운동성과 기능을 저하시켜 수정을 예방함으로써 피임 효과를 나타내는 장치죠. 또 자궁 내막의 위축과 억제를 통해 착상을 예방함과 동시에 생리통을 완화시키고 생리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실제로 자궁근종이나 선근증,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생리통, 생리 과다 증상이 심하지만 수술은 원치 않는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br/><br/>Q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예쁜 딸아이가 밤에 잘 때 이를 가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할까요? (전북 익산시 홍OO)<br/>안상철 초등학생의 경우 유치에서 영구 치열로 바뀌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이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갈이를 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를 하거나 이갈이용 방지 마우스피스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갈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통 정서적인 긴장으로 인해 많이 나타납니다. 신경과민이나 불안정한 상태일 때 이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또 치아의 부정교합으로 인해 이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요. 부모님께서는 평상시 아이의 치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치에서 영구 치열로 바뀌는 시기에 자연스러운 이갈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신경과민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br/><br/>Q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반 친구에게 얼굴을 맞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과 편지도 받았고 그 아이 부모와 통화를 했는데 제 안의 화가 사라지지 않아 괴롭습니다. 자꾸 그 아이 얼굴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서울 서대문구 김OO)<br/>이정희 아들이 또래에게 폭력을 당한 것을 알게 됐으니 마음이 매우 아프셨을 겁니다. 또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긴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 힘드실 겁니다. 우선 문제의 자초지종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 아이와 그 부모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잘못에 대해 시인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아들과 부모의 상처가 적절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을 방법으로 보이는데, 종종 조급하게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방법으로 착각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불어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게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막상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뒤늦게 억울함이나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br/><br/>profile<br/>박승만은…<br/>전국 17개 네트워크 지점이 있는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자신의 둘째 아이를 위한 연구가 성장클리닉 하이키한의원의 시작이었다고. 다수의 TV 프로그램 출연 외에 「멈추는 아이 vs 자라는 아이」 등 어린이 성장에 관한 여러 권의 저서를 썼다.<br/><br/>profile<br/>정지안은…<br/>서울라헬여성의원 산부인과 원장으로 불임, 생리불순, 부인과 질환, 사춘기 클리닉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br/><br/>profile<br/>이정희는…<br/>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임상심리사.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같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언으로 단순한 부부 문제 해결을 넘어 공감과 위로가 되는 따뜻한 솔루션을 제시한다.<br/><br/>profile<br/>안상철은…<br/>구강외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오스템 임플란트 임상지도의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서울리마치과 대표원장이다.<br/><br/>육아 · 교육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아이와의 간극 줄이기, 야동 보다 들킨 아빠, 효과적인 스스로 논술 공부, 중학 수학 시작하기, 아이 정리 습관 기르기<br/><br/>Q 5세 여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지난주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큰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내 사과했지만 그때부터 아이는 오줌을 싸기 시작하네요. 아빠인 저를 피하고요. 부모 중에 무서운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나무라기 일쑤네요.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와 다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 사연)<br/>손석한 이제부터 아빠는 예전과 다르게 보다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엄마도 함께 아이에게 아빠의 입장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비록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크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소변 실수를 하고 아빠를 피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아빠가 아이에게 그간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반복적으로 일러줘서 아이를 안심시켜주십시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할 수 있지만 강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위험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빠가 생각하는 만큼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놀이야말로 아이와 아빠를 정서적으로 잇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br/>Q 얼마 전 중2 딸이 컴퓨터를 하다가 아빠인 제가 예전에 저장해두었던 야동을 봤다고 아이 엄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런 걸 처음 봐서 충격을 받았다고 울고, 아이 엄마는 아이의 정서나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까 봐 그리고 학업에 지장을 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이메일 사연)<br/>손석한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이에게 솔직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빠가 예전에 잠시 잘못한 행동이 있었고, 그것을 네가 발견하게 돼서 아빠는 지금 무척 부끄럽고 당황스럽다는 것을 일러주세요. 또 아빠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십시오. 이러한 얘기는 아이와 아빠 둘이서 하기보다는 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받아들이기에 충격적인 사실을 엄마가 다소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동은 좋지 않은 것이고 청소년들에게는 철저하게 금지돼야 하지만, 어른들의 경우 간혹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이세요. 그리고 아이가 비록 좋지 않은 무엇인가를 보거나 듣는 경험을 할지언정 그것이 본인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게끔 무시하거나 덜 영향을 받거나 잊어버리는 것 역시 아이가 갖추고 배워야 할 적응 능력이라는 것도 일러주십시오. 즉 부정적 경험을 했을 때 그것에 매여서 다른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한 감정을 한쪽에 둔 채 자신의 일상적 생활을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빠가 가정에 충실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아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br/><br/>Q 안녕하세요. 고1 학생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고려대 수시를 지망하고 있어요. 당락은 내신과 논술 비중이 차지하는데, 고대는 특히나 논술 비중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책도 많이 읽은 편이 아니고, 신문도 거의 보지 않아서 논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시작하기도 겁이 나네요. 학원 다닐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구OO)<br/>노관호 고1부터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목표로 정해놓는 자세는 정말 좋습니다. 우선 고려대 수시를 지망하는 것으로 보면 내신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는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은 학생부교과 45%, 비교과 10%, 논술 45%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논술이 기본 점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죠. 논술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고려대 기출 유형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겠죠.<br/>보충 설명하면 인문계 논술은 첫째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능력, 둘째 자신의 견해를 주어진 시간 안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인간 및 사회현상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 등을 고루 평가합니다. 인문계 수리논술 배점은 25점이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와 과학 관련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지난해에는 수리 문제가 필수로 총 4문제가 출제됐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풀게 했으며, 과목당 4, 5개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도 유념해두기 바랍니다. 사실 책도 많이 읽고 신문을 보는 것이 논술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서술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첨삭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무료 첨삭을 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라며,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br/><br/>Q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며칠 전에 중간고사를 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그럭저럭 치렀는데 수학이 미흡합니다. 늘 90점 이상을 맞던 아이가 첫 시험에서 70점을 못 넘겼어요. 중학 수학을 시작한 아이, 어떻게 해야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서울 서초구 최OO)<br/>노관호 중학교에 올라와서 치르게 된 첫 시험이군요.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시험 유형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무조건 선행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년의 심화도 탄탄히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우선 시험 결과가 나왔더라도 왜 틀렸는지 명확히 학생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했다면 모의고사 형태로 연습을 많이 해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서술형을 틀렸다면 긴 지문을 읽는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식을 정확히 쓰는 연습을 해야겠죠. 이미 푼 시험지를 보면 학생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끌어 주세요.<br/><br/>Q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학교에 다녀와서는 옷 갈아입고 씻고 가방 정리, 숙제 먼저 하고 놀라고 얘기했는데 잘 지키지 않아 힘듭니다. 밥 먹고 양치하기, 세수하기도 시키면 대충 합니다. 매번 하는 걸 지켜볼 수도 없고 매일 하는 일을 계속 얘기하려니 짜증만 늘게 됩니다. (이메일 사연)<br/>손석한 아이의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꾸준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설명을 충분하게 하거나 기다려보는 것 다 좋습니다만, 아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상 체계를 이용해보십시오. 즉 아이가 수행하기 쉬운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아이가 이를 잘 수행하면 과감하게 보상을 제공하십시오. 아이가 성취의 기쁨을 경험함과 동시에 보상을 더 얻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지나친 요구나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과 역량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하루 이틀 잘했다가 점차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이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과제를 제공하세요. 성공 혹은 성취 경험이 있어야 아이는 계속적으로 부모가 제시하는 과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br/>보상은 외식, 간식, 놀이 등의 특권 제공일 수도 있고 칭찬, 인정, 격려, 관심 등의 정신적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도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생각하기에 부모가 강압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br/><br/>profile<br/>노관호는…<br/>목동 하이스트 본원의 특목 강사를 거쳐 목동 미래탐구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타임교육 직영 노원 뉴스터디 원장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목의 핵심을 꿰뚫는 학습 전략을 제시해<br/>큰 인기를 끌고 있다.<br/><br/>profile<br/>손석한은…<br/>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이자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각 언론매체의 자문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 감으로 키우지 마라」(e북), 「지금 내 아이에게 해야 할 80가지 질문」,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빠의 대화 혁명」 등이 있다.<br/><br/>재테크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대출받을까? 적금 깰까?, 주택청약 정보, 자꾸 주식에 손대는 남편, 40대 후반의 재테크 노하우<br/><br/>Q 즘 가장 큰 고민은 집입니다.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요. 적은 돈이라도 모아둔 적금으로 대출을 빨리 갚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적금을 깨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생각이 많네요. 어느 쪽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부산 진구 오OO)<br/>우용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부담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대출금 갚는 곳에 사용하는 편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대출 원금 자체를 줄이고, 동시에 대출 이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적금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의 돈에는 비싼 이자를 물고, 나의 돈에는 싼 이자를 받으면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대출 원금을 갚는 곳에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br/><br/>Q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 31세 남자입니다. 5년 전부터 주택청약저축을 2만원씩 자동이체하고 있어요. 은행 직원의 권유로 통장을 만들긴 했는데, 그 후로 청약을 받기 위해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내년 봄 서울, 경기권에 청약을 넣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또 청약과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나요? (서울 은평구 양OO)<br/>우용표 결혼과 동시에 내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현재 갖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범위에서 강력한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1순위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태라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운도 따라줘야 할 듯합니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정보는 마침 얼마 전에 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함께 서비스를 시작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라는 곳인데, 이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 공동 주택청약 관련 업무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을 제외한 농협·우리·SC·하나·기업·외환·신한·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주택 및 청약통장 종류와 청약 자격 발생, 청약통장 변경, 청약 신청, 당첨자 선정, 특별 공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후에는 당첨자 조회도 가능합니다. 분양 정보와 청약 접수 후 경쟁률 정보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께는 유용할 것입니다.<br/><br/>Q 신랑이 자꾸 주식에 투자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이참에 저도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해외선물, 옵션은 뭔가요? (충남 서천군 박OO)<br/>우용표 주식 투자는 실시간으로 수익과 손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이 강한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15%씩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한가를 3일 정도만 기록하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남편이 주식에 맹목적으로 투자한다면 가급적이면 말리는 것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으로 공부 삼아 투자해보겠다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은 ‘경제 상황 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지를 확인해본다면 주식에서 크게 손해를 볼 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br/>그리고 해외선물, 옵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상품이 미래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 오르는 쪽에 투자하거나 내리는 쪽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값이 내년에 오를 것 같으면 ‘오른다’에 투자하고 내릴 것 같다면 ‘내린다’에 투자하는 것이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사놓고 가격이 올라야 이익을 얻는 데 반해 해외선물, 옵션은 투자 대상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도 ‘내린다’에 투자했으면 이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점보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상품입니다. 내일 주식 가격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내년의 상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정경제를 위해서 좋습니다.<br/><br/>Q 40대 후반입니다. 노후의 주거지나 수입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연령대별로 적절한 투자 방법과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 나이대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나요? (경기 성남시 장OO)<br/>우용표 40대의 경우 보험 상품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가장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시기가 바로 40대입니다. 주식, 부동산과 같이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좋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만회할 길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그런 수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줄이는 적립식 투자가 여전히 40대에게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br/>50대의 경우 연금 상품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60대부터 시작되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은 4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가 최고조에 달해 사업이 번창하는 시기이지만, 직장인의 경우 원하지 않는 명예퇴직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br/>그렇기에 연금 상품을 통해 만일의 경우 퇴직해도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돼야 합니다. 재테크 방법으로는 적금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이중으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br/><br/>profile<br/>우용표는…<br/>더 코칭&컴퍼니 대표. 대기업 입사 후 7년간 적자 인생임을 깨닫고 재테크에 입문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개인 재무설계와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도 펼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5.txt

제목: [저자와의 대화]‘지식인’ 출간한 박호성 교수  
날짜: 20140531  
기자: 김종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31100000013  
본문: ‘F교수’는 불의에 항거하는 양심적 지식인의 표상이 된 인물이다. 강의 때 가난뱅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따지고 들면 불순분자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노동의 가치를 역설한다. 국내 최대 규모 노조의 고문도 맡고 있다. 단사표음(簞食瓢飮)을 기리는 그는 청빈한 학자로도 알려졌다. 한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F교수는 ‘랑데부 살롱’ 단골이다. 순정파 여대생 도우미 실비아를 사랑한다. 술친구이자 스폰서인 대형 건설회사 대표 성사장과 자주 들른다. 성사장은 F교수에게 어느 달동네 판자촌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정보를 귀띔하며 미리 목 좋은 곳에 땅과 집을 사두면,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대기업 주식을 처분해 성사장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송금한 날, 두 사람은 랑데부에서 모임을 가진다. F교수가 계약 턱을 쏘는 날이다. 그는 취중에 하루빨리 판자촌이 철거되길 염원한다. <br/>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가 쓴 단편소설 ‘목격자’의 줄거리다. 박 교수는 신간 <지식인>(글항아리)에 이 소설을 담았다. F교수는 실존 인물일까. 세속적 호기심을 제어할 수 없었다. 27일 연구실에서 만난 그에게 던진 첫 질문도 F교수의 실존 여부다. <br/><br/>“여러 교수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오해 안 하도록 마흔인데도 백발에 안경 낀 것으로 묘사했지. 그런데 (기자가) 할 일이 없었나 봐. 소설 같지도 않은 소설을 읽고 말야.” <br/><지식인>을 엮으며 저지른 작태 하나가 소설을 넣은 것이라며 웃었다. 전업 소설가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듯해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송구스럽다고 했다. 박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여러 신춘문예에 응모했다가 낙선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과욕이 부른 참사이자 쌤통”이라고 회고한다. <br/>책의 쪽수나 늘리고 낙선의 한을 풀려고 소설을 실은 건 아니다. “논문소설 같은 천덕꾸러기꼴”이라고 했지만, 소설은 지식인의 이중적 삶의 단면과 폐부를 보여준다. 그 주제는 곧 정년퇴임하는 박 교수가 대학교수로서 마지막 발자취로 남긴 <지식인>을 관통하는 문제의식과도 이어진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지식인이 늘어난다</span>”며 “<span class='quot0'>국정원이니, 대선개입이니, 간첩사건 증거 조작이니, 종북주의니 하는 식의 온갖 불의한 사태와 어처구니없는 역사적 도착 증세도 이익을 좇는 지식인이 늘어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span>”고 말했다. <br/>지식인 문제는 한국인의 ‘서글픈 존재 양식’에도 나타난다. 박 교수는 ‘영혼 없는 기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span class='quot0'>나누기보다는 가로채는 일에 좀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 그리하여 더불어 나누는 인간다운 너그러움보다는 자기 몫만 살벌하게 챙기려 드는 냉혹한 수지타산에만 광분하다 급기야는 무혈충으로 전락해갈 수밖에 없는 존재</span>”들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는 공유하기보다는 거래하는 데 훨씬 능통한 존재 양식을 공유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인류사의 가장 큰 적도 이 같은 이기주의로, 결국 타인과 타 집단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지가 인류의 과제</span>”라고 말했다. <br/>박 교수는 형식주의, 소집단 애국심, 사익 절대주의 등을 한국 지성계의 풍토병으로 여긴다. ‘컬러리즘’(색깔론)도 그중 하나로, 박 교수가 만든 신조어다. “영어로 써야 귀를 기울이니”라는 농반을 던지면서도 “<span class='quot1'>색깔론은 한국 사회의 암적 병폐</span>”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 ‘색깔을 밝히라’는 주문은 ‘꼭꼭 숨겨놓은 당신의 이념과 노선의 정체를 솔직히 드러내라’는 강압적 요구다. 사상의 자유와 이념에 대한 판정이 지금껏 항상, 특히 박정희 시대에 유별났듯이 지배 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었던 전통 때문에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지식인’을 표제로 삼은 책에서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화두가 빠질 리 없다. 박 교수는 지식인의 역할은 저항 아니면 어용뿐이라고 했다. 저항적 지식인의 역사적 소명과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파헤친 그는 지식인이 살면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들의 목록도 내놓았다. 목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다. 해답은 그의 과거와 현재의 학문 수행과 미래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br/>철학자 박이문 교수가 현대 한국의 자생철학을 대표한다면, 박 교수는 자생정치사상을 대표하는 학자로 볼 수 있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한국 현실에 바탕한 자신만의 개념과 이론을 꾸준히 주창하고 정립해왔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에 깊이 파고든 민족 및 계급 문제 두 축을 연구하며 우선 민족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민족주의론’을 내놓았다. 계급 문제의 철학적 토대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평등론’을 썼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를 밝히기 위해 쓴 게 ‘휴머니즘론’이다. 그 토대 위에 인간이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공동체론’에 담았다. 이어 어떻게 하면 생태·지구 공동체에서 조화를 모색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제시한 게 ‘생태론’이다. 지난해 한국 사회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연의 인간, 인간의 자연>(후마니타스)이라는 생태론 저술을 내놓았다. 그는 ‘자연살이’라는 말도 만들었는데 자연 존중과 연대, 공동체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는 정신이다. ‘자연을 죽이면, 자연이 죽인다’는 모토를 갖고 있다. “자연에 생채기 내는 건 친족 살해나 마찬가지예요. 자연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게 지식인 역할이죠. 기업에 환경보호세 같은 것도 물리고, 초·중·고 때부터 생태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야 해요. 인문학은 결국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학문입니다.”<br/>박 교수는 곧 다가올 정년퇴임을 학문적 삶의 여로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반환점으로 규정한다. 이 여로에서 붙들고 있는 화두가 ‘인간’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허황된 꿈을 많이 꿔 주변에서 놀림도 많이 받는다</span>”고 운을 뗀 후 이렇게 말했다. “지식인 삶의 총결산으로 ‘인간론’을 쓰고 싶어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삶의 질을 포괄하는 방대한 주제라 죽기 전에 쓸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론을 마지막으로 쓰고 이 세상을 표표히 떠나고 싶어요.” 소설을 쓰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소설을 쓰겠노라고 신문에 나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소설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써달라”며 웃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6.txt

제목: [글로벌 한국의료 2014]연세암병원 - 장시간 대기·통증·불안 없는 ‘3무병원’ 선언  
날짜: 2014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30100000052  
본문: 연세암병원이 올 5월 병원 신축을 통해 새롭게 개원했다. 이곳은 1969년 국내 최초의 암전문 진료 기관으로 설립되어 ‘암 정복 99.9%에 도전’의 슬로건 아래 반세기 가까이 첨단 암 치료와 연구를 주도해 왔다.<br/>연세암병원은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암종별 15개 전문센터와 더불어 3개의 특화센터가 서로 연계해 치료를 넘어 ‘돌봄의 전인적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암예방센터, 완화의료센터, 암지식정보센터 등 특화센터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암예방센터는 치료 후 재발없이 5년이 경과한 암 환자 및 환자의 식습관과 유전적 특성을 공유해 암발병 위험도가 높은 가족들을 위한 암 조기진단과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r/>완화의료센터는 중증 암환자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암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각종 통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전용 병동에서 진행한다. 사회복지사와 가족상담사, 놀이치료사, 목사 등 전문가들이 항상 곁에 있다. <br/>암지식정보센터는 검증된 국내외 각종 암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설과 책자를 구비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암 건강강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상담 간호사들의 도움과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 교수진에게 직접 진료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br/>연세암병원은 정밀한 암 수술이 가능한 다빈치 로봇수술기 3대, 방사선치료기인 토모테라피 2대(1대 추가 도입 예정)와 라이낙 3대를 자체적으로 가동한다. 또 국내 최초로 로보틱(Robotic) IMRT 방사선치료기를 도입했다. 주요 진단장비를 가장 최신의 모델로 도입했고, 향후 양성자치료기를 들여와 ‘세브란스 양성자 암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br/>연세암병원은 당일 진료와 검사 및 진단이 가능한 신속진료시스템(Fast Track)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암 조직검사의 70%를 차지하는 위암과 대장암, 폐암의 병리조직검사와 진단을 기존의 3일에서 단 3시간 내로 마칠 수 있는 첨단 장비와 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위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두경부암 등 8개 암센터에서는 관련 진료과 의료진이 모든 참여하는 베스트팀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한다.<br/>아시아 암 허브병원을 지향하는 연세암병원은 세계적인 암병원인 미국 MD앤더슨암센터의 국내 유일의 자매병원으로 새로운 항암약물과 치료법 개발을 공동 연구하는 한편, 미국 국립암센터로부터 직접 최신의 신약을 공급받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7.txt

제목: [글로벌 한국의료 2014]인하대병원 폐암센터 - 폐암의 비밀 벗기는 ‘다학제 맞춤의학’ 메카  
날짜: 2014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30100000051  
본문: 인하대병원 폐암센터는 진단(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과 수술(흉부외과), 항암(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및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학과) 분야에 20여명의 전문 교수진이 대거 포진돼,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폐암치료 전문 센터이다.<br/>인하대병원 폐암센터는 ‘환자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 마음까지 치료하는’ 고객중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진료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br/>폐암 환자 및 보호자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전담 코디네이터, 암진료상담실, 영양팀 및 사회사업팀 등이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했다.<br/>폐암센터는 특히 빠른 진단과 정확하게 암 병기를 결정하는 기술에서 특화돼 있다. 조직검사에서 펫시티(PET/CT) 스캔,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등 첨단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단기간 내에 진단에서 병기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 <br/>4차원 방사선치료기(사이버나이프, 래피드아크)를 이용, 종양 부위만을 정밀 타격해 폐암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방사선치료를 하고 있다. 수술 분야에서도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을 시행, 세계 수준의 폐암치료 의료기술을 보여준다.<br/>류정선 폐암센터 소장은 최근 ‘미량의 흉막액’ 존재 유무가 폐암 병기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 미국 ‘임상암학회지’에 그 내용이 실렸다. 인하대병원에서 진단·치료받은 2061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중요 검사와 치료 관련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병기에 따른 흉막액 발생 분포와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구한 내용이다.<br/>류 소장은 또한 그동안 의학적 난제였던 폐암 수술 후 재발에 대하여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굴, ‘종양학연보’에 실렸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이를 폐암 맞춤치료에 적용, 항암화학치료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 ‘임상암학회지’를 포함한 국제 학술지 여러 곳에 발표했다.<br/>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암을 비롯한 저산소 관련 질환에 대한 ‘저산소표적질환센터’를 표방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류 소장은 “<span class='quot0'>인하대병원 폐암센터의 맞춤치료 등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난치성 폐암 환자의 항암화학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열쇠를 찾을 것</span>”이라고 다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8.txt

제목: [글로벌 한국의료 2014]환자 중심 ‘특화병원 전문센터’ 세계가 주목  
날짜: 2014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30100000053  
본문: 한국 의료의 세계화는 ‘환자 중심’이 중심축을 이룬다. <br/>이 근간을 따라 외국 환자들도 첨단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여기에 특화된 병원과 전문 센터의 활약이 눈에 띈다. ‘특화병원 전문센터’가 국제경쟁력의 키워드가 된 것이다.<br/>연세암병원은 ‘아시아 암 치료의 허브’로서 국제적 표준에 맞춘 암 진료를 선도하고 있다. <br/>최신 장비나 시설뿐 아니라 의료진이 중심이 되어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겠다는 ‘인간 중심’ 진료를 표방하고 있다.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앞장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br/>인하대병원 폐암센터는 폐암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검증된 진료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성적을 거두며 글로벌 폐암치료의 메카로 떠올랐다.<br/>서울의료원의 환자안심병원 시스템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부담을 일거에 해소한 공공의료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대목동병원 간센터는 간이식 성공률 100%의 완치 성적을 자랑한다.특히 다양한 원인질환에 의한 간이식을 두루 시행함으로써 간이식 분야의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br/>강동경희대병원 국제진료소는 러시아 의료관광으로 명성이 드높다. 그 지평을 중앙아시아와 몽골, 중국 등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499.txt

제목: [저자와의 대화]‘지식인’ 출간한 박호성 교수  
날짜: 2014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301001442096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지식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선택지는 ‘저항’ 아니면 ‘어용’뿐”</strong><!-- SUB\_TITLE\_END--><br/><br/>‘F교수’는 불의에 항거하는 양심적 지식인의 표상이 된 인물이다. 강의 때 가난뱅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따지고 들면 불순분자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노동의 가치를 역설한다. 국내 최대 규모 노조의 고문도 맡고 있다. 단사표음(簞食瓢飮)을 기리는 그는 청빈한 학자로도 알려졌다. 한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F교수는 ‘랑데부 살롱’ 단골이다. 순정파 여대생 도우미 실비아를 사랑한다. 술친구이자 스폰서인 대형 건설회사 대표 성사장과 자주 들른다. 성사장은 F교수에게 어느 달동네 판자촌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정보를 귀띔하며 미리 목 좋은 곳에 땅과 집을 사두면,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대기업 주식을 처분해 성사장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송금한 날, 두 사람은 랑데부에서 모임을 가진다. F교수가 계약 턱을 쏘는 날이다. 그는 취중에 하루빨리 판자촌이 철거되길 염원한다. <br/><br/>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가 쓴 단편소설 ‘목격자’의 줄거리다. 박 교수는 신간 <지식인>(글항아리)에 이 소설을 담았다. F교수는 실존 인물일까. 세속적 호기심을 제어할 수 없었다. 27일 연구실에서 만난 그에게 던진 첫 질문도 F교수의 실존 여부다. <br/><br/>“여러 교수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오해 안 하도록 마흔인데도 백발에 안경 낀 것으로 묘사했지. 그런데 (기자가) 할 일이 없었나 봐. 소설 같지도 않은 소설을 읽고 말야.” <br/><br/><br/><지식인>을 엮으며 저지른 작태 하나가 소설을 넣은 것이라며 웃었다. 전업 소설가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듯해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송구스럽다고 했다. 박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여러 신춘문예에 응모했다가 낙선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과욕이 부른 참사이자 쌤통”이라고 회고한다. <br/><br/>책의 쪽수나 늘리고 낙선의 한을 풀려고 소설을 실은 건 아니다. “논문소설 같은 천덕꾸러기꼴”이라고 했지만, 소설은 지식인의 이중적 삶의 단면과 폐부를 보여준다. 그 주제는 곧 정년퇴임하는 박 교수가 대학교수로서 마지막 발자취로 남긴 <지식인>을 관통하는 문제의식과도 이어진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지식인이 늘어난다</span>”며 “<span class='quot0'>국정원이니, 대선개입이니, 간첩사건 증거 조작이니, 종북주의니 하는 식의 온갖 불의한 사태와 어처구니없는 역사적 도착 증세도 이익을 좇는 지식인이 늘어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span>”고 말했다. <br/><br/>지식인 문제는 한국인의 ‘서글픈 존재 양식’에도 나타난다. 박 교수는 ‘영혼 없는 기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span class='quot0'>나누기보다는 가로채는 일에 좀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 그리하여 더불어 나누는 인간다운 너그러움보다는 자기 몫만 살벌하게 챙기려 드는 냉혹한 수지타산에만 광분하다 급기야는 무혈충으로 전락해갈 수밖에 없는 존재</span>”들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는 공유하기보다는 거래하는 데 훨씬 능통한 존재 양식을 공유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인류사의 가장 큰 적도 이 같은 이기주의로, 결국 타인과 타 집단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지가 인류의 과제</span>”라고 말했다. <br/><br/>박 교수는 형식주의, 소집단 애국심, 사익 절대주의 등을 한국 지성계의 풍토병으로 여긴다. ‘컬러리즘’(색깔론)도 그중 하나로, 박 교수가 만든 신조어다. “영어로 써야 귀를 기울이니”라는 농반을 던지면서도 “<span class='quot1'>색깔론은 한국 사회의 암적 병폐</span>”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 ‘색깔을 밝히라’는 주문은 ‘꼭꼭 숨겨놓은 당신의 이념과 노선의 정체를 솔직히 드러내라’는 강압적 요구다. 사상의 자유와 이념에 대한 판정이 지금껏 항상, 특히 박정희 시대에 유별났듯이 지배 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었던 전통 때문에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br/><br/>‘지식인’을 표제로 삼은 책에서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화두가 빠질 리 없다. 박 교수는 지식인의 역할은 저항 아니면 어용뿐이라고 했다. 저항적 지식인의 역사적 소명과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파헤친 그는 지식인이 살면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들의 목록도 내놓았다. 목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다. 해답은 그의 과거와 현재의 학문 수행과 미래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br/><br/>철학자 박이문 교수가 현대 한국의 자생철학을 대표한다면, 박 교수는 자생정치사상을 대표하는 학자로 볼 수 있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한국 현실에 바탕한 자신만의 개념과 이론을 꾸준히 주창하고 정립해왔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에 깊이 파고든 민족 및 계급 문제 두 축을 연구하며 우선 민족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민족주의론’을 내놓았다. 계급 문제의 철학적 토대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평등론’을 썼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를 밝히기 위해 쓴 게 ‘휴머니즘론’이다. 그 토대 위에 인간이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공동체론’에 담았다. 이어 어떻게 하면 생태·지구 공동체에서 조화를 모색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제시한 게 ‘생태론’이다. 지난해 한국 사회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연의 인간, 인간의 자연>(후마니타스)이라는 생태론 저술을 내놓았다. 그는 ‘자연살이’라는 말도 만들었는데 자연 존중과 연대, 공동체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는 정신이다. ‘자연을 죽이면, 자연이 죽인다’는 모토를 갖고 있다. “자연에 생채기 내는 건 친족 살해나 마찬가지예요. 자연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게 지식인 역할이죠. 기업에 환경보호세 같은 것도 물리고, 초·중·고 때부터 생태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야 해요. 인문학은 결국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학문입니다.”<br/><br/>박 교수는 곧 다가올 정년퇴임을 학문적 삶의 여로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반환점으로 규정한다. 이 여로에서 붙들고 있는 화두가 ‘인간’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허황된 꿈을 많이 꿔 주변에서 놀림도 많이 받는다</span>”고 운을 뗀 후 이렇게 말했다. “지식인 삶의 총결산으로 ‘인간론’을 쓰고 싶어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삶의 질을 포괄하는 방대한 주제라 죽기 전에 쓸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론을 마지막으로 쓰고 이 세상을 표표히 떠나고 싶어요.” 소설을 쓰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소설을 쓰겠노라고 신문에 나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소설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써달라”며 웃었다.<br/><br/><글 김종목·사진 김정근 기자 jom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0.txt

제목: [희망경영 특집]아모레퍼시픽 - 여성 암환자를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날짜: 2014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9100000021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 up your life’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이 캠페인을 통해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br/>특히, 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셀러 및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 여성 암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지난해까지 총 8000여명의 여성 암환우 및 2000여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올해에도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전국 35개 병원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개될 예정이다. <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지난 2011년 수혜 지역을 중국으로 확장했다. 상하이 지역 최고 권위의 푸단대학교 병원에서 전개된 데 이어, 중국 환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2013년까지 약 460여명이 참여해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1.txt

제목: [희망경영 특집]아모레퍼시픽 - 여성 암환자를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날짜: 2014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810014398002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 up your life’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br/><br/>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이 캠페인을 통해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br/><br/>특히, 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셀러 및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 여성 암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지난해까지 총 8000여명의 여성 암환우 및 2000여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올해에도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전국 35개 병원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개될 예정이다. <br/><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지난 2011년 수혜 지역을 중국으로 확장했다. 상하이 지역 최고 권위의 푸단대학교 병원에서 전개된 데 이어, 중국 환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2013년까지 약 460여명이 참여해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2.txt

제목: [경향마당]국토를 지키는 장병들이 ‘워터 푸어’  
날짜: 20140527  
기자: 장석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7100000080  
본문: ‘워터 푸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내 상수도 보급률이 94%이지만 이 말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한다. 하우스 푸어나 에너지 푸어처럼 깨끗한 물을 보급받지 못한 지역과 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br/>산간도서 벽지 지역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의 계층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전방부대 장병들이다. 상수도 공급이 잘 안돼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부대에서는 지하수 관정이나 계곡물을 이용해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전방사단의 상수도 보급률은 28.4%로 저조하다. 또 상수도가 아닌 재래식 급수원을 사용해 수질 안전성도 불안하다.<br/>최근 3년간 급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육군은 전체 4246곳 중 9.4%인 40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고, 일부 부대는 식수로 사용하는 식수원에서 청색증이나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더구나 갈수기 때는 수량 부족으로 물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물차를 이용해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예산 부족으로 상수도 시설이나 대체 수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자녀이고 국토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병들이 대표적인 ‘워터 푸어’인 셈이다.<br/>최근 물 복지를 선언한 수자원공사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경기 북부에 집중된 전방부대의 물보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진강 내 사업들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필자는 공공재인 수돗물로 국민 누구도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3.txt

제목: [한기호의 다독다독]사회를 바꾸려면 거리로 나서라  
날짜: 20140527  
기자: 한기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7100000078  
본문: “한국에서도 사정은 그다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198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친족공동체의 유대는 약해졌고, 도시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거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회사가 종신고용제를 채용한 시대에는 몇십 년이나 함께 기거하는 사원들이 의사(擬似) 가족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능력주의의 도입으로 점차 연봉계약 사원이 늘어감으로써 가족적인 친밀감은 찾아볼 수 없어졌지요. 도회지의 임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귀속할 공동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br/><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법>(메멘토)의 공동저자인 우치다 다츠루와 오카다 도시오가 한국 독자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살아내고 나니 고령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고, 시장은 축소되었으며, 성장 전략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똑똑한 삶의 방식”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냈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안전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br/>“<span class='quot0'>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절망적일 만큼 저임금인 데다 잠잘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span>”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가장이 혼자 일해서 몇 십 명의 대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살기가 힘들어 결혼마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가치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정어리 떼’가 되어 갔습니다.<br/>일본 사회의 본질이 드러난 계기는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저자들은 엄청난 재난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pan class='quot1'>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저버리면서 대기업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아베 정권의 행태</span>”를 보고 시민들이 생활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조직’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br/>이 책의 원제가 ‘평가와 증여의 사회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위적인 공동체 조직의 기본원리는 ‘증여’(기부)로 집약됩니다.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을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나이 든 세대가 젊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증여 한 방’으로 사회적인 공평함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br/><사회를 바꾸려면>(동아시아)의 저자인 오구마 에이지는 선거를 통해서 법안을 바꾸는 것보다 데모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거한 젊은이들이 “우리는 99퍼센트다”라고 외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듭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열린책들)에서 지적했듯이 이 슬로건의 출현은 미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br/>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이 <리스크 사회>(한국어판 제목은 <위험사회>)를 출간한 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였습니다. 당시 서독은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방사능 물질 때문에 식품오염에 대한 공포감이 널리 퍼졌습니다. “<span class='quot0'>빈곤은 계급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span>”라고 말한 벡의 경고 때문인지 독일은 원전폐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br/><br/>2008년 한국의 ‘촛불시위’를 주목하는 오구마는 정당이나 노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네트워크형 비폭력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탈원전 데모에서 일본인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정부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장악한 이너 서클끼리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 바뀌어간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세 번째는 무력감과 따분함을 쇼핑을 하거나 전기를 마구 써대 상쇄하려 드는 식의, 그런 침체된 생활은 이제 그만 두고 싶다. 그 전기라는 것이 극히 일부의 인간을 배불리고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이제 정말 싫다.”<br/>오구마는 “어릿어릿하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환히 눈에 보일 때 인간은 감동=행동(moved)한다. ‘민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고뇌에 대한 답을 얻는 순간,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한 순간,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 들어서며 감동=행동한다. 그것은 모든 정치, 경제, 예술, 학문 등의 원점”이라며 2011년 원전 데모도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합니다.<br/>‘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도 사회의 본질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중소기업만이 우리 경제가 살길이다’라고 외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각종 복지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규제는 암 덩어리’라면서 하루아침에 재벌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된 규제 완화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었습니다.<br/>박근혜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 7월부터 초보 변호사임에도 불과 5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을 올렸습니다. ‘관피아’ 척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총리가 전관예우로 호가호위하며 지내던 사람이라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정부를 각성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일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4.txt

제목: [한기호의 다독다독]사회를 바꾸려면 거리로 나서라  
날짜: 2014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610014360999  
본문: “한국에서도 사정은 그다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198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친족공동체의 유대는 약해졌고, 도시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거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회사가 종신고용제를 채용한 시대에는 몇십 년이나 함께 기거하는 사원들이 의사(擬似) 가족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능력주의의 도입으로 점차 연봉계약 사원이 늘어감으로써 가족적인 친밀감은 찾아볼 수 없어졌지요. 도회지의 임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귀속할 공동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br/><br/><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법>(메멘토)의 공동저자인 우치다 다츠루와 오카다 도시오가 한국 독자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살아내고 나니 고령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고, 시장은 축소되었으며, 성장 전략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똑똑한 삶의 방식”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냈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안전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br/><br/>“<span class='quot0'>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절망적일 만큼 저임금인 데다 잠잘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span>”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가장이 혼자 일해서 몇 십 명의 대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살기가 힘들어 결혼마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가치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정어리 떼’가 되어 갔습니다.<br/><br/>일본 사회의 본질이 드러난 계기는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저자들은 엄청난 재난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pan class='quot1'>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저버리면서 대기업의 수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아베 정권의 행태</span>”를 보고 시민들이 생활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조직’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br/><br/>이 책의 원제가 ‘평가와 증여의 사회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위적인 공동체 조직의 기본원리는 ‘증여’(기부)로 집약됩니다.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을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나이 든 세대가 젊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증여 한 방’으로 사회적인 공평함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br/><br/><사회를 바꾸려면>(동아시아)의 저자인 오구마 에이지는 선거를 통해서 법안을 바꾸는 것보다 데모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거한 젊은이들이 “우리는 99퍼센트다”라고 외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듭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열린책들)에서 지적했듯이 이 슬로건의 출현은 미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br/><br/>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이 <리스크 사회>(한국어판 제목은 <위험사회>)를 출간한 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였습니다. 당시 서독은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방사능 물질 때문에 식품오염에 대한 공포감이 널리 퍼졌습니다. “<span class='quot0'>빈곤은 계급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span>”라고 말한 벡의 경고 때문인지 독일은 원전폐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br/><br/><br/>2008년 한국의 ‘촛불시위’를 주목하는 오구마는 정당이나 노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네트워크형 비폭력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탈원전 데모에서 일본인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정부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장악한 이너 서클끼리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 바뀌어간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세 번째는 무력감과 따분함을 쇼핑을 하거나 전기를 마구 써대 상쇄하려 드는 식의, 그런 침체된 생활은 이제 그만 두고 싶다. 그 전기라는 것이 극히 일부의 인간을 배불리고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이제 정말 싫다.”<br/><br/>오구마는 “어릿어릿하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환히 눈에 보일 때 인간은 감동=행동(moved)한다. ‘민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고뇌에 대한 답을 얻는 순간,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한 순간,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 들어서며 감동=행동한다. 그것은 모든 정치, 경제, 예술, 학문 등의 원점”이라며 2011년 원전 데모도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합니다.<br/><br/>‘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도 사회의 본질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중소기업만이 우리 경제가 살길이다’라고 외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각종 복지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규제는 암 덩어리’라면서 하루아침에 재벌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된 규제 완화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었습니다.<br/><br/>박근혜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 7월부터 초보 변호사임에도 불과 5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을 올렸습니다. ‘관피아’ 척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총리가 전관예우로 호가호위하며 지내던 사람이라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정부를 각성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일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br/><br/><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5.txt

제목: [경향마당]국토를 지키는 장병들이 ‘워터 푸어’  
날짜: 2014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610014361001  
본문: ‘워터 푸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내 상수도 보급률이 94%이지만 이 말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한다. 하우스 푸어나 에너지 푸어처럼 깨끗한 물을 보급받지 못한 지역과 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br/><br/>산간도서 벽지 지역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의 계층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전방부대 장병들이다. 상수도 공급이 잘 안돼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부대에서는 지하수 관정이나 계곡물을 이용해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전방사단의 상수도 보급률은 28.4%로 저조하다. 또 상수도가 아닌 재래식 급수원을 사용해 수질 안전성도 불안하다.<br/><br/>최근 3년간 급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육군은 전체 4246곳 중 9.4%인 40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고, 일부 부대는 식수로 사용하는 식수원에서 청색증이나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더구나 갈수기 때는 수량 부족으로 물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물차를 이용해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예산 부족으로 상수도 시설이나 대체 수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자녀이고 국토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병들이 대표적인 ‘워터 푸어’인 셈이다.<br/><br/>최근 물 복지를 선언한 수자원공사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경기 북부에 집중된 전방부대의 물보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진강 내 사업들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필자는 공공재인 수돗물로 국민 누구도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br/><br/><장석환 |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6.txt

제목: [세월호 참사]수원과학대, 고 박지영씨 강의실 모교에 마련  
날짜: 2014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510014344437  
본문: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22)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강의실이 그의 모교에 마련된다.<br/><br/>수원과학대학교는 “<span class='quot0'>박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 건물 2층 다목적 국제회의실(250석 규모)을 ‘박지영 홀’로 이름붙여 사용하기로 했고 부모께서도 동의했다</span>”고 25일 밝혔다.<br/><br/>이곳에는 박씨의 얼굴을 새긴 부조 동판과 박씨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소품 등을 갖출 예정이다.<br/><br/>수원과학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사를 마치는 대로 ‘박지영 홀’ 명명식을 하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고 박지영씨는 2011년 이 학교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이듬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휴학계를 냈다.<br/><br/>박씨는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br/><br/>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br/><br/><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7.txt

제목: [책과 삶]현직 판사가 소설로 사기 진료 고발 “부조리한 상황 속의 내면 정신 분석”  
날짜: 20140524  
기자: 정원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4100000006  
본문: 현직 판사가 1억원 고료의 문학상 당선작인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대구가정법원 판사인 정재민씨(37·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그가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나무옆의자)는 올해 초 발표된 제10회 세계문학상 공동 수상작이다. 소설가 박현욱, 김별아, 정유정 등이 이 상의 수상자다.<br/>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정씨는 “<span class='quot0'>책을 받아보니 내가 깎은 손톱을 바라보는 기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소설의 모든 문장이 다 내 안에 있던 것들이어서 마음속 상처가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든다</span>”고 말했다.<br/>소설은 사기 진료 사건을 소재로 한다. 지방 소도시에서 판사로 일하는 주인공 하지환은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기 진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는 9년 동안 항류머티즘제를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위암에 걸려 사망했다. 진상을 알고보니 담당 의사가 고의적으로 허위 진단을 내린 것이었다. 하지환은 판사로서의 앞날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 우동규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지만, 우동규는 결국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우동규 주위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의 고리들이 얽혀 있다. <br/>소설 내용은 대부분 정씨가 직접 겪은 일이다. 그는 아들이 판검사가 되길 바랐던 어머니의 소망을 따라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2000년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던 그의 어머니는 소설 속 주인공의 어머니처럼 의사의 사기 진료에 속아 항류머티즘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암으로 사망했다. 15년 전 일이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투병 중 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에 제 글을 보태 ‘기린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써서 어머니를 공동 저자로 표시해 제1회 세계문학상에 응모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지난 10년 동안 ‘기린의 죽음’을 크게 개작한 것인데, 10년 만에 상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뜻깊은 작품입니다.”<br/>정씨는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이 작품의 주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들은 많습니다. 저는 문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과 맞닥뜨린 개인의 내면을 정신분석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게 문학이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br/>정씨는 독도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소송전을 벌인다는 내용의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했다.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안으로 외교부 독도법률자문으로 파견돼 일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8.txt

제목: 세월호 의사자 박지영 기리는 ‘대학 강의실’ 만든다  
날짜: 2014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410014342739  
본문: 세월호 승무원으로 학생들을 구하다 숨져 의사자로 선정된 박지영씨(22)를 기리는 강의실이 수원과학대학교에 마련된다고 24일 한겨레가 보도했다.<br/><br/>박씨가 다녔던 수원과학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관계자는 23일 “<span class='quot0'>침몰하는 배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세월호의 영웅’ 박지영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모두가 함께 기리기 위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span>”고 밝혔다.<br/><br/>고운학원 쪽은 가장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강의실을 골라 가칭 ‘박지영 룸’을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는 박씨의 동판 등 박씨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각종 소품 등을 갖출 예정이다.수원과학대와 같은 재단인 수원대 우창훈 교수(건축공학)는 “박씨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박지영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박씨는 2011년 수원과학대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휴학을 했다. 이후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 다시 복학하려 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br/><br/>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09.txt

제목: [건강 단신]암 예방 태초 먹거리 건강강좌 外  
날짜: 2014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3100000013  
본문: ■ 암 예방 태초 먹거리 건강강좌<br/>연세암병원은 23일 오후 1시 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에서 ‘태초 먹거리’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교수가 일상적인 음식의 단점을 지적하고,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피할 수 있는 식단을 소개한다. (02)2228-4930<br/>■ 어깨질환 이해·치료 공개강좌<br/>척추관절전문 여러분병원(김정수 대표원장)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병원 1층 로비에서 ‘어깨질환의 이해와 치료’를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장기웅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이 중·노년층의 어깨질환에 대해 강의한다. 30명을 사전 접수한다. (02)517-0770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0.txt

제목: [TV전상서]건강프로 제작진들께  
날짜: 20140523  
기자: 유인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3100000047  
본문: 웰빙바람, 그리고 100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건강’이 화두입니다. 남들이 “눈에는 블루베리가 좋다더라” “해독주스를 마셔야 오래 산단다”라는 말에 마트나 시장을 뒤져 각종 식자재를 사옵니다. 전문가가 아닌 친구나 직장 동료의 말도 이 정도인데 방송에서 의사나 전문가들이 “암을 극복하려면” “피를 맑게 하려면”이라는 말에 무한신뢰를 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br/>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가 공중파TV, 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영상매체들입니다. 의협은 한국과학기자협회에 의뢰해 ‘건강보도가 국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했고 연구결과, 건강관련 정보의 획득경로는 공중파가 54.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부들을 위한 아침정보프로는 물론 종편에서도 건강프로그램들이 늘어났습니다.<br/>약이나 주사도 아니고, 생활주변의 식재료를 꾸준히 먹기만 해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심지어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이겨내고 살도 쭉쭉 빠지고 머리카락도 새로 난다니. 게다가 외모도 수려한 의사, 한의사, 식품전문가들이 전문용어로 설명하고,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 맞장구를 쳐주면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그런 방송이 있은 다음날은 시장과 마트에 재료는 물론 만드는 법까지 소개된 코너가 따로 생깁니다. 건강프로에 출연하는 몇몇 의사들은 이미 스타가 되어 펴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병원도 문전성시를 이룬다는군요.<br/>그런데 그 쏟아지는 정보들이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는 쇠고기 등 육류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어떤 이는 고기를 먹으라 하고, 누구는 아침을 굶으라 하고 다른 이는 아침을 절대 거르면 안된다 하고…. 특히 최근 급증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가운데 해독주스, 청혈주스 등을 맹신하다 오히려 병을 키워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고 현미밥이나 견과류 등이 되레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br/>사람마다 성격과 체질이 다르고, 몸에 맞는 음식도 다른데 방송이 너무 무책임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을 잘 아는 제작진들이 내용이나 전문가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건강프로만은 ‘카더라 통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영양제와 해독주스를 먹어도 국정 뉴스만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1.txt

제목: [건강]고지혈증 약물치료는 심근경색의 ‘안전벨트’  
날짜: 20140523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3100000011  
본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뇌중풍)을 당했을 때 초동대처를 잘못해 사망에 이르거나 큰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증세가 나타났을 때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관건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평소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 및 치료의 패러다임도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br/>2013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1위는 다름 아닌 심혈관 질환이었다. 전 세계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선 심장질환이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검진받은 사람은 79만명으로 10년 전인 2003년보다 58.4% 늘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근육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생긴다. 통증과 호흡곤란, 체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br/>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인 것이 고지혈증이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데, 국내에서 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지혈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혈관 벽에 지방을 포함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혈관벽이 두꺼워져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한다. 여기서 떨어져나온 혈전(피떡)이 심장과 뇌혈관을 막으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다.<br/>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센터 채인호 교수는 “<span class='quot0'>가장 중요한 것은 동맥경화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동맥경화성 질환과 흡연은 심장혈관에 가장 치명적이다. 적절한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등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br/><br/>국제적으로 심장질환자 등의 고지혈증 치료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치료지침은 미국심장학회(ACC)와 미국심장협회(AHA)가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두 학회는 10년 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저밀도 지단백)의 구체적인 치료 목표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br/>대신 이번 개정안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집중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 의료계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br/>심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손꼽히는 영국에서도 지난 2월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가 뇌졸중 및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br/>이 가이드라인은 예전보다 철저하게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입증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 중에서도 아토르바스타틴은 단일 제제로는 가장 많은 임상시험(총 9개)을 근거자료로 사용했다. 아주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소연 교수는 “<span class='quot1'>고지혈증 치료 약물 선택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입증했는지가 관건</span>”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 심혈관 질환 발생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스타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어 해당 질환에 적응증이 있는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2.txt

제목: 10세 소녀의 기구한 운명, 담임교사가 탈출 도와  
날짜: 20140521  
기자: 권기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1100000120  
본문: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와 계모가 적발됐다. 담임교사의 신고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일 의붓딸 권모양(10)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 김모씨(54)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계모 김모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권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2004년 돌이 지나자마자 어머니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 세 살 때 새어머니가 생겼지만 아버지는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다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계모 김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권양의 친모에게 연락해 양육문제를 논의했다. 친모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며 계모 김씨에게 양육을 부탁했다.<br/>김씨는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과 식당 잡일을 하며 힘들게 권양을 키웠다. 2012년 계부 김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권양에게 새아버지가 생긴 셈이었다. 그러나 계부 김씨는 주벽이 심하고 성격이 난폭했다. 술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권양의 머리, 이마, 눈 등을 때리고 발로 차기를 일삼았다.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차례나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br/>우울증에 걸린 계모 김씨는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지난 17일에는 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눈꺼풀을 꼬집는 등 권양을 폭행했다.<br/>권양의 사연은 학교 담임교사, 상담교사, 지역아동보호센터를 통해 경찰에 알려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3.txt

제목: “MB 임기말 미군기지 오염 토양 정화기준 삭제”  
날짜: 20140521  
기자: 김기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1100000118  
본문: 2012년에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기준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이 정화비용 수천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벌어진 ‘굴욕·밀실 외교’ 논란이 커지고 있다.<br/>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한·미 양국은 2012년 6월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을 2차 개정하면서 미군 측 요청에 따라 유류(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처리기준을 삭제했다. 삭제된 이 기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1차 개정 때 추가했던 내용이다.<br/>박 의원은 “<span class='quot0'>반환된 미군기지의 대표적 오염물질인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TPH) 기준을 이명박 정부가 삭제하면서 미군은 기지 오염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반면 우리 정부는 그만큼의 세금을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에 써야 할 상황에 놓였다</span>”고 설명했다.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는 등유·경유·벙커C유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는 식물의 생존이 불가능하고 인체에도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2012년 10월 환경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가운데 22개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가 검출된 내용이 담겨 있다. <br/>박 의원은 “<span class='quot0'>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반환 미군기지 중 매각 대상인 17곳에서 공통적으로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가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는 이들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으로 현재까지 186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span>”고 설명했다.<br/>박 의원은 “<span class='quot0'>환경부는 2012년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이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해 통과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기 말 ‘굴욕 외교’를 숨긴 이명박 정권과 외교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우리 국민만 ‘눈 뜨고 코 베인 격’이 됐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는 현재의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4.txt

제목: 이대 연구진 개발 항암제, 미국서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0100000100  
본문: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항암제가 미국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span class='quot0'>이화여대 약학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고형암 치료 후보물질 ‘TEW-7197’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아 6월부터 현지에서 시험에 들어간다</span>”고 19일 밝혔다. <br/>임상 1상은 소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후보물질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다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간다.<br/>팀장인 김대기 교수(58)와 연구팀이 개발한 암 치료 물질은 혈액암과 달리 간암이나 유방암 등 일반 장기에서 발생하는 고형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고형암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물질인 ‘ALK-5’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원리다. 고형암은 국내 암 발생의 95%를 차지한다.<br/>김 교수팀이 개발한 물질은 인체 면역기능을 활성화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질을 만드는 기술은 2012년 3월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인 ‘테라젠이텍스’에 이전됐다.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기존 항암 치료제들의 문제점인 항암제 내성과 전이 등을 극복할 수 있고, 기존 항암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5.txt

제목: 10세 소녀의 기구한 운명, 담임교사가 탈출 도와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201001430710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엄마는 재혼·아빠는 사망… 계모·계부는 상습 학대</strong><!-- SUB\_TITLE\_END--><br/><br/>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와 계모가 적발됐다. 담임교사의 신고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일 의붓딸 권모양(10)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 김모씨(54)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계모 김모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br/>권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2004년 돌이 지나자마자 어머니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 세 살 때 새어머니가 생겼지만 아버지는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다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계모 김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권양의 친모에게 연락해 양육문제를 논의했다. 친모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며 계모 김씨에게 양육을 부탁했다.<br/><br/>김씨는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과 식당 잡일을 하며 힘들게 권양을 키웠다. 2012년 계부 김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권양에게 새아버지가 생긴 셈이었다. 그러나 계부 김씨는 주벽이 심하고 성격이 난폭했다. 술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권양의 머리, 이마, 눈 등을 때리고 발로 차기를 일삼았다.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차례나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br/><br/>우울증에 걸린 계모 김씨는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지난 17일에는 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눈꺼풀을 꼬집는 등 권양을 폭행했다.<br/><br/>권양의 사연은 학교 담임교사, 상담교사, 지역아동보호센터를 통해 경찰에 알려졌다.<br/><br/><부산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6.txt

제목: 왕복에 520일·중력은 3분의 1… ‘화성인 되기’ 프로젝트 재가동  
날짜: 20140519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9100000110  
본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최근 인간이 화성에서 적응하기 위한 모의 실험(HISEAS)을 시작했다. 장소는 하와이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기압이나 온도 등을 감안하면 지구 외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다. 미국은 2030년 화성에 유인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다.<br/>그러나 화성 적응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구에서 화성을 왕복하는 데는 520일 정도나 걸린다. 장기간의 우주여행이나 화성에 체류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저중력 상태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주인은 건강, 인간관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적응 실험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br/><br/>▲ 화성과 비슷한 토양 화산섬에서<br/>좁은 천막에 남 셋·여 셋 4개월 동거<br/>e메일 전송에 20분, 1주일 목욕시간 8분…<br/>밀폐된 공간의 스트레스 이겨내는지 관찰키로<br/>▲ 3년 전 러시아서 남자 6명 실험<br/>수면주기 길어지고 신체활동 둔해져<br/>저중력 상태 때문에 혈액 머리로 쏠리고<br/>근력 약화·골다공증·암·치매 등 위험 넘어야<br/>■ 하와이에서 가상 실험 시작<br/>NASA가 화성 적응 실험을 하는 것은 장기간 지구를 떠나 있어야 하는 인간의 감정과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 실시된 실험을 종합하면 인간이 적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br/>NASA가 하와이 화산섬인 마우나 로아를 실험 장소로 낙점한 이유는 화성과 비슷한 환경 때문이다. NASA는 2012년 10월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는 로봇인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토양 성분 정보를 분석해 결정성 장석과 휘석, 감람석에 비결정성 물질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화산에 의해 형성된 하와이 마우나 로아의 현무암질 토양과 비슷하다.<br/>NASA는 이곳에 100㎡(30평)의 작은 돔형 천막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7월까지 동거하게 된다.<br/>NASA 연구진은 모의 실험 참가자들이 화성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외부와 e메일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e메일을 보내는 데 20분이 걸리도록 설계했다. 지구와 화성 간 거리는 2억5000만㎞다. 통신에는 1㎓(기가헤르츠) 이상 극초전파(UHF)를 사용한다. 이 전파가 화성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20분이 걸린다.<br/>1인당 목욕 시간은 1주일에 단 8분뿐이다. 물이 부족한 화성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천막 밖으로 나가 탐사도 하는데 이때 실제 화성 탐사용 우주복을 입어야 한다.<br/>NASA는 실험 참가자들의 기분과 인지능력,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화성에서 우주인들이 해야 할 작업인 3D 프린터로 의료장비 만들기, 화성에 적합한 식물 기르기, 폐기물을 재활용해 도구 만들기 등을 수행한다.<br/>연구 책임자인 킴 빈스테드 하와이대 정보컴퓨터학과 교수는 하와이 트리뷴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span>”이라며 “그게 이 실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실험 참가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4개월 동안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지 연구하겠다는 것이다.<br/><br/>■ 화성 적응의 가장 큰 문제는 잠<br/>3년 전 유럽우주기구(ESA)와 러시아, 중국도 모의 화성 적응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마스500(Mars500)’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남자 6명에게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우주선 모형에서 520일 동안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연구진들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520일만큼 인간을 격리시켜 신체활동 변화를 살펴봤다.<br/>이를 통해 화성에 가면 인간이 게을러지기 쉽다는 결과를 얻었다. 마르시아스 바스너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수면과 생체주기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한 논문에서 ‘마스500’에 참가한 사람 대부분이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참가자 6명 중 3명은 520일간의 임무 막바지에 임무 시작 때보다 평균 1시간을 더 잤다.<br/>만성적인 불면증을 호소하며 수면 주기가 25시간으로 바뀐 참가자도 있었다. 화성은 자전주기가 24시간40분으로 지구보다 약간 길다. 이 참가자는 평소 느끼던 것보다 하루가 1시간 길어지면서 생체리듬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1'>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져 자칫하면 우주선이나 화성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진단했다.<br/>몸도 둔해졌다. 참가자들은 실험 초기엔 의욕에 넘쳤다. 참가자들끼리 친해지기 위해 신체를 이용해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했다. 그러나 곧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다. 임무 막바지에는 참가자들 대부분이 소파에 머무르며 비디오 게임, 독서, 영화감상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br/>1999년 러시아 의생물학연구소가 실시한 화성 모의 탐사 실험에서는 구성원들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남성 참가자가 여성 참가자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하려 했다. 그는 이를 제지하려는 남성 승무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실은 캐나다인 실험 참가자 주디스 라피에르 박사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실험에 참가했던 일본인은 가상 우주선에서 아예 나와버렸다.<br/>■ 저혈압·암·치매 위험 높아<br/>우주 환경에서는 몸에 변화가 생기거나 암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행성 중심에서 인간을 끌어다니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린다. 이 상태로 수백일을 우주에서 지내다 지구로 귀환할 경우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br/>실제 NASA는 우주왕복선에서 쥐를 사육하며 혈압 변화 실험을 했다. 우주에서 생활하던 쥐는 지구에 귀환한 뒤 저혈압 증세를 보였다.<br/>화성에서는 저중력의 영향으로 근력이 약해진다.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끈 영화 <그래비티>를 보면 주인공 ‘스톤 박사’(샌드라 불록)가 지구로 귀환한 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에 탑승했던 우주인들도 우주에 머문 1년간 근육 내 단백질이 20% 감소했다. 이 때문에 우주인들은 근력 약화를 막기 위해 다리에 끈을 매달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훈련을 매일 받는다. 또 뼈에서 칼슘이 한 달 평균 1%씩 줄어들어 골다공증 위험도 높다.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입자 및 방사선에 노출돼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7.txt

제목: “‘북한군 소행’ 주장 등 5·18 폄훼가 피해자들 상처 덧나게 해”  
날짜: 20140519  
기자: 박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9100000074  
본문: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도 34년, 하지만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13일 만난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52·서울 ‘아나파의원’ 원장·사진)은 여전히 계속되는 그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다. 그는 센터가 생긴 2012년부터 지금까지 300여명의 5·18 생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진행했다. 몇몇 피해자는 30여년 만에 마음을 열고 상처를 닦아냈지만, 후유증을 토로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특히 ‘불신감’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br/>“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조차 못 믿을 정도입니다. 내 고통을 이해시킬 수 없으니 남으로부터 이해받지도 못하죠. 형언할 수 없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br/>특히 보수성향의 정부가 집권한 지난 6년간은 피해자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했고, 한 종합편성채널은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 주장했다.<br/><br/>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피해자들이 5·18 폄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심리치료를 받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 ‘정부가 마지못해 민주화운동을 인정한 거지, 본심은 아니었다’는 불신감이 싹트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홍어 택배’ 사건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한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일부 누리꾼들은 5·18 당시 희생자의 시신이 운구되는 모습을 ‘홍어 택배’에 빗대어 재판에 넘겨졌다. 5·18 피해자들도 재판을 방청했는데, 피의자들은 이들 앞에서 자신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방청 이후 불면증이 다시 시작된 분들도 있고, ‘죽겠다’며 센터에 다시 오신 분들도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억울하게 죽은 자기 자식을 비하하는데,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강 센터장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안전하다 믿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에서 심리치유 외에 5·18 관련 사회운동을 벌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span class='quot0'>국가폭력이란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두고 상처만을 치료하는 건 미봉책이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사건에 대한 진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치유의 선결 조건</span>”이라고 설명했다.<br/>시민 공동체의 의무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피해자들은 이웃들에게 매도당해 상처를 더 입기도 한 만큼, 트라우마의 책임이 국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피해자들과 함께 사는 동시대인들, 한때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8.txt

제목: 미스코리아 인천 미녀들, 첨단 국제성모병원서 아름다운 봉사활동 펼쳐  
날짜: 2014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810014284046  
본문: 국제성모병원(원장 천명훈)이 지난 주말 미녀들의 봉사활동으로 환하게 빛났다. ‘의료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곳’이란 의미의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를 표방한 국제성모병원은 ‘병원은 단순한 치료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삶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실현하는 의료기관이다.<br/><br/>2014 미스코리아 인천 선발대회 1차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참가자들은 17일 토요일 오전 국제성모병원(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인천의 대표 미녀들은 병원 로비에서 쾌유를 빌며 환자와 가족을 맞이했고 진료 접수 및 안내, 수납 등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br/><br/><br/><br/>인천 천마산 아래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은 ‘감염 주의’ 구역을 제외한 전체 공간과 시설이 환자는 물론 시민에게 개방된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골프장·미용실·상가·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 문화시설, 오락시설 등이 있으며, 지하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청정채소는 환자들의 식재료로 제공된다. 병원과 함께 조성된 264가구의 시니어타운인 ‘마리 스텔라’는 인천의 명소로 떠올랐다.<br/><br/>1000병상 규모의 국제성모병원은 여러 과의 수술을 한번에 하는 복합 융합수술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개원과 동시에 가동했고, ‘꿈의 암치료기’ 인피니티, 가장 진화한 MRI 진단장비인 마그네톰 스카이라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다.<br/><br/><br/><br/><br/><br/>미스코리아 인천 선발대회는 오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제성모병원에선 성형외과 이훈범 교수가 전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아픈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는 미녀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span>”고 밝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19.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4년 5월 17일·18일  
날짜: 2014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7100000001  
본문: ▲삼남매 두고 암으로 몸져 누운 엄마<br/>나눔 0700(EBS 토 오후 3시50분) = 37세 아내 은희씨는 1년 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건강을 관리해야 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신경 쓸 수 없었다. 결국 2개월 전 암이 재발했고, 몸 곳곳에 암이 전이되어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41세 남편 경수씨는 아내의 병간호와 삼남매의 양육을 담당한다. 삼남매 11세 지영, 9세 지은, 3세 하늘은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 삼남매를 만난다. 공장지대 근처에 있는 집에서 할아버지와 사는 삼형제 12세 준하, 9세 정하, 7세 종하도 만난다.<br/>▲즉위 후 이혼부터 해야했던 군주 중종<br/>역사저널 그날(KBS1 일 오후 10시35분) =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 제11대 임금 중종을 조명한다. 중종은 역대 조선왕들 중 재위기간이 5번째로 긴 왕이다. 1506년 신하들의 반정으로 연산군의 폭정이 12년 만에 끝나자 이복동생 중종이 왕으로 추대됐다. 중종은 단경왕후 신씨와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7년을 부부로 살았다. 반정공신들은 중종이 즉위한 직후 단경왕후의 폐위를 주장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이혼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사망한 후 일부 신하들은 단경왕후를 다시 불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단경왕후 복위 상소사건’을 통해 중종을 알아본다.<br/>▲민정, 보리에 한복 공모전 포기 강요<br/>왔다! 장보리(MBC 일 오후 8시45분) = 전통한복집 ‘비술채’의 주인 김인화와 장 교수의 친딸 보리는 ‘영화제 한복공모전’에 도전한다. 도씨를 친엄마로 알고 자란 보리는 그녀를 호강시켜줄 생각에 들뜨고, 바느질 선생 옥수의 격려도 받는다. 보리와 도씨의 친딸 연민정은 한복공모전 최종심에 나란히 오른다. 민정은 보리가 경쟁상대임을 알고 깜짝 놀란다. 보리는 공모를 당장 포기하라는 민정의 협박에 당황하고, 도씨까지 반대하자 속상해한다. 도씨와 민정은 급기야 보리에게 친가족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한다. 보리는 두 사람의 말에 혼란스러워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0.txt

제목: [세상 속으로]21가지 얼굴 성형, 그날 이후 나는 ‘괴물’이 되었다  
날짜: 20140517  
기자: 류인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7100000027  
본문: 김복순씨(48)는 매일 사람들이 잠에서 깨는 아침이 돼서야 감기지 않는 눈에 4종류의 안약을 넣고, 수면제를 먹은 뒤 잠이 든다. 그는 성형수술 피해자다.<br/>김씨는 2009년 6월15일 의사 이모씨(55)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의원’에서 현금 3000만원을 주고 얼굴에만 21가지 시술과 수술을 받았다. 하이소프트실리콘을 사용한 융비술, 비주내림, 비공축소, 비익내리기,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볼 확대 및 앞광대 확대, 쌍꺼풀 수술, 하안검 성형술, 앞트임·뒤트임 수술, 애교살 수술, 보형물 삽입을 통한 이마확대·턱끝확대·코밑확대 수술, 필러 주입을 통한 윗입술확대·아랫입술확대, 귀족수술, 보형물 삽입을 통한 관자놀이 확대, 눈썹 이식, 속눈썹 이식, 포토RF, 이마흉터 제거.<br/><br/>■ 온 얼굴이 성형수술 피해 ‘살아있는 증거’<br/>용어도 낯선 이 수술들을 하루 만에 끝낸 후 김씨는 ‘괴물’이 됐다. 코는 콧물을 들이켜는 것도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고, 눈은 위꺼풀과 아래꺼풀이 모두 제거돼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 인공눈물과 항생제 등 안약을 매일 넣는다. 시력도 많이 떨어졌다. 보형물 삽입을 위해 절개한 이마에는 머리카락이 더 이상 나지 않게 됐다. 입술에 주입해서는 안되는 필러제가 투여된 보라색 입술은 최근에서야 약간 감각이 돌아왔다. 눈썹은 시술 부작용으로 모두 빠져버렸다. <br/>밤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다. 그녀는 “도저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했다. 김씨의 머리카락은 2㎜를 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성형수술 피해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다.<br/>수술을 끝까지 반대했던 남편은 수술 후 흉측해진 김씨의 얼굴을 보며 속앓이를 하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지금은 암까지 발병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와 남편은 이혼은 하지 않은 채 4년째 따로 살고 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외동아들은 남편의 친척이 맡아 기르고 있다. 지난해 겨울방학을 맞아 자신을 찾아온 아들에게 김씨는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 모자를 쓴 채 아들을 맞은 김씨는 “<span class='quot0'>엄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이 다 망가졌다</span>”고 말했다.<br/>그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3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SH공사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만원짜리 단칸방을 마련해줘 홀로 생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네 교회 여섯 군데를 돌아다니며 밥 한끼씩 얻어먹는다. 그마저도 눈치가 보이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br/>수술을 받기 전까지 김씨는 굳이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도 들었다. 성형수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용실에서 읽은 성형외과 광고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br/>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 큰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었던 김씨는 자신의 코 모양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그녀의 지인이 “<span class='quot1'>네 콧구멍이 약간 들렸는데, 사주에 그런 코 모양이 돈이 안 모인다더라</span>”고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던 것이다. 때마침 미용실에서 그녀는 ○○성형외과의원 광고를 보게 됐다. 코볼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수술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r/>김씨는 한달여간 30여군데의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코볼을 4㎜만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span class='quot2'>1~2㎜ 정도만 내리면 된다</span>”며 4㎜는 무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잡지 광고에 난 ○○성형외과의원에서는 다른 답이 나왔다. <br/>“<span class='quot3'>4㎜는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span>”<br/>김씨는 그때 의사 이씨가 ‘신’처럼 보였다. 다들 불가능하다는 수술을 이씨만 유일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라며 다른 성형외과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녀는 잡지에서 찢어온 여성모델의 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다 가능하다”고 했다. 또 “코만 하면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가 깨진다”고 했다. 이씨의 말에 솔깃해진 김씨는 그의 제안대로 얼굴의 대부분을 수술했다. 그러나 현재 김씨가 보는 거울에는 스스로 ‘괴물’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br/>■ 손배소송 이겼지만 한 푼도 못 받아<br/>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억1000만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0개월이 되도록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씨의 수술 대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씨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과대학만 졸업한 일반의였다. 그가 주장한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것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모두에게 주는 ‘자격증’ ‘수료증’에 불과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 면허가 아니다. 의사협회광고심의위원회는 “<span class='quot4'>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span>”고 밝힌 바도 있다.<br/>지난 12일 기자를 만난 김씨는 “<span class='quot0'>성형수술로 내 인생은 망가졌고, 그 의사가 내 인생을 망친 것</span>”이라며 울었다. 들이켜지지 않는 콧물이 코에서 흘러내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1.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4년 5월 17일·18일  
날짜: 2014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610014276601  
본문: <b>▲삼남매 두고 암으로 몸져 누운 엄마</b><br/>나눔 0700(EBS 토 오후 3시50분) = 37세 아내 은희씨는 1년 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건강을 관리해야 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신경 쓸 수 없었다. 결국 2개월 전 암이 재발했고, 몸 곳곳에 암이 전이되어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41세 남편 경수씨는 아내의 병간호와 삼남매의 양육을 담당한다. 삼남매 11세 지영, 9세 지은, 3세 하늘은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 삼남매를 만난다. 공장지대 근처에 있는 집에서 할아버지와 사는 삼형제 12세 준하, 9세 정하, 7세 종하도 만난다.<br/><br/><b>▲즉위 후 이혼부터 해야했던 군주 중종</b><br/>역사저널 그날(KBS1 일 오후 10시35분) =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 제11대 임금 중종을 조명한다. 중종은 역대 조선왕들 중 재위기간이 5번째로 긴 왕이다. 1506년 신하들의 반정으로 연산군의 폭정이 12년 만에 끝나자 이복동생 중종이 왕으로 추대됐다. 중종은 단경왕후 신씨와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7년을 부부로 살았다. 반정공신들은 중종이 즉위한 직후 단경왕후의 폐위를 주장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이혼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가 사망한 후 일부 신하들은 단경왕후를 다시 불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단경왕후 복위 상소사건’을 통해 중종을 알아본다.<br/><br/><b>▲민정, 보리에 한복 공모전 포기 강요</b><br/>왔다! 장보리(MBC 일 오후 8시45분) = 전통한복집 ‘비술채’의 주인 김인화와 장 교수의 친딸 보리는 ‘영화제 한복공모전’에 도전한다. 도씨를 친엄마로 알고 자란 보리는 그녀를 호강시켜줄 생각에 들뜨고, 바느질 선생 옥수의 격려도 받는다. 보리와 도씨의 친딸 연민정은 한복공모전 최종심에 나란히 오른다. 민정은 보리가 경쟁상대임을 알고 깜짝 놀란다. 보리는 공모를 당장 포기하라는 민정의 협박에 당황하고, 도씨까지 반대하자 속상해한다. 도씨와 민정은 급기야 보리에게 친가족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한다. 보리는 두 사람의 말에 혼란스러워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2.txt

제목: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건보 적용  
날짜: 20140515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5100000094  
본문: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 비용이 현재보다 60%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br/>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치아가 일부 없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7월부터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며 보철 재료는 PFM크라운으로 제한된다.<br/>건정심은 의원급 기준으로 임플란트 시술 행위수가는 1개당 약 101만3000원, 치료재료 수가는 약 13만~27만원이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결정했다. 치과의원에서 가장 보편적인 치료재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환자 부담은 1개당 6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플란트 시술 가격은 1개당 139만~180만원 선이다. 복지부는 올해 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br/>건정심은 6월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도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은 현재 환자부담금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개는 검사 종류에 따라 14만~34만원에서 1만6000~6만원으로 저렴해진다. 부정맥 환자를 시술할 때 사용되는 ‘3차원 빈맥 지도화’의 환자 비용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건정심은 환자들의 수요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도 비용의 20~50%까지만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선별급여를 7월 실시하기로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3.txt

제목: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건보 적용  
날짜: 201405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41001424847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복지부, 만 75세 대상… 환자 부담 60% 줄어들 듯</strong><!-- SUB\_TITLE\_END--><br/><br/>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 비용이 현재보다 60%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br/><br/>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치아가 일부 없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7월부터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br/>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며 보철 재료는 PFM크라운으로 제한된다.<br/><br/>건정심은 의원급 기준으로 임플란트 시술 행위수가는 1개당 약 101만3000원, 치료재료 수가는 약 13만~27만원이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결정했다. 치과의원에서 가장 보편적인 치료재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환자 부담은 1개당 6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플란트 시술 가격은 1개당 139만~180만원 선이다. 복지부는 올해 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br/><br/>건정심은 6월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도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은 현재 환자부담금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개는 검사 종류에 따라 14만~34만원에서 1만6000~6만원으로 저렴해진다. 부정맥 환자를 시술할 때 사용되는 ‘3차원 빈맥 지도화’의 환자 비용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건정심은 환자들의 수요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도 비용의 20~50%까지만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선별급여를 7월 실시하기로 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4.txt

제목: 암 투병 40대 시각장애인 ‘재활의 레이스’ 나서  
날짜: 20140513  
기자: 박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3100000121  
본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과 동반주자 60여명이 마라톤대회에 출전, ‘아름다운 동행’의 레이스를 펼친다.<br/>‘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 클럽 소속 장애인 마라토너들과 자원봉사 동반주자들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에 출전한다고 12일 밝혔다. <br/>대회에는 풀코스 42.195㎞에서 2시간59분의 기록을 보유한 한국 장애인 마라톤 1인자 이철성씨(48)가 참가한다. <br/>이씨는 시각 및 청각 복합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국체전 육상 4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그는 올해 2월 대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각종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재활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br/>여성 동반주자인 김영아씨(40·외환은행 안전관리실 대리)는 이번 대회에서 이씨의 눈과 귀가 되어 레이스를 이끈다. 김씨는 국내 수많은 마라톤대회에서 여자부 1위를 차지한 마라토너다. 김인수씨(55·경향신문 편집부 부장)는 보조 동반주자로 이들과 함께 달린다.<br/>신신제약(부회장 김한기·사진)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들과 동반주자들을 이 대회에 초청했다. 한강서울마라톤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 5㎞로 나눠 열린다. 참가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인터넷(www.hangangseoul.co.kr)에서 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5.txt

제목: [이필상의 내 인생의 책](2)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일어서라, 절망 없는 삶은 없다  
날짜: 20140513  
기자: 이필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3100000203  
본문: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장영희<br/>누구에게나 절망은 찾아온다. 절망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고통 속에 슬픈 삶을 산다. 고 장영희 교수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절망 앞에 여러 번 선다. 그러나 모든 절망을 거부한다. 그리고 희망으로 바꿔 기적의 삶을 산다. 그 찬란한 삶의 궤적을 글로 남겨 놓은 것이 장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다.<br/>1984년 여름, 장 교수는 미국 유학 6년 만에 마무리지어 심사만 남겨 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차에서 도둑맞는다. 앞이 안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이렇게 외친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래, 살아 있잖아. 논문쯤이야.” 그리고 훗날 이 일을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서는 것이 편하다는 교훈을 배운 일이었다”고 회상한다.<br/>장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린다. 어머니는 10년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업고 침술원에 다닌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 저자는 밝고 착한 1급 장애인으로 산다.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 영문학자의 길을 택한다.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딴 뒤 꿈에 그리던 모교 교수로 부임한다. 제자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예기치 못한 불행에 좌절해 넘어진 제자에게 ‘사람은 누구나 불운을 나타내는 검은 돌과 행운을 나타내는 흰 돌이 똑같이 든 운명자루를 들고 다니는데 좌절을 겪는 것은 검은 돌을 먼저 꺼낸 것뿐이라며 더 큰 몫의 행복이 기다린다’고 마음의 편지를 쓴다.<br/>그러나 아름다운 삶도 잠깐, 다시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다가선다. 온몸으로 퍼지는 암에 걸린다. 그는 다시 당당히 맞선다. 그리고 1차 투병에 성공한다. 그러나 암은 재발의 절망을 안긴다. 그래도 장 교수는 굽히지 않고 기적을 꿈꾼다. 병이 악화돼 침대 난관을 붙들고 버티면서도 죽음에 임할 때까지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쓴다. 누가 삶이 괴롭다고 하나. 누가 삶이 싫다고 하나. 장 교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6.txt

제목: [심층기획 - 한국사회의 민낯 ‘세월호’]국가안전처는 ‘즉흥적 처방’… 제 기능 못한 조직 진단부터  
날짜: 20140513  
기자: 최승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3100000183  
본문: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재난관리 부처인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은 대형 사고 뒤 나오는 ‘즉흥적 메뉴’라는 반응이다.<br/>김겸훈 국가위기관리학회 재난관리연구위원(55)은 12일 “<span class='quot0'>이번 사고를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먼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49·전 국가위기관리학회장)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원인과 초기대응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span>”고 말했다.<br/>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현장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난관리와 대응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지휘자에게 역할과 기능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br/>김 위원은 “<span class='quot2'>책임은 현장에 지우면서 지휘와 명령, 권한은 재난관리 부처가 갖게 될 경우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중앙정부가 국가안전처를 통해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과제도 있다. 한 재난전문가는 “현재 소방공무원은 모두가 지방직이다. 여야로 편이 갈린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재난 구조 장비 도입은 물론 교육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경찰처럼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야만 대형 재난에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재난 부서를 총리실 산하로 편제하는 것에도 우려가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안전행정부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지휘통제가 가능한 것은 지방특별교부세 등 재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재난안전 부서만 뚝 떼어 총리실 산하로 옮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말을 들을지 의문</span>”이라고 말했다.<br/>김 위원은 “<span class='quot2'>지금 상황은 병명이 암이니까 수술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부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된 진단이 나와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7.txt

제목: 암 투병 시각장애인들, '재활의 레이스' 나서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210014225823  
본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과 동반주자 60여명이 마라톤대회에 출전, ‘아름다운 동행’의 레이스를 펼친다.<br/><br/>‘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 클럽 소속 장애인 마라토너들과 자원봉사 동반주자들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에 출전한다고 12일 밝혔다.<br/><br/>대회에는 풀코스 42.195km에서 2시간59분의 기록을 보유한 한국 장애인 마라톤 1인자 이철성씨(48)가 참가한다. 이씨는 시각 및 청각 복합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국체전 육상 4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그는 올해 2월 대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각종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재활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br/><br/>여성 동반주자인 김영아씨(40·외환은행 안전관리실 대리)는 이번 대회에서 이씨의 눈과 귀가 되어 레이스를 이끈다. 김씨는 국내 수많은 마라톤대회에서 여자부 1위를 차지한 마라토너다. 김인수씨(55·경향신문 편집부 부장)는 보조 동반주자로 이들과 함께 달린다.<br/><br/>신신제약(부회장 김한기·사진)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들과 동반주자들을 이 대회에 초청했다. 한강서울마라톤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로 나눠 열린다. 참가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인터넷(www.hangangseoul.co.kr)에서 할 수 있다.<br/><br/><br/><br/><br/><여론독자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8.txt

제목: [이필상의 내 인생의 책](2)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일어서라, 절망 없는 삶은 없다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210014232309  
본문: <b>▲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장영희</b><br/><br/>누구에게나 절망은 찾아온다. 절망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고통 속에 슬픈 삶을 산다. 고 장영희 교수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절망 앞에 여러 번 선다. 그러나 모든 절망을 거부한다. 그리고 희망으로 바꿔 기적의 삶을 산다. 그 찬란한 삶의 궤적을 글로 남겨 놓은 것이 장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다.<br/><br/>1984년 여름, 장 교수는 미국 유학 6년 만에 마무리지어 심사만 남겨 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차에서 도둑맞는다. 앞이 안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이렇게 외친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래, 살아 있잖아. 논문쯤이야.” 그리고 훗날 이 일을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서는 것이 편하다는 교훈을 배운 일이었다”고 회상한다.<br/><br/>장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린다. 어머니는 10년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업고 침술원에 다닌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 저자는 밝고 착한 1급 장애인으로 산다.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 영문학자의 길을 택한다.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딴 뒤 꿈에 그리던 모교 교수로 부임한다. 제자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예기치 못한 불행에 좌절해 넘어진 제자에게 ‘사람은 누구나 불운을 나타내는 검은 돌과 행운을 나타내는 흰 돌이 똑같이 든 운명자루를 들고 다니는데 좌절을 겪는 것은 검은 돌을 먼저 꺼낸 것뿐이라며 더 큰 몫의 행복이 기다린다’고 마음의 편지를 쓴다.<br/><br/>그러나 아름다운 삶도 잠깐, 다시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다가선다. 온몸으로 퍼지는 암에 걸린다. 그는 다시 당당히 맞선다. 그리고 1차 투병에 성공한다. 그러나 암은 재발의 절망을 안긴다. 그래도 장 교수는 굽히지 않고 기적을 꿈꾼다. 병이 악화돼 침대 난관을 붙들고 버티면서도 죽음에 임할 때까지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쓴다. 누가 삶이 괴롭다고 하나. 누가 삶이 싫다고 하나. 장 교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br/><br/><이필상 | 유한재단 이사장·전 고려대 총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29.txt

제목: [깐깐한 Mr.심의 피부돌직구] 자외선은 우리아이 건강지킴이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2100000007  
본문: 자외선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꼭 당부를 드리고 싶다.<br/><br/>최근에는 이른바 피부전문가라는 분들이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 때부터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일부는 자외선을 적대시하는 문화로 인해 긴 옷과 모자로 온몸을 꽁꽁 싸매도록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것도 모자라 자외선 차단 의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br/><br/>이는 어린아이들에게 햇빛 기피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발 자라나는 아이들은 생명의 원천인 태양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자. <br/><br/>자외선 기피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미국역학저널에 의하면, 10대 시절 적어도 하루 3시간 이상 자외선에 노출된 여성이 하루 평균 1시간 이하로 자외선에 노출된 여성에 비해 암 발생 가능성이 29% 적다고 한다. 모든 메커니즘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렇듯 태양의 가시광선뿐 아니라 자외선조차 우리에게 필수적인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br/><br/>1980년대 자외선 차단 크림이 국내에 상륙했을 때 사용법은 여름 땡볕에 해변으로 놀러갈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로 오면서 여성을 타깃으로 피부 미용을 위해 매일매일 사용해야만 한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실내에서도 자외선이 검출되기 때문에 야외에 있건 실내에 있건 모든 상황에서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을 바르고 수시로 덧바르라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기초화장품에 기본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굳이 선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더라도 웬만한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이 이미 자외선 차단제다.<br/><br/>이처럼 자외선을 차단하는 각종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평소에 받았던 자외선의 양이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해서일까? 아니다. 증가한 것은 화장품 회사의 선크림 매출일 뿐이다. 결국 화장품 회사들의 매년 성장해야 하는 매출 성장 논리 때문에 자외선의 유해한 측면만이 과장되면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전혀 없는 백인과는 달리, 자외선을 자유자재로 차단하는 능력을 타고난 우리가 필요도 없는 선크림을 남용하는 것이다.<br/><br/>가시광선뿐 아니라 자외선도 인체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된다. 과도한 위생습관이 피부질환의 한 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일상적인 자연의 요소를 더러움으로 인식해 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과도한 세정으로 접촉성피부염을 유발하고, 또한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각종 피부염과 알레르기·비염 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자외선도 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br/><br/>진화론을 믿는다면 인류가 수백만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외선 양에 맞추어 각자의 피부색을 진화시켜 왔음을 인지하자. 또 창조론을 믿는다면 조물주께서 인류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인체를 만들어 주셨음을 믿어보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0.txt

제목: 대기업 총수들 ‘건강주의보’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210014231137  
본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2)이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건강 문제가 재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고령으로, 또 다른 일부 총수들은 형사사건 연루 등 각종 경영 악재를 겪으면서 건강이 나빠져 해당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br/><br/>12일 재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9)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2)은 암으로 투병 중이다. 2010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은 조 회장은 최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20년 넘게 앓아 온 심장 부정맥 증상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2011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이 전 회장은 3년째 병석에 누워 있고, 간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br/><br/>수감생활을 겪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출소 이후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 한 달여간 머물다가 최근 귀국한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수감생활 중 만성 폐질환과 당뇨가 악화되고 우울증과 섬망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br/><br/>CJ그룹 역시 총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 회장(54)은 운동 및 감각신경이 손상하면 생기는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아 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계속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고 있으며 그 사이 체중도 10㎏ 이상 빠졌다.<br/><br/>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76)은 지난 3월 유럽과 중국 출장을 연이어 다녀오는 등 대내외 활동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건강이 그만큼 괜찮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 회장도 2010년쯤 국내 한 종합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뒤 심장에서 점액종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비자금 사건으로 수감돼 2개월 만에 풀려났을 때도 협심증과 고혈압 진단 등이 나온 바 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1.txt

제목: [심층기획 - 한국사회의 및난 ‘세월호’](1) 몸·마음·눈으로 세월호를 겪은 8인이 말하는 ‘안전’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2100000119  
본문: 1. 안산 고교 교사<br/>“<span class='quot0'>주입식 교육 위기대처 한계… 학교 안전교육은 형식적</span>”<br/><br/>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 2명을 잃은 경기 안산 모 고교 ㄱ교사(43)는 11일 “<span class='quot1'>학교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잘못돼 애꿎은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됐다</span>”고 말했다. ㄱ교사는 “<span class='quot1'>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1차 원인은 선박과 정부의 잘못된 구조 시스템이지만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학교와 사회의 책임도 크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정상적인 판단에 따른다면 그런 상황에서 선실에 가만있지 말고 뛰쳐나왔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얌전히 기다렸을 뿐 스스로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span>”고 말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교육 대신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렸다는 뜻이다. <br/><br/>학교 안전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ㄱ교사는 “<span class='quot1'>연 2회 정도 지진 대비훈련과 화재 대비훈련을 하지만 교사들은 자료제출용 사진 찍기에 바쁘고, 아이들은 웃고 대화하며 천천히 걸어나오는 것이 현실</span>”이라고 말했다. <br/><br/>ㄱ교사는 “<span class='quot1'>그러나 학교에서 모든 안전교육을 다 할 수는 없다</span>”며 사회안전 분담 시스템을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전문기관 등이 재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치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학교에서 하는 교육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예를 들어 무의미한 신입생 수련회, 방학 중 봉사활동 점수를 없애고 소방서나 재난구조시설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분담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br/><br/>그는 “<span class='quot1'>현행 최저가 수학여행 입찰 방식으로는 업체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구조</span>”라면서 “<span class='quot1'>학교와 업체의 ‘검은 커넥션’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ㄱ교사는 “<span class='quot1'>잘못된 관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span>”고 했다. 그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교사들이 보고하는 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들이 직접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불만족 업체는 퇴출되고, 잘못된 관행도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br/><br/><안산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br/><br/><br/>2. 어업지도선 항해사<br/>“<span class='quot0'>실적 위해 단속한 점 반성… 지도의 중요성 깨달았다</span>”<br/><br/>세월호에서 80여명의 승객을 구조한 전남도 어업지도선 201호 박승기 항해사(44)는 11일 “대참사의 시작이 안전을 무시한 돈벌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br/><br/>박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사고 해역에서 40㎞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하다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전속력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16분간 80여명의 승객을 구조했다. 박씨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는 당시 긴박한 상황을 고스란히 담았다.<br/><br/>수십명의 목숨을 살렸지만 박씨는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세월호 창문에 어른거렸던 주황색 구명조끼가 자꾸 떠올랐다. 박씨는 “<span class='quot2'>애원과 원망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조되는 것을 바라봤을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다</span>”고 했다. 그는 구조 장면이 담긴 영상을 10번이나 다시 봤다. “<span class='quot0'>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span>” 후회가 되고 또 후회가 됐다. <br/><br/>박씨는 “<span class='quot2'>대형 선박은 기울더라도 5시간 정도는 물 위에 떠 있기 마련인데 순식간에 침몰했다</span>”며 “<span class='quot2'>그 이유가 ‘상식을 넘어선 과적’이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안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선사가 화물운송 수입보다 사람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기관이 규정대로 점검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span>”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박씨는 “<span class='quot2'>지도선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법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실적을 위해 단속에만 열을 올렸다</span>”며 “<span class='quot2'>이런 점부터 고쳐야겠다는 반성이 들었다</span>”고 말했다. 어민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선박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당직 선원’을 지정한 뒤 쉬도록 지도하는 것이 단속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과 세 살인 자매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문화가 꼭 정착돼야 합니다.”<br/><br/><진도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br/><br/><br/>3. 민간 잠수사<br/>“<span class='quot0'>2인 1조 잠수 방식으론 효율적인 구조 어려워</span>”<br/><br/>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장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심현산씨(52·사진)는 “현재 2인 1조로 잠수하는 방법이 세월호 구조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수사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br/><br/>사고 해역에서 동료 잠수사들과 함께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던 심씨는 “2인 1조로 수색할 때 선체에 진입한 잠수사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보조 잠수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조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하지만 4~5명을 1개조로 편성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선체 수색담당 잠수사에게도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3명 정도가 선체에 진입해 2명이 1명의 수색담당 잠수사를 보조하고, 나머지 1명은 선체 밖에서 대기하는 게 심씨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그 이유로 심씨는 “숙련된 잠수사라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선체 내 좁은 공간에서 수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받는 긴장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 “동료가 뒤에서 보조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실제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4~5명을 1개조로 투입할 경우 구조작업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br/><br/>그는 현재 구조팀이 사용하고 있는 표면공기공급장비(후까)의 안전성도 문제로 꼽았다. 심씨는 “후까로는 공기공급호스의 꼬임 문제나 고장 등에 따른 대비책이 없어 목숨을 걸고 잠수해야 상황”이라면서 “잠수사가 휴대용 표면공기공급장비를 이용할 경우 선체 입구에 공기통을 벗어놓고 공기공급호스를 풀어가며 수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수색 참여 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잠수사의 안전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잠수사들에게 구조가 유사한 배를 직접 타보게 한 뒤 도면과 비교해 선체 내부를 머릿속에 그리게 하는 작업도 안전사고를 줄이고 수색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br/><br/><진도 |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br/><br/><br/>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br/>“<span class='quot0'>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 파견직 태반이 비전문가</span>”<br/><br/>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16일 중앙부처 공무원 ㄱ씨가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글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업무 지원을 위해 중대본에 파견된 ㄱ씨는 “<span class='quot3'>컨트롤타워도 없었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었다</span>”고 말했다.<br/><br/>사고 당일 오전 중대본 상황실은 공무원과 기자 수십명, 방송카메라 등이 뒤엉켜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상황실은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부처 대책을 조율·점검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런 일이 처음인 듯 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허둥거렸다. 관련 부처에서 중대본으로 파견된 공무원들도 비전문가가 태반이었다.<br/><br/>중대본은 오후에 취재진을 브리핑실로 옮기게 해 상황실을 일부 정리했다. 그러나 사고 수습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계속 우왕좌왕했다. 중대본 차장인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시각, 사고 해역 수심, 잠수사 선체 진입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br/><br/>ㄱ씨는 “사고 초기 정부의 대언론 창구가 중대본과 해경으로 이원화돼 혼선을 빚고, 중대본이 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게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재난 발생 후 조속히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사고 수습·대책, 언론 브리핑 업무를 일임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뒤늦게 진도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해 사고 수습과 언론 브리핑을 넘겼다.<br/><br/>ㄱ씨는 “재난대응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지휘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라며 “모두 ‘위’만 쳐다보고 지시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데 대해 무기력함과 비감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br/><br/><br/>5. 팽목항 자원봉사 약사<br/>“<span class='quot0'>있는 법도 안 지켜서 문제 반드시 지키게 강제해야</span>”<br/><br/>팽목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용씨(43·약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해운업계의 안전 실태와 정부의 사고 예방 점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span>”이라고 분노했다. 이씨는 사고 후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부터 팽목항 대한약사회 자원봉사자 부스를 지키고 있다.<br/><br/>진도대교 부근에 사는 그는 약사인 부인에게 약국을 맡기고 매일 팽목항을 출퇴근했다. 처음 팽목항에 왔을 땐 생각보다 필요한 약이 많았다. 두통약, 감기약에 신경이 곤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들은 안대와 귀마개도 요청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진정제였다. 유가족들은 이씨를 찾아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 가족들은 신원 미상의 시신이 수습된 후 신원을 확인하러 갈 때마다 진정제를 찾았다. 잠수사들도 다르지 않았다.<br/><br/>이씨는 “<span class='quot4'>물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잠수사 중에서 진정제를 찾는 분들이 많다</span>”고 말했다. 안전사고는 실종자 가족과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br/><br/>이씨는 안전을 지키는 규정은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span class='quot4'>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면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4'>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겠는가</span>”라고 했다. 이씨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력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별개로 사복 차림의 정보계 경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차벽을 쌓듯 이곳에선 사람 벽을 쌓았다”며 “가족들이 항의를 하거나 큰소리를 내면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둘러싸거나 사진을 찍었다. 시민들의 안전 치안 문제와 무관했다”고 말했다.<br/><br/><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br/><br/><br/>6. 해수부 주무관<br/>“<span class='quot0'>선박 규제 완화 막지 못한 공무원으로서 죄스러워</span>”<br/><br/>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ㄱ주무관은 11일 “<span class='quot5'>해수부 직원이라는 게 죄스럽다</span>”고 말했다. 5년 전 선박 안전 규제를 풀라는 지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 당시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전 규제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들이 많았지만 규제는 풀리고 말았다. 그는 “<span class='quot5'>위에서 선박 선령 규제 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을 때 현장에 있던 우리가 좀 더 버텼어야 했다</span>”고 말했다.<br/><br/>결국 일본에서 들여온 낡은 세월호에서 사고가 터졌다.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데다 과적으로 복원성을 잃었다. 검사·감독 책임이 있는 해수부와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은 세월호의 불법 관행에 눈감았다. 그는 “<span class='quot5'>해운조합, 한국선급이 해수부 고위직을 데려가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가 돼주고 중앙부처와 연결고리가 되어달라는 것인데 검사·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span>”고 반문했다. <br/><br/>그는 “해수부 내에서는 인사적체가 있어 다들 선배들이 나이 들면 나가주기를 바란다. 퇴직하는 국·실장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감각으로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 해양 관련 단체에 가서 일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며 “하지만 고위공무원들은 해수부를 떠나면 이들 단체의 방패막이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5'>관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span>”는 지적도 했다. 해수부 산하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직원은 24시간씩 3교대하는 데다 직급도 낮아 다들 기피하는 업무다. 최근 해수부 노조에서는 VTS 관제 직원들이 강한 전자파로 인해 암 발생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br/><br/>그는 “<span class='quot5'>이번 참사에서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VTS의 관제 소홀이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수부가 관리하는 VTS도 불씨를 안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관제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span>”고 말했다.<br/><br/><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br/><br/><br/>7. 팽목항 경찰관<br/>“<span class='quot0'>한 부서가 모든 책임 지게 일원화된 체계 만들어야</span>”<br/><br/>전남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김창길 경위(51)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실종자 가족 지원과 교통 등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다. 김 경위는 이번 사고를 접하고 “안전이란 사고 이후 책임규명과 사법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일원화된 책임 소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용한 시골 항구 팽목항을 관할하는 임회파출소는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바쁜 파출소가 됐다. 김 경위는 직원 1명과 함께 이곳을 지키고 있다. 사건 당일 가장 먼저 팽목항으로 출동한 것도 그였다. <br/><br/>김 경위는 항구에서 본 사고 현장을 “안타까움의 연속”이라고 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항구로 구조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희생자 가족들은 갈아입히려고 들고 온 옷가지와 신발을 움켜쥐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생과 고교생 등 3남매를 둔 김 경위는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울며 형과 오빠의 이름을 부르는 실종자 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땐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br/><br/>김 경위는 “공무원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다 들어 있다”며 “그런 것들이 합쳐져 대형사고로 터졌다”고 했다. 또 “사고 초기에 우왕좌왕한 정부 당국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아쉬웠다”며 “그토록 사람들이 많이 탄 큰 배가 운항하는데, 어떤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어떤 부분은 안전행정부가 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총괄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없어 보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보다 명확한 책임 부서 구축이 안전의 기본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김 경위는 “배가 출항하기 전부터 도착 때까지 한 부서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미리 전문성 있게 관리하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br/><br/><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br/><br/><br/>8. 현장 취재기자<br/>“<span class='quot0'>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 계기가 되길</span>”<br/><br/>지난달 16일 심하게 기울어진 세월호를 보면서 진도로 출발했다. 승객 대부분은 구조될 줄 알았다. 하루 이틀이면 서울로 돌아올 줄 알고 옷도 딱 1벌만 챙겼다. 나의 안일했던 생각은 진도체육관과 진도한국병원에서 가족들의 절규를 접하는 순간 무참히 깨졌다. 19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TV로 봤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떠올랐다.<br/><br/>무리한 증축과 평형수 빼내기로 복원력이 약해졌다는 선원들의 보고를 묵살한 청해진해운 경영진과 수시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다 사고 당일 직원이 붕괴 조짐을 보고했는데도 묵살하고 영업을 강행한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판박이였다. 적정 화물량의 3배를 실은 세월호와 어려운 기상에 정원을 훨씬 초과해 승객을 태웠다가 침몰한 서해훼리호는 너무도 닮았다.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선원들과 배를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마스터키를 뽑고 도망쳐 승객들을 대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 대구지하철 기관사도 닮았다. 선장과 기관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자기 살기에 바빴다.<br/><br/>한국 사회에서 위험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지독하게 무능했다. 구조 체계도 주먹구구였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을 각자도생해야 했다. 위기와 맞닥뜨릴 때 삶과 죽음을 가른 것은 매뉴얼이나 정부의 구조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이었다. 이것이 기자가 팽목항에서 확인한 ‘재난사회’ 한국의 현실이었다.<br/><br/>지난 4일 기자가 탑승한 인천 강화도와 석모도를 수시로 오가는 여객선은 관광객들과 이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만원이었다.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방송은 없었다. 배에 실린 관광버스, 트럭, 승용차들은 침몰에 대비한 고박이 이뤄지지 않았다. <br/><br/>끝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친 아이들의 안타까운 절규를 다시 듣지 않으려면 ‘돈보다 생명’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r/><br/><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2.txt

제목: 의약계, "이건희 회장 신이 살렸다"  
날짜: 2014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110014218966  
본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2·사진)이 급작스런 건강 이상 상황을 맞았으나 의료진의 긴급 조치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 회장은 지난 10일 밤 11시쯤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 회장은 곧바로 인근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br/><br/>■심장 스텐드 시술받고 인공심페기 도움 받아<br/><br/>초기 응급조치 덕분에 심장기능 상태가 안정을 찾은 이 회장은 한시간쯤 뒤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지 삽관을 한 채였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이 회장은 이송 직후 막힌 심장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Stent) 삽입 시술’을 받았다.<br/><br/>시술을 마친 이 회장은 11일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장비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다. 이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장비다. 환자의 정맥에서 혈액을 체외로 빼내 다시 환자의 정맥이나 동맥으로 주입하는 기능을 한다. <br/><br/>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 회장의) 심장기능이 호전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약물 및 수액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경과가 좋아 에크모를 곧 뗄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자가 호흡 상태로 돌아왔고 회복 중이어서 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삼성그룹 측도 “<span class='quot1'>이 회장이 현재 시술 후 안정된 상태로 회복 중</span>”이라고 밝혔다.<br/><br/>이 회장의 심장 이상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심야에 호흡 곤란 증세가 찾아왔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삼성그룹 관계자의 설명이다.<br/><br/>■당분간 병원서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듯<br/><br/>심근경색은 돌연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국내에서는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고, 심장 근육의 조직과 세포가 괴사하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 보통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실신 등 증상을 동반한다.<br/><br/>이번 심근경색 증상을 놓고 그동안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회장은 1982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다. 또 2000년초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폐 림프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사 권유로 매년 겨울이면 하와이 등 기후가 따뜻한 해외에서 지내왔다.<br/><br/>이 회장은 지난해 8월 폐렴으로 열흘 정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료진은 이 회장의 폐 림프암이나 기관지염 등과 이번 심근경색 사이에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급성 심근경색 발생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뚜렷한 징후가 없었다”고 답했다.<br/><br/>일단 ‘비상 사태’는 넘겼지만 이 회장이 고령인데다, 증상이 다소 심각해 삼성그룹은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이날 후유증, 향후 정상적인 집무 수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span class='quot2'>아직 판단하기 이른 점이 있지만 순천향대병원에서 초기 응급 치료가 매우 잘 됐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관련 시술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심장 마비 증세에 따른 뇌 손상 여부도 “초기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br/><br/>통상적인 심근경색 치료과정을 감안할 때 이 회장은 상당 시일을 병원에서 보내며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예상 입원기간에 대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나”고 말했다.<br/><br/><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3.txt

제목: [책과 삶]김석철의 인생 70년·도시설계 50년  
날짜: 2014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10100000012  
본문: 시인 고은은 그를 가리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대지를 가슴에 품어야 하는 들짐승’이라고 표현했다. 건축가이자 도시설계가인 김석철을 두고 한 말이다. 그에게 세계적 도시설계가라는 명성을 안겨준 쿠웨이트 자흐라 신도시에서 스스로 대표작으로 꼽는 중국 취푸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김석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 건축계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김중업과 김수근의 문하에서 수학한 유일한 건축가로도 유명하다.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대표인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br/>그러나 그는 논쟁적인 건축가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예술의전당이 그렇다. 예술의전당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을 살린 문화공간으로 평가되는 한편 시민을 등지고 예술을 품지 못한 실패한 공간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br/><도시를 그리는 건축가>는 대담 형식을 띠었지만 자서전이라 할 수 있다. 김석철은 자신의 70여 평생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길 원했다. 탄생부터 유년, 청년시절, 서울대 건축과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건축 인생 등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대담자 오효림은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추임새 넣듯 던져 이야기의 맥을 이어간다. 김석철은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고 정릉 집에서 3년간 칩거한 1967~1970년을 자신의 첫 번째 황금기로 꼽는다. 이 기간 <건축의 논리> <도시설계의 수사학> 등을 집필하며 건축과 도시설계 인생의 이론적 토대를 다졌다. 이때의 몰입은 두 전시회 ‘건축의 방법’ ‘서울 비전 플랜 1970’ 등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br/>1978년 대학로에 아키반 스튜디오를 짓고 예술의전당과 중동 신도시를 설계하던 15년여간은 그가 ‘광장에 서 있던’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애초 그의 꿈은 이름을 떨치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건축과 도시작업을 통해 보다 궁극적인 문화인프라의 스페이스 매트릭스를 만들고자 했다.<br/>그는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했던 정릉 칩거시절 ‘현대건축’ ‘건축사’ 등 건축전문지 창간작업을 했다. 젊은 건축가들이 해외건축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7년간 매달 30명과 함께 전통건축기행을 다니기도 했다. 책에는 그가 대규모 현상공모에 연달아 떨어진 실패담이나 암투병기 등도 나와 있다. 두 차례의 암수술과 30회의 방사선치료를 받는 와중에 그가 완성한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프로젝트는 김석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등 5개 나라가 함께 다국적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4.txt

제목: [건강]인종별 암 위험 요소·예방 정보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9100000004  
본문: 암 예방·역학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유근영 교수(예방의학)의 <사진으로 보는 암 예방>(사진)이 출간됐다. 세계 여러 인종의 건강 행태와 외국인에게만 특이하게 관찰되는 암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현장 설명과 함께 보여준다. 각국을 다니며 저자가 직접 촬영한 자료 사진들은 다양한 암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문사회학적 자료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유병자 급증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차 예방에 국가 정책을 집중하고 개인의 암 예방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3만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5.txt

제목: [건강]아침만 굶으면 되는 당일 대장내시경 밤새워 설사약 먹는 고역 없이 검사  
날짜: 20140509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9100000007  
본문: 대장암 예방과 조기 진단의 가장 확실한 안전벨트는 대장내시경이다. 장을 비운 후 항문을 통해 내시경 기기를 삽입, 대장의 용종이나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br/>하지만 장을 비우는 과정이 힘들고 복잡해 검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장 세정제(일명 설사약)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기 전 장을 비우기 위해 설사를 유도하는 약물이다. 보통 2ℓ가량의 물과 함께 밍밍하고 미끌미끌한 장 세정제를 검사 전날 밤 1시간 가까이에 걸쳐 마시고 설사를 몇 차례 한 뒤, 다음날 새벽에도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한다. 무려 4ℓ의 약물을 복용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참기 어려운 불쾌감, 구역감, 복통,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장 세정제 복용에 실패해 검사를 아예 포기하는 일까지 생긴다.<br/>비에비스 나무병원 홍성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설사약을 먹지 않는 당일 대장내시경은 피검사자들의 사전 준비과정에서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둘 다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br/>설사약을 먹지 않는 당일 대장내시경의 경우,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때 내시경을 통해 소장 입구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 장 세정제 복용의 불쾌감이나 고통을 줄여준다. 장 세정제를 구강으로 복용한 후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 세척이 되려면 5시간가량 걸리지만, 소장에 직접 투입하면 그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br/>아침만 굶고 오면 당일에 진료-장 세정-검사-결과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위내시경을 끝내고 병실에서 2~3시간 쉬면서 장을 비운 뒤 다시 대장내시경을 한다. 하지만 무료 병실을 갖춘 곳이 아니면 시행이 어렵고 수면마취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6.txt

제목: [책과 삶]김석철의 인생 70년·도시설계 50년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910014213309  
본문: <b>▲ 도시를 그리는 건축가…김석철·오효림 대담 | 창비 | 476쪽 | 2만3000원</b><br/><br/>시인 고은은 그를 가리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대지를 가슴에 품어야 하는 들짐승’이라고 표현했다. 건축가이자 도시설계가인 김석철을 두고 한 말이다. 그에게 세계적 도시설계가라는 명성을 안겨준 쿠웨이트 자흐라 신도시에서 스스로 대표작으로 꼽는 중국 취푸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김석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 건축계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김중업과 김수근의 문하에서 수학한 유일한 건축가로도 유명하다.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대표인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br/><br/>그러나 그는 논쟁적인 건축가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예술의전당이 그렇다. 예술의전당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을 살린 문화공간으로 평가되는 한편 시민을 등지고 예술을 품지 못한 실패한 공간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br/><br/><도시를 그리는 건축가>는 대담 형식을 띠었지만 자서전이라 할 수 있다. 김석철은 자신의 70여 평생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길 원했다. 탄생부터 유년, 청년시절, 서울대 건축과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건축 인생 등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대담자 오효림은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추임새 넣듯 던져 이야기의 맥을 이어간다. 김석철은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고 정릉 집에서 3년간 칩거한 1967~1970년을 자신의 첫 번째 황금기로 꼽는다. 이 기간 <건축의 논리> <도시설계의 수사학> 등을 집필하며 건축과 도시설계 인생의 이론적 토대를 다졌다. 이때의 몰입은 두 전시회 ‘건축의 방법’ ‘서울 비전 플랜 1970’ 등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br/><br/>1978년 대학로에 아키반 스튜디오를 짓고 예술의전당과 중동 신도시를 설계하던 15년여간은 그가 ‘광장에 서 있던’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애초 그의 꿈은 이름을 떨치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건축과 도시작업을 통해 보다 궁극적인 문화인프라의 스페이스 매트릭스를 만들고자 했다.<br/><br/>그는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했던 정릉 칩거시절 ‘현대건축’ ‘건축사’ 등 건축전문지 창간작업을 했다. 젊은 건축가들이 해외건축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7년간 매달 30명과 함께 전통건축기행을 다니기도 했다. 책에는 그가 대규모 현상공모에 연달아 떨어진 실패담이나 암투병기 등도 나와 있다. 두 차례의 암수술과 30회의 방사선치료를 받는 와중에 그가 완성한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프로젝트는 김석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의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등 5개 나라가 함께 다국적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br/><br/><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7.txt

제목: 김원종 교수팀, 암세포만 골라 항암제 방출하는 시스템 개발  
날짜: 20140509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9100000052  
본문: 기초과학연구원은 8일 김원종 교수(41·포항공대 화학과·사진)와 경북대, 미국 워싱턴대 공동 연구진이 암세포만 골라 항암제를 방출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8일 실렸다.<br/>현재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체내에서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단점도 있다. 피부발진, 탈모 같은 증상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최근 ‘마이셀’이라는 초소형 캡슐에 항암제를 담아 암세포에만 전달되는 항암제도 등장했지만 암세포에 전달되기 전 혈액순환 과정에서 약물이 방출되어 버리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br/>김 교수팀은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항암제 파클리탁셀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물질에 강하게 결합하는 사실에 착안했다. 이 특성을 응용해 나노(10억분의1m) 크기인 사이클로덱스트린의 내부 공간에 파클리탁셀을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물전달 나노 구조체 표면에 암세포 표적물질을 투입, 혈액 속을 안정적으로 순환하다가 암세포 내부로 들어갈 때만 항암제를 선택적으로 방출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했다.<br/>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실제 약물전달 나노 구조체가 암세포를 만났을 때만 내부 항암제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간편하게 약물전달 나노 구조체를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항암제 개발에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8.txt

제목: [포토뉴스]컴퓨터로 재현한 ‘우주의 형성’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9100000083  
본문: 컴퓨터로 재현한 우주의 형성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의 공동연구<br/>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빅뱅 이후 우주의 형성 과정을 재현한연구결과를 7일 과학전문지 네이처를 통해 공개했다.<br/>위 사진은 우주를 구성하는 미지의 존재인 암흑물질에서 가스가 생성되는 모습이며,아래는 성단( )이 형성되는 모습이다.<br/>암흑 물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진화 시뮬레이션에서 현재와 거의 비슷한 우주가 만들어졌지만 암흑 물질을 제외하자 지금과 다른 모습이 나타<br/>났다.<br/>이는 별과 은하계가 암흑물질의 작용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시켜준 것으로,현재의 우주 생성 이론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고 BBC방송 등은 전했<br/>다.<br/>AP 연합뉴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39.txt

제목: 김원종 교수팀, 암세포만 골라 항암제 방출하는 시스템 개발  
날짜: 2014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810014203631  
본문: 기초과학연구원은 8일 김원종 교수(41·포항공대 화학과·사진)와 경북대, 미국 워싱턴대 공동 연구진이 암세포만 골라 항암제를 방출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8일 실렸다.<br/><br/>현재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체내에서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단점도 있다. 피부발진, 탈모 같은 증상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최근 ‘마이셀’이라는 초소형 캡슐에 항암제를 담아 암세포에만 전달되는 항암제도 등장했지만 암세포에 전달되기 전 혈액순환 과정에서 약물이 방출되어 버리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br/><br/>김 교수팀은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항암제 파클리탁셀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물질에 강하게 결합하는 사실에 착안했다. 이 특성을 응용해 나노(10억분의1m) 크기인 사이클로덱스트린의 내부 공간에 파클리탁셀을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물전달 나노 구조체 표면에 암세포 표적물질을 투입, 혈액 속을 안정적으로 순환하다가 암세포 내부로 들어갈 때만 항암제를 선택적으로 방출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했다.<br/><br/>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실제 약물전달 나노 구조체가 암세포를 만났을 때만 내부 항암제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간편하게 약물전달 나노 구조체를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항암제 개발에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0.txt

제목: 문학과 그림의 만남… ‘이어령 김병종전’과 ‘영희와 점선전’이 빚어내는 생명과 위로  
날짜: 20140507  
기자: 정원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7100000076  
본문: 문학과 그림의 만남을 통해 생명과 위로를 말하는 두 개의 시화전이 열린다. <br/>서울 종로구 평창동 영인문학관에서는 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생명 그리고 동행-이어령 김병종전’을 연다. ‘생명 그리고 동행’전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80)과 에세이스트로도 유명한 김병종 서울대 미대 교수(61)의 만남이다. 이 전 장관이 ‘생명’을 주제로 쓴 생명시 10편과 김 교수의 ‘생명의 노래’ 연작 20여점이 어우러진다. <br/><br/>생명은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다. 이 전 장관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노쇠한 자본주의 문명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으로 생명자본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해오고 있다.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자본주의’를 ‘생명을 위한, 생명에 의한, 생명의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간된 <생명이 자본이다>는 그동안의 사유를 집약한 책이다. 김 교수는 1989년 연탄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후 생명을 화두로 한 작업을 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해 겨울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김병종 30년, 생명을 그리다’를 열었는데 이 전 장관이 당시 기념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어린 시절 이 전 장관이 1960년대에 쓴 에세이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를 화집처럼 아끼며 보았다고 한다. <br/>서울 종로구 대학로 샘터갤러리에서는 지난 1일부터 ‘다시 봄, 영희와 점선전’이 열리고 있다. 영문학자이자 번역자였던 장영희 교수(1952~2009)의 글과 자유분방한 화풍으로 이름을 얻었던 김점선 화백(1946~2009)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생전에 절친한 벗이었던 두 사람은 암으로 죽기 직전까지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장 교수는 투병 중에도 영어 교과서 집필을 계속했다. 마지막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원고는 병상에서 마무리했다. 김 화백 또한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전적 에세이 <점선뎐>을 출간했다. 김 화백이 장 교수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이미 투병 중이던 장 교수에게 자신도 암이니 축하해달라며 ‘축암’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 화백은 2009년 3월22일 세상을 떠났다. 장 교수는 김 화백의 49재날인 5월9일 하늘로 올라갔다. <br/>두 사람의 5주기를 맞아 열린 이 전시회는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책 <다시 봄>(샘터)과 짝을 이루는 것이다. 책은 생전에 장 교수가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에 김 화백의 그림을 곁들였다. 장 교수가 고른 5월의 시는 “햇빛 번지는 푸른 하늘”이라는 시구로 시작하는 20세기 초 미국 시인 모드 그랜트의 시 ‘5월은’이다. 전시는 11일까지 계속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1.txt

제목: [클릭TV]‘신의 반전’은 없었다  
날짜: 2014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6100000008  
본문: 무성한 추측을 낳았던 범인은 마지막에서야 밝혀졌다. 그러나 뜸을 너무 들인 탓일까. 필살기로 준비한 반전은 놀랍지 않았고, 범인의 정체가 신선한 것도 아니었다.<br/><br/>4월 22일 막을 내린 SBS 드라마 <신의 선물-14일>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보였다.<br/><br/>이 드라마는 유괴된 딸의 죽음을 목격한 엄마 수현(이보영)이 흥신소 직원 동찬(조승우)과 사건 발생 14일 전으로 돌아가 딸을 살리려고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동찬의 첫사랑이 살해됐고, 범인으로 동찬의 형이 살인범으로 잡혀간 사건이 맞물려 전개됐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슬립, 수사와 추리가 더해지면서 미국 드라마 부럽지 않은 드라마로 시선을 끌었다.<br/><br/>마지막회에서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반전에 반전이 거듭됐다. 대통령의 아들이 동찬의 첫사랑을 죽인 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 아들을 구하기 위해 비서실장과 영부인이 공모했고, 그 과정에서 동찬의 형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br/><br/>수현의 딸을 죽인 범인은 동찬으로 밝혀졌다. 동찬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현과 딸을 찾아다닌 인물이었다.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동찬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아이를 살려냈다.<br/><br/>극 초반에는 시간여행에서 끌어내는 이야기 고리들이 신선함을 줬다. 딸의 죽음을 막으려 과거로 돌아간 수현은 뜻하지 않게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다. 게다가 남편의 외도 상대가 자신이 아끼던 회사 후배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과거의 작은 일이 미래의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나비효과도 흥미로웠다.<br/><br/>문제는 너무 많은 용의자들이었다. 직업전문학교 선생 강성진, 문구점 주인 오태경, 수현의 직장 후배, 지적장애인, 경찰서 강력팀장 등 십수명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등장했고, 시청자들은 등장하는 단서를 퍼즐처럼 이어 맞추면서 범인을 예측했다. 그러나 용의자가 많아도 너무 많이 나타났다. 또 새로운 인물 등장, 의심 행동, 수현이나 동찬과의 몸싸움, 오해 해소 혹은 죽음이라는 공식이 똑같이 등장하면서 식상함을 줬다.<br/><br/>KBS2 <개그콘서트>의 ‘시청률의 제왕’ 코너도 이 드라마를 패러디했다. 새 인물이 등장하면 범인의 단서가 던져지고, 그 인물과 단서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다 결정적인 증거로 진범이 아님을 입증한다. 제작자는 “<span class='quot0'>모든 사람이 용의자가 되야 해</span>”라며 계속해서 용의자를 만들어낸다. “<span class='quot1'>진짜 진범은 어디 있는 거지?</span>”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라는 절규 속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바로, 바로…”라는 말을 메아리처럼 되풀이하다 ‘다음 주에 계속’이라는 고지를 내면서 끝냈다.<br/><br/><신의 선물-14일>도 유력했던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반전이 반복되면서 추리과정은 복잡해졌다. 범인의 실체에는 다가가지 않고, 새로운 용의자만 ‘떡밥’처럼 던져지자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느꼈다. 용의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시청자들의 피로도도 수직 상승했다. ‘본격 암 유발 드라마’라는 못난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 결국 이 드라마는 넓게 펼쳐놓았던 수많은 용의자들의 이야기를 쫀쫀하게 이어 붙이지 못하고 성급하게 막을 내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2.txt

제목: [세월호참사 속보]희생자유가족 호소문 전문(全文)  
날짜: 2014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410014172893  
본문: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19일째인 4일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틀 째 침묵시위를 계속했다.<br/><br/>유족들은 이날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에게 ‘저희 아이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호소문을 배포했다.<br/><br/>호소문에는 ‘저희는 그나마 아이의 시신이라도 안아보고 보냈지만 아직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비통한 울음으로 진도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br/><br/><br/><br/>이어 ‘사고로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전국민 장례축제처럼 전국 분향소 설치에 이런저런 햇빛대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사고대책본부 및 관할기관들의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아 자식잃은 슬픔만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라고 썼다.<br/><br/>유족들은 ‘자식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희생을 안겨주고 졸지에 유족이 된 저희들에게 심리지원이니 생활안정대책이니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은 나머지 애들을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네요’라고 지적했다.<br/><br/>이어 ‘제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사고진상 규명해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분들의 특검을요구합니다’라고 요청했다.<br/><br/>유족들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br/><br/><br/><br/><br/>다음은 ‘저희 아이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소문 전문(全文)이다.<br/><br/><br/><br/>저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br/><br/>저희는 그나마 아이의 시신이라도 안아보고 보냈지만 아직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비통한 울음으로 진도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br/><br/>또한 함께 희생당한 승무원들과 교사들, 아르바이트생, 일반인 승객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며 저희의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br/><br/>사고로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전국민 장례축제처럼 전국 분향소 설치에 이런저런 햇빛대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사고대책본부 및 관할정부들의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아 자식잃은 슬픔만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br/><br/>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회의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 정부를 저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br/><br/>당시의 언론은 최선의 구조라고 했습니다.<br/><br/>현장에 저희 부모들이 두눈 뜨고 보고 있었지만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가고 꼬박꼬박 세금내고 정부를 믿고 있던 저희는 무력한 서민입니다.<br/><br/>자식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희생을 안겨주고 졸지에 유족이 된 저희들에게 심리지원이니, 생활안정대책이니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은 나머지 애들을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네요. <br/><br/>아직 못찾은 시신도 있는데 … <br/><br/>오히려 유족끼리 위로하며, 진실왜곡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하게 합니다.<br/><br/>동영상속의 내 천진한 아이들<br/><br/>“엄마아빠 사랑해요. 내동생 어떡하지?”<br/><br/>“야~헬리콥터 보인다”<br/><br/>가만 있으라는 방송에 천진하게 “네”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선생님을 걱정했던 내 새끼들!<br/><br/>저희는 동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느꼈습니다.<br/><br/>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궁금합니다.<br/><br/>암초니 뭐니 하더니 선장을 제물로 내세우고, 과적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카메라만 들이대고 언론플레이만 하셨는지…<br/><br/>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탈출해서 나타나지 않는 선생과 길 잃은 학부모들에게 대안이나 위로조차 하지 않는 단원고 교직원들…<br/><br/>방송에는 학교정상화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침마다 건강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비통하고 부러운 심정입니다.<br/><br/>재학중이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학부모입니다.<br/><br/>그러나 자신의 고유업무를 망각하고 책임회피만 하는 교직원들에게 남은 아이들을 맡겨두는 것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br/><br/>저희도 학교정상화는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br/><br/>단지 제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사고진상 규명해주세요.<br/><br/>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분들의 특검을 요구합니다.<br/><br/>저희는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br/><br/>이 땅의 국민으로서 내 새끼를 잃은 유족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br/><br/>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br/><br/><br/><br/>2014.5.3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일동<br/><br/><안산|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3.txt

제목: 수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1100000016  
본문: HEALTH<br/>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진행이 매우 느리고, 생존율도 95%로 암 중에서 치료 예후가 가장 좋아 ‘착한 암’이라 불린다. 그렇지만 방치하다가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최근 국내 갑상선암 환자가 크게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갑상선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봤다.<br/><br/>갑상선은…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기관이다. 대사 조절, 체온 유지 등 인체에 중요한 갑상선호르몬을 만들어 저장하고, 필요한 기관에 갑상선호르몬을 혈액 내에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br/>갑상선암은… 갑상선암은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두암, 여포암, 미분화암, 수질암 등으로 구분한다. 국내의 경우 90% 이상이 유두암이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암에 해당한다. 그러나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뼈, 폐, 뇌 등으로 전이를 일으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갑상선암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 여성호르몬 때문으로 추정된다.<br/>초기 증상은… 뚜렷한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증상만으로는 양성과 악성(암)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다만 암의 크기가 커져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종양이 주위 장기를 압박해 목이 불편할 수 있다. 또 암이 후두신경을 침범해 목소리가 쉬거나 간혹 암이 림프절 전이를 일으켜 목 외측에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이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종양이 진행된 다음에 발생한다.<br/>진단 과정은… 영상의학 검사와 진단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갑상선 결절(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지 진단한다. 종양으로 의심되는 결절이 발견된 경우에는 혹의 크기, 초음파 소견, 림프절 상태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미세침세포 검사 혹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 이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을 진단한다. 최근에는 갑상선암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BRAF’라는 암 유전자의 변이를 추가로 검사해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br/>예전에는 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암을 진단했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발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다 발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시행한 목 CT 혹은 MRI 검사에서 갑상선 종양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br/>발생률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81명으로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다. 세계적인 평균은 5~7명이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증가한 수치다. 초음파 등의 영상 기기가 발달하고 흔하게 사용함에 따라 작은 크기에 조기 진단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br/>생존율·재발률은… 갑상선암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느리고 악성도가 낮아 치료 결과가 매우 좋은 편이다. 생존율을 이야기할 때 다른 암과 달리 10년간의 기록을 보는데,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은 97.8%로 일반인과 비슷하다. 하지만 갑상선암도 4기에 발견되는 경우 5년 생존율이 50%에 불과하다.<br/>갑상선암의 완치율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나 완치율을 치료 후 재발이 없는 치료 상태라 정의했을 때, 7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갑상선암은 일찍 치료하면 재발할 확률이 낮고 진행된 후 치료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br/>다른 암과 가장 큰 차이점은…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다른 주요 암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양 악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또 서서히 자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일부의 갑상선암은 나쁜 예후를 보이고 높은 사망률을 유발하기도 한다.<br/>치료법은… 일반적인 갑상선암 치료법은 첫째,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암이 진행된 경우에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요오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하는 것이다. 다른 치료법들도 일부에서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br/>수술 후에는…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호르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을 잘해야 한다. 특히 수술 후 7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하다. 요오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준비를 위해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생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부종, 피로감, 소화불량, 변비, 두통 등)은 치료 후 서서히 회복된다. 경우에 따라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br/>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성장인자들이 포함된 보약, 주사 등은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도 평소대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며 면역력을 높여 암의 재발을 막도록 한다. 정기적인 점검을 꾸준히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br/>예방법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갑상선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모든 암 예방과 마찬가지로 균형 있는 식사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습관이 도움이 된다.<br/><br/>전문의들에게 들었다!<br/>수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br/>O 2010년 대한갑상선학회는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된 권고안에서 갑상선 종양이 우연히 발견됐어도 크기가 0.5cm 이하인 경우 주위 림프절로 진행되지 않는 한 세포검사 자체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는 종양의 크기에 따라 장기간의 예후가 달라진다는 보고에 근거한 것이다.<br/>0.5㎝ 이하의 갑상선종양에서는 실제로 암이 아님에도 초음파 소견상 악성으로 보이는 위양성률(실제로는 음성인데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고, 세포검사를 시행할 때 부적절한 검체의 빈도가 높다. 또 작은 종양은 시간을 두고 관찰해도 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종양이 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다가 종양이 0.5㎝ 이상으로 커지거나 주위로 진행됐을 때 세포검사를 해도 무방하다.<br/>종양의 크기가 0.6㎝와 1㎝ 사이인 경우는 애매하다. 35년간 갑상선암 재발률을 살펴보면 0.6~1.0㎝ 사이가 재발률이 14%로 높고, 0.6㎝ 이상인 경우, 측면 림프절로의 전이 발생 비율이 높다. 0.6~0.8㎝에서는 원격 전이가 발생된다. 이점을 감안할 때 경과 관찰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크기의 갑상선암은 미국갑상선학회에서도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 크기가 1cm 이상이라면 이로 인한 사망과 재발을 막기 위해 갑상선전절제술을 해야 한다.<br/><br/>X 현재 갑상선암 환자들이 늘어난 추세는 기형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듯싶다. 세계 평균 발병률보다 10배 이상이 늘었다. 원자력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증한 것은 과다 진단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주목할 것은 갑상선암 조기 진단은 증가했지만,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3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br/>의학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갑상선암 초음파검사가 필요 이상 많이 시행되고 있다. 증상이 있거나 종양이 손으로 만져지는 정도의 크기일 때 검사를 하면 된다고 본다. 갑상선 암은 결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암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더욱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해도 95% 이상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조기 진단과 수술이 환자의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갑상선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약을 통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불안하다고 떼어낼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고,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옳다. 끝으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검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4.txt

제목: .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1100000075  
본문: PEOPLE<br/>2000년 출간된 황선미 작가의 소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밀리언셀러에 올랐고 25개국으로 판권이 수출됐다. 2011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우리네 보편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써온 황 작가가 이번에는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라는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어미 닭을 통해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쓴 소설이라면, 이번 작품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물건을 추억하며 쓴 이야기다.<br/><br/>일상의 사소함이 주는 영감<br/>그 어떤 사소한 소재라도 황선미(51) 작가의 손을 거치면 가슴 찡한 스토리로 탄생한다. 그녀가 새로운 작품을 통해 또 한 번의 특별한 마술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의 삶을 반추하며 쓴 작품이라면 이번 작품,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는 오랜만에 들른 아버지의 빈집에서 숱한 이야깃거리를 담고 있는 아버지의 물건을 보며 떠올린 이야기다. 이번 작품은 괴팍한 한 노인과 그 집의 뒤뜰에 모여드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br/>“개인적으로 흡족하게 쓴 작품이에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쓸 때도 그랬지만 쓰고 싶은 걸 쓰게 돼서 행복해하며 작업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첫 번째 독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번을 읽어도 재밌는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었죠. 자아도취라고도 볼 수 있어요(웃음).”<br/>그녀는 글의 도입 부분만 최소한 1백 번 이상을 읽는다고 한다. 그래서 만족스럽다면 문장은 문단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책을 완성해간다. 이번 책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관하는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넉 달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머물며 완성한 작품이다. 이국의 낯선 풍경은 오히려 창작욕을 자극했다.<br/>“빈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산책을 많이 했어요. 1시간을 걸으며 숲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가는 길 중간에 빈 벤치들이 많았어요. 오래된 것들이라 기우뚱한 것도 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었죠.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의자에는 누가 앉았을까’라고 생각하다 문득 옛집 마당에 놓여 있던 아버지의 의자를 떠올렸고, 자연스레 글을 쓰게 됐죠.”<br/>작가가 자란 경기도 평택 시골집에도 의자가 하나 있었다. 5남매가 공부를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하며 함께 쓰던 것이다. 결국 다섯 아이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 의자는 망가지고 말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수리해 마당에 두고 채소를 다듬거나 감나무에서 수확한 과실을 정리할 때 애용했다. 그 모습은 아직도 작가의 눈에 선명하게 살아 있다. 그녀는 가족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자신의 소설에 투영한다.<br/>“제 기억 속의 가족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어내 써본 일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 않는 관계라 제 글에 표현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때그때 많은 변조의 과정을 거쳐요. 한 번쯤 제 아버지를 멋지게 그려보고 싶기도 해요. 이번 소설에서는 주인공을 노인으로 설정했지만 아이 같은 순수함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진 또 하나의 모습이죠.”<br/>삶의 의지가 강하지만 결국 암에 걸려 생을 마감하는 노인의 이야기. 끈적인 현실의 상황을 조금 덜어냈지만 작가의 아버지가 겪어낸 것들을 소설 속에 담았다.<br/><br/>어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br/>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강 노인 집의 ‘뒤뜰’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앞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현실이 아닌 환상의 장소기도 하고 미래가 아닌 과거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고집 세고 이기적인 강 노인이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대립하지만 삶의 뒤안길인 뒤뜰에서 비로소 소통과 화해를 배우게 된다.<br/>“‘당신의 뒤뜰이 누군가의 앞뜰이 되게 하라’라는 경제학자 잭 웰치의 말을 처음 접했을 때, 경제 논리에 관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것, 그것을 베풀어 누군가의 앞뜰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주인공에게 뒤뜰을 만들어준 거죠.”<br/>소설 속 뒤뜰은 담도 없고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요즘 협력이나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도 맞닿는다.<br/>“빈에서 체류할 때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돈이 많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양로원 노인과 고아원 아이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요. 상상만 해도 따뜻한 풍경이 그려지죠. 이를 모티브로 소설에서는 강 노인과 아이들의 관계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br/>황 작가의 따뜻하고 섬세한 표현력으로 그의 작품은 늘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불린다. 다른 나라 ‘어른’들에게도 그 감성은 그대로 전달돼 큰 주목을 받아왔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영국에서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대형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황 작가는 지난 4월 초 영국 런던 얼 스코트에서 열린 ‘2014 런던도서전’에 황석영, 이문열, 신경숙 작가와 함께 참석했다. 그녀는 특히 런던도서전 조직위가 정한 ‘오늘의 작가’ 자격으로 초청됐다. 한국관을 방문한 웨일스 공 찰스의 아내, 콘월 공작부인과 만나 환담을 나눠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니 조짐이 좋다. 작가의 작품은 앞으로 런던 시내 주요 서점, 주요 위치에 진열돼 영국 독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영국을 시작으로 전 유럽에 ‘황선미표 감성 바람’이 퍼져나갈 시점이 멀지 않아 보인다.<br/><br/>‘2014 런던도서전’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 왼쪽부터 이문열, 한강, 김인숙, 김혜순, 황선미, 이승우, 신경숙, 윤태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5.txt

제목: 엄마 기자가 요모조모 살펴본 아이들 교구 ⑤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1100000007  
본문: MOM’S<br/>메이크텐은 수에 강해질 수 있는 보드게임이다. 머리를 써서 게임 법칙에 맞는 수의 조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게임을 통해 연산과 암산 실력이 동시에 연마돼 공부와 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br/><br/>집중력과 암산 능력 싸움, 시간 제한으로 긴장감 Up!<br/>엄마 입장에서 메이크텐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초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집중이란 말이 사뭇 진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설렁설렁 다른 일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숫자 타일들에 시선을 고정하고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덧셈을 해야 한다. 설명서를 읽을 때만 해도 사실 ‘그깟 덧셈’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웬걸, 숫자 타일을 펼쳐놓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성찬이(9)와 함께 하나하나 게임 법칙을 익히며 숫자를 맞춰가는데, 만만찮은 것이었다.<br/>“이 색깔로 등록하면 되지?”, “<span class='quot0'>그건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span>”, “검은색으로 10 됐다!”, “<span class='quot0'>그걸로 맞추면 엄마 조커가 없어지는 꼴이야</span>”, “<span class='quot0'>20을 맞추면 4개까지 가능하다고?</span>” 끝없이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오갔다. 게임 방법을 누차 읽고도 좀처럼 게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엄마와 금세 게임 방법을 익힌 아들의 게임은 그렇게 시작됐다.<br/>숫자 타일 3개씩 맞춰 10을 만들고, 4개를 맞춰 20을 만들며 연신 타일들을 조합해가다 보니 분위기가 꽤 진지해졌다. 포장을 뜯고, 게임 설명서를 읽을 때만 해도 가볍게 생각했는데 말이다.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수를 조합해 숫자 트리를 만들어 보유한 타일을 먼저 모두 사용한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TV를 켜두고, 책도 보면서 자기 차례에나 한 번씩 게임에 참여했다간 야단나기 십상이다. 일단 한 번 시작하기만 하면 정자세로 진지하게 집중하게 된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br/>놀면서 공부하는 교재라면 대개 억지스러울 때가 많다. 그런데 메이크텐은 그 지점에서 자연스러웠다. 연산이라는 수학을 게임으로 확장했기 때문이다. 아들 성찬이의 반응도 지켜보는 엄마로서 만족스러웠다. 연신 손가락으로 더하고 빼기를 반복하고, 숫자 타일들을 조합하는 진지한 모습이 대견했기 때문이다. 엄마를 싱겁게 이겨버린 아들은 아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엄마에겐 스톱워치를 내밀며 기록을 부탁했다. 연산 게임에 시간 제한의 법칙을 조금씩 융통성 있게 바꿔가니 긴장감도 높아지고 또 다른 재미가 생겼다. 덧셈이긴 하지만 확실히 연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교육적 확장성과 교과 연계성이 돋보인다. 교육이니 교과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난이도 자체는 낮다. 그야말로 더할 줄만 알면 되니까. 쉬운 연산 한 가지로 아주 진지한 지적 두뇌 놀이를 만끽하게 해주는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다. 보드게임 마니아들 사이에 제법 이름이 난 인기 게임이라고 한다.<br/>메이크텐 게임을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겠다고 나선 성찬이! 벌써부터 누굴 초대해 게임할지 궁리 중이다. 게임을 하며 공부니 수학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한 탓일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며 멤버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며 적당히 승부 근성에 불을 지피는 게임이다.<br/><br/>엄마의 종합평<br/>덧셈 연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라 난이도는 낮은 편이지만 결코 시시한 게임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충분히 지적 능력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또, 암기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도 분명 도움이 돼 보인다. 무엇보다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 있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게임 소요 시간이 한 번에 30분 이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아 있는 연습이 된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덧셈 연산이 가능한 만 6세 이상의 어린이에겐 꼭 권하고 싶다.<br/><br/>Gift<br/>독자 5명에게 ‘암산왕 메이크텐’을 드립니다!<br/>● 응모 요령 애독자 엽서에 응모권을 붙여 「레이디경향」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은 5월 14일까지입니다.<br/>● 발표&수령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2014년 6월호와 「레이디경향」 공식 블로그(ladykh.khan.kr) [게시판]에 5월 26일 발표합니다. 선물은 우송해드리며 배송비는 당첨자 부담입니다.<br/><br/>응모권<br/>암산왕 메이크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6.txt

제목: 어디서 봤더라? 오태경의 재발견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1100000073  
본문: 유괴된 딸을 구하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SBS-TV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14일’에서 용의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낸 배우 오태경. 친절한 ‘문방구 아저씨’에서 섬뜩한 ‘사이코패스’로 반전에 가까운 연기를 선보이며 재발견된 그를 우리는 이제 똑똑히 기억하게 됐다.<br/><br/>배우 오태경(33)은 유쾌했다. 그리고 낙천적이었다. 사진기자가 드라마에서 그러했듯 섬뜩한 표정을 지어달라 했을 때도 그는 연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낯설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나치게 평범한 자신의 모습을 민망해했다. 그러면서도 겸손했고, 예의가 발랐다.<br/><br/>“좋게 봐주셔서 행복하긴 하지만 여전히 적응 안 돼요. 분에 넘치는 관심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웃음).”<br/><br/>신의 선물, 범인이 궁금하다면…<br/>올해로 데뷔 26년 차. 이토록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주목받아본 적이 있던가. 영화 ‘올드 보이’에서 최민식의 아역을 연기했을 때도, 드라마 ‘육남매’의 맏이 창희 역을 맡았을 때도 이와 같은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했다.<br/><br/>“처음부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연기하는 사람에게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어안이 벙벙해요. 개인적으로도 드라마 제목처럼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이 늘었고, 일하는 면에서도 조금 더 호의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살인자 역할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웃음).”<br/><br/>예고편이 없는 탓에 매회 방송이 끝날 때마다 각자의 범인 추리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유력한 단서들을 뒤엎으며 소름끼치는 전율을 선사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주인공의 딸 샛별(김유빈 분) 유괴 사건의 용의자 장문수. 과거 여자아이를 살해했지만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뒤로 그 죄책감에 문구점을 운영하던 그는 이후 조용히 살다가 본능을 잠재우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다 샛별의 유괴범으로 지목됐다. 초반 맑은 눈망울과 다정다감한 미소에 대비되는 멍한 눈빛, 어눌한 말투는 그야말로 ‘반전 포인트’였다.<br/><br/>“압박감이 있었지만 기분이 오히려 좋았어요. 저도 제 얼굴에서 그런 표정이 나올지 몰랐거든요(웃음). 캐릭터가 확 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평범한 남자와 사이코패스 캐릭터에 차이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야 고백하는 거지만 모든 신이 다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힘들었고, 후반에는 ‘이제 사이코니까 뭘 해도 되겠지?’ 싶다가도 ‘그럼 뭘 해야 하지?’ 하면서 어려워 했죠.”<br/><br/>겸손하게 말했지만 짧은 출연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는 남모를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 현장에서 만난 조승우는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동기였다. 데뷔 연도로만 치자면 한참 아래인 후배이지만, 그는 조승우의 열연에 몇 번이나 감탄했다고 했다.<br/><br/>“오래 활동하다 보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콕 집어 말할 만한 친한 연예인들은 몇 없거든요. 조승우씨와 이보영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뵀는데,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요(웃음). 두 분 다 실제로는 굉장히 유쾌하고 털털했는데, 카메라 ‘슛’만 들어가면 돌변하시더라고요. 특히 조승우씨. 만족스러운 컷이 나올 때까지 리허설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집념에 정말 여러 번 감탄했어요.”<br/><br/>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취조실에서 조승우와 단둘이 대면했던 신이다.<br/>“표정만으로도 기가 눌렸어요. 나보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감이 몰려왔죠. 직감적으로 이 형보다 더 잘하려면 나는 두 배, 세 배의 노력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br/>유괴 사건의 범인이 아님이 밝혀지며 그는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그가 체감하는 ‘신의 선물’ 후폭풍은 거세다. 만나는 사람마다 “범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통에 정신이 없다고. 힌트를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그가 배시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br/><br/>“‘설마 넌 아니지?’라고 지인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냥 끝까지 봐’라고 답하느라 힘들었어요(웃음). 범인이요? 모두가 용의자예요. 저도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워낙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혼란스러워요. 이제는 시청자의 입장으로 빠져들어 보고 있어요.”<br/><br/>갑상선 기능 항진증 앓고 난 뒤 달라진 외모<br/>일곱 살이 되던 해 CF 모델로 발탁돼 연예계에 발을 들인 오태경.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찾아갔던 방송국은 신나는 놀이터였다. 이후 그는 영화 ‘화엄경’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마이웨이’, ‘알포인트’, ‘해부학교실’, ‘사춘기’ 등 다양한 작품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으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어디선가 봤음직한, 강한 친숙함이 느껴졌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br/><br/>“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성격이거든요. 늘 촬영장에 가기 싫어 심통을 부렸어요. 그러다 ‘육남매’를 통해 선배들의 연기에 감탄하며 ‘아, 이런 게 연기하는 맛이구나’ 하는 걸 조금 깨닫게 됐죠.”<br/><br/>하지만 목적이 없는 연기는 이내 곧 싫증으로 이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럼프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시점에서는 의무감으로 연기를 했다. 그러던 지난 2010년, 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공백기를 갖게 됐다.<br/><br/>“쉽게 말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몸 안의 기관들은 끊임없이 활동하죠.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고, 기초 체력도 떨어졌죠. 몸무게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땐 53kg까지 나갔어요.”<br/><br/>처음에는 동료들에게 괜한 피해가 될까 봐 투병 사실을 숨겼다.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은 최악의 컨디션이었지만 이를 악물었다. 한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br/><br/>“성격상 티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몇몇 지인들만 아는 사실인데,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라고 말하는 날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컨디션이 나쁜 날이에요. 그런데 연예계 일이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이거든요(웃음). 몸은 너무 아픈데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촬영하고, 또 컷 소리가 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 구석에 주저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br/><br/>체중이 줄면서 눈매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됐다. 도련님같이 곱던 외모도 거칠어졌다.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보던 친누나는 안쓰러움에 눈물까지 흘렸다.<br/>“합병증으로 안구가 돌출됐거든요. 때아닌 성형수술 의혹까지 받아 좀 억울했죠(웃음). 그렇다고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또 좋게 생각하면, 배우로서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짙어진 외모가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br/><br/>한 걸음 떨어져 지난날을 돌아보니, 허투루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그리고 연기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새삼 깨닫게 됐다.<br/><br/>“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26년간 연기를 잘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반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 내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구나’ 싶은 거예요. 또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한참 모자라구나,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죠.”<br/><br/>천천히, 그러나 조바심 없이<br/>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혼자 산책을 나선다. 정식으로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그에게, 저마다의 인생을 각기 다른 색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연기 교본이다.<br/><br/>“주로 센 캐릭터들을 많이 해왔어요. 실제 제 성격도 평범하진 않아요(웃음). 궁금증도 못 참고 돌발 행동도 많이 하는 편이예요. 좋은 의미로 가장 가까웠던 건 ‘육남매’의 창희? 책임감이 강하고, 또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물론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지만요(웃음).”<br/><br/>어쩌면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아 연기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아버지는 그룹사운드 ‘템페스트’의 멤버로 오래도록 활동해온 오상헌씨.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까지 가득 채워준 아버지는 그의 든든한 팬 1호다.<br/><br/>“제가 늦둥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마흔 살에 절 낳으셨어요. 음악을 하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산 아버지는 제게 언제나 정해진 틀에 갇혀 살지 말라 조언해주세요. 또 돈을 쫓아 일하지 말고 명예를 보고 일하라 하시죠. 늘 힘이 되던 아버지께서 딱 한 번, 제가 한창 방황할 때 ‘이제 연기, 해볼 만큼 해본 거 아니니?’라고 따끔하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이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어요. 보란 듯이 더 잘해야겠다고 독기를 품었죠. “연기를 잘하는 배우 아들을 뒀다”라는 말을 듣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아들을 다뤄야 할지 아셨던 거죠. 평소엔 잔소리 좀 그만 하라던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걸 알면 아마 크게 웃으실 텐데…(웃음).”<br/><br/>서른을 넘기며 결혼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일에 집중할 때”라는 말이 그의 진심이다.<br/><br/>“죽마고우 하나가 항상 여자친구와 100일을 못 넘기고 헤어졌는데, 지금의 부인을 만나고는 1년이나 연애하더니 결국엔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왜 갑자기 결혼을 결심했냐는 제 질문에 그 친구는 ‘그냥 좋아. 그리고 때가 된 것 같아’라고 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조금 천천히. 이상형은 만난 여자분들이 공통점 하나 없이 모두 개성이 달라서 꼽기가 힘든데(웃음), 그냥 확 끌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br/><br/>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향한 기지개를 켠 기분이다. 꾹꾹 눌러 담아뒀던 열망들. 이제야 조금씩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 여전히 보여줘야 할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많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언제나 찬란한 봄날이길 기대해본다.<br/><br/>“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버티기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연 욕심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지만 전 1백 신짜리 영화라고 하면 1백 신 중 80신이 나오는 역할보다 10신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연기할 수 있지?’ 하는 캐릭터가 더 좋아요. 아! 부잣집 아들 역할을 좀 해보고 싶긴 하네요. 항상 가난한 역만 해서(웃음).”<br/><br/>“27년간 연기를 잘 한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반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한참 모자라구나,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죠.”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7.txt

제목: 스포티브 룩에 캐주얼 더해 고급스럽게 연출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1100000059  
본문: 지난 시즌부터 런웨이를 물들이고 있는 스포티즘. 2014 S/S의 키 룩이 되는 스포티브 룩에 캐주얼한 느낌을 걷어내고 럭셔리 무드를 더해 재해석했다. 축구선수를 연상시키는 니삭스와 볼드하고 화려한 주얼 장식의 향연은 스포티즘이 잊고 있던 여성성을 부활시켜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룩을 더욱 고급스럽게 마무리해준다.<br/><br/>가슴 라인을 부각시켜주는 슬리브리스 톱과 H라인의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로 완성한 섹시한 페미닌 룩. 니삭스와 손목 밴드에 볼드한 셰이프의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레이어링해 럭셔리함을 살린 스포티즘을 완성했다.<br/><br/>프린지 장식 레이스 슬리브리스 톱 2만9천원, 버쉬카. 스트라이프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5만9천원, ZARA. 물방울 셰이프 골드&블랙 목걸이 42만원, 케이트로지. 비즈 디테일 반지 2만8천5백원, 프란시스케이, 화이트 레더 뱅글 3만2천원·블랙&골드 뱅글 가격미정, 케이트앤켈리. 그린 스트라이프 포인트 니삭스 1만2천원, 아메리칸어패럴. 버클 플랫폼 슈즈 가격미정, 할리샵. 오렌지 컬러 포인트 블랙 손목 밴드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강한 느낌의 플로럴 패턴에 스트리트 무드를 더하는 플레어스커트를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이 다운된 스포티브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스키니부터 볼드한 것까지 굵기가 각기 다른 목걸이를 레이어드하고 화려한 장식의 링 귀고리로 전체적인 룩의 균형을 맞췄다.<br/><br/>펀칭 디테일의 플로럴 패턴 블루종 30만원대, 나이스크랍. 블랙&화이트 스트라이프 플레어스커트 3만9천원·화이트&골드 체인 목걸이 2만2천원·파스텔 컬러 레이어드 튜브 목걸이 2만2천원, 스트라디바리우스. 티파니 블루 원석 포인트 목걸이 1만9천원, 풀앤베어. 비즈 링 귀고리 2만4천8백원, 케이트앤켈리. 네이비 물방울 모티브 반지 1만8천원, 케이트앤켈리. 블랙 슬리브리스 톱·니삭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암홀이 깊게 파인 레이스 슬리브리스 톱과 슬릿 디테일 롱스커트의 조화가 몸의 라인을 유연해 보이게 연출해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하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액세서리가 스포티즘과 럭셔리 무드의 경계를 살려준다.<br/><br/>블랙 브라 톱 가격미정, 스트라디바리우스. 화이트 레이스 슬리브리스 톱 4만4천원, 버쉬카. 슬릿 디테일 블랙 롱스커트 6만1천2백원, 마녀날다. 블랙 태슬 장식 귀고리 3만9천원, 케이트앤켈리. 화이트 레더 스터드 장식 팔찌 3만원대, 잇플레이스. 실버 레더 펄&비즈 디테일 팔찌 24만5천원·레이어드 골드 뱅글 3만9천8백원, 프란시스케이. 네이비 T 스트랩 웨지힐 슈즈 35만9천원, 나무하나. 블랙 스트라이프 포인트 니삭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스포티브 룩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 스웨트 셔츠의 캐주얼 무드를 다운시키려면 하이웨이스트 팬츠에 아찔한 높이의 플랫폼 하이힐을 매치할 것!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은 물론 스웨트 셔츠 특유의 활동적인 느낌 대신 페미닌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배가된다.<br/><br/>레이스 디테일 스웨트 셔츠 13만8천원, 에고이스트. 블랙 하이웨이스트 팬츠 9만9천원, ZARA. 골드 포인트 선글라스 가격미정, 레베카밍코프 by M2itc. 비즈 장식 블루 귀고리 3만원대, 프란시스케이. 핫 핑크 물방울 장식 목걸이 18만5천원·화이트 원석 목걸이 21만5천원, 케이트 로지. 화이트&레드 배색 플랫폼 슈즈 4만원대, 슈즈원.<br/><br/>블랙 레이스가 레이어드된 화이트 롱 티셔츠 위에 시폰이 믹스된 베스트를 걸쳐 미니 원피스처럼 스타일링해 록 시크 무드로 완성한 럭셔리 스포티브 룩. 체인이나 레더 액세서리를 매치하되 디테일이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다.<br/><br/>블랙 레이스 레이어드 화이트 롱 티셔츠 2만7천3백원, 클리지. 블랙 언밸런스 시폰 베스트 18만8천원, 에고이스트. 역삼각형 목걸이 20만5천원, 케이트로지. 실버 체인 목걸이 5만원, 잇플레이스. 오른팔의 블랙 스터드 장식 팔찌 가격미정, 잇플레이스. 옐로 오픈토 스트랩힐 4만7천원, 슈즈원. 왼팔의 스터드 장식 레더 팔찌·블랙 스트라이프 니식스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블랙&화이트 컬러 블록으로 스포티즘을 페미닌한 무드로 재해석한 룩. 블라우스의 네크라인 장식, 와이드 벨트, 스커트, 슈즈까지 네 박자의 컬러 블록이 어우러져 룩이 경쾌해 보인다. 여기에 볼드한 액세서리의 레이어드로 화려함을 더해 럭셔리하게 완성했다.<br/><br/>블랙 시스루 블라우스 5만9천원, ZARA. 스트라이프 H라인 스커트 15만8천원, 제시뉴욕. 비즈 귀고리 가격미정·왼손 약지의 비즈 장식 반지 가격미정, 케이트앤켈리. 왼팔의 실버 볼드 뱅글 1만원대, 스트라디바리우스. 왼손 검지의 볼 장식 반지 3만2천5백원·오른손 검지의 핑크 비즈 장식 반지 1만6천5백원·오른손 중지의 플라워 모티브 반지 5만8천5백원, 프란시스케이. 오른팔의 볼 장식 팔찌, 2만5천원·오른팔의 실버 레더 뱅글 3만2천원, 케이트앤켈리. 오른팔의 사각 화이트 원석 팔찌 3만원, 프란시스케이. 오른팔의 체인 레이어드 팔찌 6천원, 포에버21. 블랙&화이트 배색 플랫폼 슈즈 3만9천8백원, 슈즈원. 스트라이프 와이드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8.txt

제목: 기자가 직접 측정했다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1100000015  
본문: HEALTH<br/>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로 흙만 파먹고 살던 옛날이 그리울 만큼 조심할 것, 알아볼 것이 많은 세상이 됐다. 일본발 방사선으로 먹을거리에 비상이 걸리더니,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땅을 떠나 청정 오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이지 않아 더 공포스러운 오염물질들을 여러 방법으로 측정해봤다.<br/><br/>Q1 일본 벚꽃 여행을 다녀온 뒤, ‘방사선’에 피폭됐을까?<br/>얼마 전 봄맞이 일본 벚꽃 여행을 다녀왔다. 둔감한 성격 탓인지 스시도 먹고 일본 식품도 사왔다. 기자의 행동에 주변 몇몇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방사선 피폭에 대해 한마디씩 한다. ‘회사 동료의 아는 언니’ 출처지만 무시무시한 소문도 들려준다. 후들후들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향했다.<br/><br/>방사선의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형감식기가 첫 번째로 검사하는 측정기다. 피부를 포함한 소지품 등의 외부 피폭을 알 수 있는 물리적인 검사로 생김새는 공항에 있는 금속탐지기와 비슷하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의 피폭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공항에 설치됐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기계를 통과하면 방사선 피폭의 유무를 소리로 알려준다. 공항의 금속탐지기와 달리 모든 소지품을 갖고 들어간다. 소지품도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통과하니 ‘삐빅!’ 하는 소리가 났다. 이상이 없다는 소리다. 일단 피폭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심됐지만 그 과정이 너무 심플해서 ‘제대로 검사가 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어 몇 번이고 다시 통과해봤다. 그러자 옆에 있던 관계자가 “<span class='quot0'>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꽤 예민한 기계예요</span>”라고 말한다.<br/>“저희가 이 근처에서 실험 때문에 방사선에 피폭된 물체의 시료를 옮기고 있었어요. 통과한 것도 아니고 1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감식기가 울리더라고요.”<br/>만약 경보음이 울린다면 옷이나 소지품 등이 피폭됐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거한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하고 다시 측정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보음이 울리면 이제는 내부 피폭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후에는 전신오염계수기, 즉 ‘홀 보디 카운터’라는 정밀 기기에서 4분 정도 온몸을 측정한다. 일부러 찾아온 김에 기자도 홀 보디 카운터에 들어가봤다. 손을 한쪽에 있는 측정 공간에 넣고 기계의 지시 사항에 따라 몸을 앞뒤로 돌려가며 측정한다. 역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br/>“내부 피폭의 경우는 소변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대사를 통해 소변이나 대변으로 방사선이 빠져나가므로 미미한 양까지 검출할 수 있죠.”<br/>한국원자력의학원은 원전 관련 종사자들이 제한적으로 방문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2011년 3월 이후에는 일본에 다녀온 기자나 소방대원, 혹은 인접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방사선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br/>“일반 병원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계측 시설이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받거나 상담을 하려는 분들 모두 이곳으로 오십니다.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선 검출 사건 등으로 ‘우리도 방사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한 주부들도 많이 찾아오세요.”<br/>기자가 방사선을 측정한 이곳은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였지만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사선의 영향이나 검사를 위해 ‘방사선영향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일반인에게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좀 더 친숙하게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다.<br/>“방문객이 오시면 방사선의 단위 같은 기초 상식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강의식으로 설명합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방사능에 대한 이해를 얻고 괴담이나 오해를 풀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br/>이것이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영향클리닉’의 평소 주된 업무지만 원전사고 같은 비상사태가 났을 때는 비상진료센터로 돌아가 국내 22개 대형 병원과 네트워크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비상 진료 요원 5백 명에 대한 교육 훈련도 실시한다.<br/><br/>Mini interview<br/>이승숙(한국원자력의학원 센터장)<br/>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방사선에 피폭, 병원에서 5년간 임신 금지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일본 방사선 피폭에 대한 소문이 많다. 사실인가?<br/>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뒤 한동안 공항 내에 문형검사기를 설치해 일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검사해왔다. 이따금 소지품이 오염된 경우가 있었지만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은 지금까지 단 1명도 없었다. 직접 후쿠시마 지역을 취재한 기자들을 포함해서다(단 1명이 과거 X레이 의료 방사선 피폭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산부인과에서는 방사선 피폭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금지 판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br/>우리나라가 자연방사선량이 높다고 들었다.<br/>방사선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존재한다. 자연방사선은 태양, 땅, 심지어 음식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3mSv(밀리시버트)의 자연방사선이 나온다.<br/>연간 3mSv는 수치상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나?<br/>A 세계 평균은 연간 2.4mSv로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만 브라질의 경우 10mSv까지 나온다. 연간 3mSv는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낮은 양이라 고려하지 않는다.<br/>그럼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면 건강에 위협이 되는가?<br/>100mSv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되면 1천 명 중 5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5,000mSv에 노출되면 골수 억제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태아의 피폭에서도 100mSv 이하에서는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다.<br/>초기 방사선 노출로 인한 몸의 증상은 없나?<br/>일반인이 쉽게 피폭될 수 없는 고용량이지만 1,000mSv 이상의 고용량을 받았을 때 식욕부진, 피로감,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br/>그럼 생선은 먹어도 될까?<br/>내부 피폭은 반감기가 긴 세슘-137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세슘 방사능이 100베크렐/kg 정도 함유된 생선을 평상시처럼 먹더라도 이로 인한 연간 방사선량은 0.013mSv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우리 국민이 통상 피폭하는 자연방사선량의 1% 미만으로 의미 없다.<br/><br/>Q2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 방사선 측정기<br/>몸이 피폭되지 않았다 한들 앞으로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는 물건이나 토양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다.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방사선 측정기를 찾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연결해 사용하는 제품을 찾아냈다. 어디 한번 써볼까?<br/><br/>방사선 측정기를 검색해보니 정밀한 전문가용 선량계는 시중 가격이 5백만원을 훌쩍 넘는다. 아무리 방사능이 걱정된다지만 일반인이 쉽게 소비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 원전 사태가 터지고 개발됐다는 스마트폰용(iOS) ‘포켓가이거’ 소식이 떠올랐다. 스마트폰에 간단히 연결하면 쉽게 방사선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기계다. 국내 업체를 찾아보니 일본의 ‘포켓가이거’를 정식 수입하고 더불어 현재 안드로이드 체제 전용 측정기 개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기 개발에 한창인 곳이 있었다. 가격이 100배 이상의 선량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고정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설치는 간단하다. ‘포켓가이거’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스마트폰 메뉴에 들어가 설명서에 따라 간단한 설정을 한 뒤 이어폰 꽂이에 포켓가이거 본체를 연결한 뒤 2분 정도 측정하면 끝이다. 집에서는 0.21μSv(마이크로시버트)라는 수치가 나왔다(오차는 ±0.06). ‘거의 0.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수치라 놀랐다. 당장 방사선량에 대해 알아보니 숫자 자체가 기분 나쁠 뿐,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였다.<br/>포켓가이거는 방사선 중 투과력이 좋아 납이나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야 하는 X선과 감마선만 측정 가능하다. 알파선과 베타선은 투과력이 좋지 않아 그나마 피해가 덜한 방사선이다. 또 검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작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측량 수치에 금세 오류가 난다는 것이다. 측정 당시 잠시 들었다 놨는데 바로 ‘잡음(Noise)’ 경고가 뜬다. 측정이 시작되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br/><br/>Q3 체내 중금속 확인을 위한 모발 검사<br/>통조림 음식부터 미세먼지까지 점점 더 중금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체내에 쌓인 중금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혹시 자도 자도 피곤한 이 만성피로는 중금속 때문이 아닐까?<br/><br/>모발 검사로는 중금속 여부뿐 아니라 영양 미네랄의 균형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모든 질병, 만성피로, 두통, 아토피, 탈모의 원인까지 추측해볼 수 있다고 한다. LPJ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해 모발 검사를 위한 표본 채취를 했다. 유전자 검사를 떠올리며 머리카락을 뽑는 건가 싶었는데 자르는 거란다. 아프지 않아 다행이다. 또 서너 가닥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쓱싹쓱싹 간호사의 가위질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span class='quot1'>그렇게 많이 잘라야 하나요?</span>”, “<span class='quot1'>땜빵(?) 생기는 거 아니에요?</span>”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걱정 마세요”라며 친절히 세 군데로 나눠 잘라줬다. 모발 채취는 간단히 끝났다. 주의할 점은 파마나 염색은 염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발 검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특히 바륨, 칼슘, 마그네슘, 구리 등의 수치를 측정하는 데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측정을 위해 파마나 염색 후 6~8주 정도 후에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모발 검사 신청서와 함께 평소 생활습관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모발 검사는 표본 채취 후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br/><br/>기자의 모발 검사 측정 데이터 분석<br/>다행히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등 대부분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칼슘 비율이었다. 아이와 함께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셨나? 다른 성분은 몰라도 칼슘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성분이든 넘치면 좋지 않은 모양이다. 칼슘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인의 함량이 낮다는 뜻이다. 인의 함량이 낮으면 부갑상선 기능이 증가한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 만성피로,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 느린 대사 등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자의 경우 만성피로, 느린 대사 속도, 비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피로, 비만…. 아, 나의 총체적 문제가 결국 칼슘과 인의 부조화 때문이었구나! 기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우유 등 유제품을 과다 섭취하지 말라는 권고와 높은 칼슘 비율로 인해 낮아진 성분들에 대한 비타민 처방을 함께 받았다.<br/><br/>Mini interview<br/>김선재(LPJ마음건강센터 원장)<br/>체내 중금속 측정을 모발 검사로 하는 이유는?<br/>중금속은 모든 체내에 축적되지만 세포는 늘 대사 활동을 하므로 성분을 분리하기 어렵다.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고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어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오랜 기간 축적된 양을 알아보기 쉽다.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기만 하면 되니 표본 채취도 쉽다.<br/>중금속도 미네랄의 일종인데 왜 몸에 좋지 않은가?<br/>중금속의 일종인 구리, 납, 알루미늄 등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구성 성분 비율이 매우 미량이라서 그 양이 초과되면 독성물질로 작용하는 것이다.<br/>중금속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알고 있지만 우울증 등 심리적인 면에도 작용한다는데 왜 그런가?<br/>카드뮴이나 비소 등이 소량이라도 우리 몸에 쌓인 경우 신경계 쪽에 영향을 준다. 중금속이 많이 쌓이면 우울해진다는 상관관계 데이터는 없지만 일정 부분 중금속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카드뮴에 의한 공해병인 이타이이타이병 환자들은 짜증을 내고 예민한 것이 한 증상이다.<br/>중금속 중독을 막기 위한 생활습관은 어떤 게 있나?<br/>캔이나 통조림에 담긴 음식에서는 알루미늄 수치가 높게 나오게 마련이고 자연물에서 추출한 한약에서는 납이나 수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검사를 해보고 높은 수치가 나온 중금속에 기인하는 생활습관을 찾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br/>중금속은 배출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몸에 쌓인 건 어떡하나?<br/>1차적으로 독소를 배출한다는 녹차나 항산화 성분이 든 비타민을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위주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도 배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휴식을 취하는 것도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좋다. 몸에 증상이 생길 정도로 축적된 양이 많으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 EDTA 주사요법이 있다. 이는 유해물질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 구석구석에 쌓인 오염물질과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하게 도와준다.<br/>모발 검사는 한 번 하면 더 할 필요가 없는가?<br/>체내 중금속은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생활과 환경을 개선한 후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나 확인해야 변화를 알 수 있다.<br/><br/>Q4 라돈, 우리 집은 안전할까?<br/>라돈이 뭔가? 화학 시간에 합창하던 ‘수헬리베붕탄질’ 원소 기호만이 떠오를 뿐이다. 최근 모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라돈의 위험성이 대두됐는데, 라돈은 발암물질로 주택을 지을 때 쓰는 석고보드에서 검출된다고 한다. 당장 집 벽을 뜯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쩌나.<br/><br/>라돈은 불활성기체라 사람이 흡입하더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다시 배출돼 물질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라돈이 공기 중에서 붕괴해 발생하는 자손핵종으로, 이들은 입자로 폐에서 흡수돼 주로 폐의 피폭을 유발해 폐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곧 라돈 자손 농도)는 지역 지반의 우라늄 농도와 실내 공기 밀폐도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여 구체적인 농도는 직접 측정해야 알 수 있다. 기자는 ‘차콜캐니스터’라는 라돈 측정기를 이용해 안방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제품을 개봉해 철제 뚜껑을 연 다음 48시간 동안 측정 지점에 놓아둔다. 바닥에서 적어도 50cm 이상, 외부와 닿는 벽과 30cm 이상 떨어뜨려놓는다. 측정하는 동안에는 집 안을 환기시키면 안 된다. 측정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8시간이 지난 뒤 다시 뚜껑을 접착테이프로 밀봉해 업체로 보냈다. 측정값이 나오기까지는 3, 4일이 소요된다.<br/>기자의 집 실내 라돈 농도는 2.13PCI/L(피코규리퍼리터)가 나왔다. 국내 권고 기준치가 4.0PCI/L이므로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 실내 공기 중 라돈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 원인으로는 최근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걱정해 환기에 소홀히 한 탓이었다. 실제로 미국 등 OECD 가입 선진국에서는 라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2.0PCI/L만 초과해도 주택의 수리를 권고하고 있다.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의무적으로 라돈 수치를 표기해야 한다. 라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일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특히 라돈은 밤에서 새벽 시간대에 높아지는데, 아침 출근 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므로 출근 전 30분 이상의 환기가 필수적이다.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의 라돈을 줄일 수 있고,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막으면 라돈 피폭을 줄일 수 있다.<br/><br/>1 문형감식기를 천천히 통과하고 있는 이유진 기자. 나가자마자 삐빅! 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다. 2 홀 보디 카운터라는 계수기에서도 방사선을 측정해보았다.<br/>기자의 집 안에서 재어본 방사선 측정값.<br/>1·2 모발검사를 위해 부분별로 세군데로 나눠 머리카락을 잘랐다. 3 생각보다 꽤 많은 머리카락의 양을 채취했다.<br/>1 차콜캐니스터를 개봉한 뒤 뚜껑을 연 채로 집 안 한 곳에 놓아둔다. 2 48시간이 지난 뒤에는 뚜껑을 닫아 테이프로 밀봉한 뒤 업체로 보낸다. 결과는 일주일 내에 알수 있다.<br/>이유진 기자의 모발 검사 결과지.<br/><br/><표><br/>Info<br/>3.8μSv실외 활동 제한의 기준(1시간당)<br/>100μSv가슴 X선 촬영<br/>2.4mSv1년간 피폭량의 세계 평균 방사선<br/>500mSv백혈구의 감소(확정적 영향)<br/>2Sv후쿠시마 원전 1호기 건물 지하의 오염수(1시간당)<br/>6Sv장기 괴사<br/>7~8Sv거의 사망<br/><그래프><br/>라돈 측정 결과 그래프.<br/>(pCi/l)<br/>4.543.532.521.510.50<br/>국내기준치<br/>OECD 실내 평균<br/>국내 평균 실내 라돈 농도<br/>이유진님 실내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49.txt

제목: [김종철의 수하한화]‘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비극  
날짜: 20140501  
기자: 김종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501100000132  
본문: 오래된 일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어떤 미국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글에 따르면,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에는 두드러진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 둘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래를 좋아하고, 셋째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이나 이탈리아인 중에는 미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은, 그 글의 전반적 흐름으로 볼 때, 다분히 한국인에 대한 경멸적인 시선이 내포되어 있는 발언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태를 보면서 나는 저 미국인이 아직 살아 있다면 이탈리아와 한국의 공통점에 또 한 항목을 추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해난 사고를 당하면 선장이 가장 먼저 배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나라라는 공통점 말이다.<br/>대학생 때 내가 흥미롭게 읽은 소설 중에 조셉 콘라드가 쓴 <로드짐>이 있었다. 이상주의자인 젊은 주인공 항해사가 폭풍을 만나 배가 좌초하자 자기도 모르게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하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고, 스스로의 이상을 저버린 이 비윤리적 행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단죄의 험난한 생을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는 이야기였다. 매우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젊었을 적에는 상상 속에서나마 누구나 한번쯤 부딪치는 근원적인 윤리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었기 때문인지 읽는 동안 상당히 몰입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니, 아마 그때 마도로스 사회에서는 배와 운명을 같이하는 게 불문율이라는 것, 그것을 어기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br/>침몰 중인 여객선의 객실에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조용히 대기하라고 해놓고는 선장과 선원들만 재빨리 탈출했다는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다. 더욱이 선장이라는 사람은 구조 직후에 물에 젖은 지폐를 말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은가. 자기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승객들이 물에 잠겨 필사적인 몸부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참으로 미스터리이다. 만일 선장이나 선원 중 (혹은 조난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해경들 중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을 제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만 안타까운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간다.<br/>그런데 엊그제 공개된 그 선장의 탈출 장면이라는 동영상을 보고 있자니 그가 원망스럽기보다는 말할 수 없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마도로스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볼품없는 인물, 가엾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과오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를 무한정 질책한다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모습을 보면, 6000t이 넘는 대형 선박의 선장이 맞기는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내 편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의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모습과 거동은 그가 자신의 직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임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br/>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추측건대,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자신의 인간적인 자질 탓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선장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없는 근무 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임시직 선장인데다가 봉급이라는 것도 대형 선박의 선장에 도저히 어울린다고 볼 수 없는 박봉이다. 선장만 이런 게 아니라 세월호의 항해사, 기관사 대부분이 비정규직 선원이었다는 사실도 참으로 놀랍다. 온갖 탈법·불법을 저지르며 승객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던 선박회사의 소유주와 경영자는 이런 식으로 배를 운영해서 긁어모은 돈으로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정부는 날이면 날마다 자행되고 있는 이 불법적 행위들에 왜 눈을 감고 있었을까.<br/>아마도 이번 사태의 배후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거기에 갖가지 비리와 부조리와 몰상식이 뿌리 깊게 얽혀 있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이게 꼭 해운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비행기도, 기차도, 버스도 안심하고 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나는 KTX를 타고 갈 때마다 이 초고속 열차에 기관사가 단 1명뿐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늘 모골이 송연해진다. 만일 그 기관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중풍으로 쓰러진다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모두는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br/>진부한 얘기지만,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은 결국 돈에 대한 어리석은 탐욕 때문이다. 온 사회가 이처럼 돈에 환장해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끊임없이 강조해온 국가 시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암 덩어리 규제”를 운위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가 강경한 어조로 규제철폐를 역설하는 판에 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겠다는 생각이 들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br/>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삶보다도 먼저일 수는 없다. 설혹 규제 완화로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경제성장은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갈수록 빈부격차를 벌려놓고 극심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의 상식이 되었다.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배이다.<br/>생각해보면,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정치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정치란 무엇보다 상식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여객선 침몰로 인한 대참사는 한마디로 상식을 무시해온 질 낮은 정치,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국가적 재난 대응 능력의 결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관리 능력이라면, 조만간 핵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0.txt

제목: [김종철의 수하한화]‘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비극  
날짜: 2014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3010014152866  
본문: 오래된 일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어떤 미국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글에 따르면,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에는 두드러진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 둘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래를 좋아하고, 셋째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이나 이탈리아인 중에는 미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은, 그 글의 전반적 흐름으로 볼 때, 다분히 한국인에 대한 경멸적인 시선이 내포되어 있는 발언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태를 보면서 나는 저 미국인이 아직 살아 있다면 이탈리아와 한국의 공통점에 또 한 항목을 추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해난 사고를 당하면 선장이 가장 먼저 배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나라라는 공통점 말이다.<br/><br/>대학생 때 내가 흥미롭게 읽은 소설 중에 조셉 콘라드가 쓴 <로드짐>이 있었다. 이상주의자인 젊은 주인공 항해사가 폭풍을 만나 배가 좌초하자 자기도 모르게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하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고, 스스로의 이상을 저버린 이 비윤리적 행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단죄의 험난한 생을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는 이야기였다. 매우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젊었을 적에는 상상 속에서나마 누구나 한번쯤 부딪치는 근원적인 윤리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었기 때문인지 읽는 동안 상당히 몰입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니, 아마 그때 마도로스 사회에서는 배와 운명을 같이하는 게 불문율이라는 것, 그것을 어기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br/><br/>침몰 중인 여객선의 객실에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조용히 대기하라고 해놓고는 선장과 선원들만 재빨리 탈출했다는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다. 더욱이 선장이라는 사람은 구조 직후에 물에 젖은 지폐를 말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은가. 자기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승객들이 물에 잠겨 필사적인 몸부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참으로 미스터리이다. 만일 선장이나 선원 중 (혹은 조난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해경들 중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을 제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만 안타까운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간다.<br/><br/>그런데 엊그제 공개된 그 선장의 탈출 장면이라는 동영상을 보고 있자니 그가 원망스럽기보다는 말할 수 없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마도로스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볼품없는 인물, 가엾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과오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를 무한정 질책한다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모습을 보면, 6000t이 넘는 대형 선박의 선장이 맞기는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내 편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의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모습과 거동은 그가 자신의 직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임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br/><br/>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추측건대,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자신의 인간적인 자질 탓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선장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없는 근무 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임시직 선장인데다가 봉급이라는 것도 대형 선박의 선장에 도저히 어울린다고 볼 수 없는 박봉이다. 선장만 이런 게 아니라 세월호의 항해사, 기관사 대부분이 비정규직 선원이었다는 사실도 참으로 놀랍다. 온갖 탈법·불법을 저지르며 승객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던 선박회사의 소유주와 경영자는 이런 식으로 배를 운영해서 긁어모은 돈으로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정부는 날이면 날마다 자행되고 있는 이 불법적 행위들에 왜 눈을 감고 있었을까.<br/><br/>아마도 이번 사태의 배후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거기에 갖가지 비리와 부조리와 몰상식이 뿌리 깊게 얽혀 있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이게 꼭 해운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비행기도, 기차도, 버스도 안심하고 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나는 KTX를 타고 갈 때마다 이 초고속 열차에 기관사가 단 1명뿐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늘 모골이 송연해진다. 만일 그 기관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중풍으로 쓰러진다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모두는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br/><br/>진부한 얘기지만,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은 결국 돈에 대한 어리석은 탐욕 때문이다. 온 사회가 이처럼 돈에 환장해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끊임없이 강조해온 국가 시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암 덩어리 규제”를 운위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가 강경한 어조로 규제철폐를 역설하는 판에 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겠다는 생각이 들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br/><br/>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삶보다도 먼저일 수는 없다. 설혹 규제 완화로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경제성장은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갈수록 빈부격차를 벌려놓고 극심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의 상식이 되었다.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배이다.<br/><br/>생각해보면,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정치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정치란 무엇보다 상식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여객선 침몰로 인한 대참사는 한마디로 상식을 무시해온 질 낮은 정치,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국가적 재난 대응 능력의 결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관리 능력이라면, 조만간 핵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br/><br/><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1.txt

제목: 체크카드 포인트 결제 땐 현금 못 빼간다  
날짜: 20140429  
기자: 홍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9100000113  
본문: 체크카드 포인트로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를 받아갈 때는 오전 일찍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험사가 환불 때는 3일이나 걸린다. 이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릴 만한 금융 제도가 무더기로 개선된다. <br/>금융감독원은 28일 “<span class='quot0'>지난 1분기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12건 추려 제도 개선을 추진 중</span>”이라고 밝혔다. <br/>금감원 접수 민원엔 황당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물건값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ㄱ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카드사는 “체크카드 포인트를 쓰면 우선 결제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뒤 추후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소비자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면 억울한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카드사는 금감원 지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포인트로 곧바로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br/>ㄴ씨는 보험 계약을 한 뒤 보험료 자동이체 예정일 아침에 해약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험료는 영업시간도 되기 전인 그날 새벽에 이미 빠져나가 있었다. 즉각 환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금융결제원 확인을 거쳐 3일 후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면 환불요청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br/>개인사업자 ㄷ씨는 통장을 정리하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입출금 내역이 있어 깜짝 놀랐다. 은행에 물어보니 “잘못 입금해서 다시 인출해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6월부터는 은행 직원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갈 땐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br/>약관 등에 설명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 소비자가 곤란을 겪은 사례도 개선된다. ㄹ씨는 중학생 아들의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아들이 고교 진학 후 펜싱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동선수가 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 ㅁ씨는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면역강화 등 일종의 후유증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암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r/>보험사들은 앞으로 ‘직무변경 통지의무 사례’나 ‘직접치료에 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 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span class='quot1'>민원상담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2.txt

제목: [건강설계]고관절 골절 적기에 치료해야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9100000003  
본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 하면 보통 암이나 고혈압 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일상생활에서의 골절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될 수 있다. 그 중 위험한 골절이 고관절 골절이다. 고관절은 사타구니를 중심으로 한 골반, 대퇴경부, 전자부 등을 말한다.<br/><br/>고관절 골절은 주로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가벼운 낙상에도 쉽게 골절을 당하는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자 5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한다.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초기 골절 부위에서 1000cc 이상의 혈액 소실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외상성 저혈압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심한 통증과 함께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생기는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은 혈전증과 욕창, 폐렴, 방광염 및 이에 따른 패혈증이다.<br/><br/>고관절 골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치료 및 재활이다.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골절된 부위를 수술해야 한다. 골절 수술은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연세가 많은 노인들의 경우 뼈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주로 시행한다.<br/><br/>인공관절치환술은 근육·혈관·신경 등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8~9㎝가량만 절제를 시행한다.<br/><br/>수술 후 골절 형태가 안정적일 경우 2~3일 지나면 걸을 수 있다. 이때부터는 고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한다.<br/><br/>반면 골절이 불안정할 경우 3개월 정도는 탈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다리 꼬기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그 이후에는 무리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br/><br/>노년층이 골절을 당하면 1~2일 내 모든 처치가 가능하며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형외과, 내과, 마취과가 협동으로 고령의 환자를 바로 바로 체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수술 후 바로 환자와 밀착해서 재활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운동처방사가 있는 병원이면 더욱 좋다.<br/><br/><조재현 제일정형외과병원 관절센터 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3.txt

제목: 말기 암 영국 청년, 청소년 암환자 돕기 43억원 모금  
날짜: 20140428  
기자: 박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8100000080  
본문: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영국의 한 청년이 청소년 암환자를 위한 모금운동으로 나흘 만에 약 250만파운드(43억원)를 모아 화제다.<br/>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스태퍼드셔 출신의 스티븐 서튼(19·사진)은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자 인터넷 모금 운동을 결심했다. 암으로 투병하는 청소년을 위해 10만파운드를 모금하겠다는 포부였다. 인터넷 모금사이트 ‘저스트기빙닷컴’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에는 이날 현재 10만3000여명이 참여, 모금액은 256만여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영국 총리 관저를 방문해 청소년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 당시 코미디언 제이슨 맨퍼드를 비롯한 명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응원하며 모금액은 24시간 만에 100만파운드를 넘어섰다.<br/>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은 감동적이고 위안이 되는 일”이라며 “모금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어린 암환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4.txt

제목: [여적]단원고의 목련  
날짜: 20140428  
기자: 김민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8100000048  
본문: “<span class='quot0'>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어라 내 사랑이어라…/ (중략)/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 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span>”(양희은 ‘하얀 목련’)<br/>1980년대 초 가수 양희은은 난소암에 걸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다. “<span class='quot0'>죽으려면 죽는 거고 살려면 살겠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span>”(2011년 한겨레 인터뷰). 암 수술을 받은 그에게 작곡가 김희갑이 격려의 선물로 준 게 이 노래다. 원래는 다른 가사가 붙어 있었는데, 양희은이 직접 쓴 가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발표하는 노래마다 금지곡으로 묶여 고통받고, 암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그는 ‘하얀 목련’으로 다시 일어섰다.<br/>“<span class='quot0'>목련은 피어 흰 빛만 하늘로 외롭게 오르고/ 바람에 찢겨 한 잎씩 꽃은 흙으로 가네/ 검은 등걸 속/ 애틋한 그리움 움트던 겨울날 그리움만 남기고/ 저 꽃들은 가네.</span>” 1996년 세상을 뜬 김광석의 4집 앨범에 담긴 ‘회귀’다. 봄날 목련의 처연한 아름다움을 통해 삶을 섬세하게 성찰한 작품이다. 김지하의 시에 황난주가 곡을 붙였다. 4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서른 즈음에’일 테지만, 이 노래 역시 마니아들 사이에서 깊이 사랑받는다.<br/>목련(木蓮)은 문자 그대로 나무에 핀 연꽃이라는 의미다. 순백의 탐스러운 자태는 우아하고 귀족적이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 다른 봄꽃도 모두 아름답지만, 목련의 고고한 기품은 사뭇 독특한 데가 있다. 꽃말이 고귀함, 숭고한 정신, 우애 등인 것도 그래서일 게다.<br/>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안산 단원고에 목련 묘목을 기증했다. 1800년대 중반 앤드루 잭슨 미 7대 대통령이 먼저 떠난 부인을 기려 백악관 잔디밭에 심은 목련의 묘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이 목련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봄마다 새로 피는 부활을 의미한다</span>”고 했다. 단원고 교정의 목련은 해마다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피어날’ 것이다. 못난 어른들이 참담한 이 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지 지켜볼 터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5.txt

제목: 체크카드 포인트 결제 땐 현금 못 빼간다  
날짜: 2014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81001410738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금감원, 소비자 불리한 금융제도 12건 개선키로</strong><!-- SUB\_TITLE\_END--><br/><br/>체크카드 포인트로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를 받아갈 때는 오전 일찍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험사가 환불 때는 3일이나 걸린다. 이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릴 만한 금융 제도가 무더기로 개선된다. <br/><br/>금융감독원은 28일 “<span class='quot0'>지난 1분기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12건 추려 제도 개선을 추진 중</span>”이라고 밝혔다. <br/><br/>금감원 접수 민원엔 황당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물건값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결제했는데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ㄱ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카드사는 “체크카드 포인트를 쓰면 우선 결제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뒤 추후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소비자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면 억울한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카드사는 금감원 지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포인트로 곧바로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br/><br/>ㄴ씨는 보험 계약을 한 뒤 보험료 자동이체 예정일 아침에 해약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험료는 영업시간도 되기 전인 그날 새벽에 이미 빠져나가 있었다. 즉각 환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금융결제원 확인을 거쳐 3일 후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면 환불요청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br/><br/>개인사업자 ㄷ씨는 통장을 정리하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입출금 내역이 있어 깜짝 놀랐다. 은행에 물어보니 “잘못 입금해서 다시 인출해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6월부터는 은행 직원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갈 땐 은행이 고객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br/><br/>약관 등에 설명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 소비자가 곤란을 겪은 사례도 개선된다. ㄹ씨는 중학생 아들의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아들이 고교 진학 후 펜싱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동선수가 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 ㅁ씨는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면역강화 등 일종의 후유증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사는 “암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r/><br/>보험사들은 앞으로 ‘직무변경 통지의무 사례’나 ‘직접치료에 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 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span class='quot1'>민원상담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6.txt

제목: [여적]단원고의 목련  
날짜: 2014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710014097297  
본문: “<span class='quot0'>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어라 내 사랑이어라…/ (중략)/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 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span>”(양희은 ‘하얀 목련’)<br/><br/>1980년대 초 가수 양희은은 난소암에 걸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다. “<span class='quot0'>죽으려면 죽는 거고 살려면 살겠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span>”(2011년 한겨레 인터뷰). 암 수술을 받은 그에게 작곡가 김희갑이 격려의 선물로 준 게 이 노래다. 원래는 다른 가사가 붙어 있었는데, 양희은이 직접 쓴 가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발표하는 노래마다 금지곡으로 묶여 고통받고, 암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그는 ‘하얀 목련’으로 다시 일어섰다.<br/><br/>“<span class='quot0'>목련은 피어 흰 빛만 하늘로 외롭게 오르고/ 바람에 찢겨 한 잎씩 꽃은 흙으로 가네/ 검은 등걸 속/ 애틋한 그리움 움트던 겨울날 그리움만 남기고/ 저 꽃들은 가네.</span>” 1996년 세상을 뜬 김광석의 4집 앨범에 담긴 ‘회귀’다. 봄날 목련의 처연한 아름다움을 통해 삶을 섬세하게 성찰한 작품이다. 김지하의 시에 황난주가 곡을 붙였다. 4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서른 즈음에’일 테지만, 이 노래 역시 마니아들 사이에서 깊이 사랑받는다.<br/><br/>목련(木蓮)은 문자 그대로 나무에 핀 연꽃이라는 의미다. 순백의 탐스러운 자태는 우아하고 귀족적이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 다른 봄꽃도 모두 아름답지만, 목련의 고고한 기품은 사뭇 독특한 데가 있다. 꽃말이 고귀함, 숭고한 정신, 우애 등인 것도 그래서일 게다.<br/><br/>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안산 단원고에 목련 묘목을 기증했다. 1800년대 중반 앤드루 잭슨 미 7대 대통령이 먼저 떠난 부인을 기려 백악관 잔디밭에 심은 목련의 묘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이 목련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봄마다 새로 피는 부활을 의미한다</span>”고 했다. 단원고 교정의 목련은 해마다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피어날’ 것이다. 못난 어른들이 참담한 이 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지 지켜볼 터이다.<br/><br/><김민아 논설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7.txt

제목: [이채린의 뉴욕 서점가]대부분 무작위로 발생, 누구도 알 수 없는 암  
날짜: 20140426  
기자: 이채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6100000013  
본문: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환경은 점점 오염되는 현대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암과 아무 접점없이 평생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학전문기자 조지 존슨(George Johnson)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아내 낸시는 7년 전 사타구니에 멍울이 생겨 병원에 갔다가 암 선고를 받았다. 초기 발생지는 모르고 이미 전이되었다고 했다. “<span class='quot0'>몸 안의 외계인 같은 이질적 존재</span>”인 종양은 아내의 몸 속에서 전심전력으로 자라고 씨를 뿌리고 옮겨 다녔지만 아무도 몰랐다.<br/>평소 채소 위주의 식단과 운동을 통해 표준 이하의 체중을 유지하며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던 아내였다. 저자는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더 많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어 암 발생률이 높기에 아이를 원하지 않던 자신 때문에 아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다. 4기 자궁암으로 밝혀져 살 날이 5년도 안 남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다행히 아내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을 치유했다.<br/>이런 과정을 겪어낸 저자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암과 싸우면서 그 병을 이해하려 한 사람들을 만난 뒤 <암 연대기>(The Cancer Chronicles)를 썼다. 뉴욕타임스가 뽑은 2013년의 주목할 만한 책 100권에 선정됐다. <br/>암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나. 인류는 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이 책은 암의 길고 긴 역사와 현재 및 미래를 아우른다. 저자는 “<span class='quot1'>암은 세포가 제어불능 상태로 분열되며 유전적 손상을 축적시키는 현상</span>”이라고 정의하며, 선사시대 공룡화석에서 발견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종양부터 시작해 음식이나 환경 속 독소, 생활 방식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을 뒤엎는 최신 연구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br/>또한 아내의 의사 상담부터 수술, 항암치료 등의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만난 의료인 및 환자 공동체로부터 받은 위안과 연민의 감정까지 솔직하게 고백해 독자도 같은 경험을 하는 듯 느끼게 해준다. <br/>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암 생존자’ 아내는 남은 인생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결국 17년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저자를 떠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의 후두암 소식이 전해졌다.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e메일로 “암에 걸렸지만 의사가 치료 가능하다고 한다”며 밝게 소식을 전하던 남동생의 병세는 전이에 전이를 거듭했다. 암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자 회사에서 해고됐고 결국 사망했다. <br/>암의 발생 요인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해왔다. 환경적·유전적 이유 또는 명확히 알 수 없는 불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암은 발병한다. 발암물질은 어디에나 있고 연구 결과들은 서로 상충하며 그 많은 인류의 노력에도 암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여전히 적다. 그러니 누가 감히 암을 안다고 말하겠는가. <br/>그러나 암의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길고 험한 여정을 통해 저자는 위안을 찾았다. 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고, 다 우리 잘못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암은 대부분 무작위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결론 짓는다. <br/>읽고 나면 개운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안개가 걷혀 괴물이 뚜렷이 보여도 여전히 무섭고 인간은 작다. <br/>암을 시대별·분야별로 접근해 다면적으로 소개한 백과사전에 마음을 건드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잘 결합해 유려한 문체로 빚어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8.txt

제목: [이채린의 뉴욕 서점가]대부분 무작위로 발생, 누구도 알 수 없는 암  
날짜: 2014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510014091546  
본문: <b>▲ 암 연대기…조지 존슨 | 노프</b><br/><br/>기대수명은 늘어나고 환경은 점점 오염되는 현대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암과 아무 접점없이 평생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학전문기자 조지 존슨(George Johnson)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아내 낸시는 7년 전 사타구니에 멍울이 생겨 병원에 갔다가 암 선고를 받았다. 초기 발생지는 모르고 이미 전이되었다고 했다. “<span class='quot0'>몸 안의 외계인 같은 이질적 존재</span>”인 종양은 아내의 몸 속에서 전심전력으로 자라고 씨를 뿌리고 옮겨 다녔지만 아무도 몰랐다.<br/><br/>평소 채소 위주의 식단과 운동을 통해 표준 이하의 체중을 유지하며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던 아내였다. 저자는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더 많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어 암 발생률이 높기에 아이를 원하지 않던 자신 때문에 아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다. 4기 자궁암으로 밝혀져 살 날이 5년도 안 남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다행히 아내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을 치유했다.<br/><br/>이런 과정을 겪어낸 저자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암과 싸우면서 그 병을 이해하려 한 사람들을 만난 뒤 <암 연대기>(The Cancer Chronicles)를 썼다. 뉴욕타임스가 뽑은 2013년의 주목할 만한 책 100권에 선정됐다. <br/><br/>암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나. 인류는 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이 책은 암의 길고 긴 역사와 현재 및 미래를 아우른다. 저자는 “<span class='quot1'>암은 세포가 제어불능 상태로 분열되며 유전적 손상을 축적시키는 현상</span>”이라고 정의하며, 선사시대 공룡화석에서 발견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종양부터 시작해 음식이나 환경 속 독소, 생활 방식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을 뒤엎는 최신 연구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br/><br/>또한 아내의 의사 상담부터 수술, 항암치료 등의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만난 의료인 및 환자 공동체로부터 받은 위안과 연민의 감정까지 솔직하게 고백해 독자도 같은 경험을 하는 듯 느끼게 해준다. <br/><br/>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암 생존자’ 아내는 남은 인생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결국 17년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저자를 떠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의 후두암 소식이 전해졌다.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e메일로 “암에 걸렸지만 의사가 치료 가능하다고 한다”며 밝게 소식을 전하던 남동생의 병세는 전이에 전이를 거듭했다. 암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자 회사에서 해고됐고 결국 사망했다. <br/><br/>암의 발생 요인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해왔다. 환경적·유전적 이유 또는 명확히 알 수 없는 불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암은 발병한다. 발암물질은 어디에나 있고 연구 결과들은 서로 상충하며 그 많은 인류의 노력에도 암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여전히 적다. 그러니 누가 감히 암을 안다고 말하겠는가. <br/><br/>그러나 암의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길고 험한 여정을 통해 저자는 위안을 찾았다. 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고, 다 우리 잘못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암은 대부분 무작위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결론 짓는다. <br/><br/>읽고 나면 개운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안개가 걷혀 괴물이 뚜렷이 보여도 여전히 무섭고 인간은 작다. <br/><br/>암을 시대별·분야별로 접근해 다면적으로 소개한 백과사전에 마음을 건드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잘 결합해 유려한 문체로 빚어냈다.<br/><br/><이채린 | 뉴욕통신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59.txt

제목: [건강]폐암의 예후·병세 판단할 ‘열쇠’ 찾았다  
날짜: 20140425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5100000018  
본문: 2011년 국가암통계를 보면 한국의 폐암 환자들은 5년 생존율이 20.7%로 낮다. 폐암은 암 사망원인 1위로, 전체 암 사망자의 22%인 1만5867명에 달했다. 치료 성적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조기 진단이 쉽지 않고, 막상 진단이 되어도 병기 판단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br/>인하대병원 폐암센터 류정선 소장팀이 흉강 내에 존재하는 ‘미량 흉막액’을 근거로 폐암의 예후와 병기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br/>국내외 학계는 류 소장팀의 연구결과가 “<span class='quot0'>같은 폐암 1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3기 이상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 폐암 환자처럼 오래 못 사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푸는 열쇠가 될 것</span>”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 “미량이라도 흉막액 있는 경우 1기 환자도 생존기간 절반으로<br/>3기에 준하는 치료 필요성” 미 임상암학회지에 논문 발표<br/>류 교수(호흡기내과)는 최근 미국임상암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span class='quot1'>폐암 환자에게서 미량 흉막액이 발견되면 이미 암이 진행 단계에 접어들어 흉막 전이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span>”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상 검사에서 미량 흉막액이 보일 경우 암일 것으로 추정만 했을 뿐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를 병기 판단이나 치료법 적용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br/>류 교수팀은 인하대병원에서 진단·치료받은 2061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중요 검사와 치료관련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병기에 따른 흉막액 발생 분포와 환자의 생존 기간도 연구했다.<br/>그 결과 2061명 중 13%에서 미량 흉막액이 관찰되었다. 미량 흉막액의 90%는 폐암에 의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암세포가 복막을 침범하면 복수가 차듯이 흉막을 침범하면 흉막액이 폐에 고이게 된다. 극히 드물지만 암세포가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고일 수 있다. <br/>이 흉막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암세포가 나오고, 따라서 흉막액이 영상검사에서 많이 보인다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그 두께가 1㎝ 이내(미량)이면 흉막액을 뽑아서 검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미량 흉막액이 있을 경우 암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웠던 이유 때문이다.<br/>류 교수팀의 연구 결과 흉부 CT에서 흉막액이 전혀 없었던 폐암 환자들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약 18개월이었던 반면 CT 영상 중 한 컷에서라도 미량 흉막액이 발견된 환자들은 평균 7.7개월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초기인 1기의 경우 미량 흉막액이 발견된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2.3년으로 3기 환자와 같은 사망 위험도를 보였다. 흉막액이 보이지 않은 1기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약 6.5년)보다 크게 떨어진다.<br/>이번 연구는 1기라도 미량 흉막액이 발견되는 경우 3기에 준하는 치료를 할 필요성의 근거를 제기하는 것이다. <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1'>폐암 말기에 나타나는 악성 흉막액과 폐암 1~4기에서 두루 나타나는 미량 흉막액은 모두 암세포가 흉막액에 근접해 흉막의 투과성을 높임으로써 발생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미량 흉막액의 존재는 암세포가 흉막으로 전이됐음을 나타내는 단서</span>”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0.txt

제목: [건강]50대 이후 면역력 ‘뚝’…성인도 예방접종 필수  
날짜: 20140425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5100000019  
본문: 평균수명의 증가로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기에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은 면역력이 성인이 되면서 점차 떨어져 5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소진되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각종 감염질환의 증가를 예고한다.<br/>폐렴은 예방이 필요한 대표적인 감염질환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으로 기침, 가래 등 초기 증상을 지나 중증으로 가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치료에 실패하면 사망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을 비롯한 폐렴구균 질환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1위의 사망요인’으로 꼽고 있다.<br/>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과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는 폐렴을 비롯한 폐렴구균성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건강한 성인보다 각각 2~5배, 3~7배, 5~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대한감염학회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독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A형·B형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백신 등을 성인이 맞아야 할 주요 백신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중 폐렴구균 백신 접종은 최우선 사항으로 꼽힌다. 1회 접종으로 폐렴구균 폐렴 및 침습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단백접합 백신이 나와 있다.<br/>학회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만성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등 만성질환자들은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65세 이상 성인과 암, 백혈병, 림프종,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폐렴의 고위험군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며, 비용과 효과 면에서도 우수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1.txt

제목: [건강]“최적의 건강비법, 많이 먹고 많이 움직여라”  
날짜: 20140425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5100000021  
본문: ‘많이 먹고 많이 움직여라.’ 최근 한국을 찾은 미국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 샘 렌보그 박사(79·사진)가 제시한 ‘최적의 건강’을 만들기 위한 비결이다.<br/>렌보그 박사는 “<span class='quot0'>많이 먹을수록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라</span>”고 권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영양과 운동을 기본으로 적당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 등 건강한 생활패턴이 뒷받침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각종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 중요 영양소와 함께 2500여종에 이르는 각종 식물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이다. 식물영양소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생리활성물질로 초식물 고유의 색깔 속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 심혈관질환과 암,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염병의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로 꼽힌다.<br/>렌보그 박사는 “<span class='quot0'>식물영양소는 채소, 과일 등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경우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앞으로 질병 예방이 건강의 초점이 되는 시대가 올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식물영양소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span>”고 주장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2.txt

제목: ‘톱밥 물’을 암 치료제라며 13년간 팔아…  
날짜: 2014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410014081084  
본문: 톱밥과 깻묵을 달인 물을 암 치료 특효약이라고 속여 13년여간 암 환자들에게 판 일당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가짜 약을 팔아 챙긴 돈은 32억원에 달했다.<br/><br/>부산 금정경찰서는 24일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모 식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62)를 구속하고 직원과 도매상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동작구 모 식품 제조업체에서 미루나무 톱밥과 깻묵을 중탕기에 넣어 달인 물로 ‘융합균액HZ’라는 음료를 만든 뒤 “<span class='quot0'>영지버섯이 융합돼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span>”고 속여 32억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br/><br/>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0년 톱밥과 깻묵 9t을 사 지하창고에 쌓아두고 주문을 받을 때마다 중탕해 판매했다. 톱밥 등에서 납과 크롬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제품을 산 암 환자들은 대부분 냄새가 역겨워 몇 차례 먹다가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br/><br/>김씨등은 인터넷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 지식인 검색을 통해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효과가 탁월하다. 암세포 수치가 낮아졌다’는 등의 가짜 사용 후기를 올려 암 환자들에게 팔았다.<br/><br/>경찰은 관할 기초단체에 통보, 문제의 업체를 폐쇄하고 톱밥 등 원재료 7.5t을 폐기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3.txt

제목: [경제와 세상]시스템은 규제가 만든다  
날짜: 20140424  
기자: 홍기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4100000019  
본문: 대한민국에서 시스템이 사라졌다는 한탄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규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시스템은 규제다.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지난 몇 십년에 걸쳐 착실하게 누적되어 온 과도한 규제 철폐와 완화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br/>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은 대략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모습을 띠게 되어 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의 행동과 벌어지는 사건들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게 되어 있고 또 대략 일정하게 수렴하는 규범 혹은 표준적인 모습이 있게 마련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과정은 무수히 많은 다른 과정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동과 사건들이 모두 이렇게 일정한 범위 안에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결합되게 마련이다. <br/>하지만 이를 황당하다시피 크게 벗어나는 사람들의 행동 또는 사건의 결과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양쪽 ‘꼬리’에 해당하는 행동과 사건들이 나타날 경우 그와 연관된 다른 사회적 과정과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부전이 누적되고 중첩되면 큰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시스템이란 바로 이러한 ‘꼬리’를 잘라내기 위해 사회가 마련한 각종 장치들로 이루어지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인간들의 행동과 벌어지는 사건들을 일정한 범위 안으로 묶어두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장치 즉 규제이다.<br/>일상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규제는 갑갑하고 무의미한 족쇄로 보일 수 있다.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을 상정하여 괜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로 인해 가로막힌 저 너머에 아주 구체적인 이윤의 기회가 보인다면 규제는 그야말로 ‘암덩어리’로 보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은 아직 기다려 보아야 하겠으나, 선령이 오래된 배를 그것도 무리하게 증축한 것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선박 수명에 대한 실로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배의 안전성에 치명적일 증축에 관련된 규제들도 무시된 셈이다. <br/>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는 승조원들의 고용 구조를 보면 놀랍다. 도대체 정규직이라 할 이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선장조차 촉탁직에 월급여가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안전과 관리를 둘러싼 규제와 검사의 환경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일단 사고가 난 뒤의 ‘시스템 부재’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히 지적이 됐다.<br/>한 두 개의 규제가 없어지고 그 결과 한 두 군데에서 ‘꼬리’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바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와 연결된 다른 과정에서 규제가 버텨주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가 바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br/>하지만 오히려 모든 곳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개개인들이 맹목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규범’이 되어 버리면 이 ‘꼬리’의 행동 및 사건들이 도처에서 생겨나게 되며, 이것들이 중첩되면 마침내 보통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재난 즉 ‘퍼펙트 스톰’이 되고 마는 것이다.<br/>현존하는 모든 규제 장치를 깡그리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 장치이든 순식간에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건강한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낡아 버린 규제들을 끊임없이 솎아내어 없애고 실정에 맞는 것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br/>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규제를 ‘암덩어리’로 보고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일만을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면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서 진짜 암덩어리가 온몸에 창궐하게 될 것이며, 그 흉측한 모습은 이번 사건의 전체 과정을 그 인과 관계의 사슬 하나하나를 촘촘히 따라가 보면 잘 보일 것이다. 시스템이란 곧 규제이다. 피할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그 너무나 억울한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그러고도 이를 배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올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4.txt

제목: [비상식의 사회]존엄사 강요당하는 수많은 세 모녀들  
날짜: 2014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2100000027  
본문: 어느날 세 모녀는 얼싸안고 엉엉 울었으리라. 고통스러운 삶을 더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택할 수 있는 건 품위 있는 죽음뿐이었다.<br/><br/>지난 3월 마지막 토요일, 전교조 초대 위원장 고 윤영규 선생님 9주기 추모행사가 광주 5·18 묘역에서 열렸다. 나는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육운동 초기에 함께했던 분들과 함께 주최 측에서 마련한 버스에 올랐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반가웠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교육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30~40대 젊은이들이 모두 초로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주고받는 얘기도 뜨거운 현실 문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다.<br/><br/>나도 촉촉이 봄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손전화 진동이 울렸다. 요즘 웬만한 건 문자나 카톡으로 하고 음성통화는 귀한 데다가 전화 오는 횟수도 줄어 모처럼의 전화가 반갑기도 했다. 저장된 번호는 아니었다. 누굴까?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받았다.<br/><br/>“여보세요. 여긴 ○○보험회산데요.”<br/><br/>모르는 여성의 목소리는 활기찼지만 내 기분은 별로였다.<br/><br/>내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속사포처럼 말이 날아왔다.<br/><br/>“아버님, 지금 들고 계신 암보험은 80세까지만 보장이 되거든요. 아버님 혈압약 드시는 거 상관없이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아버님!”<br/><br/>그 쪽은 내 나이와 병력 등 내 개인정보를 훤히 알고 있는 듯했다. 한편으론 괘씸한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했다.<br/><br/>며칠 전에는 주민센터로부터 공문 형식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가 다음달이면 만 65세가 되니 노령연금 등 해당자는 미리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기분이 묘했다. 나도 이젠 어쩔 수없이 ‘지공대사’(지하철 공짜 대상)가 되는구나, 이젠 슬슬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며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br/><br/>헌법상의 권리인 자기결정권<br/>올해는 4월 20일이 기독교 교회력으로 부활절이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산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형을 받으며 죽어간 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br/><br/>예수의 죽음은 철저히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하고 있다. 성경 기록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죽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실천에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 전태일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의 노동 현실과 처참한 노동자의 삶을 고발하고 알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자기희생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과감히 분신을 결단했다.<br/><br/>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어떠한 법이나 윤리, 도덕의 잣대도 들이대지 않는다. 그 행위가 누구의 억압이나 간섭도 없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철저히 이타적 공익에 부합함은 물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존경하는 차원을 넘어 따라 배우려는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br/><br/>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자기결정권이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국가권력을 비롯하여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다. 의학적으로는 존엄사라는 말로 통용된다. 전혀 깨어날 가망성이 없는 의식상실 상태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생명유지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에 의해 ‘환자의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환자의 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례 수준으로 소극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br/><br/>이러한 존엄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된 사례가 바로 스콧 니어링의 죽음이다. 니어링 부부는 복잡한 도시 뉴욕에서의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고 산골로 내려가 손수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산다. 어느 해 그는 언젠가 맞을 죽음에 대해 ‘이웃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자기의 소회와 각오를 밝힌다.<br/><br/>“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죽음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어떤 의사도 주위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죽음에 대해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 있었으면 한다. 죽음이 다가오면 음식을 끊고 마시는 것도 끊고자 한다. 어떤 장례식도 열려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목사의 설교, 그 밖의 다른 종교인이 장례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화장이 끝난 뒤 재를 거두어 우리 땅의 나무 아래 뿌려주기 바란다.”<br/><br/>가난의 벽에 절망, 생을 정리하다<br/>그는 100살이 되기 한 달 전 유서를 다시 써서 부인에게 맡기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1983년 가장 품위 있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스콧 니어링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은 ‘더 이상 산다는 것이 어떤 내용도 지니지 못한다’는 판단이라고 유서에서 고백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삶에 대한 포기의 자기결정이 존엄한 인간의 태도라는 것이다.<br/><br/>결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나는 가난의 벽 앞에서 절망하며 스스로 생을 정리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도 또 다른 존엄사라고 생각한다. 60세의 어머니와 35·32세의 두 딸, 8년 전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며 빚만 남겼다. 딸 둘은 고혈압·당뇨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환자였고, 어머니가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로 겨우 가족의 삶을 유지시키고 있었다.<br/><br/>장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 고통과 절망감이 오죽했을까? 죽음의 유혹은 이미 그들 곁에 웅크리고 있었다.<br/><br/>그러다가 어느날 유일한 노동력인 어머니가 팔을 다쳐 식당 일을 못하게 되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손 벌릴 데가 없었다. 동사무소나 다른 기관도 찾아봤지만 형식 요건이 되지 않았다. 반경 500m 안에 크고 작은 교회가 10개도 넘었지만 아무 상관없는 닫혀 있는 건물에 불과했다.<br/><br/>어느날 세 모녀는 얼싸안고 엉엉 울었으리라. 도대체 길이 없는 막힌 절벽. 넘을 수도 없었지만 어찌어찌 넘는다 해도 기다리는 건 절망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고통스러운 삶을 더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택할 수 있는 건 품위 있는 죽음뿐이었다. 남은 돈으로 죽기 전 마지막 여행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낼 수 없었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br/><br/>그들은 주인아주머니께 짧은 글을 남겼다. 그리고 그것이 유서가 되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짧은 글 속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다. 이 나라는, 우리 사회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미안해 하고만 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은 수백억의 나라와 사회에 대한 빚을 갚지 않고 떵떵거리고, 어느 재벌은 일당 5억짜리 노역을 살다가 들통이 나는 이런 비상식의 사회에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난한 세 모녀는 오늘도 존엄사를 강요당하고 있다.<br/><br/><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고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5.txt

제목: [케이블·위성TV하이라이트]2014년 4월 21일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1100000003  
본문: ■ 다큐멘터리 ■ 생명을 품은 지구(NGC 오후 5시) = 1화. 미국 항공우주국과 세계의 지구과학자들이 지구 생명 체계에 관한 가설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구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파헤친다. 컴퓨터 영상합성기술을 활용해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가시 스펙트럼’으로 전환한다. 전환된 자료들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감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과 움직임을 생생하게 관찰한다. <br/>■ 외화드라마 ■ 헬릭스(AXN 오후 10시50분) = 12화. 앨런 패러것의 전 부인 줄리아 워커는 암으로 고통받는 팀원 사라 조던에게 약을 투여한다. 스펜서 치시크는 북극 생물계 조사 기관의 수장 히로시 하타케가 엄마를 죽이는 영상을 보고 복수를 결심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특수병원균 관리부장 앨런과 히로시는 스펜서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스펜서가 줄리아의 존재를 알아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6.txt

제목: [케이블·위성TV하이라이트]2014년 4월 21일  
날짜: 2014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2010014044821  
본문: ■ 다큐멘터리 ■ 생명을 품은 지구(NGC 오후 5시) = 1화. 미국 항공우주국과 세계의 지구과학자들이 지구 생명 체계에 관한 가설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구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파헤친다. 컴퓨터 영상합성기술을 활용해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가시 스펙트럼’으로 전환한다. 전환된 자료들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감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과 움직임을 생생하게 관찰한다.<br/><br/>■ 외화드라마 ■ 헬릭스(AXN 오후 10시50분) = 12화. 앨런 패러것의 전 부인 줄리아 워커는 암으로 고통받는 팀원 사라 조던에게 약을 투여한다. 스펜서 치시크는 북극 생물계 조사 기관의 수장 히로시 하타케가 엄마를 죽이는 영상을 보고 복수를 결심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특수병원균 관리부장 앨런과 히로시는 스펜서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스펜서가 줄리아의 존재를 알아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7.txt

제목: [볼만한 주말영화]2014년 4월 19일·20일  
날짜: 2014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9100000016  
본문: 뇌성마비 ‘왼발 화가’의 화폭 속 삶의 명암<br/>◆ 세계의 명화 <나의 왼발>(EBS 일 오후 2시15분) = 아일랜드 더블린의 가난한 가정에서 선천적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크리스티 브라운은 왼발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부위도 움직일 수 없다. 주변에서는 세 살까지 말을 못하는 브라운을 보고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 취급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그는 왼발을 움직여 ‘어머니’란 글씨를 쓰는 데 성공한다. 브라운은 점차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하면서 세상과 소통한다. 그를 돌봐주던 아일린 콜 선생님은 그의 그림 실력을 눈여겨보고 작품 활동을 지지하여 전시회를 열도록 도와준다. 마침내 전시회가 열리고 브라운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콜 선생님의 약혼 소식을 듣고는 장애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br/>시각장애인의 ‘피아니스트 꿈’을 응원<br/>◆ 독립영화관 <터치 오브 라이트> (KBS1 토 밤 1시5분) = 유시앙(황유상)은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피아노 연주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는 난생처음 시골집을 떠나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생활과 냉혹한 현실은 유시앙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음료 배달을 하는 치에(장용용)를 만나게 된다. 유시앙은 무용을 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살아가는 치에의 꿈을 응원하게 된다. 유시앙 또한 치에에게 위로받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게 된다. 유시앙은 자신의 장애를 개의치 않고 진가를 알아봐준 친구들의 도움으로 멈춰 있었던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된다. 2013년 3월 개봉. 장영치 감독. 장용용, 황유상, 이열, 가숙근 출연.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관객상 수상, 제24회 팜스프링스국제영화제 최우수외국어영화상 수상.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8.txt

제목: 유방암 4기도 치료하면 10명 중 3명 ‘장기 생존’  
날짜: 20140418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8100000003  
본문: 30대 후반의 직장여성 김선영씨(가명)는 2012년에 처음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받고 3차례 이상 항암치료를 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다. 김씨는 처음 4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을 당시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주저했다. 4기암은 말기암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항암치료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span class='quot0'>전이성 유방암도 적극 치료하면 예후(예상되는 치료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span>”고 재차 설득했다. 김씨는 3년째 완치의 희망을 품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받은 검사에서도 암이 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br/>국내 유방암 환자는 2001년 7165명에서 2011년 1만601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폐경 전이나 30~40대 젊은 환자의 비율도 서양에 비해 높다. 치료율은 전체 5년 생존율이 90%를 넘었다.<br/>유방암의 치료법이 발달함에 따라 전이성암의 치료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한국유방암학회 자료를 보면 전이성 유방암(4기)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약 30%에 이른다. 이는 10명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중 약 3명은 장기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br/><br/>원자력병원 노우철 진료부장(유방암센터장·외과)은 “<span class='quot1'>투병 중이거나 완치된 유방암 환자에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가 됐음을 알리는 것은 의료진에게나 환자에게나 모두 가장 힘든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내 4기 전이성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30%에 달하는 만큼 치료 목표를 완치에 두고 생존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 치료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전이성 유방암 치료 접근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완치에 목표를 둔 적극적인 항암치료다. 두 번째 단계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암을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항암치료를 진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항암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완화요법이나 호스피스 프로그램과 같은 보존적·정서적 치료를 시행한다. 유방암의 치료는 암의 병기나 환자의 특성, 위험인자,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항암화학요법이다.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여야 하는 환자,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br/>최근 탁산,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약물에 비해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계열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가 개발됐다. 하지만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한 유일한 3차 단독 치료제가 출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br/>노우철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최근 전이성 유방암 치료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생존기간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 변화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노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새로운 치료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에 대한 우선적인 보험급여 허용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69.txt

제목: 지적장애인도 내년 3월부터 생명보험 가입  
날짜: 20140418  
기자: 이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8100000071  
본문: 내년 3월부터 지적 장애인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이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도 커진다.<br/>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지적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어도 ‘심신 박약자’로 분류돼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br/>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도 개선된다. 이 제도는 직접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 설정 시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신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친족 외에 타인의 증여로 신탁을 설정해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br/>장애인이 민간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된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지급되는 연금 액수가 10~25% 많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현재 45세 이상에서 20세·30세·40세 등으로 낮춘 상품이다. <br/>노인 장기요양인 연금보험도 개선된다. 노인 장기요양인 연금보험은 치매 등이 발생하면 연금과 함께 간병비도 나오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장 대상이 제한적이고, 치매 가족력이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됐다. 앞으로는 단순히 가족력만으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고, 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기준에 따라 장기 간병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항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급 장애인은 물론,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급도 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된다. <br/>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거점 점포를 지정, 수화 통역사나 장애인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0.txt

제목: [기고]또다시 안전을 생각한다  
날짜: 20140418  
기자: 박종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8100000027  
본문: 무려 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난 2월17일 경주 코오롱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또다시 어린 학생들의 비보가 들려온다. 땅속 흙더미에 묻혔다면 삽과 괭이라도 가져와 파보기라도 할 텐데 바다 한가운데 침몰된 여객선을 바라만 봐야 하는 가족들과 학교 친구들의 가슴은 이미 숯덩이가 되어가고 있다. 배를 인양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기상악화도 변수다.<br/>1인당 국민소득 2만6000달러가 이미 넘어 선진국 진입 운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스스로 “복지와 안전이 정부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부처 또한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꿨는데 정작 그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br/>이번 진도 앞바다 참사도 지난번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처럼 천재지변으로 몰고 갈 것인가?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에는 풍랑과 안개 등 기상 조건도 매우 좋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여객선이 정상 속도와 항로를 지켜가며 운항했는지, 선박안전법에 명시된 정기·임시 검사를 받았는지, 무리하게 여객선에 컨테이너를 실었는지, 여객선에 화물을 실을 때 배의 한쪽으로 편심이 발생하도록 허술하게 실었는지(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선박안전법 제25조,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선박 시설기준을 준수했는지, 여객선 승객들에게 위급 시 안전대응 공지를 했는지 등등을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br/>학생들과 승객들의 생명은 놔두고 서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여객선에서 도망친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봐서는 이러한 기대를 하기가 요원하다. 심지어 선장과 제주해경의 무전기 사고 통화 내용을 보면 다급함이나 위급함은 찾아볼 수 없다. <br/>선박안전법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39조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아울러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허술한 검사 업무도 점검해 봐야 한다.<br/>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 않는다. 늘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설마 내가”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불러온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에서도 처음엔 “폭설에 의한 천재지변”이라고 발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인허가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안전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원흉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도 비수기를 막 벗어나 수학여행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배 운항을 더 증설하여 속도전 운항을 위해 정상 해로를 가지 않고 편법 해로 운항을 해 왔는지도 조사를 해 봐야 한다.<br/>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를 암 덩어리라며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 규제에는 ‘환경’과 ‘안전’을 위한 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앞다투어 규제 완화 건의안을 정부에 올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들도 설자리가 없어졌고, 70%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강화 특별법’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은 이제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식, 내 이웃이 세월호에 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기엔 꽃다운 학생들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1.txt

제목: [글로벌 한국 제약·바이오 2014]과감한 투자…‘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나섰다  
날짜: 2014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8100000011  
본문: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을 토대로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있다. 신약 개발은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br/><br/>사망률이 높은 암을 비롯해 건강 및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질환인 비만과 당뇨,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감염질환, 슈퍼박테리아 등 주요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신약 개발 열기가 뜨겁다. <br/><br/>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이루어진 최적의 연구환경 속에서 전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한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의 탄생이 임박했다. 우수한 제품력과 원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은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br/><br/><br/><br/>현대 의학은 질병의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과 프리미엄 백신의 비약적인 시장 확대에 따라 백신산업의 중요성이 국민 보건과 산업 측면에서 모두 높아졌다. <br/><br/>국내 백신 시장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백신 시장은 연평균 11.5%(2007~2017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늘어나자 ‘백신 확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말까지 생겼다.<br/><br/>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를 박멸하기 위한 신약 연구·개발도 한창이다. <br/><br/>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유럽에서는 1년에 2만5000명, 미국에서는 1만9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2011~2012년 국내 100대 상급(3차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서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4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선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개인위생과 병원 내 청결 등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슈퍼박테리아를 박멸할 수 있는 슈퍼항생제를 개발해야 한다.<br/><br/>또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양수액제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br/><br/>영양수액은 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사용돼왔다. 요즘은 노인이나 일반인들이 피로 해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영양수액을 처방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업계는 국내 영양수액제 시장이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 1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양수액제는 최근 의약품 수출의 효자품목으로 떠올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2.txt

제목: 쌍용차, 단종차량 무상점검 실시  
날짜: 2014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810014037634  
본문: 쌍용자동차가 단종된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br/><br/>쌍용차는 렉스턴Ⅱ, 액티언, 카이런 등 단종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대상으로 ‘로워 암 볼 조인트’(Lower arm ball joint)의 무상점검 및 수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br/><br/>이번 조치는 차량 성능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br/><br/>이번 무상점검 대상인 로워 암 볼 조인트는 일부 노후 차량의 경우 주행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유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 정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한 부품 중 하나다.<br/><br/>쌍용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볼 조인트 부위는 차량 운행 중 지속적으로 유동하는 부분으로 차량 노후화나 기타 외적 충격에 따른 유격이 발생할 경우 주행 중 핸들 떨림, 비정상 쏠림, 타이어 편마모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행사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예약 후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면 무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br/><br/><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3.txt

제목: 심혈관·뇌혈관 질환은 ‘같은 뿌리’…통합관리 의료시스템 필요  
날짜: 20140418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8100000004  
본문: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률 2위(심장병), 3위(뇌졸중)로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 보통 뇌졸중의 경우 신경과와 신경외과, 심장질환은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중심으로 협진한다. 하지만 발생 원인이 유사하고,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시스템이 요청되고 있다.<br/>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센터 신용삼(센터장·신경외과), 송현·강준규(흉부외과), 김범수(영상의학과) 교수팀은 2009~2012년 사이에 심장수술을 받았거나 수술이 필요했던 249명(남 155, 여 94명)에 대해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혈관질환 검사를 한 결과 53.4%인 133명에서 뇌혈관질환이 발견됐다고 밝혔다.<br/>이 중 판막질환과 대동맥질환을 제외한 심혈관질환인 관상동맥질환자 188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62.7%인 118명에서 뇌혈관질환이 확인됐다. 118명 중 79.7%인 94명은 고혈압, 50%인 59명은 당뇨를 가지고 있었다. 만성질환과 심장·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이 다시금 입증된 셈이다. 심장·뇌혈관 환자군이 과거에 뇌졸중을 앓았던 비율은 12.8%로, 심혈관 환자군의 3.4%보다 높았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br/>신용삼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심혈관질환자의 절반 이상에게 뇌혈관질환도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혈관이 이어져 있고,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의 질환과 흡연, 스트레스 등이 모든 혈관의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신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은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 두 질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평소 술, 담배를 자주 하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복부비만이 있거나 해당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면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권했다. 최근 한국도 주요 선진국처럼 주요 대학병원들이 심뇌혈관 환자들의 통합 진료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센터, 삼성서울병원 심뇌혈관병원 등이 대표 사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4.txt

제목: [특집]리커버리 ‘김수경 케일 분말·과립제품’ - 엽록소 함량 높은 케일 성인병 예방 면역력 높여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7100000028  
본문: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엽록소 함유 식품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채소 가운데 엽록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케일을 주원료로 한 엽록소 식품의 인기가 높다. 엽록소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케일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A, 비타민B군 등 각종 무기질은 물론 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종합영양제와 같은 채소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고의 채소,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극찬했다.<br/>건강식품기업 리커버리는 김수경 엽록소 케일 분말제품(300g)과 과립제품(5g·60포)을 새로 출시했다. 케일은 100g당 엽록소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로 알려진 시금치(127㎎)보다 60㎎이나 많다. 베타카로틴 함량(1813㎍)도 녹황색 채소 중 가장 높다. 특히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암·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에 좋다. 케일 엽록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활동을 쉽게 해줘 여성들의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케일에 함유된 양질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액을 pH 7.1~7.4의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준다. 1544-9718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5.txt

제목: 영화 ‘시선’으로 19년만에 메가폰 이장호 감독 “필름값 걱정은 덜었지만 자본논리 지배 안타까워”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7100000039  
본문: 이장호(69) 감독은 <별들의 고향>(1974)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당시 나이는 29세. 국도극장에서 단관 개봉된 이 영화는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흥행했다. <미워도 다시 한 번>(1967)이 처음으로 30만 관객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기록이다.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바보 선언>(1983)에서 사회 문제를 관통하는 시선, 새로운 영화 문법을 보여주며 1970~80년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이장호 감독이 신작 <시선>을 선보인다. <천재선언> 이후 꼭 19년 만이다. <br/><br/>최근 서울 중구 충무로 시네마서비스 사무실에서 만난 이장호 감독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br/> <br/><br/>- 19년 전과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다. <br/><br/>“극과 극이다. 나이 많은 연출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더라. 전엔 카메라를 고정해 찍은 것 외에는 촬영본을 볼 수 없어 불안했다. 필름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도 컸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시름을 덜게 됐다. 지금은 모니터 보면서 내가 표현하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현장 편집도 가능하다. 동시 녹음을 하니 배우들도 최선의 연기력을 발휘하더라.”<br/><br/>- 어려운 점은.<br/><br/>“스태프들이 괴로웠을 거다. 난 책상에선 콘티가 안 짜진다. 현장 가서 배우가 투입돼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스태프들이 아무리 불평해도 해결을 못 해줬는데, 나중엔 콘티없이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느냐며 놀랐다.”<br/><br/>- 종교를 소재로 하지만 맹목적 선교 영화는 아니더라. <br/><br/>“영화를 보면서 비기독교인은 잊고 살았지만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 향수를 느끼고, 기독교인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반성했으면 한다. 기독교인은 배교의 문제에서 특히나 엄격한데, 비기독교인의 눈에서 보면 어리석다고 느낄 수 있지 않나.”<br/><br/>- 실제 교회 장로인데, 영화 속 장로는 세속적으로 그려진다. <br/><br/>“그게 다 내 옛날 모습이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내 분신들이다(웃음).”<br/><br/>- 지난해 <시선>에 출연한 배우 박용식, <별들의 고향>의 원작자이자 고교 동창인 최인호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심정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br/><br/>“최인호는 운명적으로 내게 은혜만 주고 간 친구다. 그를 만나지 못했으면 영화 인생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침샘암으로 5년간 투병할 때 그는 그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지 않았다. 유고집 <눈물>에 투병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읽고 나도 모르게 최인호처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왜냐면 (최)인호는 한 번의 시련도 없이 쭉 내달린 고속 인생이었다.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집중적인 소통을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다. 대개는 철부지나 욕심쟁이로 살다가 마무리도 못 하고 갑자기 떠나지 않나. 대한민국엔 암에 걸려야 아름답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도 병에 걸려야, 국민 생각을 할 것 같다. <눈물>에 대한 답신으로 최인호 추모 영화를 계획 중이다.”<br/><br/>-40년 전과 비교해 한국영화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나. <br/><br/>“<바보선언>은 사전검열 때문에 시나리오 없이 찍었다. 외화 쿼터를 따기 위해 한국영화를 찍는 시대였다. 그때가 야만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로봇의 시대다.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테크닉도 좋아졌지만, 투자자·배급사가 너무 거대해져 자본의 논리가 영화를 지배한다.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작가정신은 거세당하고 희생된다.”<br/><br/>- 바람직한 발전은 무엇일까. <br/><br/>“대개의 영화는 관객에게서 돈을 긁어모으려고 한다. 좀 훌륭한 감독이래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이용할 것이다. 어쨌든 관객은 볼모로 잡혀 있다. 관객들도 마조히스트처럼 당하는 걸 거부하지 않으니, 서로 변태적 관계인 셈이다. 영화는 관객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작가적 생각을 가진 감독들에게 창작의 길이 열려야 한다.” <br/><br/>- 예전엔 문학과 영화가 가까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웹툰이 차지했다. <br/><br/>“요즘 세대는 스피디한 CF 영상의 움직임에 훈련되며 자랐다. 공부할 때도 이어폰 꼽지 않나. 오디오·비디오 분야만 조기 특수 훈련을 받은 거지. 문자는 거세되고, 영상만 천재적으로 키워진 거다. 그 와중에 인문은 실종돼버렸다.”<br/><br/>- 젊은 후배 감독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br/><br/>“영화 잘 만들고 학력 우수한 젊은 감독들도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작품은 잘 모르더라. 외국 영화나 DVD만 보고 영화를 공부한 거지. 봉준호는 젊은 데도 얘기가 잘 통한다. 그러니 <설국열차> 같은 작품도 나올 수 있었던 거다. 후배들이 인문학 기초를 탄탄히 다졌으면 한다. 인문학이 없으면 절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다.” <br/><br/><br/>■ ‘시선’은 어떤 영화<br/><br/>‘순교와 배교 사이’ 나약한 인간심리 그려<br/><br/><br/><br/>8명의 한국인들이 이슬람 국가인 ‘이스마엘’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 현지 통역 전도사인 조요한(오광록)의 안내로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하던 중 외딴 숲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다. 무장단체는 이들을 인질로 삼고 수감된 지도자의 석방과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다다르자, 뒤로 커미션을 챙기는 선교사의 행태, 장로의 가정 폭력, 선교단 내의 불륜이 속속 밝혀지고 서로의 불신은 커져만 간다. <br/><br/>무장단체는 이들에게 기독교를 부정할 것을 강요하고, 이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위선과 불신을 드러낸다. 순교와 배교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그렸다. 엔도 슈사쿠의 장편 소설 <침묵>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6.txt

제목: 19년 만에 신작 ‘시선’으로 돌아온 이장호 감독 “인문학적 소양 있어야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어”  
날짜: 20140417  
기자: 박은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7100000053  
본문: 이장호 감독(69)은 <별들의 고향>(1974)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당시 나이는 29세. 국도극장에서 단관 개봉된 이 영화는 46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흥행했다. <미워도 다시 한번>(1967)이 처음으로 30만 관객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기록이다.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바보 선언>(1983)에서 사회 문제를 관통하는 시선으로 새로운 영화 문법을 보여주며 1970~1980년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이장호 감독이 신작 <시선>을 선보인다. <천재선언> 이후 꼭 19년 만이다. <br/>최근 서울 충무로 시네마서비스 사무실에서 만난 이 감독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19년 전과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다. <br/>“극과 극이다. 나이 많은 연출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더라. 전엔 카메라를 고정해 찍은 것 외에는 촬영본을 볼 수 없어 불안했다. 필름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감도 컸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시름을 덜게 됐다. 지금은 모니터 보면서 내가 표현하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현장 편집도 가능하다. 동시 녹음을 하니 배우들도 최선의 연기력을 발휘하더라.”<br/>- 어려운 점은.<br/>“스태프들이 괴로웠을 거다. 난 책상에선 콘티가 안 짜인다. 현장에 가서 배우가 투입돼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스태프들이 아무리 불평해도 해결을 못해줬는데, 나중엔 콘티 없이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느냐며 놀랐다.”<br/>- 종교를 소재로 하지만 맹목적인 선교 영화는 아니더라. <br/>“영화를 보면서 비기독교인은 잊고 살았지만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 향수를 느끼고, 기독교인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반성했으면 한다. 기독교인은 배교 문제에 특히 엄격한데, 비기독교인의 눈에서 보면 어리석다고 느낄 수 있다.”<br/>- 실제 교회 장로인데, 영화 속 장로는 세속적으로 그려진다. <br/>“그게 다 내 옛날 모습이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내 분신들이다(웃음).”<br/>- 지난해 <시선>에 출연한 배우 박용식, <별들의 고향>의 원작자이자 고교 동창인 최인호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심정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br/>“최인호는 운명적으로 내게 은혜만 주고 간 친구다. 그를 만나지 못했으면 영화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침샘암으로 5년간 투병할 때 그는 그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지 않았다. 유고집 <눈물>에 투병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읽고 나도 모르게 최인호처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왜냐면 (최)인호는 한번의 시련도 없이 쭉 내달린 고속 인생이었다. 투병하면서 하느님께 투정하고 집중적인 소통을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다. 대개는 철부지나 욕심쟁이로 살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갑자기 떠나지 않나. 대한민국엔 암에 걸려야 아름답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도 병에 걸려야, 국민 생각을 할 것 같다. <눈물>에 대한 답신으로 최인호 추모 영화를 계획 중이다.”<br/>- 40년 전과 비교해 한국영화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나. <br/>“<바보선언>은 사전검열 때문에 시나리오 없이 찍었다. 외화 쿼터를 따기 위해 한국영화를 찍는 시대였다. 그때가 야만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로봇의 시대다.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테크닉도 좋아졌지만, 투자자·배급사가 너무 거대해져 자본의 논리가 영화를 지배한다.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작가정신은 거세당하고 희생된다.”<br/>- 바람직한 발전은 무엇일까. <br/>“대개의 영화는 관객에게서 돈을 긁어모으려고 한다. 좀 훌륭한 감독이라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이용할 것이다. 어쨌든 관객은 볼모로 잡혀있다. 관객들도 마조히스트처럼 당하는 걸 거부하지 않으니, 서로 변태적 관계인 셈이다. 영화는 관객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작가적 생각을 가진 감독들에게 창작의 길이 열려야 한다.” <br/>- 예전엔 문학과 영화가 가까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웹툰이 차지했다. <br/>“요즘 세대는 스피디한 CF 영상의 움직임에 훈련되며 자랐다. 공부할 때도 이어폰을 꽂지 않나. 오디오·비디오 분야만 조기 특수 훈련을 받은 거지. 문자는 거세되고, 영상만 천재적으로 키워진 거다. 그 와중에 인문은 실종돼 버렸다.”<br/>- 젊은 후배 감독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br/>“영화 잘 만들고 학력 우수한 젊은 감독들도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작품은 잘 모르더라. 외국 영화나 DVD만 보고 영화를 공부한 거지. 봉준호는 젊은데도 얘기가 잘 통한다. 그러니 <설국열차> 같은 작품도 나올 수 있었던 거다. 후배들이 인문학 기초를 탄탄히 다졌으면 한다. 인문학이 없으면 절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다.”<br/>▲ 영화 ‘시선’은<br/>소설 ‘침묵’ 모티브… 순교와 배교 사이 인간의 나약함 그려<br/>8명의 한국인들이 이슬람 국가인 ‘이스마엘’로 선교여행을 떠난다. 현지 통역 전도사인 조요한(오광록)의 안내로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하던 중 외딴 숲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다. 무장단체는 이들을 인질로 삼고 수감된 지도자 석방과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다다르자 뒤로 커미션을 챙기는 선교사의 행태, 장로의 가정폭력, 선교단 내의 불륜이 속속 밝혀지고 서로의 불신은 커져만 간다. 무장단체는 이들에게 기독교를 부정할 것을 강요하고, 이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위선과 불신을 드러낸다. 순교와 배교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그렸다. 엔도 슈사쿠의 장편소설 <침묵>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7.txt

제목: 승선한 학생의 아버지가 사고 첫 신고했다  
날짜: 20140417  
기자: 박홍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7100000151  
본문: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대형 여객선 ‘세월호’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운항하던 항로를 벗어나 암초에 부딪쳤거나 선체 결함 또는 내부폭발로 파손이 발생해 침수가 시작됐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해상 날씨가 사고가 날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참사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br/><br/>▲ ‘쾅’소리 후 침수 됐지만 바로 신고 않고 6분간 표류<br/>암초 충돌 가능성, 선체 내부 결함·폭발 등 설 분분<br/>안개로 2시간 반 늦게 출항, 항로 변경 의혹 제기도<br/>■ 학생 아버지가 최초 신고<br/>이날 오전 8시52분쯤 전남소방본부로 첫 사고신고가 들어왔다. 배 앞에서 울린 ‘쾅’ 소리에 놀란 단원고 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곧바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후 6분 정도 표류한 세월호는 8시58분 완전히 멈춰 섰다. 사고선박을 소유한 청해진해운은 “<span class='quot0'>선장은 두 명으로 한 명은 휴가 중이었지만 사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은 경력 40년의 베테랑이었다</span>”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체에 구멍이 났다면 수밀격벽(물이 새지 않는 칸막이 벽)이 기관실과 여객실을 막아줘 침수가 더디게 진행되게 하지만, 이번 사고는 2시간여의 짧은 시간 만에 침몰한 점으로 봐서 수밀격벽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br/>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모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수밀격벽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자동차 등 무거운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빠른 침수가 이뤄진 것 같다</span>”고 말했다. 부산대 백점기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수밀격벽이 작동했다 해도 구멍이 여러 군데 생겼다면 소용이 없었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 ‘쾅’ 소리의 정체가 열쇠<br/>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침수가 왜 시작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일제히 증언하는 ‘꽝’ 소리를 근거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사고 해역은 수심 32m의 암반지대”라고 밝혔다. 6825t짜리 대형 여객선이 암초 등에 부딪쳤다면 충돌 당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br/>사고 지점인 진도 해역 주변에 암초가 거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span class='quot3'>침몰 해역 주변의 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뚜렷한 암초는 없다</span>”고 밝혔다. 다만 해양조사원은 선박 최초 사고위치와 침몰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가 어떤 항로로 운항했는지 확인해봐야 암초와의 충돌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4'>암초에 충돌해 침몰할 경우에는 세월호보다 훨씬 천천히 가라앉았을 것</span>”이라고 말하기도 한다.<br/>선체 내부 폭발설도 제기됐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span class='quot5'>암초가 거의 없고, 여객선들에 익숙한 항로여서 암초 충돌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선체의 판 손상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대형 여객선의 경우 선체에 작은 손상만 있어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들어와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사고 피해자 중에는 화상 환자도 있었다.<br/>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이날 “<span class='quot0'>지난 2월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이 전남 여수에서 세월호에 대해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결함이 없었다</span>”고 밝혔다.<br/>■ ‘인재’ 가능성 높아<br/>세월호가 당초 지나던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경 등은 세월호가 사고 당일 운항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권고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는 당초 전날 오후 6시30분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오후 9시에야 출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장이 늦어진 운항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통상 다니던 항로를 벗어나 무리하게 운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모 교수는 “<span class='quot6'>통상 암초를 식별하고 피해가는 해상 경계를 하는데 이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김재범 청해진해운 부장은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은 아니다. 정해진 항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해진해운 소속 다른 여객선이 지난달 28일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해의 짙은 안개 탓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8.txt

제목: 노성훈 연세암병원 초대 원장 “병원은 암 치료 넘어 불안한 환자 마음까지 위로해야”  
날짜: 20140416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6100000016  
본문: “<span class='quot0'>암 환자 치료는 물론 마음까지 위로하는, 미래 암병원의 모델이 되겠습니다.</span>”<br/>노성훈 연세암병원 초대 원장(60·외과·사진)은 15일 개원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1'>연세암병원은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닥터팀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span>”이라고 밝혔다.<br/>노 원장이 병원의 자랑으로 꼽은 굿닥터팀은 금기창 연세암병원 부원장을 팀장으로 의사 49명, 코디네이터 17명 등 총 66명으로 구성됐다. 환자와 가족들이 진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치료 후 관리, 교육 등 전체 과정에서 환자 서비스를 담당한다. 암 치료를 마친 사람,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 암 치료 중 다른 질환에 걸린 사람, 암 가족력이 있어 암 발병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교육, 상담, 정보 제공도 맡는다.<br/>위암 전문가인 노 원장은 “<span class='quot2'>그동안 병원들이 암 환자의 불안 등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2'>연세암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며, 치료 과정에서 불안이나 우울증 등 수많은 감정적인 변화까지 고려해 환자가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겠다</span>”고 밝혔다. <br/>그는 “<span class='quot2'>위암·간암 등 15개 암 전문센터와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완화의료센터 등의 특성화 센터를 두고 암 예방에서 진단·치료·교육까지 암 치료의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span>”고 덧붙였다.<br/>이번에 개원한 연세암병원은 세브란스병원 안에 있으며, 지상 15층, 지하 7층, 총 501병상 규모다. <br/>노 원장은 개원에 맞춰 최신 설비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로보틱 IMRT(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기)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고, 라이낙(LINAC) 방사선 치료기 6대, 암 수술에 특화된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 3대를 암병원 전용으로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철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3'>연세암병원은 암이라는 이겨내기 힘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주는 곳이 되겠다</span>”고 다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79.txt

제목: 승선한 학생의 아버지가 사고 첫 신고했다  
날짜: 2014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61001402245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사고인가 인재인가… 침몰 미스터리</strong><!-- SUB\_TITLE\_END--><br/><br/>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대형 여객선 ‘세월호’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운항하던 항로를 벗어나 암초에 부딪쳤거나 선체 결함 또는 내부폭발로 파손이 발생해 침수가 시작됐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해상 날씨가 사고가 날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참사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br/><br/><br/><b>▲ ‘쾅’소리 후 침수 됐지만 바로 신고 않고 6분간 표류<br/>암초 충돌 가능성, 선체 내부 결함·폭발 등 설 분분<br/>안개로 2시간 반 늦게 출항, 항로 변경 의혹 제기도</b><br/><br/><b>■ 학생 아버지가 최초 신고</b><br/><br/>이날 오전 8시52분쯤 전남소방본부로 첫 사고신고가 들어왔다. 배 앞에서 울린 ‘쾅’ 소리에 놀란 단원고 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곧바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후 6분 정도 표류한 세월호는 8시58분 완전히 멈춰 섰다. 사고선박을 소유한 청해진해운은 “<span class='quot0'>선장은 두 명으로 한 명은 휴가 중이었지만 사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은 경력 40년의 베테랑이었다</span>”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체에 구멍이 났다면 수밀격벽(물이 새지 않는 칸막이 벽)이 기관실과 여객실을 막아줘 침수가 더디게 진행되게 하지만, 이번 사고는 2시간여의 짧은 시간 만에 침몰한 점으로 봐서 수밀격벽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br/><br/>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모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수밀격벽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자동차 등 무거운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빠른 침수가 이뤄진 것 같다</span>”고 말했다. 부산대 백점기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수밀격벽이 작동했다 해도 구멍이 여러 군데 생겼다면 소용이 없었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b>■ ‘쾅’ 소리의 정체가 열쇠</b><br/><br/>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침수가 왜 시작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일제히 증언하는 ‘꽝’ 소리를 근거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사고 해역은 수심 32m의 암반지대”라고 밝혔다. 6825t짜리 대형 여객선이 암초 등에 부딪쳤다면 충돌 당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br/><br/>사고 지점인 진도 해역 주변에 암초가 거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span class='quot3'>침몰 해역 주변의 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뚜렷한 암초는 없다</span>”고 밝혔다. 다만 해양조사원은 선박 최초 사고위치와 침몰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가 어떤 항로로 운항했는지 확인해봐야 암초와의 충돌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4'>암초에 충돌해 침몰할 경우에는 세월호보다 훨씬 천천히 가라앉았을 것</span>”이라고 말하기도 한다.<br/><br/>선체 내부 폭발설도 제기됐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span class='quot5'>암초가 거의 없고, 여객선들에 익숙한 항로여서 암초 충돌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선체의 판 손상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대형 여객선의 경우 선체에 작은 손상만 있어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들어와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사고 피해자 중에는 화상 환자도 있었다.<br/><br/>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이날 “<span class='quot0'>지난 2월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이 전남 여수에서 세월호에 대해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결함이 없었다</span>”고 밝혔다.<br/><br/><b>■ ‘인재’ 가능성 높아</b><br/><br/>세월호가 당초 지나던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경 등은 세월호가 사고 당일 운항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권고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는 당초 전날 오후 6시30분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오후 9시에야 출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장이 늦어진 운항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통상 다니던 항로를 벗어나 무리하게 운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모 교수는 “<span class='quot6'>통상 암초를 식별하고 피해가는 해상 경계를 하는데 이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br/>김재범 청해진해운 부장은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은 아니다. 정해진 항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해진해운 소속 다른 여객선이 지난달 28일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해의 짙은 안개 탓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br/><br/><박홍두·곽희양 기자 phd@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0.txt

제목: 노성훈 연세암병원 초대 원장 “병원은 암 치료 넘어 불안한 환자 마음까지 위로해야”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510014011107  
본문: “<span class='quot0'>암 환자 치료는 물론 마음까지 위로하는, 미래 암병원의 모델이 되겠습니다.</span>”<br/><br/>노성훈 연세암병원 초대 원장(60·외과·사진)은 15일 개원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1'>연세암병원은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닥터팀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span>”이라고 밝혔다.<br/><br/>노 원장이 병원의 자랑으로 꼽은 굿닥터팀은 금기창 연세암병원 부원장을 팀장으로 의사 49명, 코디네이터 17명 등 총 66명으로 구성됐다. 환자와 가족들이 진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치료 후 관리, 교육 등 전체 과정에서 환자 서비스를 담당한다. 암 치료를 마친 사람,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 암 치료 중 다른 질환에 걸린 사람, 암 가족력이 있어 암 발병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교육, 상담, 정보 제공도 맡는다.<br/><br/>위암 전문가인 노 원장은 “<span class='quot2'>그동안 병원들이 암 환자의 불안 등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2'>연세암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며, 치료 과정에서 불안이나 우울증 등 수많은 감정적인 변화까지 고려해 환자가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겠다</span>”고 밝혔다. <br/><br/>그는 “<span class='quot2'>위암·간암 등 15개 암 전문센터와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완화의료센터 등의 특성화 센터를 두고 암 예방에서 진단·치료·교육까지 암 치료의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span>”고 덧붙였다.<br/><br/>이번에 개원한 연세암병원은 세브란스병원 안에 있으며, 지상 15층, 지하 7층, 총 501병상 규모다. <br/><br/>노 원장은 개원에 맞춰 최신 설비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로보틱 IMRT(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기)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고, 라이낙(LINAC) 방사선 치료기 6대, 암 수술에 특화된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 3대를 암병원 전용으로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철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3'>연세암병원은 암이라는 이겨내기 힘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주는 곳이 되겠다</span>”고 다짐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1.txt

제목: [신간 탐색]귀를 여세요,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5100000005  
본문: <듣기의 철학><br/>와시다 키오카즈 지음·길주희 옮김·아카넷·1만5000원<br/><br/>일본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상대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대상은 의과·간호학과 대학생, 내과·외과 전문의, 암 전문의, 정신과의, 간호사였다. 설문조사는 “환자가” 나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의료 전문가인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라고 물었다.<br/><br/>선택지는 다섯 개였다. ①그런 말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②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③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④그 정도로 많이 아프시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⑤이미 끝났어. 이런 기분이 드시는군요.<br/><br/>정신과 전문의를 제외한 대부분은 ①번 혹은 ③번을 선택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⑤번을 선택했다. 얼핏 보면 ⑤번은 환자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것이 환자의 말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말한다. ①번, ③번은 듣는 사람 입장에 서서 한 말이지만, ⑤번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기’를 한 후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환자는 ‘나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졌음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입을 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형태를 알 수 없는 불안의 실체를 듣는 사람의 가슴을 빌려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br/><br/>듣기는 말하는 이에게 ‘자기이해의 장’을 열어주는 행위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줄 때, 말하는 이는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듣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확실한 사건’이다. 지은이는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고통을 잘 조절하고 치유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현대철학이 복원해야 할 것은 바로 ‘귀를 여는 것’이라고 말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2.txt

제목: 삼성 ‘백혈병 사태’는… 2007년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올림’ 발족, 집단 산재 신청  
날짜: 20140415  
기자: 송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5100000202  
본문: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는 2005년 6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7년 3월 사망했다. 당시 23세였다. 황씨와 2인 1조로 일했던 이숙영씨도 2006년 백혈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숨졌다. 황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일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이라고 일축했다. 황상기씨는 2007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해 11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발족하면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2007년 이전에는 백혈병이 발병해도 직업병인 줄도 모르고 지나쳤으며 삼성이 적당히 무마했는데 그 이후로는 집단적인 산재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span>”고 말했다.<br/>반올림에 접수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제보 현황을 보면 146명(반도체 114명, LCD 22명, 휴대폰 조립 및 기타 10명)에 이르며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 그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근무 환경과 백혈병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안전보건 컨설팅업체 인바이론사에 의뢰해 2011년 내놓은 반도체 근무환경 조사 결과에서도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1년 8월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도의적 차원”이라고 밝혔을 뿐이다.<br/><br/>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 황유미씨 등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산재로 인정됐다. 2012년에는 근로복지공단도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의 유방암과 백혈병 사망을 각각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br/>2012년 11월 삼성전자가 피해자 측에 대화를 제의했으며 지난해 말 첫 번째 본협상이 시작됐다. 반올림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삼성전자가 “반올림 활동가들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오라”고 하자, 반올림 측은 “반올림은 위임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교섭의 주체이다. 지난 6년간 개인의 이름으로 싸워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br/>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돼 삼성의 반도체 직업병이 다시 관심을 모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의 뜻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직업병 문제는 전기를 맞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3.txt

제목: 방대한 빅데이터 보유한 건보공단… 승패 결과 따라 큰 파장  
날짜: 20140415  
기자: 최희진,곽희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5100000162  
본문: 대법원이 15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지 나흘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돌입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나선 이번 재판은 한국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다투는 사실상의 ‘마지막 승부’로 매김되고, 환자 개인들의 소송전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br/>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span class='quot0'>담배소송은 양심과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span>”라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담배는 개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같은 국민적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배상하게 하고 흡연 폐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야 하는 공단 본연의 책무</span>”라고 말했다.<br/><br/>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하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 제조물의 결함,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여부 등 3가지다. 건보공단은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흡연과 일부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동원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의 소송청구액 537억원은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력이 20갑년(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3484명에 대해 2003~2012년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대상자와 소송가액을 먼저 설정했다는 설명이다.<br/>건보공단은 담배 제조물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대리인단에 선임된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는 “<span class='quot1'>개인들의 담배소송은 KT&G가 내부자료 공개를 꺼린 탓에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건보공단 소송 대상엔 미국 담배소송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했던 필립모리스와 BAT가 포함돼 있고 건보공단도 의학적·역학적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담배회사 퇴직자 등 내부고발자들과도 접촉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담배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br/>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건보공단마저 담배회사들에 패한다면 개인이나 다른 기관이 담배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건보공단이 승소한다면 개인들의 유사 소송이 물밀듯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개인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할 방침이다.<br/>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을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소송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span class='quot2'>국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부분이 많아 소송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겠다</span>”며 “<span class='quot2'>증거자료를 갖고 있지만 제출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의 제보도 적극 받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span class='quot3'>이번 소송은 흡연의 폐해나 중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4.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시작… 537억 손배 청구  
날짜: 20140415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5100000205  
본문: 공공기관이 벌이는 첫 담배소송의 막이 올랐다.<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span class='quot0'>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span>”며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br/>537억원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중에서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람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1'>소송 수행 과정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5.txt

제목: 다시 불붙인 ‘담배전쟁’… 개인 이어 건보공단 ‘540억’ 피해 소송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5100000084  
본문: 이른바 ‘담배전쟁’이 시작됐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14일 KT&G, 필립 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br/><br/>건강보험공단은 이날 “<span class='quot0'>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 나갈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이 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중 20년 이상 하루 1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와 전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분석했다.<br/><br/>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 변호사 정미화)이 선임됐다. 남산은 지금까지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도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하지만 개인 ‘담배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미화 대표 변호사는 “<span class='quot1'>(개인 담배소송의 경우) 피고 KT&G가 자료 공개를 꺼려 증거를 통한 인과관계 입증에 한계를 느낀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하지만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에는 이미 해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한 필립 모리스와 BAT가 포함돼 있고,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학적 자료가 많아 개인사건과 달리 승소 가능성이 높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6.txt

제목: 심상정 “삼성전자, 피해자들과 성실히 협상 해야”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510014005640  
본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5일 “<span class='quot0'>삼성전자가 백혈병·직업병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친 것은 늦었지만 다행</span>”이라며 삼성 측에 성실한 협상을 요구했다.<br/><br/>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삼성전자가 전날 백혈병 노동자 보상안에 대해 문제제기 7년 만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이같이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span class='quot1'>삼성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논의 의제들에 대해 당사자인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span>”라고 말했다.<br/><br/>그는 또 “<span class='quot1'>특히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피해 가족들의 우려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당사자 간의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다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자사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과 관련 “<span class='quot2'>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span>”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환경으로 인해 백혈병 등 직업병을 얻었다는 주장은 2007년부터 제기돼 왔다. 또 뇌종양, 난소암, 유방암 등 직업성 암과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루게릭병 등 희귀 난치병에 걸린 이들도 “작업장 환경 때문”이라며 보상과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br/><br/>특히 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숨진 황유미씨 실화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올해 2월에 상영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7.txt

제목: 삼성 ‘백혈병 사태’는… 2007년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올림’ 발족, 집단 산재 신청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41001400062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행정소송서 산재로 인정… 삼성 측은 “인과관계 없다”</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직업병 피해 제보 146명… 정치권도 나서 해결책 제안</strong><!-- SUB\_TITLE\_END--><br/><br/>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는 2005년 6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7년 3월 사망했다. 당시 23세였다. 황씨와 2인 1조로 일했던 이숙영씨도 2006년 백혈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숨졌다. 황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일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이라고 일축했다. 황상기씨는 2007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해 11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발족하면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2007년 이전에는 백혈병이 발병해도 직업병인 줄도 모르고 지나쳤으며 삼성이 적당히 무마했는데 그 이후로는 집단적인 산재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span>”고 말했다.<br/><br/>반올림에 접수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제보 현황을 보면 146명(반도체 114명, LCD 22명, 휴대폰 조립 및 기타 10명)에 이르며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 그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근무 환경과 백혈병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안전보건 컨설팅업체 인바이론사에 의뢰해 2011년 내놓은 반도체 근무환경 조사 결과에서도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1년 8월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도의적 차원”이라고 밝혔을 뿐이다.<br/><br/><br/>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 황유미씨 등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산재로 인정됐다. 2012년에는 근로복지공단도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의 유방암과 백혈병 사망을 각각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br/><br/>2012년 11월 삼성전자가 피해자 측에 대화를 제의했으며 지난해 말 첫 번째 본협상이 시작됐다. 반올림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삼성전자가 “반올림 활동가들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오라”고 하자, 반올림 측은 “반올림은 위임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교섭의 주체이다. 지난 6년간 개인의 이름으로 싸워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돼 삼성의 반도체 직업병이 다시 관심을 모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의 뜻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직업병 문제는 전기를 맞았다.<br/><br/><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8.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시작… 537억 손배 청구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410014000932  
본문: 공공기관이 벌이는 첫 담배소송의 막이 올랐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KT&amp;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span class='quot0'>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span>”며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br/><br/>537억원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중에서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람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1'>소송 수행 과정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89.txt

제목: ‘1박2일’ 상근이…12일 화장  
날짜: 2014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310013987263  
본문: ‘국민견’ 상근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다.<br/><br/>상근이의 장례는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엔젤스톤에서 화장장으로 치러졌다. <br/><br/>상근이의 보호자 이웅종 소장(이삭애견훈련소장)은 12일 “장례는 잘 마쳤다. 상근이는 이삭애견훈련소에 안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span class='quot0'>화장장에 약 50명의 시민들이 찾아오셨다</span>”며 “<span class='quot0'>상근이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전했고, 마지막 길까지 함께 해주셔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br/><br/> <br/><br/>이 소장은 “<span class='quot0'>‘1박2일’에서 상근이와 인연을 맺었던 지상렬씨가 어제 상근이 죽음 소식을 듣고 전화를 주셨다</span>”며 “<span class='quot0'>대성통곡을 하며 매우 슬퍼했고, ‘1박2일’ 작가들로부터도 애도의 뜻을 담은 연락이 왔다</span>”고 덧붙였다. <br/><br/>상근이와 지상렬은 2007년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상근이가 <1박2일>에 출연했을 당시 지상렬이 이름을 지어줬다. 지상렬은 이후 상근이 아들 상돈이를 키우며 남다른 인연을 이어왔다. <br/><br/>한편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상근이는 집에서 암(괴사성 비만세포종)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0.txt

제목: [들끓고 쏠리다]과잉진료 시대, 병원도 의사도 믿지 마라…‘반의학서’ 출간 붐 어떠세요  
날짜: 20140412  
기자: 김종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2100000012  
본문: 최근 건강 분야 책의 뚜렷한 흐름 중 하나는 의사·병원 등 의료를 불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많은 책들이 쏟아졌습니다.<br/>일본 의사 곤도 마코토가 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더난), <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영림카디널)은 이런 흐름을 선도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인기를 얻자 일본에서 나가노 가즈히로가 이를 반박하는 <의료 부정 서적에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48가지 진실>(북앤월드)을 출판했고 한국에도 소개됐습니다. <br/>한국 필자로는 의사 신우섭씨가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는 모토를 건 <의사의 반란>(에디터)을 썼습니다. ‘의학비평가’를 표방한 허현회씨의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맛있는책),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맛있는책)는 논란이 됐죠. 대한의사협회나 ‘청년의사’의 몇몇 의사들은 허씨의 책이 잘못된 내용으로 의료 불신을 조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논쟁은 허씨가 미국 잡지 기사를 인용하면서 ‘돌보다’는 뜻의 ‘care’를 ‘카레’로 잘못 번역하고, 카레가 관절염 치료에 좋다고 말한 해프닝 이후 흐지부지됐습니다. 참고로 카레의 철자는 ‘curry’입니다. <br/>이번주에도 의사·의료 불신 트렌드는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사 리사 랭킹이 쓴 <치유혁명>(시공사)은 약 복용, 식단 조절, 운동 요법이 ‘쓸모없는 건강법’이라며 자가치유 능력을 강조합니다. 일본의 이노우에 요시야스가 엮은 <건강의 배신>(돌베개)은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숨겨진 쟁점과 진실을 다룹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최악의 피폭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여전히 CT 피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은’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하는 암이 연간 암 발병의 3.2%라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의사 대다수는 이를 모르거나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병원이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br/><의료괴담>(글통)에서 치과의사 김철신씨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 환자를 유인하고 화려한 언변을 지닌 상담사가 과잉진료 유도상담을 하는 문제, 즉 수익창출에 혈안이 된 의료계를 꼬집습니다. 김씨는 의료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환자의 두려움을 자극하면 과잉진료를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을 영리병원의 전 단계로 여깁니다. 영리병원? 투자와 배당이 자유로운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게 영리병원입니다. <br/>논쟁적인 지점이 있지만 이런 책들의 공통된 문제 의식은 과잉진료입니다. 의사·병원 대 환자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사회와 의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책이 담아낸 현실은 의료마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체제에 이미 포섭된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본연의 의료와 건강을 찾는 일은 체제, 구조, 사회에 달려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반의료, 불신의 책 출간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1.txt

제목: 대법원, ‘담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 의미… 유사 소송 때 ‘피해자 배상’ 쉽잖을 듯  
날짜: 20140411  
기자: 장은교,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1100000135  
본문: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흡연자들이 담배제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이 10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소송이 15년 동안 이어지면서 1999년 소송 시작 때 참여한 암 환자 7명 중 6명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지만 끝내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사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배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br/><br/>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첫 번째 근거는 흡연이 특정인의 폐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판단 대상으로 삼은 질병은 폐암 중 비소세포암과 폐포세포암이다. 2심에서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는 흡연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의 경우에는 흡연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배소송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심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을 바탕으로 향후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br/>그러나 흡연과 암 발병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손해배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번 소송의 다른 쟁점인 담배 설계·제조상의 결함 여부와 담배제조사의 유해성 은폐 여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br/>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span class='quot0'>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span>”며 담배가 설계·제조상 결함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대법원은 “<span class='quot0'>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span>”며 제조사가 고의로 담배의 위해성 정보를 은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br/>따라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받더라도 담배 설계·제조·표시 등에서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br/><br/>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담배소송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span class='quot1'>담배소송에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조직이 나서야 승소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외국 변호사들의 지원도 받을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11일 소송대리인단 모집이 마감되면 법무법인 중 한 곳을 선임하고 다음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br/>소송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세운 6가지 시나리오(537억~2302억원)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5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액은 2001~2010년 폐암·후두암 환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력이 20갑년(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3484명에게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2.txt

제목: ‘15년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대법 “암발병 인과관계 인정 안돼”  
날짜: 20140411  
기자: 장은교,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1100000152  
본문: 15년 동안 진행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10일 “<span class='quot0'>담배제조사와 국가는 흡연 후 폐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span>”는 판결을 내렸다. 특정 환자의 암 발병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담배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흡연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br/>대법원은 “<span class='quot0'>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외적 환경인자와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정 흡연자가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span>”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담배가 제조물로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국가와 제조사가 고의로 담배의 위해성 정보를 은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br/>소송을 제기한 흡연 피해자들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span class='quot1'>흡연으로 매년 5만8000여명이 사망하는데도 제조사는 중독성을 높이려고 600여종의 첨가물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을 넣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대법원이 공개변론 한번 열지 않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은 깊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다</span>”고 말했다.<br/>한편 담배소송을 준비 중인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다음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3.txt

제목: [사설]대법원의 첫 ‘담배소송’ 판결이 아쉬운 이유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1100000035  
본문: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흡연 피해자들의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흡연 후 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들이 담배 제조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학계 견해 등을 반영해 판결을 내렸을 터이나, 헌법적 권리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br/>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담배에 설계·표시상 결함이 있는지,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는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에서 KT&G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물로서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고 제조·판매 과정에도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br/>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세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span class='quot0'>흡연과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span>”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가 판단 대상으로 삼은 것은 폐암 가운데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이다. 항소심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br/>담배의 해악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해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130만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흡연 남성은 비흡연자보다 후두암 위험이 6.5배, 폐암 위험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미 연방대법원이 2009년 필립모리스에 795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것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br/>한국담배협회는 대규모 담배소송을 준비 중인 건보공단을 향해 “<span class='quot1'>대법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span>”고 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은 건보공단이 아니라 KT&G를 비롯한 담배협회 회원사들이다. 대법원이 흡연과 일부 암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흡연을 용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판결문 오독(誤讀)이다. 대법원 판결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인과관계와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임에 유의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위축돼서도 안될 일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4.txt

제목: [의술 인술]치료비 부담 던 전이성 대장암 환자  
날짜: 20140411  
기자: 안중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1100000026  
본문: 50대 전이성 대장암 환자 김모씨는 꾸준한 항암치료로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으나 내원할 때마다 늘 표정이 어두웠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고가의 치료비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br/>암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비단 김씨만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매달 몇 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대느라 빚을 지거나 심지어 집을 파는 ‘메디컬 푸어’가 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br/>이러한 가운데, 최근 치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를 비롯해 희귀질환 환자들, 의료진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에 부담이 컸던 표적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뭄에 단비다. <br/>정부가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큰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에서 항암제 급여 전환의 첫 사례로 전이성 대장암 표적치료제의 본인 부담률이 5%로 낮아졌다. <br/>이에 따라 표적치료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한 달 본인 부담금이 기존의 약 500만원에서 10만~20만원대로 줄어들었다.<br/>각종 전통적인 세포 독성 항암치료제로는 생명연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전이암 환자에게 표적치료제는 치료효과와 생존연장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또 기존의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화학요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구토, 설사, 신경 독성, 탈모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그에 비해 표적치료제는 암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특정 요소를 억제해 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방해한다. 정상세포에 대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덜해,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조합해 사용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이 더 증가하지는 않으면서 치료효과는 향상시킬 수 있다. <br/>이번에 보험 적용을 받게 된 표적치료제는 대장암에서 주로 쓰는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과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라는 약물이다.<br/>아바스틴은 혈관내피성장 인자라는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항체로 유전자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고, 얼비툭스는 상피성장인자 수용체에 대한 항체로 라스(RAS) 유전자가 야생형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br/>이 두 약제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전반적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므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기회가 확대되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br/>2011년 국내 암발생 현황에 따르면 대장암은 국내 발생률 3위, 사망률 4위를 차지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암 치료의 중요한 지표인 5년 생존율은 73.8%다. 생존율이 높은 갑상샘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이어 4위의 높은 생존율이다. 하지만 말기에 해당하는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져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br/>앞서 언급한 김씨는 지난해 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암세포가 인근 림프절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된 상황이었고 빠른 치료가 필요했다. <br/>유전자 검사가 필요없는 표적치료제인 아바스틴 병용 항암치료에 바로 들어갔다. 전이성 대장암 환자는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한 경우가 많지만, 3개월간 매달 두 차례씩 꾸준히 항암제를 투여한 이 환자는 현재 병이 많이 호전되었다. 전이부위 절제수술을 비롯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br/>암은 어떤 질환보다 신속한 치료 결정과 함께 환자의 치료 의지가 무척이나 중요한 질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른 표적치료제 급여화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자들에게 생명연장의 희망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br/>표적치료제 급여화를 계기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완치를 바라보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가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5.txt

제목: [들끓고 쏠리다]과잉진료 시대, 병원도 의사도 믿지 마라…‘반의학서’ 출간 붐 어떠세요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110013984214  
본문: 최근 건강 분야 책의 뚜렷한 흐름 중 하나는 의사·병원 등 의료를 불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많은 책들이 쏟아졌습니다.<br/><br/>일본 의사 곤도 마코토가 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더난), <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영림카디널)은 이런 흐름을 선도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인기를 얻자 일본에서 나가노 가즈히로가 이를 반박하는 <의료 부정 서적에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48가지 진실>(북앤월드)을 출판했고 한국에도 소개됐습니다. <br/><br/>한국 필자로는 의사 신우섭씨가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는 모토를 건 <의사의 반란>(에디터)을 썼습니다. ‘의학비평가’를 표방한 허현회씨의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맛있는책),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맛있는책)는 논란이 됐죠. 대한의사협회나 ‘청년의사’의 몇몇 의사들은 허씨의 책이 잘못된 내용으로 의료 불신을 조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논쟁은 허씨가 미국 잡지 기사를 인용하면서 ‘돌보다’는 뜻의 ‘care’를 ‘카레’로 잘못 번역하고, 카레가 관절염 치료에 좋다고 말한 해프닝 이후 흐지부지됐습니다. 참고로 카레의 철자는 ‘curry’입니다. <br/><br/>이번주에도 의사·의료 불신 트렌드는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사 리사 랭킹이 쓴 <치유혁명>(시공사)은 약 복용, 식단 조절, 운동 요법이 ‘쓸모없는 건강법’이라며 자가치유 능력을 강조합니다. 일본의 이노우에 요시야스가 엮은 <건강의 배신>(돌베개)은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숨겨진 쟁점과 진실을 다룹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최악의 피폭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여전히 CT 피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은’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하는 암이 연간 암 발병의 3.2%라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의사 대다수는 이를 모르거나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병원이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br/><br/><의료괴담>(글통)에서 치과의사 김철신씨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 환자를 유인하고 화려한 언변을 지닌 상담사가 과잉진료 유도상담을 하는 문제, 즉 수익창출에 혈안이 된 의료계를 꼬집습니다. 김씨는 의료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환자의 두려움을 자극하면 과잉진료를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을 영리병원의 전 단계로 여깁니다. 영리병원? 투자와 배당이 자유로운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게 영리병원입니다. <br/><br/>논쟁적인 지점이 있지만 이런 책들의 공통된 문제 의식은 과잉진료입니다. 의사·병원 대 환자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사회와 의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책이 담아낸 현실은 의료마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체제에 이미 포섭된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본연의 의료와 건강을 찾는 일은 체제, 구조, 사회에 달려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반의료, 불신의 책 출간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br/><br/><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6.txt

제목: 대법원, ‘담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 의미… 유사 소송 때 ‘피해자 배상’ 쉽잖을 듯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101001397593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설계·제조상 결함, 유해성 의도적 은폐 등 인정 안해</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건보공단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다음주 소장 제출</strong><!-- SUB\_TITLE\_END--><br/><br/>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흡연자들이 담배제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이 10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소송이 15년 동안 이어지면서 1999년 소송 시작 때 참여한 암 환자 7명 중 6명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지만 끝내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사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배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br/><br/><br/>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첫 번째 근거는 흡연이 특정인의 폐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판단 대상으로 삼은 질병은 폐암 중 비소세포암과 폐포세포암이다. 2심에서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는 흡연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의 경우에는 흡연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배소송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심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을 바탕으로 향후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br/><br/>그러나 흡연과 암 발병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손해배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번 소송의 다른 쟁점인 담배 설계·제조상의 결함 여부와 담배제조사의 유해성 은폐 여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br/><br/>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span class='quot0'>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span>”며 담배가 설계·제조상 결함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대법원은 “<span class='quot0'>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span>”며 제조사가 고의로 담배의 위해성 정보를 은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br/><br/>따라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받더라도 담배 설계·제조·표시 등에서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br/><br/><br/>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담배소송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span class='quot1'>담배소송에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조직이 나서야 승소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외국 변호사들의 지원도 받을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11일 소송대리인단 모집이 마감되면 법무법인 중 한 곳을 선임하고 다음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br/><br/>소송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세운 6가지 시나리오(537억~2302억원)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5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액은 2001~2010년 폐암·후두암 환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력이 20갑년(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3484명에게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다.<br/><br/><장은교·최희진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7.txt

제목: 혈액 속 암세포 산 채로 검출 기술 첫 개발  
날짜: 20140408  
기자: 송윤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8100000163  
본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검출해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br/>국립암센터는 융합기술연구부 조영남 박사(40·사진) 연구팀이 혈액 속 암세포인 혈중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s)를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나노 기술로 손상 없이 검출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혈액 1㎎에 있는 최대 10억개 수준의 혈구에서 1개의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고민감도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앞으로는 암 세포가 다른 장기에 전이됐는지 더 쉽고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에 따라 암세포를 죽이는 데 어떤 항암제가 좋은지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br/>현재 간암 진단을 받고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환자는 짧게는 1~2개월부터 6개월 단위로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숫자가 많아졌다든지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CT(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암덩어리로 의심되는 조직을 찾아내고, 그 일부를 떼어내 검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CT 등으로 암덩어리가 발견되려면 이미 말기 가까이 진행된 경우라야 하고, 세포를 떼어내는 과정도 큰 고통이었다.<br/>하지만 조 박사팀의 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술 후 혈액검사 단계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더 빨리,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br/>그간 혈액 속 암세포의 발견 정확도는 50%에 못미쳤다. 최근 마이크로 칩 기술이 개발돼 혈액 1㎎에 암세포 10개가 있다면, 8~9개까지 확인이 가능한 정도(진단 정확도 80~90%)까지 진전된 상태였다. 조 박사팀은 이 정확도를 90~95%까지 끌어올렸다.<br/>게다가 조 박사팀이 추출해낸 암세포 9개 중 8개는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분리한 암세포를 분석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어떤 항암제가 좋을지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가능해졌다.<br/>조 박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0'>암세포에서만 나오는 단백질에 반응하는 항체를 전기 전도성 고분자에 붙인 다음 그 판 위에 혈액을 흘려보내 암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암세포를 갖고 환자별로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올 여름부터 환자들에게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조 박사팀의 기술은 지난해 12월 미국에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연구 결과는 화학분야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Angewandte Chemie(앙게반테 케미)’ 3월호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8.txt

제목: ‘주물공장 난립’ 김포 거물대리 토양, 비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 넘게 검출  
날짜: 2014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8100000157  
본문: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공장이 난립한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 3리 일대(경향신문 4월1일자 1면 보도)의 토양과 대기가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몸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br/><br/>김포시와 시민단체인 환경정의는 인하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이 지역에 대한 1차 환경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br/><br/>조사 결과를 보면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 주변 13곳 토양 중 일부에서 비소·구리·니켈·아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이었다.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한 혈액·소변검사에서는 망간 18건, 니켈 3건, 코발트 5건 등 기준을 초과한 오염 사례가 나타났다. <br/><br/>2004~2012년 이 지역의 사망자는 표준사망률을 적용한 기준(27.5명)의 2배인 55명이고, 암 사망자는 22명으로 기준(7.6명)의 3배에 달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환경오염과 사망률의 연관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br/><br/>김포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이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조사에선 주민의 암·호흡기질환·신경계질환, 뇌혈관질환과 환경오염의 상관관계를 따지고 주택 환경오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r/><br/>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실제 지역주민들이 얘기했던 암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확인됐다</span>”고 밝혔다. <br/><br/>김포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토양과 농산물이 일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2차 정밀역학조사를 벌여 원인을 규명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선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599.txt

제목: [문화캘린더]연극 운현궁에 노을지다  
날짜: 2014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8100000038  
본문: 연극 운현궁에 노을지다<br/>일시 4월 4일~6월 1일 <br/>장소 대학로 알과핵 소극장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5000원<br/><br/><운현궁에 노을지다>는 흥선대원군의 삶을 다룬 창작 사극이다. 실제 역사에서 흥선대원군은 43세가 되던 해 자신의 둘째 아들(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지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집권 10여년 만에 장성한 고종과 며느리 민비에 의해 쫓겨난다. 이후 흥선대원군이 머무른 곳이 바로 운현궁이다. 극의 주내용은 실각 이후 흥선대원군의 고난과 고민을 다루고 있다. 망상증과 분노에 시달리던 흥선대원군은 자살을 생각하고 산행을 시작하지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하고 다시 초심을 떠올리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주최 측이 보도자료에서 흥선대원군을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유신 복고주의적인 면모나 “규제 암덩어리” 발언 등에서 흥선대원군을 연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왕족 출신이나 밑바닥부터 올라온 흥선대원군과 박 대통령의 인생 궤적은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막후 실세’라는 점에서는 ‘기춘대원군’(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더 비슷하다. 실제 극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한 작품이다. 0505-894-0202<br/><br/>콘서트 이선희 30주년 콘서트<br/>일시 4월 19~20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5만 4000원/ R석 13만2000원/ S석 9만9000원/ A석 7만7000원<br/><br/>1984년 ‘J에게’로 가수생활을 시작한 이선희가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았다. 이번 공연에서 이선희는 30년간 변치 않은 미성으로 과거 히트곡들을 대중 앞에 선보인다. 지난 3월 25일 발매한 15집 앨범 ‘Serendipity’(뜻밖의 기쁨)의 신곡들도 들을 수 있다. 50인조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흥미 요소도 준비돼 있다. 02-549-9022<br/><br/>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br/>일시 4월 12일~5월 11일 장소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 관람료 4만5000원<br/><br/>창작 뮤지컬의 원조로 꼽히는 <사랑은 비를 타고>가 배우 겸 그룹 엠티풀의 멤버 최원준, <총각네 야채가게>의 황바울 등 새로운 배우들을 중심으로 다시 관객들을 찾는다. 스타 작곡가 지후는 만난 지 3년이 된 애인 박하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한다. 하지만 둘 사이에 버스킹 가수 요한이 나타난다. 형제애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스토리를 세 남녀의 사랑이야기로 변화를 시도했다. 02-3141-3025.<br/><br/>연극 바후차라마타<br/>일시 4월 5~20일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2만5000원<br/><br/>‘바후차라마타’는 인도의 성소수자 공동체인 히즈라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길 원했고, 성전환 수술을 결심했지만 사랑 때문에 성전환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 그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한국과 인도의 예술가들이 ‘제3의 성’들의 삶과 이질적인 두 문화의 충돌과 수용을 몸으로 표현한다. 02-758-2106<br/><br/>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br/>일시 4월 26일~7월 27일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br/><br/>한국전쟁 시기, 국군 병사들과 인민군 포로들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다.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줄을 놓은 인민군 류순호를 위해 남북한 군인들은 가짜 여신 이야기를 지어낸다. 순호의 환상을 지켜주기 위해 남북 병사들은 욕하지 않기, 싸움하지 않기 등 규칙을 세워가며 화해와 우정을 쌓아간다. 과거 공연 당시 ‘웰컴 투 동막골’이 생각난다는 평이 많았다. 1544-1555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0.txt

제목: 혈액 속 암세포 산 채로 검출 기술 첫 개발  
날짜: 2014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71001394231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국립암센터 조영남 박사팀</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맞춤형 암치료에 곧 적용”</strong><!-- SUB\_TITLE\_END--><br/><br/>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검출해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br/><br/>국립암센터는 융합기술연구부 조영남 박사(40·사진) 연구팀이 혈액 속 암세포인 혈중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s)를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나노 기술로 손상 없이 검출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혈액 1㎎에 있는 최대 10억개 수준의 혈구에서 1개의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고민감도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앞으로는 암 세포가 다른 장기에 전이됐는지 더 쉽고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에 따라 암세포를 죽이는 데 어떤 항암제가 좋은지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br/><br/>현재 간암 진단을 받고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환자는 짧게는 1~2개월부터 6개월 단위로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숫자가 많아졌다든지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CT(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암덩어리로 의심되는 조직을 찾아내고, 그 일부를 떼어내 검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CT 등으로 암덩어리가 발견되려면 이미 말기 가까이 진행된 경우라야 하고, 세포를 떼어내는 과정도 큰 고통이었다.<br/><br/>하지만 조 박사팀의 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술 후 혈액검사 단계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더 빨리,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br/><br/>그간 혈액 속 암세포의 발견 정확도는 50%에 못미쳤다. 최근 마이크로 칩 기술이 개발돼 혈액 1㎎에 암세포 10개가 있다면, 8~9개까지 확인이 가능한 정도(진단 정확도 80~90%)까지 진전된 상태였다. 조 박사팀은 이 정확도를 90~95%까지 끌어올렸다.<br/><br/>게다가 조 박사팀이 추출해낸 암세포 9개 중 8개는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분리한 암세포를 분석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어떤 항암제가 좋을지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가능해졌다.<br/><br/>조 박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0'>암세포에서만 나오는 단백질에 반응하는 항체를 전기 전도성 고분자에 붙인 다음 그 판 위에 혈액을 흘려보내 암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암세포를 갖고 환자별로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올 여름부터 환자들에게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조 박사팀의 기술은 지난해 12월 미국에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연구 결과는 화학분야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Angewandte Chemie(앙게반테 케미)’ 3월호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1.txt

제목: ‘주물공장 난립’ 김포 거물대리 토양, 비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 넘게 검출  
날짜: 2014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71001394228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1차 환경역학조사 결과</strong><!-- SUB\_TITLE\_END--><br/><br/>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공장이 난립한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 3리 일대(경향신문 4월1일자 1면 보도)의 토양과 대기가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몸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br/><br/>김포시와 시민단체인 환경정의는 인하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이 지역에 대한 1차 환경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br/><br/>조사 결과를 보면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 주변 13곳 토양 중 일부에서 비소·구리·니켈·아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이었다.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한 혈액·소변검사에서는 망간 18건, 니켈 3건, 코발트 5건 등 기준을 초과한 오염 사례가 나타났다. <br/><br/>2004~2012년 이 지역의 사망자는 표준사망률을 적용한 기준(27.5명)의 2배인 55명이고, 암 사망자는 22명으로 기준(7.6명)의 3배에 달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환경오염과 사망률의 연관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br/><br/>김포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이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조사에선 주민의 암·호흡기질환·신경계질환, 뇌혈관질환과 환경오염의 상관관계를 따지고 주택 환경오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r/><br/>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실제 지역주민들이 얘기했던 암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확인됐다</span>”고 밝혔다. <br/><br/>김포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토양과 농산물이 일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2차 정밀역학조사를 벌여 원인을 규명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선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2.txt

제목: [지금 논쟁 중]갑상샘암 과잉진료  
날짜: 20140404  
기자: 허대석,장항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4100000025  
본문: 암 발생 1위인 갑상샘암을 둘러싸고 과잉진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까지 진단해서 암환자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작은 암이라도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갑상샘암은 완치율(5년 생존율)이 99%에 이르고 있지만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대학병원에는 갑상샘암 확진을 위한 검사와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br/>■ 국민 4만명을 매년 ‘암 환자’로 만들어 공포 속에 살게 할 텐가<br/>28세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하던 중 갑상샘 초음파검사에서 0.9㎝ 크기의 혹이 발견되었다. 세포검사 결과 암으로 판정되었고, 건강했던 예비 신부는 순식간에 ‘암환자’가 되어 본인과 예비 신랑, 가족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졌다.<br/>최근 검진기술의 발전으로 작은 종양도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갑상샘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기준 4만명 이상의 국민이 갑상샘암으로 새로 진단받고 위와 유사한 고민을 경험하고 있다. 2001년도 갑상샘암 발생자가 4410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거의 10배 증가했다. 한국 여성 10만명당 96.8명인 갑상샘암 발생률은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인 미국 여성(20.0명)의 5배,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인접국가인 일본(6.5명)의 15배이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 진단되는 갑상샘암 환자의 수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인접지역에서 갑상샘암 환자가 최고로 발생했던 해와 비교해도 3배가 넘는다.<br/>갑상샘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목 주위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의 고위험군이 아니면 갑상샘암 검진을 추천하지 않는 영국에서는 지난 10년간 갑상샘암 발생률이 2배도 증가하지 않았다. 영국 여성 10만명당 발생자 수가 6명 미만이고, 전체 인구 대비 사망률도 한국과 비슷하다. 이 통계자료는 조기검진이 갑상샘암 환자 수를 늘리는 데만 기여했을 뿐, 조기 검진을 통한 수술이 실제적인 사망자 수를 줄이지 못했다는 가설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br/>암 검진의 목적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자궁경부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에서는 조기 검진 후 사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조기검진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상샘암의 경우, 적극적으로 조기검진과 치료를 해온 한국에서 미세 갑상샘암의 진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술받은 환자의 완치율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갑상샘암으로 사망한 국민의 수는 2000년 266명에서 2010년 356명으로 호전되지 않고 있다(통계청). 세계보건기구 자료상 2012년 한국인 갑상샘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0만명당 0.5명으로 미국(0.3명), 일본(0.4명)과 유사하다.<br/>양성종양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갑상샘암은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며,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여 부검을 받은 사람 중 3분의 1에서 크고 작은 갑상샘암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샘암이 발견되면, 단지 ‘암’이라는 이유 때문에 92%가 수술을 받고 있으며, 수술을 받은 환자의 12.2%에서 부갑상샘기능저하증이나 성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시행되는 갑상샘암 조기검진은 얻는 이득은 명확하지 않으나, 수술합병증과 평생 호르몬 약에 의존해야 하는 등 손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갑상샘암 조기검진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br/>갑상샘암 조기검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별한 치료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국민 4만명을 매년 암환자로 만들어 ‘암의 공포’ 속에서 살게 만든다는 것이다. 갑상샘암 조기검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 이하의 저위험 갑상샘암은 진단명에서 ‘암’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br/>서두에 언급한 예비신부는 갑상샘암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을까?<br/>10배로 늘어난 갑상샘암 환자, 그리고 100%에 가까운 갑상샘암 완치율 이면에는 과잉진단으로 갑자기 ‘암환자’가 되어,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br/><허대석 | 서울대 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br/>■ 조기 진단·치료 중요한 ‘생명’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면 안돼<br/>갑상샘암 진단 논란의 시초는 ‘갑상샘암을 과도하게 진단해서 암 환자가 급증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적인 해악을 초래한다’는 일부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으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마치 집단이기주의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처럼 포장되었다.<br/>그들은 30년 전과 비교하여 갑상샘암이 30배가 넘는 발생률을 보이는 반면,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것은 전형적인 과잉진단에 해당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30년 전 한국은 갑상샘암이건 다른 암이건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 초음파 기계는 아직 정밀하지 못했고, 갑상샘암의 진단기준도 제대로 없었다. 최근에 초음파 검사가 정교해지고, 검사 자체가 저렴해졌으며,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하여 진단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br/>그들은 또 ‘요즘 갑상샘암이 과잉진단된 까닭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한다. 더욱이 ‘갑상샘암은 소위 순한 암이라 가만히 두어도 되고 증상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초음파 없이 증상이 발생했을 때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았던 과거의 치료율이나 사망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br/>영국은 의료에 관한 한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로 적극적인 진단, 소위 과잉진단을 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나라의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 UK’란 공식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81∼1985년까지 갑상샘암 5년 생존율은 남자가 59.1%, 여자가 62%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99%를 상회하는 한국의 갑상샘암 5년 생존율과 비교할 때 한참 낮은 결과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발표된 것이 있다. 서울대에서 30년간 갑상샘암을 관찰한 결과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1999년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었을 때 10년 재발률은 각각 36%, 29.5%, 7.6%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 진단이 이뤄지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치료성적이 급격히 좋아졌음을 보여준다. 2013년 미국암협회에서 발표한 갑상샘암 5년 치료성적자료에서는 1기와 2기는 100% 치료율을 보인 반면, 3기는 93%, 4기는 51%로 감소한다. 이 자료는 초기에 치료를 하면 성적이 우수하지만 늦게 진단되어 병기가 높아지면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진단이 이루어짐으로써 최근의 높은 생존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란 얘기다.<br/>‘증상이 있는 경우에나 검사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갑상샘암은 대부분 특유의 증상이 없고, 아주 많이 커져서 주변에 있는 기도나 식도, 성대신경을 침범했을 때에야 비로소 증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미 너무 늦어서 치료가 아주 힘들고 성공률도 매우 낮아지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급속히 자라고 난치성 갑상샘암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br/>조기에 치료를 하면 아무 문제없이 잘 치료될 수 있는 병을 상황을 악화시킨 다음에 치료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모든 암에서 조기 진단과 초기치료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br/>어떤 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 경제·사회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여 비용을 따지는 이런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근본으로 생각해야 하는 학문이다. 아무리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단 한명이라도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일은 비윤리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배웠으며 오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br/><장항석 | 연세대 의대 교수·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학술이사>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3.txt

제목: [부고]박문숙 전 민주화운동 사료관장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4100000051  
본문: 박문숙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이 2일 오후 6시5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9세.<br/><br/>고인은 1980∼1990년대 생활협동조합운동,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활동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최근 암 투병 중에도 녹색환경운동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고인은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부의장을 지낸 고 김병곤씨 부인이다. 빈소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02-2019-4003). 발인은 5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4.txt

제목: [사설]환경부가 환경규제를 ‘암덩어리’로 보나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4100000016  
본문: 환경부가 어제 산업계와 학계,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 감축 목표를 공개했다. 현존하는 환경규제 중 10%를 올해 안에 없애고 2016년까지 기존 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span class='quot0'>기업경영과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겠다</span>”고 했다. 회의 장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만 보면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적(敵)으로 간주해 기업을 대신해 싸워주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다.<br/>지난번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가 열린 이후 어느 부처든 가릴 것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환경부도 정부의 한 부처인 이상 이 규제 완화 대열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무슨 결의대회라도 하듯이 목표 숫자를 내걸고 한쪽 방향으로 내달리는 모습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br/>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건강과 생명보호, 환경보전을 위해 존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제도가 환경규제다. 과거에 만들어진 규칙 가운데 기술의 발달로 쓸모없게 되었거나, 탁상행정 결과로 애당초 무리하게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은 규제에서 시작해 규제에서 끝난다. 우리가 이 정도나마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환경규제 덕택이다. 크고 작은 규제 조항 하나가 국민을 치명적 사고와 오염으로부터 지켜준다. 이 안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려면 환경규제를 무턱대고 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필요도 있다. <br/>만약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더 많이 없앨수록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없어도 되는 규제, 공연히 국민을 괴롭히는 규제를 생산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그런 자기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환경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에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입지 제한하는 것을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았다. 그런데 이는 불과 석 달 전 “특정 유해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환경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석 달 사이 획기적인 오염방지 기술이 나온 게 아닌 이상 정책 방향이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한 셈이다. 환경부가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시류에 편승하면 국토의 미래가 위험해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5.txt

제목: [부고]박문숙 전 민주화운동 사료관장  
날짜: 2014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310013917128  
본문: 박문숙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이 2일 오후 6시5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9세.<br/><br/>고인은 1980∼1990년대 생활협동조합운동,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활동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최근 암 투병 중에도 녹색환경운동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고인은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부의장을 지낸 고 김병곤씨 부인이다. 빈소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02-2019-4003). 발인은 5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6.txt

제목: 다섯살 무국적자 용수의 ‘기구한 삶’  
날짜: 20140403  
기자: 권기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3100000086  
본문: 베트남 어머니의 가출 등으로 다섯 살 어린이가 무국적자가 되면서 의료보험 등 정부의 기초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국적자 용수(가명)는 2009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했고 결국 유전자 감식을 통해 자신이 용수의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상태에서 부인과 이혼을 하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br/>베트남 여성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후 사망한 남편의 여동생이 용수를 입양해 키우기 시작했다. <br/>그러나 여동생이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서’를 발견했고 분노한 나머지 파양을 하면서 용수는 2010년 7월 부산 강서구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이후 숨진 남편의 가족들은 2012년 6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용수는 이 판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잃고 말았다. 보육원에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됐다. 무국적자라는 게 이유였다.<br/>국적법상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둘 다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수의 경우 출생 당시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br/>보육원은 지원금이 끊긴 상태에서 용수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용수가 병에 걸릴 때마다 고액의 병원비를 내는 것도 걱정거리다.<br/>용수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사회복지사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찾아갔으나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에 하소연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br/>이주와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은 2일 “<span class='quot0'>한국은 유엔아동인권협약 비준국으로 무국적 아동에게 국내법을 준용하면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가입 등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무국적 아동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7.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4년 4월 2일  
날짜: 2014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2100000002  
본문: 방심할 수 없는 갑상샘암<br/>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한다. 갑상샘 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고, 칼시토닌은 뼈와 신장에 작용하여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춰준다. 갑상샘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갑상샘암은 ‘유두암’으로 완치율이 98%에 가깝다. 하지만 갑상샘암은 난치성암으로 바뀌기도 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br/>김소현, 손준호 연습실 찾아<br/>오! 마이 베이비(SBS 오후 11시15분) = 뮤지컬 배우 김소현이 뮤지컬 <삼총사>의 연습이 한창인 남편 손준호의 연습실을 찾는다. <br/>김소현은 배우와 스태프를 위한 80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손준호는 함께 연습 중인 남성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 박형식과 김소현이 입맞춤할 뻔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다. 배우 리키김의 아들 태오가 돌 사진을 찍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8.txt

제목: 눈운동의 효과, 이 정도일 줄이야  
날짜: 2014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210013902629  
본문: &nbsp;<div>(자료출처 = MBC) 눈운동을 하면 순간기억력이 20% 이상 올라간다&nbsp;</div><div><br/># 초등학교 3학년생인 이연지양은 시력이 나빠져 작년 중순에 안경을 맞췄다. 이후 이양은 6개월 동안 하루에 3번 꾸준히 눈운동을 한 덕분에 지금은 안경을 벗었다. 이양의 현재 시력은 0.8이다. <br/><br/># 중학교 2학년생인 김해영군은 지난 기말고사에서 전교 5등을 했다. 10위권에서 머물렀던 성적이 크게 오른 것이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눈 운동의 효과를 알았고, 공부하기 5분 전에는 반드시 눈운동을 했다. <br/><br/>눈운동을 꾸준히 하면 시력이 좋아지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사실일까? <br/><br/>시력이 좋아지는 이유 <br/>미국 시카고대학 출신의 안과의사인 ‘헤럴드 페퍼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는 우리 눈은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이 움직이며 원근을 조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력이 나빠지는 이유는 이 6개의 안근을 긴장시켜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운동을 통해 안근의 균형을 잡아주면 시력이 좋아지게 된다. <br/>일본의 유명 안과의사인 나카가와 카즈히로 박사도 <하루 10분 어린이 운동법>이라는 저서에서 “아이들의 근시는 보통 8세에서 시작해 18세까지 진행되는데 특히 10세부터 14세까지는 매우 빨리 진행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시력회복이 어렵고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이때 시력회복을 위한 적절한 눈운동을 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암기력이 좋아지는 원리<br/>눈운동을 하면 암기력이 20% 이상 향상된다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2011년 10월 MBC가 방영한 ‘뇌깨비’라는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30초 동안 눈운동을 한 결과 대학생은 24%, 초등학생은 21.4% 정도 암기력이 높아졌다. <br/>이처럼 눈운동을 하면 암기력이 좋아지는 이유는 눈과 뇌의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눈의 시신경이 전두엽을 활성화해 소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눈운동을 조절하는 신경회로망이 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망과 서로 겹쳐져 있어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r/><br/>눈운동에는 눈운동 보조기기 필수 <br/>이처럼 눈운동의 효과는 대단하지만 정확한 운동법을 잘 모르고, 지루해서 한두번 해보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눈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운동 보조기기를 이용한다. <br/>권성훈씨는 “<span class='quot0'>눈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과정이 몹시 지루해 왠만한 사람은 절대 못한다</span>”며 “<span class='quot0'>1년치 눈물액과 안경값 절약한다 생각하고 눈운동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눈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span>”고 말했다. <br/><br/>눈운동기 구입 요령 <br/>눈운동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아이비케어’다. 다양한 기능, 편리한 사용법, 부담없는 가격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br/>우선 아이비케어는 눈운동 기능은 물론 눈주위 마사지 기능, 뇌파를 이용한 집중력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다. 한마디로 아이비케어만 있으면 다른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br/>또한 무게가 가벼워 어린 아이도 사용할 수 있고, 안경처럼 착용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므로 사용이 편리하다. 특히 싫증을 잘 내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눈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는 옵토 메카트로닉스라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전문가들이 만들었기 때문. 국내 응용광학계의 권위자인 정진호 박사와 로봇 설계 전문가인 권창민 대표, 한의사인 김선국 박사가 3년간 개발 끝에 만든 제품으로 ‘시력보호장치’ 특허를 획득했다. <br/>아이비케어는 시력이 갑자기 나빠진 아이, 눈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수험생과 직장인, 눈의 노화가 시작된 중장년, 각종 안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br/>자세한 정보는 아이비케어 공식사이트(<a target="\_blank" href="http://www.ibcare.kr">www.ibcare.kr</a>)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br/>아이비케어 바로가기 -> <a target="\_blank" href="http://www.ibcare.kr">www.ibcare.kr</a><br/><br/><br/><br/>&nbsp;</div><br/><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09.txt

제목: [표지이야기]암치료 신약 VS 검증 안 된 약 넥시아 ‘10년 논쟁’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1100000007  
본문: 넥시아 개발한 교수 “<span class='quot0'>암환자 216명 넥시아로 치료됐다.</span>” 국가암정보센터 “<span class='quot0'>현재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 충분하지 않다.</span>” 임상암학회 “<span class='quot0'>항암제로 사용되려면 과학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span>” 극과 극의 주장 속에 환우단체는 대통령에게 “<span class='quot0'>참의사의 진료를 방해한 사람들을 조사해 달라</span>”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길고 긴 논쟁의 최후 승자는 누구일까.<br/><br/>지난 3월 3일, 두 개의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2014년 3월 16일 말기암(4기 암)에 대한 치료의 실상이 공개됩니다.’ 광고는 실명을 거론한 두 의사의 블로그 및 신문기고 글을 제시하며 그것을 ‘두 의사의 양심선언’이라고 불렀다.<br/><br/>암환우단체-일부 의사 갈등 심화<br/>“그냥 두어도 10년간 무탈하게 사는 말기암 환자들은 종종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9년째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한정호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충북대 병원 의사) <br/><br/>“<span class='quot1'>검증되지도 않고, 투명성도 없는 치료법에 매달려 더 이상 환자가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span>”(유용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소아과 의사)<br/><br/>광고는 세 단체의 연명으로 게재되었다. 대한암환우협회, 암환우보호자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광고에서 이들 단체는 ‘말기암(4기 암) 완치자를 응모받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에 전면 공개한 후 유튜브 및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br/><br/>광고에는 접수에 필요한 우편 주소와 이메일을 제외하고 달리 연락할 수 있는 루트는 나와 있지 않았다. 3월 7일 기자는 취재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사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의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br/><br/>한정호 교수는 광고가 게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span class='quot2'>해당 단체들이 단순한 암환우 단체가 아니라 한방 암치료제인 넥시아를 옹호하는 환우단체들</span>”이라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다. <br/><br/>해당 단체 회원들과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이 행사를 같이 여는 등의 사진이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재된 광고를 포함, 이들의 광고에는 넥시아나 최원철 부총장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br/><br/>이들 단체와 최 부총장의 ‘특별한 관계’는 사실로 보였다. 3월 12일, 이들 세 단체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최 부총장에게 넥시아 제조 금지요청 공문을 보낸 산림과학원에 이들 단체 회원들이 항의방문한 것이다.<br/><br/>‘의료계 차세대 리더 1위’에 뽑혀<br/>이들 단체가 포털에 개설한 카페를 통해서 3월 13일 이들 단체의 집회가 단국대 융합의료센터에서 열린다는 것을 체크했다. 기자는 해당 집회를 취재했다.<br/><br/>3월 13일 열린 집회에서 이들이 일간지에 게재했던 광고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산림과학원 항의방문을 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행사장에는 이들 단체가 연명으로 내건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최원철 교수님, 잘 다녀오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br/><br/>오후, 최원철 부총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을 두고 떠나는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의사로서 한국에 있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어떤 이야기일까.<br/><br/>최 부총장이 개발한 한약 항암제 ‘넥시아’를 둘러싼 논란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88년 인천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최 원장이 처음 두각을 나타낸 것은 당뇨와 중풍 전문치료였다. <br/><br/>1998년 KBS에서 ‘암은 정복될 것인가’를 주제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그의 운명을 갈랐다. 1부만 방영되고 중단된 이 프로그램에서 최 원장의 암 진단법이 화제가 되었다. <br/><br/>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암환자 가족들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1998년 당시 6살이었던 아이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최봉석씨(51)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인천의 한의원을 찾아갔다. <br/><br/>“서울대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뒤 아이가 기력을 잃었습니다. 찾아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신기한 것은 아이가 그 이후에 기력을 찾은 거예요. 외출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해 여름에 아이와 함께 속초로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MBC 2580’에서 완치 사례를 검증한다고 해서 서류를 떼러 서울대에 갔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던데요. 애가 나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br/><br/>백혈병의 경우 현재는 혁신적 신약이라고 불리는 ‘글리벡’이 있다. 최씨는 덧붙였다. “애가 백혈병이 생겼을 때는 글리벡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글리벡이 나온 뒤에도 애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글리벡을 쓸 필요가 없었죠.”<br/><br/>이병관 암환우보호자회 회장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 이 회장의 경우 부작용이 적다는 말에 ‘넥시아’를 선택했다. “<span class='quot1'>그 아이가 커서 대학 나와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span>” <br/><br/>최씨나 이 회장 사례처럼 이들 단체에는 10년 넘은 장기 생존자들이 여럿이다. 최 부총장 측에서는 최장 20년 생존자를 포함, 1997년부터 2001년까지 216명이 넥시아를 통해 치료가 됐다고 주장한다. <br/><br/>항암치료에서는 치료 후 5년간 재발하지 않으면 치료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자연 사망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78명이 생존해 이들 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br/><br/>넥시아와 최 부총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의학 관련 전문지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그는 2005년 9월부터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개원 준비에 참여해 초대 통합암센터장을 맡았다. 2006년 넥시아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써 학위를 받았고, 2007년 정식 취임한다. <br/><br/>2010년에는 미디어리서치의 조사에서 의료계 ‘차세대 리더 1위’로 선정된다. 최 부총장은 3월 13일 강연에서 ‘자신이 과연 사기꾼인가’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나는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사기꾼이라면 여러분도 사기꾼입니다.” <br/><br/>최 부총장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것은 2001년부터다. 총 159회다. 가장 큰 논란은 지난 2011년에 벌어졌다. 당시 경희대 강동의료원 측에서 진행하던 ‘아징스(azinx75)’ 신약 임상실험을 두고 허가받지 않은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식약청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아징스’를 두고 벌어진 수사는 넥시아로 번졌다. 2011년 5월 최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약 넥시아와 양약 아징스는 서로 다른 별개의 약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br/><br/>그리고 2012년 10월 최 부총장은 단국대로 옮겼다. 의문. 넥시아는 그렇다 치고 같은 옻나무 추출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징스75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본래 계획대로 아징스75가 임상실험을 통과하면 혁신적 신약으로 등재돼 싼 값으로 암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중단됐다. <br/><br/>3월 19일 <주간경향>의 문의에 대해서 경희대 강동의료원 측은 “당시 약의 제조를 맡았던 유유제약 측에서도 약품을 추가로 공급하지 못한다고 했고,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등의 상황으로 임상실험은 중단됐다”며 “실제 임상실험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는 많다”고 밝혔다.<br/><br/>이날 강연에서 최 부총장도 아징스75에 대해 언급했다. “나는 한의사다. 임상실험에 들어간 약은 쓸 수도 없고 실제 본 적도 없다. 아징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에 조언을 해줬을 뿐 아징스 임상실험에는 개입하지도 않았다. 문제제기를 하려면 당시 실험을 진행하던 경희대 강동의료원 혈액종양내과에 해야지 왜 나에게 했느냐.” <br/><br/>기자는 강연 후 최 부총장을 만나 여러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했다.(인터뷰 기사 참조) 최 부총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br/><br/>“당시 내부고발자가 있는 것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서를 통해 확인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뒤 학교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묻어놓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결국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닌가.”<br/><br/>최 교수 “내달부터 해외서 연구ㆍ진료”<br/>최 부총장이 단국대로 옮긴 직후 해외 영입설이 나왔다. 최 부총장은 영입 주체 및 조건, 이후 활동내용에 대해 많은 부분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했다. 기존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글로벌 벤처사가 투자해 맞춤형 의료를 하는 기관을 해외에 설립한다는 것이다. <br/><br/>최 부총장은 4월 초에 출국해 5월 초부터 해외에서 진료와 연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존 환자들은? 최 부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span class='quot3'>기존 환자들과는 끝까지 간다</span>”고 밝혔다. <br/><br/>최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떠나는 날 대한민국 신문들에 ‘그동안 감사했다’고 광고를 낼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이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단체를 해산했으면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료기록도 모두 폐기했으면 한다.” <br/><br/>그러나 이날 집회에 모인 환자단체들은 쉽게 수긍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회장단에 참여한 한 인사는 “<span class='quot4'>안타깝고,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생각</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최 부총장이 한국에서 받은 핍박에 분노한 일부 회원들이 ‘사고’라도 내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span>”고 말했다.<br/><br/>최 부총장과 함께 단국대로 건너온 의사들을 제외하곤 의료계에서는 넥시아의 효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010년 SCI급 국제학술지인 ‘종양학 저널’(Annals of Oncology)에 넥시아 치료를 다룬 논문이 실렸다. <br/><br/>최 부총장 등이 운영하는 넥시아센터 홈페이지에는 최 부총장과 그의 동료들의 후속 연구들이 올라와 있다. 기자는 그가 주저자 중의 하나로 참여해 2012년 ‘바이오메디신과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토해 봤다. <br/><br/>이 논문은 넥시아, 즉 옻 추출물 RVS(Rhus Verniciflua Stokes)를 진행암에 다룬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기전연구를 다룬 부분에서는 실제 적용한 결과만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았다.<br/><br/>“<span class='quot1'>그래서 사실 그 논문들이 어떻게 국제학술지에 실리게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span>” <주간경향>이 최 부총장 인터뷰 후 접촉한 모 대학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반응이다. <br/><br/>상당수의 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들은 이 논쟁에 자신이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앞의 교수는 폐암이나 대장암, 신장암 등의 각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로 알려진 A·B·C 교수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에게 넥시아 관련 논문 검증을 부탁해보라고 했다.하지만 이들 교수들로부터 “<span class='quot5'>넥시아 관련으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span>”는 답변이 돌아왔다.<br/><br/>최 부총장의 주장과 관련, 경희의료원 측에서 내부 제보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경희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최 부총장의 임용에서 사표까지 과정 전체가 학교 내의 정치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했다. <br/><br/>또다른 의료원 측 관계자는 최 부총장의 학위 논문 통과과정부터 학교 측이 잘못을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2011년 사건 이전부터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br/><br/>현재 소속돼 있는 단국대에서도 최 부총장의 임용 전부터 의과대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뜻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암환우 단체들이 광고에서 언급한 두 교수는 어떤 반응일까. 한정호 교수는 “소송자를 모아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r/><br/>3월 19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한 교수는 “<span class='quot2'>흔히 한국 사회에서 말기암으로 칭하는 4기 전이암 단계에 접어든 환자들 중에서도 장기 생존하는 경우는 전체 숫자 중에서 적을 뿐 꽤 있는 사례여서, 증례보고거리는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2'>기형아의 출산이나 100살 넘게 사는 것이 TV에서 가십거리는 되지만 개별사례를 두고 의학논문의 대상은 안 되는 것과 같다</span>”고 주장했다. <br/><br/>유용상 의사도 “<span class='quot6'>내 기고글의 내용을 환우단체들이 왜곡해서 인용했다</span>”며 “<span class='quot6'>한정호 교수가 대응의사를 밝혔는데 공동대응을 할지 생각해보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br/><br/>강석하 과학중심의료연구원 이사는 3월 19일 미디어워치 기고 글을 통해 “<span class='quot7'>미국 암학회 자료를 보면 말기(4기)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유방암 22%, 자궁경부암 16%에 이르는 등 무조건 죽는 것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7'>넥시아가 200여명이 생존했다고 하는데, 만약 넥시아 복용환자가 1000여명이었다면 유방암 생존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br/>하지만 환우단체들이나 강 이사가 주장하는 4기암은 말기암과 등치시킬 수 없다. 말기암의 정의는 “<span class='quot8'>더 이상 의료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임종단계에 접어든 암</span>”이다. 반면 4기암은 타 장기로 전이된 암을 의미한다. 최 부총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span class='quot3'>치료한 암환자들은 진행암(advanced cancer) 4기에 해당하며, 그것은 환자 자신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의사가 포기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말기암의 정의를 임종기에 접어든 암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했을 경우 최 부총장의 치료 사례 중 맞아떨어지는 케이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br/><br/>그런데 궁금한 것은 최 부총장의 넥시아 치료 이후 아직 생존하고 있거나 기존 항암치료 요법을 포기한 후 넥시아 치료를 통해 생존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br/><br/>약효ㆍ논문의 신뢰성 싸고 논쟁 계속<br/>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6년 국가암정보센터가 넥시아에 대한 문의에 답변한 자료를 발견했다. 당시 설명에서 국가암정보센터는 의협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암환자를 치료한 결과 4기암 환자의 22%가 5년 이상 생존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치료 및 데이터 축적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과학적인 신뢰도는 다소 떨어진다”며 “앞으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br/><br/>하지만 현재의 국가암정보센터는 이 답변을 포함해 ‘넥시아’에 대한 입장은 홈페이지 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암정보센터에 답변을 요구했다. <br/><br/>이메일을 통해 돌아온 답변은 2006년의 답변보다 더 간략했다. “문의하신 넥시아에 대해서는 현재 효과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넥시아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br/><br/>최원철 부총장은 “<span class='quot9'>이미 넥시아센터를 통해 논문들을 공개했고, 자신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후임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 넥시아의 치료 성과는 더 축적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9'>현재도 113편의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없는 단계</span>”라고 주장했다. <br/><br/>반면 지난 2011년 대한임상암학회는 “현재까지 보고된 넥시아 임상논문은 산발적인 증례보고이거나 넥시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후향적 분석에 그치고 있어, 넥시아가 항암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된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br/><br/>3월 20일, 위의 세 환우단체들은 다시 광고를 내 ‘단일 항암제 치료 후 완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광고에서도 최원철 부총장이나 넥시아는 거론되지 않았다. <br/><br/>다만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4기암 완치를 단일치료 재현에 성공한 참의사에 대해 진료를 못하게 방해하고…(중략)…끝내 해외로 나가게 만든 비린내 나는 실체와 배후는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역사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었다. <br/><br/>광고에서 언급한 ‘참의사’는 최원철 부총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0.txt

제목: 고주파 첨단수술도 1일부터 보험금 받는다  
날짜: 20140401  
기자: 이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1100000209  
본문: 앞으로는 개복하거나 특정 부위를 절단하지 않고 고주파 등을 활용한 첨단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잘 몰라서 놓쳤던 보험료 할인이나 납부면제 제도에 대한 안내도 매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br/>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극초단파열이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첨단 수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첨단 기법을 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 수술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br/>암보험 상품 명칭도 정확하게 고친다. 암 입원비 특약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만 보장하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품 명칭이 모호해 민원이 많았다. 이에 상품 명칭을 ‘암 직접치료 입원비’로 바꾸고 계약자가 항암 방사선, 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다양해진다.<br/>조건부 인수제도도 개선된다. 조건부 인수는 과거 병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을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장하지 않는 특정 신체부위가 보험사마다 다르고, 보장제한 원인과 무관한 부위까지 보장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br/>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다양한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계약자가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고객이 보험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는 물론, 이후에도 매년 신청 가능한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br/><br/>그동안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해왔다. 4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료가 5~10% 할인된다. <br/>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지금까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가능하다.<br/>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제도도 바뀐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지연이자가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1.txt

제목: .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1100000045  
본문: HEALTH<br/>흔히 콜레스테롤은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동맥경화, 뇌졸중의 주범으로 꼽히며, 이 때문에 기름기 많은 육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정말 피해야만 하는 나쁜 존재일까?<br/><br/>직장인 임혜영씨(42)는 지난 연말 건강검진을 받았다. 1년마다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이기에 별 부담은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육류는 물론 달걀, 생선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였다. 밥상에 푸른 채소를 가득 올리고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벌써 3년째 이런 식습관을 이어오고 있으며, 나이에 비해 날씬하고 체지방률도 낮은 편이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한 달 뒤 집으로 건강검진 결과표가 날아왔다. 그녀의 예상대로 모두 ‘정상’이었다. 딱 하나, 콜레스테롤만 빼고 말이다. 기준 범위를 조금 웃도는 수치였다. 이대로라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의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이 첨부돼 있었다. “왜?”라는 말이 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다시 한번 결과표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분명 자신의 것이 맞았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br/><br/>콜레스테롤은 악의 축?<br/>최근 현대인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의학 용어를 꼽는다면 단연 콜레스테롤일 것이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콜레스테롤은 암세포만큼이나 위험한 존재다. 콜레스테롤에 의한 질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는 악의 물질로 생각한다.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인다고 알려진 고기, 달걀노른자, 새우 등을 입에 대지 않는 이들도 꽤 많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지독한 콜레스테롤, 어떡하면 좋을까.<br/>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성인 기준으로 우리 몸에 100~150g 정도 있으며 특정 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곳곳에 위치한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 약 10%만이 존재한다. 뇌에 25%, 전신 근육에 25%, 그 외 40%는 여러 장기에 골고루 분산돼 있다.<br/>콜레스테롤은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다. 콜레스테롤은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고 물에 녹지 않아 인체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 호르몬을 만들고 소화액인 담즙을 생산해 음식물의 소화흡수를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0%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비율은 전체의 30% 정도다. 나머지 70%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된다.<br/>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은 왜 나쁜 것으로 인식돼 있을까. 인체 내 존재하는 지방질은 크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나뉜다.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지방은 대부분 체내에 달라붙는다. 하지만 지방질의 일부인 콜레스테롤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은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다시 돌아가 재활용된다. 어떤 요인에 의해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이 망가지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남은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서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아도 문제는 생긴다. 혈압과 수분 조절 이상, 소화불량, 우울증은 물론 심할 경우 각종 암, 출혈성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는 적당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br/><br/>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br/>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HDL)과 저밀도 콜레스테롤(LDL)로 나뉜다.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오는 총 콜레스테롤이란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외에 다른 콜레스테롤까지 더한 총합이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거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흔히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br/>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간으로 가기까지의 상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혈액으로 가기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즉 에너지로 쓰고 남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반하는 것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역할이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혹은 혈관 청소부라 부른다. 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따라 체내를 돌며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자동 조절이 능력이 망가지거나 혈액에 너무 많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혈관 내벽에 늘어선 내피세포에 상처가 생긴다. 그로 인해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쉽게 침투해 그곳에 모인다. 이것이 계속될 경우 혈관 폭이 좁아져 혈액순환 장애를 발생시키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 혈관이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된다.<br/>따라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은 98~19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40~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129mg/dl을 정상 기준 범위로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정상 기준 범위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미 국립보건원(NIH)은 정상 기준 범위를 130mg/dl 이하에서 100mg/dl 이하로 대폭 낮췄다. 속속 발표되는 연구 결과를 발 빠르게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정상 범위이더라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00mg/dl 이상이라면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br/><br/>음식 외에 다양한 원인이 존재<br/>달걀노른자, 새우, 오징어, 육류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에서 생성된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은 30% 정도다. 즉 음식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그동안 음식이 주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중성지방 때문이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중성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진다. 콜레스테롤은 남으면 간으로 돌아가지만 중성지방은 몸 안에 쌓여 내장비만을 유발한다. 또 혈당치와 혈압이 상승하고 역시 콜레스테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아도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 있는 케이크나 빵, 베이컨, 소시지 등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br/>또 병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 대표적인데 선천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 분해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유전 질환이다. 보통 사람은 총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240mg/dl을 넘지 않지만 이 질환이 있을 경우 300mg/dl을 넘긴다. 심한 경우에는 1,000mg/dl에 가까울 수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인구 5백~1천 명당 한 명꼴로 나타나지만 유전 질환인 까닭에 형제 중 절반이 갖고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족 중 총 콜레스테롤이 290mg/dl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 외에 심장 혈관을 보호하는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폐경기 여성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분해 속도가 느려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올 수도 한다.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비만, 운동 부족, 담배, 스트레스 등이 콜레스테롤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콜레스테롤을 ‘혈관 속의 흉기’라고 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때론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다. 편견과 오해가 많은 콜레스테롤에 대해 바른 인식이 필요한 까닭이다. 무조건 피하고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고콜레스테롤 관련 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선 두 얼굴을 지닌 콜레스테롤과 사이좋게 공존해야 한다.<br/><br/>Tip<br/>건강검진 결과표를 보기 전 알아야 하는 전문 용어 5<br/>간 기능 검사 AST, ALT 간세포에 존재하는 아미노전이효소로서 간세포가 손상되면 증가한다. 정상 기준 범위는 AST는 33IU/L 이하, ALT는 38IU/L 이하다.<br/><br/>간 기능 검사 r-GTP 알코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해온 경우 만성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정상 기준 범위는 56IU/L 이하다.<br/><br/>당뇨병 검사 혈당(식전) 현재의 혈당 농도를 나타내며 식사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상 기준 범위는 70~99mg/dL 이하다.<br/><br/>당뇨병 검사 당화혈색소 식사 등에 의한 일일 혈당 변동과 관계없이 6~8주간의 종합적인 혈당 상태를 나타낸다. 정상 기준 범위는 4~6% 이하다.<br/><br/>심혈관계 검사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한 후 중성지방의 5분의 1을 더한 총합이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증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정상 기준 범위는 98~199mg/dL이다.<br/><br/>Tip<br/>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br/>사골곰탕과 같은 뼛국을 즐겨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br/>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혈증과는 관련이 있다. 사골과 같은 뼛국에는 중성지방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다. 특히 겨울에 갑작스럽게 중성지방이 높아진 환자들이 많은데 상당수가 사골곰탕 때문이었다. 기름기를 걷어내고 먹는다고 하지만 중성지방 수치를 많이 올린다고 볼 수 있다. 또 사골곰탕이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관련이 없다.<br/>달걀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br/>달걀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도 많이 포함돼 있다. 즉 어떤 음식에는 한 가지 영양소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식습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편식이나 과식을 하는 것이 더 안 좋다. 달걀은 하루에 1개 정도는 먹어도 된다.<br/>술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br/>소량의 음주가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시라고는 권하지 않는다. 술은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며 지방간을 야기하고 간이나 식도에 무리를 준다. 즉 득보다 실이 많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매일 술을 마신다는 것은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과 똑같다.<br/>나이가 어리면 콜레스테롤로부터 안전하다?<br/>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질환과 문제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자유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요즘 젊은 층은 튀긴 음식이나 인스턴트식품 등을 자주 먹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발병하는 신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br/>편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br/>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편식을 하면 부족한 에너지원을 채우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로 쓰고 남은 많은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으로 변해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중년층 여성 중에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문제는 탄수화물 섭취도 그만큼 늘게 된다는 데 있다. 근력이 부족한 중년층이 단백질 공급까지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더욱더 근육이 약해진다. 고른 영양 섭취가 건강에 이롭다.<br/><br/>Mini Interview<br/>“<span class='quot0'>하루 30분 꾸준한 운동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span>”<br/>나은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br/>최근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많은 변화가 있나?<br/>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0년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약 13.5%라고 한다. 1998년 조사에서는 약 10%였는데 12년 동안 3.5% 증가한 것이다. 폭발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또 같은 해 조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 42%였고, 이 중 치료에 임하는 비율이 31%이며, 약으로 수치를 조절하는 비율도 24% 정도 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어서 다른 병에 비해 예방이나 치료에 관심이 많고 검사도 자주 하는 편인 것으로 보인다.<br/>콜레스테롤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고위험군을 꼽는다면?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이다. 중년 여성의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40대에 비해 50대 전후 갑작스럽게 높아진다. 4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급격한 증가다. 이는 폐경에 접어들면서 여성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심장 내 혈관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콜레스테롤을 잘 살펴야 한다. 어떤 혈관에 문제가 생기냐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이 발병하기 때문이다.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 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을 앓게 된다. 또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즉 뇌졸중이 된다. 이런 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고혈압과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도 고위험군이다.<br/>고콜레스테롤혈증의 원인이 많은데, 원인별 치료법은 무엇인가?<br/>어떤 질환에 의한 경우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게 먼저다. 가령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인 경우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돕는 치료가 우선이다. 그 외엔 우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도록 한다. 운동은 걷기와 같은 유산소운동을 하루 30분씩 주 5회 할 것을 권한다. 콜레스테롤이 먹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 몸속 지방을 빼도록 돕는 것이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려면 금연은 필수다. 금연, 운동요법, 식이요법을 하고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약물 치료가 병행된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인 경우 간에서 많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약물을 처방하고, 폐경이 원인인 경우 여성호르몬을 투여하기도 한다.<br/>콜레스테롤 검사는 몇 년에 한 번 받아야 할까?<br/>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을 하는데 거기에 콜레스테롤 항목이 포함돼 있다. 누구든 콜레스테롤 검사를 2년마다 받게 되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관리를 하는 경우엔 좀 더 자주 검사를 받는다. 약을 먹지 않아도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면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진행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br/>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식습관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게 마련인데? 보통 사람들이 섭취하는 한 끼 영양소로는 콜레스테롤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연구진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대상자에게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 제한량인 300mg을 매일 4주간 섭취하도록 했다. 콜레스테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질병을 유발했을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결과는 달랐다. 결과적으로 총 2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을 초과해서 먹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대신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육류의 하얀 기름, 버터, 케이크, 마요네즈 등을 피해야 한다.<br/>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 혈액에 지방 성분 물질이 필요 이상 많은 것을 말하는 고지혈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둘 다 높은 경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셋 중 높은 중성지방으로 인한 고지혈증이 많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식습관 개선을 통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층 여성들은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편이다. 대신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데 이것이 오히려 고지혈증을 초래하게 된다.<br/>시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약이 아니라 ‘식품’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치료가 필요한데 보조식품을 먹고 증상이 완화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또 맹신하는 것도 위험하다. 다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이 콜레스테롤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보다는 하루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br/><br/>“달걀노른자, 새우, 오징어, 육류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에서 생성된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은 30% 정도다. 즉 음식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절대적인 원인은<br/>아니라는 말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2.txt

제목: 발레리나 전정미·정아·은선 세 자매의 지난 14년 그리고 내일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1100000125  
본문: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함께 발레리나의 길을 걷던 전정미·정아·은선 자매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전정미씨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고, 둘째 전정아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꼭 닮은 두 딸의 엄마가 됐다. 더 넓은 무대를 활보한 막내 전은선씨는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함께였고, 여전히 발레라는 끈을 놓지 않고 있었으며 여전히 고왔다.<br/><br/>인터뷰 요청을 받고 전정미(45)·정아(43)·은선(41) 세 자매는 각각 그때 그날의 추억을 떠올려봤다고 했다. 선명하게 기억하는 두 언니와 달리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고 실토하던 동생은 출력해간 옛 기사를 보고 나서야 “그래, 여기였어!”라고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br/><br/>“그 시절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듯한 결과물이 없는데 인터뷰를 해도 되나 심란했어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죠.” (전정미)<br/><br/>“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를 다시 찾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또 얼마나 기쁜 일인가, 싶어 기분이 좋았어요. 또 다른 추억을 만들게 됐다는 생각에 활력소가 된걸요.” (전정아)<br/><br/>Scene 1<br/>암흑 속 한 줄기 빛을 찾다<br/>당시 유니버설발레단의 단원으로 무대에 오르던 두 동생을 뒷바라지하며 일찌감치 현역 활동을 접고 발레학원을 운영하던 전정미씨는 다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그녀는 5년 전,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했다.<br/><br/>“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그 아이들을 크게 키우겠다, 라는 저만의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죠. 치료도 소용이 없었고요.”<br/>장애 1급 판정.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도 무척 힘들었다. 시력이 떨어질수록 서서히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갔다.<br/><br/>“처음에는 오기를 부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놓지 않았는데, 발레는 동작들을 직접 보고 표현해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접었어요. 오로지 발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놓아버리기까지 정말 막막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처럼 지나간 시간일지 몰라도 제게는 더딘 나날들이었어요.”<br/><br/>꿈을 잃은 삶은 답답했다. 즐거움이란 단어도 그녀를 비껴갔다. 그러나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말처럼 그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 인연과 마주했다. 무용은 그녀에게 ‘운명’이었다.<br/><br/>“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다니며 점자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다른 분들을 보게 됐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더라고요. 고개도 비뚤어지고 그러다 보니 체형도 틀어져 있었어요. 그때 ‘아, 스트레칭과 간단한 발레 동작들로 교정을 시켜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쉽진 않았죠. 그렇지만 ‘나는 오십견이 있어서 못해’, ‘나는 무릎 관절이 나갔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작을 하나씩 배워가고 계세요(웃음).”<br/><br/>불가능할 것이라고 고개를 젓던 이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열정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서울 맹아학교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도 올렸다.<br/><br/>“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어떤 동작을 설명하면서 ‘학다리처럼 해보세요’ 했는데, 학다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 적도 있고요. 이제는 제가 먼저 그 동작을 취하고 아이들에게 일일이 만져보게끔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동작을 따라 하면 제가 아이들의 자세를 잡아주면서 기억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치다 보면 저도 많은 걸 배워요. 덕분에 다시 움직이게 됐고요.”<br/><br/>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무대에 오르는 날까지 그녀는 노력할 것이다. 그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곧 그녀의 꿈이다. 예술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전정미씨의 바람이다.<br/><br/>Scene 2<br/>어서 결혼을 하란 말이야!<br/>언니의 ‘SOS’ 외침을 받기 전까지, 전정아씨는 꼬박 10년을 유니버설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현재는 전정미씨가 운영하던 발레학원을 인수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br/><br/>“무대 위에 있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에요. 제가 가르쳐준 것을 잘 받아들이고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무척 흐뭇해요.”<br/><br/>세 자매 중 자타 공인 성격이 제일 좋은 전정아씨의 주변엔 늘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 오죽하면 무용계에서 전정미씨도, 전은선씨도 ‘정아 언니’, ‘정아 동생’으로 통한다고 할까. 그리고 그녀는 자매 중 유일하게 결혼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남편은 함께 발레단 활동을 했던 동료다.<br/><br/>“언니들보다 제가 좀 통통해요. 현역 때보다 10kg 정도 쪘으니까. 전공을 목표로 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 말만 늘었어요(웃음). 애를 하나 더 낳아야 할까봐. 그럼 살이 좀 빠질까요(웃음)?”<br/><br/>다섯 살, 여섯 살이 된 연년생 딸 소희, 수미는 그녀의 보물 1호다. 아직은 어리지만 핏줄을 속일 수 없다는 어른들의 말을 증명하듯 발레에 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br/><br/>“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산 하루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쳤으니까요(웃음). 나름의 태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쩌다 한 번씩 학원에 오면 토슈즈를 신고 치마 입은 언니들의 모습이 예뻐 보이니까 자기들도 뱅글뱅글 돌고 그래요. 훗날 발레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전적으로 응원할 거예요.”<br/><br/>더는 욕심낼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 그저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언니와 동생도 어서 제짝을 만나는 것이다.<br/><br/>“나중에 제자들과 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싶어요. 언니의 꿈이기도 했는데, 이젠 저희 모두의 꿈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 두 사람에게 희망사항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이 주는, 아이가 주는 기쁨은 또 다른 것이더라고요. 제자들이 내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서 결혼들을 하라고!(웃음).”<br/><br/>Scene 3<br/>다시 출발선에 서다<br/>발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을 통해 소개된 그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다. 2000년 당시, 유니버설발레단의 주연급 무용수였던 전은선씨는 2002년 스웨덴 왕립발레단에 입단해 자신의 기량을 펼쳤다.<br/><br/>“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뛰면서(웃음), 힘든 점들이 많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들과 비교해서 안 되는 저의 체력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날마다 괴로워했죠(웃음). 경력이 늘면서 이론에 더 빠삭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뭘 틀렸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만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백조의 호수’ 같은 클래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연기를 주로 하는 창작 발레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해요.”<br/><br/>지난해, 그녀는 11년간의 스웨덴 생활을 잠시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학원을 다니며 공연 기획 관련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안무가로서의 영역도 넓히고 있다.<br/><br/>“아직까지 소속은 발레단 단원이에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스웨덴 왕립발레단과 한국 갈라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발레 축제의 안무가로도 활동할 예정이에요.”<br/><br/>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이 없지만, 계속 지금처럼 정체하지 않고 나아가려 한다. 새로운 길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 과정에 언니들은 든든한 버팀목이다.<br/><br/>“저는 언니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또 대단하다 느껴요. 더 오랜 시간 무대에 올랐지만 언니들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br/><br/>Scene 4<br/>앉으나 서나 발레 이야기<br/>‘발레’라는 뿌리에서 뻗어나간 세 자매의 가지는 모두 다른 꽃을 피웠다. 존재, 그 자체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부족함을 보듬고 감싸주는 따스한 마음들은 밑거름이 됐다.<br/><br/>“제 바로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의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들도 발레를 해요. 이제는 발레 이야기를 좀 덜하게 되나 싶었는데 세대교체를 맞이해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유일하게 발레와 무관한 올케 언니를 힘들게 하고 있죠(웃음).” (전은선)<br/><br/>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화두가 있다는 건 신나는 일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이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돌이켜보니 단 한순간도 서로를 질투한 적이 없다. 언니의, 동생의 장점은 곧 나의 자랑이었다.<br/><br/>“자매라서 좋은 점은 정말 많아요. 게다가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맞아, 맞아’ 맞장구칠 수 있죠. 특히 어떤 상황이나 결정을 앞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아, 우리가 정말 자매구나’라고 깨닫곤 해요(웃음).” (전정아)<br/><br/>“단점도 있어요. 저희 세 사람이 앉으면 무용 이야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생각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정미)<br/><br/>인터뷰를 끝내고 세 자매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카메라 앞에 섰다. 손끝 하나, 표정 하나 흐트러짐이 없다. 세 자매와 조카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도 멋있을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막내 전은선씨가 손사래를 친다.<br/><br/>“아니, 그렇잖아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카가 ‘고모가 무거워서 안 돼요’라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아까 제가 말한, 젊은 애들에게 못 당하는 한계라니까(웃음).”<br/>추억이 있는 삶은 아름답다. 옛 생각에 빠진 오늘이 먼 훗날 또 다른 추억이 되기를, 유쾌했고 따뜻했던 만남을 접으며 바라봤다.<br/><br/>「레이디경향」 2000년 9월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3.txt

제목: [이명현의 스타홀릭]‘별먼지’로 돌아간 그가 그리운 날  
날짜: 20140401  
기자: 이명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1100000156  
본문: 엊그제 내 페이스북에 친구의 생일을 알리는 메시지가 하나 떴다. 매일 있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날은 좀 특별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어느 천문학자의 생일을 알리는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들어가 봤다. 벌써 몇 사람이 글을 남겨놓았다. ‘박사님! 페이스북에서 생일이라고 연락이 오네요. 어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착잡합니다. 잠시 술 드시고 허허허 웃으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내 심정도 그랬다.<br/>봄이다. 겨울철 내내 밤하늘을 지키던 오리온자리가 초저녁인데 벌써 서쪽 하늘로 넘어가버릴 기세로 기울어있다. 별 4개가 큰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오리온자리의 가운데에는 별 3개가 약간 비스듬하게 놓여 있다. 삼태성이라고 부른다. 그 바로 아래쪽을 보면 도시에서도 별 한두 개는 찾을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그 별들 주변의 희뿌연 무엇인가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오리온성운이다. 맨눈으로도 희미하지만 식별할 수 있는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성운들 중 하나다. 오리온성운이 밝은 이유는 간단하다. 가깝기 때문이다.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달려서 1344년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물론 엄청나게 먼 곳이지만 성운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다. 가스와 먼지가 구름처럼 뒤섞여있는 천체를 성운이라고 한다. 가스구름이 뭉쳐서 별이 탄생하는 장소가 성운이다. 별이 일생을 살고난 후 폭발하거나 해체되면서 돌아가는 곳도 성운이다. 그래서 성운을 별들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생태계에 비유하곤 한다.<br/>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성운이 오리온성운일 것이다. 천체사진가들이 가장 많은 사진을 남긴 성운도 아마 오리온성운일 것이다. 물론 밝아서 쉽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 메시에가 1771년에 그린 세밀한 스케치화가 남아있다. 사진기술이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880년에 이미 오리온성운을 찍은 사진이 등장한다. 붉은색과 푸른색을 내뱉는 가스구름과 말처럼 생긴 먼지구름인 말머리성운이 막 태어난 젊은 별들과 섞여있는 오리온성운의 사진은 어떤 버전으로 언제 봐도 장관이다. 허블우주망원경이 포착한 별이 막 탄생하고 있는 원시행성계의 모습은 우리 태양계의 탄생을 보는 것 같은 숭고함과 경이로움을 던져준다. 지금도 별의 탄생 비밀을 풀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오리온성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br/>한국천문연구원에 있는 14m 전파망원경이 외부에 처음으로 개방되었을 때 나는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네덜란드 유학길에 오르기 직전이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외부 관측자로서 전파관측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때 관측한 대상이 바로 오리온성운이었다. 관측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강한 겉보기 전파신호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까운 까닭이다. 아직은 불안정했던 새로 만들어진 전파망원경으로 테스트 관측을 수행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대상이었다. 관측을 도와주는 오퍼레이터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엊그제 생일을 맞이했던 고인이 된 천문학자였다. 전파관측이 낯설기는 그나 나나 마찬가지였다. 여러 날을 밤낮없이 수행하는 관측이어서 우리는 꼼짝없이 붙어서 지내야만 했다. 서로에게 많이 의존했고 천문학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고생한 만큼 정도 많이 들었다.<br/>몇 년 전의 일이다. 나는 한국형 외계지적생명체 탐색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게 되었는데 마침 그가 이 프로젝트에 활용할 전파관측 자료를 제공받을 전파천문대의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 둘 다 전파천문학을 전공했다. 둘 다 천문학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초창기 전파관측을 고생하면서 같이 수행한 동지이기도 했다. 외계지적생명체 탐색 프로젝트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은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파관측 자료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적, 사적으로 몇 차례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다. 그가 왜 관측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프로젝트는 더 높은 차원에서 타결이 되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실무 책임자로서 우리는 어색한 동거를 시작해야만 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적인 만남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개운치 않은 채 남아있었다. 한번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내 몸이 조금 회복이 되어갈 무렵 그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곧이어 그의 부고를 알리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속내를 털어놓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겨울을 뒤로하고 서쪽 하늘로 넘어가는 오리온자리가 오늘따라 무척 쓸쓸해 보인다. 별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오리온성운을 생각하니 문득 별먼지로 돌아간 그가 그리워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4.txt

제목: [경제]진주 운석,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인가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401100000020  
본문: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을 분석한 결과 운석으로 확인.’<br/>3월 16일 오전 11시. 극지연구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진주 운석 소식을 전했다. <br/><br/>10일 경남 진주시 대곡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아리송했던 돌이었다. 운석로또 열풍은 이렇게 시작됐다.<br/><br/>극지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3월 9일 오후 8시쯤 전국적으로 운석 낙하현상이 관측된 뒤 10일 진주 대곡면, 11일 미천면에서 발견된 두 개의 암석은 모두 운석으로 확인됐다</span>”며 <br/><br/>“<span class='quot1'>두 운석의 암석학적 특징의 유사성 및 발견 위치로 볼 때 하나의 운석이 진주 상공의 대기권에서 분리돼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지연구소는 “<span class='quot0'>이 운석들을 가칭 ‘진주 운석’이라 칭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당초 한국천문연구원은 이 암석이 운석이 아닐 것으로 봤다. 비닐하우스 주인에 따르면 아침에 일하러 나와 보니 흙 고랑 사이에 암석이 세로로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흙 위로 폭 20㎝, 길이 30㎝ 정도가 노출돼 있었다. <br/><br/>암석이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 천장은 찢어져 있었다. 통상 운석은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초속 10~100㎞의 속도로 떨어진다. <br/><br/>이 정도 크기의 운석이라도 땅에 충돌할 때면 충격파가 매우 커 최소 지름 10m 이상의 구덩이와 구덩이 주변이 불에 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br/><br/>하지만 극지연구소와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가 운석을 절단해 분석해 보니 운석의 성분이 발견됐다.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1차 분석을 한 결과 이 암석은 콘드라이트, 특히 오디너리 콘드라이트(ordinary chondrite)로 분류됐다. <br/><br/>오디너리 콘드라이트는 다시 금속 함량에 따라 H-그룹, L-그룹, LL-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암석은 이 중 금속 함량이 높은 H-그룹에 속했다. 극지연구소가 분석한 것은 여기까지였다. H-그룹 중에서도 세분류를 해야 했지만 이를 마치지도 못한 채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br/><br/>해외 운석 사냥꾼도 진주에 상륙<br/>극지연구소가 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해외에서 운석 사냥꾼(meteorite hunter)이 진주를 방문해 운석을 찾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운석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사이 해외 수집가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다. <br/><br/>극지연구소 이종익 책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2'>원래는 우리가 연구하는 게 비공식이었고, 분류도 다 끝난 게 아니었다</span>”며 “<span class='quot2'>하지만 외국에서 운석 사냥꾼이 들어왔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진주 현지에서 운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서둘러 발표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진주 운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반도에서 발견된 첫 번째 운석이다. 1943년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서 운석이 발견됐지만 당시는 일제 강점기 때라 일본인들이 이를 가지고 갔다.50년 동안 도쿄 자연사박물관에 있다가 1999년 문화재 영구임대 형식으로 국내에 재반입됐다. ‘두원 운석’으로 불리는 이 운석은 대전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 소장돼 있다.<br/><br/>진주 운석인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운석이다. 6만여개의 운석 중 85%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국내에서 첫 발견된 운석이라는 점에서 국내 희소성이 크다. 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이 되면 값어치가 더 커진다는 얘기다.<br/><br/>외국인 운석 사냥꾼이 진주까지 찾아올 정도라면 운석의 가치는 작지 않아 보인다. 운석 발견 초반에 10억~200억원 설까지 나온 이유는 이 때문이다. <br/><br/>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운석 금메달 가격은 1g당 236만원이었다. 처음 발견된 운석의 무게는 9.36㎏이었다. 운석 금메달로 환산해 보면 22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br/><br/>운석은 성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오디너리 콘드라이트의 경우 국제 운석 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운석 가격을 보면 싸게는 g당 2~5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을 적용하면 진주 운석 중 큰 것이 9.4㎏이니까 우리 돈으로 약 2000만~5000만원이 된다.<br/><br/>5000만원만 되더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으로 판단한다면 쏠쏠한 가격이다. 운석 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극지연구소는 진주 운석에 대한 보안조치를 매우 강화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운석 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span>”고 말했다.<br/><br/>운석은 국제운석학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못한다. 발견 연월일, 분류, 정황증거까지 다 승인되면 비로소 ‘운석’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br/><br/>운석 이름은 발견된 지명을 쓰거나 분석자의 이름을 붙인다. 발견자의 이름이 아니다. 진주 운석은 극지연구소와 서울대 학자들이 분석한 것이어서 지명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br/><br/>‘운석 열풍’에 정부도 끼어들었다. 정부는 진주 운석을 절대 해외에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러모로 의미가 큰 만큼 정부가 직접 소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r/><br/>정홍원 국무총리는 3월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span class='quot4'>운석을 발견자로부터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국외 유출을 통제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하라</span>”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br/><br/>그는 “<span class='quot4'>운석은 우주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인 만큼 해외 반출을 막고 연구적 활용과 보존을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4'>부처간 협업 및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래부 주도로 대응 관리체계를 정립하라</span>”고 지시했다.<br/><br/>귀중한 자료로 해외 반출 절대 불가<br/>문화재청은 3월 17일부터 국제공항과 항만 등에 통관검색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운석의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또 진주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br/><br/>운석이 천연기념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이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조사보고서’를 낸다. 문화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해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천연기념물로 최종 고시되려면 2~3개월 정도 걸린다.<br/><br/>문제는 소유권이다. 민법을 보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다. 무주(無主)란 주인 없는 물건을 말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은 주운 사람의 것이라는 얘기다.‘문화재’라면 약간 문제가 달라진다. 민법의 ‘문화재의 국유’ 제1항을 보면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유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br/><br/>다만 제2항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br/><br/>즉 정부가 연구와 학술 목적으로 운석을 가져갈 수는 있으나 이때 원소유자에게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둘러싸고 소유자와 국가 간 생각 차이가 클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br/><br/>문화재청은 “<span class='quot5'>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소유권 문제는 검토해야 할 사안</span>”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br/><br/>진주 운석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등 4가지로 나눈다. 이 중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진주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br/><br/>3월 21일 현재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은 3개다. 전북 고창에서도 운석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운석 소동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br/>극지연구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운석이 로또형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이어서 처음에는 비공개 조사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3'>학술적 가치로만 보면 극지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남극 운석이 더 귀중하지만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5.txt

제목: 자신을 주인공 삼아 ‘죽음에 대한 성찰’  
날짜: 20140331  
기자: 정원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31100000037  
본문: “갑자기 다가선 죽음은 정상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립은 아득해진 마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꿈들과 계획들이 자신이 아주 늙은 나이까지 살리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었음을. 그 근본적 가정이 발밑에서 빠져나가면서,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br/>소설가 복거일씨(68·사진)의 신작 장편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문학동네)는 <높은 땅 낮은 이야기>(1988)와 <보이지 않는 손>(2006)에 이은 자전적 3부작 소설의 마지막 편이다. 작가는 주인공 현이립의 거주지, 저서들, 공적 주장에서 비롯한 이런저런 구설수에 이르기까지 실제 자신과 100%의 일치율을 보이는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이 몇 해 전 간암 말기 선고를 받고 현재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br/><br/>작가로서 글을 계속 쓰기 위해 암치료를 거부한 현이립은 아내가 집안 결혼식 참석을 위해 서울을 비운 어느 봄날 아침, 불광천-월드컵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에 나선다. 소설은 이 하루 동안의 산책을 시간순으로 배치한 3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br/>산책길에서 꽃과 사람은 함께 피어나고 있다. 침침한 눈에 비친 그 풍경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현이립의 삶에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는 그럴수록 더 짙게 드리운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곱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겐 억울하도록 곱다.”<br/>현이립이 마냥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을 앞둔 그를 깊은 절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과학소설 작가로서 그가 평생 축적해온 지식과 통찰이다. 그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작가이자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평생 해온 ‘직업적’ 성찰을 밀고 나간다. 산책길의 모든 풍경이 그에게는 사유의 재료가 된다. 기력은 여전한데 소일거리가 없어 노름 삼매경에 빠진 노인들을 보며 그는 고령화가 바꿔놓을 문명의 혁명적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한강변의 갈대를 보면서는 초인적 인공지능이 인간의 문명에 가져올 충격을 예측해 보기도 한다.<br/>현이립의 마음을 무엇보다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다. 과학의 발견에 따르면, 죽음은 한 인간에게는 우주의 중심이 사라지는 사건이지만 인간이라는 종 전체를 놓고 보면 수없이 많은 유전자 운반기계들 중 하나가 사라지는 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는 평생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들을 체계화해서 한 장의 지도에 담아보겠다”는 야심을 품고 살아왔다. 그 욕심이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지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span class='quot0'>이제 그런 겸허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그에게 충격을 견디도록 하는 심적 자산이다.</span>”<br/>현이립은 자신을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지식인의 다른 이름이다. 비록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는 것은 오롯한 자부심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얼굴에 성취감이 잔잔한 웃음으로 배어나온다. 내년 봄을 기약할 수 없는 사내가 이 우주의 나이인 137억년의 10억 곱절의 10억 곱절이 되는 세월 뒤에 나올 일을 걱정하는 것이다. 한가로움도 그만하면, 성취라 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6.txt

제목: 암환자 친구를 위한 우정의 삭발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710013856809  
본문: 암에 걸려 대머리가 된 친구를 위해 열 명의 친구들이 삭발을 한 일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났다.<br/><br/>이 소식을 전한 중국매체 ‘중신넷’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암환자인 마이크나와 그의 친구들의 삭발 소식을 27일 전했다. <br/><br/>마이크나는 몇 개월 전부터 유방암 치료제 부작용으로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이에 친한 친구 열 명이 일제히 삭발한 상태로 최근 그에게 병문안을 갔다. 삭발한 머리카락은 암환자 지원단체에 기증해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들도록 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7.txt

제목: [녹색세상]규제 없는 탐욕의 제국  
날짜: 20140327  
기자: 황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7100000020  
본문: 최근, 삼성 노동자들에 관한 두 편의 영화가 연이어 개봉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씨의 실제 이야기를 극화한 <또 하나의 약속>, 그리고 삼성 노동자들이 실제로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탐욕의 제국>이다. 두 편의 영화를 연이어 보고, 기업의 윤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통감하게 됐다.<br/>황유미씨의 7주기인 3월6일 개봉해 상영 중인 다큐영화 <탐욕의 제국>은, 방진복을 입은 채 눈만 내놓은 여성들의 사진과 볼펜으로 꾹꾹 눌러쓴 일기들로 시작한다. 방진복 착용법과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약품들을 외우고 또 외운 흔적들이다. 이 영화는, ‘수출 효자 상품’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br/>이윤정씨는 삼성 반도체에서 6년 동안 일하며 반도체칩 고온 검사 일을 했고,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인사동에도, 청계천에도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인간 중심’ ‘for Humans’를 제품에 표방하는 삼성의 55번째 희생자가 됐다. 한혜경씨는 삼성LCD에서 8년간 일했고, 뇌종양에 걸려 1급 장애인이 됐다.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장의 신입사원은 대개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꿈 많은 열아홉살 여성들이다.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황유미씨 역시 그랬다. 속초여상을 졸업하던 해, 유미씨는 택시운전을 하는 아버지의 힘을 덜어드리겠다며 삼성 반도체 생산직에 취업했다. 반도체 원판을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일을 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고 스물셋의 나이에 고인이 됐다. 유미씨의 할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우울증 치료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미씨와 함께 일했던 이숙영씨도 유미씨와 똑같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돌도 안된 젖먹이 아들을 남겨놓고 사망했다.<br/>반도체 공장에서는 강력한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불산과 발암물질인 카테콜(Catechol)을 포함, 5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지만, 직원들은 방독면 없이 방진복만 입고 일했다고 한다. 공장에는 먼지가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창문도 없었다. 삼성, 하이닉스, 중소업체를 포함해 반도체, LCD, 휴대폰, TV 등을 생산·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각종 암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제보된 경우만 92명이 넘는다. 줄을 잇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수차례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행법이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노동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측이 영업비밀이라며 철저히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투병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현행법을 바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br/>만약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과정에 안전 규제들이 있었다면,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였던 저 노동자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규제를 두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대상에는 ‘액티브 엑스’ 같은 것들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까지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고, 초미세먼지를 LPG 택시보다 훨씬 많이 내뿜는 경유택시에 보조금을 주는가 하면, 해제된 그린벨트에 공장과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들이 줄줄이 무너진다. 규제가 암인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8.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변호인 찾습니다"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610013844026  
본문: ‘담배소송’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모집하는 절차에 돌입했다.<br/><br/>건보공단은 26일 “<span class='quot0'>공단 홈페이지에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게재했다</span>”고 밝혔다. 애초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선임공고 발표, 소송규모(소송가액과 피해환자 규모) 공개 등을 하기로 했으나 둘다 보류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소송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담배회사의 고의적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 추진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의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의 협의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하지만 이날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 절차만큼은 원래 계획대로 이날부터 진행키로 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김종대 이사장이 오늘 외부에 다녀온 뒤 추진을 지시한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 공고게재는 15일간 계속되며, 이후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시작한다. 건보공단은 공고에서 착수금 1억3790만원, 성공보수 2억7580만원을 내걸었다.<br/><br/>아직 변호인 선임은 되지 않았지만 앞서 24일 건보공단은 소송규모가 537억원~2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br/><br/>건보공단 측은 흡연피해 환자규모·소송가액 별로 6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폐암(소세포함,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이들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환자’를 모두 포함하면 환자규모는 1만3748명, 소송가액은 2302억원이 된다. <br/><br/>혹은 2001년 사이에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이들 가운데 1992년부터 암 발생시점 사이에 하루 1갑씩 20년을 피웠으며(흡연력 20갑년) 흡연 기간 자체가 30년 이상이라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이들로 좁히면 피해환자 규모는 3484명, 소송가액은 537억원이 된다.<br/><br/>소송대상이 될 담배회사는 변호인단과 확정하며, 현재 한국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KT&amp;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이 거론되고 있다.<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19.txt

제목: “폐암 오진 병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날짜: 20140325  
기자: 이호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5100000142  
본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폐암 환자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br/>강모씨(36)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서 흉부 X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2011년 6월까지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X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이듬해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현재 항암 치료 후 투병 중이다.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오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br/>위원회는 그러나 의사의 오진으로 강씨가 폐암 진단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초의 X레이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보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던 것으로 위원회는 추정했다. <br/>다만 최초의 X레이 검사 후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위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사의 폐암 오진과 환자의 말기 암 상태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30대 환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span>”고 말했다.<br/>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지난 19일 소비자와 병원 측에 통보했다. 보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확정판결 효과를 갖게 된다.<br/>의료사고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은 지난해 69.86%다. 의료분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무기록부와 소견서, 방사선 필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사고경위를 작성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연락하면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0.txt

제목: 신간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낸 동화작가 황선미씨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51001383490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과거에 묶인 기억의 매듭은 스스로 풀어야”</strong><!-- SUB\_TITLE\_END--><br/><br/>“뒤뜰의 의미는 중의적입니다. 뒤뜰은 말 그대로 집 뒤에 있는 뜰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시간의 뒤편에 남아 있는 개인적인 기억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충실하게 살려면 과거에 묶여 있는 기억의 매듭을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br/><br/>밀리언셀러이자 전 세계 25개국에서 번역된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작가 황선미씨(51)의 신작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사계절)가 출간됐다. 구상은 2010년에 했지만 전체의 일부만 써두었던 것을 지난해 한국문학번역원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넉 달 머물며 완성한 작품이다.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가는 “<span class='quot0'>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산책을 많이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어느 날 산책길에 있는 빈 의자를 보고 아버지의 집에 남아 있던 반쯤 기울어진 의자가 떠올라 작품을 완성했다</span>”고 말했다.<br/><br/>“어려웠던 시절 그 의자에 저를 포함한 5남매가 앉아서 숙제도 하고 놀기도 했어요. 낡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을 때는 아버지가 마당에 내놓고 그 위에서 딸에게 줄 채소를 다듬거나 엉덩이를 걸치기도 하셨습니다. 지병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우연히 그 의자를 보고 아버지가 제게 ‘자, 이제부터 놀자’라고 말씀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요.”<br/><br/><br/><b>▲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계기… 빈에 넉 달간 머물면서 완성<br/>유년의 상처를 간직한 노인 마을 사람에게 마음을 열며<br/>자신의 기억과 화해를 그려</b><br/><br/>황씨의 작품에서 아버지는 작가의 마음 깊이 있는 우물에서 이야기를 길어내는 두레박 같은 존재다. <마당을 나온 암탉>과 <푸른 개 장발> 같은 대표 작품의 모델이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다.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에서 주인공 강 노인 또한 아버지와 얽힌 어린 시절의 기억에 묶여 고통받는 인물이다.<br/><br/>이야기의 무대는 산자락에 형성된 버찌마을이라는 이름의 작은 동네다.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암을 안고 사는 강 노인은 요양을 위해 자신이 30년 전에 사둔, 마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저택으로 돌아온다. 이 집에는 산과 이어진 넓은 뒤뜰이 있는데, 강 노인이 집을 비운 사이 이 뒤뜰은 동네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돼버렸다. 게다가 치매를 앓는 한 할머니는 뒤뜰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아예 자신만의 텃밭을 가꾸고 있기까지 한 상태다.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한 강 노인은 비서를 시켜 아이들과 치매 할머니가 드나들던 문을 폐쇄해버린다.<br/><br/>강 노인은 어린 시절 허드렛 일꾼으로 일하던 아버지를 따라 이 집에서 5년을 살았다. 그의 기억속에서 이 집은 오만한 주인집 딸 송이와 짓궂은 동네 아이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던 치욕의 공간이자, 아버지가 주인집 딸의 그네를 만들어주다 사고로 사망한 원한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이 집을 매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내쫓은 후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뒤뜰은 엉망이 되고, 마침내 강 노인은 뒤뜰을 다시 개방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너의 뒤뜰이 다른 사람들의 앞뜰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남들에게 내보이기 싫은 내밀한 부분까지 열어서 소통하고 화해해야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br/><br/>강 노인은 이 동네를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공동주택이 들어선 마을로 개발할 계획을 세운다. 60대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유년의 상처도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낸 왜곡된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 “얼마 전 동생들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서 놀랐어요. 결국 기억이란 것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br/><br/>이 작품은 유년의 상처에 사로잡혀 독선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던 강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서 동시에 자신의 기억과도 화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작가는 특유의 따뜻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다.<br/><br/>황씨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2014년 런던도서전의 ‘오늘의 작가’로 선정됐다. 그는 4월8~10일 열리는 도서전 본행사에 앞서 4월6일 케임브리지에서 열리는 문학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동화작가가 국제도서전에서 ‘오늘의 작가’로 선정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br/><br/>“<마당을 나온 암탉>이 도서전 기간 런던의 모든 서점에 전시된다고 해서 긴장되고 기대도 됩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지도 모르니 사진을 열심히 찍으려고 해요(웃음).”<br/><br/><글 정원식·사진 정지윤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1.txt

제목: [향이의 SNS팡팡] 이부진의 4억원과 김정은의 꼬치구이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510013830845  
본문: 경향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기인 ‘향이’가 주간 SNS 화제 게시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또 SNS 이용자들의 반응도 함께 전해드립니다.<br/><br/><br/><br/>■ 지난주(3월 17~23일) SNS 최고 화제 인물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었습니다. 지난달 82세의 택시기사가 신라호텔 회전문을 들이받아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을 다치게 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장은 성치 않는 몸으로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는 기사의 사정을 고려해 4억원의 배상액을 면제해줬다는 소식(3월 19일자)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273만명이 읽고, 6만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br/><br/><br/><br/><br/><br/>누리꾼들은 이 사장에 대한 칭찬부터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br/><br/><br/><br/>페이스북 이용자 배\*\*는 “이해관계가 어찌되었던, 좋은 귀감인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100% 순수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도 선한 지혜는 칭찬해 주는 것이 맞고, 이 또한 나비효과로 작용할 수 있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는 “이부진한텐 4억원이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제 돈 천원 이천원 포기 못하는 저로서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라고 말했습니다.<br/><br/><br/><br/>그동안 삼성그룹이 보여온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한\*\*는“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동안 삼성가가 해 온 일이 있어서 마냥 고운 시선으로 보이진 않음. 삼성가는 일단 자기 회사 위해서 일하다 병걸려 세상 떠난 노동자들 제대로 보상해주고 처우 개선이나 했으면 좋겠음”이라고 말했습니다.<br/><br/><br/><br/>J\*\*\*\*는 “신라호텔 입장에서는 이일로 손해를 보진 않을 겁니다. 지난번 신라호텔 한복입장 거부 사건으로 떨어진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잇는 기회일뿐더러,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80대 노인에게 4억이란 배상금을 받는다? 언론의 질타만 받겠지요. 반대로 4억원이란 배상금을 면제해주고 이슈화된다면 떨어졌던 신라호텔 이미지 상승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br/><br/><br/><br/>여든이 넘은 노인이 반지하에 살며 택시기사를 하는 한국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트위터에 “삼성재벌 이부진에게 미담을 제공한 택시기사가 82세 였구나. 팔순 넘은 노인이 아픈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하는 사회. 세계경제규모 11위 나라에서 노인빈곤률 1위가 실감난다”며 “이건희 회장이 조금만 덜 해먹었어도 그 나이까지 택시를 몰아야하는 노인은 없었겠지”라고 말했습니다.<br/><br/><br/><br/>■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꼬치구이 장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한 거리의 꼬치구이집 사장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빼닮아 화제(3월 21일자)가 됐습니다. 몸매와 헤어스타일, 복장까지 김 위원장과 ‘싱크로율 100%’ 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40만명이 이 기사를 봤고요, 트위터에서 312명이 리트윗을 했습니다.<br/><br/><br/><br/><br/><br/>페이스북 이용자 정\*\*는 “정은이형 투잡 뛰는구나”라고 말했고요, 김\*\*는 “외화벌이가 얼마나 힘들면 ㅋㅋ”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꼬치구이 맛이 궁금한데요, “핵폭탄 맛”, “핵꼬치”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br/><br/><br/><br/>■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교감.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기린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동물원 직원에게 ‘작별 키스’를 하는 감동적인 영상(3월 23일자)이 SNS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에서 24만명이 보고 트위터에서 500건 리트윗됐습니다.<br/><br/>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마리오는 25년간 동물 우리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소원으로 동물원을 찾은 마리오에게 기린들이 다가와 얼굴을 비비고 키스했습니다.<br/><br/><br/><br/><br/><br/>페이스북 이용자 임\*\*는 “짐승도 이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의 인생들... 보고 정을 나누자”라고 말했고요 한\*\*는 “인간들이 자신들에 그리 모질게 하는데도 따뜻한 눈길 한 번 주는 인간에게 언제나 모든 걸 내어주는 동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br/><br/><br/><br/>■ ‘광란의 질주’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시내버스가 노선을 벗어나 주행해 버스기사를 포함한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3월 20일자)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27만8656명이 보고 6304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관심을 모았습니다.<br/><br/><br/><br/><br/><br/>누리꾼들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정\*\*는 “제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사람일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br/><br/><미디어기획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2.txt

제목: [정희진의 낯선사이]세 모녀와 한 사람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510013835358  
본문: 우울한 기분과 질병으로서 우울증은 다르다.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우울증처럼 가볍게 취급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병도 드물다. 마음이라는 몸의 부위는 없다. 우울증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 아픈 병이다.<br/><br/>우울증은 기분, 인식,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아픈 병이다. 질병이 신체 내부의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한다면, 우울증의 열쇠는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화학물질이 쥐고 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분자인데도 ‘행복 호르몬’으로 불린다.<br/><br/>최근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쟁 사회의 압박으로 인한 자살이 사회적 타살로 인식되면서 유례없는 공감을 얻고 있다. 자살한 이를 비난하기보다 대책이 마련되고 낙인이 개선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br/><br/>그러나 ‘세 모녀의 동반 자살’이 아니라 먹고살 만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살한 경우에도 이만큼 이해받을 수 있을까? 특히 예전의 가족 동반 자살은 생명경시론에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긴다는 비난이 엄청났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자살하는 것보다 더 이해받는 듯하다. 최근 여론만 보면 자살 담론은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동했다.<br/><br/>나는 ‘사회적 타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나친 공감’이 다소 염려스럽다. 개인과 구조, 자살과 타살을 지극히 배타적 범주로 놓고 사회적 타살과 개인적 자살을 구별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살과 그렇지 않은 자살로 구분한 것뿐이다.<br/><br/>자살 탐구는 원인과 결과, 몸과 마음, 자유와 강제, 개인과 구조 등 근대철학의 모든 이분법에 대한 도전이다. 사회적 타살론은 위에 언급한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 대립쌍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지 않는 한, 현재의 자살 ‘담론 소동’은 일시적 유행이거나 삐딱하게 말하면 살아 ‘남을 수’ 있는 자들의 ‘안도’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한 동정 혹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의 사례로만 취급될 것이다.<br/><br/>‘세 모녀 자살’ 사건이 사회구조의 결과임은 명백하지만 그들의 ‘선택’, 정확히는 대처 방식이 반영되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적 사연처럼 보이는 자살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구별하기보다 구조에 대한 개인의 대응을 사회가 돕는 방식을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br/><br/>인생의 고난이 정신적 면역력을 압도할 때 인간은 자살한다.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살은 질병사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타살과 개인적 자살의 원인은 같다.<br/><br/>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에 대한 구별과 위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생명보험 등 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전문의들은 우울증 환자를 세상에서 가장 이해받기 어려운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한다.<br/><br/>힘든 세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 - 투쟁, 포기, 갈팡질팡 등 - 이 세로토닌 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구조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우울증을 만들어낸다면 그 비율은 1 대 99, 51 대 49, 37 대 63 등 천차만별일 것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구조가 몇 %이고, 개인의 특성·면역력·조건이 몇 %인지 계량할 수 없다. 몸(뇌)의 건강은 정치적, 생리적, 개인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의 계속적인 운동과 복합성이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가 아닐까.<br/><br/>자살의 이유가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의 구분은 자살에 대한 몰이해의 첫 단추다. 자살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고통에 대한 몸의 면역력이지, 개인의 나약함이나 사회적 억압 자체가 아니다. 사회와 생물은 상호 작용(cultured nature)한다. 생물학은 환경에 대한 생명체의 적응과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아닌가. 지구상에 독자적 영역은 없다.<br/><br/>모든 인생사는 수용과 이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 좋은 인간관계(사회 구조)에 따라 개인의 기운과 용기는 달라진다. 자연의 법칙은 “자살은 비정상이다” 혹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의미한다. 이 의지는 건강 약자든 사회적 약자든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br/><br/><정희진 | 여성학 강사 tobrazil@naver.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3.txt

제목: “각종 암 발병” 미군 100명 집단소송  
날짜: 20140325  
기자: 손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5100000199  
본문: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구호작업에 투입된 미국 군인들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 상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활동하다 피폭됐다며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br/>미국 msnbc 방송이 입수해 웹사이트에 공개한 소장을 보면 대지진 당시 미 해군 병사로 핵추진항모 로널드레이건호에 승선해 구호활동을 한 린지 쿠퍼 등 70여명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도쿄전력을 상대로 치료비 등 10억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늘어나 지난 19일 현재 100여명이다. 당시 ‘도모다치(친구라는 일본어) 작전’에 투입된 주일미군 7만여명 모두를 대표한다고 찰스 보너 변호사가 밝혔다. <br/>▲ 도쿄전력 상대 미 법원에<br/>“방사성 물질 누출 안 알려”<br/>치료비 등 10억달러 청구<br/>로널드레이건호에 승선한 해군·해병대는 5500여명으로, 지진·해일 피해 발생 직후인 2011년 3월12일 원전으로부터 160㎞가량 떨어진 해상에 정선해 헬기를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방사성물질 오염 제거 작업 등에 참여했다. <br/>보건·의료사건 전문 변호사인 보너는 지난 19일 미국 독립언론 ‘데모크라시 나우’ 방송에 출연해 “<span class='quot0'>원고들은 20~30대에 잘 나타나지 않는 갑상샘암, 고환암, 뇌종양, 자궁 과다출혈 등 다양한 질병이 갑자기 발병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로널드레이건호를 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갔다. 도쿄전력은 노심용융(멜트다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함상에 있으면서도 정상치보다 30배가량 높은 방사능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도쿄전력이 300t가량의 냉각수를 방출하면서 해수를 담수화해 목욕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병사들은 고스란히 방사성물질을 섭취했다고 말했다. <br/>원고들은 미 해군도 도쿄전력의 거짓 정보에 속았을 것으로 본다며 소송의 피고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4.txt

제목: [과학]세계를 흥분시킨 오보카타 ‘일본판 황우석 사건’ 가능성  
날짜: 2014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5100000025  
본문: 올해 초 간단하게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 전 세계를 놀래킨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30) 연구주임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다 결국 논문을 철회하기로 했다.<br/><br/>소속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는 3월 14일 논문의 조작 여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span class='quot0'>논문을 철회하는 쪽으로 입장을 갖고 있다</span>”고 밝혔다. 오보카타를 포함해 논문의 저자 4명 가운데 3명이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학연구소는 지난 2월 초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오보카타는 와세다대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와세다대는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 중이다.<br/><br/>논문 발표 직후 노벨상 후보 급부상<br/>논문이 사실상 조작으로 판명나면서 오보카타가 개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학 연구에 10년간 1100억 엔(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일본 아베 정권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논문 신뢰성 논란에 이어 연구자 윤리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과학계에서는 ‘일본판 황우석 사태’를 예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오보카타 하루코는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br/><br/>논란이 된 논문은 오보카타 하루코 박사가 제1저자로 미 하버드대학 연구팀과 함께 쓴 2편으로 1월 30일자 과학전문 저널 ‘네이처’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약산성 용액에다 갓 태어난 쥐의 체세포를 담가두었다가 일정한 배양 처리를 했더니 줄기세포 성질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줄기세포는 체내 모든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암이나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런 기법을 ‘자극이 촉발하는 다분화기능 획득’(STAP·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이라고 명명했으며, 그렇게 해서 생성된 세포를 ‘스탭(STAP) 세포’라고 이름지었다.<br/><br/>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학계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무엇보다 이 연구성과는 기존의 그 어떤 줄기세포 제작방법보다 쉽고 간편했다. 줄기세포가 분화해 체세포가 되는데, 간단한 자극만으로 체세포가 줄기세포로 되돌아간다는 건 세포생물학의 기존 상식을 뒤집는 것이었다. 학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다.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 교토대 야마가타 신야 교수가 개발한 체세포에 유전자 등을 삽입해 만드는 ‘유도만능(iPS) 줄기세포’보다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니 노벨상을 예약했다는 말이 나올 만도 했다.<br/><br/>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시도한 인간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윤리문제도 없다. 오보카타 논문의 교신저자인 미국 하버드대 의대 찰스 버칸티 교수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인간 세포에서도 쥐 세포 실험과 유사한 스탭 줄기세포 결과를 얻었다</span>”고 밝혔다.<br/><br/>이 모든 게 암이나 난치병 등을 치료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듯 보였다.<br/><br/>그러나 약 2주 뒤 네이처에 실린 논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13일 논문 검증 사이트 ‘펍피어’(Pubpeer)에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DNA 시료에 전기를 걸어 DNA를 절편의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전기영동’을 시도한 첫 번째 논문 1번 i 사진 세 번째 줄 배경이 나머지와 다르다.<br/><br/>국내 한 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1'>정상이라면 전기영동 사진에서 줄마다 배경이 다를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른 전기영동 사진에서 잘라내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두 번째 논문에서도 1번 b 사진과 2번 g 사진이 중복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쥐 배아세포 사진 2번 g 사진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1번 b 사진과 같아진다는 것이다.<br/><br/>펍피어에는 오보카타가 2011년 발표한 논문에서도 전기영동 사진을 뒤집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br/>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이화학연구소는 조사에 돌입했다. 이화학연구소는 “<span class='quot0'>오보카타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부자연스러운 이미지 데이터가 사용됐다는 지적이 일어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조사를 시작했다</span>”고 밝혔다.<br/><br/>꼬리 문 조작… 일본 과학계 당혹<br/>이후 전 세계 연구진들은 오보카타가 논문에 제시한 줄기세포 제조방법을 재현하는 실험을 실시했지만 실패했다는 보고를 속속 내놓았다. 오보카타의 논문을 게재했던 ‘네이처’는 2월 17일 보도한 기사에서 “스탭 세포 재현 실험을 해본 실험실 10곳에 문의했지만 성공한 곳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적었다. 국내 생명과학분야 과학자들의 익명 커뮤니티이자 황우석 논문조작 여부를 밝히는 데 큰 공헌을 한 ‘브릭’(BRIC)에도 스탭 세포 재현에 실패했다는 보고가 속속 올라왔다.<br/><br/>재현 논란이 일자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네이처는 지난 5일 좀 더 상세한 스탭 세포의 실험기법(프로토콜)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아직 재현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연구실은 없다.<br/><br/>결국 논문 발표 40여일 만에 공동저자들이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오보카타의 네이처 논문을 공동집필한 와카야마 테루히코 야마나시대 교수는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논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믿었던 연구 데이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스탭 세포가 정말 생기는지 확신이 없어졌다</span>”고 주장했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오보카타가 실수로 사진을 잘못 골라 사용했을 것이라며 두둔하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14일 결국 오보카타도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오보카타 하루코의 2011년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박사학위 논문 108쪽 가운데 20쪽 상당이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웹사이트에 실린 줄기세포 관련 내용과 겹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에는 출처 표기도 돼 있지 않았다. 논문의 첫 부분과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인터넷 사이트의 문장과 단어 배열, 구두점까지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간세포를 다룬 것으로, 네이처에 게재한 스탭 세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논문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과학자가 학위논문에서 표절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와세다대는 논문 조사에 돌입했고 박사학위 취소도 검토 중이다.<br/><br/>일본은 과거 구석기 유물 조작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후지무라 신이치(藤村新一) 도호쿠구석기문화연구소 부이사장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70만년 전 구석기 유적이라며 발굴한 가미타카모리 유적이 후지무라가 날조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후지무라는 발굴에 관여한 유적지마다 구석기 유적임을 증명하는 석기 등을 건져내 일본 학계에서는 ‘신의 손’으로 불렸다. 후지무라의 발굴은 일본열도의 인류 역사를 기존의 7만~5만년 전에서 무려 70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해 일본은 물론 동북아 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br/><br/>그러나 2000년 11월 그가 유적지에 석기를 파묻는 모습이 마이니치신문에 포착되면서 날조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고고학회는 유적 진위 조사를 통해 후지무라가 관여했던 구석기 유적 162개 모두가 날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지무라 건으로 치른 홍역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다시 오보카타의 스탭 세포 연구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본 과학계의 연구윤리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5.txt

제목: “활성산소가 당뇨 막는다” DNA 구조 밝혔던 왓슨의 도발  
날짜: 20140324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4100000096  
본문: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왓슨(86)과 프랜시스 크릭이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왓슨이 최근 당뇨에 대해 논쟁적인 가설을 발표하고 다년간 암연구에 매진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br/>그는 지난 1일 세계적인 의학저널 ‘랜싯(The Lancet)’에 ‘산화환원반응으로 인한 질병으로서의 제2형 당뇨’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랜싯은 관련 기사까지 게재하며 왓슨의 칼럼과 그의 연구 열정에 찬사를 보내고 표지에도 왓슨을 등장시켰다. 논문이 인용된 횟수를 지수화한 인용지수(IF)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랜싯은 39.06으로 네이처(38.597)와 사이언스(31.027)보다 높다. 인용지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이 인용된 횟수가 많다는 것으로 인용지수가 높을수록 훌륭한 저널로 평가받는다.<br/>왓슨은 칼럼에서 활성산소가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활성산소가 ‘과도’하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복용해왔다.<br/><br/>▲ 활성산소 순기능 다룬 칼럼 세계적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br/>암환자 항산화제 역효과 연구도<br/>▲ 53년 DNA 이중나선구조 발견… 66년 크릭과 함께 노벨상<br/>7년 전 우생학적 발언으로 논란<br/>■ 활성산소의 순기능 조명<br/>활성산소는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몸에서 과도하게 산화돼 발생하는 산소로 ‘유해산소’로도 불린다. 적당량이 있으면 세포 증식이나 분화 등 인체대사활동에 순기능을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암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왓슨은 활성산소가 세포 소기관인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거나 췌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아 당뇨가 발생한다.<br/>왓슨은 당뇨병 환자가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가설을 만들었다고 칼럼에 썼다. 당뇨병 환자들은 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동은 당뇨병 환자에게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 즉, 왓슨은 활성산소가 췌장의 염증을 막는 등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논리대로라면 당뇨병 환자들이 주로 복용해오던 항산화제는 오히려 당뇨병 환자의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다.<br/>현재 주류 학계에서는 세포에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췌장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당뇨는 활성산소가 많아서 생기는 염증질환인 셈이다. 활성산소의 양이 어느 정도여야 몸에 해로울 것인가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왓슨은 기존 학계의 의견과는 달리 당뇨병 환자에게 활성산소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br/>왓슨의 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생명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한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랜싯이라는 유명한 저널에 실린 글이라고 해도 왓슨의 명성에 의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왓슨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가설이며, 왓슨 스스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차후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끝을 맺었다</span>”고 말했다. 가디언도 “왓슨의 연구는 전혀 놀랍지가 않고 랜싯이 왓슨의 명성 때문에 글을 실어준 것”이라는 익명의 과학자 말을 전했다.<br/>왓슨의 기고문이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체적인 연구결과로 나올지는 왓슨의 향후 연구에 달려 있다. 왓슨은 최근 활성산소가 부족하면 당뇨가 생긴다는 자신의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연구단을 꾸리고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 암환자, 항산화제 맹신 말자<br/>왓슨은 당뇨를 연구하기 전 암과 활성산소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왔다. 그는 지난해 온라인 학술지인 ‘열린생물학’에 <산화제와 항산화제, 현재 치료가 안되는 전이암>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항산화제가 암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암이 생기면 항산화제는 오히려 암세포가 자라도록 돕는다는 내용이다. 그는 항암제만 써서 효과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후 항산화제를 같이 사용하면 약효가 사라지는 연구결과도 소개했다.<br/>활성산소가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려왔다. 과거 항산화제가 DNA의 손상을 막아 암을 예방한다는 주장이 유력했다. 1995년 하버드대 의대 에드워드 지오반누시 박사 연구팀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로 라이코펜을 첨가한 토마토케첩이 출시되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라이코펜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다.<br/>그러나 2003년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저널’에는 라이코펜을 알약으로 섭취했을 때 전립선 예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br/>지난 2월에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주사가 자궁암을 치료한다는 연구결과와 비타민 섭취가 폐암을 악화시킨다는 논문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돼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약품으로 섭취하는 항산화제의 무용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거 발표된 논문을 재분석하는 ‘체계적 종결’ 방식을 따른 연구에서 항산화제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항산화제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왓슨의 연구는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br/>■ 흑인이 열등하다는 말로 과학계에 파문도<br/>왓슨은 프랜시스 크릭과 함께 1953년 DNA가 두 가닥이 나선구조를 이룬다는 내용의 논문을 세계 유명저널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는 ‘20세기 후반 최대의 발견’으로 불릴 정도로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분자생물학의 기본적인 신비를 밝혀냈고, 인간게놈프로젝트 등 향후 생명과학 혁명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왓슨은 크릭과 함께 196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br/>그가 암과 당뇨 연구와 연을 맺은 것은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의 소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다. 그는 연구소를 암 전문 연구센터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국가 암퇴치법을 통과시키고 ‘암 정복 캠페인’을 벌이면서 연구소는 암 연구에 더욱 탄력을 받았다. 그는 1968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으로 동물 바이러스와 암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 이후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이끌기도 했다.<br/>이후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로 복귀한 왓슨은 2007년 흑인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뒤 연구소 소장직에서 물러났다.<br/>왓슨은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흑인들이 백인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서구 국가들의 아프리카 관련 정책들은 잘못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인종 간 지능의 우열을 가리는 유전자가 앞으로 10년 안에 발견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DNA의 구조를 밝힌 세계적 석학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왓슨이 나이가 들어 이상해졌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6.txt

제목: [과학 오디세이]유전정보 공유와 사유  
날짜: 20140324  
기자: 김훈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4100000026  
본문: 헬스케어가 사회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즘 첨단 생명공학을 동원해 무병장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미국의 한 기업이 화제다. 지난해 미국 샌디에이고에 설립된 인간장수주식회사(HLI·Human Longevity Inc.)가 이달 초 세계 언론에 자신의 출범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인간의 유전정보는 물론 몸에 사는 미생물의 유전정보, 세포의 대사물질 정보, 그리고 줄기세포 기술을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들이어서 새롭지 않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사상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고, 설립자가 생명공학계의 세계적인 스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인간의 유전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에 주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가 새삼 의문스럽다.<br/>HLI의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이 크레이그 벤터이다. 벤터는 2010년 미생물의 유전자 전체를 합성해 미생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사이언스’에 보고했다. 실험실에서 생명체가 합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세계가 깜짝 놀랐다.<br/>2000년대 초반에는 인간게놈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완수해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인간 유전자에 존재하는 30억개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돼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199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다. 10여년에 걸쳐 30억달러가 투자됐다. 그런데 벤터는 1998년 셀레라 지노믹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국제연구팀과 같은 시기에 대등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았다.<br/>벤터는 HLI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인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초기자금 7000만달러를 확보한 상황이다. 생명공학 회사인 일루미나에서 최신 장비 두 대를 구입해 당장은 1년에 4만명의 유전정보를 해독하겠다고 한다. 향후 그 수를 1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루미나의 장비는 사람 한 명의 유전정보를 1000달러 선에서 알아낼 수 있다. 현재 HLI가 표방한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암 정복이다. 건강한 사람과 암환자의 유전정보를 비교해 암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한 진단기법을 개발하려 한다.<br/>벤터의 화려한 이력에 비춰보면 HLI의 목표는 기술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비 두 대의 가격은 2000만달러에 달한다. 4만명의 유전정보를 해독하려면 4000만달러가 필요하다. 1년만 지나면 지금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다.<br/>HLI의 주요 자금확보 전략은 유전정보의 판매이다. 제약회사에 질병 유전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약이나 새로운 진단법이 개발될 때 막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HLI는 주요 유전정보에 대해 특허를 등록할 것이다.<br/>벤터는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유전정보 특허를 등록해 국제연구팀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인간의 유전정보를 누군가가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료되던 시점에서 국제연구팀은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벤터는 주요 정보에 대해 제약회사나 대학교에 판매하는 전략을 세웠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국제연구팀이 정보를 공개한 상황에서 벤터를 찾는 수요자가 많지 않았다.<br/>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암을 예로 들어보자. NIH는 2005년부터 암게놈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3억7500만달러를 들여 1만여개의 암세포 샘플에서 유전정보를 분석했다. 암을 일으키는 주요 유전자가 대거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10배의 샘플이 필요하다고 한다. NIH가 향후 더욱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벤터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면 암 유전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당부분 HLI에 귀속될 것이다.<br/>HLI의 설립자 한 명은 이렇게 장담했다. 인간이 80세까지 살 수 있는지는 생활습관에 달려있지만, 10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유전학자에 의해 확보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은 좋다. 다만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감당해야 할지가 걱정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7.txt

제목: “폐암 오진 병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41001382457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strong><!-- SUB\_TITLE\_END--><br/><br/>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폐암 환자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br/><br/>강모씨(36)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서 흉부 X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2011년 6월까지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X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이듬해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현재 항암 치료 후 투병 중이다.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오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br/><br/>위원회는 그러나 의사의 오진으로 강씨가 폐암 진단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초의 X레이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보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던 것으로 위원회는 추정했다. <br/><br/>다만 최초의 X레이 검사 후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위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사의 폐암 오진과 환자의 말기 암 상태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30대 환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지난 19일 소비자와 병원 측에 통보했다. 보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확정판결 효과를 갖게 된다.<br/><br/>의료사고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은 지난해 69.86%다. 의료분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무기록부와 소견서, 방사선 필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사고경위를 작성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연락하면 된다.<br/><br/><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8.txt

제목: 정부, 갑상샘암 검사 가이드라인 만든다  
날짜: 20140324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4100000108  
본문: 정부가 갑상샘(갑상선)암 검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최근 갑상샘암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과도한 조기검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br/>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갑상샘암을 검사·진단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br/>한국에선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없는데도 갑상샘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1년 국가 암등록 통계’를 보면 갑상샘암은 201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며 1999~2011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도 1위(23.7%)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10만명당 96.8명으로 2위인 유방암(43.8명)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일본 여성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10만명당 6.5명, 미국은 20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갑상샘 초음파 검사가 ‘몰라도 되는’ 암을 찾아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발족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span class='quot0'>일부 환경요인이 있겠지만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가 없었는데도 갑상샘암이 기형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과다진단 외엔 달리 설명할 수 없다</span>”고 밝혔다.<br/>갑상샘암은 진행이 느리고 생존율도 높아 대부분 국가에서 조기검진을 하지 않는다. 2007~2011년 기준 갑상샘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100%로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29.txt

제목: [별별시선]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날짜: 20140324  
기자: 정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4100000025  
본문: “어? 이 책이 또 있네?” 책장 정리를 하다가 똑같은 책을 두 권 발견했다. 벌써 두 번째다. 온라인으로 책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종 있는 일이다.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5만원 이상 사면 더 얹어주는 적립금 때문에 대개 5만원 이상의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된다. 그렇다보니 사 놓은 책을 다 읽기 전에 다른 책을 더 구입하게 되고, 산 기억을 까맣게 잊고 같은 책을 산 후에도 모르고 지나간다. 가끔씩 이렇게 두 권씩 사서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책들이 발굴(?)될 때마다 괴롭긴 하다. ‘안 읽을 거면 사지 말자’ 다짐해봐도 그때뿐이다. 관심가는 책을 그때그때 다 읽지는 못해도 사 놓기라도 해야 안심이 되니 어쩔 수가 없다. 시험 기간에 한 무더기 책을 싸갖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 펴보지도 않은 책 그대로 끙끙대며 들고 오던 학창 시절의 미련퉁이 짓을 반복할 밖에.<br/>책장 정리를 하다보면 옛날 책을 들춰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책에 연관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대학생 때 내게는 술만 먹었다 하면 후배들에게 책을 사주던 선배가 있었고,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시집을 선물해주는 전통을 가진 동아리도 있었다. 그 동아리의 선배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후배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한 권의 시집을 골라 앞장에 간단한 글을 적어 건네주곤 했다. 대개 좋은 시를 쓰라는 덕담이거나 좋아하는 시인에 대한 애정 표현의 내용이었다. <br/>책 사주는 선배와 동아리 선배들이 시집을 고르는 서점은 학교 앞에 딱 하나 있는 서점이었고, 그 서점은 늘 책을 반투명 비닐로 꼼꼼하게 싸주는 곳이었기에 그 서점에서 산 책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4년 동안 내 책장에는 반투명 비닐에 싸인 책들이 한 권, 두 권씩 늘어갔다.<br/>그 책들이 늘어가면서 ‘책은 빌려 보면 된다’는 나의 신념 아닌 신념은 책을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 주머니 사정이 뻔했던 그때는 딱 한 권의 책을 고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당연히 그렇게 고른 책은 두고두고 읽기 마련이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과 달리 그 비닐 커버 씌운 책들은 본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앞장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까지 기억나곤 한다. 지금 당장 읽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면 언젠가는 읽게 된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됐다.<br/>서점의 상황은 좀 달랐다. 서점 한쪽의 벽면을 차지한 책꽂이가 토익 교재로 바뀌고 난 후 주인아저씨의 쓸쓸한 표정이 가끔 떠오른다. 그래도 나는 고심 끝에 내놓은 책을 그 두툼한 손마디의 손으로 꼼꼼히 포장해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순간이 꽤 즐거웠다. <br/>가끔 포장이 영 서툰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날이면 일부러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정도였으니까. 그건 온라인에서 5만원 이상을 채우기 위해 장바구니에 책을 넣었다 뺐다 하고, 쿠폰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적립금을 사용하고, 항공 마일리지까지 적립하는 지금은 느끼기 어려운 즐거움이었다. 가끔 아저씨도 읽었다며 짧게 감상을 덧붙일 때에는 책을 제대로 골랐다는 뿌듯함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꽤 가벼웠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다. 그 서점이 없어진 지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다.<br/>이제는 아무도 내게 책을 선물하지 않는다. 나 역시 책을 선물한 기억이 까마득하다. 아니, 그보다 술 한잔하고 기분좋게 책을 고르러 가고 싶어도 갈 서점이 없다. 오래된 동네의 서점은 망하고, 새로 생긴 동네에는 서점이 생기지 않는다. 10년 새에 1258개의 동네 서점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고사 직전의 서점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서점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암덩어리 규제’라도 필요해 보인다. 아니면 “동네 서점이 사라지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는 건 어떨까? 대형 서점 프랜차이즈와 인터넷 서점만 남기 전에, 더 많은 동네 서점들이 사라지기 전에 말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0.txt

제목: 정부, 갑상샘암 검사 가이드라인 만든다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31001381415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과도한 조기검진 막게”</strong><!-- SUB\_TITLE\_END--><br/><br/>정부가 갑상샘(갑상선)암 검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최근 갑상샘암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과도한 조기검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br/><br/>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갑상샘암을 검사·진단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br/><br/>한국에선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없는데도 갑상샘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1년 국가 암등록 통계’를 보면 갑상샘암은 201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며 1999~2011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도 1위(23.7%)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10만명당 96.8명으로 2위인 유방암(43.8명)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일본 여성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10만명당 6.5명, 미국은 20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갑상샘 초음파 검사가 ‘몰라도 되는’ 암을 찾아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발족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span class='quot0'>일부 환경요인이 있겠지만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가 없었는데도 갑상샘암이 기형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과다진단 외엔 달리 설명할 수 없다</span>”고 밝혔다.<br/><br/>갑상샘암은 진행이 느리고 생존율도 높아 대부분 국가에서 조기검진을 하지 않는다. 2007~2011년 기준 갑상샘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100%로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1.txt

제목: [별별시선]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310013813482  
본문: “어? 이 책이 또 있네?” 책장 정리를 하다가 똑같은 책을 두 권 발견했다. 벌써 두 번째다. 온라인으로 책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종 있는 일이다.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5만원 이상 사면 더 얹어주는 적립금 때문에 대개 5만원 이상의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게 된다. 그렇다보니 사 놓은 책을 다 읽기 전에 다른 책을 더 구입하게 되고, 산 기억을 까맣게 잊고 같은 책을 산 후에도 모르고 지나간다. 가끔씩 이렇게 두 권씩 사서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책들이 발굴(?)될 때마다 괴롭긴 하다. ‘안 읽을 거면 사지 말자’ 다짐해봐도 그때뿐이다. 관심가는 책을 그때그때 다 읽지는 못해도 사 놓기라도 해야 안심이 되니 어쩔 수가 없다. 시험 기간에 한 무더기 책을 싸갖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 펴보지도 않은 책 그대로 끙끙대며 들고 오던 학창 시절의 미련퉁이 짓을 반복할 밖에.<br/><br/>책장 정리를 하다보면 옛날 책을 들춰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책에 연관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대학생 때 내게는 술만 먹었다 하면 후배들에게 책을 사주던 선배가 있었고,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시집을 선물해주는 전통을 가진 동아리도 있었다. 그 동아리의 선배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후배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한 권의 시집을 골라 앞장에 간단한 글을 적어 건네주곤 했다. 대개 좋은 시를 쓰라는 덕담이거나 좋아하는 시인에 대한 애정 표현의 내용이었다. <br/><br/>책 사주는 선배와 동아리 선배들이 시집을 고르는 서점은 학교 앞에 딱 하나 있는 서점이었고, 그 서점은 늘 책을 반투명 비닐로 꼼꼼하게 싸주는 곳이었기에 그 서점에서 산 책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4년 동안 내 책장에는 반투명 비닐에 싸인 책들이 한 권, 두 권씩 늘어갔다.<br/><br/>그 책들이 늘어가면서 ‘책은 빌려 보면 된다’는 나의 신념 아닌 신념은 책을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 주머니 사정이 뻔했던 그때는 딱 한 권의 책을 고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당연히 그렇게 고른 책은 두고두고 읽기 마련이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과 달리 그 비닐 커버 씌운 책들은 본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앞장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까지 기억나곤 한다. 지금 당장 읽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면 언젠가는 읽게 된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됐다.<br/><br/>서점의 상황은 좀 달랐다. 서점 한쪽의 벽면을 차지한 책꽂이가 토익 교재로 바뀌고 난 후 주인아저씨의 쓸쓸한 표정이 가끔 떠오른다. 그래도 나는 고심 끝에 내놓은 책을 그 두툼한 손마디의 손으로 꼼꼼히 포장해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순간이 꽤 즐거웠다. <br/><br/>가끔 포장이 영 서툰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날이면 일부러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정도였으니까. 그건 온라인에서 5만원 이상을 채우기 위해 장바구니에 책을 넣었다 뺐다 하고, 쿠폰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적립금을 사용하고, 항공 마일리지까지 적립하는 지금은 느끼기 어려운 즐거움이었다. 가끔 아저씨도 읽었다며 짧게 감상을 덧붙일 때에는 책을 제대로 골랐다는 뿌듯함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꽤 가벼웠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다. 그 서점이 없어진 지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다.<br/><br/>이제는 아무도 내게 책을 선물하지 않는다. 나 역시 책을 선물한 기억이 까마득하다. 아니, 그보다 술 한잔하고 기분좋게 책을 고르러 가고 싶어도 갈 서점이 없다. 오래된 동네의 서점은 망하고, 새로 생긴 동네에는 서점이 생기지 않는다. 10년 새에 1258개의 동네 서점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고사 직전의 서점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서점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암덩어리 규제’라도 필요해 보인다. 아니면 “동네 서점이 사라지고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는 건 어떨까? 대형 서점 프랜차이즈와 인터넷 서점만 남기 전에, 더 많은 동네 서점들이 사라지기 전에 말이다.<br/><br/><정지은 | 문화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2.txt

제목: 암치료 신약 VS 검증 안 된 약 넥시아 ‘10년 논쟁’  
날짜: 2014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210013807849  
본문: <div style='color:#6b6b6b;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넥시아 개발한 교수 “<span class='quot0'>암환자 216명 넥시아로 치료됐다.</span>” 국가암정보센터 “<span class='quot0'>현재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 충분하지 않다.</span>” 임상암학회 “<span class='quot0'>항암제로 사용되려면 과학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span>” 극과 극의 주장 속에 환우단체는 대통령에게 “<span class='quot0'>참의사의 진료를 방해한 사람들을 조사해 달라</span>”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길고 긴 논쟁의 최후 승자는 누구일까.<br/><br/></div>지난 3월 3일, 두 개의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2014년 3월 16일 말기암(4기 암)에 대한 치료의 실상이 공개됩니다.’ 광고는 실명을 거론한 두 의사의 블로그 및 신문기고 글을 제시하며 그것을 ‘두 의사의 양심선언’이라고 불렀다. <br/><br/><strong>암환우단체-일부 의사 갈등 심화<br/><br/></strong>“그냥 두어도 10년간 무탈하게 사는 말기암 환자들은 종종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9년째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한정호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충북대 병원 의사) “검증되지도 않고, 투명성도 없는 치료법에 매달려 더 이상 환자가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유용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소아과 의사) <br/><br/>광고는 세 단체의 연명으로 게재되었다. 대한암환우협회, 암환우보호자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광고에서 이들 단체는 ‘말기암(4기 암) 완치자를 응모받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에 전면 공개한 후 유튜브 및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br/><br/>광고에는 접수에 필요한 우편 주소와 이메일을 제외하고 달리 연락할 수 있는 루트는 나와 있지 않았다. 3월 7일 기자는 취재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사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의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br/><br/><br/><br/>한정호 교수는 광고가 게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span class='quot1'>해당 단체들이 단순한 암환우 단체가 아니라 한방 암치료제인 넥시아를 옹호하는 환우단체들</span>”이라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다. 해당 단체 회원들과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이 행사를 같이 여는 등의 사진이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재된 광고를 포함, 이들의 광고에는 넥시아나 최원철 부총장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br/><br/>이들 단체와 최 부총장의 ‘특별한 관계’는 사실로 보였다. 3월 12일, 이들 세 단체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최 부총장에게 넥시아 제조 금지요청 공문을 보낸 산림과학원에 이들 단체 회원들이 항의방문한 것이다.<br/><br/><strong>‘의료계 차세대 리더 1위’에 뽑혀<br/><br/></strong>이들 단체가 포털에 개설한 카페를 통해서 3월 13일 이들 단체의 집회가 단국대 융합의료센터에서 열린다는 것을 체크했다. 기자는 해당 집회를 취재했다. <br/><br/>3월 13일 열린 집회에서 이들이 일간지에 게재했던 광고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산림과학원 항의방문을 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행사장에는 이들 단체가 연명으로 내건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최원철 교수님, 잘 다녀오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br/><br/>오후, 최원철 부총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을 두고 떠나는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의사로서 한국에 있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어떤 이야기일까. <br/><br/>최 부총장이 개발한 한약 항암제 ‘넥시아’를 둘러싼 논란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88년 인천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최 원장이 처음 두각을 나타낸 것은 당뇨와 중풍 전문치료였다. 1998년 KBS에서 ‘암은 정복될 것인가’를 주제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그의 운명을 갈랐다. 1부만 방영되고 중단된 이 프로그램에서 최 원장의 암 진단법이 화제가 되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암환자 가족들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1998년 당시 6살이었던 아이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최봉석씨(51)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인천의 한의원을 찾아갔다. “서울대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뒤 아이가 기력을 잃었습니다. 찾아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신기한 것은 아이가 그 이후에 기력을 찾은 거예요. 외출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해 여름에 아이와 함께 속초로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MBC 2580’에서 완치 사례를 검증한다고 해서 서류를 떼러 서울대에 갔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던데요. 애가 나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백혈병의 경우 현재는 혁신적 신약이라고 불리는 ‘글리벡’이 있다. 최씨는 덧붙였다. “애가 백혈병이 생겼을 때는 글리벡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글리벡이 나온 뒤에도 애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글리벡을 쓸 필요가 없었죠.” <br/><br/>이병관 암환우보호자회 회장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 이 회장의 경우 부작용이 적다는 말에 ‘넥시아’를 선택했다. “<span class='quot2'>그 아이가 커서 대학 나와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span>” 최씨나 이 회장 사례처럼 이들 단체에는 10년 넘은 장기 생존자들이 여럿이다. 최 부총장 측에서는 최장 20년 생존자를 포함, 1997년부터 2001년까지 216명이 넥시아를 통해 치료가 됐다고 주장한다. 항암치료에서는 치료 후 5년간 재발하지 않으면 치료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자연 사망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78명이 생존해 이들 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 <br/><br/>넥시아와 최 부총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의학 관련 전문지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그는 2005년 9월부터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개원 준비에 참여해 초대 통합암센터장을 맡았다. 2006년 넥시아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써 학위를 받았고, 2007년 정식 취임한다. 2010년에는 미디어리서치의 조사에서 의료계 ‘차세대 리더 1위’로 선정된다. 최 부총장은 3월 13일 강연에서 ‘자신이 과연 사기꾼인가’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나는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사기꾼이라면 여러분도 사기꾼입니다.” 최 부총장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것은 2001년부터다. 총 159회다. 가장 큰 논란은 지난 2011년에 벌어졌다. 당시 경희대 강동의료원 측에서 진행하던 ‘아징스(azinx75)’ 신약 임상실험을 두고 허가받지 않은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식약청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아징스’를 두고 벌어진 수사는 넥시아로 번졌다. 2011년 5월 최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약 넥시아와 양약 아징스는 서로 다른 별개의 약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그리고 2012년 10월 최 부총장은 단국대로 옮겼다. 의문. 넥시아는 그렇다 치고 같은 옻나무 추출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징스75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본래 계획대로 아징스75가 임상실험을 통과하면 혁신적 신약으로 등재돼 싼 값으로 암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중단됐다. 3월 19일 <주간경향>의 문의에 대해서 경희대 강동의료원 측은 “당시 약의 제조를 맡았던 유유제약 측에서도 약품을 추가로 공급하지 못한다고 했고,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등의 상황으로 임상실험은 중단됐다”며 “실제 임상실험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는 많다”고 밝혔다. <br/><br/>이날 강연에서 최 부총장도 아징스75에 대해 언급했다. “나는 한의사다. 임상실험에 들어간 약은 쓸 수도 없고 실제 본 적도 없다. 아징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에 조언을 해줬을 뿐 아징스 임상실험에는 개입하지도 않았다. 문제제기를 하려면 당시 실험을 진행하던 경희대 강동의료원 혈액종양내과에 해야지 왜 나에게 했느냐.” 기자는 강연 후 최 부총장을 만나 여러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했다.(인터뷰 기사 참조) 최 부총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시 내부고발자가 있는 것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서를 통해 확인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뒤 학교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묻어놓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결국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닌가.” <br/><br/><strong>최 교수 “내달부터 해외서 연구ㆍ진료”<br/><br/></strong>최 부총장이 단국대로 옮긴 직후 해외 영입설이 나왔다. 최 부총장은 영입 주체 및 조건, 이후 활동내용에 대해 많은 부분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했다. 기존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글로벌 벤처사가 투자해 맞춤형 의료를 하는 기관을 해외에 설립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장은 4월 초에 출국해 5월 초부터 해외에서 진료와 연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존 환자들은? 최 부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span class='quot3'>기존 환자들과는 끝까지 간다</span>”고 밝혔다. 최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떠나는 날 대한민국 신문들에 ‘그동안 감사했다’고 광고를 낼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이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단체를 해산했으면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료기록도 모두 폐기했으면 한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 모인 환자단체들은 쉽게 수긍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회장단에 참여한 한 인사는 “<span class='quot4'>안타깝고,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생각</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최 부총장이 한국에서 받은 핍박에 분노한 일부 회원들이 ‘사고’라도 내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span>”고 말했다. <br/><br/>최 부총장과 함께 단국대로 건너온 의사들을 제외하곤 의료계에서는 넥시아의 효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010년 SCI급 국제학술지인 ‘종양학 저널’(Annals of Oncology)에 넥시아 치료를 다룬 논문이 실렸다. 최 부총장 등이 운영하는 넥시아센터 홈페이지에는 최 부총장과 그의 동료들의 후속 연구들이 올라와 있다. 기자는 그가 주저자 중의 하나로 참여해 2012년 ‘바이오메디신과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토해 봤다. 이 논문은 넥시아, 즉 옻 추출물 RVS(Rhus Verniciflua Stokes)를 진행암에 다룬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기전연구를 다룬 부분에서는 실제 적용한 결과만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았다. <br/><br/>“<span class='quot2'>그래서 사실 그 논문들이 어떻게 국제학술지에 실리게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span>” <주간경향>이 최 부총장 인터뷰 후 접촉한 모 대학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반응이다. 상당수의 암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들은 이 논쟁에 자신이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앞의 교수는 폐암이나 대장암, 신장암 등의 각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로 알려진 A·B·C 교수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에게 넥시아 관련 논문 검증을 부탁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 교수들로부터 “<span class='quot5'>넥시아 관련으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span>”는 답변이 돌아왔다. <br/><br/>최 부총장의 주장과 관련, 경희의료원 측에서 내부 제보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경희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최 부총장의 임용에서 사표까지 과정 전체가 학교 내의 정치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다른 의료원 측 관계자는 최 부총장의 학위 논문 통과과정부터 학교 측이 잘못을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2011년 사건 이전부터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소속돼 있는 단국대에서도 최 부총장의 임용 전부터 의과대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뜻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r/><br/>암환우 단체들이 광고에서 언급한 두 교수는 어떤 반응일까. 한정호 교수는 “소송자를 모아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월 19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흔히 한국 사회에서 말기암으로 칭하는 4기 전이암 단계에 접어든 환자들 중에서도 장기 생존하는 경우는 전체 숫자 중에서 적을 뿐 꽤 있는 사례여서, 증례보고거리는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1'>기형아의 출산이나 100살 넘게 사는 것이 TV에서 가십거리는 되지만 개별사례를 두고 의학논문의 대상은 안 되는 것과 같다</span>”고 주장했다. 유용상 의사도 “<span class='quot6'>내 기고글의 내용을 환우단체들이 왜곡해서 인용했다</span>”며 “<span class='quot6'>한정호 교수가 대응의사를 밝혔는데 공동대응을 할지 생각해보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 <br/><br/>강석하 과학중심의료연구원 이사는 3월 19일 미디어워치 기고 글을 통해 “<span class='quot7'>미국 암학회 자료를 보면 말기(4기)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유방암 22%, 자궁경부암 16%에 이르는 등 무조건 죽는 것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7'>넥시아가 200여명이 생존했다고 하는데, 만약 넥시아 복용환자가 1000여명이었다면 유방암 생존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span>”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우단체들이나 강 이사가 주장하는 4기암은 말기암과 등치시킬 수 없다. 말기암의 정의는 “<span class='quot8'>더 이상 의료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임종단계에 접어든 암</span>”이다. 반면 4기암은 타 장기로 전이된 암을 의미한다. 최 부총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span class='quot3'>치료한 암환자들은 진행암(advanced cancer) 4기에 해당하며, 그것은 환자 자신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의사가 포기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말기암의 정의를 임종기에 접어든 암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했을 경우 최 부총장의 치료 사례 중 맞아떨어지는 케이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최 부총장의 넥시아 치료 이후 아직 생존하고 있거나 기존 항암치료 요법을 포기한 후 넥시아 치료를 통해 생존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br/><br/><br/><br/><strong>약효ㆍ논문의 신뢰성 싸고 논쟁 계속<br/><br/></strong>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6년 국가암정보센터가 넥시아에 대한 문의에 답변한 자료를 발견했다. 당시 설명에서 국가암정보센터는 의협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암환자를 치료한 결과 4기암 환자의 22%가 5년 이상 생존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치료 및 데이터 축적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과학적인 신뢰도는 다소 떨어진다”며 “앞으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암정보센터는 이 답변을 포함해 ‘넥시아’에 대한 입장은 홈페이지 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암정보센터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메일을 통해 돌아온 답변은 2006년의 답변보다 더 간략했다. “문의하신 넥시아에 대해서는 현재 효과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넥시아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br/><br/>최원철 부총장은 “<span class='quot9'>이미 넥시아센터를 통해 논문들을 공개했고, 자신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후임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 넥시아의 치료 성과는 더 축적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9'>현재도 113편의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없는 단계</span>”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2011년 대한임상암학회는 “현재까지 보고된 넥시아 임상논문은 산발적인 증례보고이거나 넥시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후향적 분석에 그치고 있어, 넥시아가 항암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된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br/><br/>3월 20일, 위의 세 환우단체들은 다시 광고를 내 ‘단일 항암제 치료 후 완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광고에서도 최원철 부총장이나 넥시아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4기암 완치를 단일치료 재현에 성공한 참의사에 대해 진료를 못하게 방해하고…(중략)…끝내 해외로 나가게 만든 비린내 나는 실체와 배후는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역사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었다. 광고에서 언급한 ‘참의사’는 최원철 부총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br/><br/><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3.txt

제목: “200명 살린 내가 사이비면 한 명도 못 살린 사람들은 뭐냐”  
날짜: 2014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210013807800  
본문: <div style='color:#6b6b6b;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논란의 중심에 선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 “<span class='quot0'>나 비판하는 쪽에서 공개토론 거부</span>”<br/></div><br/><br/>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은 지난 10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문제는 논란과 비난만 있지 과학적 검증은 어떤 이유였던 간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 부총장은 사이비로 몰리는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식약청의 의뢰로 이뤄진 검찰 수사와 지금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하기도 했다. <br/><br/><strong>넥시아로 치료에 성공한 사람들이 216명이라고 밝혔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 처방된 전체 규모에 대해 궁금해 한다. <br/><br/></strong>“내가 만든 프로토콜로 처방은 많이 되었을 것이다. 내 경우는 약 500명이다. 설령 60억명 중 200명이라도 그 숫자는 적지 않다. 자신들(양의)은 못 고치지 않았나. 에베레스트 등산에 비유한다면 나는 셀파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200번의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연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br/><br/><strong>종양학저널에 등재된 논문 관련 논란이 있었다. 정식 논문이 아니라 letter to editorial 즉, ‘편집장에게 보내는 독자 편지’에 해당하는 곳에 증례만 실어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br/><br/></strong>“독자란에 나오는 것은 따로 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쓸 수 있는 댓글란의 형태다. 이것은 정식으로 앞에 나온 것이다. 국제학술지에 논문 투고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br/><br/><strong>파루템으로 명명한 혈액 내에 존재하는 물질 사진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br/><br/></strong>“자신이 못 봤으면 나에게 연락해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그게 뭘까 연구하고 있다. 한방에서는 어혈이 뭉쳐서 질환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정상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보이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br/><br/><strong>왜 비판이 끊이지 않을까.<br/><br/></strong>“정의나 진실, 의인이라는 개념이 뭘까 자꾸 생각하게 된다. 정의란 무엇일까. 의사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닌가. 사람을 치료했으면 됐다고 본다. 치료 검증이 안 된 약을 쓰니 빨리 없애라고 하는데, 환우단체들이 낸 광고는 당신들이 쓰는 약, 항암제는 그렇다면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한 사람이라도 살린 적이 있는지 검증해보자는 것이었다.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비판하려면 내 앞에 와서 했으면 한다. 과거 방송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거부한 것은 그쪽이다. 인터넷에 이메일이 다 공개되었고, 그동안 넥시아 관련 학회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못봤다.” <br/><br/><strong>그동안 찾아온 재벌은 없었나. <br/><br/></strong>“노코멘트다. 재벌이라고 온 사람이 없겠나. 장관·총리했던 사람까지 다 있었다.” <br/><br/><strong>그러면 그동안 검찰 조사받고 논란될 때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br/><br/></strong>“솔직히 화가 난다. 내가 소송할 때 만원 한 장 보태준 사람이 없었다. 봉사 차원에서 공짜로 약을 줬었다. 개○○들이다. 생명을 살려줬으면 개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 분명히 써달라. 나는 환자를 살렸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의료보험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했다. 그걸 사이비라고 했다. 200명을 살렸는데 사이비라면 그 말을 받겠다. 유사의료? 다 좋다. 그렇다면 못 고친 사람들은 다 뭐냐. 한 명도 못 살린 사람이 되레 존경받지 않나.”<br/><br/><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4.txt

제목: [여의열전](46) 임동미 건양대병원 교수  
날짜: 20140321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1100000021  
본문: 건양대병원 내분비내과 임동미 교수(40)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갑상샘암과 당뇨병 진단 및 치료와 연구분야의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건양대 의대 1기 졸업생으로, 학교에서 ‘1호 의학박사’와 ‘최초 교수임용’ 등 흔치 않은 경력을 갖고 있다. 갑상샘암 환자들의 동위원소 치료를 도맡아 진료하고 있다. 환자 숫자가 1000여명에 이른다.<br/>“대전·충청권 환자들이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려면 오래 대기하거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 후 수술까지 한 환자들이 불안해하면서 2~3개월씩 기다리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어요. 2011년 암센터 개원과 함께 중부권 최대 규모인 5개의 방사성 동위원소치료실을 갖추어 갑상샘암 수술 후 치료 및 관리를 더욱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충청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정도로 발전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br/><br/>▲ 전국서 온 1000여명 환자 치료… 내분비 분야 임상연구도 심혈<br/>당뇨합병증인 만성신부전 치료, 신장내과 남편 협진 효과 높여<br/>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갑상샘암 수술 후 남아 있는 잔여 갑상샘 조직을 없애는 것으로, 이는 재발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 치료법이다. 저요오드식을 통해 체내의 요오드를 고갈시킨 뒤 약물로 쓰이는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해 암을 괴사시킨다.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이 동위원소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러한 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불과 1~2개실만 보유하고 있다. 쏟아지는 환자의 수요를 감당치 못하고 치료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임 교수는 2001년 건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모교 병원에서 수련을 통해 2006년 내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2년간 건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임의 및 임상강사를 했으며 2008년 3월에 교수요원으로 임용됐다.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상(2012)과 우수연제상(2011),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비 수상(2011) 및 우수논문상(2007, 2010) 등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이뤘다. 또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인 혈관손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내피세포에 대한 연구와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인크레틴(GLP-1)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회지에 3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br/>당뇨병 치료에서 당뇨병 합병증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신장(콩팥)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은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져 평생 투석치료에 의존해야 하는 무서운 합병증이다. 임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신장 합병증 관리를 위해 같은 병원 신장내과 교수이며 남편인 황원민 교수와 긴밀하게 협진을 하고 있다. 건양대병원 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황 교수도 건양대 의대 1기로, 부부가 같이 내과를 전공하고 모교에서 나란히 교수가 되었다.<br/>“평소 부모님께서 가훈으로 강조하셨던 정직(正直)이 제 의사생활의 기본이며 바탕입니다. 건양대학교 교시(校是)도 정직으로 같아 더욱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양의대 1기생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br/>임 교수가 의사가 된 데는 외증조부 영향이 컸다. 제6~7대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김성환 박사(피부과학 전공)다. 외증조할아버지가 피부과 의사로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장 시절에는 원무행정 개선, 약품입찰제 도입 등 병원행정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면서 자연스레 ‘의사의 길을 걷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한다.<br/>“건양대병원은 지방에 있지만 갑상샘암 치료를 위한 옥소치료실이 5개나 있어 서울과 수도권 등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갑상샘암 환자 치료에 더욱 노력하면서 내분비분야에 대한 임상연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br/>안과의사 출신인 건양대 김희수 총장은 “<span class='quot0'>임 교수는 의대 1기여서 여건이 좋지 않았을 텐데, 남다른 학문적 성과를 거두면서 많은 환자를 정성을 다해 친절하게 진료하는 따뜻한 의사</span>”라며 “<span class='quot0'>후배들이 임 교수를 보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등 건양대의료원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보물 같은 존재</span>”라고 평가했다.<br/>■ 임동미 교수가 말하는 갑상샘암 진단과 치료<br/>목의 앞쪽 부위에 생기는 갑상샘암은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 갑상샘 연골이 있는 부위에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은 혹이 만져지거나 성대마비,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호흡이 힘든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br/>갑상샘에 혹이 생겨 검사를 하게 되면 5% 정도가 암 진단을 받는다. 진료 후 단일한 혹이 있거나, 혹이 4㎝ 이상일 때, 혹의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일단 갑상샘암을 의심해야 한다. 갑상샘암 진단에는 세포검사가 흔히 쓰인다. 일반 주사기로 갑상샘 혹에서 약간의 세포를 뽑아내 검사하는 방법이다. 초음파로 덩어리를 확인하면서 가느다란 주사침을 사용하므로 통증이 작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br/>갑상샘의 80~90%를 차지하는 유두상 갑상샘암의 경우는 치료가 잘되고 완치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아무리 순한 암이라 해도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갑상샘암 재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검사방법으로는 문진 및 신체검사, 흉부가슴사진, 혈액검사(티로글로불린), 방사성 동위원소 옥소 전신촬영, 초음파 등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전산화 단층촬영(CT)이나 양전자단층촬영(PET)과 CT를 동시에 시행하는 PET-CT 검사를 하기도 한다.<br/>갑상샘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절제를 통해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초기 암을 제외하고는 수술 후 4~8주 후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하여 남아 있는 정상 갑상샘과 남아 있을지 모르는 잔여 갑상샘암을 제거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후에는 갑상샘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5.txt

제목: ‘나눔과 기부’ 미용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1100000092  
본문: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을 이끄는 국내 2대 미용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이 눈길을 끈다.<br/><br/>최근 ‘나눔과 기부’가 일상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회공헌도 활발하다. ‘미’를 추구하는 LG그룹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어린이,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 환우 등을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가꿀 때 진정한 미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br/><br/><br/>LG그룹의 LG생활건강은 2007년부터 ‘스마일 투게더’와 ‘오휘 아름다운 얼굴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미소를 되찾아주고 있다. ‘스마일 투게더’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만 4~13세 사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의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870명의 어린이를 치료했다. ‘오휘 아름다운 얼굴 캠페인’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선천성 안면기형 어린이들의 성형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장품 브랜드 오휘의 판매수익금으로 진행되며 수술 및 치료비뿐 아니라 입원비와 연구비도 함께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8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았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안면기형 장애 어린이의 성형 후원을 위해 ‘오휘 아름다운 No.1 스페셜 키트’를 한정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후원 기금으로 사용했다. <br/><br/>LG생활건강을 포함한 LG그룹(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 CNS, LG이노텍, LG화학) 계열사는 R&D지원, 장비 및 부품 국산화, 사업지원, 금융지원, 협력회사 소통 강화 등 ‘동반성장 5대 과제’를 추진해 협력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 LG복지재단 등은 저소득가정의 저신장,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의료지원,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과학·언어·음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br/><br/><br/>㈜아모레퍼시픽은 2008년부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여성 암 환자들이 투병 중 우울증 극복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아모레 카운슬러 및 교육강사가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알려줘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유방암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가 함께하며 지금까지 8000명의 여성 암 환자가 참가했고, 중국으로까지 확장됐다.<br/><br/>‘핑크리본캠페인’은 마라톤 대회, 건강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및 가족 모두에게 여성 유방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다.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했다.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돕는 ‘희망가게 캠페인’도 운영 중이다.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2003년 기금 조성 이후 200호점이 개설됐다. 희망가게를 위한 기금인 ‘아름다운세상기금’은 아모레퍼시픽(태평양)의 창업자인 서성환 회장의 유족들이 기부했다.<br/><br/>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07년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또 10여 개에 이르는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은 포털사이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공유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6.txt

제목: 암환자에게 가짜 면역세포 주사하고 거액 받은 일당 적발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110013803962  
본문: 말기 암환자들에게 가짜 면역세포 주사액을 투여하고 거액을 받아 챙긴 무면허 의료 행위자와 모집책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br/><br/>춘천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ㄱ씨(57)와 ㄴ씨(58)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ㄴ씨의 남편 ㄷ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br/><br/>ㄱ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세포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말기 암환자 5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억8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검찰 조사 결과, 모집책인 ㄴ씨와 ㄷ씨는 암환자들에게 ‘ㄱ씨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를 연구했다’고 소개한 후 ‘세포치료를 받으면 암을 완치할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br/><br/>하지만 1988년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가 제적된 ㄱ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물론 줄기세포를 연구할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검찰은 “<span class='quot0'>부부인 ㄴ씨와 ㄷ씨는 ㄱ씨에게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치료비의 30%인 1억1300만원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환자에게 면역세포라고 속여 투여한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 등으로 추정된다</span>”고 밝혔다.<br/><br/>검찰은 이어 “<span class='quot0'>피해자 6명중 3명은 치료 도중 증세가 악화돼 숨졌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ㄱ씨 등을 대상으로 여죄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7.txt

제목: [문학수의 극장에서 놀다]두 노장 배우들의 볼 맛 나는 연기  
날짜: 20140320  
기자: 문학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0100000052  
본문: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를 쓴 김광탁은 40대 중반의 극작가입니다. 이 연배의 아들들은 아버지와의 다정한 추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덤덤하고 무뚝뚝한 부자 관계가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을 품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연극의 작가도 그랬을 거라고 짐작해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특히나 암 같은 병으로 고통과 싸우다 세상을 떴을 경우에는 아들의 가슴에 일종의 회한이 오래도록 남습니다.<br/>이 연극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레퀴엠과도 같습니다. 레퀴엠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이지요. 아버지를 보낸 작가가, 간암과 싸우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보냈던 순간들을 한 편의 희곡 속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상황과 대사들이 매우 세밀하고 현실적입니다. 무대에서 90분간 펼쳐지는 이야기는 한 편의 연극이라기보다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 연습실에서 작가와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span class='quot0'>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명치끝에 뭐가 걸린 듯하더니, 이 작품을 쓰고 나서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span>”라고 하더군요.<br/>무대는 어느 농가주택입니다. 안방문과 부엌, 대청마루가 있고 마당에는 아버지가 집을 지을 때 심었던 세 그루 나무가 제법 무성한 잎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수돗가, 그 옆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집이지요. 중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우리집’의 모습일 겁니다. 이 무대는 연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br/>관람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배우들의 무르익은 연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두 다섯 명의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로 등장하는 두 노장 배우, 신구와 손숙의 연기는 그 자체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할 만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아버지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가는 장면, 그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묘하게 가슴 아립니다. 아버지는 걸핏하면 “홍매야, 홍매야”하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요. “<span class='quot1'>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으라</span>”고 어리광을 피웁니다. 아내는 남편이 간신히 잠들면 “우리는 별로 금실 좋은 부부도 아니었는데, 당신이 가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파”라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박습니다.<br/>지난해 초연 때의 배우들이 이번에도 모두 등장하는 까닭에 연기 호흡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로 등장하는 정승길과 서은경, 이웃집 정씨 역할을 맡은 이호성도 차진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호성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이 연극에서 나훈아의 <고향역>을 엉터리로 열창하면서 관객의 배꼽을 흔듭니다.<br/>간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이야기이지만 눈물 콧물 빼놓는 최루성 연극은 아닙니다. 담담하고 세밀한 묘사로 긴 여운을 남깁니다. 특히 저는 작가 김광탁과 연출가 김철리가 임종 장면을 연극 속에 넣지 않은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입니다. 30일까지 공연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8.txt

제목: 울산 시외곽에 ‘산재모병원’ 건립, 도심으로 변경해야  
날짜: 20140320  
기자: 백승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0100000105  
본문: 산재환자들의 임상연구와 치료 및 진료 개발을 위해 울산에 세워질 ‘국립산재모병원’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 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br/>‘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는 19일 “<span class='quot0'>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산재모병원이 당초 계획대로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대)의 유휴 부지에 건립되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면치 못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1'>전국 10개 산재병원의 산재환자 비율은 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 환자</span>”라고 지적하고 “<span class='quot1'>산재모병원이 울산 도심과 매우 떨어진 곳에 건립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역할과 현실적인 병원 운영을 포기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전체 산재환자 중 산재병원 이용률은 8% 미만이고, 산재모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재환자 이용률도 최대 15%로 설정한 만큼 일반 환자를 대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r/>울산연대는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 일대와 북구 산업박물관 부지 일원 또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 등 도심지역 부지가 있는데도 시 외곽 유니스트 부지에 산재모병원 건립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br/>울산연대는 또 “2011년 이전까지 나온 산재모병원 건립 관련 각종 보고서는 700병상 규모로 중증·응급 진료와 고난도 치료 중심이었지만, 지난해에 갑자기 500병상 규모로 축소되며 희귀난치성 암 환자 치료와 의료기술 개발의 연구 중심 병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산재병원의 역할과 산재 전달체계를 둘러싼 문제점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 해결책이 지난해 보고서에서 갑자기 달라진 것은 노동부가 기존의 보고서를 부정하고 유니스트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 역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구소·게스트하우스 건립에 6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산재모병원의 총사업비(4200억여원)도 과잉투자라고 밝혔다.<br/>박영규 울산연대 대표는 “<span class='quot2'>산재기금으로 세워질 산재모병원은 의료원조차 하나 없는 울산의 공공의료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 공약인 산재모병원은 노동부가 2019년까지 유니스트 부지(2만8200㎡)에 2019년까지 세울 계획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39.txt

제목: ＇친구여＇ 작곡가 고 이호준씨 추모 헌정 앨범 발매  
날짜: 2014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2010013794255  
본문: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조용필 ‘친구여’)<br/><br/>지난 2012년 별세한 인기 작곡가 겸 밴드 ‘조용필과 위대한탄생’의 전 멤버 이호준씨를 추모하는 동료 가수들의 헌정 음반이 나왔다. <br/><br/>김종서, 양하영, 우연희, 위일청, 이지민, 임수정, 조항조, 주정이 등 남녀 가수들은 최근 <7일7색+나우>의 음반을 발표하고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br/><br/>애초 이 앨범은 이호준 작곡가가 세상을 뜨기 직전 절친한 동료인 계동균 작곡가와 함께 한창 작업 중이던 일종의 기획 음반이었다. 고 이호준 작곡가는 수록될 노래의 편곡 작업을 모두 끝내둔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으로 2012년 4월 돌연 세상을 떠났다.<br/><br/>앨범은 이로 인해 작업 일체가 중단됐다가, 1주기를 즈음해 가수들의 자발적인 헌정 움직임이 일면서 뒤늦게 빛을 볼 수 있었다. <br/><br/>김종서, 양하영 등은 고인이 편곡해둔 노래 7곡에 각각 목소리를 보태 곡을 완성했다. 특히 앨범에 수록된 마지막 트랙인 ‘슬픔이 안긴 첫사랑’은 이호준 작곡가의 생전 연주가 들어가 있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br/><br/>음반의 가사 작업에 참가한 시인 겸 음악평론가 구자형씨는 “<span class='quot0'>헌정 앨범이 만들어지도록 자발적으로 힘을 더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span>”며 “<span class='quot0'>앨범 수익금은 고 이호준 작곡가의 고향인 경기도 화성에 마련 중인 노래비 제작에 쓰이게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앨범 프로듀서를 맡은 동료 작곡가 계동균은 “<span class='quot1'>그와 작업할 때는 늘 전율이 일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를 잃었다는 것은 내 음악의 반을 일어 버린 것과 같다</span>”면서 떠난 동료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못했다. <br/><br/>고 이호준 작곡가는 가수 이장희와 ‘동방의 빛’, 조용필과 ‘조용필의 위대한탄생’ 등의 밴드 활동을 벌이며 음악계를 장식했다. 특히 조용필의 ‘친구여’와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를 비롯해,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등 다수의 자작 명곡을 남겼다. <br/><br/><br/><강수진 기자 kant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0.txt

제목: 울산 시외곽에 ‘산재모병원’ 건립, 도심으로 변경해야  
날짜: 2014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91001378329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전문가 단체 “<span class='quot0'>이용률 저조… 공공병원 역할 포기하는 것</span>”</strong><!-- SUB\_TITLE\_END--><br/><br/>산재환자들의 임상연구와 치료 및 진료 개발을 위해 울산에 세워질 ‘국립산재모병원’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 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br/><br/>‘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는 19일 “<span class='quot1'>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산재모병원이 당초 계획대로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대)의 유휴 부지에 건립되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면치 못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2'>전국 10개 산재병원의 산재환자 비율은 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 환자</span>”라고 지적하고 “<span class='quot2'>산재모병원이 울산 도심과 매우 떨어진 곳에 건립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역할과 현실적인 병원 운영을 포기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전체 산재환자 중 산재병원 이용률은 8% 미만이고, 산재모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재환자 이용률도 최대 15%로 설정한 만큼 일반 환자를 대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r/><br/>울산연대는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 일대와 북구 산업박물관 부지 일원 또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 등 도심지역 부지가 있는데도 시 외곽 유니스트 부지에 산재모병원 건립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울산연대는 또 “2011년 이전까지 나온 산재모병원 건립 관련 각종 보고서는 700병상 규모로 중증·응급 진료와 고난도 치료 중심이었지만, 지난해에 갑자기 500병상 규모로 축소되며 희귀난치성 암 환자 치료와 의료기술 개발의 연구 중심 병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산재병원의 역할과 산재 전달체계를 둘러싼 문제점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 해결책이 지난해 보고서에서 갑자기 달라진 것은 노동부가 기존의 보고서를 부정하고 유니스트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 역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구소·게스트하우스 건립에 6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산재모병원의 총사업비(4200억여원)도 과잉투자라고 밝혔다.<br/><br/>박영규 울산연대 대표는 “<span class='quot3'>산재기금으로 세워질 산재모병원은 의료원조차 하나 없는 울산의 공공의료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 공약인 산재모병원은 노동부가 2019년까지 유니스트 부지(2만8200㎡)에 2019년까지 세울 계획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1.txt

제목: 문화예술인 100명이 뭉쳤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날짜: 20140318  
기자: 도재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8100000088  
본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는) 어제 큰일을 한 사람이지만, 오늘 정말로 필요하고, 내일 더욱 필요한 사람이다. 이웃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다운 예술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할 수 있다는 착한 생각을 한….”(시인 신경림)<br/>“그의 삶, 그의 투쟁, 그의 역사가 곧 거대한 예술이 아니던가. 오늘 우리는 그 예술의 그늘에 다가서는 벅찬 순간임을 새겨야 할 것이다.”(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br/>“<span class='quot0'>그는 당국의 감시와 압박, 때로는 연행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면서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줄기차게 견인하는 기관사 노릇을 했다.</span>”(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br/>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상찬하는 ‘그’는 누구일까.<br/>바로 진보 문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김용태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68·사진)이다. 화가인 그는 1979년 민중미술 공동체 ‘현실과 발언’의 창립 동인이 되면서 엄혹하던 독재권력에 맞서 문화예술을 통한 민주화운동을 펼쳤다. 문화운동가로서 그의 전방위적인 활동은 지난 이력에서 잘 드러난다. 민족미술협의회 초대 사무국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문화집행위원장, 민예총 초대 사무처장, 남북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코리아 통일미술대전’ 남측 단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민예총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문화예술운동의 한복판을 지켰다.<br/><br/>▲ 암 투병 중인 그를 기억하고 뜻 기리려 각계각층 지원<br/>‘산포도 사랑, 용태 형’ 책 출간… ‘함께 가는 길’ 미술전·경매<br/>힘들게 암 투병 중인 그를 기억하고, 그의 ‘시퍼런 뜻’을 기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문화예술인 100여명이 모였다. 바로 ‘김용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용사모)이다. 용사모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pan class='quot1'>우리가 사랑하는 벗 김용태 선생, 그와 함께한 문화예술인들의 지난 40여년의 여정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와 더불어 병원비 등 기금 마련을 위한 미술전시회, 경매도 갖는다</span>”고 밝혔다.<br/>이날 출간된 <산포도 사랑, 용태 형>(현실문화)에는 문화예술인 47명의 글이 묶였다. 저자들은 김 전 이사장과의 개인적 인연은 물론 그의 활발한 문화예술운동 활동과 의지, 이 시대 우리들이 되새겨야 할 뜻 등을 담았다.<br/>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이날 “<span class='quot2'>김 전 이사장은 문화예술계에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용태형’으로 불린다</span>”며 “<span class='quot2'>용태형은 한마디로 이 땅의 민주화, 민족예술운동의 심부름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span>”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span class='quot3'>책 제목은 용태형이 늘 부르던 노래 ‘산포도 처녀’에서 따왔다</span>”며 “<span class='quot3'>이번 책 출간을 계기로 용태형의 뜻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br/>임옥상 작가는 “<span class='quot4'>용태형은 입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 괜히 먹물냄새를 풍기며 거들먹거리는 사람에겐 망설임 없이 막걸리 주전자를 던질 정도로 담백하고 결백한 사람</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용태형으로 인해 문화예술계에서 민중미술의 뿌리가 더 확산됐고, 민주화운동이 더 뜨거워졌다</span>”고 말했다.<br/><br/>강요배·김인순·민정기·박진화 등 작가 43명의 100여점으로 구성된 전시회도 ‘함께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가나아트센터(서울 평창동)에 마련된다. 전시회 개막과 함께 출판기념회도 26일 오후 5시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전시 제목은 ‘캄캄한 밤길을 끝없이 걸어갈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은 튼튼한 다리도 억센 날개도 아닌, 친구의 발걸음 소리이다’라는 발터 벤야민의 말을 차용했다.<br/>전승보 큐레이터는 “<span class='quot5'>시대적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개인적 불이익이나 두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인 사회를 위한 발언한 작가들의 작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전시회와 경매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자리에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한다</span>”고 강조했다. 미술 경매는 30일 오후 4시 서울옥션 스페이스(서울 평창동)에서 열린다. ‘함께 가는 길’에 출품한 작품 중 35점이 경매 대상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2.txt

제목: ‘중국군 부패 몸통’ 쉬차이허우 말기암 진단… 처벌 면할 듯  
날짜: 20140318  
기자: 오관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8100000172  
본문: 중국군 부패의 몸통으로 거론됐던 쉬차이허우(徐才厚·70·사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면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br/>중국군 관계자는 신문에 쉬차이허우가 자신의 부하였던 구쥔산(谷俊山)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總後勤部·군수담당) 부부장(중장) 부패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왔지만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조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쉬차이허우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br/>쉬차이허우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운명인 데다 부정축재한 재물을 반납하는 조건에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2004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올라 2013년 3월 퇴임했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측근이며,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와도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구쥔산 전 부부장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쉬차이허우가 부패의 몸통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br/>한 소식통은 “쉬차이허우가 연행됐을 때 많은 중간급 간부들이 기뻐했으며, 그가 큰 호랑이가 되리라 생각했다”며 “시 주석이 왜 대중과 군을 위해 그를 처벌할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최근 국방·군대개혁 심화를 위한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아 국방·군대 개혁을 직접 지휘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 부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빗나간 셈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3.txt

제목: [IT 칼럼]모바일 의료기기 셀프케어 시대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8100000024  
본문: 1960년대 SF시리즈 <스타트렉>에는 우주선의 주치의인 맥코이 박사가 휴대전화 크기의 ‘트라이코더’(Tricoder)를 환자의 몸에 대고 스캔하여 병명과 치료법을 알아내는 장면이 나온다. <br/><br/>이 트라이코더는 NASA의 연구원들로부터 ‘가장 갖고 싶은 SF 속 기술’로 꼽히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휴대용 만능 의료진단기기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br/><br/>2012년 미국 퀄컴사는 “<span class='quot0'>스타트렉에 나오는 휴대용 의료기기 트라이코더를 구현하는 사람에게 1000만 달러를 주겠다</span>”는 공모를 내걸었다. 미국의 벤처기업인 스캐나두(Scanadu)가 이에 도전했고, CES 2013에서 휴대전화보다 작은 크기의 ‘스카우트’(SCOUT)란 기기를 선보였다. <br/><br/>광센서 기술을 사용한 이 기기를 관자놀이에 10초간 대고 있으면 체온·심박수·혈압·혈중산소농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전송된 이 정보들은 15가지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이용된다. 스카우트는 현재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br/><br/>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의 융합으로 모바일 의료진단기기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기술 도입으로 바이오센서는 점차 소형화·고집적화되고 있으며, 바이오칩(LOC·lab-on-a-chip) 등을 활용한 분자진단 신기술도 함께 발달하고 있다. <br/><br/>병원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초음파 영상진단기기는 이제 아이패드 크기로 작아졌고, 소형 의료기기로 암의 진단은 물론 유전자 정보도 해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 정보는 스마트폰의 앱으로 연동되어 보다 정밀한 분석은 물론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처방까지 가능해진다.<br/><br/>바이오 기술이 모바일화되는 것과 더불어 스마트 기기의 헬스케어 기능 탑재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경쟁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헬스케어 기능이다. <br/><br/>손목에 착용하는 헬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핏빗, 조본업, 퓨얼밴드 등은 세련된 디자인과 간결한 건강관리 기능으로 다른 복잡한 기능의 기기들을 제치고 웨어러블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았다.<br/><br/>그러나 심플한 기능으로 인해 낮아진 진입장벽은 치열한 경쟁환경을 만들었고, 얼리어답터를 넘어서 대중적인 시장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도 제한적이다. 웨어러블 기기들은 이제 차별화와 소비자 효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r/><br/>그 중 한 가지 방안으로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얼라이브코(AliveCor)는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앱세서리 형태의 심전도 측정기로 최근 FDA의 승인을 받았다. <br/><br/>이런 경우 FDA 승인 자체가 후발 주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애플이 오랜 시간 출시를 망설이고 있는 아이워치에 진보된 헬스케어 기능을 장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br/><br/>의료기기와 스마트기기가 이제 하나의 시장에서 만나고 있다. 정통 바이오 업체는 물론 제조업체, IT업체, 스포츠용품 업체 및 벤처기업이 모바일 진단기기 시장에 뛰어들면서 편리하고 우수한 성능의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br/><br/>모바일 의료기기는 원격진료법으로 제한된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수출의 용이성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br/><br/>병원에 가지 않고도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에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에게 모바일 진단기기의 잠재적 수요는 매우 높다. 2014년은 다양한 모바일 의료기기의 출시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소비자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한 해가 될 것이다.<br/><br/>유태열 kt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4.txt

제목: [전문]진보정당 활동가에 보내는 ‘위로의 편지’  
날짜: 2014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610013747983  
본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정책통으로 활동해오던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국장이 2012년 12월 12일 암 투병 중 사망했다. 지난 1월 19일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이 세상을 등졌으며, 35세 싱글맘이었던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가 지난 8일 마찬가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거듭되는 진보정당인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가.<br/><br/>진보정당인으로서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글이 올라왔다. 최혜영 노동당 경기도당 사무국장(51)이 15일 온라인 당원게시판에 올린 이 글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당 안팎으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br/><br/>다음은 최 사무국장이 올린 글 전문. <br/><br/><div style="border: solid 1px #DDD;background-color: #F5F5F5;padding: 10px 15px 15px 15px;font-size: 13px;line-height: 22px;\_height: 1%;margin-bottom: 20px;">울화병 쌓이는 가난한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br/><br/>가슴 아픈 박은지 부대표의 죽음을 보며 그 안에 투영시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몇일의 시간이 지났다. 마치 전업주부의 그림자 노동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우울증이 찾아오듯이 이 시대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동 또한 운동사회 내외적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위축되고 우울하기 쉽상인 시절이다. 진보정당의 당직자들 그리고 활동가 후배들에게 그래도 용기를 내자며 위로의 글을 쓰고 싶었는데 제대로 쓸 시간이 없어 허둥대다가 이제서야 조금이라도 이 죽음을 직면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 이야기를 꺼내 본다.<br/><br/>50이 넘도록 살아오는 동안 나는 내 인생에 커다란 두 번의 우울증을 기억하고 있다.<br/><br/>첫번째는 19살 때 그러니까 8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찾아온 우울증이었다. <br/><br/>당시 상고를 나와 대학을 가려고 재수를 막 시작하려던 내게 엄마의 병환이 갑자기 닥쳐왔다. 만성 심장질환 등 복합적인 질병으로 복수가 차 거동이 불편하던 환자, 누군가 돌봐야 했다. 맏딸이던 나는 집안일과 엄마의 병수발을 도맡아야 했다. 가스렌지도 없던 시절, 새벽부터 일어나 석유곤로와 연탄 아궁이에 밥을 해서 학교 다니던 동생 둘과 방위 다니는 오빠 의 도시락 3개를 싸놓고 하루를 시작했다. 늘 신경증적인 엄마의 병수발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 병원은 꿈도 못꾼채 온갖 민간요법만 �i아다니며 1년을 보냈다. 재수, 대학입시 준비는 당연히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날마다 하고 싶지 않은 가사노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고 지지리도 극심했던 집안의 가난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해 겨울 우울증이 깊게 찾아왔다. 급기야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가족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밤마다 자살하는 방법을 구상했으며 책에만 파묻혀서 살았다. 누구와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내 문제에 너무 빠져서 당시 똑같이 힘들었던 가족들의 삶, 사춘기 동생들의 번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br/><br/>두 번째 우울증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쯤이었던 듯 싶다. <br/><br/>겨울이었던 듯. 한 달 정도를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경제적 어려움의 반복, 아이 둘을 키우는 양육의 힘겨움, 내 활동전망의 불투명, 남편과의 소통부재가 커다란 이유였다. 혼자 생각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돌보지 않았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은 매우 컸다.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어마 어마한 원망과 불만을 켜켜히 쌓아 나갔다.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번 박은지 부대표의 죽음을 보며 ‘어떻게 아이를 두고?’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나는 박부대표의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나도 우울증이 극심했을때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가 너무나 큰데 어찌 주변을 돌아 볼 수 있을까? 이미 아픈 사람이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겨웠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잠만 잤고 밤엔 티브이를 혼자 보며 매일 매일을 보냈다. 시시때때로 울컥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주루룩 흘리기도 했다.<br/><br/>그런 두 번의 큰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우울증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그리곤 나름의 극복방법을 스스로 체득했다. 그래서 우울증의 근본원인에 대해 우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br/><br/>우울증의 1차적 원인은 뭐니뭐니 해도 빈곤이다. <br/><br/>특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빈곤은 활동을 선택한 이상 지속적이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덮쳐온다. 그리고 활동을 지속하는 한 가난이 개선될 희망이 없기에 가난을 수용하며 가난에 적응하고 부분적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살 수 밖에 없다. 거기엔 노하우가 없다. 개인적 해결책이라고 해봤자 한 축으론 세상사에 달관도 해야 하고 한 축으론 근검한 생활로 버틸 수 밖에 없다. 대책없고 기약없는 인생에 적응해야 될 뿐이다. 그런데 자본이 첨단을 걷고 돈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있는 삶에 대한 소신이 강하더라도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br/><br/>어디 그 뿐인가? 과거에는 활동가들의 생계를 주변에서 지원도 많이 했지만 요즈음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 혹은 게으른, 혹은 무능력한 사람. 혹은 남의 도움을 바라는 뻔뻔스런 사람 등등..’의 시선으로 보기 일쑤이다. 그런 시선 자체도 폭력인데 거기에 개인적 생활고 까지 겹치면 활동을 지속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자신감은 바닥이고 우울증의 늪으로 빠져든다. <br/><br/>과거 개인들의 희생으로 활동이 유지되던 시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 모두 인정할 시대가 되었다. 단체나 조직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나는 오히려 활동을 잠시 쉴 것을 권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긴 인생으로 보면 나의 잠깐의 쉼이 이후 더욱 큰 활력을 줄 수 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강제된 억압처럼 가난을 감내하며 활동을 지속하게 되면 자칫 자신의 멘탈이 무너진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고 점차 우울증의 도가니로 빠지기 쉽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속되는 빈곤 속에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스스로 자신이 우울상태가 아닌지 자가진단까지 하고 처방도 해결책도 스스로 찾아가며 살아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br/><br/>두 번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큰 원인은 최근 몇년 동안의 우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진보정당운동의 전망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활동 전망과도 깊이 연동되어 있다. 최근의 당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당직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최악의 상황이다. 박은지 부대표가 받았던 몇십만원도 안돼는 활동비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당이 원외정당이 되면서 그 혹독함은 점점 가중되어지고 많은 당 활동가들이 생계와 전망부재의 이유로 진보정당운동 혹운 사회운동 전선을 떠나고 있다. 단지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문제라면 일시적으로라도 참고 견딜수 있겠다. 혹은 기약이 있다면 버틸수 있다. 그러나 당이 이후 그런 전망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보다 많은 활동가들이 떠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2%돌파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다. 정말 당의 생존을 위해서...<br/><br/>그러나 또 하나 놓칠수 없는 것은 이제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에 우리들이 전면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br/><br/>한때 최고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치솟았던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바닥이다. 15% 이상의 지지율은 주변 가족과 친구, 친지들 로부터 기꺼이 진보정당 활동가로 사는것 혹은 출마하는것은 지지받고 환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나 남편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보수층이었던 시아버님 조차 구 민노당이 15% 지지에 육박했을땐 우리 활동에 대해 격려와 지지, 응원을 보냈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지지율이 1% 혹은 2%인 정당에서 진보정당의 활동가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100명중 99명이 나의 활동에 대해 뭔가 긍정적인 것과는 정 반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현실에 바로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연신 길거리에서 ‘이석기 정당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대중적인 정당이 대중적인 활동을 펼치기는커녕 대중과 만나면 만날수록 위축되고 무너지고 말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고립되고 점점 우리끼리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딜레마다.<br/><br/>민주노총 활동가를 비롯한 노동운동가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한때는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던 민주노총에서 일하던 노동운동가들이 이제는 마치 정규직 노동귀족처럼 멸시당하는 시선과 관료의 대명사처럼 보여지는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세상이다. 물론 근로조건이 다소 낫다면 그것도 감내할 수 는 있겠으나 민중운동 사회운동 진영의 환경 역시 녹녹치 않다.<br/><br/>우리 스스로의 전망과 내 안의 상처는 또 어떤가?<br/><br/>구 민노동에서는 극심한 정파갈등으로 상처받고 피폐해진 경험들이 많은 진보정당 활동가들에게 채곡히 쌓여있다. 2008년 분당의 과정에서 활동가들 상호간에 주고 받은 상처 또한 만만치 않은데 진보신당에서 당 진로를 갖고 겪어야 했던 극심한 내홍의 상처 역시 크다. 한 때 동지라고 의지했고 하늘처럼 믿었던 지도자들의 배신을 몸소 겪어야 했던 그 심정이야 어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당시 당 활동전망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심리적 정서적 감정을 이야기 하자면 그렇다.<br/><br/>그 과정의 상흔도 처참할 지경인데 몸담고 있던 둥지였던 당들도 급기야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다. 십수년 뼈빠지게 대중운동의 성장과 진보정당운동의 성장을 위해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당 안에 남은 사람들도 그렇고 당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잘된 꼴 없이 모조리 망해먹고 말았을까? 개인적인 자괴감들도 심하다. 수십년 동안 돈도 못벌고 열심히 살아온 것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운동판이 다 무너진거지? 자책도 하고 남 탓도 하고 수없이 갈등하며 지난 1~2년을 보내왔으리라. 그 와중에 새록새록 나만 미친짓 한건 아닌가? 진보정당 운동 자체에 대한 환멸도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엎친데 덮친다고 활동가층 전반이. 중 장년층이 되면서 존재조건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사회보장 없는 한국사회에서 가진 돈 한 푼없이 노인세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의 공포에 가깝다. 게다가 중 장년층이 되면서 감수해야할 사교육비와 부모세대 봉양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활동가들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 마냥 눈감고 살 수는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br/><br/>여기에 심리적 불안감과 조바심까지 겹쳐 오랫동안 함께 해 온 동지들 상호간에 상처주는것도 다반사다. 무엇이든 잘될땐 다 넘어가지만 안�� 땐 사람들의 심리가 꼭 책임을 따지고 싶어하고 추궁을 하게 된다. 그간 진보정당운동 혹은 대중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희생을 했던 사람들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온다. 어렵고 힘든시기에 상호간에 소통과 공감,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 반대의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서로 타인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시기. 자신의 상처가 가장 크게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동지들에게 공격을 해댄다. 늘 강인한 활동가, 사이보그로 살아와야 했던 그러나 이제는 지친 활동가들은 억울한 심경이 이루 말할수 없다. 그동안 죽도록 일하고 희생한 댓가에 대한 보상은 커녕 이렇게 된 모든 잘못된 책임까지 지라고 추궁당하는 기분이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처지는 이런 비판을 감내할 여유가 없어진지 오래다. 책임을 내려놓고 싶어진지 오래다. 활동가들도 인간인지라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결국 운동 풍토에 환멸을 느끼고 운동판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아니면 오기로 버티거나...그도 아니면 관계를 단절하거나..<br/><br/>이런 이중 삼중의 어려운 환경에 우리는 둘러 쌓여있다.<br/><br/>거기서 제대로 된 멘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린 모두 우울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울화병이 생겨 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우선은 그걸 인정하자. 나부터..<br/><br/>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과 조직의 노력, 공동체의 노력과 개인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겠다. 사회적 노력은 이 썩은 자본주의 세상을 뒤집어 엎고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겠지만..<br/><br/>우선 자신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자문해 보았다. 내가 활동을 위해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가난으로 내몰려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쳇바퀴처럼 지속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지금같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고 실업난이 심각한 시대에는 그 차이가 별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가끔씩 묻고 있다. 자신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늘 나의 선택이었으므로..<br/><br/>조직의 노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 우리 진보정당운동은 어려운 시기를 경과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나고 다음 총선이 지날 때까지 진보정당의 생존 혹은 진보진영 재편등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나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당은 생존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야 조직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진보정당 운동의 1세대의 자산들도 살아서 남길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br/><br/>끝으로 공동체의 노력과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한마디<br/><br/>우선 시급히 당에서 당직자들부터 심리진단 검사와 치료등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 심리상담부터 했으면 좋겠다. 쌍용차노동자 노동자들 심리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구석구석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본다.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찌보면 그간 활동가들에게 희생과 무한책임만 강요한 문화는 지극히 폭력적인 문화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화였다. 이제 공동체가 그런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책임과 실천이 가능한 풍토를 만드는 것도 절실하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과거 운영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활동가 혹은 대중정치인을 통해 당내 대리정치를 하는것에 머물렀던 당원들의 삶이 실천의 장으로 나올수 있게 해야 한다. 단지 당원들의 형식적 권리만을 민주주의라는 틀로 무한 보장하는 시스템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구성원들이 자기자리에서 실천하는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체는 조직을 결사하고 운영하는 것을 공동으로 책임질 때 지속할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즐겁게 일하는 환경으로 조직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심경이 그러할 때 가능하다. 그래야 서로 둘러보고 소통할수도 있다. 패배감과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다수인 조직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다양한 도움을 받아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자.<br/><br/>끝으로 개인적 노력에 대해서 몇가지 조언을 해본다. 그간 내가 해왔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서..<br/><br/>일이든 뭐든 욕심부리지 말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과로하지 말기, 가끔씩 놀러가기, 햇빛보며 살기, 겨울에 특히 조심하기, 1주일에 한번은 자연을 벗삼기, 땀 빼는 운동하기, 가끔씩 맛있는 것 먹기,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수다떨기, 화내기, 이야기하기, 앉아서 머리굴리지 말고 나가서 부딪치기, 생각의 늪으로 빠지지 말기 등등등.</div> <br/><br/><br/><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5.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4년 3월 15일·16일  
날짜: 2014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5100000001  
본문: 실명 위기 남편과 암 판정 받은 아내<br/>▲나눔 0700(EBS 토 오후 3시50분) = 부산에 사는 안세기씨는 시력 저하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내 변기자씨는 지난해 직장암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변씨는 직장에 암이 생겼다. 안씨는 1년 사이 3번째 입원한 아내를 보살피며, 젊었을 때 생계를 걱정하느라 더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한다. 변씨의 팔목엔 주삿바늘 자국이 늘어가지만 주사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하다. 안씨는 함께 있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데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br/>4년 만에 한국 찾은 오페라 가수 폴포츠<br/>▲놀라운 대회 스타킹(SBS 토 오후 6시20분) = 역경을 극복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오페라 가수 폴 포츠가 4년 만에 찾아온다. 폴 포츠는 ‘휠체어 성악가’로 활동하는 황영택씨를 응원하기 위해 테너 엔리코 카루소의 생을 노래한 곡 ‘카루소’, ‘그대와 함께 떠나리’라는 뜻의 곡 ‘타임 투 세이 굿바이’를 부른다. 이어 황씨와 함께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네순 도르마’를 부른다. 황씨는 26살 때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 <br/>33년차 목욕 관리사의 삶과 열정에 대해<br/>▲강연 100℃(KBS1 일 오후 8시) = 33년차 베테랑 목욕 관리사 김상섭씨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 듣는다. 김씨는 어린 시절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19살 때 상경한 김씨는 지인의 권유로 목욕 관리사 일을 시작했다. 김씨는 서툰 실력 때문에 손님들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항의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노하우를 만들어갔다. 점차 인정을 받고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 김씨는 전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한 김씨는 현재 100명이 넘는 제자를 가르칠 정도의 베테랑 목욕 관리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6.txt

제목: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23) 선사 암각화와 고대 서예  
날짜: 20140315  
기자: 이동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5100000005  
본문: 우리는 지금 키보드 ‘치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불과 20~30년 만에 2000~3000년 역사의 붓글씨 ‘쓰기’ 문명이 뒤집혔다. 개개인이 직접 글자를 만들어 쓰다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택하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 글씨 그 자체로 간주되던 시대에서 기계가 인간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변혁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를 전도시킨다. ‘치기 시대에 왜 쓰기인가’를 화두로 서예를 통해 우리 미학의 궤적 탐사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br/>서예의 시작은 말과 그림이다. 서예의 모태가 되는 글자는 말과 그림이 하나 되는 지점에서 그림문자로 탄생했다. 말 안에 애초부터 글자가 잉태되어 있었던 셈인데, 역으로 보면 말은 이미 머리 속에 내장된 문자라는 조형언어를 전제로 발화되는 것이다. <br/>이런 맥락에서 글자의 탄생은 인간 자의식의 표출이자 서예의 탄생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학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서화가 같은 뿌리로 구상과 추상이 한 몸이 되어 살아온 동아시아 한자문화권과 20세기에 들어서야 기존 구상과는 별개로 추상미술이 대두된 서구는 성격적으로 큰 대조를 이룬다. <br/>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구상과 추상, 즉 외형과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세계 표출이나 대상의 객관적인 묘사가 필묵으로 글자 쓰기인 서예행위 하나로 다 해결되었다. 대상을 경계 짓고 사물의 윤곽을 묘사하는 것마저도 선이 아니고 획이다. 글자의 짜임새 이전에 필획 그 자체가 태세(太細·굵고 가늚), 장단(長短·길고 짧음), 지속(遲速·느리고 빠름), 농담(濃淡·진하고 묽음) 등 조형언어를 독자적으로 발화한다. 사람마다 다른 이러한 획질은 바로 붓과 먹이라는 도구에서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오늘날 키보드 ‘치기’의 맹점을 붓글씨 ‘쓰기’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서화에서 미술로 전이된 20세기 한국미술에서 서예행위나 서예언어의 상실은 오늘 우리 미술의 정체성 상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br/>이미 살펴본 대로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의 1차적인 토대는 울주의 반구대 천전리나 고령의 양전동 등지에서 보이는 선사시대 암각화다. 서예미학의 관점에서 그림문자의 전신으로 고래·사슴 따위의 사실적인 그림과 동심원·마름모꼴 등 추상문양이 동시에 각인되어 등장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모두가 다산이나 풍요를 빌며 태양이나 우주자연을 신으로 모신 사람들의 조형언어다. <br/>2차 토대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에 이르는 필적들이다. 전국시대를 거쳐 기원전후 한사군 설치에 즈음하여 이미 갑골문 종정문을 넘어 대전·소전으로 완성을 본 전서체 한자나 고예가 전래 수용되었고, 이것이 우리식으로 재해석되고 자기화된 시기다. 이때는 광개토대왕비문(414), 무령왕릉지석(523), 진흥왕순수비명(568) 등 삼국시대 글씨에서 보듯 이미 전서를 넘어 예서나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서체다. 발생 시점으로 보면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토비’의 고예는 매우 보수적인 서체이지만, 그래서 북방민족의 대륙적이고도 힘찬 기질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한족이 중심이 된 남방의 동진에서 4세기 후반의 왕희지가 그렇듯 해서와 행서의 전형까지 세워내면서 운치의 글씨미학을 구가하고 있음과 비교해 볼 때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br/>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제는 남북조 중심의 대륙 서예미학 변화를 가장 잘 받아 소화해낸 나라답게 시종일관 매우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글씨를 구사했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 고예의 영향이나 중국 글씨의 직접 수용과 재해석으로 이들과는 또 다른 중도적인 미감을 가진 서예문화를 전개했다. 사상적으로도 이미 이 시기는 고유의 무속신앙 토대 위에 도교·불교·유교가 전래되어 글씨미학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때다. 특히 불교의 수용과 자기화 과정은 사경(寫經)과 인쇄문화의 융성으로 향후 통일신라 서예와 문자문화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토대는 고려, 조선의 서예나 인쇄문화를 견인했고 한글 창제처럼 세계사적 맥락의 문자문화 전개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쥐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br/>이런 입장에서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의 3차 토대는 통일신라라 할 수 있다. 고신라의 강경하고 고졸한 미감을 토대로 왕법과 당나라 해서를 하나로 녹여냄으로써 김생체와 같이 원융무애한 화엄불국의 글씨미학을 유감없이 발휘해냈다. 바야흐로 이때를 전후해 비로소 해서의 전형이 제시되면서 동아시아 서예사적 맥락에서 서체 변화의 종결을 이루어냈고 미학적으로도 전형이 제시되었다. 특히 8세기 전후에는 당풍이 ‘해동서성’으로 추앙받는 김생이나 공해(空海)와 같은 일본의 선필(禪筆) 거장을 통해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재해석된 때이기도 하다.<br/>또 유불선 삼교회통의 풍류미학이 최치원을 통해 우리 문예미학으로 처음 제시된 때도 이 시점이고, 무구정광대탑다라니경과 같은 목판인쇄술의 보급으로 경전의 대량 유통이 실현되면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이나 화엄석경처럼 사경 공양 본연으로 돌아가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종교가 된 때이기도 하다. 이미 이 시대는 이후 전개될 모든 서예 역사나 문자문화의 큰 기둥들이 세워진 때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고려에서는 선교(禪敎) 일치의 불교 서예미학이, 조선에서는 ‘서(書)가 사람이다’라는 심성론적이고 수양론적 측면의 유가 서예미학이 다층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br/>요컨대 미학이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선사와 고대 서예미학의 존재 의의는 당연하게도 세계사적 시작과 궤를 같이하는 보편성과 독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반구대의 선사 암각화는 동시대 유라시아 대륙과 동궤를 이룬다. 고래·사슴·샤먼 등 표현 대상이 지역마다 같고도 다르지만, 돌과 칼의 획과 면 새김을 토대로 한 조형언어 양식은 대체적으로 같다. 두 지역 사람들은 서로 만난 일이 없으면서도 동궤의 인지능력과 미의식을 가졌던 것이다.<br/>역사시대의 우리 미학을 글씨로 가장 웅장하게 열어젖힌 광개토대왕비문은 5세기 동아시아 고대서예 역사를 왕법과의 대척점에서 전개시켰고, 그 1차적 완성자로서 김생의 통일신라 서예의 조형미학은 전형적인 아름다움 속에서도 역동적이고 무쇠 같은 힘으로 동아시아 서예 역사를 주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서예와 미술은 물론 가무까지도 첨단의 이름으로 융복합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예술이 근원적으로 찾아가야 할 미학이 어디인지는 더욱 자명해진다.<br/> <시리즈 끝>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7.txt

제목: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23) 선사 암각화와 고대 서예  
날짜: 20140315  
기자: 이동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5100000090  
본문: 우리는 지금 키보드 ‘치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불과 20~30년 만에 2000~3000년 역사의 붓글씨 ‘쓰기’ 문명이 뒤집혔다. 개개인이 직접 글자를 만들어 쓰다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택하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 글씨 그 자체로 간주되던 시대에서 기계가 인간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변혁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를 전도시킨다. ‘치기 시대에 왜 쓰기인가’를 화두로 서예를 통해 우리 미학의 궤적 탐사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br/>서예의 시작은 말과 그림이다. 서예의 모태가 되는 글자는 말과 그림이 하나 되는 지점에서 그림문자로 탄생했다. 말 안에 애초부터 글자가 잉태되어 있었던 셈인데, 역으로 보면 말은 이미 머리 속에 내장된 문자라는 조형언어를 전제로 발화되는 것이다. <br/>이런 맥락에서 글자의 탄생은 인간 자의식의 표출이자 서예의 탄생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학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서화가 같은 뿌리로 구상과 추상이 한 몸이 되어 살아온 동아시아 한자문화권과 20세기에 들어서야 기존 구상과는 별개로 추상미술이 대두된 서구는 성격적으로 큰 대조를 이룬다. <br/><br/>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구상과 추상, 즉 외형과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세계 표출이나 대상의 객관적인 묘사가 필묵으로 글자 쓰기인 서예행위 하나로 다 해결되었다. 대상을 경계 짓고 사물의 윤곽을 묘사하는 것마저도 선이 아니고 획이다. 글자의 짜임새 이전에 필획 그 자체가 태세(太細·굵고 가늚), 장단(長短·길고 짧음), 지속(遲速·느리고 빠름), 농담(濃淡·진하고 묽음) 등 조형언어를 독자적으로 발화한다. 사람마다 다른 이러한 획질은 바로 붓과 먹이라는 도구에서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오늘날 키보드 ‘치기’의 맹점을 붓글씨 ‘쓰기’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서화에서 미술로 전이된 20세기 한국미술에서 서예행위나 서예언어의 상실은 오늘 우리 미술의 정체성 상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br/>이미 살펴본 대로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의 1차적인 토대는 울주의 반구대 천전리나 고령의 양전동 등지에서 보이는 선사시대 암각화다. 서예미학의 관점에서 그림문자의 전신으로 고래·사슴 따위의 사실적인 그림과 동심원·마름모꼴 등 추상문양이 동시에 각인되어 등장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모두가 다산이나 풍요를 빌며 태양이나 우주자연을 신으로 모신 사람들의 조형언어다. <br/>2차 토대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에 이르는 필적들이다. 전국시대를 거쳐 기원전후 한사군 설치에 즈음하여 이미 갑골문 종정문을 넘어 대전·소전으로 완성을 본 전서체 한자나 고예가 전래 수용되었고, 이것이 우리식으로 재해석되고 자기화된 시기다. 이때는 광개토대왕비문(414), 무령왕릉지석(523), 진흥왕순수비명(568) 등 삼국시대 글씨에서 보듯 이미 전서를 넘어 예서나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서체다. 발생 시점으로 보면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토비’의 고예는 매우 보수적인 서체이지만, 그래서 북방민족의 대륙적이고도 힘찬 기질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한족이 중심이 된 남방의 동진에서 4세기 후반의 왕희지가 그렇듯 해서와 행서의 전형까지 세워내면서 운치의 글씨미학을 구가하고 있음과 비교해 볼 때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br/>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제는 남북조 중심의 대륙 서예미학 변화를 가장 잘 받아 소화해낸 나라답게 시종일관 매우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글씨를 구사했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 고예의 영향이나 중국 글씨의 직접 수용과 재해석으로 이들과는 또 다른 중도적인 미감을 가진 서예문화를 전개했다. 사상적으로도 이미 이 시기는 고유의 무속신앙 토대 위에 도교·불교·유교가 전래되어 글씨미학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때다. 특히 불교의 수용과 자기화 과정은 사경(寫經)과 인쇄문화의 융성으로 향후 통일신라 서예와 문자문화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토대는 고려, 조선의 서예나 인쇄문화를 견인했고 한글 창제처럼 세계사적 맥락의 문자문화 전개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쥐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br/>이런 입장에서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의 3차 토대는 통일신라라 할 수 있다. 고신라의 강경하고 고졸한 미감을 토대로 왕법과 당나라 해서를 하나로 녹여냄으로써 김생체와 같이 원융무애한 화엄불국의 글씨미학을 유감없이 발휘해냈다. 바야흐로 이때를 전후해 비로소 해서의 전형이 제시되면서 동아시아 서예사적 맥락에서 서체 변화의 종결을 이루어냈고 미학적으로도 전형이 제시되었다. 특히 8세기 전후에는 당풍이 ‘해동서성’으로 추앙받는 김생이나 공해(空海)와 같은 일본의 선필(禪筆) 거장을 통해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재해석된 때이기도 하다.<br/>또 유불선 삼교회통의 풍류미학이 최치원을 통해 우리 문예미학으로 처음 제시된 때도 이 시점이고, 무구정광대탑다라니경과 같은 목판인쇄술의 보급으로 경전의 대량 유통이 실현되면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이나 화엄석경처럼 사경 공양 본연으로 돌아가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종교가 된 때이기도 하다. 이미 이 시대는 이후 전개될 모든 서예 역사나 문자문화의 큰 기둥들이 세워진 때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고려에서는 선교(禪敎) 일치의 불교 서예미학이, 조선에서는 ‘서(書)가 사람이다’라는 심성론적이고 수양론적 측면의 유가 서예미학이 다층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br/>요컨대 미학이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선사와 고대 서예미학의 존재 의의는 당연하게도 세계사적 시작과 궤를 같이하는 보편성과 독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반구대의 선사 암각화는 동시대 유라시아 대륙과 동궤를 이룬다. 고래·사슴·샤먼 등 표현 대상이 지역마다 같고도 다르지만, 돌과 칼의 획과 면 새김을 토대로 한 조형언어 양식은 대체적으로 같다. 두 지역 사람들은 서로 만난 일이 없으면서도 동궤의 인지능력과 미의식을 가졌던 것이다.<br/>역사시대의 우리 미학을 글씨로 가장 웅장하게 열어젖힌 광개토대왕비문은 5세기 동아시아 고대서예 역사를 왕법과의 대척점에서 전개시켰고, 그 1차적 완성자로서 김생의 통일신라 서예의 조형미학은 전형적인 아름다움 속에서도 역동적이고 무쇠 같은 힘으로 동아시아 서예 역사를 주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서예와 미술은 물론 가무까지도 첨단의 이름으로 융복합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예술이 근원적으로 찾아가야 할 미학이 어디인지는 더욱 자명해진다.<br/> <시리즈 끝>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8.txt

제목: 앤젤리나 졸리 “난소암 예방 수술도 받겠다”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4100000058  
본문: 지난해 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40·사진)가 두 번째 암 예방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졸리는 최근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다른 수술(난소 절제술)이 남아 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해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br/>그는 지난해 받은 유방절제수술에 대한 질문에 “내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난 것도 정말 행운이었다”고 답했다.<br/>졸리는 지난해 5월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 인자를 발견하고 암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BRCA1으로 알려진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 발병할 확률이 50%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49.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4년 3월 15일·16일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410013740294  
본문: <b>실명 위기 남편과 암 판정 받은 아내</b><br/>▲나눔 0700(EBS 토 오후 3시50분) = 부산에 사는 안세기씨는 시력 저하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내 변기자씨는 지난해 직장암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변씨는 직장에 암이 생겼다. 안씨는 1년 사이 3번째 입원한 아내를 보살피며, 젊었을 때 생계를 걱정하느라 더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한다. 변씨의 팔목엔 주삿바늘 자국이 늘어가지만 주사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하다. 안씨는 함께 있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데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br/><br/><b>4년 만에 한국 찾은 오페라 가수 폴포츠</b><br/>▲놀라운 대회 스타킹(SBS 토 오후 6시20분) = 역경을 극복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오페라 가수 폴 포츠가 4년 만에 찾아온다. 폴 포츠는 ‘휠체어 성악가’로 활동하는 황영택씨를 응원하기 위해 테너 엔리코 카루소의 생을 노래한 곡 ‘카루소’, ‘그대와 함께 떠나리’라는 뜻의 곡 ‘타임 투 세이 굿바이’를 부른다. 이어 황씨와 함께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네순 도르마’를 부른다. 황씨는 26살 때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 <br/><br/><b>33년차 목욕 관리사의 삶과 열정에 대해</b><br/>▲강연 100℃(KBS1 일 오후 8시) = 33년차 베테랑 목욕 관리사 김상섭씨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 듣는다. 김씨는 어린 시절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19살 때 상경한 김씨는 지인의 권유로 목욕 관리사 일을 시작했다. 김씨는 서툰 실력 때문에 손님들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항의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노하우를 만들어갔다. 점차 인정을 받고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 김씨는 전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한 김씨는 현재 100명이 넘는 제자를 가르칠 정도의 베테랑 목욕 관리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0.txt

제목: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23) 선사 암각화와 고대 서예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41001374064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세계사적 시작과 궤 같이하는 보편성·독자성 갖춰</strong><!-- SUB\_TITLE\_END--><br/><br/>우리는 지금 키보드 ‘치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불과 20~30년 만에 2000~3000년 역사의 붓글씨 ‘쓰기’ 문명이 뒤집혔다. 개개인이 직접 글자를 만들어 쓰다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택하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 글씨 그 자체로 간주되던 시대에서 기계가 인간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변혁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를 전도시킨다. ‘치기 시대에 왜 쓰기인가’를 화두로 서예를 통해 우리 미학의 궤적 탐사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br/><br/>서예의 시작은 말과 그림이다. 서예의 모태가 되는 글자는 말과 그림이 하나 되는 지점에서 그림문자로 탄생했다. 말 안에 애초부터 글자가 잉태되어 있었던 셈인데, 역으로 보면 말은 이미 머리 속에 내장된 문자라는 조형언어를 전제로 발화되는 것이다. <br/><br/>이런 맥락에서 글자의 탄생은 인간 자의식의 표출이자 서예의 탄생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학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서화가 같은 뿌리로 구상과 추상이 한 몸이 되어 살아온 동아시아 한자문화권과 20세기에 들어서야 기존 구상과는 별개로 추상미술이 대두된 서구는 성격적으로 큰 대조를 이룬다. <br/><br/><br/>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구상과 추상, 즉 외형과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세계 표출이나 대상의 객관적인 묘사가 필묵으로 글자 쓰기인 서예행위 하나로 다 해결되었다. 대상을 경계 짓고 사물의 윤곽을 묘사하는 것마저도 선이 아니고 획이다. 글자의 짜임새 이전에 필획 그 자체가 태세(太細·굵고 가늚), 장단(長短·길고 짧음), 지속(遲速·느리고 빠름), 농담(濃淡·진하고 묽음) 등 조형언어를 독자적으로 발화한다. 사람마다 다른 이러한 획질은 바로 붓과 먹이라는 도구에서 일차적으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오늘날 키보드 ‘치기’의 맹점을 붓글씨 ‘쓰기’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서화에서 미술로 전이된 20세기 한국미술에서 서예행위나 서예언어의 상실은 오늘 우리 미술의 정체성 상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br/><br/>이미 살펴본 대로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의 1차적인 토대는 울주의 반구대 천전리나 고령의 양전동 등지에서 보이는 선사시대 암각화다. 서예미학의 관점에서 그림문자의 전신으로 고래·사슴 따위의 사실적인 그림과 동심원·마름모꼴 등 추상문양이 동시에 각인되어 등장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모두가 다산이나 풍요를 빌며 태양이나 우주자연을 신으로 모신 사람들의 조형언어다. <br/><br/>2차 토대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에 이르는 필적들이다. 전국시대를 거쳐 기원전후 한사군 설치에 즈음하여 이미 갑골문 종정문을 넘어 대전·소전으로 완성을 본 전서체 한자나 고예가 전래 수용되었고, 이것이 우리식으로 재해석되고 자기화된 시기다. 이때는 광개토대왕비문(414), 무령왕릉지석(523), 진흥왕순수비명(568) 등 삼국시대 글씨에서 보듯 이미 전서를 넘어 예서나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서체다. 발생 시점으로 보면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토비’의 고예는 매우 보수적인 서체이지만, 그래서 북방민족의 대륙적이고도 힘찬 기질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한족이 중심이 된 남방의 동진에서 4세기 후반의 왕희지가 그렇듯 해서와 행서의 전형까지 세워내면서 운치의 글씨미학을 구가하고 있음과 비교해 볼 때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br/><br/>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제는 남북조 중심의 대륙 서예미학 변화를 가장 잘 받아 소화해낸 나라답게 시종일관 매우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글씨를 구사했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 고예의 영향이나 중국 글씨의 직접 수용과 재해석으로 이들과는 또 다른 중도적인 미감을 가진 서예문화를 전개했다. 사상적으로도 이미 이 시기는 고유의 무속신앙 토대 위에 도교·불교·유교가 전래되어 글씨미학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때다. 특히 불교의 수용과 자기화 과정은 사경(寫經)과 인쇄문화의 융성으로 향후 통일신라 서예와 문자문화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토대는 고려, 조선의 서예나 인쇄문화를 견인했고 한글 창제처럼 세계사적 맥락의 문자문화 전개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쥐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br/><br/>이런 입장에서 서예로 찾은 우리 미학의 3차 토대는 통일신라라 할 수 있다. 고신라의 강경하고 고졸한 미감을 토대로 왕법과 당나라 해서를 하나로 녹여냄으로써 김생체와 같이 원융무애한 화엄불국의 글씨미학을 유감없이 발휘해냈다. 바야흐로 이때를 전후해 비로소 해서의 전형이 제시되면서 동아시아 서예사적 맥락에서 서체 변화의 종결을 이루어냈고 미학적으로도 전형이 제시되었다. 특히 8세기 전후에는 당풍이 ‘해동서성’으로 추앙받는 김생이나 공해(空海)와 같은 일본의 선필(禪筆) 거장을 통해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재해석된 때이기도 하다.<br/><br/>또 유불선 삼교회통의 풍류미학이 최치원을 통해 우리 문예미학으로 처음 제시된 때도 이 시점이고, 무구정광대탑다라니경과 같은 목판인쇄술의 보급으로 경전의 대량 유통이 실현되면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이나 화엄석경처럼 사경 공양 본연으로 돌아가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종교가 된 때이기도 하다. 이미 이 시대는 이후 전개될 모든 서예 역사나 문자문화의 큰 기둥들이 세워진 때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고려에서는 선교(禪敎) 일치의 불교 서예미학이, 조선에서는 ‘서(書)가 사람이다’라는 심성론적이고 수양론적 측면의 유가 서예미학이 다층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br/><br/>요컨대 미학이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선사와 고대 서예미학의 존재 의의는 당연하게도 세계사적 시작과 궤를 같이하는 보편성과 독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반구대의 선사 암각화는 동시대 유라시아 대륙과 동궤를 이룬다. 고래·사슴·샤먼 등 표현 대상이 지역마다 같고도 다르지만, 돌과 칼의 획과 면 새김을 토대로 한 조형언어 양식은 대체적으로 같다. 두 지역 사람들은 서로 만난 일이 없으면서도 동궤의 인지능력과 미의식을 가졌던 것이다.<br/><br/>역사시대의 우리 미학을 글씨로 가장 웅장하게 열어젖힌 광개토대왕비문은 5세기 동아시아 고대서예 역사를 왕법과의 대척점에서 전개시켰고, 그 1차적 완성자로서 김생의 통일신라 서예의 조형미학은 전형적인 아름다움 속에서도 역동적이고 무쇠 같은 힘으로 동아시아 서예 역사를 주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서예와 미술은 물론 가무까지도 첨단의 이름으로 융복합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예술이 근원적으로 찾아가야 할 미학이 어디인지는 더욱 자명해진다.<br/><br/> <시리즈 끝><br/><br/><이동국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1.txt

제목: 앤젤리나 졸리 “난소암 예방 수술도 받겠다”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31001373160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유방 절제한 건 행복한 결정”</strong><!-- SUB\_TITLE\_END--><br/><br/>지난해 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40·사진)가 두 번째 암 예방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졸리는 최근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다른 수술(난소 절제술)이 남아 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해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그는 지난해 받은 유방절제수술에 대한 질문에 “내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난 것도 정말 행운이었다”고 답했다.<br/><br/>졸리는 지난해 5월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 인자를 발견하고 암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BRCA1으로 알려진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 발병할 확률이 50%였다.<br/><br/><박은경 기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2.txt

제목: [놀이가 밥이다]기고 - 놀이도 때가 있다  
날짜: 20140313  
기자: 송현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3100000084  
본문: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일까. 지금 그런 일을 시키고 있는가. “그렇다”고 답해놓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그 불편한 느낌에 귀 기울여야 한다.<br/>무한경쟁시대에,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지상목표인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중에 꼴찌라는 사실, 20대 여성의 47%가 요즘같이 살기 힘든 사회에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결과, 2010년 자살한 청소년의 수는 교통사고·암·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수를 더한 것보다 많다는 통계청의 자료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br/>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 친구들과 목청껏 노래하면서 뛰어넘던 고무줄 놀이, 쳐들어오는 상대를 온몸으로 막았던 오징어 놀이,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상관없이 땅바닥에 앉아 작은 돌을 튀기던 땅따먹기를 비롯하여 숨바꼭질, 말뚝박기, 깡통차기에 하루 해가 짧았던 때를 말이다. 그때는 먹을 것, 입는 것, 부모의 보살핌이 요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행복했었다. 그때의 행복은 단지 어린 시절의 추억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함께 어울릴 친구가 있었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br/>아이들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과 그런 모습이 이어져 장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br/>어른들의 하루와 아이들의 하루가 다른 이유는 절대시간은 같지만 변화 가능성이 많고 적음 때문이다. 그 변화 가능성은 어른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경우로 나뉜다. 영·유아기에는 어른에 의존한 변화가 중심이 되지만 학령기가 되면 스스로 변화 가능성을 열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그럼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br/>인류는 오랫동안 놀이라는 문화 형식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제반 능력을 스스로 배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거의 대부분의 놀이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놀면서 오가는 많은 이야기), ‘자신을 돌아보고 제어하는 능력’(딱지치기나 승패놀이에서 졌을 때 인정하는 경우), ‘긍정적 태도’, ‘협동’, ‘창의성 배양’(호기심의 구현) 등이 잘 갈무리되어 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같은 능력이 몸에 배게 되었기에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럿이 어울릴 수 있었고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br/>벌써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기고 있고 조만간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한다. 또한 매일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되면서 ‘공부는 때가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잃었다. 오히려 공부는 평생 해야 하지만 놀이는 때(어린 시절)가 있는 것이다. 이가 빠지고 콧물을 손으로 훔치던 개구쟁이들이 놀면서 맑게 웃는 표정, 소꿉놀이에서 아빠 모습을 진지하게 흉내 낼 때의 몰입, 기분 좋아 내는 달뜬 목소리는 어른이 결코 재현할 수 없다.<br/>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은 놀이가 아니고 그 반대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너무나 시급해서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살아가는 기본을 배우고 익히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3.txt

제목: “친환경농산물 안전인식 잘못”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강연 논란  
날짜: 20140313  
기자: 곽희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3100000099  
본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학부모 연수에 나온 강사가 “<span class='quot0'>친환경 농산물을 안전농산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놓고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반목하고 6월 교육감선거 쟁점으로도 부상한 시점에 이뤄진 강연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br/>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초·중·고 학부모 1300여명을 상대로 ‘2014년도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 요원 연수’를 열었다. 강사로 나온 정덕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은 “<span class='quot1'>기존 친환경 농산물제도(유기·무농약·저농약)로 관리된 농산물을 안전농산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GAP(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이 안전관리 농산물</span>”이라고 말했다. 류재기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장도 연단에 올라 “농약은 의약품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농약은 과학이다”라며 “농약이 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br/>친환경무상급식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종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위원장은 “<span class='quot2'>전 세계적으로 안전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span>”라며 “<span class='quot2'>과다 농약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든 GAP정책을 마치 유기농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span>”고 반발했다.<br/>시교육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강사들은 관련 전문가로 초빙됐다</span>”며 “<span class='quot3'>전문가가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사실을 전달한 것</span>”이라고 밝혔다.<br/>친환경무상급식을 두고 시교육청과 시의회·친환경급식연대 등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br/>문용린 시교육감은 지난해 11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초등학교 70% 이상(중학교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줄이고, 그 대신 GAP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식단의 다양성을 늘리고 학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계약을 맺은 학교는 지난해 867곳에서 올해 1학기 45곳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서울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span class='quot4'>시교육청이 학교에 압력을 넣어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막았다</span>”고 반발하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4.txt

제목: [사설]수치로 입증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3100000011  
본문: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을 인정하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의심 사례 361명 가운데 127명(35.2%)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능성 높음’이 41명(11.4%), ‘가능성 낮음’이 42명(11.6%), ‘가능성 거의 없음’이 144명(39.9%), ‘자료 부족으로 판정 불가’가 7명(1.9%)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2년7개월 만에 정부에 의한 피해자 구제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됐다.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이미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망자만 144명이 신고된 국내외 초유의 대규모 바이오사이드 사건이다. 정부가 해결 노력보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와 제조사의 분쟁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가뜩이나 투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을 소송으로 내몬 것이 그런 예다. 이번 조사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고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안이 4개나 제출되는 등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폐손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가운데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이를테면 전체 사례의 40%에 가까운 144명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가능성 거의 없음’이라고 판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사망자만 18명이 포함된 이들의 사망이나 병증이 가습기 살균제와 무관하다고 단정하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br/>이번 조사에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일회성 구제에 그칠 공산이 크다. 피해 인정을 받은 생존 환자가 합병증·암으로 악화되는 상황 등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및 환경보건단체가 제안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보건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만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5.txt

제목: 아산의학상 서판길·이경수  
날짜: 20140312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2100000038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서판길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62·기초의학부문·위 사진)와 이경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57·임상의학부문·아래)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br/>서 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 신호전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규명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이 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한편, 젊은의학자부문에는 뇌신경 세포들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핵심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낸 고재원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와 관상동맥질환에서 약물용출성 그물망 시술 후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기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박덕우 울산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br/>기초·임상부문 수상자 서판길·이경수 교수에게는 각각 상금 3억원이,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 고재원·박덕우 교수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br/>아산의학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임상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고자 지난 2007년 제정했다. <br/>시상식은 오는 21일 갖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6.txt

제목: [놀이가 밥이다]기고 - 놀이도 때가 있다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210013719647  
본문: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일까. 지금 그런 일을 시키고 있는가. “그렇다”고 답해놓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그 불편한 느낌에 귀 기울여야 한다.<br/><br/>무한경쟁시대에,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지상목표인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중에 꼴찌라는 사실, 20대 여성의 47%가 요즘같이 살기 힘든 사회에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결과, 2010년 자살한 청소년의 수는 교통사고·암·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수를 더한 것보다 많다는 통계청의 자료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br/><br/>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 친구들과 목청껏 노래하면서 뛰어넘던 고무줄 놀이, 쳐들어오는 상대를 온몸으로 막았던 오징어 놀이,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상관없이 땅바닥에 앉아 작은 돌을 튀기던 땅따먹기를 비롯하여 숨바꼭질, 말뚝박기, 깡통차기에 하루 해가 짧았던 때를 말이다. 그때는 먹을 것, 입는 것, 부모의 보살핌이 요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행복했었다. 그때의 행복은 단지 어린 시절의 추억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함께 어울릴 친구가 있었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br/><br/>아이들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과 그런 모습이 이어져 장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br/><br/>어른들의 하루와 아이들의 하루가 다른 이유는 절대시간은 같지만 변화 가능성이 많고 적음 때문이다. 그 변화 가능성은 어른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경우로 나뉜다. 영·유아기에는 어른에 의존한 변화가 중심이 되지만 학령기가 되면 스스로 변화 가능성을 열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그럼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br/><br/>인류는 오랫동안 놀이라는 문화 형식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제반 능력을 스스로 배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거의 대부분의 놀이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놀면서 오가는 많은 이야기), ‘자신을 돌아보고 제어하는 능력’(딱지치기나 승패놀이에서 졌을 때 인정하는 경우), ‘긍정적 태도’, ‘협동’, ‘창의성 배양’(호기심의 구현) 등이 잘 갈무리되어 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같은 능력이 몸에 배게 되었기에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럿이 어울릴 수 있었고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br/><br/>벌써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기고 있고 조만간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한다. 또한 매일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되면서 ‘공부는 때가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잃었다. 오히려 공부는 평생 해야 하지만 놀이는 때(어린 시절)가 있는 것이다. 이가 빠지고 콧물을 손으로 훔치던 개구쟁이들이 놀면서 맑게 웃는 표정, 소꿉놀이에서 아빠 모습을 진지하게 흉내 낼 때의 몰입, 기분 좋아 내는 달뜬 목소리는 어른이 결코 재현할 수 없다.<br/><br/>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은 놀이가 아니고 그 반대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너무나 시급해서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살아가는 기본을 배우고 익히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br/><br/><이상호 | (사)놀이하는사람들 대표·충주 대미초 교사>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7.txt

제목: [사설]수치로 입증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210013718851  
본문: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을 인정하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의심 사례 361명 가운데 127명(35.2%)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능성 높음’이 41명(11.4%), ‘가능성 낮음’이 42명(11.6%), ‘가능성 거의 없음’이 144명(39.9%), ‘자료 부족으로 판정 불가’가 7명(1.9%)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2년7개월 만에 정부에 의한 피해자 구제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됐다.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br/>이미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망자만 144명이 신고된 국내외 초유의 대규모 바이오사이드 사건이다. 정부가 해결 노력보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와 제조사의 분쟁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가뜩이나 투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을 소송으로 내몬 것이 그런 예다. 이번 조사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고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안이 4개나 제출되는 등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br/>폐손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가운데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이를테면 전체 사례의 40%에 가까운 144명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가능성 거의 없음’이라고 판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사망자만 18명이 포함된 이들의 사망이나 병증이 가습기 살균제와 무관하다고 단정하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br/><br/>이번 조사에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일회성 구제에 그칠 공산이 크다. 피해 인정을 받은 생존 환자가 합병증·암으로 악화되는 상황 등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및 환경보건단체가 제안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보건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만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8.txt

제목: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역시나… 피해 신청자 절반 ‘폐손상 영향’ 판정  
날짜: 20140312  
기자: 김기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2100000150  
본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피해자들의 절반이 그 연관성을 인정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문제화된 지 3년 만에 정부 공식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br/>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폐손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 결과 127명(35.2%)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br/>조사위는 41명(11.4%)은 가능성 높음, 42명(11.6%)은 가능성 낮음, 144명(39.9%)은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7명(1.9%)은 자료 부족으로 판정이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2011년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처음 지목된 후 폐손상 조사를 신청한 사람 2명 중 1명꼴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된 셈이다.<br/>질병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별 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해 의학·환경보건·독성학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했다.<br/>환경부는 조사위에서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상반기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추가 조사를 신청해 피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첫 조사의 신청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 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에 가능성이 낮다고 조사된 사람 중에 사망자들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피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환경단체들은 전체의 39.9%를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너무 엄격한 판정기준이며 경증 환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span class='quot0'>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당시 증상이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 현재는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겨울철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고려됐는지 의문</span>”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지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암으로 악화되거나 합병증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대한 대책이 누락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습기 살균제 노출 영향을 폐질환으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폐 외에 심혈관계 등 다른 장기에 미칠 영향, 정신적 영향, 태아에의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59.txt

제목: 아산의학상 서판길·이경수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110013707935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서판길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62·기초의학부문·위 사진)와 이경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57·임상의학부문·아래)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br/><br/>서 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 신호전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규명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이 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br/>한편, 젊은의학자부문에는 뇌신경 세포들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핵심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낸 고재원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와 관상동맥질환에서 약물용출성 그물망 시술 후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기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박덕우 울산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br/><br/>기초·임상부문 수상자 서판길·이경수 교수에게는 각각 상금 3억원이,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 고재원·박덕우 교수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br/><br/>아산의학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임상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고자 지난 2007년 제정했다. <br/><br/>시상식은 오는 21일 갖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0.txt

제목: 군의관 실수로 9㎝ 종양 7개월 방치돼 암 전이  
날짜: 20140311  
기자: 황경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1100000146  
본문: 군 건강검진에서 9㎝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정상’ 판정을 받고 7개월이나 방치돼 병세가 악화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br/>10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에 근무하던 강모 병장은 지난달 말 체력단련 중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강 병장은 소속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사흘 뒤 진해 해양의료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종격동(좌우 폐 사이의 부분) 악성 종양 4기 진단을 받았다.<br/>의무사 조사결과 강 병장은 7개월 전 상병 진급 시 받는 군 건강검진에서 X-레이 사진에 9㎝가량의 종양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당시 사진판독을 맡은 영상의학과 군의관은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기록했다. 하지만 촬영 내용을 최종 판단하고 환자에게 알려야 할 가정의학과 군의관은 이를 보지 못하고 ‘합격’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군 병원은 한 해 7000명 정도의 건강 검진 결과를 1명의 군의관이 최종 판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r/>현재 강 병장의 병세는 더 악화됐다. 종양은 15㎝로 더 커졌고 비장, 림프절, 폐 등에도 암이 전이됐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br/>의무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해 7월에 발견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해당 군의관은 100%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병장의 치료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1.txt

제목: 군의관 실수로... 7개월이나 암 방치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1010013690015  
본문: 군 건강검진에서 9㎝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정상’ 판정을 받고 7개월이나 방치돼 병세가 악화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br/><br/>10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에 근무하던 강모 병장은 지난달 말 체력단련 중 갑작스런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강 병장은 소속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사흘 뒤 진해 해양의료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종격동(좌우 폐 사이의 부분) 악성 종양 4기 진단을 받았다.<br/><br/>의무사 조사결과 강 병장은 7개월 전 상병 진급시 받는 군 건강검진에서 X-레이 사진에 9㎝ 가량의 종양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당시 사진판독을 맡은 영상의학과 군의관은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기록했다. 하지만 촬영 내용을 최종 판단하고 환자에게 알려야 할 가정의학과 군의관은 이를 보지 못하고 ‘합격’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군 병원은 한 해 7000명 정도의 건강 검진 결과를 1명의 군의관이 최종 판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현재 강 병장의 병세는 더 악화됐다. 종양은 15㎝로 더 커졌고 비장, 림프절, 폐 등에도 암이 전이됐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br/><br/>의무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해 7월에 발견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해당 군의관은 100%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병장의 치료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2.txt

제목: [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8) 통계로 보는 암 사망률  
날짜: 20140308  
기자: 황상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8100000115  
본문: ▲ 1990년대부터 암 사망률 지속적 감소 추세… 발병 증가 원인을 현대문명 탓으로 돌리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는 별로 없어<br/>신뢰할 만한 한국인 ‘암 사망’ 통계는 1983년부터 작성되었다. ‘암 발생’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 작성은 그보다도 더 늦은 1999년에야 시작되었다. 따라서 1999년 이전은 한국인의 암 발생 양상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건강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지만 건강과 질병 통계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뒤져 있는 것이다.<br/>한국인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은 남녀 합해 1999년의 220명에서 2011년 320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12년 사이에 45% 증가한 셈이다. 남성은 292명에서 343명으로 17%, 여성은 173명에서 317명으로 83%나 늘어났다. 이처럼 여성의 암 발생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기간에 여성의 암 발생률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갑상샘암 발생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이 기간에 갑상샘암이 많이 늘어났지만 한국은 특히 예외적으로 급증했다. 한국인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남녀 합해 7.2명에서 68.7명으로 거의 10배가 되었다. 갑상샘암을 제외하면, 암 발생률은 2011년 현재 남성 320명, 여성 203명, 남녀 합해 251명이다. 1999년에 비해 남성은 10%, 여성은 26%, 남녀 합해 18% 늘어났다.<br/><br/>■ 한국 여성 갑상샘암, 남자는 위암 최다<br/>이번에는 암종별로 발생률을 살펴보자. 2011년 현재 남녀 합해 갑상샘암(인구 10만명당 69명)이 단연 선두이고, 그 다음으로 위암(44명), 대장암(39명), 폐암(29명), 유방암(25명), 간암(23명) 순이다. 남성과 여성은 암 발생률이 사뭇 다르다. 남성은 위암(65명), 대장암(53명), 폐암(47명), 간암(37명), 전립샘암(28명), 갑상샘암(24명) 순인 데 반해, 여성은 갑상샘암(114명), 유방암(50명), 대장암(28명), 위암(27명), 폐암(16명), 자궁경부암(12명) 순이다. 남녀 합해 갑상샘암을 제외하고는 위암이 여전히 1등이지만 추세대로라면 대장암이 몇 해 안에 위암의 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많다. 위암의 감소는 식품 관리의 개선, 대장암의 증가는 고기류 섭취의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r/>연간 암 발생자 수를 놓고 보면 1999년 10만1032명에서 2011년 21만8017명으로 116%나 늘어났다. 불과 12년 사이에 한국인 암 발생자 수가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암 발생자 수가 이렇게까지 증가한 이유나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의 증가이다.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암의 ‘호발 연령’, 즉 암이 많이 생기는 노년까지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으뜸가는 원인이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암 발생자 수가 급증한 것이다.<br/>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수명 증가 효과를 배제한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을 계산해 보더라도 암 발생은 증가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의학의 발전으로 초음파검사, CT 검사, MRI 검사 등 암 진단 기술이 개선되고 또 실제로 검진을 많이 함으로써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갑상샘암이다. 갑상샘암은 다른 대부분의 암과 달리 호발 연령이 노년 이전으로, 수명 증가와는 별로 관계없는 암이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착한 암’이기도 하다. 지난 10여년 사이 갑상샘암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크게 늘어났고 거기에 비례해 갑상샘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도 급증했다. 최근에는 과다 검사, 과잉 진료 논란까지 있을 정도이다. 갑상샘암 증가에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검사 기술의 발전과 검사 횟수의 증가이다.<br/>갑상샘암을 제외하더라도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은 지난 12년 사이 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진단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수명 증가 요인처럼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은 아직 없지만 대부분이 진단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명 증가에 의한 것, 진단 기술과 관계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로’ 암 발생이 증가한 몫인데 언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앞의 두 가지에 비해 미미할 따름이다. 현대사회에서 암이 크게 늘어난 현상을 현대문명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있지만 막상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별로 없다. 앞에서 ‘미미’하다고 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예컨대 삼성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문제는 환자·사망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br/>■ 헝가리가 세계에서 암 사망률 가장 높아<br/>세계보건기구(WHO)는 80여개 국가의 암 관련 기구 등에서 자료를 수집·정리해 ‘암 사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들의 자료는 1950년대부터 있으며, 한국에 관한 것은 훨씬 뒤져 1985년부터 있다. 물론 국가에 따라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차이가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암 사망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가 간 비교도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암종과 성별, 연령에 따른 사망자 수, 단순 사망률(crude rate), 연령 표준화 사망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연령 표준화를 위한 표준인구로는 일본인 인구보건학자 세키 미쓰오가 고안한 ‘세계표준인구’를 사용하고 있다.<br/>여기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남성의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10만명당 227명)이고, 그 뒤를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이 따르고 있다. 상위 10개 국가가 예외 없이 모두 동유럽 국가이다. 한국(144명)은 네덜란드, 쿠바 등과 함께 20~30위권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한편 여성도 헝가리(120명)가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체코, 폴란드, 쿠바, 북아일랜드, 라트비아, 잉글랜드 순이다. 남성과 달리 동유럽 국가와 서유럽 국가가 뒤섞여 있다. 한국(62명)은 스페인, 일본 등과 함께 여성의 암 사망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br/>세계보건기구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세계 각국의 2030년대까지의 암 사망 추세를 예측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암 사망 및 인구 구성 등의 자료가 비교적 잘 축적, 정리된 국가들에 한정된 것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상황은 나와 있지 않다.<br/>연령 표준화 사망률로 나타낸 암 사망 추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속적으로 암 사망률이 감소하는 양상과 그렇지 못한 양상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해 필자가 만든 그래프 1과 2를 보면 전자의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남녀 모두 1990년대 전후부터 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세 나라 가운데서도 한국의 감소 추세가 가장 뚜렷하다. 특히 남성은 최근까지도 일본, 미국보다 암 사망률이 높지만 곧 순위가 뒤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후자의 예는 쿠바와 불가리아이다. 쿠바와 불가리아는 남녀 모두 2030년대까지 암 사망률이 뚜렷이 감소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보건의료 모범국이라고 일컫는 쿠바도 이 자료를 보면 암 관리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헝가리는 남녀 모두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2000년 무렵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쿠바와는 다른 양상이다.<br/>■ 후진국에선 암의 위협 점점 커질 듯<br/>한국인의 암 사망 변화 추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래프 3에서 보듯이 연령 표준화를 하기 전의 암 사망률은 남녀 모두 계속 증가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2030년대까지도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것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2014년(2012~2016년) 124명에서 2034년(2032~2036년) 71명으로 43% 감소하며, 같은 기간 여성은 56명에서 38명으로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br/>어째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을까? 보통 ‘5년 생존율’로 나타내는 암의 치료 성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993~1995년에는 41%였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5년 이상 산 사람은 41%이고 59%는 그 이전에 사망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2007~2011년에는 이것이 역전되어 66%가 생존하고 34%가 사망했다. 세 명 중 두 명은 살고 한 명만 죽는다는 뜻이다. 1940년대 콜레라 치사율 60%와 비교하면 의미가 더 생생할 것이다. 요컨대 암은 이제 ‘죽을병’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이지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적어도 당분간 암의 위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3.txt

제목: [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8) 통계로 보는 암 사망률  
날짜: 20140308  
기자: 황상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8100000023  
본문: 신뢰할 만한 한국인 ‘암 사망’ 통계는 1983년부터 작성되었다. ‘암 발생’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 작성은 그보다도 더 늦은 1999년에야 시작되었다. 따라서 1999년 이전은 한국인의 암 발생 양상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건강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지만 건강과 질병 통계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뒤져 있는 것이다.<br/>한국인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은 남녀 합해 1999년의 220명에서 2011년 320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12년 사이에 45% 증가한 셈이다. 남성은 292명에서 343명으로 17%, 여성은 173명에서 317명으로 83%나 늘어났다. 이처럼 여성의 암 발생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기간에 여성의 암 발생률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갑상샘암 발생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이 기간에 갑상샘암이 많이 늘어났지만 한국은 특히 예외적으로 급증했다. 한국인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남녀 합해 7.2명에서 68.7명으로 거의 10배가 되었다. 갑상샘암을 제외하면, 암 발생률은 2011년 현재 남성 320명, 여성 203명, 남녀 합해 251명이다. 1999년에 비해 남성은 10%, 여성은 26%, 남녀 합해 18% 늘어났다.<br/>한국 여성 갑상샘암, 남자는 위암 최다<br/>이번에는 암종별로 발생률을 살펴보자. 2011년 현재 남녀 합해 갑상샘암(인구 10만명당 69명)이 단연 선두이고, 그 다음으로 위암(44명), 대장암(39명), 폐암(29명), 유방암(25명), 간암(23명) 순이다. 남성과 여성은 암 발생률이 사뭇 다르다. 남성은 위암(65명), 대장암(53명), 폐암(47명), 간암(37명), 전립샘암(28명), 갑상샘암(24명) 순인 데 반해, 여성은 갑상샘암(114명), 유방암(50명), 대장암(28명), 위암(27명), 폐암(16명), 자궁경부암(12명) 순이다. 남녀 합해 갑상샘암을 제외하고는 위암이 여전히 1등이지만 추세대로라면 대장암이 몇 해 안에 위암의 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많다. 위암의 감소는 식품 관리의 개선, 대장암의 증가는 고기류 섭취의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r/>연간 암 발생자 수를 놓고 보면 1999년 10만1032명에서 2011년 21만8017명으로 116%나 늘어났다. 불과 12년 사이에 한국인 암 발생자 수가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암 발생자 수가 이렇게까지 증가한 이유나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의 증가이다.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암의 ‘호발 연령’, 즉 암이 많이 생기는 노년까지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으뜸가는 원인이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암 발생자 수가 급증한 것이다.<br/>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수명 증가 효과를 배제한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을 계산해 보더라도 암 발생은 증가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의학의 발전으로 초음파검사, CT 검사, MRI 검사 등 암 진단 기술이 개선되고 또 실제로 검진을 많이 함으로써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갑상샘암이다. 갑상샘암은 다른 대부분의 암과 달리 호발 연령이 노년 이전으로, 수명 증가와는 별로 관계없는 암이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착한 암’이기도 하다. 지난 10여년 사이 갑상샘암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크게 늘어났고 거기에 비례해 갑상샘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도 급증했다. 최근에는 과다 검사, 과잉 진료 논란까지 있을 정도이다. 갑상샘암 증가에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검사 기술의 발전과 검사 횟수의 증가이다.<br/>갑상샘암을 제외하더라도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은 지난 12년 사이 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진단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수명 증가 요인처럼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은 아직 없지만 대부분이 진단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명 증가에 의한 것, 진단 기술과 관계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로’ 암 발생이 증가한 몫인데 언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앞의 두 가지에 비해 미미할 따름이다. 현대사회에서 암이 크게 늘어난 현상을 현대문명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있지만 막상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별로 없다. 앞에서 ‘미미’하다고 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예컨대 삼성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문제는 환자·사망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br/>헝가리가 세계에서 암 사망률 가장 높아<br/>세계보건기구(WHO)는 80여개 국가의 암 관련 기구 등에서 자료를 수집·정리해 ‘암 사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들의 자료는 1950년대부터 있으며, 한국에 관한 것은 훨씬 뒤져 1985년부터 있다. 물론 국가에 따라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차이가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암 사망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가 간 비교도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암종과 성별, 연령에 따른 사망자 수, 단순 사망률(crude rate), 연령 표준화 사망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연령 표준화를 위한 표준인구로는 일본인 인구보건학자 세키 미쓰오가 고안한 ‘세계표준인구’를 사용하고 있다.<br/>여기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남성의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10만명당 227명)이고, 그 뒤를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이 따르고 있다. 상위 10개 국가가 예외 없이 모두 동유럽 국가이다. 한국(144명)은 네덜란드, 쿠바 등과 함께 20~30위권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한편 여성도 헝가리(120명)가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체코, 폴란드, 쿠바, 북아일랜드, 라트비아, 잉글랜드 순이다. 남성과 달리 동유럽 국가와 서유럽 국가가 뒤섞여 있다. 한국(62명)은 스페인, 일본 등과 함께 여성의 암 사망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br/>세계보건기구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세계 각국의 2030년대까지의 암 사망 추세를 예측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암 사망 및 인구 구성 등의 자료가 비교적 잘 축적, 정리된 국가들에 한정된 것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상황은 나와 있지 않다.<br/>연령 표준화 사망률로 나타낸 암 사망 추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속적으로 암 사망률이 감소하는 양상과 그렇지 못한 양상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해 필자가 만든 그래프 1과 2를 보면 전자의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남녀 모두 1990년대 전후부터 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세 나라 가운데서도 한국의 감소 추세가 가장 뚜렷하다. 특히 남성은 최근까지도 일본, 미국보다 암 사망률이 높지만 곧 순위가 뒤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후자의 예는 쿠바와 불가리아이다. 쿠바와 불가리아는 남녀 모두 2030년대까지 암 사망률이 뚜렷이 감소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보건의료 모범국이라고 일컫는 쿠바도 이 자료를 보면 암 관리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헝가리는 남녀 모두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2000년 무렵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쿠바와는 다른 양상이다.<br/>후진국에선 암의 위협 점점 커질 듯<br/>한국인의 암 사망 변화 추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래프 3에서 보듯이 연령 표준화를 하기 전의 암 사망률은 남녀 모두 계속 증가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2030년대까지도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것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2014년(2012~2016년) 124명에서 2034년(2032~2036년) 71명으로 43% 감소하며, 같은 기간 여성은 56명에서 38명으로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br/>어째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을까? 보통 ‘5년 생존율’로 나타내는 암의 치료 성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993~1995년에는 41%였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5년 이상 산 사람은 41%이고 59%는 그 이전에 사망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2007~2011년에는 이것이 역전되어 66%가 생존하고 34%가 사망했다. 세 명 중 두 명은 살고 한 명만 죽는다는 뜻이다. 1940년대 콜레라 치사율 60%와 비교하면 의미가 더 생생할 것이다. 요컨대 암은 이제 ‘죽을병’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이지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적어도 당분간 암의 위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4.txt

제목: [여의열전](44) 정태영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날짜: 20140307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7100000151  
본문: 광주·전남의 ‘뇌종양 드림팀’<br/>암 수술·치료 손꼽히는 실적 <br/>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정태영 교수(39). 악성뇌종양, 소아뇌종양 등 뇌종양 수술 치료와 연구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그에게 2004년은 아주 특별한 해였다. 그해 5월 화순전남대병원 개원과 함께 ‘뇌척수종양클리닉·감마나이프센터’에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br/>전문적이고 특화된 센터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 암 수술 및 치료 실적이 열손가락 안에 든다. 10년 전 새로운 병원 개원에 즈음해 전남대병원 신경외과의 뇌종양 분야를 담당하던 강삼석·정신·김인영 교수 등은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막 취득한 정 교수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정신과 자질, 인성이 수련 과정에서 이미 ‘낭중지추’처럼 드러난 그를 광주·전남 지역의 ‘뇌종양 드림팀’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이다.<br/><br/>정 교수는 스승과 선배들의 배려로 임상분야의 진료와 기초연구 실험을 병행했다. 뇌종양실험실에서 학위과정을 밟아 2006년 8월 강삼석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두 눈은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뇌를 다루는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노력과 인내심은 주변에 정평이 나 있다.<br/>정 교수는 일반적인 뇌수술뿐 아니라 두개골을 열지 않고 시행하는 감마나이프 뇌수술의 기술을 소유한 베테랑급이다. 특히 소속된 센터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임상연구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6월 전남대병원 제1회 의학연구학술상 외과부문을 수상했고, 2010년 6월에는 대한뇌종양학회 제20차 정기학술대회 임상부문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젊은 의학자 연구학술상(2010년 7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제50차 추계학술대회 종양부문 최우수논문상(심보성 학술상, 2010년 10월),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최우수논문상(연세우언학술상, 2013년 5월) 등 여러 가지 연구업적과 관련한 상을 탔다. 2004년부터 올 2월까지 국제저널(SCI급)에 1저자와 교신저자로 37편의 논문, 공동저자로 4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br/><br/>종양항원 이용한 면역치료 등<br/>악성뇌종양 임상연구에 매진<br/>1999년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모교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2004년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4년부터 1년간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과정을 거쳐 2005년 신경외과 임상교수가 됐고 2007년 전남대 의대 교수요원 발령을 받았다.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에 소아신경외과 연수를 다녀왔다.<br/>정 교수는 성인 악성뇌종양의 미세수술 및 항암치료, 소아 뇌종양 수술 등을 하면서 악성뇌종양에서 종양항원을 이용한 펩타이드 면역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악성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다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학술이사), 대한뇌종양학회(운영위원), 대한신경종양학회 등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br/><br/>“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해에 개소한 ‘뇌척수종양클리닉·감마나이프센터’는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가장 큰 인연입니다. 강삼석·정신 교수님은 뇌종양 분야를 세분화해 젊은 교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습니다.”<br/>정 교수의 생활신조는 ‘오늘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이다. “<span class='quot0'>제게 항상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바로 알게 하옵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용기를 갖고 수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하옵소서….</span>” 수술 전 ‘어느 의사의 기도(바클레이)’를 생각하며 수술에 임한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국어선생님이 “가볍게 읽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책”이라며 소개해 준 <꽃들에게 희망을>(트리나 폴러스)을 최근 다시 읽고 있다.<br/><br/>“악성뇌종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임상연구 분야도 다양하지만 증례보고만 하더라도 고민한 만큼 많이 알게 되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지식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임상 및 실험 연구들이 실제적인 치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br/>화순전남대병원 조용범 원장(이비인후과)은 “<span class='quot1'>정태영 교수는 2004년 병원 개원 때부터 뇌종양클리닉에서 소아 뇌종양·원발 뇌암의 수술 치료 및 기초연구에 힘써왔다</span>”며 “<span class='quot1'>연구능력이 탁월해 지나온 10년보다 미래가 훨씬 기대되는 교수</span>”라고 말했다.<br/><br/>정태영 교수가 말하는 악성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br/>뇌종양이란 두개골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말한다. 대부분의 뇌종양은 명확한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종양은 악성도에 따라서 악성뇌종양(악성신경교종, 뇌전이암)과 양성뇌종양(뇌수막종, 청신경초종, 뇌하수체종양, 양성신경교종)으로 나눌 수 있다.<br/>뇌종양은 뇌의 일부를 압박해 여러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최근 새로이 두통이 발생했거나, 특히 증상이 아침에 심하고 구역이나 구토 증상이 동반된다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간질발작, 기억력장애, 의식장애가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br/>악성뇌종양의 치료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이다. 외과적 뇌수술은 뇌종양을 치료하는 첫 번째 조치다. 뇌수술의 목표는 가능한 안전하게 많은 부분의 뇌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진단을 돕기 위해, 두개 내 압력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br/>방사선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막기 위해 종양 부위에 방사선 물질을 조사(照射)하는 것이다.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해 수행되기도 한다. 항암화학요법은 약제를 이용한 암의 치료법으로 흔히 항암치료라 부른다. <br/>요즘은 암세포나 암세포 주변의 특정 표적만을 공격해 항암작용을 하는 표적치료제의 사용이 늘고 있다. 치료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양관리다. 영양불균형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고 치료효과를 감소시킨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5.txt

제목: [파워닭의 치킨학개론]고기 고를땐 ‘레드푸드’ 잊어라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5100000026  
본문: 신년 초면 많은 사람이 그해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마음에 새기곤 한다. 사람마다 다짐이 다르겠지만, 적잖은 사람이 새해 각오로 다이어트를 꼽곤 한다. 건강 때문이다.<br/><br/>100세 시대에 건강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기 위함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요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45.5%에 이른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0만명 늘어난 수치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게 분명하다.<br/><br/><br/>건강은 멋진 몸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속에서 만들어진다. 다부진 체격이나 날씬한 몸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으로 병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br/><br/>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은 암이다. 그중 수년 전부터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다. 대장암은 이른 바 ‘선진국 질병’으로 불리는데, 이는 과도한 육류 섭취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고기를 비롯한 적색육의 과도한 섭취가 문제점으로 꼽힌다.<br/><br/>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 원인 중 음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암연구협회와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암 예방 식단으로 닭고기 같은 백색육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국내 교수진 역시 대장암 발병의 원인을 음식에서 찾는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적색육을 주원인으로 꼽는다.<br/><br/>30~40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어렵던 질병인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듯하다.<br/><br/>적색육의 헤모글로빈은 대장암의 원인인 용종을 성장시키고, 동물성 지방은 간에서 2차 담즙산 분비를 유도해 대장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 때문에 최근 백색육이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도 닭과 오리 고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br/><br/>닭고기는 백색육의 ‘대표주자’다. 특히 닭 가슴살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위도 찾기 힘들다. 닭 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로만 구성돼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막는다. 또 단백질 외에 크레아틴·아미노산 함량이 타 육류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흔히 다이어터 혹은 보디빌더만의 전유물로 느껴지던 닭 가슴살이 일반인에게도 무척 이로운 부위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br/><br/>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높은 서구권의 경우 레저와 스포츠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나라에서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닭고기를 대표로 한 백색육의 소비가 점차 늘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br/><br/>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적색육보다는 닭고기를 대표로 한 백색육, 특히 닭 가슴살 등으로 건강함을 다져 가기를 제안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6.txt

제목: 오늘의 인사 - 2014년 3월 5일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5100000046  
본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손병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성대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김근익<br/><br/>■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승한 △거대공공조정과장 오승곤 △정보보호정책과장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 류제명<br/><br/>■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장 김성호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황준석 △국립한글박물관장 문영호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김현모<br/><br/>■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손애리<br/><br/>■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손문기<br/><br/>■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발1팀장 이석문 △〃 개발2팀장 하유정 △인천세관 조사국장 강대집 △〃 감시국장 오상훈<br/><br/>■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상인 ◇서기관 승진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운영과장 장용진 △국제협력담당관실 이경호 △산림경영소득과 심상택 안진수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 이순욱 ◇기술서기관 승진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심명진 △창조행정담당관실 김원수 이광호 △법무감사담당관실 김경목 △산림정책과 최은형 조용철 △산불방지과 강성도 △산사태방지과 조화택<br/><br/>■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우경종<br/><br/>■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운영본부장 정명섭 △미래사업본부장 최병일 △기술연구소장 윤시태 △경영기획본부장 이철호 △환경관리센터본부장 김헌<br/><br/>■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민동기<br/><br/>■서울아산병원 △암센터소장 유창식 △내과장 유빈 △마취통증의학과장 및 수술실장 최인철 △신장내과장 양원석 △간이식·간담도외과장 김기훈 △위장관외과장 유문원 △심장병원 심장영상센터소장 강덕현 △암센터 두경부암센터소장 남순열 △〃 부인암〃 김용만 △〃 비뇨기암〃 홍준혁 △소화기병센터 간〃 이한주 △전립선〃 주명수<br/><br/>■분당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 이재서<br/><br/>■명지대 △경영대학원장 주상호 △교목실장 구제홍 △기획조정실장 김성철 △교육지원처장 임연수 △입학처장 노승종 △사무지원처장 서용범 △대학원 교학처장 양진승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위원장(자연캠퍼스) 한병문 △〃 〃 (인문캠퍼스) 박천오 △〃 부위원장 김선호 △보건소장 채의병<br/><br/>■한양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장 이용성<br/><br/>■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엄기일 △디자인대학원장 맹형재 △생명환경과학대학장 박세원 △예술디자인대학장 이필하 △대외협력처장 심충진 △언어교육원장 오제중 △기숙사 성관관장 최승철 △실험동물연구센터장 배영민<br/><br/>■경희사이버대 △부총장 겸 미래고등교육연구소장 안병진 △기획협력처장 박상현 △입학관리처장 이현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7.txt

제목: [동일본대지진 3년]“원전 노동자는 ‘광산 카나리아’ 같은 존재… 허용피폭량 근접 땐 해고”  
날짜: 20140305  
기자: 서의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5100000131  
본문: “원전 근로자는 ‘광산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이지요. 가스중독으로 먼저 죽어 인부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들일 돈이 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수습과 피난주민들에게 써야 마땅합니다.”<br/>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발생 3년(11일)을 앞두고 경향신문이 지난달 28일 도쿄 시내 한 음식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근무한 해고노동자를 단독으로 만나 사고 수습의 난맥상과 일본 정부의 원전사고 대응의 문제점을 들었다. 2012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뒤 원전노동자 지원단체에서 활동 중인 고보(가명·30대 중반)는 “<span class='quot0'>사고 현장은 일본의 불안정노동의 구조적 문제가 응축돼 있는 곳</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단계 하청구조하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다 버려지는 체제 속에선 온전한 사고 수습을 기대하기 어렵다</span>”고 말했다.<br/>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발주기업)과 원청업체인 대기업, 그 아래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다단계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하네(ピンハネ)’로 불리는 임금 가로채기가 이뤄지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나 오키나와(沖繩)에서까지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방사선량이 시간당 수백m㏜(밀리시버트·성인 기준치는 연간 1m㏜)에 이르는 건물 내 잔해처리 작업 등에 동원됐다가 피폭돼 이르면 2주일 만에 해고된다. <br/>고보는 “노동자들이 자주 교체되는 탓에 오염수 유출, 정화장치 작동 중단 등 실수에 따른 사고가 빈발한다”며 “도쿄전력이나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생활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 수습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보는 사진촬영은 물론 신원공개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br/><br/>▲ 사고 수습 노동자 잦은 교체 오염수 유출 등 사고 빈발<br/>“주민들이 보면 귀환 꺼린다” 간단한 방호복으로 바꿔<br/>옷 찢고 대소변 해결… 다단계 하청구조가 안전 위협<br/>- 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일했고, 어떤 일을 했나.<br/>“아는 이의 소개로 2012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일했다. 원전사고수습본부가 있는 면진 중요동에 딸린 가건물에서 원전 노동자들의 방사선 관리를 맡았다. 작업원들의 장비 착용을 도와주거나 방사선량 측정기를 나눠주고 회수한다. 방호복과 장화를 벗고 난 뒤 하루 피폭량을 체크한다. 외부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다.”<br/>- 방호복과 마스크를 쓰더라도 피폭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은가.<br/>“중장비를 몸에 걸치고 여름에 작업하면 장갑과 안면 마스크가 물범벅이 된다. 시야가 흐려져 마스크를 도중에 벗는데, 그러면 피폭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실내에서 근무했지만 정전이 잦아 실내에서도 땀범벅이었다. 나중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을 했다. 방호복을 가위로 찢다가 베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피폭이 우려되지만 선량계로 재본 뒤 반창고만 붙이고 만다. 처음엔 주의했지만 점차 ‘혼자 호들갑 떤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신경해진다.”<br/><br/>고보는 2011년 12월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사고 수습 선언을 한 뒤로 장비의 간소화가 추진됐다고 했다. “작업원들이 중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피난한 주민들의 귀환에 장애가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전면 마스크와 방사성 요오드를 걸러내는 필터가 수습 선언 이후에는 반면 마스크와 방진 필터로 교체됐어요. 장비가 간소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덤으로 피폭됐죠. 사고 수습 선언 전에는 형식적이나마 암 검사도 받았지만, 이것마저 없어졌습니다.”<br/>- 왜 10개월 만에 그만뒀나. <br/>“대부분 20m㏜가량 피폭되면 여러 이유를 붙여 해고한다. 작업원들의 연간 허용피폭량은 50mSv이지만 나중에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잘라내는 것이다. 처음엔 일당 1만엔(약 10만원)에 숙소와 조·석식비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가 도중에 숙식비 지원이 끊겨 항의하자 갑자기 ‘한 달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br/>- 어떤 작업이 가장 위험한가. <br/>“폭발이 난 건물 내부작업과 부지 잔해처리가 피폭량이 가장 높다. 2주 만에 잘리는 이들도 있다. 노동자 교체가 빈번하다 보니 실수로 전원을 자르거나 배관을 잘못 건드려 오염수를 뒤집어쓰는 일이 다반사다.”<br/>- 노동자들 간에 의사소통은 제대로 되는가.<br/>“회사 일을 입 밖에 내다 도쿄전력이나 원청업체에 찍히면 잘린다. 숙소 부근 술집에도 가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동네 전체에 ‘관계자’들이 깔려 있고, ‘스파이’도 많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에 항의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소속 회사마저 사업계약이 해지돼 동료들까지 연대책임을 진다. (익명으로) 상담센터에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 회사에 ‘직원 교육 잘 시키라’고 통보한다. 그러면 범인 색출이 이뤄진다. 원청업체 직원에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들면 ‘아웃’이니 참는다. ‘침묵과 복종’의 시스템이 확립돼 있다.”<br/><br/>고보는 “다단계 하청구조의 피라미드 속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수당도 못 받고 착취당하다 버려진다”며 “불안정 노동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고보는 원전 작업을 그만둔 뒤 피로·권태감과 우울증, 피부감각 상실로 여름에도 추위를 타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전사하면 야스쿠니신사에서 신으로 모셔진다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듯, 원전 노동자들도 한때 구국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피폭돼 해고된 이들의 장래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원전 노동을 전쟁에 비유했다.<br/>고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을 국가 대사로 생각한다면 원전 노동자들이 피폭된 뒤에도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고, 작업도 노동자의 안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고보가 속한 ‘피폭노동을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2~3월을 ‘피폭노동자 춘투’ 기간으로 정해 오는 14일 도쿄전력과 관련 부처를 상대로 임금체불,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에 나선다. 원전사고 3년을 맞아 사고 현장의 노동문제가 일본 사회의 현안으로 본격 떠오르게 되는 셈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8.txt

제목: [동일본대지진 3년]“원전 노동자는 ‘광산 카나리아’ 같은 존재… 허용피폭량 근접 땐 해고”  
날짜: 2014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41001364348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1)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 노동자 단독 인터뷰</strong><!-- SUB\_TITLE\_END--><br/><br/>“원전 근로자는 ‘광산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이지요. 가스중독으로 먼저 죽어 인부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들일 돈이 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수습과 피난주민들에게 써야 마땅합니다.”<br/><br/>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발생 3년(11일)을 앞두고 경향신문이 지난달 28일 도쿄 시내 한 음식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근무한 해고노동자를 단독으로 만나 사고 수습의 난맥상과 일본 정부의 원전사고 대응의 문제점을 들었다. 2012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뒤 원전노동자 지원단체에서 활동 중인 고보(가명·30대 중반)는 “<span class='quot0'>사고 현장은 일본의 불안정노동의 구조적 문제가 응축돼 있는 곳</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단계 하청구조하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다 버려지는 체제 속에선 온전한 사고 수습을 기대하기 어렵다</span>”고 말했다.<br/><br/>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발주기업)과 원청업체인 대기업, 그 아래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다단계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하네(ピンハネ)’로 불리는 임금 가로채기가 이뤄지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나 오키나와(沖繩)에서까지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방사선량이 시간당 수백m㏜(밀리시버트·성인 기준치는 연간 1m㏜)에 이르는 건물 내 잔해처리 작업 등에 동원됐다가 피폭돼 이르면 2주일 만에 해고된다. <br/><br/>고보는 “노동자들이 자주 교체되는 탓에 오염수 유출, 정화장치 작동 중단 등 실수에 따른 사고가 빈발한다”며 “도쿄전력이나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생활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 수습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보는 사진촬영은 물론 신원공개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br/><br/><br/><b>▲ 사고 수습 노동자 잦은 교체 오염수 유출 등 사고 빈발<br/>“주민들이 보면 귀환 꺼린다” 간단한 방호복으로 바꿔<br/>옷 찢고 대소변 해결… 다단계 하청구조가 안전 위협</b><br/><br/>- 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일했고, 어떤 일을 했나.<br/><br/>“아는 이의 소개로 2012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일했다. 원전사고수습본부가 있는 면진 중요동에 딸린 가건물에서 원전 노동자들의 방사선 관리를 맡았다. 작업원들의 장비 착용을 도와주거나 방사선량 측정기를 나눠주고 회수한다. 방호복과 장화를 벗고 난 뒤 하루 피폭량을 체크한다. 외부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다.”<br/><br/>- 방호복과 마스크를 쓰더라도 피폭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은가.<br/><br/>“중장비를 몸에 걸치고 여름에 작업하면 장갑과 안면 마스크가 물범벅이 된다. 시야가 흐려져 마스크를 도중에 벗는데, 그러면 피폭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실내에서 근무했지만 정전이 잦아 실내에서도 땀범벅이었다. 나중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을 했다. 방호복을 가위로 찢다가 베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피폭이 우려되지만 선량계로 재본 뒤 반창고만 붙이고 만다. 처음엔 주의했지만 점차 ‘혼자 호들갑 떤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신경해진다.”<br/><br/><br/>고보는 2011년 12월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사고 수습 선언을 한 뒤로 장비의 간소화가 추진됐다고 했다. “작업원들이 중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피난한 주민들의 귀환에 장애가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전면 마스크와 방사성 요오드를 걸러내는 필터가 수습 선언 이후에는 반면 마스크와 방진 필터로 교체됐어요. 장비가 간소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덤으로 피폭됐죠. 사고 수습 선언 전에는 형식적이나마 암 검사도 받았지만, 이것마저 없어졌습니다.”<br/><br/>- 왜 10개월 만에 그만뒀나. <br/><br/>“대부분 20m㏜가량 피폭되면 여러 이유를 붙여 해고한다. 작업원들의 연간 허용피폭량은 50mSv이지만 나중에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잘라내는 것이다. 처음엔 일당 1만엔(약 10만원)에 숙소와 조·석식비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가 도중에 숙식비 지원이 끊겨 항의하자 갑자기 ‘한 달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br/><br/>- 어떤 작업이 가장 위험한가. <br/><br/>“폭발이 난 건물 내부작업과 부지 잔해처리가 피폭량이 가장 높다. 2주 만에 잘리는 이들도 있다. 노동자 교체가 빈번하다 보니 실수로 전원을 자르거나 배관을 잘못 건드려 오염수를 뒤집어쓰는 일이 다반사다.”<br/><br/>- 노동자들 간에 의사소통은 제대로 되는가.<br/><br/>“회사 일을 입 밖에 내다 도쿄전력이나 원청업체에 찍히면 잘린다. 숙소 부근 술집에도 가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동네 전체에 ‘관계자’들이 깔려 있고, ‘스파이’도 많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에 항의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소속 회사마저 사업계약이 해지돼 동료들까지 연대책임을 진다. (익명으로) 상담센터에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 회사에 ‘직원 교육 잘 시키라’고 통보한다. 그러면 범인 색출이 이뤄진다. 원청업체 직원에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들면 ‘아웃’이니 참는다. ‘침묵과 복종’의 시스템이 확립돼 있다.”<br/><br/><br/>고보는 “다단계 하청구조의 피라미드 속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수당도 못 받고 착취당하다 버려진다”며 “불안정 노동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고보는 원전 작업을 그만둔 뒤 피로·권태감과 우울증, 피부감각 상실로 여름에도 추위를 타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전사하면 야스쿠니신사에서 신으로 모셔진다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듯, 원전 노동자들도 한때 구국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피폭돼 해고된 이들의 장래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원전 노동을 전쟁에 비유했다.<br/><br/>고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을 국가 대사로 생각한다면 원전 노동자들이 피폭된 뒤에도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고, 작업도 노동자의 안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고보가 속한 ‘피폭노동을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2~3월을 ‘피폭노동자 춘투’ 기간으로 정해 오는 14일 도쿄전력과 관련 부처를 상대로 임금체불,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에 나선다. 원전사고 3년을 맞아 사고 현장의 노동문제가 일본 사회의 현안으로 본격 떠오르게 되는 셈이다.<br/><br/><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69.txt

제목: [책과 삶]착취·자살…‘모순 투성이’ 대학 향한 청소노동자의 은밀한 저항  
날짜: 2014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1100000113  
본문: ▲ 양춘단 대학탐방기…박지리 지음 | 사계절 | 388쪽 | 1만2800원<br/>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65세 양춘단씨가 대학에 가게 됐다. 한껏 들뜬 춘단은 뒤늦은 한풀이를 하듯 망자들을 향해 혼잣말을 한다. “엄메 아베여, 춘단이 오늘 대학교 댕겨왔습니다. 무슨 대학교냐고요, 아 엄메 아베 둘 다 지 초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게 하셨지 않허요. 그래서 지 혼자 힘으로 보란 듯이 대학교 갔어라.”<br/>장편소설 <양춘단 대학탐방기>는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주인공 춘단이 남편의 암수술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중심인물은 춘단이지만, 작가가 차진 문장으로 직조하는 이야기의 부챗살은 세대적으로는 춘단의 부모, 춘단과 영일 부부, 이 부부의 두 아들 등 삼대에 이르는 인물들을 아우르고, 소재적으로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 대기업 노동자 정리해고, 자본에 포획된 대학, 미래 없는 입시지옥 등 시의적 이슈들을 품으며 넓게 퍼져나간다.<br/>춘단은 온갖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에 가게 됐다는 자랑을 하지만, 대학에서 그의 신분은 학생이 아니라 용역회사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다.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 소일을 위해 청소를 시작한 춘단은 동료 청소노동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겉돈다. 대신 춘단의 말벗이 되는 건 이 대학 시간강사 한도진이다.<br/>소설에 등장하는 대학은 오늘날 한국 대학의 실감나는 초상화이면서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공간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시급을 4800원에서 4300원으로 깎고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새 소장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는 단 하루 만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대학 학생회도 이들을 돕지만, 경찰이 투입되자 파업은 순식간에 진압된다. 달라진 건 없다. “<span class='quot0'>간병일을 한 적 있는 최 여사와 아픈 부인을 둔 빚이 많은 이씨와 공무원이던 한씨가 나간 자리에 역시나 병원 신세를 진 적 있고 한때는 국가를 위해 일했고 월급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span>” 들어왔을 뿐이다. <br/>춘단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덕분에 홀로 살아남는다. 그러나 시간강사에 대한 대학의 부당한 대우에 좌절해 자살한 한도진이 보낸 일기장을 받은 다음부터 대학을 향해 은밀한 복수를 시작한다. 춘단은 청소노동자 신분을 이용해 남녀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한도진이 일기에 적은 내용을 화장실 벽에 낙서처럼 적어나간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도진의 일기를 빼앗기면서 은밀한 복수는 중단된다. 솜씨 좋은 석공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돌을 다루는 데 재능을 보였던 춘단은 어느 날 밤 망치와 정을 들고 학교의 상징물인 거대한 코끼리 석상을 향해 다가간다.<br/>이 소설의 힘은 춘단이라는 주인공의 독특한 개성에서 나온다. 춘단의 능청스러우면서도 무구한 시선은 우리 사회의 속물성과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렌즈 구실을 하는 동시에, 이 소설이 자칫 심각하게만 흐를 수 있는 소재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이야기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기능한다. <br/>작가는 2010년 청소년소설 <합체>로 사계절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이번 소설은 그의 세 번째 소설이자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소설이다. 진지한 문제의식을 유머와 풍자로 엮어낸 이 소설은 작가가 장편 작가로서 품고 있는 가능성을 탄탄한 솜씨로 보여주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0.txt

제목: [책과 삶]착취·자살… ‘모순투성이’ 대학 향한 청소노동자의 은밀한 저항  
날짜: 2014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1100000199  
본문: ▲ 양춘단 대학탐방기…박지리 지음 | 사계절 | 388쪽 | 1만2800원<br/>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65세 양춘단씨가 대학에 가게 됐다. 한껏 들뜬 춘단은 뒤늦은 한풀이를 하듯 망자들을 향해 혼잣말을 한다. “엄메 아베여, 춘단이 오늘 대학교 댕겨왔습니다. 무슨 대학교냐고요, 아 엄메 아베 둘 다 지 초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게 하셨지 않허요. 그래서 지 혼자 힘으로 보란 듯이 대학교 갔어라.”<br/>장편소설 <양춘단 대학탐방기>는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주인공 춘단이 남편의 암수술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중심인물은 춘단이지만, 작가가 차진 문장으로 직조하는 이야기의 부챗살은 세대적으로는 춘단의 부모, 춘단과 영일 부부, 이 부부의 두 아들 등 삼대에 이르는 인물들을 아우르고, 소재적으로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 대기업 노동자 정리해고, 자본에 포획된 대학, 미래 없는 입시지옥 등 시의적 이슈들을 품으며 넓게 퍼져나간다.<br/>춘단은 온갖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에 가게 됐다는 자랑을 하지만, 대학에서 그의 신분은 학생이 아니라 용역회사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다.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 소일을 위해 청소를 시작한 춘단은 동료 청소노동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겉돈다. 대신 춘단의 말벗이 되는 건 이 대학 시간강사 한도진이다.<br/>소설에 등장하는 대학은 오늘날 한국 대학의 실감나는 초상화이면서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공간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시급을 4800원에서 4300원으로 깎고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새 소장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는 단 하루 만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대학 학생회도 이들을 돕지만, 경찰이 투입되자 파업은 순식간에 진압된다. 달라진 건 없다. “<span class='quot0'>간병일을 한 적 있는 최 여사와 아픈 부인을 둔 빚이 많은 이씨와 공무원이던 한씨가 나간 자리에 역시나 병원 신세를 진 적 있고 한때는 국가를 위해 일했고 월급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span>” 들어왔을 뿐이다. <br/>춘단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덕분에 홀로 살아남는다. 그러나 시간강사에 대한 대학의 부당한 대우에 좌절해 자살한 한도진이 보낸 일기장을 받은 다음부터 대학을 향해 은밀한 복수를 시작한다. 춘단은 청소노동자 신분을 이용해 남녀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한도진이 일기에 적은 내용을 화장실 벽에 낙서처럼 적어나간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도진의 일기를 빼앗기면서 은밀한 복수는 중단된다. 솜씨 좋은 석공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돌을 다루는 데 재능을 보였던 춘단은 어느 날 밤 망치와 정을 들고 학교의 상징물인 거대한 코끼리 석상을 향해 다가간다.<br/>이 소설의 힘은 춘단이라는 주인공의 독특한 개성에서 나온다. 춘단의 능청스러우면서도 무구한 시선은 우리 사회의 속물성과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렌즈 구실을 하는 동시에, 이 소설이 자칫 심각하게만 흐를 수 있는 소재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이야기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기능한다. <br/>작가는 2010년 청소년소설 <합체>로 사계절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이번 소설은 그의 세 번째 소설이자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소설이다. 진지한 문제의식을 유머와 풍자로 엮어낸 이 소설은 작가가 장편 작가로서 품고 있는 가능성을 탄탄한 솜씨로 보여주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1.txt

제목: [사설]세 모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날짜: 2014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1100000122  
본문: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 셋방에서 60대 초반의 어머니가 30대 초·중반의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세 모녀는 테이프로 창문을 막고 좁은 방에 연탄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동반자살하면서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 하나를 남겼다. 봉투에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하직하면서도 마지막 가는 길에서까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착한 심성이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br/>세 모녀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주변 정황을 살피는 것으로 그 심경을 헤아릴 뿐이다. 어머니 박모씨는 12년 전 남편이 암으로 숨진 뒤 신산의 생활을 이어온 듯하다. 집안에 암환자가 있으면 보통의 가정은 금세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현실 아닌가. 두 딸은 지병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여서 성인이라고는 해도 자립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박씨가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으나 한 달 전쯤 얼음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마저 할 수 없게 되자 절망한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집주인은 “정말 착한 양반들이었는데…” 하며 안타까워했다. 들을수록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이다.<br/>정직하고 성실한 가정이 단지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세상이라면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박씨 가정도 세금을 내온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국가의 보호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박씨 가정이 막다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부의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것 아닌가.<br/>세 모녀의 죽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새삼 가르쳐준다. 21세기는 국민소득이 몇 만달러를 돌파했다고 웃고 박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소외계층을 방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상태에서 쌓아올린 숫자는 의미가 없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근본은 복지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국민행복시대도 복지에서 출발한다.<br/>세 모녀는 떠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죄송한 것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이고 사회다. 우리 모두 세 모녀에게 머리숙여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까닭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한 릴케의 시 ‘엄숙한 시간’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2.txt

제목: 인체 조직 기증으로 선물받은 황연옥씨의 새 삶  
날짜: 2014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1100000096  
본문: 골육종은 뼈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희귀병으로 뼈암의 일종이다. 하지만 초기에 종양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 들어낸 부위가 크면 뼈를 비롯한 조직 이식이 필요하다. 10대에 발병해 30대에 뼈 이식수술을 받은 황연옥씨의 다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받은 결과지만 움직이고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뼈와 혈관, 피부 등의 인체 조직을 사후 기증하면 최대 1백 명을 살릴 수 있다.<br/><br/>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기대주였던 노진규 선수는 통증을 참으며 훈련하다 왼쪽 팔꿈치와 어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제야 골육종으로 인해 약해진 뼈가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서울원자력병원에서 왼쪽 어깨 부위에 생긴 악성종양과 뼈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노진규는 앞으로 6개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완치 확률은 60~70% 정도라고 한다.<br/><br/>한 국가대표의 올림픽 출전의 꿈을 가로채고, 황연옥씨(33)의 10대를 투병으로 보내게 한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악성종양이다. 뼈의 성장이 왕성한 사춘기에 가장 빨리 자라는 다리나 팔에 잘 생긴다. 발생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2배 많은데, 통증을 성장통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1백만 명당 10~15명 정도 걸릴 만큼 드문 병이다. 암의 전이가 가장 흔한 곳은 폐인데, 다리에 발병한 경우 생존율이 더 높다.<br/><br/>성장기에 맞닥뜨린 골육종이라는 병<br/>황연옥씨는 열두 살 때 골육종 판정을 받았다. 당시 왼쪽 다리의 종양을 떼어 내고 이를 대체하는 인공관절을 이식했고, 20년간 무릎 뼈가 다 펴지지 않는 불편에도 늘 미소 띤 얼굴이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수술비를 대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일찍이 취업전선에 나섰고, 7년 전에 남편 김정현씨를 만나 결혼도 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 바삐 사느라 불편한 것도 잊고 있던 황연옥씨에게 다시 고통이 찾아온 것은 지난 2012년. 20년 동안 큰 탈 없이 지냈지만 인공관절을 덧댄 다리가 부러진 걸 모르고 몇 달이나 방치한 것이 화근이었다. 인공관절을 다시 넣어야 했는데, 문제는 20년 전의 인공관절 부품을 구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술해줄 의사를 찾았지만, 워낙 힘든 수술이라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마지막으로 찾아간 서울원자력병원에서 뼈 이식수술을 담당할 전대근 과장을 만난 것은 천운이었다. 전 과장은 20년 전 황연옥씨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이후 수많은 골육종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한 베테랑 의사다.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두 달 뒤 다시 걷게 된 순간은 기적 그 자체였지만 그러기까지 무척이나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불편한 다리와 더불어 살아야 했다.<br/><br/>“다리가 쑤시고 아팠는데 성장통인 줄 알았어요. 종양 부위가 약해지는 바람에 뛰다가 넘어져서 금이 갔죠. 병명을 몰라서 여러 병원을 떠돌다가 결국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못 갔고, 중학생 때는 깁스처럼 생긴 보조기를 차야 해서 교복 치마를 못 입고 바지를 맞춰 입었어요. 사춘기라 남들 시선도 많이 의식해 더 힘들었어요. 한번은 방과 후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정류장에 서 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은 뛰어가서 버스를 잡아타는데 전 못 뛰잖아요. 저만 남겨놓고 버스가 출발했어요.”<br/><br/>뒤늦게 알아차린 친구들이 돌아와줬지만 그때의 속상함은 쉬 가시지 않았다.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그녀에게 재래식 변기가 있는 학교 화장실은 내내 불편했다. 입원 치료 중에는 독한 약물 때문에 구토가 일상이다시피 했다. 당시는 완치율도 지금보다 훨씬 낮을 때(지금은 70%가 넘지만 당시엔 절반 정도였다고 한다)라 같은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또래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지켜봐야 했다. 의연한 황연옥씨는 ‘다시 건강해진다면 정말 날아다닐 텐데’라고 되뇌면서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타고난 몸이 워낙 건강하기도 했고, 묵묵히 병실 뒷바라지를 하며 힘든 티를 내지 않았던 가족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br/><br/>“지금까지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요. 특성화고교 졸업 후 취업을 했고 무사히 결혼도 했어요. 아이를 낳아보니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더 사무쳐요. 만약 내 자식이 아프다면 저도 그렇게 희생할 것 같아요. 지금도 언니랑 동생에게는 많이 미안해요. 제 병원비 때문에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하셨거든요. 부모님께 보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밥도 많이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리는데,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제가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br/><br/>2007년에 결혼해 얻은 여섯 살 태산이는 청소도 돕고 잔심부름도 할 만큼 기특하다. 엄마가 수술하고 나서 잘 못 걸을 때는 엄청 걱정됐는지 이불도 깔아주고 빨래도 척척 개는 모습을 보면 부쩍 철이 든 것 같다.<br/><br/>가족 덕분에 되찾은 평범한 행복<br/>황연옥씨의 치료비가 20년 전 기준으로 1억원을 넘길 정도였다니 얼마나 큰돈인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버는 족족 병원비로 들어가 저축해둔 돈도 없어 형편이 빤한데, 작년에 다시 큰 수술을 치르면서 여러모로 마음고생도 치렀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10년 정도로 영구적이지 않아서 재수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황연옥씨는 아예 뼈를 이식하기로 결정한 뒤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20년 동안 인공관절의 신세를 졌지만 다리뼈를 이식받을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만큼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온몸으로 체험한 셈이다. 지금껏 전신마취만 예닐곱 번을 한 그녀는 이번에는 한결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치료도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고, 수술 과정에서도 환자를 위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 수술실에 들어갈 때의 무거운 마음도 덜했다고.<br/><br/>“서울원자력병원 전대근 과장님이 집도하셨어요. 어렸을 땐 깐깐한 인상이었는데 인자한 느낌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걸으려고 수술하는 거잖아. 한번 (수술)해보지 뭐’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분야에서 명의로 알려진 분이고 제겐 은인이자 부모님만큼 감사한 분이죠. 수술 전에 상담하면서 이식할 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뼈끼리 흡수를 한대요. 그걸 보고 수술을 결심했는데 지금도 엑스레이를 보면 제 다리인데도 정말 신기해요. 뼈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피부 조직도 이식해서 사람을 살리는 걸 보면 이식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br/><br/>인공관절을 제거하고, 이식받은 뼈를 넣어서 묶고, 왼다리 길이를 늘이는 장치까지 넣는 대수술이었다. 그 영광의 흉터가 발목부터 무릎 위쪽까지 길게 남아 있다. 다리 전체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 엄마가 낯설어 아이들은 뒷걸음을 칠 정도였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날이 흐리면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근처에도 못 오게 했을 텐데 재활 치료까지 끝난 지금은 아이들에게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할 만큼 이물감이나 고통이 사라졌다. 태산이는 의사가 돼 엄마의 다리 흉터를 없애준다고 큰소리를 치고, 둘째 태연이도 이에 질세라 간호사가 되겠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대견한 마음이 절로 든다.<br/><br/>“아이들이 다리를 주물러주기에 제가 ‘아이고, 시원하다’ 했더니 ‘울 엄마, 다 나았네’ 해서 한참 웃었어요.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조심하라고 했잖아. 다리 다치면 큰일 나’ 그래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다친 줄 알아요(웃음). 겉보기에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목욕탕을 같이 가면 흉터가 보이니까 걱정되나 봐요.”<br/><br/>골육종 환자들은 완치 후에도 약물 치료의 영향으로 불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원체 건강한 덕에 두 아이도 선물받고, 아내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도와주는 남편을 만난 것도 큰 복이다. 황연옥씨가 다섯 시간이나 걸린 대수술을 끝내고 나왔을 때, 마취 때문에 흐릿한 기억속에서도 단 하나 또렷한 장면은 남편이 엉엉 우는 모습이었다고.<br/><br/>난치병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희망이 됐으면<br/>뼈 이식수술로 한결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진 황연옥씨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조직 기증에 대해 알게 됐다. 골육종은 제때 치료하고 이식을 받지 않으면 성장기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후 뼈 기증자가 꼭 필요하다. 또 「지선아 사랑해」의 이지선씨처럼 심각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신속한 피부 기증과 이식이 생사를 좌우한다고 한다. 심한 화상으로 손실된 피부를 통해 체내 수분이 급속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나 기증받은 타인의 피부를 이식해야 한다. 아직은 기증되는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해오는 비율이 높지만 이식하는 조직의 질병 유무, 조직 적합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국내에서 검증 시스템을 거쳐 기증받는 조직이 월등히 안전하다.<br/><br/>“저도 남편하고 같이 조직 기증 서약을 했어요. 간병을 도와준 여동생도 서약했고요. 저처럼 아픈 사람의 다리가 돼줄 순 없겠지만 건강한 눈과 다른 조직은 줄 수 있잖아요. 제게 도움을 주신 분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온 만큼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어린 골육종·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도 싶고요. 소아암을 앓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병실로 찾아오셔서 치료는 어떻게 했는지, 출산은 잘 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변의 관심이 많고 어린 친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치료도 쉬워지고 고통도 줄어들 거예요.”<br/><br/>뼈를 이식하기까지 적합한 조직이 없어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뼈 이식도 보험은 가능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찮아 걱정이었는데, 모금 덕도 보고 병원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원받았으니 여러모로 운이 좋았다.<br/><br/>어차피 나중에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생전에 가졌던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으니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나누고 살아야 할 텐데, 그중 가장 고귀한 것이 몸의 일부를 타인을 위해 내어놓는 일이 아닐까. 티 없이 맑은 황연옥씨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뒤 기꺼이 기증자가 됐듯이 수혜자가 곧 기증자가 되는 작은 기적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리라 기대해본다.<br/><br/>Tip 인체 조직 기증, 어떻게 할까<br/>어떤 인체 조직을 기증할 수 있나? 뼈, 피부와 근막, 연골, 양막,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을 기증할 수 있다. 뇌사(심장은 박동하지만 뇌는 정지된 상태) 상태에서 가능한 장기 기증보다 기증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가 넓고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br/><br/>기증 절차와 방법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기증 서약을 할 수 있다. 실제 사망 후에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뤄지므로 서약 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다. 평소 가족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사망 후 유가족이나 의료진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상담과 적합성 평가를 거쳐 조직 기증이 진행된다. 시신은 복원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인도되는데 대략 15시간 걸린다.<br/><br/>조직 기증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를 통한 정기 후원 및 일시 후원,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환자들을 도울 수 있으며, 고보습제를 매일 발라야 하는 화상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스킨푸드의 ‘로열허니 착한 수분크림’은 1개 구매할 때마다 화상 환자에게 1개가 기부된다.<br/><br/>사고나 질병으로 조직 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연간 3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 사람의 기증 서약은 최대 1백 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국내 유일의 인체 조직 기증 전문 홍보 기관으로 개인 및 기업 후원을 통해 ‘천사의 선물’ 기금을 마련하고, 화상과 골육종 환자 등 인체 조직 기증이 시급한 환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기증 서약을 접수한다. 문의 1544-0606<br/><br/>“<span class='quot0'>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온 만큼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어린 골육종·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span>”<br/><br/>뼈 이식수술 후 병원에서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황연옥씨. 아직 어린 골육종 환자들에게 평범한 가정을 이룬 그녀의 존재는 희망과도 같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3.txt

제목: LADIES’ COUNSELOR  
날짜: 2014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1100000097  
본문: .<br/>자문위원<br/>부부 고민<br/>김선재(LPJ마음건강의원 원장)<br/>이정희(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임상심리사)<br/>안은영(「여자 생활 백서」, 「여자 인생 충전기」 저자)<br/>김숙기(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원장)<br/>이인철(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br/><br/>건강 고민<br/>정지안(서울라헬여성의원 원장)<br/>조애경(WE클리닉 대표원장)<br/>최광현(한국트라우마가족치료연구소 소장)<br/><br/>육아 고민<br/>손석한(연세신경정신과 원장)<br/><br/>교육 고민<br/>노관호(뉴스터디 중계 본원 원장)<br/><br/>재테크 고민<br/>윤희권(Yoon’s FPG 대표)<br/>우용표(더 코칭&컴퍼니 대표)<br/><br/>고민 상담 접수는…<br/>●「레이디경향」 애독자 엽서, 이메일(ladykh@khan.kr), 공식 블로그(ladykh.khan.kr) [고민 해결 방]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제목에 [고민 상담]이라고 적어주시고, 선물 발송을 위한 연락처(공식 블로그 이용시 ‘비공개’ 댓글)를 남겨주세요.<br/><br/>Present<br/>● 이달 ‘독자 고민 해결단’을 통해 고민을 해결한 독자 중 5명에게 SKR테라피 시스템(문의 02-516-3557)의 두피 케어 제품 ‘O2버블 케어 시스템 시리즈’ 중 손상되고 건조한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IM6 브릴리언트 샴푸’와 미세한 거품 입자로 두피의 노폐물을 자극 없이 제거하는 ‘O2버블 스켈프 트리트먼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제품은 배송해드립니다.<br/><br/><br/>부부 · 가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발 마사지 요구하는 예비 시어머니, 동창 모임에 빠진 남편,<br/>늘 쓰레기 주워오는 남편, 하루아침에 묏자리 잃어버린 억울한 가족<br/><br/>Q 의류 매장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전에 피부 미용 일을 했었는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어머님께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한 번쯤은 해드릴 수 있는데 갈 때마다 그러시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지난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모님들과 이모부님들까지 와 계신 자리에서 저보고 발 마사지를 하라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얼른 해드려” 하고 등을 밀었고 할 수 없이 각질 제거와 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모님과 이모부님들도 해주라고 하셔서 초면에 발까지 보는 사이가 됐네요. 명절 선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와서 마사지나 해달라고 하시며 좋아하십니다. 문득 우리 엄마가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시댁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br/>올가을쯤 결혼할 생각인데 시댁이 가까이 있어 매일 불러서 마사지를 시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진저리가 처집니다. 시부모님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등을 떠민 남자친구에게 정말 서운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요즘은 그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네요. 주위에선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는데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충북 청주시 김OO)<br/>이정희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즐거워야 할 시기에 예비 시댁 어른들과 남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혼 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의 행동은 당신을 이미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허물없이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께는 발 마사지가 좋은 선물일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이모님 부부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 며느리에게 빈번하게 발 마사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하고 도가 지나친 행동으로 보입니다.<br/>따라서 어른들의 무리한 요구와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속만 태우고 있으면 남편이나 어른들은 당신의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정리되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면 더욱더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어른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시고 더 이상 발 마사지해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단호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br/><br/>Q 얼마 전 남편이 SNS 모바일 커뮤니티 동창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그 이후로 약속도 많이 생기고 동창 모임도 자주 가지는데 자꾸 신경 쓰이네요. 남편은 여러 명이 단체로 만나다 거라 괜찮다고 하지만 요즘 그렇게 만나다 불륜관계로 이어진 경우가 워낙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전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밉기도 하고 제가 너무 구속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서울 송파구 이OO)<br/>김숙기 남편이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 동창 모임이 불륜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내 남편도 혹시?’ 하는 우려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지는 않지요. 내가 예민해진 이유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과거 여자 문제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지, 남편 이외의 남성, 특히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불륜 혹은 그 외에 전 남자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여자 문제로 인해 고통받은 기억이 있었는지, 그 뿌리는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고 남편과 대화하세요. 이때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니까요. 내 마음 상태를 고백하고 긴밀한 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br/><br/>Q 50대 주부입니다. 2년 전 30여 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하고 수위 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꾸 밖에서 버려진 물건들을주워오는 겁니다. 선풍기, 라디오, 그릇, 물통 등등 남이 쓰다 버린 물건을 주워오니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렇게 주워온 선풍기가 집에 다섯 대나 됩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남편이라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주워온 물건을 갖다버리면 무섭게 화를 내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퇴직 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이 쓰다 버린 물건까지 주워서 생활할 정도는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가족 몰래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을 기웃거리는 남편을 볼 때마다 동네 창피하고 화도 나고 걱정도 돼요. 어찌 해야 할까요? (광주 북구 은OO)<br/>김선재 정년퇴직 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된 중고품 수집 행동이 점차 수집병(Hoarding Disorder)으로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문제는 강박증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 쓸데없는 물건이라도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더 큰 문제나 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점은 첫째, 쓸데없이 모은 물건이 공간을 점유해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 둘째, 중고 물건 혹은 쓰레기를 가져와서 생기는 위생상의 문제, 셋째, 이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와 스트레스의 증대, 넷째, 주택 파손 등으로 이웃들에게 끼치는 위험의 증대 등입니다.<br/>남편의 문제가 경제적인 걱정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족이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고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모아온 물건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지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건을 팔아보도록 하고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도 생각해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으는 행동이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주십시오.<br/>그 후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임을 알고 나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수집에 대한 강박사고·강박행동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으로 판단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는 심한 경우 병으로 인정받아 진단 기준이 만들어질 정도로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며 심각한 문제로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br/><br/>Q 안녕하세요. 32세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2년 전 조상님 묏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묏자리가 있던 곳은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곳으로 저희 소유의 산이 아니라 산 주인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산 주인 부인이 다른 분에게 산을 팔면서 바뀐 주인이 산소를 다 밀어버렸지 뭡니까. 저희에게는 어떤 연락이나 통보도 하지 않고요. 산소가 다 밀린 뒤에야 동네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바뀐 주인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원래 산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br/>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던 중 동네 사람들이 증언을 서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서겠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산소를 밀어버린 굴착기 기사분이 찾아가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 쪽에서 또 다른 증인을 세워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억울하다며 항소하셨고 여기서도 지고 말았습니다. 조상님 유골을 잃어버리고 변호사 비용에 재판 비용, 재판 끝난 뒤 손해배상 비용 5백만원까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을 비롯해 온 가족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충북 청주시 이OO)<br/>이인철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자의 권리 구제를 받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안타깝게 1심에서 패소를 했고,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까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으셨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 관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절차이기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br/>법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례자의 경우 분묘기지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분묘 소유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저버리고 있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 산소가 밀릴 당시까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해왔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증언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한 것은 위 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심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br/><br/>profile<br/>김선재는…<br/>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PJ 마음건강의원원장. 부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병리적 증상과 고민에 대해 핵심을 짚어낸 답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부들이 모르는 남성 심리까지 꿰뚫어본다.<br/><br/>profile<br/>김숙기는…<br/>나우미가족문화<br/>연구원 원장.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까지, 각종 부부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솔루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부 문제 전문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속 시원한 솔루션으로 독자들의 고민을 풀어준다.<br/><br/>profile<br/>이인철은…<br/>법무법인 윈의 대표변호사. 조정 잘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두 사람의 행복하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똑똑한 이혼법을 조언한다. 저서로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가 있다.<br/><br/>재테크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2014년 주식 시장의 흐름, 개인 정보 유출 대처법, 단기간 대출 상품의 종류,<br/>집주인의 융자에 대비하는 법, 이사시 잊지 말고 챙겨둬야 할 항목<br/><br/>Q 몇 년 전 주식 폭락 직전에 비상금 전액을 털어 투자를 했습니다. 대기업 우량주라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네요. 딱히 좋은 방법이 없어 돈을 계속 묶어두고 있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2014년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식 투자시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세요. (부산 연제구 김OO)<br/>우용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여의 기간 동안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주식 가격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차선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기업 우량주라 해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오른다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br/>2014년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흐림’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어느 곳에서도 ‘경제 회복’이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해볼 만한 좋은 방법은 적립식 펀드의 원리를 응용해 조금씩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세계경제가 회복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연일 맑음’이 되는 시점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br/><br/>Q 국민, 농협, 롯데 카드까지 개인 정보 유출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저도 부쩍 스팸 문자들이 늘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벌써 계좌이체가 돼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이 취해야 할 대비 사항이 있다면 꼽아주세요. 정말 은행 직원의 말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카드만 재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또 실제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경기 안양시 유OO)<br/>우용표 정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잘못은 금융회사가 저지르고 피해는 우리가 봐야 하다니…. 해당 금융사에서는 ‘연회비나 알림 문자 비용 면제’로 생색을 내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쩍 늘어난 스팸 문자들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는 아무런 사과조차 없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br/>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들에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한 약속을 믿기에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를 재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회사의 신용카드는 해지하고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여기에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보안카드보다는 OTP 카드가 더 안전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하고 신고 접수를 합니다. 이미 카드회사들이 “피해와 관련해 전액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각각의 카드사에서 마련한 세부적인 방법을 참고하면 될 듯합니다.<br/><br/>Q 41세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자녀 교육과 내집 마련 외에도 크든 작든 돈 쓸 일이 많네요. 대출을 받아볼까 하고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찾아봤는데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서민들이 단기간 이용하기에 괜찮은 대출 상품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이 있는지요. (충남 천안시 고OO)<br/>우용표 살다 보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로 검색해보면 각종 사이트 정보가 나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수많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믿어야 될지 의심스럽고, 또 ‘대출 전문가에게 안전하게 상담받아보라’라는 글도 많은데 과연 대출에 전문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br/>저는 우선 대출에 대한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은 담보를 잡는 담보 대출과 담보 없이 대출해주는 신용 대출로 구분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주자니 위험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자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만약 금리를 줄이고 싶다면 신용 대출보다는 무언가 담보가 될 수 있는 담보 대출을 추천합니다.<br/>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용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마이너스 통장(직장인일 경우)을 권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담보 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출을 받고 급한 일이 해결되는 즉시 갚아나갈 수 있다면 활용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XX 캐피털’이나 ‘XX 대부업체’는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다간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채권추심’, ‘이자+연체 이자’로 원금을 훨씬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br/>Q 2012년 5월 초에 아파트 전세금 2억원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시세가 4억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신축 아파트라 미등기 계약이었고 잔금 후 집주인이 등기를 내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불하고 바로 확정일자는 받아놨습니다. 계약시 미등기여서 등기 후 융자 금액은 4천5백만원 이하로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융자를 1억2천만원이나 받았더군요. 게다가 날짜상으로는 제가 한 전입신고가 더 뒤라 1순위가 아닙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이메일 사연)<br/>우용표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전세금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좋은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은 양심적이지 못한 집주인을 비난해야 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상항을 수습할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만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적인 문제는 다행히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이나 전세 가격 등의 문제로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중 하나로 집주인과 전세 가격을 협상하실 때 낮춰줄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집주인은 “<span class='quot0'>전세가 귀한데 무슨 소리냐, 더 올려도 시원찮을 판이다</span>”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누가 융자 1억2천만원을 받은 집에 2억원 전세로 들어오겠냐”라는 논리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전세 가격은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br/>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융자를 많이 받은 집이라면 시세에 비해 전세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의 전세 가격에서 조금 조정된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실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더 이상의 대출은 받지 않겠다’라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1순위가 아닌 이상 집이 혹시라도 잘못돼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이지 못한 집주인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br/><br/>Q 이사철이 다가오네요. 전세 만기 전에 분양받은 새 집으로 가고 싶어 옮겼다가 당일 이사를 못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복비와 새 집 들어갈 때 잔금 담보 대출 변경, 명의 이전 문제 등으로 입주 키를 못 받아 이사가 늦어진 것이었는데, 이사시 잊지 말고 알아둬야 할 것들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인천 계양구 이OO)<br/>윤희권 분양 주택 입주시 자금 조달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할 경우 일정과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은행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행사에서 알선하는 대출금의 경우도 반드시 대출약정서를 확인하고 이율과 조건 등을 세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만기가 됐을 때는 만기 1개월 전까지 주인에게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만기가 지났음에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신청하고 이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밀린 날짜만큼의 법정 이자까지 받을 수 있죠.<br/>무작정 이사를 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이사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예측도 중요합니다.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확인해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넘어왔는지 알아봐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를 희망할 경우 처음 계약 단계부터 밝혀 등기권리증에 두 사람의 이름이 명기되도록 해야 합니다.<br/>반면 전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점검해볼 사항이 조금 다르지요.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br/>1 부동산중개소: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건물의 대출 현황 및 건물가 대비 전세금 비율을 따져봅니다. 대출이 있는 건물의 경우 채권 최고액을 보고 내가 들어갈 전세금이 보호받을 범위 내인지 따져봅니다. 집주인이 대리인일 경우는 집주인 본인확인이 담긴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중개사를 통해 꼼꼼히 챙겨둡니다. 한편 중개수수료에 대해 계약 당시 부동산에 확인을 받아두고, 법정수수료 초과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br/>2 이삿짐센터 계약하기: 미리 짐을 확인시키고 추가 요금 요구 금지 조항, 파손이나 분실시 보상금 등을 명기하고,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 등 꼼꼼히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br/>3 전입신고: 이사 당일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됨을 알아야 합니다.<br/>4 이사 전: 가스레인지 철거 및 연결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미리 가스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전 세입자의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완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관리소를 통해 장기 수선충당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주차장 공간도 따져봐야 하는데, 자체 공간이 없으면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도시관리공단에 합니다.<br/>5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이사 당일 잔금 일자에 반드시 확정되도록 대출 상담사와 시간 약속을 하고 부동산중개소에서 전달한 뒤 영수증을 받아둡니다.<br/>6 그 외: 이사한 건물에 하자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주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받거나 확인을 받아둬야 추후 이사할 때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br/><br/>profile<br/>윤희권은…<br/>YOON'S FPG 대표. 개인 재무 컨설팅을 비롯해 기업 강연, 퇴직연금 FP 양성교육, 재무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과 개인재무부터 은퇴, 증여, 상속, 가정재무 상담까지 섬세한 재무설계를 조언한다.<br/><br/>profile<br/>우용표는…<br/>더 코칭&컴퍼니 대표. 대기업 입사 후 7년간 적자 인생임을 깨닫고 재테크에 입문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개인 재무 설계와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 중이다.<br/><br/>육아고민<br/>이달의 키워드<br/>유난히 움직임이 많은 아이, 자연스럽게 잠자리 독립시키는 법, 자폐아 구별법,<br/>우리 아이 영어 말문 틔우는 법, 국제학교 보낼까?, 중학교 입학 선행학습 적정선은?<br/><br/>Q 32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돌 지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가 유난히 움직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아이는 잘 때와 많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 이유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주위 사람들도 많이 놀랄 정도로 끊임없이 움직여요. 좋아하는 만화를 보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와 한두 시간만 같이 있어도 어른이 지칠 정도지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육아법이 잘못된 걸까요? (이메일 사연)<br/>손석한 움직임이 많은 산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개 기질적으로 까다롭게 태어나는 아이가 산만한 아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잘 울고, 환경 변화에 많이 저항하고, 잘 먹지 않고, 쉽게 자극받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우선 신체적으로 피로하지 않게끔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신체적 불편과 피로감에 의해서도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 발산될 수 있도록 뛰노는 기회도 많이 줘야 합니다. 즉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가능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요. 대신에 집 안 등의 실내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가르쳐주세요.<br/>환경적인 원인도 중요합니다. 집 안이 너무 어지럽혀 있거나 자주 이사를 간다거나 엄마, 아빠가 소란스러우면 아이도 그럴 수 있지요. 사실 더 중요한 환경적 원인은 부모의 불화 등 가정적 불안정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아이가 커나가면서 아이의 일상적 활동을 조직화시켜서 산만함을 덜어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 정리하고, 씻고, 밥 먹고, 자신의 그릇은 자신이 정리하게끔 하는 등 생활 규칙을 정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에 산만함으로 발전하는 것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만 5세가 지나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지속된다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br/>Q 초등 6학년 되는 아들이 항상 아빠랑 같이 자려고 해요. 부부는 본의 아니게 거의 대부분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셋이서 자기에는 비좁아 제가 아들 방 침대에서 잡니다. 이제 사춘기인 아이를 떼어내면서 부부가 같이 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쑥스러워 차일피일 미루며 생활하고 있어요. 상처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떼놓는 법 없을까요? (서울 강남구 최OO)<br/>손석한 아이를 따로 재우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만의 공간을 멋지고 예쁘게 마련합니다. 외동아이는 혼자서 잠자리에 들 때 외로움과 무서움을 더 잘 탑니다.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이불, 동물 벽지, 예쁜 커튼 등을 함께 고르고 꾸며주십시오.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방 안에 있는 가구나 장식품들을 보여줘서 무서움을 덜어줍니다. 은은하게 조명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br/>둘째, 서서히 단계적으로 시도합니다. 먼저 아이의 방을 꾸미는 과정에서 부모와 따로 잔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여러 차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방을 옮기기 전에 아이와 예행연습을 해보세요. 예컨대 함께 자던 방에서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아빠와 같이 덮었던 이불이 아닌 새로운 이불을 덮어주세요. 새롭게 변한 잠자리에 아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br/>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가 잠을 자러 가는 시간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활동한 다음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 뒤 잠옷으로 갈아입히세요. 그런 다음에 취침 인사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혼자 자는 습관을 쉽게 들일 수 있습니다.<br/>넷째, 일관성 있게 행동합니다. 따로 재워야 한다고 아이에게 늘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아이의 방에 들어가고 평소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지요. 만일 아이가 따로 자다가 중간에 깨서 안방으로 오더라도 아이 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일러주세요.<br/><br/>Q 아이가 이제 9개월이 돼가는데요. 장난감을 다리 사이에 모았다가 던지는 놀이를 반복해요. 다른 때는 아이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고 웃곤 했는데, 유독 장난감 놀이 중에는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장난감에만 집중해요. 또 낯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제가 화장실에만 가도 우는데,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는 굳이 엄마가 없어도 울지 않네요. 소아과 관련 심리학 책을 보니 이맘때 낯을 가리지 않는 건 자폐이거나 지능이 떨어져서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첫째 아이라 그런지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불안하네요. 혹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자폐 구별법이 있을까요? (이메일 사연)<br/>손석한 자폐증이란 서로 주고받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결함, 의사소통 불가 그리고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양식을 특징으로 보이는 유아기의 발달 장애를 말합니다. 생후 9개월 때 낯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상 발달 과정에서 벗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폐나 지능 저하라고 진단 내리지 않습니다.<br/>가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자폐 특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양육자(주로 엄마)와 눈 맞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보라고 하는 것을 잘 쳐다보지 않고, 엄마의 지시를 잘 따라 하지 않으며, 엄마의 행동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엄마와 서로 웃으면서 놀지 않으며, 시선으로 엄마의 관심을 끌지 않고, 언어 발달이 지연되며, 자신의 놀이에 엄마를 초대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요구하지 않는 등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18개월 이상의 시기에 나타난다면 자폐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은 다음 보다 세밀한 진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자폐증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겨우 9개월이므로 자폐를 의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따라서 엄마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br/><br/>Q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다행이 아이가 영어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통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영어로 말 트게 하는 법 없을까요? (서울 종로구 박OO)<br/>노관호 영어를 곧잘 알아듣는다 생각했는데 외국인과 만나거나 해외여행을 가면 정작 대화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을 늘리는 것인데, 사실 어린 나이에 해외 어학연수를 무작정 보낼 수도 없고,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고가의 어학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br/>우선 머릿속에 있는 문장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과 같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추천한다면, 우선 가족이 함께 간단한 연극이나 콩트를 영어로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문화센터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니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난 달에도 소개해드렸던 게임 형식의 온라인 회화 프로그램을 가족과 같이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단기간의 미션을 주고 미션 완료 후에는 칭찬과 간단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br/><br/>Q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엄마입니다. 저도 유학 경험이 있고 아이도 영어 유치원에 다녀 영어는 곧잘 한다고 생각해요. 빡빡한 국내 교육 시스템이 싫기도 하고, 영어 특성을 살리고 싶어 송도국제학교 시험을 준비할까 고려 중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국제학교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충북 제천시 안OO)<br/>노관호 말씀하셨다시피 빡빡한 국내 입시와 고비용 유학에 대한 고민으로 국제학교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인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내국인 자격으로 국제학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입학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합니다.<br/>우선 국제학교 졸업 후 유학이 아니라 국내 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면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기숙학교로 운영되므로 어린 나이에 기숙사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반드시 설계돼야 합니다. 유행이라서 혹은 새로운 교육과정이라서 무작정 움직이지 마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최근 미국 부유층 사이에서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중국어로 진행하는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 학습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br/><br/>Q 아들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어디까지 선행을 해서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람마다 들려주는 의견이 다 달라요.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가요? (강원 원주시 김OO)<br/>노관호 보통 중학교 입학시 선행이라고 하면 수학 선행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보다는 심화가 돼야 한다’ 아니면 ‘선행이 되면 심화가 된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우선 아이의 목표와 성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선행이 안 된 경우는 초등학교 때 학습 시간이 적었던 학생이 대부분인데, 급하다고 무리해서 선행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계산이 자주 틀리거나 개념 숙지가 안 돼 있다면 그다음 학기에는 응용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변에 있는 속칭 ‘엄친아’의 학습법을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br/><br/>profile<br/>손석한은…<br/>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이자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각 언론매체의 자문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 감으로 키우지 마라」(e북), 「지금 내 아이에게 해야 할 80가지 질문」,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빠의 대화 혁명」 등이 있다.<br/><br/>profile<br/>노관호는…<br/>목동 하이스트 본원에서 특목 강사를 거쳐 목동 미래탐구 원장을 역임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목의 핵심을 꿰뚫는 학습 전략을 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br/><br/>건강 고민<br/>이달의 키워드<br/>늘어진 소음순 성형, 40대 조기 폐경,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br/><br/>Q 42세 주부입니다. 세 아이 출산 후 늘어진 소음순과 자주 생기는 염증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소음순 성형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보를 찾아봐도 모두 광고뿐이라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일산시 최OO)<br/>정지안 소음순 비대와 염증의 발생은 명확한 관계가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일단 염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 분비물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은 뒤 원인에 맞는 치료와 이후에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염은 한 번 발생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충분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질염을 치료하고 적절히 관리했는데도 재발했다거나 소음순 비대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물론 수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음순 성형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적으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br/><br/>Q 40대에 들어서며 생리양이 적어졌어요. 또 날짜도 불규칙해졌고요. 혹시 이것도 조기 폐경의 전조증상인지, 다른 질환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중랑구 김OO)<br/>정지안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변화,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같은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br/><br/>Q 요즘 점점 제 자신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짐을 느낍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예전에 비해 더 예민해지고, 기분에 따라 신체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이OO)<br/>조애경 스트레스는 심신을 지치게 해 피로를 유발할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여러 질병에 이환되기도 쉽습니다. 또 비만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과 암의 발생 확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스트레스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극을 주는 여러 상황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대처하느냐는 스스로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음악 감상, 휴식, 숙면이 필요하고 자신을 위해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땀이 나는 운동을 한다면 스트레스나 긴장이 전환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요.<br/>그러나 물론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심하고 신경이 예민하며 감정 기복과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면 갑상선 질환을 비롯한 병적인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체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반드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점점 심해질 것을 우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br/><br/>profile<br/>정지안은…<br/>서울라헬여성의원 산부인과 원장으로 불임, 생리불순, 부인과 질환, 사춘기 클리닉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br/><br/>profile<br/>조애경은…<br/>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현재 WE클리닉 대표 원장. 여성들의 비만 및 체질, 여성 질환, 피부 고민 등 폭넓은 노하우를 깐깐하게 전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저서로 「깐깐 닥터 조애경의 W뷰티」, 「깐깐 Dr. 조애경의 뷰티 멘토링」 등이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4.txt

제목: 사례별로 따져보는  
날짜: 2014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1100000071  
본문: ECONOMICS<br/>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규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 당연히 규정대로, 약관대로 지급됐을 것이라고 믿을 뿐이다. 하지만 아는 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금이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윤용찬 센터장에게 사례별 활용법을 들었다.<br/><br/>최근 예상치 못한 일로 병원 신세를 졌다. 비슷한 상황으로 치료를 받았던 친구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여차저차 상황을 말하니 며칠 뒤 치료비가 입금됐다.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br/>그러다 문득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몰라서 챙기지 못한 보험금들이 더 있을 것 같았다. 몇 해 전 보험설계사가 열변을 토하며 건넨 두툼한 보험증서를 꺼내 흐릿한 기억을 떠올리며 약관을 읽었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이다. 비단 기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br/>지인들에게 물었더니 열에 아홉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엄마가 알아서’ 보험을 들었다고 했다. 몇 년째 ‘칼 이체’를 당하고 있건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주계약에 어떤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지, 특약은 또 어떤 것들을 들어뒀는지 모르는 이들도 태반이었다. 참으로 당연한 권리였음에도 오히려 꼼꼼하게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br/>엄밀히 따지자면 보험 계약상 약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보험회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절대로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약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구석구석 파고들며 청구해야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br/>“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보험증권만 꼼꼼히 읽어봐도 어이없는 오해와 피해는 막을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당장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 상품의 이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품명에 ○○ 연금보험, ○○ 저축보험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저축’에 주된 목적이 있는 보험입니다. 또 ○○ 정기보험, ○○ 종신보험, ○○ 실손의료보험 등은 모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대등한 비율로 존재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있지만 이 또한 저축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상품입니다. 가입한 보험들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보험증권에 적힌 보장 기간과 납입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보험에서 ‘만기’란 보험료 납입의 만기와 보장 기간의 만기, 이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어떤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만기를 구별해야 내가 언제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보험증권에 적힌 보장 내용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략적인 보장 내용은 주계약과 특약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약관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공시실’에 들어가 확인해보면 됩니다.”<br/><br/>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7<br/>Case 1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이 발견돼 제거한 뒤 조직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악성은 아니어서 건강검진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검사 목적의 수술은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동료 A가 수술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br/>Answer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의 수술특약 약관에서는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구를 사용해 생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등의 조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여만 합니다.<br/>만약 치료의 목적이 아닌 검사의 목적으로만 용종의 조직 일부를 떼어냈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수술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위나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 대부분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잘라내게 됩니다. 검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용종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보험약관의 수술 분류표에 따르면 복부 장기는 2등급의 수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동료 A씨는 바로 이에 근거해 보험금을 받았을 겁니다.<br/><br/>Case 2 평소 쳐진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나요?<br/>Answer 생명보험 약관에는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은 무조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검하수 수술은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성형 수술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보험약관의 수술 분류표에도 안검하수 수술은 1종 수술로 분류돼 있습니다.<br/><br/>Case 3 2004년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6년 계류유산으로 소파 수술을 받으며 수술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 담당 보험설계사가 법이 바뀌었다며 건네준 재심사 요청서에 서명을 한 뒤 1백만원의 추가금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br/>Answer 2007년 한 생명보험 가입자가 계류유산으로 자궁 소파 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1~3종 수술 보험금 중 가장 금액이 적은 1종 수술 보험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자궁 소파 수술은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수술 방법이 동일하고, 해당 보험의 수술특약 약관에 수술 2종으로 분류되는 ‘기타 자궁 수술’에서도 ‘자궁 경관 폴립 절제술’과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2종 수술 보험금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가입자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융분쟁위원회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술 방법이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같다고 하더라도 질병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2종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br/>이 분쟁 조정 건으로 보험 가입자가 받은 실제 보험금은 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 결정이 보험 업계에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소파 수술과 관련해 1종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선 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만 발송했습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자궁 소파 수술에 대해 1종 수술 보험금을 받은 고객들을 찾아내 재심사 요청을 통해 추가금을 받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추가 청구를 하지 못했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종과 2종 수술의 보험금은 최대 2배나 차이 나는데도 말이죠.<br/><br/>Case 4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래 입원할 상황이 되지 못해 이틀 입원한 뒤 퇴원해 1주일에 두 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후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일 이상 입원한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뒤 새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br/>Answer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대표적인 보험금입니다. 생명보험특약 중 ‘재해 상해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특약에 가입돼 있다는 전제하에 CT 촬영이나 MRI 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이 있다면 ‘재해 장해 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운동을 하다가 심하게 부딪혀서 발생하는 ‘추간판탈출증’ 진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br/>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장해’는 질병이나 재해 때문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정신·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에 재해 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한 뒤 사고일로부터 1백80일이 지나서도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남아 있다면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서 후유장해진단서(발급 비용은 15만~17만원 정도)를 발급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진단서 한 장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br/><br/>Case 5 2012년 암 진단 특약이 들어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통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보험료가 2개월이나 밀렸고, 결국 2013년 3월 1일부로 보험 계약이 실효됐습니다. 보험이 해지됐다는 안내장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을 받고 보험 계약을 부활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3월 14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br/>Answer 폐암 진단을 받은 시점이 보험 계약 실효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지 안내장을 받은 그달에 빨리 보험 계약을 부활시킨다면 별도의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실상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추가 설명을 하자면 해지된 보험 계약을 다시 살리는 방법에는 ‘간이 부활’과 ‘일반 부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 부활은 실효가 된 바로 그달 안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일반 부활은 실효가 된 그달이 지난 시점에 부활 청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보험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부활 청약서 작성 유무입니다. 부활 청약서를 쓰게 된다면 보험회사에 알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회사 측에서는 계약의 부활을 거절하겠죠. 하지만 간이 부활의 경우에는 이런 ‘고지’ 절차가 없어 가능합니다.<br/>간혹 간이 부활인데도 반드시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br/><br/>Case 6 최근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청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1회 보험료도 납부했지만 때마침 생리가 시작되면서 보험 계약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건강검진을 1주일가량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보험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이 아닌데도 보험금이 지급되나요?<br/>Answer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 계약에 대해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심사를 한 후 그 청약을 인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 과정은 보험 계약의 최종 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약관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후 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결정이 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약관의 내용대로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질병이 아니므로 청약 이전부터 신체에 영향을 미쳤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br/><br/>Case 7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뒤 오토바이를 구입해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주 오는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두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중 상해와 관련된 실손의료비 특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br/>Answer 실손의료비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계약 전 알릴 의무 외에도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 혹은 그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혹은 직무를 변경했을 때)하거나 이륜자동차 혹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실손의료비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회사에 즉시 알렸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합니다. 해당 특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br/><br/>손해보험<br/>생명보험<br/>“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보험회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절대로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약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구석구석 파고들며 청구해야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5.txt

제목: 우주의 비밀 간직한 암흑물질 ‘윔프’, 그 흔적을 찾아라  
날짜: 20140301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301100000132  
본문: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2000억개가량 있다고 한다. 나아가 우주에는 적어도 수천억개의 은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어떤 것일까.<br/>과학자들은 우주의 96%가량이 ‘암흑물질(Dark Matter)’로 채워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암흑물질은 보이지도 않고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도 않는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존재인 셈이다. 그래서일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도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br/>암흑물질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깨치는 작업에 한국인 과학자들이 도전하고 있다. 강원 양양 점봉산의 지하 700m 지점에는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에 나오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처럼 신비에 싸인 곳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지하실험연구단’의 실험공간 ‘Y2L’이 그곳이다. <br/><br/>■ 고 이휘소 박사가 처음 제안한 ‘윔프’<br/>물리학자들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윔프(WIMP·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약하게 상호 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액시온(AXION) 두 가지를 암흑물질 후보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윔프가 암흑물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중론이다.<br/>윔프는 한국의 전설적 입자물리학자인 이휘소 박사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다. 윔프는 우주에 널려 있고 지구도 관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입자다. 초당 수억개의 윔프가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진다. 그러나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 흔적을 찾기 어렵다. 아주 일부가 1년에 1~2번 정도 원자핵과 미세한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미세한 반응을 잡아내는 것이 지하실험연구단의 목표이다. <br/>지하실험연구단이지만 베이스캠프는 지상에 있었다. 이곳에는 연구단 소속 강운구 연구위원과 김봉희 기술원 2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베이스캠프와 떨어진 점봉산 인근 양수발전소 밑에 있는 지하실험실에서 암흑물질이 보내온 신호를 찾는다. <br/>50㎡ 남짓한 지상 연구소 한쪽 벽에는 흰색 안전모 8개가 걸려 있었다. ‘암흑물질을 연구하는데 왜 안전모가 필요한가’라고 김봉희 기술원에게 물었다. 그는 “물리학 실험실에서는 주로 가운을 입지만 우리는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니 안전모는 필수”라고 말했다.<br/>지하실험실이 있는 양수발전소는 베이스캠프에서 차로 3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양수발전소는 높은 저수지에서 낮은 저수지로 물을 떨어뜨려 발전을 한다. 전력이 남을 때 아래쪽 저수지 물을 위쪽으로 퍼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이를 발전에 사용한다.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지하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소에는 지하 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 2㎞에 이르는 이 터널 끝에 지하 연구실이 있었다. 새로 지하를 뚫지 않고 양수발전소 시설을 활용한 것이다. <br/>터널 입구에서 지하실험실까지는 차로 5분가량 걸렸다. 전파가 닿지 않아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았다. 지하 통로 환풍기 소음에다 기압차 때문에 귀가 먹먹하고 아팠다. 공기가 눅눅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였다.<br/><br/>■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검출기로 연구<br/>터널 끝에 다가가자 2층짜리 가건물로 지어진 연구실이 보였다. 1층에는 암흑물질을 검출하는 기기인 세슘요오드(CsI) 검출기가 있었다. 이 검출기는 연구단이 3년에 걸쳐 개발했다. <br/>검출기는 모두 12개의 투명한 크리스털(결정)로 구성돼 있는데, 크리스털에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붙어 있었다. 이 센서가 윔프와 원자핵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다. <br/>강 연구위원과 김 기술원은 2층에서 검출기가 감지한 신호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 연구실에서 1시간가량 머문 뒤 통로로 나오자 속이 메슥거렸다.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br/>김 기술원은 “지하실험실에 내려오면 보통 5~6시간 정도 실험을 한다”면서 “공기가 너무 안 좋아 터널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br/>악조건 속 지하 700m 지점까지 내려와 연구하는 이유는 ‘뮤온’이라는 우주입자를 최대한 피해야 암흑물질을 검출해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슘요오드화물 검출기는 뮤온에 민감하다. 지구 대기에서 생성된 뮤온이라는 입자는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양이 줄어든다. 뮤온은 다른 물질과 반응해 중성자를 만드는데, 이 중성자가 세슘요오드물질과 반응해 내는 신호가 암흑물질 신호와 비슷해 연구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br/><br/>■ 1초에 14개 신호 ‘모래사장 속 바늘 찾기’<br/>현재 연구단은 암흑물질 후보인 윔프의 신호를 탐지했다고 주장하는 이탈리아 다마(DAMA)팀의 데이터를 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마는 2003년 검출기를 이용해 암흑물질 후보인 윔프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연구단은 다마의 연구결과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단은 고성능의 탐지기를 민감하게 만들어 실험을 재현했지만 아직 윔프를 찾지 못했다. <br/>연구단은 이 과정을 2007년 물리학분야 유명 저널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연구단은 2012년에도 민감도를 높인 검출기로 실험을 재현했지만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br/>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세계 어느 나라의 연구진도 아직은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br/>이유가 있다. 윔프를 찾는 일은 ‘모래사장에 박힌 바늘 찾기’처럼 어렵다. 수많은 데이터의 ‘옥석’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출기가 컴퓨터로 보내오는 신호의 양은 1초에 14개다. 하루에 모아지는 데이터 용량을 계산하면 20GB(기가바이트)가량 된다. 1년이면 72TB(테라바이트)에 이른다. 800MB(메가바이트) 용량의 CD 9만장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윔프의 신호를 찾아내는 일이 연구의 핵심이다. <br/>김 기술원은 “윔프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br/>연구단은 강원 삼척 두타산 지하 1400m에 두 번째 지하 실험실을 지을 예정이다. 양양 지하 실험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암흑물질 찾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br/>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수백m에 이르는 지하까지 내려가 암흑물질의 흔적을 찾는 일이 고될 때도 있지만 우주의 비밀을 내 손으로 파헤친다는 생각을 하면 피곤함이 이내 사라진다</span>”고 말했다. <br/>▲ 암흑물질 누가 먼저 찾아낼까<br/>이탈리아 팀 2003년 ‘윔프 입자 포착’ 발표했지만 전 세계 연구진 회의적…<br/>지하실험연구단도 두 차례 의문 제기<br/>과학계는 암흑물질 정체 규명이 2013년 노벨상을 받은 ‘힉스’ 입자 발견에 비견될 정도로 학문적 성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암흑물질의 신호가 최종 확인된다면 우주대폭발(빅뱅) 이후 우주의 진화 과정과 우주의 미래 모습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흑물질을 찾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br/>최근 몇 년 동안 과학계에서는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윔프’ 입자의 흔적을 찾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탈리아 암흑물질 연구팀인 다마(DAMA)는 1996년 요오드화나트륨 결정을 이용해 암흑물질을 검출하는 측정기구를 만들었다. 다마는 2003년 “7년간 실험 끝에 계절에 따라 측정값이 변하는 물질을 검출했다”며 “이것이 윔프 입자일 것”이라고 발표했다.<br/>그러나 다마의 연구결과에 과학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 근거지를 둔 다국적 암흑물질 연구팀 ‘제논(XENON)100’은 다마의 연구결과를 부정했다. <br/>제논은 2011년 “<span class='quot1'>액체 상태의 제논(Xe)을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암흑물질을 측정한 결과 신호를 검출하지 못했다</span>”는 논문을 발표했다. 다마가 검출한 신호 범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민감도 높게 재현 실험을 했으나 신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한 것이다.<br/>한국 지하실험연구단도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다마의 연구결과를 검증했다. 그러나 다마가 찾았다고 발표한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 <br/>김영덕 단장은 “<span class='quot2'>현재로서는 어느 연구팀이 틀렸다거나 맞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앞으로 더욱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미국의 또 다른 암흑물질 연구팀인 ‘코젠트(CoGeNT)’는 이탈리아 다마의 실험을 일부 재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신호가 아주 미약해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br/>코젠트는 2011년 5월5일 미국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2010년 1월부터 15개월간 윔프 신호를 관측한 결과 희미하지만 다마가 발견했다고 말한 ‘계절별 차이’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br/>지난해 미국 연구진은 우주정거장에 설치된 암흑물질 탐지기 ‘AMS’에서 암흑물질 신호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AMS는 2011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에 의해 우주정거장으로 실려갔다. AMS는 무게가 6.7t에 이를 정도로 큰 장치다. <br/>연구를 주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새뮤얼 팅 교수 연구팀은 그러나 “암흑물질의 정체를 확실히 확인하는 데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진의 연구결과는 지난해 3월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게재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6.txt

제목: [건강]자외선의 습격, 중노년층 ‘광선각화증’ 주의보  
날짜: 20140228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8100000090  
본문: 평균수명 증가와 맞물려 광선각화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2년 환자 수가 전년보다 약 23% 증가했다. 2010~2012년 3년간 광선각화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2만2600명 중 50대 이상이 80%를 넘는다.<br/>광선각화증은 그냥 놔두면 흔한 피부암인 편평세포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피부질환이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60%는 광선각화증에서 진행됐다. 국내에서 편평세포암 환자 50명을 분석한 결과 광선각화증 동반 비율이 무려 88%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광선각화증을 방치하면 상당수가 암이 된다는 말이다. 보통 광선각화증이 편평세포암으로 진행되는 데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될수록 암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br/><br/>광선각화증은 얼굴이나 손, 팔, 손목, 귀 등 햇빛에 오래 노출된 피부에 잘 발생한다. 흉터나 화상,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방사선 노출, 발암물질 때문에 유발되기도 한다. 붉은 갈색의 딱지 같은 것이 생기며, 피부보다 평평하게 표면이 약간 돌출되고 만졌을 때 까칠까칠한 것이 특징이다. 노인에게 많은 검버섯(지루각화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통증 등 자각증상이 아주 적고, 눈에 보이는 병변뿐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잠재병변도 존재한다.<br/>대한피부암학회 김일환 회장(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은 “<span class='quot0'>광선각화증을 검버섯·습진과 혼동해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span>”고 지적했다.<br/>모양이 비대칭적이며 색조가 불균일한 나무껍질 같은 증상이 나타나 점점 더 커진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자외선 노출이 잦은 중년층 이상은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해 증상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br/>예방의 첫걸음은 자외선 차단이다. 노출량과 시간, 강도와 광선각화증 발생률이 비례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선탠실 이용이나 태양전구 사용도 나쁘다.<br/>치료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는 병변을 직접 제거하는 것과 안 보이는 잠재병변까지 치료하는 필드요법(Field therapy) 등이 있다. 필드 치료법은 여러 부위에 걸쳐 나타나는 다발성 병변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7.txt

제목: [의술 인술]사고 현장서 환자 생체정보 측정·전송 골든아워 지키는 ‘외상 U-헬스 시스템’  
날짜: 20140228  
기자: 김영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8100000110  
본문: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외상환자 수는 100만명이 넘고, 이 가운데 매년 3만명 정도가 사망한다. 적절한 진료를 받았으면 생존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30%를 넘는다. 국내 외상환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3조원이 넘는다. 이는 암환자의 2배가 넘는 경제적 손실이다.<br/>외상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외상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사고 현장에서의 적절한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강조하고 싶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치료를 해야 하는 제한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골든아워’다. 골든아워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도 최소화할 수 있다.<br/>응급환자는 5~10분을 다투는 빠른 처치를 필요로 한다면, 외상환자는 한시간의 골든아워에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즉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각 외상센터의 치료 가능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시간 내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이송하면서 해당 외상센터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텔레메디신(Tele-Medicine)도 필요하다.<br/>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U-헬스’다. 휴대 정보기술(IT)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외상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외상 U-헬스 시스템’이라고 한다.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외상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급차 안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영상·음성·생체 신호 정보를 외부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가 1차 의료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외상 시스템과 U-헬스가 만난 ‘외상 U-헬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장에서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 심전도, 외상초음파, 혈액성분 분석 등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GE헬스케어의 ‘브이스캔’을 들어보겠다. 이 장비는 환자의 체내를 영상으로 직접 보면서 진단할 수 있도록 현장진료에 최적화된 포켓 크기의 의료영상기기다.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응급현장에서도 특히 활용도가 높다.<br/>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구급차 내에서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병원 의사가 구급대원에게 의료지도를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병원 간 환자 상태 및 의료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처치하고 이송한다면 환자의 사망률도 줄이고 치료율도 높일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8.txt

제목: [책과 삶]착취·자살…‘모순 투성이’ 대학 향한 청소노동자의 은밀한 저항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810013632828  
본문: <b>▲ 양춘단 대학탐방기…박지리 지음 | 사계절 | 388쪽 | 1만2800원</b><br/><br/>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65세 양춘단씨가 대학에 가게 됐다. 한껏 들뜬 춘단은 뒤늦은 한풀이를 하듯 망자들을 향해 혼잣말을 한다. “엄메 아베여, 춘단이 오늘 대학교 댕겨왔습니다. 무슨 대학교냐고요, 아 엄메 아베 둘 다 지 초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게 하셨지 않허요. 그래서 지 혼자 힘으로 보란 듯이 대학교 갔어라.”<br/><br/>장편소설 <양춘단 대학탐방기>는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주인공 춘단이 남편의 암수술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중심인물은 춘단이지만, 작가가 차진 문장으로 직조하는 이야기의 부챗살은 세대적으로는 춘단의 부모, 춘단과 영일 부부, 이 부부의 두 아들 등 삼대에 이르는 인물들을 아우르고, 소재적으로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 대기업 노동자 정리해고, 자본에 포획된 대학, 미래 없는 입시지옥 등 시의적 이슈들을 품으며 넓게 퍼져나간다.<br/><br/>춘단은 온갖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에 가게 됐다는 자랑을 하지만, 대학에서 그의 신분은 학생이 아니라 용역회사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다.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 소일을 위해 청소를 시작한 춘단은 동료 청소노동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겉돈다. 대신 춘단의 말벗이 되는 건 이 대학 시간강사 한도진이다.<br/><br/>소설에 등장하는 대학은 오늘날 한국 대학의 실감나는 초상화이면서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공간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시급을 4800원에서 4300원으로 깎고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는 새 소장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는 단 하루 만에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대학 학생회도 이들을 돕지만, 경찰이 투입되자 파업은 순식간에 진압된다. 달라진 건 없다. “<span class='quot0'>간병일을 한 적 있는 최 여사와 아픈 부인을 둔 빚이 많은 이씨와 공무원이던 한씨가 나간 자리에 역시나 병원 신세를 진 적 있고 한때는 국가를 위해 일했고 월급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span>” 들어왔을 뿐이다. <br/><br/>춘단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덕분에 홀로 살아남는다. 그러나 시간강사에 대한 대학의 부당한 대우에 좌절해 자살한 한도진이 보낸 일기장을 받은 다음부터 대학을 향해 은밀한 복수를 시작한다. 춘단은 청소노동자 신분을 이용해 남녀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한도진이 일기에 적은 내용을 화장실 벽에 낙서처럼 적어나간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도진의 일기를 빼앗기면서 은밀한 복수는 중단된다. 솜씨 좋은 석공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돌을 다루는 데 재능을 보였던 춘단은 어느 날 밤 망치와 정을 들고 학교의 상징물인 거대한 코끼리 석상을 향해 다가간다.<br/><br/>이 소설의 힘은 춘단이라는 주인공의 독특한 개성에서 나온다. 춘단의 능청스러우면서도 무구한 시선은 우리 사회의 속물성과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렌즈 구실을 하는 동시에, 이 소설이 자칫 심각하게만 흐를 수 있는 소재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이야기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기능한다. <br/><br/>작가는 2010년 청소년소설 <합체>로 사계절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이번 소설은 그의 세 번째 소설이자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소설이다. 진지한 문제의식을 유머와 풍자로 엮어낸 이 소설은 작가가 장편 작가로서 품고 있는 가능성을 탄탄한 솜씨로 보여주고 있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79.txt

제목: 우주의 비밀 간직한 암흑물질 ‘윔프’, 그 흔적을 찾아라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81001363284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점봉산 지하 700m서 ‘미스터리’ 규명에 도전한 지하실험연구단… “1년에 한두 번 미세한 반응, 그 순간 포착을 위해 CD 9만장 데이터와 싸워요”</strong><!-- SUB\_TITLE\_END--><br/><br/>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2000억개가량 있다고 한다. 나아가 우주에는 적어도 수천억개의 은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어떤 것일까.<br/><br/>과학자들은 우주의 96%가량이 ‘암흑물질(Dark Matter)’로 채워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암흑물질은 보이지도 않고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도 않는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존재인 셈이다. 그래서일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도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br/><br/>암흑물질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깨치는 작업에 한국인 과학자들이 도전하고 있다. 강원 양양 점봉산의 지하 700m 지점에는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에 나오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처럼 신비에 싸인 곳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지하실험연구단’의 실험공간 ‘Y2L’이 그곳이다. <br/><br/><br/><b>■ 고 이휘소 박사가 처음 제안한 ‘윔프’</b><br/><br/>물리학자들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윔프(WIMP·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약하게 상호 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액시온(AXION) 두 가지를 암흑물질 후보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윔프가 암흑물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중론이다.<br/><br/>윔프는 한국의 전설적 입자물리학자인 이휘소 박사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다. 윔프는 우주에 널려 있고 지구도 관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입자다. 초당 수억개의 윔프가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진다. 그러나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 흔적을 찾기 어렵다. 아주 일부가 1년에 1~2번 정도 원자핵과 미세한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미세한 반응을 잡아내는 것이 지하실험연구단의 목표이다. <br/><br/>지하실험연구단이지만 베이스캠프는 지상에 있었다. 이곳에는 연구단 소속 강운구 연구위원과 김봉희 기술원 2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베이스캠프와 떨어진 점봉산 인근 양수발전소 밑에 있는 지하실험실에서 암흑물질이 보내온 신호를 찾는다. <br/><br/>50㎡ 남짓한 지상 연구소 한쪽 벽에는 흰색 안전모 8개가 걸려 있었다. ‘암흑물질을 연구하는데 왜 안전모가 필요한가’라고 김봉희 기술원에게 물었다. 그는 “물리학 실험실에서는 주로 가운을 입지만 우리는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니 안전모는 필수”라고 말했다.<br/><br/>지하실험실이 있는 양수발전소는 베이스캠프에서 차로 3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양수발전소는 높은 저수지에서 낮은 저수지로 물을 떨어뜨려 발전을 한다. 전력이 남을 때 아래쪽 저수지 물을 위쪽으로 퍼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이를 발전에 사용한다.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지하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소에는 지하 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 2㎞에 이르는 이 터널 끝에 지하 연구실이 있었다. 새로 지하를 뚫지 않고 양수발전소 시설을 활용한 것이다. <br/><br/>터널 입구에서 지하실험실까지는 차로 5분가량 걸렸다. 전파가 닿지 않아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았다. 지하 통로 환풍기 소음에다 기압차 때문에 귀가 먹먹하고 아팠다. 공기가 눅눅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였다.<br/><br/><br/><b>■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검출기로 연구</b><br/><br/>터널 끝에 다가가자 2층짜리 가건물로 지어진 연구실이 보였다. 1층에는 암흑물질을 검출하는 기기인 세슘요오드(CsI) 검출기가 있었다. 이 검출기는 연구단이 3년에 걸쳐 개발했다. <br/><br/>검출기는 모두 12개의 투명한 크리스털(결정)로 구성돼 있는데, 크리스털에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붙어 있었다. 이 센서가 윔프와 원자핵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다. <br/><br/>강 연구위원과 김 기술원은 2층에서 검출기가 감지한 신호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 연구실에서 1시간가량 머문 뒤 통로로 나오자 속이 메슥거렸다.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br/><br/>김 기술원은 “지하실험실에 내려오면 보통 5~6시간 정도 실험을 한다”면서 “공기가 너무 안 좋아 터널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br/><br/>악조건 속 지하 700m 지점까지 내려와 연구하는 이유는 ‘뮤온’이라는 우주입자를 최대한 피해야 암흑물질을 검출해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슘요오드화물 검출기는 뮤온에 민감하다. 지구 대기에서 생성된 뮤온이라는 입자는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양이 줄어든다. 뮤온은 다른 물질과 반응해 중성자를 만드는데, 이 중성자가 세슘요오드물질과 반응해 내는 신호가 암흑물질 신호와 비슷해 연구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br/><br/><br/><b>■ 1초에 14개 신호 ‘모래사장 속 바늘 찾기’</b><br/><br/>현재 연구단은 암흑물질 후보인 윔프의 신호를 탐지했다고 주장하는 이탈리아 다마(DAMA)팀의 데이터를 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마는 2003년 검출기를 이용해 암흑물질 후보인 윔프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연구단은 다마의 연구결과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단은 고성능의 탐지기를 민감하게 만들어 실험을 재현했지만 아직 윔프를 찾지 못했다. <br/><br/>연구단은 이 과정을 2007년 물리학분야 유명 저널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연구단은 2012년에도 민감도를 높인 검출기로 실험을 재현했지만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br/><br/>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세계 어느 나라의 연구진도 아직은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br/><br/>이유가 있다. 윔프를 찾는 일은 ‘모래사장에 박힌 바늘 찾기’처럼 어렵다. 수많은 데이터의 ‘옥석’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검출기가 컴퓨터로 보내오는 신호의 양은 1초에 14개다. 하루에 모아지는 데이터 용량을 계산하면 20GB(기가바이트)가량 된다. 1년이면 72TB(테라바이트)에 이른다. 800MB(메가바이트) 용량의 CD 9만장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윔프의 신호를 찾아내는 일이 연구의 핵심이다. <br/><br/>김 기술원은 “윔프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br/><br/>연구단은 강원 삼척 두타산 지하 1400m에 두 번째 지하 실험실을 지을 예정이다. 양양 지하 실험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암흑물질 찾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br/><br/>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수백m에 이르는 지하까지 내려가 암흑물질의 흔적을 찾는 일이 고될 때도 있지만 우주의 비밀을 내 손으로 파헤친다는 생각을 하면 피곤함이 이내 사라진다</span>”고 말했다. <br/><br/><div style="border: solid 1px #DDD;background-color: #F5F5F5;padding: 10px 15px 15px 15px;font-size: 13px;line-height: 22px;\_height: 1%;margin-bottom: 20px;"><b>▲ 암흑물질 누가 먼저 찾아낼까<br/>이탈리아 팀 2003년 ‘윔프 입자 포착’ 발표했지만 전 세계 연구진 회의적…<br/>지하실험연구단도 두 차례 의문 제기</b><br/><br/>과학계는 암흑물질 정체 규명이 2013년 노벨상을 받은 ‘힉스’ 입자 발견에 비견될 정도로 학문적 성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암흑물질의 신호가 최종 확인된다면 우주대폭발(빅뱅) 이후 우주의 진화 과정과 우주의 미래 모습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흑물질을 찾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br/><br/>최근 몇 년 동안 과학계에서는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윔프’ 입자의 흔적을 찾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탈리아 암흑물질 연구팀인 다마(DAMA)는 1996년 요오드화나트륨 결정을 이용해 암흑물질을 검출하는 측정기구를 만들었다. 다마는 2003년 “7년간 실험 끝에 계절에 따라 측정값이 변하는 물질을 검출했다”며 “이것이 윔프 입자일 것”이라고 발표했다.<br/><br/>그러나 다마의 연구결과에 과학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 근거지를 둔 다국적 암흑물질 연구팀 ‘제논(XENON)100’은 다마의 연구결과를 부정했다. <br/><br/>제논은 2011년 “<span class='quot1'>액체 상태의 제논(Xe)을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암흑물질을 측정한 결과 신호를 검출하지 못했다</span>”는 논문을 발표했다. 다마가 검출한 신호 범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민감도 높게 재현 실험을 했으나 신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한 것이다.<br/><br/>한국 지하실험연구단도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다마의 연구결과를 검증했다. 그러나 다마가 찾았다고 발표한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 <br/><br/>김영덕 단장은 “<span class='quot2'>현재로서는 어느 연구팀이 틀렸다거나 맞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앞으로 더욱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미국의 또 다른 암흑물질 연구팀인 ‘코젠트(CoGeNT)’는 이탈리아 다마의 실험을 일부 재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신호가 아주 미약해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br/><br/>코젠트는 2011년 5월5일 미국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2010년 1월부터 15개월간 윔프 신호를 관측한 결과 희미하지만 다마가 발견했다고 말한 ‘계절별 차이’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br/><br/>지난해 미국 연구진은 우주정거장에 설치된 암흑물질 탐지기 ‘AMS’에서 암흑물질 신호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AMS는 2011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에 의해 우주정거장으로 실려갔다. AMS는 무게가 6.7t에 이를 정도로 큰 장치다. <br/><br/>연구를 주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새뮤얼 팅 교수 연구팀은 그러나 “암흑물질의 정체를 확실히 확인하는 데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진의 연구결과는 지난해 3월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게재됐다.</div><br/><br/><양양 |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0.txt

제목: [목수정의 파리통신]무농약 와인  
날짜: 2014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510013569663  
본문: 1999년 프랑스 남부 미요에서 맥도널드 매장을 트랙터로 밀어버린 조제 보베 이후, 농부가 일간지 르몽드의 1면에 등장하는 건 좀처럼 드문 일이다.<br/><br/>2월24일자 르몽드 인터넷판 1면에 검은 수트(양복)를 입고, 지지자들을 향해 멋지게 손을 흔들며 등장한 남자는 부르고뉴 지방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지불로 에마뉘엘이다. <br/><br/>그는 자신의 포도밭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 섰다. <br/><br/>1985년부터 구축해온 유기농법으로 포도농사를 지어오던 그가 갑자기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된 건 지난해 6월쯤. 부르고뉴 행정당국이 포도나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 지역 포도농가 전체에 농약 살포를 강제로 명령하면서부터다. <br/><br/>유기농산물 라벨(표시)을 유지하면서도 쓸 수 있는 농약은 단 하나, 천연재료로 만든 것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은 그 농약마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었다. 그 농약은 해당 병해충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곤충들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가 구축해온 유기농 환경이 일거에 파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br/><br/>유기농 농가에서 농약 사용을 거부한 것은 상식을 넘어, 바람직한 일이라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 이 아연한 죄목으로 법정에 서는 에마뉘엘을 지지하는 위원회를 결성했다. 녹색당을 비롯해 그린피스, 반자본주의 신당, 아탁, 그리고 많은 유기농 농가와 생태주의자들이 그의 선택과 저항을 지지하고 행정당국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 40만명 이상의 서명과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br/><br/>여론의 매서운 바람이 법정에 스민 걸까.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에마뉘엘에게 최소 형량을 구형했다. 벌금 1000유로, 그나마도 절반은 집행유예다. <br/><br/>에마뉘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포도농가들이 농약이 아닌 방법으로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br/><br/>유럽 최대의 의약품 소비국인 프랑스는 동시에 유럽 최대의 농약 소비국이기도 하다. 신이 인간에게 선물로 내려주었다는 포도주. 그러나 포도농장 사람들은 대부분 암으로 죽는다. 이들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병은 방광암이다. 그것은 농약 사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농장주들은 얘기한다. 포도 재배가 그들을 먹여살리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죽음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유기농으로 전향하고 싶어 한다.<br/><br/>그러나 유기농 전환에는 수많은 행정절차, 더 많은 실험이 따른다. 따라서 더 많은 인내와 비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에마뉘엘이 마주했던 것처럼, 집요한 시스템의 방해가 그들의 전향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프랑스의 사회보장금고를 털고 싶어 하는 제약 마피아가 프랑스인들의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는 가장 큰 동력이라면, 프랑스의 농약 사용을 부추기는 동력은 몬산토 등 다국적기업과 결탁한 유럽 위원회,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프랑스 행정당국이다.<br/><br/>벌레를 죽이기 위해 땅을 죽이고, 농민을 죽이고, 소비자들까지 서서히 죽여가는 동안 다국적기업만 홀로 배를 불리게 하는 법. 불행하게도 오늘의 세상에는 그러한 법들이 난무하며 범인(凡人)들의 숨통을 조여온다. <br/><br/>법이 모두의 상식을 배반할 때,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법은, 그것이 존중받을 만할 때만 지킨다.’ 에마뉘엘의 한 지지자가 결연히 외쳤던 것처럼.<br/><br/><목수정 | 작가·파리거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1.txt

제목: ‘지니어스2’ 우승자 이상민 “내가 봐도 불편한 모습 보였다”  
날짜: 2014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5100000059  
본문: 6200만원을 우승상금으로 탄 가수 이상민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기자들은 방송 중 있었던 논란들을 물고 늘어졌고 정종연 PD의 대답에는 연출자로서 고충과 아쉬움이 묻어났다.<br/><br/>tvN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시즌2: 룰 브레이커>(이하 <지니어스2>) 기자간담회가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열렸다. 이상민은 “<span class='quot0'>제가 봐도 불편한 모습이 보였고 논란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span>”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왜 이렇게 끝났을까 자책도 하고 남 탓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갔고 엉망이었던 회도 있었다</span>”고 덧붙였다. <br/><br/><br/><지니어스2>는 방송 내내 논란이 일었다. 방송인 이상민을 필두로 노홍철, 은지원 등의 ‘방송인 연합’과 프로게이머 홍진호, 마술사 이은결 등 ‘비방송인 연합’의 구도가 굳어졌다. 시청자들은 방송인들의 ‘친목질’에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두뇌게임, 심리전 등이 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아나운서 조유영이 해커 이두희 신분증을 숨겨 게임 진행 자체를 막자 프로그램 폐지 청원 운동도 일었다. <br/><br/>그런데도 시청자들은 욕을 하면서 봤다. ‘암메이커(보면 화가나서 암이 생긴다는 뜻)’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었는 데도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으로서는 성공한 2%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송이 끝난 뒤면 으레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지니어스2>가 올랐다. <br/><br/>정 PD는 “<span class='quot1'>한 회 녹화가 끝날 때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렸다</span>”며 “<span class='quot1'>생각대로 되지 않는 진짜 생명력이 <지니어스2>가 갖고 있는 매력</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출연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제작진은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일부 제가 통제 못한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span>”고 말했다. 이어 “논란에 대한 해명도 해봤지만 더 상황만 꼬였다”며 당시 어려움을 털어놨다. <br/><br/>정 PD는 이어 “<span class='quot1'>방송 외적인 친분을 실제 게임에 끌어 들이는 것이 소셜 리얼리티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옳은지 그른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만 재미있는 경쟁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생각이라면 방지책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계속하겠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상민은 “<span class='quot0'>시즌3는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span>”며 “<span class='quot0'>녹화 분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논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span>”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 PD는 “<span class='quot1'>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포맷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span>”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2.txt

제목: [인사]서울시교육청  
날짜: 2014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510013565144  
본문: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br/><br/>◇원장 승진<br/><br/>▲하늘숲유치원 김미경<br/><br/>◇원장 전보<br/><br/>▲솔가람유치원 이순이 ▲휘경유치원 김순혜 ▲개포유치원 진성숙 ▲장충유치원 오완숙 ▲상도유치원 임태분 <br/><br/>◇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br/><br/>▲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혜손 <br/><br/>◇원감 승진<br/><br/>▲서부교육지원청 박정순 ▲강동교육지원청 박정옥 ▲강남교육지원청 오경미 ▲동작교육지원청 장선화<br/><br/>◇원감 전보<br/><br/>▲남부교육지원청 지정미 김미경<br/><br/>◇교육전문직원(4급) 전보<br/><br/>▲성동교육지원청 이수이 ▲유아교육진흥원 백정희 ▲강남교육지원청 강상이<br/><br/><초등학교 교장·교감 인사><br/><br/>◇교장 승진<br/><br/>▲대동초 강향옥 ▲한산초 경경숙 ▲월계초 고승순 ▲강덕초 김경옥 ▲대왕초 김동일 ▲홍제초 김애선 ▲봉래초 김인숙 ▲매봉초 김일주 ▲서신초 김재근 ▲독산초 김홍집 ▲신방학초 나철균 ▲선유초 마원금 ▲개롱초 박성해 ▲신우초 박한흥 ▲수명초 박호선 ▲백산초 심봉화 ▲선린초 심상덕 ▲영도초 양승용 ▲답십리초 양승희 ▲원명초 윤봉원 ▲상지초 이건구 ▲일신초 이동희 ▲신구로초 이유호 ▲영원초 이진숙 ▲대모초 임오엽 ▲상곡초 장용배 ▲백석초 전본수 ▲토성초 전상권 ▲신석초 정선숙 ▲청구초 지화영 ▲배봉초 차종섭 ▲중랑초 태양실 ▲양천초 하두봉 ▲번동초 홍치식 ▲포이초 황형규 <br/><br/>◇교장 임용 <br/><br/>▲탑산초 김용국 ▲구일초 남미애 ▲송중초 서석영 ▲원촌초 이규창 ▲양강초 이연호 ▲대도초 최미경 ▲후암초 양선석 ▲유현초 김민숙 ▲중마초 김진희 ▲남산초 노재분 ▲영등포초 박승수 ▲신계초 박장희 ▲교동초 배창식 ▲등서초 송준헌 ▲홍은초 엄용수 ▲신남초 이창성 ▲대청초 장순양 ▲청덕초 조한선 ▲한강초 진병석 ▲아현초 한기천 ▲행림초 홍석주<br/><br/>◇교장 전보<br/><br/>▲양전초 고성욱 ▲명일초 구본국 ▲동교초 김석중 ▲흑석초 김은실 ▲신성초 김현용 ▲혜화초 박세천 ▲신명초 안경선 ▲반포초 오태환 ▲영화초 유한붕 ▲대림초 이영재 ▲은천초 이종화 ▲수락초 이해춘 ▲송례초 이형우 ▲발산초 장원양 ▲강신초 장인권 ▲금화초 진동주 ▲월정초 진만성 ▲신도초 진재신 ▲을지초 최봉환 ▲여의도초 최진철 ▲양진초 오행자 ▲미아초 김재환 ▲신양초 김정혁 ▲이태원초 서경수 ▲윤중초 김귀숙 ▲새솔초 김홍미 ▲상월초 이향아<br/><br/>◇교감 승진<br/><br/>▲강동교육지원청 구미선 이정순 ▲남부교육지원청 김갑철 김웅현 김진경 박언화 육미수 정진옥 차민숙 최성희 ▲동작교육지원청 김대원 김은경 이정숙 정혜경 주정숙 ▲북부교육지원청 김명일 원경자 이성익 이은주 조명옥 조영희 홍아영 ▲강남교육지원청 김숙애 박경순 손혜숙 신정희 오정혜 이진숙 정양선 조영숙 ▲성동교육지원청 김영도 김영숙 유정한 정화순 최원일 ▲중부교육지원청 김정혜 이계의 이민수 ▲강서교육지원청 김정희 윤여옥 최옥문 함형집 허혜정 ▲성북교육지원청 손혜숙 송은경 윤순종 ▲동부교육지원청 신민숙 유승애 윤상욱 이명숙 이영기 장명숙 ▲서부교육지원청 심금숙 유경미 이공건 이애희 이희옥 조미연 진기종 <br/><br/>◇교감 전직<br/><br/>▲동부교육지원청 김재석 ▲중부교육지원청 김정이 ▲성북교육지원청 김희영 ▲남부교육지원청 문병화 ▲북부교육지원청 민태일 ▲성동교육지원청 임태현 ▲서부교육지원청 김은경 ▲강동교육지원청 오언석<br/><br/>◇국·공립 교원 교류<br/><br/>▲교대부초 교장 전병식 ▲교대부초 교감 최광호 ▲성북교육지원청 교감 최동렬<br/><br/><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br/><br/>◇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br/><br/>▲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익교 ▲초등교육과장 장계분 ▲학생교육원 대천분원장 김현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혜자<br/><br/>◇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br/><br/>▲정책기획담당관 정책연구개발장학관 강세창 ▲강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백정흠 ▲동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오장길 ▲성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유재준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최인숙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문중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기획부장 김효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안종인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원곤 ▲초등교육과 초등장학기획장학관 이재관<br/><br/>◇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br/><br/>▲초등교육과 김선희 ▲성동교육지원청 이근실 ▲교원정책과 조현석 최규애 ▲중부교육지원청 강동수 김선경 ▲성북교육지원청 강지영 ▲교육연수원 이경수 김세령 김종숙 김회영 ▲북부교육지원청 이은희 김선수 ▲동부교육지원청 김민주 ▲총무과 김유상 ▲동작교육지원청 류인철 윤정애 ▲공보담당관 문성현 ▲진로직업교육과 박익상 ▲성동교육지원청 박혜윤 ▲서부교육지원청 방일순 이정훈 ▲초등교육과 배희숙 ▲감사관 이동섭 ▲학교생활교육과 이창헌 ▲성동교육지원청 전인보 ▲강남교육지원청 홍주희<br/><br/>◇교육부·교육부 직속기관 교류 : 6명<br/><br/>▲초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장학관 고영규 ▲초등교육과 창의예술교육기부장학관 최재광 ▲교육부 교육연구관 이화 최치수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조경옥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미경<br/><br/><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br/><br/>◇교장 전보<br/><br/>▲정애학교 심규학 ▲정진학교 김춘예<br/><br/>◇교감 전보<br/><br/>▲광진학교 최철호<br/><br/>◇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br/><br/>▲동작교육지원청 이주율 ▲학교생활교육과 임금섭 <br/><br/><중등 교장·교감 인사><br/><br/>◇교장 승진<br/><br/>▲공항고등학교 조양형 ▲금옥중학교 배인식 ▲동원중학교 김영수 ▲상봉중학교 전영숙 ▲서울여자중학교 육순우 ▲연북중학교 함정식 ▲인왕중학교 박노근 ▲개웅중학교 이원숙 ▲세일중학교 김영춘 ▲창동중학교 추교수 ▲성내중학교 이경란 ▲ 오륜중학교 김경옥 ▲거원중학교 손은숙 ▲신암중학교 이경희 ▲강신중학교 김석원 ▲등명중학교 김형재 ▲반포중학교 장명희 ▲장승중학교 장이순 ▲광희중학교 한호경 ▲개운중학교 이완재<br/><br/>◇공모교장 임용<br/><br/>▲고척고등학교 이관배 ▲도봉고등학교 황재인 ▲면목고등학교 남철주 ▲상암고등학교 경종록 ▲경서중학교 이상수 ▲국사봉중학교 우일암<br/><br/>◇교장 중임·전보유예 : 24명<br/><br/>▲경기상업고등학교 민복기 ▲둔촌고등학교 정금배 ▲문현고등학교 임문수 ▲서울국제고등학교 윤인섭 ▲창동고등학교 김규식 ▲청담고등학교 박창호 ▲원묵중학교 김원기 ▲미성중학교 김진태 ▲신명중학교 장오순 ▲구로고등학교 성동준 ▲덕수고등학교 이상원 ▲서울금융고등학교 황보관 ▲양재고등학교 김종근 ▲신연중학교 이재엽 ▲연신중학교 서정환 ▲대영중학교 신인호 ▲노일중학교 천정수 ▲상계제일중학교 김용진 ▲상계중학교 구재우 ▲효문중학교 봉하웅 ▲강동중학교 윤동원 ▲염창중학교 최만석 ▲사당중학교 김영술 ▲상도중학교 김인회<br/><br/>◇교장 전보<br/><br/>▲문정고등학교 최석관 ▲서울고등학교 오석규 ▲수도여자고등학교 안정숙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김양옥 ▲잠실고등학교 이근표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홍민표 ▲ 신도중학교 홍정희 ▲윤중중학교 이성숙 ▲문현중학교 원기승 ▲송례중학교 박미연 ▲구룡중학교 강연흥 ▲종암중학교 이조복 ▲무학여자고등학교 김경자 ▲방산고등학교 심현각 ▲선유고등학교 주영림 ▲영등포고등학교 장천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박상철 ▲성일중학교 김윤식 ▲신도림중학교 윤석연 ▲봉림중학교 김미혜 ▲봉원중학교 유장전 ▲신림중학교 원영철 ▲성수중학교 김길윤<br/><br/>◇교감 승진<br/><br/>▲은평고등학교 김홍선 ▲자운고등학교 이교운 ▲효문고등학교 장의수 ▲동부교육지원청 이대순 이충봉 조영숙 최연석 최하순 ▲서부교육지원청 오정근 정태철 조성욱 하광열 ▲남부교육지원청 문병숙 임경수 김팔성 ▲북부교육지원청 박준기 한애경 ▲ 중부교육지원청 여난실 ▲강동교육지원청 이경희 김기선 ▲성동교육지원청 정미숙 최정옥<br/><br/>◇교감 전보<br/><br/>▲경인고등학교 김재민 ▲구현고등학교 정회숙 ▲서울고등학교 이창우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정복영 ▲원묵고등학교 윤명희 ▲잠실고등학교 김완섭 ▲창동고등학교 김선관 ▲혜화여자고등학교 류영서 ▲강동교육지원청 오정훈 ▲ 강남교육지원청 이정란 ▲성동교육지원청 최선희 ▲공항고등학교 윤웅호 ▲미양고등학교 우한정 ▲불암고등학교 김범용 ▲삼성고등학교 이용식 ▲서울공업고등학교 박상태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김동수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채홍녀 ▲선유고등학교 최진흥 ▲용산공업고등학교 지성구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서정업 ▲중경고등학교 박연숙 ▲진관고등학교 김용국 ▲창덕여자고등학교 김윤경 ▲태릉고등학교 조호규 ▲서부교육지원청 노현숙 신현덕 이영아 이충우 ▲ 남부교육지원청 김희자 박노용 박영창 백문수 서정숙 조규태 한재근 ▲북부교육지원청 김전웅 이재호 ▲중부교육지원청 박래숙 조성자 ▲강동교육지원청 여명구 진성룡 ▲강서교육지원청 김정희 류지헌 양영심 양칠범 조경숙 황진돈 ▲강남교육지원청 심재향 장은진 ▲동작교육지원청 김일원 ▲성동교육지원청 육경신 정태호 ▲성북교육지원청 박성필<br/><br/><중등 교육전문직원 인사><br/><br/>◇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br/><br/>▲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병찬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최승택<br/><br/>◇교육전문직(관급) 전보<br/><br/>▲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동식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오희석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임승호 ▲교육정책국장 이준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협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란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 ▲교육연구정보원 인성진로연구부장 홍성남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임영호 ▲학교생활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 장학관 강병두 ▲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운영담당 장학관 최영규 ▲중등교육과 스마트러닝담당 장학관 박치동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담당 장학관 류성남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신승인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한홍열 ▲성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광훈 <br/><br/>◇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br/><br/>▲교육연구정보원 김해용 ▲과학전시관 송현미 ▲동부교육지원청 신현주 ▲남부교육지원청 김양수 박형준 ▲북부교육지원청 김나영 고효선 ▲중부교육지원청 한혜숙 ▲강남교육지원청 조영순 손의성 ▲동작교육지원청 황희순 황석길 ▲성동교육지원청 박정주 김찬기 ▲성북교육지원청 김찬우 ▲체육건강청소년과 홍민순 ▲감사관 이수형 이명희 ▲정책기획담당관 박정란 ▲교육복지담당관 이옥경 ▲교육과정정책과 고소향 정진권 ▲초등교육과 김영현 정만식 ▲중등교육과 박성희 ▲교원정책과 안훈 이건복 ▲학교생활교육과 이대해 ▲진로직업교육과 신창애 이만희 ▲체육건강청소년과 조현준 ▲과학전시관 이현준 최근수 ▲교육연수원 고광석 ▲학생교육원 신선호 김영삼 ▲동부교육지원청 박경신 이주경 ▲서부교육지원청 홍경희 ▲강동교육지원청 박미숙 ▲강서교육지원청 김해경 ▲성동교육지원청 정재숙<br/><br/>◇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타시도교육청 전출·입<br/><br/>▲교육부 이동환 김정화 김태환 ▲경기과학고등학교 박완규 ▲국립국제교육원 박재철 ▲강동교육지원청 김영윤 ▲남부교육지원청 권종원 ▲동작교육지원청 이선경 최정례 ▲교육연구정보원 강운석<br/><br/><여론독자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3.txt

제목: “내가 봐도 불편한 모습” ‘지니어스2’ 우승한 이상민 기자간담회  
날짜: 2014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410013556912  
본문: 6200만원을 우승상금으로 탄 가수 이상민 표정은 밝지 않았다. 기자들은 방송 중 있었던 논란들을 물고 늘어졌고 정종연 PD의 대답에는 연출자로서 고충과 아쉬움이 묻어났다.<br/><br/>tvN 예능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시즌2 : 룰 브레이커(이하 지니어스2)> 기자간담회가 24일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열렸다. 이상민은 “<span class='quot0'>제가 봐도 불편한 모습이 보였고 논란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span>”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왜 이렇게 끝났을까 자책도 하고 남 탓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갔고 엉망이었던 회도 있었다</span>”고 덧붙였다. <br/><br/><지니어스2>는 방송 내내 논란이 일었다. 방송인 이상민을 필두로 노홍철, 은지원 등의 ‘방송인 연합’과 프로게이머 홍진호, 마술사 이은결 등 ‘비방송인 연합’의 구도가 굳어졌다. 시청자들은 방송인들의 ‘친목질’에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두뇌게임, 심리전 등이 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아나운서 조유영이 해커 이두희 신분증을 숨겨 게임 진행 자체를 막자 프로그램 폐지 청원 운동도 일었다. <br/><br/>그런데도 시청자들은 욕을 하면서 봤다. ‘암메이커’(보면 화가나서 암이 생긴다는 뜻)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었는데도 케이블 예능프로그램으로서는 성공한 2%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송이 끝난 뒤면 으레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지니어스2>가 올랐다. <br/><br/>정 PD는 “<span class='quot1'>한 회 녹화가 끝날 때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렸다</span>”며 “<span class='quot1'>생각대로 되지 않는 진짜 생명력이 <지니어스2>가 갖고 있는 매력</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출연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제작진은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일부 제가 통제 못한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span>”고 말했다. 이어 “논란에 대한 해명도 해봤지만 더 상황만 꼬였다”며 당시 어려움을 털어놨다. <br/><br/>정 PD는 이어 “<span class='quot1'>방송 외적인 친분을 실제 게임에 끌어 들이는 것이 소셜 리얼리티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옳은지 그른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만 재미있는 경쟁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생각이라면 방지책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계속하겠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상민은 “<span class='quot0'>시즌3는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span>”며 “<span class='quot0'>녹화 분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논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span>”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 PD는 “<span class='quot1'>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포맷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대중문화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4.txt

제목: [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7) 한국인과 암 사망률  
날짜: 20140222  
기자: 황상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2100000032  
본문: ▲ 수명 연장 감안 ‘연령 표준화’ 후 암 사망률 계산하면 선진국은 줄지만 후진국선 계속 늘어… 한국도 지난 20년간 10만명당 사망률 계속 감소세<br/>오늘날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은 어떤 것들일까. 통계청은 1983년부터 매해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 이전은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은 물론 1890년대부터 비교적 믿을 만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해온 일본에 비해서도 거의 100년이 뒤지는 셈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하긴 했지만 정확도와 신뢰도가 대단히 낮아,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한다.)<br/>주지하다시피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단연 1등이다. 사망원인 통계는 암, 심장질환 등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특정 연도 1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몇 명이 죽는가 하는 식으로 작성한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 통계를 보면, 암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은 남녀 합쳐 인구 10만명당 146.5명이다. 이 정도의 암 사망률은 선진국 중 중간쯤 된다. 남성은 184.5명, 여성은 108.5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0%가량 많다. 사망원인 2등은 심장질환으로 남녀 모두 50명 남짓 된다. 3등은 흔히 뇌졸중이라고 일컫는 뇌혈관질환이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합쳐도 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4등은 무엇일까? 자살이다. 자살이 4등까지 오른 건 최근의 일이다. 자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일 터이다. 5등은 당뇨병이다. 그 다음으로 폐렴, 만성 하기도(호흡기)질환, 간질환, 운수사고(교통사고)가 뒤를 잇는다. 자살과 사고가 각기 4등과 9등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망원인은 질병이다. 그중에서도 암, 순환계질환, 대사성질환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통칭하는 병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br/>■ 암 사망률 단순 증가는 고령화 때문 <br/>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큰 문제였던 전염병은 이제 이런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가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암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순환계질환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그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 늘어난 반면, 뇌혈관질환은 감소하고 심장질환은 대체로 제자리걸음을 해서 이제는 암이 압도적인 1등이 되었다. 그밖에 자살, 당뇨병,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암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났다.<br/>한국에서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인 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시대별 또는 국가 사이에 암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 구성을 ‘표준화’해야 한다. 암 발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은 어떤 나이에서든 생기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증가한다. 암 유병률(정확한 표현으로는 암 유병자 분율)을 보면 0~14세는 0.08%이다. 0세부터 14세까지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연령층의 0.08%, 즉 1만명 가운데 8명이라는 뜻이다. 15~34세는 0.28%, 35~64세는 2.46%, 65세 이상은 6.94%이고 전체로는 1.9%이다. 65세 이상 연령층은 현재 100명 중 7명이 암을 앓고 있다. 특히 암을 앓는 65세 이상의 남성은 100명 중 거의 10명이나 되고, 여성은 그 절반인 5명가량이다. 이렇듯 암은 나이가 들수록 환자도 사망자도 많아진다. 이런 이유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고연령자가 많은 인구집단은 그렇지 않은 인구집단보다 암 발생률,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br/>따라서 연령 구성이 다른 인구집단의 암 발생률, 사망률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인구를 이용해 연령 표준화를 해야 한다.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암 사망률이 1900년에는 인구 10만명당 64명, 2005년에는 184명이었다. 100여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연령 표준화를 해서 비교하면 1900년은 115명, 2005년은 186명으로 그 기간에 1.6배로 늘어났다. (2000년도의 인구를 표준인구로 삼아 계산한 것이다.) 3배 증가가 1.6배 증가로 바뀐 것은 통계를 이용한 눈속임이 아니다. 암 사망률이 지난 100년 사이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구의 연령 구성이 달라져, 즉 인구가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뜻이다.<br/><br/>■ 한국인 남녀 암 사망원인 1위 폐암<br/>한국으로 돌아오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미국 등과 달리 1983년 이전은 사망원인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지만 그 이전 시대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도리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인종적 특성, 역사 과정,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관련 통계 자료를 뒤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br/>한국의 암 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72명에서 2012년 152명으로 2배 이상이 되었다. 그런데 연령 표준화를 하면(한국도 2000년도 인구를 표준인구로 해서 계산하고 있다) 1983년 102명, 2012년 98명으로 거의 같다. 미세한 차이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연령 표준화하기 전 암 사망률 값이 3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한 것은 연령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일 따름이다. 암 사망률이 높은 고연령층 인구가 증가해 암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암 사망률은 같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102명에서 계속 늘어나 1994년 12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그 뒤로는 거꾸로 감소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20년 사이에는 암 사망률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 사망률 감소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암 사망률이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럼 후진국은 어떤가? 후진국에서는 대체로 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암 사망률 증가, 감소 여부에 따라 후진국과 선진국을 가릴 수 있는 정도다. 요컨대 암은 과거의 ‘선진국형 질병’에서 ‘후진국형 질병’으로 의미와 특성이 변화해 가고 있다.<br/>통칭해서 암이라고 부르지만 위암, 유방암, 갑상샘(선)암 등 암에는 종류가 매우 많다. 그 가운데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남녀 합쳐 폐암이다. 이어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순이다. 위암은 2000년 이전에는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폐암과 간암에 연속 추월당해 이제는 3위다. 그 자리도 곧 대장암에 물려줄 추세다. 위암은 한국이나 일본, 칠레 등과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에서 얼마 전까지 1위였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도 1950년대 무렵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은 암이었다. 식생활의 변화와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위암은 위력을 잃게 되었다.<br/>한국인 남성 사망률 1위의 암은 폐암이고 간암, 위암이 뒤를 잇는다. 여성에게도 폐암이 1등이고 대장암, 위암이 뒤를 잇는다. 폐암이 남녀 모두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이 인구 10만명당 48.3명인 데 반해 여성은 17.8명으로 적다. 여성의 폐암 사망자 수는 남성의 간암(33.7명), 위암(24.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암은 여전히 남성의 생명을 훨씬 많이 뺏어가고 있는 질병이다. 여성에서 2, 3, 4위를 차지하는 것은 대장암과 위암, 간암이다. 언뜻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성 특유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그 다음 순위다. 연령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는 암의 종류가 달라진다.<br/>■ 10대·20대 사망순위 1위 ‘백혈병’<br/>암 중에서 10대와 20대 사망 순위 1등은 무엇일까? 백혈병이다. 1970년 개봉한 미국 영화 <러브 스토리>의 20대 여주인공 제니(알리 맥그로)는 백혈병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떠난다. 이 영화 이후 여주인공이 백혈병을 앓다 죽거나 살아나는 영화와 드라마가 속출했다.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상영 중인 <또 하나의 약속>의 윤미(박희정)는 제니보다 더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고생하다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의 절규를 뒤로 하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세상을 하직한다. 두 영화 속의 질병은 공통적으로 백혈병이지만, 40년 전의 영화에서는 낭만적인 질병으로 묘사되었고, 오늘의 영화에서는 그리고 현실에서는 탐욕스럽고 반인간적인 자본이 힘없는 노동자를 파괴하는 것을 드러내는 매개체다. 10대, 20대 사망률 2위 암은 뇌암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인구 10만명당 불과 1.2명, 0.6~0.8명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히 환자 수가 적은 질병인 것이다. 그래서 영화와 현실에서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br/>30대에서는 위암(10만명당 2.9명)이, 40대와 50대에서는 간암이 1등을 차지한다. 40대의 간암 사망률은 12.1명이지만, 50대가 되면 36.2명으로 껑충 늘어난다. 암은 중년 이후의 큰 문젯거리임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40대에서 3위로 상위에 오른 폐암은 50대에서 한 계단 올라 2위를 차지하고 60대부터는 단연 1위의 자리를 누린다. 사망률도 90.2명(60대), 235.8명(70대), 362.2명(80대)으로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 어떤 점에서 암과의 전쟁은 폐암과의 투쟁을 뜻하기도 한다.<br/>이번 회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주로 알아보았다. 다음번에는 암 문제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5.txt

제목: [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7) 한국인과 암 사망률  
날짜: 2014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11001354105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암 사망도 양극화… 선진국형 질병서 후진국형 질병으로 변화</strong><!-- SUB\_TITLE\_END--><br/><br/><b>▲ 수명 연장 감안 ‘연령 표준화’ 후 암 사망률 계산하면 선진국은 줄지만 후진국선 계속 늘어… 한국도 지난 20년간 10만명당 사망률 계속 감소세</b><br/><br/>오늘날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은 어떤 것들일까. 통계청은 1983년부터 매해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 이전은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은 물론 1890년대부터 비교적 믿을 만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해온 일본에 비해서도 거의 100년이 뒤지는 셈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하긴 했지만 정확도와 신뢰도가 대단히 낮아,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한다.)<br/><br/>주지하다시피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단연 1등이다. 사망원인 통계는 암, 심장질환 등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특정 연도 1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몇 명이 죽는가 하는 식으로 작성한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 통계를 보면, 암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은 남녀 합쳐 인구 10만명당 146.5명이다. 이 정도의 암 사망률은 선진국 중 중간쯤 된다. 남성은 184.5명, 여성은 108.5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0%가량 많다. 사망원인 2등은 심장질환으로 남녀 모두 50명 남짓 된다. 3등은 흔히 뇌졸중이라고 일컫는 뇌혈관질환이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합쳐도 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4등은 무엇일까? 자살이다. 자살이 4등까지 오른 건 최근의 일이다. 자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일 터이다. 5등은 당뇨병이다. 그 다음으로 폐렴, 만성 하기도(호흡기)질환, 간질환, 운수사고(교통사고)가 뒤를 잇는다. 자살과 사고가 각기 4등과 9등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망원인은 질병이다. 그중에서도 암, 순환계질환, 대사성질환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통칭하는 병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br/><br/><b>■ 암 사망률 단순 증가는 고령화 때문 </b><br/><br/>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큰 문제였던 전염병은 이제 이런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가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암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순환계질환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그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 늘어난 반면, 뇌혈관질환은 감소하고 심장질환은 대체로 제자리걸음을 해서 이제는 암이 압도적인 1등이 되었다. 그밖에 자살, 당뇨병,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암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났다.<br/><br/>한국에서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인 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시대별 또는 국가 사이에 암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 구성을 ‘표준화’해야 한다. 암 발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은 어떤 나이에서든 생기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증가한다. 암 유병률(정확한 표현으로는 암 유병자 분율)을 보면 0~14세는 0.08%이다. 0세부터 14세까지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연령층의 0.08%, 즉 1만명 가운데 8명이라는 뜻이다. 15~34세는 0.28%, 35~64세는 2.46%, 65세 이상은 6.94%이고 전체로는 1.9%이다. 65세 이상 연령층은 현재 100명 중 7명이 암을 앓고 있다. 특히 암을 앓는 65세 이상의 남성은 100명 중 거의 10명이나 되고, 여성은 그 절반인 5명가량이다. 이렇듯 암은 나이가 들수록 환자도 사망자도 많아진다. 이런 이유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고연령자가 많은 인구집단은 그렇지 않은 인구집단보다 암 발생률,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br/><br/>따라서 연령 구성이 다른 인구집단의 암 발생률, 사망률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인구를 이용해 연령 표준화를 해야 한다.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암 사망률이 1900년에는 인구 10만명당 64명, 2005년에는 184명이었다. 100여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연령 표준화를 해서 비교하면 1900년은 115명, 2005년은 186명으로 그 기간에 1.6배로 늘어났다. (2000년도의 인구를 표준인구로 삼아 계산한 것이다.) 3배 증가가 1.6배 증가로 바뀐 것은 통계를 이용한 눈속임이 아니다. 암 사망률이 지난 100년 사이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구의 연령 구성이 달라져, 즉 인구가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뜻이다.<br/><br/><br/><b>■ 한국인 남녀 암 사망원인 1위 폐암</b><br/><br/>한국으로 돌아오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미국 등과 달리 1983년 이전은 사망원인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지만 그 이전 시대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도리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인종적 특성, 역사 과정,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관련 통계 자료를 뒤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br/><br/>한국의 암 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72명에서 2012년 152명으로 2배 이상이 되었다. 그런데 연령 표준화를 하면(한국도 2000년도 인구를 표준인구로 해서 계산하고 있다) 1983년 102명, 2012년 98명으로 거의 같다. 미세한 차이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연령 표준화하기 전 암 사망률 값이 3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한 것은 연령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일 따름이다. 암 사망률이 높은 고연령층 인구가 증가해 암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암 사망률은 같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102명에서 계속 늘어나 1994년 12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그 뒤로는 거꾸로 감소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20년 사이에는 암 사망률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 사망률 감소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암 사망률이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럼 후진국은 어떤가? 후진국에서는 대체로 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암 사망률 증가, 감소 여부에 따라 후진국과 선진국을 가릴 수 있는 정도다. 요컨대 암은 과거의 ‘선진국형 질병’에서 ‘후진국형 질병’으로 의미와 특성이 변화해 가고 있다.<br/><br/>통칭해서 암이라고 부르지만 위암, 유방암, 갑상샘(선)암 등 암에는 종류가 매우 많다. 그 가운데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남녀 합쳐 폐암이다. 이어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순이다. 위암은 2000년 이전에는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폐암과 간암에 연속 추월당해 이제는 3위다. 그 자리도 곧 대장암에 물려줄 추세다. 위암은 한국이나 일본, 칠레 등과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에서 얼마 전까지 1위였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도 1950년대 무렵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은 암이었다. 식생활의 변화와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위암은 위력을 잃게 되었다.<br/><br/>한국인 남성 사망률 1위의 암은 폐암이고 간암, 위암이 뒤를 잇는다. 여성에게도 폐암이 1등이고 대장암, 위암이 뒤를 잇는다. 폐암이 남녀 모두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이 인구 10만명당 48.3명인 데 반해 여성은 17.8명으로 적다. 여성의 폐암 사망자 수는 남성의 간암(33.7명), 위암(24.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암은 여전히 남성의 생명을 훨씬 많이 뺏어가고 있는 질병이다. 여성에서 2, 3, 4위를 차지하는 것은 대장암과 위암, 간암이다. 언뜻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성 특유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그 다음 순위다. 연령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는 암의 종류가 달라진다.<br/><br/><b>■ 10대·20대 사망순위 1위 ‘백혈병’</b><br/><br/>암 중에서 10대와 20대 사망 순위 1등은 무엇일까? 백혈병이다. 1970년 개봉한 미국 영화 <러브 스토리>의 20대 여주인공 제니(알리 맥그로)는 백혈병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떠난다. 이 영화 이후 여주인공이 백혈병을 앓다 죽거나 살아나는 영화와 드라마가 속출했다.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상영 중인 <또 하나의 약속>의 윤미(박희정)는 제니보다 더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고생하다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의 절규를 뒤로 하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세상을 하직한다. 두 영화 속의 질병은 공통적으로 백혈병이지만, 40년 전의 영화에서는 낭만적인 질병으로 묘사되었고, 오늘의 영화에서는 그리고 현실에서는 탐욕스럽고 반인간적인 자본이 힘없는 노동자를 파괴하는 것을 드러내는 매개체다. 10대, 20대 사망률 2위 암은 뇌암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인구 10만명당 불과 1.2명, 0.6~0.8명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히 환자 수가 적은 질병인 것이다. 그래서 영화와 현실에서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br/><br/>30대에서는 위암(10만명당 2.9명)이, 40대와 50대에서는 간암이 1등을 차지한다. 40대의 간암 사망률은 12.1명이지만, 50대가 되면 36.2명으로 껑충 늘어난다. 암은 중년 이후의 큰 문젯거리임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40대에서 3위로 상위에 오른 폐암은 50대에서 한 계단 올라 2위를 차지하고 60대부터는 단연 1위의 자리를 누린다. 사망률도 90.2명(60대), 235.8명(70대), 362.2명(80대)으로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 어떤 점에서 암과의 전쟁은 폐암과의 투쟁을 뜻하기도 한다.<br/><br/>이번 회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주로 알아보았다. 다음번에는 암 문제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br/><br/><황상익 | 서울대 의대 교수·의사학>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6.txt

제목: [건강]두경부질환을 아시나요… 아프긴 아픈데 어디로 가나  
날짜: 2014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0100000008  
본문: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어느 진료과로 가야할지 고민한 적,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진료과 이름이 어렵다 보니 생기는 해프닝이다. 특히 두경부외과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표적인 과다. 두경부외과는 이비인후과의 한 분야로 뇌를 제외한 귀·코·얼굴·구강·목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다. <br/>△갑상선암…여성암 30.1% 차지<br/>갑상선은 전 인구의 5~8%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혹이 있을 정도로 혹과 암이 잘 생기는 장기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5배 정도 많으며 여성암의 30.1%를 차지한다. 갑상선결절은 갑상선혹을 말하며 약 5% 정도가 암이다. 평소와는 달리 목에 이상한 것이 만져지거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 변한 목소리가 2~3주 내에 회복되지 않을 때는 검사받는 것이 좋다. <br/><br/>△입안의 잘 낫지 않는 상처, 구강암<br/>구강암은 입안에서 처음 발생해 림프절과 폐, 뼈로 전신전이를 일으키는 암이다. 설암은 혀에 암이 생기는 대표적인 구강암이다. 구강암의 원인은 흡연, 음주, 불량한 구강위생상태 등이 있다. 그중 가장 위험한 흡연은 음주가 동반될 경우 위험도가 약 10배 정도 올라간다. 특히 입안의 혹이나 궤양이 3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통증 유무와 관계없이 암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br/>△흡연자 위협하는 후두암<br/>후두암은 말 그대로 후두에 생기는 암이다. 후두암은 주로 성대에 생기며 목소리 변화가 첫 증상인 경우가 많다. 한 달 이상 쉰 목소리가 지속되면 검사받는 것이 좋다. 쉰 목소리 외에도 이물감, 만성기침, 호흡곤란, 삼킴곤란, 출혈, 목에 만져지는 혹 등도 전조증상일 수 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br/>△목이 조이는 느낌, 인후두역류질환<br/>인후두역류질환은 식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위산과 위 내용물이 목으로 올라와 인두이물감, 목소리 변화, 기침 등 목에 불편한 증상을 일으킨다. 인후두역류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피, 술, 콜라, 맵고 짠 음식 등 위산분비증가나 식도기능저해 음식물을 제한하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br/>△무리한 목 사용습관, 성대결절·성대폴립 불러<br/>목소리가 나빠지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있으면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이 발생한다. 성대결절은 굳은살과 비슷하고 성대폴립은 작은 물혹처럼 생겼다. 이비인후과에서 후두내시경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발성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 음성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br/>△목에 만져지는 혹, 경부종괴<br/>우연히 목에서 혹이 만져져 이비인후과를 찾는 경우가 있다. 이 혹을 경부종괴라고 한다. 경부종괴는 나이와 혹의 위치가 중요하다. 어릴수록 선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암일 확률이 크다. <br/>△신경마비 일으키는 침샘종양<br/>침은 음식을 삼키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은 침샘에서 만들어지는데 귀밑, 턱밑, 혀밑 한쪽이 붓거나 혹이 만져지면 침샘종양을 의심할 수 있다. 침샘주변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전후 안면마비 등 신경마비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br/>△누구나 흔히 발생하는 편도질환<br/>편도는 목 안과 코 뒤에 위치한 조직으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편도염을 자주 앓다보면 세균이 사는 집이 된다. 또 만성편도염을 앓은 경우 편도에 작고 노란알갱이가 생기는 편도결석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 <br/>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하정훈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는 두경부암은 흡연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2차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두경부암은 다른 부위의 암에 비해 진단이나 치료 후 관찰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얼굴이나 목에 생기다보니 미용적인 문제뿐 아니라 먹거나 목소리를 내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7.txt

제목: [명사의 건강관리]“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푸짐하게” 역발상 식사  
날짜: 2014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0100000011  
본문: ‘명사의 건강관리’ 이번호 주인공은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변호사가 추천해주신 박동수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교수입니다. 박동수 교수는 전립선암과 신장암 분야의 명의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고위험군 전립선암과 전립선을 적출하지 않고 수술하는 치료법으로 유명하며 아직도 끊임없이 전립선암환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추천한 다음호 명사의 건강관리 주인공은 서경석 서울대병원 외과교수입니다. 서경석 교수는 간이식 명의로 심장이 멎은 40대 여성의 간을 떼어내 간경변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60대 여성에게 이식하는 ‘심장사 간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킨 의사입니다. <편집자 주><br/><br/>전립선암은 진행과 전이속도가 느려 조기발견 시 완치율이 높고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환자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암 중 하나다. 전립선암환자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박동수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체력유지에 각별히 힘쓰고 있다. 서너 시간, 길게는 다섯 시간 이상 꼼짝 없이 서있어야 하는 암 수술 특성상 체력이 저하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r/>“스스로 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술실에서 몇 시간 동안 서있는 게 힘들어져요. 수술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건강을 지키자니 매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시작한 것이 일요일 아침 일찍 한 시간 넘게 조깅하는 것이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4년 동안 매주 한강변을 달렸죠.”<br/><br/>수련의 시절부터 습관이 돼 20년 넘게 아침은 따로 먹지 않는다는 박 교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침은 풍족하게, 저녁은 가볍게’라는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져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을 푸짐하게 차려 먹는 것이 그만의 색다른 건강비결이다.<br/>“남들이 좋다는 방식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에게 맞는 식습관과 운동주기가 있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마구잡이로 따라 먹는 것보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을 즐겨먹고 자신만의 운동법을 찾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br/>박 교수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하는 식사를 즐기고 매일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소를 즐겨먹고 젓갈이나 절인 음식은 피한다. 남들처럼 특정한 음식을 골라먹거나 운동법을 쫓기보다는 꾸준함과 부지런함으로 틈나는 대로 걷고 정해진 일정대로 운동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다.<br/>“내 몸에서 요구하는 음식은 거침없이 드세요.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 음식애 대한 욕구가 생긴 건데 억지로 안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각종 욕구를 적당히 즐기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삶이죠.” <br/>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건강기준을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 없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사,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의사로 남고 싶다”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8.txt

제목: [인터뷰]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정광윤 회장  
날짜: 2014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0100000007  
본문: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는 이달 중 ‘구강·목·갑상선질환 바로알기’라는 책자를 발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경부질환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br/>정광윤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장은 “<span class='quot0'>갑상선을 제외한 두경부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환자들이 늦게 병을 발견하는데다 자신이 걸린 질환명조차 정확히 잘 모르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인터넷에 의학정보들이 넘쳐나면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 상업적광고가 뒤섞여 있어 주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갑상선두경부외과는 이비인후과 세부전공분야 중 하나로 갑상선암·후두암·구강암·인두암·침샘암 등 머리, 얼굴, 구강, 목에 생기는 암에 대한 치료와 수술이다.<br/>정 회장은 “<span class='quot0'>두경부질환은 경부와 뇌를 제외한 머리·목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얼굴변형·목소리변형 등이 생기는 것이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두경부질환은 특히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br/>“<span class='quot1'>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많은 사람들이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책자를 통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span>” 그는 소책자 발간과 관련,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며 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도 두경부질환 예방과 조기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89.txt

제목: [한승오의 아주 짧은 초상화]조금은 덜 외로울 거 같으니까  
날짜: 20140220  
기자: 한승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0100000043  
본문: 정심요양병원에서 나는 3년 넘게 살고 있다. 그 동안 병원 밖을 나가 본 적이 전혀 없다.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는 303호 병실의 막내다. 다른 일곱 개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은 칠십 대가 세 명, 팔십 대가 세 명, 그리고 구십 대가 한 명이다. 아마도 이 병원 전체 환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젊은 사람일 것이다. 물론 5층까지 있는 병실들을 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니, 나의 추측이 틀릴 수 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조금은 덜 외로울 거 같으니까.<br/>4년 전 어느 봄날 오전,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번역’이라는 과목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 동국대학교로 가려고 신촌전철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진 나는 신경외과 병동에서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뇌경색 증상을 치료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예전보다 조금 뻣뻣해진 오른쪽 팔다리와 단기기억상실증이 내 몸에 남았다. 그 탓에 나는 모든 생계수단을 잃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다.<br/>그런 나를 정심요양병원은 치매환자로 분류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취급했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일 아침식사 후 나에게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고향, 집 주소 따위를 시시콜콜하게 묻는다. 마치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조사원처럼 무미건조하게.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를 내가 그녀에게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녀의 대화 스타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녀가 유일한데, 그녀마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면 … 그런 경우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병실의 다른 여자들은 아무 말 없이 눈만 멀뚱멀뚱 뜬 채 그저 먹고, 싸고, 잘 뿐이다. 난 그들과 다르다.<br/>요양보호사가 나에게 묻는다. 엊그제 면회 온 사람 누구예요? 몰라. 어떤 여자 분이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안 나. 언뜻 보기에는 아주 친한 친구 분 같던데, 그래도 생각 안 나요? …… 이상하게도, 가까운 시간의 일일수록 나에게는 더욱 멀고 흐릿하다. 그 여자의 얼굴 생김도 이목구비가 불확실하고 흐릿하다. 단지 그 목소리 톤만이 귓속에서 살아 쟁쟁거린다. 나는 뿌옇게 흐려진 기억을 더듬으며 중얼거린다.<br/>그 여자가 병상 옆에 서서 입을 열었어. 영미야, 좀 어때? 병상에 앉은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내 이름이 너무 어색했어. 난 종종 내 이름마저 까먹으니까. 근데 누구세요? 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 나야, 혜숙이. 기억 안 나?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조금 큰소리로 말했어. 같은 과 단짝이었잖아. 영문학과 79학번 정혜숙! 잠시 후 그녀는 내 손을 좀 더 꽉 쥐며 내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 조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는 뒤로 조금 물러나 앉으며 그녀를 쳐다보고 말했어. 얼굴은 혜숙이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줌만 너무 늙었어. 아줌마? 얘는 친구한테… 아니, 그 말도 맞는 말이지. 이제 쉰다섯이니. 쉰다섯이라는 그녀의 말에 난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직이 말했어. 난 스물한 살인데 … 순간 그녀 눈이 조금 흔들렸고, 내 손을 잡은 그녀 손이 슬그머니 풀렸어. 나는 재빨리 손을 빼내며 헛기침을 몇 번 한 후 말했어. 혜숙이한테 좋은 남자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 영미야, 나 결혼했잖아. 그때 네가 소개해준 그 남자랑. 너도 결혼식에 왔었고. 아줌마가 혜숙이한테 연락 좀 해줘. 놓치기 너무 아까운 남자야. 영미야, 내가 바로 그 혜숙이야. 아니야, 내 친구 혜숙인 더 젊고 더 예뻐. 결국 그녀는 눈을 돌리고 어색한 웃음을 머금었어. 당신도 그 여자 얼굴 봤지.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볼 살이 축 처진 그 아줌마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내 친구 혜숙이라는 건.<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그럼, 언니는 몇 살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그녀가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쏘아보자, 그녀는 또 묻는다. 진짜 몇 살이에요? 스물한 살. 언니는 거울도 안 보나 봐요? 누가 그 얼굴을 스물한 살이라 그래요? 그녀 말대로 나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는다. 앞니 하나가 빠져나간 이후에는 화장실 거울에조차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녀가 비시시 웃으며 묻는다. 그때가 좋았나 봐요? …… 나는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중얼거린다.<br/>네 달 동안의 휴교령이 풀리고 학교가 문을 연 어느 가을날 아침, 난 강의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3학년 전공필수과목인 ‘현대영문학강독’ 수업을 듣고 있어. 칠판에 비스듬히 걸린 투명한 햇살, 출석부에서 불리는 낯익은 이름들, 그 중 유일하게 응답 없는 이름 정혜숙, 물비늘처럼 흔들리는 친구들 눈빛, 서서히 번져오는 고독감과 깊은 침묵. 난 청바지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뒤로 모아 묶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야.<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가족은 누가 있어요? 몰라. 어머니와 여동생 분이 있잖아요? 몰라. 왜 그래요? 두 분과 사이가 나빴나요? ……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어렵게 입을 연다.<br/>생각이 잘 안 나. 엄마와 동생 얼굴이. 어떤 때는 엄마와 동생이 아예 없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망각하더라도 엄마와 동생만은 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다른 것들처럼 그들도 점점 잊혀져가는 거겠지. 여하튼 홀가분해, 이상한 기분이지만. 오빠가 암으로 죽고 연이어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부터는 엄마와 동생을 바라지하는 일은 온전히 내 몫이었어. 대학 시간강사와 학원강사 노릇에 틈틈이 번역 일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녔지. 난 그 짐을 벗어버릴 수도 없었고 애써 벗어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어. 내 몸에 붙어 있는 뗄 수 없는 혹이라 생각했지. 그러다가 이렇게 꽈앙 하고 터져버린 거야. 마치 익숙한 길을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몰래 묻어둔 지뢰를 밟은 것처럼. 당신이라면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겠어. 아니, 한 걸음이라도 다시 내디딜 수 있겠어.<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집은 어디예요? 정심요양병원 치매환자병동 303호 제4병상. 여긴 병원이고, 집이 어디냐고요? 정심요양병원 치매환자병동 … 아니,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던 집 말이에요? 그런 집은 없어. 나는 그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녀는 무미건조한 웃음을 머금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0.txt

제목: [한승오의 아주 짧은 초상화]조금은 덜 외로울 거 같으니까  
날짜: 20140220  
기자: 한승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0100000173  
본문: 정심요양병원에서 나는 3년 넘게 살고 있다. 그 동안 병원 밖을 나가 본 적이 전혀 없다.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는 303호 병실의 막내다. 다른 일곱 개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은 칠십 대가 세 명, 팔십 대가 세 명, 그리고 구십 대가 한 명이다. 아마도 이 병원 전체 환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젊은 사람일 것이다. 물론 5층까지 있는 병실들을 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니, 나의 추측이 틀릴 수 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조금은 덜 외로울 거 같으니까.<br/>4년 전 어느 봄날 오전,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번역’이라는 과목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 동국대학교로 가려고 신촌전철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진 나는 신경외과 병동에서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뇌경색 증상을 치료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예전보다 조금 뻣뻣해진 오른쪽 팔다리와 단기기억상실증이 내 몸에 남았다. 그 탓에 나는 모든 생계수단을 잃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다.<br/>그런 나를 정심요양병원은 치매환자로 분류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취급했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일 아침식사 후 나에게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고향, 집 주소 따위를 시시콜콜하게 묻는다. 마치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조사원처럼 무미건조하게.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를 내가 그녀에게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녀의 대화 스타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녀가 유일한데, 그녀마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면 … 그런 경우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병실의 다른 여자들은 아무 말 없이 눈만 멀뚱멀뚱 뜬 채 그저 먹고, 싸고, 잘 뿐이다. 난 그들과 다르다.<br/>요양보호사가 나에게 묻는다. 엊그제 면회 온 사람 누구예요? 몰라. 어떤 여자 분이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안 나. 언뜻 보기에는 아주 친한 친구 분 같던데, 그래도 생각 안 나요? …… 이상하게도, 가까운 시간의 일일수록 나에게는 더욱 멀고 흐릿하다. 그 여자의 얼굴 생김도 이목구비가 불확실하고 흐릿하다. 단지 그 목소리 톤만이 귓속에서 살아 쟁쟁거린다. 나는 뿌옇게 흐려진 기억을 더듬으며 중얼거린다.<br/>그 여자가 병상 옆에 서서 입을 열었어. 영미야, 좀 어때? 병상에 앉은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내 이름이 너무 어색했어. 난 종종 내 이름마저 까먹으니까. 근데 누구세요? 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 나야, 혜숙이. 기억 안 나?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조금 큰소리로 말했어. 같은 과 단짝이었잖아. 영문학과 79학번 정혜숙! 잠시 후 그녀는 내 손을 좀 더 꽉 쥐며 내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 조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는 뒤로 조금 물러나 앉으며 그녀를 쳐다보고 말했어. 얼굴은 혜숙이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줌만 너무 늙었어. 아줌마? 얘는 친구한테… 아니, 그 말도 맞는 말이지. 이제 쉰다섯이니. 쉰다섯이라는 그녀의 말에 난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직이 말했어. 난 스물한 살인데 … 순간 그녀 눈이 조금 흔들렸고, 내 손을 잡은 그녀 손이 슬그머니 풀렸어. 나는 재빨리 손을 빼내며 헛기침을 몇 번 한 후 말했어. 혜숙이한테 좋은 남자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 영미야, 나 결혼했잖아. 그때 네가 소개해준 그 남자랑. 너도 결혼식에 왔었고. 아줌마가 혜숙이한테 연락 좀 해줘. 놓치기 너무 아까운 남자야. 영미야, 내가 바로 그 혜숙이야. 아니야, 내 친구 혜숙인 더 젊고 더 예뻐. 결국 그녀는 눈을 돌리고 어색한 웃음을 머금었어. 당신도 그 여자 얼굴 봤지.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볼 살이 축 처진 그 아줌마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내 친구 혜숙이라는 건.<br/><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그럼, 언니는 몇 살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그녀가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쏘아보자, 그녀는 또 묻는다. 진짜 몇 살이에요? 스물한 살. 언니는 거울도 안 보나 봐요? 누가 그 얼굴을 스물한 살이라 그래요? 그녀 말대로 나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는다. 앞니 하나가 빠져나간 이후에는 화장실 거울에조차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녀가 비시시 웃으며 묻는다. 그때가 좋았나 봐요? …… 나는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중얼거린다.<br/>네 달 동안의 휴교령이 풀리고 학교가 문을 연 어느 가을날 아침, 난 강의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3학년 전공필수과목인 ‘현대영문학강독’ 수업을 듣고 있어. 칠판에 비스듬히 걸린 투명한 햇살, 출석부에서 불리는 낯익은 이름들, 그 중 유일하게 응답 없는 이름 정혜숙, 물비늘처럼 흔들리는 친구들 눈빛, 서서히 번져오는 고독감과 깊은 침묵. 난 청바지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뒤로 모아 묶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야.<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가족은 누가 있어요? 몰라. 어머니와 여동생 분이 있잖아요? 몰라. 왜 그래요? 두 분과 사이가 나빴나요? ……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어렵게 입을 연다.<br/>생각이 잘 안 나. 엄마와 동생 얼굴이. 어떤 때는 엄마와 동생이 아예 없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망각하더라도 엄마와 동생만은 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다른 것들처럼 그들도 점점 잊혀져가는 거겠지. 여하튼 홀가분해, 이상한 기분이지만. 오빠가 암으로 죽고 연이어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부터는 엄마와 동생을 바라지하는 일은 온전히 내 몫이었어. 대학 시간강사와 학원강사 노릇에 틈틈이 번역 일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녔지. 난 그 짐을 벗어버릴 수도 없었고 애써 벗어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어. 내 몸에 붙어 있는 뗄 수 없는 혹이라 생각했지. 그러다가 이렇게 꽈앙 하고 터져버린 거야. 마치 익숙한 길을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몰래 묻어둔 지뢰를 밟은 것처럼. 당신이라면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겠어. 아니, 한 걸음이라도 다시 내디딜 수 있겠어.<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집은 어디예요? 정심요양병원 치매환자병동 303호 제4병상. 여긴 병원이고, 집이 어디냐고요? 정심요양병원 치매환자병동 … 아니,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던 집 말이에요? 그런 집은 없어. 나는 그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녀는 무미건조한 웃음을 머금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1.txt

제목: [기고]담배 소송의 왜곡 경계해야  
날짜: 20140220  
기자: 조규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20100000039  
본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움직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뜨겁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HO WPRO)에서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WHO가 보유한 보건학적 법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r/>서울시의 지지 의사 표명에 이어 강동구 등 의회에서도 흡연피해 구제 결의안을 상정해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는 등 각 계층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br/>그런 가운데 10만여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 스모킹’은 “<span class='quot0'>건보공단의 막대한 소송 비용은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기금 신설 등을 강행할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span>”이라며 담배소송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br/>담배소송으로 결국 담뱃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전혀 일리 없는 게 아니다. <br/>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담배회사는 법정 공방 끝에 주정부와 25년간 2060억달러(약 220조원)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담배회사들은 합의금을 납부하기 위해 담뱃값을 30%가량 인상해 부담을 결국 소비자 몫으로 전가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br/>명백히 담배소송의 당사자는 담배회사다. 흡연자가 아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폐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연 1조7000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br/>전 국민은 비용 부담을 위해 보험료를 갹출해 납부하고 있는데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br/>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는 흡연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해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책임 입증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패소했다. <br/>그러나 이번 공단에서 제기하는 소송은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에서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소세포암, 편평세포암을 일차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br/>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 가능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br/>그러나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 등이 확인되어 금연운동이 자연스럽게 확산돼 국민의 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br/>우리 사회는 흡연자의 ‘흡연권’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담배로 인해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지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돼 왔다. <br/>WHO에서도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목하고 있다. 모든 암의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다. 담배소송은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2.txt

제목: [여적]갑상샘암  
날짜: 20140219  
기자: 노응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9100000054  
본문: 보건복지부의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1999~2011년 10여년간 갑상샘암의 연평균 증가율은 23.7%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3.6%)보다 6.5배 높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다. 세계 의학계에서는 보통 암 발생률이 매년 1~2%만 증감해도 그 이유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지만, 한국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아예 정상적인 통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br/>갑상샘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첨단 영상진단기기의 발전으로 1~2㎜의 극소 암까지 샅샅이 찾아내기 때문이다. 특별한 증세가 없는 성인이라도 갑상샘 초음파 검진을 하면 1~2%는 암으로 진단된다고 한다. 그러나 의학계 일부에서는 갑상샘암은 조기 진단이 필요한 암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상샘암은 천천히 진행되는 ‘착한 암’ ‘거북이 암’이므로 조금 늦게 진단해도 완치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갑상샘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00%에 가깝다. 그래서 ‘갑상샘암은 암도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br/>곤도 마코토는 일본에서 1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에서 “<span class='quot0'>아주 작은 병변까지 찾아내는 방법이 나온다면 성인 3명 중 1명은 갑상샘암 진단을 받을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갑상샘암 사망자는 전체 암 사망자의 0.1%에 불과하다</span>”고 지적했다. 그냥 둬도 괜찮을 작은 암을 굳이 조기 발견해 불필요한 치료를 하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br/>그러나 의학계에서는 갑상샘암도 조기 발견해 적극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갑상샘암도 엄연한 암인 만큼 높은 생존율을 과신하지 말라거나 갑상샘암인 줄 알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갑상샘암은 빨리 퍼지거나 진행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한다.<br/>갑상샘암에 대해 의학계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리니 시민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 갑상샘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이뤄지고 있다면 환자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이기도 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3.txt

제목: [한승오의 아주 짧은 초상화]조금은 덜 외로울 거 같으니까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910013520393  
본문: 정심요양병원에서 나는 3년 넘게 살고 있다. 그 동안 병원 밖을 나가 본 적이 전혀 없다.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는 303호 병실의 막내다. 다른 일곱 개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은 칠십 대가 세 명, 팔십 대가 세 명, 그리고 구십 대가 한 명이다. 아마도 이 병원 전체 환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젊은 사람일 것이다. 물론 5층까지 있는 병실들을 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니, 나의 추측이 틀릴 수 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조금은 덜 외로울 거 같으니까.<br/><br/>4년 전 어느 봄날 오전,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번역’이라는 과목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 동국대학교로 가려고 신촌전철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진 나는 신경외과 병동에서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뇌경색 증상을 치료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예전보다 조금 뻣뻣해진 오른쪽 팔다리와 단기기억상실증이 내 몸에 남았다. 그 탓에 나는 모든 생계수단을 잃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다.<br/><br/>그런 나를 정심요양병원은 치매환자로 분류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취급했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일 아침식사 후 나에게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고향, 집 주소 따위를 시시콜콜하게 묻는다. 마치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조사원처럼 무미건조하게.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를 내가 그녀에게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녀의 대화 스타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녀가 유일한데, 그녀마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면 … 그런 경우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병실의 다른 여자들은 아무 말 없이 눈만 멀뚱멀뚱 뜬 채 그저 먹고, 싸고, 잘 뿐이다. 난 그들과 다르다.<br/><br/>요양보호사가 나에게 묻는다. 엊그제 면회 온 사람 누구예요? 몰라. 어떤 여자 분이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안 나. 언뜻 보기에는 아주 친한 친구 분 같던데, 그래도 생각 안 나요? …… 이상하게도, 가까운 시간의 일일수록 나에게는 더욱 멀고 흐릿하다. 그 여자의 얼굴 생김도 이목구비가 불확실하고 흐릿하다. 단지 그 목소리 톤만이 귓속에서 살아 쟁쟁거린다. 나는 뿌옇게 흐려진 기억을 더듬으며 중얼거린다.<br/><br/>그 여자가 병상 옆에 서서 입을 열었어. 영미야, 좀 어때? 병상에 앉은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내 이름이 너무 어색했어. 난 종종 내 이름마저 까먹으니까. 근데 누구세요? 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 나야, 혜숙이. 기억 안 나?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조금 큰소리로 말했어. 같은 과 단짝이었잖아. 영문학과 79학번 정혜숙! 잠시 후 그녀는 내 손을 좀 더 꽉 쥐며 내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 조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는 뒤로 조금 물러나 앉으며 그녀를 쳐다보고 말했어. 얼굴은 혜숙이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줌만 너무 늙었어. 아줌마? 얘는 친구한테… 아니, 그 말도 맞는 말이지. 이제 쉰다섯이니. 쉰다섯이라는 그녀의 말에 난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직이 말했어. 난 스물한 살인데 … 순간 그녀 눈이 조금 흔들렸고, 내 손을 잡은 그녀 손이 슬그머니 풀렸어. 나는 재빨리 손을 빼내며 헛기침을 몇 번 한 후 말했어. 혜숙이한테 좋은 남자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 영미야, 나 결혼했잖아. 그때 네가 소개해준 그 남자랑. 너도 결혼식에 왔었고. 아줌마가 혜숙이한테 연락 좀 해줘. 놓치기 너무 아까운 남자야. 영미야, 내가 바로 그 혜숙이야. 아니야, 내 친구 혜숙인 더 젊고 더 예뻐. 결국 그녀는 눈을 돌리고 어색한 웃음을 머금었어. 당신도 그 여자 얼굴 봤지.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볼 살이 축 처진 그 아줌마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내 친구 혜숙이라는 건.<br/><br/><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그럼, 언니는 몇 살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그녀가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쏘아보자, 그녀는 또 묻는다. 진짜 몇 살이에요? 스물한 살. 언니는 거울도 안 보나 봐요? 누가 그 얼굴을 스물한 살이라 그래요? 그녀 말대로 나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는다. 앞니 하나가 빠져나간 이후에는 화장실 거울에조차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녀가 비시시 웃으며 묻는다. 그때가 좋았나 봐요? …… 나는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중얼거린다.<br/><br/>네 달 동안의 휴교령이 풀리고 학교가 문을 연 어느 가을날 아침, 난 강의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3학년 전공필수과목인 ‘현대영문학강독’ 수업을 듣고 있어. 칠판에 비스듬히 걸린 투명한 햇살, 출석부에서 불리는 낯익은 이름들, 그 중 유일하게 응답 없는 이름 정혜숙, 물비늘처럼 흔들리는 친구들 눈빛, 서서히 번져오는 고독감과 깊은 침묵. 난 청바지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뒤로 모아 묶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야.<br/><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가족은 누가 있어요? 몰라. 어머니와 여동생 분이 있잖아요? 몰라. 왜 그래요? 두 분과 사이가 나빴나요? ……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어렵게 입을 연다.<br/><br/>생각이 잘 안 나. 엄마와 동생 얼굴이. 어떤 때는 엄마와 동생이 아예 없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망각하더라도 엄마와 동생만은 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다른 것들처럼 그들도 점점 잊혀져가는 거겠지. 여하튼 홀가분해, 이상한 기분이지만. 오빠가 암으로 죽고 연이어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부터는 엄마와 동생을 바라지하는 일은 온전히 내 몫이었어. 대학 시간강사와 학원강사 노릇에 틈틈이 번역 일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녔지. 난 그 짐을 벗어버릴 수도 없었고 애써 벗어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어. 내 몸에 붙어 있는 뗄 수 없는 혹이라 생각했지. 그러다가 이렇게 꽈앙 하고 터져버린 거야. 마치 익숙한 길을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몰래 묻어둔 지뢰를 밟은 것처럼. 당신이라면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겠어. 아니, 한 걸음이라도 다시 내디딜 수 있겠어.<br/><br/>요양보호사가 다시 묻는다. 집은 어디예요? 정심요양병원 치매환자병동 303호 제4병상. 여긴 병원이고, 집이 어디냐고요? 정심요양병원 치매환자병동 … 아니,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던 집 말이에요? 그런 집은 없어. 나는 그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녀는 무미건조한 웃음을 머금는다.<br/><br/><한승오 | 농부·작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4.txt

제목: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명·암 “동기들과 관계 돈독” “폭음에 성폭력 우려”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91001352108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인간적으로 가까워져 학교 생활에 큰 도움</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섹시댄스·러브샷 요구 등 과도한 스킨십에 불쾌</strong><!-- SUB\_TITLE\_END--><br/><br/>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호텔경영학과에 합격한 김용수씨(21)는 학교 생활에 애정을 붙이게 된 계기로 학생회가 주최한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신입생환영회) 행사를 꼽았다. 3박4일 동안 낮 시간 체육대회와 밤 시간 술자리를 거듭하며서 동기, 선배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새터 때 선배가 추천했던 교양수업이 지난 학기 최고의 수업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도 새터에 가고 싶었지만 집에 일이 있어 못 가 아쉽다</span>”고 말했다.<br/><br/>반면 이지연양(19·여)은 지난해 새터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이양은 “<span class='quot1'>새내기들 장기자랑을 시킨다며 여학생이 ‘섹시댄스’를 추도록 하는 분위기나 남녀 간 스킨십을 유도하는 술자리 게임이 불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술 마시고 친해지자는 분위기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span>”고 전했다.<br/><br/><br/>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신입생 환영행사로 들떠 있던 대학가는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학생회가 주최한 신입생 환영행사가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안전문제 등에 대한 당부가 이어지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새터 문화’를 되돌아보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br/><br/>학부모들이 신입생 환영행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남녀 합숙’과 ‘과도한 음주’이다. 경기 안양에 사는 주부 이모씨(52)는 “딸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걱정하던데, 이렇게까지 신입생 환영회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안전사고도 일어났는데 왜 굳이 학교에서 하지 않고 ‘합숙’을 해야만 하는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br/><br/>반면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는 캠프 형식에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경희대 경제학과 새터기획단에서 활동한 이수종씨(20)는 “한 과 신입생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 합숙 등의 행사가 없으면 친해지기 어렵고, 친한 선후배나 친구가 없으면 개개인은 대학 생활 내내 겉돌다 ‘스펙’ 쌓기로 4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2'>좋은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음주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노력했다</span>”고 밝혔다.<br/><br/>새터에서의 술자리나 음주강요 문제는 대학 내에서도 지적된다. 한양대·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총여학생회는 새터 시즌에 앞서 ‘반(反)성폭력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학내 교육을 실시했다. 자료집의 사례를 보면 ‘러브샷’ ‘포옹샷’ 등 게임 벌칙으로 스킨십 강요, 동성끼리 팔짱을 끼고 마실 경우 ‘게이샷’ ‘레즈샷’이라며 모욕적 별칭 붙이기 등이 있었다. <br/><br/>김다예 한양대 총여학생회장(24·경영대)은 “<span class='quot3'>전통이란 명목으로 부적절한 문화가 용인되고, 대안적 놀이문화가 부재해서 벌어지는 현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자치를 제한하기보다는 차별 이슈를 더 적극 제기할 기회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장한슬씨도 “총여학생회의 교육 이후 ‘게이샷’ ‘러브샷’ 등의 용어가 상당히 줄었다”며 “학교별로 문화가 많이 다르지만 자치 경험이 많아질수록 건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br/><br/><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5.txt

제목: 여수 시민사회·노동단체, ‘봉두마을 송전탑 철거 대책위’ 출범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910013517991  
본문: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19일 한국 전력이 설치한 고압 송전탑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여수시 율촌면 봉두마을에서 ‘봉두마을 송전탑 철거 시민대책위’를 출범시켰다.<br/><br/>시민대책위는 이날 현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이 우선이다. 송전탑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br/><br/>시민대책위는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500여년간 오순도순 정겹게 살아온 80여 가구 봉두마을 주민들이 지난 40여년간 마을을 둘러싼 고압송전선로로 인해 건강과 재산 등 기본권을 빼앗기며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봉두 마을에는 1970년대부터 154㎸와 345㎸ 송전탑 19기가 들어서 주민 20여명이 전자파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각종 암으로 사망하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투병중에 있다.<br/><br/>주민 뿐 아니라 어미소 30여 마리도 전자파로 폐사하는 등 생활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br/><br/>여기에 박근혜 정부와 한전은 그것도 부족해서 지난해부터 154㎸ 송전탑 6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br/><br/>시민대책위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며, 더 이상 반인륜적인 국가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br/><br/>이들은 “전체 마을주민들과 똘똘 뭉쳐 박근혜 정부와 한전을 향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br/><br/>대책위는 언제까지 한전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을 것인가!라며 정부와 한전의 주장대로 송전탑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면 청와대에 세우고, 당신들의 집마당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대책위는 주민들의 투쟁을 사회적 문제로 받아 안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대책위를 발족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br/><br/>대책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책위는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추가설치 공사강행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필코 막아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오랜 세월 주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봉두마을의 기존 송전탑을 철거하는데 도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span>”이라고 다짐했다. <br/><br/>이들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전력정책을 시대착오적인 산물로 규정하고, 전기보다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는 함께사는 전력정책이 수립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도 함께 천명했다.<br/><br/>시민대책위에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진보연대·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시민협6여수경실련·일과복지연대·여수YMCA·여수YWCA·전교조여수지회·여수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민노총 여수시지부·여수사랑청년회·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노동당 전남도당·녹색당 전남도당 등이 참여했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6.txt

제목: 갑상샘암 증가율 1위  
날짜: 20140218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8100000167  
본문: 갑상샘암이 급증하고 있다.<br/>17일 국가암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갑상샘암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3.7%를 기록했다. <br/>같은 기간 전체 암 연평균 증가율(3.6%)의 7배에 이른다. <br/>2011년 기준 국내에서는 모두 21만8017건의 암이 발생했으며 이 중 갑상샘암이 1위(4만568건, 18.6%)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과도한 집착에다 필요가 없는데도 첨단 검사법을 적용하는 기형적인 건강검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냥 놔두어도 되는 암인데, 조기진단으로 암 환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br/>실제 갑상샘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만큼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span class='quot0'>특별한 증세가 없는 성인이 갑상샘 초음파 검진을 하게 되면 1~2%는 갑상샘암이라는 진단이 나온다</span>”며 “<span class='quot0'>매년 4만명 이상이 갑상샘암 진단을 받는 것은 갑상샘에 대한 초음파 검진이 널리 시행되면서 발생한 현상</span>”이라고 말했다.<br/>의료계는 갑상샘암을 이른바 ‘거북이 암’으로 부르고 있다. <br/>암의 크기가 1~2년 안에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br/>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교실)는 “<span class='quot1'>조금 늦게 진단해도 완치율이 높고 천천히 진행하는 갑상샘암을 조기에 찾아낸다면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초음파를 들이대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span>”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1'>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국가 암검진 가이드라인에 갑상샘이나 전립선암은 조기검사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7.txt

제목: 갑상선암 왜 많은가 했더니… 무분별한 검진이 암환자 양산  
날짜: 20140218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8100000060  
본문: 국내 갑상선암 발병 원인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br/>다른 암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갑상선암이 무분별한 건강검진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중앙암등록본부가 2013년 12월 말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를 보면 이른바 ‘착한 암’으로 평가받는 갑상선암의 발병 증가율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0여년 동안 23.7% 치솟았다.<br/>2011년 한 해 통계치만을 봐도 국내 암 진단 과정에서 갑상선암은 단연 많이 발견된 암이었다. 특히 2012년 1월 기준 ‘암 경험 인구(전국 단위 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2012년 1월까지 생존한 사람)’ 수인 109만7253명(남성 49만1505명, 여성 60만5748명)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 수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br/>그런데 이처럼 갑상선암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생존율은 거의 99.9%를 웃돌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 육체적으로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특히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는 ‘국한 단계’에서 발견된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100.5%’(일반인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뜻)인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이는 갑상선암이 발병돼도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br/>그렇다면 갑상선암 환자들은 왜 지속적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완벽한 건강 관리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에 각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진단 시스템이 맞물려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갑상선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이들에게 ‘사회적 비용’까지 지출하면서 검진이 이뤄지다 보니 환자 수가 기형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br/>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쓴 ‘의료기술 발전이 가져온 윤리 문제들’이란 글에서 “<span class='quot0'>의료기술의 발전은 상황에 따라 희망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고통을 안겨주는 ‘양 날의 칼’이 되고 있다</span>”고 전했다.<br/>허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특별한 증세가 없는 성인이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하게 되면 1~2%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 명 이상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있다</span>”고 밝혔다.<br/>실제로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국내 대다수의 대형병원들에서는 건강검진 때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무료로 검사해 주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고려대 의대 신상원 교수(종양내과)와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최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span class='quot2'>모든 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망상이다</span>”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각종 검진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 가고자 하는 행위는 올바른 것이나 증상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검사를 해 환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8.txt

제목: [세상읽기]‘악마성’을 깨우는 정치 공작  
날짜: 20140218  
기자: 전우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8100000079  
본문: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처음 폭로되었을 때, 정부 당국은 ‘성조차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운동권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피해자를 매도했다. 갓 스물을 넘은 앳된 여학생이 그 치욕스러운 일을 폭로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상정(常情)이었으나, 공신력을 가진 정부 기관이 이렇게 발표했으니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br/>1991년 김기설씨가 분신자살하자, 정부 당국은 그의 유서는 강기훈씨가 대신 써 준 것이라고 발표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常識)으로는, 동료더러 자살하라고 부추기고 유서까지 대신 써 주는 악마 같은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역시 공신력을 가진 정부 기관의 발표였고 둘의 필체가 같다는 정부 기관의 감정 결과까지 있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강기훈씨를 ‘유서조차 대신 써 준 악마 같은 인간’으로 기억했다.<br/>앞의 사건은 곧 진상이 밝혀졌으나, 암 투병 중인 강기훈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사건 발생 후 23년이 지난 며칠 전의 일이다. 공신력을 가진 국가 기관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건의 내용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사회 전체를 망가뜨린다.<br/>김기설씨가 분신하기 직전, 모 대학 총장은 “<span class='quot0'>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span>”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던 것일까. 그를 믿을 만한 예언자로 만들어 준 것이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발표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던 것일까. 권력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인간성’의 문제로 치환하는 간단한 트릭을 썼을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정과 상식으로는 떠올릴 수 없는 악마 같은 ‘인간성’을 상상하고, 그 상상의 ‘인간성’이 실재(實在)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한 이런 행위는, 실제로는 그 행위자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매스미디어는 이런 ‘인간성’에 대한 망상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킨다. 대중이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사회는 무서운 미래를 잉태한다.<br/>이 사회 일부에 자신의 성조차 도구로 이용하는 인간, 남의 유서까지 대신 써 주는 인간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실재한다는 믿음은, 그들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부추기고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에 맞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키워준다. 악마 같은 자들에 대항해 자신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사람들 내면의 악마성(惡魔性)을 소환한다. 강기훈씨에게 “왜 유서를 대신 써 주었냐”고 물었다는 순진한 사람은 강기훈씨를 악마로 보았겠지만, 강기훈씨에게는 그의 그 순진한 질문이 악마의 목소리로 들렸을 것이다.<br/>사람들 내면의 악마성을 소환해 그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권력은 결코 선(善)할 수 없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학살에 동참했던 사람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의 참극을 연출했던 사람들은 무슨 이념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악마 같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지배된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악’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안에 존재한다.<br/>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span class='quot1'>한국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span>”이라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국제 망신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증거를 조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회에 억지로 증오와 공포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려는 짓은 그만두자. 좋은 정치는 사람들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는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699.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개원 “진료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의료 제공”  
날짜: 2014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710013494505  
본문: 국제성모병원이 17일 오후 3시 개원식을 열고 출범했다. 인천시 서구 심곡로에 위치한 이 병원은 지상 11층, 지하 6층, 1000병상을 갖추고 있다.<br/><br/>개원식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학재 의원,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 조현재 문체부 차관,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이 철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장 등 정관계 및 의료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br/><br/>가톨릭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의 주재로 열린 개원미사(사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를 통해 “<span class='quot0'>가톨릭 의료기관은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사명에 충실하기 바란다</span>”는 요지의 축복메시지를 보내왔다.<br/><br/><br/><br/>이학노 인천가톨릭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의 의술과 지성을 통해 이 땅에 현존케 한다는 인천가톨릭의료원의 이념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제성모병원은 ‘병원은 아픈 사람이 찾는 곳’ 이라는 종전의 관념을 깨고 ‘진료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 개념을 국내 처음 도입했다. 주민들에게 첨단의 의술을 제공함과 동시에 휴식과 즐거움, 그리고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문화를 구현했다. 25개 진료과목, 36개 진료과, 12개의 전문 진료센터로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러 과의 수술을 한번에 하는 복합 융합수술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개원과 동시에 가동하며, ‘꿈의 암치료기’ 인피니티, 가장 진화한 MRI 진단장비인 마그네톰 스카이라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0.txt

제목: 동해안 17일 또 ‘큰눈’ 내린다  
날짜: 20140217  
기자: 김기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7100000070  
본문: 동해안 지역이 기록적인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18일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19~20일 다시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 북서 내륙에는 17일 밤부터 18일 아침 사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br/>17일 새벽부터 자정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경북 동해안, 제주도 산간지역의 적설량은 10~20㎝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제주산간에는 30㎝ 이상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그 밖의 경북지역과 경남 동해안, 경남 서부 내륙의 예상 적설량은 3~8㎝가량이다.<br/>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br/>지난 15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산북리 김모씨(71)의 집에서 김씨와 최모씨(66·서울 광진구) 등 2명이 내복만 입은 채 방에 누워 숨져 있는 것을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 중령(4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김씨 등이 거주하던 집은 집단거주 마을에서 1.8㎞가량 떨어진 외딴곳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자가발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해왔다. 김씨 등 2명은 2~3일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r/>경찰은 “<span class='quot0'>집에 라면과 쌀 등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던 점으로 미뤄 김씨 등이 잠을 자다 자가발전기가 끊기면서 보일러 가동이 중단돼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밝혔다. <br/>강릉지역에서는 폭설로 산간마을 주민 4명이 장기간 고립돼 있다가 119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br/>이 중 강동면 언별1리 주민 이모씨(55)는 암 환자로 외딴집에서 9일간 홀로 고립돼 있다가 헬기까지 동원돼 가까스로 구조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1.txt

제목: [포토뉴스]세계보도사진전 대상에 미국 사진작가 존 스탠마이어  
날짜: 2014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7100000035  
본문: 세계보도사진전 대상에 미국 사진작가 존 스탠마이어<br/>미국 사진작가 존 스탠마이어가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담은 사진이 2013 세계보도사진전에서 대상인 올해의 사진상을 수상했다.<br/>이번 대상작은 지난해 2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의 해안에서 이민자들이 인접국 소말리아의 값싼 휴대전화 신호를 잡아 친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려고 전화기를 하늘로 치켜든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br/>이 사진은 올해의 사진상과 함께 오늘의 문제 부문에서도 1등상을 거머쥐었다.<br/>57회째를 맞은 2013세계보도사진전에는 전 세계 132개국에서 사진가 5754명이 약 10만점의 작품을 출품했다.<br/>대상 수상자 스탠마이어에게는 오는 4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사진기와 함께 상금 1만유로가 수여된다.<br/>암스테르담|AFP·API연합뉴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2.txt

제목: [책과 삶]암과 싸우며, 판박이 삶에 들려준 ‘고전의 의미’  
날짜: 2014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5100000093  
본문: ▲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구본형·박미옥·정재엽 지음 | 생각정원 | 444쪽 | 1만8000원<br/>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굳이 독자가 알 필요는 없다. 깔끔한 표지와 선명하게 인쇄된 몇 백쪽 분량 속의 내용을 잘 읽고 취하면 그만일 터이다. 하지만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은 좀 각별하다. ‘마지막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그렇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면의 열정을 일으켜 아름답게 살기를 바랐던 구본형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br/>구본형은 20년간 일했던 IBM을 그만두고 2000년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를 열었다. 문학과 신화, 철학과 역사 등 동서양 고전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자아경영의 다양한 접점을 연구한 그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깊은 인생> 등 많은 저서를 출간하며 강연 활동을 펼쳤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과 <율리시스>의 저자 제임스 조이스를 사랑했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 개혁가 정약용을 흠모한 그는 특히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 변화의 시작은 자기혁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의지를 실천하며 자기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r/>2012년 8월 그는 EBS FM 라디오 <고전읽기> 진행을 맡아 1~2주에 걸쳐 고전을 한편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연구소 제자인 박미옥, 정재엽 연구원이 자료 조사를 함께 도왔다. 한편 한편이 소개될 때마다 행복해했던 구본형은 “<span class='quot0'>나중에 한권의 책으로 함께 묶어내자</span>”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방송 19주차가 지났을 무렵 그는 “수술하고 금방 돌아오겠다”며 잠시 마이크를 내려놨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청취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그해 4월 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첫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투병해왔지만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고전을 안내하려고 애썼다.<br/>왜 그는 고전에 그토록 매달렸을까. 세상은 갈수록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극심한 자본경쟁이 혈투를 벌이고, 국가도 종교도 더 이상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 외적인 가치를 성공이라고 믿고 좇는 동안 내적인 균형은 무너지고, 인류의 삶을 떠받쳐온 심원한 내면의 문제와 신비, 내면의 통과의례를 제대로 겪지 못하게 됐다. 깊은 인생은 없고 누구나 비슷한 복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전이 담고 있는 인간 내면의 가치와 지혜,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br/><br/>릴케가 시인 지망생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삶에 대한 릴케의 태도가 담겨 있다. 릴케를 이해하는 코드는 고독이다. 릴케는 진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으로 침잠해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안과 고통, 우울도 삶의 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즐기라며 카푸스를 다독인다.<br/><다산문선> 등에서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독서야말로 인간의 으뜸가는 깨끗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생계를 위해 닭을 치게 된 아들에게 이왕 시작한 일이니 아주 잘해보라는 격려로 ‘계경(닭에 대한 경전)’을 써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닭에 대한 책을 읽고 홰와 먹이를 바꿔가며 연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이 평범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깨어 있으면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br/>10년간 전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10년을 방랑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이아>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축약판이다. 매번 고난과 만나고 유혹에 빠지며 두려움과 모험의 항해를 계속하는 오디세우스는 영웅의 삶이 아니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모든 인간의 인생이다. 초라한 것, 불완전한 것이 인생이고 오직 배움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항해할 뿐이다.<br/><그리스인 조르바>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의 시시포스다. 굴러 내리는 바위를 끊임없이 반복해 언덕으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돈과 시간의 노예로 매일을 살아간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조르바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럼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다.<br/>책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플라톤의 <향연>,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탈무드>, 일연의 <삼국유사> 등 17편이 등장한다. 원고지 8000장 분량에 달하는 방송 녹취와 그가 써왔던 칼럼, e메일 ‘아침편지’ 중에서 해당 고전과 관련된 글들을 압축했다. ‘<죄와 벌>, 정의에 대하여’ 식으로 17편의 고전은 도전, 자유, 배움, 사랑, 선택, 성, 운명 등 주제가 달려 있다.<br/>고전을 많이 읽은 독자라면 자신과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되짚어보는 재미가 있겠다. 또 고전읽기를 어떤 책으로 시작할지 망설이는 초심자라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언젠가 한번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스스로 설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말을 곱씹게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3.txt

제목: [책과 삶]암과 싸우며, 판박이 삶에 들려준 ‘고전의 의미’  
날짜: 2014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5100000008  
본문: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br/>구본형·박미옥·정재엽 지음 | 생각정원 | 444쪽 | 1만8000원<br/>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굳이 독자가 알 필요는 없다. 깔끔한 표지와 선명하게 인쇄된 몇 백쪽 분량 속의 내용을 잘 읽고 취하면 그만일 터이다. 하지만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은 좀 각별하다. ‘마지막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그렇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면의 열정을 일으켜 아름답게 살기를 바랐던 구본형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br/>구본형은 20년간 일했던 IBM을 그만두고 2000년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를 열었다. 문학과 신화, 철학과 역사 등 동서양 고전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자아경영의 다양한 접점을 연구한 그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깊은 인생> 등 많은 저서를 출간하며 강연 활동을 펼쳤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과 <율리시스>의 저자 제임스 조이스를 사랑했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 개혁가 정약용을 흠모한 그는 특히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 변화의 시작은 자기혁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의지를 실천하며 자기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r/>2012년 8월 그는 EBS FM 라디오 <고전읽기> 진행을 맡아 1~2주에 걸쳐 고전을 한편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연구소 제자인 박미옥, 정재엽 연구원이 자료 조사를 함께 도왔다. 한편 한편이 소개될 때마다 행복해했던 구본형은 “<span class='quot0'>나중에 한권의 책으로 함께 묶어내자</span>”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방송 19주차가 지났을 무렵 그는 “수술하고 금방 돌아오겠다”며 잠시 마이크를 내려놨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청취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그해 4월 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첫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투병해왔지만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고전을 안내하려고 애썼다.<br/>왜 그는 고전에 그토록 매달렸을까. 세상은 갈수록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극심한 자본경쟁이 혈투를 벌이고, 국가도 종교도 더 이상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 외적인 가치를 성공이라고 믿고 좇는 동안 내적인 균형은 무너지고, 인류의 삶을 떠받쳐온 심원한 내면의 문제와 신비, 내면의 통과의례를 제대로 겪지 못하게 됐다. 깊은 인생은 없고 누구나 비슷한 복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전이 담고 있는 인간 내면의 가치와 지혜,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br/><br/>릴케가 시인 지망생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삶에 대한 릴케의 태도가 담겨 있다. 릴케를 이해하는 코드는 고독이다. 릴케는 진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으로 침잠해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안과 고통, 우울도 삶의 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즐기라며 카푸스를 다독인다.<br/><다산문선> 등에서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독서야말로 인간의 으뜸가는 깨끗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생계를 위해 닭을 치게 된 아들에게 이왕 시작한 일이니 아주 잘해보라는 격려로 ‘계경(닭에 대한 경전)’을 써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닭에 대한 책을 읽고 홰와 먹이를 바꿔가며 연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이 평범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깨어 있으면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br/>10년간 전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10년을 방랑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이아>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축약판이다. 매번 고난과 만나고 유혹에 빠지며 두려움과 모험의 항해를 계속하는 오디세우스는 영웅의 삶이 아니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모든 인간의 인생이다. 초라한 것, 불완전한 것이 인생이고 오직 배움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항해할 뿐이다.<br/><그리스인 조르바>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의 시시포스다. 굴러 내리는 바위를 끊임없이 반복해 언덕으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돈과 시간의 노예로 매일을 살아간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조르바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럼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다.<br/>책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플라톤의 <향연>,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탈무드>, 일연의 <삼국유사> 등 17편이 등장한다. 원고지 8000장 분량에 달하는 방송 녹취와 그가 써왔던 칼럼, e메일 ‘아침편지’ 중에서 해당 고전과 관련된 글들을 압축했다. ‘<죄와 벌>, 정의에 대하여’ 식으로 17편의 고전은 도전, 자유, 배움, 사랑, 선택, 성, 운명 등 주제가 달려 있다.<br/>고전을 많이 읽은 독자라면 자신과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되짚어보는 재미가 있겠다. 또 고전읽기를 어떤 책으로 시작할지 망설이는 초심자라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언젠가 한번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스스로 설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말을 곱씹게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4.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4년 2월 15일·2월 16일  
날짜: 2014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5100000001  
본문: 유출된 내 개인정보 어떻게 악용되나<br/>추적60분(KBS2 토 오후 10시15분)<br/>8일 국내 대형 카드 3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카드 3사와 정부는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금융당국의 발표대로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는지 알아본다.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10년 동안 문제 없이 가게를 운영해온 30대의 젊은 사장이다. 김씨는 최근 주거래 은행의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2000만원 사기를 당했다. 김씨는 대리라고 밝힌 사람이 가게의 매출액, 신용등급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제작진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얼마나 범죄에 악용되는지 알아본다. <br/>암투병 할머니·고모와 사는 섬 소녀<br/>나눔 0700(EBS 토 오후 3시50분)<br/>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사는 13세 수빈이는 매번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모범생에 요리 솜씨 또한 수준급이다. 수빈이는 현재 할머니 이군자씨, 고모 명희정씨와 산다. 시각장애 6급의 이씨는 사람의 얼굴도 분간할 수 없다. 게다가 작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뒤 체력도 급하게 나빠져 하루에 먹는 약은 여섯 종류가 넘는다. 명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두 차례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병원을 가기 위해선 섬 바깥으로 나가야 해서 검진이 힘든 상황이다. 어른이 되어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은 수빈이와 가족을 만난다.<br/>아이돌 유노윤호·태민·카이의 공통점<br/>SBS 스페셜(SBS 일 오후 11시15분)<br/>어떤 선천적인 재능을 지녔든지 간에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아이돌은 3~5년의 연습생 과정을 거쳐 대중 앞에 서지만 발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연예계 대표 노력파 아이돌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샤이니의 태민, 엑소의 카이 등의 공통점을 알아본다. 어린 시절 별명이 음치였다고 밝힌 태민이 한계를 극복한 비결을 알아본다. 국내 최고의 춤꾼 중 한 명인 카이의 연습방법과 무대 밖의 진솔한 모습을 살펴본다. 카이와 태민은 연습생 시절에 서로에게 선생이 되어줬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5.txt

제목: [건강]‘치료·즐거움이 있는 곳’ 표방 인천 국제성모병원 17일 개원  
날짜: 20140214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4100000006  
본문: ‘의료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를 표방한 병원이 설립됐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병원은 단순한 치료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삶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오는 17일 개원하는 국제성모병원(사진)이다.<br/>초대 원장에는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낸 천명훈 교수(해부학)가 3월1일자로 취임한다. 인천 서구 심곡로, 천마산 아래에 위치한 이 병원은 1만4363㎡의 대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감염 주의 구역을 제외한 전체 공간과 시설이 환자는 물론 시민에게 개방된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골프장·미용실·상가·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 문화시설, 오락시설이 있으며, 지하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청정채소는 환자들의 식재료로 제공된다. 병원과 함께 조성된 264가구의 시니어타운인 ‘마리 스텔라’도 입주가 한창이다.<br/><br/>1000병상 규모의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중심 진료 실현, 세계적 수준의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 혁신적 중개의학 연구 활성화, 통합의학에 기초한 전인치료로 난치성 질환 정복,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교육 및 역량있는 의료인 양성 등 5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25개 진료과목, 36개 진료과, 12개의 전문 진료센터로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러 과의 수술을 한번에 하는 복합 융합수술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개원과 동시에 가동하며, ‘꿈의 암치료기’ 인피니티, 가장 진화한 MRI 진단장비인 마그네톰 스카이라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다.<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이 합친 ‘인천가톨릭의료원’(의료원장 이학노 신부)도 출범했다. 총괄 경영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의료부원장·예방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산업화를 포함한 연구센터의 적극적 육성, 전이재발암센터의 활성화, 장수의학센터 개설 등 특성화 전략도 중점 추진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6.txt

제목: [책과 삶]암과 싸우며, 판박이 삶에 들려준 ‘고전의 의미’  
날짜: 2014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410013480138  
본문: <b>▲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구본형·박미옥·정재엽 지음 | 생각정원 | 444쪽 | 1만8000원</b><br/><br/>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굳이 독자가 알 필요는 없다. 깔끔한 표지와 선명하게 인쇄된 몇 백쪽 분량 속의 내용을 잘 읽고 취하면 그만일 터이다. 하지만 <구본형의 마지막 수업>은 좀 각별하다. ‘마지막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그렇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면의 열정을 일으켜 아름답게 살기를 바랐던 구본형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br/><br/>구본형은 20년간 일했던 IBM을 그만두고 2000년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를 열었다. 문학과 신화, 철학과 역사 등 동서양 고전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자아경영의 다양한 접점을 연구한 그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깊은 인생> 등 많은 저서를 출간하며 강연 활동을 펼쳤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과 <율리시스>의 저자 제임스 조이스를 사랑했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 개혁가 정약용을 흠모한 그는 특히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 변화의 시작은 자기혁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의지를 실천하며 자기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r/><br/>2012년 8월 그는 EBS FM 라디오 <고전읽기> 진행을 맡아 1~2주에 걸쳐 고전을 한편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연구소 제자인 박미옥, 정재엽 연구원이 자료 조사를 함께 도왔다. 한편 한편이 소개될 때마다 행복해했던 구본형은 “<span class='quot0'>나중에 한권의 책으로 함께 묶어내자</span>”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방송 19주차가 지났을 무렵 그는 “수술하고 금방 돌아오겠다”며 잠시 마이크를 내려놨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청취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그해 4월 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첫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투병해왔지만 모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고전을 안내하려고 애썼다.<br/><br/>왜 그는 고전에 그토록 매달렸을까. 세상은 갈수록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극심한 자본경쟁이 혈투를 벌이고, 국가도 종교도 더 이상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 외적인 가치를 성공이라고 믿고 좇는 동안 내적인 균형은 무너지고, 인류의 삶을 떠받쳐온 심원한 내면의 문제와 신비, 내면의 통과의례를 제대로 겪지 못하게 됐다. 깊은 인생은 없고 누구나 비슷한 복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전이 담고 있는 인간 내면의 가치와 지혜,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br/><br/><br/>릴케가 시인 지망생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삶에 대한 릴케의 태도가 담겨 있다. 릴케를 이해하는 코드는 고독이다. 릴케는 진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으로 침잠해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안과 고통, 우울도 삶의 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즐기라며 카푸스를 다독인다.<br/><br/><다산문선> 등에서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독서야말로 인간의 으뜸가는 깨끗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생계를 위해 닭을 치게 된 아들에게 이왕 시작한 일이니 아주 잘해보라는 격려로 ‘계경(닭에 대한 경전)’을 써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닭에 대한 책을 읽고 홰와 먹이를 바꿔가며 연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이 평범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깨어 있으면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br/><br/>10년간 전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10년을 방랑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이아>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축약판이다. 매번 고난과 만나고 유혹에 빠지며 두려움과 모험의 항해를 계속하는 오디세우스는 영웅의 삶이 아니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모든 인간의 인생이다. 초라한 것, 불완전한 것이 인생이고 오직 배움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항해할 뿐이다.<br/><br/><그리스인 조르바>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의 시시포스다. 굴러 내리는 바위를 끊임없이 반복해 언덕으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돈과 시간의 노예로 매일을 살아간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조르바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럼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다.<br/><br/>책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플라톤의 <향연>,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탈무드>, 일연의 <삼국유사> 등 17편이 등장한다. 원고지 8000장 분량에 달하는 방송 녹취와 그가 써왔던 칼럼, e메일 ‘아침편지’ 중에서 해당 고전과 관련된 글들을 압축했다. ‘<죄와 벌>, 정의에 대하여’ 식으로 17편의 고전은 도전, 자유, 배움, 사랑, 선택, 성, 운명 등 주제가 달려 있다.<br/><br/>고전을 많이 읽은 독자라면 자신과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되짚어보는 재미가 있겠다. 또 고전읽기를 어떤 책으로 시작할지 망설이는 초심자라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언젠가 한번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스스로 설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말을 곱씹게 된다.<br/><br/><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7.txt

제목: 빙그레 남양주 공장 암모니아 가스 유출 폭발…4명 사상  
날짜: 20140214  
기자: 경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4100000093  
본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빙그레는 13일 오전 10시30분쯤 남양주시 도농동 제2공장 옆 5t짜리 암모니아 탱크 배관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하고도 관리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제때 통보만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빙그레 측은 당시 제2공장에 있던 직원 30여명을 제1공장으로 대피시키고, 고압가스 취급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투입해 자체 복구작업을 벌였다. 이후 2시간30분 후인 이날 오후 1시5분쯤 암모니아 저장탱크 외부 배관이 폭발, 암모니아 가스 성분 1.5t이 유출됐다. 이 사고로 탱크 뒤편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도모씨(55)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지고, 권모씨(50)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br/>액화질소 탱크와 암모니아 탱크는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으며, 오후 1시25분쯤 암모니아 탱크 중간 밸브를 차단해 암모니아 가스가 더 이상 유출되지는 않았다.<br/><br/>소방당국과 군부대가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지만 이미 암모니아가 다량 유출돼 인근 아파트 주민 4명이 눈 통증을 호소, 병원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br/>암모니아 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 유출로 인해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빙그레 측은 직원 30여명을 대피시키면서도 가스안전공사에 알리지 않았고, 가스안전공사 측은 사고 발생 50여분 만인 오후 1시54분쯤 가스 폭발사고를 자체 인지한 후 현장으로 출동했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했다.<br/>가스안전공사는 최초 암모니아 유출이 확인됐을 당시 조치와 관련해 빙그레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는 “<span class='quot0'>처음부터 제대로 조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빙그레 측의 과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처분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경찰은 탱크 배관 등이 낡아 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점검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8.txt

제목: [경향시선 - 돈 詩]겉장이 나달나달했다  
날짜: 20140213  
기자: 정끝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3100000024  
본문: ▲ 겉장이 나달나달했다<br/>말기 췌장암 선고를 받고도 괜찬타, 내사 마, 살 만큼 살았데이, 돌아앉아 안경 한 번 쓰윽 닦으시고는 디스 담배 피워 물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뒤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모르핀만, 모르핀만 맞으셨는데 간성 혼수\*에 빠질 때는 링거 줄을 뽑아 던지며 살려달라고, 서울 큰 병원에 옮겨달라고 울부짖으셨는데, 한 달 반 만에 참나무 둥치 같은 몸이 새뼈마냥 삭아 내렸는데, 어느 날 모처럼 죽 한 그릇 다 비우시더니, 남몰래 영안실에 내려갔다 오시더니 손짓으로 날 불러, 젖은 침대 시트 밑에서 더듬더듬 무얼 하나 꺼내 주시는 거였다 장례비가 든 적금통장이었다<br/>\*간성(肝性) 혼수 : 간이 해독 작용을 못해 암환자들이 겪는 발작, 혼수상태.<br/>- 전동균(1962~ )<br/>△ 아버지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무엇으로 끝나는가?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불화했다. 밥벌이를 시작하면 아버지를 이해했고 밥벌이에 좌절하면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야 아버지와 화해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야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 세상 모든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야 완성되는 존재다. 아버지를 이어 살아내면서 완성시켜야 하는 존재다.<br/>내 아버지도 그러셨다. 당뇨 판정을 받으시고도, 여한 없이 살 만큼 살았다, 먹던 대로 먹다가 갈란다, 하시고서는 병원도 싫다 약도 싫다시며, 반주(飯酒)도 담배도 단고기도 홍어도 다 드시다 가셨다. 180㎝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47㎏ 남짓이었다. 사이다와 요깡(양갱)을 드시고 싶다더니, 가뿐하게 뜨셨다. 채 다 못 쓰신 병원비 통장을 지금껏 가족 대소사에 쓰고 있다.<br/>암종과의 거룩한 사투를 대변하고 있는 줄글 형태의 긴 문장은 “장례비가 든 적금통장이었다”로 수렴된다. 한평생이 ‘거룩한 허기’였을 터이니, ‘장례비가 든 적금통장’ 겉장이 “새뼈마냥 삭아 내려” 나달나달할 만도 하다. “<span class='quot0'>살과 뼈를 태우고/ 핏속의 암종도 다 태우고/ 반 평 흙집에 홀로 계신 아버지</span>”의 추운 겨울이 걱정되어 “<span class='quot0'>아버지 계신 쪽으로/ 슬쩍, 더운 국밥그릇을/ 옮겨놓는 아침</span>”(‘서리가 내렸다’)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09.txt

제목: 빙그레 남양주 공장 암모니아 가스 유출 폭발… 4명 사상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31001347054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제때 신고 않고 자체 복구작업… 2시간반 뒤 ‘펑’</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암모니아 1.5t 유출… 인근 주민들 2차 피해 우려</strong><!-- SUB\_TITLE\_END--><br/><br/>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빙그레는 13일 오전 10시30분쯤 남양주시 도농동 제2공장 옆 5t짜리 암모니아 탱크 배관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하고도 관리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제때 통보만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br/>빙그레 측은 당시 제2공장에 있던 직원 30여명을 제1공장으로 대피시키고, 고압가스 취급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투입해 자체 복구작업을 벌였다. 이후 2시간30분 후인 이날 오후 1시5분쯤 암모니아 저장탱크 외부 배관이 폭발, 암모니아 가스 성분 1.5t이 유출됐다. 이 사고로 탱크 뒤편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도모씨(55)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지고, 권모씨(50)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br/><br/><br/>액체질소 탱크와 암모니아 탱크는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으며, 오후 1시25분쯤 암모니아 탱크 중간 밸브를 차단해 암모니아 가스가 더 이상 유출되지는 않았다.<br/><br/>소방당국과 군부대가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지만 이미 암모니아가 다량 유출돼 인근 아파트 주민 4명이 눈 통증을 호소, 병원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br/><br/>암모니아 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 유출로 인해 인명 대피나 공급 중단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빙그레 측은 직원 30여명을 대피시키면서도 가스안전공사에 알리지 않았고, 가스안전공사 측은 사고 발생 50여분 만인 오후 1시54분쯤 가스 폭발사고를 자체 인지한 후 현장으로 출동했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했다.<br/><br/>가스안전공사는 최초 암모니아 유출이 확인됐을 당시 조치와 관련해 빙그레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는 “<span class='quot0'>처음부터 제대로 조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빙그레 측의 과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처분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경찰은 탱크 배관 등이 낡아 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점검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br/><br/><남양주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0.txt

제목: [경향시선 - 돈 詩]겉장이 나달나달했다  
날짜: 2014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210013458184  
본문: <b>▲ 겉장이 나달나달했다</b><br/><br/>말기 췌장암 선고를 받고도 괜찬타, 내사 마, 살 만큼 살았데이, 돌아앉아 안경 한 번 쓰윽 닦으시고는 디스 담배 피워 물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뒤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모르핀만, 모르핀만 맞으셨는데 간성 혼수\*에 빠질 때는 링거 줄을 뽑아 던지며 살려달라고, 서울 큰 병원에 옮겨달라고 울부짖으셨는데, 한 달 반 만에 참나무 둥치 같은 몸이 새뼈마냥 삭아 내렸는데, 어느 날 모처럼 죽 한 그릇 다 비우시더니, 남몰래 영안실에 내려갔다 오시더니 손짓으로 날 불러, 젖은 침대 시트 밑에서 더듬더듬 무얼 하나 꺼내 주시는 거였다 장례비가 든 적금통장이었다<br/><br/>\*간성(肝性) 혼수 : 간이 해독 작용을 못해 암환자들이 겪는 발작, 혼수상태.<br/><br/>- 전동균(1962~ )<br/><br/>△ 아버지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무엇으로 끝나는가?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불화했다. 밥벌이를 시작하면 아버지를 이해했고 밥벌이에 좌절하면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야 아버지와 화해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야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 세상 모든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야 완성되는 존재다. 아버지를 이어 살아내면서 완성시켜야 하는 존재다.<br/><br/>내 아버지도 그러셨다. 당뇨 판정을 받으시고도, 여한 없이 살 만큼 살았다, 먹던 대로 먹다가 갈란다, 하시고서는 병원도 싫다 약도 싫다시며, 반주(飯酒)도 담배도 단고기도 홍어도 다 드시다 가셨다. 180㎝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47㎏ 남짓이었다. 사이다와 요깡(양갱)을 드시고 싶다더니, 가뿐하게 뜨셨다. 채 다 못 쓰신 병원비 통장을 지금껏 가족 대소사에 쓰고 있다.<br/><br/>암종과의 거룩한 사투를 대변하고 있는 줄글 형태의 긴 문장은 “장례비가 든 적금통장이었다”로 수렴된다. 한평생이 ‘거룩한 허기’였을 터이니, ‘장례비가 든 적금통장’ 겉장이 “새뼈마냥 삭아 내려” 나달나달할 만도 하다. “<span class='quot0'>살과 뼈를 태우고/ 핏속의 암종도 다 태우고/ 반 평 흙집에 홀로 계신 아버지</span>”의 추운 겨울이 걱정되어 “<span class='quot0'>아버지 계신 쪽으로/ 슬쩍, 더운 국밥그릇을/ 옮겨놓는 아침</span>”(‘서리가 내렸다’)이다.<br/><br/><정끝별 | 시인·문학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1.txt

제목: [‘금융위기’ 아르헨티나를 가다]15분 공들인 무상 진료 한국과 딴판… 내·외국인, 빈부차별 없었다  
날짜: 20140210  
기자: 조미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10100000115  
본문: 아르헨티나 취재 5일째인 지난 6일(현지시간), 급하게 먹은 아침 식사가 얹혔는지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30분 넘게 참다가 안되겠다 싶어 통역을 맡은 현지 교민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현지 국립병원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진료비가 무료라고 했다. <br/>중심가에서 가까운 세르비뇨 거리의 한 블록(100m×100m) 전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운영하는 7층짜리 후안 페르난데스 병원이었다. 현대적이진 않았지만 건물 내부는 깔끔했다. 오전 10시쯤 도착해보니 접수처에 대기 줄이 10m를 넘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이용자, 정년퇴직자는 전용 접수창구를 따로 둬 배려했다. <br/>기자의 차례가 됐다. 접수직원은 외국인 환자를 여러 차례 접해본 듯 대수롭지 않게 여권을 받아갔다. 아픈 곳이 ‘배’임을 확인하고, ‘오후 1시’ 내과 진료를 잡아줬다. 오전엔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했다. 앞에 섰던 페드로 아그레구(55)는 “국립병원이 의사들 능력과 서비스가 최고라서 인기가 좋다. 자기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웃었다. <br/><br/>▲ 국립병원 의료진 최고 수준<br/>한국선 3분 만에 끝날 진료<br/>상세히 파악해 구체적 처방<br/>▲ 정부 지출 감축 필요하지만<br/>무상의료·교육은 예외 공감<br/>그는 1시간 거리의 인근 도시에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아르헨티나에선 누구든 자신이 원할 때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컴퓨터 단층(CT) 촬영은 순서가 밀려 오는 3월에야 찍을 수 있었다. <br/>오후 1시 내과 진료실 복도에서는 환자 10여명이 TV를 보며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국에서의 첫 진료라 긴장됐다. 드디어 10번 방문이 열리고, “미데옵!”이라고 외치는 의사 소리가 들렸다. 진료실은 폭 2m에 길이 4m 정도로 좁았다. 진료할 의자와 침대, 머리 높이의 약을 넣은 벽장이 가구의 전부였다. <br/>40대로 보이는 여의사 아날리아 바로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로 진료를 시작했다. 그는 환자의 눈을 마주보고 얘기했다. 대답을 종이에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 표정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복용하는 약이 있냐”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냐” “<span class='quot0'>전에 위가 아팠던 적이 있냐</span>” “매운 것을 먹었냐” “토를 하기도 했냐” 등 질문이 5분 넘게 이어졌다. 한국 병원에선 2~3분 만에 처방전 써주고 끝났을 진료다. <br/>질문을 마친 뒤에도 기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배 이곳저곳을 누르며 아픈 곳을 파악하고, 혈압기를 가져와 혈압을 쟀다.<br/>처방엔 어려운 이름의 약이 없었다. 간단한 알약 소화제 복용법을 알려주고, “내일 아침엔 연한 홍차와 잼 없는 토스트, 점심과 저녁엔 닭을 구워서 호박죽이나 당근죽과 함께 먹으라”는 등 구체적인 식이요법을 처방했다. <br/>부에노스아이레스에 체류하는 동안 갑자기 배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구토를 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도 했다. 진료에는 총 15분이 걸렸다. 의사가 나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에 신뢰가 갔다. <br/><br/>진료실을 나와 만난 후안호세 페트리(77)는 “국립병원 의사들이 노인이나 빈민이 와도 무시하지 않고 잘 보살펴 준다. 지난 토요일엔 쉬는 날인데도 위염 치료 중인 아내에게 전화해 ‘상태가 괜찮으냐’고 물어봐줬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국립병원에서는 모두가 무료이니 돈 되는 손님, 안되는 손님을 차별할 이유가 없었다. <br/>아르헨티나 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면서도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OJF경제연구소 올란도 페레레스 소장은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span class='quot1'>정부가 전기·가스·교통 등에 쓰는 보조금이 2006년 총 176억페소에서 지난해 1550억페소(약 19조원)로 폭발적으로 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1'>과도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span>”이라고 했다. <br/>전문가들은 잘못된 보조금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2011년 재선 전에 30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전부 넷북을 지급한 일을 언급한다. <br/>당시 학교와 집에 전기도 원활히 공급이 안되는데, 넷북을 준 것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대형음식점 한달 전기료가 10만원일 정도로 싸게 하면서 적자분을 정부가 다 메워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br/>페레레스 소장은 “<span class='quot1'>에너지 보조금 때문에 전기료가 너무 싸다 보니 겨울에 방이 뜨거우면, 난방을 줄이지 않고 창문을 여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그러나 의료와 교육은 ‘국방’처럼 원래 정부가 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공교육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비도 내 준다. <br/>아그레구는 “태어나서 한번도 무상의료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페트리는 “사립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무상의료가 줄면 가난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다. 무상의료 예산은 늘면 늘었지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r/>공항에서 만난 영어강사 안드레아 시아라피카는 “<span class='quot2'>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span>”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경제위기로 아르헨티나의 서민 10여명을 만났지만, 암 수술비나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에선 부채가 많은 사람을 취재하면, 주거비 외엔 보통 의료비와 교육비가 문제가 됐다. ‘1인당 소득과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보다 행복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br/> <시리즈 끝>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2.txt

제목: 강원래·김송 반려견 똘똘이 숨져…‘TV동물농장’서 마지막 모습 방송  
날짜: 2014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910013421626  
본문: 가수 강원래 부부의 반려견 똘똘이의 죽음이 알려졌다.<br/><br/>9일 방송된 ‘TV동물농장’에는 강원래·김송 부부와 7년을 함께 한 반려견 똘똘이의 두번째 이야기가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부부는 림프암 말기 선고를 받은 똘똘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별 여행을 준비했다. 눈과 바다를 좋아한 똘똘이를 위해 눈 내린 바닷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br/><br/>하지만 똘똘이는 도중 차 안에서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고 강원래·김송 부부는 급히 가까운 휴게소로 차를 돌렸다. <br/><br/>똘똘이를 데리고 자동차에서 내린 김송은 눈밭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똘똘이는 갑자기 몸이 굳은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황한 김송은 급하게 강원래를 불렀고 강원래가 휠체어를 타고 똘똘이에게 다가왔지만 이내 강원래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br/><br/>똘똘이는 지난 2012년 12월, 림프암 선고를 받은 뒤 폐와 간, 비장, 척추까지도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3.txt

제목: [‘금융위기’ 아르헨티나를 가다]15분 공들인 무상 진료 한국과 딴판… 내·외국인, 빈부차별 없었다  
날짜: 2014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91001342363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5) ‘위기 무풍지대’ 의료 서비스 현장</strong><!-- SUB\_TITLE\_END--><br/><br/>아르헨티나 취재 5일째인 지난 6일(현지시간), 급하게 먹은 아침 식사가 얹혔는지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30분 넘게 참다가 안되겠다 싶어 통역을 맡은 현지 교민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현지 국립병원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진료비가 무료라고 했다. <br/><br/>중심가에서 가까운 세르비뇨 거리의 한 블록(100m×100m) 전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운영하는 7층짜리 후안 페르난데스 병원이었다. 현대적이진 않았지만 건물 내부는 깔끔했다. 오전 10시쯤 도착해보니 접수처에 대기 줄이 10m를 넘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이용자, 정년퇴직자는 전용 접수창구를 따로 둬 배려했다. <br/><br/>기자의 차례가 됐다. 접수직원은 외국인 환자를 여러 차례 접해본 듯 대수롭지 않게 여권을 받아갔다. 아픈 곳이 ‘배’임을 확인하고, ‘오후 1시’ 내과 진료를 잡아줬다. 오전엔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했다. 앞에 섰던 페드로 아그레구(55)는 “국립병원이 의사들 능력과 서비스가 최고라서 인기가 좋다. 자기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웃었다. <br/><br/><br/><b>▲ 국립병원 의료진 최고 수준<br/>한국선 3분 만에 끝날 진료<br/>상세히 파악해 구체적 처방</b><br/><br/><b>▲ 정부 지출 감축 필요하지만<br/>무상의료·교육은 예외 공감</b><br/><br/>그는 1시간 거리의 인근 도시에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아르헨티나에선 누구든 자신이 원할 때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컴퓨터 단층(CT) 촬영은 순서가 밀려 오는 3월에야 찍을 수 있었다. <br/><br/>오후 1시 내과 진료실 복도에서는 환자 10여명이 TV를 보며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국에서의 첫 진료라 긴장됐다. 드디어 10번 방문이 열리고, “미데옵!”이라고 외치는 의사 소리가 들렸다. 진료실은 폭 2m에 길이 4m 정도로 좁았다. 진료할 의자와 침대, 머리 높이의 약을 넣은 벽장이 가구의 전부였다. <br/><br/>40대로 보이는 여의사 아날리아 바로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로 진료를 시작했다. 그는 환자의 눈을 마주보고 얘기했다. 대답을 종이에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 표정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복용하는 약이 있냐”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냐” “<span class='quot0'>전에 위가 아팠던 적이 있냐</span>” “매운 것을 먹었냐” “토를 하기도 했냐” 등 질문이 5분 넘게 이어졌다. 한국 병원에선 2~3분 만에 처방전 써주고 끝났을 진료다. <br/><br/>질문을 마친 뒤에도 기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배 이곳저곳을 누르며 아픈 곳을 파악하고, 혈압기를 가져와 혈압을 쟀다.<br/><br/>처방엔 어려운 이름의 약이 없었다. 간단한 알약 소화제 복용법을 알려주고, “내일 아침엔 연한 홍차와 잼 없는 토스트, 점심과 저녁엔 닭을 구워서 호박죽이나 당근죽과 함께 먹으라”는 등 구체적인 식이요법을 처방했다. <br/><br/>부에노스아이레스에 체류하는 동안 갑자기 배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구토를 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도 했다. 진료에는 총 15분이 걸렸다. 의사가 나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에 신뢰가 갔다. <br/><br/><br/>진료실을 나와 만난 후안호세 페트리(77)는 “국립병원 의사들이 노인이나 빈민이 와도 무시하지 않고 잘 보살펴 준다. 지난 토요일엔 쉬는 날인데도 위염 치료 중인 아내에게 전화해 ‘상태가 괜찮으냐’고 물어봐줬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국립병원에서는 모두가 무료이니 돈 되는 손님, 안되는 손님을 차별할 이유가 없었다. <br/><br/>아르헨티나 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면서도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OJF경제연구소 올란도 페레레스 소장은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span class='quot1'>정부가 전기·가스·교통 등에 쓰는 보조금이 2006년 총 176억페소에서 지난해 1550억페소(약 19조원)로 폭발적으로 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1'>과도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span>”이라고 했다. <br/><br/>전문가들은 잘못된 보조금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2011년 재선 전에 30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전부 넷북을 지급한 일을 언급한다. <br/><br/>당시 학교와 집에 전기도 원활히 공급이 안되는데, 넷북을 준 것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대형음식점 한달 전기료가 10만원일 정도로 싸게 하면서 적자분을 정부가 다 메워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br/><br/>페레레스 소장은 “<span class='quot1'>에너지 보조금 때문에 전기료가 너무 싸다 보니 겨울에 방이 뜨거우면, 난방을 줄이지 않고 창문을 여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그러나 의료와 교육은 ‘국방’처럼 원래 정부가 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공교육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비도 내 준다. <br/><br/>아그레구는 “태어나서 한번도 무상의료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페트리는 “사립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무상의료가 줄면 가난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다. 무상의료 예산은 늘면 늘었지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r/><br/>공항에서 만난 영어강사 안드레아 시아라피카는 “<span class='quot2'>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span>”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경제위기로 아르헨티나의 서민 10여명을 만났지만, 암 수술비나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에선 부채가 많은 사람을 취재하면, 주거비 외엔 보통 의료비와 교육비가 문제가 됐다. ‘1인당 소득과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보다 행복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br/><br/> <시리즈 끝><br/><br/><부에노스아이레스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4.txt

제목: 수감 중 ‘암호 편지’로 말 맞춘 마약사범들  
날짜: 2014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7100000098  
본문: ‘23.8.5.14+9+3.1.12.12-21+21.16+6.15.18-23.9.20.14.5.19.19….’<br/><br/>이모씨(32)는 지난해 8월 숫자와 수식이 적힌 장문의 편지를 군산교도소에 있는 친구 강모씨(28)에게 보냈다. 이씨는 편지 서두에 ‘너 수학문제 좋아하지? 풀어봐’라고 영어로 적었다.<br/><br/>강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씨 역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미국에서 수년간 생활하며 친분을 쌓은 이들은 수수께끼의 수식이 담긴 편지를 3차례 주고받았다.<br/><br/>지난해 11월 강씨는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span class='quot0'>내가 구속될 무렵 함께 살던 이씨에게 짐을 맡겼는데 그 속에 다른 친구가 두고 간 마약통이 있었다</span>”고 증언했다. 강씨는 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들어 있던 용기와 용기가 놓여 있던 장소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br/><br/>검찰은 다른 정황과 배치되는 강씨의 증언을 의심했다. 검찰은 강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 방을 압수수색해 이씨가 강씨에게 보낸 편지들을 압수했다. 말을 맞춘 정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씨가 강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br/><br/>수식이 담긴 문제의 편지 3통은 해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압수물 사이에서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나열하고 아랫줄에 1부터 26까지 숫자를 순서대로 적은 메모가 발견된 것이다.<br/><br/>암호를 풀었더니 ‘내가 증인으로 부르면 위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강씨의 수감 전부터 암호문 작성 및 독해법을 만들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암호를 사용해 위증을 교사하고 지시대로 위증을 한 혐의로 이씨와 강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5.txt

제목: 수감 중 ‘암호 편지’로 말 맞춘 마약사범들  
날짜: 2014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61001340626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구치소서 거짓증언 지시… 검찰 ‘위증교사’ 추가기소</strong><!-- SUB\_TITLE\_END--><br/><br/>‘23.8.5.14+9+3.1.12.12-21+21.16+6.15.18-23.9.20.14.5.19.19….’<br/><br/>이모씨(32)는 지난해 8월 숫자와 수식이 적힌 장문의 편지를 군산교도소에 있는 친구 강모씨(28)에게 보냈다. 이씨는 편지 서두에 ‘너 수학문제 좋아하지? 풀어봐’라고 영어로 적었다.<br/><br/>강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씨 역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미국에서 수년간 생활하며 친분을 쌓은 이들은 수수께끼의 수식이 담긴 편지를 3차례 주고받았다.<br/><br/>지난해 11월 강씨는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span class='quot0'>내가 구속될 무렵 함께 살던 이씨에게 짐을 맡겼는데 그 속에 다른 친구가 두고 간 마약통이 있었다</span>”고 증언했다. 강씨는 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들어 있던 용기와 용기가 놓여 있던 장소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br/><br/>검찰은 다른 정황과 배치되는 강씨의 증언을 의심했다. 검찰은 강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 방을 압수수색해 이씨가 강씨에게 보낸 편지들을 압수했다. 말을 맞춘 정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씨가 강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br/><br/>수식이 담긴 문제의 편지 3통은 해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압수물 사이에서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나열하고 아랫줄에 1부터 26까지 숫자를 순서대로 적은 메모가 발견된 것이다.<br/><br/>암호를 풀었더니 ‘내가 증인으로 부르면 위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강씨의 수감 전부터 암호문 작성 및 독해법을 만들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암호를 사용해 위증을 교사하고 지시대로 위증을 한 혐의로 이씨와 강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br/><br/><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6.txt

제목: 프랑스 담배 1갑 가격 1만200원, 왜?  
날짜: 2014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410013381455  
본문: 프랑스의 여성과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일간지 르피가로는 2012년 프랑스에서 여성 유방암 사망자가 1만1886명, 여성 폐암 사망자는 8700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보도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 유방암 사망률은 6% 감소했지만 여성 폐암 사망률이 8% 증가했다. 암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여성 폐암 사망률만 유독 증가세를 보이는 데는 담배와 연관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br/><br/>젊어서 흡연을 시작할수록 폐에 손상이 심하므로 전문가들은 여성과 30세 미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성인 흡연자들은 대부분 18세 이하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5세 학생들의 20%, 17세 학생의 32%는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프랑스 인구는 6580만명으로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인구의 0.1%가 넘는 셈이다. 프랑스는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19.6%에서 20.0%로 0.4%포인트 인상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말보로 1갑 가격이 지난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7유로(1만200원)를 넘어섰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7.txt

제목: 암 투병 아버지께 간 이식해 준 육군 상병  
날짜: 2014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21001336050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같은 부대원들은 헌혈증 기증</strong><!-- SUB\_TITLE\_END--><br/><br/>설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7일 육군 8기계화보병사단에서 군복무 중인 권태하 상병(21·사진 오른쪽)은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수술실에 누워 있어야 했다. 간암 말기(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 권무열씨(54·왼쪽)에게 자신의 간 70%를 떼내 이식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br/><br/>2010년 간암 판정을 받은 권씨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이어나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최근 간암 말기 선고를 받은 뒤 “간 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br/><br/><br/>권 상병은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권무열씨는 “앞날이 창창한, 더욱이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서 장기를 이식 받아 내 생명을 연장하면 뭐하겠느냐”며 거부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마음을 돌렸다.<br/><br/>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권 상병은 일반 병실에서, 아버지는 무균실에서 현재 회복 중이다. 부자가 한 병원에 누워 나란히 설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수술을 마친 권 상병은 “아들로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조금 했을 뿐인데, 아버지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br/>권 상병 소식을 들은 동료 부대원들은 수술 성공과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자발적으로 헌혈증 65장을 모아 전달했다.<br/><br/><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8.txt

제목: 만능줄기세포 새 제조법 발견  
날짜: 2014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210013360912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기존 유전자 주입 대신 약산성액에 담가 간단히</strong><!-- SUB\_TITLE\_END--><br/><br/>일본 연구진이 체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담그는 간단한 방법으로 만능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 과학종합연구센터의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30) 연구팀이 신형만능세포 제작에 성공해 지난달 29일 영국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br/><br/>연구팀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쥐의 비장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추출해 홍차 정도의 약산성 액체에 25~30분가량 담가 배양한 결과 수일 뒤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만능세포가 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만능세포를 쥐의 체내에 넣어 실험한 결과 피부나 근육 등 다양한 세포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 세포를 ‘스탭(STAP·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세포’로 이름지었다.<br/><br/>일단 역할이 정해진 세포가 약산성 용액에 담기는 정도만의 자극으로 만능세포가 되는 것은 과학계의 상식을 뒤집는 획기적인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동물세포는 한번 어떤 조직으로 자란 이후에는 수정란에 가까운 상태로 돌려놓아도 다시 여러 세포로 변화하는 ‘초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이 통념을 깨뜨린 것이다. 더구나 신형만능세포는 유전자를 주입해야 하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와 달리 외부 자극만으로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고, iPS와 달리 유전자를 손상시키지 않아 암 발생 우려도 적다. 하지만 실험이 생후 1주일의 어린 쥐 세포에서만 성공했고, 인간 세포로는 아직 시도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상당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r/><br/>연구팀을 이끈 오보카타 주임은 와세다대 이공학부를 졸업한 뒤 2011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 여성 과학자로 ‘동물세포를 외부자극으로 초기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발상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실험에 성공해 지난해 봄 ‘네이처’에 논문을 보냈지만 “과거 수백년의 생물세포학 역사를 우롱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으며 게재를 거부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 게재에 성공했다. 세계 과학계는 “줄기세포 생물학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찬사를 보냈고, 일본 사회에서도 30세 여성 연구자가 이룬 쾌거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iPS 세포 연구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토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중요한 연구성과가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발신된 것을 긍지로 여긴다</span>”고 기대를 표시했다.<br/><br/><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19.txt

제목: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날짜: 2014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110013356874  
본문: 명절을 맞아 장거리 운전 및 장거리 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이 1일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br/><br/>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은 원래 장시간 항공 여행 시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요통과 발의 통증, 호흡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발과 종아리가 부어오르고 하체 혈류가 원활치 않아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심할 경우 발에 발생한 혈전이 폐로 흘러들어가 폐혈관을 막아 폐색전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비만인 사람과 암 환자는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에 주의해야 한다.<br/><br/>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비행기 좌석뿐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 등으로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0.txt

제목: 타이거JK 부친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씨 별세  
날짜: 2014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110013357342  
본문: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 씨가 1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2세.<br/><br/>고인은 1967년 최초 팝 음악 잡지 ‘팝스 코리아’를 창간하고 이후 여러 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한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다. 1981년부터 3년 연속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을 맡고 미국 빌보드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등 국내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br/><br/>고인은 힙합 가수 타이거JK(본명 서정권·40)의 부친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타이거JK는 지난해 발표한 그의 노래 ‘살자’를 아버지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타이거JK는 트위터에 “아버지가 (세상을)떠났다. 그는 삶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빈소는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30분이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1.txt

제목: LADIES’ COUNSELOR  
날짜: 2014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1100000078  
본문: 레이디경향<br/>자문위원<br/>부부 고민<br/>김선재(LPJ마음건강의원 원장)<br/>이정희(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임상심리사)<br/>안은영(「여자 생활 백서」, 「여자 인생 충전기」 저자)<br/>김숙기(나우미가족연구원 원장)<br/>이인철(법무법인 윈 변호사)<br/><br/>건강 고민<br/>정지안(서울라헬여성의원 원장)<br/>조애경(WE클리닉 대표원장)<br/>최광현(한국트라우마가족치료연구소 소장)<br/><br/>육아 고민<br/>손석한(연세신경정신과 원장)<br/>이준성(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br/>신재민(순천향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br/><br/>교육 고민<br/>노관호(뉴스터디 중계 본원 원장)<br/><br/>재테크 고민<br/>윤희권(Yoon’s 재무설계 대표)<br/>우용표(더 코칭&컴퍼니 대표)<br/><br/>고민 상담 접수는…<br/>●「레이디경향」 애독자 엽서, 이메일(ladykh@khan.kr), 공식 블로그(ladykh.khan.kr) [고민 해결 방]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제목에 [고민 상담]이라고 적어주시고, 선물 발송을 위한 연락처(공식 블로그 이용시 ‘비공개’ 댓글)를 남겨주세요.<br/><br/>Present<br/>● 이달 ‘독자 고민 해결단’을 통해 고민을 해결한 독자 중 5명에게 SKR테라피 시스템(문의 02-516-3557)의 두피 케어 제품 ‘O2버블 케어 시스템 시리즈’ 중 손상되고 건조한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IM6 브릴리언트 샴푸’와 미세한 거품 입자로 두피의 노폐물을 자극 없이 제거하는 ‘O2버블 스켈프 트리트먼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제품은 배송해드립니다.<br/><br/>부부 고민<br/>이달의 키워드 뱃살과 처진 가슴, 시어머니와 섹스리스, 숨겨둔 아이, 치매 엄마 모시기, 백수 남편<br/><br/>Q 남편과 사이가 ‘좋은 편’인 40대 초반입니다. 소위 고소득 전문직에 속하는 남편은 나이를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자기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두 살 어린 저보다 젊어 보이고 활기도 넘칩니다. 문제는 침대 위에서 남편은 마치 청년처럼 왕성한 데 반해 저는 그 활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가슴도 처지고 배도 나온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점점 과감해지고 젊어지는 남편, 그에 반해 나날이 늙어가는 저. 남편은 천성이 긍정적인지라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어쩌나 두렵기도 하네요. (이메일 사연)<br/>안은영 曰 제 친구는 뱃살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독야청청 나이만 먹다가 다 늙어 첫날밤을 허락했지요. 뱃살을 꽁꽁 움켜쥐면서 어영부영 관계가 끝나고 “뱃살이 대단한 콤플렉스다”라고 했더니 남자(였다가 남편이 됐다)가 그러더래요. “안 보였다”라고. 친구는 그의 말을 립 서비스라고 생각해 오히려 더 얼굴이 굳었는데, 이어진 그의 설명이 이랬다는군요. “<span class='quot0'>오가다 만난 여자라면 감정이 없으니 감정을 대신할 눈요기를 찾겠지만 좋아서 품은 여자라면 잘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서 오로지 머릿속에 ‘끝내주게 잘하자’라는 생각뿐이다</span>”라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처진 가슴과 뱃살, 안 봐요. 아니 못 봐요. 머리를 콱 끌어당겨서 적극적으로 안아주세요!<br/><br/>Q 맞벌이다 보니 육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퇴근이 늦은 며느리 배려도 잘해주시고, 아이도 잘 봐주셔서 그건 참 좋은데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부부관계가 통 없네요. 어쩌다 분위기라도 잡혀서 남편 몸에 손이라도 대면 “어머니가 들으셔!”라며 뿌리치기 일쑤입니다. 부모님 방문이 저희 방문과 마주하고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네요.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됐다, 하고 싶지만 이제 제 나이 고작 서른인데,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김00·경기 고양시)<br/>안은영 曰 남편의 사랑이 식는 것 같아 불안한 건가요, 아니면 한창 왕성한 나이에 욕구불만으로 짜증이 나는 건가요? 전자의 불안감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들에게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특히 대개의 아들이 마마보이인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가 계신 공간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외도로 받아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움직이길 바라는 건 언감생심. 돌파구 찾는 건 아내 몫입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곳에서 밀애를 나누세요. 1km 근방에 모텔이 교회만큼 많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정말로 ‘너무한다’라고 생각되면 퇴근 후, 휴일 낮에 부부 동반 모임을 핑계 삼아 외유를 해보세요.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한결 스릴 있다고 하더군요.<br/><br/>Q 시부모님이 집 근처에 사십니다. 아침저녁 문안 인사부터 조그만 일에도 매번 부르시고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셔서 정말 힘드네요. 아이를 봐주시니 싫은 소리도 못하겠고, 한번은 말대답을 했다고 신랑을 불러 엄청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황00·인천 연수구)<br/>김숙기 曰 워킹 맘이시군요.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은 좋으나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간섭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견뎌내려고 하지 말고 하루빨리 남편과 상의해 시댁과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더 쌓이다 보면 시댁 갈등이 곧 부부 관계까지 위협을 주게 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남편을 잘 설득하는 일입니다. 시댁을 부정적으로 매도하거나 험담하면서 단절하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남편 또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나 성실한 직장인, 행복한 부모 역할 등을 통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타당한 근거로 설득해야 합니다.<br/><br/>Q 치매 초기 증상이신 친정엄마가 얼마 전 고관절 수술을 하신 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셨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꾸 헛소리를 하시며 고집까지 부리십니다. 3개월 동안 걷지도 못하셔서 모시기에 무척 힘이 드네요. 딸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순간 욱하는 마음에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답답해요. 죄책감이 느껴져 괴롭습니다. (이00·대전 유성구)<br/>이정희 曰 치매 증상의 어머님을 모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겠습니다. 게다가 고관절 수술 이후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셨다고 하니 더욱 힘드실 것 같아 안타깝네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로서 치매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자책을 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뇌의 질병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완치되기 힘든 병이고 의학적으로는 진행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인지 기능의 퇴화뿐 아니라 정서 변화 및 성격도 변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증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도 어머님을 간병하느라 심신이 지쳤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머님을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족과 상의해서 역할을 분담하십시오.<br/>또 어머니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자신도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어머니의 증상이나 변화에 대해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어머니에게 잘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힘들 때는 힘든 점을 솔직히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br/><br/>Q 지난해 갑작스러운 퇴사로 5개월째 일을 쉬고 있는 남편과의 어색함이 집 안에 냉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도통 말을 안 해요. 남편의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한00·경기 안양시)<br/>김선재 曰 요즘 많이 문의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경기의 여파가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로서 한창 일할 가장들이 회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남편처럼 퇴사하신 분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열심히 일한 자신을 회사가 몰라줬다는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이 감정은 사회와 세상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좀 더 확장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책과 열등감입니다. 자신이 못나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재취업하기 쉽지 않기에 더욱 실망과 절망감을 보일 수 있고 오래 지속되면 대인기피, 우울증으로 발전해 전문적인 치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br/>이러한 과정은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여러 감정이 뒤섞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을 오가기에 주변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개입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소중한 존재이며 가족 모두는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하며, 대화가 어렵다면 태도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거나 더욱 힘들어하고 우울감이 깊어지는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br/><br/>Q 결혼 30년 차가 된 50대 주부입니다. 결혼 전 스무 살에 당시 만났던 남자와의 사이에 실수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입양을 보냈지요.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장성해 가정을 꾸리고 나니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속이고 살았다는 것에 죄책감도 느껴지고요. 더 늦기 전에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이 이 일로 이혼을 하자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겠지요? 어찌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00·서울 서초구)<br/>이인철 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례를 보고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생각납니다. 주인공 김도진과 서이수가 사랑을 하고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도진의 숨겨진 아들이 등장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 존재를 몰랐던 아들의 등장으로 김도진은 물론 연인 서이수도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김도진이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서이수와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br/>인간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자기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밀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전 다른 이성과의 결혼 여부, 특히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br/>만약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고 아내에게 혼인 취소나 이혼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남편의 요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과거를 용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알기 전에 아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서 사실을 말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br/>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처럼 남편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자들의 심리는 복잡하고 여려 유형의 사람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br/><br/>PROFILE<br/>김선재는…<br/>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PJ 마음건강의원장. 부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병리적 증상과 고민에 대해 핵심을 짚어낸 답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부들이 모르는 남성 심리까지 꿰뚫어본다.<br/><br/>PROFILE<br/>이정희는…<br/>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임상심리사.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같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언으로 단순한 부부 문제 해결을 넘어 공감과 위로가 되는 따뜻한 솔루션을 제시한다.<br/><br/>PROFILE<br/>안은영은…<br/>사랑과 결혼, 일과 성공, 돈과 인생 등 여자의 인생에 대한 담백한 조언을 담은 「여자생활백서」로 여성 독자들의 ‘언니’로 자리 잡은 베스트셀러 작가. 「여자 공감」, 「여자인생 충전기」 등을 썼다.<br/><br/>PROFILE<br/>김숙기는…<br/>나우미가족연구원장.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까지, 각종 부부 문제에 전방위적 솔루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부 문제 전문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속 시원한 솔루션으로 독자들의 고민을 풀어준다.<br/><br/>PROFILE<br/>이인철은…<br/>법무법인 ‘윈’의 대표변호사. 조정 잘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두 사람의 행복하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똑똑한 이혼법을 조언한다. 저서로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가 있다.<br/><br/>건강 고민<br/>이달의 키워드 자궁탈출증, 40대 호르몬 변화, 면역력 키우기, 직장 맘의 우울<br/><br/>Q 어머니께서 자궁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바르고 계신데도 별다른 차도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술이 무서워 거부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00·서울 중랑구)<br/>정지안 曰 자궁탈출증은 자궁을 지탱해주는 주변 조직들이 약화돼 질벽, 자궁이 질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출산 경험이 많은 노년기 여성, 특히 난산을 경험했거나 쭈그리고 앉아 일하는 직업, 비만한 여성에게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력도 있습니다. 치료는 환자 본인이 자궁탈출증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거나 질벽과 자궁 경부가 질 밖으로 노출돼 감염의 위험이나 출혈이 발생한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br/>비수술적 치료로는 골반저근육운동(케겔운동)과 같은 물리요법과 페서리 장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자궁 탈출 정도에 따라 질의 앞뒤 벽을 좁혀주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며, 탈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질을 통해 자궁을 들어내고 질 벽의 앞과 뒤를 좁히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탈출이 심한 경우에 메시(Mesh) 라고 하는 합성 소재 그물을 이용해 자궁 주변 조직들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자궁탈출증은 수술 후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는 일이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거나 하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질병의 진행이나 수술 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br/><br/>Q 40대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전에 없었던 몸의 증상(생리량이 줄고, 현기증, 두피 가려움)이 나타나요. 주위에 암 진단을 받은 친구들도 많고 해서 불안합니다. 40대에 꼭 챙겨야 할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보조약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조00·경기 안양시)<br/>정지안 曰 40대 이후는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갱년기에서 폐경기로 이행되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에 없던 증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각종 암도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부인과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과 난소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유방검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햇볕을 자주 쐬는 것이 좋으며, 이외에도 종합비타민 섭취, 오메가3, 코엔자임Q10 등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br/><br/>Q 날씨가 추워진 이후로 감기를 달고 삽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까지 했는데 면역력이 약한 편이어서 그런지 어김없이 감기에 시달리고 있네요. 오래되다 보니 알레르기성비염과 축농증으로 발전했어요. 몸도 차고 전반적으로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고요. 주변에서는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효과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00·서울 강북구)<br/>조애경 曰 겨울철 받는 예방접종은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이므로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운 겨울,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주로 공기가 건조해서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성비염이 있다면 먼지나 분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이환되지 않더라도 맑은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며, 이 상태에서 2차적인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더욱 증상이 심해지고 오래가면서 자주 앓게 되는 것이지요.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기에 심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br/>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이 우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주 3회 이상 30~50분 규칙적인 운동, 숙면, 양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를 포함한 고른 영양 섭취,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금연과 절주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호흡기 점막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실내 습도를 40~60% 정도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또,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게 하루 8~10컵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과로하거나 밤을 새거나 과음을 한다면 즉각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지요. 귤이나 호박, 당근 등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고, 특히 호흡기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자주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br/><br/>Q 올해 마흔을 넘긴 ‘직장 맘’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걸 보면서 요즘 자꾸만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심해집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가계가 힘들 것 같아 그러질 못하겠네요. 제 상황이 우울하기도 하지만 가족과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남편은 뭐라고 반응할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보다 지금 이 기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00·서울 관악구)<br/>최광현 曰 통계에 의하면 전국 기혼 남녀들의 절반이 ‘작년 한 해를 버틴 힘’으로 ‘자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하루의 고단함을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지금 고민 사연을 남기신 분도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에 마음이 힘든 상황이군요. 사실 이것은 단지 ‘직장 맘’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만은 아니겠지요. 고단한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더 힘이 든 것입니다. 마음 편한 사람과 마주 앉아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됩니다. 좀 쉬고 싶을 정도로 지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대화의 순간에는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고단한 하루를 살아야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지치고 우울해지지 않습니다.<br/>많은 여성들이 결혼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화 결핍을 꼽습니다. 이분 역시 대화 부족, 소통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화, 즉 수다를 떠는 것을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고 대화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데 비해 남자는 자기의 감정을 말을 통해 표현하는 데 서툴죠. 그러다 보면 “이달 공과금이 얼마 나왔어요?”와 같이 꼭 필요한 말만 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br/>하지만 여성에게 대화의 결핍은 무기력과 우울을 불러오고, 그럴수록 지치고 힘들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게 만듭니다. 비록 경제적 형편으로 일을 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남편을 대화의 시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소하지만 작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일부러라도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br/><br/>PROFILE<br/>정지안은…<br/>서울라헬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불임, 생리불순, 부인과 질환, 사춘기 클리닉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br/><br/>PROFILE<br/>조애경은…<br/>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현재 WE클리닉 대표 원장. 여성들의 비만 및 체질, 여성 질환, 피부 고민 등 폭넓은 노하우를 깐깐하게 전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저서로 「깐깐 닥터 조애경의 W뷰티」, 「깐깐 Dr. 조애경의 뷰티 멘토링」 등이 있다.<br/><br/>PROFILE<br/>최광현은…<br/>한세대학교 치료상담대학원 주임교수이자 한국트라우마가족치료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현대인들의 마음 속 상처와 아픔을 상담해왔다. 펴낸 책으로는 「가족 세우기 치료」, 「가족의 두 얼굴」이 있다. 한국트라우마가족치료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현대인들의 마음 속 상처와 아픔을 상담해왔다. 펴낸 책으로는 「가족 세우기 치료」, 「가족의 두 얼굴」이 있다.<br/><br/>육아&교육 고민<br/>이달의 키워드 연년생 아이들, 잠자리 독립, 변 크기, 코 파기, 영어 공부법, 특목고 입시<br/><br/>Q 초등학교 1학년 아들, 2학년 딸 연년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민한 기질이고 누나에게 집착이 심해서 혹여 누나가 다른 친구랑 놀면 무척 싫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00·경기 화성시)<br/>손석한 曰 누나에게 많이 의존하는 아이로군요. 아이는 누나에게 단지 누나로서가 아닌 친구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기대를 누나가 잘 충족시켜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누나와 지냈던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다른 친구들과 굳이 놀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누나도 다른 친구들이 아닌 나와 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br/>아직 시기적으로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친구 관계 혹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억지로 누나와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누나를 포함해 사촌 남자 형제들과 놀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집 근처에 사는 또래 남자아이들과 어울릴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br/>한편으로는 아이에게 누나가 다른 친구들과 놀 권리가 있고, 부모님은 누나 외에 다른 친구들과 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도 덧붙여주세요.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동갑내기 동성 친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나에게도 동성의 단짝 친구가 더 어울릴 것이고, 아이와 누나의 관계는 남매이며 이는 친구와는 다른 것임을 일러주십시오. 하지만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발달적 변화에 의해 아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br/><br/>Q 6세 여아, 7세 남아 연년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 차도 한 살이라 서로 쌍둥이처럼 위해주며 클 줄 알았는데, 둘이 붙여놓기만 하면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욕심도 많아서 둘이 똑같은 걸 사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똑같은 거 2개 사주기가 때로는 아깝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기만 할까요? (김00·광주 북구)<br/>손석한 曰 앞의 사례보다는 더욱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년생의 경우 남매간의 서열이 확실하게 확립되기 어렵고, 또 신체적 발달 상황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잦을 수 있습니다. 대개 오빠는 동생에 대한 신체적인 우월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동생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는 만큼 동생의 복종을 기대하지만, 동생이 이에 상응하지 않을 때 공격적으로 되기 쉽지요. 동생은 오빠에게 피해 의식을 갖기 쉽고, 힘으로 오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약을 올리거나 비꼬는 식의 언어적인 수동 공격을 하기 쉽습니다. 한편으로 큰아이는 동생이 자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고, 둘째 아이는 오빠를 닮고 싶어함과 동시에 오빠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거나 오빠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br/>현명하게 남매를 키우는 육아법 몇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빠에게 동생을 절대 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세요. 둘째, 동생이 오빠를 흥분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오빠와 동생의 우위가 구별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하세요. 예컨대 무슨 일을 할 때의 순서는 오빠부터 하게끔 하지만, 먹을 것이나 장난감은 공평하게 배분해주세요. 넷째, 성별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시켜주십시오. 다섯째, 남녀의 성차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서로에 대한 험담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서로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만 칭찬하거나 야단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br/><br/>Q 3세, 8세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와 떨어져 잠을 자는데요. 밤이면 인사하고 잘 자는데 꼭 새벽이 되면 부부 침실로 오네요. 결국 저희 부부는 잠을 설쳐 피곤합니다. 그냥 두 아이를 끼고 푹 잘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br/>(정00·부산 서하구)<br/>손석한 曰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아이들만의 공간을 멋지고 예쁘게 마련합니다.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남매가 함께 자기에 외로움과 무서움을 덜 탈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베개를 각각 마련해주세요. 혹시 어둠을 무서워한다면 불을 끈 상태에서 방 안의 가구나 장식품들을 보여줘서 무서움을 없애주거나 은은하게 조명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br/>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이 잠을 자러 가는 시간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의 활동을 한 다음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킨 뒤 잠옷으로 갈아입히세요. 그런 다음에 취침 인사를 하게 합니다. 잠자리에서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까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꼭 안아주면서 볼을 쓰다듬거나 뽀뽀를 해주세요. 이 과정이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혼자 자는 습관을 쉽게 들일 수 있습니다.<br/>셋째, 일관성 있게 행동합니다. 따로 재워야 한다고 아이에게 늘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고, 평소 엄마의 애정과 보살핌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지요. 그러나 밤에 울면서 부모를 찾아오는 아이들을 가엽게 여겨 다시 한방을 쓰는 일관성 없는 태도는 곤란합니다. 그저 한 번씩 안아준 다음에 다시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서 잠잘 것을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아이들이 무척 겁에 질린 표정을 짓거나 공포스러운 울음을 보일 때는 받아주시고, 따로 재우기 시도를 나중으로 미뤄야 하겠지요.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br/><br/>Q 7세 딸아이와 관련해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가 유독 변이 굵어요. 거의 세탁기 호스만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틀에 한 번꼴은 변기를 뚫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린아이의 변이 이렇게 굵어도 괜찮은지요? 대장 검사나 여타 다른 검사가 필요한지 혹은 가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웃긴 고민이지만…, 저는 심각합니다.<br/>(계00·인천 남동구)<br/>이준성 曰 변이 굵은 것이지 단단한 것은 아니지요? 만일 배변 횟수가 하루 3회 이내, 1주일에 3회 이상이면서 울퉁불퉁 갈라지거나 단단한 변이 아닌 단순히 굵기만 한 변이라면 그리고 아이가 변을 볼 때 배변통이나 굵고 단단한 변으로 인한 항문 출혈만 없다면 의학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대변을 구성하는 섬유질 섭취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장내 정상 세균의 조성 차이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별 걱정거리는 아닌 듯싶습니다. 다만 변기가 막혀서 뚫는 수고가 문제겠지요.<br/><br/>Q 올해 4세가 된 아이가 코를 무척 심하게 팝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말이죠. 건조하기 때문인가 싶어 습도도 충분히 맞춰주고, 또 습관성인 것 같아 코를 파면 안 된다고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비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식염수를 자주 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또 피부염 연고를 콧속에 발라주는 건 어떨까요? (이00·서울 중구)<br/>신재민 曰 코 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과 같은 비염 증상 없이 습관적으로 코를 판다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겨울에 심한데,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콧물 양이 증가하고, 코 입구에 가피(코딱지)가 많이 생겨 습관적으로 코를 파게 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 코 입구 부분에 바셀린과 같은 유지성 연고를 수시로 발라주거나 소독된 생리식염수로 비강 세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처치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알레르기성비염과 같은 만성비염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br/><br/>Q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영어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법이 없을까요?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재밌고 흥미롭게 가르치고 싶습니다.<br/>(신00·전남 장흥군)<br/>노관호 曰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은 말하기와 듣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 시기에 무조건 영어 동화책이나 테이프를 많이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따라 하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듣기 수준은 향상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것에 비해 말하기 수준까지 향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br/>영어 말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때?’라는 문장을 ‘어떻지? 날씨가 오늘’과 같이 영어 어순대로 우리말로 옮겨서 자연스럽게 “How’s the Weather Today?”라고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웹페이지의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반복 연습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것입니다.<br/><br/>Q 달라지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제도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99년생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특목고에 입학하고 싶은 자녀들,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포인트만 부탁드립니다.<br/>(신00·서울 광진구)<br/>노관호 曰 지난 1월 7일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자사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이 발표됐죠. 대표적인 내용으로 자기소개서에 토익, 토플, 교내외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 이른바 ‘스펙’을 적어 넣으면 면접 점수가 ‘0점 처리’되고, 중3의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로 적용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 전교 1등은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1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목고에 가려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어떤 장래를 희망하는지, 어느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br/>한두 가지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학교에 따라 전략만 잘 세운다면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학습 방향은 우선 내신이 적용되는 과목, 특히 가점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탄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입학 점수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인증이나 각종 경시대회 중심으로 학습하기를 권합니다.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장의 목적이 없으면 꾸준히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특목고 입시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목표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br/><br/>PROFILE<br/>이준성은…<br/>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이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진료와 더불어 각종 강의를 통해 소화기관 건강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식도종양, 위장관종양, 위장관 기능 장애 및 운동질환, 치료내시경이다.<br/><br/>PROFILE<br/>손석한은…<br/>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이자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각 언론매체의 자문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 감으로 키우지 마라」(e북), 「지금 내 아이에게 해야 할 80가지 질문」,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빠의 대화 혁명」 등이 있다.<br/><br/>PROFILE<br/>신재민은…<br/>순천향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비강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 부비동 종양, 축농증내시경, 소아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도 맡고 있다.<br/><br/>PROFILE<br/>노관호는…<br/>목동 하이스트 본원에서 특목 강사를 거쳐 목동 미래탐구 원장을 역임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목의 핵심을 꿰뚫는 학습 전략을 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br/><br/>재테크 고민<br/>이달의 키워드 아파트 융자금, 전셋집 수리, 경매, 비자금<br/><br/>Q 올봄 전세로 이사를 하려 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매매가가 2억원 정도인데 집주인 융자금이 1억7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가는 1억원이고 집주인은 저희 1억원의 전세금으로 바로 융자금을 갚는다고 구두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융자금이 7천만원으로 줄게 되겠죠. 다른 집보다 시세가 저렴해 고민 중인데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최00·경기 김포시)<br/>우용표 曰 실제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융자금이 1억원 안쪽이며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집을 찾는 경우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특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합니다.<br/>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갚는다고 했으니 특약 사항에 ① 전세금 1억원으로 현재 XX은행/XX캐피털의 융자금을 갚도록 한다. ② 집주인은 더 이상 추가적인 융자금를 받지 않는다. ③ 만일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적인 융자금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라는 3가지 조항을 전세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나마 근심을 덜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br/>참고로 서울의 경우 9천5백만원까지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세 계약을 5백만원 낮춰 9천5백만원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br/><br/>Q 1992년에 지은 21평 아파트에 2년 계약하고 거주 중입니다. 입주할 땐 도배를 새로 하고 들어와 몰랐는데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외부 공기와 직접적으로 닿는 베란다, 작은 방 벽 등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최근에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도 물이 샙니다. 집 안의 크고 작은 수리들, 어디까지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세입자가 감당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박00·서울 관악구)<br/>우용표 曰 다행히 집 안의 크고 작은 수리에 대해 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해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집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항은 집주인이, 일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사항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일러, 세면대, 누수 등 중대한 것들은 집주인이, 곰팡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곰팡이는 세입자의 부담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화장실 수도꼭지는 단순한 이상이면 세입자의 부담으로, 혹시라도 배관에 의한 복잡한 문제라면 집주인의 부담으로 해결하면 됩니다.<br/><br/>Q 요즘 전세금도 오르고, 그래서 경매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선순위, 후순위 등 용어도 복잡하고 어렵네요. 일단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자가 꼭 전세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경매를 할 때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 사연)<br/>우용표 曰 경매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순위, 후순위 등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경매로 사들이고자 하는 물건이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전세금을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 일명 ‘가장 임차인’이라 하여 세입자도 아닌데 세입자인 척하는 못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런 가장 임차인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못 받으면 못 나간다’라고 주장하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문서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br/><br/>Q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지만 아직 저에겐 비자금이라는 게 없네요. 주위 사람들의 비자금 내역들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그간 나는 뭐 했나, 허무하기도 해요. 부부 사이에서 개인 여윳돈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00·경기 안성시)<br/>우용표 曰 가정에서의 비자금은 안정적인 가정 재무를 위해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라도 나름의 개인적인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 비자금은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지요. 비자금은 개인 적금의 개념으로 매월 조금씩 일정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마련합니다. 비자금을 조성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좋은 용도로 활용할 목적, 둘째 부부간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규모, 셋째, 개인 용도라도 사치, 과소비, 불미스러운 용도 금지, 넷째, 배우자 인지시 깨끗하게 공개, 다섯째, 마련 순서는 노후 자금, 저축, 정기적 지출 등을 마무리한 후 고려하며, 여유 자금 중 용돈 범위 내에서 정하는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알았을 때 기분이 상할 정도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미리 부부간에 일정 비자금 관련 약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br/><br/>PROFILE<br/>윤희권은…<br/>YOON'S FPG 대표. 개인 재무 컨설팅을 비롯해 기업 강연, 퇴직연금 FP 양성교육, 재무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과 개인재무부터 은퇴, 증여, 상속, 가정재무 상담까지 섬세한 재무설계를 조언한다.<br/><br/>PROFILE<br/>우용표는…<br/>코칭&컴퍼니 대표. 대기업 입사 후 7년간 적자 인생임을 깨닫고 재테크에 입문했다. 현재 설립한 회사에서 개인 재무 설계와 기업 직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 중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2.txt

제목: .  
날짜: 2014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201100000104  
본문: COUPLE<br/>‘사랑’은 영원한 인류의 화두다. 하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눈부신 해피엔딩, 때로는 비극이 된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 애정과 증오 사이를 오갔던 세계적 연인들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전한다.<br/><br/># 미국 최고 지식인과 금발 미녀의 만남<br/>아서 밀러와 마릴린 먼로<br/>1950년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와 극작가 아서 밀러가 뉴욕에서 만났던 일은 두 세계의 충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먼로보다 아홉 살 많은 밀러는 이미 10여 년 전에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다. 당시는 그가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정치 활동도 열심히 하는 좌파 엘리트에 속했다.<br/>반면,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던 먼로는 예쁘고 금발인데다 매우 섹시한 여성이었지만, 인지도가 별로 없는 할리우드 여배우에 ‘불과’ 했다.그래서 밀러를 처음 보았을 때 먼로는 열등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사람도 다른 남자들처럼 날 보고 예쁘다고는 하겠지. 하지만 평생 가도 나 같은 여자와는 어울리려고는 않을 거야.’ 하지만 밀러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저렇게 매력적인 여자는 나처럼 나이 들고, 비쩍 마르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남자와는 절대 사귀려 들지 않을 거야.’<br/>부모 없이 여러 고아원과 입양 가정을 오가며 자랐던 먼로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같은 남자,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를 찾고 있었고, 아서 밀러는 그 조건에 부합한 적임자였다. 밀러로서는 먼로의 연약함과 슬픔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 그의 심금을 울리는 듯했다. 일 때문에 뉴욕에 머물던 밀러와 먼로는 이 몇 주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먼로는 그 유명한 남자가 그녀를 단순한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진심으로 즐긴다는 데 대해 다소 놀랐다. 지금까지 그 어떤 남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밀러는 먼로의 보호자가 돼주었고 공식석상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녀를 데리고 다녔지만, 그 어떤 성적인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 유부남으로서 아내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먼로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어쨌든 밀러는 뉴욕 체류 기간이 끝난 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먼로와의 사이에는 그 어떤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br/>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서로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밀러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 사이 디마지오와 결혼한 먼로도 그 결혼이 크나큰 실수였음을 깨닫고는 9개월 만에 갈라서게 됐다. 이로써 둘 다 싱글이 된 밀러와 먼로는 1955년에 뉴욕에서 재회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시작했다.<br/>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하고 깊은 사랑은 아니었다. 자신감이 부족했던 밀러는 굉장한 성적 매력을 발산하며 그에게 보호받고, 의지하고자 했던 먼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반대로 능동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몰랐던 먼로는 밀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존경스럽고 든든한 남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확신감을 사랑했다. 두 사람은 곧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지만 이미 둘의 관계는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1956년 6월 29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아마도 이들은 이때 이미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밀러와 먼로는 과감하게 앞길을 헤쳐 나갔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며 아이가 생기면 배우를 그만둘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도, 부부생활도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좋지 않은 부부관계와 두 번의 유산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 직업적인 자기 회의는 먼로를 병들게 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밀러와의 결혼생활 중 거의 내내 심리 치료를 받았으며, 점점 더 약과 술에 의지하게 됐다. 1961년 11월 밀러와 먼로는 결국 합의하에 이혼했다. 유대교 풍습대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이로써 두뇌와 육체의 결합은 깨져버렸다. 불과 몇 주 후 아서 밀러는 오스트리아의 사진작가인 잉게 모라스와 결혼했고, 이들은 2002년 잉게 모라스가 숨을 거둘 때까지 40년 동안 함께했다. 마릴린 먼로는 아서 밀러와 이혼한 지 6개월 만인 1962년 8월 5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녀의 나이 겨우 서른여섯에 불과했다. 조촐하게 열린 그녀의 장례식에는 밀러도 초대됐지만,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br/># 그녀는 정말 ‘마녀’였을까?<br/>존 레논과 오노 요코<br/>요즘으로 치면 스토킹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1966년 서른세 살의 일본 출신 전위예술가 오노 요코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자신의 전시회에서 당시 세계 최정상의 록 밴드 비틀스의 ‘창조적 두뇌’라 불리던 스물다섯의 슈퍼스타 존 레논을 만난 이래로 계속 뒤를 쫓아다녔다. 끊임없이 그에게 전화를 걸고 장문의 편지를 썼으며, 궂은 날씨에도 다른 팬들과 함께 그가 사는 빌라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기도 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집요함을 동원해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br/>반면에 존에게 오노는 이름 모를 팬들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다만 존이 파괴적인 유머 감각을 지닌 오노와 그녀의 아방가르드하고 규모가 큰 플럭서스 예술 작품들에 매혹됐던 건 사실이다. 만일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매일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에게 구애를 받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좀 더 빨리 오노의 집요함에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시 오노 역시 결혼한 상태였다.<br/>그러던 1968년 5월 존 레논의 아내 신시아가 인도로 여행을 떠났을 때 결국 존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첫날밤을 보냈고, 바로 다음날 아침 존은 친구에게 오노 요코와 함께 살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존과 오노 모두 이혼했고, 1969년 3월 20일 지브롤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오노를 영혼의 동반자라 여겼던 존은 그 이후 그녀와 함께 난해한 플럭서스 프로젝트와 실험적인 음악 등의 예술 활동을 펼쳤고, 다양한 정치적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는 와중에 이들은 점차 자신들이 사랑에 빠졌을 뿐 아니라 인생은 물론 예술적, 정치적 관점까지 함께 나눌 만큼 서로 잘 맞는, 서로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사이임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이내 이들은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걸 함께하는 사이가 돼 지극한 행복을 누린다.<br/>하지만 당사자들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비틀스의 다른 멤버들과 그들의 수많은 팬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이 볼 때 오노는 존과 다른 멤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장본인이었다. 이러한 비난 앞에 존이 오노를 만나기 전에 이미 밴드에서 탈퇴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 1970년 4월 10일 비틀스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존이 아니라 폴 매카트니였다는 사실은 가볍게 묵살돼버렸다. 존을 제외한 비틀스 멤버들과 팬들에게 오노는 비틀스의 해체를 야기한 ‘마녀’나 다름없었다. 존과 오노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해야만 했다. 결국 1971년 이들은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 이후에도 술과 마약 그리고 존의 외도와 같은 문제로 역시 힘든 시기를 겪었다. 1973년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오노는 그들이 함께 살던 다코타빌딩의 호화로운 집에서 존을 쫓아내버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상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1975년 1월 재회하게 됐다. 훗날 존은 오노와 떨어져 지낸 15개월이라는 기간을 ‘잃어버린 주말’이라고 표현했다.<br/>얼마 후 오노는 아이를 가졌고, 존의 서른다섯 번째 생일인 1975년 10월 9일에 두 사람의 아들 션 오노 레논이 태어났다. 아들의 탄생은 존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는 5년 가까이 음악을 비롯해 공식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심지어 그것을 즐겼다.<br/>1980년 드디어 컴백을 결심한 존과 오노는 공동 앨범을 제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들은 한 정신이상자의 출현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해 12월 8일 마크 채프먼이라는 남자가 다코타빌딩을 나오는 존에게 LP판을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크 채프먼은 귀가하던 존에게 이유 없이 총을 쐈고, 존은 마흔 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음악사적으로 위대한 삶, 위대한 사랑의 운명적인 최후로 기록됐다.<br/><br/># 눈부신 대통령 부부<br/>존 F. 케네디와 재클린 케네디<br/>1952년 5월 서른네 살의 미국 국회의원 존 F. 케네디와 스물두 살의 사진기자 재클린 부비에는 한 디너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이 두 사람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 않았던 건 분명하다. 사실 이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존 F. 케네디는 부유하고 잘생긴 데다 야심 있는 남자였다. 재클린과 만났을 당시 그는 미국 대선 출마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먼저 매사추세츠 주의 상원의원직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그에게는 영부인이 되기에 적합한 여자가 필요했다. 그보다 어리고, 좋은 집안 출신에,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교양 있는 여자 말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 딱 맞는 여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재클린이었다. 그녀는 귀족의 피가 흐르는 교양 있는 상류층 출신으로 예의범절을 몸소 실천하며 자랐다.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녔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며, 몇 학기는 소르본대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사실 사진기자라는 직업은 보여주기 용도일 뿐 재클린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다른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남자를 찾고 있었다.<br/>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정도 지난 1953년 6월 약혼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 보면 이는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라기보다 다분히 타산적인 결혼임이 분명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점을 보지 못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존과 재클린이 워낙 연기에 능했던 데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커플이었기 때문이다. 젊은 상원의원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는 곧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됐다.<br/>존은 결혼 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염문을 뿌리고 다녔다. 그중에는 지금까지도 확실치는 않으나 마릴린 먼로와 만났다는 설도 있다. 그럼에도 재클린은 태연하게 반응했다. 아마 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존이 1960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그의 매력적인 아내와 완벽한 가정을 충분히 이용했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br/>1961년 이들은 마침내 목표를 이뤘다. 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재클린은 영부인이 된 것이다. 재클린은 곧 두 가지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그중 하나는 백악관을 싹 청소한 뒤 품위 있으면서도 화려한 모습으로 새롭게 꾸민 것이다. 백악관의 약 1백50개나 되는 방을 꾸미는 데 돈을 물 쓰듯 썼던 그녀의 행동을, 남편의 바람기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하나는 그 시대 여성들의 스타일 아이콘이 되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녀는 1960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으로 꼽혔으며 완벽하게 재단된 의상과 필박스 모자를 조합한 영부인 패션으로 유행을 주도했다.<br/>1963년 11월 22일 그녀가 남편과 함께 댈러스에서 오픈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선거 유세 퍼레이드를 하는 중이었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로 인사하던 중 갑자기 여러 번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총알은 대통령의 머리에 박혔다. 재클린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죽어가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피와 떨어져 나온 살점들로 범벅이 된 그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살해당했고, 이와 동시에 꿈의 커플로 불렸던 대통령 부부의 눈부신 결혼생활도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br/>재클린은 총격이 있은 지 5년 뒤 그리스의 해운업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 재혼했다. 이들의 결혼은 죽은 존 F. 케네디와의 관계를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됐고 미국인들은 재클린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비록 재클린은 1975년 오나시스가 세상을 떠난 뒤 미국으로 돌아와 죽기 전까지 20년 동안 미국인들의 호감을 되찾긴 했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었다. 존 F. 케네디와 재클린 케네디는 미국인들이 동경하는 대통령 부부의 전형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실로 눈부신 커플이었다. 그랬던 케네디 부부에게서 느낀 신뢰와 순정이 깨져버린 일을, 미국인들은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한 것이다.<br/>\* 이 기사는 「이 죽일 놈의 사랑」(크리스토프 네터스하임 저, 재승출판)에서 발췌·정리했습니다.<br/><br/>1950년대에 젯셋족의 삶을 살았던 밀러와 먼로 부부(에버렛 콜렉션).<br/>암스테르담에서 베드인 시위를 하고 있는 존 레논과 오노 요코(1969, Wikimedia Commons).<br/>결혼식 날 부케를 들고 있는 재클린 케네디(1953ⓒToni Frissell, Wikimedia Commons).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3.txt

제목: [정동칼럼]표절에 책임지는 이 없는 사회  
날짜: 20140129  
기자: 장정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9100000044  
본문: 선거 또는 인사철만 되면 사생활을 포함한 온갖 약점을 들춰 경쟁자를 흠집 내려는 추태가 벌어진다. 특히 약 10여년 전부터 경쟁자들의 학위 논문을 둘러싼 표절시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br/>그리고 표절 의혹을 제기한 목적도 사회정의 또는 공정의 추구가 아니라, 특정인의 도덕성을 흠잡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 심지어 자유로운 논쟁에서 밉보인 상대방을 특정하여 무분별하게 표절시비를 거는 악질적인 사례조차 늘고 있다.<br/>논문의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수단 및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함께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처세를 들어야 할 것이다. <br/>경쟁 격화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거 연구전문직들에게 한정되었던 표절문제가 비전문직에게까지 퍼지게 된 점이 상황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논문표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당사자들, 즉 지도교수 및 심사교수들의 안이한 학문 자세에 있다.<br/>표절의 경우, 논문 작성자(학생)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엄중한 책임이 지도교수 그리고 심사교수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의 전공 분야에 가장 가까운 지도교수가 표절논문을 통과시킨 책임은 교수직 진퇴 여부와 관계될 정도로 매우 무겁다. 가령 표절 사실을 몰랐다는 경우에도 지도할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학생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보면 가장 악질적인 변명이며, 학자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의심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이유로 참가한 복수의 심사교수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br/>논문이란 ‘독창적’인 주제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저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독창성 없이 기존의 주장들을 짜깁기한 것은 ‘노트(Note)’인데, 이를 논문과 분별하는 것이 지도교수와 심사교수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의무이다. <br/>물론 학문 세계가 다양하고 세분화되면서 논문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게 된 점은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도교수와 심사교수들의 묵인 또는 태만 없이는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br/>그런데 표절 논문에 대해 지도교수 및 심사교수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학교 전체가 의도적으로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조차 있는 것 같다. 현직 국회의원의 표절 의혹을 조사하는 학교는 조사가 시작된 후 약 1년이 흘렀어도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br/>시간의 흐름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옅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상태에 조금씩 적응시켜 의문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사고(판단) 회로를 마비시키는 독재 권력의 수법과 비슷하다. 표절 의혹의 해명은 학위에 대한 ‘사회 정의’를 가리는 사안인 만큼 특정인(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사가 방해 받거나 왜곡 되어서는 안 된다.<br/>한편 정치인, 방송인, 심지어 종교인까지 학위 논문 표절시비의 주인공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학위 취득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객관적인 조사에서 표절 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학위를 자진 반납했다는 사례도 없다. 부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학위를 스스로 반납하는 자세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일 것이다.<br/>학위 특히 박사학위는 저자의 학문적인 노력에 대한 ‘최저한’의 인정으로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성과물의 발표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수여된다. 즉 해당 분야의 종결점이 아니라 겨우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을 상징할 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학 사회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학위여부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및 경험이 논문 몇 편보다 값진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br/>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왜곡된 시각도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교수사회가 먼저 철저한 성찰과 함께 ‘당사자 의식’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면 사회의 암적 존재인 학력주의를 타파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민 조직이 성별·학력 차별을 묵인하는 현행의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동일 업무의 동일 임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4.txt

제목: [편집실에서]즐겨라  
날짜: 2014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8100000001  
본문: 요즘 저를 확 사로잡은 TV 프로그램이 <K팝스타3>입니다. 출연자들의 끼와 재능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꿈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들의 집념과 열정, 노력, 도전이 감동적입니다. 웬만하면 아이들이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봅니다.<br/><br/>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인생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재능만 타고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과 노력, 집념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출연자도 있습니다. 노력으로 타고난 재능 이상의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도 있고, 절실한 바람만큼 재능이 따라주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br/><br/><K팝스타3>는 여느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박진영과 양현석, 유희열 3명의 심사위원들 아닐까 합니다. 음악과 춤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는 안목과 감식안이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음악적 깊이도 깊이지만 그들이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엔 인생의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습니다.<br/><br/>박진영은 “그 나이에 맞는 자신의 소리를 내라. 흉내내지 말고, 꾸미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옛 선사들의 선문답을 보는 듯합니다. “<span class='quot0'>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집안의 보물이 아니다</span>”라는 암두 선사의 말을 연상시킵니다. 암두 선사는 “자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것을 가지고서야 천지를 덮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따라하고, 흉내내다 보면 원래 나와는 아득하게 멀어진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버전은 다르지만 뜻은 일맥상통입니다.<br/><br/>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것입니다. ‘퍼스트원’이라는 팀이 있는데, 시즌2에서 실패한 뒤 1년 만에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지난 1년간 흘렸을 땀과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다 못해 비장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술이잖아요.” 박진영의 심사평이 비수처럼 퍼스트원의 심장을 찌릅니다. 꼭 합격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지나친 나머지 경직돼 자연스러움을 놓쳤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즐거움마저 잃어버렸다는 질타였습니다.<br/><br/>드라마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나가는 그들이 안쓰러웠는지 양현석이 탈락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를 행사합니다. 양현석은 그 카드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즐겨라. 연습하지 마라.’ 그리고 말합니다. “다음에 와서는 신나게 놀아라. 틀려도 좋으니까.”<br/><br/>문득 2003 미국 여자월드컵을 취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심리치료사인 콜린 해커는 스웨덴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방문에 쪽지를 하나씩 넣어주었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발밑을 보지 말라. 그냥 춤추듯 즐겨라.’<br/><br/>양현석의 ‘즐겨라’와 해커의 ‘즐겨라’, 삶의 지혜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K팝스타3> 출연진들은 다행히 자신의 노래, 자신의 춤, 자신의 무대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지 못했겠지요. 살아 있는 말들이 출연자들에게 쏟아져내립니다. 살아남은 자와 떨어진 자의 운명이 시시각각 엇갈리는 살벌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순간에 인생의 드라마로 바꿔버립니다.<br/><br/>기자 세계로 따지면 저도 심사위원에 해당합니다. 기자 지망생들에게, 또는 기자로 갓 입문한 젊은 후배들에게 저 심사위원들만큼 깊이 있고, 통찰력 있고, 가슴을 흔드는 한 마디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던져봅니다.<br/><br/>다음 달엔 소치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6월엔 브라질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연아도, 이상화도, 손흥민도, 이청용도 모두 도전의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인자무적’(仁者無敵)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낙자무적’(樂者無敵)으로. 즐기는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5.txt

제목: [정동칼럼]표절에 책임지는 이 없는 사회  
날짜: 2014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810013342959  
본문: 선거 또는 인사철만 되면 사생활을 포함한 온갖 약점을 들춰 경쟁자를 흠집 내려는 추태가 벌어진다. 특히 약 10여년 전부터 경쟁자들의 학위 논문을 둘러싼 표절시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br/><br/>그리고 표절 의혹을 제기한 목적도 사회정의 또는 공정의 추구가 아니라, 특정인의 도덕성을 흠잡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 심지어 자유로운 논쟁에서 밉보인 상대방을 특정하여 무분별하게 표절시비를 거는 악질적인 사례조차 늘고 있다.<br/><br/>논문의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수단 및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함께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처세를 들어야 할 것이다. <br/><br/>경쟁 격화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거 연구전문직들에게 한정되었던 표절문제가 비전문직에게까지 퍼지게 된 점이 상황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논문표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당사자들, 즉 지도교수 및 심사교수들의 안이한 학문 자세에 있다.<br/><br/>표절의 경우, 논문 작성자(학생)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엄중한 책임이 지도교수 그리고 심사교수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의 전공 분야에 가장 가까운 지도교수가 표절논문을 통과시킨 책임은 교수직 진퇴 여부와 관계될 정도로 매우 무겁다. 가령 표절 사실을 몰랐다는 경우에도 지도할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학생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보면 가장 악질적인 변명이며, 학자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의심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이유로 참가한 복수의 심사교수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br/><br/>논문이란 ‘독창적’인 주제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저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독창성 없이 기존의 주장들을 짜깁기한 것은 ‘노트(Note)’인데, 이를 논문과 분별하는 것이 지도교수와 심사교수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의무이다. <br/><br/>물론 학문 세계가 다양하고 세분화되면서 논문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게 된 점은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도교수와 심사교수들의 묵인 또는 태만 없이는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br/><br/>그런데 표절 논문에 대해 지도교수 및 심사교수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학교 전체가 의도적으로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조차 있는 것 같다. 현직 국회의원의 표절 의혹을 조사하는 학교는 조사가 시작된 후 약 1년이 흘렀어도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br/><br/>시간의 흐름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옅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상태에 조금씩 적응시켜 의문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사고(판단) 회로를 마비시키는 독재 권력의 수법과 비슷하다. 표절 의혹의 해명은 학위에 대한 ‘사회 정의’를 가리는 사안인 만큼 특정인(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사가 방해 받거나 왜곡 되어서는 안 된다.<br/><br/>한편 정치인, 방송인, 심지어 종교인까지 학위 논문 표절시비의 주인공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학위 취득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객관적인 조사에서 표절 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학위를 자진 반납했다는 사례도 없다. 부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학위를 스스로 반납하는 자세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일 것이다.<br/><br/>학위 특히 박사학위는 저자의 학문적인 노력에 대한 ‘최저한’의 인정으로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성과물의 발표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수여된다. 즉 해당 분야의 종결점이 아니라 겨우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을 상징할 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학 사회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학위여부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및 경험이 논문 몇 편보다 값진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br/><br/>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왜곡된 시각도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교수사회가 먼저 철저한 성찰과 함께 ‘당사자 의식’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면 사회의 암적 존재인 학력주의를 타파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민 조직이 성별·학력 차별을 묵인하는 현행의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동일 업무의 동일 임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br/><br/><장정욱 |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changkorea@hotmail.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6.txt

제목: 조용범 화순전남대병원장 “토요일 암수술하겠다” 환자중심병원 선언  
날짜: 2014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710013329691  
본문: “<span class='quot0'>중증 암환자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토요일에도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span>”<br/><br/>조용범 화순전남대병원장(59·사진)이 ‘토요일 암수술’이라는 획기적인 병원계획 하나를 밝혔다. 조 병원장은 지난달 19일 전남대병원 이사회 승인을 거쳐 2년 임기를 시작했다. <br/><br/>조 병원장은 “<span class='quot1'>그동안 토요일 수술은 말만 있었지,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제 전국적으로 드물고 광주·전남에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br/><br/><br/><br/>그는 지난달 30일 취임하면서 ‘변화와 소통, 고객 행복’을 병원운영 목표로 내걸었다. 그 첫 사업으로 ‘토요일 암수술’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br/><br/>조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지역 거점병원이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펼쳐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일단 수술 대기기간이긴 중증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고, 구성원들의 공감대 등 병원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조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아직도 지역 암환자 상당수가 아픈 몸을 이끌고 수도권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마음에 걸렸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지역 암센터라는 지위, ‘병상당 암수술 전국 1위 병원’이라는 명예를 더욱 높이는 일이어서 직원들이 기꺼이 마음을 열어주셨다</span>”고 말했다.<br/><br/><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7.txt

제목: [기고]거꾸로 가는 환경부, 희망이 없다  
날짜: 20140127  
기자: 이세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7100000018  
본문: 지난해 환경부가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구리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동의했다. 그동안 구리 친수구역개발을 반대하던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다.<br/>그동안 환경부는 구리 친수구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span class='quot0'>대규모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부하량 증가가 예상돼 상수원 수질보전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span>” “<span class='quot0'>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한 친수구역조성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span>” 등의 검토의견을 내고 사실상 사업 자체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정작 중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환경부는 여전히 국토교통부 2중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 <br/>지난해 7월12일 환경부가 주도해 발족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도 형식에 불과하다. MB 때 4대강 사업 반대 등으로 중단된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의회를 다시 발족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니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구리 친수구역개발사업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동의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협의회를 바람막이로 삼아 지난 몇 개월간 시민사회를 철저히 기만한 셈인데 앞으로 희망이 있겠는가!<br/>친수구역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부담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변이 개발되면서 수질악화와 상수원 오염은 불가피하다. 주변지역의 개발심리를 자극해 심각한 난개발도 예상된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적극 반대해야 하는 이유였다. <br/>구리 친수구역개발사업은 대상지의 약 92%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류 1.5㎞ 지점에 암사취수장, 3.9㎞ 지점에 구의취수장, 불과 550m 지점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해 있다. 예정대로 한강변을 개발해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면 1000만 서울시민과 성남,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시·도민의 식수원은 심각하게 오염된다. 당초 환경부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하류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br/>중요한 순간에 말바꾸는 환경부를 시민사회는 신뢰할 수 없다. 적어도 환경부가 부동의했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공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로 넘어갔다. 중도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류지역의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구리 친수구역개발사업을 동의해 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게다가 사업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없고 난개발에 오염만 일으키는 실효성 없는 사업을 중도위원들이 동의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br/>더 이상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난개발법인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4대강과 마찬가지로 친수구역개발사업 역시, 그 피해는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박근혜 정부가 친수구역개발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8.txt

제목: 공공기관의 국내외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송 급물살  
날짜: 20140125  
기자: 최희진,오창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5100000074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 본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공공기관의 첫 담배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br/>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이날 저녁 이사회 표결로 소송제기가 공식화된 뒤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흡연피해는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법률가, 관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송 규모를 결정하겠다</span>”고 밝혔다. 표결에는 재적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해 11명이 담배소송에 찬성했으며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는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송대상·규모·시기는 김종대이사장에게 위임됐다.<br/>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법원에서 흡연과 암 질환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여부, 담배의 결함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1999년·2005년에 열린 담배소송에서 “<span class='quot1'>담배를 결함 있는 제조물로 볼 수 없고 담배에 제조상 하자가 없다</span>”고 판결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기존 판례는 공단에 유리하지 않다.<br/>공단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담배소송의 원고가 앓고 있는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은 “<span class='quot2'>모두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pan>”고 판시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빅데이터와 2001~2010년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1992~2012년 한국인 암 예방 연구 자료를 활용해 흡연과 발암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담배소송에서 법원은 환자별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만약 공단이 통계적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면 담배소송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br/>소송 규모에 대해 공단은 2003~2012년 진료비를 부담했던 폐암·후두암 환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추려낼 것인지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6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흡연피해 환자 범위를 2003~2012년 사이 폐암·후두암 환자 전체로 하면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는 3326억원이 된다. 피해 환자 범위를 ‘1992년부터 암 발생 시점 이전까지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사람’으로 좁히면 공단 부담금은 130억원이 된다. 공단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span class='quot3'>소송 규모와 소송 대리인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span>”고 말했다.<br/>담배회사들은 한국담배협회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봉건 담배협회 상임부회장은 “<span class='quot4'>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38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담배회사가 패한 적은 한 건도 없다</span>”며 “<span class='quot4'>다음주 중으로 협회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29.txt

제목: [책과 삶]기업 윤리도 소비자 하기 나름  
날짜: 2014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5100000106  
본문: ▲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프랑크 비베 지음·박종대 옮김 | 열린책들 | 304쪽 | 1만3800원<br/><br/>1970년대 TV에선 ‘번영의 80년대’ 구호가 수시로 나왔다. 당시 초등학생 눈에도 ‘80년대만 되면 전 국민이 자동차를 굴리며 호사를 누리는 풍경’이 그려졌을 정도다. 중학생이 돼서 사회 시간에 배운 기업의 정의 가운데 핵심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통했다. 기업들이 수출을 늘려 많은 돈을 번다면 한강에 폐수를 버리든, 식품에 무시무시한 것을 집어넣든, 노동자가 소리소문 없이 죽어나가든 다같이 침묵한 때도 있었다.<br/><br/>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기업을 정의하며 철학과 윤리, 문화, 정의로움을 함께 얘기한다. 기업을 판단하는 주요한 가치가 바뀐 것이다.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는 세계 50개 기업에 대한 윤리보고서다. 저자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뉴욕 특파원으로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다. <br/><br/>그는 선진국 사람들이 구입하는 저렴한 티셔츠와 신발에는 가난한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이 말라있고,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며 소비자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유해물질이 결국 빈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을 일깨운다. 그런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과연 정치가와 기업만의 책임인가.<br/><br/>소비자인 우리의 돈이 누구에게로 갈지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소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힘을 합치면 세상의 가장 거대한 경제 권력이 될 수 있다. <br/><br/>기업의 생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며, 나쁜 기업과 좋은 기업을 가려내고, 목적의식을 갖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고, 때론 시위나 청원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세계 50대 기업은 가능한 한 영향력이 크고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기준으로 했다.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들어있다. 저자는 5개 만점인 별점을 구글(4개), 스타벅스(3개), 토요타(3개), 아마존(2개), 삼성전자(3개) 등으로 직접 매겼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생산노동자들의 암 발생이나 일가가 그룹을 운영하는 재벌 기업의 전형 등을 언급한다. <br/><br/>‘삼성의 윤리 프로필은 조만간 더 뚜렷해져야 할 것’이라고 적어놨다. 애플(3개)과 관련해선 애플의 아이팝을 조립하는 하청기업인 폭스콘 중국 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자살을 꺼냈다. 별점이 기업별로 큰 차이가 없어 주목도가 떨어지는 감이 있다. 서너 페이지로 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지만 한 권으로 세계 굴지의 기업을 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0.txt

제목: [책과 삶]기업 윤리도 소비자 하기 나름  
날짜: 20140125  
기자: 김희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5100000011  
본문: ▲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br/>프랑크 비베 지음·박종대 옮김 | 열린책들 | 304쪽 | 1만3800원<br/>1970년대 TV에선 ‘번영의 80년대’ 구호가 수시로 나왔다. 당시 초등학생 눈에도 ‘80년대만 되면 전 국민이 자동차를 굴리며 호사를 누리는 풍경’이 그려졌을 정도다. 중학생이 돼서 사회 시간에 배운 기업의 정의 가운데 핵심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통했다. 기업들이 수출을 늘려 많은 돈을 번다면 한강에 폐수를 버리든, 식품에 무시무시한 것을 집어넣든, 노동자가 소리소문 없이 죽어나가든 다같이 침묵한 때도 있었다.<br/>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기업을 정의하며 철학과 윤리, 문화, 정의로움을 함께 얘기한다. 기업을 판단하는 주요한 가치가 바뀐 것이다.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는 세계 50개 기업에 대한 윤리보고서다. 저자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뉴욕 특파원으로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다. <br/>그는 선진국 사람들이 구입하는 저렴한 티셔츠와 신발에는 가난한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이 말라있고,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며 소비자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유해물질이 결국 빈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을 일깨운다. 그런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과연 정치가와 기업만의 책임인가.<br/>소비자인 우리의 돈이 누구에게로 갈지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소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힘을 합치면 세상의 가장 거대한 경제 권력이 될 수 있다. <br/>기업의 생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며, 나쁜 기업과 좋은 기업을 가려내고, 목적의식을 갖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고, 때론 시위나 청원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br/>세계 50대 기업은 가능한 한 영향력이 크고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기준으로 했다.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들어있다. 저자는 5개 만점인 별점을 구글(4개), 스타벅스(3개), 토요타(3개), 아마존(2개), 삼성전자(3개) 등으로 직접 매겼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생산노동자들의 암 발생이나 일가가 그룹을 운영하는 재벌 기업의 전형 등을 언급한다. <br/>‘삼성의 윤리 프로필은 조만간 더 뚜렷해져야 할 것’이라고 적어놨다. 애플(3개)과 관련해선 애플의 아이팝을 조립하는 하청기업인 폭스콘 중국 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자살을 꺼냈다. 별점이 기업별로 큰 차이가 없어 주목도가 떨어지는 감이 있다. 서너 페이지로 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지만 한 권으로 세계 굴지의 기업을 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1.txt

제목: [책과 삶]기업 윤리도 소비자 하기 나름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410013312707  
본문: <b>▲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프랑크 비베 지음·박종대 옮김 | 열린책들 | 304쪽 | 1만3800원</b><br/><br/>1970년대 TV에선 ‘번영의 80년대’ 구호가 수시로 나왔다. 당시 초등학생 눈에도 ‘80년대만 되면 전 국민이 자동차를 굴리며 호사를 누리는 풍경’이 그려졌을 정도다. 중학생이 돼서 사회 시간에 배운 기업의 정의 가운데 핵심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통했다. 기업들이 수출을 늘려 많은 돈을 번다면 한강에 폐수를 버리든, 식품에 무시무시한 것을 집어넣든, 노동자가 소리소문 없이 죽어나가든 다같이 침묵한 때도 있었다.<br/><br/>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기업을 정의하며 철학과 윤리, 문화, 정의로움을 함께 얘기한다. 기업을 판단하는 주요한 가치가 바뀐 것이다.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는 세계 50개 기업에 대한 윤리보고서다. 저자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뉴욕 특파원으로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다. <br/><br/>그는 선진국 사람들이 구입하는 저렴한 티셔츠와 신발에는 가난한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이 말라있고,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며 소비자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유해물질이 결국 빈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을 일깨운다. 그런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과연 정치가와 기업만의 책임인가.<br/><br/>소비자인 우리의 돈이 누구에게로 갈지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소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힘을 합치면 세상의 가장 거대한 경제 권력이 될 수 있다. <br/><br/>기업의 생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며, 나쁜 기업과 좋은 기업을 가려내고, 목적의식을 갖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고, 때론 시위나 청원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세계 50대 기업은 가능한 한 영향력이 크고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기준으로 했다.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들어있다. 저자는 5개 만점인 별점을 구글(4개), 스타벅스(3개), 토요타(3개), 아마존(2개), 삼성전자(3개) 등으로 직접 매겼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생산노동자들의 암 발생이나 일가가 그룹을 운영하는 재벌 기업의 전형 등을 언급한다. <br/><br/>‘삼성의 윤리 프로필은 조만간 더 뚜렷해져야 할 것’이라고 적어놨다. 애플(3개)과 관련해선 애플의 아이팝을 조립하는 하청기업인 폭스콘 중국 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자살을 꺼냈다. 별점이 기업별로 큰 차이가 없어 주목도가 떨어지는 감이 있다. 서너 페이지로 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지만 한 권으로 세계 굴지의 기업을 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br/><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2.txt

제목: [‘박근혜 복지’ 6가지 이슈]가계 파탄 막으려면 한 해 6조원 넘는 ‘3대 비급여’ 개선은 ‘필수’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4100000116  
본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었으나 이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지금껏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br/>갈등은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시작됐다. 인수위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공약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br/><br/>▲ 상급병실·선택진료 조정, 대형병원 반발에 지지부진<br/>정부 개선 대책엔 재원 규모·조달 방안 등 언급 없어<br/>인수위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당선인도 보도자료와 언론 답변 등을 통해 이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br/>하지만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이라고 적혀 있어 ‘3대 비급여 제외’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br/>그나마 진영 장관 시절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약집에 따라 3대 비급여 개선에 착수키로 하고 그 결과는 연말에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br/>6월엔 일단 3대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내놨다. 고가항암제와 심장 MRI 검사 같은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핵심을 비켜갔다’는 비판이 빗발쳤다.<br/>지난해 6월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4대 중증질환자의 ‘의학적 비급여’ 규모가 8700억원(2011년 기준),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7400억원이었고 간병비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br/>하지만 간병비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합한 금액(2조835억원)의 두 배(4조2382억원)에 달한다는 2010년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고려할 때,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한 간병비는 7400억원에 버금갈 것으로 보인다. 즉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핵심은 비용부담이 높은 3대 비급여”라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주장이 과장은 아닌 셈이다.<br/>지난해 9~10월 기초연금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복지부도 3대 비급여 개선 문제에는 의욕을 보이는 듯했다.<br/>복지부는 지난해 10월10일 원치 않는 상급병상 이용,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 배정에 대한 환자 불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빅5’ 병원(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의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병상으로 설정하자는 등의 대안을 내놨다. <br/>같은 달 31일에는 선택진료제 제도 골격을 폐지해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가산제로 전환하거나 선택진료 의사와 비선택진료 의사 수의 균형을 이뤄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당시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이런 대안은 민관합동위원회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안한 방향일 뿐이며 최종 개선책은 정부가 이를 토대로 곧 내놓을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그러나 정부의 최종 대책은 해를 넘겨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대형병원들의 ‘반발’을 꼽고 있다. 지난해 10월 잠시 언급된 ‘개선방향’이 모두 3대 비급여로 배를 불리던 대형병원에 타격을 입힐 내용이었기 때문이다.<br/>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1월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1'>재정 확충에 대한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대형병원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이 과정은 “(2013년) 연말까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그래도 이제는 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1월 말 혹은 2월 초에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여줄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성과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오가고 있다. 정부가 이미 ‘퇴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간병비 조사 결과와 대안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대안 역시 재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예산 뒷받침과 환자 혜택의 범위를 놓고 긴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3.txt

제목: [‘박근혜 복지’ 6가지 이슈]의료비 상승 억제 ‘마지막 보루’ 공공병원, 지방자치단체선 “수익 못 낸다” 찬밥 신세  
날짜: 20140124  
기자: 송윤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4100000115  
본문: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권할 수 없어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병원에서 남용되는 선택진료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후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공공병원이 ‘찬밥’ 신세이기 일쑤고, 여기저기서 민영화 논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br/>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 2013’을 보면 2000~200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이다. OECD 1위이자 회원국 평균(4.1%)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런데도 공적재원이 경상의료비(국민의료비에서 병원 건립 등 자본형성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에 그쳐 OECD 평균(72.4%)에 한참 못 미쳤다.<br/>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낮출지는 단언할 수 없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2년 공개한 보고서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 유형과 관리 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률(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중)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명박 정부가 중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암질환 보장률이 2004년 49.6%에서 2010년 70.4%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3%, 2008년 62.2%, 2010년 62.7%로 60%대에 정체돼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항목이 늘어날수록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급여 부분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자의 총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비중은 2006년 13.4%에서 2008년 15.5%, 2010년 16%로 증가했다. 비급여 중에선 2010년 기준 선택진료비가 26.1%로 가장 많았고 상급병실료(11.7%), 초음파(11%) 등이 뒤를 이었다.<br/>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병원들이 줄어든 수입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pan class='quot0'>박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이행하려면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이 경우 병원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병원들의 수입 감소분을 만회해주기 위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환자들의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br/>병원의 94%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 의료비가 점점 환자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에서 33개 지방의료원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공공보건정책을 수행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쇄하거나 민간 매각을 고려하는 지역이 이어지고 있다.<br/>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강원도의회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도내 5개 의료원 중 일부에 대해 매각이나 폐쇄·위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도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원주·강릉의료원에 대해 자본잠식, 적자 누적 등으로 경영이 어려우므로 민간이나 대학에 매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br/>강원도 지방의료원의 민영화 문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와 함께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1년째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방의료원 민영화 결정이 나올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span class='quot1'>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필수의료서비스와 수익이 나지 않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를 담당하는 고유 역할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익성을 떠나 이런 의료를 제공한다는 데 공공병원의 존재 의의가 있다</span>”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한 적자’이므로 수익성 잣대로 존폐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뜻이다.<br/>정부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공병원 해산·폐업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법률을 보완하고 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span class='quot2'>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폐업하려는 경우엔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지방의료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4.txt

제목: 아바도의 최강 레퍼토리 ‘말러’… 그는 갔지만 음반은 남았다  
날짜: 20140123  
기자: 문학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3100000052  
본문: 지난 20일 지휘의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가 향년 81세로 타계했다. 이제 그가 남긴 음악의 유산은 음반으로 남았다. 1960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지휘자로 데뷔한 이후, 생전의 그가 모두 몇 타이틀의 음반을 남겼는지 현재로서는 추정이 쉽지 않다. 그가 현역 지휘자로 활약한 기간이 50년이 넘어, 절판·단종된 레코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유통 중인 아바도의 음반은 160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최대의 수입음반 유통사인 N3컴퍼니가 21일 내놓은 리스트에는 모두 167개의 타이틀이 올라와 있다. 거장에 대한 세계적인 추모의 물결이 여전한 가운데 생전의 아바도가 남긴 주요 명연들을 간추려본다. <br/>지휘자로서 아바도의 본격 행보는 라 스칼라 필하모닉의 음악감독(1968~1986)으로 시작됐다. 당시 아바도는 이른바 ‘진보적 지휘자’의 아이콘이었다. 라 스칼라 극장의 주류 레퍼토리였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현대 오페라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은 물론, 저렴한 입장료로 젊은층을 극장으로 불러들였고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연주회’를 스스로 기획하기도 했다. 정장 차림의 지휘자에 익숙했던 음악팬들이 셔츠 바람으로 지휘하는 그를 음반 커버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던 것도 신선한 경험으로 꼽힌다. 아바도는 그렇게, 앞 시대의 엄격함과 획일화에서 벗어나 청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휘자상의 등장을 선언했다.<br/><br/>그는 라 스칼라 필하모닉뿐 아니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1979~1988)도 겸하면서 세계적 지휘자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이 시기의 아바도를 대표하는 명연으로는 주로 오페라와 성악 작품들이 손꼽힌다. 특히 라 스칼라 필하모닉과 녹음한 베르디의 <멕베스>, 런던 심포니와 연주한 비제의 <카르멘>은 음악 애호가들의 필청반으로 남았다.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등이 출연한 오페라 <카르멘> 음반은 국내에 라이선스 LP로도 출반돼 큰 호응을 얻었다.<br/>이 시절의 교향곡 연주로는 런던 심포니를 이끌고 녹음했던 멘델스존의 교향곡들을 꼽을 만하다. 음악칼럼니스트 류태형은 “<span class='quot0'>특히 3번과 4번은 음악에 꽃처럼 피어나는 생명력을 부여했다</span>”고 말했다. <br/>아바도가 지휘자 경력의 정점을 찍은 것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면서였다. 1989년 세상을 떠난 카라얀의 뒤를 이어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장으로 취임한 그는 “나는 보스가 아니다. 우리는 같이 일하는 것이다”는 말로 자신의 지휘 철학을 피력하기도 했다.<br/>교향곡으로는 역시 말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아바도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2번 ‘부활’을 제외한 말러의 교향곡 거의 전부를 녹음했다. 그중에서도 명연으로 손꼽히는 것은 6번과 7번이다. 박제성은 “말러야말로 아바도의 최강 레퍼토리”라면서 “그가 지휘한 7번은 시카고 심포니를 지휘해 연주했던 자신의 전작(1980년대 연주)를 뛰어넘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협주곡으로는 역시 피아니스트 폴리니와 협연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이 손꼽힌다.<br/>아쉽게도 아바도는 2000년 발병한 위암 때문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대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투병 속에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의지로 세계의 음악팬들을 감동시켰다. 이 시기의 그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등을 스스로 조직하는 열정을 보여주면서 지휘를 이어갔다. 특히 아바도를 존경하는 일급 연주자들이 대거 포진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유례가 없는 ‘올스타 악단’이었다. <br/>아바도는 암과 싸우면서 다시 말러 교향곡에 도전했다. 그중에서도 2번 ‘부활’은 잊을 수 없는 명연으로 손꼽힌다. 류태형은 “경지에 오른 말러”라고 극찬했다. 오케스트라 모차르트를 이끌고 연주한 모차르트 교향곡들도 아바도의 말년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남았다. 29·33·35·38·41번이 두 장의 CD에 담겨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5.txt

제목: [‘박근혜 복지’ 6가지 이슈]가계 파탄 막으려면 한 해 6조원 넘는 ‘3대 비급여’ 개선은 ‘필수’  
날짜: 2014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31001330356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3) ‘중증질환 보장’서 ‘3대 비급여’ 제외</strong><!-- SUB\_TITLE\_END--><br/><br/>‘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었으나 이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지금껏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br/><br/>갈등은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시작됐다. 인수위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공약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br/><br/><b>▲ 상급병실·선택진료 조정, 대형병원 반발에 지지부진<br/>정부 개선 대책엔 재원 규모·조달 방안 등 언급 없어</b><br/><br/>인수위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당선인도 보도자료와 언론 답변 등을 통해 이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br/><br/>하지만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이라고 적혀 있어 ‘3대 비급여 제외’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br/><br/>그나마 진영 장관 시절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약집에 따라 3대 비급여 개선에 착수키로 하고 그 결과는 연말에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br/><br/>6월엔 일단 3대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내놨다. 고가항암제와 심장 MRI 검사 같은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핵심을 비켜갔다’는 비판이 빗발쳤다.<br/><br/>지난해 6월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4대 중증질환자의 ‘의학적 비급여’ 규모가 8700억원(2011년 기준),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7400억원이었고 간병비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br/><br/>하지만 간병비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합한 금액(2조835억원)의 두 배(4조2382억원)에 달한다는 2010년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고려할 때,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한 간병비는 7400억원에 버금갈 것으로 보인다. 즉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핵심은 비용부담이 높은 3대 비급여”라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주장이 과장은 아닌 셈이다.<br/><br/>지난해 9~10월 기초연금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복지부도 3대 비급여 개선 문제에는 의욕을 보이는 듯했다.<br/><br/>복지부는 지난해 10월10일 원치 않는 상급병상 이용,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 배정에 대한 환자 불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빅5’ 병원(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의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병상으로 설정하자는 등의 대안을 내놨다. <br/><br/>같은 달 31일에는 선택진료제 제도 골격을 폐지해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가산제로 전환하거나 선택진료 의사와 비선택진료 의사 수의 균형을 이뤄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당시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이런 대안은 민관합동위원회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안한 방향일 뿐이며 최종 개선책은 정부가 이를 토대로 곧 내놓을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그러나 정부의 최종 대책은 해를 넘겨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대형병원들의 ‘반발’을 꼽고 있다. 지난해 10월 잠시 언급된 ‘개선방향’이 모두 3대 비급여로 배를 불리던 대형병원에 타격을 입힐 내용이었기 때문이다.<br/><br/>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1월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1'>재정 확충에 대한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대형병원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이 과정은 “(2013년) 연말까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br/><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그래도 이제는 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1월 말 혹은 2월 초에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여줄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성과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오가고 있다. 정부가 이미 ‘퇴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간병비 조사 결과와 대안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대안 역시 재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예산 뒷받침과 환자 혜택의 범위를 놓고 긴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6.txt

제목: [‘박근혜 복지’ 6가지 이슈]의료비 상승 억제 ‘마지막 보루’ 공공병원, 지방자치단체선 “수익 못 낸다” 찬밥 신세  
날짜: 2014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31001330361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진주의료원 폐쇄 이어 강원도의회도 민영화 논의</strong><!-- SUB\_TITLE\_END--><br/><br/>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권할 수 없어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병원에서 남용되는 선택진료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후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공공병원이 ‘찬밥’ 신세이기 일쑤고, 여기저기서 민영화 논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br/><br/>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 2013’을 보면 2000~200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이다. OECD 1위이자 회원국 평균(4.1%)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런데도 공적재원이 경상의료비(국민의료비에서 병원 건립 등 자본형성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에 그쳐 OECD 평균(72.4%)에 한참 못 미쳤다.<br/><br/><br/>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낮출지는 단언할 수 없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2년 공개한 보고서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 유형과 관리 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률(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중)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명박 정부가 중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암질환 보장률이 2004년 49.6%에서 2010년 70.4%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3%, 2008년 62.2%, 2010년 62.7%로 60%대에 정체돼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항목이 늘어날수록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급여 부분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자의 총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비중은 2006년 13.4%에서 2008년 15.5%, 2010년 16%로 증가했다. 비급여 중에선 2010년 기준 선택진료비가 26.1%로 가장 많았고 상급병실료(11.7%), 초음파(11%) 등이 뒤를 이었다.<br/><br/>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병원들이 줄어든 수입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pan class='quot0'>박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이행하려면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이 경우 병원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병원들의 수입 감소분을 만회해주기 위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환자들의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br/><br/>병원의 94%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 의료비가 점점 환자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에서 33개 지방의료원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공공보건정책을 수행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쇄하거나 민간 매각을 고려하는 지역이 이어지고 있다.<br/><br/>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강원도의회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도내 5개 의료원 중 일부에 대해 매각이나 폐쇄·위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도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원주·강릉의료원에 대해 자본잠식, 적자 누적 등으로 경영이 어려우므로 민간이나 대학에 매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br/><br/>강원도 지방의료원의 민영화 문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와 함께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1년째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방의료원 민영화 결정이 나올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span class='quot1'>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필수의료서비스와 수익이 나지 않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를 담당하는 고유 역할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익성을 떠나 이런 의료를 제공한다는 데 공공병원의 존재 의의가 있다</span>”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한 적자’이므로 수익성 잣대로 존폐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뜻이다.<br/><br/>정부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공병원 해산·폐업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법률을 보완하고 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span class='quot2'>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폐업하려는 경우엔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지방의료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7.txt

제목: 아바도의 최강 레퍼토리 ‘말러’… 그는 갔지만 음반은 남았다  
날짜: 2014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210013292435  
본문: 지난 20일 지휘의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가 향년 81세로 타계했다. 이제 그가 남긴 음악의 유산은 음반으로 남았다. 1960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지휘자로 데뷔한 이후, 생전의 그가 모두 몇 타이틀의 음반을 남겼는지 현재로서는 추정이 쉽지 않다. 그가 현역 지휘자로 활약한 기간이 50년이 넘어, 절판·단종된 레코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유통 중인 아바도의 음반은 160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최대의 수입음반 유통사인 N3컴퍼니가 21일 내놓은 리스트에는 모두 167개의 타이틀이 올라와 있다. 거장에 대한 세계적인 추모의 물결이 여전한 가운데 생전의 아바도가 남긴 주요 명연들을 간추려본다.<br/><br/>지휘자로서 아바도의 본격 행보는 라 스칼라 필하모닉의 음악감독(1968~1986)으로 시작됐다. 당시 아바도는 이른바 ‘진보적 지휘자’의 아이콘이었다. 라 스칼라 극장의 주류 레퍼토리였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현대 오페라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은 물론, 저렴한 입장료로 젊은층을 극장으로 불러들였고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연주회’를 스스로 기획하기도 했다. 정장 차림의 지휘자에 익숙했던 음악팬들이 셔츠 바람으로 지휘하는 그를 음반 커버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던 것도 신선한 경험으로 꼽힌다. 아바도는 그렇게, 앞 시대의 엄격함과 획일화에서 벗어나 청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휘자상의 등장을 선언했다.<br/><br/><br/>그는 라 스칼라 필하모닉뿐 아니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1979~1988)도 겸하면서 세계적 지휘자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이 시기의 아바도를 대표하는 명연으로는 주로 오페라와 성악 작품들이 손꼽힌다. 특히 라 스칼라 필하모닉과 녹음한 베르디의 <멕베스>, 런던 심포니와 연주한 비제의 <카르멘>은 음악 애호가들의 필청반으로 남았다.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등이 출연한 오페라 <카르멘> 음반은 국내에 라이선스 LP로도 출반돼 큰 호응을 얻었다.<br/><br/>이 시절의 교향곡 연주로는 런던 심포니를 이끌고 녹음했던 멘델스존의 교향곡들을 꼽을 만하다. 음악칼럼니스트 류태형은 “<span class='quot0'>특히 3번과 4번은 음악에 꽃처럼 피어나는 생명력을 부여했다</span>”고 말했다. <br/><br/>아바도가 지휘자 경력의 정점을 찍은 것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면서였다. 1989년 세상을 떠난 카라얀의 뒤를 이어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장으로 취임한 그는 “나는 보스가 아니다. 우리는 같이 일하는 것이다”는 말로 자신의 지휘 철학을 피력하기도 했다.<br/><br/>교향곡으로는 역시 말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아바도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2번 ‘부활’을 제외한 말러의 교향곡 거의 전부를 녹음했다. 그중에서도 명연으로 손꼽히는 것은 6번과 7번이다. 박제성은 “말러야말로 아바도의 최강 레퍼토리”라면서 “그가 지휘한 7번은 시카고 심포니를 지휘해 연주했던 자신의 전작(1980년대 연주)를 뛰어넘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협주곡으로는 역시 피아니스트 폴리니와 협연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이 손꼽힌다.<br/><br/>아쉽게도 아바도는 2000년 발병한 위암 때문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대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투병 속에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의지로 세계의 음악팬들을 감동시켰다. 이 시기의 그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등을 스스로 조직하는 열정을 보여주면서 지휘를 이어갔다. 특히 아바도를 존경하는 일급 연주자들이 대거 포진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유례가 없는 ‘올스타 악단’이었다. <br/><br/>아바도는 암과 싸우면서 다시 말러 교향곡에 도전했다. 그중에서도 2번 ‘부활’은 잊을 수 없는 명연으로 손꼽힌다. 류태형은 “경지에 오른 말러”라고 극찬했다. 오케스트라 모차르트를 이끌고 연주한 모차르트 교향곡들도 아바도의 말년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남았다. 29·33·35·38·41번이 두 장의 CD에 담겨 있다.<br/><br/><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8.txt

제목: 보험료 할인, 아는 만큼 받는다  
날짜: 20140121  
기자: 이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1100000128  
본문: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담배를 끊고 꾸준한 운동으로 혈압과 체질량지수 등이 모두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뒤 둘째 자녀를 낳았다면?<br/>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모두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료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건강체 할인’ 제도를, 두 번째는 ‘다자녀 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다양한 할인·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잘 모르거나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br/>먼저 보험료 할인제도를 보면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1%를 깎아주는 ‘자동이체 할인’, 월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저축성 보험 및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1.5~6.0% 할인해주는 ‘고액계약 할인’ 등이 있다. 연금보험 계약을 5년 이상 유지 시 보험료의 1%를 깎아주는 ‘장기유지 할인’, 무사고 기록으로 실손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의 5~10%가 할인되는 ‘갱신보험 무사고 할인’ 등도 있다. 고액계약 할인이나 자동이체 할인 등은 보통 계약 체결시점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건강체 할인, 다자녀 할인 등은 계약 유지 중 개인정보가 바뀌는 것인 만큼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br/>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가입자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납입 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장해율 50% 이상 또는 암 발생(보장성 보험·암보험), 장해율 50% 이상 또는 급성심근경색·뇌출혈 등 발생(건강보험), 장해율 80% 이상(연금보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39.txt

제목: [건강설계]노년 고관절 골절 제때 치료를  
날짜: 2014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21100000032  
본문: 74세 서모 할머니는 집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을 당했다. 서 할머니와 가족들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처음엔 몸에 손도 못 댈 정도로 위급한 환자였지만 수술 일주일 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br/><br/>보통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하면 암, 고혈압 등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낙상에 의한 골절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br/><br/>그중 가장 위험한 부위가 고관절이다.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한 고령층에서 고관절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이 부러진 사람 5명 중 1명이 1년 이내 사망한다.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초기 골절부위에서 1000cc 이상의 혈액 소실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외상성 저혈압이 신체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br/><br/>또한 심한 통증과 함께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혈전증, 욕창, 폐렴, 방광염, 패혈증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br/><br/>고관절 골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치료 및 재활이다. 골절 발견과 동시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골절 부위를 수술해야 한다. 어느 부분이 부러졌느냐에 따라 수술법도 달라지지만 연세가 많은 노인의 경우 뼈가 아물기 어렵기 때문에 골절 위치와 무관하게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8~9㎝ 절제로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br/><br/>수술 후 골절형태가 안정적일 경우 2~3일 지나면 걸을 수 있으며 고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반면 골절이 불안정할 경우 3개월 정도는 탈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리 꼬기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그 이후에는 무리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br/><br/>노년층이 골절을 당하면 1~2일 내 모든 처치가 가능하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내과, 마취과가 협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술 후 바로 환자와 밀착해서 재활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운동처방사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br/><br/>이상준 제일정형외과병원 골절클리닉 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0.txt

제목: [책과 삶]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부를 선물했지만, 질병 폭증의 근원이기도 하다  
날짜: 2014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8100000015  
본문: ▲질병의 탄생<br/>홍윤철 지음 | 사이 | 376쪽 | 1만8000원<br/>의학기술이 발전하는데도 왜 아픈 사람은 자꾸 늘어날까. 우리는 비만, 암, 당뇨병, 고혈압, 전염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에 비해 환경이 깨끗해졌지만 오히려 아토피나 알레르기 환자는 늘었다. 식량 증가로 빈곤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마자 비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 <br/>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신간 <질병의 탄생>에서 “<span class='quot0'>일만년 전에 발생한 농업혁명이 질병 시대를 열었다</span>”고 주장한다. “<span class='quot1'>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인류에게서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span>”는 것이다. <br/><br/>수렵·채집 시대와 달리 농업혁명 이후 식단은 고기 등 단백질에서 탄수화물 위주로 바뀌었다. 농경생활로 곡물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면역체계가 부실해져 전염병이 돌았다. 집에서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자 가축에 기생하는 병원균이 인간에게 옮았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생기면서 전염병은 재빨리 퍼졌다. 저자는 문명화되면서 바뀐 생활 환경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br/>또 300년 전 발생한 산업혁명으로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독성 화학물질이 증가하면서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저자는 “<span class='quot2'>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인류가 오랜 세월 형성해온 유전자와 환경의 조화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span>”며 “<span class='quot2'>이 때문에 질병이 대유행할 ‘무대’가 만들어졌다</span>”고 설명했다. <br/>두 혁명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의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환경의 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다. 유전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획득된 유전자 변화는 유전된다. 인류는 이 과정을 거쳐 환경에 맞게 유전자를 변화시켜왔다. <br/>인류는 지난 수백만년 동안 수렵·채집 생활에 적응해왔다. 유전자도 수렵·채집 생활의 식습관, 신체활동, 자연환경에 최적화됐다. 그러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최근 일만년 사이의 일이다. 유전자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엔 시간이 짧다. <br/>문화인류학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어제까지의 세계>에서 600만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를 1년으로 축소했다. 그러자 농경·목축생활은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오전 6시가 돼서야 시작했다. 산업혁명은 12월31일 밤 11시40분에 일어났다. 인류 역사의 99% 이상이 수렵과 채집 생활이었다는 뜻이다. <br/>물론 농업혁명 전에도 영양 부족 등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질병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저자는 질병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생겨난 질병이 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암 등이다. <br/>저자는 질병을 설명할 때 유전자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는 환경 적응의 산물이므로 질병을 설명할 때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암 발생 원인을 특정 유전자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 유전자의 활성화 여부는 주변 환경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생활습관이 지속되면 유전자 활성물질에 변화가 생겨 암 유발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br/>책은 질병을 만들어낸 8가지 환경 요인으로 음식, 기후변화, 햇빛, 오래달리기, 술, 담배, 산업혁명, 화석연료를 다뤘다. 예를 들어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리는 것은 인류가 담배를 피워온 역사와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한 아메리카 원주민은 폐암에 잘 걸리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의 담배인 궐련은 잘게 썰어 말린 담배를 종이에 말아 붙을 붙여 상당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피우던 담배와 비교하면 니코틴 등 유독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다. 담배를 피운 역사가 꽤 길어도 니코틴 등의 유독물질을 내놓는 담배에 현대 인간의 유전자는 거의 적응하지 못했다. <br/>술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농업혁명 이전부터 술의 원료인 알코올을 섭취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알코올은 과일이나 곡물이 발효되면 자연상태에서도 쉽게 만들어진다. 오랫동안 알코올을 섭취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고 심할 경우 질병에 걸린다. 이유는 인류의 유전자가 다량의 알코올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r/>전염병, 비만,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 현대인이 앓는 주요 질병이 문명 이후 급증한 데 미친 요인도 분석했다. 당뇨 환자가 급증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섭취하는 당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 인류의 혈당 이용 시스템으로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어서 유전자가 미처 적응하지 못했다. 저자는 “<span class='quot2'>최근 당뇨의 급격한 증가는 유전적 영향보다 에너지 섭취 증가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당뇨병 발생에 유전자 변이가 미치는 영향은 10% 이하</span>”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1.txt

제목: [책과 삶]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부를 선물했지만, 질병 폭증의 근원이기도 하다  
날짜: 2014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8100000103  
본문: ▲ 질병의 탄생…홍윤철 지음 | 사이 | 376쪽 | 1만8000원<br/>의학기술이 발전하는데도 왜 아픈 사람은 자꾸 늘어날까. 우리는 비만, 암, 당뇨병, 고혈압, 전염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에 비해 환경이 깨끗해졌지만 오히려 아토피나 알레르기 환자는 늘었다. 식량 증가로 빈곤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마자 비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 <br/>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신간 <질병의 탄생>에서 “<span class='quot0'>일만년 전에 발생한 농업혁명이 질병 시대를 열었다</span>”고 주장한다. “<span class='quot1'>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인류에게서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span>”는 것이다. <br/>수렵·채집 시대와 달리 농업혁명 이후 식단은 고기 등 단백질에서 탄수화물 위주로 바뀌었다. 농경생활로 곡물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면역체계가 부실해져 전염병이 돌았다. 집에서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자 가축에 기생하는 병원균이 인간에게 옮았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생기면서 전염병은 재빨리 퍼졌다. 저자는 문명화되면서 바뀐 생활 환경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br/>또 300년 전 발생한 산업혁명으로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독성 화학물질이 증가하면서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저자는 “<span class='quot2'>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인류가 오랜 세월 형성해온 유전자와 환경의 조화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span>”며 “<span class='quot2'>이 때문에 질병이 대유행할 ‘무대’가 만들어졌다</span>”고 설명한다. <br/>두 혁명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의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환경의 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다. 유전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획득된 유전자 변화는 유전된다. 인류는 이 과정을 거쳐 환경에 맞게 유전자를 변화시켜왔다. <br/>인류는 지난 수백만년 동안 수렵·채집 생활에 적응해왔다. 유전자도 수렵·채집 생활의 식습관, 신체활동, 자연환경에 최적화됐다. 그러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최근 일만년 사이의 일이다. 유전자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엔 시간이 짧다. <br/><br/>문화인류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어제까지의 세계>에서 600만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를 1년으로 축소했다. 그러자 농경·목축생활은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오전 6시가 돼서야 시작했다. 산업혁명은 12월31일 밤 11시40분에 일어났다. 인류 역사의 99% 이상이 수렵과 채집 생활이었다는 뜻이다. <br/>물론 농업혁명 전에도 영양 부족 등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질병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저자는 질병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생겨난 질병이 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암 등이다. <br/>저자는 질병을 설명할 때 유전자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는 환경 적응의 산물이므로 질병을 설명할 때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암 발생 원인을 특정 유전자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 유전자의 활성화 여부는 주변 환경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생활습관이 지속되면 유전자 활성물질에 변화가 생겨 암 유발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br/>책은 질병을 만들어낸 8가지 환경 요인으로 음식, 기후변화, 햇빛, 오래달리기, 술, 담배, 산업혁명, 화석연료를 다룬다. 예를 들어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리는 것은 인류가 담배를 피워온 역사와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한 아메리카 원주민은 폐암에 잘 걸리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의 담배인 궐련은 잘게 썰어 말린 담배를 종이에 말아 붙을 붙여 상당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피우던 담배와 비교하면 니코틴 등 유독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다. 담배를 피운 역사가 꽤 길어도 니코틴 등의 유독물질을 내놓는 담배에 현대 인간의 유전자는 거의 적응하지 못했다. <br/>술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농업혁명 이전부터 술의 원료인 알코올을 섭취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알코올은 과일이나 곡물이 발효되면 자연상태에서도 쉽게 만들어진다. 오랫동안 알코올을 섭취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고 심할 경우 질병에 걸린다. 이유는 인류의 유전자가 다량의 알코올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r/>전염병, 비만,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 현대인이 앓는 주요 질병이 문명 이후 급증한 데 미친 요인도 분석했다. 당뇨 환자가 급증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섭취하는 당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 인류의 혈당 이용 시스템으로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어서 유전자가 미처 적응하지 못했다. 저자는 “<span class='quot2'>최근 당뇨의 급격한 증가는 유전적 영향보다 에너지 섭취 증가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당뇨병 발생에 유전자 변이가 미치는 영향은 10% 이하</span>”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2.txt

제목: [책과 삶]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부를 선물했지만, 질병 폭증의 근원이기도 하다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710013250909  
본문: <b>▲ 질병의 탄생…홍윤철 지음 | 사이 | 376쪽 | 1만8000원</b><br/><br/>의학기술이 발전하는데도 왜 아픈 사람은 자꾸 늘어날까. 우리는 비만, 암, 당뇨병, 고혈압, 전염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에 비해 환경이 깨끗해졌지만 오히려 아토피나 알레르기 환자는 늘었다. 식량 증가로 빈곤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마자 비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 <br/><br/>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신간 <질병의 탄생>에서 “<span class='quot0'>일만년 전에 발생한 농업혁명이 질병 시대를 열었다</span>”고 주장한다. “<span class='quot1'>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인류에게서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span>”는 것이다. <br/><br/>수렵·채집 시대와 달리 농업혁명 이후 식단은 고기 등 단백질에서 탄수화물 위주로 바뀌었다. 농경생활로 곡물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면역체계가 부실해져 전염병이 돌았다. 집에서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자 가축에 기생하는 병원균이 인간에게 옮았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생기면서 전염병은 재빨리 퍼졌다. 저자는 문명화되면서 바뀐 생활 환경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br/><br/>또 300년 전 발생한 산업혁명으로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독성 화학물질이 증가하면서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저자는 “<span class='quot2'>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인류가 오랜 세월 형성해온 유전자와 환경의 조화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span>”며 “<span class='quot2'>이 때문에 질병이 대유행할 ‘무대’가 만들어졌다</span>”고 설명한다. <br/><br/>두 혁명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의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환경의 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다. 유전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획득된 유전자 변화는 유전된다. 인류는 이 과정을 거쳐 환경에 맞게 유전자를 변화시켜왔다. <br/><br/>인류는 지난 수백만년 동안 수렵·채집 생활에 적응해왔다. 유전자도 수렵·채집 생활의 식습관, 신체활동, 자연환경에 최적화됐다. 그러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최근 일만년 사이의 일이다. 유전자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엔 시간이 짧다. <br/><br/><br/>문화인류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어제까지의 세계>에서 600만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를 1년으로 축소했다. 그러자 농경·목축생활은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오전 6시가 돼서야 시작했다. 산업혁명은 12월31일 밤 11시40분에 일어났다. 인류 역사의 99% 이상이 수렵과 채집 생활이었다는 뜻이다. <br/><br/>물론 농업혁명 전에도 영양 부족 등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질병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저자는 질병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생겨난 질병이 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암 등이다. <br/><br/>저자는 질병을 설명할 때 유전자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는 환경 적응의 산물이므로 질병을 설명할 때 유전자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암 발생 원인을 특정 유전자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 유전자의 활성화 여부는 주변 환경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생활습관이 지속되면 유전자 활성물질에 변화가 생겨 암 유발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br/><br/>책은 질병을 만들어낸 8가지 환경 요인으로 음식, 기후변화, 햇빛, 오래달리기, 술, 담배, 산업혁명, 화석연료를 다룬다. 예를 들어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리는 것은 인류가 담배를 피워온 역사와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한 아메리카 원주민은 폐암에 잘 걸리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의 담배인 궐련은 잘게 썰어 말린 담배를 종이에 말아 붙을 붙여 상당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피우던 담배와 비교하면 니코틴 등 유독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다. 담배를 피운 역사가 꽤 길어도 니코틴 등의 유독물질을 내놓는 담배에 현대 인간의 유전자는 거의 적응하지 못했다. <br/><br/>술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농업혁명 이전부터 술의 원료인 알코올을 섭취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알코올은 과일이나 곡물이 발효되면 자연상태에서도 쉽게 만들어진다. 오랫동안 알코올을 섭취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고 심할 경우 질병에 걸린다. 이유는 인류의 유전자가 다량의 알코올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r/><br/>전염병, 비만,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 현대인이 앓는 주요 질병이 문명 이후 급증한 데 미친 요인도 분석했다. 당뇨 환자가 급증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섭취하는 당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 인류의 혈당 이용 시스템으로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어서 유전자가 미처 적응하지 못했다. 저자는 “<span class='quot2'>최근 당뇨의 급격한 증가는 유전적 영향보다 에너지 섭취 증가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당뇨병 발생에 유전자 변이가 미치는 영향은 10% 이하</span>”라고 말했다.<br/><br/><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3.txt

제목: [건강]“고려대의료원, 진료와 연구 인프라 대폭 확충 믿음 주는 환자 중심 병원 실현”  
날짜: 20140117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7100000007  
본문: 고려대의료원 김우경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61·사진)은 최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믿음 주는 환자중심 병원”을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했다.<br/>그는 “<span class='quot0'>단기적으로 안암병원은 첨단의학센터 설립, 전문화센터 집중 육성, JCI 인증을 기반으로 한 국제병원으로 도약하고, 구로병원은 신관(암병원) 증축, 진료 인프라(수술실 등 공용진료시설) 확충, 연구공간 확보 등에 힘쓰겠으며, 안산병원은 3차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진료 및 연구시설 확보, 기초의학 및 보건과학대학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겠다</span>”고 말했다.<br/>우선 금년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1단계 착공을 필두로 구로병원에 암 전문병원을 오는 3월 개원하고, 안산병원도 본관 증축공사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려대의료원은 올해 400여개 병상이 늘어난다. 또 의대 쪽에 오는 2월 문숙기초의학관이 문을 열고, 7월에는 의대 본관을 새롭게 완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진료와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성화센터를 10개 이상 육성해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중심 병원이 되겠다는 것이다.<br/>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 병원을 유일하게 산하 두 개 병원(안암·구로병원)이 동시에 지정받았다. 부정맥센터, 로봇수술센터, 장기이식센터,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의료원장은 36시간에 걸친 열 손가락 접합수술에 성공해 세계학회 발표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수지접합 미세수술 분야의 권위자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수부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이사장,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및 이사장 등 관련 주요 학회의 수장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12월1일 취임, 의료원장 임기가 2015년 11월30일까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4.txt

제목: 김명희 박사, 활성산소의 염증 유발 체계 밝혀  
날짜: 20140117  
기자: 목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7100000068  
본문: 국내 연구진이 활성산소가 암이나 당뇨 같은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체방어시스템연구센터 김명희 박사(47·사진)팀이 활성산소에 의해 ‘TRX 단백질’로부터 분리된 ‘TXNIP 단백질’이 염증을 일으키도록 하는 물질인 ‘인터루킨-1베타(IL-1β)’ 분비를 촉진해 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정상 세포는 TXNIP와 TRX라는 단백질이 결합돼 있다.<br/>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의 온라인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6일자에 실렸다.<br/>활성산소는 강력한 산화 기능을 가진 산소로, 세포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세포 증식이나 분화 등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자외선이나 고혈당 등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이 급증해 암·당뇨 같은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은 세포에 염증이 생겨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병이다. 당뇨는 췌장의 베타(β)세포에 생긴 염증으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생긴다.<br/>김 박사팀은 활성산소 농도가 정상적인 세포 환경으로 돌아가면 TRX와 TXNIP의 결합체를 다시 형성하는 사실도 확인했다. <br/>김 박사는 “<span class='quot0'>염증·당뇨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기반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항암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TRX 단백질을 조절하는 약물 개발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5.txt

제목: [여의열전](39) 황미수 영남대병원 교수  
날짜: 20140117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7100000008  
본문: 영남대병원 영상의학과 황미수 교수(60)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첫 여교수로 유명하다. 1983년 5월 영남대병원 개원 멤버로 교수요원 발령을 받아 지난해 30년을 맞았다. 30년 넘게 영상의학과에서 홍일점으로 교육·연구·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파워 여성’이다. <br/>지역 여교수들 사이에서는 ‘큰언니’로 통한다. 2003년 발족한 ‘대구·경북 유방영상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연구회를 이끌고 있다.<br/><br/>“대구·경북 유방영상연구회는 지역 영상의학과 교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회입니다. 유방영상 분야가 세분화될 때 지역에서 세부전공을 제일 먼저 했고,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계속 회장을 맡으라고 하네요. 유방영상의학의 발전은 유방암 조기진단 및 각종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영상을 하는 의사들의 목표는 작은 크기의 암조직을 가능한 한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가 가능케 함으로써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뿐 아니라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들과 교육·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지역 의료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항상 제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주위에 누가 되지 않으며, ‘여자라서 안된다’는 말은 기필코 듣지 않겠다는 자세로 말입니다.”<br/>유방초음파 진단의 권위자인 황 교수는 한 달에 600여건의 유방촬영술과 500여건의 유방초음파 및 유방수술 전처치를 하고 있다. 병원 전체의 흉부 X-레이 검사 중 70~80%의 판독을 매일 직접 챙긴다. 과중한 업무지만 선천적으로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 오전 6시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한다.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암환자인 경우 기다리지 않게 유방초음파 검사를 바로 해주고 있다.<br/>그는 유방수술 전처치(수술 전 바늘 위치 결정술)의 베테랑이다. 이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암의 위치를 외과의사의 수술 전에 유방초음파나 유방촬영 영상을 보면서 낚시바늘 같은 것으로 정확하게 잡아주는 시술이다. 보통 오전 8~9시 사이에 4~5건은 기본이고 많게는 7~8건까지 해서 수술방으로 보내준다. 이런 노력은 전국 6위권에 들어가는 영남대병원의 유방암 수술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공의들을 모성애적으로 보살펴 ‘어머니 같은 느낌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br/>197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황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1983년 영상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당시 진단방사선과에 속해 있던 2개 전문의 분야 수련을 받은 것이다. 1983년 세브란스병원 전임의(펠로) 도중에 그해 5월 영남대병원 교수로 위촉됐다. 1991년 3월부터 1년간은 미국 피츠버그대병원에서 임상교수 연수를 받았다. 최근까지 100여편의 영상의학 관련 논문을 국내외 학회에 발표했다.<br/>“빨라진 초경, 늦은 폐경과 출산 기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유방암이 계속 늘어나고 20~4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매달 자가검진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가져야 해요. 최근 영상의학적 진단법의 발달로 유방암 진단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수술기법 향상과 표적치료제나 방사선치료법 등의 개발로 수술 환자의 생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br/>황 교수는 ‘모든 일에 성의껏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다. 1979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동기였던 정현 교수(대구 가톨릭대병원 피부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다. 레지던트 1년차 때 낳은 큰아들은 현재 카이스트(KAIST)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1985년 얻은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현재 원주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 중이다.<br/>현재 대구에서 같이 거주하는 부모 중 아버지(황훈 박사·88)는 의사면허 444번으로 잘 알려진 외과의사다. 어머니(황종옥 박사·84)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황훈 박사는 부인과 함께 재작년까지 서울 충정로에서 57년간 개원(경기의원)을 했다. 3녀1남 중 장녀인 황 교수가 의대를 선택한 데는 묵묵히 의업을 일구는 아버지, 영상의학을 전공한 데는 초음파를 많이 보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바로 밑 여동생도 연세대 의대를 나와 미국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br/>“지금의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진단뿐만 아니라 암 치료, 좁아진 혈관 확장, 동맥류 예방 등 예전에 큰 수술이 필요했던 것도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매우 발달된 진단기법과 함께 최신 시술을 통해 질병 정복에 더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br/>이수정 영남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외과)은 “<span class='quot0'>황미수 교수는 하루에도 수십명의 유방초음파 검사를 통해 유방암의 조기검진에 힘쓰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초음파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초음파 대가이며 환자를 위해서라면 주말에도 근무하는 원더우먼 교수</span>”라고 칭찬했다.<br/> <br/>황미수 교수가 말하는 유방암의 영상의학적 진단<br/>유방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이유다. 국립암센터와 한국유방암학회의 유방암 검진 권고안을 보면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 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40세 이상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및 유방촬영술을 받도록 되어 있다.<br/>영남대병원 영상의학과 황미수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러한 방침은 증상이 없는 여성의 경우이며, 혹이 만져지거나 유즙분비, 통증이 있으면 즉시 유방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주로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가 이뤄진다. 가족력이나 비만 같은 고위험군에 속하면 젊은 여성이라도 더 적극적인 상담과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br/>유방촬영술(X-레이 검사)은 만져지지 않는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가장 예민한 검사다. 증상이 없는 여성의 유방암 검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검사는 유방이 성장하고 분화하고 있는 10~20대 젊은 여성의 기본검진법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br/>유방초음파는 유방촬영술과 더불어 흔히 실시하는 검사다. 유방촬영술이나 촉진에서 발견된 병변의 정밀검사로 이용한다. 유방촬영술에서 고밀도(치밀) 유방인 경우 보조적인 검사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황 교수는 “<span class='quot2'>유방에 멍울이 있을 때 치료를 안해도 좋은 단순한 유방조직의 증식인지 종양인지, 또 이 종양이 낭종(물혹)인지 고형종양인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span>”고 설명했다.<br/>한국 여성에서 흔한 치밀한 유방실질을 가진 유방검사에 유방초음파는 거의 필수적이다. 치밀한 유방실질은 유방촬영술 영상에서 하얗게 나와 병소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은 유방촬영술에 앞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초음파검사만을 단독으로 시행한다면 조기 병변을 놓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br/>유방 CT나 자기공명영상(MRI)은 유방암의 진단뿐만 아니라 유방암의 병기나 전이를 진단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자기공명영상은 임상적 또는 단순유방촬영술과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힘들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쓰인다. 이밖에 실리콘이나 파라핀을 직접 주입한 유방에서의 유방암검사, 유방암환자에서 수술 전 다발성·양측성 병소 여부 검사, 수술전 병기 결정, 항암치료 중 유방암치료의 효과판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6.txt

제목: [책과 삶]죽음은 신비한 것일까… 죽음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의학적 규명  
날짜: 2014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1100000013  
본문: ▲ 삶을 위한 죽음 오디세이…라샤르 벨리보·드니 쟁그라 지음, 양영란 옮김 | 궁리 | 272쪽 | 2만5000원<br/>죽음을 주제나 소재로 한 책은 참으로 많다. 아마 삶을 주제나 소재로 한 책만큼이나 많지 않을까.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나 살아간다는 이 기막힌 사실 앞에서 인간은 지난 수천년 동안 죽음과 삶을 성찰해왔다. 이름을 남긴 철학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죽음과 삶에 대한 사색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종교의 탄생과 지금 이 순간의 종교활동도 죽음, 삶과 연결돼 있다.<br/>누구나 인식하고 있듯 죽음이 있으니 비로소 삶이 있고, 삶이 있으니 죽음이 있다. 어쩌면 삶과 죽음은 하나일 텐데도 아직 우리 대다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갖은 애를 쓴다. 나아가 죽음이란 말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죽음에 공포를 가지는 걸까.<br/>저자들은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span class='quot0'>죽음의 불가피성을 의식하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매우 소중한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만끽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한다. “<span class='quot0'>죽음이 실존을 마감하는 부정적이고 부당한 종말이라기보다는 30억년 전 하나의 원시세포에서 시작된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상에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에 필연적·본질적인 역할을 해온 긍정적 현상임을 안다면 아무리 덧없고 일시적인 순간의 삶이라도 더 충실하게 맛볼 수 있다</span>”는 것이다.<br/>그래서 “삶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 죽음을 이해하기”가 바로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리샤르 벨리보는 암 예방 및 치료 연구의 권위자이고 드니 쟁그라는 혈액종양학 전문가다. 캐나다 퀘벡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이들 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연구분야에서 보듯 늘 생생한 죽음의 현장과 대면한다는 것이다. 거의 매일 죽음을 맞는 환자를 접하는 저자들은 저절로 삶의 의미, 아니 삶의 덧없음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br/>그 성찰의 결과물인 책은 죽음을 주제나 소재로 한 기존의 수많은 철학적 분위기의 책들과는 차별성이 드러나 주목할 만하다. 저자의 이력에서 눈치챌 수 있듯 최신 과학적·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죽음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죽음을 부르는 다양한 원인들, 그 원인들이 어떻게 산소 부족을 일으켜 인체 각 기관의 생체기능이 생리적으로 멈춰버리는 죽음에 이르는지 그 생물학적 과정을 쉽고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br/>생물학적 죽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저자들은 흔히 생각하듯 죽음이 신비스럽거나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드러내 보인다. 저자들의 인문학적 깊이와 그림·사진·그래픽·도표 등 엄청 풍성한 시각자료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책 읽는 즐거움도 한층 더해준다. ‘죽음을 기억하라(메멘토 모리)’는 말이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임이 새삼 느껴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7.txt

제목: 저는 사랑도 마음대로 못하는 ‘천연기념물 제주마’입니다  
날짜: 20140111  
기자: 강홍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1100000040  
본문: 올해 갑오년은 말띠 해, 그중에서도 60년 만에 맞는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말의 고장으로 불려왔는데요. 제주도는 말의 해를 맞아 새해 벽두부터 말산업특구 지정이다 뭐다 하면서 무척이나 들썩이고 있답니다.<br/>저는 한라산 자락 제주시 용강동 견월악 밑에 있는 제주도축산진흥원 목마장에서 산답니다. 이곳 목마장에는 저와 같은 천연기념물 제주마들만 살고 있죠. 그야말로 순수혈통인 ‘성골’끼리만 모여 사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우리를 보려고 목마장을 찾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치껏 점잖은 포즈를 취해주고 있죠. 전세버스가 서너대 한꺼번에 들어올 때면 마치 영화배우 같은 우쭐한 기분도 들곤 합니다.<br/>아참, 자랑만 늘어놓다 보니까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제주마 혈통 등록번호 ‘P12302F1’, 마명은 ‘문 150’이라고 합니다. 2012년 4월에 태어났으니까 아직 만 두 살이 채 안됐죠. 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아빠와 엄마, 조부와 조모, 증조부까지도 천연기념물입니다. 제주도축산진흥원 제주마관리시스템에 다 혈통등록이 돼 있죠. 이른바 ‘족보’가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태어나고 천연기념물이 됐는지, 또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일생’을 말씀드리죠. 저가 청마는 아니지만, 말의 해니까 좀 떠들어도 귀엽게 봐주시길.<br/><br/>■ 엄마·아빠가 천연기념물이면 자식도 천연기념물<br/>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시기는 1986년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제주도에서 사육되는 말이 2만마리가 넘었지만 이후에 농기계가 보급되고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말의 쓰임새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1300마리까지 줄어 멸종위기에 이르게 되죠. 말이 쓸모없어졌다고 그렇게 천대하다니 참 나쁘죠. 그래도 제주 조랑말이 멸종되면 안되니까 문화재청은 1986년 65마리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했습니다. 사람이 기르는 축양동물 중에서는 진돗개, 오골계에 이어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가 3번째로 천연기념물 자리에 등극한 것이죠.<br/>1991년에는 제주도에 경마장이 생겨납니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이죠. 흔히 조랑말로 부르던 제주 재래마는 크기가 왜소해 경마용으로는 좀 볼품이 없죠. 그래서 더러브렛과 교잡시킨 제주산마, 한라마 등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성골’이 아니라 ‘진골’에 해당되겠죠. 이때부터 제주 재래마에 대한 체계적인 혈통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죠. 또 제주마를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명칭 통일 문제도 제기됩니다. 논의 결과 천연기념물은 ‘제주의 제주마’로, 천연기념물 이외 말은 ‘제주마’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경마공원의 혼혈마들은 한라마로 부릅니다.<br/>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말은 모두 170마리입니다. 이들은 문화재청의 관리지침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는 곳부터 일정해야 합니다. 축산진흥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에서 살면서,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춰야 합니다. 멋있게 생겼다고 다 천연기념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가 천연기념물이어야 자식도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연기념물 4세대입니다. 1986년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86마리 중 한 분이 제 증조부랍니다.<br/>요즘은 천연기념물 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명문대 입시경쟁을 뺨칩니다. 천연기념물 사육두수가 현재 150마리(암 120, 수 30)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사육두수를 넘으면 잉여축으로 분류돼 일반농가에 분양됩니다. 지난해 천연기념물끼리 교배해서 낳은 말은 114마리입니다. 이 중 3마리만 천연기념물 후보축으로 선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농가에 다 팔렸죠. 그래도 일반마보다는 분양가가 훨씬 높게 형성됩니다. 성골은 성골이기 때문이죠. 천연기념물 후보축은 전체의 5% 이내에서 뽑습니다. 후보축이 되더라도 3세 이전에 기형이 나타나거나 이상한 모색이 나오는 경우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br/><br/>■ 확실한 족보에 방목지도 특급대우<br/>제가 사는 축산진흥원 목마장은 보호구역입니다. 제주시 용강동 산 14-34번지 등 6필지 132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혈통을 정확히 따지기 때문에 번식기가 되더라도 정해진 배필하고만 사랑을 해야 합니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암컷과 수컷 따로따로 살아야 합니다. 종모마, 종빈마, 육성마, 자마를 격리 사육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번식기인 5월부터 11월까지는 목마장에서 사랑하는 수말을 만날 수 있답니다. 보호구역에는 천연기념물 이외 다른 말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른 말이 이곳에 들어오려면 거세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수집단끼리 사귀다 보니 집단 내 혈연계수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유전적 번식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육두수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br/>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는 겨울이면 갑갑한 마사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부터는 목마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강건한 개체 50여마리만 따로 선발된 것이죠. 좀 춥기는 하지만 관광객들도 만나고, 눈송이와 장난치는 재미가 매우 좋습니다.<br/>우리는 수시로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분기별로 질병조사 및 치료를 받습니다. 기생충 구제약도 한 해에 두 번이나 먹습니다. 제 혈통은 유전자 분석을 거쳐 국제동물유전자학회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가 전산화돼 있습니다. 저의 목에는 마이크로칩이 주입돼 있는데요. 리더기를 이곳에 대면 저의 가계정보, 사진정보, 근친계수 등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중에 제주마처럼 정확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춘 곳은 제주도축산진흥원밖에 없습니다. 사료는 말 전용사료를 주로 먹습니다. 소 사료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br/><br/>■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봉사하며 ‘쓸쓸한 최후’<br/>아무리 천연기념물이지만 저도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말 중에서 가장 최고령은 1987년 5월에 태어난 말입니다. 26년 7개월이 됐죠. 말은 대개 30살에서 35살 사이에 자연사한다고 합니다. 1986년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65마리 중 현재 남아있는 말은 한마리도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이죠. 천연기념물 관리지침은 이를 ‘도태’라고 표현합니다. <br/>제주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제주마분과위원회는 매해 10월 심사를 벌입니다. 심사 결과 천연기념물 지정조건에서 벗어났다고 판정되는 말은 도태됩니다. 불임마, 노쇠마, 변형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쓸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말의 일생이 다 그런 것인데요. 심사 결과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는 말은 농가에 팔리거나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됩니다. 농가는 이 말을 경주마나 승마용으로 기르거나, 정 안될 경우 식용으로 매각하게 되죠. 천연기념물 지위에서 내려가더라도 관광객을 태우거나, 온몸을 바쳐 인간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목마장을 벗어나 쓸쓸히 마지막 길을 가야겠죠.<br/>■ 국내 첫 말산업특구 제주<br/>제주도 전역이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만큼 앞으로 쨍하고 해뜰날이 많아지겠죠. 현재 국내 말의 67%가 제주에서 사육되고 있고, 경주마는 80%를 제주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의 생산이나 말고기 이용, 관련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어느 지역보다 말산업이 특화돼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겠죠. <br/>말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해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말산업의 6차 산업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미국 켄터키주는 말산업으로만 일자리 8만개를 포함해 연간 4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천연기념물인 ‘제주의 제주마들’이 더욱 순수하게 혈통을 보존하고, 외모도 잘 가꿔야겠죠. 부지런히 2세도 낳고요. 청말띠 해, 저도 청마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8.txt

제목: [건강]대장암 가족력 있으면, 발병률 일반인의 4.3배  
날짜: 20140110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0100000007  
본문: 올해도 국민건강은 암과의 싸움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모두 21만8017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했다. 10년 전의 2배나 된다. 2005년 14만6504명에서 2010년 20만2053명으로 연간 20만명 이상이 암에 걸리고 있다. 2012년 1월1일 현재 생존해 있는 암 경험자(유병자)는 100만명을 넘어 총 109만7253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86만여명, 2010년 96만여명에서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br/>이 같은 통계수치는 암 발생자 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번 암에 걸린 사람은 일반인보다 암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br/>또 처음 발병한 것보다 2차, 3차로 암이 생기면 치료하기도 어렵다. 가뜩이나 암환자 자체가 늘어나 연간 암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더 힘들어진다. 암 치료율(66.3%)이 크게 높아지면서 환자 3명 중 2명은 완치가 되는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br/><br/>전문의들은 암환자나 가족들이 막연히 암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는 것보다 암검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기검진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br/>우선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의 경우 생존자들은 남은 위나 식도에서 새로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계암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대장내시경 검사를 일반적 권고사항보다 더 일찍, 더 자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br/>사망률이 높은 폐암 환자들은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 암 치료후 5년이 지나도 매년 저선량 흉부CT로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장기 흡연자였다면 흡연과 관련한 이차암(두경부암, 신장암, 방광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br/> 여성 대장암 생존자의 경우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주로 비만 및 여성 호르몬 관련 암이 증가할 수 있다. 체중이 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br/>자궁경부암 환자들은 자궁을 제거하고 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이 생길 위험이 크다. 이에 대비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가 두경부암 및 항문암도 일으킬 수 있다. <br/>전립선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인접 장기인 방광이나 직장에 암이 생길 수 있다. 정기적인 혈뇨 검사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br/>암환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정기검진과 암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암을 가진 환자가 직계가족 중에 있으면 해당 부위의 암이 발생할 확률은 암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인보다는 1.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는 “<span class='quot0'>암환자 가족은 유전적 성향뿐 아니라 생활습관도 암환자와 공유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것이 가족이 걸린 암뿐만 아니라 같은 위험요인을 가진 다른 암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 근본 이유</span>”라고 설명했다.<br/>가족 중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다면 가족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환자가 50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 직계가족의 대장암 발생률은 일반인의 4.3배, 유방암의 경우에는 3.0배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전체 암환자 중에 유전성 암에 해당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환자의 직계가족에서 동일한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생활습관이다. 혈연이 있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유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배우자들도 이러한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암 발생 확률이 약간 커진다고 한다. 유전성은 개인 스스로 바꿀 수 없어 조기진단에 의한 조기발견과 치료가 최선이다. 하지만 환경 및 생활습관 요인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만든 ‘암 예방 10계명’ 같은 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br/>하지만 암환자 가족들의 실제 암 예방 습관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신동욱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위암 직계가족 환자들의 40%만이 정기적인 위암 검진을 받고 있었다. 95%는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고, 85%는 식이섬유를 너무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br/>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 경험자와 가족의 암 검진 계획’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02)2072-2114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49.txt

제목: 강원래·김송 부부의 반려견 ‘똘똘이’ 암투병 중이라고…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010013190503  
본문: 강원래·김송 부부에게 요즘 걱정이 생겼다. ‘림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반려견 ‘똘똘이’ 때문이다. 2012년 11월 똘똘이에게 말기암 진단이 내려졌고, 앞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br/><br/>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강원래에게 말기암 판정을 받은 똘똘이의 상황은 큰 아픔이었다. 하지만 암 판정 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똘똘이는 여전히 부부 곁에 살아있어 ‘기적’이라는 선물을 강씨 부부에게 전해주고 있다.<br/><br/>보기에는 마냥 활발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똘똘이는 진통제 없이는 버티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다. 강씨 부부 역시 똘똘이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오래지 않음을 알고 있다. <br/><br/>이를 위해 강씨 부부는 ‘똘똘이 소원 성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똘똘이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강씨 부부와 반려견 똘똘이의 감동 사연은 오는 12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방송된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0.txt

제목: [여의열전](38) 최은경 서울아산병원 교수  
날짜: 20140110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0100000012  
본문: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은경 교수(56)는 ‘맞춤 암치료’ 설계의 권위자로 꼽힌다. 항암 신약 및 새로운 진단·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다.<br/>2010년 5월 최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정 항암 선도기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선정됐다. 이 센터는 국내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 및 벤처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항암제와 암 치료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 초기 단계에서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br/>그는 2012년 12월 국내 처음으로 암 환자 개개인의 종양 유전체를 분석해 최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했다. 여기서는 서울아산병원과 하버드대 의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암 맞춤의학 시스템을 이용해 한번의 검사로 동시에 약 500개의 암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를 분석, 특정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표적항암제를 치료 전에 결정해 준다. 최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br/><br/>의사가 된 지 30년 만에 암 정복을 향한 교육·연구·진료 분야에서 상한가를 올리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의학자로 도약한 것이다.<br/>“현재 세계 의료계는 개인별 암 유전자를 분석해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암을 치료하는 개인별 맞춤진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자 특성 및 상태에 따라 초정밀 맞춤 진단과 치료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한국형 유전체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최신 표적항암제 중 환자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른바 맞춤 암치료입니다.”<br/><br/>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997년 폐암의 정위적방사선수술을 시행했고, 2001년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를 도입했다. 국내 방사선종양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정위적방사선수술이란 3~4회의 짧은 기간에 매우 높은 양의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쬐어 종양을 없애는 치료법이다. <br/>최 교수가 주로 담당하는 초기 폐암의 경우 종양 제거율이 95% 이상으로 임상 성적이 우수하다. 그는 2005년 5월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폐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과학 신기술 개발 및 발명품’ 상을 받았다. 폐암 방사선치료 분야의 장비 및 시스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br/><br/>최 교수는 198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1987년 방사선종양학 전문의가 됐다. 을지대병원(87년)과 서울대병원(88년), 그리고 서울아산병원(89년)에서 전임의(펠로) 과정을 마치고 1990년에 서울아산병원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았다. 95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UCSF)으로 방사선생물학 연구 연수를 다녀왔다. 아산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서울아산병원 폐암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병원 연구기획관리실장,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암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외 주요 학회지에 논문 246편을 발표했다.<br/>“초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수이셨던 아버지가 위암으로 3년간 투병한 후 돌아가셨어요. 그때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의사 중에서도 반드시 암을 정복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에 불탔고요. 1984년 전공의 선택을 할 때 주저없이 방사선종양학과를 골랐죠. 당시 방사선종양학과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개척 분야로 꼽혔고, 방사선물리와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었습니다.”<br/><br/>최 교수는 부친이 경제학과 교수였고 현재 95세로 장수하고 있는 모친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다. 교육자 집안에서 4녀1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47세, 어머니가 40세에 낳은 늦둥이였다. <br/>1983년 12월 인턴 때 2살 위인 선배(정연태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호흡기내과)와 결혼해 1남1녀를 두었다. 85년생인 아들과 미국에 있는 88년생인 딸 모두 펀드매니저로 일한다. 결혼을 앞두고 함이 들어왔는데, 최 교수는 일을 마치고 오느라 함보다 늦게 집에 왔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장인 박성욱 교수가 함을 지고 왔다고 한다. <br/>둘다 개원의사였던 시부모는 암 정복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성원해 주었다.<br/>“<span class='quot0'>고교 평준화 1호로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신 고3 때 담임 송영재 선생님,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를 거쳐 현재까지 남녀 차별없이 믿고 이끌어주신 박찬일 교수님(서울대 의대 방사선종양학과·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등 역임), 그리고 박사학위를 위해 1년 동안 실험과 인생에 많은 깨우침을 주신 하성환 교수님(서울대 의대 방사선종양학과) 등 저의 오늘이 있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span>”<br/>그의 좌우명은 ‘좋은 의사가 되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다. 자신에게는 원칙대로, 남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심장내과)은 “<span class='quot1'>최은경 교수는 암 환자의 증상에 따른 맞춤형 방사선치료는 물론,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유전자 맞춤 암치료’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span>”라고 칭찬했다.<br/><br/>■ 최은경 교수가 말하는 ‘맞춤 암치료와 방사선치료’<br/>암 치료는 전통적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세가지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치료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병합치료를 도입하면서 치료 성적이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저항성이 있는 암종이나 환자에 대한 치료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br/>암은 유전자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동일한 암으로 진단받더라도 환자마다 유전자변이의 차이에 따라 실제 종양의 성질은 다를 수 있다. <br/>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은경 교수는 “<span class='quot2'>동일한 유형의 암종이라고 하더라도 암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느릴 수도 있고, 치료 반응에 차이가 나며, 같은 환자에서도 치료단계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이 암의 특징</span>”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암은 매우 변화무쌍하다는 얘기다.<br/>최근 다양한 암 유전자변이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표적으로 하는 여러 분자표적치료제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기존 치료에 저항성을 갖는 환자에게 새로운 약제나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셈이다.<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2'>맞춤 암치료는 이런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알기 위하여 환자로부터 얻은 종양조직의 유전자변이를 분석한 뒤 확인된 유전자변이에 대한 최적의 분자표적치료제를 찾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방사선치료는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종양을 소멸시키는 다양한 치료법이 나왔다. 좋은 결과를 통해 다양한 장기에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2'>국내에서도 암 환자 절반 이상이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다</span>”고 밝혔다.<br/>방사선치료도 환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사선치료를 도입하여 환자마다 방사선 조사(照射) 영역, 조사량, 방사선 조사법에 차이를 두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치료효과는 극대화, 부작용은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2'>변화무쌍한 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맞춤 암치료는 필수적이며, 맞춤형 방사선치료 도입으로 방사선종양학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1.txt

제목: 여수서 이틀동안 6명 자살·변자체 발견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1010013189246  
본문: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 9일과 10일 남녘의 중소도시 전남 여수에서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진채 발견됐다.<br/><br/>1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4분쯤 여수시 국동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모씨(32)가 담장 구조물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모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span class='quot0'>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span>”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br/><br/>지난 9일 9시 25분쯤에는 신덕동 인근 야산에서 경남 양산시에 주소를 둔 최모씨(27)가 여자친구에게 “죽고 싶다”는 문자를 남긴 뒤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워놓은 상태로 숨졌다.<br/><br/>이날 오후 5시쯤에는 여서동 모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조모씨(47)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했다. 조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았고, 지난 7일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또 오후 5시 40분쯤에는 신월동 김모씨(43)가 세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10여일 전부터 집을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br/><br/>경찰은 집안에 소주병들이 흩어져 있고, 옷을 입지 않은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으로 미뤄 김 씨가 강 추위에 난방기를 켜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잠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10분쯤에는 오림동의 한 텃밭에서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 할머니(82)가 숨진 채 발견됐다.<br/><br/>이어 오후 10시 30분쯤에는 화양면 이모씨(77)가 자기집 창고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2년 전 암 진단을 받은 뒤 매우 힘들어 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원인을 수사중이다.<br/><br/>여수경찰서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병이 있거나 마음이 상한 일부 주민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span>”고 말했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2.txt

제목: 한국 1세대 발레리노 이상만씨 별세  
날짜: 2014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910013176796  
본문: 한국 1세대 발레리노 이상만 씨가 지난 8일 오후 10시37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br/><br/>고인이 이끌던 ‘리(LEE)발레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 투병 중이던 선생님이 무균실에 계시다 엊그제부터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하셨다</span>”고 전했다.<br/><br/>1948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라벌예대 작곡과에 진학했다 무용의 매력에 빠져 한양대 무용학과로 옮겼고, 이후 한양대에서 국내 발레리노로는 최초로 무용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1970년 임성남발레단에 입단했다가 이후 국립발레단 창단 단원으로 무대에 올라 주역무용수가 됐다. <br/><br/><br/><br/><br/><br/>1977년에는 미국 유학길에 올라 ‘내셔널 발레 일리노이’(National Ballet Illinois)에 입단해 국립발레단 남성 무용수로는 처음으로 외국 발레단에 진출했다. 이후 미국 내 여러 발레단에서 활동하다 한국적 발레를 선보이겠다며 1985년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성을 딴 리발레단을 창단해 1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연을 펼쳤다.<br/><br/>‘메밀꽃 필 무렵’, ‘무녀도’, ‘금시조’, ‘김삿갓’ 등 매년 한 편씩 창작발레를 무대에 올렸고, 1995년 영구 귀국한 이후에도 꾸준히 무대에 올랐다.림프암으로 투병 중이던 지난해 12월 26~27일에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창작발레 ‘무상’(Vanity)을 무대에 올렸다.<br/><br/>유족으로는 부인 이영희 씨와 아들 은호·수현 씨, 딸 영란 씨 등 2남 1녀가 있다.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은 10일 오전 9시30분. ☎031-787-1509.<br/><br/><여론독자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3.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4년 1월 8일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8100000005  
본문: 암 치료 이후 건강 유지 비결<br/>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암 치료 이후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홍헌표씨는 평소 고기를 즐겨먹고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만성피로를 호소하다 6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대장암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결정적 원인이다. 홍씨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등 생활습관을 바꿨다.<br/><br/>무예 실력 갈고닦는 남매<br/>내 마음의 크레파스(SBS 오후 5시35분) = 경남 통영에는 무예 실력이 뛰어난 남매, 11살 누나 승희와 9살 동생 승안이가 있다. 남매는 무예관을 운영하는 아빠 밑에서 어릴 적부터 실력을 갈고닦았다. 승희는 꾸준한 연습으로 지금의 실력을 갖게 됐고, 동생 승안이는 게으름을 자주 피우지만 타고난 재능으로 새로운 동작을 척척 소화한다. 아빠는 그런 승안이에게 새로운 기술 ‘비틀기’를 완성하라고 제안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4.txt

제목: [정희진의 낯선 사이]변호인, 강인한 희생자  
날짜: 20140108  
기자: 정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8100000011  
본문: 승려들의 분신처럼 종교인의 자살은 순교와 구별하기 어렵다. 탄압받는 정치지도자의 자살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자살은 열사의 저항으로만 간주된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인 나약함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 <박쥐>의 유명한 대사, 가톨릭 신부인 주인공 상현(송강호)의 기도는 그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기도문에는 개인의 우울과 신앙인의 헌신이 혼재되어 있다.<br/>“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이 썩어가는 나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와 같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두 뺨을 떼어내어 그 위로 눈물이 흐를 수 없도록 하시고… 손톱과 발톱을 뽑아내어 아주 작은 것도 움켜쥘 수 없고… 머리에 종양이 든 환자처럼 올바른 지력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순결에 바쳐진 부분을 능욕하여 어떤 자부심도 갖지 못하게 하시며 저를 치욕 속에 있게 하소서.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는 성서의 내용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쓴 작가와 감독의 창작이라고 한다.<br/>1970년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제정하라”가 아니다)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저항이지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살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약자의 투쟁 방식이다. 결국 ‘적’의 몸은 그대로이고 저항한 사람은 열사가 되면서 삶에서는 사라진다. ‘못된 강자’는 실익을, ‘선한 약자’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 지배가 작동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다. 통치세력은 망각과 비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br/>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는 단행본 기획이 있었다. 나도 원고를 청탁받았다. 나는 노 전 대통령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의 자살과 우울증에 대해 쓰고 싶었지만 당시만 해도 주변의 만류에다 자기 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나는 결국 포기했다.<br/>“<span class='quot0'>대통령은 자살해서는 안되는 사람</span>”이라는 내 아버지 말처럼, 자살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나약한 사람의 도피’라는 통념은 ‘가해세력’이 고인을 공격하는 최대 무기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되물었다. “대통령은 교통사고 당하면 안되나요? 대통령은 암에 걸리면 안되나요? 우울증은 질병일 뿐이고 자살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죽는 것, 그냥 병사(病死)예요.” 나는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아버지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br/>나는 영화 <변호인>을 보지 않았다. 보기 싫었다. 친구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꽃미남’ 배우가 맡은 역할이 맘에 안 들어서”라고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前)정권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였다.<br/>그의 죽음은 완벽한 타살이다. 그러나 이 타살의 형식은 복잡하다. 정신과 의사 등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죽음을 사회적 억압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이라고 본다. 그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반사회적이거나 극도의 후안무치가 아니라면, 아프고 통증에 시달리는 것이 정상적인 몸의 반응이다. 진짜 문제는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편견이지 그의 행위가 아니다.<br/>심리학의 상식에서 스트레스 척도는 그 자체의 강도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내성(耐性)에 의해 좌우된다. 이 논리는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과 역량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개인이 정치인, 그것도 어떤 가치나 캐릭터를 상징하는 정치지도자일 경우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울증의 원인과 증세는 다양하지만,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들이닥친 고도로 지능적인 정치적 의도에 의해 강제로 ‘질병을 주입당했고’ 그의 증상은 ‘미래의 불행에 대한 확신’이었다.<br/>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것이 그를 살해한 우리 사회 일부 집단이 강조하는 바고, 지금 ‘우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나는 그를 강인한 지도자로만 간직하고 싶은 민초들의 강자 지향 심리를 ‘그들’이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열정적인 변호인이었던 그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개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공모하는 셈이 된다.<br/>보수세력은 그가 나약해서 자살했다고 약자 혐오를 정당화했고, 진보진영은 정권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나약함으로서의 저항’을 주장한다. 그것이, 재임 당시 공과와 별개로, 그가 추구했던 약자에 대한 애정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강인한 지도자라는 사실과 우울증이라는 질병의 희생자라는 사건이 왜 양립하면 안되는가?<br/>개인적 자살과 정치적 열사(烈死), 영웅과 피해자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구별되어서도 안된다. 그 경계를 인식하고 허무는 것이, 정의롭고 치열한 승부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고통을 안겨준 그를 영원히 기억하는 방식이 아닐까.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5.txt

제목: 노인 치매환자 53만여명으로 급증… 전문병원은 7개뿐  
날짜: 20140108  
기자: 허남설,조형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8100000115  
본문: “<span class='quot0'>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span>”<br/>3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남편(72)을 돌보는 박종영씨(69)는 7일 “<span class='quot1'>한 달 150만원이 드는 요양병원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을 앓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다른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span>”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span class='quot2'> ‘남편이 얼른 좋은 곳으로 떠났으면’이란 생각을 할 정도</span>”라고 말했다. <br/>치매를 앓는 남편(78)을 10년째 돌보고 있는 서영란씨(72)는 “<span class='quot3'>남편에게 ‘80세까지만 살아’라고 말하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남편을 돌보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압이 높아져 망막이 떨어지기도 했다</span>”고 말했다.<br/>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는 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2008~201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4% 증가하는 동안, 노인 치매환자는 42만1000명에서 53만4000명으로 26.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br/>2025년에는 노인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뇌혈관, 심혈관, 당뇨, 고혈압, 관절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가족들의 고통도 크다. 2008년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는 치매환자 보호자 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5.2%가 “<span class='quot4'>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정신적 부담이 가장 고통스럽다</span>”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우울감과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젠가는 환자의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45%에 이르렀다.<br/>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9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보면 정부 발표 공립요양병원은 2013년 기준 71군데인데, 이 중 ‘치매전문병원’은 7군데에 불과했다.<br/>국비나 자치단체 예산으로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낼 예정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span class='quot5'>국내에는 암환자보다 치매환자가 많음에도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5'>환자나 가족들의 고충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6.txt

제목: 노인 치매환자 53만여명으로 급증… 전문병원은 7개뿐  
날짜: 2014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710013161897  
본문: “<span class='quot0'>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span>”<br/><br/>3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남편(72)을 돌보는 박종영씨(69)는 7일 “<span class='quot1'>한 달 150만원이 드는 요양병원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을 앓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다른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span>”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span class='quot2'> ‘남편이 얼른 좋은 곳으로 떠났으면’이란 생각을 할 정도</span>”라고 말했다. <br/><br/>치매를 앓는 남편(78)을 10년째 돌보고 있는 서영란씨(72)는 “<span class='quot3'>남편에게 ‘80세까지만 살아’라고 말하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남편을 돌보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압이 높아져 망막이 떨어지기도 했다</span>”고 말했다.<br/><br/>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는 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2008~201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4% 증가하는 동안, 노인 치매환자는 42만1000명에서 53만4000명으로 26.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br/><br/>2025년에는 노인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뇌혈관, 심혈관, 당뇨, 고혈압, 관절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br/>가족들의 고통도 크다. 2008년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는 치매환자 보호자 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5.2%가 “<span class='quot4'>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정신적 부담이 가장 고통스럽다</span>”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우울감과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젠가는 환자의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45%에 이르렀다.<br/><br/>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9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보면 정부 발표 공립요양병원은 2013년 기준 71군데인데, 이 중 ‘치매전문병원’은 7군데에 불과했다.<br/><br/>국비나 자치단체 예산으로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낼 예정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span class='quot5'>국내에는 암환자보다 치매환자가 많음에도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5'>환자나 가족들의 고충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span>”고 밝혔다.<br/><br/><허남설·조형국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7.txt

제목: [아침을 열며]한국만 늘어나는 ‘사회적 타살’  
날짜: 20140106  
기자: 안호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6100000018  
본문: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유난히 많이 한다. 힘들거나 지칠 때, 기쁘고 웃길 때도 죽겠다고 한다. 노래 가사에도 ‘죽을 만큼 보고 싶다’란 구절이 등장한다. 물론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은 특히 자주 쓰는 것 같다.<br/>혹자는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정서 때문에 한국 사람은 죽겠다를 남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어령 선생은 “ ‘죽겠다’를 입에 달고 다니는 민족, 사는 것보다 죽을 것을 미리 생각하는 한국인이야말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철학적 민족이 아니겠는가?”라고 하기도 했다. 메멘토 모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라고 한다.<br/>‘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탓일까. 말끝마다 죽겠다를 달고 사는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자살 순위는 1993년 9위에서 2002년 7위로 뛰었고, 2004년 이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2011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3.3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가장 높다. <br/>눈여겨볼 만한 것은 OECD 회원국 중 유독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4.1명에 그쳤다. 당시 최고 자살률을 보인 국가는 헝가리(27.5명)였고 핀란드(20.4명), 일본(19.1명) 등도 자살률이 높은 국가였다. 한국은 2003년 이후 9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br/>한국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급증한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은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구조조정 허울을 씌워 수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신빈곤층’이 크게 늘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일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의 자살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회적 타살’이다.<br/>쌍용자동차 사태가 대표적이다. 쌍용차는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된 후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9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으로 2646명을 구조조정했다. 노조원들은 77일간 점거 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노동자 2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자살자는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br/>새해 처음 들은 자살 소식은 연말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했다가 숨진 이남종씨의 사연이었다. 이씨의 자살에 대해 빚이 많아 감당하기 어려웠다느니, 정권의 부정에 대해 항거했다는 등 말들이 구구하다. 왜 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이씨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br/>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하청업체 직원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노인 등도 그 대열에 동참했다. 시험 성적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과 쓸쓸함을 견디지 못하는 노인도 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아무리 헤매도 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이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자존감을 느낄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살을 택한다.<br/>며칠 전 서로 얼간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만났다. 한 친구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죽고 싶다’고 신세타령을 했다. 꽤 오래전부터 아내와 별거상태로 지냈는데 최근 아내가 두 아이와 함께 이사를 했고,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운영했던 조그만 사무실에서도 월세를 못내 쫓겨났고, 팔순 노모 집에 얹혀살고 있다고 했다.<br/>아무리 얼간이들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세상은 아직 살 만하다고 위로하는가 하면,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녀석도 있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 녀석은 “장가가서 이별까지 했으니 나보다 훨씬 낫다”고 자조하듯 위로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친구는 적어도 죽겠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br/>지난달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span class='quot0'>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루속히 파업을 수습하겠다</span>”고 했는데, 이튿날 파업자를 직위해제하는 강수를 썼다. 직위해제 할 때는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아동학대’ 계모를 떠올리게 했다.<br/>철도파업은 22일 만에 끝났지만 철도공사는 노조 간부 등 490여명을 중징계하고, 15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br/>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이 감싸안고 보듬지 못해 극단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다. 국가가 방치한 책임이 크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8.txt

제목: [책과 삶]밀가루의 반죽이 원숙해지듯 성숙해지는 가족에 대한 성찰  
날짜: 2014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4100000007  
본문: ▲국수…김숨 지음 | 창비 | 372쪽 | 1만2000원<br/>“그래요, 지금은 반죽의 시간입니다. 분분 흩날리는 밀가루에 물을 한모금 두어모금 서너모금 부어가면서 개어 한덩어리로 뭉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르튼 발뒤꿈치 같을 덩어리가 밀크로션을 바른 아이의 얼굴처럼 매끈해질 때까지 이기고 치대야 하는 시간이지요. 여무지게 주물러야 하는…”(‘국수’)<br/><국수>는 지난해 대산문학상과 2012년 현대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김숨씨(40)의 네 번째 소설집이다. 표제작 ‘국수’와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그 밤의 경숙’ 등 단편 9편이 실려 있다.<br/><br/>1997년 등단한 작가는 그동안 강한 외부 압박을 받으면서 내면의 혼란을 겪는 인물들을 주로 그려왔다. 그 혼란을 사실성과 환상성이 결합된 견실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것이 이 작가의 특장이다. <br/>이번 소설집에 묶인 작품들은 기왕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족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br/>온기 넘치는 가족과는 거리가 멀다. 이 소설집에 등장하는 부부(‘막차’ ‘명당을 찾아서’ ‘그 밤의 경숙’), 며느리와 시아버지(‘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아버지와 아들(‘구덩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타인을 대하듯 서로를 불편하게 여긴다.<br/>‘막차’의 주인공 순옥은 며느리가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남편과 함께 5시간 거리의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있다. 손님이 넷밖에 타지 않은 버스에서 순옥은 남편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란 것이 죽음을 앞둔 며느리에 대한 집요한 불평의 연속이다. “<span class='quot0'>당신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처음 대면부터 그애가 어째 마음에 안 들었어요.</span>” 순옥은 큰 손녀가 태어난 지 석달 되던 무렵, 꼬박 사흘동안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고 내려오던 날 자신의 등 뒤에서 매몰차게 닫히던 현관문 소리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까운 차비 들여 올라가서는 그런 대접이나 받다니, 고작 그런 대접이나요. 시어머니를 오죽 우습고 만만히 봤으면.”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는 가져본 적 없이 자신의 입성에만 깔끔을 떠는 남편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이다. <br/>‘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의 주인공 영숙은 중풍으로 쓰러졌다 회복 중인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시아버지는 알 수 없는 노인이다. 노인은 임신 칠개월째인 영숙이 입덧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마다 오리뼈를 고아 먹는다. ‘구덩이’에서는 증오만 남아 있는 부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옥천으로 향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옥천 가는 날’에서 두 자매의 회상 속에 드러나는 가족이란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짐이기도 하다. <br/>‘국수’는 이 소설집의 작품들 중 가장 이채롭다. 1인칭 화자는 국수를 만들고 있다. 소설은 이 화자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죽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가면서 밀개로 밀 즈음, 내가 당신만큼 맥없이 늙어 있을 것만 같아요. 냉골 같던 남편이 죽고, 의붓자식들마저 다 떠나버린 집…. 이 집을 혼자 지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반죽의 시간을 가졌을까요?”<br/>화자가 공들여 반죽을 빚으며 국수를 만드는 것은 암에 걸려 혀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새어머니를 위해서다. 화자는 새어머니를 결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린 시절 잠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친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나타난 것이 ‘당신’으로 지칭되는 새어머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죽고 사남매도 모두 가정을 이뤄 떠난 집에서 ‘당신’은 혼자 살다 암에 걸렸다.<br/>화자는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밀개로 펴 국수가락을 만들고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국수에 얹을 양념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세심하게 묘사한다. 국수는 ‘당신’이 새엄마의 자격으로 화자의 집에 처음 나타났을 때 화자의 사남매에게 처음으로 해준 음식이다. 그 “소박하다 못해 궁상스럽기까지 한 국수”는 ‘당신’의 일생을 닮았다. ‘당신’은 오랜 세월 화자가 미워해온 대상이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신’을 호적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br/>소설은 새엄마를 위해 새엄마의 조리법 그대로 국수를 만드는 딸의 목소리를 통해 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의 삶에 대해 무한한 연민과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밀도 높게 묘사하고 있다.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신경숙씨의 ‘풍금이 있던 자리’를 연상하게 하는 이 소설은 김숨 소설 미학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59.txt

제목: [책과 삶]밀가루의 반죽이 원숙해지듯 성숙해지는 가족에 대한 성찰  
날짜: 2014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4100000107  
본문: ▲ 국수…김숨 지음 | 창비 | 372쪽 | 1만2000원<br/>“그래요, 지금은 반죽의 시간입니다. 분분 흩날리는 밀가루에 물을 한모금 두어모금 서너모금 부어가면서 개어 한덩어리로 뭉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르튼 발뒤꿈치 같을 덩어리가 밀크로션을 바른 아이의 얼굴처럼 매끈해질 때까지 이기고 치대야 하는 시간이지요. 여무지게 주물러야 하는…”(‘국수’)<br/><국수>는 지난해 대산문학상과 2012년 현대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김숨씨(40)의 네 번째 소설집이다. 표제작 ‘국수’와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그 밤의 경숙’ 등 단편 9편이 실려 있다.<br/>1997년 등단한 작가는 그동안 강한 외부 압박을 받으면서 내면의 혼란을 겪는 인물들을 주로 그려왔다. 그 혼란을 사실성과 환상성이 결합된 견실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것이 이 작가의 특장이다. <br/>이번 소설집에 묶인 작품들은 기왕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족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br/>온기 넘치는 가족과는 거리가 멀다. 이 소설집에 등장하는 부부(‘막차’ ‘명당을 찾아서’ ‘그 밤의 경숙’), 며느리와 시아버지(‘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아버지와 아들(‘구덩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타인을 대하듯 서로를 불편하게 여긴다.<br/>‘막차’의 주인공 순옥은 며느리가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남편과 함께 5시간 거리의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있다. 손님이 넷밖에 타지 않은 버스에서 순옥은 남편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란 것이 죽음을 앞둔 며느리에 대한 집요한 불평의 연속이다. “<span class='quot0'>당신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처음 대면부터 그애가 어째 마음에 안 들었어요.</span>” 순옥은 큰 손녀가 태어난 지 석달 되던 무렵, 꼬박 사흘동안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고 내려오던 날 자신의 등 뒤에서 매몰차게 닫히던 현관문 소리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까운 차비 들여 올라가서는 그런 대접이나 받다니, 고작 그런 대접이나요. 시어머니를 오죽 우습고 만만히 봤으면.”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는 가져본 적 없이 자신의 입성에만 깔끔을 떠는 남편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이다. <br/><br/>‘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의 주인공 영숙은 중풍으로 쓰러졌다 회복 중인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시아버지는 알 수 없는 노인이다. 노인은 임신 칠개월째인 영숙이 입덧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마다 오리뼈를 고아 먹는다. ‘구덩이’에서는 증오만 남아 있는 부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옥천으로 향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옥천 가는 날’에서 두 자매의 회상 속에 드러나는 가족이란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짐이기도 하다. <br/>‘국수’는 이 소설집의 작품들 중 가장 이채롭다. 1인칭 화자는 국수를 만들고 있다. 소설은 이 화자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죽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가면서 밀개로 밀 즈음, 내가 당신만큼 맥없이 늙어 있을 것만 같아요. 냉골 같던 남편이 죽고, 의붓자식들마저 다 떠나버린 집…. 이 집을 혼자 지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반죽의 시간을 가졌을까요?”<br/>화자가 공들여 반죽을 빚으며 국수를 만드는 것은 암에 걸려 혀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새어머니를 위해서다. 화자는 새어머니를 결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린 시절 잠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친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나타난 것이 ‘당신’으로 지칭되는 새어머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죽고 사남매도 모두 가정을 이뤄 떠난 집에서 ‘당신’은 혼자 살다 암에 걸렸다.<br/>화자는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밀개로 펴 국수가락을 만들고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국수에 얹을 양념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세심하게 묘사한다. 국수는 ‘당신’이 새엄마의 자격으로 화자의 집에 처음 나타났을 때 화자의 사남매에게 처음으로 해준 음식이다. 그 “소박하다 못해 궁상스럽기까지 한 국수”는 ‘당신’의 일생을 닮았다. ‘당신’은 오랜 세월 화자가 미워해온 대상이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신’을 호적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br/>소설은 새엄마를 위해 새엄마의 조리법 그대로 국수를 만드는 딸의 목소리를 통해 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의 삶에 대해 무한한 연민과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밀도 높게 묘사하고 있다.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신경숙씨의 ‘풍금이 있던 자리’를 연상하게 하는 이 소설은 김숨 소설 미학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60.txt

제목: [책과 삶]밀가루의 반죽이 원숙해지듯 성숙해지는 가족에 대한 성찰  
날짜: 2014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310013134768  
본문: <b>▲ 국수…김숨 지음 | 창비 | 372쪽 | 1만2000원</b><br/><br/>“그래요, 지금은 반죽의 시간입니다. 분분 흩날리는 밀가루에 물을 한모금 두어모금 서너모금 부어가면서 개어 한덩어리로 뭉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르튼 발뒤꿈치 같을 덩어리가 밀크로션을 바른 아이의 얼굴처럼 매끈해질 때까지 이기고 치대야 하는 시간이지요. 여무지게 주물러야 하는…”(‘국수’)<br/><br/><국수>는 지난해 대산문학상과 2012년 현대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김숨씨(40)의 네 번째 소설집이다. 표제작 ‘국수’와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그 밤의 경숙’ 등 단편 9편이 실려 있다.<br/><br/>1997년 등단한 작가는 그동안 강한 외부 압박을 받으면서 내면의 혼란을 겪는 인물들을 주로 그려왔다. 그 혼란을 사실성과 환상성이 결합된 견실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것이 이 작가의 특장이다. <br/><br/>이번 소설집에 묶인 작품들은 기왕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족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br/><br/>온기 넘치는 가족과는 거리가 멀다. 이 소설집에 등장하는 부부(‘막차’ ‘명당을 찾아서’ ‘그 밤의 경숙’), 며느리와 시아버지(‘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아버지와 아들(‘구덩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타인을 대하듯 서로를 불편하게 여긴다.<br/><br/>‘막차’의 주인공 순옥은 며느리가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남편과 함께 5시간 거리의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있다. 손님이 넷밖에 타지 않은 버스에서 순옥은 남편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란 것이 죽음을 앞둔 며느리에 대한 집요한 불평의 연속이다. “<span class='quot0'>당신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처음 대면부터 그애가 어째 마음에 안 들었어요.</span>” 순옥은 큰 손녀가 태어난 지 석달 되던 무렵, 꼬박 사흘동안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고 내려오던 날 자신의 등 뒤에서 매몰차게 닫히던 현관문 소리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까운 차비 들여 올라가서는 그런 대접이나 받다니, 고작 그런 대접이나요. 시어머니를 오죽 우습고 만만히 봤으면.”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는 가져본 적 없이 자신의 입성에만 깔끔을 떠는 남편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이다. <br/><br/><br/>‘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의 주인공 영숙은 중풍으로 쓰러졌다 회복 중인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시아버지는 알 수 없는 노인이다. 노인은 임신 칠개월째인 영숙이 입덧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마다 오리뼈를 고아 먹는다. ‘구덩이’에서는 증오만 남아 있는 부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옥천으로 향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옥천 가는 날’에서 두 자매의 회상 속에 드러나는 가족이란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짐이기도 하다. <br/><br/>‘국수’는 이 소설집의 작품들 중 가장 이채롭다. 1인칭 화자는 국수를 만들고 있다. 소설은 이 화자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죽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가면서 밀개로 밀 즈음, 내가 당신만큼 맥없이 늙어 있을 것만 같아요. 냉골 같던 남편이 죽고, 의붓자식들마저 다 떠나버린 집…. 이 집을 혼자 지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반죽의 시간을 가졌을까요?”<br/><br/>화자가 공들여 반죽을 빚으며 국수를 만드는 것은 암에 걸려 혀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새어머니를 위해서다. 화자는 새어머니를 결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린 시절 잠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친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나타난 것이 ‘당신’으로 지칭되는 새어머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죽고 사남매도 모두 가정을 이뤄 떠난 집에서 ‘당신’은 혼자 살다 암에 걸렸다.<br/><br/>화자는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밀개로 펴 국수가락을 만들고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국수에 얹을 양념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세심하게 묘사한다. 국수는 ‘당신’이 새엄마의 자격으로 화자의 집에 처음 나타났을 때 화자의 사남매에게 처음으로 해준 음식이다. 그 “소박하다 못해 궁상스럽기까지 한 국수”는 ‘당신’의 일생을 닮았다. ‘당신’은 오랜 세월 화자가 미워해온 대상이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신’을 호적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br/><br/>소설은 새엄마를 위해 새엄마의 조리법 그대로 국수를 만드는 딸의 목소리를 통해 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의 삶에 대해 무한한 연민과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밀도 높게 묘사하고 있다.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신경숙씨의 ‘풍금이 있던 자리’를 연상하게 하는 이 소설은 김숨 소설 미학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듯하다.<br/><br/><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61.txt

제목: 알고 나면 이미 늦다…조용한 살인자, 난소암  
날짜: 2014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1100000049  
본문: 난소암은 보통 ‘조용한 살인자’ 혹은 ‘침묵의 암살자’로 불린다.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고, 대부분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가 힘들고 재발도 잦아 생존율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소리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 난소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br/><br/>최근 들어 국내 난소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1천5백~2천 명 정도의 여성에게서 새로 발견되고 있으며, 이중 75%는 최초 진단시 이미 3기 이상의 진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소암은 주로 폐경기 전후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0년 사이 20, 30대의 발병률이 부쩍 높아져 전체 수술 환자의 1/3 수준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의 발생 위험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r/><br/>주목해야 할 것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40%가 채 안 될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췌장암, 폐암, 담도암, 간암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고 여성암 중에서는 가장 낮다. 주로 3, 4기 상태에서 발견되는데다 진행 속도가 빠르며, 재발이 잦고 항암제 내성이 잘 생겨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br/><br/>특별한 자각증상 없어 더욱 위험한 암<br/>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에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난소암이라 한다.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붙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장기로, 난자를 성숙시키고 배출하는 일과 여성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여성다움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br/><br/>난소암은 크게 상피성과 비상피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난소 표면 상피세포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상피성난소암으로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난소암이라고 하면 상피성난소암을 말한다.<br/><br/>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의 고환과는 달리 여성의 난소는 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난소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처음에는 본인이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혈로 병원을 찾게 되는 자궁암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또 증상이라 해도 몸이 무겁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불편하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지는 등 특징적이지 않은 애매한 경우들이 많다. 이후 점차 암이 진행될수록 배 속에 물이 차고 배가 불러오며 커진 종양이 주변 장기를 누름으로 인한 압박감과 통증, 골반통, 오심, 구토, 빈뇨 등이 생긴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궁 출혈이나 호흡곤란을 겪기도 한다. 많은 환자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진단이 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고 예후가 나쁜 것이다.<br/><br/>배란 횟수, 가족력 등과 밀접한 관련<br/>바이러스가 확실한 원인으로 밝혀진 자궁암에 비해 난소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된 것이 없다. 다만 발병된 환자들의 특징을 파악해 ‘고위험군’을 분류해봤을 때 고령의 여성, 북미·북유럽 및 유대 민족,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을 30세 이후에 늦게 한 여성, 초경이 12세 이전으로 빠른 여성 등이 해당된다. 또 폐경 후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으로 호르몬 치료를 한 경우, 원인 불명의 불임증이 있는 경우 역시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한다.<br/><br/>가족력 혹은 유전적 요인도 난소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나 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이 난소암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 중 난소암 환자가 많을수록 그 확률은 더 높아진다.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BRCA1, BRCA2)를 지닌 여성이나 유전성 대장암(HNPCC) 가족력이 있는 여성의 난소암 발생 확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난소암은 흔히 ‘선진국형 부인암’으로 통용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산업화된 나라일수록 발생률이 높다. 서구형 생활습관이나 식생활 등이 난소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점차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는 등 여성들의 생애 배란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최근 젊은 연령대에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서구화된 환경에 노출된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br/><br/>반면 모유 수유를 한 여성, 5년 이상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 자궁절제술이나 난관결찰술을 받은 여성에게서는 난소암의 발병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발생 위험성도 줄어드는데, 한 명이라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30~40% 낮아진다고 알려졌다.<br/><br/>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최선<br/>현재 사용되고 있는 난소암의 표준 치료 방법은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이다. 개복수술을 통해 모든 암 병소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남아 있는 암세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은 항암주사를 투여해 완전히 없애게 된다. 다만, 아주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항암치료를 생략하고 정밀 추적만 시행하기도 한다.<br/><br/>수술을 통해 최종 진단이 가능한 난소암은 치료 또한 수술로 종양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암에 비해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는지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인종양학을 전공한 전문의와 전문 기관을 찾아 정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br/><br/>난소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확실한 예방법은 없지만, 발생 위험을 높이는 ‘고위험군’에 들지 않도록 생활을 관리하고 가능한 한 배란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지방 섭취 및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경계하고 채소와 과일 등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된다. 야근 등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에 항염증·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난소암 뿐 아니라 대장암 등 다른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꼭 실천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모든 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최선이다. 난소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80~90%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완치율은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 검진과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br/><br/>Mini Interview 주웅(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br/>난소암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또 자궁경부암 등 다른 여성 암 검진을 통해 난소암을 발견할 수도 있는지요?<br/>임상적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 등의 영상 장비를 통한 결과로는 대부분 구분이 되지만 수술실에서 직접 보기 전까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으로 전이가 진행돼 대장암의 난소 전이인지 혹은 난소암의 대장 전이인지를 알 수 없어 조직검사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해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그 검사만으로는 난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난소암은 세포진검사 같은 간단한 진단법으로는 발견이 어렵고, 초음파검사로 난소의 물혹이나 종양 여부를 살핀 뒤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br/><br/>임신과 출산을 많이 할수록, 또 모유 수유를 한 여성일수록 발병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br/>난소암의 발병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배란 횟수 연관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란을 많이 한 사람은 난소암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매달 한 번씩 배란이 일어날 때마다 생기는 난소 상피의 미세 파열이 거듭될수록 유전자 돌연변이와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임신 기간 10개월 동안과 모유 수유 기간에는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임약 복용이 위험도를 낮춘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br/><br/>가족력과는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나요?<br/>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유전이 되는 것이지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어도 난소암 환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발생할 때 가족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혈연관계에 있는 여성 2명 이상에게서 난소암이 나타났다면 일반인보다 검진 간격을 짧게 잡고 면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br/>세계적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에 따른 암 예방을 목적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암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방절제술이 효과적인지요?<br/><br/>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안젤리나 졸리 본인이 직접 기고한 바대로 유전성 유방암의 공포를 잊을 수 있게 됩니다. 유방암은 유방 조직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그 조직을 없애서 아예 암이 생길 근거를 없애버린 것이죠. 난소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유전성난소암 가족이라면 난소 절제가 한 가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br/><br/>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은 얼마나 되나요?<br/>난소암은 유방암과 연관이 많습니다. BRCA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 유방암과 난소암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난소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이 유방암 재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난소를 제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br/><br/>최근 난소 노화를 앞당기는 환경적 요인이 늘어나 걱정입니다. 난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br/>난소는 특별성을 지닌 여성의 생식 장기입니다. 계속해서 재생되는 다른 조직세포와 달리 꾸준히 퇴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장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전인 50대 정도가 되면 난소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또 난소의 노화는 시작도 빨라서 35세 이상이면 난자의 질이 저하되고 보유하는 수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35세가 넘으면 임신 가능성이 떨어지고 출산시 염색체 이상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난소 건강은 물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 식이요법, 운동, 생활습관 조절 등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62.txt

제목: .  
날짜: 2014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1100000061  
본문: BOOK<br/>Hot<br/>낭비 없는 삶<br/>정신과 전문의로 조화로운 삶을 사는 지혜에 관한 저술 활동을 해온 저자는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자 생활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span class='quot0'>불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버리고 있습니까?</span>”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리정돈 습관이야말로 생활과 인생을 바꾸는 전력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바로 묵은 때와 상처,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를 버리고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낭비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소유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이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br/>호사카 다카시 / 중앙북스<br/><br/>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br/>20년간 1백50명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본 결과 ‘암은 치료하지 말고 방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서 화제를 모았던 현직 전문의 곤도 마코토의 신간. 정밀 검사를 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되지만, 이는 암이 아닌 암과 비슷한 것으로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 지금껏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의학 정보를 뒤집는 의견이 신선하다. 곤도 마코토 / 더난출판사<br/><br/>마녀<br/>인기 만화가 강풀의 2013년 작 「마녀」가 출간됐다. 2002년 데뷔 이후 선보인 순정만화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이야기로 꼽히는 이 작품은 미스터리,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한 여자를 향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을 치밀한 구조에 담아냈다. ‘나 그녀에게 간다’라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로 알려진 동진의 실종 소식으로 시작되는 전 4권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br/>강풀 / 재미주의<br/><br/>행복한 밥상<br/>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식품 정보의 이면과 식품업체의 마케팅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 화제를 모았던 SBS-TV ‘행복한 밥상’을 책으로 재구성했다. 먹을거리에 대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주부라면 꼼꼼히 읽어봐도 좋겠다. 유기농, 친환경, 무공해 외에도 MSG, 카제인나트륨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장보기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br/>박지현 외 / 이지북<br/><br/>노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br/>노후 대비라고 하면, 재테크부터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서민들이 목표로 삼는 10억원이 미래에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2명의 금융 전문가가 “<span class='quot1'>돈 걱정 없는 노후는 절대 금융 상품 한두 개로 해결되지 않는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자식을 버려라, 퇴직 후 웬만하면 창업하지 마라</span>” 등 매서운 조언을 쏟아낸다. 각종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법, 세대별 노후 대비 전략도 함께 실었다.<br/>백정선·김의수 / 덴스토리<br/><br/>남자를 위하여<br/>‘남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각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저자의 글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된다. 남자의 관계 맺기, 남자의 열정 사용법, 남자의 위험한 감정 등 각 파트별 제목을 ‘남편’이나 ‘김 부장’으로 바꾸면 훨씬 눈에 쏙쏙 들어올 것이다. 대표 심리 에세이스트로 손꼽히는 김형경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따뜻한 조언이 내 주변의 남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br/>김형경 / 창비<br/><br/>너울너울 신바닥이<br/>민담, 설화, 신화 등 사라져가는 구비문학에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흔 교수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책을 냈다. 어느 날 귀하디귀한 삼대독자에게 길 가던 스님이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라고 말한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스님을 따라나선 아이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빠지는데…. 어려서 한 번쯤 들었음직한 옛날이야기를 화려하고 정감 있는 그림과 함께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는 책이다.<br/>신동흔 글, 홍지혜 그림 / 한솔수북<br/><br/>초등 책 읽기의 힘<br/>6백여 차례 이상의 초등 교육 강연을 통해 스펙의 시대가 가고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왔다고 강조한 저자가 펴낸 엄마의 독서교육 가이드북. 초등 독서력이 중요한 이유와 선진국의 독서교육 현황에서부터 아이의 현재 독서습관을 돌아보고 엄마가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꼼꼼하게 짚어냈다. 아이에게 맞는 단계별 독서 전략과 독서교육 특강에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담은 부록이 특히 유용할 듯하다.<br/>박성철 / 추수밭<br/><br/>어린이 근력 트레이닝<br/>가뜩이나 운동량이 부족한 아이가 추위를 핑계로 꼼짝도 안 한다면, 집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 트레이닝을 제안해보자. 신체운동과학자이자 근육생리학자인 저자는 근력을 키우면 뼈 성장이 촉진되고 운동신경과 지구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신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근력운동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저자의 말대로 두뇌 활동까지 활발해져 창의력, 집중력 등이 향상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br/>이시이 나오카타 / 전나무숲<br/><br/>셈을 해볼까?<br/>초등 수학 교과서에 스토리텔링 개념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의 수학 선진화 방안에 적합한 유아 수학책이 나왔다. 공식 외우기와 문제 풀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의 힘을 기르는 데 주력하는 프랑스 통합 유아 수학의 장점을 접할 수 있는 책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와 연산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가이드가 담겼다.<br/>마리 베롱도 아그렐 글, 니콜라 구니 그림 / 아름다운사람들<br/><br/>큰소리 내지 않고<br/>우아하게 아들 키우기<br/>“<span class='quot2'>딸은 키우기가 편하다면서요?</span>”라고 묻는 엄마들은 백발백중 아들 녀석을 키우는 것을 힘에 부쳐하는 케이스다. 교육 전문가 저자가 제안하는 아들 키우기의 출발점은 ‘아들도 남자’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비법을 알려주는 양육서가 아니라 아들들이 갖는 보편적인 기질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들을 키우는 올바른 양육법을 조언하는 내용이다.<br/>임영주 / 노란우산<br/><br/>Hot<br/>스포츠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br/>크로아티아에서 전해진 김연아의 금메달 소식이 전국민을 즐겁게 했다. 김연아와 같은 불세출의 스타를 탄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 사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체육 열풍에 대한 취재와 더불어 취미와 진로로서 스포츠에 대해 제대로 분석한 책 한 권이 나왔다. 스타 감독들이 짚어주는 스타의 성공 포인트부터 축구, 야구, 골프, 수영, 스케이트 등 각 종목별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교육 정보를 총망라했다.<br/>21세기교육연구회 / 테이크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63.txt

제목: 1월의 요리  
날짜: 2014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1100000055  
본문: talk Monthly Cooking<br/>손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보편화된 요즘, 제철 식재료가 잊혀가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다. 이러한 취지로 「레이디경향」에서는 매달 제철 식재료와 이를 활용한 요리를 소개한다.<br/><br/>이달의 식재료<br/>그린 푸드 매생이<br/>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로 예부터 남도에서는 아는 사람만 숨겨놓고 먹었다는 별미로 통한다.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서식하며 물이 잘 빠지고 깨끗한 곳에서만 자라는데, 12월에서 1월 사이에 최대로 성장하며 이때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됐으며 특히 철, 셀레늄, 칼슘 등이 다른 해조류에 비해 풍부하다. 그중 셀레늄은 인체 세포를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로 암이나 노화 현상 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 E보다 50배 이상 강력하다. 매생이를 고를 때는 두께가 가늘고 부드러우며 김이 섞이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조리할 때는 오래 끓이면 다 풀어지므로 살짝 익혀 먹는다. 또 유기산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무쳐 먹는 것은 피한다.<br/><br/>food recipe<br/>매생이 들깨탕<br/>재료<br/>매생이 250g, 굴 20개, 느타리버섯 5개, 표고버섯 2개, 들깨가루 2큰술, 들기름 1큰술, 국간장 1작은술, 다진 마늘·소금·녹말가루 약간씩, 멸치 국물(다시마 5×5cm 2장, 말린 표고버섯 1개, 양파 1/4개, 국물용 멸치 1컵, 보리새우 1/2컵, 물 1.5L) 5컵<br/>만들기<br/>1 멸치 국물 재료 중 양파는 껍질째 깨끗이 씻고 나머지 멸치 국물 재료와 함께 냄비에 넣어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중간 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인 뒤 불을 끄고 건더기를 모두 건진다. 2 볼에 매생이를 담고 물을 부어 흔들어 씻은 뒤 젓가락으로 휘저어서 작게 뭉쳐 건진 다음 남은 매생이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주 고운체에 받쳐 건진다. 3 굴은 소금물에 흔들어 씻어 체에 밭쳐 물기를 뺀 뒤 녹말가루를 묻혀둔다. 4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은 깨끗이 손질해 느타리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찢고 표고버섯은 편썬다. 5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④의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 다진 마늘을 넣어 달달 볶은 뒤 버섯에 기름이 스며들면 ①의 멸치 국물을 부어 팔팔 끓인다. 6 ⑤의 냄비에 ③의 굴을 넣고 한소끔 끓인 뒤 ②의 매생이와 들깨가루를 넣고 국간장으로 간한다. 국물이 바르르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끄고 입맛에 따라 소금 간을 더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64.txt

제목: 가쁜 숨 쉬던 이라크 소녀 “이젠 맘껏 뛰놀 수 있겠죠”  
날짜: 20140101  
기자: 박은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1100000170  
본문: 심장병 앓던 ‘전쟁둥이’ 누르 <br/>건국대 병원 도움으로 수술<br/>“<span class='quot0'>아빠, 심장을 열었을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가버리는 건 아니겠죠?</span>”<br/>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지난 12월23일 환자복을 입은 열 살 소녀의 커다란 눈망울이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그럴 일은 없단다. 넌 틀림없이 건강해질 거야”라며 딸을 꼭 껴안았다. 부녀는 이라크에서 왔다. 수술이 진행되는 내내 아버지 알리 가니(47)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4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듣자 알리 가니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맺혔다. <br/>심장병을 앓던 이라크 소녀가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알 자이르 누르 알리 가니(10)는 지난 30일 건국대병원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다. 누르는 ‘전쟁둥이’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 이라크 남부 디카르주 나시리야에서 태어났다. 나시리야는 인구 300만명으로 이라크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였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소외받던 지역이었다. 교사인 알리 가니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전쟁이 터지자 물자는 더 부족해지고 친지와 이웃 중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었다. 마을에는 폭격 후유증으로 암이 퍼졌다. 이 때 태어난 아이가 ‘누르(빛)’다. 가족에겐 딸이 전쟁 중 찾아온 작은 희망이었다.<br/>“건강해졌다고 생각하니 <br/>새로운 세상에 온 느낌 <br/>나 한국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br/>누르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4살 때 알게 됐다. 동생들과 함께 집에서 뛰어놀던 누르가 갑자기 고열을 내며 쓰러졌다. 손톱과 입술이 모두 파랬다. 선천성 심장기형인 ‘팔로4징증’이었다.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혈관 입구가 지나치게 좁고, 심장 구조 이상으로 맑은 피와 탁한 피가 심장 내에서 뒤섞이는 증상이었다.<br/>의사는 “<span class='quot1'>이라크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span>”고 말할 뿐이었다. 의료기술이 미치지 못할뿐더러 전쟁으로 지역 병원이 거의 모두 파괴돼 통증을 완화시켜줄 약조차 타기 어려웠다. 남들처럼 뛰어노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학교 체육시간에도 앉아있는 것만이 살아남는 최선책이었다. 가끔씩 많이 아프면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br/>알리 가니는 “<span class='quot2'>처음에는 딸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가장 절망적이었다</span>”고 말했다. 알리 가니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의료지원을 해 주는 ‘한국·이라크 우호재단’을 알게 됐다. 재단은 누르의 가족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한국에서 수술시켜줄 것을 결정했다. 수술은 국내 어린이 심장 수술의 권위자인 건대병원 서동만 교수가 맡았다. 수술비와 치료비는 건대병원이 부담했다. <br/>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겨온 누르는 병원에서 끊임없이 웃는 아이로 통한다. 누르는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다”며 “나도 자라서 남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체육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 생각이다. 알리 가니는 “한국을 잊을 수 없을 거 같다. 잠시 머물렀지만 모든 걸 기억해두고 싶다”며 휴대전화에 틈틈이 사진을 담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2-1765.txt

제목: [신년 기획]문명,그 길을 묻다-세계 지성과의 대화(1) ‘총균쇠’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날짜: 20140101  
기자: 안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40101100000196  
본문: 2014년이 밝았다. 갑오년인 올해는 한반도가 역사적 격랑에 휩싸였던 120년 전의 갑오년에 비유되곤 한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 일본의 보수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의 반목이 더욱 심해지며 ‘유신’과 ‘종북’을 불러 싸움을 시킨다.<br/>사람들 사이에 놓인 선은 집단끼리 경계를 만들며 이젠 벽이 된 듯하다. 월드컵 붉은 티셔츠를 나눠 입던 우리들은 서로에게 보수와 진보라는 딱지를 붙였다. ‘민주화’라는 단어도 두 개의 뜻으로 달리 해석한다. 좋아하는 영화에 따라 편이 갈리고 밥상에도 함께 앉기 불편해졌다. 그 속에서 미래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은 우리 손을 떠나고 있다. 세계는 문명의 위기를 논하며 산업적 전환을 꾀하고 생태환경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br/>길게 멀리 보려 하지 않기에 걸린 덫이다.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린 인류가 지나온 긴 시간을 거울 삼아 지금 당장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멀리 보면, 엉켜진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의 해결 실마리도 잡힐 수 있다.<br/>우리의 현재를 비춰줄 안내자로 미국 UCLA 지리학과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를 찾았다. 그는 인류 탄생 이전부터 내려오는 수억년의 역사를 연구해온 학자다. 문명의 발생, 이동, 몰락을 세밀히 살펴온 세계적 지성이며 남은 생을 지구의 생명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어가는 데 쏟겠다고 선언한 활동가다.<br/><br/>다이아몬드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12월9일 LA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붉은 벨벳 재킷으로 격을 갖춘 노학자는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우리의 대담은 한 시간 동안 몰입의 깊이를 유지했다. 이 문명의 살길을 묻는 내게 그는 온 정성을 다해 답했다. <br/>안희경 = 선생께서는 2006년 <문명의 붕괴(Collapse)>를 출판하며 지구별은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구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단지 1000년뿐이다.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고요. 우리 현대문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br/>스티븐 호킹은<br/>1000년뿐이라 했지만<br/>우리 지구별은<br/>이제 시한폭탄<br/>다이아몬드 = 스티븐 호킹은 틀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에겐 1000년의 시간이 있지 않아요. 고작해야 50년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든지 망치든지 할 수 있는 시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별을 망쳐놓고 다른 행성을 찾아나선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살 만한 별이라면 분명 이 태양계 말고 다른 은하계일 텐데, 그 먼 별에 도달하려고 불가능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별을 망가뜨리지 않는 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br/>안 = 50년이라는 시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br/>다이아몬드 =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50년 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선을 참 좋아하죠? 안타깝게도 세계 대부분의 어장이 50년을 못 버팁니다. 알래스카 연어 어장이 속한 미국 서부 태평양 해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어려워요. 참치는 고갈되고 있습니다. 황새치는 대서양에서 사라졌고 태평양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죠. 또 다른 예는 목재입니다. 한국은 열대우림의 목재를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대부분의 숲은 30년 안에 사라집니다. 쉽게 꺼내 쓰던 화석 연료도 고갈되니까 바다로 더 멀리 나가고 더 깊이 파들어가죠. 또 다른 예는 물이에요, 담수. 소금물을 가져다 염분을 제거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 또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써야 하니까 안되고요. 지금 세계 강물의 85%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라고 해봐야 아이슬란드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주 외딴곳이니까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물전쟁이 터질 만큼 위태롭습니다. 다뉴브강을 두고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충돌했고, 시리아와 터키도 그랬어요. 중국과 베트남, 태국까지 히말라야 고원에서 오는 물 때문에 갈등이 깊어질 조짐입니다.<br/><br/>안 = 마지막 물고기를 잡고서야 돈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인디언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불 붙은 집 안에서 이윤과 성장을 담보로 한 내기장기에 정신이 팔려 있구나 싶은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비관적인 예측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현대문명은 기술 발전을 통해 많은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br/>다이아몬드 = 그래요. 기술은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에너지를 예로 들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기술도 나왔죠. 덴마크에서는 20%의 에너지를 바람으로 만들고, 독일 서부와 스페인 북부에서도 풍력 발전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80% 가까운 에너지를 핵발전으로 생산하고, 캘리포니아 남부는 태양열 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염 문제도 풀고 있죠. 하지만 이는 기술이 갖는 좋은 면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 나쁜 면이 있습니다. 바로 부작용인데 세상에 완벽하게 좋은 기술은 단 한번도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냉장고에 쓰는 냉매가 유독해서 가스가 새어나오면 사람이 죽었어요. 밤에 자러 가면서 걱정을 했죠. ‘냉장고가 새면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없을 텐데’ 하고요. 그 와중에 굉장한 기술적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1940년대에 프레온이 발견된 겁니다. 사람이 죽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기술 혁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뒤집혔어요. 그것도 2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프레온 가스가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입니다. 프레온 가스는 금지됐습니다. 자, 이제 제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작동시킬 에너지 발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바람이나 태양, 핵발전처럼 더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br/>기술 발전 폐해 알았다면<br/>지속 가능 에너지 찾아야<br/>환경정책 거부만 말고<br/>정치인이 결단 내려야<br/>안 =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가운데 핵발전을 거론하셨는데요. 대기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많은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방사능이 유출되면 치명적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식품 오염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면서 탈핵 요구 등 저항감이 높습니다. <br/><br/>다이아몬드 =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역시 비극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핵발전소가 없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화석연료를 태웠겠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끔찍한 대기 오염을 유발합니다. 중국의 오염된 바람이 한국까지 불어오잖아요. 저는 후쿠시마의 비극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생활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고통받고 있어요. 베이징 도로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평균수명이 42세입니다. 거리에서 들이마시는 공기 때문에 폐 관련 질환으로 죽어가죠.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br/>안 = 핵발전소가 필요하도록 조장하는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말씀인데요.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면 자연히 발전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br/>다이아몬드 = 유럽인들은 미국인들이 쓰는 에너지의 반만 소비합니다.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을 닮을 수 있다면 미국의 화석연료 소비는 반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정치적 결단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환경정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br/>안 = 나쁘다고 정의되는 일들이 세상에 기여해 온 업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파괴를 동반한 산업화의 결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다른 결핍에서도 벗어났죠. 저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여는 있다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싼 소비를 통해 생활의 편리를 얻을 수 있었죠. 중국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철강 생산에 제동을 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생산 감소로 미국 철강회사의 이윤이 늘고 값도 올랐어요. 중국 대기가 맑아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집니다. 1%와 99%가 대결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함께 감내해야 하는 불편은 수치로만 평등합니다. 실제 고통은 가난하고 불안정한 약자의 등을 먼저 휘게 만들죠. <br/>가난한 나라 분노 생기면<br/>부자 나라에도 문제 발생<br/>그 예가 소말리아 해적<br/>그들 공격 멈추는 방법은<br/>정직하게 살도록<br/>나눠주는 원조가 유일 <br/>다이아몬드 = 그래요, 우리 삶의 표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어요. 당신과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소수의 농부들이 키워주고 있죠. 미국에서는 인구의 2%인 농부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서 98%를 다 먹이고도 세계로 수출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항생물질 덕분에 병에 걸려도 죽지 않고 치료가 될 거예요. 내 이야기는 우리가 현대문명을 배척하거나 항생제를 버리고 다시 감기나 천연두로 죽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br/>안 = 지속 가능한 경제란 무엇을 말하나요.<br/>다이아몬드 = 생산에 맞춰 소비하는 겁니다. 알래스카 연어 어장이 예가 되겠죠. 미국 자연산 연어는 거의 알래스카에서 잡힙니다. 연어잡이 어부들은 정부가 알려주는 어획량만큼만 잡습니다. 매년 야생 연어의 숫자는 비슷하게 되죠. 반대의 예는 지중해 참치입니다. 참다랑어라 불리는데 일본에서 최고의 횟감으로 큰 건 1억원이 넘습니다. 자, 이쯤되면 일본 사람들이 참치초밥을 무척 사랑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유럽에서 지중해 참치 어장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자고 토론할 때 일본 사람들은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일본은 참다랑어를 먹지 못할 겁니다. 세상 모든 어장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한다면, 우리는 스티븐 호킹 말처럼 앞으로 1000년은 넉넉한 해산물을 갖게 될 겁니다. <br/>지속 가능한 경제는<br/>생산에 맞춰 소비하는 것<br/>지중해 참치어장 지속성<br/>일본인들이 앞장서 반대<br/>그 결과 5~10년 안에<br/>참다랑어 못 먹게 될 수도<br/>안 =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산소탱크를 사서 오염 안된 공기를 흡입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는 소득에 따라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의 논리라면 물건값은 큰 폭으로 상승할 거고요. 기존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욕망은 그대로인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br/><br/>다이아몬드 = 맞아요. 부자는 참다랑어를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5년 안에 끝납니다. 당신의 질문은 바꿔 말하면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지 않을까’인데요.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들도, 가난한 이들도 즐기지 못할 것들이 늘어갑니다.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1%의 미국인들이 80%의 부를 가졌습니다. 나라들 간에도 비슷해요. 한국은 1인당 평균 소득이 대략 2만5000달러인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는 500달러죠. 한국의 수입이 가난한 나라의 50배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훌륭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 풍부한 해산물을 즐겨요. 수도꼭지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죠.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화났다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분노한다고 해서 미국에 지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2001년 9·11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의 가슴에 분노가 일렁인다면 이는 반드시 부자 나라에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한 가지 예가 소말리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부마저 무너졌어요. 그들이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배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유럽의 상선들, 미국의 상선들…. 그리고 그들은 해적이 되었습니다.<br/>안 = 한국의 배도 여러 차례 납치를 당했습니다.<br/>다이아몬드 = 소말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문제를 일으켜 돈 챙기는 법을 발견한 거죠. 소말리아인의 공격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원조입니다. 그들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돕는 거죠. 한국 배를 잡아 인질을 삼는 대신 정직하게 일하며 먹고살도록 이끄는 겁니다. 부자가 자신이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좋은 이기심이 이것입니다. 이제 가진 것을 지키려면 나눠야 해요.<br/>안 = 1% 지배층의 자기 보호 방법은 ‘함께 살자’는 99%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함께 살자는 생각이 권력의 카르마(업)를 멈출 수 있겠네요. 그 누구보다 긴 역사를 다루어 왔는데 역사적으로 문명이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요. 절정에 오른 문명이 극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왔습니다. 문명 자체가 고도의 발전인데 급격한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역설적입니다. <br/>지도자의 역할은 <br/>사회의 안녕을 만드는 것<br/>모두가 안녕해야지 <br/>그들만 안녕해서는 안돼 <br/>다이아몬드 =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역사 속에서 왜 어떤 사회는 몰락하고 어떤 사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을 이뤘던 마야 사람들이 대단한 천문학과 문자, 사원 등을 가졌을 때 왜 무너졌을까요. 마야 왕들이 뿌려놓은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계속 굶주리고 헐벗어 가는데도 그들의 생활은 품격이 있었어요. 결국 지친 마야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타도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선거에 몰두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은 괜찮아도 사회를 몰락으로 이끄는 과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LA에서 제 평생에 두 번 시민 소요를 봤습니다. 하나는 1960년대 LA 다운타운 흑인 동네에서 일어난 왓스 폭동이고, 또 하나는 방화와 파괴가 넓게 자행됐던 1993년 로드니 킹 폭동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 상점들이 화염에 휩싸였죠. 가난한 사람들이 빈민 지역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비벌리힐스의 부자들은 집이 불에 탈까봐 두려움에 떨었고요. 경찰은 뭘 했을까요. 길에다 노란 폴리스라인을 둘러치더군요. 그래도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로 비벌리힐스를 불태우려 했다면 했을 겁니다. 그때는 분노가 충분히 타오르지 않았기에 소강되었습니다. 만약 100만명의 시민이 나선다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상위 1%에 맞서 99%가 일어난다면 비벌리힐스는 사라집니다. 답은 지도자들의 역할에 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해 살겠다면, 권력을 잡은 1%만 행복하고 99%가 불행하다면,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사회의 안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두가 안녕해야 합니다. 그들만 안녕해서는 안됩니다. <br/>안 = 선생께서는 문명사에 대한 저술을 발표하다 어느 시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생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낳은 다음 더 민감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지구 살리기 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br/>다이아몬드 = 나는 쌍둥이를 두었어요. 1987년에 태어나서 26세입니다. 언젠가 지금 우리 둘이 나누는 주제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2050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러는 거예요. 2000년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예순셋일 테니까요. 2050년은 상상 속 숫자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AD 3200년처럼요. 그런데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2050년이 현실로 와 닿았습니다. 내 아들들이 예순셋이 되는 실제상황인 거죠. 당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딸이 여섯 살이잖아요. 2007년에 태어났겠네요. 2050년이면 마흔셋이고 우리가 다 파괴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2050년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아이티처럼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하수시설도 없을지 몰라요. 아니면 소말리아 사람들이 자동소총으로 배를 해적질하는 대신 핵무기를 들고 한국이나 미국에다 핵폭탄을 떨어뜨릴지도 모르고요. 큰 기업들의 지도자들이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쉐브론 최고경영자한테 언제부터 신경 쓰게 된 거냐고. 딸 이야기를 합디다. 집에 가니 열세 살 딸이 묻더랍니다. “엄마는 환경을 위해 오늘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환경? 난 그 말만 나와도 괴롭다. 환경이 뭐가 중요한데. 시간낭비 말고 공부해라.” 딸이 퍼붓더랍니다. “엄마는 한심해. 엄마가 세상을 망치고 있어. 엄마랑 말 안 해.” 그래서 바뀌었대요.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지키려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가슴으로 느낀 거죠. 당신의 한국 지도자들, 신문을 읽을 경제를 책임지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살 50년 뒤의 세상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안녕한 생활을 하든, 지중해산 참다랑어를 음미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안녕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br/><br/>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77) 45년 걸어온 생리학자 길 접고 인류문명 발달 연구 몰두<br/><br/>미국 UCLA 지리학과 교수. 그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는 생리학에서부터 진화생물학, 조류학, 지리, 역사, 환경까지 광범위하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66년 UCLA 의과대학 생리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그러다가 65세 되던 2002년, 45년 동안 이어온 생리학자의 길을 접었다. 지리환경 비교사학자의 길에 몰두하기 위해서다. 이런 삶의 전환은 28세에 떠났던 뉴기니 섬 여행에서 비롯된다. 그는 뉴기니 말을 배워가며 생리학 못지않게 인류문명 발달 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 같은 무게로 두 길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br/>한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청소년기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등을 배웠고 20대 중반에는 열두 번째 언어인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인터뷰를 하던 날도 오전에 2시간 동안 이탈리아 문학작품을 필사했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새를 관찰하며 걷는다. 새들이 보여주는 미미한 변화 속에서 지구의 환경을 되살리고자 한다. <br/>미국예술아카데미, 미국과학아카데미, 미국철학협회 회원이고 환경 분야의 업적으로 타일러상, 국립과학메달을 수상했다. 대표 저서로는 문명사 3부작이라 일컬어지는 <총균쇠>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가 있다. 특히 <총균쇠>는 1998년 퓰리처상과 영국 과학출판상을 수상했다. <br/>안희경(43) 서구의 성찰적 기운과 대안 활동 집필<br/>재미 저널리스트. 불교방송 PD로 시사·교양·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1998년 한국방송대상 교양 우수작품상, 2000년 한국방송대상 연예오락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2002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서구에 부는 성찰적 기운과 대안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써왔다. 윌리엄 켄트리지, 다카시 무라카미 등을 인터뷰한 <현대미술 거장과의 만남>(2010), 노엄 촘스키·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등 세계 석학 7인과의 대담집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2013)를 출간했다.